

2018年度

議會會議錄



莞島郡議會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나.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둘.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셋.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넷. 완도군의회 의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제7대 완도군의회

■ 제7대 완도군의회 의원

정수	가 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나 선거구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다 선거구 (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비례 대표
9명	김동삼 박성규 박인철 정관범	박종연 조인호	서을윤 박관철	천양숙

■ 제7대 의장단 구성 현황

구 분		의 장	부의장	재임기간	비 고
제7대	후반기	박종연	서을윤	'16. 7. 1. ~ '18. 6. 30.	

■ 제7대 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의회운영 위원장	행정자치 위원장	산업건설 위원장	위 원	
후반기	조인호	박인철	박성규	김동삼 정관범	박관철 천양숙

제8대 완도군의회

■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정수	가 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나 선거구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다 선거구 (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비례 대표
9명	박재선 박인철 이범성 최정욱	조인호 김양훈	허궁희 김재홍	우성자

■ 제8대 의장단 구성 현황

구 분		의 장	부의장	재임기간	비 고
제8대	전반기	조인호	허궁희	'18. 7. 2. ~ '20. 7. 1.	

■ 제8대 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의회운영 위원장	행정자치 위원장	산업건설 위원장	위 원	
전반기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이범성	김양훈 최정욱

목 차

I. 제25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9
개회식	11
제1차 본회의회의록	13
제2차 본회의회의록	49
제3차 본회의회의록	69
제4차 본회의회의록	96
제5차 본회의회의록	10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11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14
 II. 제25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131
개회식	133
제1차 본회의회의록	134
제2차 본회의회의록	139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50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60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94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6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59
 III. 제25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303
개회식	305
제1차 본회의회의록	307
 IV. 제25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317
개회식	319
제1차 본회의회의록	322
제2차 본회의회의록	345
제3차 본회의회의록	378

제4차 본회의회의록	413
제5차 본회의회의록	433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441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453

V. 제25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469

개회식	471
제1차 본회의회의록	472
제2차 본회의회의록	477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48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495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550

VI. 제26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627

개회식	629
제1차 본회의회의록	630
제2차 본회의회의록	632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63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650

VII. 제26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655

개회식	657
제1차 본회의회의록	658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662

VIII. 제262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671

개회식	673
제1차 본회의회의록	674
제2차 본회의회의록	677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68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689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695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715

IX. 제26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731

개회식	733
제1차 본회의회의록	734
제2차 본회의회의록	895
제3차 본회의회의록	971
제4차 본회의회의록	1036
제5차 본회의회의록	1102
제6차 본회의회의록	1157

X. 제26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1191

개회식	1193
제1차 본회의회의록	1194
제2차 본회의회의록	1197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207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215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241

XI. 제265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1245

개회식	1247
제1차 본회의회의록	1248
제2차 본회의회의록	1254
제3차 본회의회의록	1257
제4차 본회의회의록	1269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27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30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314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349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396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446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506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525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638
제1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669

제25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5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2월 06일(화) 10시00분

제25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 회 사
6. 폐 식

(10시00분 개식)

□ 의사담당 최광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완도군의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다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뒤로 하고 2018년, 무술년 첫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의 투명한 감시자로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부조리와 소통부재로 인한 사회전반에 걸친 계층 간 갈등이 극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부조리와 바꿀 합리를 개선시키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이 정치권의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국내외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 노획읍과 보길면 주민들께서 극심한 가뭄으로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의기투합하여 군민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군민중심의 군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완도군이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55회 임시회는 2018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를 심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7대 의회가 막을 내리고 제8대 의회가 새로 출발하는 시기인 만큼 지방자치의 원칙을 지키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집행부에서 계획된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군민들과의 생활현장에서 접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간파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한해의 살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마음자세로 책임과 소신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권익을 위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성실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최광윤

이상으로 제25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7분 폐식)

제25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2월 06일(화) 10시07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 기획예산실
 - 주민복지과
 - 자치행정과
 - 세무회계과

□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5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 기획예산실
 - 주민복지과
 - 자치행정과
 - 세무회계과

(10시07분 개의)

□ 의장 박종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의회사무과장 유대성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9일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완도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8분)

□ 의장 박종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인철 의원과 천양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인철 의원과 천양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292호와 제2293호의 서류를 참고하여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92호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293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는 군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추진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제2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실과소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토록하고, 이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연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기획예산실장 서현중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등 16건입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기획예산실 업무를 들었습니다마는 완도군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정회를 한 후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것 아시죠? (예)

모 주간지 1월 5일자 1면을 보면..... 설 군 이래 이런 사과문은 처음 봤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군수의 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처리하는 모든 공문은 군수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입 9급이 들어오더라도,

그런데 완도군청 예산계로 이렇게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1,000여명의 공직자 얼굴에..... 먹칠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것도 완도군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발생했다는 것도 도저히..... 실장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모 신문에 지적기사가 몇 번 났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용역 과다 남발이라든가. 그리고 예산..... 추경예산서 사전제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 부분이 좀 안 돼가지고, 서로 오해가 있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좀 마찰이 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서로 만나서 오해를 잘 풀었고, 그것은 문제가…… 잘못된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소통이 잘 됐으면 그 것으로 끝나야 되지. 신문 1면에다가 이렇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 문제는……

□ 박인철 의원

잠깐만요. 기획실장님도 아니고, 군수님도 아니고, 예산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과문이……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이런 행정이?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것은 깊이 있게 제가 말씀하기가……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그 부분이 예산계장하고 서로, 말 가지고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하고 비롯된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서로 취재기자하고, 보니까 상당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고 한 부분이 사과문이었는데…… 그 사과문이 우리가 작성한 사과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깊이 있는 것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명칭에 완도군청 예산계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과문은, 예산계에서 작성을 안 하고 기획실에서 작성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아니, 예산계에서 그 사과문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사과문이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사과문을 수정해서 드렸는데, 그 사과문이 아니고, 현재 보도된 사과문이 나간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실장님, 이것은 진짜 안 맞는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나오게 된 것까지에 대해서는……

□ 박인철 의원

이런 사과문, 우리 군청 예산계…… 이것은 완도군수 신우철,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 똑같아요. 이런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또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은 이 사과문을 듣고, 한번 실장님이 알아보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양양, 이런 것에 대해서?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취재기자라든가 편집국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물론 이 신문에서 계속 우리 예산에 대해서 나왔습니 다마는 그러면 정정보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정당하게 무엇이라도 해야지, 이런 사과문을……

그리면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을 의원들 8명이 예산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부터 모든 것이 다 이 사과문에는…… 다 함 목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아무튼……

□ 박인철 의원

제가 생각을 잘못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탓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예산계장 개인하고 관계된 일이지. 이렇게 좀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실장님,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하고 됐으면 개인 누구로 나가야지. 완도 군청 들어간, 이 자체부터 지금 잘못되었어요. 이런 것이 나갔으면 한번…… 시내에 우리 주민들과, 또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직원들도 이것,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 역사에 이렇게 해가지고. 1개 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1년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계에서 이런 사과문이 나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아무튼……

□ 박인철 의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행동이나, 또 공무원 개인 생각이 아닌 우리 군수님, 아니면 실장님, 이렇게 심도 있게 해야지. 이렇게 나가 버리면, 이 차후처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오늘도 보니까 3월 며칠부터 1회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게요.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2.0추진하고 있죠? (예)

그 추진계획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이해가 안돼요. 보고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지난해 7월 지역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되었는데. 지금쯤이면 단위사업

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고회, 보고서, 세부적인 플랜이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적정인구는 얼마라고 생각하며,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지금 세부계획은 5개 분야 22개 과제로 정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지난해 말에 민간인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14개 건의사항이 제안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10건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검토 중에 있고. 4건은 이것을 채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완도군 적정인구는…… 저희들이 한 5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한 2.0명은 되어야 된다, 대체출산율이. 두 사람 이상은 출산을 해야지, 현재 5만 명 유지를 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인구늘리기를 증가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를 제로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11월 달에 민간협의체에서 14건의 제안사항이 있는데. 금방 실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적어져 있으니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예,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기획실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그 등재하고 있죠? (예)

어떻습니까? 새로운 관광자원하고, 타차치 단체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특별한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네스코 생물 보전지역에 등재되면, 우리 군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또 어떤 단점이 있고? 전에 기획계장님이 우리 일상, 군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기구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우리 인류가 보존·보호를 해야 될 문화·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생물권보전지역도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해서, 아주 생태계가 뛰어난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우리 행위제한……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행위제한은 전혀 없고, 국내법에 그동안 행위제한에 의해서 관리될…… 그 국내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을, 또 자연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지, 다른 행위제한은 일체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아무 걸림돌이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곳이 다섯 곳으로 알고 있는데, 등재 후, 그 지자체들의 마케팅실적 및 관광실적,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용역중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가장 최근에 된 데가 고창이…… 2013년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됐는데, 고창은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저도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왔다 갔다 보면 입간판이 크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효과도 있고, 그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서, 에코라벨 상표

를 부착해서 판매를 하면, 그 농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좀 부가가치가 있고, 또 이것이 생태관광 활성화라든가, 지역청정 이미지에 굉장히 큰…… 그런 브랜드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고창도 상당히 지정되어 가지고,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데 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이것이 3차 년도가 2021년이죠? 마지막 그 계획이, 우리가…… 국제 뭐 조정해 가지고 이사회 심의,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저희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2021년 등재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우리 군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헬스케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이런 해양헬스케어라든가, 보길도라든가, 청산도 구들장 논, 여서도 돌담, 이런 것들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이 전부 생물권보전지역, 이런 부분이 해양헬스케어산업을 하는데 시너지효과를 같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효과가 좀 나오도록, 왜 그러냐면 유네스코에서 우리 자연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너지효과가 나오도록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요. 요즘 우리 군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는데, 청렴다짐을 했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군이? 우리가 잘하다가

도 꼭 한 건씩 터져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던데, 실장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청렴우체통, 청렴엽서제, 또 익명으로 신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지난해 저희들이 국민권익위 청렴도조사를 했는데,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외부청렴도가 11단계 하락을 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그래도, 7.72점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서 19위에서 16위로, 이렇게 수직상승을 했는데, 외부청렴도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만 잘 나왔으면 우리 군이 2등급 정도 종합청렴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의 계획은 공사관리라든가, 인허가 부분에서 상당히 청렴도가 낮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공사 관리·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약 단계에서부터 전화를 해서 “혹시 금품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또 “향음 제공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떻습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청렴다짐 핸드프린팅을 제작하여서, 군청 현관에 로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공직자들이 핸드프린팅을 해 가지고, 청렴다짐. 볼 때 마다 청렴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그 대상으로는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타시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18년도 예산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죠?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예, 주민참여 예산학교.

□ 박인철 의원

그것을 할 때 예산운영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각종 축제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효율적이면서도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지금 말들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예산을 할 때 민간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학교를 운영할 때 청산슬로깅 축제라든가, 장보고수산물 축제, 가을빛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꼭 예산하면, 저희들도 마 찬가지고, 마을에 보면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들이 새로 되면, 그 마을에다가 도로를 놓고 방파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문화, 생활 쪽으로도 예산이 활용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정관범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법 의원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들어서 공식적으로 처음 자리를 하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편안하게 군정시책 방향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1쪽을 보면 군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파트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지금 조례법을 검토하고 있어요. 무엇을 검토하고 있냐면 지방자치학교를 같이 운영하자. 그래서 예산은 물론이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장 하위법인 조례법에 대해서, 또 의회의 기능인 감사, 조사,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대군정 질문 예산심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군정전반에 걸쳐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고 학습하는 그런 종합적인 체제로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일단 저희들이 완도군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금년에 처음…… 한번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한번 운영해보고, 그런 부분이 효과가 좋다면 아까 말한 주민자치학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법 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해보시고,

본위원이 조례법을 통해서 지방자치학교 개설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접목해서 예산도 같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그런 지방자치를 교육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나 지방자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방자치를 모르더라는 말이에요.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집행부와, 어떻게 군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다시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15쪽을 보면 청렴도 부분에서 외부청렴도가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저희들이 군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지난해 사업이라든가, 인허가 민원을 제기한 대상자한 5,000명 명단을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서 표본으로 430명이 표본 설문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공사 관리·감독 부분에 금품, 향음이라든가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의심된다. 이런 부분을 설문에서 답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미흡하게 나와가지고 외부청렴도가 하락했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계약 단계에서부터 준공금 단계까지 우리가 사후 모니터링을 해서, “혹시 담당자가 금품이라든지, 향음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전화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법 의원

이 부분이 외부…… 사장 기관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지난해에는 감점요인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 정관법 의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영향이 크죠?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예, 그 부분이 점수가 좀 있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징계처분이나, 이런 것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렇게 외부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통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거의 감봉 이상, 또 징계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법 의원

지금 징계양정 기준에 보면 공직 배제 부분은 없나요, 그런 부분에서?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 사안에 따라서 공직 배제 부분도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부분도 있는데.

현재까지 적발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된 징계 양성에서는 배제징계까지는 해당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 정관법 의원

아니, 어떻게 보면 시도부에서는 열심히,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명절선물도 군수께서 자제를 하고 있고, 또 부군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공직자들에게 파급되고 있는데, 유독 그 부분만, 우리 청렴도만 이것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 갑갑한 일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올해는 외부청렴도 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서로 선물을 안 주고 안 받게 하고 있고, 그것을 생활화하고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외부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런데 준 것보다도, 이렇게 줬다, 이것보다도 그런 의심이 든다는 이런 추측성으로 해서 설문……

□ 정관법 의원

아니 땀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 정관법 의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쪽을 보면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2.0 추진, 이렇게 했는데, 기구신설이 지금 언제, 2017년도에 됐죠?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예, 지난해에 됐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러면 이미,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뭘 종합대책보고회를 하는데…… 뭘 엉뚱한 소리만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것이 아닙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고품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고품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다자녀 여성공무원, 3명 이상 여성공무원 인사 배려나 우대라든지. 그리고 임시공무원 배려라든지, 이런 시책, 또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책들이 구체

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만 이렇게 해 놔버리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러니까 이제 21개 추진과제가 적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기록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도내 시군 인구 증감현황을 보면 해남이 인구증가율이 제일, 출산율이 2.42명으로 제일 높는데, 거기다 지난해 인구 감소는 1,517명이었습니다. 완도가 559명 감소를 했는데, 1.07%가 완도의 감소율입니다. 그런데 해남은 2.06%가 감소할 정도로…… 출산율은 출산율이고, 또 인구는 그만큼 감소를 많이 해 가지고.

□ 정관법 의원

물론 인근 군도 비교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군만의 고유의 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가 유지한다는, 5만 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를 유지해갈 것인가……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지금 그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첫째, 둘째 아는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1,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 정관법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둘째를 낳기 위해서 둘째에다가 좀 지원을……

□ 정관법 의원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전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주세요. 보고 좀 해주시고, 그래야 피부에 와 닿고 그런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이 한 장을 덧붙이더라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차원과 또 의회 홍보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정에 주요행사 보고가 군민들에게 보고하는 것. 그리고 의회 활동보고가 겨우 신문 쪼가리…… 신문지 상을 통해서 몇 몇 단편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찌다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기방송…… 어떻게 보면 공청, 옛날 공청이죠? 그런 채널을 하나 확보해서, 계속해서 내보내지는 못할망정 군정 주요행사를 한 달 단위면 한 달 단위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그것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고, 그리고 의회도 거기에 덧붙여서 군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녹화나 또는 생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확보도 하고 군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결국 그것입니다. 박인철 의원도 예산계 사과라는,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모든 것이 소통부재고 의회의 설득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직접 그 부분들을 호소할 수 있는,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녹화방송, 이런 부분은 일부 시군에서는 인터넷방송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의회에서 의회홈페이지에다가 연동시켜서 하고 있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의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연동시켜가지고 인터넷방송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러니까 본청이고 의정이고 간에 군민들

이 알아야 됩니다. 속속들이 알아야 이해도 하고 협조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루속히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예,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완도에 가면, 군외면에 있죠? (예)

군외면에 상징물도 잘되어 있고 홍보도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보는데, 장보고 개통 이후 강진에서 마량까지는 강진군에서 홍보가 잘됩니다. 그런데 마량 다리를 지나면 완도 고금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홍보가 전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 관문에 아치를 해서 건강의 섬 완도, 그렇게 해서 그쪽에 제1관문이 군외 쪽이고, 이번에 장보고대교가 개통되어 가지고 고금 쪽에 제2관문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아치를 제작해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완도 유입책으로 해서 홍보를…… 고금 쪽으로 해서 완도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호 의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데가 있죠? (예)

우리가 12개 읍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상물을 보통 제작하는 것을 보면…… 한 컷도 안 나오는 읍면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항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이번 홍보 동영상은 12개 읍면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배경까지 다 담아서 보고했던 것처럼 고화질로 해서 저희들이 3편으로 제작해서 금년 5월경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12개 읍면이 다 포함되어서 촬영되었습니다.

□ 조인호 의원

그것은 잘 알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식지를 만들죠? 명절 때 구정이나 추석에, 이 부분 소식을 만들 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군정 시책사항 같은 것하고 그다음 의회하고, 나머지 배려는, 12개 읍면에 배려를 하십시오. 그래야…… 노인당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제작하실 때는 군정홍보, 의회, 그 다음에 12개 읍면, 노인당의 노인들이 구독하기 좋게끔, 다 알아먹기 좋게끔. 이렇게 정보 소식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서울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윤 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드론 운용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드론산업이 4차 산업에 들어가지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은 드론이 상업용, 일반 레저스포츠, 취미활동이나 심지어 소량 물량 배달.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택배배달.

□ 서울윤 의원

택배배달, 또 농업용까지 다 전체적으로 쓰거든요. 지금은 드론이 실제로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폭넓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봐가지고 너무 좁지 않겠느냐. 정말로 그 시대상에 따라 가려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역점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드론산업을,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드론교육장이 완도로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되어야 되냐, 우리 군은 265개의 섬 유·무인도가 있거든요. 가장 드론이 필요한 데는 완도군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활필수품이, 완도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남…… 드론교육장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저는 영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윤 의원

영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인근…… 드론교육장이 있어요. 그래서 완도에 드론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교육장에 와가지고, 특히 우리는 도서 유·무인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폭풍비가 내려도 못하고, 적은 물건도 하나 배달을 못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앞으로는 드론산업이 뜨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 보니까 이것을 금년에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군정기록물이나 촬영하고, 그런 정도, 지금은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은 물건까지 배달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론교육장이 완도로도 한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드론의 활용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가 드론을…… 여기에서는 군정 기록물을 촬영하고 각종 현안사업 설명자료를 할 때 동영상 촬영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

다. 그런데 앞으로 드론은 산불방지 예찰이라든가 적조 예찰, 또 아까 말한 도서지역의 택배배달,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론교육장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한가, 여부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암에도 있기 때문에. 또 수요가 있어야 되고, 배우고자 할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한번……

□ 서울윤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시대적 상황인데, 어차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 지역으로…… 특히 낙후지역에, 또 오지지역에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이나 군사용으로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 발달했고 저희들 생활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4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좀 느낀 것입니다. 군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더 깊이 잘 알아야 되고, 또 군정이 잘 가야 군민이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 제안하려고 그러는데요. 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군정자문위원회는, 옛날에 그것이 운영된 것으로……

□ 서울윤 의원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예전에는 그것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윤 의원

그래서 군정 추진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라든가. 군민과 소통관계에서 여러 가지 자문도 여기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지원관리 등 29건입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한 후 14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양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양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복복지재단에 차상위층이나 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의 손이 꼭 필요한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이, 한 60억이 넘는 기금을 모였다고 야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선정되어 가지고, 돌아보니 너무 많은 곳에 있더라고요.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데가 잘 선정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았으면…… 행복복지재단 기금이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쓰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홍보나, 홍보보다도 많이 이렇게 선정되어 가지고. 또 알고…… 뭐라고 할까요, 많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유용하게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정도리…… 옛 그제 화재사건이 났죠. 그러는데 아흔 살이 넘는 분이 완전히 집이 소각되어 가지고 상당히 마을주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해서, 경로당 같은 곳에 가보니까 야까 방금 말하는…… 차상위도 안 되고, 기재를 받다보니까 그래 가지고 혜택을 못 받아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까, 그 두 가지. 화재가 난 것이고 두 곳에…… 제가 김란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발 빠르게 대처를 해 가지고 현장도 가서 잘 돌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가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사실 야까 기획실에도 얘기했듯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인구가 절감되고 있어서 심각하게 서로가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도서관,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도 아마 해 놓으면 규모 있게 잘 쓰이지 않겠느냐. 잘 이용하겠다는 생각에서 읍면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필요하겠단.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요양시설이 자꾸 화재로…… 많은 어르신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시설에 모든 점검이 꼭 필요하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잘 점검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요즘에 특히 명절 철, 같은 때에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알바를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가 운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각 단체회장들도 서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분야에서 바쁘고 또 시간되면 나가서 일하면 다만 얼마, 용돈이라도 벌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을 말할 때 상당히 꺼려하고 그래서 각 소단체별로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성…… 담당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여성자원봉사, 여성단체협의회를 잘 좀…… 한 번 더 관리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돌아가도록,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이 아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관심을, 여성단체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정관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법 의원

주민복지과 업무가 29쪽이나…… 보고서가, 그 양이 되도록 방대한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종목적이 군민복지이고, 군민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전직원들은 이런 막중한 사명감이 있음을 아시고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37쪽을 보면요, 완도군 종합복지관 증축관련해서, 현재 증축의 설계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나왔습니다.

□ 정관법 의원

설계도가 나왔는데, 그 설계도를 살펴보니 까 노인들 전용 목욕·샤워시설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종합복지회관을 중앙리 여자경로당하고 군내리 경로당으로 이렇게 1층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주변건물을 매입해서, 거기를 증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층, 2층을 신축하고 있는데 1층은 사무실 용도로 쓰고 2층, 3층에 남녀노인당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샤워시설은 없는……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샤워장을 거기다가 집어넣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법 의원

노인회, 관계자 분들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것이. 회원 전용 목욕·샤워시설이, 그러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복지회관 앞에 동아인쇄소하고 함평식당이 “건물을 팔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들은 두 건물만 사버리면 종합복지회관이, 어떻게 보면 시야도 트여지고 아주 규모 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매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앞의 건물 두 채가 가로막고 있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주차공간 활용이라

든가, 그 복지회관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아인쇄소하고 함평식당하고, 건물이 지금 별개로 두 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건물 소유주들의…… 팔려고 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 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정이 외에 주거이전비라든가, 영업보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면 무리겠지만 감정평가액대로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예, 그 부분에 큰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액대로 그렇게 매각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0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지난해 10월 달에 완도군 여성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성회관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 대상이라고 그러면 빈곤층, 말해서 특수욕구를 가진 자들, 정신·육체 장애자들이나 근로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그런 약자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원조나 서비스가 직접 1차적인 사회복지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여성회

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군민의 보편적인 욕구에 대한 공동적인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여성들이 설 수 있는 휴게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 여성회관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5개 읍면에 11개가 있습니다. 군외 종합복지회관에 여성회관이 하나있고, 그렇게 하면 12개인데, 그런데 특이하게 고금, 소안, 약산, 생일, 금일인데 금일이 마을별로 7개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여성회관으로,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발의해서 제정해 주신 여성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 범위를 압축해 놔습니다. 마을단위 여성회관이 아니라 읍면단위별 여성회관이라고, 이렇게 조례에 정리해 냈기 때문에, 이 여성회관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정의를 보면 여성회관이라고 그러면 “군 관내 읍면단위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 여가 프로그램 운영, 수익사업 활동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해 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단위 여성회관을 건립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단, 마을단위별로 이렇게 확대하지는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여성복지회관을 읍면에도 건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정관법 의원

복지업무라는 것이 갈수록 다양하고, 그 욕구가 아주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시대 조류에 따라 가야죠. 여성들의 참여라든지, 여성의 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해서, 이 부

분도 지원을 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을 한번 봐봅시다. 42쪽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인데, 여기 부분에 보면…… 제가 소안어린이집의 민원을 1건 접수했는데 소안어린이집에 원아수가 30명인데 놀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놀이터를 어떻게 지금……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소안어린이집은 작년에 안전문제로 어린이집 놀이터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다시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에 원아수가 상당히 많고 어린이놀이터는 없고 그래서 놀이터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놀이터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쪽 측하고 협의하고, 군비지원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을 보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서 살펴보니깐, 남산면 어린이들도, 학부모들도, 원아들도 와서 빌려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역시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쪽을 좀 넓혀서 놀이공간을 확보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지금 장난감도서관, 저기 문화예술의 전당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사실 비좁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을 대여해가고 고르고, 그런 공간으로써의 역할이 많지. 거기 와서 직접 장난감을 가지고 몇 시간씩 이렇게 놓고 가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근무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 정관범 의원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그 의도는, 고가의 장난감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 고가의 장난감을 배치해서 도시의 어린이들과 못지 않은…… 그런 장난감문화를 향후에 해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자동차를 운전도 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그런 놀이공간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넓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공간의 사정을 보면 평생교육실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여성댄스교실,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장난감도서관 공간으로 확충하게 하면 또다시 어딘가에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됐든, 공공건물을 앞으로 계속 짓게 되면 그런 데에다가 평생교육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배려하고 장난감도서관을 그때 가서 확장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범 의원

예, 좋습니다.

그 인구늘리기, 아까 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런 어린이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줌으로 해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복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완도하고 노화하고 있죠? (예)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완도는 위탁운영하고 있고 노화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노화는 그쪽 지도사들이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엇그제 개인사유로 1명이 그만두고 1명을 더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간을 제가 지난주에 현장 확인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또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을 갖고 노화 쪽에 굉장히 건물활용도라든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호 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본 취지는 완도읍에 있고 노화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동부권은 전무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호 의원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청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이렇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여러 개의 시설물을 한꺼번에 꼭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됐든 문화가 됐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완도는 특성상 완도읍 체도권, 그다음에 저쪽 소안, 노화, 보길 남산면권, 그다음에 동부권, 이렇게 세 개로 생활권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세 군데에 필요한 시설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꼭 이런 단위사업 하나하나보다 여러 가지 시설을 묶어서 종합적인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또 시설이 없는, 다른 분야의 시설도 같이 겸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호 의원

과장님의 생각도 맞는데요, 지역에 가보면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완도읍도 있고 노화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유치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의원

그런데 지금 노화나 금일에 공공도서관이 있죠? (예)

도서관에 학생들보다 주부들이나, 그 학부

형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난감, 조그마한 도서관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그 호응도가 좋을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좋은 생각입니다.

뭘니까, 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장난감도서관은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한 후에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도서관, 그 장난감을 돌리면 되겠더라고요. 완도에서도 쓰고, 또 금일에 간다든지 노화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옛그제 군수님이 오셨을 때 노화의 어르신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노화는 5,500명의 인구에 32%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도 건의를 하고, 올해도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화에서는 섬으로 이뤄졌지만 어르신들을 광주에, 목포에, 또 해남에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보면 거기에서 장례를 많이 치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완도까지 오시지도 않고 섬으로 들어오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한 번씩 가서 들여다볼 때 많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양시설이 어떻게 보면 크게 지으면,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마는 아까 계장님한테 여쭙봤더니 29인실 정도 지으려면 순군비로해서 약 7억 정도 든다고 그러합니다. 7억이면 우리가 봤을 때 큰돈일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로 봤을 때 큰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게이트볼장을 하나 지어도 6억, 7억 원씩 드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을 하는데 7억 원 정도는 군에서 충분히,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문화시설이든 복지시설이든, 완도 체도권을 다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연도·연륙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화…… 이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보길면 정자리에 로템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지난주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현원 16명, 16분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는가 다 물어봤더니 인근 노화. 보길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인근 노화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소안인가 한 분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소안-노화간 연도교가 완공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남산면 쪽에 그런 규모 있는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그 요양원의 국비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로템 요양원을 더 증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기존에 있는 요양원을, 기왕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군비가 됐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마는 별도의 부지를 또 선정해서 짓고 한다고 하면 7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그보다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겠죠.

□ 박성규 의원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연도교가 되고 그러면 소안, 노화, 보길의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노화만 해도 인구 수가 1,500명, 1,600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는 요양시설보다는 소규모라도 하나 검토해 보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러니까 로템요양원을 차라리 증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 박성규 의원

아니 별도로 하나 더 원하기 때문에, 노화 어르신들은, 보길도는, 증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는 선호도가 떨어지고, 또 보길도가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길도가, 그러다 보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노화 체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성규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는 그전에는 요양시설을 하는데 국비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최근에 국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면 15억, 20억이 들지만 29인 이하로 하면 7억에서 10억 사이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아마는 과장님께 두 가지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93년도부터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100세의 어르신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청려장을 증

정하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우리 군에는 4분이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100세 이상의 노인 4분이 계십니다.

□ 박인철 의원

4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지팡이의 유래를 보니까 통일신라시대 때 70세는 국장, 80세는 조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세 건강시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는 거동에 불편을 겪는 나이가 대부분 80세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군에서 장수지팡이 사업을 80세 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펼쳤으면 하는데, 보니까 90세 이상은 한 320명 정도, 인구가? (예)

그다음에 80세 이상으로 해 보니까 한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4,000명이 넘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정확하게 4,002명이더라고요, 정확하게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예)

또 한 가지는 타차치단제도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신문을 발간하더라고요,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청소년신문.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이 건도, 자라나는 우리 군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건도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먼저 장수노인지팡이 지원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들

로 대상으로 하면 지금 4,000명이 넘으니까, 한 3만 5,0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청려장 사업을 일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

□ 박인철 의원

100세 이상으로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는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지팡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목욕장비도 해줄 때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심의를 거쳐야…… 저도 알아보니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저런 절차들을 밟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써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에는 행복복지재단에 장애인…… 뭘니까.

□ 박성규 의원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구먼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보행기하고 지팡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

런 모든 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청소년신문은?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어린이청소년신문 관계는, 우리 군에서 직접 발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 박인철 의원

아니, 발행을 해도 되고 위탁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위탁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이번 추경에 한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연

서울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윤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노인목욕권,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70세 이상, 그래서 월 얼마씩 줘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월 2매씩.

□ 서울윤 의원

그런니까? (예)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왜 그러느냐, 지금 보니까 고금, 약산 주민들이 옛날 마량으로 다녔던 분들. 전부 완도나 신지 명사십리 스파랜드로 와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오냐고 그러니까

그 목욕권을 가지면 강진 마랑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도로 사람이 몰리고 신지로 몰리고, 이렇게 목욕권을 가지고 몰리면 나이를 더 낮출 필요도 있고 더 줄 필요도 있고, 조금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 그것 검토를 잘 해보세요.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하니까, 목욕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마랑으로 못가겠더라고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개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매가 나갔는데요, 한 분당. 배부는 7만 1,000매를 했는데 사용은 한 3만매 정도 한 것으로 해서 42%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직 50%가 안 되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장보고대교 개통과 더불어서 자꾸 홍보하고 이러니까, 누구나 목욕이 습관화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서 의원님 제안대로, 월 2매가 아니라 4매나 5매 정도로 늘려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 되겠죠,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서울윤 의원

그러니까 그게 나이를 좀 낮춰도 좋고, 좀 더 줘도 좋고.

그런데 고금, 약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 보니까 그것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수도 있더군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고금, 약산이나 다른 타지역 사람들도 목욕 때문에 완도를 나오게 된다.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시간은 업무계획 보고시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제시가 중요함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인구늘리기 정책에 있어서 인구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처방전이 나와야 한다라고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 실과소장은 업무보고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업무방향을 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연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내용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경제산업과에 일자리 안정자금 TF팀과 문화체육과 유네스코 지정 TF팀 설치를 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그분들이 담당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일자리 안정자금 TF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그 내용이고요.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우리 군의 가장 현안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뭐 업무, 특별한…… 그렇게 딱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TF팀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일자리 안정자금 TF는, 이것은 도에서 공문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시달됐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등재 TF는, 아시다시피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하고, 그다음에 보길 윤선도 원림 문화경관 등재사업을 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오전에 기획계에서 유네스코 생물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업무가 기획계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 그러면 이 TF팀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 설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유네스코 등재 TF팀을 말씀하십니까?

□ 박인철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업무가 좀 나뉘져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전체를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경관 쪽에 유네스코 등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나뉘져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있는 유네스코 TF팀은 생물보전지역하고 완전히 틀리다, 성격이 틀리다. 이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포괄적으로는 같은데 현재 업무추진상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고…… TF팀까지 만들었으면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획계에서도 이렇게 TF팀을……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모든 완도군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조직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군 전체적인 업무분장, 조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분장대로 업무들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당연히 업무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군

수님,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그때 말씀하기로는 부군수님이 TF팀 팀장을 맡아가지고 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그런 것 말고, 우리 군 사업으로써 부군수님이 TF팀장을 맡은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또 군수 명의로 해가지고 이 업무는 이 과는 보는데, 이 업무만큼은 저기 과로, 그 계에서 담당을 해라, 이렇게 해서 서류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지금 별도로 사무분장한 것은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죠? (예)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부군수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그때 도에 급하게 출장을 가셔서 못 오셨다고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의장님한테 인사하러 왔으니까 인사 끝나고 부군수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부군수님의 답변이 “이 TF팀장을 내가 맡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없죠? (예)

그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어떤 TF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시오.

□ 박인철 의원

우리가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 그 해상풍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인철 의원

아니, 해상풍력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것이 실무담당 과가 있고 계가 있고 그러는데, 그 과에서 벽차다고 하면 다른

과에서 맡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군수 명의로 댔든 무엇 명의로 댔든 간에, 정확하게 서류로 해서 업무를 분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사람 따라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을 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조직을 왜 갖추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부군수님이 기획예산실장하고 답변하기로는 “제가 TF팀장을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 업무만큼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TF팀이 만들어진 것도 없고, 없다는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마 그것은 TF보다는 부군수님께서 업무분장을 갈라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때 업무분장을 못하겠으면…… 부군수님의 답변이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팀장이 되어 가지고 그 업무만큼은 지켜나가겠다.” 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7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저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요.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는 정해진 사무분장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현재 금일권역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투자유치라든지 아니면 인적네트워크 활용면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인적네트워크, 투자유치, 다 좋다는 말이에요. 그리한다고 하면…… 그 건은 그 건이고, 또 다른 건이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군수 명으로 그러면 보내

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서류를 가지고, 아니, 투자유치가 사람 따라 가면 되겠습니까? 팀목이 있는 것인데,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 박인철 의원

좋아요,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그러하면 정확하게 그 업무를 경제산업과에서 빼 가지고 세무회계과에 주라는 말이에요, 군수 명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나중에 행정에 누가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잘못 되면, 잘 되면 상을 주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니, 이 업무만 제외하고…… 나머지 신재생업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과장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업무를 제외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과에서.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 업무도 우선 기초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오면 그냥 같이……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 업무가 꼭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될 업무 같으면…… 아니, 군수 명으로 주라는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에, 정확하게 서류를 가지고, 이 일만큼은 세무회계과에서 책임을 지고, 세무회계과에 대한 책임 하에, 또 어떤 세무회계과, 무슨 계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라고 하고, 그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추진사항을 정확히 저희들이 분석해서 별도로 조정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이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이 담당이 자치행정과장님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무엇이든 간에 의원들이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추후 보고도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전혀 말이 없거든요. 제가 알음알음 알아보니까 부군수님 TF팀은 하나도 없어요. 도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런 TF팀이 아닌 것은……

그리하고 저번에 질의답변 때도 부군수님이 뭐 하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이 끝나더라도 이 관계만큼은 꼭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나왔는데…… 인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인사가 있는데요. 요 근래 보니까 수시인사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인사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인사는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인사는 발생한 요인을 보면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장기병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지금 잠깐 사이에 수시인사가 3~4번이 있는 같은데, 이런 것도 참작해가지고 예측이 가능하게끔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 박인철 의원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관계를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동군수실이 들어와 있구먼요. 이동군수실, 2017년도에 봐보면 어업현장하고 농업현장을 방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소상공인들, 운수업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나, 또 질의답변 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동군수실 확대해가지고 너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균형 있게 가자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수 민원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건의사항……

□ 박인철 의원

이런 것들도 발굴해 가지고 군수님이나 아니면 실과장님들, 거기에 관련된 실과장님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들과 티놓고…… 이런 것들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전년도에는 어업현장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아무튼 다른…… 각계각층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전년도 같은데 가뭄도 심각했는데, 우리가 딱 2번인가 있었거든요. 농업현장방

문도, 그것도 읍면순회 갔다와가지고 군외면 쪽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러던데,

이것을 어느 한 군데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군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평화의 소녀상건립 건은, 저도 아픈 역사를 되새겨보고 또 우리 민족혼을 이끈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본과의 어떤 수출관계, 또는 이념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 주도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모금활동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차적으로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결론은 대도시나…… 다 민 주도로 하는데, 우리 가까운 인근 해남 같은 경우, 여러 군데에서도 관 주도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꼭 민이 아니고 관이 주도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다른 자치단체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관에서 주도하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민과 관이 함께 주도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시고요. (예)

우리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중점사항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우리 군의 사무원 대다수를 공무원으로 전환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공무원들의 급여체제도 호봉제로 전

환했죠, 호봉제로?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군비부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업무활용방안.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저희들 공무원이…… 34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방안으로 해서 전 부 업무, 사무분장을 전부 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제 대우도…… 우리 노동조합과 공무원 노동조합과 타결되면 적재적소에 배치할 해 가지고, 공공…… 공무원들도 업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잔심부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에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사무분장에 대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순군비 공무원들은 많은 처우개선이 되고 월급도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 군비 매칭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분들? 한 80여 명이 됩니까, 100여 명이 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제 국도비 공무원들도…… 일단 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은 됐습니다.

□ 박인철 의원

신분은 됐는데, 월급차이가 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급여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급여는 국도비 사업 지침을 저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호봉제가 아닌 직급제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차이가 조금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방안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어떤 데에서는 최대 월 100만 원, 이 정도의 임금격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해소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이?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과상여금에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래 가지고 봐보니까 적은 인원수도 아닌 데 국비가 거기에 이렇게 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 순군비로 하는, 그 공무원보다는 격차가 많이 나니까…… 한때는 이분들이 많이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현실이 중요한 것이니까 연구를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업무분장에 대해서, 주무담당 과장님이 시니까…… 잘해 주십시오.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우리

가, 그런 발전…… 풍력, 그런 것만 아니고 다른 업무더라도 꼭, 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가면 정확하게 서류로, 군수님의 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김동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삼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군수님도 가버리고 그래서 질의할 맛도 안 납니다마는 과장님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할게요.

1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친절운동 지속 추진이 있는데, 친절은 공직사회나 일반사회나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가장 친절한 곳이 금융기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은 아직도 미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착이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뭐 표창도 주고, 뺏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다, 그렇게까지는 평가를 안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친절이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의무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군에서는 상당히 의지를 갖고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삼 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회나

가정이나, 뭔가 모범을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 것을 이렇게 해서 따라야 되니까…… 간부들이 먼저 수범을 보이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직원들이 개인관계라든가, 대민관계로 이렇게, 뭐 하면서…… 좀 불친절하다든가 뭐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시정을, 또 불러가지고 해 줬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145억 8,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우리가 2016년까지 해서 150억을 목표를 정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도…… 미달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목표액을 200억으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는 언제까지 200억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때 이사회 의결할 때, 시기는 없고 그냥 200억으로……

□ **김동삼 의원**

아니, 시기가 없으면 2100년까지, 2200년까지 가가지고 200억을 조성하고…… 그런 시기가 없고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상향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지금 조성하는 템포로 봤을 때는 조만간에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동삼 의원**

언제까지?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기간은 없지만 지금 조성된, 이 템포로 봤을 때……

□ **김동삼 의원**

그러면 앞으로 조성할 방법은 어떻게 생각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독지가들한테 출연도 받고, 또 일부 군비출연도 받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삼 의원

그런 막연한 대답 좀 하지 마시고, 과장님.

진짜 지금 보면 장보고장학기금에 누가 관심을 안 가져버려요. 다 어디 행사장이나 어디에 가고 그러면 모 재단, 거기에다가만 하고 그러지…… 과장님이 어디 간부회의나, 그런 곳에 가서 “장학기금 좀 만들어 봅시다.” 라고 말 한 마디라도 해요, 간부들한테? 저기,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장은 떼땃하게 군수 앞에서 “무엇, 무엇 기금은 우리가 좀 조성합시다.” 라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말 꺼내지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니, 200억 조성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동삼 의원

옛날같이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기금을 다른 데에 낸다고 하면 우리 장학기금에도 내자고 형평성도 맞추고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사운영, 그 관계로 제가 한번 할게요. 조직개편은 대개 보면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죠? 앞으로 7월 달에도 할 것입니까? 계획하고 있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조직개편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계획 중에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하고 정원조정, 이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시

달되면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삼 의원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어떤 법을 어겼든가 규정,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제도 법제,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느끼고, 보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을 잘 구성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행정능률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통솔하는, 이런 면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닌데. 좀 잘해 보자고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퇴보되는, 이런 경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사무 이관이라든가, 6급 담당 명칭, 이런 것들이 부적합해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서무계가 신설되면서 평생교육담당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업무가 교류협력담당으로 가요. 그래서 지방교육이 아주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장학사업도 중요한데, 이제 어디 귀퉁머리에다가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소외되고.

제가 몇 가지, 그냥 예만 드는 거예요. 자, 문화체육과하면 그 과 명칭에 맞게 문화예술 플러스 체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평생교육담당이라고 가버렸어. 그리고 나면 문화예술, 뭐 이렇게 명칭 붙은 담당은 없어요. 문화재담당은 있지만, 그래 가지고 그 과의 고유의 업무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또 이런 스포츠산업담당이나 체육시설담당, 이렇게 구분은 했는데 인원은 늘려주지도 않고 계만 이렇게 나누어 뒀어요. 그러니까 업무만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대로 뭐가 안 되고, 서로 어떻게 보면 핑퐁도 쳐버리고, 또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 군수님이 들어서 가지고 수산분야에 이렇게, 비중을 두면서 해양수산정책과하고 수산양식과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군수는 생각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과를 2개로 나누고 계를 만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주민복지과도 지금 업무가 다양하고 그래요. 그러면 주민복지과는 6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담당이, 한 담당에…… 계장 빼고요, 계장 빼고. 평직원들이 1담당에 5 내지 7명이 있어요, 5 내지 7명. 그래 가지고 6급 담당 빼고 3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한 계에, 또 그만큼 업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양수산정책과는 5개 담당인데 행정선, 어장정화선…… 이런 것을 빼고 5개 담당에 직원이 11명입니다. 또 수산양식과도 5개 담당에 직원이 12명. 그다음에 이 2개를 합친데가 10개 담당인데, 달랑 직원 두 사람 있는 데에 7개 담당이나…… 달랑 직원 두 사람만 있어요, 7개 담당이. 또 3개 담당은 직원 세 사람. 그러면 이 두 과를 합쳐도 23명밖에 안 돼요. 주민복지과는 32명.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대과주의. 과를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해양수산정책과와 수산양식과를 합쳐서, 한 6개 계로 만듭시다 동시에 한 담당에 직원 수를 늘려준다는 말이에요. 그 업무도 가져오고, 방대하게 벌리지만 말고, 저는 그러면 조직이 더 효율적이겠다.

자, 군수가 이 해양수산양식 분야에 과장 두 명을 부르는 것보다도…… 해양수산양식과장을 오라고 해서 한 사람에, 딱 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식구가 많으면 뭔가 일할 기분이 나요. 우리 과도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해양수산양식과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4급을 거기다가 앉히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앞으로, 여기 군수가 좀 있었으면…… 제가 하는 말이 꼭 옳다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과장님같은 자리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정책과장을 계속 행정직

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직렬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직, 해양수산직, 시설직.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뭐냐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물론, 전문성을 1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 김동삼 의원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속 행정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직이 두 사람이나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데 왜 구태여 거기에다가 행정직만 이렇게 앉히느냐.

그러면, 어떤 규정에 위반된 것은 아니에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해양수산정책과장은 행정사무관도 갈 수가 있고, 해양수산사무관도 갈 수 있고, 지방시설사무관도 갈 수가 있고 지방농업사무관도 갈 수가 있어요. 또 수산양식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 행정직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에 큰 위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직렬을 중요시하고 싶다.

자, 그럼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도 지방행정사무관이 가고 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 농업사무관도 갈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도, 그러면…… 능력만 있으면 직렬 상관없이 시설직도. 지금 과장님의 자리에 가서 해 보고, 해양수산직도 가서 해 보고, 그래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행규칙에 보면 행정사무관은 무슨 과장이든지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흐트러져가지고…… 단지, 행정직 위주로,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해양수산정책과장을 계속 행정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물론 직렬을 배치할 때는 업무량이란지 업

무성격, 또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합니다.

두 번째는 인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인력이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가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 김동삼 의원

적재적소예요? 그러면 다른 직도 좀 자치행정과장으로는 갈 수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물론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규정상……

□ 김동삼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번 싹 바꿔 보시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삼 의원

그러니까 해양수산직이, 뭐 이렇게 민원봉사과나 다른 곳에 근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자기 직렬에 관계없이 하는 것도 경험을 쌓고, 또 보람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좀 무시하는 것도 같아요. 평생 그 직에 대해 해오면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살려줘야 그 부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하고요, 좀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6급 무보직이 군청 산하에 몇 명이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지금 33명 있습니다.

□ 김동삼 의원

아니, 엇그저께 자료가 왔는데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33명이라고요? 분명히 완도군 수 명으로 해서 의회로 왔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동삼 의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6급 무보직으로 있다가…… 뭐 입니까, 직위승진이라고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보직……

□ 김동삼 의원

예, 직위승진. 그러면 6급으로 무보직으로 있다가 직위승진을 하는,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첫째, 전체 6급 중에서 직렬안배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중에 대상자가, 어떤 경력.

□ 김동삼 의원

경력이라는 것은, 무슨 경력?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승진했을 때, 6급으로 언제 승진했느냐.

□ 김동삼 의원

아, 6급 승진했을 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그것하고. 또는 소수직렬도 일단 배려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종적으로는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김동삼 의원

보면 행정직은 1년…… 그러면 직위승진

이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한 2년 11개월, 그리고 2년. 또 사서직 4년, 간호 2년, 또 의료기술은 4년 얼마. 이렇게 직위승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 인사에서 행정직 세 사람인가는 1년이 딱 되니까 바로 직위승진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행정직 중에서 6년이…… 6급이 됐는데, 된지가 6년이 됐는데. 여기는 왜 직위승진을 안 해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 행정직 6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본인의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동삼 의원

본인의 개인사정은……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여기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김동삼 의원

말하기는 뭐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요. 어떤…… 근무능력이 되어야 된다는가, 뭐 한다는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그런 말 같지만, 직위해제도 하고,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왜 직위승진을 안 시키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잖아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공무원 능력 없으면,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직장에서 생활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신상문제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삼 의원

그러니까 건강상으로 해서, 제가 휴직을 했다가 뭐 했다가. 제가 뭐라고 말을 하

겠습니까? 분명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뭐 해서…… 그러면 10년이고 언제고, 이렇게까지 놔둬버린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개인의 고충사항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존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삼 의원

자, 그리고요. 최근에 인사나,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 인사에 어떤 정립을 좀 하고, 또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는 6급이나 7급 승진해가지고 섬으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제가 사회복지 8~9급의 현황을 봤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읍면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직원은 2개의 읍면을 거쳐서, 한 4년 이상 해가지고…… 2개의 읍면을 거쳐서 주민복지과에 와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직원은…… 교통도 불편하지 않은데, 거기서 근무하다가 1년 만에 주민복지과를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인사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력관리상 어쩔 수없이 그렇게 배치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삼 의원

그러니까 좀 도둑질을 하더라도 안 들리게 하든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4년…… 한 2개 읍면을 거쳐서 군으로 이렇게 오는데, 같은 뭐로 해가지고, 1년 만에 온다든가. 이런 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잖아요. 한 2년 반이나 3년이나 그럴 때, 어디다가 살짝 끼워가지고 사인을 해버리든가 말든가 해가지고 그런 것은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객지에서 온 직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우리가 텃세라고 그럴까 뭐라고 할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채

를, 우리 군으로 해서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금방 말한 이런 사회복지직 중에서도, 우리 군이 아니고 저기 영암에, 출생지가. 그래서 저기 금당으로 보내가지고 한 4년, 다 되어가지고 포로시 신지까지 왔어. 언제 완도 주민복지과로 올라오려나. 그런 사람들의 부모들이 생각할 때 완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어떻게 보면 4년제, 그런 사회학과와 복지.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해 가지고 진짜 중증환자를 껴안고…… 그런 사람이에요. 일반, 다른 뭐로 해서…… 직원보다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우리 군으로 전입한 신규공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상 그렇게 차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더욱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신규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양양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한 실례로 저희들이 신규자들, 9급에 대해서 최저연수가 1년 반인데 1년 반만 되면 다 승진을 시켜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삼 의원

마지막으로요, 사무관 중 읍면장을 거치지 않은 간부는 몇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승진한 사람 말고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안 거쳤습니다.

□ 김동삼 의원

과장님은 안 거치시고, 또 어디 과장 한 분. 제가 알고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읍면에서 근무를 안 해봐서,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정을 좀 모르는 것은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저는 신규자 때, 직원 때 읍면에서 한 3년 근무했습니다. 읍면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동삼 의원

그래도 읍면장을 거쳐야만 지역실정도 알고 대민관계도 뭐하고 그러는데…… 어디 생일면장이나 한번 갔다 올 용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과장님도, 인사보직 경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공개 석상에서 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삼 의원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말하는 것은, 제가 그런 위치에서 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두부 자르듯이 인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한 51%는 잘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정관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의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우리가 지금 장학사업을 위해서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력 신장이 안 되는 이유를,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매우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학교에서, 도시학교에서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교사들, 그 교사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이 배치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규교사는 무조건 완도로 보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수십억 원을 쏟아 붓고 별 사업들을 벌이고 합시다마는 이것은 교육의 질을 아주 떨어뜨리는, 그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자, 신규자 비율.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파악해서 도 교육청에 쫓아가든지 또 시민사회단체 기관들이 건의서를 작성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징계교사 관련해서는 완도, 진도, 해남이 하급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를 받으면 이쪽으로 교사들이 발령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도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교사인사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정 시정이 안 되면 도 교육위원회까지 쫓아가서,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가서 한번 정중하게 하든지 소란을 좀 피우든지 해서 시정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파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조직의 사기를 붙여넣는 일이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 조직의 사기를 붙여넣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이 곧 대국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강조해도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범군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이렇게 차차 구분…… 파악하셔서 인사우대 정

책을 펼 생각이 없는지 대답 좀 해주시고.

현재, 결국 인구증가·유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그 현황하고 인사우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신한 여자공무원에 대한 배려방안.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다자녀공무원은, 우리 군에서는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발전이라든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우대해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자녀공무원들에 대해 근평할 때 세 자녀는 0.5점, 그 다음에 네 자녀는 1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일간 자녀돌봄 휴가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공무원 우대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역시 저희들이 근평할 때 한 업체에 유치를 했을 때는 0.1점, 그 다음에 MOU 체결할 때는 0.1점, 또는 투자대상자를 최초로 알려줬을 때 0.1점해서, 최고 0.5점까지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더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공무원 배려방안은, 먼저 임신을 사유로 해서 저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다는 전제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간 휴가를 주고 있고요, 1일 2시간 휴식시간, 또는 월 1일 보전휴가, 이것을 주고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아무튼 인사규정하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 투자유치 공무원에 대해서, 그 부분들

이 금액에 따라서 가점이…… 차등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금에?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유치금액에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줄 때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 정관법 의원

확실하게 구분됐어요? (예)

그리고 다자녀여성공무원들 경우에, 결국 근무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혜택이라든지 의료혜택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까운 데로 문화혜택이라든지, 의료혜택을 받기가 용이한 곳으로 전보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다자녀공무원 전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인사 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둔 부부에 대해서는…… 원래는 읍지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감지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려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 부분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성문화해서, 그것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구유지·증가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연

세무회계과장의 보고내용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2개 읍면에 공공청사, 읍면사무소가 대부분 낙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고금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고금, 보길, 노화.

□ 박성규 의원

그렇죠, 금일도 노후화되어 있고, 대부분…… 우리가 읍면순회를 가다 보면 공공청사가 오래 돼서 시멘트가 떨어지고, 금이 벌어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신규로 지은…… 최근에 지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최근에 지은 공공청사는 없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마지막에 금당이…… 86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86년이 됐으면,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 **박성규 의원**

그러면 다른 데는 30년이 훨씬 넘었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군외면을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지은 것 같습니다.

□ **박성규 의원**

군외면이요? (예)

그래서 저는 1년에 하나씩 짓는다고 해도 12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군비로 해야 됩니다.

□ **박성규 의원**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됩니까? (예)

정부에서는 이런 건물을 짓는 데는 지원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은? (예)

그래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뭐 2개, 3개는 할 수 없지만 시급한 데는 1년에 하나씩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긴급복지센터는,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 공공청사는 그렇게, 30년, 40년이 됐어도 손을 떼놓고 있어요. 전혀 하나도 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급한 데에는 하나 정도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숙소도 중요합니다마는 청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청사도 변해야 되고, 또 계마다, 과마다 장소변경도 해야 되고, 또 햇빛이 안 보이는

읍면 청사는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방향도 바뀌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님께서 공공청사를 1년에 하나 내지 2개 정도는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할 의욕이,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안 맞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이번에 노후된 노화읍과, 보길면하고 고금면에 대해서 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규 의원**

하여튼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선이 없는 읍면, 있는 읍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대부분 없고요. 생일, 금일, 금당만 행정선이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생일, 금일, 금당? (예)

사실 다른 데에는 행정선이 필요없죠, 육지로 되어가지고, 약산, 고금, 신지는 행정선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남산면은 행정선이 하나도 없어요. 소안, 노화, 보길에, 그러면서도 소안은 황간도…… 섬이 있고요. 보길은 예작도가 있고, 노화에는, 넓도가 섬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 **박성규 의원**

한 10개가 넘습니다, 섬이. 어룡도부터 해서, 후장구도부터 해서, 마한도부터 해서…… 한 10개가, 섬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선이 노화, 보길, 소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안, 노화, 보길에 공이 설 수 있도록…… 행정선 하나 건립을 요청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한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성규 의원

그리고 행정선은, 응급환자는 실어 나를 수는 없으나…… 필요할 때, 낮에는 행정선을 이용해서 응급환자를 해남이나 완도로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행정선을 하나, 노화에다가 하나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노화, 소안, 보길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산면에다가 하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성규 의원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박 종 연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인 철
박 성 규
김 동 삼
정 관 범
천 양 숙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주민복지과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안전건설과장 조평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공무원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2월 07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 민원봉사과
- 경제산업과
- 관광정책과
- 문화체육과
- 농업축산과

☐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계속)
- 민원봉사과
- 경제산업과
- 관광정책과
- 문화체육과
- 농업축산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종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추진 등 총 15건입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8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서길수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연근해 조업산단 완도항 유치 등 14건입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경제산업과장의 보고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양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이에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아니 5일장 현대화사업에 상당히 많은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드디어 이제, 5월 달에? 아까 여기 보니까, 5월 달부터 사업발주를 하신다고 지금 설명이.....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아니, 지금 사업발주가 됐습니다.

□ 천양숙 의원

됐어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주차장을 5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 천양숙 의원

그럼니까, 주차환경.....

아무튼 이것을 과장님이 계실 때 꼭 잘 정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그렇게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도 재래시장이 등한시 되죠,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요즘 같이 칼바람이 부는 이런 때, 우리가 잠깐 장을 보는 시간도 상당히..... 장갑을 꺼도 춥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릅니까? 반드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요.

거기 입구에 간단한 칸막이라도 설치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 추위에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현대사 진관 앞에, 어전골목이 있죠? (예)

거기도 바람이 상당히 불고. 또 저쪽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거기도 바람이 아무튼 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닐이라도, 아니면 어떤…… 요즘에 줄,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로 되어있는 것 있죠. 그거라도 좀 막아를 해 주시면……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 현장을 보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천양숙 의원

꼭 필요하지 않느냐……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알겠습니다.

□ 천양숙 의원

예,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한 가지 21쪽에 일자리 창출사업에요. 아까 한시적이지만 주부들이, 특히 명절을 앞두고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완도가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부들이 많이 일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일 알바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일을 하는데 그 인건비를 적절하게,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업주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혜택이 가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정관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법 의원

경제산업과 업무가 군민들의 삶과 직결되다 보니까 경제산업과 서 과장님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 신청을 하셨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가 거의 밑천이 안 드는, 그런 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공동어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 폐쇄조치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그러한 조업선단들이 완도라든지 진도 서망이라든지, 이런 데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이들이 계속해서 완도항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들이 얼음을 1만 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자담 8,000원, 보조 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 한 차에 2만 5,000원을 지금…… 하고 있죠?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5톤 물차요.

□ 정관법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음 보조…… 한 돈을 1,000원 정도 올려서 하면 어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조업선단, 모선 1척에 운반선 3척을 하면…… 계산해 보니까 1박 2일 동안 완도에다가 떨치는 돈이 한 6,5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고등어 선단은 그렇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영원히 계속해서 완도에다가 묶어둘 그 비책은, 결국 인프라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급랭시설하고 선별장하고, 제빙시설하고, 이런 부분들, 하루 빨리 갖춰서 계속해서 조업선단이 완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어선단 같은 경우는 해가림, 비가림 시설이 없어가지고, 선별장이 없어요, 선별장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고, 다양한 시책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실질적으로 연근해 산단이 완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비, 효과는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리적 여건이나, 그런 부분, 유통 부분에서 완도의 위치가 굉장히 최적지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만 제대로, 제빙시설, 급랭시설, 냉장시설만 갖추어진다면 부산 쪽에 가고 있는 그런 산단들은 자연적으로 완도로 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좀 바빠 서둘러서, 그것들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우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향으로 멀리 선단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마다 체크를 합니다마는 4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이렇게 완도향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20 내지 30척씩,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완도에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근해…… 썩썩이 해감으로써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필품들도, 시꾸미라고 그러던가요? 충무, 여수, 뭐 이런 부근에서 전부 자기들이 싣고 와요. 심지어 물까지 싣고 와서 직접 자기들이 충당한다는 말입니다.

완도에 펼쳐놓는 것은 쓰레기하고 사람 몸속에 나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데, 지금 시민사회단체, 완도변영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JC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집회를 하려고 한다. 들어오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이 사람들이 제주…… 서망에서 쫓겨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완도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 군에서 직접 나설 수는 없으나 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그것은 동감합니다.

□ 정관범 의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시민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서, 암암리에 이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완도읍 정책…… 엇그저께 정책토크시 제기된 문제입니다마는 농공단지 토취장, 이 부분이 용지였습니다. 거기서 흙을 파서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 과정에서 토지로 다시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치해 버린 결과…… 밭으로 기능을 할 수 없게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밭으로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제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그 비탈면, 장보고대상 밑에 비탈면입니

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쪽, 교통대책에 대해서, 구도심 활성화 대책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입구에서 일방통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양방통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상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입구로 연결된 중앙리, 서성리, 일차적으로 대중병원 입구로 연결된 도로를 확충해서 양방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2차 계획으로 저기 함평식당 앞에서, 구 함평식당 앞에서 다시 저쪽으로 빠지는…… 4차선 도로로 빠지는, 거기까지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 부분은 관련 실과, 또 경찰서,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여차피 그 부분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양방통행을 하려면 기존 건축물을 뜯어야 합니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비가 다소 소요될 것입니다. 그 부분 도심 활성화 차원, 재정비 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국비도 가져다가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정 정책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서울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윤 의원

경제산업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완도 해양생물 농공단지 분양관계를 좀 볼까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이 상당히 장기간입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분양공고가 나오고 또 분양단가가 결정되고…… 그런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서울윤 의원

사실 죽청 농공단지나 이번에 새로, 완도 군에서 했던 해양생물 특화단지로 해가지고 농공단지, 이게 완도의, 어떻게 보면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큰 축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청 농공단지나 해양생물 특화단지가 정말로 잘 돼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저희들이 분양하는 과정, 또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 심의위원회에서 잘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지금 공고 기간이고, 공고가 끝나면 분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제반시설 같은 것이 실제로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용수공급 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가 잘돼 있습니까, 지금?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장좌저수지 물하고, 그다음에 죽청저수지 물을 공업용수로 하기 위해서 이미 기본적인 구축은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주업체가 기초공사를 하고 공장을 지을 때는, 공업용수가 들어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미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 서울윤 의원

예, 죽청수원지를 말씀하시죠?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축청저수지.

□ 서울윤 의원

그것은 미리 준비를 잘하셨네요. 실제로…… 거기가 해양생물 특화단지고, 또 수산물 가공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올 계획도 있죠? (예)

그렇다고 보면 해수공급 시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 위치들이 공장이 들어오는 업체가, 지금 남측단지하고 북측단지하고…… 그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주업체가, 업종에 맞는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그 부분, 해소 관련 부분은 그때 별도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울윤 의원

기업유치가 상당히 우리 군으로서는 큰 과제예요. 그리고 분양이 잘되고 입주기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뒷바라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용수공급……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 해수공급을 바라는 업체가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문의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 서울윤 의원

그래서 그런 분야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서울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조류박람회 조직의 사무국장을 하셨죠? (예)

그리고 경제산업과가 완도군의 중심, 핵심 부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제 TV를 봤더니 '6시내고향'에 전복 홍보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6시내고향 스페셜'에 전복홍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주 나오는 것은 좋지만, 그 홍보가 다양하지 못하더라. 매번 하는 식으로 반복되더라. 배를 타고 나가서 미역을 베고 그물을 올려서 전복을 따고, 요리를 몇 가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더 다양하게 전복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박람회를 통해서 MOU도 체결했고 해외수출도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성과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은 광어가 잘되고 있고, 김도 잘되고 있습니다만은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매생이 한 박스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1,200원에…… 수수료까지 1,500원에 저희들이 이마트에 납품해 줬습니다.

□ 박성규 의원

그런데 그제 제가 어판장에 갔는데 어판장에서 1만 원씩 합니다, 한 박스에. 그러면 현장에서는 600원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어판장에서 1만 원씩 팔더라니까요, 그제 제가 갔는데. 그래서 매생이 값도 그렇고, 또 미

역값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톳은 계약해 놓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톳이나 미역이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생이도 심각한 문제고, 더불어서 전복은 어떻습니까? 전복은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다양한 가공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전복은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작년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20개짜리가 3만 8000원, 4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개짜리? 절반입니다, 절반. 2만 1,000원, 2만 2,000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지도 않습니다.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사정, 사정해서 큰 것 몇 광주리 더 준다고 하면, 또 1년짜리 합쳐준다고 하면 전복을 가져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복산업…… 해조류산업도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도 경제 중심에 있는 서 과장님께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홍보를 세워서 이 위기를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 주관 부서에서 인식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별히 완도의 전복뿐만 아니고 완도의 특산물 홍보 방식을,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중파에서 이렇게,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가고, 가장 중요한 것이 판매기 때문에 인터넷홈쇼핑을 이용한 홍보에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 박성규 의원

아무튼 완도에 기업유치도 중요합니다. 또 선단유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남 내 쌀 생산량하고 맞먹는 일조 산업인 전복산업이 무너지면 완도 경제는 무너지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완도는 수산군이 아닙니까? 그래서 각별히 해조류와 더불어 전복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MOU 체결은 하셨는데, 지금 MOU 체결을 하셔서……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MOU 체결을 미국,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저희들이 MOU 체결을……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한 것은 4개 나라입니다. 홍콩에 선화그룹, 그다음에 미국 LA에 한미경제개발연구소, 그다음에 일본 트루월드 재팬,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CMM 마케팅인데요. 현재 중국의 선화그룹이나 일본의 트루월드 재팬, 그다음에 싱가포르 CMM 마케팅을 저희들이 실제…… 작년에 수출계약을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금년에 수출물량이 더 늘어날 계획이고요. 또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활전복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캐나다까지 활전복 수출을…… 캐나다 식품처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캐나다 쪽도 활전복을 뚫어볼 계획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성규 의원

어떤…… 전복산업, 해조류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MOU 체결한 부분도 잘 관리하시고.

수출이 일부 진행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만 불 정도 수출을 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미국의 쇼 인터네셔널하고는 작년에 1,000만 불 계약을…… 3년에 1,000만 불 계약을 하고, 지금 작년부터 금년…… 금년 들어 그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4개 나라에, MOU 체결한 기업들과는 수출 물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규 의원

특히 홍콩, JS코리아, 이쪽에다가는 얼마 정도 수출을 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홍콩 선화그룹하고는…… 홍콩은 현재 42만 3,000불 수출이 됐고요. 아니, 4억 2,300만 원 정도의 한화로…… 그게 작년에 수출되었습니다.

□ 박성규 의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 수출이 지금, 한 2주 동안 수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통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2주 동안 일본 수출 길이…… 되지 않다고 말씀하거든요. 안 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시죠?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박성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경제산업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해조류와 전복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경제산업과에서 어떻게…… 서부발전입니까? (예)

MOU, MOA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현재 우리 군에서 MOU 체결한 곳은 코오롱 글로벌하고 남동발전, 그다음에 서부발전입니다. 그런데 당초 서부발전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 외에 코오롱글로벌이 진행하고 있는 풍력산업에 서부발전하고 전남개발공사가 파트너십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왜 물어보냐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업무보고에 세무회계과에서 금일해상풍력 개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것은 군에서 전략적으로 군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총괄부서는 전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 부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쪽 진행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인철 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무슨 전략적인 접근이 왜 필요해요, 과장님? 속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왜 업무를 이렇게 핑퐁으로 하나는 말이에요, 업무를 왜 내 주업무를 못 가져가죠, 주 담당 과장님이.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전체적인 전원사업 업무 컨트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알고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혀 모르던데, 우리 주무…… 담당 과장님도 이 건을 모르고 담당 계장님도 모르던데.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 후로 파악을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후로 파악을 했으면 업무를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느 것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어느 것은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군 업무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전체적인 컨트롤 업무는 당연히 경제산업과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경제산업과에?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경제정책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 박인철 의원

누구예요? 담당…… 아니 계장님은 빼고, 김용식 계장님 빼고, 이것을, 금일해상풍력을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담당한다고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전체, 전원사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모든 서류? (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과장님. 서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산업과에.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내가 분명히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우리 군의 중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군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가져와야 되니까,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서류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경제산업과에.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여기서 진행 중인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서류가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우리가 MOU하고 MOA까지 체결을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서류도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도, 저쪽에서도 깜깜하더구먼요. 경제산업과에다가 물어보면 주무담당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이 문제들이……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업무분장에 들어갔으면 업무대로 모든 행정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뭐라 할 그런 것은 없고……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가 여기는 놔놓고 이대로 간다고 하고, 지금 답답해요, 사람 따라 업무가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업무를 따라 업무가 가야지, 그래야 인사가 있고 뭐가 있어도 그 업무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퇴직을 해도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제 말이 틀렸어요, 과장님?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 박인철 의원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총괄업무, 총괄업무 그러는데, 지금 이 총괄업무가 경제산업과 파트에 하나도 없잖아요, 이 업무가, 그러면 총괄을 한다고 하면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 신문을 보고 MOA가 체결됐다고 해서 그 MOU 체결현황을 좀 보려고, 이것, 이 풍력이 오면 총 투자비 몇 %를 군에다 주고, 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 이익금을 몇 %를 우리 군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없었잖아요, 서류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런 것은 좀…… 업무부서들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업무가 부서를 따라 가야될 것 아닙니까. 사람 따라 업무가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되고 잘되고 떠나서, 내 말이 틀린 것 아니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파대비해서, 여기 내려다보면 축협 앞에 한파대비를 해 놔잖아요. 계속 올 기상은 3월, 4월까지의 춥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천양숙 의원님도 거기를 얘기했듯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 좀 잘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만큼은, 주무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관광정책과장 안봉일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20건입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될 순서지만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의 보고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점심은 맛있게 먹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잘 먹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저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21쪽을 보면 금일 명품 해변조성이 있죠? (예)

거기에 금일 해수욕장을 보면 옛날에 뭍니까, 해당화. 참 조성이 잘되어 있었거든요. 불라벤 태풍 때 훼손된 후 지금까지 복구가 되고 있지 않는데. 이번에 명품 해변조성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해당화 공원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이번 사업계획에 숲이라든지 공원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당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장보고대교가 개통된 후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신지 명사장하고 금일 명사장도 많이 찾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 명성을 찾게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명사장을 보면 뒤에 소나무 숲이…… 제가 수고에 다니고 그럴 때, 학교에 다닐 때 해양훈련을 하면 소나무가 작았다가 지금은 울창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금일도 소나무가 있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습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소나무가 클 수 있도록.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소나무가 생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토양이 좀 풍부하고, 유기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많아야 되는데 모래로 토양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성장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번에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성장 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그래서 신지 명사장은 모래가 와도 그 흙이 있어서 하는데…… 금일 명사장을 보면 거의 모래거든요. 그래서 환경산림과하고, 안 그러면 나무병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잘 한번, 협조를 해가지고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천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양숙 의원

페이지 9쪽예요. 완도수목원의 좋은 점을 말하고 싶어요. 완도수목원이 사실 완도 지역에 있어서 그렇지. 어떤 서울이나, 어디 근교 가까운 데에 있으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모두 인정하는데. 완도에 묻혀서 덜 빛이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라디오여행…… 언론인 관광, 언론인 대상을 받은 기자분이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이 남은 곳이 어디인지 굳이 말하려고 하니까 완도수목원을 댔다고 그래요. 이렇게 완도수목원이 참 좋은 곳인데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 이런 수목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오감여행학교요. 갈꽃섬 오감여행학교…… 여기가,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는 주목적이 완도에 나는 전복을 정말로 전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기틀로 해서 여행관광지로 관광손님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 하나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스트하우스나 음식체험관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은 완도가 전복이 전국에 7~8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완도에 와서 많은 전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오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식당에 들어가면 전복

값이…… 음식으로 해서 나오기까지 상당히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복 가격도 떨어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기까지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의 음식,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드리자면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노화, 어떤 전복 양식장에 가서 전복을 사가지고 직접 자기네들이 손수 해 먹든가, 아니면 잠깐 전복을 따는 것은 사실…… 달아놔야 알지, 쉽게 따지는 못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사가지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직접 생산자에게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도…… 이 오감여행학교 조성, 그 기틀 안에 이것을 집어넣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렴하게 완도에서, 전복이 나는 생산지에 가서 배터지게 전복을 먹고 왔다, 싸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완도전복거리 조성을 하죠? (예)

이곳에 사실, 얼마나 그곳을 예쁘게 만들려고, 꾸미려고, 조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예쁘게 꾸며놓은 거기에 그 상가에. 사실은요, 앞에 별것이 다 있어요. 쓰레기통도 있고, 자기네들 물건을 놔둔 것도 있고, 뭐 수족관 옆에 같은 데가…… 과연, 그 거리는 깨끗하기는 하나 그 상가에서 정말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같이 협조가 돼야 해요. 그래서 그런, 좀 청결하게 가꿔지게.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 거리에 맞게, 걸맞게, 식당환경이나…… 간판은 새로 조성하죠?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교체합니다.

□ 천양숙 의원

그 앞을 반드시 청결하게 하도록…… 얼마나 다른 식당에 해주지 못한, 그런 배려를 거기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영인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더 빛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잘 알겠습니다. 3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요. 그 전에 상가 앞까지 포함해서, 전복거리는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양숙 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서울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윤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2018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추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이라고 1월 중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벌써 금년도에 축제할, 그런 시안 계획이 거의 잡혀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군민들이 자꾸 조언을 해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기획사에다가 똑같은 행사를 하지마라. 그것이 가장 식상하다.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 당시 해외식장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금년은 어쨌든 간에 시일도 촉박하고, 이제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벌써 2019년 행사를 하려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군에서 군 단위 행사로는 장보고수산물축제 하나를 대표축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또 인사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축제를 준비한다고 하면 작년 것을 재탕하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좀 순기를…… 잘 조성을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축제가 끝나면 평가 후에,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 축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모든 축제의 기본계획이 금년 안으로, 내년의 것이 금년 안으로 마무리 되면서 대행사까지 정리되도록, 그 순기표를 앞당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작년 7월경에 부임해서 가을빛여행 축제를 추진하고 장보고수산물축제라든지 슬로걷기축제는 처음 추진합니다마는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슬로걷기축제는 4월에 시작되고, 장보고수산물축제는 5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마는……

1월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축제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한해 전에, 2019년 축제부터는 2018년 하반기 때부터 축제, 대행사를 선정한다든지 프로그램의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 때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1월부터 홍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윤 의원

예, 과장님이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또 필요성을 느끼니까 거기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정책은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큰, 넓은 안목, 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사람이 오게끔 하는 것이 관광정책이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고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도를, 짧은 역사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보길도, 2004

년, 2005년도에는 해신 드라마를 방영해가지고 해신 세트장으로…… 군외면까지 많은 차가 밀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었고, 그 이후에는 신지대교가 2005년도에 개통되면서 한 백만, 가까운 관광객이 신지 명사십리로 몰렸는데, 또 그 이후에는 청산도 슬로시티로 이렇게…… 자꾸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관광을 선호하는 지역이, 완도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도가 어떻게 갈 것인가도 관광정책 분야에서도 나와야 돼요. 해양헬스케어, 그렇지 않으면 가고 싶은 섬.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어떻든간에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완도로 많이 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청산 슬로걷기축제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주5일제 근무고 연휴 때만 되도 주말에…… 또 연휴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중 관광지로 우리…… 가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완도군은 수산군이면서도 관광에…… 저희들이 적극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청산농협에서도 일정역할을 하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과장님께서 청산도 근무를 하셨고, 또 현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청산농협에서 일정한 분야를, 뭐 인력을 얼마 정도 매년 한다든가. 얼마를, 일정 부분을 담당하도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협조를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청산은 연중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청산농협에서도 일정한 분야에 대해 역할을 해주라.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청산농협하고 협의를 해서요. 인력을, 얼마 인력을 고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윤 의원

청산농협도 과거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운영이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협장하고 이야기한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서울윤 의원

또 본인도 그런 것들에 힘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계속해서 정관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의원

관광이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관광하면 그래도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주 정확한 부분을,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1페이지, 17페이지 관련해서 전복거리를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주로 생것을 위주로 해서 이것이. 단품요리, 시식…… 전복구이 소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전복 플러스 황칠 플러스 삼계. 전복황칠삼계탕을 개발해서, 이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타지역은, 자기들이 황칠의 본고장도 아니면서 이미 황칠삼계탕을 개발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작 황칠의 본고장인 완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황칠전복, 전복황칠삼계탕. 이 부분은 차후에 해양수산정책과 부분에서

유통·가공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렵니다마는 공장까지도 유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전복황칠삼계탕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복거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황칠을 이용한 전복요리 개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작은 부분인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화홍포에 가면 간척지, 조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 밑에 탐방로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지금 화홍포항이 연안항과 어항이 매치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화홍포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즐기고…… 또 어떻게 보면 탐방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그 부분 제안을 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잘 알겠습니다. 완도군 관광종합개발 계획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 정관범 의원

안전건설과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안전건설과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명성입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0세 시대 평생학습관 운영 등 총 18건입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법 의원

그 15쪽을 한번 봐봅시다. 황칠사업 세계화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가지고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렵겠죠? 5,000만 원을 가지고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중국까지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국까지 수출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것까지 촬영하고 그러려면 5,000만 원은 부족하고,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지금 몇 부작으로 만들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2부작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게 1억 원을 가지고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래서 지금 PD연합회라든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1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관법 의원

그래요, 한 3부작은 되어야 될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황칠의 주성분이라든지 인체, 또 공업적인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밀착취재를 해야 될 것인데, 2부작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쪽을 보면 가리포 문화마을 조성을 하려고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쯤이 되는지……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 덕동 쪽에 지금도 유적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러면 가리포진 성하고 성문, 망루 복원은 장소가 어디예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아, 가리포진이요? 가리포진, 이것은 이쪽 주변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마을조성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요. 가리포진,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으로요.

□ 정관법 의원

아니, 성하고 망루 복원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 지금 유적지가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지금 이 뒤쪽……

□ 정관범 의원

성 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근에서 문화마을이라는 그 자체는 전부 성하고 성문 및 망루 복원만, 거기에 그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다른 시설은 없고?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다른 시설은 지금 없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을 조금 더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하면서 복원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것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그 90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큰 계획인데, 프로젝트인데.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런 쪽, 어느 정도 대략적인 사업비가 한 90억 원인데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런 사업비들은 대략 나올 것으로……

□ 정관범 의원

이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옛그제 완도정책토크를 가는데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의 주차장 정비공사를 건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근 토지가 균유지예요. 균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영화장 개장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한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거기 묘지에 있는 토지는, 토지보상비는 작년 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지이장을 해야 되는데 묘지이장은 그것은 날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식목일 전후, 4월 중에 소유자가 이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장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장이 끝나면 그 쪽까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정관범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역도 실업팀 운영, 이런 항목이 보고되었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군취업 우수선수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군취업 우수선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 사격, 이윤리 선수입니다.

□ 정관범 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겨우 기본경비만 여기에 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없죠, 군에? 법적근거를 좀, 조례입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해외, 대회출전, 해외출전 경비 등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대회를 출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비록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패럴림픽 등 완도를 빛낸,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같이, 본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김동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삼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할 때요, 제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사무분장, 이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실과 실정에 맞게끔 해야 만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그것을 강조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장보고…… 저기 4페이지요. 장보고 선양사업, 이 관계가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그것은 맞습니다.

□ 김동삼 의원

그러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가 최근에, 다른 부서보다는 좀 늦게 생겼고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업무 일원화, 이런 측면에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에서 이 장보고 선양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 장보고대사 관련, 이 단계도 내일 모레 1월 대보름날하고 그러는데. 장도 관리는 장보고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해마다 거기에 대한 그런 제사…… 뭐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부분은, 그런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장보고한상 어워드, 이 행사도 작년에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에서 했잖아요? 그 장소를? (예)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서라도 강력히 강조를 하

고요. 또 실과장님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바뀌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 있을 때 그런 업무는 안 받는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완도 역사문화관 조성이 있습니까. 장좌리에 있는 완도관광정보센터,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렇게 10억 원의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저는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마을 이고 제가 늘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겨울에도 장보고유적, 장보고기념관. 또 장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광정보센터는 그전에도 제가 수차례 말했지만 거기다가 지을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이 국비를 반납할 지경에 뭐해가지고, 찾은 곳이 여기여서 제5대, 그때는 제가 간부로 있어서 많이 들었지만 5대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의원들이. 그리고 뭐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철거를 했다. 우리가 건물을 선불리 했다가는 해조류박람회 주재관, 저런 관계도 상당히 지금에 와서는 후회스럽게 우리가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10억 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추경에 한다는 이 말아납니까? (예)

그래서 장좌리, 거기에 가보면 중간에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 구도로, 도로를 넓게 뚫었어요. 그래서 광주권에서 오는, 이런 관광 버스가 거기로 들어오고 또 거기서 나가고 그래서 좋아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해조류체험센터, 그 주차장에다가 해조류체험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좁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주차장 활용을, 가운데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또 거기를 들어와야 만이 기념관에 이렇게…… 관람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바로 장도까지 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러한 역사문화관이 그쪽에서 조성된다고 그러면 이 가운데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거기까지 걸어서

나가고 그러다 보면 기념관 쪽, 그런 데가 자칫 소홀해져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거기 이렇게 장도식당 아시죠? (예)

그 앞에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떤, 이 공간의 위치를 잘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신축해서 하고, 또 언젠가는 어촌민속전시관, 이런 부분도 다른 데에다가 어디…… 뭐 한다고 할 때, 그런 유물도 거기로 갖다놓고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또 언젠가는 저는 이 법화사지가 복원이 된다고 그러면 장좌리 쪽에, 어떤 그런 데를 확보해가지고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먼 앞날을 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 리모델링하는 것은 좀 안 맞고, 이 관광정보센터는 건물도 이렇게 아주 줄속으로 지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저는 철거를 해야…… 거기 잔디광장도 넓어지고 뒤에 소나무, 이것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삼 의원

예,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뭐 해가지고 앞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천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양숙 의원

한 가지만 저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1쪽예요. 평생학습교육하고 여성직업훈련교육, 이런 부분이 지금 업무 과가 바뀌었죠?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처음 업무 과를 맡으셔 가지고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평생학습이, 말 그대로 중년부터 노년까지 상당히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선호하고 좋아하고 많이 참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런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효과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읍면에는요, 과목이, 사실은 어떤 분야별로 다 있는데, 한 4과목이 지원되는데 5팀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는 빠져야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좀…… 특히 여성들이 활동을 하는 분야인데 뭐 제비뽑기를 하네, 어찌네, 해가지고 어떤 다툼…… 아니 다툼은 아니지만 서로 자기 팀이 들어가기 위해서 얘기가 났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가서 참여한 것인데, 들어간 것은 강사료만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예산편성을 더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특히 주부들이라든가 농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모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직업훈련교육이 해마다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격증 위주로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떤 과목인지, 4개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파악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아직 성과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 천양숙 의원

아니, 성과분석은 아니더라도 과목별, 과목이, 한 4개 강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주 해마다 중복되는, 그런 과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도 여성들의 어떤 직업향상을 위해서, 멀리까지 가서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도 완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그 과목을 챙겨서 보급되도록,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자격증은 5개 과정입니다. 한식조리사, 로맨틱홈 패션 과정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다음에 컴퓨터 과정이 2개에 주·야간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천양숙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한 후 14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관작물 재배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농업축산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박 종 연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인 철
박 성 규
김 동 삼
정 관 범
천 양 숙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주민복지과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업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조평호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2월 08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 해양수산정책과
- 수산양식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상하수도사업소

□ 부의된 안건

<제3차 본회의>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계속)
- 해양수산정책과
- 수산양식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8년
도 제3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

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출장 중이므로 부의장인 제
가 오늘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
우철 군수님께서도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하고
자 서울 출장 중이므로 오늘 부득이 참여하
지 못함을 알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입니다.

해양수산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등 20건입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해양수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을윤

해양정책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의 전복산업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또 전복주식회사에 대해 저희들과 함께 한 달여 동안 행정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복에 대해, 또 주식회

사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우선 더 상세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규모라든지 대출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직원현황이라든지, 또 가공품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보고서가 간략하게 되었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어디 것입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주식회사는 민과 관이 공동출자를 해서 설립해 놓은, 공공성 기능을 띠고 있는 그런.....

□ 박성규 의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어민이 출자해서, 민과 관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어민 1,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55억 정도 투자를 하고 군에서는 33억해서, 88억을 투자해서 만든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어디 회사냐..... 해남 주식회사입니까, 진도 주식회사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당연히 완도주민과 완도군이, 또 수협과 같이 공동출자해서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완도전복주식회사.....

□ 박성규 의원

완도전복회사주식회사면, 정말 지금 물량 적체현상이 일어나서 올 4월 말까지, 5월말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도 것은 사지 않고, 이 바쁜 시기에, 이 적체된 시기에 해남전복하고 진도의 물량을 다 구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완도전복주식회사입니까? 차라리 해남한테 파세요, 해남 수협이나 진도에다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민들 나눠주게, 더 이상 망하기 전에, 지금 계속 적자 아닙니까? 적자에 해매

고 있어요, 지금. 올 내내 적자에 해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남 것 사고, 진도 것 사고, 신안 것 사고.

이것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작년…… 업무보고서는 2017년 9월말 현재 자료로 빠져 있고요. 최근에 2~3일 전에 2017년 12월말 기준 가결산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6년과 2015년은 적자경영이, 적자상태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발생을 했고, 작년도 가결산자료를 받아보니까 4,2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방금 박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완도전복회사냐, 해남전복주식회사냐. 이 부분은 아마 관외에서 전복을 구입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전에 완도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해년마다 이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작년치 것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한 1,548톤에…… 423억 정도의 전복을 작년 한 해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14% 정도인 222톤의, 한 63억 정도, 63억 정도의 전복물량을 해남, 진도, 고흥, 이런 데에서 매입을 했어요. “왜 이렇게 관외 외지에서, 완도지역의 전복을 매입하지 않고 관외에서 매입을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전복회사주식회사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특정지가…… 그러니까 특히 완도 지역의 출하 비수기 시기가 10월에서 12월……

□ 박성규 의원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 박성규 의원

그런데 매출전표를 확인했습니까, 정확히?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아니,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요.

□ 박성규 의원

최근에 의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절반 이상을 관외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확인해보십시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농공단지에 있거든요. 차가 매일 3대, 4대씩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완도경찰서 위에 CCTV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가면 관외 것은 갑니다, 우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들어오면 우리 관내로 들어옵니다. 그 주식회사가 다 써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CCTV 카메라, 우리 상황실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매일 출발할 때, 아침에, 오후에 출발 안 합니다, 오전에 출발하기 때문에 CCTV 카메라를 한번 확인해서…… 차량이 우측으로 출발하면 저기 해남이나 진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외는 전복을 안 키우기 때문에, 좌측으로 당인리로부터 이쪽으로, 전복…… 남산면, 금일 쪽은 다 배 타고 가니까 전부 좌측으로 가고, 금일, 고금 쪽은 그쪽으로 가긴 가겠네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인해주시고 매출장부를 보십시오. 거의 반절 이상이 관외에서 구입을 한다고 그래요.

과장님의 말씀처럼 비수기 때 전복이 없을 때, 구운 것을 구하기 힘들 때 관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아주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까, 사실은? 전복이 5월 달까지 가면, 재고물량이 5월 달에 가면 새로운 물량이 또 나와요. 그러면 여름이 넘기 전에 다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적체물량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그래도 전복주식회사가 일부라도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단 한 차라도

관외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잘 점검해주시고, 단속을 해주시고, 꼭 관내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량을 신청 받을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민들이 주식회사로 물량을 신청할 때,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식회사하고 거래했던 사람, 주주금이 얼마 있는 사람, 이런 것을 확인해서, 주주금이 많이 있는 사람, 또 거래를 많이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량을 계약해야 되는데. 기사들이, 개인 기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금을 안 낸 사람도, 적게 낸 사람도 기사하고 친하면 물량이 계약돼요. 이것이 주식회사입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우리 것을 팔아주라, 이렇게 하면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하고 거래가 있는가, 없는가. 주주금을 얼마 했는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가, 안 도와줬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물량을 잡아줘야 되는데, 기사들 마음대로…… 친한 사람들 몇 번씩 잡아주고, 주주금을 안 낸 사람도 잡아주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좋은 물건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또 나한테 내부적인……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절차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기사들도 날마다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쉬는 날에도 장사를 한대요. 쉬는 날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좋은 물건을 갖다가 차떼기에서 차떼기로 팔아버린대요. 주식회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성규 의원

그리고 좋은 물건은 공장으로 안 들어오고 전부 다 불량사이즈, 안 찾는 사이즈 재고품만 주식회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주식회사가 흑자를 내겠습니까? 다른 회사는 돈 하나도 안 받고 부

자되어가지고 돈을 몇 백억 원씩 벌고 몇 십억 원씩 버는데, 다 지원을 해주는데도 계속 적자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운영상 미숙하고…… 이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저렇게 흑자를 못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기사들 것입니까, 회사가?

그래서 절대 관외 물량,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절대 신청을 받을 때 기사들이 싸가지고 오는 물량을 받지 마시고 사무실로 통해서, 정말 점검해서 주식회사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신 분, 또 주주금을 많이 내신 분들, 또 없을 때 전복을 주신 분들, 선별해서 관내 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외에서 매입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박성규 의원의 말씀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문물량이 들어오면 사전에 이런 것을 확보를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도 하고 가격 안정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복주식회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구입을 안 하고 우리 관내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제가 이 부분은,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복매입 관련해 가지고 기사님들과 친한, 그런 어가. 그런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하게 일정한 룰을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박성규 의원

그리고요, 과장님. 좀 바쁘시더라도 직원님과 함께 현장에 한번 가세요, 판매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하고 판매할 때, 거래할 때 한번 저울달아하고, 그 장기 정리하는

테를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불성실하고 불친절하다, 다른 유통업자들은 가면 과일도 사가지고 오고 장갑도 사가지고 가면서 친절하게 하는데, 주식회사 사람들은 장갑 하나도 안 사주고, 안 팔려면 말라는 식으로 광주리 던지고, 불친절하기가 짝이 없어요.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친절하다.

그리고 요즘 텀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 알고 있죠? 한번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 자, 2년짜리. 예를 들어서 1톤 500…… 한 다고 그러면 2년짜리 1톤, 1톤, 500억은 1년짜리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굵은 사이즈, 세 박스는 공으로 줍니다. 텀으로, 주식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런 잘못된 관행,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여튼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의원

일반유통은 세 광주리씩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규 의원

원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민이 세 광주리를 줘요. 그러면 120만 원,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입품을 잡고,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양심이 있는 기사 같으면 텀으로 가져왔다고 하고 회사에다가 입품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세 박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하여튼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신경을 써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사들 불친절 관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차피 일반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출자를 같이 했고 어민이 같이 공동출자한, 그런 공익성 기능을 띠고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가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또 회사가 강력하게,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박성규 의원

고생스럽더라도 꼭 현장에 몇 번 가보시고요.

저에게 그 매출전표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외 것, 관내…… 최근 한 달치만 좀 줘보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다음은 정관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법 의원

질의에 앞서서 최근 해양수산정책과장의 자리가 부침이 심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조직 구성원들이 부실하니까?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 생활 28년 하면서, 이쪽 해양수산 파트는 처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전임, 거쳐 가신 과장님들도…… 최근에 전문분야가 아닌 행정직 과장님들을 거쳐 가신,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업무는 방대하고 그동안에 28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안 접해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

리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그래도 저는 감사계장을 하고, 예산계장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기능 부분을 수행하면서 조금 접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해양수산정책과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면 조직개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직원들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14페이지 관련해서 양질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기본전제로 하고, 지금은 가공유통전문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복, 광어 등 수산물 판로 소비촉진하고 판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광어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편을 떠서 진공포장을 해서 판매해 본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전에 광어 택배 서비스……

□ 정관범 의원

아니, 그것은 바로 택배서비스를 한 것이고, 진공포장을 해 가지고 급랭해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을 한번 개발해 보자는 것이예요. (예)

그리고 또 인스턴트 식품이 되겠지만 생산가스를 한번 개발해서 중동시장을 개장해 보자, 라는 것이고, 그리고 광어탕수육을 개발해서 중국시장도 한번 개장을 해보자. 이 부분들은 제품이 개발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당한 맛이 있다고 한다면 중국이나 중동시장은 무한대로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현실안주형에 젖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협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느냐. 연근해조업산단 유치를 위해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그런데 정작 수협에서는 이것을 유관하지 않아요. 유관을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연근해조업산단에서 잡아온 고기를 수협에서 유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판매도 하고, 또 수협에서 돈도 찾아가고 수협에서 수수료도 챙기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수협을 좀 깨워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수산물, 어물 형태로는 판매 한 게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군에서 최근에 활급냉 순살 전복, 이 부분도 제품을 개발해서 한국전복산업연합회하고 수산양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최근에 개발해서 택배도 보내고, 지금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양한 가공제품들을 개발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복과 관련해서는, 지금 활전복은 이미 판매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판매량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우리 어민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이제 건전복체제로 가자. 건전복은 어떻게 보면, 중국도 굉장한 전복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라는 시장은 무한대로 열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복으로 우리가 가자. 반드시 급랭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건전복하려고 해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복…… 관광정책과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북황칠삼계탕을 개발하자. 그래서 팩에 담아서 진공포장해서 그것을 수출하는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그리고 제가 유치하고 있는, 유치하고자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전복 생산라인하고 전북황칠삼계탕. 이 부분까지 해서 중국, 중동을 겨냥한다면 매출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폭탄 사이즈도 표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폭탄 사이즈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가시화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어민들의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보조를 맞춰서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주식회사 관련해서, 박성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주식회사가 어디 일반유통회사와 경쟁을 해서 생물 위주로, 그것을 펴핑세일하고 판매하고, 외형성장 위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엉망진창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에서 했던 그 지적사항이 지금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오죽했으면 조례를 고쳐서 완도군에서, 대주주인 완도군에서 전면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인 전면교체 등,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먼저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2009년 3월에 우리 전북산업을 발전, 그리고 양식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북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가격안정, 수급조절,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에 크게 못 미치

는, 그런 회사운영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군의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주님들의 질타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북주식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 초창기에 완도군 관련 조례에다가 “인사와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라는, 조례에다가 문구를 초창기에 삽입을 해서, 그런 회사를 운영하다보니까 전북주식회사가 지금의 문제를 안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북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달에 감사계장 시절에도 소리가 많이 나서 전임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전북주식회사 감사도 한 바 있고, 그리고 2016년 1월에, 제가 전문위원 시절에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전북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동안 관여하지 않았던 인사와 경영, 그리고 회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가오는 3월 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 감사 등 새로운 경영진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예, 대주주로서 또 지배권을 갖고 있는 그런 거대 주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제 정말 생물만 다루는, 그 유통만 위주로 하는 그런 기능을 버리고 가공을 전담하는, 그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생물유통은 일반유통회사한테 맡겨놓고, 가공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요. 수출물류센터 조성계획에 나와 있는데, 거기 1층에서 집하장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집하장에 수조는 필요 없거든요. 수조는 필요 없고 예냉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랭시설이 필요합니다. 급랭시설이 필요하고. 선별장, 출하장도 좋고. 대형저온저장고, 대형저온저장고는 필요합니다. 당초 본의원이 제안했을 때, 이 부분은 제주도의 수·출입 물량까지도 우리가 취급을 하자, 라는 뜻에서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저온저장고까지도 같이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제방시설을 여기에 넣자. 여기서 그래 가지고 어차피 연근해조업선단이 여기 얼음을 받아서 실어갈 수 있도록, 상당량. 지금 얼음이 굉장히 딸립니다. 완도가. 그렇기 때문에 대형제방시설을 설치해서 얼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업선단이 이제 계속 물러올 것인데, 여기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부산 공동어시장이 향후 5년간 문을 닫습니다. 현달을 위해서.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내에, 안 그래도 급랭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님하고,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1월 30일날 기재부하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급랭시설을 그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30억 원의 국고지원 건의를 했고.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구체화하고 또 설계할 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하자면 관계 간의 회의에, 전복수출협회, 유통협회. 이렇게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매생이협회에 급랭이 필요합니다. 제품이 개발되어 있어요. 동결 건조를 해 가지고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매생이협회하고 해조류협회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해양쓰레기가 상당량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이 없어요, 계획이.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시설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이런 시설을 해보려고,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해수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 2016년도 9월 달에 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용역까지 했고 작년에 신규사업, 1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기재부에 신규사업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받아가지고 적격판정을 받았고요. 금년에 제가 와서 2월 2일날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과를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라남도예, 신안군에 이 사업을 몇 년 전에 썼는데 이 사업을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예다가 이 사업을 또 추가로, 이렇게 줘서…… 준 것도 좀 부담스럽지만, 또 줘서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면 차라리 신안 것 돈을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하겠다. 우리는 부지매입 부분까지 지금 진행 중이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기재부로, 이번 2019년 사업으로 넣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과장의 입장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제안을 두 가지 했습니다. 1안하고 2안의 사업계획서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제안했는데, 한 가지 안은 250억 정도 규모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 그 재활용시설로 운영하는 그런 안. 그리고 한 가지 안은 140억 규모의 전처리 및 선별시설만 하는, 그런 안. 두 가지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입장은 당초에 처음에는 이 말을 꺼내기 전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다가 이 두 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니깐, 그러면 기재부 쪽에 이번 예산 판정여부를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설명드린 재활용시설로 250억짜리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처리 및 선별시설, 그 단계까지만 해서 자원을 이렇게 판매를 또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선별처리해서, 그런 사업규모로 갈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이 해수부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회의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양쓰레기처리 시설이, 어떻게, 그것이 책정된다고 한다면 어떤 처리방식을 도입할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미리부터.

그리고 반드시 염두에 뒀야 할 것은 소각잔재물이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립장이…… 자원재생공사는, 환경녹지과 업무

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각잔재물이, 매립량이 3%가 넘어버리면 이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퇴출업소예요. 그런데 현재…… 자원재생공사는 모르겠어요. 한 20%나 되려나, 소각잔재물이, 매립량이…… 이 부분은 같이. 이미 저기 자원재생공사, 처리장. 거기하고 같이 좀 현실을 가서 봐서, 보고, 그렇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보겠습니다. 1단계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제일 부피가 크고, 제일 많은 것. 일단 스티로폼…… 들어간다면 상당량 증액될 것 같고요. 자원재생수단법이라든가, 어부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시설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정관법 의원

부군수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시죠? (웃음) 상당부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 맞는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리고 야까 물류센터에 저온저장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 과장 출신…… 농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출하를 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양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양숙 의원

과장님…… 또 새로운 업무인데 오전 내내 서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전혀 생소한 업무분야를 맡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텐데 답변도 잘해 주시고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시마 위판장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어요. 사실은 다시마 위판시설이 될…… 위판, 다시마가 나는 철이면 상당히 그쪽 지역이 복잡하거든요.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통이 체증되고, 또 줄이, 그 위판장을 하려고 줄이 많이 서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도에 다시마가 많이 나오는 쪽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다시마는…… 동부권 지역, 금일에서 많이 나오구요. 약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천양숙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동부권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더 시간적, 경제적, 또 편리성을 도모한다면 위판시설이…… 다시마 위판시설이 그쪽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위판을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마뿐만 아니라, 또 강진 마량으로 생선을 잡아가지고 어민들이 그쪽으로 가서도 위판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동부지역에 그 위판시설이 한 군데 있으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관범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매생이 값이 너무나 하락되어 있죠? (예)

어민들이 정말로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매생이 값이 떨어져서, 이 추운 날 바다에서 그것을 뜬데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품개발을 새롭게 하는, 그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한번, 이것은…… 단순히 매생이뿐만 아니라 감태나, 파래도 해당됩니다마는 감태나 매생이를 흡쇼핑에 보니까 우리 김처럼 떠가지고 말려서 그렇게 판…… 언제 한번 팔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도 그런 식으로 말리고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때에, 물론 급냉동 해서 보관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식품개발 차원에서, 이런 것도 그런 방법으로…… 좀 다양하게 또 제철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한번 식품개발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좋겠고,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3쪽에 해삼 씨뿌림사업이 있죠. 해삼 종자를, 저도 한 2년 전에 소안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제가 한번 내렸었는데.

지금 종자결과가 어떤지…… 아직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담당직원님께서 혹시 그 성과가 어떤지 한번, 지금 여기가 그 사업이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쭙보는 것입니다.

(“ 해삼서식기반조성하고 씨뿌림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소안 자원관리공단에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해삼의 경우는 유전자를 검사해서 방문하게 되는데, 해삼의 관계는 상당히 방문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것

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원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판명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전에도 어떤 해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양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거듭 실패되고, 실패되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바다에 뿌려 가지고 성과가 좋다면 그것은 결과가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도에서나, 어떤 그렇게 지원되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소안을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했던 사업성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알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해삼이 고가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소안 쪽 위주로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 청산 모도 쪽하고 생일 쪽에서 수요신청이 있어서, 이쪽을 검토하고 있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다시마 위판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교통이 혼잡스럽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부권…… 지금 약산, 당목항. 그쪽에, 동부권 쪽에 위판시설을 한번 해 볼까. 그리고 2019년도 국고 건의사업으로 지금 건의…… 해 났고요.

매생이 가격 관련해서, 지금 동결건조해서 제품화해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홍쇼핑이나 이런 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어민들이, 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천양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계절식품이라 그때 넘어가 버리면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나올 때는 막 수확이 한창이니까, 많이 나오다보니까 가격이…… 정말로 절하되어 가지고

어민들의 고충이 많잖아요. 노력한 대가도 없이, 그렇게 너무 저렴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해양수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양식과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안녕하십니까, 수산양식과장 추관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수산양식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해조류 양식산업 활성화 등 총 17건입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수산양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수산양식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복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탈각전복을 개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장점하고 단점, 또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우선 지금 현재 유통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11미에서 20미 사이즈, 폭탄사이즈의 소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45도에서 급속냉동을 한 다음에 진공포장 후에 소비자들한테 배달하는 시스템인데,

첫째, 우선 이 상품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전복을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치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45도에서 급속냉동을 하기 때문에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살아있는 전복하고도 상당히 견줄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편리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샘플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마트라든가 이마트, 벤더들, 그다음에 식당 주인들, 여러 전문가들한테 현재 샘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 설문을 받은 다음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급냉 순살 전복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상당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인데,

보니까 탈각하지 않은 전복에 비해서 양이 왜소하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몇 kg을 탈각해서 껍질 무게를 빼고 이렇게 됩니다.” 라는 설명서를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설문지를 보낸 후에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이번에 배송 등, 현재 물건은 주로 11미입니다. 10미에서 12미 사이즈인데, 10미에서 12미 사이즈를 탈각을 해버리면…… 한 40% 정도 되거든요.

□ 정관범 의원

그렇죠.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그러면 봉다리가 3개가 있는데, 1개의 봉다리는 1kg, 1kg 11미…… 1kg를 탈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한 400g 정도 나오거든요, 400g. 그러면 작은 봉다리는 한 200g씩 인데, 그런 부분도 사용설명서에 표기해 가지고 실제 활전복하고, 그다음에 냉동전복의, 그런 차이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6쪽 관련해서, 어류양식 사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현재 광어 양식에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사가 나오고 있죠?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그렇습니다……

□ 정관범 의원

전복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감염되어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것이 관유지가 됐는지 수산과학기술원 유지가 됐는지, 이러한 질병을 연구하고 치유하는 그런 것이 없다.” 라는 것이 현재 양식 어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원법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국비, 도비, 군비 좀 매칭을 해서 어패류질병연구치유센터를 하나 설치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완도군 실정에 있어 아주 적합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전임 부군수님 계실 때 해조류연구소하고 전복연구소를 저희 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건의해 가지고, 당초는 저

희 군에서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하자. 거기에 전복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어장환경 관리 부분하고 질병연구. 그리고 해조류 부분은 신제품 개발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기관 건립이 확정된 상태에서, 현재 중앙. 그 당시에 수산과학원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 업무가…… 도가 있는데, 그 사항도 시급하고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한다면,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전남도에 있는 해조류연구소하고 전복연구소를 우리 군으로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확대 부분은 상당히 정제되어 있거든요, 현재 문재인 정부 시대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조직을, 좀 더 그 기능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남도에 있는 해조류연구소하고 전복연구소를 우리 군에 가지고 오는 것이 더 실현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법 의원

예, 하여튼 실현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해주시되 의원법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전문가들, 그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양식어가를 순회방문해서 이 부분도 상담해주고, 치유방법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자는 견해입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렇게 해서 입법할 당시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와 관련해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전복이나 어류양식도 다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우리가 결국, 중국적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자동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부대조건으로 EIP사료가 도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IT나 스마트 전복·광어 양식시설을 도입해야 합니다. 연구하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IT하고 스마트 전복·광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수산양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강화 등 18건입니다.

.....

【참조】

· 2018 규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법 의원

저기 14쪽을 한번 봐봅시다. 경제수 조립 사업에 있어서 바이오순환림에 백합이라는 수종이 있는데 이 백합이라는 수종은 무엇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백합이라는 수종이 저희들 관내에는 군외 쪽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잎 사귀가 사람 손같이 생겨가지고 꽃이 피더라 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이라고 해서 최근 많이 식재하고 있는 편입니다.

□ 정관법 의원

이제 경제수종으로서의 기능을 합니까, 이것이 백합이?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 인터넷을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나무가 속성수이고 키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정관법 의원

주로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나무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것은 뒤에 보시면 수종선정 관계는, 지금 바이오순환림이나 목재생산림 같은 경우는 도에서 그렇게 수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도와 군이 하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권장하고 있는 수종인 것 같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래서 또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그것까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예, 그리고 특용수, 또 산림재해, 황칠특화림, 유휴토지로 해서 황칠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 수령하고 수고하고 직경…… 흉고 직경이라고 안 나오고 있습니까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정관법 의원

아니, 그 황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특용수라면 어차피 대목이 보급될 것인데…… 유휴토지에 심는 것은, 이것은 적은 나무가 들어가겠죠? (예)

이것이 작년에 남은 돈입니까, 이 1억 3,800만 원이?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아닙니다, 올해 사업할 사업비입니다.

□ 정관법 의원

올해 할 사업비입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또 확보할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제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에 또 확보할 계획입니다.

□ 정관법 의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지금 보급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 위에 것은, 황칠특화림 같은 것은 산에다가 심을 계획이죠? (예)

산에다가 심고, 유휴토지에 심을 것은, 유휴농지에다가 심을 계획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칠특화림도 좋고…… 여기에 대목이 들어갑니까, 황칠특화림은? 큰 나무가 들어가냐고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아, 이것ियो. 이 부분은 계장님께서 한 말씀…… 계장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화림은 1.2M 이상짜리로 식재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정관범 의원

예, 1. 2M 이상이면 굉장히 큰 나무구먼요? (예)

왜 이 얘기를 하나면, 계약을 맺을 때…… 업자한테 입찰해서 심을 건가요?

(“예, 입찰해서……” 하는 주무관 있음)

왜 이 얘기를 하나면 실제 그 묘목을 보급하고, 또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수령은 몇 년생, 또 키는 얼마. 그리고 굵기는 얼마, 이것을 지정을 해 줘야지. 업자한테 임의대로 맡겨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5 다시 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심어라.” 라고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한 3년생이나 갖다가 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당 얼마인가요, 지금 1.2M짜리가?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어서……”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2만 원 간가요, 본당?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갖다가 3년생이나, 1만 5,000원이나 갖다가 심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1,800원짜리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2 다시 0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8개월짜리를 갖다가 심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차이를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거기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인마이포켓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농가가 심도록, 사다가. 그리고 사후대금을 정산해 주는, 준공 검사해서 그런 방법으로 바뀌야 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공무원도 우습게 되어버리고 죽어라고 목 터져라 외쳐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엄한 사람들 좋은 일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차마 고발할 수도 없고, 이것이 참 갑갑한 송사입니다.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뭐 생산자협회니, 뭐 어찌니 주지 마시고, 농가에서 직접 사다가 심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정당하게 1,800원에 준하는, 그런 나무를 사다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8개월짜리를 갖다가 심어버리는 관례로…… 거의가 고사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백년하청이 되어버렸어요.

황칠, 지금 공장을 유치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여보겠다고, 그렇게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서 착취는 엄한 사람이 하더라, 재미를 보더라.

독한 마음을 먹고 경찰서에 고발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차마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백년 원수가 될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 그 심정을 헤아려가지고,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저하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농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그 활착률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8개월짜리하고 2년생하고, 이것이 활착률에 굉장한 차이가 나요. (알겠습니다)

거의 죽어버려요, 8개월짜리는. 백년하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9쪽을 봐봅시다. 19쪽을 보면 동망산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만 공사를 하면 완공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 점검을 좀 해보셔가지고 미비한 점은 좀 보완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되 항만터미널에서 진입하는 진입로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모양도 우습고 세면으로 발라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수부 땅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 거기에다가 데크를 시설하든지 어떻게 해서, 좀 멋있게 진입로를, 그렇게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낙찰차익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입해서라도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그동안에 2년 동안 추진한 사업 구간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지역개발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읍 군내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13건입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회한 후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의원

지역개발과가 본청 직계 서열상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권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해야 될 사항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당산리하고 성내리하고, 주거환경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언제 끝날 계획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 정관범 의원

그 이후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주거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라는 다음 그림.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사,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은 한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매입이 안 돼서 공사가 불가능한 지역,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방향들을 변경해서 추진해 가는 쪽으로 일단…… 내년 6월까지의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여기 개선사업이 끝나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지금 성내리 일대로 해가지고 가리포진 성 복원 알고 계시죠, 계획을? (예, 그렇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성내리, 용암리 일대에다가 관광펜션단지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좀 해 가지고 보조자와 같이 해서, 재단까지 포함해서 우리…… 거기 정착민들이 살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주면 어떨겠나. 이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성내리, 남성리, 용암리, 향동리. 이런 일대가 아마 읍에서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대상지역 중에서, 우선 도시재생사업을…… 하나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관광펜션, 이 부분은…… 일단 살고 계신 거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이제 만약에,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아무리 보조라든지 용자가 있어도 자담이라는 능력도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합의가 돼야, 이런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현주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제가 여론수렴을 좀 해봤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책토크할 때 완도읍, 이게 제기된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군청 뒤쪽으로 해서 저쪽 용암리, 서성리, 이런 부분이 완도…… 원래 본토 사람들입니다, 본토.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밑에가 매립지예요, 사실. 너무 행정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완도읍 그…… 본토, 거기 뒷골목을 한번 순방하고 해서…… 도로망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당장은 전부가 안 되더라도 그 개발계획을, 연차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가 대부분 경사도 급하고, 또 대부분 민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려면 그 집들이 철거되어야 될 여건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사업의 필요성은 있어도 그 부분…… 사업비를 확정하고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협의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던 적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한번 대상지역은 일제 한번 조사할 수 있도록……

□ 정관법 의원

그러니까 전체는 다할 수가 없어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을 보면…… 아니, 11쪽이 네요. 11쪽,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지금 사실 그 완도읍, 그것도 특히 군내리 지역에. 이것도 정책토크 시 나온 얘기에요, 완도읍.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그러니까 다목적회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축매입 요구가 아주 붓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이 부분이?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마을회관 사업에 17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 정관범 의원

예, 이것 참…… 아주 아우성이예요, 아우성. 중앙리, 남성리, 신기리, 1~2구, 개포. 뭘 이 부분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 요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심지어 지금 개포리 같은 데는 중늬은이십터를 만들어 주라고, 이런 요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조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완도 동부권 쪽, 호안도로 개설 사업, 지금 건의가 또…… 정책토크 시에 있었어요.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죽청리에서 장좌리까지, 해양생태관 그 앞까지 250M, 대야리 1구부터 대야리 2구까지 150M 구간. 이 부분들이 끊겨가지고 호안도로로서의 기능을 지금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약 4억 정도 들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외 사후도에서 지금 입출입하고 있는…… 대야리 선착장에서 입출입하고 있는 군외 사후도 도선장, 이 부분들이 보완되고 보강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지 점검을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사후도 내에 선박 접안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정관범 의원

아니, 대야리 1구.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대야 1구를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 정관범 의원

그다음에 11쪽과 관련해서 남향리, 지금 남해아파트 뒤에 중단된 도로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까지 되어 가지고 아스콘으로,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어디를 가고자 하는 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학교, 완도 중학교 앞까지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같아요.

이 도로를 언제까지 연결할 것인지, 개설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금 원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남해아파트 위에서 완도남중학교까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84년도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23M, 굉장히 큰 폭의 도로를 지정했습니다. 아마 서부 쪽에 오는 차량들이, 이쪽 망남리라든지, 이쪽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인 발전구상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됐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지금 일부도로는…… 약 190M 정도를 2015년도에, 한 4억 2,000여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일단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라고 하면 일단 어찌됐거나 통행……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주민들이 쉽게 통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계획 선을 따라서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마는 거기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984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20M였는데 지금은 약 8M 정도 도로로 축소해서 도시계획도

로…… 그대로 유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도로기능을 확대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합니다.

우선 1단계로 지금 끊긴 데에서부터 성내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위에 도로하고 접합까지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거기는 기존에 있는 도로가 아니라 신규도로 신설이기 때문에 편입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장님을 만나서…… 한번 오셨기에 편입보상 협의 정도만 어느 정도 잘 정리되면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우선 이미 시작했던 도로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내리까지라도 1단계는 먼저 해드리자고, 하자고,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께서 토지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한번 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토지보상 협의만 되면 우선 성내리까지는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예, 나머지 구간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도로로써의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서성리 수도방죽 밑에,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금 과거 읍사무소 근무했던 용안철 씨, 그 집 부근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탄배달도 안 되고 뚝도 안 되고, 지금 도로가 없어 가지고 아주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도로개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알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서성리 쪽,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중병원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데 그쪽 주차장까지 일부는 확장이 되었는데 일부는 안 돼서, 입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 정관법 의원

예, 물론 일부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관련해서 가마구미에서 완도 호텔. 가마구미, 농공단지까지 이르는 구간을 향만구역으로 편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확대를 해서, 지금 선석도 부족하고 하나까. 거기를 향만으로 개발해서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어차피 도 업무입니다마는 지역개발과에서 건의를 해줘야만 도에서 움직이고, 또 해수부에서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입추진을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임항도로로서의…… 그 시설이 가능합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이죠,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만구역을 확대해서, 농공단지까지 확대해서 임항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국비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말씀하셨던 그쪽, 가마구미에서 지금 강독…… 옛날에 배가 접안했던 그쪽까지 완도 향만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3차…… 전국 향만을 수정 계획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임항도로 개설사업을 위해서라도 향만구역 자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 지적 논리를 개발도 하고 해서, 해수부에 가서 논리만 세워지면 충분히 먹힙니다. 저도 한번 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먹히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지금 해경부두…… 설치를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뿔이 차가지고 준설이 필요한 지경이니

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준설할 수 있도록. 짐 실은 배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 다. 너무 많……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해경부두 부분은, 완도항내 해경 전용 부두가 내년 3월쯤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되면, 해경부두가 옮겨가 면…… 거기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소유권 자체가 해경부두가 들어서면서 해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 정관법 의원

예, 해수부로 넘어오겠죠? 그것이?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유지…… 우리가 관리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매입할 것이냐……

□ 정관법 의원

왜 그러냐면 행정재산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면 해수부로 넘어오겠죠, 이제? (예)

그러면 전라남도도 이관이 됩니다, 그것이. 그럴 때 완도에서 농공단지 부두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 부분은 그러니까 농공단지 해경부두, 앞으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하면서 준설까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의원

그 부분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1부두에서 또는 수산물 운송경비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경제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문했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가짓수는 굉장히 많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 정관법 의원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으로서 공지와 보람을 갖고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인철 의원님이 새로 질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과장님. 제안할게요. (예)

제가 엇그저께 항만터미널에 가봤는데, 구 항만터미널은 택시승강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했는데. 그 승강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 관할이지만 도와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택시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광정책과에다가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타워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타워를 많이 찾고 있죠? (예)

저희 업무보고에도 많이 왔던데. 항만터미널 방향에서 완도타워로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단을 보수하기 위해서 매일, 오일 펜스를 칠하고 그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홍보계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드론으로 12개 읍면…… 수려한 자연경관들을 촬영을 해 가지고, 그 올라가는 계단이 밋밋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그래서, 완도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제작해서 계단에다가 부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완도에 대한 궁금증, 또 마케팅.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돈도 안 들어갈 것인데. 이번에 하면서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보통 실내계단은……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도, 그런 안내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면이 고른 데고, 우리는 면이 고르지 않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일단 검토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설할…… 투자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가, 그 테크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하계끔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청산상수도 시설공사 외 9건입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의원

소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노화 물 문제는 보고서에 없네요. 먼저 박현식 부군수님, 그리고 박 소장님. 노화, 보길 물 문제로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들, 또 면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수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수를 올리고 있죠? (예)

하천수 일부하고, 또 차량으로 해서 통리저수지 또 지하수. 1일 1,320톤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1일 1,320톤. 수원지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몇 톤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1,320톤……

□ 박성규 의원

예, 1,320톤이죠? (예)

매일 올리고 있죠? (예)

차량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15톤 차량으로 해서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8대 하고 있죠. 일일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차량 1대당?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한 80만 원 정도.

□ 박성규 의원

80만 원 정도…… 80만 원이면 한 640만 원 정도, 1일 소비되네요? (예)

이번에 또 예산, 부군수님이 확보하셨죠. 또 수고하셔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셨죠? (예)

그리고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물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고 예비비라도 써라.” 이렇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를 받고,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그리고 이것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 아주 중장기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대책은 우리가, 통리 저수지가 마르면 금목 저수지…… 약 9만 톤이 있다는데, 그것을 사용할 계획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지금 금목 저수지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1~2차 검사를 해서 적합관정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심이 좀 많아서, 그 주민들 입회하에 다시 취소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라고 해서, 지난 1월…… 1월 며칠인가, 그때 취소를 했거든요. 저희가 취소를 해서,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늦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지를 가지고, 내일 부군수님을 같이 모시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목 저수지 물을 활용해 가지고 수원지로 하계끔 차량운반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예, 차량도 좀 증액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군에서 수질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신뢰를 못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신뢰를 못해서 지금 3번 했습니다.

□ 박성규 의원

본인들이 또 했습니다. 그 결과, 어제 나왔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어제 나와서……

□ 박성규 의원

수질 판정…… 뭐 이상이 없다는 정상 판정을 받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1급수로 해서…… 먹는 물 수준으로 해서는 최고의 물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 박성규 의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공급할까, 또 군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군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주 들어가셔서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이제 그 결과를 내놓고 설득을 하셔서 그 물을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제2의 수원지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장소는 정해졌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장소 정해졌고……

□ 박성규 의원

또 주민들의 동의도 다 받았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주민들이 한 뜻을 모아서 제2수원지를 개발해 달라,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의 뜻을 받아서 저희가 1월 20일 날 국무총리님께서 보길을 방문하셨거든요. 그때 1차 건의를 했습니다. 1차 건의를 하고 나서 후속대책으로 해서 부군수님과 한번…… 부군수님과 같이 동행해서 환경부와 기재부에 가서 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 다시 건의하고, 재원협의를 좀 했어요. 그다음에 군수님과 한 번 더 같이 2차 방문을 해서 제2수원지 개발에 대한, 그 부분의 절실함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지특보다는 한특으로 재원을 한번 하려고 기재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 군 역시 지특보다는 한특으로 사업을 받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그리고 장좌리의 주민들, 그 동의를 확실히 받으시고요. (예)

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지역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특으로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오래 걸립니다.

□ 박성규 의원

그런데 한특으로 하면 시간이 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하셨지만 완도군이 생기고 근간에 들어서 우리 섬에 가장 높이신 분들이 오셨어요. 국무총리, 환경부 차관, 도지사 권한대행. 헬기가 3개 뜬 적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사실은. 행정선 2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국무총리가 도지사하시다 가셨고요, 또 장관님도 계시고 그럽니다. 또 비서실장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한특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저수지가, 제2의 수원지가 개발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지질조사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하다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1~2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최소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5년 정도는 잡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제2의 수원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광역상수도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멀게는 광역상수도도 한번 연구해 봐야 한다.

그러면 완도로 오는 데는 한 13.3km 정도 걸리고요, 길이가. 해남에서 오면 8.8km 정도 거리가 되네요. 그런데 예산은,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죠? (예)

완도에서 노화로 가면 예산……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소요예산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제2의 수원지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은 가뭄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차후 대선책으로 광역상수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광역상수도를 만약에 노화까지 연결을 한다면 그 방법은 해저관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해저관로를…… 만약에 해저관로로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것은 사업비 산출하는 추정치 조사거든요. 추정치 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사업을 했을 때는…… 실제 사업가능 여부에 따라서 현장조사하면 판이하게 다르지만 추정치 조사한,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도에 해저관로를 났을 때,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 노선은 완도 당인리에서 덕섬, 백일도, 흑일도, 마삭도, 노화도를 연결하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연장 13.4km입니다. 13.4km인데, 이제 시공방법을 저희들이…… 해저암반층 관로매설로 했을 때에 산업비 산출을 해봤습니다. 현재 보길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지방상수도 관로가 400mm거든요. 그러면 이 해저관로도 400mm관으로 시설한다는 가정 하에 사업비를 산출해 봤더니 1,286억 4,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선인 해남 통호리에서 백일도, 흑일도, 마삭도, 노화도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으로서 여기는 8.85km가 됩니다. 여기도 400mm관로로 시설한다는 가정 하에 소요사업비를 산출해 보니 849억 6,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하는 추정치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소요사업비하고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해저관로로 저희가,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해저관로는 솔직히 현재상으로는 초기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초기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공사비 이외에 어업권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해저관로 시설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저관로에 대해서 계속 깊이 있게 확인해 보라고 하면 차후, 다른 계획을 잡고 충분히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 박성규 의원

예, 완도에서 그러니까 해남에서 들어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문제가 예산이 아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예산이죠.

□ 박성규 의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저암반층 관로로 했을 때는 직선거리로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현재 기술로써는 최장시군이 4km이 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과 섬을 연결해야 만이 되는, 연결해야만 이 관로 시설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 박성규 의원

다리공사 하나 정도의 예산입니다, 사실은. 소안-구도간 해서 1,200억 원인데, 이 돈도 한 1,2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데……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하시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2의 수원지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면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제2의 수원지는 50만 톤 규모로 해서 지금 233억 원으로 잡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현재 저수지는 한 40만 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42만 톤입니다. 지금 부항제, 그 저수지는……

□ 박성규 의원

지금 몇 %나 있습니까, 물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현재 11%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그러니까 내일모레 구정이 있기 때문에 구정 때는, 이렇게 며칠간 풀어줘야 되는데…… 구정 때 쓰고 나면 거의 물이 바닥이 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그걸…… 당초 구정은, 저희가 구정 연휴기간에 5일 급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원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3일 급수로 조정을 좀 했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현재 구목 저수지 물이 9만 톤 저장되어 있는, 구목 저수지를 활용하면 당분간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고, 앞으로 비가 오기를 저희가 바라고, 바라야 됩니다.

□ 박성규 의원

보길도에서 물을 가져갈 때는 거리가 짧아서, 하루에 한 5회 정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5~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5회 정도 하는데 노화에서 가져가면 거리가 멀어서 5회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그래서 저희가 2대를 더 투입해서, 차량을 한 10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성규 의원

그래서 설명을 잘 드리고 구목 저수지에

서 명절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길면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마는 하천 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요. 하천 물을 저장할 데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하천 물을 저장해서 펌핑할 수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 약간 물 저장탱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현재 계획을 사업비, 우리가 받아놓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하저류조 탱크로 해서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준비 중에 있고요.

□ 박성규 의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가 가장 필요하냐면 보길 상수도 밑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부항리, 부용리, 그쪽 분들은 전부 다 그…… 우리가 하천으로 많이 흘러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천 물을 펌핑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제2의 수원지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성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다음은 천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양숙 의원

오랜만에 여성 사무관의 업무보고가,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반가워요, 더구나 여성 과장님이시라……

페이지 3쪽예요, 방금 박성규 의원님께서도 물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물의 필요가 치성을 지금 얘기했는데, 단수조치를 한 곳이 체납되어 가지고 한 66건 회수되어 가지고…… 체납횟수가 11건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됐는데, 사실 어떤 상습적인 체납자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로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수도료를 못 내는지 그것 분석을 하셨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이 체납액은 저희가…… 현재 노화나 보길 권역은 물하고, 그 겪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하고 연관 없이 거기는 단수나…… 저희가 행정적인 처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물을 풍부하게 쓰는 완도읍 위주,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큰 건에 대해서만…… 단수조치하면서 해결을, 체납액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 천양숙 의원

그러면 일반주택이예요, 아니면 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사업 쪽 식당이나 그렇게 하고, 그 체납액을 바빠서 못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 천양숙 의원

그래요, 그래서 혹시 가정집에서나 이런 체납을 해 가지고 단수를 했다면…… 정말 물을 못 먹고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 잘 조사해 가지고, 정말 생활이 어렵다면 복지재단에서 한다면지, 희망복지에서 한다면지 조금 그런 데서라도……

정말 나쁜, 상습적인 자라면 해줘서는 안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여기는 일반가정보다는 고액이나 상습체납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주민은 거의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천양숙 의원

해당이 안돼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해변도로가의…… 주로 영업을 하는, 식당을 영업하는 분들인데 “하수구가 많이 막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서로, 그 분들도 어떤 과오가 있어요. 식당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을 함부로 하수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바닷물로 회 뜨거나 뭐하면…… 그런 고기 내장 같은 것들을 버리고 하다보니까 하수도가 잘못하면 막힐 수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어떤…… 정말 막혔을 때는 우리 군의 사업소가 가서 해줘야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그것 처리를…… 그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지시해서 처리는 즉각, 즉각 하고 있습니다.

□ 천양숙 의원

그렇게 해서 꼭 민원처리를 하시고, 또 그 분들에게 그냥 해줘서는 안돼요, 그분들한테. 그냥 군에서 모든 것을, 자기네들 아무렇게 해 가지고 군에다가 얘기를 하면 다 처리해주더라. 뭐 그런 것보다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일반개인이 사용하는, 거기는 본인이 해야 되고요. 자기 앞에 있는 하수구가 막히는 것은 그 사업주나 건물주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청소는. 그 외에 공동으로 군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즉각,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천양숙 의원**

잘 검토해 가지고 하기는 하겠는데, 아무튼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 우선 지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성 사업소장님이 제실 때 그런 부분도 잘 살펴가지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천양숙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서울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 **출석 의원(7인)**

서 윤 윤
조 인 호
박 인 철
박 성 규
김 동 삼
정 관 범
천 양 숙

□ **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안전건설과장 조평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5회 완도군의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2월 09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 농업기술센터
- 보건의료원
- 안전건설과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부의된 안건

<제4차 본회의>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계속)

- 농업기술센터
- 보건의료원
- 안전건설과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종연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철 군수께서는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하고자 서울 출장 중이므로 오늘 부득이 참석

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저희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윤 의원

예, 기술센터소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하나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거기 12페이지에 관광자원과 연계한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국화전시회, 잘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금년에도 계속…… 전년보다 더 물량도 늘리고.

□ 서울윤 의원

예, 완도타워에다가 전시를 잘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요. 국화 육성을 해가지고 관광자원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되는가.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저희들이 화훼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재 함평이라든가 화순이라든가, 우리 도내에서 국화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관 실과가, 전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울윤 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고유 업무로 해 가지고…… 고급기술 지도를 좀 해야 됩니다. 과수나 농작물이나 어떤 축산분야라든가 특화작물. 또 새로운 신상품, 이런 중대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화, 거기다가 전시할 수 있는 정도는 일반 민간단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회단체, 이렇게 해야 되지. 그 고급인력들 보고 국화, 매년 이것을 확대해서 국화꽃을 만들어서 갖다가 전시품으로 만들어라. 이것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를 빗겨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은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저는 민간단체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 국화 묘목은. 그리고 그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은 그쪽에다가 주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정말로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농어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각종 재해,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여러 가지, 그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같이 차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농업기술센터가 국화꽃을 육묘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것, 그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잘된 사업이에요. 그러더라도 일하는 방식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여러 직원이 거기에 동참한 것은 아니고 담당자 한 사람과 그다음에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축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 문제점이 있다면…… 노인단가가 싸기 때문에 한 몇 개월 하다가 작업이 손에 익으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더 준다고 그러면 또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매번 전문가를 양성하기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서울윤 의원

국화를 만들어 내는데, 국화꽃을 만들어 내는데 전문가들이 필요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잡는다든가, 그런 유인하고 그런 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일을 하면서……

□ 서울윤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기후변화, 또 농업의 경쟁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본연의 일에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욕심에서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16개 항목으로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18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보건의료원장의 보고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윤 의원

원장님, 보고사항 세심하게 잘 들었습니다. 완도로 오셔가지고 좀 정이 듬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 서울윤 의원

완도에 오셔서 김선종 원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완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섬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오지. 또 국토의 최남단, 그렇게 아주 의료환경이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요. 원장님이 완도에 오셔서 몇 개월이 되셨는데 완도의 의료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앞으로 완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무엇을 시급히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이 평상시 느낀 사항이라든가 완도의 의료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여기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 서울윤 의원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릅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예, 제가 여기 완도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료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특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섬이 265개나 있고, 그중에 유인도가 뭐…… 55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 환경 자체가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서기가 참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의료 기관은 일종의 수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역은 특별히 공공위,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좁게 들어가면, 제가 보니까 약…… 보건의료기관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지소가 12곳, 그 다음에 진료소가 18 곳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지소 부분에는, 거기에 배치된 의사들이 약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다른 것 다 빼고, 그 부분에서 공보위들이 진료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강화하고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들도 배치가 되어있고 잘…… 진료소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도 관리하고, 이런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사실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역특색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교육이나 대화하기가 참 어렵고, 더군다나 불러 모으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편입니다.

□ 서울윤 의원

예, 잘 진단하고 가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완도가 도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의료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성병원에다가 응급실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다른 일반분야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대성병원도 중종합병원으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해남이나 강진이나…… 인근 시군이나 다른 대도시로 갈 환자들도 여기서 많이 진료하고 있어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여기 표에도 나오니다마는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대단히 종합병원 식으로 도서민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료인원도 4분의 3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고, 의료원은 4분의 1이고, 지금 이 표에 의하면 그래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저도 완도에서 태어나 가지고 완도에서 꼭 삽니다마는 가장 희망사항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자치단체, 시군 같은 데도 요양병원이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사항이 완도도 고령화를, 초고령화 사회고 30%가 넘어가는데, 요양병원, 그다음에 치매병원, 이것이 같이 병행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거기다가 더 호스피스 병동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그런 시설도 우리가 미래에 꿈을 가지고, 원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과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완도군민을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어떻겠느냐. 본의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아닙니다, 그림이 아니시고, 제가 와서, 처음에 와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는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중에 예를 들어준 것이 여기 이렇게 노인네들이 많은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시설 같은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원도, 스스로 크지 못한다면 밀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의료 인프라 자체가, 지금이요. 완도가 군민이, 한 5만이 넘는 군민인데…… 그 강진이나, 예를 들어서 해남이나 이런 데에, 아니면 진도나 이런 데와 비교를 해도 인구수도 많고 이런 데, 의료원은 오히려 그쪽보다 훨씬 인프라

가 약합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방법이 없나, 와서 혼자 내심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 이 보건소라는 것은, 사실 조직으로 얘기한다면 큰 조직입니다. 의사가 46명이라고 그러면 큰 종합병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온 날부터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그것을 하려고 하니 까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 방문이 여의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어쨌든 지소, 이런 데는 관리 및 의사들이 성실히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뿐만 아니고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사실은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지시, 내려온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거기에 이렇게 지침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해라, 이러는데…… 제가 약간 그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면, 이걸 사실 내용이 아주 빈약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완도에 맞게, 완도에 더 좋게, 완도에 이것을…… 어떤 지시·규정에 안 어긋면서 맞게 발전시킬 수 있나, 사실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꼭.

□ 서울윤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합니다.

완도가 의료환경에…… 좀 못 챙겼다. 과거에, 한 2~30년간 우리가 공백기로 가면서 의료환경을 못 챙겼지 않겠느냐.

저는 고향을 갔었습니다. 한번, 의원이 된 뒤로 고향을 한번 갔어요. 고향 입구에 크게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 건물을 지은 것이예요. 그런데 완도는 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틈새가 있는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또 어떤 독재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김선종 원장님이 계실 때

큰 업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의장 박종연

천양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양숙 의원

원장님. 먼 곳에,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까지 잘 지탱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또 완도에서 사시다 보면 정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완도가 고령화로 가는 지역 중에서, 완도가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이 앞에 앉았던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가서 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보고도 눈앞에서 그렇게 가는, 어떤 대처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단한 구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제일 손쉽게 하는 것은 압박하는 것과 인공호흡을 하는 것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비상조치를 많이, 취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문 의료를 많이 하셨던 원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구나 이런 약품설치가 아니고 그 순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전문인력이, 꼭 같이 스태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로당에 예를 들어 응급, 어떤 기계나 이런 것을 설치해도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없

으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군다나 완도에는 보니까 경로당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300개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데마다 전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료소에 있는 진료요원들을 좀 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강화를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다가 하려면 예를 들어서 300명 인원이 필요하고, 300명이 어떤 설비나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참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시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와서, 처음 저를 면접을 볼 때 얘기한 내용이 “여기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제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특색입니다, 우선.

응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니다.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에 어떤 처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 천양숙 의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골든타임이 아닙니다, 응급에서는, 예를 들면 심장이 멎었다. 4분 내에 심장을 되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4분이라는 이 사실 얼마나 짧습니까? 그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어디 저 섬에서 발생했다. 대책 없습니다. 닥터헬기가 아니라 헬리콥터가 가도 오고 가고 하는데 1시간 걸리고…… 그래서 이게, 참 여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그런 설비나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단.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천양숙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아직 원장님께서도 아직 덜 익숙해졌을 것 같아서…… 그 난임 부부 있죠?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도 인구가 절감되고 그러는데, 정말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임시적인,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나 이것이 해결이 될까, 항상 이게 과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완도군에서 조금 많이, 몇 회…… 8회까지, 몇 회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정된 지원금이……

(“ 3회 정도.” 하는 주무관 있음)

3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는 가능한 좀 많이, 그 인구수정이라고 하죠? 그 시술비를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김동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삼 의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건의료원의 업무 중에 보면 센터가 많거든요. 치매안심센터, 또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센터가 의료원내에 세 군데가 있구먼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사업개요에 전담인력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뚜렷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개 업무보고를 하는 데에 보면, 거기에 속한 인원까지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전담인력이 그 업무만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업무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보는 것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그 업무만 합니다.

그리고 전부 대부분, 전문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기가 어렵고, 전담된 업무만 수행하기에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 김동삼 의원

그러면 지금 보건의료원…… 여기 본청에,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전체적으로는 약 70명에 가깝고요. 그중에, 소위 얘기하면 정규직이 한 35명 정도 되어 있고요.

□ 김동삼 의원

이렇게 뭐 기사라든가 청소 인부, 이런 부분 다 빼고, 이렇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포함해서입니다.

□ 김동삼 의원

포함…… 빼고 진료나 이렇게 또 이런 전문치매, 정신건강,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실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70명에서 35명을 빼면 35명입니다.

□ 김동삼 의원

제가 좀 의문인 것이 방문보건 담당에서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두 군데 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거기 전담인력이,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16명이에요.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가지고, 그러면 방문보건 담당에 속한, 그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방문보건…… 그러니까 거기도 방문보건을 하는 인력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 김동삼 의원

아니 거기 6급 담당, 이 속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방문보건팀이에요?

□ 김동삼 의원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방문보건 내에, 사무실 내에는 4명이 있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인력은 4명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그러면 이 보고서에 아까 의료원장님께서, 이렇게 전담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는 10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6명 아닙니까? 그러면 16명이 방문보건담당,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지요?

(“ 의원님, 정확하게 먼저 정리할 것은 방문보건 업무 자체, 그러니까 전체 계로는, 요원은 23명이고요. 방문전담관리사업 전문요원은 4명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방문보건 업무를,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대하고 가서 액션하는 요원은 4명입니다.

□ 김동삼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업무센터, 두 군데를 관리하는 것은 방문보건 담당 그쪽에서 하는데, 이런 데, 전문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속이 없기 때문에 같이 뭐 하고, 또 다른 인력도, 다른 담당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 이렇게 와서 하고 그런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 전담…… 실제로 액션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인력입니다. 간호사면 간호사, 의사면 의사, 그런 뭐……

□ 김동삼 의원

아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종합행정이라는 것이 그렇니까, 이 업무도 보고 저 업무도 보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무분장을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센터를 보면 유독히 전담인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 10명은…… 이 치매만, 치매관련 업무만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하고 겹쳐서 보는 것이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이 10명은요, 치매환자만 볼 수 있는 전문인력입니다.

□ 김동삼 의원

그렇게, 그 센터에만, 그 업무만 이렇게……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예, 치매안심센터에만 있는 전담인력. 간 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8명이구요.

□ 김동삼 의원

건강복지센터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전에 이렇게 뭐 할 때는, 그 용어자체가 건강증진센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맞는 거예요, 그것으로 정립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 여기는 개관을 하나요?

(“ 2월 2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27일이요.

그래요. 여기 개관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신문 이런 쪽에 홍보 좀 잘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주·야간, 이런 관계도 명확하게 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여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조평호

안전건설과장 조평호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예 민방위대 육성을 포함하여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안전건설과장의 보고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장보고기념관 특별전 개

최 외 5건입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삼 의원

소장님, 자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관람객 현황을 보면 장보고기념관은, 그 입장료가 작년에 3,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촌민속전시관은 180만 원이에요. 어촌민속전시관이 2016년도에 비해서 관람객 수는 배가 늘었습니다마는 입장료는 더 줄어들었는데 해조류박람회, 이것을 장좌리에서 개최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 그전부터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이런 것이 대두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저 밑에 보면 노후시설, 이렇게 정비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거기 인력이 몇 명이에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정규직 2명, 청원경찰 1명, 공무원 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동삼 의원

총이요? (예)

그런데 이 앞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장보고유적지 그쪽에다가 역사문화관을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 정보센

터 2층에다가 했지만 저는 그 2층보다는, 작년 해조류박람회 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넓은 부지가 있잖아요. 지금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면, 해야 더 효과. 또 그다음에 가운데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기념관 관람을 하고 바로 옆에 가서 역사관을 보고 그런다.

저는 이 역사관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다만 한 실이라도 더 만들어 가지고, 이 어촌민속전시관에 있는 전시물을 이제는 오래되고 이런 것은 좀 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축소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어촌민속전시관 전시물을 이제 옮기고. 그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어촌민속전시관 건물은…… 어떤 군에라든가 어떻게 뭐 하든가. 어떤 단체가 한다면, 수산단체가 뭐 한다면, 하 여튼 이런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람객도 얼마 안 오지, 입장료도 180만 원. 1년, 이렇게 하는데…… 인력은 7~8명,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유사한 것은 한 군데로 모으는 이 선택과 집중. 이래야만 이 효과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을 군에서 심사숙고하니, 부서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제안 좀 드리고 싶어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예, 김동삼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근무를 해보니까 장보고기념관, 장보고동상, 생태전시관 등, 하고 해서…… 거리가 멀리도 멀뿐 아니라 동선이 너무 길어서, 실제로는 관심을 가지고 오지 않는 방문객들은 거기 위치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의 의견대로…… 해당 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좋은 쪽으로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삼 의원

그리고 이것을 이관하고 뭐 하는데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면 돈이 들고 그러는데, 지금 아주 좋은 부지가 형성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저기 죽청리에 그쪽에 있는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 이 명소가 이렇게 하고, 거기 동상하고 연계해서 이쪽 장보고유적지로 와가지고, 거기 해조류체험센터 기념관, 또 역사관, 또 어촌민속전시관, 이렇게 해가지고 장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집중이 되어야만 저는 더 효과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제안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부서 간, 진짜 진지하게 해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종연

장보고유적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박 종 연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인 철
박 성 규
김 동 삼
정 관 범
천 양 숙

□ 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주민복지과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안전건설과장 조평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2월 12일(월) 10시04분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7.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부의된 안건

<제5차 본회의>

1.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7.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0시04분 개의)

□ 의장 박종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4호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창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5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7.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성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개인능력 향상과 전문인력 육성,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정착 지원 등을 마련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보조용자사업 지원 및 귀농·귀촌, 결혼, 이민 여성농업인 농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6호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이용대상자를 제한해 두고 있어 거주지 제한에 대한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에 대한 차별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현행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35로 하고 운영지원의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관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7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교통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00원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완도읍 도암리, 노화읍 알갱이, 당포리, 소안면 당사리, 4개의 마을을 추가, 19개 마을을 100원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조례안의 내용 중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아니한 소안면 구도 마을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9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이상 감면하도록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후가 면제되는 시설물에 위치, 용도, 규모 등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장소에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9호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식별장치라는 용어를 정의의 규정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 삭제하고 기타용어는 현행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

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03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가 이용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시설되는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경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공조형물 설치시 사전에 심의회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도록 조형물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공공조형물설치 신청과 기타 조형물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와 위치, 제작기준은 주변 환경과 조화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공공조형물 등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조항과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매년 관리계획을 수집하는 시행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칩니다.

□ 의장 박종연

다음의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6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써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청취하고 의문되는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군정의 흐름과 추진방향을 파악하는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의미 있는 임시회 기간이었습니다.

집행부는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기를 바라며, 금년도에도 계획한 군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화, 보길 지역은 강우량이 평년에 비해 58% 수준으로 2일 급수, 10일 단수를 하고 있고 당분간은 가뭄을 해결할 강우는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구적인 물 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군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입니다. 해상교통, 재난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8인)

박 종 연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인 철
박 성 규
김 동 삼
정 관 범
천 양 숙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주민복지과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안전건설과장 조평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공무원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2월 09일(금) 14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294호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294호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294호 서

류를 검토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294호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동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7조 제2항에서 상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위반되는 군수 정보화책임기관 임명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조 제6호, 안제10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조항 부처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17조, 안제18조에서 정보격차 해소와 소득창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정보화마을조성 및 육성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8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이석우입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된 명칭이나 조항에 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시면 7페이지에 있는 기존에 17조 제1항에서 “군수는 정보화마을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보화마을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수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육성한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조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지원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정안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4호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4호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95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입안기준을 위반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1조와 제2조에 약칭 부분 수정과 제3조에 당현직 위원이 현행 보건의료원장과 주민복지과

장, 관광정책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스포츠와 건강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과장을 추가하여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서 관련된 조문의 형식이나 맞춤법을 보완하는,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당현직 위원으로 문화체육과장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정안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5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5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박 인 철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성 규
김 동 삼
정 관 범
천 양 속

□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 의회 참석자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5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2월 09일(금) 14시11분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완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완도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29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천양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양숙 위원

천양숙 위원입니다.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보육여건 개선 등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5페이지,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완도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군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5조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범위로 농업진흥에 따른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와 군 자체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정책수립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제7페이지 제10조에서는 정책심의회에서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사업의 선정,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 여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제1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과 농업경영교육, 여성농업 후계인 인력의 양성, 여성농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보조나 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14조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하여 제15조는 여성농업인 중 모자가족수에 대해 미혼모 장애여성,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 등에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페이지,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여성농업인 단체지원과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9조에서는 귀농·귀촌 여성농업인과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한국문화교육, 농업기술교육 등에 따른 정착지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천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전문위원 배정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그리고 지위향상,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능력 향상과 전문인력 육성, 그리고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정착 지원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과, 그리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 범위를 정하고 제13조 14조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 여성농업인의 단체조직과 활동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서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등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구성책임, 그리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법 위원

천 위원님, 여성농업인을 육성한다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사업들을, 제반사업들을 여성농업인에게 제공해주는 내용인 조례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대 정수에,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세대원으로서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게 좀…… 얼른 와 닿지 않아서.

□ 천양숙 위원

세대별로 한다, 아니면……

□ 정관법 위원

세대원으로서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 전문위원 배정택

제가……

제2조의 정의에서 여성농업인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여성의 조건은 여성이…… 법적으로 구조를 갖추었을 때. 인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법 위원

지금으로써의……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한

다, 그 말이죠? 세대주가 아니고?

예, 잘 알았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천양숙 위원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1호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3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00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완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관내 도로변이나 공원 공공건물 등에 시설되는 각종 조형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지역공간 조성에 기여코자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페이지, 조례안 제2조 제2호와 3호를 보시면 공공조형물과 기타조형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공조형물이란 완도군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을 말하고, 기타조형물이란 군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지칭한 것으로 단서조항에 기타조형물이 설치된 후 완도군으로 기부체납 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공공조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공조형물과 기타조형물을 구분한 이유는 조형물에 대한 설치 허가는 군에서 하되, 유지관리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12페이지, 제4조에서 기타조형물을 설치하는 자는 완도군에 기부체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기타조형물의 설치 및 보수 등에 따른 제반비용은 기타조형물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과 설치위치, 부지면적 등에 대해서 조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을 담고 있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조형물의 설치신청, 이의신청, 등록관리, 공공조형물 활용 등에 대한 행정 내부의 업무처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03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의안번호 2003호입니다.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등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도록 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서 공공조형물과 기타조형물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과, 그리고 기타 조형물의 경우 공유재산 및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타조형물의 설치 및 보수 등 제반비용을 설치자의…… 비용부담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와, 그리고 위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작품성과 조화성을 고려하여서 설치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촉진에 의해서 예산범위에서 지원조항과, 그리고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매년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구성 체계 및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위원

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자하는, 이 조례안 설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설…… 설치에 대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그런 것이 원칙으로 나와 있는데, 이설, 철거, 그다음에 건립부지, 보수에 대한 소요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게 애매하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부서에다가…… 해냈는데, 이 부분들은 예산

소요기금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지금……

□ 정관법 위원

설치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데, 이설이 필요할 때, 철거가 필요할 때, 또 건립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 시에는 누가 경비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없다고, 명확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안을 해서 조례를 완성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9조에 보면 설치기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와 교체와 건립보수의 사항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4개의 개념들을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 정관법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은 명기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03호 완도군 공공조

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03호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6호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97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229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이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건강진단차 출타하여 오늘 제안 설명은 교통행정담당장이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오병수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연가 외출을 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하게 돼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296호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용자에

게 거주지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는 운임요금 변경부분 반영입니다. 다음으로 는 현재 장애인 콜택시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정산하고 있으므로 운영비를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부족금만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9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페이지, 제2297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잠깐만요. 한 건씩, 한 건씩.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의안번호 2296호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나 현재 군민대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거주지 제한에 대한 조항을 상위법의 근거로써 삭제하고, 두 번째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2항에 근거해서 현행 100분의 50 이하, 즉 기본요금이 현재…… 1,200원에서 100분의 35인 기본요금이 2km에 1,000원으로 변경 사항과, 그리고 단서조항에 운영지원 및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일부개정조례로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10조예요. 삭제했는데,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부족금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비, 콜택시 운영비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콜택시 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정산을……

□ 전문위원 배정택

그것은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지금 현재……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완도에 3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운영되면, 세외수입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결국 운영지원하고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를……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본 조례안을, 여기 보면 부족금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제외해버리고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잡고…… 운영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년마다 얼마씩 이래가지고 나간다. 이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김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삼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거주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다는 것은

참 잘한 것이예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장애인인 우리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한 일이고.

방금 박인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운송사업 요구에 100분의 50을 35로 이하…… 이렇게 다운시킨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들한테 어떤 편리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예, 그 내용입니다.

□ 김동삼 위원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 밑에 수입과 지출을 대조해서 부족분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것도 없애버린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할 때, 하면서 우리가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그것 있잖아요?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는 1대에 3,600만 원씩 해서 7,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하는 주무관 있음)

예, 1대당 3,600만 원.

(“예, 그래서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그러니까 초창기여서 8,7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에는 3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3,200만 원, 지금 1대에…… 그래서 1억 400만 원…… 아마 더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하시킴과 동시에, 그 지원액은 더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렇게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3,600만 원…… 예, 분기마다. 2,600만 원씩. 그러니까 지원해 드리는데, 원래는 1대에 3,600만 원씩인데 저희가 3대 늘어나면서 운영비가 군비로 들

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맞춰줄 수가 없어서 3,600만 원으로, 1대에. 이렇게 해서 1억 4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지금 인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종전대로 그렇게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감안해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럼요, 잘 알았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29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교통행정담당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페이지, 제2297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완도 중도리, 노화 동고리와 당산리, 소안면 당사리 등 마을에 대해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0원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 수정 및 추가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 지원이고 고령화 지원인 완도 도암리, 노화 알갱이, 잘포리, 소안 당사도 등 마을에 대해 수요조사 및 현지답사를 거쳐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5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의안번호 2297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00원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현행 16개 마을에서 이번에 신목…… 노화 신목마을은 농촌버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중단하고, 그리고 새로이 완도 도암리, 그리고 노화 알갱이, 잘포리, 그리고 소안면 당사리, 4개 마을을 추가하는, 100원 택시 대상 마을을 지정해서, 법적근거를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삼 위원

지금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이 지금…… 운행 대상 마을을 수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완도를 중도리하고 노화 알갱이, 잘포리, 소안 당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식목은 군내버스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예)

그때 그…… 구도리가, 소안 구도리는 버스가 들어갑니까?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안 들어갑니다.

□ 김동삼 위원

안 들어가죠. 그때 그쪽에서…… 100원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넣어주라고 하고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반영이 안 됐는가요?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저희들이 소안면에 가가지고 면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사도…… 그나마, 그렇습니다.

□ 김동삼 위원

아니, 구도도 그렇게 연도되고 그러면서…… 거기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군 재정이나, 이런 데에 영향이 있는가요?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아무래도 100원 택시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 부담돼가지고…… 각 마을별로 여러 군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정을 한 것입니다.

□ 김동삼 위원

그래도 좀 참고해서, 거기 연도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민원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즉 이야기가 좀 됐는데, 안 그래……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인철 위원

구도리가 버스가 안 들어가요?

□ 정관범 위원

구도리? 소안 구도 말하죠?

□ 전문위원 이석우
없습니다.

□ 정관법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수정해가지고 가결하면
되죠. 구도리를 넣어가지고.

□ 김동삼 위원
또 뭐 재정이 관계있다고……

□ 정관법 위원
재정이야, 뭐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그러니까 도비는 10%도 안 되죠? 전부
다…… 50%.

□ 박인철 위원
내일 모레 추정하는 데에 좀 하라고 하죠.

□ 김동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넣을 수 있으면……

□ 정관법 위원
여기다가 수정의결하면 돼요, 별표를……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어떠십니까, 구도 마을도 삽입할 수 있습
니까?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예, 할 수 있습니다.

□ 정관법 위원
수정해서 의결하면 되는데.

□ 전문위원 이석우
100원 택시, 1년 재원이 어느 정도 되나
요? 올해 예산……

□ 전문위원 배정택
1억 3,000만 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4,500만
원. 군비가 8,000만 원이고 국비가 5,000만
원이고, 도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조례에 되어 있는 흑일도 같은…… 이번에
들어오신다고 하셔가지고, 협약을 이번에 하
셔가지고, 아마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
서 2차 추경 때 상황을 봐서 올리려고
……” 하는 주무관 있음)

□ 정관법 위원
이 부분, 수정의결로 하죠. 구도를 넣어가
지고.

□ 서울윤 위원
아니, 그걸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각 읍
면에서 100원 택시를 희망하는 마을이 많이
있나요?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희망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 서울윤 위원
희망하는 마을은 많이 있는데 엄선해서 여
기 올린 것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예, 최대한 면에 가서 들어보고, 여러 군
데, 한 면에서 올라오는데도 있어가지고 그
렇습니다. 엄선해 가지고……

□ 조인호 위원
그런데 버스가 들어가는 곳은 배제를 시켜
야 돼.

□ 서울윤 위원
기준이 정확해야 돼, 기준을 정해야 됩니
다.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곳, 그렇죠? 첫
째.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예, 당연히 대중교통은 안 들어갑니다.

□ 서울윤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곳에서 그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거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인구, 그다음 고령화하고 재정여건을 참작을 해서 군수님이 결정하게……” 하는 주무관 있음)
감안해서……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 주무관 있음)

무조건 대중교통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예, 재정여건을 참작해서……” 하는 주무관 있음)

□ 정관범 위원

재정여건이…… (웃음)

□ 서울윤 위원

그래서 재정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케이스입니까?

□ 조인호 위원

그러면 구도는 다음에 하면……

□ 김동삼 위원

그러면……

□ 서울윤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예, 말씀……

□ 김동삼 위원

그러면 지금 구도하고 당사도하고 km는 어떻게 돼요, 차이가?

(“당사도는 60명이구요.” 하는 주무관 있음)
인구가 60명이요?

(“예,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에 의하면 구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행거리를 보았습니다. 당사도에서…… 노화 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3명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그쪽까지 아마운행을 할 것 같아서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당사도부터 해주고 구도는 예산계에 맡을……”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노화 버스를 좀 연장할 수는 없는가요?

(“그것도 저희가 여쭙았습니다. 노화 교통에다가……” 하는 주무관 있음)

그것까지 좀 연장하면……

(“말씀을 드렸는데 구도까지는 못가겠다고……” 하는 주무관 있음)

□ 서울윤 위원

기름값이 안 나온다고?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비수기 노선을…… 비수기 노선을 제작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화 교통에다가. 저희 구도 학생들이……” 하는 주무관 있음)

□ 정관범 위원

그러니까 수정해 가지고……

□ 김동삼 위원

안 되는 것으로만 되어 버리는구먼.

□ 박인철 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예산 부족한 것을 넣으면 되죠. 방파제를 하나 안 막으면 돼요, 이런 것. 그런 것, 예산 걱정하지마세요.

□ 정관범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소안 구도를 넣어가지고 수정의결로 하죠.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담당 주무관님, 청산…… 그 자지도도, 어차피 도청항으로 대조, 배를? 어디로 댁니까? 소안 자지도에서, 당사도로…… 소안 당사도에서 어디로 배를 대냐고.

(“ 소안항……” 하는 주무관 있음)

□ 전문위원 배정택

소안항, 소안항.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그러면 노화…… 당사도에서 소안항으로…… 그래서 노화로?

(“ 예.” 하는 주무관 있음)

배를 타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을 해주고 구도는 여기가 본도라 제외한다, 이 말씀이죠?

(“ 예, 다리가 놔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주무관 있음)

□ 정관법 위원

아까 버스가……

□ 김동삼 위원

버스가 안 다니는……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버스는 어디까지…… 도청항까지는 갑니다마는 마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 김동삼 위원

도암리는 그러면, 여기 완도읍이고, 제주도도 어떻게 보면 가깝고 그런데, 저는 우리 주무과에서 이야기한 것이 좀 타당성이……

□ 박인철 위원

아니, 이왕 말이 나왔으니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중도리에 버스가 안 가요?

(“ 예, 안 들어갑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아, 행정 뭐로 해가지고?

□ 정관법 위원

그러면, 그거랑 똑같지. 구도랑 똑같지.

□ 김동삼 위원

도암리 그러면 훨씬 더 여건이 좋지, 그러면.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포함, 어떻게…… 포함할까요?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 거리가 굉장히 멍니다, 사실은.

□ 조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 노화 공영버스하고 한번……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공영버스는 안 해 줍니다, 안 해줘.

□ 조인호 위원

비수기 노선으로 해주면 해주지, 왜 안 해줘.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그것은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다른 때에 한번 썬워주라고 해도 안 썬워주더라고, 중간에.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소안 구도를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예, 다음에 하기로요?

□ 박인철 위원

아니, 수정해가지고.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수정해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관범 위원

20군데로 고치면 되겠구먼.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29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교통행정담당 계속 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다음으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229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이상 감면하도록 상위법인 주차장 법 제9조 및 14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완도군 주차장 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주차장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 의무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의무명세서는 차량진입 불가도로나 간선도로 등 극히 예외적인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주차장 조례 제17조를 예로 들어 일부 건축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막고자 합니다. 인근 해남, 강진, 순천, 등 부설주차장 의무명세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 자동차 추가,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50% 정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1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의안번호 229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공해자동차와 친환경적인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한, 상위법인 주차장 법에 개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같은 법 제19조에 부설주차장 설치의 도시지역 등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시설시, 그 시설물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나…… 시설물의 유치가 차량통행이나…… 등, 용도나 분류 등을 고려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규정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어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계장님, 지금 우리가 일방통행하면서 이 조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앞전에 일방통행을 할 때 이 조례가 생기는 바람에……

전체를 삭제한다, 이 말입니까? 그때 주차장을 안 하는 대신 비용을 납부해가지고 했던 것을…… 어디 예외 지역 없이 전체에 다 한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시행령 자체가 조례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다가…… 그대로 써놓으니까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그런 조항이 있는

데…… 실질적으로 아주, 차량이 진입불가하다거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것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요즘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 그 비용을 내놓고 주차장 시설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 박인철 위원

이제 부지를……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예, 약 75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을 삭제하려고……

□ 박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교통행정담당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회 순서입니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회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6호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6호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7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행대상 마을에 소안면 구도를 추가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7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99호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29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제2299호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 및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식별장치라는 용어는 정의규정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음으로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포획이라는 용어에서 구조라는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0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의안번호 제2299호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의 3호의 개별식별 장치라는 용어를 정의한 규정 외에…… 삭제하고 기타 용어에서 포획 용어를 구획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양숙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천양숙 위원님.

□ 천양숙 위원

포획하고 구조하고…… 그 뜻을 좀 정확히…… 구조는 동물을 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 어디 그물에 걸렸다가나. 그러는데 포획은 어떤 사람이 위협감을 느꼈을 때 사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살했다고 그러면 괜히 또 그것 가지고, 왜 죽였냐고 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그 포획이라는 용어가, 어떤…… 동물을 구조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그 유기동물이 오면 포획하러 간다고 그러면 잡으러간다고, 이렇게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를 좀 바꿔서, 구조하러 간다는 용어로 포장해서 거기다가……

□ 전문위원 배정택

상위법에 맞게끔.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다른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99호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9호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 성 규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인 철
김 동 삼
정 관 범
천 양 숙

□ 출석 공무원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경제산업과 교통행정담당 오병수

□ 의회 참석자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박 종 연		
의 원	박 인 철		
의 원	천 양 숙		
의회사무과장	유 대 성		

제25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5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3월 27일(화) 10시01분

제25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 식

(10시01분 개식)

□ 의사담당 최광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5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

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6분 폐식)

제256회 완도군의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3월 27일(화) 10시06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 의장 박종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사무과장 유대성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9일 집행부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1. 제2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9분)

□ 의장 박종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울윤 의원과 김동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서울윤 의원과 김동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0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기획예산실장 서현종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000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비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4,430억 70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6% 늘어난 725억 9,3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55억 117만 6,000원으로 660억 3,006만 특별회계는 175억 586만 500원으로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255억 117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0억 3,0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안별 증액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 수입증가 등으로 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억 78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

중 미반영된 352억 1,850만 6,000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070만 원을 포함하여 352억 2,9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억 6,336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120억 8,643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6억 7,819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660억 3,006만 8,000원이 증액된 4,255억 117만 6,000원입니다. 기능별 세부증감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부 58억 597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1억 7,403만 2,000원. 교육비 3억 3,950만 4,000원. 문화 및 관광비 111억 2,389만 8,000원. 환경보호비 113억 2,014만 8,000원. 보건비 8억 627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비 228억 8,168만 5,000원. 산업 중소기업비 9억 925만 원. 수송 및 교통비 27억 7,88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41억 6,423만 6,000원. 기타 57억 2,21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9억 9,60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부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 11억 1,207만 1,000원. 물건비 42억 6,858만 8,000원. 경상이전비 103억 4,746만 4,000원. 자본지출비 429억 8,415만 7,000원. 내부거래 58억 7,996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3,782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142억 8,29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57억 6,65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1,863억 9,769만 9,000원으로 191억 1,7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234억 6,180만 원으로 47억 7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4억 2,345만 7,000원으로 19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1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70개 사업에 388억 3,395만 6,000원이 신규반영 및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75억 586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 6,3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6억 1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 및 특별회계는 3,8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총 32개의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557억 6,753만 2,000원에서 223억 6,175만 원이 증액되어 1,781억 2,928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 설명서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02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이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집행부의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군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성실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재정의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천양숙 의원을, 간사에 김동삼 의원을 선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종연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완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하도록 돼있는 바 김동삼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하고 이명복, 임채관, 손종훈, 손연지 이상 네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김동삼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하고 임채관, 손종훈, 손연지 이상 네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박 종 연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인 철
박 성 규
김 동 삼
정 관 범
천 양 숙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업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안전건설과장 조평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3월 31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관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3.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
17.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
19.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2018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관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3.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
17.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
19.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2018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종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심사했던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 등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완도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4,430억 70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255억 11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5억 586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25억 9,3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액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기능별 예산의 증감내역은 문화 및 관광에서 2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2억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4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의 증감내역은 자본지출비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따른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요구된 특정관리 대상시설 건축물의 매입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위험건물은 그동안 의회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건물의 안전성을 지적해 왔는데 금번에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동건물의 위치가 평소 주민과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물이어서 본위험건물을 매입하여 철거를 하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러나 동건물의 매입과 철거비를 군에서 전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며 건물소유자의 책임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물소유자의 부담이 일정부분 부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하여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둘째, 완도역사문화관 건립·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장보고공원에 위치한 관광정보센터 건물을 개축하여 완도역사문화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관광정보센터는 건물의 공간 자체가 좁고 위치도 주변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리모델링하여 우리 군역사문화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완도역사문화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더 큰 청사진을 계획하고 12개 읍면 전체의, 우리 지역 문화가 들어가는 역사문화관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행정조직 경영진단 용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실과소별로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행정업무에 반영하고자 각종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년간 현직에 몸담고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께서 바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동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사업비에 대해 적잖은 토론을 거친 끝에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7기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 실과소장을 포함한 담당계장님들과 직원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군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서 심사완료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현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3.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
17.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현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4항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9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4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명예보훈수당 5만 원과 사망시 위로금 20만 원, 유족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개정안으로, 현행 전라남도 17개 시군이 명예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3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지자체의 의무부담이라고 여겨집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5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로당시설 지원대상으로 기존 신축·증축·보수 외에 건물매입을 추가하는……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6호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우리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인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응급의료기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설치시설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내용 중 제4조의 응급의료 지원 및 범위에서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을 명시하여 귀중한 군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의안번호 2307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정하고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 맞춤형복지제도 등에 관한 지원 근거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우리 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가 인용되고 있는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6개의 조례에 있는 일본식 관련 용어를 한글맞춤법 표준어로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정비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우리 군 조례 중 일곱 군의 조례에 규정된 기존 정부부처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0호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정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 강화에 대한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도 납세자보호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의 의무와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1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상위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등 7대 대상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의 자료 관리와 운영, 관련자료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2호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올해부터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 설치·운영될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물놀이장 시설 사용료를 책정한 대인 7,000원, 소인 5,000원을 대인 5,000원, 소인 3,000원으로 변경하고 단체의 경우, 대인은 3,000원, 소인은 1,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3호 완도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인 헌혈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과 헌혈 자원봉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조례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4호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조항 개정과 조례내용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규정된 현행

제5조 제1호 및 제6조에 있는 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강화하여 현행 임의규정 대상시설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금연구역 안내판을 보다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5호 완도군 금연구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조항 변경에 따라 동조례안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별지 서식의 띄어쓰기를 법제처 법령기준에 맞게 고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6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내용은 둘째 아의 출산 양육비 지급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둘째 아 출산에 따른 양육비 지원 적용대상을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7호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우리 지역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3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요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완도군 보훈복지회관 건립, 약산 향일운동기념공원 조성,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조성, 해양헬스케어산업단지 조성, 약산 당목 창조적마을만들기 등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토지취득 35필지에 4만 6,590평방미터, 건물 1동인 928평방미터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심의되어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0호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운영기관이 오는 4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상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21호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입니다. 본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임의의 협의단체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우리 군이 회원도시로 가입함에 따라 관련 협의회 규약에 대해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내용의 검토결과 평생학습회원도시간 상호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져 동규약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7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17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17건의 안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현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

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현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완도읍 망석항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2018 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망석항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8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성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9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8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많은 농어민이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번기철 농어민의 농작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임대농업기계의 출고시간을 필요에 따라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전일 출고시간을 변경하는 내용과 임대료 납부기간을 당일에서 3일로 변경 등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려는 것과 여성농어민의 사회적 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농어민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정하지 않는 위원회의 기능 중 농업기계 기종선정 및 구입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의 보증책임을 연대 보증인까지 두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9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식물방역법이 개정되어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외래 돌발 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소재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를 정하고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와 구성을 두고 있으며 예찰과 방제단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사전·사후적계획의 수립과 병충해의 진단 및 위험성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2호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련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도읍 망석항은 1973년 지방어항으로 제정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어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완도읍 망석리 593-1, 927-5번지 일원의 공유수면 3,860제곱미터를 매립하여 물양장 등 어항시설 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항시설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면 어선의 안전정박과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 의견에 대한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23호 2018년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2018년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전문화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슬레이트 처리는 완도군의 건강, 안전을 위해 처리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업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평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종연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총 4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총 4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2항 2018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8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14년 7월, 군민의 성원 속에 출범했던 제7대 완도군의회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봉사자이며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민생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오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7대 완도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성실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적조발생에 의한 수산생물 피해보상 촉구결

의,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2017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지원 등은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원 이후 정례회 및 임시회를 31회에 걸쳐 327일간 운영하였고, 13번의 예산안심사, 337건의 조례안심사, 7번의 읍면순회 방문을 포함한 군정 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 모두 423건의 의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군정의 주요현안 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모든…… 또한,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전이 추진한 완도 변환소 및 송전선로사업으로 인해 군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다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촉구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로서의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청정바다 수도 완도 이미지와 군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완도 변환소 및 송전탑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할 것을 한전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군민 동의 없는 사업추진은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앞으로 완도군민의 뜻과 행동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7대 완도군의회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위한 군민과 함께 하고 더욱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박 종 연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인 철
박 성 규
김 동 삼
정 관 범
천 양 숙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안전건설과장 조평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6회 완도군의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3월 27일(화) 10시30분

□ 의사일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30분 개의)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303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0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03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청구를 위하여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내역은 취득 36건에 면적 4만 7,528㎡이며 금액은 65억 1,000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 세부내역은 완도군 고금복지회관 건립사업, 약산 향 일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 노화 갈꽃섬 전복 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 해양헬스케어산업단지 조성사업, 약산 당목 창조적 마을만들기. 총 5개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실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내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4페이지, 완도군 보훈복지회관 건립사항이 지금…… 이 사업은 아시다시 현재 사용 중인 보훈회관이 건립 30년이 지나서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도군 관내에 9개 보훈단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보훈회관을 건립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군내리 736-1번지 외 두 필지이며 4층 건물에 9개의 보훈단체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토지취득 계획은 두 필지 301㎡, 건물은 한 동에 옆 면적 928㎡입니다. 사업예산은 21억 6,000만 원입니다. 부지를 군비로 취득한 후에 (구)보훈회관을 철거하고 매입할 두 필지와 군소유한 필지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황도면 및 재산현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약산 항일기념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본사업은 약산면에 항일운동 구성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기념공원 조성 여론이 비등하여 지금까지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산 항일운동기념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예정 부지는 장용리 685번지 외에 두 필지로써 면적은 1,904㎡,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9,000만 원,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토지매입 현황도면 및 재산현황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법 위원님.

□ 정관법 위원

어떻습니까, 보훈단체하고 조용히 끝났습

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각 단체별로 의견이 사실 다릅니다. 우선 매립지역의 한정부지, 거기예다가 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은 의회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매립지역을 통과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사용을 해야지, 다른 건물은, 거기다가 지을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대신 지금 현재 보훈회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신축하자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몇 개 단체에서는 “왜 우리가 협의를 해줬느냐.”, “꼭 거기다가 해야 되느냐.”, “한 쪽 부지에다가 해달라.” 는 그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보훈회관 건립이 어렵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입장을 제대로 밀고 나가고 안 되면 그 보훈회관을 짓지 않을 계획입니다.

□ 정관법 위원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쪽에다가 옮겨지어도 면적은 충분하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단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정관법 위원

결국 교부세를 5억 가져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2억 4,000만 원.

□ 정관법 위원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 의회에 설득시켜서 원만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복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관광정책과장 안봉일입니다.

9페이지,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노화 갈꽃섬 전복 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유희공간을 활용한 전복생산물 체험이 가능한 전복역사문화관, 전복 관련 프로그램, 전통음식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사업부지는 노화읍 고막리 산 5-1 필지 외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647㎡입니다.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예산 21억 1,100만 원 중 두 필지 및 부지 매입비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황법령 및 재산현황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관광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업 변경한 것이죠?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당초 노화동초등학교를…… 했었는데요, 안전시설 결과 2등급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사업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그다음에 이것하고, 건강테마촌하고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별개의 사업이고요, 이제 노화읍 북고리 쪽을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 구역이 중복되지

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차별적으로 수립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건강테마촌을 접목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유치가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북고리 마을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마을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냥 무상위탁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무엇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준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세부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이것, 꼭 이것을 해야 돼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국비가 15억이나 되는 사업이고요, 북고리 쪽에 전복체험장하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그때 오정임 기획실장님 계실 때는 군비도 안 줬고, 국비로만 전액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다가 또 군비를 넣었구먼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군비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사업계획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국토부에서 조건부로 ‘국비를 좀 부담해라’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이것 지금…… 현안부서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어놨는데. 왜 전임사람하고, 전임실장하고 말이 틀린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천양숙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말을 하는지 한번……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요즘 전복을 많이 생산하고, 가격이 많이 절하되어 가지고 전복소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요, 요즘 관광TV가 체험 형태의…… 관광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양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금 박인철 위원도 얘기하듯이 건강테마촌이…… 자금 우리가 생긴 지가 벌써 10여 년 가까이, 10년은 못됐죠? 7~8년, 얼마 됐나요? 그러는 데도 그게 지금 원만히, 원활히…… 처음에 전복이 많이 나니까 전복을 소비시킨다는 차원에서, 그것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다…… 그 전복이라는 타이틀 아래 이 계획이 잡혀가지고 지금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원활히 돌아가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 유명무실하게, 그냥 건물이 행하게 남아있고 뭐 마을에 무슨 행사…… 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1억의,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와가지고 얼마나 체험을 하고…… 한번 그런 그것도 계산해가지고, 더군다나 마을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어 가지고 대단히 어떤 책임감도 없을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이장님이나…… 이제 누구를

주로 상대로 해서 이것을 위탁을 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장님이 바뀌지면 모든 사업이 원활히 되지도 않고 그럴 텐데, 참 이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하시겠다는, 대단한 의욕에 차있어서 하니까 과연 잘 될런가 그런 염려를……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양숙 위원

좀 신중히 잘…… 계획을 해가지고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지금 노화가 물 사정이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화는, 이런 오감학교도 중요하지만 물 사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다음에, 전복이 아무리 많아도 그쪽으로만 치중하지 말고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건강테마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은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물 사정도 아니고…… 이를 물을 주고 10일 단수를 하는데, 그런 데에 학교를 열어서 뭐할 거예요. 지금 당분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오로지 노화 쪽에 이려고 있는데…… 빈 건물도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도 혹시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노화로 딱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완도군 어디 이런 데나 됩니까, 이 사업이?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당초에 노화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노화 권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우리가 장소는 옮겼습니까, 학교에도……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이제……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저번에…… 애당초 그것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고생해가지고 장소는 승인을 받았구먼요, 옮기는 것으로.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아,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안태호**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입니다.

우리 군 대표 미래전략 사업인 해양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헬스케어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토지 취득계획으로는 신지면 신리, 그리고 대곡리 일원 27필지로 면적은 3만 8,060㎡입니다. 총 사업비는, 소요예산은 41억 8,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취득예산 금액은…… 41억 원 정도 예상되는 금액 중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금번 추경에 8억 원해서 10억 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해양수산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위원**

이번에 지금, 이것이 두 번째 매입이라는 그 말이죠?

□ **해양정책과장 안태호**

추경에 8억 원을 세웠습니다. 10억 원만 잡고 저희들도 전체……

□ **정관범 위원**

앞으로 매입할 땅이 얼마나 남았는가요?

□ **해양정책과장 안태호**

전체 면적 중에 지금 확보된 10억 원을 가지고 사유…… 개인하고 협의된 그 부분만 먼저 취득할 계획입니다.

□ **정관범 위원**

그러면 의회는,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그때 그때 요구한 부분만 승인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 **해양정책과장 안태호**

전체적으로는 41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전체 취득을 하려고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고 해서, 이번 추경에 8억 원만 반영을 해서……

□ **정관범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의회에다가 설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안태호**

전에 위원님이 안 계실 때, 몸이 안 좋으셔서가지고 그때 참석을 안 하셨는데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4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그중에서 확보된 금액 범위 내에서 또 현재…… 협의된 부분을 먼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취득을 하고,

그리고 전체 확보된 부지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은 앞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또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대부분 민자유치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가능한가요?

□ 해양정책과장 안태호

그게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단계별로 나눠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원, 민자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시설사업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착수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공부문이 들어서야 민간투자 유치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지금 국가의 투자도 확정되지 않았고, 또 민자유치도 확정되지 않았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뜬구름 잡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군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이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군비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소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해양헬스케어산업, 해양치유산업. 용어도 다양하게…… 있는데 해양헬스케어산업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름도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용어보다는 해양치유산업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대중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홍보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마는 읍면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선거 시기가 다가오니까 선거법 위반부분이 있어서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했는데 특정인 또는 특정정당을 홍보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이 헬스케어치유산업, 치유산업 관련해서 홍보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 슬로건기 축제, 그리고 장보고 축제, 여타 마을 읍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고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업을 3,000억에 대한 그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사업 건별로, 단위사업별로 계속 이행해 나가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사업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킨 다음에…… 또 시설을 세팅시키고 한 다음에 민간투자 부분을 유치하고 유도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민간투자 유치 부분이.

□ 정관범 위원

충분히, 염려는 알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해양헬스케어산업이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신지에.

□ 해양정책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 정관범 위원

그것이,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완도 읍권의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너무 한 곳에만 치중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게 완도군에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으로써 이 사업이 협소화되고 어떻게 보면 표면에는 그런 결과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지면을 위한, 마치 신지면만을 위한 사업인양 비취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완도읍권 사람들이 굉장히 현신우철 군정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비토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비록 신지면에 해양헬스케어, 주된 시설을 하지만 이 파급효과는 전체적으로, 완도군 전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 홍보를 해주십사, 그거예요.

□ 해양정책과장 안태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신지 쪽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도권, 완도 신지…… 체도권하고 청산권, 금일권, 노화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일부 시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권역별로 나눠서 사업계획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 홍보, 그런 부분에…… 많이 홍보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연계성 부분…… 행정의 연계성 부분이 나옵시다마는 지금 홍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불신을…… 어떻게 보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해소시키지 않고 홍보의 기능이 무엇인지, 저는 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같이 홍보가, 뭐 어떻게 소통까지 잘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 전력을 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어떻게 군민들한테 군정을 홍보할 것인

가, 불신을 해소시킬 것인가. 이런 점에 주안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마치 못해서 홍보하는 식,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 홍보가 돼서는 안 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농촌개발담당 박희선입니다.

저희 건설과장님께서 장기출장 중이셔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산 당목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약산 당목 마을 생활기반 확충 및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농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숲 정비와 어구쉼터 조성, 꽃피는 당목실 조성 등 2017년부터 `18년까지 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마을 주변을 청정바다수도 완도 이미지에 걸맞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보호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 한국자산공사에 약산면 당목리 691-6번지와 8번지, 1,665평방미터를 매입 신청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 목포지사에서 감정평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토지가 매입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안전건설과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위원

그 대상 토지가…… 소유주가 국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써야 되겠군요요?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물양장이죠?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아닙니다. 물양장 부지가 아니고 현재 지금 거기도……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지금 어구……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마을에서 어구를 갖다가 쌓아놓고, 우리가…… 막아놓은, 그 장소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이것 옛날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쓴 것 아닙니까?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옛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썼던 부분이…… 이게 공식적으로 신규등록이 되면서 자산공사에서……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아니, 제가 이 건에 대해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각 마을들을 보면 이런 건들이 너무 많아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그때 취득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해주고 자산공사에다가 사용료도 주고 있고 그런

데도 있더군요요, 마을에서. 물양장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 건인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가.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마을에서…… 주는 것은 국유재산을…… (청취불가) 그다음에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신규토지로 등록할 때는 이 지자체로 명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로 일단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천양숙 위원님.

□ 천양숙 위원

마을경관환경 정비로 해서 5억이 잡혀있는데요. 경관정비라면 대체로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예, 여기 지금…… 공모사업을 할 때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중에 생태분야, 소득분야, 경관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경관분야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경관정비 사업으로써 당숲 정비하고, 그다음에 방금 토지매입한 부분에 어구쉽터라 해서 저희들이…… 어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43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목향까지 가는 그 도로변에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천양숙 위원

제가 그 당목향을 가는 길목에요. 당목향…… 큰 당사를 지나가지고 당목향으로 가는 길이 너무 비좁더라고요. 상당히 비좁죠. 그 큰 정자가 있는 데에서 당목향으로 가는 길…… 많은 길은 아니에요.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천양숙 위원

그 축양장인가, 공장인가. 아무튼 축양장, 아니 축양장이 아니라 고기를 기르는 데인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물도 쏟아지고 그 앞의 길이 굉장히 비좁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길도 정비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같이 했으면…… 한번 참고로 삼으셔가지고,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이제 공모사업 하는, 이 자체가요. 경관개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런 부분만 하기에…… 좀 빠듯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그런 예산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양숙 위원

그 길이 아주 비좁아가지고 물도 그냥, 찰물도 맨날 나오고 안 좋더라고요.

□ 조인호 위원

계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 어구쉼터에 있는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합니까?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렇게 지붕도 없이 칸막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다 철거하고 저희들이 창고 형식으로 앞에 미닫이문까지 달아서 전부 다 이렇게 43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조인호 위원

계장님, 보니까 해냈다가 태풍이 부니까 그것이 전부 또 잘못되더라고요. 보기 싫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설계할 때나 암암리로 좀…… 세게 그냥 받아도 파손되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시오.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예, 이번에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할 수 있게……

□ 조인호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 정관범 위원

세무회계과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13쪽을 보니까, 예산서. 경도빌딩 매입건이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혹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닌가요?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취득관리계획 반영기준이요. 취득 10억원 이상 2㎡ 이상.

□ 정관범 위원

아, 그래요?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처분 15 이상…… 이상의 재산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만……

□ 정관범 위원

승인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 농촌개발담당 박희선

예, 1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 정관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03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03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박 인 철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성 규
김 동 삼
정 관 범
천 양 숙

□ 출석 공무원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해양정책과장 안태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5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3월 29일(목) 10시19분

□ 의사일정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1.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
15.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

□ 부의된 안건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1.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
15.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

(10시19분 개의)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304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304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서울윤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윤 위원

서울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해 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명예보훈수당에 대한 지원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9조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 원의 명예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미망인에게는 유족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명예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완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수당지급 중지 사유는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와 타지역에 전출한 경우, 그리고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받는 경우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심의에 따른…… 기 국가보훈대상자 미망인을 구제하기 위해 부칙 제 2조에 정의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저…… 우리 전남도 내에서는 여수, 해남, 진도 등 17개 시군이 지금 이 국가명예, 명예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첨부된 신규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04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서울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의안번호 2304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관련 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그리고 의료시설

에 대한 진료비 감면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명예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유족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3억 이천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지자체 부담이라고 여겨집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정관범 위원

본 조례안이 늦었지만 이제서야 제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한 위원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5만 원, 또 사망자 20만원, 위로금,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 금액이 전라남도, 또는 전국에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윤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는 광양시가 명예보훈수당으로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적게 주는 나주 같은 데는 3만 원, 또 7만 원, 5만 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정한 선의…… 우리 재정여건을 여력을 보더라도 5만 원 선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정관범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7만 원이 평

균 선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7만 원 정도가……

□ 서울윤 위원

아니,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각 시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요, 순천이 7만 원, 광양이 10만 원, 그리고는 3만 원이 많습니다. 3만 원이 많고 4만 원도 있고 5만 원이…… 5만 원이 4군데 있고, 3만 원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5만 원이 적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범 위원

예, 하여튼 얼마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인상의 요인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좀…… 그러면 제안자인 위원님의 말대로 5만 원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 서울윤 위원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더 질문 없습니까?

서울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4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04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05호 완도군 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06호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정관범 위원님 나오셔서 1건씩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위원

예, 정관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05호 완도군 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시설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화하고 건축물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특히 완도읍과 같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로당시설 지원이 현실과 맞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로당 시설지원 대상에, 현행은 신축·증축·보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라는 여기에 건물매입을 추가했습니다. 또 경로당운영 지원 대상에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이제까지 기존조례에서는 비품구입을 할 수가 없도록, 명문규정에 없습니다, 하도록 하는……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비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비품구입비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첨부된 친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정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상정된 안전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는 크게 경로당 시설지원하고 운영지원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정 안건은 시설지원에서 기존 건축물을 사들이는 매입을 추가하고 운영부분에서 운영에 따른 비품비, 비품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개정안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양숙 위원님.

□ 천양숙 위원

우리 기존에 경로당을…… 새로 건축하거나 했을 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 정관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천양숙 위원

그런데 완도 위주로…… 사실 이게, 완도읍에 주로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 정관범 위원

도시적이라고 하면 노화읍도 해당될 수 있겠고, 도시를 형성하는 구역은 전부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천양숙 위원

그래서 그 건축매입비도 거기에 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가……

□ 정관범 위원

물론입니다, 그 부분은.

□ 천양숙 위원

우리 기존에 지금…… 원래 인구…… 제한되어 있는 금액.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 2억 5,000만 원, 3억 원, 3억 5,000만 원 그렇게 되듯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것도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

□ 정관범 위원

완도읍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4억 5,000만 원 상한선까지 도달됐는데요. 4억 5,000 정도 되면 어지간한 부분도 다음에 행할 수가 있다고……

□ 천양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06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정관범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위원

예,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배경은 우리 모두가 겪었듯이 지난해에 동료위원의 갑작스런, 그런 응급사태를 우리가 맞이하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가 협심해서 그런 부분을 회생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실패로 돌아가서 그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과 작별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 체험하면서, 이제는 정말 응급시스템이 좀 더 우리 피부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응급처치장비가 배치되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골든타임을 어떻게 해서 연장을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

심장충격기, 또 심폐소생술에 관한 군민교육이 절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 제공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도록 해서 군민과 생명,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를 보시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권장대상 시설물로 완도군이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그밖에 경로시설과 마을회관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중 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대상 시설로 정하였습니다. 또 4조에 가서 응급의료지원 및 범위에서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과 설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 제7조에서는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나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활용하라. 응급 관련단체에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와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정관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상정된 안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응급환자의 보호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데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구급차, 항공기, 공항, 20톤 이상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을 규정하는데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이런 다중이용시설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이것을 제정하게 되면 관련 응급상황발생 시 주민의 생명보호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가에서 하는…… 강제성은 없는 것이죠, 지금?

□ 정관법 위원

강제성이 없다기보다는 하위법인 조례로 정해지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어떻습니까, 위원님. 4조에다가 하나를 더 달아서 강제성을 삽입하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좋은 조례니까, 여기다가 강제성을 집어넣어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 정관법 위원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예, 우리가 여기다 강제를 넣어버리게요.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 정관법 위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예, 일부를 빼버리고 전부를 할 수 있도록……

□ 정관법 위원

아니, 전부도 빼버리고 비용을 지원한다. 좋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일부…… 전부를 할 수 있단니까 그것 똑 같은 말 아니에요?

□ 정관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전부를 빼버리면,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 박성규 위원

전부도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으니까.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일부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한다, 이런 것을…… 완전히 빼버리자, 이거예요. 전부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 정관법 위원

예, 그것은 좋은 말입니다. 어차피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요.

□ 정관법 위원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저기 좀…… 저희가 비용이……

□ 박성규 위원

비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비용.

□ 전문위원 이석우

비용이 3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한 대에 300만 원이요?

□ 전문위원 이석우

예, 한 대에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300개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한꺼번에 잡았을 때 3, 3은 9로 해가지고…… 9억 원입니까?

□ 정관법 위원

예, 여기에 이것이 있습니다. 응급처치 관련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서 응급 관련단체에 구조사, 이런 부분들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또 응급구조사를 우리가 계약고용해서 순회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결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예요. 너무 강제조항을 주게 되면 그 조항에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럴 것 같아서……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아니, 아니요. 1년 예산이 우리가 사천 몇 억인가 5,000억이 되는데, 물양장 하나 안 하면 이 예산은 충분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좋은 것, 급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 방파제 하나 안 지으면 이런 예산 순군비로 충분하죠,

이런 예산들은. 그러니까 예산의 대해서는 하지 말고 우리가 전체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경로당, 정관법 위원님이 조례를 했는데 우리 지금 열악한 마을은 무지하게 열악해요. 자부담을 넣어 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금방 정관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를 다 한다, 군에서 하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설치권장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것을 빼고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명쾌하게……

□ 정관법 위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

□ 박성규 위원

제가 말씀할게요.

뭐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완도군 12개 읍면에…… 읍면에, 마을에 하나씩. 몇 개 마을입니까?

□ 정관법 위원

233개인가? 우리 마을이?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한 300개 잡고 9억 원이 들겠습니다. 마을마다 하나, 읍면에 하나씩 하면 의미가 없는데 마을에 하면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급하게 갖다가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 정관법 위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잠깐만요, 우리 군에서 하면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그것은 대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

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매칭을 안하고 순군비로도…… 우리 정관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것대로 국도비로 넘어온 것은 매칭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순수하게…… 그것은 한정이 없을 것이예요. 올해도 10대 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자산물품취득비로 구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요, 그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정관법 위원의 조례를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순군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사업을…… 그런 것 아닙니까?

□ 정관법 위원

그것은 10대……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한다면 극히 소량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존각을 다루는 그런……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례로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예를 들어서 명시조항을, 의무조항을 넣었을 때요. 뒤에 부칙을 보시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그 의무조항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 정관법 위원

그 예산의 순기에 따라서 어차피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 전문위원 이석우

그래서 이제 문맥이라는……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아니요, 이 조례가 되면 다음 2회 추경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2회 추경에다가 할 때는, 이때는 이 조례를 갖고 2회 추경에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올 추경이 끝나버렸는데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죠, 이것은.

□ 전문위원 이석우

그러시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다면…… 문맥을 바꾸시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장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예, 알았습니다.

정관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5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05호 완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6호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06호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07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230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0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을 제230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307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도군 소속 공무원의 직장생활만족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공무원직을 포함한 후생복지제도 적용범위를 개정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및 예산과 구내식당 이용, 콘도이용권 확보 등을 포함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방법입니다.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과 공무원의 연수비 지원, 관사부족으로 인한 직원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한 후생복지 사업 시행방안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8년 2월 14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부터 9페이지 조례

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 제안 설명대로 우리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과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사체별로 필요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포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위원

조례안을 보면요, 주요내용에 가서 친절모범, 군정유공, 퇴직예정 공무원 및 퇴직예정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지원, 이 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원기준이, 대상이 이제 각각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소위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외연수, 이 부분에 있어서 동남아나 이런 부분

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떤 기준…… 어떻게 지금 이것을 정할 예정입니까? 그 명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규정까지 정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참가대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여기에 보면 완도군 소속 공무원 및 완도군의회의 의원, 청원경찰,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예)

여기에 차별이 없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 정관범 위원

그리고 지금 명예퇴직, 명시가 안 되었는데 명예퇴직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포함됩니다.

□ 정관범 위원

그러면 퇴직예정 공무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운영을 하실 때 공무원이나 여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더 없으십니까?

□ 천양숙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복지카드나 휴양시설 이용은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건, 이것 때문에 지금 올린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그 내용도 있고요. 이 앞전에…… 복지에 관해 총괄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망라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 **천양숙 위원**

그전에 그러면…… 그 조례는 그대로 살리고 이것은 별도로 또 개설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니, 그것을 포함해서 다같이……

□ **천양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폐지하고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 **전문위원 이석우**

아, 저기 위원님. 이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 **천양숙 위원**

조례가 없이 그냥……

□ **전문위원 이석우**

조례 없이 시행만 하다가요.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 **천양숙 위원**

그 후생복지카드나 휴양시설 이용, 그것을 하게 후원해준 것이예요? 지원을?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그것은 규칙으로만 했고요.

□ **정관법 위원**

정부지침에 따라서.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그다음에 해외연수 관계는 앞전에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폐지할 것입니다. 폐지하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 **천양숙 위원**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0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230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관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포함한 6개 조례안의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골당은 일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이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용어를 순환하고 한자어를 병기하더라도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계기하다.”라는 용어를 쉽고 보편적인 용어인 “규정하다.”로, 일본에서 신분적, 집단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아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인 부락을 우리말인 마을로, 일본식 금융 용어인 구좌를 계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8년 2월 29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 조례안 및 신규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상정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괄개정안은 현행 우리 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가 인용되고 있는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6개의 조례에 내용이 있는 관련 일본식 용어를 한국맞춤법 표준어로 일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0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 제230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제정안이 '17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제정 추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 조례안 및 신규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상정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정비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현행 우리 군 조례 중 7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07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07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0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0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10호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의안번호 2310호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제 77조가 개정되어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행안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표준안에 맞게 완도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 납세자를 보호하는 소송상의 행정심판, 법률지원 등의 기능을 함으로써, 즉 우리 군은 자치행정과에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1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된 개정배경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77조가 2017년, 작년도 12월 달에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이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법령 규정이 이전에는 “납세자권리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임의규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조항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우리 군 조례에도 납세자보호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의무화하고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 권리법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 등에 대한 개정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본개정안은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 모두 공통된 내용으로 조례안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0호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0호 완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11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47페이지, 의안번호 제2311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군 공간정보의 관리와 정보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7조의 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군 공간정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고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는 제공받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고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니다. 1—도로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준공도면 작성, 2—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중, 연장 등에 관한 속성정보 기록, 3—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9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상위법은 국가정보기본법으로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시면 조례안의 2조 4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7개의 대상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관리와 운영, 그리고 관련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남도하고 여수, 순천, 나주, 무안, 고흥군 등이 동공간정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정관법 위원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 지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알겠다는 말입니다. 수상, 수중은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수중까지는 전산작업을 아직 한 것은 없고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지금 완도읍을 마치고, 지금 노화읍, 올해부터 노화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 부분에 대해서는……

□ 정관법 위원

아니, 이제 공간정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된다는 말입니다. 수산, 수중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가. 그 부분 대상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대 지하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수산물에 관한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 통신, 가스,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상하수도만……”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그러니까……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만 지금 전산화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저관로라든지.

(“아직 그런 것은……” 하는 주무관 있음)

해상풍력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수상이. 그리고 수중은 해저케이블 같은 것,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하는 주무관 있음)

그렇죠,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얼른얼른…… 이제 알겠고, 그 부분은.

그다음에 전담조…… 51조 제5조를 보면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여기 보조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담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그 상한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지적직 공무원들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담당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처리 하는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10명을 가지고도 충분히 전산화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과거에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전산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지적직들이 일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로 바뀌어지면서 그런 것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면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법 위원

지금 전담조직이라든지,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없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처…… 지적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쇠화가 됐다. 신규직원 충원 없이,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신규채용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쇠화, 그 사람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기에는 좀 더 어떤 전문인력들, 또 보조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적직 10명 중에 젊은 인력이 5명 있습니다.

□ 정관법 위원

아,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한 30대 전·후반으로 된 직원이 5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는 커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법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조인력만 채용하면 된다, 그 말이죠.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더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1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1호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12호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관광정책과장 안봉일입니다.

의안번호 2312호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피서객들은 바다에서 해수욕만 즐기는 것보다 다양한 레저가 곁들여진 장소를 선호하고 있어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관광객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8년부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피서객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11조 1항 별표 2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별표 2처럼 물놀이 시설사용료를 추가했습니다. 당초 시설사용료는 성인, 소인으로만 구분되어 청소년에

대한 징수근거가 없어 청소년을 성인으로 포함하고, 포함하여 대인으로 변경하고 소인의 나이 기준을 만3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이용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7시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상정된 안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올해부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설치·운영되는 물놀이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의해서 관련 의무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서울윤 위원

제가 한 마디 할까요?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예.

□ 서울윤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예다가 금년에 새롭게 이렇게 시설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이고, 특히 지금은

어린이시설을 많이 갖추어야 만이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관광객이 아마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잘되기를 바라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놀이장의 이용료 문제입니다. 시설사업의 문제인데, 대인은 7,000원, 소인은 5,000원. 단체는 대인은 5,000원, 소인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안 비싼가요? 어디다가, 뭐 다른 지역이나……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기존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그 자료들을 많이 파악했습니다.

□ 서울윤 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동해안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피서객들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수욕장을 여름에 찾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요, 줄어드는 추세인데, 대한민국에서 최남단 오지의 해수욕장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데…… 사람은 예전만 못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예전만 못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가격을 비싸게 해 가지고 부담감이 들게 하기 보다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물놀이장이 우선 어떤 소득, 수입사업의 개념을 떠나서 이용객에게 부담 없이 이용하는 것이 어떤지 해서……

제 생각은 좀 시설사용료가 비싸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1인당 이것이 그렇게 7,000원인데 가족이 가려면, 그럼 몇 만 원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그러긴 합니다마는……

□ 서울윤 위원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간다면, 어린 애 둘을 데리고 부부간에 가려고 한다면 어린 애만…… 아끼는 방법이 있고, 같이 가는 방

법이 있고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한다면 2만 원, 3만 원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좀 비싸다는 것이 저한테 좀 와 닿는데, 저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이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올해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내년부터는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서울윤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격의 추세를 봐가지고 좀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한번,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피서객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명사 십리가…… 급감하거든요. 과거 우리가 100만이 넘어간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반절로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어떤 지역을…… 사람들은 연중으로 정말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연중으로 풀장이 운영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좋은 안입니다.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은 좀 낮추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다 하셨습니다?

□ 서울윤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예, 정관범 위원님.

□ 정관범 위원

이 부분…… 물놀이시설이 추가로 됐는데, 추가됐는데. 이 부분을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직영하겠습니다. 직영하고요. 관리는 그 시설업체한테……

□ 정관범 위원

아니, 직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샤워장까지 전체를 다 할 것인가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샤워장까지 별도로 시설했습니다.

□ 정관범 위원

뭐 청년회나, 그런 데에다가 맡기지 않고?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저희들이 올해는 직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 정관범 위원

그만한 능력이 될까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인원이…… 저희들이 15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 서울윤 위원

일용으로? (예)

□ 정관범 위원

그러면 좀 바람직한 운영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저희들이 직영하고 관리만 시설업체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올해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 정관법 위원

올해 물놀이장이 처음 도입되었죠, 시범운행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인하해서, 아까 서울윤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대인 한 5,000원하고 소인은 한 3,000원으로. 그렇게 시범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체는 대인 3,000원하고 소인은 1,000원이라든지 2,000원, 이런 식으로 낮춰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예, 천양숙 위원님.

□ 천양숙 위원

이게 이 시설…… 사업비를 보니까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에다가 완도군에서 직영해 보겠다고 하면, 아까 15명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죠? (예)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15명만 있습니까? 물놀이가, 반드시 안전관리요원도 있어야 되고……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이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우리 해수욕장, 이 풀장, 물놀이장만 관리하는 인원이 15명 있고 그렇습니다.

□ 천양숙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안전관리요원은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로……

□ 천양숙 위원

여기가요? 그런데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

그런데, 이게 1억 원에다가 15명을 채용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계산을 안 해보고 하셨나, 단순히 사용료만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5,000원, 7,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계산으로 보면 잠깐 한 20일이죠, 많이 잡으면? 물놀이할 수 있는 그 날 짜……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45일간입니다. 한 달 반.

□ 천양숙 위원

며칠부터 계산해가지고?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7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 천양숙 위원

8월 26일까지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타당성이 맞겠어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산 1억 원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보면 이 예산 1억 원이, 저희들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천양숙 위원

그러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 천양숙 위원

이 그림으로는 1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을 보면.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최대한으로 축소……

□ 천양숙 위원

예,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물

론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다른 어떤 효과를 노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분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이게……

□ **천양숙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본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1년만 사용을 하는데요.

□ **천양숙 위원**

그러니까 1년을 해가지고 1억 원을 넘게 들여 가지고 5,000원, 7,000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런 인건비를 제외하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맞겠냐는 얘기에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비용 효과…… 성과를 따지면 사용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우리 해수욕장을 알리고,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또 우리 완도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천양숙 위원**

간단히 그냥 생각할게 아니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데. (예, 맞습니다)

이벤트 회사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아니,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 **천양숙 위원**

직영해도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이런 놀이, 이런 것으로 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이것은 이제 시설업체가 있습니다.

□ **천양숙 위원**

업체가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업체들한테 이것을 대여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여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들어갑니다.

□ **천양숙 위원**

그러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최소……

□ **천양숙 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단순히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우리 완도도 더…… 이것 보고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이제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양숙 위원**

최선을 다 하겠죠. 이상입니다.

□ **서울윤 위원**

제가……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예, 이야기하십시오.

□ **서울윤 위원**

좀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해수욕장을…… 정말 환경이 깨끗하고 그래서 국내 최대의, 그 명품해수욕장을 우리가 가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생스럽더라도 과장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한번 꼼꼼히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뒤로.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올해 해보고……

□ **서울윤 위원**

수익은 얼마나 창출이 되고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더 투자해야 되고, 어떤 분야는 더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위탁을 주더라도 금년에 고생스럽더라도 한번 잘하시면 이것이…… 상당히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천양숙 위원**

사실 이게 아직 저학년이나, 그런 애들이 사용하지. 중·고등학생들은 여기를 사용하지도 않을……

□ **서울윤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금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서울윤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평가를 뒤로 하세요.

□ **정관범 위원**

참 그게, 저는 그래요. 가격을 낮춰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던져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 **서울윤 위원**

그렇죠.

□ **정관범 위원**

가격을 낮춰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자, 그 말이에요.

□ **서울윤 위원**

손익 계산하지 말고.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그 부분은 수정 가격을……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지금…… 어떻습니까. 정관범 위원하고 서울윤 부의장님이 이야기하듯이 5,000원, 3,000원으로 해가지고 가격 수정을 하는 것으로……

□ **정관범 위원**

3,000원, 1,000원. 단체는.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단체…… 정 위원이 이야기해주십시오. 일반인들은……

□ **정관범 위원**

5,000원, 3,000원.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5,000원, 3,000원이고 단체는 1,000원, 3,000원입니다.

□ **서울윤 위원**

아니, 3,000원……

□ **정관범 위원**

1,000원.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1,000원이에요. 단체……

□ **천양숙 위원**

너무 낮네요. 그냥 막 퍼주기예요, 너무 낮구면.

□ **전문위원 배정택**

단체는 대인이 3,000원, 소인이 1,000원. 그리고 1인은 5,000원. 3,000원, 소인.

□ 정관범 위원

그 부분은 가격이 너무 낮으면 또 얘기하세요. 조정하죠, 뭐.

□ 서울윤 위원

과장님이 금년에 한번 해 보시고.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한번……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면 그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또 내년에 필요하면……

□ 서울윤 위원

해보시고 평가를 한번 하세요. 해수욕장이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천양숙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천양숙 위원

아까 이용요금에 얼마라고 했어요?

□ 정관범 위원

아니 물놀이장, 그 부분은 대인을 5,000원으로 하고 소인 3,000원으로 하자. 그리고 단체, 1인에 한해서 대인은 3,000원, 소인은 1,000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 천양숙 위원

막말로 기름값은 나와야지. 세상에 그렇게 퍼주고……

□ 정관범 위원

이 부분을 하면 인건비는 나올 겁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어떻습니까,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수정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12호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2호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도군 현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1.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13호 완도군 현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14호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5호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6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7호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77페이지, 의안번호 제2313호 완도군 현혈 장려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2항에 근거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혈 장려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시키는 군수의 책무규정, 헌혈 장려 사업계획, 본사업에 대한 결과분석 등 사후평가를 실시하였고 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헌혈 권장사업의 홍보규정과 비밀 준수의 의무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9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현혈 장려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상정된 안전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수립과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로 현재 도내에서는 해남, 진도, 장흥 등 9개 시군이 같은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14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원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다음은 83페이지, 의안번호 제2314호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016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법률조항 변경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5조 제1항이 해당되며 상위법에 위반된 조항을 삭제하고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5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상정된 안전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을 조·항 개정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의 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5조 1호 및 6호에서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아동복지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는 의무규정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의무규정 대상으로 만들어서 제외시키고, 금연구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리도록 금연구역 안내판에 표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타 개정안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1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원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다음은 89페이지, 의안번호 제2315호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91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또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동조례에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별칙 서식에 있는 띄어쓰기를 맞게 고친 것으로 개정안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1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원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다음은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2316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둘째아 양육지원금이 동일하여 인구늘리기 및 출산장려정책 취지에 맞게 둘째아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사항은 2017년 의회사무감사 제도개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비 지원 및 지원방법 개정으로 둘째아의 양육비지원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절차에 있어서 기존 신청인 당사자에게만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가족 중 배우자나 출생아의 통장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국민들로 인해 의견이 접수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조례안의 내용 중 부칙 제2조 적용 내에 있어 양육비 지급방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해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본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7년 둘째아 출생이 116명임을 감안할 때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시 약 6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약 2억 4,000만 원 증액이 불가피해집니다. 완도군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결결과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상정된 안건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둘째아 출산양육비지원금 현행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급적용 내용에서 1월 1일부터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 안전이시라는…… 수정안을 내신 것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아니, 수정안은 아니고요. 일단 군민들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위원회에서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혼선도 없고 또 불만도, 어차피 불만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도 작년 12월 31일 출생자들도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안은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안이고요.

□ 전문위원 이석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사항…… 토의해서 결정하실 사항인 것 같고요.

기타 조례안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위원

가만있어봐, 부칙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죠? 지급시기가? 부칙……

□ 전문위원 이석우

105쪽입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105쪽에 적용…… 적용에 나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 정관범 위원

부칙개정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 많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준다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러니까 어떤 안이에요? 의견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의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지금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증액이…… 한 400만 원 정도 증액되기 때문에, 60명이 혜택을 보게 되면 6, 4는 24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정관범 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올 것이 아니라 검토자료를 내용을 것이 아니라 개정안을 내놓든지, 그렇게 내놓아야지. 껍껍하네.

그리고 지금 둘째아부터는 500만 원으로 늘려 잡자는, 늘려서 지급하자는 얘기죠? (예)

기준에 1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이것, 이래 가지고 하면 예산이 있습니까? 2억 4,000만 원이 소요된다는데.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산을 다시 편성, 추경에 증액하는 것으

로……

□ 정관법 위원

추가경정해야지.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예산이…… 1회 추경예산이 되기 전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야기하십시오.

□ 김동삼 위원

본조례에 이렇게…… 중에서 둘째아를 기준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을 하나만 낳고 둘을 이렇게 안 낳잖아요. 또 그다음에 둘까지만 낳고 그러니까 둘을 낳는 혜택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하고 차별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 아까 부칙, 이 관계는 이제 보건의료원에서 예고를 했는데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단은 보건의료원에서 내야 돼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 이것은 뭐해서 했다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개정안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때 이 부칙을…… 그러면 소급해서 한다든가 뭐하고 했는데. 지금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해놨잖아요. 이래놓고는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안 맞고 그러니까. 하고, 또 현재 아까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온…… 아니, 보건의료원에서 내온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데. 거기서 주무과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관법 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군민의 의견이 이렇게 “1월 1일부터 적용하자.” 라고 의견제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의료원의 의견을 개정안으로 답아서…… “우

리는 이렇게 소급적용을 해주려고 한다. 의회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의견을 단순하게 내놓고는 의회 위원들보고 ‘누가 해결해주라’, ‘누가 결정해주라’ 이것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행정질서상 안 맞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울윤 위원

부칙대로 하면 되겠구먼, 부칙대로 하면.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요, 그전에 소급적용은 안 하고요?

□ 정관법 위원

그러려면 조례개정이 또 돼야 됩니다.

□ 서울윤 위원

그렇지, 이 부칙대로……

□ 김동삼 위원

아니 지금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하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정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저기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맞으면 그대로 합시다.

□ 서울윤 위원

그건 이유가 없어요. 이대로 하는 거예요. 주무과의 의견이 그렇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지금 뭐한 거예요, 지금 조례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왜 이런 것을 전문위원실하고 군청에서 확인을 안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 전문위원 이석우

아니, 위원장님. 지금 주무부서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입법예고, 그 기간 중에 군민들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나가요.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소급…… 그렇게 1월 1일로 하면 소급이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 아까 설명한 대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소급적용하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점을 딱 7월 1일부터 정하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동삼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이렇게 전문 검토보고를 할 때, 자, 이 조례안에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고 상위법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 그래놓고 단서…… 참고로, 이렇게 예고를 했더니 이러한 사항이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다 알아먹고 뭐하는 것 아니겠냐고. 그런데 거기서 방문해가지고 어디 과장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더 혼선이 가는 것 아니에요.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 입니까? 조례가 그러면……

□ 김동삼 위원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는 것이에요. 뭐 앞으로……

□ 전문위원 이석우

7월 1일부터 탄생하는 둘째아부터는 500만 원 적용되고 6월 30일까지 탄생한 아기들은 100만 원만……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 김동삼 위원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둘째아를 500만 원

으로 하고, 또 500만 원을 2018년부터,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에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하반기에 추경 때 확보하고 그러면……

□ 서울윤 위원

그러면 되겠는데요.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제가 명칭해서 그러는가 이해가 안 가네요.

□ 김동삼 위원

아니, 혼선되게 전문위원이 그 말을 해버리니까 그랬어.

□ 서울윤 위원

원안대로 그냥 통과……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1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위원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위원장 김선종

예, 다음은 111페이지 의안번호 제2317호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있어 신청인 현재 완도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가 해당되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함이며 제5조의 지원방법에 있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를 보면 정부가 정하는 표준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공하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

탁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제10조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군은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기관이 없으므로 수혜자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건강관리사 인력양성에 필요한 교육과 여비를 지원할 기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일명 산후조리도우미입니다. 이것의 지원에 대한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위원

이 부분, 늦게나마 관련법으로 해서 뒷받침되는 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가정에서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일반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가정이죠? (예)

그런데 다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그런 가정은 제외가 되죠? (예)

그런데 건강관리사를 파견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도군에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있는 YMCA, 그쪽으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인력지원을 받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 10명 정도를 갖다가 인력을 추천받아가고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직접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가까이에서 산모나 신생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건강관리사 1명을, 그러면 운영하는데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비하고 여비만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어차피……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를 하면서, 그 바우처에서 저기가 나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주무관 있음)

그것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국가에서 그런 경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우리가 여비하고……

(“교육비하고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주무관 있음)

교육비하고, 우리 군비로는 그것만 부담하면 된다, 그 말이죠?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그 교육비하고 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말이에요, 10명 운영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하는 주무관 있음)

전체 합쳐가지고요?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세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전부 다 지금……출산가정 커버가

가능합니까, 10명이면?

(“ 이제…… 전체를 커버하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10명 정도를 저……”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돈 얼마 안 들 것 같으면 한 20명…… 운영하죠.

(“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랬는데요. 만약에 그런 지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면 더 늘려서 운영을……” 하는 주무관 있음)

예,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안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라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13호 완도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3호 완도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4호 완도군 금연건강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4호 완도군 금연건강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5호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5호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6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6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7호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7호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때가 되어가지고, 오전에 안 끝나겠는데요. 오후에 해야죠.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20호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2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주민복지과장 허정수입니다.

완도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단법인 꿈틀과 체결한 완도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2018년 4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합니다. 위탁시설은 완도읍 개포리 159번길 41에 위치하며 드림스타트센터 공간을 제외한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8년 4월 9일부터 2021년 4월 8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수탁자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범 위원님.

□ 정관범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오늘 의회에서 의결되면 별도로 모집을 합니까, 위탁사업자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지금 이제 법인하고 위탁을…… 계약체결을 하는데요. 완도군 관내에는 그 법인이,

지금 이것을 맡을 만한 자격을 가진 법인이 딱 하나 있습니다.

□ 정관범 위원

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리 뭐…… 주어야 된다면 이런 동의안…… 제안, 전제하에 이것이 동의가 되겠구면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개관을 해서, 올 4월까지 하면 세 번째 위탁…… 앞으로도 3년간……

□ 정관범 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이 법인이 들어와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뭐 가능하죠.

□ 정관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천양숙 위원님.

□ 천양숙 위원

그 꿈, 대표가…… 되어 있죠? (예)

그 대표자 급여는, 뭐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대표자의 급여가 아니라 여기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그 보조금을, 청소년문화의집에 평균 연간 3억 정도, 상담복지센터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들이 문화의집 복지직…… 그 운영부분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그리고 우수 프

로그래 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성 경비로도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더불어서 CYS-Net사업과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그다음에 학교폭력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별 종사자 현황은 청소년문화의집의 반장이 김미경 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도사, 관장과 지도사 1명.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 1명,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혜선 씨가 센터장으로 있는데 센터장 1명과 행정원 1명, 상담원 3명. 이렇게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툼 대표는 대표자격이지, 그 사람한테 직접…… 대표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한은 이 사람한테 가는…… 뭘니까,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양숙 위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좀 급여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요. 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그러니까……

□ 천양숙 위원

KT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러니까 성광교회에…… 성광교회에서 사단법인을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대표로 되어 있지…… 뭘 대표로 되어 있다고 아무런…… 뭘니까, 노동이나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는데 급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 천양숙 위원

그러니까 급여가 안 나가면 이중…… 어

떻게 보면 개인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또 급여가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라고.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또 없습니까?

□ 김동삼 위원

지금 여기서는 완도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관리하는 데에만, 우리가 여기서 동의하고 그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끝나면 주무과에서 이렇게 다시 공고해 가지고 새로운…… 희망업체, 이렇게 단체를 한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느냐, 위수탁을 줄 것이냐.

□ 김동삼 위원

예, 그렇죠.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더 안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20호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20호 완도 청소년문화집 및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21호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2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명성입니다.

의안번호 2321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국민권익위원회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개선 공고에 따라 2017년 6월 12일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선정된 시군은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는 목적으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상호 독려하고 협력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4조 주요사업으로 각 평생학습도시의 공동연대에 대한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각종 기능사업 등을 추진하고자하며 제5조부터 제9조는 평생학습도시 회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4조는 협의회 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의 회비 및 출연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5조는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2018년 회비는 자치단체가 200만 원, 교육지원청이 50만 원으로 2019년에는 자치단체가 400만 원, 교육지원청이 100만 원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협력 방안으로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각종 기능사업과 평생학습 관련 공동협력에 관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군의회 의결 후 협의회……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고 고시 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규약은 4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협의회 가입현황은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전국 155개 도시의 시군과 75개의 교육지원청 등 230개의 단체로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양숙 위원

이게 정확한 명칭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라는 것이 좀……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평생학습협의회 규약입니다.

□ 천양숙 위원

아니 도시협의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도시협의회.

□ 천양숙 위원

도시협의회?

□ 서울윤 위원

도, 시가 아니라 도시라는 그 말이야, 도시.

□ 천양숙 위원

도나 시가 아니라 그냥 도시협의회라고요? (예)

아주 생소한 것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완도군에 평생학습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회장님이 여기에 참여하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 회장단들이 모여서 정보교환이나,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내는 부담금이라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부담금…… 저희들이 2017년 같은 경우는 부담금을 200만 원 납부하고 국비를 1억 3,000만 원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저희들 평생학습,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부에서 공모를 할 때 평생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됐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공모 시군 선정을 합니다.

□ 천양숙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시·도는 여기가…… 협의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에 전혀……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신청을 못합니다.

□ 천양숙 위원

저기를…… 보조를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공모사업으로 보는데,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도록.

□ 천양숙 위원

응모사업은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은 할 수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공모사업밖에 없습니다. 평생학습은 공모사업밖에 없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주는 데요. 어떤 사전에 교육부에서 심의를 해가

지고 타당하다 싶으면 그 예산을 주거든요.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글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1억 3,5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아놓고 썼습니다.

□ 천양숙 위원

알았습니다.

□ 정관범 위원

보면요, 완도군 같은 경우는 완도군 교육지원청이 여기 같이…… 회비도 내고 하려면, 연계사업을 하려면 교육지원청도 같이 이렇게, 협의회에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입이 안 됐어요, 교육지원청은?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이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의결되고……

□ 정관범 위원

교육지원청이 이제 가입에 들어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인철

또 다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1건의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1건의 의결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21호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21호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관련 규약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박 인 철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성 규
김 동 삼
정 관 범
천 양 숙

□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5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3월 30일(금) 14시15분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2018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2018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시15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318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318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
호 제2319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
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담당관 김영준

기술담당관 김영준입니다.

121페이지 의안번호 2318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급기관의 지침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대농기계 출고시간을 변경하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공고 및 임차인 임대료 납부일을 변경하여 임대농업인의 편의증대를 위함이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관련 상위법령과 동일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조례 위반기준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 및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3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전문위원 배정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개정안은 많은 농어민들이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번기철에 농어민들의 농작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임대 농업기계 출고시간과 필요에 따라서 평일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전일 출고시간 변경내용과 그리고 임대기계…… 및 납부일정 변경 등 농가에 영농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또한 특히 영농…… 여성농어민의 사회

적 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농어민과 여성단체에 각 1명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이 없는 위원회의 기능 중 농업기계 선정과 임대료구입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삭제한 내용입니다. 또한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에 보증 책임을 연대보증까지 두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에 쉬운 법령을 정비한 내용으로 특별한, 검토결과 관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윤 위원

제가 말씀할까요?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예.

□ 서울윤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농업분야 임대사업, 지금 시작한지 우리가 몇 년 됐죠?

□ 기술담당관 김영준

1년 6개월, 2년……

□ 서울윤 위원

얼마 안됐죠, 2년차 됩니까? (예)

어떻게 지금 잘됩니까?

□ 기술담당관 김영준

예, 처음에 1년차, 6월 달에 시작할 때는 저조했습니다마는 2년차에 접어들고 또 고금-약산 연도교가 이렇게 준공된 이후로는 많이 이렇게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서울윤 위원

지금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

이…… 대단히 상당히 염려가 크고, 고생이 현장에서 많아요. 특히 농어촌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으로 갈수록 가거든요. 고령사회가 오고 휴경답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향이 있는데.

정말로 이 임대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운영에, 또 관리에 효율적으로 한다고 조례를 바꾸는 모양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정말로, 그 현장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1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담당관 김영준

다음은 135페이지, 의안번호 제2319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작물피해최소화 및 안정생산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목적 및 정의와 설치구성 및 병해충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37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의안번호 제2319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외래나 돌발 병충해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농작물의 피해최소와 안정된 생산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수원지에서 발생된 병해충에 대해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요청하고 또한 병해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한 더불어 완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또 앞으로 구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예찰과 방제단 관내 농경지에 대해서 병해충의 예찰방제에 대한 사전적인, 사후적인 계획수립과 그리고 병충해 진단 및 위험성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병충해의 예찰과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두도록 내용을 두고 있는 제정안으로써 검토결과 구성 체계 및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양숙 위원님.

□ 천양숙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4조 구성에 대해서요. 10명 이내의 센터장님을 단장으로 하시고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이렇게 단원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출 같은 것이 당연히 따르겠죠?

□ 기술담당관 김영준

예, 저희들이 운영회에다가 운영수당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양숙 위원

운영수당하고, 이제…… 예찰방제단,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뭐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방제단 이니까?

□ 기술담당관 김영준

예찰은 저희들이 하고 방제가 필요했을 때는 방제단에 구성되어 있는 방제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 천양숙 위원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도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대충 민간인들 전문가라고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로 유입하실 예정입니까?

□ 기술담당관 김영준

지금 현재 민간인 분들은 방제단으로 구성되어 가고요. 농협에 있는 방제단은 민간…… 농협하고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민간광역방제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방제단 구성위원으로, 이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 천양숙 위원

이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단원을 구성하시려고……

□ 기술담당관 김영준

농협하고 민간방제단 분들하고……

□ 천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또 다른 위원님?

정관법 위원님.

□ 정관법 위원

6조에 임무를 보면요, 2항에 보면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항을 보면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6항에도 보면 그밖에 군수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찰방제현장 업무수행 등 이렇게 있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본조례에서, 조항에서 정한 예산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 방제단이 방제업무를 수행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찰도 물론이지만…… 그런데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기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담당관 김영준

예, 저희들의 방제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를 가급적이면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신청을 해서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농약제를 준다고 하든지, 또 뭐 드론을 이용해서 공동방제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기술지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언급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 기술담당관 김영준

저희들이 이 예찰방제단을 구성해서 추후에 방제할 경우에는 일반병해충은 이제 농민 분들이 방제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방제는 돌발병해충. 즉, 어떤 농작물에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적에 나타나는, 그런 병해충이라든가. 국가에서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외래해충이 갑자기 나왔을 경우에 그 대상으로, 이렇게 방제하는 병해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제기를 확보해 가지고 돌발병해충이나 외래해충은 방제할 수 있는 규모일 경우에는 방제를 하고, 방제면적이 크거나 대단히 범위가 많을 때는, 아까 구성되어 있는 민간방제단하고 같이 그렇게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관법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언급되는데 명문규정이 없다는 말입

니다, 지금.

□ 기술담당관 김영준

다시…… 올해 신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도…… 중앙의 방제단, 도 단위 방제단,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을 저희들이 같이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차츰차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위원

말이 안 맞는 소리인데요. 법이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가도록 해야지. 이것이 중앙에서 준칙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 부분은 준칙안이 잘못됐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춰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기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명문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쪽짜리 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천양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자면요. 아까 10명 이내의 관원을 구성한다고 했죠? (예)

이것은 아까 기술적인 면은…… 아까 농협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얘기가 맞죠?

□ 기술담당관 김영준

기술적인 부분, 예찰부분은 저희들이 식물 방제단하고 저희들 인력을 확보하고 방제가 많은 면적에 대해서 방제단을, 구성되는 방제단을…… 인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민간방제단으로 구성되는 그분들을, 같이 협조를 받아서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천양숙 위원

그러니까 이…… 아까 10명의 단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심의위원이에요,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뛰는 사람이예요

□ 기술담당관 김영준

현장에서……

□ 천양숙 위원

예를 들어서, 잠깐요.

아까 긴급상황에, 예를 들어 갑자기 병충해가 됐다. 메뚜기가 수없이 떼로 들어왔다. 그랬을 때 갑자기 ‘자, 이것은 방제단을 동원해가지고 일을 하자.’ 하는…… 10명이서, 구성된 10명이서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직접 뛰어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 기술담당관 김영준

이분들은 주로 심의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뛰는 분들은 다른 인력을, 지원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천양숙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죠, 즉 말해서……

□ 기술담당관 김영준

일종의 협의하고, 그럴 인원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방제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그런……

□ 천양숙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라고 말씀……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을 해서 삽입을 해요?

□ 정관법 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 기술지원, 이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고, 또 방제단을…… 아까 천 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회의 요체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방제단 운영입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마을마다 한 개씩 하자. 한 사람씩 준다든지. 그다음에 지

역별로 몇 명씩, 이렇게 방제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번에는 부결하고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차후에 통과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소장님, 어떻게……

□ 천양숙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가상적인, 아까 농협을 통해서 방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가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는 어떤, 어떤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 누구…… 어떤 인물들 위주로 방역을 하겠다. 그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심의위원만 나왔지.

□ 기술담당관 김영준

조례상에 정확히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을 서류화로 명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제단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반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방제를 할 경우에는 지원반까지 이렇게…… 인력을 협조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나온 것이…… 중앙에는 중앙 단위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 도에는 도 내로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시군은 거기에 있는 조례안을 그대로, 말하자면 인용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양숙 위원

말하자면 이게 비상대책이에요. 이것도 말하자면 병충해에 대한 비상대책위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모든 것

이 좀…… 복합적으로 부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되어 있다 보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직원 분, 더 보충설명하실 것 있어요?

□ 법무규제담당 교수영

예, 법무규제담당 교수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좀 더 나와서……

□ 법무규제담당 교수영

법무규제담당 교수영입니다.

지금 현재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현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도 제정했고, 이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10조에 나와 있습니다라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시도 병충해 방제단과 시군 방제단 구성이 조례로, 같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상 시행규칙으로 다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관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모법에서 정해진 부분들이 위임되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방제단을 날마다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운영자체는 시행규칙으로, 이런다고 하더라도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뭐 농약제를 지원한다든지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포괄적인 위임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 전문위원 배정택

식물, 제가……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병해

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충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생된 병충해는 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다발적인, 어떤 병충해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심의에 따라서 그것을 대행하는 어떤 안이 방역법에서 상위법……

□ 정관법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봐봐. 어떻게 방제단을 구성할 것인가, 그것은 언급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해줄 것인가, 지원해 줄 것인가, 어떻게 기술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래도 여기 모법에 들어가야 시행규칙으로, 이것을 정할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상위법에 돌발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와 있겠죠.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방제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 부분이 나와야, 명시해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소장님, 이것 다음에 심의해도 불편한 점 없습니까?

□ 기술담당관 김영준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예찰단이 대통령으로 정해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되어 있는 조례안이나, 지금 시도의 병해충 예찰단도 시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시군별로 조례안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나와 있던 사항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이나 도, 현재 시군 조례안들이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한번 또 의회에…… 기관에 질문해가지고 한번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 정관법 위원

중앙에, 잠깐만요. 중앙에, 그 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명시하면 돼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좀 틀린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 부분을 좀 살펴서, 이 부분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윤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운영조례안인데 주 핵심이 병해충 예찰하고 예찰된 후에 방제를 한다는, 큰 틀로 보면 그래요. 병해충을 예찰하고 방제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근거를 식물방역법에다가 모법을 두고, 거기…… 자치단체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농사 시기는 되고,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마는 이것은 조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잘 고민해서 거기다가 보완적으로 시행규칙에 넣으면 어떻겠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꼼꼼히 챙겨 가서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병충해 예찰하고 방제가 잘될 수 있도록, 또 방제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예산도 필요해요.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확보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쓸 것인지는 거기서, 집행부에서 고민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운영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천양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위에 타이틀을 보면 방제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틀은. 그런데 이 밑에는,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방제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지금 농사철은 내일 모레 다가오고 꼭 필요하면 이렇게 하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방제단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세세히 삽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 천양숙 위원

다음 달 간담회 때 혹시……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우리 의회가 이번에 끝납니다, 사실.

□ 천양숙 위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좀 이런 것을 보완하셔가지고.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하여튼 시행규칙에다가 세세하게 삽입해서 다음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기술담당관 김영준

예, 시행규칙에 보완해서 별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모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다음에 위원님이 당선돼서 들어오셔서 세세하게 보십시오.

□ 정관범 위원

안 맞아, 안 맞아.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제가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8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8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9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9호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읍 망석항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2호 완도읍 망석항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2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입니다.

의안번호 2322호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인 완도읍 망석항 개발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

유수면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완도군의회 의결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지구는 지방어항 망석항 지구이며 어항시설 용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매립위치는 완도읍 망석리 893-1번지 지점과 927-5번지 망석항내 공유수면 지역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완도 원네스 리조트, 바로 앞 지점입니다. 매립규모는 3,086㎡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3년 12월 19일, 지방어항인 망석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16년 8월 30일과 2017년 6월 13일에 망석항 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해 오늘 완도군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다음달 4월중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심의회를 통해 망석항 개발계획을 심의 반영하고 매립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예산확보 후 2019년 1월 주관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실시설계용역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현황입니다. 3개년 계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3억 6,000만 원입니다. 1차 년도에는 방파제 연장공사와 호안시설에 17억 7,400만 원, 2차 년도에는 물양장 시설로 21억 8,000만 원, 3차 년도에는 준설 및 매립과 물양장 시설공사로 24억 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재원별 현황은 총 사업비 63억 6,000만 원 중 국비가 80%인 50억 8,800만 원이고 지방비는 20%로 1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배치도입니다. 상세배치도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 색이 금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매립면적 3,086㎡, 약 933평입니다.

다음 4페이지, 매립계획도와 매립구간의 전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해양수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범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것은……

□ 정관범 위원

뭐 공원, 자연공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없고 이 부분은…… 매립해놓으면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과장님, 진즉 계획된 사업인데요. 여기는, 부근 배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어장지도 많고 그런데…… 왜 이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포항을 만드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담당부서에서……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아니, 완도군에 수심이 깊고 대부분 선박들이 정박할 데도 많이 부족한데. 여기는 안쪽이지 않습니까. 군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어장지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장소 선택을 왜 이렇게 이런 데에 했는지 한번 말씀……

(“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73년도에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사실 수립했어야 되는데…… 완도군이 19개소가 지방어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매립의견청취 반응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지방어항, 어떤 기준에 아직까지는 부합하기 때문에,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도에서요.” 하는 주무관 있음)

지방어항이 19개나 되는데 더 여건이 좋은데도 있는데 거기다가 해가지고…… 어민들이 필요하면 쓰겠지만, 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김동삼 위원님.

□ 김동삼 위원

지금 여기 어항이 이렇게…… 간조 시에는 물이 떨어져 버리죠?

(“ 예, 수심이 조금 낮은……”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늘 거기를 가보고 그러는데, 그 이외에는 축양장이 있고 그렇니까.

지금 원네스, 거기에서 보면 데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해안까지 쪽 연결해놨구먼요. 거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밑에서 이렇게 오고 해서…… 이 부분이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0억이…… 망석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본계획하고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망석항, 그쪽, 원네스 밑에 쪽은, 저희들이 주민편의…… 어항편의시설 같은 것을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매립규모가 933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소위 말하면 물양장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착장 옆에다가 한 20M 정도의 폭으로 물양장을 만드는 매립공사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거기 이용…… 어떤 것들이 해요? 거기가 이렇게……

(“ 주로 축양하시는 분들이…… 어망, 어구, 기자재 같은 것도 거기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적치해놓고 하는데, 지금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거기, 그러면 원네스 넘어가 가지고 자원봉사 있는 쪽으로 가면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 있죠?

(“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 예, 지금 그쪽 항으로 내려가는 길은, 두 군데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고개를 넘어서 바로 굴곡지게,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고, 저 밑에 쪽으로 조금 돌아서 수산……”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번뜩 내가 느끼는 것은 어망, 어구, 이런 것도 뭐하고, 물양장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원네스 그쪽에서, 또 거기 밑으로, 아까 내가 말한 데크로 해서…… 딱 해가지고 거기까지 연결해서 쓰고, 뭐 이런 부분이 다용도로…… 복합된 것 같구먼요?

(“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잘 알았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해양수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22호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2호 완도읍 망석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 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23호 2018 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2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주시고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2323호 2018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전문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고 민간위탁업무는 2018년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30일까지고 운영방법은 관련조례 및 위수탁계약서 범위 내에서 수탁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방법 및 절차는 공고의 절차를 거친 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거 위탁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자치행정과장, 환경산림과장이며 위촉직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과 전문가 등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의견으로는 슬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 사업을 슬레이트 전문업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은 노후주택 125동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1동당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성규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23호 2018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3호 2018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박 성 규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인 철
김 동 삼
정 관 범
천 양 숙

□ 출석 공무원

기술담당관 김영준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5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3월 27일(화) 11시10분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 세무회계과
- 관광정책과
- 기획예산실
- 주민복지과
- 자치행정과
- 민원봉사과
- 경제산업과
- 해양수산정책과
- 수산양식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의료원
- 상하수도사업소

□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무회계과
- 관광정책과
- 기획예산실

- 주민복지과
- 자치행정과
- 민원봉사과
- 경제산업과
- 해양수산정책과
- 수산양식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의료원
- 상하수도사업소

(11시10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301호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비사업은 설명을 듣고 인건비, 여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보조 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예산만 설명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제안설명에 앞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기획예산실장 서현종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과정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 기존의 틀을 규제하면서 민선6기 모두가 행복한 완도 건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지난 연도 수입의 증가로 3억 6,500만 원을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10억 원 등 기타 수입의 증가로 9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교부결정액 2,047억 600만 원을 전액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은 교부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본예산 확정 후 추가 변경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 400억 원 중에서 국도비예산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입규모는 2018년 본예산 1,704억 원 대비 19.6% 증가한 4,430억 원이 되겠으며,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4,429억 원과 비교해서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255억 100만 원으로 66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120억 8,600만 원, 국도비보조 주민부담금 117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14억 3,800만 원이 반영되어 국도비보조사업

관련 총 예산은 252억 5,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비는 2,080억 500만 원으로 407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62억 1,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청취불능) 이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액은 총 759억 7,2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54%인 407억 7,400만 원입니다. 법적의무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및 공무원의 경우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적용과 당초 50%만 반영되었던 공무원의 연금 및 보험료를 전액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금년 풀베기 사업 등 일용인부임 증가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총 10억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경비 중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추가 증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총액 한도액(청취불능)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6억 5,000만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8,700만 원을, 행사축제경비는 4억 200만 원 증액된 58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 사업의 적정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비교를 통해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추경예산임을 감안해서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확보, 토지매입, 사전동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세부 사항은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정관범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쪽을 보면 그 인력운영비에 가서 10억 9,900만 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포상금, 성과상여금 15억 9,700만 원, 연금부담금도 36억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본예산의 절반 정도만 세웠기 때문에……

□ 정관범 위원

100분의 50만 세웠다는 이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이런 부분을 전액 이번에 반영했고,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공무원 부분 예산은 이번에 전액반영을 했습니다.

□ 정관범 위원

포상금과 성과상여금은?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반만 세웠습니다, 본 예산에.

□ 정관범 위원

100분의 50만 세웠다는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가서요. 인력운영비에 가서 주된 내용이 정규직, 공무원, 기간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기간제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에 호봉 인상분이라든지, 호봉 인상분 이런 부분……

□ 정관법 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도 들어갔어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초과근무수당 인상분도 들어갔습니다.

□ 정관법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조직 내에 국도비 공무원이 약 44명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대한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호봉 인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기획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는 이전에도 그런 부분이 군비로 지급하고 있는 인력운영경비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 정관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간 외 수당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호봉제도 도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기초단체들이 전체 연합해서 그 일반순군비 공무원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행사부를 압박도 하고 해서 이런 불합리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정 안 되면 시간 외 수당 같은 것은 순군비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정관법 위원

이것의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실장님, 방금 정관법 위원님이 보충답변서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작성해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시다가 질의할 시간 때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4,430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2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4,255억 1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66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156억 6,800만 원으로 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소득세가 3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이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13억 8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9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5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 및 보전…… 지방소비세가 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102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35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047억 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700만 원, 예비군 육성 장비지원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7억 6,300만 원이 증가한 60억 2,100만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2017년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2,100만 원, 도세징수 재정보조금 27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2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478억 800만 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90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287억 3,100만 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다음은 203페이지,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은 467억 2,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저희들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7,280만 원이 국비…… 반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별주택 조사 전용노트북 구입으로 420만 원 국비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체납액 징수 합동기동반 피복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지방세 독촉장 발송수수료가 336만 6,000원입니다. 밑에 포상금으로 해서 2018년 회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조례규칙상 (청취 불능)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인정보 역량평가로 해서 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불용물품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군청민원동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600만 원 했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50% 본예산에 돼서…… 10억 5,000만 원으로 났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청 소방시설 정비로 해서 소방안전 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 해서, 보안사항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직원숙소 신축공사, 부대공사…… 주차장 시설사업 등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신축건물 회의실 집기 구입비 500만 원 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 냉난방 교체구입인데 5개 실과로 해서 700만 원. 고급면 방송장비 구입하는데 1,000만 원.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집기 구입하는데 1,000만 원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완도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국비로 해서 8억 세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등기수수료로 해서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00만 원입니다. 관사 내에 냉장고, 싱크대 3,5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차량보험료 7대 700만 원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복지와 중증장애인 이동차량 버스를 구입하는데 1억 원 세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는 인건비……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관법 위원님.

□ 정관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205쪽?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군청에 있는 것인데 2개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난번에 16억이 세워졌고요. 이번에 총 24억인데 8억……

□ 정관법 위원

아, 그 뒤편 말해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군청주차장 시설, 국비로 2년차……

□ 정관법 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거기 205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복지와 중증장애인. 이 버스를

구입한다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장애인협회라든가…… 공모해 가지고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한 장애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그런 형태로…… 완도군만 중증장애인 버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있어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활용하는……

□ 박인철 위원

장애인단체 아니면 복지관……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어디서 할지 모르겠는데……

□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없으시면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관광정책과장 안봉일입니다.

227쪽, 관광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3,400만 원입니다. 관광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대중교통 완도관광지 홍보 1,645만 원. 고속버스 주요관광지 홍보 1,375만 원. 기타보상금 완도관광사진 공모

시상금 1,0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부스설치비 900만 원, 부산국제관광전 참가 부스설치비 1,000만 원, 일산 대한민국 관광박람회 참가 부스설치비 1,000만 원.

생태문화관광자원화, 사무관리비입니다. 228쪽입니다. 난대숲 해설버스 운영비 1,000만 원, 난대숲 생태체험 홍보 7,000만 원. 재료비입니다.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난대숲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역 3,000만 원. 행사설비보상금 자원봉사 인력양성 1,00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자원봉사인력 양성 2,000만 원. 시설비, 난대숲 안내해설판 제작 7,000만 원.

22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야외학습장, 실개천 복원, 숲 운반 옛숲길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난대숲 체험 교육장 시설 정비사업 4,000만 원.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슬로시티 개발 및 홍보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800만 원. 연구용역비, 슬로시티 전 지역 확대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만 원. 관광지 관리, 시설비입니다. 고금대교 관문 상징물 설치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청산도 슬로길 정비 기본계획 용역 1억. 청산도 슬로길 도로 복원 및 정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전기자전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주민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갈곶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15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시설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1억 3,833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백사장 청소장비 임차비 1,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명사십리 해양헬스케어 비치바스켓 설치사업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 3,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수욕장 안전요원 인건비 1억 8,800만 원.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보길 중리 해수욕장 화장실 개축 1억. 2018년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청산 지리)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평가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시설비, 해수욕장 평가 인센티브 사업 1억 2,800만 원. 다음은 232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축제관리로 행사운영비, 전국수산물 가족요리대회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5년 해수욕장 안전장비(인명구조선)구입에 따른 안전장비 구입 지원비 국비집행 잔액하고 이차해서 5,20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관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관범 위원님.

□ 정관범 위원

227페이지를 한번 봐봅시다. 대중교통 관광지 홍보하고 고속버스 주요관광지 홍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대중교통관광지 홍보는 KTX라든지 SRT,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홍보. 그리고 고속버스 관광지 홍보는 광주에 소재한 고속버스 벽면에, 차 옆면에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SRT 같은 경우는 그러면 책자로 배치해서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역사.

□ 정관범 위원

역사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 효과가 좀 있을까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서울은 다중이 많이 집합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범 위원

하여튼 세밀히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9페이지, 슬로시티 전 지역 확대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전 지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작년까지는 청산도만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발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 전 지역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군을 어떻게 슬로시티의 목적과 이념에 맞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따른……

□ 정관범 위원

완도군 전체를 슬로시티 지역으로 묶으려고 한다는 전체로 묶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지금 한국슬로시티 본부에서…… 뭘니까, 실사를 해서 거의 인증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국제슬로시티 부분으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인증 절차가 끝났고요. 6월에 이탈리아에서…… 아니, 스페인에서 실시되는 국제회의에서 우리 군이 전체로 확대해서 지원할……

□ 정관범 위원

완도를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만 해당되죠.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도시지역도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2쪽을 보면요, 전국수산물 가족요리대회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1,000만 원을 더 해서 1,500만 원으로 하려고 한다는 이 계획이 아닙니까? (예)

그 수산물 가족요리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이게 저희들 축제하는 프로그램 목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단위로 해서 공모해서 모집해 가지고, 가족들을 모집해서요.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리경연대회를 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 정관범 위원

참가비를 받고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면……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프로그램 목적으로 해서……

□ 정관범 위원

어떤 프로그램…… 아, 축제지. 어떤 축제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장보고수산물축제.

□ 정관범 위원

축제 시에 한 파트로 열려고 한다는 그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다 끝나셨어요?

다음은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난대숲이 어디에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완도수목원 난대숲 생태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이 맨 처음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인데요. 숲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숲을 해설할 수 있는 해설가 양성, 그다음에 수목원 내에 있는 치유의숲 공원이라든지 목공예체험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목원하고 우리 군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 전부 수목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수목원이 완도군에 존재를 하고, 또 어디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도에서 하는 사업비를 전부…… 도비는 얼마 주지도 않고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진입로고 뭐고 다 하고. 이것도 문화관광…… 전라남도 수목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우리 군으로 되어 가지고 기금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좀 그렇습니다.

□ 박인철 위원

우리는 설치만 해주고 우리는 뭐 받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완도군민들이 완도수목원에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완도군민들은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무료, 무료」 하는 위원 있음)

무료예요?

이것을 좀…… 안전건설과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관광과에도 이것이 올라와서……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수목원이 도 기관입니다마는, 산하 사업소입니다마는 소외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본예산도 보면 환경산림과에서도 수목원에 돈이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은 도에서 다 관할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우리 군 것이, 자꾸 우리 군이 들어가는가. 물론 군 관광지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다 뭐 했고…… 도비가 들어가서 해야 될 사업들을 자꾸 우리 군비로 하니까 그런 것 이고요.

과장님, 슬로길 정비 기본설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억을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뭐 또 용역을…… 지금 되고 있는데 별다른 용역을 또 해야 됩니까, 거기 다가?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청산도 슬로길이 굉장히 지금 10년이 넘어서 가지고 노후화됐고. 위험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런 용역들을 실시하고. 사업계획 용역비만 1억 원이고요. 사업비는 지역개발과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노하우가 쌓여져 있으니까 별도로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

예요?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수할 부분들,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더 이상 없으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과를 더 하죠.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기획예산실장 서현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1회 추경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억 582만 원이 증액된 84억 9,9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51쪽, 예산편성 운영 포상금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6,0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 11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 용도에 사용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 30%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부분 군정 주요업무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선7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시행 계획 제작비 400만 원, 민선7기 공약자료집 제작 300만 원, 민선7기 군정방침 및 구호 안내판 교체 제작 1,000만 원, 장보고실크 로드지도 제작 500만 원, 민선6기 우수시책

모음집 제작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 주민배심원 참석 수당 490만 원, 부서간 협업역량 강화 및 정책개발 위탁 용역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군과 군의회의 상생협력을 위한 군정발전간담회 개최 500만 원, 제2기 희망완도 군민계획단 운영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회의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완도군의회 의원 상해보상금으로 2,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감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비 500만 원, 연구용역비입니다. 희망완도 민원 만족콜 운영 1,000만 원, 청렴 및 반부패 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청렴도 향상 공직자 및 민간인 교육 1,000만 원, 청렴사회 만들기 범군민운동 추진 1,000만 원.

15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컨설팅 용역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정관법 위원**

151쪽을 보면요, 완도군의회 의원 상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완도군의회 의원이…… 조례에 의하면 재직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년도 의정활동비 2년분의 상당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해 뒀습니다.

□ 정관법 위원

그러니까 상해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상해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직무상 상해인데, 그것은 조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완도군의 원 상해보상금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 정관법 위원

그러면 우리 옛날 박관철 의원님의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예, 해당됩니다.

□ 정관법 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구면요,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오전 심의는 이상으로 하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 총 예산은 14억 7,216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33억 5,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약산항일운동 기념공원 조성 시설비로서 부지매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약산항일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상이군경에 완도군…… 주관으로 22개 시군 총회가 4월에 완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군복지회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부지매입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청소년신문 제작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신문 제작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사업으로 하는 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신문 작성 교육과 현장취재, 신문 제작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절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2,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군비로 1명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완도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1명이 필요해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화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당초 320만 원에서 88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162쪽, 중간 부분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이사업인데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경로당 무료급식입니다. 재가 노인 및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서비스 찬기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가 노인 식사배달 25명과 경로식당 260명분, 285명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이 식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는데 식기를 교대해야 되고, 또 분실물이 있기 때문에 찬기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돌보미 처우개선비 지원, 당초 3,108만 원에서 420만 원이 증액된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지도관리사 37명이 본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5명이 늘어서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노인회 지원 및 관리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당초 6,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완도군 노인대학…… 7개소인데요, 지원하는 곳이 2개소가 빠지고 5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169쪽, 아래 부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당초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완도전문요양원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공설묘지 추모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공설묘지 경관개선사업비로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화단정비와 함께 거기 곳곳에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노인목욕비 지원입니다.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5,000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여성이장마을이 당초 9개에서 12개 마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177쪽 중간 부분에 다문화이중언어코치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결혼이주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코치 채용사업비 2,14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모국어와 한국어를 이중으로 코치를 채용해서…… 뭘니까,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 중이고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학력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상담치료라든가 사례관리 등 가족코칭 사후관리…… 사전, 사후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도비보조금인데, 이것도 운영사업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금당예포어린이집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아이돌봄센터로 출발한 금당예포어린이집이 나중에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 5평 정도로 평당 600만 원 선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복지과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일반 및 등기우편료 83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167쪽에요, 재가 노인 및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재가 노인이랑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서비스, 이것은 어디 단체에다

가…… 지금 맡기고 있죠? (예)

어디 단체에다가 합니까?

(“ 재가 노인서비스는 한국부인회…… 당초 성광교회 자원봉사에서 운영하다가요. 내부적으로 자원봉사…… 그 배달 서비스가 어려워 가지고 한국부인회에서 복지회관 식당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부분은 각 읍면단체에서 식당들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반찬을 일주일치 만들어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이게 성광교회에서 했던 봉사죠?

(“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일반여성단체로, 한국부인회로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 특별한 이유는 성광…… 그 자원봉사회에서 당초에는 여성회원분들이 많아 가지고 음식재료라든가 만드는 데에 자원봉사 인력이 많이 있었는데, 직장을 잡는다거나 다른 직업 때문에 참여가 어려워서, 성광에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여성단체에, 한국부인회에다가 줬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넘겨주는 그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옛날부터, 전일부터 얘기한 것이 관리하지 않는 단체에다가 어떤 사업을 줘라. 좀 주면 좋겠다. 왜,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다가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왜, 단체를 운영하기가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장도 안 하려고 그래요. (청취불능) 계장님이 계시지만 단체회장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기 차원에서 조금 이런 관리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돌보지 않는 단체에다가 좀 이런 일을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손이 닿지 않는 단체들이, 여성단체가…… 한국부인회를 빼놓는다면 한 2~3개 단체가 될 거예요. 고루 분배에서 그런 단체도 어떤 손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업이

라도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일부터 그렇게 주문해도 그것을 편성을 안 해서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계장님도 그런 것에 신경을 써가지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문해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몇 세대, 재가 복지?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재가 노인은 25명이고 경로식당은 260명입니다. 그래서 285명 정도로 1일 식당가 3,500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그전에 이런 반찬 도시락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별도로 새로 구입해서……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그 먹은 것을 수거해서 씻고 말리고 있다가 또 다음 그릇으로 대체를 한 다든가. 또 노인들이 잃어버렸다고 안 주고 그래서 분실한 식기와 찬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 그것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배달해 드리고, 가지고 있는 찬기를 회수해서…… 1인 가구에 2개씩 찬기가 들어갑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울윤 위원님.

□ 서울윤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약산향일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비요, 그게 전체적으로 9억이라는 돈이네요, 9억 800만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소안면, 신

지면 그런 데에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뜻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재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10년 전에 신지향일공원을 조성할 때도 보훈처, 도비 그렇게 모아보고 실제적으로 군비는 적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 재원을 보니까 군비는 몽땅 넣고, 사실 가져온 돈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보훈처나 도비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나 주무부서에도 이런 것, 국가 돈으로 전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가 보훈처라든가,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국비 2억 4,200 이것이 보훈처 예산입니다.

□ 서울윤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그 당시에는 김영록 장관이 도지사할 때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비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너무 우리 군비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주무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관계 읍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데에다가…… 찾아다니고 건의해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울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한 가지 제가 더 질의할게요.

177쪽예요, 다문화이중언어코치 채용 지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다문화언어지도 교사가 편성되어서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것은 설명을……

(“ 지금 다문화여성들이 325세대 정도 있는데, 이중언어라는 것을 보면 부모,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모국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모의 모국어를 2개 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자는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우리 직원에게 어떻게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이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편성해 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전라남도의 신규시책사업입니다.

(“ 예,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아니, 전에도 본예산에서 여러 번 이것이 논의되어 가지고 삭감 대상에 오르고 그랬었는데. 이 기존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부모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이게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분야인가.

(“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여성들의 모국어, 외국어를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언어하고 엄마 나라 언어를 같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을…… 지도사가 파견되어 가지고.” 하는 주무관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라면 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죠?

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전체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액 228억 8,757만 2,000원보다 55억
3,793만 4,000원이 증액된 284억 2,5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군정 주요행사 추진 5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시행경비
로 복지카드 사용료 지원 7억 1,920만 원.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중
합건강검진비 지원 7,875만 원 계상하였습
니다. 통계행정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완도군 농수축산업 및 관광산업
총 조사 인건비 2,882만 3,000원. 사무관리
비로 조사표 제작비 1,440만 원. 연구용역
비로 총 조사 및 결과분석 2,000만 원. 자
치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
양보험료 등에서 7,989만 6,000원. 사무관
리비로 공무원 신분증 제작 458만 5,000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완도군 행정조직 경영
진단용역비 4,000만 원. 공명선거 추진은
도비 부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무
원 교육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드론 전
문가 양성 위탁교육비 930만 원. 국제화여
비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여비 2,400
만 원. 정보통신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무관
리비로 공직자 청렴 등 군정홍보 전화비즈링
사용료 1,800만 원. 시설비로 행정정보통신
망 암호화장비 고도화 구축비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 2,100만 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관리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온

라인 문서보안 솔루션 구축비 7,000만 원.
웹방화벽 구매 3,400만 원. 정보화마을 운
영을 위해서 센터 운영비로 720만 원. 교류
협력업무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중앙
부처 완도군 서포터즈 초청행사 운영비 400
만 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국제자매도시단체 상호방문행사비 400만 원,
민간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
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9,000만 원, 소송
수행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소송
위임변호사 선임료 2,100만 원, 고액 사건
소송 수행 선임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장학진흥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감액사업과 인
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범 위원님.

□ 정관범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193쪽에요. 맞춤형복지제도 복지카드 사
용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
분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것은 당초에 100%를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50%만 반영했구요. 그후로 공무원
들이 정규직으로……

□ 정관범 위원

지금 공무원들한테도 복지카드를 지급합니
까? (예)

얼마씩 지급해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한 100만 원 정도.

□ 정관법 위원

그러면 똑같은데요, 직원들하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비용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 정관법 위원

그다음에 194쪽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완도군 행정조직 경영진단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민선7기가 시작되면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에도 행자부에서 국을 설치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위원

이것 꼭 외부기관을 이용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물론 조직진단은 내부진단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다시 전문가가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법 위원

아니, 우리가 신우철 군수 들어서서 우리가 용역을 했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구태여 외부용역기관을 거쳐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에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군 조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새로 들어서서, 신군수 새로 들어서서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

고, 또 크게 대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연속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민선7기를 가더라도, 그런데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민선6기 들어서 물론 경영진단을 해서 했습니다. 용역을. 7기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행정수요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법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크게 진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 행정수요가…… 산업구조도 많이 변동됐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산업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법 위원

우리가 조직권이 없죠, 우리한테 안 주어졌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 정관법 위원

아니, 조직권이 없죠. 분권이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어차피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땀땀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완도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이나 진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자율권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지자체에.

특히 5급 이하의과는 자치단체 내에서 신설할 수 있고, 또 국도 2국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분야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법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도입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국 신설이라든지 4급 서기관 배치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 주민복지과에 주어진 서기관 배치를 가령 완도읍장에게 줄 수가 있다. 이런 조직개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니요, 국은 본청 내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법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한계점이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외부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실과장님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로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97쪽을 보면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요청된 것입니까, 197쪽.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번영회라든지 건강한 지역사회협의회라든지 청년회 JC…… 그러니까 여기 단체에서 신규로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 정관법 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저번에 보조금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북한동포 김, 미역 보내기라든지 아니면 JC에서 시군 교류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 정관법 위원

북한 김, 미역 보내기를 위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쥐가지고 군에서?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일부지원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 정관법 위원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정관법 위원님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을 물었는데,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제 전화를 받았는데, 조직진단을 하고 뭐 한다는데, 다음 군수가 누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시중에 군청에 국이 생기니 뭐니…… 그래서 내가 무슨 국이 생기냐고 하니 금방 과장님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시중에 어떻게 나갑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국이…… 조직개편은 대통령시행령에 의해서……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방금 설명을 했는데 위원들도 모르는데 민간인들이 전화해 가지고 완도군 다음 민선7기 때 국이 생기냐고 그래서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들이 벌써 민선7기에 누가 군수가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완

도군에 국이 생기니 어찌니……

아까 조금 전에 정관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복지과가…… 뭐 과장이 5급으로 가고 남 서기관이 1명 있고 국이 신설되어 가지고 뭐 국장이니, 어찌니 그러는데. 이런 말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하도 행자부를 잘 열어봐서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시행령에 따라서 입법예고가 된 내용입니다. 전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저만 몰랐습니까, 그것들? 참 나……

정관범 위원님이 세세하게 물어봤는데, 이 전에도 내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보니까 돈을 그 정도 들여 가지고 그 조직개편안을 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영진단이라 용어만 바뀌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번에 국도 새로 신설되고 그리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 박인철 위원

아니, 국도 신설된 것이 아니고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동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꼭 국을 만들라고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 군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생각해 보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요. 공직자 청렴 군정 홍보,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오전에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반부패 청렴이라고 그래 가지고, 쪽 해 가지고 희망완도 민원만족콜, 청렴도 향상 공직자 및 민간인 교육, 청렴사회 만들기. 쪽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 예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공직자 청렴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실에도 공직자 청렴이라고 해가지고 예산들이 쪽 나열되어 가지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것은 통신을 통해서 청렴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전화비즈링 컬러링 나오는 청렴멘트를 넣기 위해서……

□ 박인철 위원

그리고 청렴 엽서, 우표…… 그러면 우리가 행정전화를 걸면 나오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멘트가 나오는 그 사용료입니다. 이것 6개월치만……

□ 박인철 위원

예, 갓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김동삼 위원님, 아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 김동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입 좀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 방금 두 분 위원이 말한 195페이지, 행정조직 경영진단 용역에 대해서요. 제가 이전에 용역심사 위원으로 저하고 서울을 부의장하고 참석해 가지고 그때 한 말을 우리 위원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앞에서 리바이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위원이 제가 말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이제 국이 이렇게 생기고 해서…… 어차피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또 이렇게…… 신입군수가 오면 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무엇이 나아져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보면 퇴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로 가서 계 명칭도 옛날 고유의 업무, 그런 하나의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과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하고 플러스 체육이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평생교육이라고 또 이렇게 담당명칭이 되어 버리고, 또 이 군수가 와서 해양수산과, 수산양식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교를 했어,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해양수산과 수산양식과는 과만 나뉘었지, 담당으로 들어가면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 또 두 사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주민복지과는 어떠냐. 계에 6개인가 담당이 있는데 대개 5~6명씩, 이렇게 대과주의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바깥에서, 나 역시도 그래요. 수산과의 수산 분야 업무를 물어보려고 그러면 이것이 해양수산과인가, 수산양식과인가. 어디 과인지 몰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양응열 계장한테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하나고 물어봐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군청에 가보세요. 두 과는 업무가 흡사하니까 사무실 자체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 과로 가서 못하면 바로 그 옆으로 가서 하는데, 지금 층도 다르죠, 이 과 배치야. 이렇게 해서 뭐하고 그러는데.

아까 정관법 위원이 그 말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실과장들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과장들이 이런 행정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간담회를 자주 열어 가지고 하고, 또 실과장들도 이렇게 자세를 바꿔야 돼요. 현재 그 자리에 있지만 또 인사가 있으면 바뀌지고 그러니까 내가 꼭 이 과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여러 가지 실과 명칭, 또 이런 담당명칭

으로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용역회사,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 지자체를 전국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실과장들의 마인드,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속 업무를 해보니까 이런 것에 모순이 있더라.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는 구태여 용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조직개편도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국이 생기고 그러면 좀 이렇게 묶어요. 큰 과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과주의로…… 다 지금은 대과주의, 이런 것으로 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다음은 서울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울윤 위원

197페이지, 과장님. 출연금에서 장보고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2억 원이 이번에 증가됐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것은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해서 무지개 학교 지원사업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 서울윤 위원

아, 그랬어요. 지금 군비를 갖다가 툭툭 잘라다가 선심성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17억 4,200만 원으로 짜냈구면, 이렇게 군비를 툭툭 주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머니의 돈 마냥 2억을 이번에 또…… 당초에 15억 4,200만 원, 이것도 세부사업별로 해서 그때 의회 승인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2억 원이 올라온 것이예요. 군민의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어느 무슨 것이 있다고 그냥

알았다고 떼어주고, 떼어주고 그러면…… 의회는 이런 것을 잘 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드렸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것도 선심성, 낭비성이 많 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 낭비성.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장보고장학기금 출연금, 이것도 신 중히 해야 돼요. 군민들 돈을 전부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목은 있으나 합당 하느냐,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것을 상당히 좀 재원을 그렇게 막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 출연금은 무지개학교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2억하고 우리 군이 2억 해서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목적은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사 업에 쓸 예정이고요.

□ 서울윤 위원

아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돈 2억을 주 라는 법적 근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 산을 편성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게 다른 22개시군 중에서 전 시군이 이 사업을 우리 추진…… 우리 군만 제일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 다.

□ 서울윤 위원

그 인건비를 충분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교 육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것 을 거기에다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데, 장학금 15억도 진짜 많은 돈이에요. 그 런데 이런 돈도 그 어려운 재원에서 다 해서 해줬는데, 이것도 잘라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이 것 군민들이 공감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교육 지원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이기 때문

에……

□ 서울윤 위원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꼭 의무사항은 아 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초, 중학교 교육환 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 에 이것은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 서울윤 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렇다면 어느 돈이 안 필요하겠어요, 그 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선심성, 낭비성이라고 봐요, 이 런 것은.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편법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어떤 것을 말하는……

□ 박인철 위원

금방 자치행정과장님이 말한 무지개학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우리 순군비로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장보고장학회에 다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 은 편법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 부분은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장보고장학재단을 통해서……

□ 박인철 위원

아니, 학교에다가 직접적인 지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예산계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저번에 금일 어디 초등학교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예산 지원이 안 된다.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무지개학교가 나는 어떤 형태로 그것이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군비를 장보고장학금에다가 출연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이것은 편법예산인데. 의회한테, 기획실에서 의회한테 이야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방향성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앞으로는 그런 쪽 예산을……

□ 박인철 위원

이것 뭐 교육 매칭이라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완도중학교가 도 교육청에서 21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애기들 급식소하고 강당을 짓는데 수차례…… 2억 원만 거기에서 지원해주면 완벽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야기를 하니깐요. 우리 예산 패널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빼셨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 학교장이 21억이라는 도에서 가져와 가지고 완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소하고 이렇게 강당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2억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2억만 더 해주라고 할 때는 군이 패널티를 먹는다고 안 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누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성된……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 학교장이 도 교육청에 가가지고, 21억이란 돈을 받아 가지고 2억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해주라고 작년 본예산을 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도 패널티를 먹는다고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놔 버리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놔 버리면, 교육청에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장보고장학금에서 학교교육청으로 나가는 돈들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교육장이 하면 되고 학교장이 아니면 학교운영 위원…… 본예산 할 때도 그렇게 사정을 하고, 학교장이 완도중학교에서 21억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받아 왔으니까 공사하는데 2억 정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패널티를 낸다고 전혀 안 된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뭐냐는 이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출연금 2억 원은 도내 22시군 전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보고장학금 출연하지 말고 순군비로 해가지고 2억 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순군비로. 그런데 순군비로 하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패널티를 맞으니까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장보고장학금…… 그것 출연금도 해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하고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출연금을 할 때도.

실장님, 계장님, 답변 안 나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잣대가 어느 사람이 하면 어느 잣대로 가고 어느 사람이 하면 어느 잣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 안 나오면 나중에 축소심사를 할 때 봅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그래요, 김동산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동삼 위원

중복된 이야기인데요, 장학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출연금 예산을 할 때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아니,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 심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에 장보고장학회, 또 다른 출연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만 되면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그때 우리가 출연금을 승인했고, 출연금 승인할 때 거기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내용을 다 알고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무지개학교니 어쩌니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출연금 승인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출연금을 올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출연승인은 기관에 대한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승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금액이 인상되거나 증액되더라도 출연계획…… 본예산 받을 때 거기에서 한 것으로 보고 추가 증액된 것은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행안부에서……” 하는 주무관 있음)

지금 출연하는 것이 장보고장학회하고 또 행복복지재단, 또……

(“거기 출연기관은……” 하는 주무관 있음)

나는 그것이 말이 안 맞다 생각해요. 그때 뭐 해가지고 다 거기에서 우리가 논하고 이것을 해줄 것인가 승인을…… (청취불능) 기관하고 다해당되지 기관에다가 할 것이라고 하면 금액은 안 나와도 되고.

(“금액이 아니라 총 했던 그 금액 안에서 금액만 하면, 한번 승인을 받아 놓으면 그 후에 금액을 증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장보고장학금 출연을 할 때 우리가 장학사업은 얼마, 뭐는 얼마, 그다음에 어디 학교, 통학비 얼마 이런 것이 다 세분화되어 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16억 원인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그것이 승인됐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다가는 출연금으로 해서 장보고장학회에 그 16억 원인가 딱 이렇게 총괄적으로 본예

산에 올렸잖아요. 내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부기에다가 바로 해야 돼요.

(“그 부분은……”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여기서 출연금이…… 설명한 것이…… 올해 이렇게 우리가 승인된 것이 그때 얼마였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본예산에 다 못 세운 것을 지금 2억 원 세운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본예산에 17억 세웠고요.

□ 김동삼 위원

17억?

(「15억」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니, 본예산에 15억 4,200만 원.

(「15억 4,200만 원을 본예산에 승인을 해줬어」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왜 14억 4,200만 원이야?

(“완도군 금고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1억 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해서, 1억 포함해서 15억 4,200. 금고, 완도군 금고에 들어온 1억 원 출연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는 주무관 있음)

자, 내 질문은 그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절차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그 사전승인을 받고 이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나머지 부분은 축조심사 때 논의하기로 하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10분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 정확히 15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25억 34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6,60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본예산에 군비로 2,19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1,464만 원이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시지가 검증 및 분할 확정 수수료를 본예산에 군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7,015만 2,000원이 내시되어 의무부담 군비 2,623만 8,000원을 증액, 총 1억 1,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통합관리시스템 관리입니다. 2018년도 지적측량 기준점 일체조사 후 망실된 기준점의 복구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에 탑재된 지역통합시스템 서버 노후화로 잦은 고장에 따라 서버 교체비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재조사사업으로 보상감정평가수수료를 본예산에 1,890만 원에서 1,134만 원을 증액, 3,02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관련입니다. 새주소 홍보물 영상 송출료와 스티커 제작비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조사 완료한 도로명안내시설물 정비를 위해 본예산에 8,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부족하여 1,800만 원을 증액, 1억 300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노화읍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억 원을 확보, 의무부담 군비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페이지입니다. 주택건축 운영 관련예산입니다. 우리 군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기울임이 심해 재난위험이 있는 건물을 정리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특정관리대상시설 매입비 4억 5,000만 원, 철거비 5,000만 원, 총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축물에 대해 지난 2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5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은 등급으로 3도 기울기의 경사로 심각한 결함으로 건축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중지, 보강 개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난안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발생위험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의 경우 우리 군보다 덜 위험한 D등급을 받은 건축물도 재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재난발생위험률…… 지자체의 의무적 판단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특혜여론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의무감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고 감정평가 등 세밀하게 챙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 보급 및 보존지역 관련예산입니다. 현재 약산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건립 중인 한옥 1동에 대한 지원으로 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예요. 한옥 보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군비로 한 동을 입주계약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도 지원금도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도지사가 바뀌어서 그런가. 도 지원금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도 지원금이 있는데 올해 도 지원금이 없어 가지고 1차 도비를 확보하고…… 도에 요청을 해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박성규 위원님.

□ 박성규 위원

경도빌딩을 매입하면 부지까지 매입한 것입니까. 건물만 매입……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부지까지 매입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박성규 위원

부지까지 하고 철거비는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큰 건물에? (예)

아, 부지까지 다 매입…… 토지까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조인호 위원님.

□ 조인호 위원

과장님, 경도빌딩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나 개인한테 특혜가 간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세월이 가면 무조건 특혜시비가…… 요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혜시비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질지 몰라도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바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앞뒤 잘 재가지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서두르지 않고 건물주하고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절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성규 위원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평수는 건축면적의 25평이고 전체면적은 30평 정도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서울윤 위원님.

□ 서울윤 위원

경도빌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고 바로 건축주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처리하면 대단히 나쁜 선례로 남게 돼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유재산인데 위험요소가 있어. 그런데 본인…… 혹시 만나보셨죠, 건축주?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만났습니다.

□ **서울윤 위원**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일단은 저 건물이 저질이 밑에 벌과 자갈로 되어 있는 위낙…… 약 18M 정도 깊은 저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손대기가 겁나고, 또 그것을 재력이 없다고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서울윤 위원**
본인은 전혀…… 군에다가 철거하고 땅도 사주고 건물도 사주라. 철거도 너희가 하고 땅도 너희가 사주고 건물도 너희가 사주라.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서울윤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본인이, 건축주가 어디까지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자, 어디서…… 제천에서 화재사건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저 건물이 무너지면 그 사건과 똑같아. 사람이 죽었어. 건물주는 구속이 돼, 그렇죠? (예)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하셔야 돼, 하셔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구절벽이 오면 빈 건물이 전국적으로 많아져요. 완도읍뿐만 아니라 저런 건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집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한번 봐보세요. 저는 예를 해요. 그럼 저것을 살려야 되고 제2, 제3의 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방치해 놔. 시골집도 방치해 놓고, 그런데 팔라고 해도 안 팔고, 그냥 방치해 놔. 그것 팔면 몇 푼이나 되냐고 자녀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 문제를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군민들의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대충 그냥 일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저게…… 앞으로 저런 건물들이 생기면 계속 군에서 사주고 팔아주고 다 책임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뒷짐을 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것 승인해 주는 것,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선례를 만들어 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위험건물이니까 당신이 사용을 중지해라. 아까 보니까 5등급 중에서 2등급을 받아 가지고 사용중지, 보강개축을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취했어요, 다 취했죠?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전부 취하고. 거기 입주한 업체가, 2개의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사용할 수 없다고 전부 통보했습니다.

□ **서울윤 위원**
그래서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야 돼. 군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민들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봤어요, 군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저것을 군에서 철거해 주고 건물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주인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자,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했다고 하겠어요,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니까, 군민들의 뜻이. 혹시 들어봤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여론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우선 지나다니는 군민들이 너무나도 불안해 한다는 사항……

□ 서울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해 주면 군이 잘했다고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실제적으로 이 건물의 위치가 워낙 교통이 혼잡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그쪽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 서울윤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합시다.

그래서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도로변에 있으니까 위험해서 돌아서 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른 데도 범죄의 온상이라 다 철거해야 돼. 어느 건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저도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사 때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건물주가 철거비 정도라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양심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 그 정도는 주인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제천에 화재참사가 났을 때 건물주가 감방에 갔어요. 이 사건이라면 건물주도 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군에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잘하시고, 하셔야 되고, 이것을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좀 소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저도 그 사람하고 친구입니다마는 이 얘기가 다 나가요 좋아요. 그러나 최소한 건물주도 다소의 부담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것이 공정한 행정이지. 좀 위험이 따른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좀

생각하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건물주가 의무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먼저 나서기보다도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설 수 있도록 그런…… 결에서 견문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건물을……

□ 서울윤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늦은 거예요. 이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다 됐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제점 없이 사전에…… 군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해서라도 어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윤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김동삼 위원님.

□ 김동삼 위원

방금 경도빌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동료위원이 말한 말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뭐하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공무원들의 처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거기서 살고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능력을 따지기 이전에, 나 살 때

까지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못하죠. 그런데 거기는 대로변이고 또 일출공원, 그런 데로 많이 관광차가 다니고 그래서요.

자,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것도 있지만 또 거기를 철거해 가지고 우리 시내 어디 이런 데에…… 곳곳에 집을 사가지고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지 않아요. 자, 거기는 코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유통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다니게 되고 활용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든가, 이런 일반주차장을 만들 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그러면 그런 예가 옛날에 국제서점 앞으로 함평식당이 있는데서 집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도로를 살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채씩, 한 채씩 끌어내 가지고…… 국제서점 앞에 좀 넓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할 데도 있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요. 그래 가지고 밖에서 무슨 말이 뭐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소신 있게 주무관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다른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라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뭐 안 한다고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뭐가 된다.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안 맞다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든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정관법 위원님.

□ 정관법 위원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일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도빌딩 관련 건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차를 운행해서 그 밑을 지나가면 정말 목이 서늘해요. 언제 저

것이 자빠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제외해 놓고 다른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그 말이에요. 그 불안감을 날마다 감수하면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군민하고 그 부분이 특혜라고 얘기하는 군민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이 크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 그 부분을 담당하는 실과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소신 있게 이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그 금액 간에 갭이 생긴다고 한다면 정당한 감정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이제 나누실 말씀 없죠?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2018년도 제1회 추경 경제산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경영안정…… 출연금,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추경에 7,7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7,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투자유치 지원에 투자유치 공무원…… 공무원 포상에 400만 원, 그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 및 정비, 사무관리비에 신규 해양생물 특화단지 조성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완도 축청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개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완도 5일시장에 시장운영, 신청자 평가위원 수당에 4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입항 인센티브 지원,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경제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그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도항 입항 인센티브 지원은 (청취불능) 당초 본예산 편성요구를 했다가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로 전통시장 안전점검관련 보수보강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완도수산물유통 관리 사무관리비로 건강의 섬 완도 특산물 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락시장 수산물 완도홍보체험관 개설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참여,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서남 해안권 행정협의회에서 시군에 분담해서 참여하기로 한 행사비입니다. 7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완도군이숍 온라인마케팅 관리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장 개척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번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완도특산물 안내판 등 제작에 5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대중국 교류협력 공동추진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 및 직거래장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완도 웰빙 매생이 판촉행사에 화물물류비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일자리박람회 참가에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221페이지 중간에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에 인건비, 기간제 등 보수사업으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인건비, 이 부분은 작

년에 이어서 도비하고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인데 군비부족분 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도서낙도 자가 발전시설 노후 축전기 정비사업에 금일 장도에 7,008만 원, 그리고 신지 모항도에 5,256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하단부에 국도……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청산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에 국비가 1억 5,000, 그다음에 군비 3억 5,000해서 5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진도군과 완도군 두 군데를 신규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체보조금에 유가보조금(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대해서 본예산에 6억 원이 편성됐고 추경에 6억을 더 증액해서 12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13억 원을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1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1억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보조신호등 신설 및 보수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하는 이게 목을 운수업체 지원 및 차량관리에서 교통시설 확충…… 이런 목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시설비를 감액조치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2018년도 100원 택시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는 운수업체보조금 시설비에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다시 재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담당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TF팀이 신규로 신설돼서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45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규 위원님.

□ 박성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이렇게 홍보라든지 판촉행사가 전혀 안 들어있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지금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명품특산물 행사 페스티벌 참여…… 행사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신규로 하고 있는 완도 수도권에 특산물 수산물 치유업소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입간판하고 홍보물을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경제산업과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생이 사업은 인건비가 안 나오고, 또 톳 사업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미역이 몇 십 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kg에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kg에 20년 전, 30년 전에 미역공장이 망할 때처럼 60원씩, 50원씩도 안 갑니다. 지금 해조류산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어떻습니까, 큰 것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팔지도 못합니다. 10미짜리가 3만 원대로 갑니다. 20미짜리가 3만 6,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복이 팔리지 않고 매생이가 팔리지 않고 톳이 팔리지 않고 미역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 다양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완도군은 수산물이 아닙니까. 미역 홍보도 해야 되고 다시마 홍보도 해야

되지만 전복 홍보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옛날처럼 그대로, 홍보를 그대로 해서 특별하게 홍보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그 부분은 이번 1회 추경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최대한 상반기 때 해조류뿐만 아니라 전복 관련해서 판촉홍보 활동도 하고 2회 추경에 그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지금 2회 추경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2회 추경을 7~8월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2조 원대, 6조 원대 사업들이…… 엄청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행정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다른 예산은 다 놔두더라도 판촉행사나 홍보라든지, 다른 계통을 통해서 이 전복산업이라든가 다시마라든지 해조류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민들이 아우성입니다. 행정에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전복도 안 사가고, 톳도 안 사가고, 미역도 안 사가고 된 것이 무엇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홍보를 전혀 하는 것이 없다.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전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지 않는 폭탄사이즈에 대해서 1차로 롯데백화점하고 협의를 해서 30톤 정도는 판매해 주기로 했고요. 추가로 2만 톤 하고 50톤 정도를 계속 협상하고 있고 이전 주 금요일에 본사 바이어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경제산업과에서 군수님의 말처럼 군민들이 전복먹기 운동에 나서고 또 2kg, 3kg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어떻습니까, 군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군납 부분은 미역하고 해조류 부분…… 군납 부분을 고민했는데 그 부분은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뿐만 아니고 수협하고 같이 협력해서 고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성규 위원**

그래서 우리 완도군만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은 전북산업을 아주 비대해졌어요. 완도가 할 수는 없어요. 해남, 진도, 신안 다 합니다. 그래서 3개 군, 4개 군 합쳐서 군수님과 국회의원으로 해서…… 앞으로 절반이 남아돌아요, 전북이. 예를 들어서 수출까지만 돈이 필요한데 지금 2만 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반은 소비시켜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요. 이것을 군납을 안 하면 다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납도 연구하시고 다양한 책을 통해서 홍보도 거의…… 뭐 한 달에 2번씩 나올 수 정도로 이 해조류나 전북산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정관법 위원님.

□ **정관법 위원**

222쪽, 도서낙도 자가발전시설 노후 축전지 정비라고 했는데. 그 부기에 96개, 72개. 이것은 무슨 수치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이게 축전지입니다.

□ **정관법 위원**

아, 축전지가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별다른……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여기에

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몇 가지하고자 합니다.

변환소 문제 알죠? (예)

지금 3월 9일에 한전 측에서 설명을 군의회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경제산업과장이 아니었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구먼요.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예, 작년 사업……

□ **정관법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완도의 부족전기를 제주에서 가져다가 공급을 하겠다. 또 태풍 시 우리들이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주겠다고 설명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사실 제주도 부족전력을 이제 알고 보니까 완도변환소, 변전소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게 진실이죠?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핵심은 그것이고요. 부수적으로 완도에 들어오는 전기가 단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예비로 제주도로…… 있는 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 **정관법 위원**

그것은 후에 될 일이고.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설명할 때 후자를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한전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 **정관법 위원**

그러니까 사기를 친 것이죠, 의회에서도 사기를 치고 군민들한테도 사기를 치고. 그렇죠, 그렇게 답변만 하세요. 3월 9일에 설명할 때 관계공무원들하고 전의원들이 그 부분을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봤고, 저도 발언을 한 것이 나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질의했고, 거기에 대해 끝까지 한전 측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박인철 위원 같은 사람들은 철탑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천양숙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서울윤 위원님도 물어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점을 공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3월 3일 입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를 추천한 것입니다. 다소 저는 상식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약 2회에 걸쳐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변환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도군에 미치는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제동을 걸었고 항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7월 25일에 우리 서길수 과장을 앞에 세워놓고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대책을 촉구하게 됩니다. 서길수 과장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어떤 정책적인…… 보상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발전소 입지에 대한 지자체 사례 등을 수집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다고 했어요. 보고 드린 적 없죠, 별도로?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구두로 설명한 기억만 있습니다.

□ 정관법 위원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그때 그 뒤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정관법 위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까지 그 문제가 커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초기에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해 줬으면 의회 의원들은 어디를 통해서 일을 하죠?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 정관법 위원

집행부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을 직접 상대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행정은 행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추후 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면요. 반드시 기억관리를 해서 그 부분을 추후 보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의회사무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어서 보고가 되도록 했으면 적극적으로 언론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는 수역을 언론대책비로 편성을 해놓고, 홍보비로 편성을 해놓고 하고 있는데 의회는 그런 것이 10원도 하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역언론에 대해서 비취지지 않고, 그나마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의원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라도 이제 군민들한테 직접 알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 일이 커질 필요도 없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때 초기에 대응만 잘해줬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어장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그냥 간과해 버린 거예요. 누구 집 똥개가 짖느냐는 식으로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제가 한 두 번째 갔다 와서 거기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 초기대응의 잘못이라고, 저는 오늘날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은 250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들은 얼마를 받습니까. 무한봉사, 희생봉사의 자리예요, 의원이. 왜 의원이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왜 오해를 사야 됩니까.

그리고 좀 상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과대포장이 되어 가지고 과대 위험이 우리 군민들에게 투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밀양 당산은 지금 760킬로볼트입니다. 진도는 250킬로볼트, 해남은 180킬로볼트에요. 완도에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154킬로볼트예요. 초고압전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압전력이예요. 너무 과대포장이 되어 가지고 위험하다, 곧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 정 안 되면 한 전 측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해소시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3월 4일 새벽에 아침…… 저녁 한 12시부터 집안에서 내내 올라가 새벽이 실려 갔습니다. 3월 4일에, 그래서 전대병원에서, 가보니까 쓸개에 돌이 박혔다고 해서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마는 수술을 하고 오니까 완전히 역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부추기는 세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입지선 정위원회로 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어요. 그때 당시 신영균 과장, 완도읍장.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다음에 변영희장 뭐 누구, 누구 왔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본위원 혼자만 입이 아프도록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역적이 되어 있더라니까. 아파서, 퇴원해서 보니까 역적이 되어 있더라는 그 말이에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완도를 지키고자 역설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론 사이버 진보세력들이 침소봉대해서 문제를 크게 키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완사모가 설치하는 그런 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건전하게 우리 자자손손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이 땅을 정말 건전하게 키우고 가꾸어야 됩니다.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큼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의 역할도 크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사이버들이 날뛰는 그런 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따로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서길수 과장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행보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행정과 의회도 심히 통감을 하면서 정말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가야 완도가 발전하고, 이런 잡음이 나지 않는 군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위원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과제를 서로가 잘 원만히 풀어나가는 데에 함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아서 갑시다.

□ 경제산업국장 서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경제산업과장에게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경제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입니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3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가 됐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부분에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사업 307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 2억 7,4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2억 7,400중에 1억 7,400만 원은 수협에서 그동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재활용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을 세외수입으로 1억 7,400을 세입으로 받고 세출로 다시 편성한 사업이고요. 추가로 우리가 1억 원을 더 얹어서 이번에 선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역이 과다 생산되고 또 가격이 전년에 한 kg에 150원하다가 지금 50원 정도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매 부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 2억 7,400을 요구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목변경 3억 5,000인데 그 아래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그 쪽으로 변경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목 변경……

25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인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5억 원은 2018년~2022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매년 10억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외면 (청취불능)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10억 중에 국비 5억 원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5억 원이 넘어가 있고요. 그 10억 원에 대한…… 5억 원 부분에 대한 5억은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5억을 편성한 5억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어가,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가 당 5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수산직불제사업 전산처리 인부, 그다음에 4대보험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장 25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홍보 및 책자, 그다음에 읍면 운영위원회 업무추진, 운영비. 이 목이 다 관련된 국도비보조사업. 그다음 그 아래쪽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피복구입 500만 원. 이것은 (청취불능) 요원이 5명이 있는데 1년 중 4계절 피복비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이 관계는 본예산에 2개소가 편성되어 있고요. 추가로 2개소를 늘려서 1억 4,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특산물 박스 제작. 이것은 전복 포장박스를 위한 재료비 2,0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소형 저온저장시설 관계, 이 부분은 2,008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변경 교부결정이 되면서 계수 조정한 수치입니다.

25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활급냉 순살 전복 제품 개발 및 전복 소비홍보 7,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복을 탈각해 가지고 순살만 급냉을 시켜가지고 판매, 제품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더불어서 전복 가격이 계속 하락되고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출하량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금 재원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7,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것은 50억짜리 사업입니다. 국비 25억하고 군비 25억해서 50억짜리 완도항 건너편 부지에다가 수출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2017년 도비 불용액이 2,88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불용돼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일자리 우수수산물가공기업 지원인데 1,2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청년을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을 고용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25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청산 도락 전복선별장 설립 관계인데, 이 사업비는 청산 도락리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금년 연말이면

이것이 준공되는데 청산 도락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에 전복선별장을 하겠다고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한 사업인데, 자부담이 7 대 3으로 하다 보니까, 9,000만 원의 자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마을에서 9,000만 원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아마 도락마을에서 별도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부기로, 다른 사업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억 1,000만 원을 삭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 전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자문료 5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어업인 전문 육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전통노젓기 노제작, 그다음에 노젓기 대회 선박수리. 이것은 매년 장보고축제 때 이 부분을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작년에는 해조류박람회 때 이것을 할 수 없었고 2016년에 쓰고 지금 2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데, 금년 장보고축제 때 이것을 수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300, 200해서 500만 원으로 세웠고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현수막 제작, 이것은 전부 다 감 처리했는데, 이것은 국도비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감 처리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바다의날 도단위 기념행사 관련 201, 행사운영비 23회 바다의날. 이것은 5월 31일에 바다의날 도단위 기념행사를 완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비, 군비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재료비 500만 원은 그 날 그때, 그 행사 때 종묘…… 방문하기 위해서 재료비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254페이지, 유해생물구제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 2억 중에 9,500를 감해 가지고,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9,500를 감 처리하고 자본보조에 늘렸습니다. 그리고 목 변경해서 금액을 조성했는데, 아래쪽에 유해생물구제사업 관련 9,500을 늘린 사업은 광어 육성 양식장 산소탱크, 그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연안해역정비 시설비,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 관련해서 4,219만 2,000원을 늘렸는데, 이 부분은 2017년 금일 동송리 바닷가, 깨끗한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 중에, 1억 원 중에 불용된 4,219만 2,000원을 늘린 것입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양오염방지 관련해서 방제창고 수선 및 이동 관계는 완도항 컨테이너 박스 3개가 그쪽에 있는데, 그것을 수선해서 방제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선비 450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재료비, 오일펜스, 유흡착제, 방유보호, 방유장화 구입. 이 관계는 해양오염 방지 차원에서 해경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2,24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255페이지, 이동식 펌프로 감용기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5억 원…… 그래서 차량 2대로, 감용기 차량 2대를 이번에 발주를 했는데 7월이면 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선박차량 운임 보험료 등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아래쪽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련해서 시설비, 연안항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중에 지금 4,219만 2,000원을 감 처리했는데 그 앞장에 방금 말씀드린 금일 동송항 바닷가 만들기 불용액 4,219만 2,000원, 불용액을 확보하다 보니까 또 (청취불능) 예상돼서…… 계수 숫자가 다 맞아 가지고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부분 4,219만 2,000원을 감 처리하고 앞부분에 다 묶어서 증해서 늘린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5억짜리 6 대 4로 해가지고 3억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노화읍에서 작년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주민 800여명이 서명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패각을 자원화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고열로 1,200℃로 과열해 가지고 패각을 분말화한 다음에 그것을 비료

로 활용한다든지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 아래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금일 충도 어민소득복지센터 부지조성 2억 2,400만 원과 금일 동송항 대합실 부지 매입비 1,000만 원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금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사업 그 자료를 보시면 전체 총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고흥과 완도군이 연계협력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완도군은 30억 중에 10억 원을 부담해서 10억 400만 원을 부담해서 사업하는 내용이고요. 충도…… 그 사업내용에 동송항 대합실, 물양장 조성, 충도 접안장 개보수, 어민소득복지센터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도 어민복지센터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변경위치도 사진을 보시면 한 가운데 전경사진에 전봇대가 있는 그 사이에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요. 지금 부지를 조성하려면 석축도 쌓고 맨홀, 포장. 이런 기반조성을 하는데 2억 2,400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요구했고요. 그리고 금일 동송항 대합실 신축 관계, 제일 아래쪽 부지 관계는 그 땅 부지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00만 원 정도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역량 관련해서 제일 아래쪽에 하단 부분, 민간경상보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단계 1,380만 원을 늘렸는데, 이 부분은 월 사무장 인건비가 노화, 보길도, 청산 도락에 3개의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장 인건비가 120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256페이지,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출연금,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다가 매년 도하고 군이 5 대 5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1,800만 원을 지원해야 될 운영비

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해양헬스케어산업 자체 부분에 예산코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해양헬스케어 관련 금년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을 전부 다 감 처리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257페이지에 보시면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세부사업 코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감된 건물을 전부 이쪽으로 다시 코드 변경해서 옮겨왔고요.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일 하단에 있는 해양헬스케어 주민홍보물 제작 250만 원은 이번에 추가로 새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해양헬스케어 대외 행사 홍보관 운영 1,000만 원, 이것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각종 장보고축제라든지 또 슬로건기축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리 해양헬스케어,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 홍보특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해양헬스케어 웹툰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이것이 새로 들어온 것인데, 이 웹툰은 인터넷 만화입니다. 그래서 해양헬스케어 관련해서 인터넷 만화를 제작하고…… 공모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401에 보면 시설비에서 두 번째, 공공…… 해양치유전문병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 계획이 빠졌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을 세웠는데 지금 신지명 사십리 관광지, 그 지구 안에 해양헬스케어 치유산업 관련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용역을 하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해양헬스케어 단지 조성 관련 토지매입비, 전체 한 4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앞에 본예산에 이어 감이 되고 추경에 코드 변경해서 오면서 8억을 추가해서 총 10억이 이번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코드 변경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해양수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관범 위원님.

□ 정관범 위원

252쪽을 봐봅시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활급냉 순살 전복 제품 개발 및 전복 소비홍보라고 했는데, 이 돈을 어디다가 준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전복산업연합회에다가……

□ 정관범 위원

전복산업연합회에다가 준다고 탈각전복을 홍보한다는 그 말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그것도 제품을 추가로 만들고요. 그리고 전복에 대한…… 전체적으로 과잉 출하되고 4월에서 7월까지 과잉 출하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하나니까…… 전복 소비 촉진 차원에 언론방송 홍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관범 위원

이런 부분들 수시로 조사, 감사는 해보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시로 저희들이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가격 동향 체크하고 있고요. 산지 가격하고 그리고……

□ 정관범 위원

아니, 어디에다가 쓰는가. 왜 그렇게 세밀히 살펴보냐는 그 말이에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요. 꼼꼼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말 그대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전에 감사계장도 했고 예산계장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253쪽에 청산 도락 전복선별장 설립을 2억 1,000만 원 세워놨다가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삭감해 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사업이었다고요, 하수종말처리장……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제 청산 도락리 마을에다가 하수처리장을 2015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하수처리장을 거기다가, 자기 부락에다가 유치하고 하는 조건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전복선별장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해야 될 주민숙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전복선별장 관계는 해양수산정책과 내용의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됐고요. 예산편성 요구를 했더니 예산편성 요구가 의회에 넘어간 다음에 최근에, 이전 주에 그쪽 마을책임자분이 와서 이것이 7 대 3으로 이렇게 간다. 자부담이 9,000만 원 생긴다고 그랬더니 자부담이 생기면 마을자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100%, 2억 1,000만 원을 100%로 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100%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마을에서 9 대 1이라도 부담해야 하고 이게 선례가 되면 다음에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각 부락에서 자부담을 안 하고 다 100%로 해주라고 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2억 1,000만 원하고 자부담을 조금 해서 9대 1

로 해서 조정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해서 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 정관법 위원

그러면 다시는 안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 전복선별장, 이것은 안 하겠다는…… 다른 숙원사업으로 다시 건의하겠다는……

□ 정관법 위원

어차피 자기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밑에 바다의 날 도 단위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데, 전남도에 그 사람들이 왜 우리 군비 1,000만 원 매칭을 해야 됩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다의 날 행사를,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22개시군 중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다 오면서 해당 시군도…… 말 그대로 조금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당 시군에서 참여도 하고 부담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 정관법 위원

전국에서 전남도 같이 치사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건더기만 있으면 꼭 군비를 붙이라고 하고, 자기들한테 5 대 5 부담하라고 하면 안 해버리고, 아주 추접스러운 사람들이 전라남도 같아요.

그다음에 255쪽을 보면요,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 사업은 노화 쪽이 전복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패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다에 버릴 수는 없는 것

이고 어떻게 자원화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마을주민들 800여명이 작년 연말에 건의서를 작성해 가지고요, “이것을 가열하고 그것을 분말해서 비료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했더니 도가 흔쾌히 이 사업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 정관법 위원

노화도에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다음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무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던데,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 사업이 당초 국가시책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로 지원된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당초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초창기에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도군이 노화 북고하고 보길 보옥하고 청산도락, 그쪽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만들어 놓은 체험마을에 대한 기본 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는 그런 판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체험마을을 운영하려면 국가 차원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좀 주고 체험마을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아쉽고요.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몇 년 전에는 군비를 지원해서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고 개매기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군비로 지원도 안 되고 해서 좀 (청취불능)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장 자체를…… 한 사람씩 채용해서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 정관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 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50억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그다음에 265페이지를 보면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왜 출연금으로 4억 1,800만 원 반영됐어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본예산에…… 신속집행 목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 정관법 위원

출자·출연 승인을 안 받았죠, 이것?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금년에……

□ 정관법 위원

받았어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받았습니다.

□ 정관법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7쪽을 보면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이라는 말입니다. 누구 말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마는 소프트웨어 대해…… 이것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이 거의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사업비가 요구될 것인데, 그 끝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지금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5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 용역 중에 35억은 해수부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16억은 선도 지자체로 선정이 된 4개 지자체, 완도, 태안, 그리고 울진, 그다음에 경남 고성. 이 4개 지자체가 각각 금년 2억, 내년 2억 해서 4억을 부담해서…… 4, 4, 16억을 부담해서

35억 해서 총 51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놨는데요. 그 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해수부에서 공공사업 부분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공사업이 들어설 텐데, 우리 완도군 같은 경우는 순기가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해수부 순기대로 가면 어차피 이 공공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큰 성과를 못 보고 끝날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순기를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각종 용역비를 지금 추가로 요구해서 먼저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구체적인 진행관계는 해수부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절충하면서 각종 공공사업을 빨리 1년이라도 더 먼저 착공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군수님하고 담당계장이 해수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당분간 이 사업을 먼저 치고 나가고 어느 정도 공공시설이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민간투자라든지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비 부분을 일정부분 투자해서 먼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큰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센터 건립 용역비라든지,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요구한 5,000만 원, 공공부문에 대한 해양치유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든지 여타 필요한 그런 용역비 관계 부분만 조금하고요. 나머지는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사업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법 위원

당연히 문제인 정부를 개선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좋은데, 만에 하나 반대성격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것은 백지화가 됩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래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 정관법 위원

그렇게 예산이 돼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계획을 세우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 부분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요구해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249페이지요, 해조류부산물 사업. 이전 본예산안, 안 과장님이 안 짰죠. 본예산을 짤 때요. 이 본예산을 보면……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2억 5,000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2억 5,000이 있고. 아니, 그것 빼고 다시 마꼬리 수거사업이 2억 있고, 친환경 미역줄 기사업, 또 수매사업이 있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4,200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리고 나서 또 지특비로 해가지고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해조류부산물 2억 5,000 해 가지고 2억 5,000이 있는데. 또 이렇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것은 해조류부산물…… 본예산에 들어 있는 2억 5,000만 원은 국비 2억에……

□ 박인철 위원

아, 그것은 자부담 위해서 아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것은 사업이 끝난 사업이고요. 사업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4,200, 약산으로 넘어갈 부산물 수매…… 친환경 재배할 때 하는 그 4,200은 약산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시마꼬리 수매관계는 다시마가 나올 차례에 해야 되는 다시마꼬리 수매이고. 그리고 해조류부산물 관계는 미역입니다. 그 미역줄기에다가 부산물을 수매하는 그런 부분인데,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2억 5,000만 원은 사업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쪽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줬던 그런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에 대한 수익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익금을 내놓으라고……

□ 박인철 위원

그것은 내가 질문답변하고 감사 때 봤으니까. 다시 받아 가지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래서 돈 1억 7,400만 원을 받아서 세입 조치를 해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만 하지, 우리가 이 돈을 다시 플러스해 가지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랬는데 1억 7,400을……

□ 박인철 위원

아니, 예산이 본예산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 특별히 미역 값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것을 수매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민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것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미역이 8만 8,400

톤 정도 생산이……

□ 박인철 위원

안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미역을 공장에서 12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선금을 줬는데 지금은 80원, 50원 그렇게 미역이 돼요. 그리고 미역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공장에서……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50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다가 버린다고 하니까 바다에 버리면, 또 바다가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수매…… 추가로 수매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어민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이 주체도 완도금일수협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 주체는 2개로 나뉘집니다. 1억 7,400은 수협에서 세입을 내놓은 것이니까 1억 7,400은 수협으로 가고요. 그리고 1억 원은 전복수산업연합회에다가 작년에 냉동창고를 10억 정도 주고 지었는데 그 창고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또 완도 전복수산업연합회에다가 줘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아, 거기에서……

□ 박인철 위원

전복수산업연합회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 조금 전에 정관범 위원님도…… 확인을 합니까, 지금?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전복떡이로 비축을 하겠다는……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비축해 가지고…… 그러면 비축량을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래서 비축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 박인철 위원

우리 수협에서 하면 그래도 정당한 단가를 받고 하는데.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저기도 똑같이 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이익금은?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익금은 나중에……

□ 박인철 위원

나중에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251페이지, 특산물박스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박스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우리 완도하면……

□ 박인철 위원

잠깐만요. 전복박스 지원이 2,000만 원, 그러면 어디에……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아, 전복박스 지원이 아니고요. 우리 군이 직접 제작을 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어가에다가 이런 샘플을 해서 공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틀을…… 군이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이런 식으로 어가에서 제작해서 사용해라. 시범사용을……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전복판매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봐야죠. 멸치(청취불능) 하시는 분들이 직접 판매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복판매는 거의 유통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전복어가들이 인터넷쇼핑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전복양식어가가 현장에서 일부 택배로 보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식어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홍보비로 하고 박성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홍보비용으로 차라리…… 전복판로 촉진 홍보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몰라도 박스 제작을 한다는 것은……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시범사업을 하려고……

□ 박인철 위원

이것도 좀 한번 뭐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관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완도에서 활급냉하는 곳이 있어요, 전복을? 활급냉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지금 이전에 샘플로 해가지고 한번 100개를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완도 농공단지에 있는 도원수산, 거기에서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래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물형태의 판로로는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가공이 됐든지 아니면 순살…… 탈각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서 전복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을 저번에 보니까 여기 예산도 수산양식과에서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명절에 보니까 2,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예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안 보이는데 지금……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것이 이것입니다. 수산양식과에서 그것……

□ 박인철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이 7,0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남은 돈을 가지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아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 박인철 위원

(청취불능)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예산도 없이……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아니, 예산은 국도비로…… 도비사업 1,500하고 군비 3,500으로 해서 전복 관련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고, 그리고 이것은 반응이 좋으니까 순살냉동전복 제품을 추가로 만들고, 그에 따른 전복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같이 해서 넣은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을 그러면 전복협회에 다가 줘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복협회에다가 전복산업연합회에, 어차피 이것이 지금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복산업연합회 단지에다가 줘야 됩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전복산업연합회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 실체가. 어민들입니까, 아니면 유통업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몇이 하는 것입니까, 전복산업연합회라는 것이? 수산양식과를 보니까 저번에 전복선별기도 민간경상보조로, 거기로 줘가지고 어가…… 수산, 뭐야. 어촌계에다가 돈을…… 뱉니까, 자조금입니까. 얼마씩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들 하던데, 그것이 지금 전복산업연합회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어민들한테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이상하게 간다는 말입니다, 이 자금이. 이것도 나중에 더 따져보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수출물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운용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짓게 되면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물류센터는 전복하고 광어하고……

□ 박인철 위원

그 냉동창고, 저온저장고로 급냉으로 만든다는 그것 아닙니까. 이 운영 실체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위탁할 것인데요. 유통하시는…… 전복이나 광어 유통하시는 그런 유통 관련단체한테 향후 건물을 지으면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는 어느 단체한테 준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 국비, 군비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탁한다는 이 말이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관련단체에, 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 우리 자체에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은 안 가졌어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군에서 직접 직영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 박인철 위원

아니, 전문가가 뭐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개인한테, 전체한테 주는 것……

이것도 그러면 전복양식, 이런 곳으로 가요? 그런 사람들은 물류센터 전문가도 아닌데.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연구를 합니다. 아니, 진짜 이런 것 연구를 좀……

저기 아까 정관범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이것 5억. 제가 작년인가 여수를 가봤다는 말입니다. 이것 전복이 완전히 여수에서…… 뭍니까, 광양제철 앞에서 완전 외딴 곳에서 하고 있더구먼요, 패각을. 그래서 저번에 금일도 그쪽에서 싣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투자해 가지고 완도군 것 전체를 다…… 뭍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전체가 아니고요. 그쪽 서부권, 노화, 보길. 그쪽 전체 물량은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모가 이 5억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저번에 문경선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하려면 크게 지어 가지고 완도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래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한다고 하면 큰 규모로 큰 예산을 별도로 따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15억이면…… 물론 군비도 1억 5,000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잘한 것도 좀 해봅시다, 이런 사업들. 한번 여수, 그쪽도 가보세요. 내가 옛날에 신문에 나와서 한번 가봤는데, 가서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다음 질의 없죠?

해양수산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줌」 하는 위원 있음)

그럼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양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양식과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수산양식과장 추관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262페이지입니다. 수산양식과 2018년도 본예산은 190억 4,239만 8,000원이었으나 30억 6,136만 3,000원이 증액된 220억 5,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 구입비 1,000만 원 증하였습니다. 현재 통발구입비 지원사업은 완도 통발 자율공동체와 금당 통발 자율공동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지원량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완도 통발과 금당 통발 자율공동체에서는 저번 근룡호 사고 때 수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동체입니다. 하단 부분, 완도 김 우량품종 연구개발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소안해역하고 노화 방축해역에서 생산된 김이…… 김밥용 김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좋은 (청취불능) 채취해서 사상체로 관리하고 시험양식, 육상채묘, 장기적으로는 유품으로 품종등록까지 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관리 수면 자원량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도 신지, 고금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바지락을 어업인 소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량 조사 후 관리수급으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소안김 우량종자 개발사업비 3,500만 원을 감하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완도 김 우량품종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은 빛멸치 냉풍시설 지원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멸치 건조 시 식품안정성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식품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총 사업비 50%를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62페이지, 김종묘 공급사업비 2억 3,000만 원, 미역, 다시마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까라는 사업순기가 하반기로 예산 신속집행평가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ASC 인증사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ASC 인증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증으로 국제적인 단체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증 받

은 품목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참고로 2020년 동경올림픽 시 인증 받은 완도전복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본 업체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어장 생산력 조사 모니터링 및 조사용 시료 구입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복 피해는 피해요인 발생 시 즉시 폐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원인 규제를 위하여 사전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어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도 금일해역 전복 피해발생 시 이러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보험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복 칸 줄이기 운동 행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생산을 1만 8,000톤 정도로 하고 있으며, 전복산업은 지금 양식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고 가격하락 및 소비한계에 직면해 있는 시점으로 생산량 감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복가두리 구조상 잘라내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복 4열 중 한 칸 비우기 운동을 통하여 생산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유망양식품종인 개체굴 시범사업을 금당면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복 소비촉진운동 차원에서 활전복 급냉 순살전복 구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활전복을 구입해 가지고 중앙부처라든가 기재부, 이런 쪽 공공기관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력이 저하된 어장에서 전복 대체 품목으로 참가리비 및 비단가리비 양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여성리더단체 육성 한마음대회 지원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후계자들이 지역수산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귀어·귀촌 박람회 부스 임대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에 따른 인부임 597만 원 증액시켰고, 장비 및 선박임차료 폐기물 위탁처리비 4,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차기 해조류박람회 자문위원 수당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수산양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양식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0억 7,143만 원 대비 1억 9,305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된 22억 9,4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사무관리비, 직원역량 강화 위탁교육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청산슬로건기 나비축제 나비야 청산가자 행사 재료로 5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체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71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보상 400만 원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꽃모 육성 및 시험포장 운영, 국화향연 개발에서 행사운영비로 가을빛 작은음악회 700만 원, 가을빛 그림전시 및 체험 800만 원입니다. 재료비로 국화전시회장 조성 국화 구입에 3,300만 원, 국화조형물 제작 구입 2,000만 원, 국화생육관리용 화분 구입 1,000만 원, 그다음에 국화재배 상토 구입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국화하우스 암막 설치 1,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47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병해충 예찰 방제용 드론 구입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장비유지비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에서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민간자본이 전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토양 검정 및 분석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으로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수리 및 부품교체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검정실 벽면실험대 구입 650만 원입니다. 그다음 원예작물 안전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경쟁력강화 지원, 재료비로 청산도 생태공원 조성 과수 묘목 등 구입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관범 위원님.

□ 정관범 위원

347쪽예요, 드론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드론을 운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이번에 다음 주부터 2주간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 정관범 위원

아직은 운전할 사람이 없다는 그 말이죠? (예)

이것을 사드리면 제대로 운영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지고……

□ 정관범 위원

다른 예산은 볼 것도 말 것도 없는데.

소안을 가보니까, 정책토크를 하다 보니까요, 소안감굴이 있죠, 소안감굴. 그것이 통해 피해를 많이 입었더라는 거예요, 올해. 작년이 겨울이니까 작년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상당한 보식이 필요하더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협의해 가지고요, 그 부분, 보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농업축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소장님, 행사운영비에요. 여기 음악회하고 그림전시회가 있는데, 가을빛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국화축제를 하면서요, 거기에서 국화만 전시하다 보니까 너무 밋밋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농업인대학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로……

□ 박인철 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고 그전에 가을빛 축제를 할 때는 관광과에 이 예산이 있어 가지고, 가을빛축제 안에 있어 가지고 그림전시도 하고…… 뭐니까, 타워를 올라가는 그 중간에서 통기타 가수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쪽으로 갈 예산들인데, 이 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한테 계상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반인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면 당연히 축제위원회 쪽에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농어민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된 그런 멤버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에 사정을 하니깐 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 박인철 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 청산도 생태공원을 한하는데 생태공원이 어디입니까, 가수를…… 청산도 생태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청산도에 왔을 때 어떤…… 우리가 봄에 축제를 하면 꽃이라도 보고 뭐하는데, 가을이나 겨울…… 이런 초겨울 때까지는 관광객들이 이어지는데 그때는 너무 볼거리가 밋밋하다고 해가지고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도유지를 사업승낙을 받아 가지고, 감굴을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요, 저희들이 묘목 지원…… 뭐야, 구입해 가지고 육성을 하는……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어디 나대지나 이런 데에다가 심는다는 이 말입니까? (예)

생태공원이라고 해놔서…… 제가 알기로는 김동삼 위원님이 청산면장을 할 때 단풍길을 해놓고, 환경산림과에서도 작년부터인가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와 있으니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논밭이나 이런 데에다가 심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현재…… 휴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 나대지로 되어 있는……

□ 박인철 위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도에다가 사업 승낙을 받아가지고……

□ 박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인가 아무튼 어느 위원님이 지적사항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어떤 기술, 농법이라든가 새로운 작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일반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데 국화전시회를 해가지고 상당히 호황을 누려 가지고 좋은…… 관광객들이 호평해 가지고 좋게 칭찬을 들으셨는데, 사실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특히 완도타워에서 그때 그것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의…… 국화를 갖다 놔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조로 사실 했던 것인데요, 지금 여기 사업편성이나 지난 번 본예산에서도 국화에 대한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 뭐 음악회라든가 그림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이…… 좀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개최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동창이라든가 친목회라든가 이런 지원비를 좀 책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업무에 맞고, 이런 전시회나…… 그림전시회는 이것도 뭐 농어민대학 출신으로 해서 이것을 합니까? (예)

그래서 조금 분야가 안 맞는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가을빛, 저희들이 국화축제를…… 국화만 전시하다 보니까 공간에 어떤 허전함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마침 농어민대학 졸업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회원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이런 공간을 메꾸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저희들이 축제할 때 완도군에 군민 위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음악 노래하는 가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축제 때…… 많이 참여하게 해주는 그런 분야도 있더라고요. 제목이랄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도 중복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김동삼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작년에 보니까 우리 동네…… 드론으로 농약을 하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농협에서 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위탁을 해가지고요, 살포하고 있습니다.

□ 김동삼 위원

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마는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 총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은 101억 2,014만 1,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으로 8억 4,7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09억 6,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의료원 환자진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치과방사선 기기 구입비로 1,400만 원과 물리치료 안마기 구입비 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지원 포상금입니다.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본예산의 절반만 편성되어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지원, 시설비입니다. 화장실배수시설 설치공사 4,000만 원, 노후승강기 교체 4,000만 원, 서남도보건진료소 안전망 및 방법창 설치 1,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2,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도비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차장 일원에 증축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총 설치사업비는 8억 1,000여만 원이 소요되겠으나 잔여사업비 (청취불능)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사업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진단, 인지재활 및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7,7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362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노인 우울 자살예방 프로그램 사업비로 784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건강실천 연구용역비입니다. 건강장수촌 기본계획용역 추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회보장적 수혜 부분입니다. 완도군 출산장려 양육비로 2억 5,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출산축하용품 구입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포진 백신 구입을 위해 1,8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해 2,6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8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보건의료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원장님, 363페이지요. 연구용역비요, 건강장수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용역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강장수촌 기초조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완도군에 건강장수촌으로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해양헬스케어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요. 지금 기초조사해서 세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금당하고 그다음에 청산하고 소안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조사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용역을 하면서 세 군데 중에 한 곳을 건강장수촌으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것만 하는데도? 어디 대학교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어느 학교에서 용역을 합니까?

(“학교는 아니고요. 현재 해양헬스케어 산업 용역을 맡은 그 회사에서, 거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주무관 있음)

뭐야, 해양수산정책과에 보면 병원을 설립한다. 용역비가 이번에도 추경에 1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치유병원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건강장수촌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금방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해양헬스케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강장수촌이 지정되면 관광객들도 완도에 가니까 건강장수촌이 있다고 해서 관광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막연하네요. 막연한 것인데.

계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258억 8,63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6억 7,0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해수담수화 시설관리운영 유지관리 용역비 3,024만 원이 증액되어 7,056만 원. 재료비, 해수담수화시설 여과막 구입 700만 원이 증액되어 2,350만 원. 시설비, 금일 다량도 해수담수화시설설비 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도 예비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노화·보길 k-water 물차운송료 3,750만 원, 노화·보길 임대물차 사용료 및 경비 2억 3,750만 원. 금일 충도 임대물차 사용료 및 경비 2,000만 원. 병물 지원 2,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소안·청산 보조취수원 개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마을하수처리 중계펌프장 수리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 신지하수처리장 악취진단 수수료 2,500만 원. 재료비, 마을하수처리장 탈취 촉매제 구입 3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수처리 약품구입 685만 원을 증액하여 1,955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탈취약품 구입 450만 원을 증액하여 1,050만 원. 시험연구비, 신지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시약 및 소모품 구입 325만 원을 증액하여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노화읍 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3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사항이라 시설개선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지하수처리장 브러워 교체공사 6,000만 원. 신지, 노화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6억. 신지, 고금, 청산 하수처리시설 막세정 3,000만 원, 이 부분은 기술진단 결과 수명이 다 되어서 지금 교체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운반비 5,94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3,234만 원을 증액하여 5,049만 원을 증액하여 5,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비, 이 부분은 관급을 중복지원해서 반납을 받아 가지고 공사비로 편입한 사항입니다. 청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70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하수관로 준설 처리 여비, 이 부분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512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지금 완도 대야리 하수도 시설공사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에덴가든 일대의 하수시설공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일 장정리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 보길 예송 마을하수처리장 주변 정비공사 2,000만 원.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완도읍 하수처리장 정밀진단 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하수중계펌프장 탈취 촉매제 구입 4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조 자외선램프 6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 약품구입 1,380만 원을 증액하여 3,030만 원. 그리고 시험연구비, 수질자동측정장치 시약구입 450만 원을 증액해서 750만 원. 시설비, 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 역시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및 협작물 위탁처리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 이 부분은 슬러지 및 협작물이 1일 2톤에서 3톤 정도로 매일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월 단위로 해서 저희가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오폐수처리장 생태독성 염 인정 진단수수료를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57억 7,87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억 11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가뭄 긴급대책비로 5억 원.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순세제잉여금으로 3억 6,000만 원.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57억 4,111만 8,000원을 증액하여 97억 4,111만 8,000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입니다. 세출예산은 157억 7,87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억 1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개선입니다. 시설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공사 9,928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755만 2000원. 노화 넓도 지방상수도 토지매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000만 원. 이 부분은 넓도 김공장 감정을…… 매입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신지 삼마 소규모 급수시설 확대공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상적위탁사업비,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으로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 대가로 38억 1,3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59억 2,871만 5,000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이 부분 역시 수자원공사로 저희가 지출해야 될 금액으로 지방상수도 통합 시설개선 대가로 17억 4,741만 3,000원을 증액하여 34억 9,482만 6,000원. 노화, 보길 가뭄대책 시설 대가.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받았습니다, 5억 원.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규 위원님.

□ 박성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저수율은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70% 넘었습니다.

□ 박성규 위원

80%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70%……

□ 박성규 위원

예, 한 60% 넘는 것으로 아는데……

□ 박성규 위원

아무튼 대책을 잘 세워서 지하댐도 개발하신다고 하시니까 물 저장시설. 그것 시설하시고 넘쳐나는 물을 댐핑해서 가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화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당초 본예산에 이것 3억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3억 원을 세웠는데, 원래 3억 가지고 하기로 한 것은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설계를 내보니까. 설계를 내보니까요, 6억 원이 소요돼서 이번에 3억을…… 이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사항이라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서 그 결과를 영산강 쪽으로 결과를 보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성규 위원

시기적으로 이것이 3월말이기 때문에 거의 4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이 되면 굉장히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또 넘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여름이 가기 전에 좀 빨리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안하고 노화나…… 노화는 끝났습니다, 소안은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빠지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대가 낮아서 빠지고 그러고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것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우리 집만 빠지냐.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객지에도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잘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심지어 군수님한테도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했다가 이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빠지는 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물이 70%, 80% 있습니다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수원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갑갑하니까…… 그래서 제2의 수원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2의 수원지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제2의 수원지에 대해서는 2019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속히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특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특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계속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환경부 이렇게 합작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계속…… 노크는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고, 당장에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

되면 그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아무튼 2019년도면 소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지 안 있을지도 몰라요, 인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인수인계가 되고, 또 아까 말을 했지만 지특하고 한특을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한특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군수님과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원지 부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수원지 부지는 보니까 대부분 소유지가 많이 있고…… 일부 소유지가 있거든요. 그 소유하고 있는 분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취불능) 그 분 땅이 대부분 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길면장님이 설득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원지가 진행되면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수원지를 개발하는데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수도기본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변경 계약을, 변경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기본계획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건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재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업소 내에서도 부군수님 이하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넓도 김공장을 매입했어요. 김공장도 매입한 것입니까, 지하수만…… 관정만 매입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관정하고 부지까지 전부 다……

□ 박성규 위원

김공장까지도 했죠? (예)

그러면 전체부지하고 김공장 전부 매입해서…… 감정평가로 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감정평가가 나와서요. 감정평가 금액보다 지금 현재 추정 예산이 약간 미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정에 그 미비된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상으로는 6억 5,800…… 154만 원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억 6,000으로 했던 것은 등기 같은 그런 서류도 있고 감정평가를 해주는, 그런 비용 처리를 하면 소요예산이 6억 6,000이 되어서 이번에 6,000을 저희가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감정평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억으로 세워졌는데 6억을 가치고는 처리가 안 돼서 이번 추정으로 해가치고 6,000을 더 요구해서요. 지금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는 상수원으로, 수원지로 보내고 있습니까? (예)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넓도 물 문제는 크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저수율이 7.3%밖에 없어서 10% 정도가 되면 저희가 제한급수를 해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가 되면 현지를 한번 확인한 후에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나서…… 제한급수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곳은, 노화 넓도를 제한급수하고 있고, 충도, 그 부분만 아직도 물차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정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2의 수원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천 양 숙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인 철
박 성 규
김 동 삼
정 관 범

□ 출석 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업식과장 추관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5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3월 28일(수) 10시01분

□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 문화체육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 정보교육적관리사업소
- 의회사무과

□ 부의된 안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문화체육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 정보교육적관리사업소
- 의회사무과

(10시01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2018
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박현식 부군수님께서 보길 지하수 관련해서 잠깐 5분 정도 설명이 있다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박현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보길에 지금 지하수댐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정식으로 안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음 주경에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 위원님께서 굉장히 좀 그렇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미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길 지하수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MOU를 4월 3일 보길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 관련부처는 국토부가 되겠고요, 국토부익산청, 그다음에 전라남도, 그리고 완도군 수자원공사가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원래 지하수댐은 몇 개의 후보지가 있는데, 완도 보길도는 원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번 가뭄이 심해서, 그리고 2수원지부터 절차가 너무 길어서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했고 총리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 대안 중 하나가 지하수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변경됐고, 그와 관련해서 국토부,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처까지, 기재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밀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조사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금액이 한 1억 2,000만 원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전남도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70%를 대고 나머지 완도에 30% 대는 형식으로 전라남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줘서요,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라는 명칭이지만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2수원지에 필요한 부분 아니면 지하수댐의 규모,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식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MOU가 체결돼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러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길도하고 노화에 대해서 가뭄이 해결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길, 노화의 물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정관범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하수댐을 건설하게 되면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지금 그……

□ 정관범 위원

대략적으로.

□ 부군수 박현식

일반적으로 한 4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수자원공사…… 국토부에서는 국비 100%를 요구했고, 국가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청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비 100%는 좀 힘들다고 하고 있어서요, 그 비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러면 최소한 10% 정도는 지방비로 되겠다, 90%는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40억이라고, 일반적으로 40억 정도라고 하는데 설계를 해보면 아마 약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 일단 위원님들께 100%다. 당초에는 수자원공사…… 아니,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100% 국비사업이었는데, 그렇게 몰고 갔었는데 지금 약간 변동이 생겨서 90%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00% 최종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도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다른 위원님,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또 빗물이용저장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명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관왕묘 재건, 전시영상관 설치, 동상 건립 등을 위하여 현재 관왕묘 재건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7년에 3억 원, 2018년도에 26억 6,000만 원으로 2019년 이후 5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2019년까지 6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18억 1,820만 원으로 금년도에 32억 4,000만 원, 2019년에 69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당초 예산은 629억 866만 1,000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83억 9,167만 8,000원 증액된 23억 7,773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하반기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섯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버섯대학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과 버섯대학 운영에 따른 재료비 200만 원, 버섯대학 현장 답사 실비보상 300만 원, 기타 보상금, 버섯대학 강사수당 150만 원 등 버섯대학 운영을 위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지원 육성 행사운영비, 제473주년 충무공이순신 탄신제, 제419주년 충무공이순신 순국제 각 600만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도록 목을 변경하였으며, 2018년도 완도 연등축제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완도문화원 지역문화사업은 역사스토리가 있는 가리포…… 2,000만 원, 가리포첨사 후손들과 함께 망궐레 재현행사에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민간위탁금,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을 위한 하반기 지원금 1억 9,000만 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예술의 전당 주차장 포장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 묘 이전 보상비 300만 원, 지장물 보상비 600만 원 등 2,900만 원을 문화예술의 전당 주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한문연 공모사업 6,000만 원은 감액하여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사무관리비, 빙그레시네마 영사기 램프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하여 국비 400만 원과 도비 800만 원 등 1,200만 원. 문화재 관리, 행사운영비 한중 우호 조명연합 수군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 연구용역비,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 중 합투자심사 용역비 1,000만 원. 다음은 시설비,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에 따른 고급 충무사 유적 대상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사무관리비, 묘당도 이충무공 안내책자 제작을 위하여 4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시설비, 법화사지 발굴용역 2억 원은 감액하여 예산편성과목에…… 감액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보존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향토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1,000만 원. 시설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진행 시 장도 선박 이동 시 접안을 위한 부잔교 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시설비, 법화사지 2차 발굴을 위하여 도비 5,600만 원과 군비 1억 4,400만 원 등 2억 원. 완도 객사 한식담장 설치 공사를 위하여 도비 2,100만 원과 군비 900만 원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공사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좌리 당제 및 조선장 등 행사지원을 위하여 도비 2,080만 원, 군비 300만 원 등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장좌리 당제 및 조선장 등 (청취불능) 전승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도비 1,560만 원, 군비 1,560만 원 등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비 및 군비 각

13억 3,000만 원 등 26억 6,000만 원. 역사문화관 건립, 시설비, 완도 역사문화관 조성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 지역영상 홍보, 방송영상산업 유치 및 육성, 사무관리비, 황칠 특급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홍보영상촬영에 따른 드론 구입을 위하여 1,200만 원.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민회관 소방 시설 500만 원. 청해정 과녁 전기 보수공사 2,000만 원. 금일 동네체육시설 설치 2,000만 원. 고급 국민체육센터 지붕 보수공사 2,500만 원. 정구장 안전매트 시설공사 1,500만 원. 고급 전천후 게이트볼장 간판시설공사 500만 원. 체육인 교육훈련센터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 원 등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역도실업팀 훈련장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최경주재단 하계캠프 개최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6회 전국여성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시설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 9억 4,000만 원, 군비 23억 원 등 32억 4,000만 원. 주민불편사항 해소, 시설비, 완도읍 석장리 운동기구 설치, 완도읍 게이트볼장 커튼 설치, 노화읍 어룡리 운동기구 설치를 위하여 도비 각 2,000만 원씩 6,000만 원. 군 취업 우수선수 지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군 취업 우수선수 전지훈련비 지원 및 훈련용품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700만 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역도실업팀 선수 퇴직금 1,500만 원. 역도실업팀 여자선수 숙소 임차료 480만 원. 역도실업팀 훈련비 3,600만 원으로, 역도실업팀 포상금 500만 원은 예

산편성 지침에 적합하도록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지급을 위하여 국비와 군비 각 240만 원씩 480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청사관리에 시설비, 군립도서관 방화문 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 노화도서관 복합문화쉼터 북카페 조성사업 2,000만 원, 노화도서관 안전시설물 개선공사 1,000만 원, 노화읍도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향토자료실 안내데스크 및 열람대 제작 1,000만 원, 학생열람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000만 원, 도서구입비, 완도 금일, 노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 공공운영비, 공설운동장 엘리베이터 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체육공원 봄, 여름, 꽃묘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 시설비, 해신구장 부속건물 및 화장실 개보수 2,000만 원, 축구협회 운동기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1,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사무관리비, 스포츠 전지훈련팀 버스 임차료 450만 원, 동계전지훈련 유치 627만 1,000원, 전지훈련 홍보를 위하여 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지정 및 관리, 사무관리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6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사업 집행잔액반납금은 총 사업비 2,440만 8,000원 중 2,34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93만 1,000원과 이자 1만 2,000원, 2016년도 일반생활체육지도사업 이자반납 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국가지정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은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2,65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38만 3,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반환금 도지정 우수정비사업비 도비 3,262만 원 중 3,139만 4,000원을 집행하

고 잔액 192만 6,000원과 2016년도 무형문화재 동계행사 반납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정……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관범 위원님.

□ 정관범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36쪽을 보면 2018 완도 연등축제 개최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에 부가되는 축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장보고수산물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등축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정관범 위원

장보고수산물 축제를 할 때 부가되는 축제라는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를 보면 이순신, 지린장군 선양사업 연구용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로드맵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로드맵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마는 고금 덕동까지 충무사를 포함하는, 그래서 여기를 대단히…… 복원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정관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을 보면 법화사지 발굴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매칭해서 8,000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1억 2,000이 요구되었는데, 2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그렇습니다. 2억을 가지고, 작년에 1차……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을 가지고 2차 발굴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발굴할 그런 계획입니다.

□ 정관범 위원

지금 성과가 어때요, 발굴성과가?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작년에 발굴을 하면서 현장에서 설명회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장도 유적지에서 발굴했던 유물들하고 유사한 거기에 나와 있던 유물들 상당 부분이 발굴되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그쪽에…… 2차, 3차 발굴도 하면 추가적인 유물들도 발굴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관범 위원

지금 시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통일신라시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통일신라시대 유물들이…… 1차 발굴을 하면서 아래 쪽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점이 발굴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어서 발굴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합니다.

□ 정관범 위원

그러니까 장보고 시절의 그 유물들이다, 그 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41쪽을 보면요,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전국여성체육대회 개최 1억 1,000만 원 해놨는데, 구체적인 성격이 무

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당초에 국비사업 부분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불가해 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특별세로…… 저희들 최소한 5억에서 6억 정도를 다른 예산 목으로 주고 완도군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해 주라고 해가지고 특별세를 부르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세웠습니다.

□ 정관범 위원

그래서 특별세를 얼마 정도로……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특별세를 5억에서 6억…… 저희들은 15억 사업비로 올렸는데요. 최소한 5억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관범 위원

여성체육대회라고 하면 대강 어떤 성격의,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이게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여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종목들인데, 전국에서 한 2,000여명 정도가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대한체육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행사일정 초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의 일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전국등산대회 개최 5,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도비 500만 원 매칭이 되었구먼요. 그런데 이 전국등산대회를 완도에서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하반기를…… 산악회에서는 하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악회에서는 하반기쯤으로 해가지고 1박 2일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정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정관범 위원

예, 그다음에 242쪽을 보면 여자 실업팀, 역도실업팀 여자숙소 관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역도실업팀 중에서 이번에 여자선수 1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선수에 대한 숙소를 임차해 주기 위해서.

□ 정관범 위원

우리 완도군 소속으로 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완도군 소속으로 됐습니다.

□ 정관범 위원

전혀 몰랐네요.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240쪽이요, 완도역사문화원 건립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아, 건립은 아니고 리모델링입니다.

홍보센터…… 관광홍보센터, 그 장보고공원에 들어가면 바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쪽이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1층은 역사문화관, 2층은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촬영장비 드론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홍보계에 있는, 그 문화체육과에 하나 따로 해가지고 홍보계에 한 대가 있고……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홍보계에 한 대 있었고 저희 한 대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 관광지라든지 홍보할 때 촬영을…… 드론영상을 촬영해 보니까 훨씬 사진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일반 사진하고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리고 241쪽, 시설비에서요. 청해정 과녁, 관벽 이것이 뭐가 됩니까. 전기 보수 공사라고 2,000, 2,000이 올라왔는데.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아, 과녁……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전기배선이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전기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 밑에 또 관벽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중복……

□ 박인철 위원

그렇죠, 이것이 오타인가 아니면…… 말이 과,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이것 그러면 하나는 삭감이구먼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김동삼 위원님.

□ 김동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0페이지, 완도 역사문화관 건립 건축공사. 방금 박인철 위원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현재 있는 관광정보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했죠? (예)

여기는 순수 다 군비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오랜 행정경험과, 또 거기는 저희 마을이어 가지고 제가 날마다 다니고, 또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있어 가지고 내가 말한 것이 뭐였냐고 그러면요. 자, 관광정보센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언 발에 오줌을 누듯이…… 그때는 문화체육과는 아니고 문화관광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을 때…… 도비 이렇게, 국도비가 이렇게 포함되어 가지고 이 관광정보센터를 어디다가 할 것인가 하다가 (청취불능) 올해 아니면 이것을 반납한다고 해가지고 원동이나 그쪽이라도 한다고 하다가…… 저기 달도 그쪽에 한다고 하다가 거기에서 우리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영성한 데에다가…… 거기에 들어갈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부를 보면 아주 좁아 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역사관을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제안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보고공원 그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또 이쪽에 오면 해조류박람회 때 쓴 주차장, 거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역사문화관을 좀 돈이 들더라도 별도로 하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이 아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물단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촌민속전시관에 전시된 이런 것을 축소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제안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또 그냥 순수한 군비, 이번에 안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는 이런 군비만…… 국도비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구태여 그 좁은 데에다가 리모델링

을 해가지고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거기 장보고유적지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장보고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어렵다. 그다음에 주차장, 당초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하도록 변경해 줬는데, 그 주차장 부지가 그러면 부족한…… 거기에서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충분한 것 아니냐.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신축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봤습니다. 안쪽 사무실에 칸막이가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철거하고 그러면 충분한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2층도, 일부는 2층에 올려져 있고, 일부는 1층 그 상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가 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충해 가지고 넓혀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동삼 위원

그러면 장보고공원에 이렇게 보면 저 안쪽에 데크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끔 해놔야요. 그 위에 가면 또 이렇게 저쪽 기념관하고 이렇게 다리가 났고, 그런 부분에서 하면 안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장보고기념공원 그쪽에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장보고센터 부지는 오래 됐고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거하는 부분도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쪽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장보고선양사업을 위해서 그쪽

을 정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동삼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건물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해놓으면 철거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이고. 지금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공무원들이 부지선정 같은 것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이렇게 그쪽 청해진유적지, 이런 부분에 개발할 것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바닷가에 데크로 해서 장도, 이런 부분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되고요. 이 정보센터는 언젠가는 뜯어내야 된다. 왜, 앞으로는 어떤 이런…… 앞으로 먼 훗날에는 장보고 이런 축제도 청해진유적지, 거기에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는 잔디밭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해야 코너를 돌아가는 것도 뭐하고. 또 앞으로 거기다가 주차해 버리니까 주말에는 차가 저쪽에서 오면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건물이 없어진다면 장도로 가는 이쪽 이렇게 해조류체험센터, 거기에서 거기로 가는 그 길도 넓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넓힐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먼 안목을 내다보고 하고. 아까 말한 어촌민속전시관, 이런 부분하고 해서 해야지.

위원이 뭐하는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원도 보고 느끼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행정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위원이 뭐가 필요가 있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으나 이런 사항이 뭐 해서 한다면, 그런 설명도 있어야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죽청리 쪽으로, 호안도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군청에 관련된 실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쪽으로 아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동삼 위원

그리고 앞으로 나는 막 이렇게 관광객들을 끄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매기축제 같은 것도 저런 섬 그런 데보다는 장좌리에 서, 장도에서 죽청리 쪽으로 그 개매기가 옛날부터 아주 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접근성도 좋고 거기서 해가지고 장좌리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물…… 몸도 씻고 뭐하면서 이런 축제도 거기서 해보고 그러면 엄청난 그런 관광객, 피서객들이 올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는데 그런 데에다가 무슨 돈을 들여가지고 그 조글조글한 것을 또 꾸며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하고요.

또 그다음에 241페이지를 보면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가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회성 대회를 한다는 것, 나는 동의하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등산대회가 전국에 있는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 등산…… 이 산악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들만 온다는 이 말이에요. 엘리트들만 와가지고 어디 산을 몇 M씩 올라가고 또 생활체육대회를 뭐 3명, 5명이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수를 매기듯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극히 소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아, 그건 아닙니다.

□ 김동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거기 대회를 하는 사람들도 알고 그러는데. 한 500명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온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회를 이렇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면 그런 사람들도 오겠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 이 등산인들이 버스를 타고 완도에 와가지고 산에도 그날 올라가고, 또 여기에 와서

자고 먹고 하는, 그렇게 좀 확대해서 하라는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저희들이 산학화하고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 김동삼 위원

내가 여기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대회를 하나고 물어봤는데, 제 말이 맞아요, 엘리트 뭐라고 하는데, 좀 더 이렇게 넓혀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대회를 하고, 등산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오게끔 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 시설비에 서요. 체육인교육훈련센터 토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9억이 있는데, 이것 뭐 봐놓은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봐놓은 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체육인교육훈련센터를 500억 정도 분량을 해서 전부 매입…… 전담권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6월에 공모 계획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직 몇 군데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하는 것이 뭐였냐면 등급을 붙여놓은 것이 1차적으로 급한 것이 주차장 그쪽 체육공원 주변에 사유지라든지, 그런 쪽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일단 했고.

일단 체육회에서 공고가 떠가지고 체육인교육훈련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그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한 곳은 여러 군데에 요구했습니다. 토지매입…… 공사와 관련해서 설명 드린 부분도 있고, 이쪽 고물상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절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로 묶다 보니까 이것이 묶여져 있습니다마는……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정관법 위원이 얘기했던…… 그 뭘니까. 진아리채, 거기하고 저번에 의회에 한 번 보고 했던 소가용리……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런 쪽에 땅이……

□ 박인철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렇죠, 매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이 체육인센터만이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그것은 아닙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한 가지 저도, 작은 금액이지만, 버섯대학이라고 올해 처음 이것이 올라왔죠. 그 내용이 뭘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최근에 버섯에 대한 부분이 기능성식품으로 굉장히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도에서도 버섯을 재배해 보고자는 그런 희망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버섯대학은 군에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버섯을 재배하는, 그 사상체부터 키워내는 그런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제안해 가지고, 채택되어 가지고 버섯대학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버섯을 재배하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제가 어제 생활기술센터에 좀 지적사항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버섯대학, 이런 것은 센터에서 그런 데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평생교육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저희들이 사실은 운동기구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각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이쪽 소안, 노화, 보길 그쪽예요. 전복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상당히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와 보니까 그것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점에 대해 많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도, 놀이터도…… 제가 의원재량사업비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땅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상당히 그 돈을 가지고는 열토당토아니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73억 2,088만 9,000원이며 추경예산은 41억 6,666만 6,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은 국도비사업 반납시기가 늦어진 것과 신속집행에 따른 일부 출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계속…… 원래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 실천방향 설정 연구용역 4,000만 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경관작물 진드기 및 응애방제 약품 구입비 900만 원, 경관작물 보식용 영양제 공급 920만 원, 가뭄대비 스프링클러, 호스 등 농기자재 구입비 700만 원, 보식용 경관작물 종묘 구입비 900만 원입니다.

271페이지와 272페이지는 국도비 계속…… 연례적인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제일 밑에 청년농어민 영농 정착지원사업비 2,1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도 연례적인 국도비 계속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3,750만 원했습니다.

27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3,112만 2,000원 했습니다.

27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 부분도 국도비 연례적인 계속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도 국도비 계속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형 관정 설치지원에서 4,200만 원했습니다.

282페이지, 농가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에서 8,000만 원했습니다.

283페이지, 완도자연그대로 유통분야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인데 본예산에 해서 1억 8,000원이고 추경에…… 추가로 해서 2억 4,000만 원 해가지고 총 4억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84페이지도 국도비 계속사업이라 생략하고. 2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료비 절감 집초기 공급사업에 1,000만 원. 그다음에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에 1,400만 원입니다.

286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도 계속적인 국도비 계속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에서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비에서 1,050만 원. 한우고급육생산장려금 지원에서 1,000만 원. 축산시설현대화장비 설치지원사업에서 4,500만 원했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는 국도비 계속적인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95페이지, 2017년도 재해대책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3,802만 5,000원이고 2016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1,00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농업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인호 위원님.

□ 조인호 위원

과장님, 276페이지에 비료 부분이 있죠. 이것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 배부될 때 작년 수준과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작년 수준에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거의 신청 추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90% 정도

는……

□ 조인호 위원

추가분이 한 90% 정도 추가된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전체적인 사업 신청량에서 한 90% 정도 이 돈을 가지고……

□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269페이지요,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실천 방향설정 연구용역. 이것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연구용역이 이전에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도…… 6항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것은 아니라 전 시군이 매년 5년 주기로 한 번씩 해가지고 농식품부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 박인철 위원

보고…… 용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우리 전체적으로 해가지고요.

□ 박인철 위원

국비를 받아오고자 하는 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년계획,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 박인철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완도자연그대로로 해가지고 신우철 군수 들어서서 하는 것인데 이 명칭이……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어촌발전계획이라고 있거든요, 농어촌발전계획인데 우리가 그 부분 명칭을 바꿔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실천 방향설정 연구용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구호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어민들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완도자연그대로로 해가지고 그쪽 홍보를 합니까? 보니까 홍보도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수산군, 수산군이라고 그러는데 의외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노화 같은 데에 가서 보면 마을, 여러 마을들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복을 많이 캔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완도자연그대로, 자연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나 이런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갖다놓기만 하고 안 쓰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소형 저온저장고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올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신청량에 비해서 거의……

□ 박인철 위원

전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죠? (예)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데 담당들이…… 위원들 중에 이장님도 있고 그러더구먼요. 직원들 교육도 하십시오. 물론 다 읍면장 밑의 직원들인데.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이 가서 이유를 물어보면 확실하게 선정…… 그 표를 놔놓고 해야 되는데. 어제도 들었는데 군수, 군의원 백 아니면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내가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쫓아가서 또 항의도 했던데요. 그리고 선정된 사람들이 각 읍면에서 발표도 안 했는데 나는 선정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읍면에서 읍면 자체……

□ 박인철 위원

아니, 군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점수표를 놔놓고 배정을 하면서 왜 군수를 들먹이고, 군의원을 들먹이느냐는 이 말이에요. 백이 없으면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농업과에서는 예산계에다가 이 예산을 따려고 애를 피워 가지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각 마지막…… 읍면에서 점수배정을 잘해 가지고 줘야지. 직원들이 그런다고 한다니까, 읍면 직원들이.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그러니까 알아보고 다시……

□ 박인철 위원

그것 좀 알아보세요. 이번에 읍면에 배정할 때는 그런 교육까지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의원들, 군수 이것 뭐 안 했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은 267억 6,18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7,0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가운데 쪽, 207 연구용역비입니다. 국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401 시설비, 명사갯길 정비사업 2,000만 원. 아래쪽 206 재료비, 미세조류 공급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

다.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600만 원. 아래쪽, 207 연구개발비, 가축분뇨관리 기본 계획 수립용역 1,000만 원.

301쪽입니다. 가운데 쪽 207 연구용역비, 사후관리 매립시설 주변환경영향평가 용역 1,9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폐기물처리장 소각로 정비 1,000만 원. 신지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비공사 1,000만 원. 보길 폐기물처리시설 지하수 개발공사 2,000만 원. 402 민간자본자본이전입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유지관리 사용료 20억 4,000만 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유지관리 사용료(고금, 약산)입니다.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분뇨처리장 활성탄 교체, 유니온 필터, 여과포 구입, 약품구입, 액상부식조 산기장치 구입 등 총 2,984만 원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펌프(모노, 트랜스) 교체공사 2,200만 원. 분뇨처리장 처리동 노후배관 교체공사 1,500만 원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입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읍면 쓰레기 집하장 악취제거 미생물제 구입 1,000만 원. 207 연구용역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용역 1,9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완도 대신리 공한지 정비공사 1,000만 원. 금당 봉동마을 공한지 정비공사 1,900만 원. 금일 충도 비위생매립장 조성공사 1,9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공사 1,000만 원. 고금 상정마을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1,900만 원. 생일 덕우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1,000만 원.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공한지 방치쓰레기 위탁처리 3,000만 원. 읍면 과다발생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1,5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2,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입니다. 청산 열린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 원. 신지 석화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 아래쪽입니다. 201 일반운

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완도와 황칠 책자 및 발간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위쪽에 화계리 산림경영 기반도로 조성공사 4,000만 원.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휴경지 황칠 조림 주민소득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래쪽, 206 재료비로 완도호랑가시나무 구입 85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1,500만 원. 군외 불목리 쉼터 조성사업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금일 칩냉쿨 제거사업 2,000만 원. 생일 칩냉쿨 제거사업 1,000만 원. 금당 칩냉쿨 제거사업 1,000만 원. 정도리 가로경관 정비사업, 부기정정 사항입니다.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완도 호랑가시 위탁 양묘 구입비 4,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위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지역 산불진화차량 구입 6,0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 산림훼손지 측량비 1,056만 6,000원. 읍면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 1억. 동망산 진입로 정비사업 5,0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거수 및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뒤쪽, 802 반환금 기타. 넓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1,400만 원. 소안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1,120만 원.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관법 위원님.

□ 정관법 위원

302쪽을 보면요. 완도읍 물양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3,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도 쪽에서 언제부터 가동한다고 하던가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도 관련은……

(“올해는…… 인부임이, 상수도가 없다고 해가지고요. 군수님하고 저희가 관내 실과와 대책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월에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올해에도 물양장 해조류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월부터 인부임을 사용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정관법 위원

불량한 사람들이 돈은 자기들이 벌고 우리 보고 인부임을……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1월부터……

□ 정관법 위원

지금 4월부터 도에서 운영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정확하게 알아서 이 부분을 아껴놔다가 도에서 미처 손을 못 쓸 때 그때 사용하면 좋겠어요.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4월부터 도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동망산…… 308쪽이요, 동망산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런 사업비가 입찰차액이 있는데, 다른 시설도 보수해야 되고 거기에 정자를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정관법 위원

이것이 항만터미널 저쪽 앞에서 올라가는 그 사업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더 없으세요?

과장님, 아까 물양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
이미 인부가 정해진 것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없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이미 정해져 있으면 이것을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예산이 확보되면……
(「편성을 해놨다가……」 하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편성을 해 놨다가 이제……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에서 4월부터 한다고 하면…… 보관만 해놨다가 다음에 혹시나 쓰실 때 쓰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에 45억 9,900만 6,000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은 384억

8,480만 1,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308만 원 반영했습니다. 동절기 도시계획도로 제설자재(염화칼슘)구입비 1,008만 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완도중앙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당초에 2억 9,780만 4,000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보상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2억 4,82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금일읍 화전리 도시계획도로 선형개선공사도 당초 본예산에 2억 4,82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9,22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완도읍 서성마을 우수시설정비공사 1억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과의 정책토론회에서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도읍 남향리 주차장 옹벽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완도읍 동망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이것은 난간하고 정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 내 수목관리 사업비 7,3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다도해 일출공원, 해변공원, 빙그레공원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대로 해서, 전문화 용역으로 해서 한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감액해서 전문화용역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출공원 관련된 재료비를 감액해서 전문화 용역비로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다도해일출공원 내 향토포장 정비공사 2,000만 원. 이것은 중앙광장 모노레일 바로 입구 쪽 보강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도해일출공원 퍼즐러 철거 및 재설치 공사 2,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중앙광장 내 퍼즐러가 오래돼서, 보수가 필요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도해일출공원 중앙광장 테크난간 보수공사 3,000만 원인데, 중앙광장 내에 데

크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노후화돼서 (청취불능) 보수가 필요해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일출공원 중앙광장 화장실 정비공사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수목 표찰 제작구입비 525만 원 반영했습니다. 해변공원계절복 구입비 4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 중간에 시설비로 행정홍보용송전탑 사인물 교체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홍보용 선전탑 이설비인데요, 군외 달도 건강의섬 완도라는 아치 옆에 행정송전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개가 중복돼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기 위해서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문화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단위사업변경) 2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도서지역균형발전에 예산 과목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 쪽으로 예산을…… 단위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주민건의 민원해결에서 시설비입니다. 어항내 추락위험 안전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이것은 플예산이 되겠습니다.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 호안도로에 여러 가지 안전위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시설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고금녹색한우마을 리모델링사업비 3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고금 녹색한우마을은 201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1층 면적에 78평, 2층까지 하면 연면적 약 190평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그쪽을 찾고 있는데 2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일이 떨어져서 안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완도도암 마을회관 주변정비, 완도 사정 소공원 조성, 완도 노두 정자 시설, 금일 동백 마을

안길 옹벽 보강, 금일 신평물양장 진입로 확포장, 금일 척치 마을안길 확포장, 노화 삼마 선양장 시설, 노화 잘포 도로확포장, 노화 도청 마을안길 사업에 각각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노화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실 개보수 2,000만 원, 군외 사후호안도로 정비 4,000만 원, 신지 양천 선착장 파도막이 설치 3,000만 원, 신지 신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 원, 고금 농상 선착장 승상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고금 가교 마을안길 확포장, 고금 봉암, 청용 마을정자 보수, 약산 가래 옹벽 설치, 약산 어두 선양장 시설, 약산 당목 선양장 시설, 청산 권덕 호안도로 정비, 청산 청계 마을안길 정비, 소안 부상 물양장 계단시설정비, 소안 미라 배수로 정비, 금당 가학 배수로 정비, 금당 봉동 마을주차장 정비, 보길 정동 호안도로 정비 등에 시설비를 반영했습니다. 보길 정동 호안도로 3,000만 원이고요. 보길 예약 소규모부잔교, 생일 서성 데크전망대 포토존 시설, 생일 용출 물양장 정비에 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미라리 배수로라는 부기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오타가 나가지고 비자리 마을안길인데 부기가 이중 기재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주민소득기반정비 시설비입니다. 완도 망석 선양장 시설, 금일 다량 선착장 준설, 군외 신흥 물양장 정비, 군외 대창2구 물양장 정비에 각각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신지 동고 어선수리시설 1,000만 원, 청산모도휴게소 보수공사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소안 소진 선착포장, 소안 동진 선창 보강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기초생활시설정비, 시설비로 청산 구장 마을배수로 정비는 부기정정을 했고요. 청산 양중 진입로 정비도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안 월항 선착장…… 시설도 부기를 정정해서 소안 월항 선착장 진입로 정비로 바꿨습니다. 완도 대가용리 아스콘 포장, 완도 정도 마을배수로 정비,

완도 대신 마을배수로 정비, 완도 화개마을 배수로 정비, 완도 서성 마을주차장 포장, 완도 석장 어민쉼터 보수, 완도 화흥 주민쉼터 설치, 완도 대구미 마을배수로 정비, 완도 죽청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금일 사동 주민쉼터 설치, 금일 감목 호안도로 포장, 금일 소랑 마을안길 포장, 노화 당산 도로 확포장, 노화 이목 장사도 포장, 노화 미라 마을쉼터 설치, 노화 당산 마을배수로 정비, 노화 포전 마을배수로 정비, 군외 달도 염수 마을 주민쉼터 설치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군외 중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1,500만 원 반영했고요. 신지 임촌 마을안길 포장, 고금 내동 호안도로 포장, 고금 가교 마을쉼터 설치, 약산 여동 마을 배수로 정비, 약산 넓고 주민쉼터 설치, 약산 관산 마을배수로 정비, 소안 횡간 마을 배수로 정비, 소안 이목 노인정 도로배수로 보수, 보길 부용 마을배수로 정비에 각각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지역개발에 시설비로 완도 남성 정자각 설치, 완도 동망 마을안길 확포장, 완도 신기2 쓰레기장 보수, 완도 화흥 마을하천 개보수, 노화 이포2 마을쉼터 조성, 소안 구도 마을안길 개설, 소안 당사 마을안길 확포장, 소안 미라 마을하수구 정비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안 비동 마을안길 확포장, 소안 향일문화공원 조성식재, 보길 예송 마을쉼터 조성, 보길 통리 마을안길 확포장, 청산 신평 마을안길 정비, 신지 대평 마을주차장 정비, 고금 향동 주민쉼터 조성, 약산 득암 마을안길 확포장, 약산 죽선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약산 관서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금일 하화전 마을안길 정비, 금일 동송 마을안길 정비, 군외 달도 LED가로등 설치에 각각 2,000만 원을 도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노화 소당 마을안길 정비에 2,000만 원, 소안 맹선 마을창고 개보수, 소안 여성회관 개보수에 각각 2,000만 원 도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보길 정자 경로당 기능보강, 보길 중리 마을회관 창고보수, 보길 여항 청년회관 개보수, 약산 가사 공동작업장 시설, 청산 도청1 마을회관 정비, 청산 구장 마을공동창고 리모델링에 각각 도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소규모지역개발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완도 용암 마을안길 확포장, 완도 신기 주차장 시설, 완도 도암 마을안길 확포장, 완도 소가용 마을배수로 정비, 노화 노록 해변측 대 보수, 소안 횡간 안길포장에 각각 도비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작은섬 큰기쁨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적게 사는 10가구 미만의 도서에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도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시설비로 군외 불목 호안도로 정비, 노화 북고 물양장 확포장에 각각 2,000만 원의 도비를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노화 당산 소규모선박접안시설 설치, 소안 비동 물양장 확포장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시설비로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4,582만 원을 증액했으며 완도 죽청 방파제 연장공사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길 첨별 물양장 시설공사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첨별 물양장은 여기에서 축제 같은 것을 하는데 공간이 좁다고 해서 일부 월송리 쪽을 늘리기 위해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금일 일정항, 화전항 응급환자 수송선 접안시설공사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완도 죽청~장좌 호안도로 개설로 1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정책토크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완도 신기항 해수소통구 설치사업,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해

서 1억 원을 반영했구요. 고금 봉명항 해수 소통구 설치사업도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합해 가지고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시설비로 노화 방축항 준설공사에 2억 원을 반영했구요. 금당 물포항 준설공사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로 권역단위 거점개발(보길)로 해서 당초에 1억 5,000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316페이지요. 고금녹색한우마을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뭘니까. 농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것은 3차 도서개발종합사업으로 유허가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도서개발사업비로 지원을 해준 것인데, 이것이 아마 그때 고금 대교도 개통되고 앞으로 신지, 고금 다리가 연결되면…… 그리고 고금도에서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도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건물 소유도 완도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고금에서 바로 옆에……

□ 박인철 위원

고금 한우협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한우협회로 임대해 줘서 그쪽에서 지금……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식당을 하다가 말다가 하는데, 장보고 대교가 개통됨과 동시에 완도군민들도 그쪽으로 음식을 먹으러가고 또 육지부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식당에 대해서.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그전에는 특색 있는 한우를…… 고금한우를 거기에서 잡아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다른 오리도 팔고 돼지도 팔았는데, 최근에는 소고기 위주로만 팔고 있습니다, 다른 고기는 안 팔고.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요. 말씀하시다시피 완도나 신지 같은 데에서 많이 드시러 오시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이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기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1층을 식당홀로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한 그런 사업……

□ 박인철 위원

그러면 2층은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2층도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거기가 주차장도 좋고 그래서 꼭 완도군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도 많이 키워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장흥처럼. 이렇게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투자하면 깔끔하

게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꼭 한 우, 거기예다가만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좌석을 보며)

지금 예산실장하고 예산계장 다 나가버렸어?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뭐 좀 물어보려고, 정 과장한테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 정인호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실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320페이지, 321페이지. 이것 옛날부터 박성규 위원이 한 말인데 주민숙원사업을 왜 우리 군의원들은 이렇게 안 되고, 이것 전부 도에서 가져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답변할 때는 도에서 질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안 받는다, 이 목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리다 보니까 왜 도의원들은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군의원들은 안 되냐. 보니까 전부 목이 다 그래요.

(“잘라버려요, 그러면” 하는 위원 있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왜 누차…… 왜냐하면 박성규 위원님도 안 계시지만 지역에서 그런 말이…… 전체 다 그랬을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안 세운다고 그러더구면, 또 이렇게 세워놔는데, 그러면 도의원들은 별나고 군의원들은 또 별나고 그래서 안 됩니까?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도 회의에 가셔도 건의를 하고, 도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별도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이 민자부사업인지, 예산실에서는 시설비사업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시군예다가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딱 한번 도에서 그 사업비…… 도의원님들께 건의한 사업을 보

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해서 보냈어요, 이것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온 사업들은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되고 바로 실과로 와버려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없는 사업이어서……)

그러면 실과에서…… 예산계에서 이것 불용시켜 버리든가, 이월시켜 가지고 잘라야지. 왜냐하면……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도비가 왔는데 보낼 수도 없고……)

아니, 뭐 도비면 되고 국비면 되고…… 자르려면 잘라야지. 왜 예산계에서는 약속을……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물어볼게요. 어저께도 자치행정과장이 뭘니까, 교육청에 2억을 지원해 준 것. 지금 우리가 순군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22개 시군 중에서 내가 어제 자료를 봐보니까 네 군데가 안 하고 나머지 하고, 우리가 안 했던데, 거기가 장학재단이 있는 데는 하고 나머지 열 몇 군데는 전부 순군비를 거기예다가 집어넣었던데.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그 지역은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 아니고 그쪽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인구세가 훨씬 작은 곡성, 구례 이런 데도 전부 순군비를 넣었던데. 그런 데는 그러면 지방재정이 우리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런 데는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안 걸리는 것인가요? 아니, 예산계하고 말한 것과 많이 틀려져 버리니까……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그 자치행정과 자료를 같이 보고……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우리같이 이렇게 제한이 안 된 데는 군비로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안 되는 데에는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에 돌려서……)

아니, 거기는 댔는데. 내가 그것까지, 총

액인건비까지는 안 봤는데 장학재단이 있는데에서…… 여섯 군데에서인가 했고. 장학재단이 없는 데는 전부 순군비를 넣었더라는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뭘 좀 해주라고 하면 패널티를 받는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 몇 배를 우리가…… 예산을 못 가져온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인건비 그것까지는 안 따져 봤는데, 어저께 잠깐 남아 가지고 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되냐고. 이것도 지금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올려버리면…… 이러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가서, 많지도 않은 숙원사업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도 왜 도의원들은 되는데 군의원은 안 되냐고…… 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예산계에서 책으로 묶을 때는 해줘야 되는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산실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확실하게 답변 좀……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참고로 도비 지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요. 최근에 시장군수,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은 교부해줄 때 시군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범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총량제에 안 걸려요. 이것이. 걸리죠?)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아니요, 그것은 안 걸립니다.)

(□ 정관범 위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군비하고 도비하고 틀리냐는 그 말이야.)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총량제는……)

(□ 정관범 위원 의석에서 - 도비고 국비고 간에 우리 군에 들어오면 우리 돈이야.)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도비보조사업은 순군비사업만……)

(□ 정관범 위원 의석에서 - 개념을 정확히 해야지.)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순군비 보조사업은 총 한도를 정해 두고 있는데 국도비사업으로 온 것은…… 국비나 도비로 우리 민자부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한도액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진짜 많은데 도에 자꾸 건의를 해도……)

(□ 정관범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것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말로?)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그러면 반납을……)

(웃음소리)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온 것을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범 위원 의석에서 - 그런 사태까지 갈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정답이구먼」 하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아니, 예산계장님.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촌계한테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계에서 그런 사업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잘라버렸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다 됐는데. 꼭 시설사업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 개개인 어촌계들이 1년…… 개인 돈으로 살 것을 사지 않고 다 어촌계에서, 마을 어촌계에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당신들이 알아서 로프 몇 M를 사든 간에 쓰시오.” 라는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전혀…… 예산계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도.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그 사업을…… 로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못한다고 해가지고……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그것은 아니고 어느 마을 어촌계, 그러니까 어느 뭐…… 당목 어촌계라든지 무슨 어촌계에 얼마,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있는데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해서 전체마을에 공평한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현지를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만 지정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공모사업 원칙에 안 맞아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무슨 마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관련 부서…… 아까 정관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총액 그것으로 해가지고 아웃시켜 버리고, 예산계에서 다 아웃시켜 버리고……

왜 그러냐면 아까 정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군수님만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김동삼 위원도 문화체육과 할 때 그랬는데 위원들이 군수보다 더 만난다니까요, 주민들을, 위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뭐 군수만 주민과의 대화로 해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우리도 유권자들이 뽑아준 것인데, 국회 같은 데를 좀 봐보세요, 국회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시간이 나면 국회방송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도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진짜 잘 대줘야 된다니깐요, 잣대를.

(□ 예산담당 김현란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정관범 위원님.

□ 정관범 위원

323쪽, 완도 죽청~장좌 호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정책토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해양생태체험관 주차장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그러면 대체 부지를 조성할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

서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 부분이. 죽청리 해양생태체험관 앞을 거쳐서 그 부분을 호안도로로 개설함으로 해서 그 안은 자동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조성된다는 얘기였고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체 반응이 없다가 지금 군수 완도를 정책토크 당시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겨우 실행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위원들의 말이라든지 또 서로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완도군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지금…… 수많은 사업들이 허공을 맴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대로 해양생태체험관에서 죽청리 저쪽 직선까지 일직선으로 빼야 됩니다, 설계할 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그 설계를 할 때 어느 면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공유수면매립 부분이 걸려 있고……

□ 정관범 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해서요, 그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저희들이 그 면적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주차장 면적이 없어요. 해양생태체험관인가, 전시관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면서 잠식해 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책토크에서 나온 사항,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장좌리에서 대야리 2지구까지 호안도로 개설을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된 것입니다. 이 구간만이 아니고 그때 참석을 했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참석했습니다.

□ **정관범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할 것입니까, 연차사업으로?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산…… 연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아니, 시작을 했으니까 끝장을 봐야죠.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일단 시작은 여기니까요. 저희들이 차근차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의회에서 거론된 부분, 또 의회와 실과소, 또 어떻게 말하면 준수하고 약속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명심해서 실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던져 버리고 누구 집의 개가 짖느냐, 자기가 스스로 사인해서 한 그런 문서까지도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열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김동삼 위원님.

□ **김동삼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13페이지, 완도를 중앙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일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공사가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완도중앙초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이쪽 대동기계 입구까지 거기 확포장을 하는 것인데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기 종합운동장 밑으로 내려오면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성결교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진 부분……

□ **김동삼 위원**

그때 나하고 같이 가서 내가 이렇게 그 부분을 하자고 한……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그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돼서 추가로 더 반영한 것입니다.

□ **김동삼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출소 있는 데에서 중앙초등학교 도로로 가는 쪽이 꺾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반듯하게 펴버리면 진짜 학생도…… 차량도 거기를 나오고 들어가고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또 여백에다가는 주차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금방 내가 말한 그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저쪽 중앙…… 아니, 문화예술의 전당까지 거기 도로가 좁잖아요. 2차선인데 한 차선만…… 거기 주택가에서 주차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차선으로 다니니까…… 등교시간에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태우기도 하고 그렇고, 거기가 또 완도고등학교, 완도중앙초등학교 이러니까…… 그래서 차가 교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차가 이쪽에서 어떻게든 여백이 있으면 거기다가 하고 다른 차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인도를 조금…… 안쪽으로 산 밑으로 가고 이런 계획은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금 이 사업비에서는 방금 말씀 드린 성결교회에서 집이 세 채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는데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2단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동삼 위원

아니, 저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요, 한 가지는 아까 정관범 위원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죽청~장좌 호안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환영합니다. 아까 정 위원은 7대 때 이야기했지만 나는 6대부터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늘 과장님도 바뀌지고 그래서 인제도 안 하고 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이 앞에서 나왔지만 해조류체험관, 그 정문이 바다 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하고 정문하고는 불과…… 아주 거리가 짧아요. 차가 대부분 한 대 이렇게 뭐하면…… 그러면 해조류체험관의 비품이나 뭐를 들더라도 거기에다가 차를 세우고 돌려서 나올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공유수면 매립, 이런 관계하고는 어떻게 법 적용을 받나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금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안도로라든지 물양장을 할 때 소규모 매립을 하려면 1,00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만 소규모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를 쪼개서 차근차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매립……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매립허가가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과정을 우리가 완성한다는…… 소규모 매립을 연차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 김동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일거양득으로 건의해서 이렇게 차량도 농공단지 쪽부터…… 소통하고요, 그런 차제에 해조류체험관, 이 부분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서울윤 위원님.

□ 서울윤 위원

시간이 장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 녹색한우마을 리모델링사업 3억을 놓고 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잘하면 정말로 관광상품이 되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가지고 정말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그리고 시설, 또 친절, 여러 가지에 신경을 쓰세요. 예를 들어서 개발과장이라는 자리를 떠나서 우리 완도군 공직자다. 그런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군외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군외에 있을 때도 우리 군비로 지어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몇 가정이 취업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내고 있고 강진이나 해남,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금도는 한우, 약산은 흑염소, 신지는 광어, 이런 데에도 구역, 구역마다 정말 음식문화가 더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회센터가 그래서 언제까지 개발과장으로 계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신지명사십리 같은 데에 가도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먹을 것이. 그리고 음식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발상을 하시면서 시책사업이라든가 사람이 오게끔, 또 그 사람이 머무르고 가게끔 이런 관광상품으로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박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박희선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장기출장중이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172억 5,772만 4,000원에서 73억 8,957만 원이 증액된 246억 4,729만 4,000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 운영, 재료비, 읍면 공동이용시설 소화기 보급사업에 1,300만 원. 시설비에 완도소방서 부지 매입비가 기정 5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고금 119안전센터 옹벽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 지역방위 운영, 도비보조사업, 예비군 육성 장비지원에 3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완도 정도2제 개보수사업에 5,400만 원. 완도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촌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에 약산 장용 저수지 농업용 배수로 이설공사 2억 원. 금일 구동 포장 정비공사 2,000만 원. 군외 갈문리 영해피해보상금 543만 원. 금당 가뭄대비 배수펌프 설치공사 2,000만 원. 보길 월송지구 배수문 정비공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받기반정비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소규모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완도 죽청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완도 당산 농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정도 농로 아스콘 포장 2,000만 원. 완도 소가용리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완도 대가용리 농로 포장공

사 2,000만 원. 금일 월성, 금일 구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각 2,000만 원. 노화삼마, 노화 염등, 군외 남선, 군외 사후도, 신지 내정, 신지 대곡, 고금 신장, 고금 덕암 농로 확포장공사 각 2,000만 원. 고금 도남, 고금 향동 농로 정비공사 각 2,000만 원. 고금 장풍, 고금 청학 농로 정비공사 각 1,000만 원. 청산 읍리, 청산 부흥 농로 포장공사 각 2,000만 원. 소안 이목, 금당 차우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각 2,000만 원. 보길 부용 농로 배수로 시설공사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소규모 농로 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완도 정도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정도리 개거 시설공사 2,000만 원. 군외면 영풍, 군외면 황진, 군외면 대문, 고금면 장풍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각 2,000만 원. 고금면 부곡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 원. 고금면 청학, 고금면 회룡, 청산면 당락, 청산면 상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각 2,000만 원. 보길면 부항리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보길면 통리 농로 확포장공사 각 2,000만 원씩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완도 부흥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소가용, 완도 부흥, 금일 동송 농배수로 정비공사에 각 2,000만 원. 노화 구목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신지 양지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고금 가교, 고금 봉암 배수로 정비공사 각 2,000만 원. 고금 교성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약산 여동, 소안 동진, 금당 육동 배수로 정비공사에 각 2,000만 원. 보길 부항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 보길 정자, 생일 유서 배수로 정비공사에 각 2,000만 원씩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산면 동촌 공동우물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계속사업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도로시설개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공동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시설비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억 9,784만 원. 완도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2억 9,784만 원. 완도군 군도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2,000만 원. 군관리계획시설 변경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완도 농도 312호선 확포장공사 4억 9,640만 원. 노화 농도 309호선 확포장공사 1억 9,856만 원. 신지 농어촌도로 201호선 확포장공사 2억 4,820만 원. 고금대교 입구 가로등, 장보고대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각 2,000만 원. 고금 농도 102호선 확포장공사 8,800만 원. 고금 농도 2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억 9,856만 원. 고금 농도 304호선 응급복구 공사 2,000만 원. 금당 농도 101호선 굴곡위험도로 정비공사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336페이지, 시설비, 보길대교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비 1억 원. 소하천관리 시설비, 완도 정도 하천 정비사업 2,000만 원. 약산 관산 소하천 암거 퇴적토 준설공사 2,000만 원. 약산 여동 소하천 정비사업 2,000만 원. 약산 구암 세천 정비공사 4,000만 원. 청산 지리 소하천 정비사업 3,000만 원은 현지역 건설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생일면 유서 유촌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18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예방사업 관리,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6,305만 2,000원. 범도민 안전문화 운동 사무관리비, 남도안전학당 운영 강사로 36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읍면 다목적 CCTV 구축사업 1억 원. 2018년도 농어촌마을 CCTV 설치사업 2,000만 원. 도민안전 CCTV 설치사업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시설비로 완도 화흥리 옹벽 공사에 2,000만 원. 금일 공항리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2,000만 원. 금일 감목, 동백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3,000만 원. 약산 관산, 장용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000만 원. 재해위

험시설물 정비(보조)사업으로 고금 칠인 소하천 정비사업 5,000만 원. 청산 양지 버스정류장 축대 긴급보수 2,000만 원. 청산 권덕천 긴급 정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풍수해 보험 사업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4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물품 임차료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 보조금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87만 3,000원, 도비 보조금 941만 9,000원. 합계 1,02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4,9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8년도 1회 추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안전건설과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과가 장보고유적사업소하고 의회사무과인데 해버리고……

(「해 버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보고사업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7쪽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제1회 추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3,600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6,178만 8,000원입니다.

먼저 장보고기념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기념관 대형주차장 주변 윈드배너 설치 및 유

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관 주변 시설관리 및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승강기 유지관리비 300만 원. 장보고동상, 정보센터 승강기 유지관리비 580만 8,000원. 관광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 용역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념관 주변 시설관리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장보고기념관 주변 데크가 노후화되어 관람객의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데크 철거 및 설치공사 2억 원. 장보고공원 공중화장실 가압펌프 교체공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보고동상 관리운영, 시설비입니다.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비눗방울 버블기계 설치공사 1,000만 원. 장보고동상 가로등 시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생태전시관 운영 및 물품취득비로는 전시관 무인발급기 및 원격제어장치 구입비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수산양식과에서 무인발급기를 구매하고 있어 예산이 중복되어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88쪽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시설비로 어촌민속전시관 주변 환경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장보고유적관리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호안도로…… 그 지역개발과에서 얘기하신 죽청~장좌 호안도로 개설사업하고 방금 보고하신 2억, 이것하고는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니죠?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예, 기념관 앞에 데크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부분 보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전면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보고사업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의회사무과장 유대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8억 4,347만 3,000원에서 2,332만 원이 증액되어서 8억 6,6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용 카메라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완도군의회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7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입비 100만 원해서 800만 원입니다. 맨 밑에 의원상해부담금은 기획실에서 일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정관법 위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청취불능)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7대 의회에 들어서서 정말 많은 의정활동을 했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군민들에게 홍보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는 그런 기이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진행되는 것인가. 분

석해 본 결과, 집행부에는 군수 홍보, 쉽게 얘기해서 군정에…… 수십 억 정도의 홍보비가 편성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회는 단돈 10원도 없이, 홍보계가 전무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들,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홍보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언론대책비라든지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음 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되, 이제는 적극 홍보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대군정 질문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인터넷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그 시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인근 해남 같은 곳에서는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한테.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2분 기록중지)

(14시13분 기록계속)

지금까지 제1차 축조심사한 결과에 따른 삭감대상조서를 전문위원이 정리한 후에 1차 축조심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삭감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14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김동삼 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설명 요만 들읍시다. 삭감은 아까 확정된 것 같으니까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 설명 요한 것이 2건 있는데요.

□ 김동삼 위원

그러니까 설명 요만 듣자고요.

□ 박성규 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삭감된 것이?

□ 김동삼 위원

아니, 삭감조서를 이렇게 내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 박성규 위원

다시 논의를 합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1차…… 삭감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 것 아닙니까?

□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2개의 안건을 설명 요 했으니까 설명을 듣고요. 여기 왔으니까 설명을 다시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 김동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에서는 설명 요라고 했으니까 설명 요만 듣고, 삭감 부분 최종은,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확정지은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확정을 하자고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 9,000만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9,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복년 미역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운송료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000만 원은 JC단체에서 시군 교류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작년에 JC에서, 화순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화순이 지원했던 것을 보니까 화순에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감안했을 때 9,000만 원 전체가 원안대로 반드시 의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출연금 2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교육청하고 일대일로 매칭해서 무지개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입니다. 다른 시군도 다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우리 완도만 이 사업을 못하고 있었고 다른 시군은 전부 다 지원해서 원활하게 교육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완도군 행정조직 경영진단 용역이 삭감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예년에 했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년 2월에 시행령이 개정됐었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정원 자율권을 부여했고, 또 2개의 국 설치가 가능하고, 과 단위의 설치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지방분권을 대비해서 지방 자치단체 조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치조직권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과장님,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삭감 요한 부분만 설명하기로 위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셔서요. 아까 그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끼리 이따가 다시 의논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저희들이 의논할게요, 토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 3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정관법 위원

미역 보내기가 2,000만 원이라고 그랬는

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집행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획해서 거기에서 판정을 받고 보통 해수부에서 일정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원받고 그렇게 하고, 군에서는 여기에 물류비, 이 정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법 위원

JCI에서…… 뭐 전남대회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시군 전체에……

□ 정관법 위원

전남대회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전남대회입니다.

□ 정관법 위원

지금 JCI 회원이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도 내 전체회원……

□ 정관법 위원

아니, 완도 전체회원이 몇 명이나고, 한 30명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정관법 위원

그 전남대회를 하는데 군비로 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작년에 화순에서도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과장님, 북한 미역, 김 보내기요. 단체가 설립이 되었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비영리단체로 해서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까 정관법 위원이 할 때 무슨 새로운 단체를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단체 면면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설립취지를 보니까 본인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황실에서 회의를 했던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네요. 김 협회, 미역 협회로 해가지고 옛날에 북한, 이것도 김종식 군수 때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안 하다가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그 단체가 태동될 때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태동되고 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이?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거기가 당초에 사업은 조직했고요. 조직하고 나서……

□ 박인철 위원

그 조직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발적인 조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정부분……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니,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 박인철 위원

조직구성원들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예) 저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상황실에서 다 뭐

해 가지고 MOU 비슷한 그런 것까지 체결해서 하는 것 같던데. 이런 것도 하나 의회에 와가지고 의회에서 간담회하고 그럴 때 알아먹게 이야기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JCI…… 가구 한 50명이 되고요. 전남지구로 해가지고 로컬대회를 한다는 이 말이죠, 1박 2일로? 체육대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정관법 위원

잠깐 한 마디만 더요. 그 미역 보내기를 하는 예년의 예를 보면 여기에서 민간인들과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 경비까지 우리가 대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어떻게 용도는 구체적으로는 계상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 정관법 위원

그러니까 회원들이, 거기에 미역 보내기 협의회 회원들이 결성되면 목사도 들어가고 뭇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체 경비를 군에서 대줘야 하냐는 이 말이에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저희들이 운송비와 물류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 정관법 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교류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갑갑해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설명을 전혀 안 하니까.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예년에 보면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돼요. 미역…… 차지하고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나더라는 이 말입니다. 이 미역이 북한에…… 제반경비를 군에서 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것은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법 위원

그것이 되겠어요?

연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전체경비가 누가, 얼마, 몇 명이 어떻게 몇 톤을 가지고 가는데 경비가 얼마 소요된다는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위원회는 이제 구성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전체물량이 나오구요.

□ 정관법 위원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생각할 때는, 사전에 이 부분을 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다가 이것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미역 보내기,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해가지고 한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에 들어갔으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먹기 쉽고, 또 JC…… 같은 경우도 도내에 한다, 그것을 첨부사항으로 해놓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더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좋을 텐데. 그런 것 없이 비영리단체에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설명을 요하게 됐네요.

한 가지만,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요. 행정조직 진단용역이요. 이 부분에서 실과에서…… 군에서 어떤 꼭 실과를 다시 편성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니, 민선7기에 들어가면 새로운 공약사항도 나오고, 또 그동안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또 산업구조가 개편됐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그쪽에 반영해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는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고자…… 일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김동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것은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 내가 걸어온 행정에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여기 계신…… 공무원 선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과장님의 위치에서도 2년이나 근무했잖아요, 그리고 민선 들어서 누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직개편도 해봤어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이런 어떤…… 그런 준칙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어떤 군은 기획예산실, 어떤 군은 기획감사실, 기획홍보실, 그것은 다 자기 실정에, 또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민선6기 들어서 이 해양수산과를 두 군데로 나눈 것도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눠만 놓으면 뭐합니까, 인원을 확보해야지. 두 과를 다 합쳐도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주민복지과 인원만은 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과도 같이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은 다 행정 내부에서 늘 계장들 확대, 이렇게 회의나 간부들 이렇게 회의해 가지고 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번에 민선6기 들어서 모순된 것, 이런 것 계 명칭을 바꾸고, 또 이렇게 국이 생기니까 유사한 국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의회에 보면 행정자치위원장, 또 산업건설위원장 하듯이 이렇게 나뉘었다는 말이에요. 국을 나누는 것이 뭐가 있고……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지금 민선6기 들어서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그것이 경영진단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어디가 업무량이……

□ 김동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들습니까. 밖에 나가서 듣겠어요. 공무원들한테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요.

□ 김동삼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그러면 설문조사 예산이 들어가면 한 500만 원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야근까지 다 하고 뭐하고……

저는 진짜 이 4,000만 원이 진짜 아깝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경영진단을 하면서 용역까지 한 사례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민선6기 시작할 때도 용역해서……

□ 김동삼 위원

무슨 용역을 했어요,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4,000만 원, 민선6기……

□ 김동삼 위원

그래서 해놓은 것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토대 위에서 모순되고 계 명칭도 안 맞고 업무가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또 군수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이어져 가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때……

□ 김동삼 위원

나는 내가 봤을 때요. 자치행정과에서 진짜 일하기 싫으니깐 어디에서 이것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다가 실과 이런 데에 들이대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것으로 일방적으로 나가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헬스케어산업이라든지.

□ 김동삼 위원

그리고 일반직원들 입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에요, 일반직원들 입에서도, 무슨 이런 것이 필요하냐는 이 말이에요. 이전에도 조직개편을 할 때 실과장 몇 사람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대회의실에서 계장들이 오고 뭐하고 해가지고, 자, 진정 내가 여기에서 내가 그 업무를 보고 있지만 또 1년이면 바뀌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대의적인 차원에서 내가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은 내가 기획예산실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면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누구하고 뭐를 했는데, 누구 어떤 용역하고 뭐를 해서 거기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내용은, 그 사항은 전혀 아니에요.

□ 김동삼 위원

아, 공직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실과장들의 의견들을 다 무시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라니까,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실과 의견을 들겠습니다. 듣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업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반드시 조직개편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 김동삼 위원

그리고 우리 실과장들은 정신을 좀 차리고 자기 소신을 이렇게 안 할 줄도 알고, 그리고 민간활동,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깊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서 참말로…… 제가 군을 떠납니다마는 정말 참말로 한심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성규 위원

그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해양헬스케어, 그런 과가 신설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신설되고요. 매년 다르게끔…… 옛날에는 과를요, 예를 들어 16개면 16개로 한정해서 그 안에서 편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풀어서, 자율적으로 풀어서 과 단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조직개편을 해서 의견을 여러 사람,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요, 아주 효율적인,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다른 위원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민선7기…… 우리 7대 들어와 가지고 박신희 과장님, 천종실 계장이 있을 때 이 용역을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 당시 전략산업과 잘 되고 있는 것을 싹 없애 버리고 경제산업과로 딱 이관해 놓고, 경제산업과 힘

을 죽여 버리고, 수산정책과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끝끝내 만들어 가지고 수산정책과로 이렇게 해버리고, 과도, 계도 모르는 용역…… 팀만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어 버리고, 민원실도 보강하라고 하니까, 용역 발표할 때…… 민원실도 보강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할 때 전체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계를 편성할 때도 의회에는 보고도 하나 안 해주고, 물어보니까 의회 보고사항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해서 뭐합니까, 그런 용역을, 저 민선7기 군의원 막 배지를 달고 들어와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조직개편 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박신희 과장님, 천종실 계장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용역도 빨리 빨리 보고하고 그래야 되니까 몇 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하나같이, 이 말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같이 이야기 하니까 다들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그것을 해가지고 중간 중간 개편하고, 개편하고, 지금 해양헬스케어 박성규 위원도 그랬지만 그런 계획 중간 중간 용역을 안 하고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본인이 물어보면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해버리고 뭐 까딱하면 법문을 들이대 버리고.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무지개학교도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면 4년 동안 우리가 8억을 내놔야 되네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1년에,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저도 예산계에서도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순군비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출연금들은 장보고 장학회 이런…… 아까 계장님이, 예산계장님이 인건비라고 했는데, 신안이나 진도 이렇게 함평, 강진 이런 데는 그러면…… 고흥 이런 데는 곡성, 장흥 이런 데도 우리하고 거의 지방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어 들인 돈도…… 거의 지방자립도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로 걷어 들어서 세금으로 인건비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보니까 장흥, 영광은 원자력이 있으니까 뇌놓고, 쪽 내려오다 보면 거의 우리하고 지방세가 비슷한 곳인데, 그러면 이런 데는 전부 다 뭐한 것입니까? 다른 예산 편성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본예산에 뭘니까, 할 때, 일곱 가지인가 기금을 할 때 장보고기금도 딱 15억 4,000만 원으로 1년에 못을 박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교육시설에 대해서 직접 지원은 예산서 지침에 금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이 직접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늦었습니다. 늦은 만큼 이번에 꼭 원안대로 의결해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교육장이 누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교육장이 바뀌진지 어떤지 모르는데 교육장이 군수를 면담하고 되고 본부장을 면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우리 평의원들은 뭐예요, 평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장보고 장학금에서…… 다만 얼마 좀 해주라고 하니까, `18년 본예산에 넣어주라고 하니까 추경을 이야기하고, 추경에도 이야기하니까 일언반구도 없이 해버리고, 이번에 교육장이 새로 와가지고 무지개학교가 있는데, 군수님 면담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 잣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나 예산부서나 서로 맞춰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춰가면서. 아까 모 과장님이 예산을 설명하면서 군수 주민과의 대화에서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들은 뭐냐는 이 말이에요. 위원들도 군민이 뽑아준 사람이고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군민이 못하는 말을 위원이 여기 회의석상에서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건의도 드리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깡그리 다 없어져 버리고, 뭐 장들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업부서나 7급, 8급, 9급 주무관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읍면 이장님들한테 건의서를 올리라고 해가지고 읍면으로, 개발계로 읍면장한테…… 다시 또 본청 담당한테 건의서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예산계로 가는 것은 예산이 없다고 다 하면서 뭐 말 한 마디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예산심의는 뭐하려고 받는 거예요, 예산심의를. 이 건뿐만 아니라 너무 그런 것이 많이 보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좀 이따요.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성규 위원

마무리를 잘합시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썸에서…… 이전에도 박인철 위원님이 말했지만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예산이 통과했지만 게이트 불장을 하나 하는데도 7억씩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군수와 면담하면 7억, 5억 다 해주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7대 마지막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얻기 위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잘합시다. 넘어가고 합시다. 결정을 합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결정은 조금 이따가 위원들끼리 하고요.

더 이상 없으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안 왔어요? 오셨어요?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당초 경도빌딩 그 매입예산으로 5억 2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가 약 평당 35만 원 정도 공시지가가…… 갑니다. 그래서 36평 계산하면 약 1억 3,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그렇고 시세까지 포함해서 당초에 땅값으로 1억 5,000 잡고, 그다음에 건물평가비로 약 3억 잡았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정을 해가지고 3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입비가 4억 5,000만 원 철거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보충질의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조인호 위원

과장님, 철거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철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저희들이 철거업체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고 반영했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면 정확한 견적이…… 5,000만 원이면 철거할 수 있다고요, 추가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정관범 위원님.

□ 정관범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를 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까…… ‘자, 그러면 이 위험물을 처리하는,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건축물의 관리를 이토록 소홀히 한 건축주의 책임은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비 중에서 건축주의 책임을 묻자,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의 책임을 20을 준다든지, 30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난 연후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우리 과장님이 이 건축주하고 일단은 아 마…… 접촉하신 것으로 하셨죠, 대충. 그랬을 때 과장님이 느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건축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철거비 부분은 말씀을 안 했고요. 건축주가 말씀하신 것은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궁해 가지고 따르겠다. 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 서울윤 위원 의석에서 - 평가액을 받아드리겠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혹시 나머지 부분은……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데 너무 나가면 오해를 살까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자세한 사항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서울윤 위원님.

□ 서울윤 위원

어제부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시설물이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단체도 나섰다는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건축주는 아마 책임이 없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깊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단 2%라도 건축주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군수들의 정서고 군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이 달리 이 문제를 처리하시되, 건축주도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건축주는 평가를 군에서 한 대로 받아드리겠다. 그 다음에 위험하니까 철거도 하고 다 응해 주겠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응해 주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철거를 5,000만 원 가지고 하고, 4억 500만 원을 건축주에게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가가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 사실 건물은 내일이라도 당장 헐어서 보내 버려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건축폐기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사실 평가가 얼마 나올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딱 칼로 자르기는 힘들구먼,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위원님들과 다시 타협하겠습니다마는 보고사항으로는 건축주가 단 1%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 입장은. 그래야 군민들도 공감할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처리하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이런 일이 앞으로 제2, 제3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의 설명을 더 듣고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과장님의 설명……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어제 제가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단체에 접촉해 가지고……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런 경우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평가하기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고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저런 건물은 실제로 건물 목적은 제대로 이행이…… 활용가치가 거의 없어진 상태라서 평가가 0으로는 나올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 감액되어 버릴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 서울윤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사용불가하지 않습니까, 건물사용불가로 군에서 통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서로 간에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문화체육과 안 오셨어요?

해양수산정책과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직무대리 이용신

해양수산정책과장이 잠시 출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주식회사 경영평가 자문료 500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2,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해서 매년 용역……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요. 매년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하기에는 계속…… 과비용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직접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되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평가서를 한번 작성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500만 원을 축소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이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 박성규 위원

그 내용은 뭔지 알겠고요. 이번 주총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주총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CEO 사장님이라든지 감사, 이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잠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직무대리 이용신

지금 CEO 부분은 임기가 내년 5월 27일 까지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 박성규 위원

내년까지는……

□ 해양수산정책과장직무대리 이용신

예, 검토사항은 없었고요. 이사,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총……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총 여섯 분…… 이사 여섯 분, 감사 두 분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두 분만 연임을 하시고 나머지 여섯 분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연임하시는 분, 두 분은 완도 xxx 이사하고 소안에 xxx인데 그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한지가 1년…… 기간이 1년 남짓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짧은 기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금일지역에 대표로 xxx가 참여를 하게 됐고 보길지역에 xxx, 노화에 xxx, 그리고 한 분이 청산에 xxx 이사 이렇게……

□ 박성규 위원

감사는 누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직무대리 이용신

감사는 군을 대표해서 담당업무계장인 제가 참여하고요. 또 금일수협 완도읍 지점장

인 xxx 감사가 참여하고, 보길 xxx가 하고…… 이렇게 세 분, 세 사람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 박성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정관범 위원님.

□ 정관범 위원

지금 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예년에 2,000만 원짜리……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회계사에……

□ 해양수산정책과장직무대리 이용신

예, 회계사에……

□ 정관범 위원

경영평가 진단을 받은 것이죠?

□ 해양수산정책과장직무대리 이용신

예, 그 사항을 올해는 제가 직접 작성하면서……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 정관범 위원

감사가 지금…… 선임된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있냐고.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경영평가 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 구역질이 나요. 그렇게 구역질이 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완전히 전복주식회사 xxx 입맛에 맞는 그런 경영평가를 하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 돈을, 용역비를 어디서 집행하는데 완전히 그 손에 놀아난다는 그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공무원 자격도 없는, (청취불능)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있더라는 그 말이에요.

아까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구먼. 5,000만 원 전부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라는 그 얘기에요. 오죽했으면 군수가

던져버렸어요, 결과보고서를. 그런 공무원들이 수산공무원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 해양수산정책과장직무대리 이용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대주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월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달리 해서, 다른 회계법인에 한번 위탁해서 회사 자체적인 결산감사를 시도해볼 예정이고요.

□ 정관범 위원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xxx가 연임되는 것 이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속은 꿀을 데로 끓여가지고 있는데 (청취불능)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흑자를 위장하고, 발표하고. 회계법인 경영평가를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전복회사가 썩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내막을 보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33.3%, 5%. 어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종의 (청취불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감당을 못합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직무대리 이용신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하면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범 위원

새로운 계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신뢰가 가기는 갑니다마는…… 아이고, 정말 참말로 한심스럽다, 한심스러워.

그리고 위에 특위 구성도 전부 무효로 만들었어요, 지금. 로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참조해 가지고 이번에 경영평가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하더라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계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대신 해서 직접 작성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감사를 맡고 계시니까 여러 분야에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 작성을 잘하시고요.

그 대표이사 임기가 올해 5월이라고 안 했어요? 올해 5월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 **해양수산정책과장직무대리 이용신**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27 일……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불러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D등급으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김동삼 위원님.

□ **김동삼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아까 자치행정과도 그렇게 했고 제가 이렇게 제안사항도 있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됩니다.” 라는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꼭 그 문화체육과장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뭐하면 더 연결해서 가고 그러는데…… 나는 조금 이 마인드, 이런 생각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것을 가지고 가면 군수가 어째서 문화체육과가 그렇게 하나고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는다거

나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 과장님, 조금 있으면 퇴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했던 그런 행정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잘못해 가지고 옛날……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기 서부, 사정리 그쪽에다가…… 뭘니까, 야외음악당을 해가지고 한 번인가 했어요. 그것을 철거하는데…… 한 번도 안 쓰고 (청취불능) 했고. 또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거기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요. 올해 아니면 반납하게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정보센터는 달도, 거기 들어오는 데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안내하고 그러는데. 거기 장소에다가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 에다가 했어요. 그 퇴직공무원 (청취불능) 또 향교 뭘니까, 죽청리 도로변에 있는 것. 이것도 줄속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소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관광정보센터가 5대 때부터 실과장 이렇게…… 간부를 할 때, 그때부터 의회에서 제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에요. 왜 이것을 여기에다가 하느냐, 뭐 해가지고 덩 덩하게 지어놓고, 지금 건물이 덩덩하니 아주 모양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도로 가는 교통 시야도 가려 버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또 아이들 놀이터도 거기에 만들어 났잖아요, 무슨 놀이기구. 그것도 그 건물이 방해되고, 그것을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고. 그 안을 제가 몇 번 들어가 봤어요.

저기는 그리고 2억 5,00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투자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억 5,000에다가 앞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국도비가 들어있어 가지고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넓게 해서요. 장소가 괜찮은 데에다가 역사관을 하면서 아까 내가 말했지만 어촌민속전시관,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좀 축소해 가지고요. 지금 아무……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지타산으로 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없잖아요, 관

광객이 저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그렇게 해서 좀 계획성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역사관에다가 무엇을 배치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1층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층은 유배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그런 쪽으로 하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고…… 1층 사무실이 나와 가지고 공간이 좀 좁아 보이는데 사무실을 다 철거하고 전시용도로 해가지고 유배문화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에…… 역사문화관을 조성하고, 2층에 보면 받은 건물이 지어져 있고, 받은 건물이 안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장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충분히 거기다가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들 (청취불능) 장보고 한상과 관련된 장보고 관련 교육들을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 김동삼 위원

그러면 2층을 뭐 어디에서 이렇게 증축해 나간다는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조금 그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받은 지어져 있고 받은 안 지어져 있거든요.

□ 김동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 건물이 이렇게 뭐하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 이렇게 아주 줄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양도 없고……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거가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 김동삼 위원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은 뭐 등급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2~3년이 지나서, 내 말은 철거를 그때 가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은 안 해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거기 도로가 잔디밭하고 이렇게 좁잖아요. 차를 거기다가 세워 버리니까 저쪽에서부터 기념관 쪽, 이쪽 해양생태체험센터 거기까지 오려면…… 차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건물도 앞으로 없어지면 거기 폭도 이렇게 양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 업무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조화 있게 같이 하라는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이 예산 뭐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은 말하고 그러면 그것은 소홀히 해버리고, 내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제가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김동삼 위원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하라는 말이에요, 개선을.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문화재청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그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재청…… 제가 문화재청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쪽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 김동삼 위원

그러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러면 정확한 군비로, 순수 군비로 해가지고……

□ 김동삼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 옛날 도로 밑으로 다 아니고 그 중간을 지나가잖아요, 지금 장도식당. 거기서 지나가면서…… 아, 이것도 여러 가지 뭐시기 한 상, 이 부분도 장보고와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노력을 하면 되고, 또 우리가 늘 말하지만 저기 5,000평인가 사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 매립을 해놓은 것, 지금 생태체험센터……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그쪽으로……

□ 김동삼 위원

그쪽으로는 지역은 장좌리잖아요, 장좌리. 거기 옆에 가야 죽청리하고 그 주유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70억 정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물을 지으려면……

□ 김동삼 위원

아이고, 참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꼭 그것을 그렇게 해서 좀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 그것도 맞겠다.”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붉혀지고 또 좋은 사이에 뭐하고…… 저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군다나 완도문화역사관이니까 조금 더 큰 틀에서 체계 있게, 계획성 있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얘기는 그 점이에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김동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당장 안 하고 한 2~3년 후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그런 피해가 옵니까? 그것 좀 물어봅시다. 아니, 이 역사관을 한 해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

들한테 무슨 피해가 오냐고. 그리고 당장 해야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고.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저기 장보고한상과 관련된 역사문화관을 밑에 하고, 2층에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전시를 하려는 이유요. 궁극적으로 장보고한상어워드를 수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칭취불능)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시설물을 갖추어 놓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놔요니까 당신들도 앞으로 완도군에다가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 김동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이…… 적당한 장소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무슨 건물을 하나 해놓으면…… 조화롭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내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두 해가 되더라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저 건물은 한두 해 이후에 철거할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 저희들도……

□ 김동삼 위원

그러면 한 5년 후에 철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칭취불능)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명물이에요, 명물. 거기가 딱 차버려.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말이 긴 것 같아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예, 서울윤 위원님.

□ 서울윤 위원

과장님, 이것은 난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였던 의견을 군수님한테 충분히 전달하세요. 완도의 역사관은

새롭게, 더 크게, 규모 있게 거기에다가 새로 지어야 된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맞아요.

이것은 제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양숙

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끼리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불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기록중지)

(15시51분 기록계속)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논의해야 될 삭감 대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3건이고 4억 8,00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회의에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2301호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단

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천 양 숙
서 을 윤
조 인 호
박 인 철
박 성 규
김 동 삼
정 관 범

□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유대성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박 종 연		
의 원	서 을 윤		
의 원	김 동 삼		
의회사무과장	유 대 성		

제25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5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02일(월) 10시26분

제25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집회보고
6. 폐 식

(10시26분 개식)

□ 의사담당 최광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석우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이석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홉 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난 6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7호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 취약지역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담당 최광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인 조인호 의원님의 의사진행
으로 제25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께서서는 의장석으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폐식)

제25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02일(월) 10시32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의장 선거의 건
2. 부의장 선거의 건
3. 제25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7.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의 건
8.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의장 선거의 건
o의장(조인호 의원) 당선인사
2. 부의장 선거의 건
o부의장(허궁희 의원) 당선인사
3. 제25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7.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의 건
8.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10시32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조인호

의장직무대행 조인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중책을 맡아 제25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제8대 의회의 첫 번째 개최된 임시회에서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 출범과 함께 개최된 제257회 임시회는 앞으로 전반기 2년 동안 완도군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구성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인 의회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의장단으로 구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장 선거의 건

(10시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며,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별도의 후보자 등록절차 없이 선거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에 앞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개표 사항을 관

리할 두 분의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 6월 21일 당선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재선 의원이신 박인철 의원과 최연장자 의원이신 우성자 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석우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실시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완도군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거 대상 및 순서는 의장직무대행이신 조인호 의원님의 의사진행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장의 의사진행으로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순서 및 방법입니다. 투표 순서는 비례대표 의원님부터 다선 의원, 그리고 의원님 성명순으로 하고 의장직무대행, 또는 의장, 그리고 감표위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의장과 부의장

은 후보자 등록 없이,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고 피선거권자입니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는 방법을 따르고, 각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이 후보자가 되고 아홉 분 의원 전원이 선거권자가 돼서 선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의원님 이름을 호명하면 먼저 투표종사자에게 가서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대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신 후에는, 명패함에는 감표위원들이 계신 명패를…… 투표하면 투표용지를 투함하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당선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당선자…… 그러니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투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먼저 결정되고, 최다선 의원이 2인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 준비된 기표용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는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성명 우측에 있는 기표란에, 제가 이제…… 그 일반투표를 하듯이, 그 기표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기표시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무효투표는 공식선거법 제 179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교부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의 직권에 의하여 처리하며, 투표의 유·무효의 관계에 대하여는 의장대행이신…… 의장대행과 감표위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조인호

그럼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들어가기 전에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급한 사항입니까?

(□ 최정욱 의원 의석에서 - 예, 당연히 좀 해야 될 말이라서.)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최정욱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 정말 마음도 무겁고 착잡합니다만……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동료의원이라고 생각했지. 어떤 당리당락을 떠나서…… 이런 의회 구성을 할 때, 그렇게 안 하는데.

며칠 전 완도신문에 의하면 이미 민주당 의원끼리 협의가 돼서, 이렇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참…… 그것도 제가 들은 것이 아니고 주위 군민들의 전화가 여기저기에서 오고, 그런 것을 통해서 들었을 때 참……

“아, 과연 우리가…… 여기 의회 내부에 선배, 후배, 서로 동료의원끼리 그런 당리당락이 필요한가?” 라는, 그런 참 착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과연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서…… 내부적인 의회조차도 이런다 하면, 과연 의정이야 우리가 따로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의회 구성을 하는데도 무소속이 과연…… 우리 전남 완도에서 민주당 아닌 사람 있을까요? 다 똑같죠, 뭐 말만 무소속이지. 여기서 한국당도 아닌 전혀 당이 다른, 그런 당도 아닌 우리를 빼고……)

저기 최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최정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투표에 불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발언 끝났습니까?

(□ 최정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석우 전문위원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한 분, 한 분씩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서, 앞서 투표절차 및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다선 의원, 그리고 의원 성명순, 의장직무대행, 감표위원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님하고…… 2선 하신, 두 분이 지금 감표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10시43분 투표개시)

(전문위원 의원호명)

□ 의장직무대행 조인호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10시 48분 투표종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 분 기권으로 인한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개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집계결과 8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8매 맞습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에 유효투표 8표, 유효투표 8표, 조인호 의원이 8표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인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니까요.

의장님으로 당선되신…… 먼저 부의장 선거 전에, 새로 당선되신 조인호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발언대로 이동하셔서 가지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조인호 의원) 당선인사

□ 의장 조인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저를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완도군의회 의장에 당선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우리 군의회가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과제를 부여받았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식견과 전문이 높으신 동료의원께서 계시기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의장활동을 펼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 민의의 정당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의

원은 동료의원간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라는 목표로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가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는 냉철한 판단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견제와, 감시와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희망해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거 기간, 군민에게 많은 약속과 다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발로 뛰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으로부터 많이 듣고, 많이 배워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당선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 전문위원 이석우

그러면 이후에 의사일정은 의장님…… 진행으로 해서 계속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2. 부의장 선거의 전

(10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의 전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 진행방식도 의장 선출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에도 감표위원은 박인철 의원, 우성자 의원님께서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전문위원은 투표하실 의원 한 분, 한 분씩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앞선 선거와 같은 순서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54분 투표개시)

(전문위원 의원호명)

□ 의장 조인호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10시5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 두 분 기권,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개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집계결과 7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수도 7매, 명패함과 일치합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석으로 이동하여 집

계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 유효투표 7표, 완도 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궁희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허궁희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허궁희 의원) 당선인사

□ 부의장 허궁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성실하게 의원직에 임할 것이며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듯이,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군의회에서 해야 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께서 우리를 선출해주신 만큼,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한 점 어긋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당선되신 조인호 의장님을 잘 보필해서 역대 어느 의장단보다 군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의회, 동료의원간 소통과 화합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3. 제2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2분)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57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양훈 의원과 김재홍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의 건은 김양훈 의원과 김재홍 의원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한 후,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우성자 의원, 박인철 의원, 이범성 의원, 최정욱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는 박인철 의원, 김양훈 의원, 박재선 의원, 우성자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재홍 의원, 이범성 의원, 최정욱 의원, 허궁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은……

6.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 중에서 의장단과……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박인철 의원과 우성자 의원님께서는 계속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전문위원께서는 투표하실 의원 한 분, 한 분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앞선 선거와 같은 순서로 호명하겠습니다.

(11시21분 투표개시)

(전문위원 의원호명)

□ 의장 조인호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11시25분 투표종료)

두 분 기권,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7개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7매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 수도 7매, 명패수하고 일치합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석으로 이동하여 집계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 유효투표 7표, 유효투표 7표, 우성자 의원 6표, 박인철 의원 1표, 1표로…… 우성자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의 건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전문위원께서는 투표하실 의원 한
분, 한 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앞선 순서와 같은 순서로 호명해드리
겠습니다.

(11시28분 투표개시)

□ 의장 조인호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11시31분 투표종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님의 기권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투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7개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 집계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7매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 수 7매로 명패수하고 일치합니
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
다.

집계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석으로 이동하여 집
계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 유효투표 7표, 유효
투표 7표…… 표로써 박재선 의원이 행정자
치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전문위원은 투표하실 의원 한 분,
한 분씩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동일한 순서로 호명해드리겠습니다.

(11시34분 투표개시)

□ 의장 조인호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11시36분 투표종료)

두 분 기권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7개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7매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 수도 7매로 명패함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석으로 이동하여 집계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 유효투표 7표, 유효투표 7표. 김재홍 의원이 7표, 7표로써 김재홍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호 태풍 뿌라뻬룬의 북상으로 인해 피해 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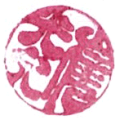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김 양 훈		
의 원	김 재 홍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최 광 윤		

제25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5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10일(화) 10시00분

제25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의원 선서, 의원윤리강령
6. 개회사
7. 폐 식

(10시00분 개식)

□ 의사담당 최광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의원님께서 그 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선서가 있습니다.

의원선서는 조인호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님께서 “선서!” 라고 하면 “선서!” 라고 복창하시며, 오른손 올려주시기 바라며 선서 끝 부분, 의원성명은 본인성명을 낭독하신 후에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의원선서를 해주시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의원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완도군의회 의원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의사담당 최광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께서 완도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의원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나.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완도군의회 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의사담당 최광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할 제8대 완도군의회가 출범하여 군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제258회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제8대 완도군의회 전반기 의장의 막중한 집권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우리 군민의 미래를 지키는 청지기로서 법과 제도라는 원칙 아래, 민의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로,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기리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을 모시겠다는 다짐을, 또한 드립니다.

완도군의회는 지난 91년도에 첫 출발하여 올해로 2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함께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착실히 이루어 놓은 역대 의정활동을 밑거름으로 삼아, 한 번 더 진일보하고 불의를 쇄신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에서 탈피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 능동적이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언제나 군민의 꿈과 희망이 머무르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는 동료의원간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라는 목표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는 냉철한 판단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견제와 감시가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희망해 봅니다.

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향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완도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완도군을 이끌어가는 양대 산맥일 것입니다. 때로는 견제와 감시자라는 위치에서 의도치 않은 갈등과 반발로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임은 다르지만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추구하는 지향점은 동일할 것입니다. 서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군정의 문제점을 함께 풀어가고 최상의 대안을 마련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고 서로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세로 의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늘 경청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민선7기가 출범되고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되는 시점에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해야할 각종 현안사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역사회의 질서와 반목을 없애고 그 어느 때보다 화합과 협력,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단합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된 마음으로 행복한 완도, 희망이 가득한 완도, 완도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항상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의회상을 정립해 지역에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최광윤

이상으로 제25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0시12분 폐식)

제25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10일(화) 10시12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 기획예산실
- 주민복지과
- 자치행정과
- 세무회계과

□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 기획예산실
- 주민복지과
- 자치행정과
- 세무회계과

(10시12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석우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우성자 의회 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와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4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으로 박인철 의원과 박재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의 건은 박인철 의원과 박재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24호와 제2325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2325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는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군정의 주요업무들 중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사업에 대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 동안 실과소별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하고, 제25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
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안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
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
석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5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운영
에 따른 의원간담회 협의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3시30분부터 실과소별 2018년 주
요…… 군정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군정 주
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
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기획예산실장 서현종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8대 완도군의회에
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
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기획, 홍보, 예산, 감
사, 공모지원, 지역연구정책 등 6개 담당,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
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선6기 공약사항 추
진 등 15건입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
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우리 군 상표가 139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지 이번에 알았습
니다. (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표가 어떤 것
이고, 군민들의 문의나 신청이 가장 많은 상
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우리 CI상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그다음에 건강의 섬 완도 상표가 지금 가장
많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는……
그 상표가 지금 가장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
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부산지역 광어에서 중금속, 그 수는 검출된 것은 잘 아시죠? (예)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광어양식업자들 누구 하나,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 군의 브랜드를 사용하면 우리 군 양식업자들도 살고, 군 이미지 제고도 많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에 대비해서 현재 상표사용에 관한 방법이나 내용들이, 많은 군민들이…… 홍보가 잘 되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지금 상표사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주지 못한 건수는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지금은 거의 상표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그 쉽게 말하면 서류만 잘 갖춰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못해줄 부분은 없습니다. 품질증빙서류 같은 것, 뭐 중금속검사. 이런 것을 통과하는, 그런 서류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상표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 상표나 브랜드를 잘 홍보해서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저희들은 의원하기 전에 자꾸 접했던 것인데요. 우리 완도군의 그 청렴도에 대해서…… 아까 3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이라고 나온……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도 하위 등급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난해 4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는 내부청렴도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9위에서 6위로, 13계단 이렇게 상승이 됐었는데, 외부청렴도에서 좀 부진해서 이번에는 이제…… 금년에는 외부청렴도에서 취약요소로 나타났던 공사관리감독 분야, 그리고 이제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청렴시스템을 가동해서, 청렴도 향상을 좀 올리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어차피 청렴도란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우리 군민이 공무원들과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청렴도가 좀 올라가야 군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질의 끝났습니까?

□ 최정욱 의원

예.

□ 의장 조인호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요, 민선6기 공약사항. 그러면 실장님 보고에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률이 88%가 되어 가지고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이제 이 부분을 공약사항, 그 추진사항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기초광역자치단체장 공약사항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느냐, 또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우리 군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2016년도부터는 3년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전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완도군만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 박인철 의원

여기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매니페스토, 이것을 주는…… 시상을 주는 단체는?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여기는 공공단체……

□ 박인철 의원

여기 신문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아니, 신문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는 아주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 기관을 좀 이야기해주시고.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여기는 이제 공약사항만 그…… 방금 말씀드렸던 자치단체 공약사항만 평가하는, 이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민선6기 때 군수님이 처음 출발할 때 공약사항이 44가지였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48가지였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48…… 아니, 여기는 지금 44가지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아니, 44…… 48가지였는데. 저희들이 주민배심위원단을 통해서 이 사항…… 여건 변화가 있는 부분은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4건입니다.

□ 박인철 의원

수산 대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수산대학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계속 추진 5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FAO 글로벌 수산대학을 아마, 내년에 아마도 유치하기로 확정된 것 같아요. 거기를 확정하면 우리 군에서는 그런 글로벌 훈련…… 교육원을 우리 군에다가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전에 그 농수산대학이 있죠. 이것도 수산 부분을 완도로, 우리 군으로 유치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 보고로 끝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이제 관련 부서에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대학 유치는 대학교 구조조정이라든가 부실대학, 이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신규대학을 하기는,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FAO 우리…… 글로벌 수산대학, 그것 부경대학교에서 유치한 그 대학교육훈련소를…… 교육원을 완도에다가 유치하려 한다. 지금 이렇게 추진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담당부서에는 그때 농수산대학이 있으니까 수산부분을 빼와서 우리 군에다 하고, 또 조선대학교 뭐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그런 방안들이 하나 진척된 것이 없네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일단은 부경대학교에서 유치하는 데를 보고 아마도 협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부경대학에서요? 단과대학을 설립한다, 이 말입니까? 부경대학교에서?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부경대학교에서 수산대학을 설립하니까 그 설립하는 데를 보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 박인철 의원

부경대학이 지금 옛날 바다수산대학하고 해가지고 부경대학이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또 수산대학을 설

립한다고……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거기가 글로벌 수산대학을…… FAO 세계 농업식량기구에서 그…… 수산대학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엇그제 신문을……

□ 박인철 의원

완도로 지금 그러면 유치한다, 이 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아니, 거기 신문을 봤는데 수산대학을 부경대학교에서 유치를 하고, 그 수산대학의 하나의 교육기관을 우리 완도에다가 유치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대학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린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예,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대학유치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 박인철 의원

이것도 얼른 정리를 하십시오.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예, 그래서……

□ 박인철 의원

질질 끌지 말고 담당부서하고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얼른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예, 그런 부분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해가

지고 올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아, 저 그…… 신속집행 부분을 이제, 일사분기는 일자리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일자리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 박인철 의원

아니,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 우리 기초…… `16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미니페스트 우수사례라고 해가지고. (예)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저기…… 일자리창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자리인지. 우리 완도군에다가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이제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 박인철 의원

뭐 저 해양바이오센터를 한, 그런 일자리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런 일자리도 포함이 됩니다.

□ 박인철 의원

뭐 그 다 한시적인 일자리들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공모…… 평가에 공모를 해가지고……

□ 박인철 의원

아니, 상을 받은 것은 좋은데. 다 이런 것들이 영구적인 일자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다 한시적이라는, 이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런 부분,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가 민선7기가 되어 가지고 의회 8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지금 8대 의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민선6기는…… 물론 보고사항이지만 민선7기에 대한 공약사항이 좀 들어와 있어야 우리도 같이…… 의원들도 공유를 하면서 가는데 공약사항이 다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지금.

지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했는가 어쨌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 SNS를 보니까 미래성장, 해양치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사람우선 포용복지, 생태중심 문화관광, 가치보전 청정환경.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좀 압시다. 같이 하나 공유합시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지금 공약사항은, 민선7기 공약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엇그저께 보고회를 통해서 검토를,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민선6기를 넣은 것은, 이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다 보니까 민선6기 공약사항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는 조만간 저것이 확정이 되면 보고하는 시간이 별도로……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보니까. 저도 뭐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 오늘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민선7기 공약사항이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다 나와 있구먼요. 그러면 최소한 이정도 정도는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다른 것을 다 빼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민선7기, 우리 완도군이 어떻게 가는지 정도는 여기서 좀 보고를 실장님이 해줘야 되지 않은가.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여러 가지가 있구먼요. 저기 전복산업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물결 숨결 간직하기, 해양치유, 뭐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그것은 이제…… 확정된 것은 군수님이 민선7기 군정목표하고 방침, 5가지 방침은 확정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공약내용은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세부적인 내용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각 실과마다 해가지고 다 열추 나와 있는데, 실과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그것은 실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오늘 이런 기회에 있어서 같이 해주면, 우리도 어디가면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알고 같이 가야…… (예, 잘 알겠습니다)

힘이 가벼워질 것 아닙니까? (예)

이것 꼭, 나중에 다시 또 처리되는 대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엇그저께도 그 뭘니까, 용역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용역비를 추가로 해주라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지금 유네스코, 유네스코, 자꾸 제주나, 이런 데에서 하던데, 새로운 관광자원하고 뭐 타지자체하고 차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특별한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해가지

고,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위한 완도군 전역 생물자원 조사 및 생물권 보전 지역,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예, 예비신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타지자체하고 비교하여…… 우리가 우리 군만 내세우는 뭐 생물자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 용역은, 기본 되어 있죠? 조금은?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이제 이 앞전에 우리가 그…… 용역을 준 목포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보고한 것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해양, 뭐 기후라든가, 지금 우리 그 완도수목원 같은, 그런 난대림숲 같은 것, 그리고 갯벌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각종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역사적인, 그런 유적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으로 등재를 해서 지정을 받으면…… 이것은 뭐 유네스코에서 별도로 이렇게 통제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 특산물…… 뭐 브랜드가치 향상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하고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금방 실장님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우리 지자체…… 우리 완도군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에도 다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뭐 뿔이라면 우리보다 신안이 더 앞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만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있는가.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 신안도 갯벌…… 다도해를, 다도해를 가지고 이제…… 신안도 유네스코로 등록이 됐습니다. 또 고창이 되어 있는데, 고창 같은 데는 전지역이…… 고창군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 완도도 고창 못지않은, 그런 다양한 생물자원이 지금 보전되고 있어 가지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더 큰 그런 가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잘 들었고, 이것은 우리 용역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만의 특색인 뭔가를 좀 많이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계속 언론에서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갑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예)

우리 군은 갑질이 없습니까? 직원과 직원과의 갑질, 민원인과의 갑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이제…… 우리 내부로 자정 운동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요 근래도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런 것이 없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지금은 제가……

□ 박인철 의원

지금 있는데 지금 없다 합니까, 실장님?

지금 있어…… 요 근래에 있었는데요, 갑질 문화가.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 박인철 의원

알고도, 실장님이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고 싶어서, 덮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 지금 계속 언론에 미투 문제, 갑질 문제 나오는데, 우리 군에 지금 갑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감사계를 통해서 점검을 지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요 근래 우리 군에서 생긴 일 아닙니까? 제가 저기, 뭐 일일이 딱딱딱 이야기는 못하겠…… 이 공개석상에서 못하겠으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갑질 문화가 지금도.

아니,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조직이 변해야 되는데, 지금도 상명하복식으로 조직이 가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가야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지금은 우리 뭐 위계질서…… 공직사회가 위계질서, 이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평적, 수직적보다도 수평적, 이런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많이 조직문화가……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수평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업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

어지면 좋은데.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이번에도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아니, 또 그런 부분에서는……

□ 박인철 의원

아니, 보고 못 봤습니까? 실장님은? 저는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보고를 못 봤습니까?

좀 더 조직이 창의적으로 가게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뭐…… 청에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교육들을 좀 해가지고 상명하복이 아닌 수평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수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복지정책, 통합조사, 경로복지, 희망복지, 여성아동복지, 그리고 드림스타트담당 등 6개의 팀에 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지원관리 등 26건입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차별과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이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주민복지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7년 하반기 인사로 각 읍면에 맞춤형복지허브담당이 신설되었었습니다. 그 정부정책에 걸맞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 인사로 해서 읍면에 민원팀을 없애고, 민원담당을 없애고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정책의 일환인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발걸, 찾아가서 직접 발걸 하는 그런 주민복지를 위해서 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각 일선 조직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개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는데 지금까지 맞춤형복지팀이 일선행정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례발굴이라든가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일선행정, 종합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복지…… 맞춤형복지담당…… 계장이라는 사

람들을 그 업무에만 전념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또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의 사무분장 권한인데요, 이제 직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게 민원실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봐왔던 가족관계업무라든가, 민원업무를 복합적으로 같이 업무분장을 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항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 원래 맞춤형복지허브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취지가 아니다. 그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분장을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5개 읍면 정도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고.

또 맞춤형, 이 복지허브화 사업과 관련해서 읍면 맞춤형복지 공모사업. 또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올 8월에는 5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 실질적으로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그 허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장 운영, 거동이 불편하고 대중교통이 좀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 사용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목욕장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이용도가 많이 낮은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목욕장기능 보강사업을 원하는 장소는 몇 개소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우리 군에 지금 공중목욕장을 지금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도하고 군외…… 이런 데를, 그러니까 4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8개 읍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목욕장기능 보강사업이 필요한 곳이 지금 4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면 같은 경우 지붕방수공사, 또 고금면 같은 경우는 목욕장의 온수시설 교체. 뭐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자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화읍에는 용수저장시설, 탱크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가뭄시에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그런 부분도 교체를 준비하고 있고,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전, 목욕장 전체를 또 다시 점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목욕장 같은 복지시설을 잘 관리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허정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복지와 영유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귀농, 다문화 등 많은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라는 현지에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이렇게…… 애를 출산하고 여가 활동이나 일을 하고 싶어도 맡길 곳이 없다고 해요, 도서지방에 가보면, 그다음에 애들이 놀 곳이 없다. 불안하니까 못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는 곳도 가보

면 좀 열악하더라고요. TV가 없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애를 맡기고 일도 하고 여가도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 어린이집을 말씀하십니까?

□ 허궁희 의원

어린이…… 영유아요, 어린 애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러니까요.

□ 허궁희 의원

애를 낳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애를 맡길 곳이 없대요. 보모가 없으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

□ 허궁희 의원

그래서 그래도 몇 번 가더니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안타깝구나.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젊은 애들이 더 시골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취학을 하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을 이렇게 좀…… 약산이나 청산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신지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지역구에서 해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빨리 끝나버리니까 좀 어정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예산도 좀 늘려서 안전하게…… 여가도 즐기고 시골에 살지만, 일을 할 때도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 허궁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선거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보훈단체 건물이 협소하다. 그 얘기를 제가 누차 들었는데 이 점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완도군 보훈회관을 말씀하시죠?

□ 이범성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이전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바로 군의회 맞은편에 있습니다마는 협소하고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훈가족들의 예우차원에서 국비를…… 보조를 받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이전…… 신축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훈단체가, 11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의견이 다릅니다. 한 목소리를 내도 국비에 산을 따오는 것이 보통 일도 아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로 군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분들 단체별로 의견이 이렇게 나뉘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편은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 지어도 무방하다. 군청 주차장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접근성 면에서도 여기가 좋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쪽과 “아니다. 읍면에서도 보훈가족들이 나와서 보훈병원에도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터미널과 가까운 쪽, 매립지에 지어야 된다.”, 그러면 매립지, 어디냐. 그것은 군 땅이 있어서 군 땅을 사든지 군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

저…… 주차장이 있는 곳, 거기 어디입니까? 그 대목, 거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조성은 매립지 교통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군에서 큰돈을 들여서 매입한 곳이고, 또 5일 시장이 서고, 평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곳인데, 거기다가 보훈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군민들의 의사와도 대치된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열 분 중의 아홉 분은 반대했고, 그런데 그분들은…… 한쪽에서는 결코 그쪽에다가 지어달라고 하고, 한쪽은 “여기도 무방하다. 여기다가 지어 달라.”, 그래서 보훈처에 제가 작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두세 번 방문을 했는데, 뭐 여기에다가 지으려 한다고 세부계획을 가지고 건의를 해서, 거의 다되어 가는 판이었는데 정부예산에서 깎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던 차에 의견이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다시 의견 통일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좋다. 우리도 1년 안에 짓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두고 보자.” 라고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범성 의원

더욱더 신경쓰셔가지고 빠른 기간 안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민원해결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 의장 조인호

예,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방금 우리 이범성 의원이 하는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단체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장소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가장 큰 의견은…… 아니, 가장 큰 문제는 그 단체들끼리 의견이 안 맞고요. 장소 문제는 우리 군에서는 가장 적절한 장소를 그 안으로 보고 추진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부지매입도 쉽거니와 건축해도 3~4층으로 올리면 충분한 면적이 나온다고 가설계를 뽑아봤고, 군청 넓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거기로 결정을 하고, 군의회…… 7대 군의회하고 두 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군의회에서도 “좋다. 저 자리가 좋다.” 라고 의결해주셨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매립지 쪽에, 그쪽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다면 군 계획상으로도 맞지 않고 군의회에서도 탐탁지 않고,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좋다. 그러면 더 좋은 부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당장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2~3년 후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그렇게 보류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군의회 앞에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지금 보훈회관……

□ 최정욱 의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만나본 사람들은 “저기는 절대 아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훈단체에서.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래서 일단 저도 어제 그 분들과 만나서 어느 정도 상의를 해보고 했는데, 자기

네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읍면에서 다 나오거나, 이렇게 자리가 서로 만나기 좋은 자리. 여기는 아니라고, 결국은 아니어서 여기가 지금 안 된 것으로 됐잖아요. 그분들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예)

그러면 앞으로 만약 합의가, 이쪽 말고요. 저쪽으로는 자리…… 어떤 합의가 있으면 할 계획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땅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원하는 그 곳은 보훈회관이 들어설 곳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저…… 읍사무소 옆에 말하는 것이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지금 주차장……

□ 최정욱 의원

지금 여기 있는 저…… 예전 한전 자리는 어떤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좁고…… 한전 자리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거긴가요? (예)

아니면 읍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말하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니요, 한전…… 구한전 관사인가. 옛날 구한전 사무소, 거기입니다.

□ 최정욱 의원

거기는 아예 안 된다고…… 거기는 왜 안 되는가요? 거기는 된다고 했는 말이 나와서

제가 확실히 듣고 싶어서.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니요. 구한전 부지…… 거긴데요.

□ 최정욱 의원

지금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읍사무소 옆에 주차장, 처음에 거기를 원했는데 거기는 안 된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거기는 안 됐고, 1차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당신들도 포기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한전사무소 부지,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부지. 거기를 요구를 하길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들어봤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립지, 그쪽들의 주차……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마련한 주차장인데. 거기에 1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2층, 3층에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여서. 또 결정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종합……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노” 라고 하면 우리 군청…… 군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그 보훈회관의 건립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잠시 보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이…… 심리라는 것이 누구나 더 좋은 곳, 비싼 곳. 좋은 곳은 비싸지 않겠습니까, 땅 값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적정한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기왕 물어온 것, 기왕 나왔으니까요. (예)

거기를 지금…… 다들 거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그런데 해결방법이 1층에 주차장이 그렇다면 1~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3~4층을

올리자.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했으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째, 그 이유가 주위…… 일부분 주민들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기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주차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닐까. 저는 다음에 조사를 해서 차분히 한번 토론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체 공청회가 (청취 불능) 전부 마음이 되어야, 어떤 일을 추진하지 않겠냐고. 일단 저는 그 정도로 던져놓고, 오늘은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마는 기왕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한번 나오면 다들 궁금해 하니까요, 또.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기왕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훈단체 입장에서야 당연히 더 좋은 곳을 요구를 하겠죠, 어떤 단체가 됐든. 그런데 그런 보훈회관이 됐든 어떤 장애인회관이 됐든, 이런 복지시설이라면 복지시설인데, 그 건물이 과연 그런 곳에 위치해서 그만큼의 어떤 생산적인 효과라든가, 어떤 효용성이 있겠냐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거기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고, 또 매일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 나오셔서 모임 장소, 내지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군청이나 의회같이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군민들, 인근의 주민들, 군의회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거기를 고집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 보훈단체, 그쪽이 원하는 보훈단체를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찬성을 하는 쪽, 여기다가 또 지어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절충점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당신들의 의견들을 좀 통일해서 오십시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짓지 못하고, 거

기도 짓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로 됐다.” 라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 해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벌써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됐을……

□ 최정욱 의원

예, 하여튼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차분히 좀 같이 검토를 좀 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 의장 조인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서무담당, 행정담당, 교류협력담당, 법무규제담당, 정보통신담당 등 5개 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직자 친절운동 지속추진 등 14건입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있어서요. 정원 27명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부족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여기 자연…… 정원이 부족한 것은, 결원이 발생한 것은 정년퇴직이라든지 자연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본인이 도중에 퇴직할 수 있고, 이런 사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중에 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읍면에 대해서요. 고금은 마을이, 33개 마을이 있고 인구가 4,500명 정도 되는데. 고금하고, 예를 들어서 생일 정도라고 하면 그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면사무소에서 근무 직원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 인구수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직원을 보낼 때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읍면의 정원 책정은, 일단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또 주민들의 어떤…… 사업 구조, 또는 수요, 행정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좀 검토를 했더니 고금에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정원을 좀…… 1~2명

더 늘릴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우성자 의원

고금은…… 그 면적에 비해서 농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지역에 가보면,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비교해볼 때 직원들이 정말 쥘 정도를 일을……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을 좀…… 직원들도 어느 정도 자기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원배정을, 조금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지금 이제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가고요. 인력운영이라든지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니,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성자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그 방송이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마을 행정방송을 말씀하십니까?

□ 우성자 의원

예, 제가 이장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예) 어떤 마을은 방송을 세 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안 되어있는 마을은 세 번 옮겨가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뭐 저기 마을이 이웃마을, 아랫마을, 또 아니면 저기 중간마을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세 번씩 그 방송할 경우에 똑같은 말을 세 번할 때, 엄청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을을 먼저 좀 골라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이장들도 효율적으로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까. 저는 제가 그 많은, 그런…… 이장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고금, 지금 4개 마을이…… 우리가 농촌개발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효율적으로 (칭취불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가지고 여러 번 방송하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조례에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충족해가지고 목적을 보면 행정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를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과장님한테 한…… 제가 했던 말이 있죠, 업무분장에 대해서? (예)

경제산업과 업무분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경제산업과 업무분장에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가스 및 안전관리업무, 신재생에너지 관련업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산업…… 세무회계과에 풍력이 나왔는데, 이것하고 무슨 관계예요?

앞전에 분명히 부군수님도 말씀을 해가지고 TF팀을 만든다, 뭐 한다더구먼. TF팀을 만들었습니까, 그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근거로 세무회계과에다가 풍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업무분장에? 그것에 대해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지금 그 세무회계과에서 풍력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마 세외수입과 연관이 있어서……

□ 박인철 의원

세외수입, 좋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보면, 15쪽에 세외수입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이 몇 가지입니까, 세외수입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이?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의원님,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132가지예요. 그러면 다 다른 과에서 다른 실에서 한 것을 전부 세무회계과,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조직개편이 됩니까? 조직을 효율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있는…… 우리 행정기구 조례로 있는 것도 안하면서 무슨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별도의 TF팀을 그 당시…… 제가 군수님은 이야기를 못하고 부군수님,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되면 TF팀을 만들라고, 별도의 TF팀을. 그래가지고 부군수님 답변, 기획실장님 답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TF팀을 만든다고 했어요. TF팀 만들었습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세무회계과에 주려면 세무회계과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주든가. 별도의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조례에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그러면 뭐 하려고 있어요? 이런 조례는, 행정기구 조례는? 그리고 이 업무분장은 왜 되어 있고?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금일, 그 풍력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완도군에서 MOU가 됐든, 다른 것을 체결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금일 것은 특별하고 다른 데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TF팀으로 끌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무회계과로 가려면. TF팀을 만들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다시 한 번 그 추진방식에 대해서 검토해서……

□ 박인철 의원

아니, 답변을 지금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합시다. 이것, 안 맞는 행정기구를 가지고 가냐는 말이에요. 이런 조례는 그러면 뭐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이런 조례는……

세무회계과에서 하려고 하면, 뭐 군수명의로…… 어떤, 그런 군수명의로 뭐 보낸 것 있습니까? 서류로?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특별한 업무면 특별히 그것으로 떼어가려면 군수명의로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떼어서 보내라고, 서류, 서류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있습니까?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보려고 본 것이 아니고 변환소 문제가 나와서 변환소문제하고. 그다음에 풍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MOU를 체결……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려고 서류를 경제산업과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 경제산업과에 없어가지고, 세무회계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왜 세무회계과에서 올라오느냐?”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을 다 부르니까 부군수님은 도에 출장을 가있었고, 기획실장님도 어디 출장을 가있어서. 그다음에 부군수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오는데, 인사를 왔으니까. 내 자리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예요. 또 다시 내가 한 번 더 이

야기해서, 질문답변 때 이 관계를…… 안 되면 TF팀을 만들어라. TF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업무분장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해 버리지. 각 실과별마다 업무분장이 다 나와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에서도 신재생…… 그 풍력이 신재생에너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풍력신재생에너지, 딱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데. 그 업무는 어디로 가버리고 경제산업과 징수팀에서 합니까, 세외징수라고 해가지고? 세외징수가, 지금 풍력이 뭐…… 전부 되어 있습니까, 세외징수하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132가지들, 세외징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전부다 세무회계과로 보내세요, 담당부서에 다 던져버리고.

이것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가 이렇게 딱……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까지 딱 해가지고, 개정하고, 개정하고 마지막에 2017년 6월 29일 일부개정까지 해가지고 만든 조례가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조직이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줘야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무엇을 만들라고 하면 군수 명의로 했든, 뭐로 했든 간에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도 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질문답변에서도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 저기 뭐…… 하반기, 상반기가 다 가버렸는데도 그대로……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훑어보니까 그렇게 세무회계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에다가 이 업무를 던져주려면 거기에 맞게 이것은…… 조례를 제정, 뭐야. 제·개정을 하든가.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런 것을 하려면 군 수명의로…… 이 업무만 떼어가지고 주라고. 아니, 그것도 안 해냈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까지 정리하려고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정 어려우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주라니까요, 거기로. 합법적으로 주라니까요. 조직…… 나중에 핑퐁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모든…… 그러면 이 풍력발전, 이것만큼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책임을 지게끔. 이것, 뭐니까? 경제…… 세무회계과 징수팀에서 정리를 하게끔.

아니, 이것 세외수입징수. 이 문자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이런 사업들을 여기서 말아서 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업무에 일관성도 없고.

이것 좀 연구해 가지고, 연구할 필요도 없이 좀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이것 어떻습니까?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누누이 이 문제를 강조를 했는데.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은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TF팀 구성을 하는 방안과, 또 다시 원래대로 하는 방안. 그리고 또 만약에 세정팀에서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자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저번에 부군수님이 그랬는데, 부군수님도 저한테 말씀하기로는 자리에서 분명히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직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보길, 노화 가뭄에다가 아주 바쁜지는 압니다. 그런데……

□ 부군수 박현식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내부적인 논의과정에서 그 사업자 측에서도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는 데서 좀…… 여러 가지 부탁한 것이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도 저희들이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사업자들하고도 고민을 하고, 또 우리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장좌리 수석공원에 가면 민주화동지기념비 문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을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진행사항이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거기 탑을 건립을 해서 준공까지 했는데, 상당히 거기 단체에서…… 그 기념비를 파손시켜서 지금 형사사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합의가 됐다고 해가지고, 철거해가지고 다시 세웠는데. 뭐 인위적으로 파손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번 철거를 안 했습니까, 그것을 다시 문구조정도 하고 잘못된 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그 뒤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안 세우고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합의를 위해서 자리는 한 2번 정도, 세 번 정도 마련했습니다. 원만히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었는데, 실제 건립해놓고 보니까 문구에 또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시비가 붙어서 형사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저기 제가요. 우리가 한번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안 했습니까. (예)

합의를 해가지고 그 문구를 삭제하고 넣은 것은 넣고, 또 민주화 동지…… 그 빠져 있는 명단도 집어넣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그것을 세웠다가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에 철거된 그 상태다. 이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후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합의한 문구가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상대 단체에서 그것을 파손시켰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뭐 파손됐고요. 철거했고, 형사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다 해나가려고 합니까? 이후, 그 이후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지금 이제 그…… 행정, 아니 사후적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뭐 사법적인 조치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청취불능) 그분들끼리 이렇게 합의점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원만한 합의를 계속 시도하지만 서로 감정이 급해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잘 처리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그 소녀상에 대해서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뭐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사장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평화소녀상은, 건립문제는 박인철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것, 건립주체를 관 주도보다는 민관 주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알았고.

저기 과장님. 올 초에 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죠, 공무원? (예)

지금 어떻게…… 그 진행 상황을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공무직 사무분장은,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과에서는 아마 사무분장을 했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결과도…… 우리 주무과로 제출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박인철 의원

전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최종확인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에 따른 뭐 새올 아이디어는 다 지급이 됐겠네요, 아이디어?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마……

□ 박인철 의원

이 관계는 제가 과장님한테……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출장도 못내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니, 그 업무를 보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공무원 전체한테 줬습니까? 아니면 업무 분장된 데에만 줬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분장된 데만 아마……

(“아이디는 전체 부여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전체 부여했다고……

□ 박인철 의원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우리 이동군수실이 있죠? (예)

제가 경제산업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상반기 때도 이동군수실을 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3월까지 추진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업무보고에 보면 완도읍, 노화, 소안, 보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전년도 질의답변시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완도가 꼭 어업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농, 수산, 축산 다 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있는데, 이 분들 하고는 한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진행도 안 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계획은 계속 가겠습니다마는 이번 지방선거식으로 해서 일시…… 중지가 됐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하반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할 때 다양한 분야로 해서 이동군수실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계획은 있죠, 하반기할 때도?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8월부터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 박인철 의원

하반기 때 군수가 이동군수실을 할 때, 꼭 그 수산분야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방면에 이렇게 구성…… 완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마 완도읍 같은 데는 수산도 있고 농업도 있고, 축산도 있고, 또 자영업자,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골고루, 군수님이 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좀 그런 자리를 많이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세정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재산담당으로 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세무회계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 그 복지후생 차원에서 직원관사 신축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그 신축한 직원관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지금 그 이후로는 보길면하고요. 저희 지금 현재 망석리하고 신축하는, 2건입니다.

기존에는 수리, 내부수리를……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지면 면장관사 외 직원관사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고금면 면장관사 옆에 한 동만 직원들 관사가 있는데, 좀 불편함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해 때나 태풍이 오고 그러면 좀 불

편한 사항이 많은데, 그 관사 신축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지금 현재 신축하는 30실을 가지고요. 신지, 고금, 군외, 채도권 주변에 교통여건이 되는 데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신축을 했고요.

신지면에는, 면장관사는 뒤편에 있습니다. 직원관사는 없기 때문에 직원관사는 통합적으로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고금면 면사무소 안전성 검사에서 D등급을 맞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청취불능) D등급 정도 맞으면 직원들이 좀 불안해하고, 근무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축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있으면 또 필요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읍면 관사 중에서 제일 오래된 고금면, 노화읍, 보길면…… 실태조사를 했었는데요. D등급을 맞은 보길하고 이제 고금면 관사가 지금…… 그중에서 또 보길면 관사가 고금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그래서 지금…… 어느 읍면을 먼저 이렇게 신축해야 될 것인가, 내부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한번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그 내부 조사했던 사항을 한번 설명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좀 (청취불능) 그 고금면도 좀 관사가 열악합니다, 40년 정도된 것 같아서. 신축해서 직원들이 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김양훈 의원님이 질의…… 지금 혼동을 했는데 관사가 아니고 지금 보길면사무소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관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아니, 보길면사무소가 이제 좀…… 3개 읍면 면사무소 중에서도, 노화읍하고 고금하고 보길하고, 이렇게 좀 노후화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D등급을 두 군데나, 고금하고 보길하고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조사하신 분들이 보길면이 더 건물이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 생각하기에는 어느 건물을 먼저 이렇게 조사를 좀…… 신축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서로 이제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했어서 신축을……

동시에 예산이, 이렇게 군비로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한 번에 설비해서 신축하면 좋은데, 예산상…… 문제를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예,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업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11일(수) 09시59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 민원봉사과
- 경제산업과
- 문화체육과
- 해양수산정책과

□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 민원봉사과
- 경제산업과
- 문화체육과
- 해양수산정책과

(09시59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

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담당, 지적관리담당, 공간정보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주택건축담당, 복합민원담당. 6개 담당에 14개 민원창구에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추진 등 총 16건입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군정 업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를 질문하실지 잘 아시죠? (예)

지금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풍력에 관해서 반대를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로를 이렇게, 도로..... 그 것보다 전사용허가라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을 주민들과는 전혀 뭐, 설명회나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내줍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그 부분도 이제.....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이 풍력발전사업 관련해서 관련 실과가 상당히 여러 개 실과가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안전건설과 소관인데, 그 전사용허가도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에 허가가 기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이 좀..... 빨리 착공하고

싶어서 굴착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건설과에, 그 주무관계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공사 중지토록 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제가 이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신지에서는 첫째, 제가 이제 반대추진위원장을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음 분한테 넘겨줬는데, 전혀 주민들의 그 목소리는 듣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승인이 날 때도,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잖아요? (예)

조건부승인 중에 조건이 뭐였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 허궁희 의원

민원해결입니다. 민원해결인데,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에 와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지역민들의 여론도 좀 들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파악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있음으로 우리 행정이 있는 것이지, 기업이 있고 행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고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해서..... 기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질문을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당초 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 사업추진하고 대화의 자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시 소위원

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몇 차례 모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로 주장한 바가 좀 다르고 그래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7월 7일에 소위원회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보상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를 기…… 이 사업을 했던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건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4년 자료다 보니까 우리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올해는 2018년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겠나 싶어서 안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사업지구를 한번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들하고 사업주하고 같이 견학도 하고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민원 부분도 듣고, 또 보상 처리를 했던 부분도 듣고 와서 다시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조만간에 원만한……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죠? (예)

지금 이 보고사항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신지면 동고리와 대곡리에 축사, 이 신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진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마는 어째…… 설명해줄 수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지면에 대형축사 허가신청이 2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동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현황과 지금 추진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2건은 같이 공동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고 축사는 총면적이, 건축면적이 7,921평방미터에 1만 3,517두의 대지를 길들이려고 사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1일 분뇨발생량이 약 69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30일날…… 아니,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접수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가축분뇨 법정기준보다 더 강화해가지고 환경피해저감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라는 공고로 해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지 동고에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 내에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토사유출로 해수욕장이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양식장 어업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지면 15개 사회단체에서 본축사의 허가를 반대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지면 동고 어촌계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고 어촌계에서는 사실상 몇 분이 이 축사를 찬성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견조율이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찬성했던 부분도 최근에는 반대 입장을 보임으로써 전주민이 서명한 탄원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고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완도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1차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재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재심의 의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도 지역의 청정해역에 또 어업권, 어장이 많고 그러는데, 피해가 예상되니까 분뇨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어떤 방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면 대곡 축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면 대곡…… 양천리 부락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건축면적이 4,207.2평방미터에 사육 두수가 9,015두입니다. 분뇨, 1일 분뇨 발생량은 약 46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 또한 관련 법령 및 관련 부서에 협의를, 진행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서류가 미비된 사항까지 이제…… 보완이 다 됩니다. 그리고 환경유역…… 아니,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도 이 양천리 축사 부분에 대해서도 가축분뇨 법정기준보다 환경피해저감 방안을 설계,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라는 등의 권고를 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 대곡리 축사는 주민사업설 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곡리 축사는 액화처리를 해가지고 위탁 처리하도록, 액화 저장해놨다가 위탁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축사이며 동고리는 자체 정화…… 해수를 정화해 가지고 바다로 흘러내리는, 그런 계획의 사업설계가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신지 대곡, 또한 신지면 15개 사회단체에서 탄원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리는 지금 현재 완도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아직 상정하지 않고, 다음 일정이 잡히면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 동고 축사 신축의 건은 진입로 확보와 분뇨처리시설 강화, 사업설명회 개최 등의 보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지 양천 축사의 경우, 액화처리 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고 현행…… 관련 법령에 크게 저촉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축사 하단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바다가 위치하고, 육·해상에는 수산양식장이 널려있어 악취가 없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냄새로 인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축사가 건축이 되어 양축할 경우 사업자는 액화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최근 인근 시군의 분사 증가사항에 비추어 볼 때 액화분뇨의 대량생산과 장마철이나 한파 등, 그리고 운송차량의 동원문제가 생겨 액화가 대량 발생되었을 경우 처리가 (청취불능) 경우…… 우수를 통해 가지고 무단방뇨할 것이 예측됩니다.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및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많은 가축을 땅 속에

묻어야 되고 이로 인해 침출수에 인한 2, 3차 피해가 예상되는 등, 결국 환경오염 및 어장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 우후죽순식으로 축사를 지으려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사허가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심히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말씀하신 그대로, 청정바다 수도가 바로 완도 아닙니까. 이런 곳에 그런, 아무리 시설을 잘한다고 한들, 그리고 앞으로 해양헬스케어나, 앞으로 큰 사업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허가가 한번…… 이 완도에 들어오게 되면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말 신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 정도빌딩이요. 완도읍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제1회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경도빌딩…… 경도빌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울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기울어져 있는 건물이 경도빌딩입니다. 지금 저기 시내, 주도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위험…… 특정관리시설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너무 기울기가 있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전지역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전지대가 아니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5층 건물이 이렇게 기울고 있어서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거비 및 매입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놓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저것은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모든 철거비라든가, 모든 정리를 개인이, 건물주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거부했을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해가지고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물주께서 도저히 자기 자금으로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철거를 못하겠다고, 그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다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등급이 나와 가지고 사용중지, 모든…… 거기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 철수시키도록 하는 2등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농협 365코너에 가가지고, 수정당이라는 보석당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시킨 이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법과 관계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는 개인이,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중하게 군민의 혈세를 바로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저번에 완도읍 사회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회단체장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급적이면 철거비 부분은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기 저 부분을 저희들은 주차장으로 매입할…… 주차장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라는 사회단체에서는 사회단체 사무실로, 다시 새롭게 건설해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후에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충분한,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라는 건물주께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이 되면 철거비를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저희들한테 전달했고요, 그런데 그 이하가 되면 철거를 못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과장님, 저번에 예산…… 뭐 할 때 건물주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어 가지고, 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그러면 전혀 진전이 없다. 이 말입니까, 저 건물에 대해서?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철거까지 저희들이 군비로 할, 그럴 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라든가 그 외에 일부 군민들께서 전적으로 다 해주면 특혜시비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건물주, 건물주의 성의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철거비라도 좀 부담을 해주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건물주께서는 조금 난해하다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어서……

□ 박인철 의원

거기, 지금 감정가는 나왔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아직 감정평가를 안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한정이 없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저는 안에 있던 365코너나…… 뭐 수정당 다 철거, 다 뽑아내니까 금방 우리 군하고 다 돼서 금방 철거가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저번 1회 추경할 때 건물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맞춰져가지고,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금방 저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것이 그렇게…… 바로 바로 될 줄 알았거든요. 저것을 그러면 건물주하고 전혀 대화가 안 되면, 뭐 한정이 없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아니, 대화는 아마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당초에 건물주께서는 감정평가가 나온 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체 다 군비로 부담을 해주면 특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철거비만큼은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군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인철 의원

저 철거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5~6,000만 원 정도.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저번에 저 건물 값은 아직…… 그 감정은 안 했으나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저 건물 뺄시기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저희들은 당초에 건물비는 한 4억에서 4억 5,000 정도……

□ 박인철 의원

그때 예산을 통과할 때 우리가 철거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물주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기예산도 있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빨리 좀 조치를 취해주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도에서 사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잘못하면 그 담당공무원이 구상권을 당할 수가 있다. 법적으로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이것을 해주게 되면 지금 감사하거나, 그런 방향에서는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구상권을 청구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면이 하나 있고요. 또 주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이게 “행정은 뭐했냐?”라는, 그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건물…… 기울어진 건물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재산 가치는 0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평가를 하게 되면, 또 건물의 가격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다. 물론 건물주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또 의회와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충된 부분하고 법 부

분, 그 다음에 우리 또 감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그냥 하겠다.”라는 말씀을 바로 드리는 것은 무리라고 좀 생각을 해서요.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저번에도 예산, 그 통과를 시킬 때 갑론을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안 하고 그때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는데요.

최근에 감사원 감사, 그러니까 도감사에서 F1경기장 주변에 그 민원이 많다고 해서 여관을 샀었……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구상권 행사까지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가까스로 좀 말을 양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감사…… 컨설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 도에서 와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굉장히 고난일 수가 있다. 다시 회수조치가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컨설팅을 하다보니까……

□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 도감사에서는 저 건물을 매입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 도감사에서는 보지 않고 사전감사는 우리 컨설팅……

□ 박인철 의원

예, 그 사전감사요.

□ 부군수 박현식

전체적으로 짚 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부분까지도 우리 직원 이 구상권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그러니까 매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잘 못하면 그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이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는 업무를 하지 않고 군에서 다해줬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그리고 책임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의원님께서 예산은 세워졌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바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안전권을 위해서 저 건물주한테 법적으로 뭐 조치할 방법은 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법적으로는 지금……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업주들한테 강력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철수한 것이…… 지금 수정당도 철수하고 365코너도 철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할 행정절차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 그것은 잘 했고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뭐 조그만 2.0, 3.0 지진이 안 온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 또 자체 기울어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이 도로가 아주 큰 도로가 아닙니까. 차 왕래가 많고, 또 사람 왕래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좀 건물주와…… 또 많이 의논해가지고 정리를 빨리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오. (예, 알았습니다)

저런 것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구상권을 청구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피해가 없도록 이런 머리를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조인호

예,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6~7대 때 예산을 통과할 때 우여곡절 끝에 진짜로 의원들 간에 그 언성이 오가면 서까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해서 좀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통과된 부분을 또 사회단체장들도…… 또 물어본다는 것도, 그것도 본 의장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서길수입니다.

경제산업과는 경제정책담당, 투자유치담당, 시장개척담당, 지역공동체담당, 교통행정담당 등 5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

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근해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등 13건입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두 가지 질문하고 업무보고에 없는 것, 두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지금 보면 수산물 24개 코너라는 얘기죠? 세부사항에서요. (예)

그 수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건어물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활어만 들어간 것입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 안에…… 어물전 코너가 있는데 어물전은 저희들이 7월 중에 상인 입점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는…… 건어물과 어물전이, 이렇게 제한두지 않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네요? (예)

선거기간에 민원이…… 자꾸 왜 건어물을, 거기를 뺐느냐고 질의가 와서, 저는 모르는 내용이어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농공단지…… 해양생물특화단지 분양이요. 지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현재…… 그 지원시설은 100%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총 11필지 중에 (청취불능) 9필지가 지금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 남측단지 부분에 분양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통해서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바닷물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안 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당초에 이 해양생물특화단지를,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지금 2차, 3차 가공산업 위주로 기업코드로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 했던 산업들은 가령 축청 농공단지 쪽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가공하고 하는, 그런 사업단지로 특화시킨 단지였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부터 폐수인입 관로가 빠졌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 지금도 그런 계획은 없네요? (예) 그래서 분양률이 낮은 것 아닐까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은 아니에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변환소요. 변환소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정확하니…… 우리도 이 말, 저 말 다 듣고 종합해서 어디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온 계기가, 어떻게 돼서 왔는가. 절차상이나, 이런 것 좀 하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변환소는…… 그 전원사업은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다음에 한전에서 그것을 2016년도부터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후보지가, 몇 개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후보지가 우리 완도였고, 완도에 변환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 2017년 2월부터 우리 완도에 예비후보지 7군데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한전 내부 규약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진행한 과정이 1년의 과정들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지난 2월 달에 전원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주민열람 및 공고 이후에……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국책사업이 어도 우리 지자체에…… 어떤 군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말 열람이나, 뭐가 되지 않았나요? 군민들은 지금 그것을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모를 리가 있겠느냐.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열람은 2월 달에 저희들한테…… 관련법에 의해서 그 지자체가 열람 및 공고를, 지

자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 공고를 거부할 때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대행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같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고했을 때 그전까지는 우리 군한테 문서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냈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후보지까지 선정……구성해서 선정하는 것까지는 한전 내부적인 절차이고 그 이후에 이제 주민 열람공고부터 해서 주민의견 청취, 그것은 관련법에서 절차를 이제…… 행정기관도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고 주민들의 열람과 의견도 절차에서, 그때 단계를 밟는 것이 2월부터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열람이라는 것이 한전의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서 우리 군에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군에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주민들한테 열람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은 먼저 물랐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전에는 그 내용 자체가 전체 우리한테 안 오죠, 군에다가.

□ 최정욱 의원

군에서 먼저 알아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안 되어 있는가요? 신문기재나, 이것 열람을

해서?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그 관련법에 전원관련촉진법에 보면 그 전원개발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자, 즉 한전에서 그것을 공고를…… 한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전에서 사업계획서를, 일단 했을 것 아니에요? 이래서 국책사업을 우리 완도에다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왔는데 지자체에 먼저 하지 않고 우리 군민, 뭐 위원회를 한전 측이 자의대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 전원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전소나, 변환소나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한전 내부 자체 지침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는 직접 한전이, 직접 위치를 선정을 해서 주민과의…… 그 다음 단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보다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내부 규약으로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그 부지에 대해서 한전에서 그 사업을 이후에 후속 사업을 진행하는 두 가지 안을 갖고 한전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내부적으로 두 번째 부분, 자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입지 후보지가 선정된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에다가 주민 열람 및 공고,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는데, 그 부분이 2월 달에 우리 완도군에 온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이제 자꾸…… 이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군이 모를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알면서 몰랐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이런 말들이 주로 나와요. 변환소는 제주도에서 남은 전력을 완도에다가 주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왔다. 지금 여론들이 그렇게 돌아서, 여기 군에나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 말은 그렇게 일부가 떠돌아요, 그 말들이. 그렇게 떠도니까, 그렇게 되면 한 쪽에서는 무능이 아니냐. 그것을 모르고 했다고 하면…… 일부 군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제가 들어봐도 그랬다고 하면 그러는 것이…… 또 의견에 대한, 저도 동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위가 있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 입장 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것은 군수님께서 수차례 이 변환소 관련 해서 입장을 밝혔듯이, 군민이 반대하는 변환소 문제는 군민과 함께 뜻을 같이하고, 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한전하고 산자부에 공문으로 서면 통보를 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백지화냐, 반대냐. 이제 이것 의견을 가지고도 많거든요.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어떤 것을 다는 것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부 군민들은.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것은 아닙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은 아니죠? (예)

예, 하여튼 이것은 차분히 저도 한 번 더 검토를 정확하니…… 다음에 자리해서 한 번 더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뭐하지 않게 백지화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요.

또 한 가지는 완도군에 출자기관이 지금 몇 개 입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출자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입니다.

□ 최정욱 의원

두 군데죠? (예)

제가 본…… 확인한 것은 전북주식회사가 하나 있고요. 또 화신…… 화신산업개발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지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이게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제3섹터 방식으로 우리 완도의 수산물을 대도시인 서울, 경기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판촉을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주식회사 완도 수산물유통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저희들 국비하고 그다음에 군비,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주식을 투자…… 주식을 매입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제대로 쪽 정착되어 왔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데 이게 진즉, 우리가 말로 망했다고 하거든요. 진즉 우리, 그것이 잘 안 돼서 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들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왜 이것을 잘못돼서 안 됐으면, 뭐 파산을 해서. 우리 출자기관에서 이것을 기재를 안 하던가요, 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투자한 돈 중에 국비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국비는 회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은 그 대표이사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군이 투자한 주식 수인데.

지금 회사가 법인이 만약에 망했거나, 부도가 났거나 그러면 청산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에 남은 재산에 대해 가지고 주식비율로 저희들이 그것을 배당을 받으면 되는데, 아직 이게 회사명의를…… 지금 화신개발로 이렇게…… 법인 명의를 바꿔서, 아직 법인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살아있어서 이대로 가나요, 계속 관리를 하고?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의 맹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지금 인척까지 대주주가 50% 이상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가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50%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완도군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표이사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데 그것이 뭐한 것이 2015년도에는…… 기회사가 망했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자산은 6억 7,600만 원, 부채는 4억 6,400만 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자산이 6억 7,800만 원, 부채가 6억 2,200만 원이라고, 이것이 연도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회사가 기망해 있는데, 지금 없는데.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법인이 살아있고 지금 거기에서 일부 호텔이나 몇 개를 이 화신개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결론은 회사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살아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서 이것을 파산절차를 안 밟은 이유가, 그것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군이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그게? 의미가……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표이사에 지금…… 거의 10년 이상을 대표이사를 만나고 2016년도에도 우리 군에서 그 회의를, 이사회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대표이사를 설득해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매수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회사가 아직 청산되거나 망하지 않는 이상……

□ 최정욱 의원

예, 어차피 이런 경우에는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파산절차를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죠. 이것을 군이 기재하고 출자기관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이 돼서.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인호

예,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농공단지 불난 데를 갔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관리사무소 운영 상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현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하반기에 신규 농공단지가 또 생겼고, 거기에 또 입주기업들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자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계속 농공단지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불난, 그 부분들도 개인 소유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농공단지 부분만큼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완도 수산물, 특산물 판촉 활동을 했죠? (예)

그게 4월 28일부터……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 판매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지금 전복 자체 판매 톤수는 약 1,700톤 정도…… 정확한 수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전복…… 지금 어가들이 조금 형편이 피었다고 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향후에, 그런 판매행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이제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관련 실과하고도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산업과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끝나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우리 전복산업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재생에너지 구성사업이 좋은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제가 궁금한 내용은, 허가를 내주는데 관리는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산림이 훼손돼서 바다가 온통 흙탕물이에요, 신지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 핸드폰에도 많이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장려도 좋지만 나머지 부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좀 듣고 싶어서 그러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이것은 아마 지자체의…… 혼자만의 문제

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정부 차원에서도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TV에서도 그 산림의…… 지금 태양광시설을 한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의 경사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고, 아마 그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허궁희 의원

우리 완도군에서는 그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특별한 방침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허가를 받은 자가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은 책임을 지게끔, 모두 허가를 내줄 때 부관으로 그런 것을 달아주기 때문에, 지자체보다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것을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면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아직까지 계획이 없나?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아마 보완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

□ 허궁희 의원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정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좀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안 낫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예, LPG 가스 가정으로 배관해주고…… 보조해주죠, 보수해서? (예)

우리 그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을 1차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 우성자 의원

아니, 65세 이상 많이 해주셨는데, 노령연금이 예를 들어서 자식들 앞에 뭐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좀 취약계층은 아니더라도 나이 드셨어도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이제 그 부분은 또 예산이 전액 국비기 때문에 사업량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고민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좀 그래서 여쭙본 것이고요.

그 마을기업하고 또…… 공모사업이 있죠? (예)

이렇게 그 사업을 주실 때 이것도 뭐 법안처럼 임원이 구성되어야 되죠?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최근에 신지 동고리에 그 낚시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가 많이 무분별하게 투척된다고 그래서 동고리마을 청년회에서 신호등 사업을 공모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부분 사업을 완료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수산물 판촉사업, 이런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일반적으로 판촉활동 (청취불능)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우성자 의원**

아니, 그러면……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건어물, 그런 것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과와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예)

그것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받아가지고, 결국은 개인이 다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것이 연관되었는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에너지 보급사업에 보면, 제가 생애 처음으로 여서도를 한 번 가봤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그러면 그 면세유류를 수급하는데, 소안 수협장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유류차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개인이 청산에 와서 한 사람이 올 때 한 시간 정도 걸린다더라고요. 그러면 수협하고 조율을 좀 해가지고 유조차량이 청산도에 다니더구먼요. 이런 부분을 한 대쯤…… 군에서도 좀 도움을 주면 도서낙지에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것은 소안 수협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예,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변환소하고 철탑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이 변환소, 철탑 문제는 산자부 장관이 주민동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했는데. 그 당시 서류로 산자부의 주무관하고 주고받은 것 있습니까? 제가 서류로 받으라고 했는데.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산자부에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다만, 구두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산자부 입장은 한전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주민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반드시 강조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구두로 이야기를 받았습시다.

□ **박인철 의원**

그 당시 전화상으로는 주민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만이……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사업승인을……

□ **박인철 의원**

사업승인을 한다는 산자부의, 그 주무관의 답변이 안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서류를 보냈는데도 답이 안 왔다, 이 말입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 부분은 이제 한전에서……

□ 박인철 의원

1차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뭐 산자부예다 서류를 보냈습니까? 우리가 답변 요구를 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누차 전화상으로 그것을 서면 답변 내용을 받기 위해서 문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한전에서 서면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 박인철 의원

아니, 한전 말고 우리가 산자부……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아니, 산자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현재 다만…… 현재 산자부의 입장은 “한전이 전원개발 승인신청을 할 때 주민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않고 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전화상으로만 답변을 받았다고요?

추후……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군의 입장이나 아까 침에 최정욱 의원님이 이야기를…… 답변을 했는데, 좀 더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 또 군수님의 생각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어필해 보십시오, 여기서.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우리 군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대책위하고 한전하고 첫 만남을 6월 28일 날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대책위가 한전에 요구한 내용도 있었고, 또 대책위에서도…… 아니, 한전에서도 “대책위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단은 대책위하고 한전하고…… 만남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향을 저

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고 한전예다가도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분명히 서면으로도 보냈고, 또 그 대표 전무가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군수님께 서도 확고하게 완도군민들의 뜻과 군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곡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경제산업과장…… 전임입니다. 전임이 있을 때 했는데, 완도읍장이 부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경제…… 주무담당 부서인 경제산업과장하고 완도읍장이 그 부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 나중에 보니까 들어가 있던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리됐냐는 그 말입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 뒤로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서……

□ 박인철 의원

아, 그것도 아직 조치를 안 했어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그 부분은 이미 대책…… 입지선정위원회 부분은 이미……

□ 박인철 의원

임기가 만료됐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정리가 돼서 끝났습니다. 역할이 전부 끝난 상황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대로 놔뒀다고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아니요, 그것은 한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확인해가지고…… 그때 무슨 법적근거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했는데, 이런 모든 오해의 소지가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었거든요. 이런 데에서부터……

그래서 어떤 산자 본부에서 뭐 법이나 전 원촉진법, 이런 데에서 우리 군에서 경제산업과장이나 아니면 완도읍장이 부지선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 참석을 해야 할 어떠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가.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법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한전 내부의……

□ 박인철 의원

한전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이 따라간 것이죠?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한전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기관에다가……

□ 박인철 의원

아니, 우리가 저기…… 서길수 과장이 아니고 그 전임과장이 했는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런 또 회의를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군수를 대신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 참석 안 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아, 참석을 했죠.

□ 박인철 의원

서길수 과장님도 참석을 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저도 한번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고품의 소지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보니까 군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던데, 확실하게, 확고하게 가져가십시오. (예)

그리 하고요, 완도 해양생물단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금년 1월에 됐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 준공할 때, 제가 그 도면을 안 봤는데, 그것이 제대로 준공된 땅입니까? 아니면 암반이 나와서 그냥 편의 위주로 된…… 다른 준공입니까, 그 준공이?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이제 공사…… 전체 부분은 시공에 대한 그 준공검사는 감독공무원이 내부 전체적인 부분을 다 확인하고……

□ 박인철 의원

아니, 땅을 팔아…… 제가 말을, 좀 뭐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땅을 파면서 땅 편차가 1M 80이 나오고, 그러면 그 땅을 분할 받은 업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입주업체들은 어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토목비만, 공장을 짓기 전에 토목비만 1억 5,000, 2억씩 들어가게끔. 제가 아침마다 출퇴근하니까 보는데 지금 공공건물 그 입주…… 그 업체에도 석축을 쌓아가고 지금 맞추더구먼요. 석축이…… 그 업체에도 한 1M 20에서 30…… 저 밑에 멸치가공공장은 제가 보니까 땅을 한 1M 80 정도로 파가지고 수평을 맞췄더구먼요. 이래가지고 땅을 분양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이래 가지고 저는 그 도면을 못 봐서…… 제가 원래 뭐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보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분양하는 이유가. 땅 값도, 쌀 땅값도 아닌데.

우리가 농공단지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뭐니까? SOC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 농공단지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물단지도. 과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전혀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입주업체들이 바로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목사업을 다시 하고 있더라는, 그 말이에요. 개인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당시 해조류박람회할 당시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급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도면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내역서하고 도면…… 감독공무원하고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우리가 상식선에서 봐보면…… 아니, 한 땅에서 땅 편차가 1M가 나오고 얼추 많이 나오는데, 2M씩 나와 버리면 그것을 복개를 하든가, 아니면 깎아내리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세상에 관에서 해양생물단지라고 해가지고 분양을 하면서 이런 땅을 분양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뭐…… 저번에 분양가를 산정할 때도 저도 위원으로 갔습시다마는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금방 다 분양이 된다고 했는데. 저…… 누가, 저 땅을 분양을 받겠어요. 분양을 받아가지고 누가 쉽게 공장을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도로 있고 전부 땅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편차들이 있던데. 이래 가지고 준공을 해가지고 땅을 분양한다는 것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가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전체적인 부분을 더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농공단지에 법면사면에 대한 부분, 감보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 그것은 저도 봤어요. 이러 이러한 땅이 된다. 그것은 회피성이고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이 이런, 이런 것을 이유를 들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분양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다 했더구먼요. 분양받은 공장…… 지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전혀 안 맞는 땅을 지금 분양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좀 말하기는 그렇습시다마는 이것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공장을 짓는 것보다 땅을 만드는 값이 더 들어가 버렸는데, 더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해양생물단지 딱…… 하나 공장을 짓고 있고, 한 군데 경찰서 앞에는 한 번……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가보십시오.

석축을 쌓아가지고 거기도…… 거기도 몇 천만 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관에서 하면서 이런 땅들을 분양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그 뭐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우리가 공업용수라 합니까, 공업용수? (예)

이런 관로들도 전혀 맞지…… 그 땅, 필지에 맞지 않게끔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A라는 부지에서 B라는 부지로 공업용수가 갈 때는 남의 땅을 직통해서 가는, 그런 형식들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서 보면, SOC시설도 다 했다고 해놔는데. 가서 보면 했기는 했는데, 저는 이치에 안 맞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땅들이 어떻게 준공이 됐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

입니다.

처음, 애당초 지질조사를 할 때 해가지고, 암반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도 들어가 가지고…… 제가 처음 이 해양생물 단지를 할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이 분양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했을 때는 저런 형식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암반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런 형식으로 땅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물론 그 앞에 무슨 양식장들이 있고 그래서 발판을 많이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땅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땅이, 저런 땅들을 분양했다는 것은……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이 전체적으로 그 당초 계획 도면에 맞춰서 사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양한 땅 중에, 일부 그 분양 받은 사람이 땅을 임의로 훼손해서 하는 부분도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 박인철 의원

그런 것은 원상복구를 시키면 되고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지금 하는데…… 제가 그 옆에 땅들도 한번 봐봤어요. 그 옆에 땅들도 봐보니까 대다수 땅들이 편차가 그렇게 나있더라는 이 말입니다, 땅들이. 큰 땅들은 아니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편차가 6…… 뭐 30도, 40도 편차로

는 그냥 쉽게 나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쓰기 위해서 이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돈들을 들여 가지고 다시 땅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꼭 좀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도면대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었겠지만 도면대로 됐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그 결과를 꼭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그…… 조금 전에 1페이지이고, 1쪽을 보면 연근해조업선단 들어오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숫자로 나열하지 말고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선단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연승입니다. 제가 통영을 금년 상반기에 2번을 가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 연승선단이 완도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업구역에서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의 제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완도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런 말을 작년…… 제가 하반기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도 들어오지를 않아서, 제가 통영을 가서 문제를 물어봤더니 가장 큰 것이 위판시스템입니다. 지금 선단이 들어와서 고기를 선별하고 포장을 해서 여기서 자기들이 차에다가 실어서 보내는데, 이 부분 전부를 선주나 선장이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포장하는 사업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선별하는 아주머니들을 구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게…… 비용에 대한 처리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선장과 선주, 선원간의 결산하는데 있어서 불신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름을 받는데 있어서 너무 장시간 대기하고 불편하다. 그리고 항에 들어오는데 있어서 항을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세 번째는 하역하는데 있어서, 이 외지

선단하고 지역선단하고 차별화…… 텃세로 차별화를 둔다. 이 크게 네 가지가 가장 큰 문제여서 통영, 삼천포, 군산에 연승 배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문제는 다 나와 있구먼요, 과장님.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이 문제를 금년에……

□ 박인철 의원

거기에 대해 답을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답.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 답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회의를 두 번 거쳤습니다. 수협, 그 다음에 노조, 하역 회사 전체를…… 그다음에 항만담당하고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나중에 그것을 전부 하고, 세금계산서에서 (청취불능) 수협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분도 유조차로 해서 불편하면 (청취불능) 넣을 수 있게끔 유조차를 금년 중에 수협에서 하나를 더 구매하기로 했고요. 그 완도항 내에 각종 낚시협회 등 어선협회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일정구간을 선단들이 들어와서 하역하고 할 수 있게끔 전용구간을 설정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위치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위치는 지금 수협 쪽, 그쪽으로 해서 하기로 했고요. 나중에 해조류센터에 있는 데, 그 부근에 바지선…… 다시 부잔교가 하나 더 개설이 되면 낚시어선…… 선박정리를 해서 여유 있게끔, 항내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 박인철 의원

제가 업무보고나, 질문답변 때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완도 항구가 절대 작은 항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산업과하고 도서개발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배치만 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역할 때는 그 공간을 비워놔다가 어느 선박이든지 와서 하역하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접안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좀 우리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현재 통영 선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 선단들이 들어오면 우리 경제가 그만큼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또 이야기해가지고 그 방치된 그물, 지금 또 여름철, 휴가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 부두를 사용할 때, 물양장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구먼요.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관광정책과장 안봉일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관광정책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추후 우리 완도 관광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현재 용역계약을 해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용역계약의 그 주내용과 가장 중점적으로 지시한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우리 완도군의 관광…… 환경이 장보고대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동부권, 장보고대교를 이용한 동부권 관광활성화 계획과 완도 군외 등 체도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계획, 그다음 노화, 소안, 보길 등 남부권 관광계획, 금일, 금당, 생일을 중심

으로 한 해양관광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책자에 수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용역 중에 있고요. 7월하고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의회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그러면 혹시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완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강진에서 강진을 걸쳐서 고금이나 가고 싶은 섬, 생일, 금일, 약산, 동부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동부권, 그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우선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고금 청학 권역을 체험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해볼까하고, 생태녹색체험…… 청학동 유자체험마을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토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설명을 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런 관광상품들을 고금, 약산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많이 개발해서, 관광계획을 좀 수립해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꼭 잘 실천돼서 우리 완도 관광 자원이 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까마는 제가 7대 의회 막 들어와 가지고 신우철 군수님한테 질문답변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지역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더군요, 업무가.

지금…… 완도타워에서 신지 상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신지 상산에서 명사장까지…… 지금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타워에 설치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아, 모노레일. 이것을 하자고 해가지고 용역을…… `18년도 1차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추정…… 2회 추경에 그 용역을 좀 확보를 했습니까, 용역비를?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이제 군수님께서 선거 공약사항으로 해상케이블카 설치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관광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과로 배정이 됐는데요,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이 밑거름이 되겠네요, 그러면 케이블카에 대한?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자세한 지반조사를 해서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예산이 통과되면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준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 업무 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면 빨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서 빨리 빨리 진행을 좀 시켜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고요, 지금 토요일싱싱콘서트를 하는데, 열심히들 하고 있죠?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볼거리는 둘째 치고 먹거리가.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민들이 장사하고 있는 그런 메뉴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먹거리가 좀 빈약합니다.

그런데 뭐 막걸리 한 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김밥을 판다든지, 뭐 그런 쪽을 좀 더 보완해서 먹거리장터를 더 보완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저번 우리가 가을빛축제도 그러하고 전년도 싱싱콘서트도 하고, 우리가 볼거리가…… 무대가 끝나면 그냥 그대로 흘러져 버리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거기에다가 잡아놓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보고만 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쓰고 가야 되는데, 쓰고 가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년도도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여수 밤바다해가지고 여수 포장마차, 이런 쪽을 다녀봤는데, 우리가 환경은…… 여건이나 환경은 여수보다 좋거든요,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가하시는 분들하고, 뭐 어떤 자리를 한번 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저희들 외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인근에 상가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런 메뉴를 선정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추세를 보면 싱싱콘서트에 참석했던 분들이 끝나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인근 뭐 맥주집이라든지, 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남아서…… 보면

우리 군민들이 최근 손님들이 한 30% 이상은 주말에, 또 증가했다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먹거리장터는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주말 싱싱장터라고 했는데, 자꾸 앞전에도 뭐 어디입니까? 마량…… 그 주말장터를 비교해서 자꾸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마량에 비하면 우리 여건이 훨씬 좋거든요, 우리가. 마량은 협소 안 합니까. 거기 마량은 뭐 100여분만 있어도 딱 차는 느낌이 들고, 우리는 저기다가 1,000명, 2,000명을 풀어놔도 딱 찬 느낌이 안 들 정도인데.

그래서 먹거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상인들한테 또 뭐 나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한번 포장마차를 해봅시다, 한번. 우리가 어렸을 때는 포장마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격화된 좋은 식당에 가서 먹을…… 먹을 분들도 있을 거니와, 또 그런 분위기를 즐길 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 좀 유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자꾸 과장님이 아니고 전임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과장님에게도 몇 번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깊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금주부터 다양하게 음식…… 포차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완도전복거리 조성은 그냥 그대로 다 마무리된 것이죠?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일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노면 부분이 이제 도로…… 자재가 울퉁불퉁해서 걷는 분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저기 그…… 도로 바닥 추세가 외국에도 전부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렇게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고요,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복조형물 뒤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화단을 좀 보완하고, 해서 완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노화 건강테마촌,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현재 노화 기관단체, 그 사무실로…… 사무실이라든지 운동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쪽에 꽃밭을 조성을 하고 2단계 구간은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을 해제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박인철 의원

그 기간이 도래됐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변경 기관이?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8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거기다가 뭐 테니스코트장도 만들고 뒤편도 만들고 그런다…… (예)
그러면 목적과 전혀 따로 가죠?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그런데 저희들이……

□ 박인철 의원

지금 준공은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준공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준공도 안 됐는데 벌써 지구단위 변경을 들어가고, 뭐 지구단위 변경도 안 됐는데 우리 군 예산에서는 거기다가 뭐를 한다고 예산까지…… 그 담당부서하고 예산계에서는 뭐를 보고 예산을 투자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의회에다가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역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까지 다 통과시켜 주었는데, 지구단위 변경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돌고.

제가 왜 물어보냐면 갈꽃섬 오감,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가 전복 체험장으로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는데. 이 갈꽃섬도, 여기도 지금 처음 애당초 목적과 다 틀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뭐 하나 하나 지금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건강테마촌…… 사업은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고시공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건물을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노화읍, 그 단체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기…… 사업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제대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만큼은. 돈이 뭐 1~20억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돈을…… 투자는 많이 해가지고 전혀…… 투자 값어치, 가

치를 못 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갈꽃섬도 애당초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기획실, 기획…… 뭐야, 문화관광과도 모르게 기획 예산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된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애당초 우리 의회한테는 군비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군비도 뭐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가 또 되어서……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어 버렸는데.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이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순수국비만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업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군에서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 군비…… 국비를 반납하기가 뭐하니까 지금 우리 군비해가지고, 이렇게 장소변경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그 국비가 좀…… 금액이 좀 이렇게 많고, 또 반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나중에 또 사업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거든요.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중에서 국토부에서 갖고 온 국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오다 보면 다른 꼭 필요한 국비를 또 못 갖고 올…… 이것을 가져오고 다른 것도 많이 가져오면 좋은데 우리 재정이 그렇지 않다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은 문화관광과, 우리 과에서 한 것…… 앞전에 기획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준 것으로, 관광정책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심도 있게 같이 해나갑

시다.

□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예,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 역량을 다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명성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평생교육담당, 스포츠산업담당, 미디어…… 영상미디어담당, 문화재담당, 체육시설담당, 군립도서관담당, 유네스코지정TF담당 등 7개 담당,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00세 시대 평생학습관 운영 등 총 18건입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정욱 의원님.

□ **최정욱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리 어촌민속전시관이 있죠, 저쪽 정리에? (예)

거기 여기에 속하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아닙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닙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죄송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장보고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 **의장 조인호**

예,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 호국정신 계승하고,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존하는 작업은 아주 높이 살만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좋은 관광자원도 관광객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묘당도도 저도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소통하는 자리였고 관광지라고 하기는 좀 어설픈 정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리를 듣고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가령 기념공원을 조성하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아오고, 그런 걱정부터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과 진린 장군 선양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 자료는 어떻

게 조사가 됐고, 또 묘당도, 1년 관광객 수는 얼마나 찾아왔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 묘당도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지난해 8,000여명이 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묘당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로 가게 되면 이순신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준다. 왜 그러느냐? 자, 이순신 사업은 경상북도 쪽에서 엄청난 재산을 가져와서…… 수백억 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붙인 것이 진린사업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국도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중국에 지금 진린 장군 후손들이 중국 분이 아니고 해남에서도 거주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 황조리에 거주하고 있는 진린 장군 후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완도에 (청취불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자기들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진린 장군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해서 갖추게 되면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쪽에 우리나라 부산, 여수 쪽에서 올 수 있는…… 마량 쪽 다리도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이런 (청취불능) 복원작업을 통해서 그 묘당도 기념공원이 건립되면 어떤 방법으

로 관광객들을 이렇게 또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8,000명 정도라고 그러셨죠?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지금 현재 8,000명 정도인데, 지금 이제 그…… 진린 장군과 이순신 장군 쪽에 이제, 그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사업들,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국인도 물론 유치를 하지만, 중국 쪽 관광객들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할,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다가 중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고금면이라든지 우리 그 여러 가지 기념물 보존, 이 충무공…… 보존위원회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의원

그 홍보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묘당도가 우리 군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로 되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금면에 체육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단체가, 11개 단체에 한 800여명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를 가지고 서로 동호인 간에 다툼이 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그 고금면 체육센터 부지 밑에 저희들이 한 3,000평 이상 정도 부지가 매입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 어르신들이 하는 그라운드골

프로 인근 강진에 가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하면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쫓겨서 다시 이렇게 완도읍으로…… 또 옆에 있는 학교는 수업 시간이라서 못하고, 주위 인근 체육시설로 운동을 하러가는데,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고금면 그 부지에다가 체육…… 축구장이나 족구장. 지금 고금면 족구팀들이, 한 B급 이상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들도 와서 같이 훈련도 하고, 이렇게 동호회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그라운드골프까지 한꺼번에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하나를 설치해주시면 어떨겠느냐.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그 부지에 대한 것이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읍면장하고 협의를 한번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검토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신지 명사십리쪽에 스포츠단지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이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가 한 두세…… 구장만 갖추어 놓으면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쓰고, 겨울에는 전지훈련으로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저는 봐요. 실제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전에 군에서 그쪽 상왕산 밑에 쪽에 땅을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용

도로 쓸 계획인지는 모르나,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꼭 거기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저기 불목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운동장…… 구장을 설치해 놓고, 그런 것을 보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런데…… 전혀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하고.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전에 (청취불능)

□ 허궁희 의원

예,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거기 지금 예전에 건강테마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놓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매입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을 저희들이 대한체육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육인 교육훈련센터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원래는 동계 전지훈련장인데, 동계 전지훈련장은 문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체육인 교육훈련센터로 해가지고 전지훈련장을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한체육회장이 한번 오시면 그쪽으로 모시고 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추진 좀 잘해주시기 바라구요.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거기에 좀 한 가지를 덧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지 같은 경우는 참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책만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놀이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더라, 주위에. 그러면 애들이 도로나 이런 곳으로 나가지도 않고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로 하더라. 이 어린 이놀이터가요. 크게는 필요가 없고 몇 가지만 해서라도 그렇게…… 애들이 공부도 하고 머리로 식히고, 그런 일석이조의 자리를 만들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것은 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면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여러 차례 (청취불능) 있습니다. 잘 좀 추진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입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해양수산정책담당, 유통가공담당, 해양자원담당, 해양보전담당, 해양헬스케어담당 등 총 5개 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등 20건입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해양수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해양수산정책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고생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전복산업 쪽으로 전복주식회사와의 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항간에는 전복주식회사와 완도군 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지금 따로 논다고 어민들은 좀 애기가 자자합니다.

추후 그 관계개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전복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7대 의원님들 안 계시고, 일곱 분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전복주식회사는 2009년 3월 26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을 할 때 우리 전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또 전복 가격, 수급 조절, 또 과도한 (청취불능) 예산. 이런 잘못된 그런 관행을, 또 전복산업을 좀 발전시켜 보고자 우리 전임 김종식 군수님이 계실 때 민관합작 공동출자 형태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2009년 3월 26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립될 당시에,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딱 실망스럽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망스럽게 운영이 된, 그런 부분들이 최초로 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 전복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전복주식회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전복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인사와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완도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완도군 통제에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2016년 1월 달에 우리 완도군의회에서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 달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행정자치구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제가 감사계장을 한 2년 하면서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자체감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의회에서 나서서 이 부분의 조례를 전면개정하고 “인사와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전부…… 전면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그리고 감사원이나 여타 행자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감사한 부분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을 지금 현재 이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제가 2016년에 전문위원 시절에 의원님을 보필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1월 달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아직……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3일에 전복주식회사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동안에 전복주식회사를 잘못 이끌어온 감사이

사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구성한 지가, 이사회가 구성된 지 한 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 운영되어 온, 그리고 전복주식회사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좀 변화를 시도해서 우리 주주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좀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군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느 선까지 그게 지금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사업체로 변모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사업 구상들을 정확히 살피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우리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는 지금 현재…… 5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 국비 25억 원, 군비 25억 원해서 50억 원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됐고요, 추가로 그 시설 안에 급속활급랭, 급속 동결 장치 시설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내년도 국특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그러니까, 국특사업비 10억 원하고 군비 10억 원 매칭해서 20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전체 70억 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지금……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금년 11월 중에, 지금 현재 설계공모 중인데 설계공모 당선작이…… 당선되면, 당선작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11월 중에 건물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다 되어서 지금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사업은, 주핵심은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주핵심은 전복이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복하고, 또 다른 어류 부분하고 같이 해서…… 같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도 25억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주식회사에 그…… 관리하듯이 또 수출물류센터들을 조성해가지고 70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또 관리상태가 그렇게 된다면 전복산업은 아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우리가 책상에서 논리적인 여건만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어민들도 만나고, 또 가공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좀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범성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복주식회사에서, 지금 아마 밖에서도 전복주식회사 대책위원인가 뭔가요 지금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그

정도로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잘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잠깐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전복주식회사를 이끌어갈 것인지.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지금 현재 전복주식회사가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었죠. 덤 부분도…… 지금 예전에는 30%니, 어쩌니 했는데 지금은 현재 한 17%대에 맞춰서 하고 있고, 뭐 결재부분도, 지금 예전에는 3개월, 6개월 그랬는데…… 지금 현재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향후…… 지금 저희들이 전복 소비촉진을 위해서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월 4일 군수님하고 전라북도 김제시를 다녀왔는데, 그 식품회사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대기업에서 (청취불능) 해서 그쪽으로 주문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기 회사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가 전복볶음밥, 냉동전복밥, 이것을 개발해보려고 군수님하고 7월 4일에 김제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품 중에 통새우볶음밥이라고 연간 한 400톤 정도의…… 그런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대표하고 협의를 같이 하고 왔는데, 지금 그쪽에 전복볶음밥, 냉동전복밥 개발을 위해서 신제품을 저희들이 그제 갖다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2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데. 그래서 제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단가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책정을 하고, 그리고 손질해서 공급하는 원물, 그런 부분에 제품을…… 이제 유통, 제품화해서 상용화하면 전복이 아마 그쪽에서……

물론 시장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500톤 이상 소비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간역할을 전복주식회사가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그 회사에 그 원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적게 들이면서 상품 제조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복을 손질까지 해서, 자숙해서, 절단해서, 냉동해서 공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산자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서 그것을 공급하기까지의 또 중간역할을…… 일반 유통업자나 아니면 일반생산자가 그것을 하게 되면 단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군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복주식회사가 공적기능을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전복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전복주식회사로부터 하계끔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복주식회사가 그렇게 되면…… 물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약간 손해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군이 또 출자를 하고, 또 우리 어민들을 위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전복 소비가 잘 안 되는, 그런 미수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작업하게 하고,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전복주식회사를 활성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유통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전복주식회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준비는…… 그러니까 적자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서라도 한다는 것인가요? 그 보조계획은……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적자가 발생할지, 아니면 지금 뭐 손해가 발생할지, 어떨지는 봐야 됩니다.

우선 단가 부분이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협의의…… 우선 일반원칙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부분이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조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복주식회사가 그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안 되는 그 미수 위주로 공급을 해서, 작업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하면 거기 생산자도 도움이 되고 중간에 전복주식회사가 공적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 최정욱 의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정관에…… 제가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주식회사나 잉여의……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잉여를 내야만이 주주에 배당도 하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데 과연…… 취지에 맞는, 방금 그런 말한 사업이 과연 잘될 수 있을지, 그것을 아주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잘해야 될 텐데, 그것이…… 그런 의지는 있는가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예산은……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가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전복주식회사는 첫 번째 목표가 이윤추구가 아닙니다. 물론 회사니까 이윤추구가 목표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전복주식회사 설립목적과 취지가 공익성,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관합작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선 공공성을 좀 더 우선시해야 된다, 공익적 부분을 우선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정관을 변경해야, 안 되는가요? 해

서, 어떤 지원을 꾸준히 그렇게 해가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정관은 그렇게…… 평범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전복주식회사나 여타 일반 수산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민간단체나 어업인들에게 전복주식회사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전복주식회사를 좀 활성화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몇 가지를 말해보라고 해서, 제가 이 사례를 방금 공개를 한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하고, 의지만 잘 가져주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수출물류센터 관계에 대해서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것 좀 궁금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게 지금 이게 시설은…… 군이 시설을 하고요. 어차피 이것은 군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는 군이 시설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운영할 위탁운영사업자를 모집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운영, 위탁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건물을 짓고, 우선 구체적인 기본 틀을 공고할 때 사업자 모집하고 홍보할 때 구체적

인, 그런 내용들을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아직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제…… 적조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시설이 되어 있는 집들에는 전부다 액화, 그것보다도 큰 탱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일부 영세업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조가 오게 되면, 단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액화탄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좀 미리 확보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가정에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서……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그 육상해수양식어가에 액화탄소공급기를,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순수군비사업으로 하면 군비를 많이 늘려서 하면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국비하고 좀 섞여서 매칭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라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꼭 닥쳐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도움을 준다고 말을 했으면 해도, 실제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설치하기가 뭐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고.

한 가지 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내용은, 지금 톳양식이나 다시마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금년에 예년하고는 달리 물 수거 작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물을 수거해 와가지고 버릴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에다가 놓으면 다시 물이 나면 이게 나가서 다시 감기고, 이것이…… 호소를 굉장히 어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어도 어촌계장님들과 대화를 한번 나누시게 되면 아마 해소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해봅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와 관련한 물이나 팽생이모자반, 이런 처리대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처리할 예산도 조금 확보도 좀 하고, 그리고 관계되시는 분들, 여론을 좀 수렴해서 이 사업 관련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해양수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12일(목) 09시59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 수산양식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부의된 안건

<제3차 본회의>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 수산양식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의장 조인호

(09시59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주요……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양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양식과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안녕하십니까? 수산양식과장 추관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수산양식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양식과는 양식기획담당, 해조류담당, 어패류담당, 어업지도담당, 해조류박람회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영역은 양식산업의 기반시설 지원과 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해조류, 전복, 광어 등 지속가능한 생산 측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 대책 등 15건입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수산양식과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수산양식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의 제일 고충이 전복생산 단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저희가 주도한 전복판촉행사로 인해서 전복가격

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10월에는, 해마다 보면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보니까 전복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전복…… 소비촉진을 어디까지 또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전복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있었는데, 5~6월 달 공직자 전복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서 평균단가가 한 1만 8,000원, 1만 9,000원이 한 2만 3,000원…… 한 2만 5,000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 시기 이후에 갑자기 중국, 4~6월 달에 중국 수출이 됐었습니다. 중국 수출로 해가지고 한 700톤 정도가 들어갔는데…… 중국 수출이 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생산지의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저하들이 지금 금년도 8월말까지는 한 8,000 정도 출하를 하고, 특히 10월, 12월도 한 4,000톤 정도의…… 지금 현재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 판매를 하고, 출하를 해소시켜야 될 부분인데,

우선 지금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 하나는 어떻든지 현재의 상태에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또 지금 다음주 17일은 전복데이 행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하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좀 출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정한 시기에 많이 출하되는 시기는 가격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전복이 많이 출하된 시기에는 원물 구매자금을 좀 확보해가지고 수출이나 냉동,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팔리지 않는 사이즈는 저장했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수산물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원물 구매자금에 이용한 가격지지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수출도 수출인데, 산지의 가격이 떨어진 가격에서 수출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산지 가격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출하를 할 때 한번 출하할 때 30미 이상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율이 보통 3%에서 7%입니다. 그러면 한번 출하할 때 출하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면 30미 이상 사이즈가 한…… 많으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밖에 점유를 안 하거든요. 이 사이즈가 상당히 가격하락의 요인, 전복 이미지 실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유통 관련해가지고 출하를 금지시키든가. 아니면 그 가격을 더 이렇게 높이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평균단가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어 볼게요. 이번 지속가능한 친환경양식 ASC, 그 14가 어가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7월 말까지 바쁘신 것 같고, 빨리 저는 완도군 어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앞으로 전복뿐만 아니라 완도의 수산물은 AS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ASC 인증, 이 자체를 완도수산물의 브랜드로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선포식도 하고, 또 확대 AS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조류양식 산업에 대해서요. 매생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에 약산이 우리 지역 구다 보니까 그쪽을 방문했는데 생산어가들이 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브랜드화가 안 되어있고, 규격화가 안 되어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봤을 때, 초창기는 가격이 좋아요. 완도군이나 아니면, 저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다시피…… 이런 내용인데 말미에 갔을 때는, 유통구조가 아주 안 좋아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 양식협회에서도 이 당시 판매를 좀 많이 해줬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동결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지금 우리 완도군 해역에서 생산된 매생이는 전국의 한 60%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내 유통환경이 하루에 100…… 15만 재기. 한 75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어민들이 생산해가지고 15만 재기가 가락동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실제 작년도에는 한 1,000톤 정도가 더 작황이 호조되어 가지고 생성이 되어서, 그 가격이 하락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저장시설 부분하고 동결건조시스템. 우리 완도군 관내에 지금 가공 공장이 몇 개 있는데, 완도군 관내에는 동결건조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라든가 목포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해오고 있고…… 최근 인근 강진 같은 경우, 대구면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매생이 산업에 대해서는 동결건조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그다음에 그것을 통한 어떤 제품의 다양한 부분, 저장시설…… 이런 사항만 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한 4,000톤 정도 생산되는데, 실제 소요량은 3,400…… 600톤 정도는 충분히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매생이도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동결건조시스템 부분하고 저장시설 상품화 다양화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해양수산정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광어 양식이 지금 현재 보면, 수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내일까지 시료 채취가 끝납니다. 그런데 완도군에, 그 장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장비를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알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산자협의체 구성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해결방책이 있겠는가,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지금 우리 1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통질서, 가격, 유통 효율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생산자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완도군 생산자는, 어민도 많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시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소안, 노화, 보길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재조직 중에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매년 그 어촌계 단장을 생산자협회장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떻든지 현재 전복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맹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꼭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뒤 생산자, 유통업체, 수출업체, 종자업체 간에 소통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저는 지금 수산 관측센터에 의존해가지고 생산량 파악이…… 그 과정의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오늘…… 이범성이 전복을 몇 톤을 가지고 있는데, 몇 톤을 뺐다.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전산상으로 매뉴얼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책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전복생산 통계는 1차적으로 (청취불능) 관측센터의 자료하고, 우리 군에서 계속 양식어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매일 20여가 정도에 출하를 하면, 그 출하전표를 확인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안해서, 저것을 참 전산시스템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산시스템화해서 그러한 생산통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이 되어야 개통이가 몇 톤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정도 뺄 것이다. 그 부분들이 시기적인 조절가능성이 있어야…… 우리 단가가 꾸준한 여건 속으로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분이 됐든지 “우리가 그 부분을 구축해서 완도가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 처방술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완도 유통들이…… 완도 물건은 쌀 때만 뺏니다. 완도 물건을 쌀 때만 빼고 비싸지면 외지로 나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완도군에서는 확실하게 홍보를 통하든지, 어떤 여건을 통해서 막아야 됩니다.

완도 물건은 싸디 싸게 해가지고 일본 수출을 하니, 중국 수출을 하니 얼른 빼버리고, 물건이 없다고 하면 고흥, 신안, 뭐 해남, 어디로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 완도에서 모든 여건들은 다 갖추어주면서 해남이나 진도나, 신안 같은 데는 가만히 자기들 앉아서 떠먹는 식밖에 안 되고, 군은 군대로 지원만 받아서 생산자들이 참 자기들의 뱃속만 따뜻하게 채우는, 그런 여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소통하고 해가지고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방향책을 구축하십시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전복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

겠습니다.

어차피 전복가격은 생산과 수요가 맞았을 때 그게…… 거의 우리 가격이 안정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 2만 톤이 완도의 생산량으로 보고 있죠?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전국입니다.

□ 최정욱 의원

전국입니까?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완도가 한 1만 4,000톤……

□ 최정욱 의원

예, 지금 1만 4,000톤에 대해서 어떤, 아까 계획적으로…… 군납, 유통, 학교급식, 이런 것을 했는데, 세부적인, 그런 것을 좀 살펴보셨는가요? (예)

그럼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전국에 지금 (청취불능) 쪽에서는 보고 있고 1만 8,000톤을 보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2만 톤으로 보는 이유가 전국에 전복 가두리가 한 100만 칸 시설되어 있습니다. 100만 칸에서 한 40만 칸 정도가 출하되는데, 평균 1개의 가두리에서 50kg를 잡았을 경우에 2만 톤이고, 지금 현재 해양…… (청취불능) 쪽에서 그 자료는 어민들 점포에는 덤이 빠져있습니다. 18%라는 덤이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한 2만 톤이다. 그러면 이 2만 톤을 앞으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첫째, 수출이 거의 한 2,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출을…… 지금 수출이 우리가 한 12개국에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동남아 쪽에…… 그래서 수출을 2,000톤에서 한 2,000톤 정도 배…… 한 4,000톤 정도, 그다음에 추석하고 설 명절 때 한 2,000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가장 연중에 많이 팔리는 시기가 7월, 8월, 9월 달입니다. 이때 3,500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한 1만 500톤 정도 되는데, 이 1만 500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명절하고 7~8월 달을 제외한 비수기에 한 8,000톤 정도는 수매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2,000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지금 여기에 냉동전복이라든가, 순살 전복. 그런 식으로 식탁으로 직접 유인할 수 있는 정도를 한 1,000톤 정도로 하고, 또 최근에 새우밥이라든가, 또는 냉동밥, 또는 전복만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충북 음성에 있는 (청취불능) 이라는, 그 공장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공장시스템이 뭐냐면 바닷물에 급랭을 시켜가지고 신선도를 지속 시키면서 (청취불능) 계통으로 음식을……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내수…… 1만 톤 정도에서 2,000톤 정도는, 그런 가공 쪽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경쟁력이 조금 있지 않겠는가.

단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평균단가입니다. 산지에 있는 평균단가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 저…… 우리 지금 수출이나 명절, 이런 데이터는 대강…… 그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가요? 지금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2,000톤이라는 수출…… 계획을 세우는가요?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지금 현재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단서치가 나와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수출하고 있는 톤수인가요? (예)

그 표기를 2,000톤이라고 한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복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군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한 줄 비우기 지금 하고 있다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한 줄 비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줄 비우기 운동은…… 물론 그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도 중요하지만 불법이 있습니다, 불법. 그런데 지금 불법 가드레일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복 가드레일 구조상 그것을 잘라서 철거하기는 힘들고, 실제 한 칸당 그것을 철거했을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가드레일 한 칸을 정비하려면 어민들이 3만 5,000원, 4만 원 정도 부담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러한 어떤 부분들을, 우선 (청취불능)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만 좀 빼내자. 그러면 저러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불법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영위해주는…… 시설을 하지 않되, 좀 칸을 막는 대신…… 대신 이제 가드레일을 (청취불능) 해주기 위해서 한 줄 정도라도 그물을 올려버리면 (청취불능)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부터 가드레일 한 줄 비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 올해 추진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면허지가 아닌 불법면허지에 한해서, 지금 한 줄 비우기 운동인가요? 지금 말하는 것으로……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그 부분에 대해서 (청취불능) 소통을 위해서, 이런 면허지도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 최정욱 의원

아니, 그것은 확실히 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한 줄 비우기가…… 이런 것은 정확하니 어민들도 알아야 되고 계도가 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어떤 계획이 되어야죠.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그러니까 주대상은 초과시설 지역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초과를 하면 불법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 불법도 철거하기가 힘들 텐데 이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을 것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불법을 그대로 놓고 거기서 한 줄 비우기 운동으로…… 그러면 불법을 묵인해준다는 얘기네요?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묵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그…… 그러한 어떤 시설물을 좀 유용하게……

□ 최정욱 의원

아니, 어쨌든 불법…… 우리가 확실히 이것은 지어야죠. 그래야 어떤 어민들과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면허지를 통해서 한 줄 비우거나, 아니면 불법지로 한 줄 비우거나. 명시가…… 기왕 나온 말이니까.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면허지 내에 시설되어 있는 초과시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법면허지는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그 승인을 해주는 조건에……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그 면허지 내에서 100칸을 시설해야 되는 데 120칸이 시설됐어요. 그러면 20칸은 그것을 올려버려라……

□ 최정욱 의원

그것은 이제 면허지 내에 있는 말이고요.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그리고 이제 면허지 밖에 시설은 그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 최정욱 의원

아, 그렇게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죠. (예)

그러니까 면허지 내에 초과…… 칸 수에 대해서 한 줄 비우기 운동이라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불법을, 불법면허가 되어 있는 그것은 아니죠? (예)

아까 그 잠깐 혼동이…… 이야기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것 좀 제가 궁금해서 했었고.

또 수산발전기금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는 농진부 쪽에는 농안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물 구매자금도 있고 그래서…… 해수부에 좀 건의해 가지고 수산발전기금을 갖다가 수출, 특히 수출율이라든가. 또는 순살 전복이라든가. 이런 계 쪽으로 팔리지 않는 사이즈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어패들한테 지원해가지고, 그 가격지지를 할 수 있도록.

대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두 가지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저장시설이 필요하고 수산발전기금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돈을 갖다가

가격지지를 할 수 있다면 수산발전기금에 최소한 2% 정도는 군에서 좀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자…… 그러한 어떤……

□ 최정욱 의원

예, 이제 저도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우리가 발전기금을 어디 루트로 갖고 오냐는 것이…… 이것이 참 좋은 안이거든요. 좋은 안인데,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피부로 와야 되거든요,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금을 해양수산부에서 갖고 오면, 예를 들어서 수협으로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수협으로 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러면 수협에 와서 그 발전기금 배부를…… 어차피 어민들한테 한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수협에서 그것을 어민들한테 사들여서 일정부분 기금의 한도 내에서……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그것은 이제, 지금 저희들 안은 수출업체 라든가 가공업체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금은 어느 정도…… 뭐 금액이 한정되어 있냐요, 아니면……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아니요, 지금 현재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그리고 사용기금을 한 1년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지금 현재 단가 정도 같으면 150억이면 충분히 팔리지 않는 사이즈 1,000톤 정도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되냐면 올해 같은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 우리가 사실은 가격이 싸서 판매도 촉진이 되고 좀 효과가 있었던 것이지. 그 가격으로는 어민들이 생산원가가 안 나와요, 아시죠? (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가 적정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어떤 기금효과가 되게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나왔을 때는 150을 가지고는, 저는 어렵도 없다고 보는데.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올해도 지금 현재 그 예년에 비해서 4~5월, 6월 달에 작년 대비 한 1,100톤 정도가 더 출하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경우에. 그러면 금년도에 4~5월 달에 출하된 양이, 증가된 양이 1,100톤으로 생각한다면 한 150억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 문제는 내년……

□ 최정욱 의원

그 단가 기준은 언제 것으로 놓은 거예요? 올해 단가로 놓은 거예요?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지금 현재 단가로……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지금 단가는 떨어졌으니까 안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해보시고, 이것은 꼭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해서 좀 자금을 많이 가져와서…… 정말 이게 지금 계획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꼭, 시행으로 꼭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민

들이 기르는 데만 신경을 쓰게끔, 이렇게 하 게끔. 이것 참 좋은 대안인데 꼭 좀, 이것이 잘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해조류 품질에 대해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으렵니다.

지금 모든 해조류들이 과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즉, 쉽게 말하자면 매생이 같은 경우 작년에 드셔본 분들이 다 느꼈어요. 옛날 맛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딘가 모르게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산자가 물론 잘못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그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모두 우리 수산동식물의 종자개량, 우량종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실제 우리 지자체 역량상 연구 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못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해조류 종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남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가 있고 전라남도에 해조류연구소가 있는데, 저러한, 저러한 기관들과 지금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에서는 우선 미역. 미역이 우리 청해진 미역이라 해가지고 미역하고 소안도 우량…… 소안 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종묘개량사업을 현재 연구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 “앞으로 미역 같은 경우에도 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미역 김이면

미역 김. 먹는 것이면 먹는 것. 전복먹이용이면 전복먹이용. 거기 용도에 필요한 종자 개량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쪽하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직 매생이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 초에 매생이 맛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물론 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도의 제고물량하고 같이 섞어서 파는…… 그런 어떤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특히 해조류 종자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해조류박물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관련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지금 전라남도에는 해조류연구소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해조류 종자 개발이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이렇게 해조류가 됐든, 뭐 어떤 작물이 됐든 간에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관리다. 예전에는 양이었지만 이제는 질입니다. 맛이 있어야 생산자들이…… 아니, 소비자들이 찾지. 맛이 없으면 다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토티나 다시마 건조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만이 생산자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질 것입니다. 많은 품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수산양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아니, 과장님. 너무 저기 질의가 많아서, 수고하셔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육상에 있는 치패장이 우리 완도군에 얼마나…… 몇 호나 되는지 아십니까?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지금 한 250호 정도.

□ 우성자 의원

예, 완도군에요?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허가 받은 것이.

□ 우성자 의원

허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불법도 개중에 있습니까?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지금 저희들…… 저것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뭐 불법도 몇 개 어가 정도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 우성자 의원

그러면 혹시 그 치패장 같은데, 그런 데에 출장도 가십니까? 군에서?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이제 그리고 양식지도 출장도 가고요. 또 허가 (청취불능) 실무자들이 현장에도 가고 그러니까.

□ 우성자 의원

그 저희들이 읍면에서 바다 청소를 해보면 그 치패장 옆에가 너무도 지저분해요. 생활쓰레기를 전부 다 버려서 심지어는 옷이라든가 또 뭐 김치, 이런 것은 보통이고 더한 것도 많이 버리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면장님들한테는 “그 어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좀 시켜주시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통발이라든가. 그런 것 전부 막다 버리죠. 어민들이.

지금 바다에다가 출하도 많이 하고. 또 돈이 바다에서 많이 나오니까 관심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앞으로 이 바다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우리 해양 보전…… 생태계 보전 업무는 해양수산정책과 업무인데, 우선 아까 침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치패장 옆에 저런 부분에 대한 청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도군에 전복종묘생산자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 주변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간 완도 해양생태계에, 예를 들어서 해양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바다수도…… 그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85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해양수산정책과장한테, 의원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 읍면에서 보통 이장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성단체. 각 단체를 통해서 청소를 많이 합니다. 다 청소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대책이 안서고, 진짜 정말로 대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청소를 해야 만이 될 것 같아서 문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 의장 조인호

수산양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0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농업정책, 친환경, 농업식품유통, 축산담당 4개 담당 외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관작물 재배지원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농업축산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친환경유기질 비료, 그 유통과정에 대해서, 여러 통로로 통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읍면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 가격결정은……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 포당 가격이 있고 자부담…… 우리가

품질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부담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 차이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 우리가 보조해주는 단가는 없고요. 그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금에서는 1,000원에 쓰는데, 우리 신지에서는 1,100원에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우리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약산 흑염소에 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염소값 하락으로 상당히 축산어가들의 의욕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면 염소 한 마리를 잡으려면 화순까지 가야 됩니다. 도축장이 화순에 있어서. 그러면 맡겨놓고 그냥 잡아서 오면 경비가 덜 드는데, 맡겨놓고, 일반 화물차로 가서 싣고 와서 맡겨놓고 도축이 된 다음에 실으러 갈 때는 또 탑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와요. 이러다 보니까 경비가 이중, 삼중으로 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강진…… 완도 강진축협에, 강진에가 도축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간지도축장이라도 해주게 된다면 경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혹시나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나 좀……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 문제가 여러 차례 대두된 문제인데요. 지금 그 도축장을 지으려면 최소한 50억에서 70억 정도 들거든요. 인건비가 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지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염소…… 일반 도축장하고 염소 도축장하고 거의 라인이 틀려가지고 그 염소…… 소 도축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강진에다가 도축장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라인을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경우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진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축장을 한다고 해도 염소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는 인건비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고민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허궁희 의원

제가 그 축협장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완도에 이렇게 염소를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마 군에서 조금 부담을 해야 될 일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한번 자료를 소집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쪽, 경관작물 재배죠. 이 경관작물 재배는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경관을 갖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청산만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길도 윤선도 있는데 부용리, 부항리. 여기는 보길도 바닷가하면서도 바다 농사를 전혀 안 짓는 데거든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길도 (청취불능) 라든가 전답, 경관작물을 올 하반기부터 해서 청산하고 동일하게 하려고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

□ 박인철 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기본적……

□ 박인철 의원

예산계와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파종이…… 올봄에 파종이 될 것 아닙니까, 올 겨울에?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6,000 정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뭐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하반기의 것은 거의 하고, 내년 본예산에 청산하고 보길도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관리는…… 청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청산 관리는 직불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농가들이 안하다 보니까 면에서 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앞전에 우리가 청산 슬로길 시작해 가지고 이 문제가 복잡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 가고 나서 이제 잘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산뿐만 아니고 보길도 부용리, 부항리도 경관작물을 잘 재배해가지고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번에 그 선거과정에서…… 물론 그 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완도군이 수산군이다 보니까 우리 농민에는 배려도 없고 아주…… 챙기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소외된 그런…… 다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혹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우리 농민들, 이 토론회를 가끔 한 번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군수님도 작년, 그 작년에 다 이렇게…… 이동군수실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때도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하든지, 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군수님이 너무 바빠서 안 되면 과장님…… 그런 것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마음을 좀 달래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완도에 귀농, 귀농도 해서 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해 볼…… 그런 생각이나.

지금 보니까 귀농하게 되면 두 가지 선택에 200, 300, 500…… 주택수립이 500, 장려금…… 정착장려금 300, 그래가지고 있는

데. 두 가지 외 다른 지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외에?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귀농활성화는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귀농 활성화를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갈 때나, 아니면 제품을 가지고 나가 있을 때, 그때 좀 이렇게 (청취불능)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귀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 같은 것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시범사업 쪽은 이제…… 기술센터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 쪽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우리 군에서 따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그러니까 모든 시범작물이라든가 재배라든가,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이런 작물을 정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성공되면, 우리 과로 이관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우리 군 자체에서, 혹시 하는 것이 있냐고요. 예를 들자면 시범사업이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 말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여러 가지 작목을 지금…… 아열대 작목

을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있습니까? (예)

하여튼 앞으로 같이 토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민들하고도.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예, 저는 저기…… 귀농정착자금하고 무기질퇴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척이 귀농을 해가지고 정착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교육을 100시간 이수를 해라.” 라고 그래서 교육을, 또 100시간 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을 해라.”, 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니까 “단독세대라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귀농…… 아니, 교육 시간도 작년에 100시간인데. 올해는 80시간으로 또 낮아졌더라고요, 그게. 단축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것 그랬지요? (예,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300만 원을 받겠다고 배타고 완도까지 다니면서 교육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갖춰야만 된다고 했으면 단독으로 왔으니까 신청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하라는 대로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단독세대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

한테 전화까지 드렸지 않았습니까. 엇저께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단독세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좀…… 이러, 이렇게 하니까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합당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예, 유기질퇴비가 그 11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바다에다가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민들이 그 힘이 없어 가지고, 다 노령화가 되어서, 퇴비를 (칭취불능) 준다고 해도 못 가져옵니다. “우리 퇴비 좀 가져가시오.” 라고 해도 못 가져와요. 그러면 유기질퇴비는 가볍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가마니 하나 들어다가 하기는 참 쉽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내가 200가마니 했다 그러면, 한 110가마니. 이 정도로 애매하게 옵니다. 그러면 이장들이 그것을 나누느라고 엄청 힘들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재

예, 우리 이제 지원…… 그 지원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그 헥타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한 것이…… 그 농가들은 그것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헥타 1헥타, 2헥타에 200, 300가마니 신청하지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준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아니, 과장님.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고추를 심으면 100평에 몇 가마니,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다 맞춰서 신청을 해도 예산이 적다 해가지고 좀…… 줄여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해가지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다 2회…… 1회 추경 때 다 추가를 해서 이렇게 다……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비료는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쓰니까. 좀 예산을 확보해서서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워낙 주셨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는 환경지도담당, 기후변화대응담당, 생활환경담당, 산림녹지담당, 산지보호담당 등 5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강화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환경산림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요. 전년도 장보고대교가 개통이 되면, 다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톤당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자원관리센터, 그 쓰레기 처리 문제는 매년 매년 1월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을 물가변동 계획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데, 각, 예를 들어서 소각 같은 경우는 35만 원 정도, 그리고 매립 같은 경우는 50만 5,000원 정도……

□ 박인철 의원

아니, 아니. 그 우리가 7대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아라연환경으로…… 그 뭐야. 고급하고 약산이 물량이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톤당 단가가 다운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22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 이번에 24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가, 톤당 계약이.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것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24만 원이 됐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할 때 우리가 고급도하고 약산 물량이 들어오면 단가가 재조정이 되어 가지고 다운이 된다고 했는데 더 올랐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완도 군외, 신지……

□ 박인철 의원

완도 군외, 신지가 들어갔다가, 작년 11월 28일에 장보고대교가 개통된 이후 고금도, 약산 쓰레기 물량이 지금 아라연환경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완도 자원관리센터로? (예)

그렇게 되면 아라연환경하고 우리 군이 다시…… 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1월 달에 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단가조정을?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말할 때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면 아마 단가가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운된다고, 저는 그렇게…… 속기록을 우리가 확인해보면 알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 22만 원이었다가 왜 이번에는 또 24만 원으로 올랐는가. 그것을 넘어서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더 많았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22만 원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 전년도 고금, 약산에서 물량이 안 들어올 때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갈 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때는 고금, 약산 물량이 안 들어왔었죠.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안 들어올 때는 얼마나 올라갔냐고,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때는…… 고금, 약산은 자체적으로 처리했고요.

□ 박인철 의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장보고대교 개통 전에, 이전에는 고금, 약산 자체로 했고, 완도 군외, 신지만 저기…… 안 했습니까. 그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얼마 올랐었느냐고, `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갈 이 시기, 조정할 때, 단가 조정할 때요.

아니, 분명히 과장님이 저기…… 고금, 약산 물량이 들어오면 단가가 조정이 되더라, 다운이 된다고 그랬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 하더라도 왜 올랐는가, 단가가. 이 단가조정이 안했는가. 고금, 약산 물량을 해가지고 안 했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고금, 약산 물량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금, 약산 물량은 저희들이…… 지금 완도 군외, 신지는 소각·매립·재활용 구분해서 단가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금, 약산, 그 물량은 한꺼번에 해서, 어떻게 보면 저가로…… 저가로 이렇게 한꺼번에 가격을 이렇게……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완도 군외, 신지 물가는 이 지금…… 그러면 톤당 얼마씩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금 보편은……

□ 박인철 의원

그러면 `17년도하고 `18년도의…… 단가가 얼마 차이가 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단가……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올랐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올랐습니까. 그러면 전혀 과장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이 틀려버리는 것 아닙니

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아, 글썄요……

□ 박인철 의원

그때 분명히 박종연 의장도…… 의원도 물어보고 여러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그 장 보고대교가 개통이 되면 고금, 약산 쓰레기가 완도 아라연환경으로 들어올 때, 그때 단가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우리 사회의실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뭐 있다는 말입니다, 단가가 다운…… 그 다운이 된다고,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의원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완도 군외, 신지, 그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세 가지로 해서 분리를 해서 단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운된다는 얘기는 고금, 약산 쓰레기는 한꺼번에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꺼번에…… 단가 가격이 얼마냐면 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지……

□ 박인철 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완도군 아라연환경으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로 들어가면, 어차피 소각할 물량, 매립할 물량, 뭐 고금에서 들어오든 약산에서 들어오든, 다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구분을 안 해가지고 가면 저기 아라연환경에서 받아주지도 안 하고요.

우리도 저기 읍사무소에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갖고 갈 때는 읍사무소에서 티켓을 끊어가지고 갖고 가면 구분을 다 해가지고 안 갑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고금, 약산 그

쓰레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라연환경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받아주면서 그 단가가 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도 군외, 신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완도 신지, 군외는 34만 원입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매립 가능한 것은 51만 원입니다. 그런데 약산하고 고금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24만 원 이렇게……

□ 박인철 의원

아,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분류한 쓰레기가 쌓여야 맞지.

우리가 지금 개인 사기업체한테도,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이렇게 할 때는 분리를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단가 차이가…… 우리가 톤당으로, 아니면 25톤 차로 할 때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말하기 쉽게 한 차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분리하지 않은 쓰레기는 한 차에 200만 원씩 정도는 주는데.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런데 이제, 그 의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아라연환경에서 사실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양보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분리한 가격을 다 받아버리면 고금이나 약산면 쓰레기를 더 비싸게 처리를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 박인철 의원

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완도 군외, 신지가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아니, 그것은 정상적인 가격이구요. 정상적인 가격인데. 고금, 약산은 특이한 사항이라서 저렴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 박인철 의원

아니,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더 싸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고금, 약산이 뭐한다고 해가지고 더 싸고, 또 전에 과장님하고 전과장님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장보고대교 개통이 된 후에 쓰레기 소각료나 매립, 이 비용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다운이 될 것이다. 단가가 다운이 될 것이라고 재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재협상…… 보면 지금 더 올랐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과장님, 전임과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 다 의회에서 그러면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분명히 저기…… 재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물량이 더 들어옴으로써, 그래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과장님이 이제 아라연환경하고 협상을 잘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구분된 쓰레기하고 구분되지 않은 쓰레기는…… 구분되지 않은 쓰레기가 아라연환경으로 가면 저 아라연환경에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다 다시 구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각할 것하고 매립할 것하고, 그러면 그 쪽에서 그 아라연환경에서 비용이 엄청 많이, 필요 없는 인원이 더……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인데, 그 단가는 더 이렇게 싸게, 뭐 했다는 것은……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런데 이제……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주 협상을 잘했다는 말입니까, 아라연환경하고?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아니, 의원님, 이렇게…… 지금 고금에서 신지에서 들어…… 아니, 고금에서 약산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분리해 해서 오지만, 예를 들어서 한 차가 오면, 고금에서 보면 하루에 한 1.5톤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분리해서 오지만, 그것을 구분해서 받지 말고 한꺼번에 가격을 하자고 해서 24만 원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선에 생각하기에도 안 맞잖아요. 완도 같은 데는 30 몇 만 원이던데 고금, 약산에서 오는 것 중에 24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것은 이제 정상적인 가격은 완도 그……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완도는 지금 톤당, 그러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오른 것은 고금하고 약산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도는…… 전년도는 얼마였고 얼마 올랐습니까, 완도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금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전년대비해서 한 1만 5,000원 올랐고요, 그리고 2017년도 매립 가능한 쓰레기는 51만 7,7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 5,000원 이렇게.

□ 박인철 의원

아니, 여기 우리 책자에 보면이제 ……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2006년도 3월입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 2006년도 3월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단가 전혀…… 단가조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 올랐다, 내렸다. 그 문제가

아니고 왜 의회에서는 그러면 보고가 그렇게 돼버렸냐는 이 말이에요, 7대 의회에서.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글쎄요, 그때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보고를 잘못했든……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 **박인철 의원**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과장님가기 전에, 전임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고금, 약산 들어오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1일…… 그 처리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계를 안 올리니까 쓰레기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 단가가 다운이 되어가지고 단가 조정이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단가가 올라가 있는 것인가, 전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글쎄요, 이제……

□ **박인철 의원**

그때 의회에 보고했던 것은 전부 다 잘못된 보고냐. 이 말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때 당시에 어떤 취지로 전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봐서, 그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의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여기서 뭐시기 할 것이 못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깊게 봐주시고, 한번 그 자료를 갖고, 한번 봐봅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그 저……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시죠, 이것?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망남리 이장님한테, 혹시 연락받아 본 것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제 수시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저는 아직 뭐 다이렉트로 전화는 안 받아 봤는데, 담당계장하고 해서 현장 출장을 나가고. 특히 민원이 있는 부분은 여름철에 이렇게 습기가 많은, 쓰레기가 많이 반입되기 때문에 냄새가 약간 난다든지. 그러니까 여름철은 저기압입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그래서 (청취불능) 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전화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일단 우리 군에서 어쨌든 책임이 있네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러냐면……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며칠 전에 길을 막겠다고, 망남리에서. 청년들과 회의하는 과정을 내가 듣고, 잠시 우선 들어보자 해가지고 해서 들어 봤는데. 아주 말도 못하게 악취가 심하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군에다가 해야 될지. 지금 아라…… 여기 환경, 여기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절차를 정확히 알아서 하자. 한번 해봐가지고 잠시 우선 기다려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직접 체험을 못해 봤기 때문에 했는데. 한 사람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전부 불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전부 다 그 말을 하면서 쓰레기장을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야만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인데.

일단 며칠 막게 되면 우리 군의 쓰레기가 어디로 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망남리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한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 좀 검토……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김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어가지고 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해조류…… 그러니까 김 공장에서 나오는, 세척한 다음에 나오는 그 불순물. 그게 지금 바다로 바로 유입이 된다든가, 농작물 농로로 이렇게 바로 흡입이 되어 가지고 농작물이나 바다의 환경오염이 엄청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접했고요.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지금 현재 그…… 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바다…… 그 김을 세척하고 위에 부유물하고 밑에 침전물만 제거해서 정상적으로 배출하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지금 김공장 시설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물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김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중단시키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가장 큰문제가 뭐냐면 배출할 때 관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배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도를 하고 앞으로는 시설을 보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기타 수질오염원은 사실 이제 허가권…… 허가는 아닌 사항인데. 최근에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타 소질 오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의 인허가 수준정도를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서에서. 그래서…… 그리고 아마 관계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몇 개에서…… 산자부하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조치도, 우리 지금 환경부서에서 그분들한테 거의 허가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가장 큰 문제는, 그 색도의 문제는 물을 여러 번 써서 그렇습니다. 물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래서 여러 번 써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그런 그…… 물 정수시설을 이용하면서 색도까지 잡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수시설을 관내에 다 보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수시설을 보급할 때 색도까지 잡는, 그런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그런 기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

가에 준하는, 그래서 반드시 색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불순물이 나와 가지고, 또 탱크 자체 수조에서도 누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면 그 주위 지하수나 농업용수 쪽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또 환경오염이 없도록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지역계획담당, 경관관리담당, 도서개발담당, 어항개발담당 등 4개 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읍 군내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14건입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으나 그..... 제가 어제, 그제인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한번 알아봤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저쪽 남방파제..... 낚시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박인철 의원

예.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그..... 확인해 보니까요. 2006년 1월에 해경에서 남방파제 출입 통제장소로 지정,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해안 암벽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TTP쪽에서 낚시를 하다가 추락이나 실종 위험이 있는 지역을 해경에서 관련 기관인..... 저쪽에 남방파제는 전라남도 완도군 일부 안전센터와 협의를 완료한 이후에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인철 의원

아, 우리 군과 협의를 마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다른 지역에

안 있습니까, 완도군을 제외한? (예)

다른 지역들에서는 다 방파제에서 낚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낚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낚시업으로 소득창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해경에서 일방적으로 한 줄 알았는데, 우리 군하고 협의를 마쳤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우리 군 의견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 그러면 어느 과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우리 군하고는? 지역개발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과하고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협의를 할 때 다른 군이나, 다른 시도…… 시는 안 봤습니까?

지금 뭐 부산이나 강릉, 이 방파제가 있는데는 다 낚시가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완도의 남방파제에만 낚시를 못하게 지금 막아놨다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제가……

□ 박인철 의원

다른 그 뭐시기, 이유는 안전사고라고 해가지고.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제가……

□ 박인철 의원

그전에 우리가…… 저기서 안전사고가 한 번도 안 났는데.

이야기해보십시오,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제가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요.

(자료를 들며) 지금 이것으로 보시면, 보이지요?

□ 박인철 의원

예.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남방파제입니다. 여기가 군내리 이항구 방파제이고요. 지금 남방파제하고 군내리 이항구, 이 두 개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파제를 한 이유는, 이 남방파제가 굉장히 좀 높고 안전난간이라는 것이 또 설치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서 물이 많이 나는 간조시에는 사람이 걸어서 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물이 들면 이쪽 육지로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쪽 군내리 이항구 방파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마련되지 않았고, 여기 안전난간,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낚시객들이 낚시를 하다가 실종이나 추락위험이 크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지금 이게……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방법은 뭐니까, 낚시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방법은…… 지금 위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다시 출입통제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경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우선 이쪽 군내리 이항구 방파제는 이쪽으로 호안도로하고 여기를 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여기부터는 일단……

□ 박인철 의원

이제 사진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는

낙시객들이 그것보다는 우리…… 애당초 방파제보다는 (청취불능) 쪽으로 했던 남방파제 하나 있습니까. 거기서 낙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막았으면 문제가 틀려지는데. 그 낙시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물때 따라서, 그 낙시하시는 분들은 그 다…… 완도 분들이 하겠지만 거의 낙시, 완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배 타고 못 나가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그 낙시객들을 실어다주고 싣고 오고, 또 이것도 우리 소득을 많이 올렸거든요. 낙시하시는,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크게 대두가 되지 않고 거의 배로 왔다 갔다 했는데……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자료를 가리키며)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요. 이 앞에 있는 TTP 부분하고, 여기 남방파제가 높게 되어 있는데 안전난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북방파제하고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북방파제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여기 남방파제는 그런 부분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지에서 여기까지 사람이 걸어서 나중에는 물이 들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

□ 박인철 의원

그것은 기후고요. 이제 기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아버린 것은 좀 뭐하고, 우리 군에서…… 그 도와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것도 관광입니다. 그 낙시도. 낙시관광도 우리 군 수입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완도군만 그것을 막아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완도…… 남방파제는 뭐 큰 태풍이 불든가. 아니면 아주 기상변화가 없으면 아주 조건이 좋은 데거든요. 다른 방파제에 비해서.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 있는 방파

제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은 지역인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낙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낙시업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오죽 알아봤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 부분은 해결하고 다시 한 번 협의……

□ 박인철 의원

아니, 해결이 편리…… 자기들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막아놔 버린다는 것은……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제구역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해경에서 했기 때문에.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군하고 저기…… 협의를 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해경에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한 줄 알았는데.

저기 낙시업계에 다시 한 번 알아봤더니만 그 낙시를 중지시켰던 해경직원은 여수로인가 발령이 났더구먼요. 우리가 그 직원 한 사람을 위해서 생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시 도와 해결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전에 큰 무리가 없는 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해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구도~소안간 연도교, (예)

사실 이게 구도~노화는 됐는데 소안, 이게…… 좀 많이 우리가 필요한 중요성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주시고요, (예)

또 약산~금일간, 거기도 연도교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약산, 금일은 안전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다리 공사를 시작하려면 정부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이게 정부계획에 반영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도로 노선이 국도로 승격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저쪽…… 그 구도에서 소안간, 여기는 도서개발사업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든지, 그 전체 사업비를 늘리든지, 하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금일, 약산은 도서개발사업을 하기는 규모가 원체 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는 국도승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하는 방법이 지금 그…… 고흥 쪽까지 와있는 국도가 27호선이 있습니다. 그 27호선을 금당, 금일, 약산, 고금 77호선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김영록 지사님께서 지금 고흥하고 완도하고 남해안 해안관광도로를, 그쪽 노선을 지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노라고 지금 공약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일단 국도 기점을 변경해서, 그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럼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재난안전담당, 농촌개발담당, 도로시설담당, 복구지원담당 등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예 민방위대 육성을 포함하여 21건입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지금, 완도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장시간 근무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근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대책은 없으신지.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

아, 제가 직무대리 맡은 지가 10일쯤 지

나서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CCTV관제요원들은 어느 지역이나 4개조로 편성해서 3개조가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뭐가 필요한지 지금…… 요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지역개발과장님……

아, 박인철 의원님.

□ 박인철 의원

이 문제는…… 과장님, 직무대리니까 안전재난담당이 대답해 주십시오.

김영오 계장님. 김영오 계장님이 좀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소방서 부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담당 김영오

소방서의 부지는, 지금 현재 총 19필지 중에서…… 현재 우리가 어제까지, 제가 그 때까지만 자료를 회수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15필지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4필지가 현재 남았는데, 이제 4필지는 정씨 문중 2필지, 김수복…… 1명 2필지가 있는데, 일단 그 위에 정씨 문중은 어느 정도 윤영이 되었고요. 김씨, 김수복이 1건 그 분은 지분 정리가 안 돼서, 장남이 지금 행불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고를 하고 (청취 불능) 되면…… 지금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한 9월 정도는 마무리되지 않겠나, 토지완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 토지는 10월…… 올 안에는 되죠, 토지 수용이?

□ 안전재난담당 김영오

예, 최대한 9월 안에까지는 토지를 완료할……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도에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이 업무보고처럼 내년도에는 다 정리가 되겠죠, 소방서가?

□ 안전재난담당 김영오

예, 차질이 없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에 따라서 하나 또 물어볼게요. 왜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사회단체가 끼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안전재난담당 김영오

제가 오기 전에 추진위원들이 구성됐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찾아보니까 추진위원장이 변영희장이나 사회단체장……

□ 박인철 의원

그 저기, 잠깐만요.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장준식 과장한테, 과장님한테 우리 이낙연 도지사가 계실 때 부지만 사면 소방서는 도에서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첫 의회에서 장준식 과장한테 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 다가는 뭐 그런 위원회가 있다, 뭐 있다. 업무보고 때나 뭐 할 때나, 한 번도 간담회 때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시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시중에서 이야기가 들어……

이것 꼭 굳이 뭐, 그런 위원회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정당하게 돈을 주고 이 부지를 수용하는데.

□ 안전재난담당 김영오

처음에 기본승낙서를 징구하는데 일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추진위원들

이 그 토지소유자를 찾아다니면서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아마 행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곡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항간에는 의원들이 뭐 하는데 필요하냐. 다 군에서 뭐 필요하면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맡겨버리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무용지물론이 나오고.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토지 수용……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당한 단가로 해가지고 토지를 사는데,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데 무슨 위원회가 필요한가. 편의주의, 행정 편의주의가 아닙니까? 이것은?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

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소방서 신설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군에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놓고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데,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소방서 뒤편이냐, 경찰서 사거리냐. 여러 군데 대상 후보지가 있었는데, 관건은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들도 우리 행정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다른 뜻이 아니고요. 선의에 의해서 그분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절차대로 감정평가해서 그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행정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개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먼저 그런 것을 제안해

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이 말입니까,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

위원회까지……

□ 박인철 의원

한번 이 금액이, 예산이 불용되어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못 잡아가지고 한번 불용이 됐다가 다시 세운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된 과정이나 다시 세울 때 예산이나…… 물론 예산을 다시 세울 때 설명을 했지만 불용된 과정들을 한 번도 설명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이 어디 갔느냐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러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불용처리를 해놨다가 다시 예산을 세운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답변들이. 그러면 지금 4년이 됐는데, 이 부지선정을 하는 것이…… 부지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소방서가 신축이 늦어지는데, 이 소방서 하나 뿐만 아니고 소방서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각 읍면에 소방파출소가 없는 것이…… 소방파출서가 또 세워질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군민들의 안전의 최우선이 이 문제에 있는데, 그러면 민간한테까지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한,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 와서는 한 마디 말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은 여기서 전부 제가 안 전하려고 합니다. 참 저기…… 얼척없어요. 완도 말로 표현하면, 제가 여기서 표현을 못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실과가 다 뛰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좀 같이 상의도 하고 보고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

일반적으로 저희 그……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우리 일반농사·농촌 개발사업…… 권역단위 사업에 주민들이 같이 쓰는 다목적센터 같은 것을 건립할 때, 이런 것을 할 때도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치를 정한다든지……

□ 박인철 의원

그것은 당연히 추진…… 마을 단위니까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견학도 해야 되고, 그런 용역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한번 이야기할까요,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

제가 그 추진위원회……

□ 박인철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지금 안전건설과하고 도서개발과에서 하는 것, 한번 이야기하고 들어갈까요? 그럼 지금?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

아니,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하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위원회들을 구성해놨는데, 그 위원회들이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땅 따먹기식으로 뭐 2개 마을, 3개 마을 섞어 놓으면 힘 센 데가 먼저 가져가고, 그 사업들이, 물론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플러스 우리 지방재정비가 낮은데, 군비도 다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라고 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용역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고 중앙부처에 다니고 고생 많이 하는지 알아요. 그 고생한 만큼 현장에서 그 값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값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뭐 치적

쌓기, 비슷하게 들어가 버리는 사업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지금 소방서 같은 것은 우리 군민들의 최우선이 아닙니까, 안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들을 의회에서 먼저, 도에서 하는 것을 알고 우리 행정…… 집행부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 예산도 따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면서까지 부지선정을 못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이 의회에 와서는 일절 뭐 보고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는데, 딱하니 민간…… 뭐 저기 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민간협의회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라고 한 마디만 해줬어도 그분들이 왜 활동을 할까…… 하는가를 알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그분들이 월권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일반 주민들은 “의회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의원들은 뭐하냐?” 라고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상지 선정 정도는 의원님들하고 서로 긴밀히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질문답변 때 꼭 물어봐. 아주 상식선에서도 이야기한 것은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뭐 안 된다면 의장님이나, 아니면 저기에 연관된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깜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 안전재단담당, 계장님. 이것 좀 확실히 처리해주시

시오.

□ 안전재난담당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과장님. 직무대리라 그래서 이 말을 물어봐야 될까, 어쩔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지금 군도4호 완도수목원 확장, 포장사업이 있죠? (예)

이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원도 발생이 되고, 이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혹시 계장님들이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도로에서 1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집이 한 채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보상비 지급 1회가 나와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입구 쪽에, 도로와 수목원 올라가는 입구 쪽에 좌측 편을 보면 방앗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방앗간을 철거를 해야 만이 4차선이 제대로 나올 것 같거든요.

보상비 지급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도로시설담당 최봉구

도로시설담당 최봉구입니다.

그 방앗간 부분은 당초 계획이 진입로 사업으로 추진을 안 하고, 그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앗간 주인이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1년 뒤에 다시 재평가를 했는데, 재평가 금액보다 한 3,000만 원 이상 더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을 못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 진입로 사업으로 해서 반대쪽만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김재홍 의원

그러면 그 집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까?

□ 도로시설담당 최봉구

예,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뭐 보상 외로 줄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것이 아니면 그 사람도 더 이상 뭐 생각을 안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도 포기하고 우리도 포기했습니다.

□ 김재홍 의원

아, 그런 단계예요. 그때 저한테 하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약간의 조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 도로시설담당 최봉구

그 사업은 지금 반납돼버렸고요.

그때 우리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해가지고, 군수실에서도 그 부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2억 2,000인가 승낙을 했는데, 다시 그때 올…… 작년 여름인가,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 김재홍 의원

아, 그러면 완전히 반료된 상태입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예, 저는 아까 박인철 의원님. 소방서 시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소방서…… 소방대원들 관계된 사람들은 엄청, 그 군에서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땅을 못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설계비 예산을 세우려고 물어봤는데 땅이 정리가 안 되니까 예

산을 못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뭐 45억이나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다 그것을 중지했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약 땅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 도로시설담당 최봉구

예.

□ 우성자 의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군민의 안전문제도 있고, 또 소방대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셔서 땅을 빨리 구입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담당관을 비롯하여 농촌지원담당, 자원개발담당, 작물환경담당, 소득경영담당 등 4개 담당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농업기계……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외 14건입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소득 과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참다래, 또 유자, 아로니아. 여러 품종에 대해서 지원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성과가 좋은 과수는 어떤 것이고, 또 지역…… 농협 특성화 명품유자생산단지 조성으로 유자 가공 상품을 지적재산권까지 등록하셨는데, 그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열대 과수로 해가지고 비파라든가 참다래, 또 유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종은 비파입니다. 또 비파…… 향토사업으로 추진해서 제품도 많이 개발돼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서 꾸준히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자, 그 가공 상품화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고금 청화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그 상품을, 앞으로 우리가 현재…… 우리 유자 가공은 유자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산·판매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또 소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유자 가공품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지적재산권까지 등록해 가지고 지금 유자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완도에서 나온 유자를 전부 다 고흥 쪽으로, 지금 많이 가가지고, 고흥 유자로 변환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자가 주로 고흥으로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 대규모 가공공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농협 쪽에서 역할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가공 사업을 중단하고 일반 농가들, 소규모로 이렇게 가공하다 보니까 그 물량을 전부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유자가 이렇게 그냥 보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홍수출하될 때에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뭐냐, 고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축산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유자 가공에 있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 가공…… 유자 공장을 건립추진을 해서 완도 명품유자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안면 감귤사업이 성공 사례로 많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 미래소득 작물로 육성하고자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감귤묘목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땅,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솔직히 이제 저희들도 우리가 지역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아열대작물을 도입을 하는, 그 아열대작물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고령화로 되다 보니까, 누가 선뜻 나서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지원 좀 해주라.” 라고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먼저 “자, 이것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밀면, 나중에 과잉생산이 됐다는가.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또 관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귀농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는데, 또 그분들은 토지가 없다 보니까 쉽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나……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 있는 사업들이 7 대 3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30%까지도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하는, 그 부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그런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이 수산군이지만 반드시 농축산하고 같이 성장, 동반성장을 해야 우리 고소득 작물을 발굴해야…… 우리 농민들이나 또 축산인들이 이렇게 고소득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해서 고소득 작물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 최정욱 의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질문 중에 우리 대표적인 시범사업을 하는데 농가들이 30%를 보조해줘도 기피를 한다고 했죠? (예)

어떤 것입니까, 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방금 이야기하셨던 유자…… 밀감이라든가 비파를, 저희들이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겨울 같은 경우 혹한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따뜻한 지역이지만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극기온이 굉장히 높아지고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시설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에 있어서, 하우스를 만드는데 있어서. 또 우리 지역은 바람이 많다보니까 내재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당 한 30만 원 정도, 그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비를, 그 하우스를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 600평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 6, 18…… 1억 8,000만 원에 따른 30%는 5,400만 원 아닙니까? 솔직히 540만 원 부담하면서 “뭘 사업을 합시다.” 라고 해도 농가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펄쩍 누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부담이, 어려움이 좀……

□ 최정욱 의원

혹시 그 비파가 생산에서 판로는, 걱정은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작년에는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동해로 인해서 거의 노지에서는 생산되지 않아가지고, 또 부족한 그런 현상이.

□ 최정욱 의원

이제 그런 것도 농민들이, 그런 부담을 갖고 있어요. 뭔가 확신이 섰을 때 하는 거예요. 농사라는 것이 한번 실패를 하면 최하 3년에서 5년이 가요, 그것을 복구하기가. 왜냐하면 1년 농사를 해서 안 되어 버리면요. 다음, 내년에 된다 해도 적자된 것을 메꾸면 2년이에요. 또 3년 때 잘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가정에 좀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농민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농촌, 여기 지도소에서 어떤 것을 할 때 뭔가를 권장하면 판로와…… 농민들은 그야말로 농사만 짓는 데에 전념을 해야지, 판로를 걱정하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농사만 지어놓으면 우리 것 판로는 걱정이 없다. 이런 제도를 뭔가 만들어서 어떤 건의를 해야지. 그런 것 위험부담이 있으면 절대 안 합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야 돼요.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재력이냐, 이런 것을 먼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좀 잘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런 확신을 심어주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도의 토지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토양이 타지에 비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타지에 비해서 이제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유기물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 최정욱 의원

유기물이 부족하면 어떤 제품에 대해 안 좋고, 좋고 그럴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유기물이 부족했을 때에 어떤 과일에 있어서 좀 당도가 떨어지고, 어떤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우리…… 할 때 완도에 맞는 어떤, 그런 과일이 있다면 무엇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셨습니다마는 지금 열대과일을 그렇게 접목하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일단 뒤따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안면에서 감귤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도에 그쪽에는 피해가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간 소안면을 중심으로 해서 노화, 보길 쪽, 그다음에 청산도 쪽, 그런 쪽으로 해서 서서히 좀 확대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신하네요, 우리…… 그것을 재배를 했을 때 잘된다는, 그런 보장을 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여간, 그러나 하여간…… 다만 1%의 위험성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외 다른 우리 신제품, 어떤 개발한 것은 없는데요? 새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일부 군외라든가 고금 쪽에서 참다래 신제품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과거에 참다래 궤양병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완전 100%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재도전을 해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 최정욱 의원

그 신제품은 어디서 주나요? 지도소에서 하는가요, 농민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신제품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이제 있는 곳을 알선을 해드립니다, 묘목을.

□ 최정욱 의원

묘목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저희들이 직접 육성을 안 하고요.

□ 최정욱 의원

지금 우리 시범사업하면…… 여기서 아까 말하던데 우리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권장한다고, 그런가요? 시범사업을 도에나 중앙에 시범사업을, 그것을 위임받아서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도 시범사업이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진흥청에 어떤 연구진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요,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뭐 1~2건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1년 국비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제 좀 효과가 좋다면 도비사업으로 또 2~3년을 추진합니다. 거기서 또 효과가 좋으면 시군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사업이나 시군비 사업이 공이 7 대 3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보급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비 사업이 끝난 바로 직후에 군

비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 최정욱 의원

그 사업은 규모가 크죠, 보통 얼마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저희 지역들은…… 요즘은 모든 사업들이 규모화로 가기 때문에 우리 완도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비사업을 가져오기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그 지구 온난화 대응 작물재배…… 뭐야, 시범재배 작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한 3억에서…… 2억에서 3억 정도 내려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1년에 뭐, 2~3년에 12건 정도이기 때문에 가져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업은 우리 완도하고 안 맞다고 방금 소장님도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것은 내용은 좋은데,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면 900평짜리 땅에다가 하우스 900평에서 1,200평을 지어야 되는데 900평짜리 땅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00평실에 나눠서 짓는 그런……

□ 최정욱 의원

예, 질문 요점은 그것에…… 그것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우리 완도에 맞는, 어떤 시범사업.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니요,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준에 있는…… 없는 사업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 최정욱 의원

예산…… 저 같으면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농민들이 원해서 할 때 전액보조로 하는 방법, 그런 생각도 안 해봤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지방비로 전액 보조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방비로서는 100%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농토…… 도시하고 달라가지고 저 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다 소규모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영세예요. 어떤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정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죠. 그런데 인건비만 자기들이 1년 까먹어도 이것 엄청 큰 것이거든요, 소득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처음 시범을 할 때 그게 그냥 몇 % 보조까지…… 아니, 몇 %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말로만 가깝지, 실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실행이.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사업…… 도에나 중앙에 내려온 것 1년에 한 두건씩,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여기에 맞는, 우리의 규모에 맞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이 정말 새로운 것, 자기네들끼리 정보가 다 돼요. 저 도시하고도, 위에 큰 농사를 짓는 사람, 적게 농사를 짓는 사람끼리,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시도해 볼 생각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추진을……

□ 최정욱 의원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잘되면 농민들이 그것

을 보고, 그것을 봐야 만이 따라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농기구 임대사업에 관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그 대형, 뭐 트랙터나 이런 것은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지에서 사용하려 한다, 이러면 본인이 가서 끌고 가면 될 것인데 그밖에 잘 이렇게 좀…… 소규모 농기구들이 많이, 농기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본인이 가지러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까지 운반을 해주는 것인지. 그런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농기계 임대는, 모든 기계는 쓰고 싶은 농가가 저희 센터 임대사업장에 와가지고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에 빌려다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농가가 필요한 현장까지…… 갖다 주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지금 관내 운송업체하고의 어떤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서도 앞으로는 운송을 못 하겠다,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 허궁희 의원

예,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묘목을 개발하고 한데는 그 보급은 아직 안 된다는 얘기죠, 알선만 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지금 이제 열대작물…… 아열대작물들을 저희 센터에서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최소한 어떤 품종들을, 그렇게 품목들을 갖다가 재배하면 최소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그 품목을 개발할 때…… 선정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몇 년 이렇게, 또 인근 농가에다가 몇 주씩 또 이렇게 줘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안정적인 품목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확대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 허궁희 의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수산업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공무원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13일(금) 09시59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 보건의료원
- 상하수도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부의된 안건

<제4차 본회의>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 보건의료원
- 상하수도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전남 시군 의장협회에 참석차,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진료와 보건이 되는 업

무의 특성상 보건의료원 77명, 보건지소 38명, 보건진료소 18명, 공보의사 47명으로 6담당, 총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전체인력의 70%인 120명 정도가 환자진료 업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15개항으로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보건의료원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우성자 의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니다.

한 가지, 그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유료접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강진이나 완도나 고금이나, 이렇게 다른 이유가 혹시 됩니까? 가격이 다른 이유,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한번 듣고 싶어서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저희 의료원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수입…… 저 사임이라고 그러나요, 가져오는 약값에 거의 마진을 안 붙이고 그냥 원가대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이나 병원마다, 거기다가 마진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 우성자 의원

아, 그것은 그러면 그 병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 우성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이 고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놔지기 전에 조금 강진이나 광주, 또 장흥, 이쪽으로 병원도 다니고 생활권이 그쪽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다리가 놔져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완도의료원으로 온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완도가 또 어떠한 병원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저도 지금은 몸이 아프면 강진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라는 이장단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한다든지, 의료원에서 홍보를 좀 하셔서, 고금이나 약산이나 금일 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저기…… 군민들이 완도 의료원을 잘 애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웃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우선 교통이 좋은 쪽으로, 강진 쪽으로 많이 갑니다. 병원이라든지 전부 다. 그러니까 꼭 의료원만 아니더라도 완도에 있는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 잘 좀 정리하셔서 지고, 고금, 약산, 금일 이쪽으로 꼭 좀 홍보해서 완도가 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알겠습니다.

저기…… 조금 일반 군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완도에는 보면 정신과하고 신경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병원들 같은 데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신경과 선생이 지금 있는 데는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완도군에서는. 그러면 신경과라는 데에 대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정신환자도 취급할 수가 있고, 치매환자도 취급할 수 있고, 뇌질환, 뇌…… 뭐 혈관질환들을 취급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던 공보의, 신경과 전문의를 강진의료원에서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그래서 강진의료원에 지금 한 분이 있고, 지금 다시 한 분을 초빙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 일반인이 좀 이용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그렇다고 뭐 지라시 들고 돌아다니기도 좀 그렇고, 차에다가 무슨 현수막을 붙이기로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그것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 우성자 의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면에다가 부락을 하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마을회관 앞에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도 되고, 또 지라시 같은 것을 안 해도……

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신경과 의사가 의료원에만 있는지를 저희들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게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힘드시면 면이나 보건소에, 읍면보건소에 부락을 하셔가지고, 그 대안을 원장님이 잘 마련해 주셔서 홍보를 진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예, 다음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답변하느라……

그 저기 대성병원과 원격 협력기관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협력하고, 하는가에 대해서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 간단한 얘기입니다. 원래 원격이나 화상진료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기, 17군데, 18군데의 보건진료소에는 사실상 의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진료소장이 이것을 좀 더 전문가한테 환자를 보이고 상담을 하고 싶으면, 그런 의사가 어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성병원에는 비교적 전문의사가 여러 분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화상 연결이 돼서 그쪽에 상담, 저희들이 항상 그것을 컨설팅이라고 그러니까, 상담의사를 그쪽으로 우선 지정을 해서, 우선 그쪽으로…… 쉽게 보면 핸드폰 화상통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면, “이런 환자가 있으니까 봐주십시오.” 하면 그쪽에서 문의해주고……

□ 최정욱 의원

예, 거기 또 대성병원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것이 있는가요? 뭐 거기에 원격, 서로 서로 선정하면서 뭐 부수적으로……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아닙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 것은 전혀……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진료비만 조금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한 건당 얼마씩.

□ 최정욱 의원

예, 이제 우리 완도 대성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층들이거든요. 좀 관

참다 하시는 분들은 읍으로 가버리지. 또 신뢰를 많이 안 해요, 대성병원을.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좀 원격…… 이렇게 등록·지정을 했으면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대성병원도 좀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밥 먹기는 왜 합니까? 그것, 기왕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아침밥 먹기 운동이요?

□ 최정욱 의원
예, 운동.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십시오. 아침밥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일반적인……

□ 최정욱 의원
아,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그래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특별히 합니다. 특히 완도 쌀로.

□ 최정욱 의원
예, 그리고 제가 선거기간 동안 다니면서 듣는 얘기거든요. 한 30대 초반 여성들하고 우연히 자리를 한번 하게 되고, 30대 후반 들하고도 한번 해봤는데 양육, 그러니까 애를 낳았을 때 장려금 있는 것을 더 받는 것을 좋아하고, 얼마 주는 것까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애를 낳으려고 하는 30대 초반들의 얘기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면 이제 자기네들은 여기서 살고 애를 낳을 때는 우리는 서민층이라는 얘기예요. 서민층인데 낳아서 더 주는 것도 좋지만 애를 갖게 되면 일을 못한대요, 당장 이렇게 맞벌이 부부인데, 기왕 그런 정책을 갖고 추진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 말을 하길래 그랬죠. 아니, 애를 낳아서 배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책임지겠습니까. 기왕 이런 정책을 하면 거기까지도 관심을 가져줘야 않겠냐. 이제 그래서 그것은 내가 전문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마침……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 사안은, 사실은 이게 의료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 최정욱 의원
아, 예.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지금 현재 완도군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액 수라고 그럴까요. 이게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는 둘째 아이부터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아이는 1,300만 원, 넷째 아이는 1,500만 원. 그 다음에 넷째 아이…… 다섯째가 되면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높지만 산모들 본인들한테는 이게 만족할 만한 돈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은 의료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보다는 군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론할 수 있는……

□ 최정욱 의원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인철 의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하반기에 지을 것이죠, 치매안심센터요? (예)
이렇게 하면 그…… 원장님, 주차관계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것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료원 내에 주차……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도장. 공도장에 있는 거기를 약간 시설을 개선해서, 거기에다가 약…… 한 2~30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 박인철 의원

지금 보니까 의료원 주차를 지금…… 우리 해양생물단지, 그 공공주차장에 보니까 차를 많이 세워놨더군요.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 연 10,000명 정도가 우리 의료원을 방문하는데, 지금 거기로 가보면 30대 가지고 주차난이 해결됩니까? 지금 의료원이 또,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의료원에서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보면 차들을 많이 타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국궁장하고 우리 의료원 화단 같은 것들을 좀 옮기더라도 해가지고 한…… 최소한 100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칸이 그려져 있는 저희 주차장…… 주차되어 있는 수가 약 65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도장에는 아마 잘하면 한 30대 정도는 주차가……

□ 박인철 의원

우리 의료원 담장 밑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좀 주차장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해가지고 거기만 잘 닦아놔도 최소한…… 거기도 한 10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 준공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

지금 그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고정적으로 내원이라고 그럴까, 이용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군민들은 평균 한 50여명. 50에서 60명 사이 정도 되고요. 예를 들면 저기, 그 안마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입주 여지가 없이 항상 꽉 차고, 그다음에 요즘 야간운행을 7월부터 했는데, 야간이 뭐냐면, 왜 여름밤 뭐…… 운동교실이라든가, 이런 타이틀로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벌써 1회에 12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지금 하나 못하는 것은 야간을…… 새벽하고 야간을 본격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맞죠. 지금 우리가 7월부터 그러면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러니까 전면적으로는 운영이…… 보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야간, 특별하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뭐 신바람……

□ 박인철 의원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인력이 보충되면 그냥……

□ 박인철 의원

원장님, 그러면 인력보충은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이미 저기…… 신청은 벌써 했고요. 자치
과하고도 면밀히 지금……

□ 박인철 의원

지금 신청인원이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
이죠? (예)

영양사 한 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용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최소한 22시까지 정
도는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일찍 문을 열어줬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필요인력이
채용되면 그 정도 민원에 충족할 수 있을까
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야간에 운영하는…… 이용하
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로 헬스장입니다. 밑
에 1층에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문을 열어
주고, 예를 들어서 좀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
든가. 청원경찰 한 분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 박인철 의원

이것이 지금…… 제가 저번에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안 했는데 지금 주 52
시간 근무제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운
동장도 예전에는 계속 개방을 했는데, 지금
은 시간제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
는데. 여기도 청경 1명이면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기…… 그렇게
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조금 더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출근을 오후에 하게 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하든지. 그런 탄력적
인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 박인철 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참 우여곡절 끝에 거기
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 좋다고 그러고.
단 한 가지 시간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 일과생활을 하다가
오후에 퇴근해 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데 사
용을 못해서. 그런 애로점이 좀 있으니까 원
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주민들
이 기설치를 해놨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최정욱 의원

원장님, 아까 제가 말했던 임신부요. 여기
보면 임신부 영유아 의료지원이라 되어 있어
서 제가 그것을 보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런데 거기에 어떤 의료지원이라는 내용이 있
을 것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있습니다. (청취불능) 의료비 지원 조
금……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런 것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여기 디테일을 얘기하게 되면 복잡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풍진항체검사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
로 기형아 같은 것 예방을 위해서 풍진항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임산부 영양제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출산
모 오메가3 지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임
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여기
이런 것도 있고. 뭐 돈은 아닙니다마는 출산

축하카드 발송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가격으로 따지면 한 8만 원 정도 해당하는 것도 있고, 아기 탄생하면 출산축하, 뭐 언론보도도 해주고, 저기 뭐, 신생아 무료작명서비스도 해주고, 모유수유 유촉기 같은 것은 무료 대여도 해주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금년 6월,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원하려고. 그다음에 셋째 아 이상부터는 돌맞이 축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회에 뭐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전 준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일시불로 주는 것도 있고, 소소하지만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것 언제부터 했던가요? 그 임신부들 지원해주고, 의료비 지원비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이것 꽤 오래됐는데요?

□ 최정욱 의원

오래됐어요? (예)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저기…… 그 부분은 출산부터 그다음에 진료, 의료, 그다음에 장려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묶여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원 외에도 다양하게, 그런 부분이……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의원님께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 부군수 박현식

이게 세트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종합대책 부분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만이 아니라 주민복지과부터 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부

분을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의원님께 종합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 임신부도 있다는 얘기죠?

□ 부군수 박현식

예, 임신부부터 이제…… 의료지원부터 출산, 그다음에 이제 보육수당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 출산, 인구 늘리기…… 전체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군 대책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약속했던 사항이라 너무 몰라서.

□ 부군수 박현식

예, 참고로 비너스 회원들이 우리 인구 늘리기 TF에…… 그 젊은 여성 분들이 많이 회원…… TF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을 저희들이 실과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비너스 카페라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올리고 원활하게 지금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한 후 10시15분에 속개하도록…… 10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관리담당, 하수도시설담당, 하수도운영담당, 3개 담당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산 상수도 시설공사 외 6건입니다.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현재 군외 원동 소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어 있어요. 아주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인접 지역에 보면 달도 부락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이게 원활하게…… 일개 부락이다 보니까 이게 시설이 안 되어있는데, 바다 쪽으로 이렇게 생활오폐수가, 방류가 많이 돼요. 이런 부분에 시설계획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저희 하수도사업은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하수처리시설을 하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고, 1차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2011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그 변경계획 용역을 현재 수립하고 있거든요, 수립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민들이 선호도가 너무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 정비…… 변경계획 용역 수립할 때 읍면이나 이런 수요를 전부 다 우리가 면으로 다 공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의사항이나 혹시 빠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저기……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이번에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요구한 마을은 전부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계획에 대부분 반영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반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최종은 올 11월 정도에나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 중간 중간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용역수립 중에 있으니까 계획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정비…… 하수도처리시설, 이 사업비가 사실 시군당 1년에 1건 정도 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도 너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사업…… 사업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사업을 많이 지금…… 현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냥 우선순위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일 50톤 이상 되고 있는 마을, 큰 부락 위주로 지금 처리를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건의를 자주…… 이제 환경부 측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일 50톤이 안 되더라도 완도는 지역의 특수성이나 섬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50톤 미만인 지역일지라도 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

도록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그런데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보면 인접 마을, 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펌프장을 설치하면 원동까지 이렇게 펌핑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인접, 인접…… 대부분의 이게 하수처리시설은 주민들 역시 우리 스스로도 혐오시설로 지금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하수를 끄집어 와서 하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부락은 1,000명 중에 1명도 지금 없거든요. 만약에 자기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는 자기 마을에서 처리를 해야지. 인근 마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 김재홍 의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봤을 때 우리 개인의 부락에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인접…… 원동리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원동 하수처리장은 1일 400톤 이상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만약에 달도마을을 연결해서 한다고 하면 시설용량을 좀 증설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근접거리도 지금 현재 원동 하수처리장하고 1km가 넘습니다. 1km가 넘으면, 거리가 1km가 넘으면 비경제적이라고 해서 환경부 자체에서도 승인을 해주지 않고 그냥 그 단독마을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만약에 달도에 하수처리장을 시설한다면 달도마을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훨씬 우선순위에 맞습니다.

□ 김재홍 의원

아니, 그러면 일개 부락에도 소규모 종말처리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일개 부락에도 소규모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 방침이 1일 50톤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우선순위에 밀릴 뿐이지. 전혀 안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달도마을도 이제 마을이 좀…… 작은, 인구수가 그렇게 작지는 않더구먼요. 지금 현재 환경부 기준에 250명, 그 기준에 미달이 됐지 200명은 좀…… 200명은 좀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도는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계획에 보면 1일 45톤으로 나오고 있어요. 45톤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경부랑 계속 저희가 건의해서 이런 50톤 미만일지라도 지금 도서지역이고 그 인구에 분산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지역도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해나가고 나면, 차근차근 해나가고…… 나갈 것입니다.

□ 김재홍 의원

명칭은, 지금 현재 봤을 때 달도부락이지만 군외면 전체라든가. 더 나아간다면 완도 청정바다수도라는, 이 명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군외면에, 앞전에 얘기했듯이 50억 바다목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생활오폐수가 나가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완도군 자체 내에 꼭 군외면이 아니고 완도군 자체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시급하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근방에 그냥 관을, 오수관로…… 펌프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일단 그것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데는 해조류가…… 해조류가 주생산이면서 인구수가 많고 그런 데를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갯벌 쪽은 조금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에서 갯벌이 충분히 자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1개소하고 44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갯벌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상품화될 때 상수도하고 하수처리시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취불능) 때는……

그래서 갯벌이 일단 분포되지 않고 직접 그 해조류를 이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동네에는 정비계획에 일단 반영을 시켜야지 나중에 펌프장을 연결시킬지 단독으로 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예,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주시시오.

□ 박인철 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으나, 소장님. 장보고사업 소장 대리를 했죠? (예)

1년에 연 몇 명이나 읍니까, 거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그…… 한 12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보통……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12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11만에서 12만 오죠?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장좌리가면 장섬이 있죠? 장섬 밑에 가면 굴 양식장이 있고, 또 장좌리하면 완도에서는 완도읍 관내에서는 감태가 최고 유명하죠? (예)

그 하수관로 봤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좌리 말씀하십니까?

□ 박인철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그 장좌리는 우리 죽청 배수처리장으로 지금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좌리 마을이 좀 하수처리를 하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를 우리가 어쨌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연막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원인이 원래는 오수만, 우리가 하수관로로 연결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게끔 그렇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일부 그…… 장좌리 마을은 좀 많아요. 우수를 하수관로로 연결을 해버려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좀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 박인철 의원

그 관로가 대야리에서 넘어가 가지고 장좌리를 거쳐가지고 죽청리로 가죠? (예)

거기 애당초 우수관로가 왜 연결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연결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연결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본인들이 연결을 안 했을 것이고 다 업체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서……

원래는 오수만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수까지 들어와서……

□ 박인철 의원

아, 그러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계도를 좀 주민들한테 우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해결방법은 뭡니까, 해결하려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주민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수에 대해서는 주민이 해야 되는데. 지금 2차 계도까지 저희가 했고 2차 계도를 한 상태에서 안 되면 이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그 부분을 우수하고 오수를 그 저기…… 분리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우수관로를 각 가정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연결을 시켜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임의적으로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수관로가. 우수는 별도로 빠져줘야 되는데 이 오수랑 같이 연결이 되어 버려서 지금 그 장좌리가 넘치고 있고. 지금 마을에서도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민원 제기를 저희한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잘못을……

□ 박인철 의원

잠깐만요, 소장님.

제가 비가 올 때마다 그 현장을 가봐서 알아요. 그 안전펜스도 아니고 공사할 때 그 몇 개 갖다놓고 관광객들이 가는데. 거기서 전부 오수가 넘쳐가지고 바다로 다 흘러……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지금 뭐 우수가 들어왔다고 내가 연막으로 다 잡은 지도 알아요, 번지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이제 일단은 결론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문제점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조치를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뭐가 이유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거든요.

□ 박인철 의원

소장님, 이제 이유는 알았으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그 부분을 처리……

□ 박인철 의원

이제 장마는, 일단은 소강상태로 끝났고. 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것인데.

언제까지 그러면 정리할 것입니까? 여기서 딱 확답을 하십시오. 이유를 알았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그래서……

□ 박인철 의원

마을에서 뭐 또……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되는 사항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놔놓지는 않고 지금 계획을 시설팀에서 이제 우리끼리 토의를 했거든요. 이제 주민한테 맡겨두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그 저기…… 소관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나오고 하면 이제 금방 그 부분들은 처리가 될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 위치가 바로 앞에는 장군섬이 있고, 우리가 정월대보름날 거기서 매년 행사를 하는 장군섬이 있고, 바로 앞에는 장도예다가 목교예다가…… 딱 그 중간지점 아닙니까? (예)

그 하수관로가 맨홀이 3개인가 있어가지고 전부다 비만 오면 거기서 오펜수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바다로 그냥 그대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것 빨리 저기 이제…… 알았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조치를 취하……

□ 박인철 의원

저기 노화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노화……

□ 박인철 의원

바다로 바로 방류했던, 그 문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바이패스는 지금 그…… 차단시켰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다시 유량조로 하나 만들었습니까? 다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아니요, 지금 해가지고, 지금 사업 발주해 가지고……

□ 박인철 의원

아직도 그것이 발주 상태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그 발주가 되어 가지고 저희 조달청 구매, 지금 해가지고 소요는……

□ 박인철 의원

몇 톤 정도로 만들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200톤으로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정도면…… 거기도 지금 애당초 우리가 용량초과가 된 것이 아니고, 외부 물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그랬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오수만 들어와야 될 상황인데……

□ 박인철 의원

아니, 중간에…… 중간 중간 이음새로 해서 자연유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바다로 방류해 가지고, 그 갈대가 자연정화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갈대도 다 시들어가지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 착공 안 했어요? 저기 임시저장, 그 시설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 박인철 의원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예, 그리고 이제 노화는 지금 그 이후로도 저희가 막도 좀 교체를 하고, 근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그 업체들도 좀 바뀌고 해서 기술을…… 그전에는 좀 운영을 하는데 약간 미흡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알아서, 그 옛날 노화 하수처리장, 그 형태는 완전 사라지고 지금은 정상 가동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 이제……

□ 박인철 의원

그것이 위탁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그 저기, 구매는 조달청 구매로……

□ 박인철 의원

아니, 관리. 관리가 위탁이죠? (예)
그러면 위탁인데, 매일 거기 상주합니까,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상주합니다.

□ 박인철 의원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노화는 왜…… 그전에는 상주가 아니었는데 이제……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은 상주하게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유입된…… 그것은 어떻게 차단할 것입니까, 앞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어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박인철 의원

관로에 유입이 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그것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이번에 유량조정조를 하면서 그 급속처리 장치가 되면 그 용량도 다 받아서 정상가동할 수 있게끔, 그 용량까지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그 예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 현장에 가 봤을 때는 여기서 처리를 못하니까, 그 뭘니까, 건강테마촌을 쪽 해가지고 한 쪽에다가 호스 한 500mm 인가 300mm, PVC 이중벽관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바다로 바로 안 흘려보내버렸습니까.

소장님, 소장님 전전소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이 이래, 이래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준공을 내줘가지고 방송에도 맞은 사업…… 맞은 일 아닙니까, 이것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은 노화 처리장이 문제없이, 이번에 장마도 있었고, 비도 오고 그랬지만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를…… 저기 걱정 안 하셔도 되게끔 지금 하수처리장……

□ 박인철 의원

하여튼 관리 잘해주시고, 우리가 말만 청정완도…… 수도, 이러지 말고 바다 관리 잘해주시고.

장좌리 문제는 시급하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 부군수 박현식

중요한, 의회라 중요한 답변일 것 같아서. 장좌리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까 우수하고 오수가 섞였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시골 동네에 보면 원래 싱크대만 연결을 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 관을 보면 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분류하는 방안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화 건은, 노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 용량을 만드는데 있어서 최대 용량을 만들지만. 노화 경우에는 굉장히 관광객 변동폭이 큼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또 우수가 섞여서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이제 관로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주에 있는 급속……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 그 시설이 있어서 현장검증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비해서 용량이 많이 들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은 한 200톤 정도는 그 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가 평상시에 장좌리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오페수관에다가 하수…… 생활용수를 다 거기다가 안 넣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만 오면 그것이 넘쳐버리거든요, 맨홀로. 그래서 그 우리 관에 빗물이 유입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 관계만 잘 정리가 되면……

이번에 연막으로 해가지고 다 잡았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얼른……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그래서 우수관로만 자르면 되거든요. 마을 집집마다……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이 없도록 바로 현장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사실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을, 무단방류를 할 수……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노화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변동 폭이…… 특히 우수철 말고 굉장히 변동 폭이 큼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유량조정조도 넓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막도 교체를 했고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앞으로 그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하나둘씩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그러니까 부군수님 말씀처럼 제주도에 는 처리 용량이 넘어가지고 바다로 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말썽이 많이 생겼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지금도 제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지금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우리가 인구수에 못 따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 장좌리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해결만, 조치만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예,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 보면 노화, 보길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아주 노화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뭄대책으로 해서 정자리 마을에 제2수원지 건설사업과, 또 부곡리 마을에, 저류지조, 지하댐? (예)

그 시설을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그 코팅 시설이라든가, 그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그 노화, 보길 가뭄해소대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제2…… 정자리 지역에 제2수원지, 그 50만톤 규모의 제2수원지와 그다음에 부항리…… 부항천, 일명 우리 저기…… 행정용어로는 지하수 저류조거든요. 그런데 일명 이제 주민들이 말하기 좋게는 지하댐입니다. 지하댐으로 해서 7만 5,000톤 급의 지하통 개발을 해서, 지금 두 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계속 푸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댐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결과가 11월에 나옵니다. 11월에 나오고, 지금 제2수원지 관계는 그 환경부와 우리가 지금 가뭄지역 지하…… 저수지 축조 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영광, 신안, 진도, 완도 4개 시군입니다. 4개 시군 지자체와 그 환경부, 그 다음에 전남도, 그다음에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합세를 해서, 지금 현재 가뭄지역에 대한 저수지는 현재 지특사업으로 대부분 해왔거든요. 지특사업으로 하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특사업이 아닌 별도로 한특사업이나.

만약에 한특사업이 어렵다면 별도의 예산계정을 만들어서 이 가뭄지역에 대한, 그 물해소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고, 오늘 오후 5시에 또 운영일 국회의원님하고 면담이…… 이것 관련해서 건의하고, 기재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힘을 같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군수님하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2수원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하댐에 대해서는 11월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나면 이제 만약에…… 제2수원지 개발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물량이 된다고 하면 지하댐만 가지고도 가뭄이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제2수원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저희가 부군수님하고 같이 해서, 그 주민설명회를 좀 준비를 해서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예, 부군수님하고 해서 같이 꼭 이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지난해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장보고유적관리소장 정성조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는 관리담당, 시설담당, 어촌민속전시관담당 등 3개 담당으로 안내를 전담하는 공무원 14명을 포함, 총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사적 제308호인 장도 유적지 장보고기념관, 어촌민속전시관, 장보고동상, 관광정보센터, 장보고공원 등 시설물 관리와 방문객 안내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장보고기념관 특별전 개최 외 5건이 되겠습니다.

.....

【참조】

· 2018 군정 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예, 장보고관리사업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줄곧 밖에서 볼 때 그 어촌민속 전시관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그것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이 7명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1년 예산이 한 3억 3,000? 400 정도 되죠? 이것은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인가요, 1,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인건비?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인건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인건비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아, 풀베기 사업 인건비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니까 1년에 예산이 3억 3,300…… 400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우리 직원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직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 직원들까지 하면 얼마나 될까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직원들 인건비는 제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전부 다 개인정보 사항이라, 다른 직원들이 얼마 봉급을 받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면 대강 한 6억 정도는 저희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1년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항상 거기에 없어지는 돈이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입장료가, 1년에 180만 원 정도가 입장료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항상 1년이면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때요, 지금 운영하고 예산과, 과연 거기가 앞으로도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예, 지금 현재 화흥리에 위치해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은 당초 1기 때, 민선 1기 때 군수님이 추진해서 세운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로 와서 보니까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곳이 장보고기념관하고 생태전시관이 되는데, 거기는 거리가 너무 원거리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선 3기, 4기, 5기, 지금 현재 7기입니다마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저기다가 뇌놓고

는 도저히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전을 하든, 다른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소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아무리 그 자리 위치에서는, 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아마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저도…… 본의원은 보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전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해진수석공원 있는 쪽, 그 부근에 그쪽으로 이렇게 같이 가서 어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위치는 뭐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옮긴다 하면?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예, 저 어촌민속전시관을 옮기든가, 폐지를 하든가 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과연 옮겨도 되느냐. 요즘에는 주민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옮겼을 때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이전장소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보고기념관이 위치해 있는, 그쪽 일대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시설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장보고기념관 쪽으로 건물을 옮기면 당연히 연동성이 있고 관계된 시설물이 쭉쭉 있으면 좋지만, 제가 판단하거나 문화재청의 의견을 거기서 얻어 봤지만, 자문을 구했지만 문화재청…… 문화재구역 안에는 일반시설물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어렵

다. 그래서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군하고 군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어차피 주민의견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계속 쓰면서 저 실용성이 없는 것을 다 알면서도 저렇게 간다는 것은 당연한…… 주민들이야 다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다만 장소가 어디냐. 이제 옮겨야 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옮겨야 되느냐, 폐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소장님 지금까지 볼 때는 그래도 저것을 옮겨서 운영하는 것과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폐쇄하는 것과?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예, 당연히 우리 완도군 발전을 위해서나 관광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옮겨야 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옮기면 청해진수석공원 일원에 일반 땅 주위에는 그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허가 자체가 안 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역 내에서도 어렵고요, 지금? (예)

그럼 그쪽은 무조건 어렵네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적을 보존 가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문화재 쪽으로, 문화 유적으로 지정해 놔는데, 그 안에는 일반건축물은 시설이 불가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옮긴다고 하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그것은 저 혼자……

□ 최정욱 의원

아니, 어느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해당되는 장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아직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군에서 큰 사업으로 해서 이루질 사항 같으면 전직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 혼자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아직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일반 땅에는 이 허가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론은 옮길 데가 없다면 폐쇄를 해야……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아니, 일반 땅에는 가능하죠.

□ 최정욱 의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문화 유적지 내에서는 시설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죽청리 일원도 일반사유지 땅들, 그 부근에 많이 있잖아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사유지가 포함된 땅이 조금 있는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즘 다 민간주택이나 하는 데는 지금 지어져 있는, 기지어져 있는 시설……

□ 최정욱 의원

아니, 일단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최정욱 의원

예.

□ 부군수 박현식

죄송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논의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내부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공론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장 개인이라든가, 확실히 공론화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위치가 어떠냐고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정식으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이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공청이라든가,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이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단계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최정욱 의원

예, 이제 이제…… 저도 좀 알아봤는데 전의원들도 이것을 가지고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일반 군민들은 뭐라고 하나면 저런 예산을 1년마다 쓰면서도 계속 그렇게만 가냐, 계속, 뭔가 지금쯤은 한계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저희들이 받는 민원사항이에요, 이것도.

□ 부군수 박현식

이제 항상 저희들이 있다 보면 우선 전시관이나, 이런 건물을 짓다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시관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익은 생각을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이게 콘텐츠가 부실해지면서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시관을 항상…… 저런 전시관을 만들다 보면 항상 고

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그 전에도 논의는 있었습시다라는 정식으로 아 마…… 조금 더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의회하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의견도 한번, 수렴도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한번 공론화를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제가 수익을 창출하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 부군수 박현식

예, 그러니까……

□ 최정욱 의원

다만 저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면, 또 다른 대안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라는 여기서 뭐 하나 하나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길고, 활성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되느냐를 진즉부터 이 말이 나왔는데 계속 끌고 가니까, 지금쯤은 너희들이 의원도 됐으니까, 지금쯤은 한계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활성화를 시키려면 대안 방법을 연구하고, 아니면 폐쇄를 시키면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 부군수 박현식

이제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빨리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을 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은 듭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또 넘어가면 너희도 똑같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빨리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 의원(7인)

허 공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업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의원(2인)

조 인 호
이 범 성

□ 불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 의회 참석자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16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황칠특산물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

□ 부의된 안건

<제5차 본회의>

1.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황칠특산물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된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6호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대한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2개소이며 26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아동단체의 운영에 따른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센터아동 급식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센터사업 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7호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한 사업비 이상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부터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력제의 용어를 정책실명제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8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9호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따라 기존 조례에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세분화하

고 통행금지나 통행제한하는 구역과 시간의 결정은 사전에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기관……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0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과 지방회계법의 개정 따라 우리 군 조례에 회계 관계담당 명칭이나 용어 등을 변경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1호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생활이 어려워 일정기간 생계나 주거, 급여 등을 지원해야 될 대상자를 정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2호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제정법에서는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조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3호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법제처의 법령 표현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나 용어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34호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에서 예술품과 같이 가격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전문매각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도록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남북교류협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도군 황칠특산물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35호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본질적으로 완도군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고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황칠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로 보호함과 동시에 그 품질 명성에 따른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과 사용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황칠특산품이라고 함은 완도지역에서 생산된 황칠나무에서 생산·가공되거나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되어 액기스, 도로,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상품과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고, 증명표장 사용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하고 황칠특산품 품질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고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유통에 대하

여 책임에 대한 사후관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 11조 2항, 군수는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토록 지원할 수 있다. 의안 제12조 황칠품목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6호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기능을…… (청취불능) 통해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 구조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생도시사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단계로부터 사업시행 단계에 이르는 주민의 참여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협조체제와 도시재생위원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호 이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력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 특별한 사항을……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7호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일치하고 완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군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생활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대책본부 편성은 재난과 사회재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과 재난 상황에 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38호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 결의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그동안 한전에 본사업 목적을 제주에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완도군을 통해 육지로 송전하고 태풍 등 재해시 완도 지역 취약 전력개통보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며, 마치 완도군을 위한 사업으로 설명하였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 불안정한 전기수급을 해소하기 위한…… 완도군을 통해 육지로부터 송전을 받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혀지면서 한전에 대한 완도군민들의 신뢰도를 떨어질 대로 떨어트렸습니다. 또한 송전탑 입지에 선정된 주변지역은 완도의 첫 관문이며 수산식품 가공 해양수산물단지가 위치되어 있어 변환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주거를 침해하고 자연훼손 등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그 피해는 완도군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으로…… 돌아갈 것이며 완도군민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하는 행위는 규정할 수 밖에 없어 완도군민들의 행복권…… 건강과 행복권을 보호하고자 이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0항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

(10시21분)

다음은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문을…… 낭독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채택요령은 결의문 낭독 중 하나의 구호에 맞춰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결의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

우리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천해의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역사보고가 살아있는 고장이다.

최근 정부와 한전이 완도 제주간 완도 측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도군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조장되어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그동안 한전에서 본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 신재생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발생하여…… 잉여전력을 완도군을 통해 육지로 송전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시 완도 지역 취약전력계통 보강을 위한 사업임이 하며 마치 완도군민을 위한 사업으로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 불완전 전기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완도군을 통해 육지로부터 송전받기 위한 사업으로 밝혀지면서 한전에 대한 완도군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세계보건기구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 각종 암은 물론 기형아, 유산, 불임 등 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각종 연구를 통해 유해성이 입증되고 본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완도군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송전탑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것이다.

송전탑 입지로 선정된 지역 주위는 완도의 첫 관문이며 수산식품을 가공하는 해양식품…… 해양생물농공단지가 위치되어 있어 변환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자연경관 훼손 등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영향으로 그 피해는 완도군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며, 완도군민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하는 행위를 규정한 수밖에 없다. 이에 완도군 의원 모두는 완도군민을 기만하고 군민정

책 환경을 침해하는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완도군의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완도군민의 이해와 합의를 배제한 사업은 결사반대이며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완도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사업이 추진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8년 7월 16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 착석)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통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송부하여 우리 군의회의 입장과 우리 군민들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0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제8대 완도군의회와 민선7기가 새롭게 출발한 가운데 첫 임시회를 통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더 나은 정책을 펼치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의원들로부터 제안된 사안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회기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로 활용하여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매년 이 시기에는 불청객인 적조는 물론, 태풍이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는 시기

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재
난재해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금년에는 단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업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13일(금) 13시58분

□ 의사일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6.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6.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58분 개의)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2326호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326호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인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부모의 취업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방과 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나 빈곤, 학대, 방임가정 아동, 한 부모 조선…… 소년, 소녀, 다문화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의 아동의 이용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워크숍 등 역량강화 경비,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및 보조인력 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각종 문화체험 및 발표회, 한마당행사를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해

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토록……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군 관내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상정된 의안번호 2326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동조례에 근거되는 아동복지법으로 같은 법 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 아동이나 지원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12개소로 26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7조를 보시면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의 내용이 상당히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 종사자 인건비, 이런 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군 관련 부서에서는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시에 그 대상과 지원 한도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9조를 보시면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둘 때 군 의원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원회 의결시에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6호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6호 완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27호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기획예산실장 서현중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327호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8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책이력제 용어를 정책실명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정책실명제 사용정의를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7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조정하고 외부인원 비율은 4명 이상에서 전체위원회 50% 이상으로 외부위원회 참여를 높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박인철 위원이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한 사업비 이상의 주요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상의 공사라든지, 2,000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뭐 5,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처음 추진하는 의사결정부서 공무원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책이력제인데요. 이번에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정책이력제를 실명제로 바꾸면서, 그런 관련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7호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7호 완도군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28호 완도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29호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30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31호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28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부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의안번호 2328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상향지원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를 매분기 다음 달 20일에서 매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21쪽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인상

과 조문의 표현내용 중 일부를 법제처의 요구형식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신규조문 대비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검토보고를 드릴 때 법제처의 요구형식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먼저…… 여기에 보시면 현행이 있고 저 뒤에 표가 있는데,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보면 밑줄 그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줄 그어진 부분들이 바뀌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 이것이 법 제39조 이렇게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앞에 문장하고 뒤에 예문들은 전부다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요구형식에 맞추는 것은, 예를 들어 5조를 보시면 별지 제1호 서식이라고, 제1호하고 한 칸 띄고 서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서식처럼 붙이는 것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고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의 형식과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29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9호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 및 내용을 전부 개정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주체를 신설하면서…… 신설하였고,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을 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시간 추가 및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9쪽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안의 주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우리 현행 조례에서는 청소년 출입제한구역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하고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주된 내용이 그것이고요, 이제 통행금지나 통행제한 하는 구역과 시간의 결정은 군에서 군수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할 경찰서나 학교 등 해당지역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개정안의 형식과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30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0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권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회계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명을 회계공무원에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정리관을 재무관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7쪽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상정된 의료급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하고 지방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 관련…… 회계관계공무원 담당명칭이나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형식과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31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다음은 의안번호 2331호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에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조를 보면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군 자활지원계획에…… 계획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

기타 자세한 사항은 49쪽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상정된 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영세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이렇게 주택급여…… 그 대상자들은 당연히 정부가 지정한, 그런 한계

에 들어가면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 이외에 나머지 좀…… 취약 대상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번에 제정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안 2조에서부터…… 2조에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을 정하고 있고요. 3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안은 전국지자체의 공통된 표준안에 (청취불능) 하는 것으로 형식과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자식들이 있으면 못 받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주자는 그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엇그저께 법에서 이렇게…… 되는 것?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들에게 제공을 하다보면 자녀들이 있는데,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 위원들이요. 지금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촉은 완도 군의회 의원님들,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두 분하고, 기타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청취불능) 전공한 전문가,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여성차별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군 같은 데에선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발굴이 될까요, 이 분들은?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지금 이게…… 처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 가지고 그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하다보면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행을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 박인철 위원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법이 바뀌어져가고…… 법이 안 바뀌었습니까, 법이. 차상위층, 그 관계에서 뭐 재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식들이나 뭐 사위, 딸들이 재산들이 있어 가지고 못 받은…… 그런 취약계층들을 하자는 그런, 그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그런 취지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것이 그러면 지원이 됐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 이번에는 그 범위가 완화됐고, 그 전에도, 범위가 완화되기 전에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우리가 읍면사무소에서 봐보면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돈은 전부 우리 지방비입니까, 그 위에 국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국비가 포함된 내용도 있고 지방비, 거의 지방비 위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령에 어떤 근거를 두고 수혜규정을 제 공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공무원 임의대로 “아, 너무 불쌍하다.” 싶어가 지고 근거 없이 집행을 하다보면 나중에 감사 지적을 받는다는지. 공무원만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결을 받아서. “자, 이렇게 의결을 받아서 우리가 저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혜택, 어느 수준으로 혜택을 받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 진짜 저 사람 도 와줘야할 분이다.”, “아니다. 말로 저렇게 엄살떨고 하지만, 실제로 자식이 너무 잘산다.” 라고. 그런데 주위 분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될 것이고.

이제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수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까, 이런 분이 확정이 되면?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영구적인 지원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 우성자 위원

일시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28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28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9호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29호 완도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0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30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1호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31호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32호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33호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건씩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57페이지, 의안번호 제2332호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동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동조례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59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32조 2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면 도비이거나 시군(청취불능)입니다. 지방…… 그 군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60쪽을 보시면 친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조에, 그 밑에 쪽에 두 번째 줄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및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개정안에 운영비를 빼고 상위법에 지원 근거…… 규정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대로 놔두고 운영비만 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다음은 65페이지 의안번호 제2333호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도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동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 제4항에서 완도군의회 의장, 완도 교육장,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완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없어서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개정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례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67, 68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법제처의 법령 표현형식에 맞게 띄어쓰기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기타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2호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32호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3호 완도군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33호 완도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34호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제2334호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하도록 완도군 군세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전문매각기관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체…… 해제요청,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부의 수령, 배분,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 비밀유지, 배상책임 등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 지방세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세금납부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목의 종류나 부과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현행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에서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방세 체납처분, 위에 성실납부자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이 예술품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가격을 일률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런 체납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서 매각을 대행하도록 하는 그런 관련 내용을 이제,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4호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34호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재 선
허 궁 희
우 성 자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5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13일(금) 14시40분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

(14시40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335호 완
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2335호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35호 서류
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산림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2335호 완도군 황칠 특산물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황칠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제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완도 황칠품 제품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2017년 1월에 지리적 표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만 이 특허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에서는 황칠을 많이 심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황칠산업을, 황칠을 산업화해 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황칠산업화를 해보자는, 지금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성분분석이라든지, 신제품개발이라든지 관련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전국공약사업에 응모를 해서 황칠산업화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과 함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 적용범위로는 완도군의 토지나 시설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고, 그 주요 설비에서 황칠특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산업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황칠특산품의 품질과 명성, 그리고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전문위원 배정택입니다.

상정된 본조례안은 본질적으로 완도군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황칠특산품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함과 동시에 그 품질과 명성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상표법에서 정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청취불능)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시면 황칠특산품이란 완도에서 생산된…… 황칠에서 생산된, 가공된 이를 원조로 해서 액기스나 도료,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의 상품과 그리고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증명표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안 4조…… 3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사용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해서, 완도군 지역 관외에 있는 황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이렇게 자문하는, 그래서 운영위원회 설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서는 황칠특산품 품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품질관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제7조와 8조에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또 승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사후관리 사항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제10조에서는 부정한 사용에 대해서는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는 황칠특산품에 대한 판매나 품질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구성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상표등록은 현재 139개가 되어 있고, 그중에 135개가 상표가 되어 있

고 업무표장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리적 표시는 수산분야에 현재 완도 전복, 완도 다시마, 완도 김, 완도 넙치, 그리고…… 5개 품목이 현재 등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표 중에서 특별히, 우리 완도군에 보면 건강의 섬 완도, 그리고 전복 완도…… 전복산업 특구, 그리고 토마토에 대해서는 완도 스마토, 그리고 툇에서는 (청취불능) 그리고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그리고 웰빙식품, 그리고 해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어서, 총 135개소가 등록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11조예요. 판매촉진, 뭐 홍보해 가지고 판매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지원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입니까? 11조예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보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가능하고, 행정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 우성자 위원

금전은 어느 정도나 지원이……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것은 이제 규칙으로……

□ 우성자 위원

아직 계산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게……

□ 박인철 위원

이 지리적 표시인데 왜 여기에가 지금 제 11조, 제12조 예산…… 제12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리적 표시제를 하려고 하면 지리적 표시제만 하면 되지, 완도가 황칠이라고 하면 얼마 우리 군에서 해주면 되지. 왜 여기다가 예산을 집어넣어 놔습니까, 이게 막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금, 12조에 자금 지원해 가지고, 완도군에서 지리적 표시가 승인된 대상품목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고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그 단체라든지, 그런 일반주민들한테 지원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지리적 표시를 하자는 완도군 황칠이라는 지리적 타…… 인근 강진이나 장흥, 이런 데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를 하자는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지리적…… 앞서가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를 하고요.

□ 박인철 위원

그것만 지리적 표시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해주면 되지, 왜 여기다가 자금 지원을 집어 넣어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담당……

(“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박인철 위원

예.

□ 산림녹지담당 문상만

산림녹지담당 문상만입니다.

지리적 증명표장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 만약에 상표가 나가서 상품이 나갈 때 박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 박인철 위원

예, 좋은 취지인데. 우리 행정에 거의 지금 다들 이런 지원,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리적 표시를 먼저 해보고 나중에 이것 자금 지원이나 이런 판매촉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일단 시험을 해보고 나서 뭐 개정안을 하더라도 뭐하는데.

조례에 막 지금 지리적 표시하면서 여기가 이래 가지고 지원 조례를 넣어놔 버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 산림녹지담당 문상만

저희들이 상표등록이라든가 완료되면 그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우리가 지금 정책, 뭘니까. 지리적 표시를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나서……

우리가 황칠이 이제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까? (예)

또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그 사업이 한 3~4억 투자되고, 내년에도 그렇게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금방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앞서가자는 이런 좋은 취지인데. 그 취지만 살려서 갔으면 이 조례에

서 좋겠는데, 이 조례에다가 갑자기 11조, 12조에다가 이 지원 근거를 뒤흔드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꼭 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리적 표시를 먼저 해보고 완도에서 상품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때 개정을 하든가 뭐하든가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저희 추진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특허출원을 해놨는데. 어차피 특허출원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추진됐습니다. 용역추진 과정에서 특허청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이게 특허를 받을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게 되면, 이왕 사업이 시작될 때……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청에서, 우리가 완도 지리적 표시를 하는데. 네 계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설명했습니까. 이 조례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자금 지원이 들어가고 저기, 홍보를 위한 또 지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것 금전이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리적 표시를 하는데.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대로 끝나고, 이런 것은 이래 가지고 군민 실생활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다른 조례를 하나 만들든가. 그래서 여기다가 부칙으로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러이러한 지원, 자금지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조례에서, 바로 자금 지원이 나오고 예산 범위 안에…… 아주 폭넓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나 뭐 1, 2회 추경 때 환경산림과에서 황칠…… 이 이력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그 범위 안에서 한다면…… 이것 군수 선심성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런데 저희들이……

□ 박인철 위원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사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명시할 수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공모사업은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다 놓고 지방비를 넣어가지고, 군비를 넣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끝나가지고 되는 것이지, 꼭 이 조례가 있어서 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금 지원 조례……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런데 자금을 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하자. 이 말이에요, 부칙으로.

정책이력제…… 지역실명제를 하는데, 지리적 표시를 하는데 어디 자금지원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지리적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좀 잘못 아는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아니, 이왕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광범위하게. 폭넓게……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줬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11조, 제12조는 삭제하고, 이것을 지리적 표시제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시행해놓고 나서 일부개정

해 가지고 부칙으로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리적 표시를 하는데 갑자기 제일 마지막에 11조, 12조에 지원할 수 있다. 자금 조례……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폭넓게 나가있다. 이 말입니다. 애당초 지리적 표시, 이 취지하고 엇나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금방 폭넓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 박인철 위원

제 생각은 11조, 12조는 여기서 삭제를 하고, 나중에 해보고 뭐하면 다시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부칙으로 넣든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박인철 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 전문위원 배정택

제2조의 정의에 보시면 황칠특산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91쪽입니다. 정의에 보면 저희들 완도특산품…… 완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서 생산·가공되거나 이것을 원료로 제조나 가공되는 액기스나 도료, 음료, 식품, 화장품 상품화. 이것은 상품이 되어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례상에 우리가, 저희들이 황칠에 대한 제품의 보급화를 위해서는 아까 침에 담당부서 책임 담당께서 말씀하신 박스나 관련……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정적 지원들이 따라줘야 만이…… 조례의 규정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제2조…… 전문위원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을 지리적 표시로 완도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여기다가 꼭 왜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완도군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는 것은 우리 군 재정으로 다 그냥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지금 우리 군 조례들이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떠들썩 있어서 못 떠들썩 봐서 그러는데, 떠들썩 보면 거의 사업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더 잘 알아가지고 그런 조례를 들이대고 지원을 해주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나, 이런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 정도 할 정도 되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지, 꼭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군 전체 조례들을 봐보면, 제가 여기서 열거는 안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느 단체고 뭐고 간에 거의 자기들이 돈을 내고 좀 해야 되는데, 거의 군에다 다 손을 내민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저기, 뭘니까. 농수협, 축협,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도 우리 군에다가 거의 다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배정택

그 두 번째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지리적 표시라는 것은 증명표장을 말씀하시거든요. 지리적 표시 전제 조건 하에 증명표장하고 있습니다. 증명표장이라는 것은 특허청에 특허를 하면 저희들 시행규칙에 완도 황칠, 완도 지역에서 나온 황칠 명칭이…… 저희들이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그 황칠이 부여되면 증명표장이라는 명칭이 통일성 있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뒤따름이 되어야지 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증명표장이라든가, 뭐 표장, 이런 것을 하는데 사업자들이 완도군 황칠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리적 표시만 해주면 되지.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있고, 상품들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상품들을 일관적으로 뭐 할겁니까. 우리가 (청취불능) 읍면 것이라고 하면 완도에서 다 나온 읍면 것이라고 회사 체계가 아니고 (청취불능) 협회에 속해 있는 각 어가들이 하니까 포장지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다시마 같은 것도 각 그 상회에서 자기 다시마 포장지로 새 곳에 따로 따로 하는데, 이 황칠에서 나온 것도 각 회사마다 A, B, C, 뭐 D회사마다 다 상표…… 완도라는, 이것 고유 명칭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들은 도안들이 다 틀릴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다 우리가 이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지금 특허등록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도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도안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표시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예산이 서야 된다는, 그런……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 표준 도안이 나와 있으면 그 도안들을…… 일반 회사, 자기 회사들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일일이 다 지원을 해줘야……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건강한 바다…… 건강한 바다나 이런, 완도 자연그대로 농법, 이런 것도 다 우리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그 업체들에서 다 갖다 사용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그 명칭을 가지고 도안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 버리면 우리

군, 이 열악한 지방재정이 어떻게 되냐는 그 말이에요.

□ 산림녹지담당 문상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창기 그 산업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초창기 때는 지원이 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반이 완료되고 안정됐을 때는 군이 지원을 할 수……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업주들이 들이대면 다 해주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뭐 내년도 본예산에나, 이것 특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이것을 안 해줘버리면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안 해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을 만약 삭감을 시켜버린단가, 뭐 저기 하면……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감이 됩시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방금 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맨 처음 시작한 단계이고, 또 호칭을 주로 많이 삭제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황칠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계장님. 그 밑거름을 다 만들어 주고 안 있습니까. 황칠식재부터 해가지고, 그 정도 우리가 기반시설을 SOC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나머지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

들어가지고 판매하는 데까지 우리가 그 판매지까지…… 그 판매포장지까지 우리가 이래가지고 저기, 지리적 표시를 해가지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주는데 이것으로 끝나야지. 그 나머지까지 우리 군에서 다 뭐 한다는 것은…… 과장님, 제 생각에는 너무 폭넓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나중에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감당을.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도비나, 이래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따와 가지고 오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별개의 사업이니까 그대로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조례가 없어도 그런 것 지원이 되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청취불능) 종합적으로, 그 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여기다가 역량, 주민 역량강화. 교육비 같으면 100번, 1,000번 이해를 해요, 교육비 같으면. 그런데 이것은 폭넓게 보면 사업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그것도 사업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 사업을 명시하는……

□ 박인철 위원

아니, 여기 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보면 이것은 사업의 지원이지. 어떻게 교육 역량강화 지원입니까. 교육 역량강화 지원이 아니지.

아니, 저기 대상품목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비 지원이지. 교육 역량강화 지원은 아니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 사업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 박재선 위원

저도……

□ 박인철 위원

예, 하세요.

□ 박재선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박인철 위원님 말씀처럼 지리적 표시 사용은 그대로 하시고 특허를 받은 후에, 제가 봐서도 ‘부칙으로 넣어서 그때 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든지……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박인철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11조, 12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 박인철 위원

아니, 저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 박인철 위원

제 의견은 이 11조, 12조는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이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십시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방금 저도 이야기 했듯이 그것은 박인철 위원님같이 좀 하시고, 그 특허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구축해서, 그런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게 지원내용 11조, 12조, 다음에 의회로 올렸을 때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우리는 지금 처음이라……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아니, 뭐 조례가…… 개정이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러면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 김양훈 위원

지금 다른…… 지리적 표시된 품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조례안에 서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 김양훈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특허를 좀 내보고 지리적 표시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굳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뭐, 처음부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우선은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부칙으로 만들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쪽……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서 단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들어보니까 다른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광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넙치도. 그런데 특별하게 지원한다는, 이런 조항은 우리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품목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나.

그래서 그렇게 꼭 여기에다가 안 넣고 부칙으로 넣어서 그렇게 큰 피해가 안 된다면 우리들도 좀 그동안에 알아도 보고 하계,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위원회에서 결정……

□ 허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위원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11조, 12조를 삭제하자는 그 뜻인 것 같아요.

□ 박인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11조는요, 11조 2항만 삭제하면 되고, 12조는 전체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1조 1항과 3항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박인철 위원에 대해서…… 위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1조 2항과 12조를 삭제한 나머지는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론은 박인철 위원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11조 2항과 1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이의가 없죠?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 1건에 대한 조례안,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 제2335호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제2335호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336호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33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99페이지, 의안번호 제2336호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 관할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공동 이용시설은 영 제3조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또는 유사한 용 도시시설을 말합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협의체 지원에 관한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영 제14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주민교육프로그램 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는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직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은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융자의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융자의 조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에 따르며 안 제17조는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상생협약체결 권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는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0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상정된 본조례안은 인구감소와 또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기능을 주민 주도를 통해서 기성시가지를 재활성화하고 도시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은 주민 주도를 통해서 기성시가지의 (청취불능) 기본방향과,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수립부터 단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 이르러 주민이 참여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협의체와,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와, 그리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구성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청취불능)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위원회하고 센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센터를 설치했으니, 이 센터가 어떤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금 이게 도시재생위원회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심의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고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면 도시재생센터를…… 이 부분도 임의조항으로 지금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 있는 임의조항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청취불능) 했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확정되면, 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장의 그 기능이 어떻게 보면…… 다른 공모사업의 역량강화를 하는 사무장 기능을 센터장이 하는 것으로 지금…… (청취불능)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왜 이 센터가,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청취불능) 없는 것 같은데, 이 조례 안에는 있으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법령 체계를 잡으면서 준칙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는 정비하고 있으면서 센터 부분은 설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사업추진이 확정된 이후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검토해서, 이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준칙안대로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이런 센터가 생기고 이러하면…… 조례가 생기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이것을 의논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 조례안대로 해가지고 센터가 그냥 생겨버리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 부분은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리 만들기, 지금 내가……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하는데, 보면 자리 만들기거든요, 센터라는 것이. 금방 사무장이라고 했는데 농사, 농촌 관계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전부 사무장, 이래 가지고 사무장이 하는 일은 없는데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월급 150, 200씩인가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꼭 그런 것인가.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한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 센터, 이것이 좀 의문스러우니까 물어본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그 부분, 센터 설치 여부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효율성 면에서는 꼭 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 박인철 위원

이것이 어찌 보면 거의 직원들,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 (청취불능) 민원의 창구가 될 수 있고, 자기 마을공동체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꼭 필요는 없는 것이죠, 조례가 통과

가 되어도?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36호 완도군 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36호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337호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3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2337호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안전법(청취불능) 규정 재난안전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기존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완도군 재난안전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대책본부 설치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재난의 수습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대책본부 구성 및 구성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완도군수, 차장은 부군수, 통제관은 재난안전총괄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대책본부 운영기관 및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연재난, 사회재난, 비상단계별 편성기준 및 임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부장 및…… 본부장이 지정한 사람이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113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정택**

상정된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일치되게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안전과 재산보호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안전을 우선으

로 고려함을 통해서 군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상응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재난이라는 것이 됐는데 지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는 재난안전본부 구성 및 운영에서 재난안전본부의 기능과, 그리고 대책본부의 운영, 그리고 발생빈도에 따라서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제4장에 재난사항 관리 등을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률을 통해서 맞게 정비하고 이에 따라서 제반사항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건설안전……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37호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37호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38호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38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께서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예, 2338호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8호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전에서 본사업 목적을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에서 발생되는 잉여전력을 완도군을 통해 육지로 송전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시 완도지역 취약전력계통 보강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며 마치 완도군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 인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안정한 전기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완도군을 통해 육지로부터 송전받기 위한 사업임이 밝혀지면서 한전에 대한 완도군민들의 신뢰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송전탑 입지로 선정된 주변지역은 완도의 첫 관문이며 수산식품을 가공하는 해양생물농공단지가 위치해 있어 변환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자원경관 훼손 등,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그 피해는 완도군민들 전체에게 돌아올 것이며 완도군민의 행복권을 침해하고자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 이에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완도군민들의 건강과 행복권을 보호하고자 본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상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38호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38호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김 재 홍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박 인 철		
의 원	박 재 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최 광 윤		

제25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5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25일(수) 10시01분

제25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 식

(10시01분 개식)

□ 의사담당 최광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식을 마

치했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폐식)

제25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25일(수) 10시04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04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으로 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석우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6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39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현종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그리고 계속비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4,677억 1,242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47억 5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489억 968만 9,000원으로 234억 8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8억 274만 원으로 12억 9,6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 반납액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489억 968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34억 8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 수입 증가 등으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은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 그 외 수입 증가로 5억 5,5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가 교부된 2017년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분 132억 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8억 4,354만 9,000원, 소방안전교부세 증가분 1,630만 원을 포함하여 140억 6,7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2,383만 1,000원, 보

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7억 1,098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234억 8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 52억 4,885만 4,000원, 공공시설 및 안전비 7억 2,943만 9,000원, 교육비 3,455만 5,000원, 문화 및 관광비 27억 2,457만 2,000원, 환경보호비 32억 5,050만 2,000원, 사회복지비 17억 375만 6,000원, 보건비 4억 3,088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비 49억 1,453만 8,000원, 수송 및 교통비 15억 5,87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7억 7,144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 10억 8,420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비는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세부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12억 8,059만 8,000원, 물건비 16억 5,866만 4,000원, 경상이전비 30억 6,178만 6,000원, 자본지출비 134억 3,352만 7,000원, 내부거래 8,382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38억 9,011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295억 8,599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6억 2,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은 1,915억 2,620만 원으로 38억 6,8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352억 7,559만 원으로 117억 3,1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7억 8,420만 원으로 2,9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15쪽부터 3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332개 사업에 163억 339만 7,000원이 신규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9쪽부터 55쪽까지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88억 274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9,6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900만 원과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 1,555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7억 4,6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4,26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는 6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6,207만 9,000원이, 완도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13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완도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완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1월 2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2017년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을 편성한 후, 잉여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사업 변경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총 32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627억 2,443만 2,000원에서 88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1,715억 7,243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 설명서 8쪽부터 15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40호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4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인철 의원을, 간사에 김양훈 의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검토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건과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7월 26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업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27일(금) 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완도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2018

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한 수정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에서 1,100만 원이 삭감된 4,677억 14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488억 9,86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8억 2,074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46억 9,4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건설과의 무더위 쉼터 홍보비 및 폭염대책사업비 1,100만 원이 기재착오로 밝혀져 동금액을 지방교부세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의 증감은 일반 공공행정에서 1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1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서 5,022만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5,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2억 2,322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와 자본지출에서 2억 2,32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용은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 신흥 해수욕장 모래 보충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해마다 유실되고 있는 해수욕장의 모래를 보충하고 있는 사항으로 볼 때, 먼저 모래 유실에 따른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여야 될 것으로 보고 동사업의 추진 시기도 늦은 것으로 보아 이를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북주식회사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동주식회사의 활성화 등에 관한 방향을 먼저 정한 후에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한 공청회나 시설사업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1호 2018년 공유재

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요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완도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완도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보길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완도군 어구 생애관리센터 건립사업,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공사, 약산권역거점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을 위한 토지취득과 처분, 그리고 건물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는 4만 1,979평방미터를 취득하고 1,577평방미터를 처분하여 건물은 2동에 2,188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 본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업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5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25일(수) 13시29분

□ 의사일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시29분 개의)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341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4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 2018년 공유재산 관

리계획 변경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물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해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리계획 반영기준은 취득일 경우 토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10억 원 이상, 처분일 경우 토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군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내역은 취득 38건에 9만 3,248제곱미터 175억 1,000만 원에서 72건에 13만 7,415제곱미터 245억 8,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취득재산이 34건에 4만 4,167제곱미터에 70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처분재산은 1건에 1,577제곱미터에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완도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도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보길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완도군 어구 생애관리센터 건립공사, 다도해 해상 일출공원 확대 조성공사, 약산권역 거점개발사업 총 6개의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 들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사업별로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경제산업과장 서길수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도 5일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완도 5일시장의 시설개선 및 시장기능을 다양화하여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완도 5일시장이 군내리 1249-2번지 대지 3,200…… 3,4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가 및 맞구조물 1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반영 내역은 상가 및 맞구조물 건물 취득입니다. 상가 1동에 688평방미터 및 맞구조물 1식에 2,0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 사업비는 총 28억 4,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일시장 현대화사업과 맞물려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완도읍사무소 옆 부지인 군내리 1243번지와 1243-1번지 부지에 주차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관리계획 반영 내역에는 주차장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약 1,500평방미터이고 주차 대수는 10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경제산업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명성입니다.

보길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길면에 청·장년층이 증가하면서 체육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규수업 일정 등으로 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보길면 부항리 29-1번지 외 14필지로 1만 5,048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7억 원으로 도비 5억 원과 군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지는 다 확보한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확보할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직 다 확보 안 됐어요? (예)

예산은 다 세워진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도비 5억 받아가지고.

□ 박인철 위원

도비는 이제 잘 알고 있고.

그…… 어떻게습니까, 미확보 부지가? 올해 안에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아마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는데 군에다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몇 필지나 지금 덜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지금은 저희들이 12필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필지 정도 남았는데, 거기도, 나머지 부분도 전부 하는 것으로 해서…… 조성이 되면 윤선도 유적지 주차장 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확보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조성이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이것 지금 바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지금 추경예산에 넣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부지, 그것 추경에 넣은 것이 아니고 조성 사업을 넣었죠? (예)
잘 알았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 해양수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입니다.

완도군 어구 생애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대비 80%의 전복생산과 해조류 양식시설의 70%를 점유하고, 이에 대한 수만 톤의 어업 폐기물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촌계에서는 어업 폐기물을 화흥포구 등에 쌓아놓고 있어 배관 상 좋지 않고 쌓아둔 어업폐기물은 다시 바다로 들어가 해양쓰레기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약산 해동리 256번지 일원 1만 5,474제곱미터, 약 4,980평에 14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비 70%, 군비 3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폐어구 및 폐양식기자재를 선별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해양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 어구 제작에서 어구 폐기까지 전생애를 관리할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한 약산면 해동리 1048-2번지 토지 5,502제곱미터, 약 1,664평은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득하여 해당 부지를 어업기자재 등을 선별하고 재활용하는 시설부지 또는 어업폐기물 집하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해양수산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 국비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4억 5,000만 원 외에 국비 3억 2,500만 원이

해수부에 편성돼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옛날에 우리 신우철 군수 민선6기, 그 해양쓰레기소각장 그것 뭐시기 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으로 두 번한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것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 박인철 위원

아니, 이래 갖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사업비가 다릅니다. 그것은 소각료가 들어가는 사업비고요.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 이래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것은 이제 소각료는 안 들어가는 대신에 다른 데로 선별장.....

□ 박인철 위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공..... 수산정책과에서 쓰레기를 뭐하면 우리가 지금 민간으로 어떻게 하든지 위탁을 해서 처리를 안합니까. 그런데 지금 생애관리센터라고 뭐 건립해 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래 갖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아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행대로 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위탁업체한테는 분리·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활용이 불가능한 해양쓰레기는 지금 현행대로 위탁처리를 줄 것입니다.

이제 선별하고 전처리 시설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

□ 박인철 위원

지금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하고 막 똑같은 뭐시기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소각이.....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소각은 아니다 뿐인데 우리가 쓰레기.....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분리하고.....

□ 박인철 위원

저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이것 건립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인원이고 앞으로 추후, 차후 관리 부분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지금 이런 인력운영 관계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돼서 감용기 차량.....

□ 박인철 위원

그 감용기 차량,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뭐시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 인력하고요.

□ 박인철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적지도 않았던

데. 업무분장에 보니까 수산정책과에다가 뭐 해양쓰레기팀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팀이, 한 팀이?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이번에 그 4명 공무원들을 뽑았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 그것 뽑은 것은 알아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 뽑은 인력하고 우리 어장정화선이 한여름에는 적조시에만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활동을 안에 같이 합쳐서……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배를 탔는데 우리 어장정화선이, 저것도 신지로 들어가야 되죠. 저 어장정화선이 지금 한…… 배 한 척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어장정화선팀을……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닌데 그 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리고 한 팀을 만든다는 것은 (청취불능)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배가…… 배는, 배가 운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배는 상시적인 인원이 미리 딱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고.

이것 지금 생애관리센터, 이것이 이런 많은…… 물론 국비를 받아서 국비 70%에 군비 30%라고 했는데,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도 다 지금 각 어촌계에다가, 마을에다가 쓰레기…… 해양쓰레기 싹 해주는데 이런 것까지…… 참 말 좋습니다마는 생애관리사, 어구 생애관리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부지를 하고, 또 우리 군비를, 없는 군비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뭐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서 재활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구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뭐 재활용이 뭐가 됩니까. 재활용이 될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수산정책과에서 한 그 스티로폼 감용기, 그것이야 이제…… 기름 값이 비싸질 때는 그것을 일반인도 쓰고 하지만 기름값이 싸고 그럴 때 수거도 안 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양, 청정완도 뭐 해가지고 해양 보전차원에서 하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40억 원이나 들이고, 또 우리가 뭐 땅까지 이렇게 12억인가 1억 2,000인가 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래 갖고 한다는 것이……

이것 꼭 해야 돼요, 과장님?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전체면적은 이번에 1억 2,000…… 땅을 부지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뒷장을 보시면……

□ 박인철 위원

그 아래, 그 뒤에 우리 군 땅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군유지 땅이……

□ 박인철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 거기다가 원래는 지금 쓰레기, 해양쓰레기소각장 그 신안에서도 하고, 제주도에서 안 되는 것은 우리 군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다가 우리 군에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 뒤에 우리 배정택 전문위원님이 처음에 수산정책과장할 때 그것을…… 뭐야, 신우철 군수님…… 저기 6대, 그런 보고를 했는데.

이것 꼭 생애관리센터, 이것이 이래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다해 줘야 되는가.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게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칭은, 어구 생애관리센터 명칭은 저장합니다마는 실제 실내용은 선별하고,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인버터하고, 예

를 들어서 연료를 만드는 그런……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류 값이 비쌀 때는 이렇게 되어 가는데, 유류값이 싸면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기존에 다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돈을 투자 안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나서 사후관리비가 만만치 않고, 순수 우리 군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비는. 그러면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건물을 짓는다면 여기 관리인원만 해도 10명이 넘어갈 것인데, 대략적으로, 10명 이상 넘어가고 계속 돈이, 군비가 투자가 될 것인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관리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관련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을 뽑아놓은 대상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시다마는 어장정화선이 1년 내내 가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바다에 지금 쓰레기 부유물 같은 것을 어장정화선이 움직이면서 수거를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저기 과장님. 내가 신우철 군수 들어와 가지고 지금 완도 해양쓰레기 수거를 그 바다청소선을 띄워가지고 하자고 할 때는 말방귀도 안 끼고, 내가 그래서 그때도, 업무 때나 질의답변 때도 하와이나 사모아나, 이런 남태평양 그…… 피서지를 타이티나 가 보라니까 그런 데 한 번씩 갔다 오라고 해도 뭐 콧방귀도 안 끼더구먼. 진짜 할 짓거리들은 안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다고요.

그것 저기 바다 환경청소선, 우리가 저기 (청취불능) 청소선 없듯이 청소선 하나 띄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니까, 뭐 돈 안 들어가는 것은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과장님.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래서 당초에 250억 원짜리 소각로가 들어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 박인철 위원

그때는 500억 국비를 받아와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하러다가 소각로가 들어가면 조금 민원 발생소지도 있고 해서 소각로가 안 들어간, 이런 전처리 시설, 사전에 선별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보자 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방향을 약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 발생…… 소각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민원 발생소지가 없고요. 그리고 해양쓰레기, 버려질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하다못해 자기들이 돈 벌어먹고 남은 쓰레기까지 다 처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저런 것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번에도…… 오늘도 조금 전에 오전에 했지만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먹고 사는데 우리 군에서 신경 하나 써봤냐는 거예요. 군수부터 어느 누구 하나가. 그런 것에 일절 입방구도 안 끼고 이런 것, 계속 빈 독에 물 붓기 이런 식으로만…… 과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얼척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빈 독에 물붓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일단 명칭만 해양쓰레기소각장으로 해가지고, 500억 딱 해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딱 없어져버리더구먼. 지금 나보고 여기에다가, 예산서예가 뭐…… 도대체 생애관리센터가 뭐냐고 1억 2,000, 부지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

는데, 이것 할 때…… 이런 것도 딱 명칭을 바꿔와 가지고 또 이렇게 해 놔버리니까, 도 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0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과장님. 의회에다가 뭐 저기…… 금방 될 것처럼 보고하더구먼. 온다간다 없이 가버리고, 갑자기 140억해 가지고 이렇게 뭐 국비, 군비 이래 가지고, 7 대 3으로 해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 사업이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신안하고 제주에 당초계획에 들어있다가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이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 소각로가 들어가는 해양쓰레기장은 추진도 잘 안 될뿐더러 예산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해수부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조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쓰레기가 많이 완도 지역에 인근 시군에서 많이 밀려오고, 또 우리 자연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는데.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안 되면 소각로는 안 들어가는, 그러면 선별하고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행대로 우리 위탁처리 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들은……

□ 박인철 위원

저기 과장님, 그러면 그 수거는 누가 해요? 수거는 우리 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은 아무것도 안 하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제 수거는 우리 어촌계.

□ 박인철 위원

아니, 어촌계에서 하는데……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경영인연합회……

□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우리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어장에서 돈을 벌었으면 자기들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일률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어민들이 좀 교육도……

□ 박인철 위원

아니, 정책과장님한테 할 말도 아니지만 자조금이라는 것도 우리 군…… 뭐를 해주니까 그 어가에다가 해주면서 거기다가, 자 조금 위에다가 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 자조금이라는 사람들이. 몰라서 아무 말도 안하는 사람들입니까, 저기…… 저기 원인자 부담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지방비, 몇 % 되지도 않는 지방비를 가지고 전부 이런 데에다가 퍼부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는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이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괜히 과장님한테 투정을 하는데.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오, 이것. 내가 오래 끌고 있는데 이것 좀 생각해봅시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해양쓰레기가 좀……

□ 박인철 위원

이것, 저것 생각해보고 합시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육상쓰레기는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과를 해서 그분들이 다 납부를 하는데. 해양쓰레기는 어촌계에서 어업생산 활동을 하다가 떠밀려온 것을……

□ 박인철 위원

아니, 봐보십시오.

우리가 친환경 부자다 해가지고 국도비…… 국비, 군비, 다 돈 대줘. 물건을 사는데 돈 대줘. 또 그놈 쓰레기 수거하는데 우리 군비로 전체 다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한가. 그 본인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뭐하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 벼락 맞아도 좋은데.

우리가 (청취불능) 부터, 우리가 말하기 쉽게 용어로 (청취불능) 부터 또 뭐 친환경 부자 같은 것 싹 사주고 다 사줘가지고, 이제 그것 쓰고 남은 것 쓰레기까지 우리 군에서 다 그것을 군비로, 다 순수 군비로 갖다가 지금 이려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 청정바다라고 그러는데 뭐가 청정…… 그리고 그분들이 수거나 잘하면, 과장님이 해봤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뭐 A라는 어촌계에 10톤 물량이 갔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거기 20톤이 있다고 합니다. 그 20톤이, 10톤이 뭘냐면 자기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도 거기다가 버려놓고 수거하라, 이 말입니다.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에다가. 그것이 현실, 실정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부지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소유자가 매매하겠다고 의사를 (청취불능) 했기 때문에.

꼭 이 생애관리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바다에서 이렇게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지금 페스티로폼 감용기, 감용 처리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집하장 부지도 있어야 되는데, 센터건립 부지가 아니더라도 어업폐기물 집하장 부지로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취득, 이 관계의 건은 꼭 그…… 생애, 어구 생애관리센터. 센터 짓는 그 용도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업폐기물 집하장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수산정책과해 가지고 얼른 업무도 다 파악했을 것인데 한번 가서 봐보세요.

저기 약산 뭐야, 해동리 당목입니까, 그런데도 도서개발과에서 합니까? 어구들 다 하라고 다 준비해주고, 화흥포 같은 데도 싹 해주고, 물양장 해주고 다 해주니까, 자기들 하라고, 쓰는 사람들이 잘 써야 되는데 군에서 실컷 군비 들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엉망 개판 만들어놓고 뭐, 관광완도, 청정완도 그러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았다고 해가지고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하면…… 뭐 저기 여기 군수님을 찾아가면 다 오케이 되어 버리고 뭐 되어버리고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제가 과장님한테 괜히 투정하는 거예요, 지금. 투정하고 있어, 지금. 이게 참 얼척이 없으니까, 내가.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 관계는 제가 해양수산정책과장으로 있는 동안 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긍정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140억에서 지금 용역비만 이번에 뭉시기가 된 거예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실시설계비만 지금 내년 예산에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 박인철 위원

기재부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기재부 심사 중입니다.

□ 박인철 위원

다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공사 교환 및 처분입니다.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 부지 내 편입필지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환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금년 1월 지역개발사업으로 승인·고시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 및 공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다도해 일출공원 내에 있는 완도 군내리 산 138번지 659평방미터와 산 138-5번지 2,598평방미터 등 총 2필지 3,257평방미터에 대하여 우리 군 소유인 완도군 군내리 401-5번지 1,577평방미터 중 1,200평방미터와 교환하고 잔여면적 377평방미터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토지 소유자께서는 다도해 일출공원 내에 있는 2필지에 대해 2015월 2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4월 건축허가를 획득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과 2025년 완도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계속해서 건축 허가 취하 요청을 하여 취하했던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확대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교환 및 처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것 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여기는 우리 그 다도해 일출공원이 5만 1,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구역을 57만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확대된……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 군유지는 놔놓고, 여기 우리가 필요하면 이것을 사면 될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여기 이분이 당초에……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해경 위쪽에 있습니다. 해경 위쪽의 부지인데 이분이 단독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면적에 포함되니까 저희들은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을 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청취불능) 교환을 해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 저희가 설득해 가지고 이분이 저희 의견을 따르기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유지는 워커힐빌라, 그 오른쪽에 있는 군유지 땅하고 교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이번에도 우리 전문회 계장님 오기 전에 그전에 계장님이 계실 때 남의 자산도 저기…… 딱 묶어버리더구면, 우리 도서개발과에서. 뭣도 없이. 아니, 전문회 계장님 오시기 전예요. 이성식 계장님이 계실 때 뭘, 지주들하고 아무것도…… 뭘야, 아무 협의도 없이 여기 개발한다고, 다도해 일출공원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남의 땅들을 그러더구

면.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뭐시기 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위원님, 일출공원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은 오히려 공원으로 지정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사를 피력……

□ 박인철 위원

아니, 당연히 남의 재산권을…… 남의 막대한 재산권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때는 그 협의절차도 거의 없이 토지수용도 안 되는데 그것을 토지수용식으로 가버리더구먼. 했으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이게 지금 군 관리계획 자체가……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 관리계획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군에서 군 관리계획 차원에서 남의 사유재산들을 그렇게, 그것이 편입되면 우리 군에서 땅을 안사면 그 땅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 땅들은, 자기가 개발하고자 해도 못하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교환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것은 이제 공원 지역에 편입예정이었던 부지를, 여기다가 집을 짓는 것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나중에 지으십시오.” 라고 유도를 해서 우리 군 땅으로 맞교환해서 그분이 따로 집을 짓도록, 편리를 서로 충족시키기 위한……

□ 박인철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군 땅 소유된 뭐시기네요, 그러면 지금 저기 다도해, 그 올라가는

그쪽 어디인 모양이구먼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그쪽이 아니고 워커힐빌라입니다, 워커힐 빌라고.

□ 박인철 위원

워커힐, 여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워커힐빌라고, 신흥사 쪽 사이……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 언덕이구먼, 언덕.)

예, 거기 조금 평평한……

□ 박인철 위원

옛날 우리 사택을 짓는다고 했던 곳입니까, 이 땅이?

□ 전문위원 배정택

해경 그쪽에 워커빌라 사이……

□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한 분의 소유가 지금 2필지다, 이 말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거기는 임야고, 우리 땅은 전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에서 차이가 좀 있어서, 감정만 하고……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나머지는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합니다.

□ 박인철 위원

매각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계속해서 14페이지, 약산권역 거점개발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사·농촌 개발사업 어촌 분야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6월 우리 군이 타시군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66억 6,7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약산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등 행복중심지 약산 낙원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하는 토지는 약산면 장용리 1239-4번지 외 14필지, 1만 8,172평방미터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6억…… 7억 6,500만 원입니다. 취득예정 부지에는 전천후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실내체육관과 주민과 관광객이 휴식할 수 있는 약출공원, 주말장터 등 주민 복지타운을 조성할 가고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74%가 농업진흥구역이며 지방도 835선 9회도로 개설된 이후 휴경지로 방치된 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취득을 위하여 사전 토지소유자들과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개발 토지를 이용하여 취득 (청취불능) 무리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과장님. 그 약산 낙원 작은 목욕탕이라는 것이 어느 규모를 말합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작은 목욕탕이……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아, 지금 작은 목욕탕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 우성자 위원

약산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작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앞에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것은 예산에 새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추가…… 이것은 리모델링 사항만 이 사업에서 할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리모델링이요? (예)

아니, 고금에도 지금 그 거점마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목욕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1년에 3억 정도 손해손실이 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적자가 날 것이라고. 그런데 또 여기다가 목욕탕을 또 투자하면 양쪽 다 서로가 이것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고,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 예. 고금에도 그런 목욕탕이…… 금방, 탕은 없고 샤워만 할 수 있는 목욕탕이 있고, 원래 지금 기존에 있거든요. 그런데 또 목욕탕을 지으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연 목욕탕이, 지금 마량도 어려운데, 약산이 있고 고금에 있고, 또 말에 의하면 다 같이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이것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게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능을 좀 보강하는……

□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세 하우스는 뭐예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100세 하우스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 건물 이름을 100세 하우스라고……

□ 우성자 위원

아, 어르신들 쉴 곳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 농사·농촌개발 공모사업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일반 농사·농촌 개발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 군비가 30% 재원이 구분됩니다. 이것은 그…… 이 사업에서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는 토지매입이 가능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발 (청취불능)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이제 지금 농업 진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돼서 8월 달에 고시가 되면 이 지역이 계획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지가 상승률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사전에 동의된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고요.

□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방비 30%에는 (청취불능)

□ 박인철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행정 편의주의고, 어찌됐든 간에 왜 저기…… 뭐 하는데 우리 군 이래 가지고 온 적이 없는데 일반 농사·농촌 개발사업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한 사업도 이렇게, 군비가 이렇게 7억 6,500만 원까지 해가지고, 땅을 사는데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단가가 나왔네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정산할 때 군비 부담액만큼은 여기서 토지매입비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감액부담을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군비 부담을 먼저 해서 땅을…… 이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당연히 빠집니다, 이 금액이.

□ 박인철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가요, 선심성이예요, 이렇게 왔는데 지금.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아니……

□ 박인철 위원

이것 예산이 이렇게 나도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깐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깎아 버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예산들 다 잘라버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전에 예가 없던 것을 지금 해오는 것 아니예요, 예가 없던 것을.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일반적으로 보면……

□ 박인철 위원

그것도 추경에, 추경 240억에다가 지금 예외 없는 예산들이 올라와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들이, 많지도 않은 예산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일반적인 스케줄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실시계획 정도 되고 실제 공사는……

□ 박인철 위원

내년에 그러면 60억 받으면, 66억 받으면 거기를 해가지고 땅값이 오르면 어찌든 간에 더 쥐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아니, 이제 저기……

□ 박인철 위원

내 말이 잘못됐어요,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아니, 여기가……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외곽도로고 용도 자체가, 토지 용도가 더 상승이 되다 보니까 지가……

□ 박인철 위원

아니, 지금……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우려가 돼서 선제적 대응 요청을 한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가 외곽도로가 나와가지고 여기 전부 이렇게 밑에 지금…… 다 지금 저기 옛날 농사짓던 데가 다 묶여있는 곳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일부러 농사짓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쪽에 논 몇 필지 짓고 있고. 그러면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데를 보면 기존에 다들 헐어져있고, 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에다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순수 군비로 아니,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구면. 2020년 것만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구면. 우리 군에서 먼저 군비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들여 가지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꼭 해야……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제 하나는 이게 토지매입을 빨리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가 상승이 많이 되어버리면 국비든지 군비든지 우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안 되면 사업 하나를 줄이면 될 것 아니에요, 사업 하나를.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사업 하나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보상협약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

그러면 다른 데 사업도 이렇게 하면 이제……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다른 사업……

□ 박인철 위원

우리 지금 도서개발과…… 지역개발과하고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껏 해왔던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어찌됐든 이 상호 안에가 66억 안에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야 뭐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저변에 고금도도 우리 군비가 가는데 땅은 못 시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작은 것을 갖고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과장님 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아, 마을 땅을 말하십니까?

□ 박인철 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7억 6,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먼저 해가지고 저기…… 나중에 정산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가서 하는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군비도 절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 박인철 위원

모르겠어요, 군비 절약이 되려는지.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예외가 생기면 앞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저 상황에 따라서는 토지매입은 먼저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총 사업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아니, 이런 사업 구성들이 없어 가지고. 이런 땅들은 우리 군을 위해 사났다고 꼭 수산정책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위원님, 뭐가 있냐면요. 행정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땅을 사서 이렇게 갖고 있을 이유가……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땅을 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이것 싹 갖고 와가지고 아직 사업비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땅을 먼저 사가지고 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땅을 사고 안사고는 문제가 아니고, 더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더 깊이 있는 이유를?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감이 잘……

□ 박인철 위원

회의석상에서 참 이야기도 못하겠고 참말로…… 해도 해도 너무들 합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들 해, 이런 것을 보면.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일단 이 부분은 동의가 된 부분부터 먼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제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 절차상 어려운 것도 알고 있지만 누가 보든, 과장님.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는 족족 다 이렇게 해줘버린다고 하면 다른 읍면들은 뭐라고 할 것이며. 또 다른 농사·농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용역비도 올렸습니까,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안 갔다 왔습니까. 도시재생 빅딜사업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다 우리 군비를 갖다가 해놓고, 나중에 그 사업으로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러면.

너무 보이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다른…… 이 회의석상에서 다른 보인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마는 너무 보인다. 이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제 토지용도, 그 조정 부분이 중요한 원

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그리고 또 약산에서 레미콘 때문에 복잡했었는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땅을 사놓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 박인철 위원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언제까지…… 언제 우리 군에서 그런 것까지 염려해가지고 뭉시기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제 저희는 토지 이용객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그것까지 우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아, 그리고 과장님한테 할 말도 아니지만 아까 수산정책과장님도 망석리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한다고…… 해양쓰레기소각장을 하려고 한다고 그때 나왔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군수님하고 면담까지 다 하고 완도에서도…… 그런 것도 다 지금 쏙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달 사업자가 나왔을 때도. 민간사업자가 나와 가지고 우리 BTL사업처럼 하자고 했는데도 지금 다들 브레이크를 건 것 아니에요.

제가 너무 뭉시기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여요, 보여.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의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41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1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재 선
허 궁 희
우 성 자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안태호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5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25일(수) 14시29분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 기획예산실
- 세무회계과
- 주민복지과
-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원
- 민원봉사과
- 경제산업과
- 관광정책과
- 문화체육과

□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 기획예산실
- 세무회계과
- 주민복지과
-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원
- 민원봉사과
- 경제산업과
- 관광정책과
- 문화체육과

(14시29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339호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보조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예산안 설명만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소별 제안 설명에 앞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현중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영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민선7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 조정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국도비 반납금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5

억 5,600만 원 등 자체 수입이 12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정부 추가 수요에 따라 교부된 132억 800만 원, 특별교부세는 공설운동장 개보수 등 10건에 8억 5,900만 원 등 지방교부세로 140억 6,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교부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된 24억 2,400만 원을 반영하여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 반영액은 164억 9,100만 원입니다. 또한 2017 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7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23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1억 1,100만 원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10억 8,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400만 원 등 총 1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430억 원 대비 247억 원이 증가한 4,677억 원이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6.3%이고 재정자주도는 5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4,6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700…… 4,489억 900만 원으로 234억 800만 원이, 그리고 특별회계는 188억 300만 원으로 1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502억 3,200만 원으로 24억 2,4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 군비 부담금은 643억 4,200만 원으로 5억 4,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용 잔액반환금은 36억 5,700만 원이 반영되어 국도비사업 관련예산은 7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반환금 70억 2,200만 원을 제외한 163억 8,6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실과소별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총 174억 6,3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보조금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실과소 요구액의 94%인

16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8~9급 기본급 증액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적용하고 각종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임 1억 5,6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책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증액분 1억 9,500만 원과 연말 부서 및 읍면포상을 위한 시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증액분 등 보상금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및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추가소요 예산분 900만 원과 의원 국외여비 1,6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되었던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400…… 7,700만 원은 관련실과 요청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예산 및 자체사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산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증액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액 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6억 5,000만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은 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이 된 135억 7,500만 원을 반영했고, 행사축제 경비는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8억 600만 원, 여비 2,800만 원, 일반보상금 9억 4,500만 원 등 총 1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해서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은 지양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확보, 투자매

입 사전동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112억 4,600만 원, 민간자본이전 5억 9,600만 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8억 6,9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1,700만 원 등 총 13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권역별 세부사항은 각 실과소별 제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건의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4,677억 1,242만 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47억 53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489억 968만 9,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5.5%인 234억 8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88억

274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9,68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목표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는 163억 1,800만 원으로 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주민세 5,000만 원, 재산세 1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3억 원, 지난 년도 수입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18억 6,463만 8,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5,5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수입인 보건의료원 의료사업 수입이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0.13% 증가하여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노화 이포리 92-1번지 관사 매각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금일권역단위 종합개발건축공사 자부담금 4,78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억 4,603만 4,000원이 증가하여 46억 8,801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0억 6,784만 9,000원이 증가한 2,247억 8,454만 9,000원입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132억 800만 원 증가한 2,179억 2,400만 원, 특별교부세가 8억 4,354만 9,000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1,630만 원이 증가한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4억 2,383만 1,000원이 증가한 1,502억 3,195만 9,000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9억 112만 8,000원이 증가한 907억 3,1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국가운영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5,939만 원이 증가한 360억 6,650만 원입니다. 맨 밑에 기금은 1억 8,044만 3,000원이 감소한 31억 6,3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4,375만 6,000원이 증가한 203억 2,02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7억 1,098만 8,000원이며 증가한 401억 8,918만 원입니다. 그중 순세계 잉여

금은 6억 6,329만 8,000원이 감소한 338억 1,489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잔액…… 사용 잔액은 38억 3,302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5억 4,11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181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은 483억 2,264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9,974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자예금압류 및 신용정보 서비스 사용료가 484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운영비에 지방세 독촉장 발송 수수료가 1,485만 원이 있습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에 군 청사 주차장 임대료가 300만 원입니다. 청사 조직개편 인사용역비가 1,000만 원입니다. 청사 조직개편 명패 제작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군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저기 화장실 전기시설 청사 누수 등에 의해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본청 소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웠는데 그 소방안전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4,5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청사 조직개편 사무실 정비하는데 2억 원 세웠습니다. 본청 도색공사 본관동하고 민원동이 지금 현재 8년 전에 페인트 도색하고 해가지

고 민원동 누수라든가 이렇게…… (청취불능) 크랙이 있어 가지고, 이 보수하는데 설계상 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사 군정구호 간판 교체하는데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금일읍사무소 주민센터 조성공사입니다. 여기는 흡연실하고 읍사무소 앞에 휴게공간을 마련하는데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약산면 민원실 옥상 방수공사가 1,500만 원입니다. 소안면사무소, 그 뒤 옹벽 주변하고 앞면 주차장 주변을 정비하는데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집기구입을 하는데 6,000만 원입니다. 완도 청소차량 고압세척기 6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수수료가 50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공유재산건물 철거입니다. 신지 양천리와 완도읍 장좌리에 건물이 등기가 완도읍으로 되어 있는데, 그 2동 철거하는데 900만 원. 직원숙소 확보용 임대료입니다. 노화, 보길 직원들이 관사 숫자보다 많아가지고 임대료가 72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군외면 관사 보수…… 방수 공사하는데 2,000만 원, 청산면 관사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소안면 관사 보수공사 500만 원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신축관사 지금 30동 짓고 있는데, 여기에 텔레비전, 냉난방기, 세탁기, 옷장, 신발장해서 6,600만 원 세웠습니다. 행정관리 시설비입니다. 행정선 1호선 선저 도색 작업하는데 800만 원.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차량 보험료로 1,200만 원 세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 보수비인데 8급 인력이 증가되어 가지고 7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추가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82쪽, 그 청사 조직개편 사무실 장비 2억,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 및 집기비 6,000만 원.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이 아직 안 됐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이제 조직개편안이…… 이제 의회에 올려 가지고 되면 올해 연말되기 전까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안에 사전해서 올렸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조직개편,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견한 거죠?

일단 국이 생기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서 한다는 얘기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연말까지 추경이 이제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이제……

□ 김양훈 위원

만약 조직개편이 미루어져가지고 안 되면……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이제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다음 연말에 할 때 추경…… 정기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안 됐을 때는.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본청 소방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정액에 3,000 예산을 짰었죠? (예)

그런데 처음 했을 때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용역이나 아니면 어떤 계약서를 안 봤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소방안전 점검결과 소방이 지금 문제되어 가지고, 너무 노후화됐다 했는데 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건축 물래에 있는 (청취불능) 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너무 오래 돼서 녹이 슬어가지고 (청취불능) 라든지…… 보수할 정도가 안 돼가지고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하로 내리는,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추가된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반영을……

□ 최정욱 위원

예, 그래서 본계획보다 추가가 훨씬 더 많아서 그게 궁금했는데.

이것, 처음에 할 때 이런 것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렇게 썩어가지고 관이 노후화돼서 소방…… 그리고 이제 (청취불능) 이런 것이 보수에 쓰려고 그랬는데 녹슬어가지고 그 자동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통째로 갈아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3억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완도군 내에 청사가,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조직도로 한다면 사무실이…… 한 6개 정도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 청 내에?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그래서 이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도 부족하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지금도 좁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군…… 2개의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1개의 과는 지금 주재관으로 가고요. 한 과는 이제 청사 내에 어떻게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어려워가지고 지금 구내식당 2층하고, 그다음에 본청 5층,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예산을 지금 반영하다 보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우리 군 자치행정과에서 온 조직도를 봐보면 국장실 2개…… 만약 그대로 통과된다면요, 뭐 추진단장실 하나, 과가 3개가 늘어나는데…… 뭐하기야 2개만요, 예산담당은 그대로 가니까. 그러면 다 나오니까, 그것 이?

그러면 지금 실내에 그 뭐야, 주방에 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이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구내식당 같은 데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구내식당 2층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서고…… 저기 창고가 있었는데요, 창고를

정비해 가지고 좀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기존의 우리 정비 예산으로 정비만 했습니다, 여기. 완전 정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창고 내에 정리를 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과장님,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조직개편…… 그 뭘니까. 시설비에 행정…… 청사 군정구호 간판 교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그것은 (청취불능) 정문에 보면 LED로 해 가지고 군정구호가…… 군수님 취임해 가지고 민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 전에 써버린 것이죠, 지금?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사전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 예산계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저기 해조류박람회 때 여러 과에서 성립 전에 예산을 써가지고, 그것을 못 쓰게 했죠,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안 한다고 했죠.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예산계장님이 예산실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각 과마다 무분별하게 성립 전으로 써가지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했는데, 나 오늘 오전에 회의 끝나고 가면서 보니까, 예산서를 펼쳐보니까 이것이 있는데 보니까 그것 구호가 바뀌었더구먼. 이제 올라왔더구먼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산계에서

는? 이것 삭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지금 이게 이번 일만 아니고 우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어떤가는 몰라도 그런 예산들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앞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 눈에만 띄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게 띄어요, 그것이.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군정구호는 이제 군수님이 바뀌셨는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요. 군수님이 뭐 우리 예산 통과되면 바로 될 것 그것 좀……

그러면 미리 1회 추경에 그런 것을 잡아 놓든가, 그런 예산들을 미리 미리. 지금 이 예산서 안에가 있다니까요. 이것뿐만 아니고, 세무회계과뿐만 아니고, 성립 전이 더 많이 올라와있어요, 지금 또……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이것은 군수님이 연임되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군정구호를 갈지 몰라가지고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리고 지금 김양훈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을…… 이것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돼요? 우리 지금 이번에 우리 예산실장님이 올라올 때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예산반영해 주라고 했더구먼.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여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그러면 금방 말하듯이 또 예산…… 조직개편이 되어 버리면 그것 예산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은……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사전에, 금방 하라고 해가지고 또 넣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지금 해도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조직이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고 이제 2번 심의…… 심의도 아니고 보고밖에 안 받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좀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예산파트에서 와가지고, 다 알고 있더라도 위원들한테, 아니면 시설담당이라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마디만…… 사항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했다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잘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뭐 물어볼,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예,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현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3억 6,510만 원이 증액된 93억 4,511만 9,000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이 증액하여 7,5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기획예산실에 기관 공통운영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상치보다 실과소에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운영……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또한 기획예산실에 기관 공통으로 일부 확보를 해서 갑작스런 용역사업 발생시 실과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학술회의 개최를 하는데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다도해 일출공원 포토존을 설치하는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 연구용역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대비해서 용역비로 1,9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인구 감소지역 지자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재난·재해예비비로 2억 3,2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그 용역비에 대해서요. 용역비로 이렇게 예산을 짜는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이제 각종…… 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모사업 같은 데,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많이 수립을 했고, 또 학술용역 같은, 그것은 이제 무슨 대화를 개최한다든지, 뭐 연구를 한다든지 할 때 학술용역비를 별도로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

난해에 비해서 용역비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왜 감소할까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지난해보다…… 아니,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역심의 위원회에서 상당히 뭐 이렇게…… 유사한 용역은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권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용역비를 이렇게 한 가지 세워서 또 2차, 3차 그 똑같은 용역을…… 2차, 3차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각 실과별로 좀 성격이 다른데, 일단 그 중복이 안 되게. 중복해서 용역이 안 되게,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너무 용역비가 많이 이렇게…… 보인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예, 용역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예비비를 보니까, 그 신규 국장 4급…… 이것도 벌써

들어가 있네요?

(웃음)

신규 국장.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아, 예. 거기는 저희들이 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이제 저희들이 혹시 조직개편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일단 반영해 났고, 이것이 만약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정기추경 때 다시 이것은 삭감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무관리비에서 기관 공통운영비에서요.

지금 기정으로 해가지고 거의 반절이 늘어났는데, 같이 났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기관 공통운영 연구용역비는 실과에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아니. 용역비말고요. 우리가 저기……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기관 공통……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저기 4,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더 늘어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이제 이 부분은 뭐…… 각 읍면도 저희들한테 많이 가져가기도 합니다마는 각종 행사

할 때, 뭐 완도 같은 경우 봉선동하고 자매 결연 행사를 할 때 지금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00에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실장님. 이 지금…… 우리 애당초 기관 공통운영비할 때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앞전에 일련의 그런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그런 문제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서?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이 부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그런 것으로 쓰라는 용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애당초 기관 공통경비를 잡을 때는……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아니, 기관 공통운영비를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습시다라는 이제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사무관리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합시다라는 그 사무관리비가 초과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기획예산실 풀로 세워진…… 여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풀기관 공통운영비에서 실과……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 사무관리비에서 여비도 들어갑니까, 출장비도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여비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사무관리비만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배가 늘어나 버립니까, 사무관리비가. 우리 각 실과에 사무관리비

가…… 우리가 만약에 결산보고를 할 때 보면 다 사무관리비가 남던데.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이제 이런 부분이 뭐 행사……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뭐 안 맞죠, 행사하고 사무관리비는.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행사도 있고, 여기에도 지금 일부는 이제…… 조직개편할 때 일부 이제 사무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과가 생기면 과 사무관리비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그러면 그 외에 여기에 다 있어가지고 이제 예산을 다 나눌 것 아닙니까. 이 안에 공통경비가 과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앞전에 우리가 본예산할 때 실장님이 이런…… 그런 식으로 기관 공통운영비를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일련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다가 통으로 잡아놓고, 그 사업에 이런 애로점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의 설명은 지금 그때하고 다르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서로 조금 의견이 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은 됐고요. 이것은 그렇고……

그 시설비에서요. 뭐 공모사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자체로 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시설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일출공원 포토존이요.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이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 당초에 이 예산이 포토존 설치하는, 만든…… 포토존을 만드는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그 설치할 때 비용부담이 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은 그러니까, 저기 기획예산실에 공모팀이 없죠? 각……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공모팀이 있습니다. 공모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공모팀에서 추진…… 그 사업부서로 안 내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바로 한 것입니까, 이것을 이제는?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아니, 기획예산실 타실과에 속하지 않은 것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이것 지역개발과에서 다도해 그 경관담당이 있으니까 지금 물어본 것이예요. 어느 것은 주민…… 기획예산실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어느 사업은 사업부서로 내려주고, 어느 사업은 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직접 하는……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사업은 이제 중앙부처에 공모하는 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좀 받아가지고 좋은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공모사업이 아니구면, 우리 순수 군비로 그렇게 하는 것……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예,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왜 이것을 꼭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됩니까, 담당부서가 있고 담당계가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공모지원계에서 이제 군민들을 대상으로 좋은 아이템 사업을 받아가지고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어떻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뛰시기에…… 저는 처음 봤는데, 지금 이것을……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있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 그러면 저기 기획예산실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것이 기획예산실에 있다고 경제산업과로 안 넘어갔습니까. 그 공모사업이.

아니,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처음에 8,000만 원인가 예산을 갖고 있다가 다시 1억으로 늘려가지고, 그 사업이 경제산업과로 넘어가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인데……

□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까.

(“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17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우리 직원 신규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신규시책 사업 중에 하나를 건축과 재정기부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개발과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저희 실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전년도에 해가지고, 완도타워에서 그 설치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테크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설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했는

데. 그 데크 부분이 내년도에 전면교체 대상 지여가지고, 그 저희들은 이제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내년도에 이 데크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복을 해서 데크를 교체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소만, 최소 13평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하는 주무관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런 것은 잘 알겠고요. 지금 그런 것이 진행사항이고, 그것이 왜 기획예산실에서 시설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당시 공모팀에서 하고, 또 그때 김광호, 지금 문화체육과에가 있는…… 거기 담당이 할 때, 거기서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있다가 지금……

(“ 김광호가……” 하는 주무관 있음)

경제산업과로 다 넘어갔는데, 그 업무가 경제산업과로 싹 넘어가가지고, 제가 위원이니까 그것 잘 알아요, 실장님. 실장님이 같이 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뜬금없이 이렇게 시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국비 뭐시기인가. 주민 뭐시기인가, 전부 경제산업과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그것은 이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경제산업과로 넘어간 그 사업……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전년도에 넘어가가지고, 이번에 또 해가지고, 내일 모레 약산에서 전복한 것하고 저기 중도리 된장공장하고, 저기 신지 동고리, 그런 것 싹 해가지고.

아니,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위원 아니었습니까? (예)

주민 공모사업, 이것은 전혀…… 뜬도, 보지도 못한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돈이 한 2,200만 원인데.

(“ 별도사업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 그것은, 주민들한테도 공모했던 사업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공모를 했소?

(“ 이것은 지금 직원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김광호 계장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받는 부서가 없어 가지고, 추진하는 부서가 없어서 김광호 계장이 직접 하다가 저희들한테 인계인수해주고, 지금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느닷없는 것이 올라와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뭐 또 다른 위원님들, 실장님한테 물어볼 말씀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위원님들, 체크했다가 의문 나는 것 있으면 주저없이 물어보십시오.

예,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833억 5,695만 원에서 15억 9,014만 3,000원이 증액된 849억 4,709만 3,000원입니다. 먼저 149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지난 4월 23일 의원발의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국가 보훈 대상자 본인에게는 매월 5만 원, 보훈 대상자의 미망인에게는 유족수당으로 매월 5만 원, 그리고 사망자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 사회복지무요원 증식비 2,704만 원에서 봉급과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2,9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지무요원은 1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노인복지사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당초 2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반기 11월경에 15개 기관 종사자 150명이 워크숍을 참석하게 됩니다. 그것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아래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대한노인회 제1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당초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입니다. 종합복지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지금 군내리, 중앙리 남경 (청취불능) 중앙리 경로당, 그다음에 완도읍 군내리 2층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종합복지회관 증축 개보수 사업비로 3,500만 원. 그리고 지금 주변부지 매입비로 3,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증축공사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5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입니다. 6억 9,460만 원입니다. 이것 지원배경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취약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올해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의결되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302개소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완도군 종합복지관입니다. 여기 공기청정기 보급입니다. 이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에 감리비로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금요양원에 치매전담센터를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완도 전문요양원 개보수사업비로 1억 3,524만 7,000원입니다. 전문요양원이 대신리에 있는 것인데요. 거기가 지금 누수가 되어 가지고 비오고 그러면 지붕이 새서 지붕, 그것 씩우기 공사고 방수, 페인트. 그 다음에 천장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거기는 고금요양원 정비보강 사업입니다. 거기는 8,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시니어 합창경연대회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시니어 합창경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 10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인생활시설이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청에…… 거기는 입소시설인데요. 청해…… 고금요양원, 완도 전문요양원, 늘푸른집, 보길 로템의집, 생수의집, 금일 소망의집, 뭐 청산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 공중목욕장 기능보강 사업비로써 당초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중목욕장은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 공중목욕장 용수 탱크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 1,500만 원을 하고, 청산면의 공중목욕장이 온수탱크를 교체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아래 노인목욕비 지원은 당초 2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4억 원을 다 편성하지 않고, 어차피 이것은 하반기에 또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노인 1인당…… 아니, 그 1인당 월 2매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7~8월 2개월 쉬고, 1년에 10개월씩 20장…… 한 사람당 20장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122세대 정도가 되는

데, 저소득 조손가족…… 가정에 월동기 김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금년 5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전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산작업 보조인력 3명 인건비로 1,246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61쪽,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다문화가족 산모가정에 자국출신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산모 증감에 따라서 당초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산모도우미를…… 상반기에 산모가 5명이 있었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산모 출신지를 보면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새터민 여성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입니다. 이것도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76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대상 어린이집이 25개소가 있습니다라는 휴원을 한 곳이 한 군데가 있고 기설치한 곳이 한 군데가 있어서 23개소에 설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설치비는 우리 국도……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80%를 지원하고, 20%는 어린이집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주민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대한노인회, 그 당초 기정액이

7,000에서 8,000으로 늘어난 그 과정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 이게 대한노인회…… 그러니까 노인의 날 행사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은 각 읍면별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 1년은 군에서 전부 한꺼번에 이제 모여서, 군에서 12개 읍면의 노인들을 전부 초청해서 하는 행사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읍면별로 했고, 올해는 군에서 할 계획인데, 이게 노인 분들이 좀 늘어나고, 또 그 뭉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 식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여기 완도읍에 나오실 때 필요한 여비,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 집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드네요. 모여서 하는 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닙니다. 읍면에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 3억 2,000.” 하는 주무관 있음)

3억 2,000…… 전체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죠.

□ 허궁희 위원

많이 들죠? (예)

그래서……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니, 아니. 읍면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죠.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이 많이 들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당연히 많이 듭니다.

□ 허궁희 위원

왜냐하면 읍면에 그 배정된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해마다 보면.

그런데 나는 이제 이것을 왜 묻느냐면 왜 1,0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났을까. 말 못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여기 그 항일운동…… 약산 항일운동이요. 보니까 국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국비가 없어진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 약산이요?

□ 우성자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 거기 5억 8,600만 원이…… 이 중에서 재원을 이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뭘니까, 군비를 5억 6,600만 원을 저기…… 당초에 우리 군에서 직영하려고 그랬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추진위원회에다가 자본보조를,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국비가 0으로 되어 있어서.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국비는 0이 아니고 그 2억 몇 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이요. 완도 어린이집. 그게 아까 25개라고 했죠, 어린이집이. 완도 어린이집, 아까 25개라고 안 하셨나요?

□ 전문위원 이석우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 우성자 위원

아니, 그 공기청정기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좀 물어본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혹시 어린이집에 CCTV가 다 되어 있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CCTV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 전체가 다요? (예)

아니, 요즘 하도 이슈가 되어가지고. 아동학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완도군에서도 그 어린이집에 그 통학차량 같은 데에다가…… 지금 그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앱을 깔아가지고 앞뒤로 핸드폰을 갖다 대야만이 시동이 꺼지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돈이 얼마 안 들고, 한 2~30만 원…… 1대에 2~3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승합차 1대에. 그 저기 연구해 보면…… 혹시 그런 것도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동두천 사고가 나고 그래 가지고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애들을 버스에다가 실어 나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주의가 있어가지고. 기사는 “나는 무책임이 아니다. 시동만 끄고 키만 어린이집에 갖다 주면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

고, 또 인솔교사는 애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정신없어서 그냥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내려가지고, 애가 차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질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실태파악을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다시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아서 다시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제부터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지금 인구도 감소되고 그러는데,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미리 좀, 그런 것 좀 연구해서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저희들,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정에…… 163페이지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그 부분이 144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펴보고, 군이 반환할 필요가 있나, 단돈 얼마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이것은 `17년도 작년 예산인데요. 여기 반환금에 관한 것들 전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원래 이렇게 예산이 있을 때 정확하게 그 액수에 맞게 세운 것은 아니고, 대강…… 대강이라기보다는 예년의 예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 편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국도비보조, 국도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렵잡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금,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이지. 직원들, 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게을리 해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60쪽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에 아까 어린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이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뭘니까. 10월부터…… 아니,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어 가지고 9월부터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7월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국비, 도비해 가지고 이제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인건비로 쓰라고.

아, 그것은 사전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 김재홍 위원

이게 어느…… 뭔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 지금 완도읍에 인력이 너무…… 아동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읍면에는, 사실 완도읍을 제외한 읍면에는 없습니다.

□ 김재홍 위원

심리치료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 김재홍 위원

심리치료, 거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동 신청…… 수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소득조사, 재산 조사를 해가지고 적합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도 하고, 소득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조 인력을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인력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필요하다면 현장에도 가야되고.

□ 김재홍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3개월 쓸 예정입니다.

□ 김재홍 위원

지금 완도읍에 보면 아동심리치료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원생들이, 원생들이라고 하네요. 어린이들이…… 거기를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자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것은 지금 우리…… 이번에 심리치료, 심리치료가 있습니다마는 뭐 모래치료, 미술 치료, 뭐 이렇게 언어치료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데. 그 전문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옵니다. 완도에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나 대도시권에서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그냥 해주고는 합니다마는

사설도 이렇게 이번에 또 등록도 하고 그때 해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했고. 보통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뭐 이런 데에서 우리 군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인력 사정상…… 군의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멀리서 불러와서 일주일에 두 번, 많아야 두 번. 막 이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지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김재홍 위원

아, 군 행정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들을 거기에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뭘니까. 지적장애아라든가 좀 미숙된…… 그런 언어치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쪽에도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155쪽이요, 그 경로당에 공기청정기하는 것. 지금 다 해주고 있는가요, 302개소? (예)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요? 다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할까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 지금 이것은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됩니까라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 도비가, 도비보조사업 공기청정기 노인복지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복지관은 지금 1개소인데요, 이 밑에 완도군 노인회 종합복지관, 거기 460만 원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아니. 여기 두 번째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해가지고 230해가지고 302개소로…… (예)

이것 그러면 경로당에, 다 302개소……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냐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효과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그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이제 막 설치하려고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매칭해서 이 사업 편성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래도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우리 군비가 거의 50%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50% 들어갑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솔직히 경로당, 뭐 다들 그것 넣어준다고 해서 트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경로당에……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 좀 잘 보세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우리 군비 반절 들어가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정말 경로당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아무리 국비라 해도…… 거기에 달아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굳이 국비라 할지언정 100% 국비라면 모르겠습니까라는 7~80%라도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거의 50% 군비가 들어가는 것을 국비 매칭을 해야 된다. 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게 과연 될까하는,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시골에 공기청정기를 넣어도 한 번도 아마 안 틀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여도……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급하기 보다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검토분석을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한번 보고 그쪽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를 정말 경로당에 필요한 금액을,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범성 위원님이 아까 그 질의한 것이 우리가 국고반납을 하는 것이예요. 필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17명……

163페이지를 보면 자활사업이 뭘까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활사업이요?

□ 최정욱 위원

예, 이게 1억 2,000 정도가 지금……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 `17년 자활사업이요?

□ 최정욱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잠깐만, 자활사업은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주무관 정은선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입니다.

저희 그 자활사업 같은 경우가 근로경력이 있는 일반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저희 이제 읍면 근로……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완도지역 자활센터에 그 사업단에서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 참여자 숫자도 조금 줄어들었고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배분이 되어 있어서 조금 조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을 조금 조절을 해주지지 않으셔 가지고 저희들 사실상…… 그 해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은, 그것이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참여자들도 또 많이 발굴하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우리 주는 것을 못쓰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봐도 이것은 아니죠. 노력을 많이 해봐야죠.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주무관 정은선

예, 저희가 올해는 참여자들도 많이 발굴하고 열심히 참여시키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다음에는 이런 것이 좀 안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주무관 정은선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여기 보면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 저 한 가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야기하십시오.

□ 우성자 위원

아까 그 공기청정기요. 제가 이장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공기청정기보다는 제습기를 사주시면 노인당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완도는 아직까지는 공기가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잘 안 틀어놓으실 것 같고요. 에어컨도 사줬지만 안 켜놓은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 그런데 제습기를 사드리면 이렇게 장마고 그럴 때 엄청 그…… 바닥이 다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미끄럽고 그렇거든요, 습기가 차서.

한번,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고려해 보십시오. 제습기가 나는 참 좋을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그것 지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뭘니까. 미세먼지가 우리 완도라고 해서 자유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세계…… 우리 보면 뭐 서울이나 완도나, 뭐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으로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저기, 뭐야. 청정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업무가 하도 광범위하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네요.

157쪽, 노인목욕비 지원에 관해서 그 섬

지역에 있는, 목욕탕이 없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똑같이 그냥 뭐…… 여기 티켓으로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니요, 아니요. 티켓으로만 지급합니다.

□ 허궁희 위원

티켓으로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사용을 안 하면 그것은 예산집행이 안 되죠.

□ 허궁희 위원

예, 안되죠? (예)

그래서 그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나이를 드실수록 더 잘 씻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쪽에 더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나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우리가 1매씩 지급하다가 작년 10월부터 인가요. 아니, 아니. 올 1월부터인가 2매씩 지급했는데.

□ 허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한 4매 정도까지 해도 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군민들이,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하는데. 목욕탕이 없는, 그런 도서낙도 면들은 솔직히…… 그 뭐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또 지금.

□ 허궁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러니까 많이만 준다고 해서, 다 소진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갖고 계시다가 1년이 아니라 4개월만인가, 3개월만인가.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 3개월 만에 1매씩……)

예,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면 저 노인들이 아들 갖다 준다, 며느리 갖다 준다. 너희나 많이 해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 허궁희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 도서지역에 목욕탕이 없어서 못쓰시는 분들.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혜택이 똑같이 가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다른 군은…… 제가 예로 봤을 때 목욕을 안 하시면 미장원도 갈 수 있고, 이발관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완도는 딱 목욕만 정해졌죠? 다른 군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미장원도 가도 된대요. 또 목욕탕도 가도 된대요. 아니, 저기 이발관도.)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것도 우리……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작년에 우리 박인철 위원님이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노인들한테 좋은 제도로써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이·미용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잠깐만요, 발언할 때 불쑥불쑥 들어오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 분들이 있으니까. 최정욱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 최정욱 위원

예, 아까 질문하다 더 물어본다는 것을 깜빡해서요.

164페이지에 보면요, 정부양곡 할인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정부양곡 할인사업은, 저쪽 그 우리……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양곡을 할인해서 파는 제도고, 동네에서 방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양곡을 나눠주잖아요. 공짜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몇 %, 뭐 부담하고, 몇 %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예) 몇 %하는 것입니까, 그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게…… 거의 그것 가지고 7~80%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게 해보니까 안 돼서 지금 이것을 반납한 것이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니, 안 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곡을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그 남은 금액은 국도비로 반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더 줄 수 있잖아요, 준다는 것은.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니,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는 못하죠.

□ 최정욱 위원

강제로는 못하는데, 계속 이것을……

이 사업이 이렇게 국가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담이 얼마, 어느 정도 되냐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니, 그러니까 자담이 한 30%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는데.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사먹는…… 그 사람들이 서민층이잖아요, 이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대상이.

□ 최정욱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학 중 아동급식이라고 되어…… 방학 중에 아동 급식들을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기준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저소득층인데 왜 이것도 잘 안 되는가.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 지방비가 아니라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예년의 예를 보거나 우리 숫자…… 학생들,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뭐 저

소득층에 있는 학생들 숫자를 파악할 때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그 예산이……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편성단계에서 일단 편성을 하죠, 그리고 집행을 한 다음에 잔액만 반납을 하는, 그런……

□ 최정욱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100명밖에 아닌데 110명 정도가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 최정욱 위원

아까 그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자활사업하고는? (예)

잘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제가 그 목욕탕…… 아까 목욕, 그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차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실적이랄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랄까. 그리고 섬 지방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이동목욕차……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실장님, 지금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질문답변 하는 업무보고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기 과장님, 이것까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이동목욕차량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기사 1명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1명 있어 가지고, 각 읍면에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을…… 이렇게 봉사를 다니시는, 다니는데 한 달에 한 2건 정도씩 실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지금 저쪽 금일 쪽에 2번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2건에서 5건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었나 해가지고. 혹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더 활용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해가지고 지금…… 예산상에는 없어도 한번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부족하면 편성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범성 위원님, 다 됐습니까?

□ 이범성 위원

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49쪽이요.

약산 항일운동 기념공원 조성해가지고, 정부 직접지원해가지고 정부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단체한테 우리가 전체 주는 것입니까? (예)

재원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당초에 국도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우리 군 예산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운영할…… 사업할 사항이 아니다. 추진위원회에도 재원이전을 한 것입니다, 지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하면 우리 군비도, 우리 예산계에다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군비도 거기, 약산항일운동 기념사업비로 이 돈을 준 것입니까?

□ 예산담당 김현란

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재원이전이…… 민간보조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목변경이 뭐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뭐한 것입니까? 이것 목변경도 안 되어있고 그러니까요.

(“ 그 말씀이 아니고요. 원래 그 국비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하는 주무관 있음)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 이 사업 자체가 보훈처에서 국비를 본인들이 군 지자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그 정부에서 직접 보조사업자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비도 그러면 직접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입니까?

(“ 예, 민자사업으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 사업……” 하는 주무관 있음)

이 돈 갖고는 다 안 되잖아요, 지금. 돈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약산 항일, 그 기념사업

에서 원하는 것이.

(“ 2억 4,200은……” 하는 주무관 있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니……

(“ 정부에서 지금 보훈처에서 직접 추진 위원회에 주고, 우리 군에서는 5억 6,600만 원을 저희가 (청취불능) 약 8억 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무관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안에 부지 값하고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다 들어가 있죠. 아니, 아니……

(“ 원래 부지 땅은……” 하는 주무관 있음)

매입은 별도로 했고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나중에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고요.

저기 과장님. 여기 완도군 종합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증·개축이라고 했는데 이 밑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예)

저기 이번에 했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저기 조그마한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지금. 그것 넓은 땅은 아닌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 부지매입비에다가 거기에 그…… 주변정비하고 조경 (청취불능) 예산을 잡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 앞에 함평식당, 거기 산 것이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거기 말고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을 사보자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뭐 증·개축이 들어오고…… 이제 준공도 안 했는데 지금.

(“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개축은 지금 7월 말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중앙리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경로당 부분이 그쪽을 이전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급식시설이 현재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100명이 넘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내부 보수비용이 약 한 3,500되구요. 그다음에 이제 부지매입비는 복지…… 그 증축된 부분에 뒤로 돌아가다 보면 한 1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541만 원이고요. 그리고 정비…… 포장하고 배수로하고 하는 부분이 3,000만 원……”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뭐시기 증·개축이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아, 증·개축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건물매립비는 또 따로 있고, 감리비도 따로 다 잡혀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 7,000, 8,000되는데……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요즘은 뭐, 감리비는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 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요, 과장님. 15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완도전문요양원, 여기 국도비해가지고 이것 해놨는데.

지금 우리 다 안 끝났죠. 보수기간이, 하자기간이. 이것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원해 가

지고, 그 시설준공도 하기 전에 가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이고.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그게……

(“ 양로시설입니다. 양로시설하고 전문요양, 현재는 전문요양……” 하는 주무관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렇게 해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예, 양로…… 양로원이 아니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양로원은 아직 덜 끝났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죄송합니다. 양로원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아,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에 284억 2,550만 6,000원보다 4억 3,029만 1,000원이 증액된 288억 5,5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미행정 업무편람 제작비 3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공직자 힐링캠프 운영 1억 2,000만 원. 다음 174쪽입니다. 시책행정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운영비 900만 원, 행사운영비로 2018년도 신규임용공무원 직무연찬 워크숍 경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포상금으로 군정혁신 우수부서 포상비 390만 원. 다음 175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조직개편 등 행정통신망 이설 공사비 5,200만 원, 전산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업비 1,750만 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9,7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송 사건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농촌 유학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77쪽입니다. 경상……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농촌 유학센터 활성화 지원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173쪽 행사운영비에서요. 공직자 힐링캠프 운영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년 한 100명씩 해서 한 4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100명이…… 쉽게 말하면 워크숍 형식이죠? (예)

그런데 그 100명이 4번 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자체…… 이제 그 장소를 빌려서 원네스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보성 뭐…… 이런 데에 가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해왔습니다.

□ 김양훈 위원

뭐 당일입니까, 아니면 1박 2일……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1박 2일할 때도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4회 한다고 하셨는데 4회 동안 1억 2,000만 원이 다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인원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175쪽,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망에 대해

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사업은, 그 인터넷이 안 되고 있는 어떤 선박이라든지, 또는 축양장, 이런 데에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 김양훈 위원

지금 선박은 따로 이렇게 구축망이 안 되어 있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이렇게 여객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선박들은 어중간한 데는 다 구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구요.

여기다가 그 축양장이나 양식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식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할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아,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양장이 아직……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이 KT가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네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계장님, 몇 군데나 안 되는가요?

□ 정보통신담당 황소연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 황소연입니다.

그 사물인터넷은요,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국비 지원해 가지고 국비 50%, 그다음에 도

비 25%, 군비 25%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애당초, 처음에는 우리가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네 군데…… 축양장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저희 소안도 폐기물처리장하고, 그다음에 보길도 두 군데하고 이렇게 네 군데하고, 그다음에 산불로, 저희들이 없으니까 산불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불까지 넣었는데요, 그 부분이 산불은, 도에서 조례에 이런 부분은 완도군 사업이라 안 되고.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박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박이 LTE로 했을 때는…… 그 선박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은 한 350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매월 나가는 LTE, 그 통신료가 20기가해 가지고 10만 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기가로 했을 때 하루나 이틀이면 사용량이 떨어져가지고 데이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선박 회사에서도 선박사에서 그 운영비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청산하고 완도만 먼저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한 10km 이내에 어떤 마스터하고…… 마스터, 그러니까 그 TV (청취불능) 사용해 가지고 전파로 오고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도, 그 청산은 10km가 넘기 때문에 당목에서 금일 가는 그 코스로 해가지고 3대에 그 예산을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시범으로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물인터넷이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KT에서 통신이 안 들어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아까 세 군데하고 그 다음에 선박 세 군데, 그다음에 저기 재배지…… 저기 버섯 재배지 한 군데 해가지고 일곱 군데를 지금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1,75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아까 도비하고 군비가 다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1,750이고……

□ 정보통신담당 황소연

예, 1,750. 그다음에 국비 50% 해가지고 저희들 1,750 (청취불능)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국비에서 하는 것은 7,000만 원에 대한……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더 많겠네요?

□ 정보통신담당 황소연

7,000만 원입니다, 일곱 군데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 김양훈 위원

여기서는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보이길래……

□ 정보통신담당 황소연

아니, 자치단체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만…… 들어갈 것만 거기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6쪽, 배상금이 기존 1억에서 2억…… 2,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배상금이라는 것은 뭐, 소송을 걸어서 졌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저희들이 소송에 졌을 때.

□ 김재홍 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뭔가 일을 좀 잘못 처리했다든가. 그래서 지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고의성이 없이 그

냥……

□ 법무규제담당 교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계장 교수영입니다.

방금 김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이 17건 있습니다. 17건 중에서 손해배상이 4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고금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 해가지고 그 손해배상 청구 3,000만 원. 그다음에 대신리 석산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 5,000만 원. 도시계획 확인원 중에 그 문화재 (청취불능) 확인원이 위반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손해 3,000만 원. 그다음 최근 봉명리, 고금 봉명리 덤프트럭 전복사고로 해가지고 거기 손해배상 청구가 3,7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은 지금 현재…… 고금 염전과 대신리 석산, 거기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확인원 누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2,500만 원 과실로 해서 냈다고 해가지고 지금 2,500…… 그 우리 시군에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중입니다, 2심 항소 중이고, 고금…… 덤프트럭 관련해서 그 부분도 도로가 붕괴되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3,700만 원 청구를 했는데 합의를 통해서 1,700만 원만 이렇게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도 일단 배상금을 들인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는 것 아닙니까?

□ 법무규제담당 교수영

이 부분은 그 도로가…… 고금 봉명리, 그 도로가 붕괴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영조물 관리, 도로 영조물 관리 서울로…… 일부

3,700만 원이 배상 청구됐습니다마는 일부 본인 과실과 행정…… 이 도로 관리 소홀로 해서 1,700만 원에 합의해서 이렇게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비싼 돈 안 주고, 혈세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 법무규제담당 고수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173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가지고, 애당초에 1,600만 원인데 3,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분들이 3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금년에 모범공무원을 저기 호주,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마 270만 원 정도, 그 정도 아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갔다 왔습니까, 지금?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금년에 다녀왔고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녀왔는데 예산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애당초 본예산 1회 추경에도 전부 다 공무원들, 다 해외연수 그런 것 다들 있잖아요. 지원이, 여기 애당초에. 아니, 왜 산업시찰…… 산업시찰로 해가지고 1,600만 원이나 되었다가 갑자기 2회 추경에 이렇게 3,2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 이것 1,600만 원은 상반기 것이고요. 하반기 때 퇴직예정 공무원이 8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계상한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모범공무원이라고 안 하고 퇴직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으니까 목을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서무담당 우홍래 집행부 좌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 서무담당 우홍래

서무계장 우홍래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월 달에 전라남도 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퇴직공무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 감사나, 다른 이런 지적사항에 대비해서 도에서 이것을 퇴직이라고 하지 말고 모범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바뀌서 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좀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것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군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간부공무원들 해가지고 ‘대통령 포상 또는 군수가 거기에 상응하는’ 으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대로 그대로 잡아주면 되지. 산업시찰로 해놓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실제 내용은 퇴직공무원인데 부기상 모범공무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감사 관련해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바로 잡은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가 저번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이

조례를. 대통령상을 받든가, 아니면 군수가 그에 상응하는 표창을 주면 보내게끔 했잖아요. 그전에 못 보내가지고, 우리가 퇴직공무원들을 못 보내가지고 해외시찰을…… (예)

그러면 목을 그렇게 잡아줘야지, 이렇게 저기……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부기는 따로 있는데 들어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부기가, 이 부기로 바로 잡았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정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공직자 힐링캠프라고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연초에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다 하잖아요. 아니, 뭐 갑자기 추경에…… 2회 추경에 1억 2,000이 올라왔소. 우리가 공무원이고, 그 일반행정직들이고 싹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1억 2,000이라고 올라오면 말이 안 맞는 말이지, 지금.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게 기정예산에 보면 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잡은 것입니다. 안 잡았고, 저희가 400명 정도 예산을 했기 때문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 우리가 해년마다 해왔던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산계장, 없소? 이것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1회 추경에도 없소?

□ 예산담당 김현란

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갑자기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마 그 조기집행,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예산 수급상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 애당초 2회 추경에 없었죠, 이유가. 그러면 정부에서 이번에 2차 추경 안 했으면 이것도 없죠. 그러면 이것 없었으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뭐 끼워 넣기 하는 거예요. 어찌자는 거예요, 지금?

주민……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라고 했는데, 이것 어떤 것입니까? 지금 완도군에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지금 현재 완도읍에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고금하고 약산……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개 읍면 잡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거기……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고금하고 약산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이고. 또 행정발전 위원이에요, 뭐예요. 각 읍면에 있는 것.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나가잖아요, 교류협력팀에서. 지역발전협의회인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주민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도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 교류협력담당 김준혁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해년마다 300인가 얼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류협력담당 김준혁

지역발전위원회, 그것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있는데 왜 없어. 각 읍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문위원 이석우

지역발전 위원들은 수당이 별도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주면서 지원이지. 다른 것이 지원입니까?

(“ 읍면에서 별도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안하고 읍면 뭐시기로 나갑니까?

(“ 예, 읍면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갑자기 이것도 못보던 것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요. 그 우리 사물인터넷하고 관광지 와이파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느 어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까? 도하고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도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금만 도로 납부하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몇 %, 몇 % 이렇게 써져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700만 원…… 9,700만 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 정보통신담당 황소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사물인터넷 사업은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25%, 군비 25%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도비 25%, 군비 25%. 그다음에 이동통신사 SKT입니다. SKT에서 50%해 가지고 저희들 부담금이 9,7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도에서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 황소연

도에서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도에서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또 물어볼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173쪽에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해 가지고 1식이 1,352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서무담당 우홍래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5.18 민주유공자는 9분이 계시는데요. 완도읍에 5분, 신지면에 3분, 약산면에 1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월 13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액도비입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총괄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회 추경예산은 109억 6,768만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으로 6억 5,0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16억 1,80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의료원 환자진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환자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지원 시설비입니다. 노화보건지소 주차장 조성 공사로 6,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재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화 넓도보건지소 보건사업 차량 구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한방 난임치료비 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 난임치료비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모자보건 사회보장 적수혜금입니다. 완도군 출산장려 양육비로 일시금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양육비 분할금 7,200만 원으로, 총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지역사회 방역 소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방역소득기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대상포진 약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8년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보건의료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316쪽에 보면 치안…… 치매안심센터 운영 같은 것 9,600 정도가 다시 반환되었죠. 또 저기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렇게 열심히 하면 참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인데 왜 이런 것들이 반환되나 싶어가지고.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치매안심센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 치매안심센터…… 2017년도 치매안심센터 설치…… 센터 운영이 `18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17년도에는 예산 전체포용을 안 해서…… 뭘니까, 22개 시군이 전부 이런 상황에서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최정욱 위원

그래서 2017년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 시행은 2008년…… `18년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보낸 것인가요?

(“ 예, 맞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산모신생아, 이것도 그런가요?

(“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다 그런가요?

(“아, 그것은 사용이 다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비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한 것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왜 이것 사용이 안 되나요?

(“이용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아, 예산보다 이것도 많이……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가 출산에서부터 산모관리라든가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데,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주무관 있음)

무슨 말인지 알죠. 혹시 이용자가 몰라서 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다 파악이 되나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그 305페이지입니다. 약품…… 의약품, 약품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9,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이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늘어가지고 약품 소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환자가 늘어날 것을 그전에는 예상 못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조금 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상반기…… 아니, 작년 대비 몇 %나 늘어났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퍼센테이지로는……

□ 보건의료원 진료담당 김현주

진료담당 김현주입니다.

제가 아까 %로는 표시는 안 해놨는데요. 진료 연인원이…… 보건의료원이 전년대비 6월까지 해서 3,859건에 대한 진료 실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3,200 정도가 전년대비 수익금이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내용은 315쪽이요. 그 휴대용 방역소독기구입에 관해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읍면에 하나씩 보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데 가끔 이게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리를 업체에 의뢰해서 자주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저도 마을책임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보건소에 가면 수리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지역 같은 데는 한번 고장 나면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육지에서야 급하면 가고…… 보건소로도 갈 수 있고, 서로 연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고 계신지.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이번에 지금 증액을 요청한 부분은요, 읍면에 새기계를 사서 보내는 비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0대 정도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가요. 상당히 예민한 기계라 그런지 한번 쓰고 안 되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이제 사용을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도서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육지…… 이렇게 연륙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보건소로 가면 고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올해는 이렇게 비가 덜 오니까 모기가 좀 없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습한 날씨가 계속될 때는 상당히 이것을 마을에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저도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약간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더구나, 가뜰스 애를 안 낳는다고 난리인데 지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1,700만 원 돈이라는 것이 다시 반납이 되고,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3,000 (청취불능) 돈이 그냥 다시 반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를 너무 안한 것일까.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사업인가. 그것을 좀 변경해가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가. 거기에 따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국가에서 그 지원을 해서 준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지금 3,500이 나왔다면…… 남았다면, 반납을 했다면 한 얼마 정도 이게 나옵니까?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요. 그 바우처에다가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

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그 건강관리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건강관리사가 완도군에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건강관리를 양성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꼭 그 부분들은 더욱더 신경써가지고 반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316쪽. 반환금 문제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다 반납액이 나왔는데요. 그 모자보건 사업은 혹시 여성들 경부암 백신하고는, 뭐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상관이 없어요?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을 그쪽에다가 쓰면 안 됩니까?

(“예, 그것은…… 국비는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관계…… 예산 이렇게 하는데 관계계장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아무리 추정,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불성

실하게 해가지고, 우리보고 예산을 어떻게 해주라는 말이에요?

(“ 지금 예산 관련된 담당 계장들만 ……” 하는 주무관 있음)

그렇게 온 거예요?

(“ 예.” 하는 주무관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25억 5,833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48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산민원 관련 전자허가증카드 구입입니다. 전자허가증카드 구입비로 1,9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도군 어업허가는 현재 1,304건으로 허가증카드는 건당 2장씩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 어업허가가 만료되어 전국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에 전자허가증카드 2,200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입니다. 보행자의 도로명주소 안내용 명판 확충사업비 2,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 지난해 3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정부합동평가 목표량 달성을 위해 군비 1,199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동사업은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18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립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4동, 동백아파트, 남해아파트, 학림1차아파트, 세림아파트. 4동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비용으로 각 단지별

200만 원씩 지원하고자 도비 400만 원, 군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약산 한옥마을 도로…… 한옥마을 포장도로 원상복구사업으로 약산 한옥마을 포장도로 원상복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업비는 약산 한옥마을 조성과정에서 사유지에 포장된 콘크리트 도로 철거 및 지장물 원상복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그 원상, 약산…… 188쪽이요. 약산 한옥마을 원상복구, 그 사유지에다가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유지인지 모르고 포장을 했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기존에 도로가 나있어서 그것을 포장했었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그것 철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 김양훈 위원

그게 몇 미터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한 10여 미터 됩니다.

□ 김양훈 위원

10미터 철거하는데 2,5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아니요, 500만 원.

□ 김양훈 위원

아, 500만 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저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그 원상복구, 이것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금 한옥마을을 하는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조성하는 과정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가 도로를 포장하면서 이 정도 들어가면 포장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액수,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갔으면 과장님은 10미터 간다고 했는데 10미터 원상복구를 하는데 뭐 5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 몇 십만 원 안이면 되는데, 그것 철거하고, 장비야, 하루 들어가고 하루 뭐하면 그러는데……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배는 더 들어가는데.

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이런 예산 부기를 좀…… 개발하면 안돼요? 이런 것 원상복구 해주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라고 하면 통과시켜주고, 이게 뭘 낮췄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은. 진짜 이런 예산들은……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경제산업과장 서길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경제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정비사업 목에, 시설비에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각각 2억 7,0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을 감하고 동일해서 부기를 정정해서 완도 축청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부기를 하나로 통일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민간…… 위쪽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완도군 새마을가족하고 어울마당 행사에 당초 기정예산이 2,000만 원인데 행사가 작년에 해보니까 2,000만 원으로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이번에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150만 원이 내려와서 군비 50% 부담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재원이전을 자본보조…… 자본보조사업을 1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지특과 도비, 군비를 재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와 도비…… 국비 1억 2,500만 원, 도비 6,250만 원, 군비 6,250만 원해서 2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소년일자리사업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농어촌버스 업체 손실금 보전으로 지금…… 당초예산이 6,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당목에서 완도까지 버스 단일노선 1,300원, 단일요금 노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용역해서 나온 보전…… 손실

금 보전금액이 약 3억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600만 원을…… 증가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택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택시미터기 교체사업에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교체에 1,000만 원을 증가해서 3,000만 원. 그리고 정관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이 증가된 4,000만 원. 갈매기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에 1,200만 원이 증가된 3,6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2,400만 원이 증가된 2억 4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2,250만 원이 증가된 9,750만 원. 도로변 주정차선 도색에 1,500만 원이 증가된 3,000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 교체 및 신설에 1,000만 원이 증가된 3,000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 등에 3,000만 원이 증가된 9,000만 원. 보조신호등 신설 및 보수에 1,000만 원이 증가된 3,000만 원. 그리고 금일 화목리 공영주차장 조성은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보길면 부항리 임시 주차장 포장공사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버스승강장 동장군 대피소 설치에 9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수업체보조금에서 지특이 지금 삭감돼서 그 지특보조금 3,000만 원을 군비로 자체편성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총 5,000만 원을 그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에 지금 당초에 2015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발생 이자가 기정액이 1,382만 2,000원이었는데 정산한 결과 86만 3,000원만 반납이 현재 돼서 1,295만 9,000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 4,635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20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을 신설로 2,635만 6,000원을 편성해서, 예비비로 많이 신규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융자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소득 융자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3명에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 편성이 됐기 때문에 총 27…… 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27년 지원분에 대해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6,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전체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4억 4,901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경제산업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198페이지,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농어촌버스업체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합니까?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1회 뛰는데 업체에 얼마 보조금을 해준다가 그렇게 합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동부권 주민…… 완도읍 경제권 편의를 위한 교통대책 일환으로 지금 작년에 계획을 해서 금년 작년 12월 중순부터 고금…… 장보고대교가 개통된 다음부터 지금 현재 버스요금 체계가 3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목에서 고금…… 석치까지. 고금 석치에서 신지, 완도까지 이제…… 버스요금 세입 체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단일화시키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보전을 함으로써 당목에서부터 약산 장용리, 고금 석치. 석치에서 신지, 완도 군청 앞까지 이용하는 그 버스……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나머지 부분에 손실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1,3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손실 보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실제 그 운행구간에 대한 버스들에 대한 이용객 수, 그리고 운영비, 그다음에 회사에서 비용 하는 모든 시설장비 유지비, 모든 부분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용역기관에서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런데 지금에 온 시점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두 사람 싹고 올 때도 있고, 너 무나 지금, 지금 뛰고 있는 그 횟수가 너무 많지 않냐. 그냥 군에서 너무 헛돈만 날리고 있지 않냐. 그런 지적사항들이 너무나 많습 니다.

그 부분들을 용역은, 뭐 1년이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인원들이 지금 몇 시에 뛰는가. 뭐 아니면 그런…… 장날이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일반…… 또 공휴일에는 사람이 관광객들 때문에 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 말고는 사람들이 너 무나 이용도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게 자 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 25회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25회……

□ 이범성 위원

그 부분들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혈 세가 막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 버스가 어민들 다 오는데, 우리가 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돈이 투 여가 되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람 한두 명 싹고 거기서 막 오는 여건들이 허다 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하니까. 거기 편

성은,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더 명확히 용역을 한 번 더 주든지. 어떤 부분들의 버스 요건들하고 한 번 더 갖춰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그 부분에 다시…… 좀 보완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5회를 하는 것은 지금 당목 에서 금일, 그다음에 당목에서 생일 가는, 그 배편의 시간표하고 맞춘 것입니다. 맞춘 것이고 여기에 사람에, 손님에…… 우리가 손님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보전이…… 손실 보전금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게 (청취불능) 준공영제 비슷하게 사람이 있 든 없든 그 시간대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운 행을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지금 읍에서 고금이나 약산을 가는 다른 관 광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편의적 인 부분을 여기다가 감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당하게 지연이 되고 그런 사례를 막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이 정확하게 용역을 쫓는데요. 방금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꼼꼼 하게 챙겨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 다.

□ 이범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그 중소기업 근속장려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기존 예산 8,400에서 2,400만 쓰고 6,000…… 마이너스가 된 것 이죠? 아니, 못쓴 것이죠? 198페이지.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아, 이 부분은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

근로사업 지원금부터…… 이 부분이 지금 조정이 돼서 그 위쪽에……

(“ 당초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 저…… 청년인턴제, 그 중소기업의 근로장려금을 8,4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저희들…… 그 회사를 지원해준다보니까 대성병원밖에 없어 가지고, 그 인원수로 해서 예산을 확정짓다 보니까 이 6,0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하는 주무관 있음)

□ 최정욱 위원

그 어떤 것, 설명 좀 해줄래요? 이 근로장려 지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

(“ 예, 근로장려금은 한 기업에…… 3년간, 1인당 최대 120만 원씩 지원합니다. 1년차 취업장려금은 350만 원, 기업 200만 원, 청년 150만 원으로, 2년차 고용유지금은 300만 원인데 청년 150, 기업 150, 3년차 장기근속금은 550만 원까지 주는데 청년한테 400만 원, 기업에 5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중소기업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 그렇죠.”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대성병원밖에 안 된다고요?

(“ 예, 그 주문신청을 받는데 그 대성병원만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지원을 해줍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정규직으로 고용이라면 뭐…… 요즘은 다, 계약직도 다 포함이 안 되는가요?

(“ 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고 정규직……” 하는 주무관 있음)

정규직만?

(“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 데에 그런 회사가 우리 완도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고요?

(“ 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신청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홍보는

제대로 했는데요?

(“ 예, 인터넷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인터넷에다가만 하나요. 좀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 지원을 모르고 못 받는 사람들이 많겠죠. 기업에서 지금 얼마나 어렵고, 다들 그 인건비 갖고도…… 지금 뭐예요. 최저수당인가 최저임금, 이런 것만 조금 올라도 곤두서 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왜 못 쓰겠어요?

(“ 이게 3년간만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추세더라고요.”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당연하죠. 1년만 써도 그게 효과가 좋는데 3년까지 쓰면 말할 것도 없이 좋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 이것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청년들 일자리사업인지……

(“ 예, 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라고 하면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써 이게 저희들이 기업에다 한 20명 정도, 그리고 공공기관에 한 20명 정도로 해가지고 총 신청을…… 지금 공공기관에는 아직 안 했고요. 기업은 사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4개 업체에서 한 9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사람을 신청을 받느냐고요.

(“ 농공단지 그런 데에다가 신청을……”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그 업체에 일을 하겠다고 들어간 사람을 지원해준다는 그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가요, 1인당 얼마 해 주나요?

(“ 예, 1인당 한 150에서 200 정도.”

하는 주무관 있음)

이것도 그러면 이 위에 사업하고 비슷하네요?

(“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이게 그 사전에…… 작년에, 연말에도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홍보는 약간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농공한지 입주업체들하고 사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청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이렇게 이제 잘 홍보가 돼서 잘하면요, 우리 일자리도 하나 더 늘어날 뿐더러 사람을 하나 더 쓸 수도 있어요, 그 인건비 때문에 라도.

무슨 계획을 세우면 이제 잘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그 부분은 뭐 부족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농공단지 협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여성자 위원님.

□ 여성자 위원

예, 여기 197쪽예요. 사회적기업이 엄청나게 가짓수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 이런, 무슨 사업을 보조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지금 저희 군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사

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4개, 5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을 (청취불능) 해서 예산 지원을…… 운영비나 사업,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여성자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등록되신 분들 명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여성자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그 등록이 되면 어떤 조건을 거쳐야 만이 되는가. 그런 것은 알 수 있을까요?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별도로 그 사회적기업 등록절차라는 것이…… 지금 고금에도 청해진미라고 쌀을 한…… 그 사회적기업으로, 특산물.

□ 여성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자 위원

예, 그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 사회적기업이 개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엄청난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보조하지 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어쩌면 다 개인 사업이 되고 있어서…… 잘 좀, 진짜 검토 좀 잘하십시오.

(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관등 신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경관등입니까?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이것은 우리 지금…… 교통신호 경관등입니다. 그 커브 같은 곳, 위험한 곳 이렇게 위험표시…… 이런 등을 표시하고 그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 가로등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아니면……

□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아닙니다. 그 반사경 옆에다가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불빛이 반사돼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관광정책과 관광진흥담당 이정국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예산안 설명을 드려야하나 부재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2차 추경예산액 10억 3,609만 2,000원을 포함해 165억 7,060만 1,000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자원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걷고 싶은 길 안내 제작으로 해서 1,000만 원입니다. 청정바다수도 완도 KTX열차 및 다중집합소 홍보로 해서 400만 원, 행사운영비 중 관광홍보전 및 박람회 참가로 해서 500만 원했습니다. 시설비,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비 6개 읍면에서 3,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 행사운영비입니다. 가을 여행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 PD, SNS기자단 등 팸투어해서 40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가을 여행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 PD, SNS기자단 등 팸투어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개발 및 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10주년 기념사진촬영집 제작으로 해서 2,000만 원. 슬로시티학계에 따른 주민교육 강사비 지급 300만 원, 슬로시티 인증 우수업소 표식 제작 500만 원, 관광기념품 진열대 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청산 미항길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청산 파시거리 옛모습 정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 운영, 관광축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관광홍보 전시용 특산품 구입으로 해서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정완도 가을빛 홍보 광고비 지불로 해서 1,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물 관리 시설비입니다. 페이지 수는 213페이지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도로확포장공사 편입 토지보상으로 해서 5억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900만 원. 보길 망끝전망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해서 5,000만 원. 청산 방문자 센터 방수공사로 해서 3,000만 원. 해상케이블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소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목 변경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감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생일 가고 싶은 섬 가꾸기입니다. 시설비, 생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목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감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지역소요 맞춤형 지원사업 갈꽃섬 전복오감 여행학교 조성입니다. 시설비, 갈꽃섬 전복오감 여행학교 조성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서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가고 싶은 섬 여서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목 변경을…… 2억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억 원을 감시키고 시설비에다가 2억 원을 플러스시켰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해수욕장 국유지 대부료로 해서 5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제1주차장 임차료로 해서 1,100만 원. 물놀이 시설운영 장비 임차료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임차료는 공공운영비에서 감시키고 임차료로 (청취불능)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해양헬스케어 비치바스켓 설치 신규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청산 신흥 해수욕장 모래보충사업으로 해서 5,022만 원입니다. 약산가사 해수욕장 데크시설 공사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무활동, 관광정책과 시도비보조금 환금입니다. 소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이자반납으로 해서 1,0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생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이자반납으로 인해서 51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관광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215쪽에 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차장 임차료를 누구한테 줘니까?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제1주차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그 협의되어 가지고 1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 우성자 위원

아니, 해마다 그러면 줘니까?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예, 1년마다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주차비에서 받아가지고 줘니까, 아니면 전부 군비에서 줘니까?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군비에서 지원을…… 그전까지 주차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지금은 전혀 안 받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그 선상 전복체험, 그 샘플용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선상이라면 배에서…… 배에서 이렇게 시식하는 것인가요, 211페이지……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입니다.

그 선상 전복체험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지금 원래는 북고리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객했을 때 기상 영향으로 해가지고 노화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읍에 망남리데다가 지금 선상 전복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양식장으로 가서 거기서 채취를 하고. 그리고 육지로 올라와서 육지에서 생전복 하나하고 익은 전복하고 해가지고 시식을 합니다. 그것에 따른……

□ 최정욱 위원

아, 그러면 관광객들 상대로 하네요?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저희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팸투어 대상자들로 합니다. 관광객들은 본인들이 돈을 납부하고, 체험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팸투어를 하면 되는데 여행사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렇게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5,000에서 1,000 더 늘린 것은?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아, 예. 아니, 500입니다.

□ 최정욱 위원

500이요.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500에서 100으로 늘렸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지금 해상케이블, 213페이지요. 해상케이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5,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이게 해상케이블 계획이 지금……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용역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출공원에서 신지상산간 케이블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조사,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 지금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됐겠는가. 타당한가, 아니면 예산이 얼마 들겠는가. 이 용역인가요?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예, 지금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합리적인, 종합적인 용역입니다.

□ 최정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갈꽃섬 오감학교요. 이것은 어디다가, 장소를 어디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214쪽……

(“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꽃섬 전복오감 여행학교는 노화 북고리 전복체험마을을 여기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0만 원은 지특사업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는 것…… 그런 것은 계획이 아직 안 세고요?

(“ 아니, 지금 계획은 사업비…… 총 사업비는 21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군비가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게스트하우스가 한 10실, 방이 한 10개 정도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전복역사관, 또 우리 편의시설, 화장실, 그다음에 전복체험장, 그다음에 치유의 숲, 이런 쪽에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하고 개발구역 지정 용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213쪽입니다. 소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그 목 변경에 대해서 소안 주민소득 발굴운영 지원사업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했다는 소리입니까?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이범성 위원

예, 할 계획은 무슨 물품……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소안항 매표소 옆에 우리 그…… 가고 싶은 섬 소안도에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풍경카페 및 특산물 판매장을…… 지금 한 20평 규모로 시설하려고 지금 설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설명회도 가졌고요. 거기에 따른 안에 그 군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품을 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중에 운영은 마을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 이범성 위원

아, 그러면 그 동네가 여러 군데가 복합되어 있는데, 무슨 동네에서……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거기는 저기 이목리……

□ 이범성 위원

이목리 소관입니다, 거기가.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예, 그래서 이목리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그 설명회 때 그 부분들까지 다 짚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215쪽, 청산 신흥리 해수욕장, 그 모래보충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예, 청산 신흥리가 해마다 모래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가에 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좀 모래를 포설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모래가 왜 유실이 됐는가,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정밀하게 잘 살펴보고는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

고요.

□ 김양훈 위원

원인도 모르고 모래만 계속 갖다 자 또 없어지면 의미가 없을 것 아닙니까?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예,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용역도 진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좀 잘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12쪽,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10주년 기념사진자료 집에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저희가 슬로걷기축제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로 청산도가 지정을 받은 지 지금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청산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그 역사적인 자료, 또 생활풍습, 이런 것들을 사진자료를 전부 사진첩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자료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런 자료를 1,000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배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보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1,000부를?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급 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슬로시티 시군이라든지 해서…… 그리고 저희도 좀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 밑에 관광기념품,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진열대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관광기념품 진열대를 구입한다는 말이에요?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지금 2016년에 저희가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복껍데기를 활용한 것하고 일반관광 기념품을 저희가 이제…… 그 공모해 가지고 당선이 돼서 지금 20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 판매장을 바로 만드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전시장 형태로 해서 관광객들의 반응을 본 후에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노레일 쪽, 완도타워, 그리고 농협, 판매장, 뭐 수협판매장 이렇게 해서 6군데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진열대 형태로 간단하게 먼저 전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여기 4군데밖에 아닌데, 이렇게 와있는데,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산 미항길 시설물 정비사업, 미항길이 어디예요, 청산 미항길이?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도청항입니다, 도청항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거기가 미항길이에요? (예)

그러면 어떤 것을 뭐 시설물을 정비 사업한다, 이 말이에요?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지금 그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2012년도에 그려졌다 보니까 좀 보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벽화 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산 파시거리 옛모습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파시거리가 뭐 된 것 있어요, 청산에가 지금?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파시 문화 거리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고등어 조형물이라든지, 각종 조형물이나 안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계장님. 여기서 또 조형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 석상에서는.

파시거리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했던 것 아닌가요. 우리 그 수고 다니고 그럴 때 80년대, 70년대 거기가 삼치 파시해 가지고, 그 뒤에가 파시거리가 있는데, 그런 어떤 원 초적인 파시거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조형물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 뭐 파시거리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조형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형물이 어떤 시설물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시문화거리가 고등어라든지 생선, 그리고 이렇게 파시문화거리를 알리는 액자 같이, 이런 것들이 조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그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잘 알았습니다.

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청정가을빛 홍보광고비 1,00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 뭐시기에가, 청정가을빛에가. 그런데 왜 또 여기다가 홍보비 1,000만 원을 넣은 것이예요?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홍보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여기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말고 다른 데에도 이것이 좀 들어가 있고, 이게 본예산 1회 추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추제를 하다보니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지금 가을빛여행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리 하고, 215쪽, 물놀이시설 이용료 장비임차료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했어요? 물놀이 시설이용 장비임차료……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예, 군외 물놀이 시설 새로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신지 명사십리예요. 물놀이 시설입니다, 워터슬라이드라고 거기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거기에는 우리가 돈을 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것도 지금 다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할 거예요?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여름이 다 지나가버리는데.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이것은 당초에 밑에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를 목 변경해 가지고 바꾼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라고 왜 목 변경을…… 상수도 사용료 그대로 해가지고 상수도 사용료를 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남으면 불용시키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임차했어요, 장비?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상수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리고 장비, 그것은 우리가 다 그전에 해줬잖아요. 아니, 상수도 사용료가…… 어떻게 장비임차료가 되는가. 장비임차료 전혀 안 맞는 말인데.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상수도 (청취불능) 상수도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것 물차로 갖다가 부어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아니요, 아니요. 해수로 바꿨습니다. 해수로 바뀌서……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그 해수욕장에 관로를 회수를 해가지고 바닷속 물을 끌어다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랬을 때 뭐 상수도밖에 안 들어갔구면, 뭘 장비임차료라고 해 놔.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거기에 이제 펌프 같은,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도 예산…… 목 변경도 하기 전에, 예산도 하기 전에 써버렸다는 말이구먼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아, 그것은 아닙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지금 다 설치해 가지고 물놀이…… 그 워터파크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 물을 어디서 대요? 어디서 대가지고 워터파크 시설을 운영합니까?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해수욕장 물을 지금 해가지고 사용……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그 사람이 물을…… 퍼서 해요, 아니면……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써버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써버렸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예산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됐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서 신지 명사십리…… 해양헬스케어 비치바스켓,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이것은 지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헬스케어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당초 여기 신규시책으로 해서 10개 하려고 본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수입을 하는데 금액이, 이게 부족해 가지고 개수 좀 늘리고 해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 비치바스켓이 어떤 거예요? 모르겠는데……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비치바스켓…… 그 해변에 놓고 앉아서 해변에서 좋은 공기도 이렇게 마시고, 좀 누워있는, 그런 누워있기도 할 수 있고 바람

도…… 뭘니까, 햇빛도 가려주고, 그런 의사 형태, 뭐 침대라든지. 이런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에 있는 의사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그러면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이런 것 그러면 본예산에 넣으면 될 것인데 왜 추경에 넣어버렸어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당초에 10개 하려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1,5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3,500을 추가해서 5,000만 원해서 (청취불능) 다시 하려고 지금 추가로 해놓은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저…… 뭐야, 비치바스켓. 이것 예전에 명사장에 설치가 안 됐던가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예, 이것은 처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해가지고 그때 많이 이게…… 관리가 잘 못돼서 많이 굴러다니고, 막 그런 것을 봤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도 이렇게 드러눕게 위에…… 그 뭐야, 나무같이 다 그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것하고 다른 것인가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예,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더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명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당초예산은 211억 7,073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5억 5,228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6,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국비가 확정·통보됨에 따라 국비 및 군비 각 1,03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성인문해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사업 한글교실 운영 800만 원 감액하여 방금 설명드린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80-90세대 소규모 강좌 운영 군비 820만 원을 감액하여 중간부분, 전남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지원육성 행사실비보상금 제420주년 충무공 이순신 순국제 300만 원, 전통문화육성 행사운영비 2018년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및 가족을 우리 군에 초청하여 홍보대사로 위촉, 투자유치 및 수

출결의 등을 위하여 3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사무관리비, 문화예술의전당 비상 대피 안내영상 제작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관광 행사운영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기금 591만 원을 문화기관시설 전문인력 배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18년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지원사업은 도비 및 군비 각 927만 3,000원 등 1,8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운영관리 시설비, 윤선도 유적지, 고금 도남 비석공원, 묘당도 등 공중화장실 3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 문화재 주변 가로수, 가로등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 윤선도 유적지 잡목 등 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 역사문화관 실시 설계를 위하여 1,000만 원 등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시설비, 국가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1,0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시설비,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 향토유적 보존 관리 시설비, 향토유적 등 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 등 3,000만 원, 지방 영상 홍보 재료비, 6시 내고향 등 방송 유치에 따른 식재료 구입을 위하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4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민간이주보상금 수영장 주변 주차장 매입에 따른 이주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260만 원을, 시설비 군외 갈문 운동시설 설치 2,000만 원. 신지면 작은도서관 주변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 3,000만 원.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위하여 6,500만 원.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5회 전라남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1,300만 원. 체육진흥 시설비로, 시설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군비 3억 원 감액하여 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재원 대치하였으며 체육진흥 시설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보길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지특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시설비 공설운

동장 우레탄 트랙 보수공사를 위하여 도비 5억 6,772만 원과 기금 및 군비 각 4억 6,400만 원씩 9억 2,800만 원으로 14억 9,572만 원을, 아래쪽 완도군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시설비 감액하여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공설운동장 경기관람석 정비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2억 4,000만 원.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을 위하여 교부세 4억 원 등 21억 3,572만 원을, 보길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보길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 원 및 소안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공사 6억 원은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완도군 역도실업팀 훈련장 신설공사, 시설비 완도군 역도실업팀 훈련장 신축공사 소방시설 등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청사관리 시설비 노화도서관 열람실 LED 조명 공사를 위하여 1,000만 원, 군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하여 2,2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 지원사업, 약산면과 넓도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960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넓도 마을 도서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및 군비 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체육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500만 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지하 물탱크 교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 2017년 문화재 보수 등 국비 집행잔액은 국비 1억 8,410만 원 중 1억 6,765만 4,000원은 집행하고 잔액 1,644만 6,000원과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총 사업비 7,003만 원 중 5,40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596만 8,000원은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2017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도비 2,367만 원 중 2,155만 6,000원은 집행하고 잔액 221만 5,000원과 2017년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 중 1,982만 8,000원은 집행하고 잔액 17만 6,000원,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지원 사업은 도비 1,600만 원 중 1,523만 1,000원은 집행하고 잔액 76만 9,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정…… 추가정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223쪽입니다. 시설비 국가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전부 다 군비로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됐네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긴급보수기 때문에 혹시 태풍이라든지 돌발피해가 발생을 하면 긴급히 보수를 하고 이후에 이제…… 그 도에다가, 국가에다가 청구를 해서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먼저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 국가지정문화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쉽게 말해서 주도라든가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나무가 쓰러진다. (청취불능) 그러면 최대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지정문화재는 일단 긴급보수비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에서 먼저 긴급보수를 하고, 이후에 청구를 해서 (청취불능) 국비는 문화재청, 도비는 전남도에다가 청구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

고 조정합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보길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전부다 군비로 3억 5,000이 다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아니, 군비가 아니고, 이것은 지특입니다, 지특. 여기는 지특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앞애가 (청취불능) 안 써져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 223페이지 상단……” 하는 주무관 있음)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글씨가 조그만 해서 못 봤습니다마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예, 과장님. 보니까요, 보길 체육공원 조성사업에요. 예산액이…… 기정액이 5,000인데 뭐 때문에 1,000만 원이 깎였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아, 당초에 저희들이 토사를 매입해서 성토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노화에가 저기…… 구도, 연륙교 공사를 하면서 사토가 좀 많이 나와서, 지금 사토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취불능) 지구에 배수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사토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토를 갖다가 복토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감액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바로 시설까지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토사까지, 토사 확보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 토사들이, 그 사토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쓰다보니까……

□ 김양훈 위원

그 사토는 노화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그 225페이지입니다. 방금 말했던 그 밑인데 소안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공사로, 그 6억짜리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이 앞전에 전……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났던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예)

지금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이것을 삭감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지금 그쪽에, 당초에 그 면사무소 앞애다가 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전체적인 소안면 의견이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고, 지금 또 소안은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 부분은 전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줬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게 그냥 지금 자체적으로 여론 수렴을 제가 소안도를 해봤을 때 이것 전천후, 그것도 다른 데가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지금 소안도에서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그…… 원래 취지는 노인회관 앞애다가 거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앞애다가 지어버리면 노인회관까지 다 잘못되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노인회장의 개인 뜻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부지를 확보했던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봤으면, 기세워던 부분을 한꺼번에 없애버린다는 것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조사를 안 해본 상태에서 없애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요즘 복지정책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그러다보니까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안면장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금년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려고 한다고 소안면장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때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때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 이범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이것, 역도실내체육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안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이번에 증액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당초 예산은 그러면 이정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아, 당초에는 그런 예산을…… 가설계를 했었는데, 하면서 소방부지가 일부 빠져가지고, 그다음에 역도실업팀 역도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같은 것을 들었다 놔다 하기 때문에 바닥 자체를, 상당히 특수한 자재로 활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설계를 하면서 이제…… 설계를 해서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용역을 안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그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가설계를 하죠.

□ 최정욱 위원

가설계를 하고 용역은 안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예, 들어와서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이제…… 그 설계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죠.

□ 최정욱 위원

여기 자리가 어디쯤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야구장 바로 입구에 있는 데입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이범성 위원

한번만 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야기하십시오.

□ 이범성 위원

지금…… 2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7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집행액 중에 남은 것이 1,600인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장섬을 가면 앞에 안내판이 쓰러져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재……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보여서 지금 말씀을 한번……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아, 이것 당초에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 사업들은 저희들 임의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하면 당초 설계대로 다 공사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반납을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나머지 도비 부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다른 데에 이렇게 돌려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다 받기 때문에…… 딱 그 설계된 그 금액을…… 그 금액 이외에는 반납하도록 그렇게……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안내판 여건, 쓰러져버리는 그 부분들은…… 아니, 미관상…… 옛날 같을 때나 지금은 아주…… 같아가지고 그 할 계획은……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이번에 이제 긴급보수비 예산 1,000만 원씩 각각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일단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저희들이 청구를…… 일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역도에 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역도…… 현재까지는 우리 완도출신
들이 상당히 빛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입생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은가
싶어서 한번…… 계획을 알고 있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지금 역도는…… 지금 중학교에 (청취불
능)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완고에서 그런 이양재 선수나 이렇게……
그런 선수를 계속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
하고 있고 소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
이 계속 접촉을 해서 완고 출신 애들이 우리
실업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면 저도 후원회
생활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해마다 신입생
들이 없어서 아주 우리 그 중학교…… 지금
그분 직책이 어떻게 변했는가는 제가 잘 모
르겠습니다마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 노력으로 지
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 읍면에 있는 학생들은 전
문성이 없어 가지고 크게 성장을 못하더라고
요. 그래서 중학교를 옮겨야 돼요, 완도중학
교로. 그랬을 때 전문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
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한번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유능한 (청취불능) 양쪽의 감독들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지금 유명한 선수들이 있
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
고 완도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들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말고 예산파트에다가 하나 물
어볼게요.

22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특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김현란

예, 이것은 국비사업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국비사업이어도……

□ 예산담당 김현란

예, 가능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
리가 그 옛날 패널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금일 무슨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장 시설로
해가지고 지특이든 국비든 우리 군에서 절대
이것을 안 하기로 했는데 지특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교육지원 시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특이
면 되고 군비는 안 되고 그러는 것이예요,
그럼?

□ 예산담당 김현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 누가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지특을?

□ 예산담당 김현란

이 지특사업은 이제…… 그 군비가 없
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이 지특사업을 누가 받아
가지고 온 거냐고요. 우리 군에서 받아온 것
이에요, 아니면 다른 뭐 보길중학교 동문에
서…… 아니면 다른 누가…… 옛날 금일초
등학교 내려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사업이예
요?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 박현호 도의원이
계실 때, 아마 도와고 이야기해서 지특을 내
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도에서는 해도 되고 우리 군에서는
안돼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금일 무슨
초등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것을 하고, 우리 군 예산서
에서 이것은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
들……

그런 지특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놔버리면
우리 위원들보고 뭐 어찌라는 말이에요, 지
금.

□ 예산담당 김현란

이제 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 예산담당 김현란

이것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삭감해도 되죠? 되죠, 삭감해도? 지특 아
니고 국비라도……

□ 예산담당 김현란

그런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 되면, 저절
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니까요. 삭
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청취불능) 사업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 군비가 반영됐을 때, 그때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국비 뭐 얼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것은 잘 아는데. 그때 금일도 매
칭으로 저기 국비를 갖다가 좀 갖고 와가지
고 해갖고, 그 핑계로 해가지고 그것을 마지
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군 예산서
에는 절대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안 된다
고 해놔는데. 이것이 지특이라고 해가지
고……

그러면 도의원들이 하는 것은 되고, 왜 매
번 우리가 예산하면서 합시다라는 군의원들
은 하는 것은 안 되고 도의원들이 하는 것들
은 전부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서에 뒷장에 보면 성립
전으로 많이 나와 있던데. 앞전에 예산결산
할 때도 성립전 절대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또 성립전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잖아요.

□ 예산담당 김현란

아무튼 이 예산은 저희 군비 부담없
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니까요. 지특
이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이것 삭감하
면 어떻게 돼요?

□ 예산담당 김현란

저희가 삭감하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도에서 패널티를 먹여요, 삭감했다고
해가지고?

□ 예산담당 김현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예산은 국비를 받아왔는데 저희 군비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만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지 않습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래서 항간에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도나 가가지고…… 요즘 저기 도지사가 완도분이 되니까 도에 가서 도비 몇 천 가지고 와가지고 국비…… 군비를 여기다가 플러스 해버리면 된다고, 요즘 일반인들이 더 잘 안 다니잖아요, 우리보다. 그것 어떻게 예산계에서 감당하려고 합니까?

도비가 아니라 2%나 20%나 주고 80% 군비 넣으라니까…… 언뜻하면 도지사한테 전부 면담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던데 지금 완도사람들이……

□ 예산담당 김현란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학교에…… 학교 시설물을 지원하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면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우리 군으로 갖고 와서 이러냐는 이 말이에요.

□ 예산담당 김현란

그…… 일단 체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신청하고, 이 예산을 이제 학교로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군비가 이렇게 추가로 매칭을 하는 경우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지특이 됐든 국비 몇 %가 됐든 지특 100%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 당시에 예산을 보신 분들은 그것 일부러 전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개발과는 임규정 씨가, 임규정 계장님이 그때 문화체육과 체육담당인가 그랬을 것인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몫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참 기억력 하나는 좋습니다, 예산계장님.

□ 예산담당 김현란

이런 사업은……

□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담당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이 군비, 이런 매칭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반환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학교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된 데도 있고 맨땅에서 바로 그렇게 먼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특이라든지, 이쪽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학교 운동장들을 좀 많이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처럼 이야기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 이번 예산안도 이렇게 하고, 저번 예산안도 저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것도 물어본 거예요. 나도 뭐 지특이 없고 이렇게 써져있어서 보니까 우리 김양훈 위원님이 말하는 듯이 밑에다가 ‘지’ 라고 작게 적어놨으니까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야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면 좋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같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잘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인 철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서현종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5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7월 26일(목) 09시59분

□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 해양수산정책과
- 수산양식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부의된 안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계속)

- 해양수산정책과
- 수산양식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339호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입니다.

해양수산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액 244억 2,100만 원 대비 20억 2,700여만 원이 늘어난 264억 4,800여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지점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북 LED전광판 교통 광고 홍보입니다, 3,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광주, 그리고 전주, 제주 시내버스 120대하고, 그리고 금호고속 시외버스 양 옆에 광고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20대에 3개월 동안 홍보하는 예산이고요. 더불어서 광주 송정리역, 상무지구, 아시아문화전당, 옥외 LED 대형 광고판에…… 전광판에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단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비 3,000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에다가 3,000만 원을 늘려서 조정했습니다. 아래에 전북 육공해상 운영 관련해서 201, 03 행사운영비 전북주식회사 운영관련 주민공청회입니다. 하반기 중에 주주나 관련단체, 그리고 그분들 의견수렴을 좀 해서 우리 전북주식회사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400만 원입

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완도전북주식회사 신선포장실 시설사업입니다. 7,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조 70%해서 3억 1,9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지금 흡쇼핑이나 택배나 이렇게 그 물건을 제작해서 발송하고 제품포장을 할 때 위생적인, 그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이게 택배나 이렇게…… 이런 제품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위생적인 작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신선포장실을 시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어구 생애관리센터 건립관련 시설비, 어구 생애관리센터 건립 부지에 1억 2,000……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중간부분에 해양오염 방지 재료비, 오일 펜스 구입, 유흡착제 구입 관계는 해상에 유류가 있게 되면 필요한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496만 원, 도비 76만 원. 아래에 청정해역 보전정비, 201 부분에 사무관리비 이동식 페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도선료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5억이 편성돼서 감용기 차량 2대, 8.5톤 차량 2대가 8월 말에 납품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오면 페스티로폼을 전문적으로 감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차들이 읍면에 움직이려면…… 차 도선료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 그 밑에 아래 시설비, 팽생이모자반 이동식 해상집하장 설치에 1,500만 원. 이것은 지금 팽생이모자반이 많이 유입이 되고, 우리 양식장 주변에 이게 지금 많이 자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시범사업으로 (청취불능) 신지 쪽에다가 해상집하장을 설치해가지고 5미터 곱하기 5미터 시설 크기로 아래 깊이는 5미터…… 깊이로 해가지고 그물망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팽생이모자반을 수거해서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이게 고사가 된다고 그래요. 자연적으로 녹아서 없어진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신지 쪽에 우선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1,500만 원. 그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2억 6,200만 원인데요. 신지 명사십리 연안정비 사업이…… 이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59억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신지 명사십리 복원을 위한 사계절 모니터링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실시를 하고 이 59억 원의 이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 해수부에 중간 중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90% 정도 용역을 완료하고, 해수부에 협의를 하러갔더니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2억 6,200.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사계절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보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2억 6,200짜리 용역을 한 후에 59억짜리 이 사업을 신지 명사십리 연안정비 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연안향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입니다. 여기에 4억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금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토탈 합쳐서 해양쓰레기 수거, 그 비용이…… 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작년하고 그 작년에 20억씩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해양쓰레기 수거를 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처리해야 될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2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12억에서 이런 사업 정도…… 16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만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감용기 차량 운행을 하고 그러면 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인건비, 바닷가지킴이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6,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2개 읍면에 그 바닷가, 말 그대로 환경 모니터링도 하고, 정화 활동도 하고 해양쓰레기 투기오염 감시도 하고, 각 어촌계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어구들 수거

제도조치도 하고, 그런 인건비입니다. 아래쪽에 국가주요어업유산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시설비입니다. 완도 지주식 김양식어업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자원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완도 고금에 전통 지주식 김, 김이 국가주요어업유산 제5호로 작년 12월 4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해수부가 지정을 했는데요. 그 지정이 됨으로써 이 예산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이 총 사업비가 8억인데, 이 8억을 가지고 1차년도에는 이 보전관리 활용계획,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3차년도는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차년도에 이 계획수립을 위한, 그런 용역비 1억 원입니다. 이 나머지 2, 3차년도, 이 사업은 나머지 7억을 가지고 고금 봉명리하고 가교리 (청취불능) 일대에 이 사업관계로, 그 탐방 데크도…… 조망대 특산물 전시장…… 이런 것 관련해서 지주식 김 보존, 활용하려는 사업…… 그런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해양헬스케어 관련해서 헬스케어 아웃도어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그리고 아래에 또 해양치유 협력지자체 심포지엄 개최 1,000만 원, 이것은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 가지고 당장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노르딕워킹이나 해변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볼까. 지금 예산을 1,000만 원 세운 것이고요. 협력지자체 심포지엄은 지금 4개 전국에 협력지자체가 완도, 태안, 그리고 울진, 경남 보성 4개 선도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자체 간에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뭐…… 그 내용상에 뭐 심포지엄을 하면서 주제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공동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그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이번에 6억 5,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본예산에 2억, 제1회 추경에 8억 그래서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5억

5,000 확보가 되면 16억 5,000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전체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이 한 2,200평 정도가 9억 정도 집행해서. 지금 매립완료가 1,800평 정도가…… 해서 7억 정도 매립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협의완료가 된 부분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돈으로. 그래서 2,200평 정도 지금 협의가 완료됐는데, 이 부분이 6억 5,000이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16억 5,000을 가지고 지금 6필지 4,000평 정도가 매립이 완료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아래에 있는 반환금…… 기타,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수산사업을 하면서 추진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6,300. 도비보조금이 반환해야 될 것 5,900여만 원인데. 금액이 큰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관련 해서 3,300여만 원이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18억이…… 예산이 썼습니다. 18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썼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그…… 육지로부터 8km 떨어진 도서지역,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1년간 연간 어로소득이 120만 원 이상. 그리고 60일 이상 어업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에 적합한 사람들, 3,226어가 9개 읍면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월 55만 원…… 아니, 연 55만 원씩 책정해주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입니다. 아래 중간지점에 해양쓰레기 정화 집행잔액 2,496만 원. 이 돈은 2016년도에 쓰레기 수거 정화사업비가 9억 8,100만 원에 예산이 썼는데, 읍면에 해양쓰레기 수거하라고 인건비로 내려준 돈인데 인건비를 집행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수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집행 잔액 9,600여만 원이 국고로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중에서 3개소를 우리가 사업을 하라고 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산하고

남은 정산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도비보조금 반환금 5,900여만 원 중에 중간…… 하단부분에 2008년 (청취불능) 시설사업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여기에 5,500여만 원 반납금은 지금 1억 9,600만 원의 총 사업비 중에 2개소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한 군데는 사업을 하고, 한 군데가 사업을 못하고 지금 반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업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년도 말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하니까 또 급하게 명시이월 처리를 했다가, 또 다른 사람 사업자를 모집해서. 또 재공고해서 선정을 해놨는데, 또 그 다른 사람도…… 또 사업을 중간에 포기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당해년도 명시사고로까지 넘어와서 2011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도도 잊어버리고 저희들도 잊어버리고 해서 반납이 안됐던 돈인데. 최근에 전라남도가 (청취불능) 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지금 반납을 안 받았다고 지적이 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납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500여만 원을 반납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이것 전복주식회사요.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어떤 의도에서 공청회를……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전복주식회사 관계가 참…… 앞전에 업무 보고할 때도 관련설명을 드렸었는데. 전복주식회사라든지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이제…… 당시 취지나 목적에 맞게 어민들, 생산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전복가격 안정, 수급조절, 이런 차원에서 2009년 3월 26일날 설립

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군이 출자를 29억 5,000만 원하고 수협도 5억 원 출자를 했고 그랬는데, 전체 지금 현재는 89억 정도 출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때 이 전복주식회사가 그런 공적 기능을 하면서 우리 전복가격 안정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에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의회…… 여러 다방면 각계 각층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해야 될 텐데 안 되니까 행정사무조사·감사도 했구요.

향후 이것을, 전복주식회사를 청산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전복주식회사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공청회 행사를 좀 해볼까합니다. 그래서 주주님들과 관련단체들 모시고 의견수렴해서 발전방안을 좀 모색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전복주식회사가 원취지대로 안 되는 것은 기…… 우리 군에서 알고 있었네요, 지금 파악을 했는가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을 지속컨트롤을 하려고 했는데 지속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26일날 이것이 설립될 당시에 전임군수님께서 전복주식회사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사와 경영에 일체관련하지 않겠다.”라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전복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가지고,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인사와 경영에 일체 관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구조항을 넣는

바람에 군이 컨트롤을…… 물론 이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체 그 전복주식에서 왜 이런 문구도 있고 하는데 너희가 인사…… 그 전복주식회사 경영에 관여를 하나, 이렇게 전복주식회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도저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회에서 나서서 그 조항도 없애고 조례도 전면개정을 하고 감사도 해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에 제가 과장으로 와서 3월 23일날 주총을 열어가지고 그 동안에 이사, 간사로 계신 분들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전부다 전체를 했습니다. 두 분 1년…… 임기가 1년 미만된 두 분만 놔두고 전부다 교체를 했구요, 이번에 새롭게 구성을 해서 전복주식회사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각종 회의안건이나 또 전복주식회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행사운영비 공청회, 이 부분하고, 그다음 장에 들어있는 신선포장실 관계 7,000만 원 중에 자부담을 빼고 4,600만 원 예산을 집어넣은 이유는……

□ 최정욱 위원

예,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기니까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해보자, 발전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차원에……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련을 안 하더라도 주주로서 참여는 했을 것 아니에요, 왜 결산을 하거나 중간 중간…… 뭐 출자자, 아니면 이사 자격이 됐든 주주 자격으로 됐든, 주식회사에 관여는 안 하더라도 참석은 했을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아마 주총장에서 그전년도 운영했던

그 내역을…… 그 다음 년도 2월이나 3월달에 결산하면서 주총장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만 뭐 듣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 최정욱 위원

아니, 했던 것 같은 데가 아니라……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최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를……

□ 최정욱 위원

의결권을 우리가 그 조례에…… 예를 들자면 인사권이나 개인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주주로서 당연히 참여할 권리는 있죠. 왜 없어요, 그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저도 그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안타깝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우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조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또 새롭게 우리 계장님…… 새롭게 와서 그 부분을 좀 쇄신해보고 컨트롤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경영에 조례가 그렇게 돼서 참여를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해 버리면 안돼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데, 분명 우리 군에서 주주로서 참여는, 분명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지금까지……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컨트롤이 안됐다는……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히 말을 해줘야지.

두 번째 지금…… 그렇게 됐으면 지금 보니까 원…… 우리 취지로 안됐고, 지금 보니까 지금 전복주식회사가 질타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것은 정산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어떤 대안을 맞춰서 살펴보는냐는, 두 기로에 서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지금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느 쪽에는 더 서있을 것 아니에요. 판단을 했을 것이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저희들은 기급적이면 활성화를 좀 시켜보려고…… 하는 쪽에 조금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다면 그 쪽으로 가야지, 왜 정리 쪽으로 해야 되겠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일부에서 주주님들이 이렇게 제기능을 못할 바에는 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가 있어서 그러면 공청회를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또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청산을 하는 쪽으로 몰고 간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답변을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 최정욱 위원

먼저 그런 말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이것 정산이냐, 지금 살펴보고 하느냐. 말부터 나와 버리니까 어느 정도 군에서는 생각이, 방향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도 나오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아니, 그런 방향은……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말이……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방향이냐…… 정리냐, 살려 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기준을 놓느냐에 따라 방향이 다른 것인데.

그리고 공청회도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것을 살릴 것이냐에 따라서 공청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를 놓고 공청회를 하면 이것은 공청회 자체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설정을 잘해야죠. 우리가 전복주식회사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인지 공청회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릴 것인가를, 그렇게 가야되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게 설정을 잘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잘 하세요. 잘못하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232쪽, 그 전복주식회사 시설…… 포장실 시설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제 전복주식회사가 지금 연간…… 우리

전복 소비에서 유통하고 있는 양이 한 1,600톤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1,602톤을 지금 유통했고요. 금액으로는 한 502억 정도 커버를 했는데. 지금 내수가 한 1,100톤 정도 거기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한 500톤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600톤을 수출과 내수를…… 지금 커버하는 그런 과정에, 유통을 하는 과정에, 수출하는 과정에 포장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바이어나 외국바이어들이 와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위생적으로…… 물론 지금도 위생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설이 열악하다, 포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신선포장실을 좀 만들어서 더 위생적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배송하는, 이런 부분에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4년 이후에, 2014년에 전복가공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12월달에. 그때 보조금을 준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보조금을 전복주식회사가 제기능도 못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해서 보조금 한 번을 안줬습니다. 그리고 뭐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후에, 혹시나 이후라도 전복주식회사를 활성화시키고, 또 1,600여톤을 커버를…… 우리 완도에서 생산되는 부분의 한 15%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전복주식회사를 좀 활성화하고 하려면 질타도 질타지만, 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이런 사업도 좀 지원을 하면서 격려도 좀 하고 하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보조금을 편성한……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전에 그러면 위생상태가 거의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유통했다는 얘기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국내나 외국바이어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조금 더 체계화되고 좀 신선한…… 또 위생적인,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공간이 지금 마련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보조금을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최정옥 위원님이 발의한…… 질의하실 때 (청취불능) 이것을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해갈 것인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리,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리되면 뭐한 겁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래서……

□ 김양훈 위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저희들 방향은, 방향은…… 정리를 안 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 김양훈 위원

아니, 방금 전까지 정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처음에 이제 (청취불능)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북주식회사가 제기능을 못하고 주변…… 여론, 그런 질타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공청회가 관련해서 그러면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공청회 예산을 넣은 것이고, 이 신선포장실은 말 그대로 저희들은 그래도 1,600여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북주식회사가 청산이 되고 없어지면 그것도 막대한 물량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청산된다고 하면 이것도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번에 전북주식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익사업을 내는 기업 아닙니까? (예)

이익사업을 만드는 기업인데, 신선, 이렇게 포장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군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그전에 좀 잘……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도 큰……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저는 233쪽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복원에 대해서, 제가 잘못들은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9억의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26억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해양쓰레기…… 그 잔액을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이런 돈을 읍면으로, 읍면장님들한테 주신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납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 두 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그 먼저 해양쓰레기 반납금. 이 관계는 2016년도 예산으로 10억 정도, 9억 8,100만 원, 약 10억 정도 예산을 배정받았

는데. 뭐 시설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면 위탁처리 업체에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절차상에 해양쓰레기를 위탁처리하려면 먼저 해양쓰레기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하려면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인건비를 배정해줍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읍면에 배정해주는, 그 과정에서…… 인건비가 집행하고, 물론 해양쓰레기 그 부분을 그분들이 다 쓰고 잔액이 발생이 안 되게끔 읍면에서 써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여건이 어느 정도 못췌는지, 아니면 해양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더 치울 것이 없어서 이 인건비가 남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읍면에 다 배정을 했다가 읍면에서 나중에 잔액이 남았다고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 우성자 위원

읍면에서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12개 읍면에서 쓰고 남은 돈이 나중에 올라왔는데 반납하는, 그런 돈이고요. 그리고 신지 명사십리, 그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명사십리 해수욕장 복원을, 모니터링 용역비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이 59억 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해수욕장에 모래 유실된 부분 복원도 하고, 그리고 모래유실 방지장치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5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고, 그런 용역을 하는 과정에 해수부에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그 과정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그래도 이 해수욕장이 1년 동안에 사계절, 1년 동안에 모래 유실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게 모래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을 환경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기

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복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완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용역비는 59억 원의 사업비를 다 쓰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군비 자체로 이 사업 용역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은 국비 돈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2억 6,200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여수하고, 여수 만성리해수욕장하고 그리고 지금 화성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최근에 그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는 4억 4,000 들여서 했고요.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3억 8,600을 들여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2억 6,000 정도를 요구했는데 해수욕장별로, 그 여건이나 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가 약간 다소 차이는 날 수 있고요.

이 용역은 반드시 해야 할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선행되어야 다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233쪽에 그 바닷가지킴이 운영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번에 처음, 처음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시책으로 하면서, 시군하고 도하고 반반 내서 한 6,000만 원, 6,000만 원 부담해 가지고 1억 2,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읍면에 전부 배정해서 인건비로 쓸 계획입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제일 아마…… 지금 정책과가 시간을 오래 잡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뭐 책자에 나온 것은 많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231쪽에 전복 LED 전광판 교통광고홍보, 지역이 광주라고 했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광주, 제주, 전주, 그리고 시외버스, 광주에 서울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지금 주로 광주 쪽에 전광판을 세울 것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전광판은 광주 도심 세 군데, 송정역하고 아시아문화전당, 그 구도청입니다. 그리고 상무지구, 그래서 세 군데, 옥외 LED, 거기 에다가 광고 송출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복이 제일 안 팔리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안 팔리는 지역이요?

□ 이범성 위원

예,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아, 우리가 전복이 생산돼서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가…… 소비를 안 하고 있는 도시를 말씀하십니까?

□ 이범성 위원

그렇죠, 지금 목포가 제일 안 팔립니다. 그다음이 광주입니다. 왜 광주에다가…… 천안도 있고 대도시…… 또 세종시도 있고 업

청난,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돈이면 왜 광주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보다도 많은 지역민들이 움직이고 전복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좀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저기 232쪽이요, 모자반 해상집하장에 관해서…… 야까 그 5M 규모로,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규정을 정하지 마시고 그 선정된 지역…… 어민들하고 대화를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금액은 이런 선에서 한번 해봐라.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명사십리…… 야까 침에 그 복원을 위한 용역, 이렇게 59억이라는 돈이 저기한테.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모래 유실이나 뭐 경관, 이런 것만 복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금 난립되어 있는 민방위나, 그 옛날 구주택들이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니고, 자세하게 모래…… 신지 명사십리 3.8km 구간에 대한, 모래 해역에 대한 해수욕장 침하되고 모래 유실되고,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 경관하고 모래 유실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234쪽에 우성자 위원님이 그 질의한데요. 국고보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일을 그만큼 잘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자리,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읍면에서 할 말이 왜 없겠어요. 2,000몇 백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안 된 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일자리인데……

그래서 이런 것,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초선들 처음이라 지금 되게 안 다룹니다 마는 다음에는 정말 이런 것 하나하나, (칭취불능) 또한 전북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요. 지금은 이정도지만 하나라도 더 검토해서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 국고 반환금에 대한…… 이런 것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허궁희 부의장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지 부분에 59억이 투자되는데 용역비, 방금 우성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몇 년 연한이 되는지. 또한 봤을 때 이 부분에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당대에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는지. 또한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게 용역이…… 지금 1년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비가 확보되면. 사계절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최소 12개월을 걸쳐서 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해수부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지금 4개년사업으로 59억이 지금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용역을 거쳐서 1년을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해수부와 협의…… 뭐 한두 달 거친 다음에 이 사업을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은 4년 기간 동안에 연안정비 모래유실 방지장치하고 모래토설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기간은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기간은 4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4년 후에는 또 다시 모래복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아니, 복원……

□ 김재홍 위원

아니, 제 말은 왜 모래가 유실이 되느냐.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 원인을 하기 위해서……

□ 김재홍 위원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런, 이 용역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59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김재홍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끔 원천적인 부분을 잘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제가 신지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선착장이냐,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요. 원인은 바로 선착장 개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해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분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잘 오해가 안 가게끔 해주어야 된다고 보냐면 그 (청취불능) 해놓고 보면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동고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선착장을 주민들…… 철거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선착장을 만든다고 몇 십억을 갖다 부어, 그것을 철거하려면 얼마나 드는가.

이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것이, 이번 용역도 잘못하게 되면 아무…… 무의미한 돈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합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박재선 위원님……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231페이지, 전복 LED 전광판. 이것 꼭 해야 돼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설명은 들었고. 하려면 서울 같은데 지하철역에나, 아니면 서울메트로 같은 데에 하면 돈 안 들어가고도 서울시하고 MOA하면…… 돈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 서울메트로 사장님을 만나고…… “완도군에서 협조만 오면 얼마든지 해주려고 한다.”라고 그러던데 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산양식과에서 했던, 완도 항만터미널 앞에 했던 전광판. 그런 것 해가지고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혐오스럽다는 말도 하고 그러던데, 자꾸 이런 데에 예산을 씁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지금 그 교통버스 옆에 광고하고, 이 부분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나면요. 그 옛그저께 보니까 우리 용달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왜 우리 용달에다가는…… 우리 용달이 전국적으로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하던데.

자꾸 이렇게 뭐 돈 3,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효과들이……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제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3개월간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을 실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3억 8,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3억 8,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3,000만 원 요구한 것은, 이 실제 3억 8,000에 3개월…… 그 효과가 3억 8,000인데 이것을 실비만 들여서, 실제 제작해서 버스 옆에 부착해서 하는 그 실비만 지금 요구가 돼서 3,000을 지금 요구한 사항이고요. 광주, 전주, 제주까

지 해서…… 이게 홍보가 되는, 이런 부분이
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런 홍보를 늘리려면 차라리 서울
시에 가서 서울에다 하는 것이 낫지. (청취
불능) 전복…… 다 뭐하는데.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하기는 몇 억이
들어가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몇 억 들어가도 하라는 말이에요.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절끔절끔하지 마
시고. (청취불능)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
면……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한 3억 8,000 정도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서울 지하철 같은 데에 하
면…… 얼마나 홍보효과가 많잖아요, 서울
지역 같은 데에.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해야
지. 이것 뭐 돈 얼마씩, 몇 건씩 해가지고
이런 것…… 나 참…… 뭐하고요.

이것이 필요해요? 신선…… 이것, 뭐야.
해협도 아니고. 뭐 ASC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 완도 전복주식회사가 다른 유
통보다 포장여건이 훨씬 좋은데, 이것이 또
문제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시할
게요.

다음, 바다지킴이하면 이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력들은?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읍면에서 이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읍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우리 뭐 저기…… 수산경영인들 뭐예요, 그
러면……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 읍면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뭐, 몇 개월씩 해가지고 인부임을 해가지
고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자체 읍면에서 인부를 모집을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돈만, 예산만 배정
을 하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 해양헬스케어 뭐 토지 (청취불능) 한
4,000평을 사요? 총 우리가 필요한……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협의를 완료된, 그 부분까지가…… 6,500까
지 포함된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몇 평을……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러면 4,100평 정도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가 해양헬스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몇
평 정도가 필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 땅은 한…… 신지
명사십리 전체 3.8km 구간이 12만평인데
요.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땅은, 우선 필요
한 땅은 1만 1,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1
만 1,100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 1만 1,000
평 정도를 사려면 4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0억 확보
됐고, 지금 6,500……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협의 완료

되고 기매입해서 집행된 돈까지 해서 16억 5,000입니다. 한 4,000평……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과장님. 설명을 짧게, 짧게.

그러면 1만 1,000평이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뭐 병원이고 뭐고…… 호텔이고 뭐고 싹 들어갑니까, 그것 안으로?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청취불능) 들어갑니다. 그게 41억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 돈이면 다 들어간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턱도 없겠는데.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답은 한 30…… 평 당 35만 원 정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평수 단가를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땅……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래서 41억입니다.

(□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 이야기하세요.)

(“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지 그 해양치유단지 내에 해양헬스케어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해양치료전문병원이 들어가는 데요. 현재 그 12만평 중에서 한 70% 정도는 국공유지……” 하는 주무관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금방 과장님은 1만 2,000평이라던데 왜 갑자기 12만평이 나와요.

(“ 아니, 전체평수가……” 하는 주무관 있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전체가 12만평인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저기 해수욕장 길이라고 해가지고 12만평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가 12만평이라는 말이에요?

(“ 2번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울물까지 구간이 12만평 정도가 해양치유단지……” 하는 주무관 있음)

그것을 다 산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 그중에서 70%가 국공유지로 확보되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만 1,000평은 사유지. 사유지로 해가지고……” 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가지고 12만 평이라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뭐 또 물어볼……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확인 겸 계획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고려대, 그 수련관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 현재 그 고려대학교는 수련원을,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제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총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두 번 정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냐면 고려대학교에서 수련원으로 초과공사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는 부지가…… 지금 해양치유단지 중심적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수련원 기능이 아니고 해양치유를 전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기능을 좀 전환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추가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계속 지금 추진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해양수산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1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양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양식과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수산양식과장 추관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완도읍 망남리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도비사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회 의원님이 도팔사업으로 제외된 사업입니다. 하단부분 불법어업단속 어업인 교육 교재 제작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양식어장 정비 행정대집행 비용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김양식 호황으로 일부 해역에서 불법시설이 지금 만장해서…… 사후처리하는 물론, 강제철거시 선박임차료하고 인부임 등입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34명의 김양식 어민들을 사법 처리했었고, 저희 직원들이 일 반인들하고 동업해 가지고 한 3,000척 정도의 김양식을 철거한 바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노화 (청취불능) 해역에 진도 어민들이 상당히 그…… 작년도에도 조금 시설이 됐

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낚시어선 안전표지판 제작비용 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낚시어선들의 사고가 잦아 우리 군에서도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들이 (청취불능) 하는 장소 세 개소에 설치 하고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완도군 수산물 ASC 인증을 위한 어업인 교육비 405만 원 편성하였고, 참석자 실비보상금 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ASC 인증은…… 지금 현재 친환경 국제인증입니다. W…… 지금 현재 WWF라고 해가지고 세계 자연기금하고 국제적으로 수산양식 표준기준을 정한 그…… 이 세계양식관리 책임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인증이 바로 ASC인증입니다. 특히 예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완도군 14어가가…… 14어가에 전복양식 어민들이 지금 7월 13일날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완도군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8월 초순경에 대대적인 홍보할 계획에 있고, 특히 완도수산물에 대한 해조류, 광어, 전복, 이 부분에 대한 미래의 차별화 전략으로 ASC 인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군외면 신탄리에 설치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장에 지금 설계업체하고 시군…… 다툼이 있어서 전문업체, 그 안전진단 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침차 콘크리트 추 구입, 종자 개발 시험양식, 은빛멸치 양륙 등 콘베이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집 결과 사업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감했습니다. ASC 인증 수여식 및 확대선포식에 따른 예산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장관님, 전남도지사, 네덜란드 대사 등 (청취불능) 들을 모시고 대대적인 스포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전복소비촉진 워크숍 운영 400만 원, 학교급식 납품에 따른 학교 영양사 팸투어 비용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전복 소비촉진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전복

산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히 소비촉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목변경 추가사업비에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사업이라는 것은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창업자에게 월 90만 원씩 2년간 지원해주고 있으며 조건불리지역일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5명의 어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240페이지. 어정…… 어선 감척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어선 감척사업은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장화, 이 세 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가 사업비가 내려가지고 (청취불능) 남양반도, 연안감척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반납금 부분입니다. 반납금 중에서 중간 부분에 그 도시민 어촌 유치사업 `15년도…… `15년도, `16년도…… 이 사업비를 반납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귀어인들이 어장진입…… 어촌계 가입이라든가, 어장진입을 했을 때 어장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입의 장벽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부분 전복가두리 어장재배치사업 2015년도, `16년도 사업 6억 7,000, 6억 3,000 국비를 반납합니다. 당초 지금까지 총 9개의 어촌계에 한 4만칸 정도는 이설을 했는데, 여기에 한 2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장재배치사업 독려를 했는데 어촌계의 사정상 할 수가 없었고, 금년도…… 아니, 작년도 사업은 한 2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복가두리로 주로 재배치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해조류양식어장도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 사업비 27억 원에 대해서 반납금 없이 사업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수산양식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38쪽, 해조류양식어장 인공……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참자.

□ 허궁희 위원

뭐 그러니까 (청취불능) 것 같아요, 우리 완도말로……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주름이 좀 까발려질 수 있도록…… 줄 사이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쉽게 가라앉을 수 있게끔.

□ 허궁희 위원

아, 큰 (청취불능) 아니고요.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작은 겁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어느 분들을……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저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의원님들이 읍면순회 방문시 금당면에서 어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보니까 사업비가 좀 이렇게 남아서…… 현재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 주민들의 건의사항 처리사항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아무도 이것이 홍보가 더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민들이 알면.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그래서 이제……

□ 허궁희 위원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홍보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238쪽이요. 민간위탁금은 누구한테 줘니까,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어디에 지금……

□ 우성자 위원

238쪽에.

(□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 ASC 인증.)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아, ASC 인증?

□ 우성자 위원

예.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이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로 어민들. 지금 현재 AS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역관리조사, 밑에 퇴적층 조사,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조류 양식어장, 광어양식어장, 전복도 지금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런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민들이라든가 업체한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협약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아니면 그냥……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AS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ASC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정 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전복양식어가 14여가도 한 2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도 저희들하고 남해수산연구소, 환경평가, 퇴형물 조사·관리.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ASC 인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 우성자 위원

아,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그렇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요, 241쪽.

제가 처음에 양식을 하다보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에너지 보급사업에 히트펌프 있죠. 3,700얼마인데, 이게 작년치인 것 같은데 지금 반환이 된 것 같아요.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이 금액 자체가 1대도 안되니까. 보통 지금은 (청취불능) 히트펌프 사업은 그 개소당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 (청취불능) 그 사업비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정산을 한 다

음에 나머지 물량……

□ 김재홍 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이런 급여로는 지금 1대도 못한다는 얘기죠.

□ 김재홍 위원

아, 잔여라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사업을 하고 남은 물량, 잔여물량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양식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농업축산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예산 대비 10억…… 13억 4,565만 이…… 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에 인건비에서 보길 경관작물 관리 인건비가 1,525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보길 경관작물 식재용 농기계 임차료가 600만 원. 보길 경관작물 식재 중장비 임차료 600만 원, 청산 유채 및 코스모스 재배단지 조성 단지임차료가 6,400만 원입니다. 그 재료비에서 246페이지입니다. 청산 가을 경관작물 메밀 종자 구입비가 900만 원. 청산 가을 경관작물 영양제 구입비가 1,800만 원. 경관작물 연작장애 경감제 구입비가 1,000만 원. 보식용 경관작물 종묘

구입비가 1,000만 원. 보길 경관작물 꽃묘…… 구절초 종자가 있는데 1,900만 원. 보길 경관작물 유채 등 종자구입비가 2,000만 원. 경관작물 진드기 및 응애방제 약품 구입비가 900만 원입니다.

그 추경에 한 것은 우리 가을 것하고 내년도 봄 것을 같이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보길하고 청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이 3,750만 원되었습니다. 247페이지는 국도비 계속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그 시설비에서 귀농의 집 수리…… 집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입니다. 249페이지는 국도비 계속사업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가공·보관 시설 지원비가 4억 원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전통 차 육성 시범사업에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제일 마지막 염소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시설비 지원이 1,200만 원되었습니다. 252페이지는 국도비 계속사업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그 반환금입니다. 제일 밑에 2017년도 조사…… 기반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의 2억 6,1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주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서 반환금이 6,403만 9,000원입니다. 쌀고정직불금이 666만 6,000원입니다. 발농업직불제가 7,180…… 68만 2,000원입니다. 도비반환금에서 17년 생산기반확충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5,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26만 7,000원입니다. 밑에 17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그 잔액이 1,8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농업축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246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 농촌에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그 업체에다가 노령자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 농촌에서 농촌활성화에 대한 법인이나 업체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마을에서 공동……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니요, 업체가…… 업체가, 1개 업체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노인일자리라든가,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라든가 타당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이요, 이게 4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지금 완도하고, 이렇게 받는 보조는 많이 와도 규정에 맞지 않아서 반환하는 것이 많지 않은가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반환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을

신청하거든요, 연초에 신청해가지고 연말에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그게…… 안 맞으면 자르는 금액들이 좀 있어가지고.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 안 맞는 이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런데 이것을 한다면, 그 조사료 같은 부분의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10헥타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현장에 가면 거기 안 심어졌거나, 아니면 부적격 결정이…… 판단이 되었을 때는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자르려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그……

□ 최정욱 위원

그 어떤 것이 안 맞아가지고 자른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저희들이 가면은, 현장에 가면 안 심어진 필지라든가, 당초는 우리가 심는다고…… 이 필지에다가 심는다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면 안 심었거나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을 때, 이런 것을 제외시키다 보면 이런 금액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이런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것은 이제 학생들이…… 보면 안 먹은 식비가 있거든요, 실습비, 뭐 실습 같은 것. 만약에 수고 같은 경우는 실습에 간 학생들이 있다면 안 먹은 날수가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배제를 했는데, 그 안 먹은 식비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된……

□ 최정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과장님. 254쪽이요. 받…… 농업직불제나 이런 반환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위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완도는 완도의 면적에 비례해서 내려온, 저기가 직불제가 아닌가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 당초에 저희들이 그…… 연초에 예산을 신청하면 우리가 면적 전체를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행점점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거기에 폐경이라든가, 아니면 미경작된 부분들이 있는 거기 잔액이,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하도 반납금액이 커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그 248쪽입니다. 귀농의 집 리모델링 1개 소인데, 무슨 지역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이것은 지금 국고금(청취불농) 귀농의 집 임시거점, 거기 1동이 있거든요. 군에서 있는데, 1동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2개의 가족이 들어가서 사는데 칸막이도 안 되어갖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리모델링해서 귀어민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이라도…… 한두 달 동안이라도 임시로 거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냥 잠시…… 집수리를 할 동안에 그냥 옆에 있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닙니다. 거기 우리가 군에서 귀농의 집이라고 하나 지어져…… 소안에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째…… 한 4~5년 됐 습니다마는 그것이 노후 되고, 그리고 불편하고 두 가족이 살아야 돼…… 두 가족이 와가지고 체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칸막이도 안 되어있고 화장실도 하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좀 리모델링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 김양훈 위원

그전에 귀농인들한테 이런…… 생활 여건이 어려운 데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했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귀농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인이 오기 위해서 임시로 한…… 한 달 동안이라도 살아보는, 그런 형태의 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그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요. 저희 그…… 집에서 잠은 안 자봤는데, 귀농인이 귀농할 수 있게끔 와서 체험하라고 지어놓은 집인데, 겨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추워서. 한 옥인데도 엄청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야지. 그래 갖고 누가 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완전히 집이 난립집이에요. 그래갖고 막 앉아있어도, 막 이런 데가 무릎이 막 시릴 정도로 한 옥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체험해 보시고, 하룻저녁 잔다든지 해보시고, 대대적으로 그것 좀 폭을 넓혀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한 번 더……

□ 우성자 위원

그것 도대체 그것, 그 집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집이 좀…… 아,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좀 살아보고 귀농을 하려고 왔는데 그 집이 좋아야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못살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칭취불능)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좀 계상해 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가운데 쪽에 있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명사십리 갯길 정비사업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쪽에 있는 402, 민간자본보조는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 3,000만 원. 그 아래 201, 일반운영비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 300만 원. 포상금, 환경 개선부담금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 300만 원…… 3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입니다. 재료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94만 5,000원. 가운데 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폐기물 처리장 내 잡병운반 장비임차료 500만 원.

잡병운반용 톤백 구입 450만 원. 읍면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2,000만 원. 읍면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500만 원. 공공요금입니다.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508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길면 소각시설 크레인 설치 300만 원. 생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시설보강 공사 2,000만 원. 읍면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교체공사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입니다. 약산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 1,900만 원. 생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 신축공사 2,000만 원. 보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 신축공사 3,000만 원. 금당면 폐기물처리시설 캔압축기 구매 설치 1,800만 원. 노화 념도 폐기물처리시설 보수공사 1,000만 원. 아래쪽 405, 자산취득비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장비 구입 4,1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가운데 쪽에 있는 환경미화원 산업안전관리 컨설팅 용역 1,000만 원.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위해요인 조사용역 1,000만 원.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구입 880만 원. 포상금, 청소행정 우수 읍면 시상금 3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완도읍 생활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1,000만 원. 완도읍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공사 7,000만 원. 완도읍 청소차 대기실…… 기사대기실 신축공사 1억 원.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읍면 과다발생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6,000만 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 일반운영비 중에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군외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금일 동성리 마을 숲가꾸기 사업 2,000만 원. 청산면 슬로길 경관숲가꾸기 사업 2,000만 원. 약산 삼문산 진달래공원 철덩굴 제거사업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재료비, 철덩굴 제거 약재 구입 900만 원. 402 민간자본이

전, 산림조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8,000만 원. 206, 재료비로 공원 관리용 소모성 물품 구입 1,000만 원. 401, 시설 및 부대비로 편백숲 산림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5,000만 원. 금일 신평 소공원 조성사업 2,000만 원. 신지 송곡 앞산 공원화사업 5,000만 원. 소안 달목공원 조경식재사업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약품 구입 430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약산 산문산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일 장정리 인도 정비사업 2,000만 원. 노거수 및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3,000만 원. 보길 정동리 보호수정비사업 2,000만 원. 아래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산불예방 홍보 신문 광고료 495만 원.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 84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환경산림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내용은 265쪽이요. 그 산림조합 기계장비 구매자금에 8,000만 원입니까? (예)

뭐 이렇게…… 국고도 없이 이렇게, 군비로 이렇게…… 어떤 기계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이렇게 있었는가.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청취불능) 지원해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조합에 (청취불능) 1대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한테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산림조합법이라든지 (청취불능) 이라든

지 산림자원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산림조합 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뭐 산림 병해충 방제라든지, 뭐 재해 예방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까지 이렇게 저기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는데.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림수목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도도 많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 허궁희 위원

우리 완도군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게 1대 있어도 많이 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많이 합니다.

□ 허궁희 위원

많이 해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뭐 수목이라든지, 해보면 사후관리가 일반…… 업자들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제가 하느……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 허궁희 위원

아니,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더 급한 사업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큰돈이 거기로 갑자기…… 이렇게 8,000만 원이란

돈이 이렇게 지출된 것을 보니까 저는 이게 좀……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좀 선심성이라고 할까, 이런 좀 의심이 갈 정도로 큰돈이 지출돼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구요. (예)

한 가지 더는 이제 그…… 여기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261쪽,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관해서. 아주 금액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과연 어떤 분들한테 보급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청취불능) 신규사업인데. 지금 요즘에 보면 미세먼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환경 분야 업무에 있어서…… 어떤 취약계층입니다. 노인계층이라든지, 또 어린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이런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죠. 다양한 계층을……

□ 허궁희 위원

이런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뭐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보급을 한다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분들한테 보급을 했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262쪽, 시설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이런 센터를…… 용역비를 어느 지역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아, 이것은 지금 망석리에 대한…… 자원

관리센터 지금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망석리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한…… 이용한지가 한 6~7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예산을 해봤더니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교체해 보고자 시설비입니다. 아니, 용역비입니다.

□ 우성자 위원

용역비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잠깐만요.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지금 방금 그…… 보충질의인데요. 이것 지금 용역비가 기계에 대한, 설치에 대한 용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용역으로 꼭 할 필요가 있는가요? 기계에 대해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 부분은 용역을 해야 만이 이제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없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런 전문가들이 의견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설계라고 합니다, 설계.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정욱 위원

설계하고 용역하고는 다르죠?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용역설계입니다. 설계용역입니다.

□ **최정욱 위원**

기계는 보통…… 전문기계자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설계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죠.

□ **최정욱 위원**

아, 신규기계를 들인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기계를 들이기 위한 용역을 해서 그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기존에 있는 기계가 아닌가요? 새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기계는? (예)

그러면 이제 언제나 돼요, 이 사업?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제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나…… 교체를 하는 것이죠.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언제 용역, 설계…… 기계가 나와서 설계 나와서…… 기계가 나와서 내년 상반기에……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해서, 기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 **최정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제가 잠깐 하나……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용역 심의에 안 올라왔죠?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현란**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비라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시설비요?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현란**

예, 실시설계 용역이라서……

□ **전문위원 이석우**

설계비……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현란**

이 설계가 끝나면 이제 다시 시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제 추경에는 설계비만 확보하고, 내년에 이제 예산 확보해서 시설비……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차분히 물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260페이지, 그 민간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말씀하십시오.

□ **이범성 위원**

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전기자동차,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에 보급 계획이 10대입니다, 10대고, 민간자동차는 당초에 7대였는데 3대.

계장님, 3대 추가인가요?

(“ 민간자동차 10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1대당 국비 2,200만 원이 최대한도고요, 도비가 60만 원, 군비 600만 원해서 1,800…… 1,900…… 한 대당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대 정도 구매의향이 있고요, 1대는 지금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하는 주

무관 있음)

□ 이범성 위원

예, 일단 구매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 예, 관내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과장님. 그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이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 시공사업 1,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이제 매년…… 올해도……

□ 김재홍 위원

일반 그 슬레이트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슬레이트 가옥입니다. 가옥, 슬레이트 가옥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해서,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지붕을 다시 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슬레이트 건물이라고 해서 다 지원이 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주택, 주택에 대해서만 하는데요.

이제 지금 기준이 이렇습니다. 46평 규모, 기존 46평 규모의 한 가구당 336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된 부분에서는 저희…… 거의 완료했구요. 앞으로 이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한 104동 신청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 신청분이 예산액에

못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창고 같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창고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가옥 중심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아니, 살지 않는 부분은 안 된다는 그 얘기죠?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주택……

□ 김재홍 위원

주택 말고, 향간에 보면, 각 지역에 보면 홍물식으로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제…… 물론 인체에 유해하니까 그러겠지만 창고 같은 데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래서 자주는 이제……

□ 김재홍 위원

할 수 있는지……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는 기준이 주택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전 의회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소재지권에 그런 홍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좀 이렇게 들여서라도 그 인체에 해로우니까 철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를 좀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26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골격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용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260……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협조 사항입니다. 그게 보면 단순노동을 계속하고 근육이라든지 척추에 골격 이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재해냐, 그런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법적사항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미화원이 가서 뭐 검사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뭐 용역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제 그…… 그 회사에서 거기에 가서 직접 미화원들 검사를 하는 것이죠.

□ 김양훈 위원

그 환경미화원이 직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그것은 보충설명 좀……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미화원 근골격 부담작업은 산업안전관리법에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사방법은 용역사에서 그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을 계속 추적합니다. 뒤따라 다니면서 일하시는…… 일하는 현장을 돌면서 그 부담작업…… 어깨라든가 허리, 그 모든 사람…… 미화원들의 신체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힘이 어느 정도

가해지는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위해요인을 판단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 법조항이 이번에 생긴 것입니까, 그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실은 미화…… 노조에서 정부,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지금 고발을 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조치 사항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도 어쩔 수 없이 처음 해야 되지만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노조에서, 예를 들어서 내용이 없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이것 아예……

(“하려고 했었는데……” 하는 주무관 있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 읍면 과다발생 쓰레기 위탁처리요, 그 부분 쓰레기가 그렇게 예전보다 많이 나오는 추세 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많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쓰레기장을 운영하다 것을 보면 (청취불능) 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가동이 일시 중지됐다든지, 그리고 고장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된 음식물에 대해서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저 쓰레기 소각장, 그쪽을 보면 민간인이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을 군에서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청에서 돈 받고 하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것은 맨 처음에 자기들이 스스로 할 때는 거기에서 했었고,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그 중간에 고장이 난 부분은, 어차피 완도군 소유이기 때문에 완도군이 수리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재수립 용역비 1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5년도에 이 용역을 추진했다가 군단위 그…… 공모사업이 국토부에서 중단되면서 이 용역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문재인정부에

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년에 약 10조원씩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마무리 되어야지 만이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크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산개발비로 완도군 토지 적성평가 발급시스템 전산개발비입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5년마다 1번씩 하는데요, 이게 1~2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등급은 보전 위주의…… 그 개발 토지가 되겠고, 3에서 5등급은 개발가능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탑재시켜놨다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 실과라든지 주민민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하기 위한 전산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화읍 대당리 도시계획도로 포장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이포리 재포장공사를 했는데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완도읍 전복거리 우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의 구간은 완도항구에서부터 우성아파트 구간이 그 위쪽에서 비가 오면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수관로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항상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쪽, 바다 쪽으로 연결해서 배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경관 관리, 그 시설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번호 부착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우리 군에 가로등은 일반주택가에 있는 보안등이나…… 9,523등, 그다음에 관광지라든지 국도변에 있는 가로등이 약 1,000등. 그래서 1만 523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군에서 LED 보안등 교체작업을 하면서 6,842등은 보안…… LED 보안등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번호표시를 다 부착했습니다, 각 읍면마다. 그리고 그 빠져있는, LED 보안등 교체를 못한 것 중에서 1회 추경까지 해서 약 1,200등은 표시도 부착했고, 나머지 2,481등에 대한 표시 부착하는데 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우리 관내 가로등 모든 번호표시가 부착이 됩니다. LED가로등은 검정색

이고요. 그렇지 않은 가로등은 빨간색으로 해서, 혹시 주민이 가로등 몇 번이 고장 났다고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면사무소에서는 손쉽게 가서, 그 가로등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길 망끝 전망대 조망공간 개선사업 5,000만 원,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서 계절꽃 식재 및 관리 인부임, 이것은 다도해 일출공원에 계절꽃을 식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변공원 청소 인부임, 이것은 일시적인 기간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계절꽃 식재 인부임하고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10일 계상이 됐는데 5일을 추가로 계상해서 732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간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이 간판이 새올 시스템에 (청취불능)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금 약 8,000에서 1만 건 정도가 등록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 2개소 도비 1,100만 원, 군비 1,100만 원해서 2,200만 원인데 이것은…… 대상지역은 노화하고 보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소규모 민원처리…… 시설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 석장 마을안길 2,000만 원. 완도 사정 배수로 2,000만 원. 금일 소랑대교 응급보수, 보강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소랑대교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 중에서도 도색이라든지 이음새 보강, 불합격 보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진단이 돼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일 강목 선착장 가로등 설치 2,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금일 용굴 진입로 안전시설 2,000만 원. 금일 궁항 마을안길, 금일 도장 마을안길, 금일 동송 마을안길, 금일 동백 선양장 시설에 각각 2,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금일 구동 선착장 보수공사는 당초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액을 해서 나머지…… 앞에 말씀드린 사업비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화 어룡도 주민센터 2,000만 원, 노화 석중 마을안길, 노화 식목 마을안길에 각각 2,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군외 대창1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만 원. 군외 대창2 물양장 정비공사 2,000만 원. 군외…… 각 2,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 군외 대창2 마을안길 4,000만 원인데 이것이 설계과정에서 그…… 대창2 물양장이 시급하고 이 마을안길, 이 사업비가 좀 일부조정이 필요해서 지금 2,000만 원 감액해서 위쪽에 있는 물양장 정비사업으로, 이쪽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외 동화 호안도로 안전시설, 군외 흑일 호안도로, 군외 망축 마을안길, 신지 가인 마을안길, 신지 동고 정자시설, 고금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에 각각 2,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고금 세동 부잔교 1,000만 원, 고금…… 도남 마을안길, 고금 가교 마을배수로, 약산 관중 마을안길, 약산 구성 위험도로 복구에 각각 2,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약산 상득암 마을배수로 1,000만 원. 청산 권덕 소규모어항 안전시설물 설치에 2,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산 신흥 마을안길, 청산 권덕 주민센터, 소안 비자 배수로, 소안 소진 선착장 진입도로 확포장에 2,000만 원 각각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안 횡간 아스콘 포장공사 6,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도서낙도 (청취불능) 과정에서 이 도로가 기존에 포장은 되어 있었는데, 오래돼서 (청취불능) 도출이 돼서 그쪽에서, 사회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상반기에 1차로 약 790M, 7,000만 원 도비, 군비, 면 재량사업비해서 7,000만 원 우선하고, 남은 물량이 약 650M입니다. 그 마무리를 위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6,0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당 비견리 마을안길, 금당 육동 마을안길, 보길 비법정도로 안전시설물, 보길 선창 부잔교, 생일 유서지구 안전시설물, 생일 유촌 마을센터에 각각 2,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마을회관 및 창고…… 공동창고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4,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2억 4,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회, 2회, 3회 공모한 결과 지금 4,000만 원은 공모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지출할 요인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시설정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읍 소가용 난간보수, 완도 가용 방지턱 설치, 완도 대구미 정자 주변 정비공사에 각각 1,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완도읍 사정마을안길 배수로 2,000만 원, 완도읍 호안도로 방호벽 도색 1,000만 원, 완도읍 화흥하천복개공사, 완도 정도 마을안길, 금일 서편길 도로확포장, 노화읍 삼마 마을안길 정비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화읍 신리 마을안길 배수로에 2,000만 원 반영했고 신지 가인 마을안길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신지 임촌 마을안길, 고금 내동 마을안길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고금 봉명 마을안길 포장공사 1,000만 원, 고금 도남 마을안길 배수로 2,000만 원, 고금 부곡 수산물 공동세척장 설치에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고금 정향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약산 관중 마을쉼터 정자설치, 소안 맹선 마을쉼터 설치, 금당 가학 선착장 보강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먼저 도비 배정이 돼서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선집행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화 내리 마을쉼터 조성, 소안 횡간 마을안길 정비, 소안 창조센터 주변 정비, 보길 정자 호안도로, 소안 항일운동기념관 조경공사에 각각 2,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사업 소규모……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사업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마을단위 특화개발 현장포럼 3개소에 6,0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4개소에 각각 8,0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약산 장용항 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억 원 반영되었고요. 신지 동고항 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8,500만 원, 신지 월양항 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5,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어항시설 가로등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어항…… 육지 소규모 어항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전수조사한 결과 보길 (청취불능) 지구가 지금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거기…… 거기에 필요한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약산권역 거점개발 토지매입비, 이것은 관리계획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14필지 1만 8,172평방미터…… 그 매입하는데 7억 9,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약산 장용, 신지 동고, 신지 월양항 사후환경영향 평가는, 이것은…… 이게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써 이 외곽시설…… 선착장이나 방파제를 300M 이상 시설하면 준공과 함께 5년 동안, 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는 금일권역단위종합개발 건축공사 4,781만 2,000원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그 공동작업장 (청취불능) 51평을 신축하는데 총 사업비는 2억 3,900여만 원인데, 주민자담분 4,781만 2,000원이 세입세출 항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에 편성을 해서 같이 발주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완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출 13만 4,000원인데 이것은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 부분이…… 특별회계로 조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출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장은 전출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온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271쪽입니다.

완도읍 전복거리 우수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그 전복거리는…… 지금 저쪽 입구에서부터 아마 시설이 돼서 완도항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항구, 그 지점부터 수협하고 수협 그…… 우성아파트까지 그 기간, 그 거리가 그 위쪽에서 비가 오면 물이 그리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수를 받아서 바다로 나가든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 우수관이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지난 폭우가 왔을 때 그쪽에 물이 굉장히 많이 침수됐었는데, 가서 진단을 해보니깐 바다로 관을 더 크게 묻어서 빼줘야 만이 비가 왔을 때 어떤 그…… 침수된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전복거리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됐죠?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전복거리 공사는 거기 기존에 우수관을 그대로 두고 공사를 했지, 보강은 안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만약에 폭우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공사를 했던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아마 그쪽에서는 그 농협만 좀 바꾸는 작업을 위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공사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정비했던 도로나 노면을 또 다 파헤쳐야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그 노면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그 옆에, 완도항구 횃집 바로 옆에 있는 슈퍼. 슈퍼에 있는데 그 앞에 지금…… 포장되어 있는 그쪽에서 절개를 해서 수협 2층을 올라가는, 그 도로를 따라서 바다 쪽으로 그렇게 배수로를 낼 계획입니다. 그쪽은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그 보충설명인데요. 전복거리라고 지금 어디서부터 저기 저…… 항만터미널에서 저기, 우성아파트 있는 쪽까지라는 말씀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아닙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죠.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바다농장이 있는 거기서부터…… 완도항구까지가 전부……

□ 최정욱 위원

아……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전복거리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거기를 지금 말하는가요? 우수가 와서 거기가 찼다는 이야기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저기 완도항구 횃집이 있지 않습니까.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는 수협 있는 도로, 그 앞에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그 위쪽 관광호텔 쪽을 가다보면 거기 돌아가는 그 도로를 따라서 비가 많이…… 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쪽 물이 안 빠집니다.

□ **최정욱 위원**

아, 거기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완도 개포 있는데, 그 물 잠기고……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그것하고는 관계……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중점관리 사업으로 지금 약 190억 원을 투자해서 그 시설 사업을…… 설계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위원님들,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합하여 246억 4,729만 4,000

원인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31억 353만 3,000원이 증액된 277억 5,082만 7,000원의 사업명세서에 대한 세부내역을 300만 원 이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이것은 그……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마는 당초 국고보조에서 이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84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그……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증액됐는데 완도 정도2저수지 보수공사 1억 2,000만 원, 완도 군외남선 호안도로 농경지진입로 해수유입 방지시설 2,000만 원, 금당 차우 포강 보강공사 2,000만 원, 금당 차우 암거 보강공사 2,000만 원, 고금 향동 간척지 방조제 암괴 제거공사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로 정비사업으로 19건, 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완도 부흥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완도 대신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완도 정도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노화 당산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군외 원동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군외 달도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군외 대창2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군외 초평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군외 영풍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고금 장중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 원, 고금 신장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고금 도남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고금 청학동 농배수로공사 2,000만 원, 청산 읍리 농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청산 중흥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청산 상동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보길 정동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보길 중통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생일 유촌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로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화읍 충도리 농로확포장공사 2,000만 원, 소안면 이목리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4건, 3억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완도 망석 배수로

2,000만 원. 노화 동고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 군외 용계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군외 불목 배수로 정비공사
 4,000만 원. 군외 삼두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군외 달도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신지 신리지구 용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 신지 동고 배수로 정비공
 사 2,000만 원. 고금 봉암 배수로 연장공사
 2,000만 원. 고금 청학 농배수로공사 2,000
 만 원. 약산 화가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
 만 원. 약산 천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
 만 원. 그리고 286쪽입니다. 청산 양지 배수
 로 정비공사 1,000만 원. 금당 신흥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환경정비 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약산 당목 창
 조적마을만들기 토지매입 주민부담금 2,000
 만 원, 이것은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부담해
 서 땅을 사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완도군이 재원을 부담해서 샀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2,000만 원 편
 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스템
 관리로 해서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기술용역
 비 6개월분 해가지고 264만 원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부분에서 건설 건설사공관리 재료
 비로 도로 보수자재 포대아스콘 구입비
 1,080만 원이 증액된 2,160만 원입니다. 그
 리고 도로시설 개선사업 국도 77호선 망측
 배수로 정비공사 외 11건을…… 8억 808만
 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국도 77호선 망측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도로시설
 가로등 관리표찰 설치공사가 1,800만 원.
 노화 농도 102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
 억 5,000만 원. 신지 군도 17호선 굴곡위협
 도로 개선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고
 금 군도 7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000
 만 원. 고금 군도 7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고금 농도 206호선 배수로 정
 비공사 2,000만 원. 청산면 농도312호선 가
 드레일 설치공사 3,000만 원, 소안 군도 11
 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소안 농
 도 101호선 확포장공사 2억 5,000만 원. 보
 길 군도 13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보길 군도 1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
 사 2억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개선분야, 시설비로 국지도 13호선
 폐도부지 정비사업 4,000만 원입니다. 그리
 고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겨울철 제
 설용 트랙터 부착 삼날 구입비 7,902만 원
 인데 이번에 증액사항이 4,774만 원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완도군 제설창고 신축 설계
 비 3,000만 원. 노화 군도 3호선 도로안내
 표시판 설치공사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고금초등학교 주변 보
 행로 설치사업과 금당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비로 해서 1억 1,400만 원과 1억
 5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하천분
 야입니다. 소하천 관리 분야에서 완도 망석
 세천 정비사업 3,500만 원. 완도 대신 소하
 천 준설공사 2,000만 원. 그리고 노화 당산
 소하천 정비사업은 부기변경입니다. 노화 식
 목 잘포 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부기변경입
 니다. 고금 신장 소하천 정비사업 1,500만
 원. 보길 부항, 정자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
 도 부기변경입니다. 재해재난 예방분야에서
 안전문화운동 예방사업 관리비, 보차혼용도
 로 정비사업비 2,000만 원씩 2개소해가지고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통합관제센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4억 1,325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
 다. 그리고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
 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6,718만
 원. 완도읍 다목적 CCTV 구축사업 4,000만
 원. 신지면 어린이전용 정자 햇살마루
 CCTV 구축사업 2,000만 원. 고금면 다목적
 CCTV 구축사업 2,000만 원.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구축사업 3,600만 원을 편성 요구했
 습니다. 재난방재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사무
 관리비로 그늘막 설치비와 폭염대비 임차비
 로 1,9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290쪽
 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분야입니다.
 신지 동촌 마을내도로 옹벽 긴급 복구공사
 5,000만 원. 고금 음마 진입도로 수해피해
 복구공사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난
 예방 분야입니다. 이재민 대책 및 보호물품

지원, 사무관리비로 각종 사해재난 응급복구 동원장비 임차, 660만 원을…… 66만 원을 15회, 99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 재해복구비, 재난지원금 국비반납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이 지원금이 내려왔을 때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어 가지고,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험금으로 수령을 하고 이것 수령을 포기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운영지원비 이것은…… 하고 민방위교육 운영지원 이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의 낙찰차액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6년 재해복구비, 차바가 지금 보면 아까 말씀대로 도비와 국비 반환금입니다. 2016년 노후 강우량기 교체 집행잔액과 2016년 재난 예경보 유지보수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이자, 운영비 지원, 강사수당, 강사수당 이자. 이것들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방독면 보급사업비는 낙찰차액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87만 원…… 아니, 8만 7,000원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방독면 보급사업 이자 1만 9,000원으로 이자반납금입니다. 그리고 2017년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512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 역시 발생 이자반납금입니다. 2017년 완도군 CCTV통합관제 인건비 지원사업 6,500만 원은 중도에 퇴직을 했다든가. 또 기간제들이 공무원으로 변경되면서 지원된 금액인데 교육청에서 보조된 사업비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289번이요, 여름철 폭염방지, 그늘…… 그늘막 설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이쪽에 하나로마트라고…… 그 어디입니까. 네 군데에 설치를 했는데 저쪽……

(“ 지금 저기 하나로마트 입구하고요. 중앙시장…… 축협 앞에 네 군데를 파라솔보다는 더 큰 그런 규모로 해가지고 횡단보도 대기시간에 그늘을 제외한, 그런 시설에 네 군데 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최정욱 위원

아, 그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늘막에 앉아있게요?

(“ 예, 횡단보도 그 신호등 대기하는 동안에 그늘지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억 5,266만 원으로 8,8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성화 증진, 꽃묘 육성 및 시험포장 운영에서 꽃묘 육성 재료비로 가을빛 여행 불거리 제공 및…… 아니, 제공. 꽃묘 육성 재료구입으로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범…… 농업시험포장 운영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농업시험포장 전선교체 및 정리공사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화향연 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화조형물 운반차량 임차 목변

경으로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에서 병해충예찰 및 방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0만 1,000 원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기술지원에서 바이오기능수 생성장치 설치농가 필터교체로 재료비…… 재료비로 2016년과 2017년에 설치한 농가에 대한 필터교체 1,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로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도비 100%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농업기술센터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275억 3,868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2억…… 258억 8,638만 8,000원 대비 16억 5,2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금일 다량도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동 보수공사 2,000만 원. 빗물을 이용한 마을단위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빗물을 이용한 마을단위 식수원개발 3억 3,000만 원. 이 지역은 소안 횡간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4,22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개소당 기술진단 수수료는 1,056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 완도 대신리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 금일 하화전리 하수도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금일 척치리 하수도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군외 달도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 신지 임촌리 오수관로 시설공사 1억 1,913만 6,000원. 고금 일덕암리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 고금 청룡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 고금 회룡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고금 농상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 약산 어두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 약산 상득암 마을하수도 긴급보수공사 2,000만 원. 금당 울포 하수관로 보수공사 2,000만 원. 보길 예송 마을하수처리장 주변 정비공사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 보길초등학교 앞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생일 덕우 하수도 정비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입니다. 시설비, 노화읍 미라리 마을하수구 정비공사 2,000만 원. 보길면 보옥리 마을하수구 정비공사 2,000만 원. 보길면 선창리 마을하수구 정비공사 2,000만 원.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비, 완도 죽청 오폐수처리장 건축물 개보수공사 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청 오폐수처리장은 지금 19년

된 건물로 건물내 외부분열이 지금 발생되어서 시설물 안전성을 위해서 지금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만 계상을 하고 설계가 끝난 후에는 내년 본예산에 개보수 공사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227만 7,000원이 증액되어 99억 1,33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2,053만 1,000원입니다. 이 반환금은 2017년도에 준공한 보길 청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고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기본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실 현황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수도 관련된 민원들이 엄청 많고 주민들이 지금 하수도에…… 하수도 막힘이 왜 일어나는, 그런 원인들을 자꾸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 제도용 홍보물로 리플렛, 그 전단지, 포스터. 그다음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현황판 정비들이 좀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162억 8,771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157억 7,870만 6,000원 대비 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9,502만 2,000원이 증액되어 1억 2,000만 원.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수입, 1,622만 4,000원이 증액되어 2억 2,622만 4,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 1,200만 원.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1,097만 7,000원이 증액되어 5억 7,097만 7,000원입니다.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227만 7,000원이 증액되어 99억 1,3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162억 8,770

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157억 7,871만 6,000원 대비 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개선입니다. 시설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공사 1억 9,856만 원이 증액되어 5억 3,611만 2,000원, 청산 모서리 급수탱크 시설공사 4,000만 원. 청산 여서도 지하수이용 시설공사 1억 4,892만 원. 노화금목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금일 충도 급수 운반 대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옥수…… 옥내급수관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지원사업 2,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집단시설 노후급수 시설 설치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그 방금 설명을 조금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소안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322페이지입니다. 소안비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저기 소안비자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당초에 저희가 그 2019년 내년도까지 준공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조기 준공을 해서 2019년 작년 사업비를 내역 조정을 받아서, 지금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추정에 지금 사업을 받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민원은 그……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해결을 해서 민원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왜 자기 가정이 그 저기 하수도…… 관로를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을 다 알고 인정한 사항이라 (청취불능) 다 해결……

□ 이범성 위원

예, 이 자리에서 민원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좀 조속히 처리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28쪽, 금일 충도 급수 운반 대가. 여기에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300몇 페이지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328페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아, 예. 지금 금일 충도가 가뭄으로 해서 물이 지금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도…… 우리 가뭄 때부터 차량으로 1일 2회, 그 한 달에 12회 정도 물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공급을. 거기에 대한 그 운반 대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도 그러면 금일 충도는 가뭄입니까?
(예)

비가 오고 그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도서낙도 일부 지금…… 몇 개, 한 다섯 군데가 지금 물 부분이…… 가뭄이 지금 심각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완도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579만 5,000원이 증가된 23억 8,75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장보고기념관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대부료 310만 원, 기념관 주변 시설관리 및 정비 인건비에서 기념관 주변정비 및 예초작업 인부임 1,171만 원, 시설비에서 장보고기념관 옥상 방수 공사 2,000만 원, 장보고기념관 진입로 및 안전벽 데크 철거 및 설치공사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동상 및 어린이놀이공원 관리 인건비에서 장보고동상 주변정비 및 예초작업 인부임 1,024만 원, 장보고어린이공원 주변정비 및 예초작업 인부임 1,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장보고동상 옥상 방수 공사 2,000만 원, 장보고동상 조형물 세척 공사 1,000만 원,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안

전 난간대 설치공사 1,000만 원.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바닥 안전매트 설치공사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칠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예, 소장님. 장보고기념관 진입로 및 안전벽이 있지 않습니까. 데크를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 보면 그 데크를 다 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예, 지금 현재 그 설치 기간이 10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바로 장보고기념관 앞에 한 200평에 대한 그 광장 데크는 노후 되어 가지고 위험해서, 말하자면 철거하고 새로 철거한 데크 나머지 그 진입로 입구, 입구하고 그 양쪽에 탐방로 비숫…… 탐방로 같은 데크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노후해가지고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 데크를 철거한 후에 다시 또 데크로 할 것입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아닙니다. 그 밑에가 지금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쇠로, 스텐으로 해서 다시…… 위에는 데크로 하고 밑에 받침대는 스텐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해야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석우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쪽입니다. 의회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완도군 조례연혁집 제작에 500만 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앨범 제작 58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제 밑에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에서 의원 국외연수비로 1,530만 원 추가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의회하고 군청 간에 송출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것 사업비로 500만 원, 의회청사 옥상에 가림판…… 가림판 설치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칠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입니다. 1차 축조심사를 할 것인데 잠깐 쉬었다 하죠. 바로 들어갈까요, 1차 축조심사?

□ 김양훈 위원

아니,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10분만 정회했다가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14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기록중지)

(14시54분 기록계속)

그러면 지금 1차 축조심사한 결과에 따른 삭감대상조서를 전문위원이 정리한 후에 1차 축조심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삭감대상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를…… 15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

나 삭감해야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삭감대상에 빠져있던 것 생각하신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173쪽, 행사운영비로 공직자힐링캠프 운영 1억 2,000만 원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14년도에 최초 1회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 2회 실시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올해 말고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 신규직원이 많이, 한 60명 정도가 전입되고, 임용되고, 또 직원들 간에 소통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수요에 저희들이 부응해서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일단 그 행사 진행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몇 박 며칠이랄까. 어디서, 뭐 지역은 어디로 정해서, 기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줘 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2017년도에 그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장소는 원네스 리조트에서 진행했습니다. 4기로 나뉘서 80명으로 해가지고 320명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달에 추진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그 뭐…… 스트레스 진단, 그런 뭐…… 신체밸런스 운동, 직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시간의 운영, 마지막에 군수님 특강. 이런 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예, 과장님. 그…… 이것 하는 것은 좋은데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작년에 저희들이 1억 1,900만 원에……

□ 박재선 위원

그때 몇 회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작년에 4회, 이렇게 하는데……

□ 박재선 위원

이번에도 똑같이…… 횡수는 똑같고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아니…… 이 비용은 저희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8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방금 얘기를 들으니깐 지금 작년도에 시행

을 했다고 그랬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시행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지금 들어온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당초에는 안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어떤 희망사항. 직원간의 소통, 뭐 또 신규자 이렇게 전입……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홍 위원

아, 예를 들면 1년이면 끝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당초에는 2년마다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 수요가 있어서……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굳이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추경에. 방금 박재선 위원처럼, 얘기처럼 1억 2,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 작년대비해서 했다고 하지만 계획을 차라리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이것 했는데…… 성과 분석해 봤습니까? 이것 신우철 군수님 들어와서 그전 김종식 군수님부터 해가지고 뭐 나주에

서도 하고, 망석리에 있는 것 여기서도 하고 했는데.

이것 보면 거의 공무원들 잔치분위기인데. 가서 공무원들, 돈 액수는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뭘 배워왔다, 직원들 간에 어떤 소통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조금 말의 표현이 심한데 먹자판이 되는데. 그것 1억 2,000이나 들여서 이것 해야 됩니까?

성과…… 이것 해왔으니까 성과 분석표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지금 또 공직자 힐링캠프라고 이래가지고 목을 정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과장님, 저기 우리가 뭐 성과 분석한 것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어떠한 것이 득이 됐나, 그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까? 이런 것, 이것하고 나서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우리 그 공직자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오후에 가가지고 1박 2일…… 업무를 안보고, 이런 (청취불능)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힐링캠프라고 이래 가가지고 목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역량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거기에 대한 뭐 분석하신 것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분석까지는 안 해봤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사전준비, 그런 마음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노사…… 뭐 정착하고 워크숍, 노사 뭐 워크…… 노사문화워크숍, 노사 관계 정착을…… 워크숍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액수는 크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해

마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가족한마음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또 다시 작년에, 연말…… 작년에 한 것 같은데 또 다시 이것 지금…… 막판에 들어와 가지고 2회 추경에다가 1억 2,000이라는 돈을 힐링캠프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가서 어떤 힐링을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가 듣기로는 오후에 올라가면 나주 중흥파크입니다, 여기서도 할 때 보면 잠깐 뭐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전부 술파티던데. 우리가 속된 말로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내가 굳이 현장에 안 가봤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들은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한 말씀만 드리면요. 공무원…… 우리가 1,000여 명됩니다마는 사실 요즘에 신규자도 많이 이렇게 전입되고 그래서 얼굴도 잘 모르고 그렇게 좀…… 그런 사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얼굴도 알고 친교의 시간이 반드시…… 이런 기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 본예산에 있는 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을 그렇게 하자고 하면 과별로 하지 말고 저기 전체…… 옛날처럼 운동장에서 직원들과, 읍면직원들 전부 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자연스럽게 친목 도모도 되고 얼굴 알고,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해양수산정책과장입니다. 231페이지, 전복 LED전광판 교통광고 홍보 3,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광주, 전주, 제주 시내버스 120대하고 그리고 금호고속 시외버스 100대, 총 220대를 양면에 전복광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3개월 동안 220대다가 홍보를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광주 송정역, 상무지구, 아시아문화전당, 구도청 그 건물입니다. 거기 옥외LED 대형전광판에 우리 전복광고 홍보, 그 부분을 노출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홍보를 3개월 동안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자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 비용을 안 받고, 실제 제작하는 실비만 받고 지금 해주기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면 홍보를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3,000만 원을 넣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전복주식회사 주민공청회, 이것은 아까 우리 최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전복주식회사를 그대로 지금 놔두고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님들하고 관련단체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전복주식회사 발전방안을 좀 모색해보자는 그런 차원에, 그분들을 모시고 의견도 수렴해보자는 그런 공청회 경비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고요. 그다음 페이지, 232페이지에 있는 전복주식회사 신선포장실은…… 이게 지금 그 흡수팩이나 택배 뭐 이런 것이…… 지금 국내로 유통하고, 그리고 해외물량도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포장실이 좀 공간이…… 좀 위생적으로 작업공간이 필요했는데, 이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2014년 이후에 전복주식회사에 그런 보조금을 지금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주고 독려도 좀 하면서 질책은 또 질책대로, 또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전복주식회사를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3페이지에 있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비 2억 6,000은…… 이것은 신지 명사십리, 그 모래사장 연안정비 59억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전 전단계로 이 용역을 시행해야만 그다음 단계인 59억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안 되면 그 59억의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수산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그 LED…… LED전광판이요. 그 홍보를 예전에 우리 군에서도 많이 했던 것으로 하는데.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LED……

□ 최정욱 위원

LED 말고 저기 차나 열차에도, 알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차안에 지하철이나 KTX나,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관광정책과에서 그런 군정 전반에 대한 관광상품 홍보,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예전 십몇 년 전부터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물론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인데요.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결론은 이제 전복 축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 맞는 홍보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좀…… 여기서 맞지 않는 말인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느…… 홍보를 해서 효과를 봐야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그 TV에 홈쇼핑 같은 것 아니죠? (예)

그런 데에 한 번씩 나갈 때 양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니죠? (예)

요즘에 그런 홍보, 또 두 번째가 우리는 요즘 건강시대다. 건강에 전복이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말하자면 우리 그 나오면…… 뭐라고 하나요. 천, 무슨 몸에…… 건강에 좋은 프로 뭐였지.

(“천기뉴스.” 하는 주무관 있음)

천기뉴스, 그런 프로나 직접 그…… 전복을 먹고 나왔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거기에 나와서 설명하고 하는……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면 아마 그 효과가 배로 나올 것입니다. 그 잠깐 홍보지만……

그래서 이런 것보다 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계속 그런 것을 섭외를 해가지고 하면 이런 돈 갖고도 나는 되지 않을까라고……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홈쇼핑하고 전복주식회사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 그 TV프로그램, 먹방도 요즘에 먹방 프로그램. 그런 것이 많이 제작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런 TV 홍보, 이 관계는 별도로 우리……

□ 최정욱 위원

그 홍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홈쇼핑에

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먹방, 이런 것은 뭐 나와도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가요. 요즘에 하도 그런 프로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한 건강, 적어도 우리 전복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것을 하다보면 이것은 엄청난 효과가 나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문화체육과, 거기에서 영상미디어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 최정욱 위원

어디, 어디 프로를……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우리 문화체육과에 영상미디어담당에서 이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떤…… 금방 말한 그런 프로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 최정욱 위원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려고 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전복 소비촉진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홍보하고 있고.

□ 최정욱 위원

건강한 사람들, 뭐 그 프로에 나와서 전복을 먹고 좋아했다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한두 번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했어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금년도에.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이제 수산물 유통,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교통광고, 이 부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 최정욱 위원

내가 그런 프로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전복에 대해서 먹고 좋아졌다, 어떤 건강에……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암환자가 전복을 먹고 나왔다. 그러면 실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생소하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먹고 나왔다. 이런 프로…… 언제 지금 하고 있다고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전에 한두 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떤…… 대강……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게 채널별로 지금 전복 소비촉진이나,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지금 계속 섭외를 하고, 또 지금까지 방송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 한두 번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말하는 천기누설 같은 데에 나와서 그런 프로에…… 이것 엄청난 프로……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러면 바로 거기에 애착을 갖게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배정이 많이 안 되고, 또 그런 것이 홍보가 또 조금 저조

하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계하고 영상미디어, 마케팅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복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이것을 지금 약 3,000만 원짜리를, 별개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버스 양 측면에 홍보하고 LED, 이 부분 홍보…… 이 부분이, 이 내용대로 방금 버스 220대에 3개월 동안 하는 우리 홍보비용이 3억 8,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비…… 이 제작하는 비용만 받고 해주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큰 광고,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는 하고 있네요, 지금?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지금 따로 그런 채널별로…… 또 내용별로 전복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기본적인 홍보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우리가 천기누설 같은 데에 나와서, 그것도 돈이 들고 그런 사람을 섭외하려면 돈이 들어요. 그런 데에 좀 투자를 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제품, 지금까지 몇 십 년 사업해 보면 그런 방법은 예전방법이에요. 지금 터미널이나 버스에 달고 하는, 이 식품 종류는 예전방법이에요. 요즘 건강에 대한 좋은 것이 차량, 이런 것에 효과가 있어도 식품은…… 각 시군 단체나 자기들 지역특산품을 가지고 하도 많이 하니까…… 좋은 것, 홍보…… 이런 것을 차에 달고 하는데, 이것은 예전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야 된다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예,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공청회요. 공청회를 지금……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는 뭔가 지금……

만약 공청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해놓고 “우리 전복주식회사를 정리하자.”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일부……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을…… 제가 예산 추가로 요구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전복주식회사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00톤을 1년에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소비를 하고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청산,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이제 그것……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여기에서 몇 사람 주장은 주장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최종결론은 이제 우리……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해 가자고 지금 계획을……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군 방향이 이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것 형식적이지요, 그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괜히 이런 말만 듣고 그것을 묵살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청회를 할 이 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공청회를 하려면 우리가…… 그날 우리가 정말 고민스럽다.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정말 주민들,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 판단을 못해요. 거기에 좀 참고

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사업을 꾸준히 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에서 지금…… 그 소리를 듣자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형식적이며, 괜히 그런 사람들 그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이 나온 것을 듣고 묵살시키면 더 이게 효과가 안 좋죠.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공청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복회사를 살리겠느냐. 지금 내가 사업 계획서를 대강 봤습니다마는 뭐 500…… 한 6~70억 매출이 되면서 수익이 원가 보상 500…… 한 60몇 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 한 2억 몇 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이제 지금 이것가지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시간이 길고요. 이제 이것을 살리려고 한다면 나는 공청회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 말만 크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듣고 묵살시키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청회 자체는 그렇고…… 또 그 다음 이 시설비도 보자면 이것을 살리려고 봤을 때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 만들어서 이 시설비도 우리가 조금 더 증액을 하려면 정말로 괜찮게 지원을…… 정말 살리려고 하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해주면서 제대로 살려야죠. 적당 적당히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어디가 문제인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살려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어민들이 원하는 그 취지에 맞는 우리 전복주식회사가 되겠느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좋은 말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저도 그 전복주식 신선포장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과장님, 계속 지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돼서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 전체 다 봐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데들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너무 길어지면 뭐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방향 설정 후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전복주식회사가 제역할, 제기능을 못하다보니 여타 이런 데서, 저런 데서 소리가 나다보니까 보조금을…… 지원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못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각 어민들, 어촌계, 그리고 일반 수산사업 하시는 분들 보조금은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복주식회사는 지원을 못해줘서 앞으로 전복주식회사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그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전복주식회사를 조금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또 전복주식회사를 우리 저…… 전복생산 어민들을 또 생각을 해서 판로모색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면 하신 대로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정욱 위원

다시 제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야기하십시오.

□ 최정욱 위원

예, 그 전복주식회사를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양훈이 위원님도…… 가능한 이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기왕 하려면 해줄 것이 있으면 더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이것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성자 위원님.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용역비요.

□ 우성자 위원

예, 아니…… 그것이 난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아, 용역비 관계는…… 그 우리하고 유사한 여수하고 경기도 화성하고 저희들이 하면 금액이…… 완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수한 4억 4,000에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화성은 3억 8,600에 했는데, 저희들이 2억 6,000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2억 6,000도 어떻게 보면 큰돈입니다마는 다른 타 지자체…… 이 용역을 했던 지자체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금년 1번만 합니까, 또 합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1번 이것을 하면…… 1번하고 끝납니다.

□ 여성자 위원

용역을 1번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계실…… 안 계십니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예, 과장님. 그 공청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주주로 합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주주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전복…… 관련된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유통, 수출…… 관련되신 분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낫지 않겠느냐.

□ 박재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공청회를 안 해도,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만든 주식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도 좋습니다.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어민들이 생각하는 주식회사는 이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도군도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주가 아닙니까. 일반주주들도 주주고요. 그런데 이 주식회사는 우리 어민들을 위한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주식회사만의…… 자기네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우리 어민들을 위한 주식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발언만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지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한번 뭐…… 개선방안이나 제가 할로, 그런 것을 모색을 좀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리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그 명사십리…… 아까도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그 용역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원인이 “방파제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지금 저쪽 울모래 쪽에…… 쪽 나와 있는 방파제요. 그게 원인이라고 이렇게 밝혀지면 그것 철거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그것은 원인이 그렇게 나올는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개발과나 여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런 것이 좀 염려가 되냐면 큰돈을 들어서 용역을 하니깐. 또 내년이 되어가지고 자리가 바뀌어지면 의미 없는 자리가…… 돈이 되어 버리고 다시 또 주민들이 욕하면 선착장을 또 연계해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거기다가도 선착장, 그 연계사업을 할 때 엄청나게 찬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연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 돌아온 것은 피해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돈을 들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관리 또한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수산 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와가지고 열성적으로 주식회사 부분이라까. 여러 가지 전복 관련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는 기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여건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제2의 그런 현상이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방금 우리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버스라까…… 버스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는 광주 금호고속 100대에다가 완도 전복, 모든 여건들을 지금 붙인다고 하더라도…… 지방버스입니다, 지방버스. 어떻게 보면 여수, 완도, 뭐 고흥, 녹도, 거기다가 전복…… 가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홍보를 해도 가서 가가지고 전복을 사먹을 사람들은 100에 1명이나 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깊이 헤아려주시고 주식회사 부분은 제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청에…… 우리 군 행정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찾아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까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양식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수산양식과장 추관호입니다.

수산양식과 소관 ASC인증 관련해 가지고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ASC인증은 한 번에 모아놓은 것…… 지속가능한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입

니다. 이 인증은 세계의 자연기금에서 2010년도에 네덜란드에 가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제기구는 대표적으로 인증 받은 부분이 노르웨이 연어라든가. 일본의 멸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아시아에서는 전복이 최초로, 지금 7월 23일자로 완도군에 14어가가 지금 받아들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ASC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지금 현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상당히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에서는 ASC인증을 받은 그 바코드. 그 부분을 설치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만이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신뢰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증하고 달리 ASC인증은, 지금 우리가 14어를 지금 받았는데 여기에 박재선…… 존경하는 박재선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 2년간 정도 걸쳐서 그 자격을, 기준을 갖춰가지고 지금 받은 사항이고.

또 특히 그 인증 받은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면 5개 문항을 가지고 합니다. 우선 자원 상태라든가, 또는 환경영향 상태. 그다음 관리 부분, 심지어는 양식어장에 종사하는 (청취불능) 까지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인증 부분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 5개 항목을 가지고 하는데, 특히 완도군에서 (청취불능) 가장 어려웠던 사항이 퇴적물 부분. 바닷속에 있는 퇴적물 부분이 국제기준에 적합할지, 이 부분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완도군에 수산군의 차별화 부분은, 차별화 부분은 해조류라든가. 광어, 또는 전복 같은 부분도 ASC인증을 통해서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전복이 14어가가…… 지금 그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최소한 양식어장의 10% 정도의 어가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도 지금 현재 세계자연기금에서는 받은 것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국내에 있는 유명한 호텔, 호텔 그

런 데에서도 앞으로 ASC인증을 받은 품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23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그 ASC인증을 위한 어민교육,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전복, 해조류, 광어 어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왜 앞으로 우리 완도수산물에 대한 ASC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민 교육 부분도…… 그 밑에 어민 교육, 실제 관리해가지고 875만 원은 교육에 오신 분 여비로 지급할 계획이고.

하단 부분, ASC인증 수여식 및 확대선포식은,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심지어는 기재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내에는 ASC인증을 받기 위한 TF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와도 같이. 그래서 장관님, 국회의원님들, 전국에 있는 수산유관기관 단체 분을 모시고 확대선포식을 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완도의 수산물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지금 포함시켰고.

하단 부분 8,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실제적으로 40억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어렵지만 어민들을 설득해서 완도수산물의 비전을 위해서 반드시 그…… ASC인증 자체가 미래의 대세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ASC인증은 완도수산의 미래입니다. 꼭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군의 목표는 2020년도에 동경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여기에 직접 그 동경올림픽에 모든 제품을 런칭하고 있는 업체가 이온그룹인데, 이온그룹 같은…… 100% 우리 완도수산물 전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일본시장 내에서는 1년에 한 2,000톤 정도가 수입되

는데 거기의 80%가 우리 완도수산물 전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산 전복이 한 13만 톤 정도 생산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중국의 전복은 ASC인증 자체를 받기가 힘든 어장이다.” 라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동남아시아라든가 동유럽, 이런 쪽에 전복 같은 부분에 대한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상이 필요하고.

추가로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한 2,000톤 정도의 전복이 수출이 되는데, 금년도에 한 3,700톤 정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2만 톤 시대에 들어서 있는 이 전복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쪽에 수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2,000톤 보다는 더 양을 늘려서 한 4,000톤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수출 확대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바로 부분이 ASC인증이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수산양식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한번 생각하셨습니까?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지금부터 이것은 하나의 소비촉진 대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복 해외수출이라든가 국내……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제도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청취불능) 전복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완도가 해조류박람회도 지금 2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늦지 않았냐.

그리고 혹시 이제 전복 같은 인증 관련해 가지고 국내시장 환경에서 보통 그냥…… 즉 지금 보면 세계의 WWF 세계자연기금에

서 지금 천명하고 있는 사항이 받지 않아도, 받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인증을 지금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 완도수산물의 판로 개척, 그런 추진사항에서 반드시…… 빨리 좀 (청취불능) 생각합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그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지금 몇 개 어가만 해가지고 하는 과정이고, 판매유통 업체들은 수없이 많은데 인증을 받은 것인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들의 여건들이랄까, 이 부분들이 뭐 일부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보다도 완도 전체의 어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여건들을 그려볼,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지금 현재 완도에 전복양식어가가 한 2,700어가 정도 되는데. 최소한 이게 10% 정도만 받더라도 전체를 다 인정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조만간에도 지금 현재 그 관련된 부분들…… 특히 유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양식어민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적극 홍보……

사실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어장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완도군 전해역에 우수한 해역에 대한 퇴적층 조사를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다수의 어민들이 참여를 하되, 일단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완도가 14어가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로 완도전복 자체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다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 어가당 ASC인증을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비용이?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지금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 주식회사 청산바다하고 이쪽 어가하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한…… 거의 한 6~700 정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우리가 10%만 해도 과장님 말씀처럼 270어가인데, 그러면 그것 군에서 전부 또 다 해줘야 됩니까?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아니, 이제 중요한 부분. 지원적인 부분, 이제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개별 어가별로 이것을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서, 그리고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정해져있는 국제기준이 전복이나 해조류, 이런 부분들이 국제기준하고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단체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번 14어가는 개별적으로 받았는데 단체로 받아놓으면 이런 비용 같은 사항은 상당히 저렴해지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양식어가에서 그 정해져있는 기준을 지키는 부분하고 정해져있는 그 기준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각 지역마다, 어장마다 퇴적층 조사, (청취불능) 조사, 이런 데에 좀 들어가는 비용이 많거든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ASC 인증이라면 우리가 지금 자꾸 전복, 전복, 수산정책과도 전복, 수산양식과도 전복, 계

속 더블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광어, 해조류, 미역, 다시마하고 굴도 지금 뭐…… 고금 덕동 같은 데서, 가교리 같은…… 가교리 같은 데에서는 고금…… 굴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도 그 어가들이 전복이 안 되니까 지금 통영하고 거제, 이런 쪽으로 굴양식을 해가지고 외국, 유럽으로 수출한다고 지금…… 우리 수산양식과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가들이 가서 지금 거기 연구소에 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면 어떻게 나중에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아니, 이제 지금 현재 전복뿐만 아니라 확대한 부분은 해조류라든가. 광어 양식도 할 계획에 있고. 참고적으로 지금 통영 쪽에 이런 데 FDA해 가지고 그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영 굴도 지금 현재 ASC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이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복어가들이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것으로, 그 가리비 같은 것도 지금 돈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 지금 수산양식과에서 그런 업종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미처 손을 못 미치니까 자기……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 조금씩 있는데.

지금 전복어가들이 정채되어 가지고 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폐사가 없는 굴양식…… 지금 우리가 고금도에서 하는 저런 굴양식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더구먼요. 치패 사가지고 그런 굴양식이 아니고.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채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그렇게 하면 전량 전부 유럽 쪽으로 수출이 되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 8,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몇 억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면, ASC인증 이것……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지금 ASC인증을 받으려면 해조류, 굴 또는 다시마. 각 분야별로 보더라도 꽤 아무튼 좀 지원되는 비용이 큰데.

중요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완도수산물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현재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ASC인증이다. 좀 그 사항을 어떻게, 이렇게 위원님들이 참고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이 예산이 이것으로…… 2회 추정,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 한번…… 우리 전복치패장부터 해가지고 지원해준 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손으로도 못 세잖아요, 손으로도. 그런데 이런 것까지 또……

지금 뭐 우리 박재선 위원님 개인 돈으로, 14어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데에다가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해수부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국비매칭사업을 하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저기 그……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일 해수부로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도 해수부하고 얘기할 계획이고.

실제적으로 현재 전복 14어가가 인증을 받은 단계에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협조해주는 부분은 남해 수산연구소랑 합동을 해가지고 어장 관리되는 부분, 퇴적층 조사.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좀 참고해가지고 지원했지. 실제적으

로 양식어가들한테는 어떤 지원되는 것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해주면 얼마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경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군비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어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기본적인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갑자기 오늘 점심밥을 먹고 나오니까 또 예비비가 나오더구먼요, 고수온으로 해가지고, 지금 괜히 양식과장님한테 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비비가 나와 가지고 뭐를 한다고 그러더구먼요.

언제까지 우리 군..... 지방비, 얼마 되지도 않는 지방비를 가지고 자꾸 이래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이제 본인들이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돈을 벌 때 우리..... 뭐 세금 냈으니까, 또 완도군민들을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뭐 안 되면 전부 완도군입니다, 완도군수고, 이번 선거 때도 보니까 적조..... 그 전복 안 나간다고 완도군에다가, 공무원들 뭐 죄인입니까. 전부 전복 팔아주기 해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 실적을 쌓으려고 자기 돈으로 내가지고 전복팔고.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왜 이것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다고..... 아니, 이것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면서 부족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보충으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군비, 순수..... 얼마 되지도 않는 지방..... 뭐야, 인건비도 충당 안 되는 지방비를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자꾸 이런 데에다가 해야 되는가.

하소연, 저도 하소연입니다. 하도 열척이 없으니까.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예,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그 어민들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무튼 ASC인증 비용에 대해서는 완도수산물의 미래대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양식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예, 관광정책과 광광진흥담당 이정국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청산도 슬로건기축제 10주년 기념행사 자료집입니다. 이것은 청산도에 그 사진동호회원들을 통해서 자료집을 만들고..... 관공서라든가, 이런 많은 다중 집합장소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 다음에 시설비에서 청산 미항길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청 안길에 벽화정비로 1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 정비하는..... 청산도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현재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청산도..... 도청 안길의 벽화 정비.....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그 청산 파시거리 옛모습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물고기를 조형물로 해가지고 파시거리를..... 거기 현재 물고기 조형물 시설을 했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오래되어 가지고 정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물놀이시설운영 장비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내에 그 펌프시설..... 지금 해수욕장 (청취불능) 설치해 가지고 요, 설치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물로 당초에 시행하려고 했었으나 현재 여건상 좀 맞지 않아가지고 물놀이 시설…… (청취불능) 매일 펌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교체하면서 현재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시행을 좀 했습니다.

그 시설비는 신지 명사십리 해양헬스케어 비치바스켓 설치입니다. 이것은 3,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완도에서 최초로 지금 해양헬스까지 연계되어 가지고 비치바스켓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의 볼거리와,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완도군에서 설치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청산 신흥 해수욕장 모래보충 사업은 5,022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수…… 해운대하고 해수욕장 매년에 그…… 모래를 보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산도 해수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충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관광정책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청산, 그 해수욕장 모래보충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앞전에도 이것 보충 했었죠? (예)

작년에 했습니까?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예, 매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매년 하는 것이죠, 지금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그 정도는 안 들어갔었는데, 몇 백만

원…… 한 500만 원 정도 (청취불능) 했는데요. 너무 적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금액을 좀 많이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원인도 없이 원인도 모르고 매년 모래만 갖다가 붓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은.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신흥리가 보면 바깥에…… 그쪽에는 많이 괜찮은데, 지금 초입 부분이 모래가 없어 가지고 돌이 많이……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이 발을 다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되어야 돼서……

□ 김양훈 위원

이것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아무 원인도 지금까지 모르고 계속 모래만 부으면…… 지금 올해 또 모래를 부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해야 되고.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올해는 그랬지만,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요. 매년 이렇게 안 붓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전문가를 통해가지고요. 현지 조사해서 해수욕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서철이 다 끝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관광객들이 왔다가고 해수욕장 다 폐쇄된 뒤로 모래를 부어봤자 겨울을 또 나고 나면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원인부터 파악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매년 반복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그 방금 우리 김양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 질문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모래를 이렇게 배로 실어올 것이죠? (예)

배로 실어다가 여기다 부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양이 많으니까……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예, (청취불능) 해서……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진즉 했어야지, 이것이 지금…… 지금이 최고 피서철인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이제 이것 찬바람 나서 이게 아무 사람도 활용을 안 할 때 부어놨다가 또 겨울에 싹 다 빠져나가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왕 하시려면 본예산에 일찍 세워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즉, 이렇게 5,000이 됐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또 혜택을 보게끔 해야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청산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것 잘했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신중하게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예, 내년에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산도는 매년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가을철에나 겨울철에도 계속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청산도는 모래를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수산정책과하고 관광과하고 과가 틀리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앞전에 수산정책과에서는…… 그 뭘니까. 연구용역을, 신지 부근에 보면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청산 부분에 보면, 방금 부의장 얘기처럼 아무 용역이라든가. 계획, 이 부분이 없이 모래만 갖다 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용역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무작정 추정만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부분을 알고 뭘 해야 되는 것이 않겠냐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신지 같은 경우 용역에 먼저 우선하는데.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용역을 맡길 수 없는가요?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아니요.

□ 김재홍 위원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청산면에서만 이것을

올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뒀한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조사해서 용역, 이 부분은 청산 신흥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도군 전체 해수욕장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 김재홍 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나요?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담당…… 진흥계장이기 때문에.

□ 김재홍 위원

보고사항인가요? (예)

이것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원인을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해수욕장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요. 자연 그대로 있었으면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뭘 시설을 하다보니까 파도에 역류해서 나가서 모래가 (청취불능)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비치바스켓이요.

(사진을 들며) 이 사진, 이것이 맞나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예, 그게 우리나라에 어디 한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인데. 원래 이렇게 이제 해변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제가 해수

욕장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오느라고 바다에 있는 사진을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급하게 사진만……

□ 최정욱 위원

이것을 해수욕장에 놓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햇빛 가리개도 되고 누워있고 그러겠어요. 아까 뭐……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예, 그게 이제 뒤로 젖혀지고요. 밑에 있는 그 나무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다리도 올리고 누워서 이렇게 바닷바람을 쐬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해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관리는 저희들이 거기 명사십리……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 얼마 못쓰고 버리는 것 아니에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아닙니다. 이것 천이 항공천으로 해서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갑니다.

□ 최정욱 위원

예전에 그 우리 저…… 명사장에 보면 아까 그 누워…… 제가 말했던, 이제 위에 이것하고는 다른데 군에서 해냈던 것이 아주 훌륭스럽게 막 자빠져있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아주 보기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그것인 줄 알고 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관리를 철저히 안하면 그런 문제가 오지 않을까?” 라고 보거든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저희들이 이것은 설치하고 CCTV라든지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런 것이 관리를 잘못하면 흥물이 돼요,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2쪽, 청산 슬로건기 축제 사진전이라고 했는데, 금방 과장대행께서 설명할 때 동호인 어찌고 하던데 이것이 뭘 동호인들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없던 말이 나오는데.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청산은 지금…… 2007년도…… 청산은 2009년도에…… 2007년도에 슬로시티로 처음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슬로길이기도 지정되고 국가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되고 그래서, 그 구들장논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국가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되고 그래서 구들장논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독특한 생활문화 풍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사진자료를 전부 모아서 사진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첩을 제작해서 이렇게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도서관, 대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중앙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도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슬로시티 관련된 시군구에도 배부를 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 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청산면사무소에서 사진집 하나 만든 것 있죠, 먼지…… 먼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예, 청산면지입니다. 그것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 관광과에서 지원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을?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그것은 청산면지예요.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면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려요?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이것은 사진자료입니다. 사진자료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사진자료인지는 아는데, 이것을 뭐 돈이야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까지 해가지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청산 슬로시티…… 뭐 알릴만큼 다 알려져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또…… 그렇고요.

이 자료에 보면, 이게 파시거리입니까?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예, 파시문화거리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이제 이것 이해를 했고요.
그 청산 미향길은 미……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향길입니다, 아름다울 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런데 여기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아, 벽화가 조성이 되어…… 벽화가 그려

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탈색되고 변색되고 그래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 어디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청산 어디…… 벽화가 그릴 때가 어디에 있어가지고 벽화가 그려져 있어. 저기 (청취 불능) 올라가가지고 그것 벽화가 그려져 있어, 아니면 이 벽화…… 이것이, 이것은 파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벽화는 어디에 뒀는지 하는 것……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이제 그 저…… 도청항에서 내려서 안통으로 가면 그쪽에 350M 쪽…… 350M 길이로 해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 그림……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파시문화거리하고 겹칩니다. 겹치는데 지금 아래 것은 조형물이고 위에 것은 벽화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사진을 들며) 아니, 이것이 벽화가 아닙니까.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예, 벽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이 지금 파시…… 이것 내가 봐서는 파시로 뭐한 것 같은데. 또 뭐 미항길 해가지고 아무리해도 부둣가 쪽에는 안 보이던데, 우리가 가보면.

□ 관광마케팅담당 한지영

그 파시문화거리가 미항길 안에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런…… 하여튼 목 갖다 붙이기가 참말로 애매하게 좋게 되어 있네요. 너무 돈 안 아깝습니까, 청산도에. 나 예산할 때마다 왜 우리 이정국 계장님이 꼭 예산할 때 이렇게 대행으로 쓰는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좀 따지려고 했는데 참말로…… 애타게 하려고 했는데.

전에 본예산 1회 추경할 때도 그만 좀 청산에다가 넣어라. 우리 다른 데도 개발하고 좀 관광지처럼 하자고 했는데 자꾸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댔고요.

저기, 우리 조봉흠 계장님.

물놀이시설 운영에 장비임차료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설명한 것을 보면 상수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상수도가 사용이 안 되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인수라인을 뭐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임차료입니까? 나 그것 좀 알고 싶어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예, 저기가 지금 시설물은…… 시설물도 저희가, 새로 저희가 사온 것이 아니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그것 렌탈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로 1억을 줬으니까 그것은 알고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그래서 지금 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전부…… 그 물놀이시설을 포함되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뭐 장비…… 물놀이시설 장비 임차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오니깐. 지금 이것도 기사용이 되어버린 것 아

납니까. 목변경된 것도 아니고.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이제 저희들이 지난…… 한 2주 운영을 했는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이것도 지금 기사 용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산통과도 안 되어 가지고 다 사용……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지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물 양하고 사용량에서…… 써보니까 이게, 날이 너무 더우니까 바닷물에도 녹조가 끼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증설해 가지고 물도 더…… 다시 더 인수라인도 하고 또 그늘막도 좀 하고,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공공운영비로 했던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사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

아니, 선시공 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우리 관광과만 본 것이 아니라 아까 안전건설과에서도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던데. 예산도 통과는 안 되어 가지고 해버렸던 것, 땀땀하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던데. 나 보고도 지금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몇 건이 걸려요. 여기가 지금, 이 예산서에도.

아무튼 알았습니다.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죄송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 관광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

시면 질의하십시오.

(

□ 이범성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예.

□ 이범성 위원

지금 바스켓, 바스켓 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디라는 다른 사람들이 완도에 적합한…… 그런 것일까 좀 염려스럽고요. 독일에서 이제 수입을 한단는데 그것이 언제쯤 여기 올 수 있을까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이게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 이범성 위원

4개월이요. 4개월이면 신지 명사장 다 끝 나버릴 때 아닙니까?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꼭 여름시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사용하는, 그런 바스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해양헬스케어, 이것 관련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속 사용을 할 것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지금 사진으로만…… 아니면 다른 여건으로만 보고 독일에서 온 제품을 아직 안 보셨다. 안 보셨겠네요?

□ 해수욕장담당 조봉흠

저희는 못 봤고요. 해양헬스케어팀은 현지 에 가서 그것을 사용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작년에 시책, 신규 시책으로 이것을 내어가지고 이게 채택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금액이 조금 적어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늘려보려고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정책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기 받을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하면서 딱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260페이지,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교체 사업 3,000만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마스크, 그리고 또 친환경자동차, 이게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권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그 예산확정이 되면 취약계층, 지금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주민복지과와 연계해서 그분들을…… 콘텐츠 보일러, 두 번 타는 보일러로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절감시킨다. 그런 사업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계속 설명해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그리고 자원관리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 이것은 그 지금 망남리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관리센터 음식물류 처리기를 내년에 교체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265페이지, 산림조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8,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산림조합의 포크레일을 우리 군비로 50%,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50%해서 한 대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지원하는 근거는 법에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있

습니다. 그 목적은 산림병해충 방지라든지 산사태, 그리고 산불, 각종 재해예방에 있어서 우리 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산림환경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침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까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50%를 지원해준다는지. 그런 부분을 쏙 빼버리고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제가 지원해야 될, 그런 뭐 조목이 있냐고 했을 때.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 그 어떤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림조합법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 했어요. 이제 그 안에 이것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우리 지금 말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조항은 있는가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조례에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조례에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아까 침에 제가 좀 빨리 설명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네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 잠깐만요. 조례에 있다고 했는데 얼른 그 조례 한번 찾아봐요. 조례 한 번 찾아보고……

□ 허궁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경험이 짧고, 또 이해력을 못했는가는 모르나…… 그래서 그것을 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 이제 산림조합법에 보면 이런 것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조합이란 중앙회의 사업을 적극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임도, 그리고 산림사업 이런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설명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임도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다 산림조합에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산목이나…… 아까 처음에 저한테 할 때 그러고 금방……

얼른 전문위원, 얼른 조합 그 조례를 찾아

봐요. 내가 봐서는 그 조례가 없는데. 이것 막연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안돼요.

이 산림조합법을 저번에도 황칠할 때 이 산림조합법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지금 뭐하면 안돼요, 조합…… 과장님. 우리가 산림조합법이, 산림조합법에…… 저번에 황칠할 때도 그 산림조합법을 갖고 와서 지원을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은…… 잠깐만요. 이 포클레인이 꼭 왜 하는가, 그 타당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래 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산림조합법하길래 산림조합법을 찾아봤어요, 나도. 그랬더니 산림조합법에 이렇게 나왔더구먼요. 제9조 2항에 “국가와 공공단체 및 조합 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이것은 산림조합법이고 우리 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리고 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이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제 이것…… 그렇고요. 저기 과장님, 그 취약계층…… 이것이 처음 올라왔던 것이라서 이것 했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지금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취약계층 150세대, 이것…… 아니, 20대, 150만 원씩 해가지고 이것 지원하는 것, 이것 처음 올라오는 예산이어서.

그리고 환경문제 했으면 뭐 매칭사업이 되든가 뭐가 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뜬금없이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나 볼만한 사업이 지금 환경산림과에 올라와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사업이예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게 이제 보면 말씀드렸었는데 미세먼지 절감,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 보일러를 저소득 계층에다가 보급을 해라.” 라고 하는 환경부의 권고사항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권고사항입니까, 그냥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권고사항입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난 이것 저기 처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것은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여기 환경산림과에 느닷없이 지금 이 사업이……

이것은 삭감돼도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군에서는 무슨 패널티 먹습니까, 환경부에서?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패널티는 없습니다. 패널티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저기…… 요즘의 트렌드가 미세먼지 절감 아니겠습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왜 제가 말하느냐면 금방 우리 그 과장님이 콘텐츠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경제산업과 같은 데에서도 광역 가스사업을 하고, 과장님도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하

고 이런 것하고 다 이렇게 뭐야, 합쳐지니까 사업이 중복되고 그런 것이니까.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이런 사업을 시행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시행을 했는데 도비 보조가 다 소요되어 가지고 이제 순군비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도비 매칭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못 봤다는 말이에요?

(“ 예, 그 올해는 본예산에 세웠고요.” 하는 주무관 있음)

본예산에 얼마……

(“ 400 세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400?

(“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왜 갑자기……

(“ 그래가지고……”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그때 400이니까…… 도비, 그 매칭 사업이니까 우리가 안 보는 것이죠, 그 사업은…… 그런데 갑자기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작년 하반기에도 했는데……” 하는 주무관 있음)

작년 하반기 때는 얼마했어요?

(“ 작년 하반기 때는 400 세웠습니다, 추경에.”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전부 도비매칭사업이었다, 이 말이죠?

(“ 예, 그래서 이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도비, 국비 매칭은 액수가 작으니까 안보니까 넘어갔고.

이것 그러면 왜 순군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 이제 저희가 지원해주는 가구가 너무 적고 어려운 가구는 많고 해서……”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그런 것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때 저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든가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런 사업이 미리 우리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에 본예산에 추경에 얼마, 액수는 적었으나 이런 사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느닷없이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 죄송합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과장님. 안 해주면 또 뭐할 것 아니에요, 취약계층에서.

아니,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해를 먼저 구하면 좋지 않냐, 저는 그런 말이에요. (예)

또 우리 환경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한 가지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 허궁희 위원

예, 이제 방금 그 조례도 봤어요. 보니까 꼭 하라는 법은 아니고……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해줄 수 있죠. 대한민국 법이 다 할 수 있겠죠,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는 처음에, 이제 포클레인을 사는데 50% 이렇게 지원되고, 50%는 산림조합에서 댄다,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 포클레인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1대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 (청취불능) 때는 거의 낫더라고요. 새로 개설할 곳이나 이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수나, 이럴 때 쓰겠죠.

그런데 앞전…… 지금 산림조합에 있는 포클레인도 우리 군청, 군에서 지원을 해줬었나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원이 안됐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안됐죠?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자체적으로……

□ 허궁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큰돈이 나가니까…… 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렇게 큰돈이 나가야 되는가, 저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었고, 이제…… 그렇게 중요한 또, 물론 같이 산림조합하고 우리 군하고 협력해서 뭐 재해가 생기거나 하면 활용은 하겠죠.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큰, 그런 예산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하실 때 자세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두 번 오르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매칭사업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이게 지

금…… 산림조합 계획은 1억 6,500……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어떤 장비를 사는데 그렇게 많이……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포클레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포클레인인데. 뭐 02냐, 6 더블이나, 뭐 08이냐. 이런 것……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거기까지는 제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포클레인…… 그런 것도 여기다가 넣어놓고.

우리 예산계에서도 이것을 쓸 때는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이라고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 텐데.

그리고 우리 예산계에다가 물어봅시다. 이것 지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예산계장님?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현란

이제 저희도 이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해주라고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느냐. 그런데 그 환경산림과에서는 된다고 이제…… 보조 근거를 산림조합법으로 들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을…… 그전에도 한번 요구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용을 못해드렸어요. 예산도 그렇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저기 과장님, 지금 농업축산과가 이제 올 것인데, 똑같은 거예요. 농업축산과하고 이것 환경산림과하고, 농업축산과를 해주면 환경산림과도 해줘야 되고, 환경산림과, 이 산

림조합에다가 예산을 삭감하면 농업축산과도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또 우리 과장님 말고 우리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그러면…… 아니, 이것 저번에도 삭감을 했다고 하면 7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앞으로 조합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저기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받았을 것인데 지금 8대 의회라고 하니까 이것도 올라왔고, 이것은 처음 보는 사업인데, 지금 농업축산과에도 저기 우리 박재선 위원님이 설명 요로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내가 보니까 그것도 올라왔어요. 이것 지금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산계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다른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아니면 시간도 뭐하는데 그것…… 뭐할까요, 계속 나가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그 25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외 3건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은 대야리 모링가, 그 중국 수출 농가여가지고 완도수산 말레이시아 수출 건에 대해서…… 2건에 대한 1,000만 원인데 컨테이너 임대료하고 운송비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유통·가공보관 시설 지원은 지금 톤백창고 시설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만 톤백창고 시설이 없어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포대

수매보다 톤백수매를 요구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라든가 농가들은 톤백수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군만 톤백수매를 못하고 있어서 작년에 일부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저장창고가 없어 가지고 타시군으로 지금 작년에 다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타시군에서도 창고 (청취불능) 없어 가지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하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올가을이 되면 수매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매, 그 창고를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도자연그대로 전통 차육성 시범사업은 불목리 차가 있는데……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차복음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청취불능) 위한 사업인데요.

지금 불목리 3만평 정도 차밭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러오더라고요. 저희들…… 부군수님 하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그 차밭에 견학을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사항에서…… 특이하게 우통차 계통의 우리나라에 말해서 한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청취불능)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고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농업축산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톤백 창고에 대해서요. 원래 우리 농민들이 예전에는 쌀가마, 벼를 한 가마당 얼마씩 담아서 이것을 가져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농가들이 나이를 많이 먹다보니까 (청취불능) 뭐냐면 우리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차대에다가 한 번에 넣어서 그것을 그대로 포클레인,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차로 실어요. 그것 이제, 나이가 드시고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자주 손가는 것…… 일손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 위예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완도에는 이런 지금…… 작년부터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뭐냐면 정부양곡이예요, 톤백 이것 창고를 하는데, 지금 정부양곡인데, 이 톤백을 실어서, 여기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나주나 그런데다가 가는데…… 저런 데서 잘 안 받아줘요, 이것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농협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원래 권장하고 군에서도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지원을 안 해주고 잘 안되니까 이것도 보관창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대신 위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관을…… 보관비를 얼마를 받고,

그런데 그 보관비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면 정부에서 시책해준 것 (청취불능) 들어가요. 그러나 손해를 보면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톤백이라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것이예요. 내가 농협이사로 있으면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님.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정욱 위원님이…… 우리 위원들이,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놨는데 답변은 과장님이 해야지. 최정욱 위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여기 보충설명을 요했던 동료위원이 할 말이 없어져버립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주시시오.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런데 보충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농업축산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방금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여쭙 볼게요. 그러면 이 보관시설 지원, 이 창고를 짓게 되면 이게 완도군 전체에 한 개 짓는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완도군에 이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 청산, 그리고 그쪽 전체…… 완도읍 전체의 물량을 거기서 보관…… 차로 이송해서 보관할 것입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섬까지 들어와서 직접 가져와서 여기다가 보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톤백 이것을 우리 시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게 톤백으로 받는 것은, 사실은 바로 가마니로 받는 것은 말려서 하는 것이고, 정부…… 그렇죠, 맞죠?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아닙니다. 그 (청취불능) 말리기는 다 말리는데 그런데……

□ 박재선 위원

물벼라고 해가지고 바로……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아니요, (청취불능)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말려가지고 그 자재 수매할 때, 톤백을 수매하는 것입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말려가지고 톤백에다가 담을 수 있는

뭐가 될까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게차로 다 하니까 일반 농가들이 다 그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재선 위원

아니, 당연히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정집에서 어떻게 운반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게 거기서 바로 수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지게차로 해가지고 바로 실어요, 현장에서……

□ 박재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면 그 보관창고를 짓게 되면 이 창고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부담이,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1억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고, 그 창고를 지정합니다, 저희들이 그 보관창고를, 계속 그런 보존조건에다가…… 다른 창고로 안 하고 양곡보관 창고로만 쓸 수 있게끔.

□ 허궁희 위원

한 가지만, 전용으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농협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농협에서 1억을 대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그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추정에 1,000만 원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 대야리 모링가 중국 수출 건인데요. 중국, 그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수출 계약을 해 가지고 모링가를 지금 한 2억 정도 수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모링가 차 말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모링가 차하고 완도 RPC…… 그 쌀인데 말레이시아로만 100톤 정도 수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 농협 RPC해서……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말레이시아로 쌀이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 된다고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예, 수출에 따른 그 운송비하고 컨테이너…… 그러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2개에 저희가 500만 원씩 해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랬으면 이것 왜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이것이 늦게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그 6월달…… 그때 확정된 사항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은 알았고 그러면.

전통차 육성 시범사업해 가지고 뭐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들이 가서 뭐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 볶음시설이거든요? 그 볶음시설이 한 10년 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차를 볶을 수도 없어 가지고…… 그 차…… 여기 사람들이 체험하러도 오고 차를 마시려고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관광객들도 오고, 우리 주민들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볶음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차볶음 시설을 하는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과장님.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이 가가지고 뭐 시설이 노후되고, 노후되고 뭐했다고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게 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설명이 좀 그래요, 지금. 우리 완도군은 뭐 기관사업으로써 꼭 필요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지. 부군수가 뭐고 군수가 뭐라고 어디 실과장들이 어떻다고 해 가지고 갔다고 해가지고 뭐 지원해준다. 그것은 지금 설명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 차 마시러…… 어떻게 되고 용도가 어떻게 되고 해야지.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그것은…… 그것은 관광상품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관광, 이것은 우리 앞으로 농업 쪽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리이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 나 말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 참, 저기 좀 그렇잖아요. 예산계장님, 어때요. 과장님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계에서 받아주니까 예산계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위원님들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이것 농업축산과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나 뭐라고 안하는데…… 그러면 산림조합 것도 통과를 해주고 앞으로 축협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농림축산과에서도 축협에서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 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 꼭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런 감당들을……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현란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산림조합…… 그 기계장비나 또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말하는 그 양곡 보관창고나, 이것을 의회까지 가지고 오기까지 상당히 많이…… 우리 군청 내에서 논의가 많았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래도 필요하고 이게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내가 계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요. 지금 농업축산과 조사단팀에서 김동균 계에서 축협에서 뭐한…… 그 사료포대 지원사업이 있을 거예요. 앞전에 배천호 계장이 있을 때 박기제 과장님이 안계시고 소안도에 계실 때, 배천호 계장이 있을 때 5,000만 원 지원해준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소 1마리를 키우든 소 100마리를 키우든 1,000마리를 키우든 그 사료를 사면 어느 농가…… 축산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왜 그 사업을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안 넣었어요?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현란

그것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왜 그러면 예산계에서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권장해야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지금?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현란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필요하면 더 꼼꼼히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불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배제해서 의회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꼭 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계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안다니까요, 아는데. 지금 7대 의회에서 의결했던 것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막 올라와버리니까.

나도 필요한 사업인지 알고 농민들을 만나 봐서 알아요. 톤백사업이 부족하고 우리 군에 톤백창고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 7대 의회에서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하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군…… 뭐야, 재산으로 짓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돈이 10억 원이

들어가는 7억이 들어가든. 우리가 지금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주는데, 우리가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까지 채용하자, 이런 말까지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와버리면 저기…… 7대 의회 의원들은 뭐라고 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났지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번호 부착 5,000만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가로등이 지금 현재 그…… 1만 523등 정도 지금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LED 보안등 교체사업을 통해서 보안등 관리번호 부착을 6,842등을 완료했구요. 1차 금년에, 1차로 1,200등을 하고 남은 등수가 2,481등 남았습니다. 이 2,481등…… 가로등에 관리번호 부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연륙, 연도교 가로등 부분이 각 실과하고 좀 업무가 중첩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도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륙, 연도교는 금일 소랑대교, 그다음에 노화~구도간 소안1교로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연도교는 저희 과에서 부착을 하고 나머지 연륙, 연도교는 안전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일 감목 선착장 가로등 설치입니다. 금일 감목 선착장 가로등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이제…… 주민들이 요구와 의장님 관심사항이기 때문

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잠깐만요, 이것 우리 설명 요 안했는데 이것 세 가지는…… 276페이지, 270…… 이것 세 가지는 설명 요가 아닌데.

이 세 가지는 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그러면 약산 거점개발사업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라는 여기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리면 다른…… 권역단위사업은 사업이 좀 분산돼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약산은 권역단위사업입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소재지…… 농촌중심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부지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 80~90%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은 토지용도가 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산은 지금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라는 8월달이 되면 계획단위지역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대폭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것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서, 이게 같이 결합되면 나중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산이 돼서.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군수님께 특별히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먼저 좀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이 사업비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역개발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71페이지

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번호 부착. 이것 우리 LED등을 하면서 싹 끝난 사업들 아닙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말할 때는 그 LED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올라와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LED등을 교체하는, 그 등 수는 그 속에 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거기는 검정색으로 하고요. LED 보안등을 교체하지 못한 등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래가지고 우리 LED등, 그 당시 LED등으로 다 지금…… 싹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비에서?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LED등으로 할 수 없는…… LED등, 그 사업의 범위가 하나의 가로등에 하나의 등이 있고 이게…… 위에 것만 교체하는 그런 것만 했습니다. 일부는 교체할 수 없는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때 보고하고 완전히 이게 틀려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당시 LED등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로 많은 것도 LED등 교체 이후에…… LED등 교체 이후에 지금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제일로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업무보고할 때나 질문답변 때도 아예 다 뺀 사항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다 된다고 해서 이래가지고 뒀었는데.

저기 우리 세무회계과, 저기 재산담당하고 뒀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기세를 어느 쪽으로 해주면 이런 것도 저번에 관리부착을 해주더군요. 뭐 가로용, 세로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세무회계과에서 그 재산담당한데 그것도 한번 의논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 뭐할 때, 보고할 때는 싹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런 돈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 부착은…… 이번까지만 되면 현재 지금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관리번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지금도 가로등은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경제산업과 다 따로따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통합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LED등 하면서?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이 관리번호 부착이 되면 나머지 제외된 가로등 시설을 많이 안전건설과로 이관하도록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LED등만 하면 다 통합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LED등을 지금 준공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관리번호 부착까지 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그때 보고하고 좀 안 맞으니까 물어본 것이고요.

금일 감목은 놔놓더라도 이것 꼭 약산권역…… 과장님, 이것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66억이 배정되면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고 여기 특수한 여

건 때문에…… 나중에 토지매입비를 한 1년 들어도 2년 이후에 하다보면 원활한 토지매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의 다 토지매입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이번 기회에 먼저 땅을 선제적으로 매입해놓으면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매입이 되고 나면 그 66억을 우리 군에다가 다시 반납한다, 이 말이에요? 땅 매입……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우리 군비 분담액만큼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7억 6,500만 원……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빼고 할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7억 6,500만 원을 다시 우리…… 반납한다, 이 말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군비는 부담을 안 하죠, 이만큼.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세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안전건설과 그 밑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도로시설 가로등 관리 부착 설치공사가 1,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도대체 우리 도서개발과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제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는데 그쪽은 연륙, 연도교로 합니다. 그런데 연륙, 연도교인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연도교는 지금 두 가지. 소량대교하고 노화~구도 소안1교, 여기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연륙, 연도교에 관련된 가로등 부착……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300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기능수 생성장치 설치농가 필터교체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 설치한 농가에 대하여 필터를 교체해주기 위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그 필터가 어떤 필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바이오기능수 생성장치에 들어있는 그 필터인데요. 이제 기계를 저희들이 `16년, `17년, `15년부터 공급을 쭉…… 농가들한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들 농가에서 활용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7대 3으로 해서 이제 30% 자부담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농가에서 필터 하나 교환하는데 보통 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필터를 교환해주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바이오기능수 설치를 좀 많이 했었죠? (예)

뭐 축사, 양식장, 고추밭 전부 다 했었는데, 지금 사용을 얼마정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이제 축산 분야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채소하고 과수 분야에, 저희들이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채소나 과일 쪽에서는, 과수 쪽에서는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보니까 바이오기능수를 처음에 설치한 해가지고 사용 안 한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3년에 무조건, 그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필터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그 거기 업체에서도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고 1년입니다. 1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급된 농가들에 있어서는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교체해주고……

□ 김양훈 위원

아, 3번까지 설치하고 3번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 이후에는 농가들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김양훈 위원

지금 몇 어가나 이렇게 설치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25농가를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전체 그 농가에서 설치한 대수가, 내년에 또 이것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이제 신규로 신청한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농가가 32농가고 그다음 축산…… 농업축산과에서 70농가, 그다음에 축산…… 축산담당에서 70농가,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에서 25농가 해서 116농가 정도.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또 이런 식으로 필터교체를 또 해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전반적으로……

□ 김양훈 위원

전반적으로……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것 우리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이오기능수를, 생성장치를 설치하면 몇 회까지는 필터를 교환해준다. 이렇게 농가들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그런 약정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잠깐만요, 소장님.

이 예산이 안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옴니까, 필터교환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작년까지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 저희들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가능하면 추경에 좀 계상을 해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25어가인데…… 아니, 농가인데.

이 농가들이 어떤 농가들입니까, 이 농가들이? 고추입니까, 상추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저기…… 토마토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고추 6농가고요. 방울토마토 6농가, 그다음에 비파 7농가, 그다음 감귤류 5농가.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가 필터까지 우리 군비로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는 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 손을 댈 때가 안 됐습니까, 바이오기능수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제 농가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5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된다고 그러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내년에는 저희들 소관으로 한 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3년차에 대한 농가가 좀 많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래서 소장님. 이전에 소장님한테도 이 바이오기능수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 평가를 좀 해서 보고를 해주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시기에 이래 가지고 뭐 시기가 됐는데,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 뭐, 이것이 2014년도부터 민선6기가 시작되는

바이오기능수가 우리가 그 장날에 약장사…… 약 팔듯이 최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전북치패장부터 해가지고 축산농가, 일반 또 우리…… 채소농가 아니면 뭐 작물농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바이오기능수가. 그래서 바이오기능수, 이래가지고 또 필터교환이라고 예산이 들어오니까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아니, 저기 우리 대야리에다가 (청취불능) 해가지고 안 했습니까. 우리도 현장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여튼 말작물이고 축산농가고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 당시…… 그 뒤로부터 이것 호지부지돼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수산양식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축산과에서도 뭐 이것하면 소 브루셀라부터 해가지고 설사까지 다 잡는다고, 이 물만 먹이면 다 끝난다고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했는데, 전혀 뭐 결과물이 없이 다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또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저희 소관에서 농업분야에 특히나 과수나 침수분야에 접목했던, 그런 것…… 활용했던 농가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여간 3년…… 지금 1년에 1회씩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까지 저희들이…… 내년 6농가만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농가들이 이제 어떤 활용하는데 있어서 성과업느냐 효과가 없다고 이제 포기한다면 이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이 설치를 우리 군에서 농가들한테 권장을 안 했습니까. 농가들이 이것을 설치해줄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떠넘기는…… 농가들한테 떠맡기다시피 한 사업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저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한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도 그 당시 질문답변시에도 그것 질의도 했는데 답을 준다 해가지고 안줘버렸거든요. 그때 소장님 전입니다마는 속기록에는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올라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실과소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리는 삭감대상조서를 보시면서 바로 2차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삭감할 것인가, 아니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을 것인가. 안 그러면 예산을 바로 통과시킬 것인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12분 기록중지)

(17시29분 기록계속)

지금까지 축조심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2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2차 삭감대상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련하여 실과소

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당 과장을 대신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 명사십리 해양헬스케어 비치바스켓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치유산업을 지금 다양하게 용역부터 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계속해 나가면서 해양치유산업의 일부분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설치해보면서 반응을 좀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고대팀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그냥 비치바스켓을 설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설치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영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 부군수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시오.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단 와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차후 관리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지 않느냐. 독일에서 수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한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존경하는 이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하계가 끝나고 가을 정도 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해수욕장팀이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지만, 합쳐지지만 그 인력을 좀 확보해서 신지 해수욕장을 앞으로 해양치유산업중심지로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지해수욕장은 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시설관리를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주를 시켜서 철저히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거기 저…… 우리 그 해양치유산업의 일 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말고 다른 어떤 제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국내에 어떤 것 있는 것은?

□ 부군수 박현식

이 부분은…… 지금 비치바스켓은 독일에 노르드나이스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쪽에 지금 시범적으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준비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보기 위해서……

□ 최정욱 위원

아니,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저것을 단순히 앉아서 쉬고 그늘막이…… 좀 누워있거나, 지금 그런 형태로 어떤 치유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명사십리 쪽에…… 그래서 꼭 여기 것을 수입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도 그런 좋은 제품들이 있을 텐데.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해양치유산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물론 국내제품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국내제품을 써야 되지만……

□ 최정욱 위원

사진을 봤어요. 보니까 전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관리하는 문제도…… 나무도 있고 비 맞고 어찌고 하면 저것도 썩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또 썩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단지 저것이 어떤, 건강에 어떤 그런 문제가 돼서 수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단순히 그런 목적에서 지금 하기 위해서 수입해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 부군수 박현식

그 수입하는 목적, 그런 것보다는 이게 지금 프로그램에 치유…… 해양치유산업 다양…… 뭐 치유부터 해양자원을 이용한 (청취불능) 그리고 관광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치유산업의 일환으로……

□ 최정욱 위원

그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수입해올 때는 어떤 특별한, 독특한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더라는 얘기에요, 설명에. 그렇다면 굳이 왜 보기에…… 그렇게 우리가 썩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수입을 하는가 싶어서……

□ 부군수 박현식

그래서 좀 다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국내제품이 이만큼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수입에만, 꼭 이것 수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표현하지 않고요. 국내제품이 대행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얼른 주문 제작할 수 있다면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게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정책과 담당계장 안 왔습니까?

(“ 지금 신지에서 오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부군수님, 비치바스켓이라고 했는데 이것 뭐 효능하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그냥 뭐 파라솔, 그런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이 여기에 앉아있으면 뭐 우리가 말하는 해양치유가 된다는가, 뭐가 된다는가. 그런 것이, 아니면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파라솔, 그런 뭘시기…… 선풍을 하는 그런 뭘시기입니까. 해변에 앉아가지고 뭘 경치를 즐긴다는가. 뭘 산소음이온이 우리 신지 명사십리가 다른 데보다 몇 배가…… 30배가 많다는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이 사진으로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아무 그냥…… 우리 평상시 짚 앞에, 뜰에 놔둔…… 어떤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꼭……

그런데 이렇게 우리 뭘 해양헬스케어다, 이렇게 거창하게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의문이 나서 지금 그런 것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식단…… 해양치유산업 식단에 대한 부분부터 그 다음에 비치바스켓, 그때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조금 한 가지 이해도가 지금 사진을 보면 좀 정확하

게…… 아니면 국내제품과 유사한 것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해양치유에 관련된 각종 용역, 이런 것을 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부군수님, 이런 자료…… 우리 직원들이 참 이게 고생…… 자료 하나를 내더라도, 해양치유 비치바스켓이라고 했는데 뒤에 슬레이트가 있고 벽돌이 붙어져 있는데, 이것 지금 뭘 저기 독일에서 갖고 왔다는 사진인데 전혀 독일사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진이,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해양치유 1조원이 투자된다고 이런 것들을 이래 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기본을 안 갖춰놓고 지금……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괜히 우리 부군수님이 설명하러 와가지고 뭘하는데, 그런 것, 이 사진해온 것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뭘를 갖고, 이래 갖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뒤에, 우리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놓고 이것을…… 해양치유, 뭘 비치바스켓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효능·효과들을 좀…… 어떤, 제품이 어떤 효능·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무슨 치유…… 여기에 앉아있으면 뭘가 치유가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담당들이 갖고 와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라고 해야 우리 위원들한테 기본예의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해양치유니까 해주라고 이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은 위원장께…… 아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 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사진을 하나 드리세요, 그 사진이 있으면.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 이제 좀 사진이 나는데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이해가 빠르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까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시 부군수님한테 설명드릴 것 없고 이 예산 그냥..... 허궁희 부의장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부군수님까지 찾아와서.....

□ 허궁희 위원

시작부터 기분 좋게 하게 해줍니다.

□ 박재선 위원

치유된다고 하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많지 않은 예산을..... 이런 예가 드뭅니다. 우리 부군수님까지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삭감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최정욱 위원님, 어떻습니까?

□ 최정욱 위원

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 부군수 박현식

고맙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액은 5건에 2억 3,422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됨으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제2339호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해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인 철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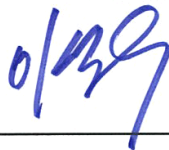
부군수 박현식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우 성 자		
의 원	이 범 성		
의회사무과장 겸임 전문위원	이 석 우		

제26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6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8월 07일(화) 09시59분

제26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 식

(09시59분 개식)

□ 의사담당 최광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6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2분 폐식)

제26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8월 07일(화) 10시02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6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이석우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일 집행부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할 안건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3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궁희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허궁희 의원과 최정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18년 8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불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산업과장 김용식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8월 08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

탁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7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1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국설치에 대한 근거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군본청 현행 14개 실과에서 2국, 1단, 1담당관, 15개 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 현안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주요 내용은 복지행정국과 경제산업국 2국을 설치하고 해양치유산업을 지역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시 국인 미래해양산업단을 두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 기능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기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두고 유사업무 통폐합을 통한 일부 부서에 대한 명칭을 변경,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여성아동과와 해양치유산업을 신설하는 등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동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본위원회에서 논의된 공통된 주제와 관심은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 군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개편과……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군민에게 더 봉사하고 우리지역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개정안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

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2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완도군공무원 정원을 현행 666명에서 29명이 늘어난 695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43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지난 8월 7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344호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관리기간은 계약확정일로부터 3년이며,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 업체 장애인 콜택시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위탁 동의의 건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고……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는 지난 8월 7일부터 2일간 임시회를 개최하여 민선 7기 비전을 담은 군 조직개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 및 군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당초 집행부안 3국, 1담당, 16과, 2직속기관, 2사업소에서 2국, 1단, 1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최종협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민선7기 군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의 성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앙부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시점에 한 번 더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부 조직을 위한 방대한 인력 운영보다는 군민을 섬기는 섬김행정, 현장행정을 위한 인력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기획예산실장 서현중
주민복지과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관광정책과장 안봉일
문화체육과장 정명성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정인호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 불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산업과장 서길수
수산양식과장 추관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0회 완도군의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8월 07일(화) 10시37분

□ 의사일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개의)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341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41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42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43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1건씩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다.

민선7기 새롭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2341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인구 10만 미만 군 단위에서도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국, 단 조직기구 설치를 통한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환경의 능동적인 변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무분장 재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국 설치기준에 따라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본청에 2국을 설치하고 복지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세무회계과를 담당하며 경제산업국 소관은 경제교통과, 관광정책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를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해양치유산업 등 수산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본청에 한시기구로 미래해양산업단을 설치하여 해양정책과, 해양치유산업과, 수산경영과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국 기능 및 권한 집중방지를 위해 보조기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유사업무 통폐합과 업무효율을 위한 명칭변경으로 경제산업과를 경제교통과로, 해양수산정책과를 해양정책과로, 수산양식과를 수산경영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대비 및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조기정착을 위해 여성아동과와 해양치유산업과를 신설하여 변화된 행

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이석우입니다.

의안번호 2341호 완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국을 설치하는데 따른 기구 증설과 행정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형식은 기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청취불능) 1장 총칙에서부터 6장 읍·면출장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3페이지에 있는 제2장 군 본청의 분장 사무에서 기존에는 14개의 실과별로 기술한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복지행정국, 경제산업국, 미래해양산업단 등 4개로 통합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뒤에 있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출장소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조례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내용과 관계해서는 위원님 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그동안 집행부에 내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정안의 검토결과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7쪽, 부칙입니다. 2조에 보시면 한시국인 미래사업단 존속기간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과…… 한 8개월 남았을까요, 8~9개월.
그러면 나중에 이게 6월 30일 가게 되면 또 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지……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 협의를 받을 때 7월 1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6월 30일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연장하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그 조례 개정을 1년 후에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피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또 26쪽 한번 봐주십시오, 8조 3항. 그 한시국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지금 그 업무량 1년 이상이다, 이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충족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해양치유산업, 이게 1조 원 사업비로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량이 있고,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도 지금 또 연말이 되면 저희들은 박람회, 해조류 박람회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업무량은 우리 완도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판단해서 한시부승인해준 것입니다. 문제없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1쪽에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정책과가 이렇게 국이 다른 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문화와 관광은 연계되어야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문화를 보러 관광을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런데 국까지도 다르게 된다면 이것은 좀…… 왜 이렇게 나뉘었는가, 이게 상당히 제 생각에는 궁금해요. 거기 설명 좀 들어볼까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한 사항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일단은 분리한 것인데요. 우리 완도군 같은 경우는 관광에 대한 업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관광 위주로 이것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문화 쪽에 어떤 관광자원이 된다면 이쪽 관광분야로 포함시키는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뉘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이 국이 같다면 과끼리 이렇게 다시 연계도 할 수 있는데, 국까지도 달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예를 들어서 무슨 한 가지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때도 실과가 달라…… 아니, 국이 다르다 보니까 업무방향이 달라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에 이게 꼭 이익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염려도 좀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한번 정도 더 고민을 안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어서. 이것을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국이 달라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정책과하고 연계가…… 연계를 안 시키고 국이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 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현재 이렇게 한번 운영해보고요. 지금 그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자원이 뭐, 이순신, 진린 장군.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이것이…… 문화가 이제 관광이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상당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니까 왜 저는 이것을 한번 꼭 그렇게 짚고 싶으냐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아침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하고 진린 장군의 그 연계…… 묘당, 그런 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문화탐방도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국까지도 다르게 된다면 이것은 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 기회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보면 어떠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지금 문화를 상당히 발굴하고 개발할,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이순신 선양사업이라든지 장보고 선양사업,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이것이 문화자원이 됐을 때 또 관광자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신지 같은 경우도 이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광사거리를 만들자. 이런 것에 어떤 맥락으로 본다면 그 문화와 관광을 합법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과가, 국까지도 달라버린다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문화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국에서 하게 되고 관광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꼭 추진하는 것이 옳겠냐. 나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마지막 기회니까 한번 정도는 더 논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완도군홈페이지 입법예고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별표1을 보니까 직급하고…… 아니, 직위하고 직급 이렇게…… 이게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수산경영과장, 그쪽에서 농업 지방사무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수산 쪽하고 농업 쪽하고 그게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시행규칙 몇 페이지……

□ **행정담당 최정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행규칙을 보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것이 좀 잘 조정이 되어가지고 군민들이 조직개편할 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잘 정리 좀 해줬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시행규칙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우리가 694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666명.

□ 김재홍 위원

666명에, 이번에 수는 관계로 해서 인원 배정을 봤을 때 수산행정…… 완도군이 수산군이라고 하는데 수산행정에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폐센테이지로 본다면 뭐 한 35명 정도…… 여기 더 증원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수산직 그 증원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그 공채할 때 의뢰토록 해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9월 달에 중앙부처 조직이 이양된 것 알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지방사무…… 입법예고를 봤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물론 도에서 이렇게 되어서 도에서 군으로 되겠지만 16개 부처에서 518개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데. 그때 그러면 그때 그 업무는 이양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때 또 조직개편을 합니까,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마 그 업무가 오면 당연히 조직개편해서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그때……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또 그러면 9월 달에 입법예고가 되면 의회에서 통과만 하면 될 것인데.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청취불능) 518개가 지금 지방으로 이양되고, 우리 완도항 같은 것도 지금 해수부에서 도로 해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지방분권 이양,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완도항 같은 것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아마 그 문제는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고요. 법이 시행되면 별도로 아마……

□ 박인철 위원

그 (청취불능) 들어가는데 지금 국회만 통과되면 바로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때 아마 별도로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토

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201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3월 달에 내려온 것 있죠, 조직에 대해서 넘어왔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밀착형조직을 설계하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조직을 보면 주민밀착형입니까,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에 상당히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를 2개 과로 이렇게, 양 과로 나뉘었고. 또 의료원에다가 치매정신담당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의료원에서도 의료원…… 치매병원을 짓고 있잖아요, 고금에도 짓고 있고. 우리가 또 치매센터도 지금 의료원에다가 하려고 다…… 그것 다해가지고 통과되어 가지고 된 것이잖아요. 조직하고 관계없이 싹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 단도 아까 김양훈 위원이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3년 한시해가지고 어찌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을 부군수 직속에 내놔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해양헬스케어가 중요하고 완도가 해양…… 뭐야, 수산군이라고 그러면 부군수 직속으로 놔두면 될 것 아닙니까. 단을 설치 안 하고, 군이 단을 하나 설치해야 됩니까, 이 한시적인 단을. 얼마든지 우리 예산담당관처럼 부군수 직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충분히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부군수가.

아니, 지금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 제가 국은 이제 인정을 하겠습니다. 국은, 뭐 10만 미만 인구에 국…… 2국을 설치, 뭐하고 3국까지 한다고 하니까. 단은 군이 필요하나, 이 말이에요. 단이…… 세부적인 것은 일단 놔두고 우선 단부터요. 우리가 지금 예산담당관도 부군수 직속으로 지금 간담회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3과도 충분히 부

군수…… 해양치유가 그렇게 저기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중점, 우리 군의 먹거리라고 하면. 나는 단보다는 부군수 직속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었으면 해요, 단 설치하는 보류하고. 이제 한시적인 단을 설치해가지고 3년이면 여기는 지금, 부칙에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또 연기하고, 또 과장님 설명은 해조류박람회를 하고 하면 또 여기가 한시적 기구로 또 뭐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거기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군수 직속으로 놓는 것이, 관을 설치하지 않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한시국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업무량이 많이 있어야 되고 행정수요가 발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그래서……

□ 박인철 위원

도하고는…… 거했다는 것은 뇌놓고요. 업무량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과가 이래가지고 과 명칭만…… 수산경영과, 수산…… 뭐 정책과로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뭐 업무량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 지금 기존에 수산양식과하고 수산정책과가 했던 데하고 업무량이…… 업무분장표가 지금 이것 없는데, 각 업무분장표가. 복지국, 뭐 국 이렇게 업무분장표만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얼마나 업무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수산업무는 기존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양치유산업 업무하고 박람회 업무가 추가돼서……

□ 박인철 위원

아니, 박람회는 지금…… 지금 기존에 박람회, 박람회계가 안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에 박람회가 있고 했지만 아직 박람회를 할지 안 할지도 정확

하게 지금 뭐 정해진 것도 하나도 없고, 또 박람회에는 박람회지원담당이 있었고 해양헬스케어도 담당이 있었는데 지금 과로…… 공약사항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1조원 투자를 해가지고 (청취불능) 과를 하나 신설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해양헬스케어 과를. 그것 좋다는 말입니다, 그것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꼭 위에다 단을 놔두느냐는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예산담당관처럼 그냥 부군수실 직속으로 넣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군수님도 지금 4개 담당…… 물론 총체적인 컨트롤은 하겠지만. 아니, 부군수님이 직접 그 중요한 사업들을 체크하는 것이 훨씬 단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굳이 단을 하나 만들 필요가 없이…… 단을 하나 안 만들면 사무관이 1명 줄어 들고 4급이 1명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인건비를 봐보면, 물론 총액 인건비에 안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 이것 뭘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자치단체 정원 조례 자율화에 보면 적정인력의 기준으로써 기준인건비는 계속 산정·통보되므로 주민서비스 강화, 현장인력 충원 등 이런 분류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양헬스케어하고 주민행정, 뭘니까. 뭐가 맞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랬는데, 보통교부세 기준 제정수요, 기초수요에 반영을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집행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정해 댔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 하나를 더 안 만들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4급 서기관하고 5급 사무관 한 자리가 뵙니다. 굳이 단을 안 만든다면. 아니, 잠깐……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단을 만든 것은, 기구를 전담적으로 만든 것은 지금 완도군의 실정을 봤을 때 해양치유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올인을 하겠다.” 라고 그런

말씀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거기에 올인을 하니까 해양헬스…… 그 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갖고 그것은 부군수 직속으로 넣으라는 말이에요, 부군수 직속으로.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왜 국장……

□ 박인철 위원

굳이 이런 단을 만들 필요가 없이.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왜 국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저번에 (청취불능) 보니까 그것이, 그 말이 맞아요? 어디 중앙부처에 가서…… 아니, 국장이라고 내놔야 뭐하고 또 타지자체까지…… 뭘 좀 발굴하려면 우리가 좀 그래도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앞전에 3차 간담회할 때도 그것이 지금 말이라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뭐 사무관이라고 하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못 가져오고 국장이라고 하면 예산을 뭐 벼락 맞아가지고 와요? 우리가 왜 국이 필요하고 왜 단이 필요한가를, 우리들 이해의 폭을 좀 넓혀주게끔 그런 것도 좀 연구해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가져온 종이, A4용지에다가 왜 국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저기, 격이 안 맞는다고. 그것이 이유가 돼요? 그리고 타자치단체하고 교류할 때 격이 안 맞는다. 그것이 1안, 2안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저기 자치위원장님.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 박인철 위원

이것은 전체 다 받고요. 우리가 3번 받았는데…… 싹 보고를 한번 받고 관계공무원이 퇴실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보고, 여기서 자꾸 갑론을박해봤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그러면 자유로운 의사발언을 위해서 잠시 동안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박현식

위원장님, 그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방 이양 사무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이양 사무관계까지 이야기를……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비공개로 하고 나서 하시죠.

집행부와 공직자, 의회직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워주시고, 전문위원 두 분만 남아계시고 다 비워주십시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계속)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토론한 결과 집행부 제안대로 의결기로 했습니다.

질문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할게요.)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저…… 우리 유통정책?

□ 전문위원 배정택

수산물미래전략단.

□ 최정욱 위원

우리 유통가공…… 유통정책팀인가요, 그때 우리 새로 개설한데? (예)

그렇죠, 그때 직원…… 우리 선발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수산정책팀. 그것은 유통전문가로 해서, 임기제로 해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알았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또……

□ 박인철 위원

지금 임기제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별도……

□ 박인철 위원

별정직을 뽑는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지금은 일반직공무원을 대신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8급, 7급, 6급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임기는 보통 3년……

□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수산정책팀에다가 어떤 사람을 임기제로 뽑는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유통마케팅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수산정책팀에도 뭐하고 수산유통에

도 뭐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수산유통에 일자리…… 유통.

□ **박인철 위원**

수산만 하는 유통팀이라는 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이게……

□ **박인철 위원**

아니, 우리가 애당초 처음에 뭐한다고 해서 뭐하는데. 수산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유통가공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안 왔습니까. 1차 때 우리가 완도가 지금 전복, 이런 사태나 저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유통가공팀을 하나 만들자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수산양식과…… 수산경영과로 해가지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수산정책팀, 수산유통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제산업과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과에 마케팅 기능을 수산양식과……

□ **박인철 위원**

수산양식과.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시장개척 그 기능을 수산경영과에 와서…… 유통전담으로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저기 투자유치…… 현재 경제산업과의 투자유치하고 시장경제를 전부 다 여기로 가져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투자유치는…… 해양치유산업과 쪽으로 해서 투자유치개발팀을 별도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여기가 투자유치로 되어 있구먼.

그러면 여기 경제산업과에 있는 시장개척만 거기로 간다는 이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수산경영과로 옵니다. 유통팀으로.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이것 좀 중요시, 잘 좀 해주세요. 이게 의회에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그러니까 잘 좀, 약속도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또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아까 그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정책과가 지금 국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복지행정국하고 경제산업국하고, 지금 여기 있는 문화체육과하고 다른 (청취불능) 하고 이렇게 반대에 있으면, 또 업무가 중복되지 않은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여기 한 쪽으로, 이렇게 한 쪽 국으로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제안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저희들이 국을 편제할 때 기준이, 그 산업적인 기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

제산업과는 SOC분야라고 할지, 아니면 지역 경제활성화 이런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편제를……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실무 생각은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정책과를 나눠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정 그때 가서 안 맞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를, 체육시설을 금년 11월 달에 수영장이 준공되면 체육시설사업소를 별도로 분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리…… 체육을 분리한 다음에 이 문화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때 한번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심도 있게 해서 그냥 지금 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이게 또 이쪽 업무 과로 갔는데 또 저쪽에서 “저기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서로 핑퐁을 쳐 버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한마디 덧붙이자면 과를 이렇게 개설할 때 최소한 4개의 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를 그렇게 관광과로 붙인다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대로 한번 6개월간 운영 해보고 그때 기능이 안 맞으면, 그때 분리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상으로 동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있어요?

□ 박인철 위원

과장님한테 뭐 하나만 물어보려고……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명칭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지금 추세가 그 명칭을 다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렇게 쓰는 추세입니다. 상하수도, 이 용어 자체가 좀 험오스런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도 무지하게 중요한데 우리 군민생활에…… 맑은물관리사업소라고 해버리니까 하수도, 이 관계가 조금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지금 그 기능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기능은 그대로 똑같은데 이렇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요즘에 서로…… 그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감이 그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 가는 추세여서 저희도 따라갔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맑은물 좋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업무 하나 바뀌진 것 없이 그대로 하는데, 하수도가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대신에 계 단위 명칭은 상수도, 하수도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때는 그렇게.....

여기 그러면..... 봐보면 상수도, 하수도, 수도경영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하는..... 수도경영팀은?

□ 행정담당 최정환

제가 설명드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 (청취 불능) 하면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도 하고 납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여기 기준에 상수도관리, 여기서 일반 우리가..... 오폐수도 다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업무가 이제 하수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 행정담당 최정환

이제 크게는요. 상수도는 상수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고 하수도는 하수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경영은 이제 부과하고 고지, 그런 징수.....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제가 금방 물어본 그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나는 이 말이에요. 그런 관리는.....

□ 행정담당 최정환

하수도에서 합니다.

□ 박인철 위원

전체 이제 하수도로 다 넘어가버려요? (예)

모든 지금 완도 오폐수 같은 것, 노화 오폐수 이런 것 전부 이제.....

□ 행정담당 최정환

하수도에서 일괄..... 그전에는 하수도관 리팀하고 시설팀이 있었는데.....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담당 최정환

팀이 2개다 보니까 이제..... 약간 업무한 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냥 그러면 이대로 가야 돼요? 명칭변경이 되어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우리 주민들이 헛갈릴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많이 헛갈려버릴 것 같으니까.

이왕 물어봤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수산양식과가 있잖아요. 이것 명칭을 꼭 수산양식과라고 하면 안돼요? 경영과,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것도 헛갈릴 것 같은데. 그냥 수산양식과 그대로 놔놓고, 거기다가 금방 과장님이 말했던 수산유통팀 그대로 놔둬버리는 것이 어때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것은 그..... 우리 수산산업에 대해서 윈스톱 체제로 가자, 그런 측면에서 이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쓰기까지

우리 수산직들이 모여서 회의도 여러 번해 가지고 최종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루 아침에 이렇게 나온 명칭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직들이 워크숍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혜를 모아서 이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또 여타 시군도 그렇게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명칭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안번호 제234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342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국·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반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직결되는 민생행정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666명에서 695명으로 29명을 증하였으며, 직급별로 5급 이상은 5명, 6급 이하는 2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직급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현 조직체계에 맞게 9급을 1% 감하여 5급을 1% 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주된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지금 6급에서 무보직으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41명입니다.

□ 김양훈 위원

41명이요. 그런데 또 6급 승진이어서 보면 7명이 또 되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도 무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6급으로 승진시켜서 더 무보직…… 거의 못 맡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그 무보직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저희들 지금…… 근속승진에 따른 사항이거든요.

11년이 되면 7급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6급으로 근속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무보직, 그러니까 자기 그 전공을 못 살리고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무보직을 맡아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이제 자연감소가 되면 그대로 보직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조직개편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작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도 7명 승진대상자들을 보면 전부 다 근속 관련해서 승진이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7명은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이고요.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는 인원이, 근속승진해서 41명 있다는 내용입니다. 같이 (청취불능) 임명하고 여기에 승진자를 포함해서 보직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3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예,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2343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군수가 권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 위임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장 위임사항 변경으로 과 신설에 따른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일부 업무를 신설되는 여성아동과 소관으로 지정했고 경제교통과,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등 과 명칭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우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수가 권장하는 사무 중에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내용과 관계됩니다. 이번에 이제 부설을 신설하고자하는 것과 명칭변경에 따라서 읍면에 위임하고자하는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무위임 조례와 비교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1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1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2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2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3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43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재 선
허 궁 희
우 성 자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자치행정과장 신영균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운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0회 완도군의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8월 07일(화) 10시31분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1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344호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44호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4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안설명은 교통행정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오병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오병수입니다.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7일자로 전남개인택시 완도군수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재위탁 관련 완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9월 8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차량 3대로 연간 1억 4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실적은 2017년에는 2,170명이 이용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만 1,69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장보고대교 개통 후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수

가 약 6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총수입금은 878만 1,000원입니다.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은 1급 중증 장애인 및 가족 또는 그 보호자이며, 완도군 중증장애인 수는 총 849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휴일 및 타시간은 예약제라고 했는데 이것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환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장애인들이라. 그런 경우는 뭐 수시로 큰 제한을 안 받고 수송이 가능하겠죠?

□ 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오병수

현재로써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대니까요. 작년에 1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차량으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왜냐면 휴일이나 타시간은 예약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건강이 안 좋은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생길 경우 예를 들어 예약…… 전화가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 경제산업과장직무대리 오병수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콜센터는 항상……

□ 허궁희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담당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44호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의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34호 장애인콜택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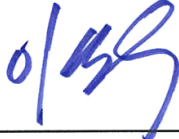
김 재 홍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석우
전문위원 배정택
의사담당 최광윤
주무관 김봉현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허 궁 희		
의 원	최 정 욱		
의회사무과장 겸임 전문위원	이 석 우		

제26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6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07일(금) 15시01분

제26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 식

(15시01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6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폐식)

제261회 완도군의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07일(금) 15시05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4.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
5.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4.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
5.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7. 휴회의 건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15시05분 개의)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9월 3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발의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할 안건은 2018년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과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5시06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양훈 의원과 김재홍 의원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양훈 의원과 김재홍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4.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45호와 의안번호 제234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345호 2018년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과 의안번호 2346호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군민들의 진솔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또한, 준공된 사업장과 추진 중인 사업장의 견실시공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동안 12개 읍면을 방문하여 군민들과 소통 및 공유의 시간을 갖고 사업장을 확인·점검한다는 것이며, 기간 동안 사업장 점검을 위해서 집행부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13일까지 발주된 해당 읍면의 각종 건설사업과 보조용자사업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별 활동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 후 오후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16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47호와 제234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

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47호 완도군 가축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청정바다수도와……… 수도인 완도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경계에서 축사부지 경계에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인 50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정하고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 이상 동의의……… 전원동의를 정하고, 완도군수는 주민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가축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8호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가………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마련과 투광기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 수립, 매년 설치 대상지 실지조사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과 필요한 예산확보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안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6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군민생활현장 방문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2018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군민생활현장 방문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각종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등 민생 현장투어를 전개하고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군민생활현장 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공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산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1회 완도군의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07일(금) 15시24분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부의된 안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15시24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347호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2347호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4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예, 허궁희 위원입니다.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완도군은km의 광활한 해안선과 갯벌로 군민 50%가 넘는…… 넘게 수산업에 종사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지역에서 기피시설로 인한 직·간접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지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우리 군의 청정바다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 4호…… 다목을 보시면 주거 밀집지역 10호 이상 및 다중이용시설 경계에서 축사부지 경계에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에서 닭, 오리, 개, 돼지는 종전 500M를 2,000M 이내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같은 조항 제5호는 10호 미만의 주거가구의 경우, 다만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종전에 3분의 2를 전원동의로, 안 제6호에서는 군수는 제3조 제4호 및 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 환경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읍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제3조의 2, 제1항에서 가축사육 지정 및 변경·해제를 할 경우 해당 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47호의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전문위원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2347호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청정바다 수도인 완도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범위를 확대·운용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

호 가목 중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경계에서 축사부지 경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현 50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5호 중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전원의 동의로 변경,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6호 완도군수는 주민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3조 5항예요. 그 10호 미만의 주거가구 경계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세대주 전원의 동의라고 했는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2,000M로 봐버리면, 왜냐면 우리가 10호라고 하면 그냥 사업자들이…… 건의는 없겠지만 돈을 주고 매수를 해버릴 확률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 하면 여기 거리에서…… 그 인근 거리들이, 또 마을들이 걸린 밀집지역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가구가 있든 10가구가 있든 전원동의를 아니고 이것도 그냥 2,000M로, 2,000M 이내로 봐버리면 전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10호 미만이 아닌 주거 지역에서 그렇게 할까요?

□ 박인철 위원

아니, 10호 미만도 저…… 세대주 전원동
의가 아니고.

□ 허궁희 위원

2,000M로.

□ 박인철 위원

2,000M로.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추교훈

아니, 거리는 2,000M로 되어 있기 때문
에, 그 내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
다, 이것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 박인철 위원

아니, 여기 2,000M가 아닌데.

(□ 주무관 김상균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
에서 - 위원님, 10호 이상하고 이하를……)

그러니까 10호 이상이고 10호 이하니까.
위에는 10호 이상이고 밑에는, 10호 미만은
저기 그…… 전원, 세대주 전원동의라고 했
는데 10호 미만은 세대주 동의를 받기가 쉽
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리 제한을 2km로
뒤편하면……

아니, 원천봉쇄를 시켜버리자는 이 말이에
요.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면 주거지
역에서로 해버리는 것이 안 낫겠어요?

□ 박인철 위원

아니, 주거지역이 위에 있으니까요. 여기
또 밑에 4항, 5항이 있는데 4항에서는 10호
이상이고 5항에서는 10호 미만이라는 말입
니다. 그래서 전원…… 저기 세대주 전원동
의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저기 2,000M
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 나
는…… 아니, 원천봉쇄를 시켜버리는 것이
안 맞겠냐는……

□ 허궁희 위원

예.

(□ 주무관 김상균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
에서 - 위원님, 이게…… 주거 밀집지역은
10호 이상으로 밀집지역에 대한 조항을 하
나 4항에서 뒀고요. 이것은 10호 미만
을……)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10호 미만인지는 아는데 5
항…… 그래서 10호 미만을 2,000M로 뒤편
리자,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우리가 3분의 2
동의에서 전원동의라고 해놨잖아요, 전원동
의. 그전에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는 3분의 2
인데 개정 후에는 전원동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원동의가 아니고 이것도 2,000M
로 뒤편리자……

(□ 주무관 김상균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
에서 - 그렇게 되면 문제가 지금 15항에서
는…… 직선거리에 있는 모든 축종이 되는
데, 소, 말, 사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되
어 버리거든요.)

아니, 그 위에 있잖아요.

(□ 주무관 김상균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
에서 - 10호 미만은……)

경계에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모든 축종
은 100M 이내로 해놨잖아요. 위에랑 똑같잖
아요, 100M. 소, 말, 돼지, 양 100M.

(□ 주무관 김상균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
에서 - 소, 말, 돼지만. 최하로 지금 100M
를……)

그러니까……

(□ 주무관 김상균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
에서 - 10호 미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10호 미만도 개, 돼지,
닭, 오리, 이것을 넣어버리면 되지. 그래 가
지고 2,000M로 넣어버리면 되지. 개정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 김양훈 위원

그 모든…… 모든 축종, 그러면 모든 축
사…… 모든 가축들이 다 들어갑니다. 소,
말, 돼지까지. 소, 말, 돼지 (청취불능) 들어

간다고 하면 우사나,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이 이것 좀 말이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축종 100M 이내라는 것은 모든 축종…… 그러니까 모든 축종 말고 10호도 그냥 소, 닭…… 그러니까 돈사, 양계, 오리, 이렇게 이것만 같이 넣어가지고 거기서 2,000M……

(□ 주무관 김상균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이것은 5항을 삭제하고 4항에서 그냥 10호 이상, 이 말을 빼버리면……)

□ 박인철 위원

그래도 돼요. 5항을 전체 삭제해버리고 4항에서 우리가 주거 밀집 10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 주무관 김상균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이것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체 빼버리고 (청취불능) 있든 간에 이 사항을 이대로 가버리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우리 완도군에나 앞으로 이런 것 달…… 붙일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동의를 받는 것은 10호 미만은 돈 몇 천만 원씩 줘버리면 이 축사, 돈사 하나가 20~3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저기 1억씩 줘버려도 나머지 2~30억이 남아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바로는 해남에서 뭘 돈사를 하는데 저기 가구당 몇 천만 원씩 줘버렸더라고, 몇 천만 원씩. 동의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강력하게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 법이 가축분뇨법이라는 말입니다. 가축분뇨법에 포함되는 조례인데, 지금 법에 주거 밀집지역이 10호 이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법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상위법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아니, 그러니까 위에…… 그러면 4항을 그대로 놔놓고 5항에다가 10호 미만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축종을…… 모든 축종은 빼버리고 100M 이내는 소, 말, 사슴, 양으로 여기 말을 다시 넣고, 다시 넣으요. 그 밑에 다만 제한 및…… 제한지역 내 거주하는 세대주 전원동의를, 이것도 그냥 제한지역 내에서 2,000M로 봐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님.

조례안을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으면 한 10분간 정회……

□ 박인철 위원

아니, 정회할 것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본회의장…… 여기서 방망이만 치면 본회의장에서 이것 다시 재…… 뭉시기하면 되니까요.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읽으면 되니까 이것은 상관없고.

이것 뭐 상위법에 걸려요?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이것 법을 한번 봐야 될 것……)

(□ 주무관 김상균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이게 좀…… 지금 의견수렴을 거의 20일간 거쳐가지고.)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저기…… 할 수가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공고를 이렇게 할 때는 20일을 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소회의실에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이제……

□ 박인철 위원

개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개정할 수……

□ 허궁희 위원

위원님, 저기 6호에 군수가 별도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데 군수 그것은 이제 부칙사항이고요.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할 때 앞으로 더 세게 봐버리자는 이 말이에요.

(□ 주무관 김상균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6항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항은, 또 지정고시를 군수가……)

□ 허궁희 위원

할 수 있어요. 이 대목이 있습니다.

(□ 주무관 김상균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이 5항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것 좀 어렵……)

□ 박인철 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공고를 했으니깐.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정을 하고 어려우면……

□ 전문위원 추교훈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안 되고요. 저희들도, 전문위에서도 상위법도 검토해봐야 되고, 지금 바로 산정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하고, 이게 지금 긴급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시고요.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방금도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6항이 있으니까요. 6항으로 이렇게 하고……)

□ 허궁희 위원

군수 의지가 없으면 안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 전문위원 추교훈

박인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또……

□ 박인철 위원

이 군수 지정고시, 이것은 별로 효력이 없어요. 이것은, 지정고시는…… 뭐 법적인 것으로 가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버려야지.

그러면…… 아, 이것 의회에서 재…… 되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 다 어렵게 생각하는 데, 그러면 이대로 하고 다음에 그 상위법을 봐가지고 다시 개정……

□ 전문위원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 검토는 취지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저희들이 긴급한 사항이라서……)

□ 박인철 위원

개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 전문위원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았어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47호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47호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2348호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4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48호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이행된 사항을 시행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2호를 보시면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하고, 안 제3조에서는 투광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군이 설치한 관내 횡단보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 제9조까지는 군수는 야간

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 투광기 설치대상지 조사와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투광기 설치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되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청취 불능) 부터 최소화하여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48호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48호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마련, 또 투광기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 수립, 또 매년 설치대상지 실태조사, 또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성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

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전체적인, 완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다 설치한다는 그 말입니까?

□ 전문위원 추교훈

이제 예산에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 우성자 위원

확보한 대로요.

그러면 완도읍부터 차근차근해 간다, 그런 내용인가요?

□ 전문위원 추교훈

이제 집행부에서 계획을……

□ 우성자 위원

(웃음)

얼마나 예산을 세우시는가에 따라서 하는가요? (예)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

다.

그러면 의안번호 2348호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348호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김 재 홍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김 양 훈		
의 원	김 재 홍		
의회사무과장	천 중 실		

제262회 완도군의회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6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28일(금) 09시59분

제26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 식

(09시59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다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6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폐식)

제26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28일(금) 10시03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10시03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완도군의회 회기운영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완도군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5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자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1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인철 의원과 박재선 의원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인철 의원과 박재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4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4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

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양훈 의원을, 간사에 이범성 의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각 상임위별 의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18년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공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 불출석 공무원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02일(화) 09시56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09시56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심사 완료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09시5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결위에 상정하여 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회계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군의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7개, 기금 4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5.95% 증가한 5,665억 5,600만 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세출은 4,238억 7,200만 원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에는 농민, 해양, 수산분야가 23%, 사회복지분야가 18%, 국토지역 개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426억 8,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입·세출 현황 등 세부적인 결산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부서별로 공통된 지적내용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불용액의 과다 발생과 일부사업 추진의 소홀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10페이지, 징수결정 금액에 대한 세입 예산반영 미초지입니다. 군에서는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382억 4,614만 원 전액을 정기추경에 반영해야함에도…… 반영해야함에도 61억 1,105만 8,000원을 세입 예산에 미반영하여 징수결정액과 예산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징수결정된 재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 누락으로 인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추진의 소홀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사고 또는 계속비 이월 제도의 운영을 통해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해 연도에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타예산보다 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하여야함에도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107건, 284억 7,818만 8,000원 중 29.5%인 84억 221만 3,000원이 2017년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고, 부득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 예산보다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요인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정확한 소액산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요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 양식어민들에게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비비 5억이 사용 승낙되었으나 집행잔액이 1억 533만 8,000원이나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비비 사용의 정확한 소액산정이 이루어져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비예산 과다편성입니다. 용역연구비는 주관 부서별로 과업과 원가계산 등 용역계획안을 수립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함에도 군에서는 지난해 완도군 신규 현안사업 공모 등 5건의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6억 3,357만 5,000원을 과다편성하여 1억 6,09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앞

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정에 의하여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350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 10억 원 이상 불용된 경제산업과 외 6개 부서의 불용액만도 113억 200만 원이 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저해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일정비율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청취불능)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적조피해 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3건의 국도비 사업비 26억 3,600만 원이 반납되고 적조방제 등 2건의 국비보조금 16억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귀중한 국도비보조금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징수결정에 대한 세입 예산반영 미조치입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에서 74년도부터 86년도까지 시행된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금 6억 4,488만 1,000원의 세입대상 지원을 지난 연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만 하고 세입 예산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되므로 앞으로는 세입에 포함시켜야 될 재원이 예산에 미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미흡입니다. 군에서는 우리 군 출자·출연인 완도전북주식회사 등 5개소에 대해 매년 경영실적 평가와 재정공시 등을 추진해야 하나, 화신산업개발과 해조류박람회조직위가 2017년도 결산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추진실적 등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 누락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안전부 고시대상이나 결산서 내용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결산 및 재정공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니,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완도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계…… 설정개선입니다. 지방단체의 성과관리는 지방행정 운영에 대한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군정 주요시책과 정부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중심의 문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7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지표는 175개로, 이중 151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예산액은 4,133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시 외부평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단기간 달성도가 높고 계속하기 용이한 분야에 대해서만 외부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있어, 예산의 효과적인 성과관리와 평가결과의 합류에 부적절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성과중심 위주의 단기적인 성과지표 운영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성과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과정에서 군민의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개발 운영하 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1호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난 8월 8일자로 완도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담당부서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로부터 보건의료원까지 8개 부서를 소관하고 있었으나 기존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가 복지행정국으로 개편되었고, 기획예산실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분리·신설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를 행정…… 복지행정국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는 업무성격이 행정 쪽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기존 소관 부서가 개편된 경제산업국,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된 미래해양사업단을 포함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포함시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2호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또는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이번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국장, 단장, 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의…… 실과장급을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서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3항,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2건의 안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팀 명칭 변경 일괄개정조례안

(10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10월 1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인 미망인에게 월 5만 원의 유족수당을 주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유족수당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확보와 예우차원에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4호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2014년 1월

27일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행정효율과 협업추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용역추진에 대한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없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내용은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위촉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5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인영을…… 인영을 매년 2월 1일 기록하여 공인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6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2018년 하반기 우리 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명칭 및 팀명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해당 조례의 내용을 일괄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국, 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당면직위명칭 변경과 기존담당이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릴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각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10월 1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57호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성장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농가 및 단체, 개인사업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생산단체 및 법인, 개인사업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2조 3호에 “단체란 1호에 따라 농축산업 생산, 유통, 가공, 판

매하는 생산자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에서 “단체 1호에 따라 농축산업에 생산, 유통, 가공, 판매하는 생산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건설기계의 보관 및 주차공간이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군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본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원활히……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5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개정안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1차 정비계획…… 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특정성별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양성평등법 21조 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 농·수·축·임산물을 전자상거래에 판매,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된 내용은 농·수·축산…… 임산물 및 가공 상품 등을 홍보, 판매, 홈쇼핑 채널, 인터넷 쇼핑물, 입점업체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쇼핑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의 관리 등을 위한 쇼핑물 운영의 설치를 규정……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10조 3항 2호의 가목에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1명을 군의

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 회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릴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의 안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 실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온라인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 후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결의문 채택을 비롯해,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군민의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13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은 의사일정 또한 집행부의 건실한 행정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지만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민선 7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산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불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01일(월) 14시07분

□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

1.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

1.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개의)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351호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351호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2호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대표발의 의원 이신 김양훈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김양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51호 완도군……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8월 8일자로 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담당부서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본위원회는 현재 기획예산실부터 보건의료원까지 8개 부서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은 본위원회의 소관인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가 복지행정국으로 개편되었고 기획예산실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분리·신설됨에 따라 복지행정국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고……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를 그 업무성격이 유사한 문화체육과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본위원회는 기존의 소관부서가 개편된 경제산업국, 이번에 새로 신설된 해양치유산업과를 포함하여 미래해양산업단에 포함시키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는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군의회 위원회 명칭변경도 검토해보았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회의 경우 집행부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2개만 두도록 되어 있고 집행부는 2국 1단으로, 현재 3개의 국 단위별 조직형태로 되어 있어 위원회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겨져 명칭변경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예, 의안번호 제2351호 완도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 조례로써 지난 2018년 8월 8일자로 완도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서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담당부서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요내용은 기위원장님이…… 그 김양훈 위원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5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2호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개정안 또한 지난 8월 8일자로 개편된 군 행정기구 변경과 관련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8페이지 표 내용 중 2번, 군수보조기관 중 실과장급의…… 실과장급을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변경사항은 기존에 중복된 단어를 정

정하는 등의 수정사항으로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52호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 조례로써 지난 2018년 8월 8일자로 완도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보고와 질문응답 규정으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책임이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1호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51호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2호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52호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우 성 자
허 공 희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01일(월) 14시17분

□ 의사일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팀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팀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14시17분 개의)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35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우성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위원

우성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5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우리 군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580명으로 대상자들께서는 월 5만 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 지난 2008년 4월 23일 개정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인 미망인에게 월 5만 원의 유족수당을 주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유족수당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확보와 예우차원에서 이번에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유족수당 지급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3호에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유족수당 월 5만 원 지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들이 작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5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 조례로써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해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동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5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4호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354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용역추진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역과제의 사전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기능에 용역결과 및 평가 및…… 평가결과 관계 활용상황 점검사항 평가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과제에 사전심의계획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심의 외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한 제척, 회피 대상기준을 구체화하여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며,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등 용역실명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완료 후 해당 성과품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간 용역결과물을 상호 공유하여 불필요한 용역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예, 의안번호 제2354호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 조례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의 조례 위임사항을 가정하여 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2014년 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그 안 제4조 5항의 경우 법제처의 표준안 권고라든가. 또한 오늘도 그 2건 이상의 지금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있는데 타 조례와……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이 전문인력 등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전문위원,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추관호

수정가결……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양성…… 모든 위원 위촉을 할 때 위촉된…… 위촉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남녀의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의안번호 2354호의 경우에는 지금 이 안 자체를 제4조 5항의 경우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는 특정성별이 위촉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 수정하면 좋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357호 완도 자연 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6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에는 이번에 수정가결하고자하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 통일성을 좀 확보하고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는 법제처표준안 권고 사항에 있는 지금 ”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 같이 통일을 좀 시키고, 또 법제처의 권고안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 박인철 위원

우리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나 지금 이것 물어보려고 하는데 4조 5항…… (예)
이것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애매모호하던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결론은……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조례에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으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탄력 있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뭐 말…… 붙이기 나름이구먼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에 10분의 6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청취불능) 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4가 없을 때는 그냥 (청취불능) 한다는 말아 납니까, 쉽게…… 그것은 뭐 붙이기 나름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청취불능) 그렇게 좀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4호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54호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팀 명칭 변경 일괄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55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6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팀 명칭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5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1건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복지행정국 소관 조례부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5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인을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하였을 때는 공인의 인용을 인용부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용을 인용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55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써 인용을 매년 2월 1일 기록하여 공인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공인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56호 서류를 검토하여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56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하반기 우리 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명칭 및 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 내용을 일괄 개정하고자합니다.

일괄개정조례는 관련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들어 본칙에서 함께 개정하고 의결, 또는 공포시 한 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국, 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명칭 변경에 따라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을 명칭 변경하고, 담당을 팀 명칭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의회, 담당관, 국, 단, 소로 구분하였으며 대상은 완도군의회 3건, 기획예산담당관 12건, 복지행정국 36건, 경제산업국 25건, 미래해양사업단 2건, 사업소 1건 등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청취불능) 사항은 21페이지부터 36페이지 별표1부터 별표6까지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56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명칭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서 2018년 하반기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명칭 및 팀명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례내용을 일괄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팀 명칭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5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55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6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56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재 선
허 궁 희
우 성 자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01일(월) 14시37분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37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심사할,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357호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총 4건을……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2357호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위 조례안의 발의의원인 제가 설명드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57호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

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2조를 개정하여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안 제1조에서는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성장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농가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2조 3호에는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판매하는 생산단체 및 법인 등을 명확히 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2조 4호에서는 개인사업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57호 완도군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57호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조례로써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개인사업자를 추가하였고 제2조 3항에 생산자단체 및 법인을 명확히 한 사항이고 안 제2조 제4호에 개인사업자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에 없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항으로써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연……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제2조 3항에 신설된 것이 단체 및 법인에 팔호해가지고 농·축협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회사변경……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 다른 것…… 이것 아니고도 지금 농협이나 축협에, 수협에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 지원근거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면 농협이나 축협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것이어서…… 이것을 왜 이렇게 넣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농·축협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정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놔 버리면 일단 반대근거가 없어서 버려요. 우리가 예산할 때, 예산심의할 때. 그래서 농·축협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방금 박인철 위원이 발의한 내용은 농·축, 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그러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 이범성 위원

공감합니다, 저는.

□ 박재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죠?

□ 박인철 위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사업 건건이 지원, 이래 가지고 여기 조례에다가 지원근거를 마련해버리면 그 근거를 가지고 농·축협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다 조합인데…… 우리 군

에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어도 건건이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완도 자연그대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개정안에다가 지금 이렇게 올려놔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박인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 그대로…… 자연그대로 우리 농축산업인데. 이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에 농협이나 축협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한번 이 부분을 좀 해가지고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에 농협이나 축협에서 이렇게 큰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박 위원님 말씀처럼 삭제하는 것도……

그것은 발의한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박인철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되고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가 4년하고 지금 5년차입니다마는 농협, 수협, 축협에다가 우리가 조례를…… 그 지원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7대 의회에서 우리가 농, 수협, 축협에다가는 상호금융에다가는 절대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그것을 이야기…… 그때 그 당시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이 있고 회의에 보고를 했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농협에다가 그 톤백창고…… 이것은 농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열외로 해가지고 해줬거든요.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런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놓으면 안 해줄 수…… 의회에서 안 해줄 수 없는 근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 조례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완도 자연그대로로 해가지

고 들어오면 될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근거를, 지원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조례개정안이 넘어왔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축협은 여기서 꼭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 수협에서, 또 우리 해양수산과나 뭐 경영과에서 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이래 가지고 상호법령들에…… 이렇게 하다보면 그 뭐야, 저기 신탁 같은 데에서도…… 신탁에서도, 그전에도 이런 것들 7대 의회에서 좀 지원해주라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다 잘랐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무분별하게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모르더라도 농·축협은 여기서, 제 생각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참고적으로 본조례안은 군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아니고 김재홍 위원님이 의원발의한 내용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 김재홍 위원님, 여기에 넣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박인철 위원

아니, 이것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것 지금 이 조례안이 애매하니까 지금 본청에서 우리 의원 발의로 하면 의원들이 서로 탓을 안 하니까, 그냥 통과가 되니까 우리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이렇게 패싱한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우리…… 그 조례안 같은데.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발의는 위원들이 손을 안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 때문에 자기들이 내놓지 않고, 담당과에서 안 내놓고 우리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한테 패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김재홍 건설위원장한테, 산

업건설위원장님한테 물어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이. 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터 농축산업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인철 위원이 발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부분은 봤을 때 제가 생각을 해도 농축산물 이 부분, 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이 부분만 신설되는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립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빠져, 넣자. 얼른 결정합시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잠깐 전문위원님, 잠깐 와보십시오.
(장내소란)

□ 허궁희 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지금 그것을 빼고 보면요, 2호나 3호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2항을 아주 삭제하고 법인을 차라리 밑에다가 넣어줘 버리는 것이 낫겠네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을 빼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 전문위원 추관호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2조 2항은 농가를 지금 확정·명시한 부분이고요. 제2조 3항은 단체 및 법인을 지금 얘기한 부분이고요. 제4항은 개인사업자를 지금 명시해놓은 사항인데 제2조 3항 중에 단체 및 법인 다음에 농축…… 축협회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인에 대해, 그 법인 괄호가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래가지고 2호, 3호, 4호는 각각. 2호는 농가, 지금 현재 3호는 단체 및 법인, 제4호는 개인사업자, 이렇게 지금 현재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7호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57호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관 설치 및 운영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인호

예, 조인호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기계 보호막인 주차 공간인 주기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군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영 주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공영주기장이 설치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있으니,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건설기계의 보관 및 주차공간인 주기장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 교통사고, 소음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

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3.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35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경제산업국장 서현중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235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보면, 41쪽입니다. 하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을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자문 수정사항으로 39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5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써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법제처의 표준안 권고사항으로 체계 및 내용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5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6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미래해양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36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완도군 특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홍보함에 따라 주민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는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 상품들을 홍보·판매하는 홈쇼핑 채널과 인터넷 쇼핑물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적용하며, 안 제4조에서 본업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그리고 입법예고를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5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온라인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미래해양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6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완도군 농·수·축·임산물을 전자상거래…… 판매·홍보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 주요내용은 기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로써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 안 10조 위원회 구성 3항. 3항 2호 가목에 보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가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가목에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의회라는 것은 본회의까지 상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으로 수정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조례안하고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본회의에 상정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번거롭기 있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으로 수정가결해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완도군 온라인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완도군에 이숍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근래에 이것을 대신했던,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했던 그 어떤 조례도 없이 어떤 근거로 했는가 모르겠네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게 처음에, 그 2004년도에 처음 최초로 운영되었는데 그때 아마 내부규정으로 해서……

□ 박인철 위원

내부규정으로 해서, 조례 없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저기…… 5조에요, 구매자와 입주(청취불능) 실시간 대금 결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우리 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뭐 근거를 갖고 대금결제를 해줍니까. 선결제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판매 당사자끼리 하는 것입니까? 직접 운영에서…… 제5조에서요, 5조 1항, 여기에서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 여기에는 그 저희들 이숍에 가면 거기 입점업체간…… 지금 49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면 그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대금결제가 아마 그쪽으로……

□ 박인철 위원

우리 군하고는 뭐 관계없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이것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6조, 위탁·운영되었을 때는 구매자와 운영자가 서로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위탁

업체가 없을 때 공모를 해가지고 직접 완도군이 운영했을 때는 완도군으로 입금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 박인철 위원

위탁운영자가 없을 때는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직접 군에서 운영할 때는 아마(청취불능)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5조 2항에 보면 쇼핑몰 운영 근거자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뭐 이것 여기를 우리 군에서 뭐 인력 충원한 것 있습니까?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 일반직계약직으로 하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까, 일반직계약직으로?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당초에 두 명 채용했다가 3년 전에 한 사람을 감축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이것…… 그러면 이숍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업무를 받아와서 한 것 아닙니까. 이숍 업무, 저기 경제산업과에 있던 이숍 업무를 받아와서?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똑같습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동안에 이숍 운영하면서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부과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까지 지금 넣어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보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해년마다 그…… 떨어지던데, 우리가 한 번 그……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지금 최근 2~3년, 그 매출을 보면 2~3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애당초 이것을 출발했을 때는 아주 좋았는데 횡수가 가면 갈수록 더 발전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더 퇴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가 깊숙이 한 번 봐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례화하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이 조례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우리 완도군 쇼핑몰이 개설한지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는 온라인 쇼핑몰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쇼핑몰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전문가가 아닌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전국 온라인 마케팅 운영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한 2~3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한 50억, 또는 1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고자합니다.)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뭐 저기 다른 것은 없죠,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든가 어떤 자원…… 뭐야,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전복이라든가 수산물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전복테이라든가. 또는 전복, 이런 것 판매를 할인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광고비라든가. 이런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 전문위원 추관호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 막연하게 들어와 있구먼요, 지금.

□ 전문위원 추관호

참고로 본조례안은 쇼핑몰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소극적 운영에서 좀 적극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제출한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쉬엄쉬엄합시다.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 생각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하십시오.

□ 최정욱 위원

이 조례는 솔직히 지금 위탁경영을 하려고 올린 것이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 최정욱 위원

지금 군에서 기…… 직영해서 해온 것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해왔는데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든 것이고요.

□ 최정욱 위원

근거를 만들어서 어떤 활성화 대책이, 군에서 하면 또 다른 근거를 마련하는…… 동

시에 또 다른 계획 있어요, 어떤 활성화시키는 방안……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면, 현재 지금 거기 인력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충원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또 군에서 직영이 아니면 위탁업체에 줘가지고 좀 판촉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은 뭐 보나마나 위탁으로 가기 위한 조례인 것 같고요.

이제 위탁이라하면 우리가 보통,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경영만 그 사람이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

어차피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면 안 돼요, 모든 지원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은 홍보, 마케팅, 전략만, 자기들 머리로는 인력만 가지고 자기들이 한다는 이런 계획인데, 우리 위탁인데……

사실은 이 이숍, 우리 직원들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 활성화되기가, 전문지식에 따라가지 못해요, 능동적으로, 지금이 예전하고 전혀 다르니까 홍보 전략도 그렇고, 홈쇼핑,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인터넷,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야 되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우리 관이라…… 완전히 쉽지가 아마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위탁하는 것과 군에서 위탁하는 것, 또 실제로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한 만큼의 실적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제 어차피 뭐 이것은 지금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지, 위탁경영으로 갈 것으로 내가 보는 조례로, 지금 내용을 보면 그게 지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잠깐 16조, 17조를 안 봐가지고 지금 애매하네요. 16조, 17조를 보면 홍보하고 운영까지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위탁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대주는 거네요, 이 조례에 의하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홍보하고……

□ 박인철 위원

운영까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마케팅, 마케팅비하고 이런 것만……

□ 박인철 위원

또 위탁하면 위탁수탁자가 곳감만 따먹고 나머지 예산들은 전부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렇지 않습니다.

□ 박인철 위원

단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물품을 이제 판매하는 것이 되는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운영자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요. 그 나머지 것, 특별히 필요한 것, 그 별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 전문위원 추관호

위원님들, 그 완도 이숍 입점계약서 제7조

를 보면…… 입점계약서 제7조, 이 수수료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운용수수료 광고비 2%에 대해서는 업체가, 입점업체가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계속 그 예산 이렇게 지원하는 것하고 나오는데…… 16조에도 보면 “군의 예산과 입점업체의 후원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7조에 보면 또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다.” 라고 이 두 가지가 겹치는데.

이게 후원도 되고 예산편성도 되고, 결국은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입점업체나 이렇게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약간의 그 경영이 어려우면 모든 후원부터 예산반영까지 전부다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16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산지원은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또 16조에 홍보활동에 보면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후원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 후원은 입점업체의 자체후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지원이……

□ 김양훈 위원

지금 보니까 뭐 옛날에 화신개발 그 출자기관에서도 보니까 지금 그것도 명목적으로 지금 예전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거의 유명무실이잖아요, 우리 출자기관을 보면, 화신개발, 화신산업, 그게 거의 지금 유명무실인

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만약에 위탁경영을 줘서 이 경영이 잘못되고, 지금도 쇼핑몰이 어찌 대중화되어서 SNS에서 잘 통하기 때문에 그 대중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게 부실경영이 나면 제2의 그 화신산업 같이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거기는 군에서 그 별도 투자하는 금액이 (청취불능)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 위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위탁업체의 뭐 조건은 없네요, 위탁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별도로 운영 세칙으로 정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면, 예산을 준다고 하면 소위 위탁업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이라는, 그것을 근거해야…… 그 근거 아래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것이 없는데 지금…… 필요한 것만 우리가 수위탁업체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만 있지. 수위탁이…… 수위탁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이 뭐…… 여기 조례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은데.

□ 전문위원 추관호

그 조항은 이제 그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좀 만들어 가지고……

□ 박인철 위원

우리 지금 조승호 팀장님이 뭐했는데. 경제산업과 이숍에서는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예산이 좀……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까는 금년, 예를 들어서 온라인 완도군 이숍에 2,000만 원. 그리고 오프라인, G나 옥션. 그쪽 다른 온라인 홍보비로 2,000만 원, 4,000만 원……)

그러면 4,000만 원을 거의 쓰는…… 그냥 어느 용도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 4,000만 원은……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네이버라든가 그런 대형…… 온라인에 뭐 키워드 검색하고 우리 완도군 이숍에 딱 클릭을 하면 한 200만 원 되면 100원씩, 들어오는 사람들 가감되거든요. 한 달에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키워드 검색하고……)

지금 그런 것하고 별도로 우리가 전복데이, 이런 것은 따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그것은 생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전복데이, 미역데이는 경제산업과에서 했는데 전부 따로 그때는 예산을 다 잡아서 한 것 아닙니까?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이숍하고는 틀리게…… 시간 좀 주십시오. 애매합니다.

(□ 이범성 위원 의석에서 -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지난번에 쪽 훑어보고 수산분야에 좀 제가 여러 가지를 겪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난번에 행했던 부분들이 우리…… 뭐냐면 단가부분에 기준으로 지

금 홈쇼핑채널이랄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저대로 쪽 흘러가는데. 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단가를 엄청 그냥 다운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완도에 판매여건들을 완전히 결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초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역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참 위험스러운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모든 일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주문을 합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았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본조례안을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단장님,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예)

□ 김양훈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조,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만기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된다. 그러면 1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2회, 3회,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입점계약서 13조입니까?

□ 김양훈 위원

예, 56페이지요. 56조 13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김양훈 위원

계약 후 유효기간으로 해가지고 안 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한 한 것인지 아니면 2회, 3회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보통 1회 아니겠습니까. 1회하고 1회 끝나면 다시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업체한테 계속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제 그때 되면 품목이 뭐 달라진단, 이렇게 여건이 달라질 수 있겠죠.

□ 김양훈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네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2년만 하고 또 다른 업체로 바뀐다는 얘기고, 위탁해서……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른 업체가 아니라 그 업체가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때의 조건이 다르겠죠. 품목,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모집해야 되겠죠.

□ 김양훈 위원

그러면 1회 자동연장이구먼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이 업무를 이렇게…… 이제 위탁업체하고 계약이 되면 이 16조, 17조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우리 군에서 위탁업체한테 지원을 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그 17조, 여기 근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지원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6조 이렇게 홍보비 했는데, 이것 홍보비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것하고 17조 운영예산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기 제4조 운영방법에서 보면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래 하면 그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에 들어가는 뭐 비용 같은 것, 우리 군에서 또 지원해주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위탁업체가 아무 지원도 안 받고 위탁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자기들 이익이 생겨야 하는 것인데.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우리가 예산 뭐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몰이 수수료가 많게 한 25~30%까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수료는 너무 과하고 그러니까 이 입점업체들한테 수수료를 최소화. 지금부터 한 우리가 5~6% 정도 받고 이제 계약자나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계약하면서 군비…… 하려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수수료를 좀 적게 내고 많이 팔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우리 조승호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보통 입점을 한다고 하

면 25%의 수수료…… 우리 이범성 위원이 홈쇼핑을 하고 있으니까 아는데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금방 조승호 팀장님이 말씀처럼 적게 받는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떠한 충당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그런 충당은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거의 어떻게…… 이런 안에는 거의 없으니까. 이 조례안에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수위탁만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 관리만 해준다고 그러고…… 우리가 거기 위탁업체한테, 의뢰한 사람한테 그냥 몇 % 그것만 먹는가.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 찾기 전에 제가……)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이 쇼핑물 위탁을 하면 지금 우리 17조에 보면 쇼핑물 자체…… 건물 어떤 인테리어, 이런 것하고 달라요, 지원 자체가…… 1조에 보면 홍보마케팅비가 있거든요. 홍보마케팅비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인터넷에 파워링크라고 하는가요. 클릭당 얼마씩 준단가. 어떤 쇼핑물에 대한 홍보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상품촬영비, 이런 것도 제품에 대한 뭔가 우리 저…… 생산자단체에서 안 좋은 상품구성을 따로 해서 사진촬영,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그야말로 다가서서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진촬영 같은 것. 세 번째는 군수가 활성화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 그 쇼핑물에 대한 지원을 전체다 해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건물하고 이런 뭐 어떤 다른 지원하고 다르고, 이것은 쇼핑물이라.

쇼핑물은 여기에 관한 그 세 가지…… 들어가는 쇼핑물에 그 전체적인 지원품목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지원해줄 것 그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쇼핑물은. 건물 같은 것은 뭐를 만들어 주고 뭐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봐서는 17조에다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쇼핑물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위탁을…… 다만 위탁지는 수수료만, 자기들이 판매하는 수수료만 몇 % 먹겠다는 것뿐이지. 그 모든 것 지원은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결국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위탁업자도 거기…… 그 서버를 관리하고 이렇게 인력도 고용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인력하고, 인력만 거기서 투자하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인력만 거기서 하고 자기들은 인력과 수수료만 먹는 것이고. 우리는 그 외에 홍보나 사진촬영, 모든……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것, 모든 것을 만들어서 지어준 거예요. 지어주고 이런 것을 관리하고 거기서 이익만 챙기라고 하는 것이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17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쇼핑물 자체가 이게 제일 큰 것이고 홍보마케팅 비용, 뭐 상품 이런 촬영. 그 필요한, 군수가 인정……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군수가 인정한다고 한 것은 거기에 더 필요한 뭐가 있다면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조례의 이 내용을 보면 위탁으로 가되, 위탁자는 솔직히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말하면 인력과 자기들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줄 테니 너희는 인력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아먹어라. 이 조례를 내용에, 내용을 포함해서 보면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맞죠, 이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또 광고도 있습니다, 2% 수수료를 받아서.

□ 최정욱 위원

자체 광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우리 위탁자.

□ 최정욱 위원

위탁자……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품질관리도 위탁자가 해야 되는 것이
고요.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 위탁자 2%라는
수수료…… 홍보는 그것은 정해야 맞죠, 그
런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안주해
서 이 모든 것에서 지원되는 것, 이중지원이
되어 버리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자격안
내에 보면 계약서상에 저희들이…… 7조에
있습니다, 54페이지.

□ 최정욱 위원

광고비를 자기들 규정아…… 자기들이 쓴
다고 어디다가 썼다고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 그 업체에 2% 수수료를 어디
에 준한다고 (청취불능) 해버려야지. 그래야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 저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걸거나 어디에 있는
그 수수료는 자기들이 2% 내에서 한다, 이
렇게 해버린단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자체 규칙에다가 별도로 명시토록 하겠습
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봐보면 우리 군에서 뭐……
전체를 다 지금, 위탁만 되면 전체를 다 지
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 블로그, 공용홈
쇼핑. 전부 마케팅인데 이 마케팅비용은 무
한대입니다.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대고.

또 16조 4항에 보면 이것 막연하거든요.
군수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고. 또 17조 운영예산에 보면 또 3
항에 “쇼핑몰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입점자격 안내해 가지고 제7조 수수료를 보
면, 이제 뭐 이래가지고 4%, 2%로 해가지
고……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이것만 먹는다, 이
말이죠? 2%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17…… 16조 홍보, 17조 운영에서
보면 그냥 우리 군에서 다 이래 가지고 해주
는 것인데.

그러면 블로그만 만들 줄 안다면 그 사람
은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지금 우리 이런 블로그는 우리 완도군 이
숍에 다 지금 제작돼 있습니다. 우리는 채널
을 이 프로그램 그대로 박아주고 운영자가,
위탁운영자가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게끔 그
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 콘텐츠
를 하나 만들려면…… 왜냐하면 8억, 10억
정도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하려면.
그런데 지금 기존 우리 15년 동안 운영했던
완도군 이숍,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관리하
는 것을 위탁운영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려

고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로로 해가지고 완도군 쇼핑물 같은 것을 제작하려면 한 10억 듭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판매 글을 올리려면 네이버나 많이 보는 데에다가 올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그러면 지금 우리 이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완도군 이숍이라고 해가지고 독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아까 그……

□ 박인철 위원

다른 데에 다 이래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 완도군 이래가지고 봐서, 완도군에 보면 이래가지고 뒤에 옆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켜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그것은 이제 배너광고라고 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나, 그랬을 때 네이버 상단에 그것을 광고하거든요.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상당히 우리 자치……

□ 박인철 위원

접속자가 많아야 많이 본다…… 보는 것 아닙니까?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그렇죠.

□ 박인철 위원

그래야 뭐 홍보 효과도 있는 것이고, 판매 효과도 있는 것이고.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연중 올리지는 못하지만 이벤트 행사할 때나 보름이라든가, 일주일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네이버 상단에다가 배너광고를 할 때…… 그렇게 자기들이 좀 하죠.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운영자가 그런 광고를 한다면 그만큼 매출이 오를 것으로……

□ 박인철 위원

지금 그러면…… 그냥 이래 가지고 물어볼게요. 지금 이숍에서는, 지금 뭐 1년에 1억을 한다. 이렇게 봐봅시다, 판매고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지금 군에서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판매 보증금을 대략적으로?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지금 현재 위탁이나 뭐……

□ 박인철 위원

이래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년에 한 3억 정도 오르는데, 이것은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얼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하면 내년도 예산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 필요한 경비들을, 예산들을……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지금 현재 이숍으로 해가지고……

□ 박인철 위원

우리가 이숍에서 4,000만 원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이래 가지고 온라인 쇼핑물,

이렇게 했을 때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지금 우리가 2,000 보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2,000이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2,000.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완도군 이숍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그렇죠.

□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최정욱 위원

방금 말에 좀 모순이 있었어요. 이숍을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을 위탁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10배는 더 올릴 것이다. 그런 예상이죠?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예.

□ 최정욱 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예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우리는 지금 현재 프론테이지를 한 1.1%

받고 있거든요.

□ 최정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숍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 자체 그대로 갖고 지금 위탁자를 주는데. 위탁자를 주는데 거기서 한 10배를 더 올릴 것이다, 지금보다. 그 기준을 왜 그렇게 잡느냐고. 지금 10배로 올릴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니예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예.

□ 최정욱 위원

예,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10배를 올린다고 생각하느냐고. 돈 2,000…… 4,000이 들어가는 것을 반절 줄여서 2,000을 하면서. 기존 그대로를 가지고 전문위탁자가 맡았을 때 그것의 10배할 것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지금 우리 이 조례를 하기에 이르기까지 전문업체에다가…… 5개 업체에 자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콘텐츠를 다 새롭게 한번 단장을 했을 때는 아까 (청취불능) 그것은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완도군 이숍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우리가 초창기 때 2003~2004년도에는 한 10억 가까이 올렸거든요, 매출이. 온라인이 발달되어 가지고…… 2~3억 (청취불능)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기존 이 프로그램을 전문가들한테 위탁해가지고 한 2,000만원 주면 콘텐츠라든가 홍보라든가 그쪽으로 한번 10배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으면 또 계약에 의해서 우리 이숍을 운영하는데 그 약간의 수입을 또 홍보비에다가 투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 최정욱 위원

그런 업체를 지금 알아보지는 않았죠?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지금 도내 업체는 한 3~4개 업체와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뭐 위탁을 주려고 미팅한 것은 아니고, 경험자이기 때문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했지만 만약에 이것을 위탁을 준다면 전국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자기들이 할 의사가 있던가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예.

□ 최정욱 위원

근데 이제 제 경험이에요. 저도 이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이숍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위탁자한테 넘겨서 10배 이상을 바라보고 돈 2,000을 가지고 된다. 이것은 내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물론 내 판단도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는지, 저는 정말 그게 좀 의심스럽고.

아마 지금 프로그램, 정말 우리 이숍……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시킨다면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만이 되는 것이지. 기존 지금 이숍, 그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위탁자한테 준다. 위탁자가…… 우리가 아무리 여기 공무원들이 조금 게을리 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줬다는 것은 좀 달라요. 지금 얼마나 발전해가고 있는데, 예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사람만 바뀌어서 한다. 이것은 생각을 잘해 봐야……

앞으로 같이 맞춰서 지금 시대에 맞는, 내년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가서 이제…… 맞춰줬을 때 매출을 올리고 그런 것이지. 그냥 예전 것 그대로를 가지고 사람 바뀌어서 매출을 올린다. 이건 절대 생각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중하게 참고하세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저기 그 전문위원실에서 유사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상주곶감, 이 상주곶감이 바로 이제 그 군에서…… 시에서 직영하다가 위탁관리를 했는데 프로그램 구성비를 한 3억인가 5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상당히 30배 이상 매출이 오름…… 적극적으로 그런 관리·홍보로 인해서 상주곶감이 한 30배 이상 매출량이 증대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사례들은 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을 가야 된단니까요. 기준에 옛날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 뭐 돈,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 박인철 위원

저기 단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저기 제5조…… 5조가 아니고, 17조에 안 있습니까. 군수는 쇼핑몰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 호에 해당……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제16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군수를 포함해서 군의회 동의하에 이래가지고 수정하는 것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여차피 예산은 전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명시를 안 해도……

□ 박인철 위원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올라오다 보면 의회에서 저기 못 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물론 예산은 군의회에서 저기…… 보는 것이지만 운영예산에서, 제10조 운영예산에서…… 왜냐하면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군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러면, 지금 이 예산이 우리 조승호 팀장님

이 이야기했지만 2,000만 원이라는데, 이것 활성화되면 2억도 좋고 20억도 좋아요. 군민들이 먹고 산다면……

그러면 군수를 비롯해서 군의회에서도 예산을 잡기 전에 미리 와서 동의를 얻고 나서 잡으면 훨씬 예산통과하기도 편할 것 아닙니까, 설명만 잘 된다면 군의회에다가.

조승호 팀장님, 어떻습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 아닙니까?

□ 박인철 위원

아니, 아니. 저 우리……

지금 우리가 16조, 17조에 보면 막연해요, 우리가…… 조례들이 다 막연한데 군수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제일 막연한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아니, 또 저기 올라가지고 예산통과를 안 해주면 쫓아다닐 것 아닙니까. 왜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기 여기다가 못을 박자, 이 말이에요. 물론 조례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없는데. 여기다가 첨부를 하자, 이 말이에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위원님, 예산지원은 의회의 고유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조금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잘 드려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질의할 위원 안 계시니까?

시간을 자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아니,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위원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병 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방 가서 뭐…… 얼마 우리 3억 인데 10배, 30억 그냥 주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난번에 느꼈듯이 홈쇼핑의 지금 수수료가 23%에서 28%,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뺄는 수수료가 5%를 떼는 그 부분들을 좌지우지하기가 참 힘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막연한 여건들 부분보다도 우리 세밀한, 치밀한…… 이제까지 못했던 우리 이숍이 왜 3억밖에 매출이 안 됐는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잘못했는가, 우리 운영 상태에서 잘못이 됐는가. 그런 부분들에 더 역점을 두고 해야 되고. 또 애매하게 무조건 어디에다가 돈만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 부분들이 조례안이 와 가지고 있어서, 결정을 지금 다들 위원들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하려고 하는데는 최대한 일을 하게끔 해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보게끔 열심히 하십시오.

하여튼 뭐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얼른 합시다. 뭐 반대를…… 이것 하다가 잘못되면 개정, 의회에서 개정해도 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심도 있게 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리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미래해양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60호 완도군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그것 금방 수정이 없는데 왜 수정안대로 하는……)

(□ 전문위원 추관호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아, 수정안이 그……)

(□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 있어요, 있어요. 하나 있어요.)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 있어?)

(□ 전문위원 추관호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제10조 3항.)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 하다보니까 잊어버렸네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김 재 홍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위원이 아닌 의원(1인)

조 인 호

□ 출석 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2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01일(월) 09시59분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09시59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안번호 제2350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50호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규모 외 8개 항목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현액은 5,606억 13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717억 6,062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665억 5,61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2억 452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5,471억 622만 3,000원 중에서 5,440억 6,468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0억 4,193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46억 5,39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중 224억 9,141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1억 6,25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에 (청취불능) 5,606억 113만 5,000원 중에서 4억 2,308억 7,23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010억 4,744만 7,0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56억 8,131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46억 2,822만 9,000원을 지출하고 992억 4,741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347억 83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2억 4,414만 1,000원을 지출하고 18억…… 38억…… 3만 3,00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300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 5,335만 1,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293억 2,57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2,022만 6,000원으로 총 356억 8,131만 8,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별, 성질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400…… 5,440억 6,468만 9,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63억 5,037만 6,000원, 세외수입은 189억 4,621만 6,000원, 교부세는 2,165억 725만 6,000원, 조정교부금 등…… 조정교부금 등이 66억 2,462만 6,000원, 보조금 수입이 1,630억 924만 5,000원, 보전수입이 1,226억 2,69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046억 2,822만 8,000원으로 인건비가 536억 8,556만 7,000원이며 물건비가 320억

7,855만 3,000원, 경비이전이 1,256억 2,232만 8,000원, 자본지출이 1,748억 6,175만 5,000원, 내부거래가 127억 4,727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56억 3,234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무증감 및 현재액인데 우리 군 2017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 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4,604억 1,756만 4,000원이었으며 2017년도에 71억 4,690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26억 2,881만 4,000원이 감소되어 2017년 말 현재 4,649억 3,565만 3,000원입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4,477억 784만 3,000원이고 일반재산은 110…… 127억 972만 1,0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 말 물품 총 건수는 933건에 57억 4,510만 1,000원으로 2017년도에 106건을 취득하고 26건을 처분하여 2017년 말 현재 물품 보유수는 1,013건에 69억 7,4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6건으로 16억 3,926만 3,000원이 지출되어 (청취불능) 되어서 15억 3,1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40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6년 말 현재액은 12억 4,111만 7,000원으로 2017년도에 6,638만 4,000원이 감액되어 현재액은 11억 7,4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예산액은 1,146억 3,877만 6,000원으로 이중 1,128억 3,205만 8,000원을 수령하여 920억 766만 원을 집행하고 168억 2,217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222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령액이 1,126억 1,256만 2,000원이고 918억 2,171만 4,000원을 집행하고 168억 2,217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억 6,328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수령액은 2억 1,949만 6,000원이고 1억 8,05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94만 원입니다.

끝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했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34건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간사이신 이범성 위원님 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회계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군의 회계 현황은 일반회계와 함께 특별회계 7개, 기금 4개를 운용하였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5.95% 증가한 5,665억 5,600만 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세출은 4,238억 7,200만 원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3%, 사회복지 분야가 18%, 국토지역개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426억 8,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입·세출 현황 등 세부적인 결산 검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부서별로 공통된 주요 지적 내용은 부서별 편성 예산에 대한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일부사업 추진의 소홀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징수결정 금액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 미조치입니다. 군에서는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382억 4,614만 원 전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함에도 61억 1,105만 8,000원을 세입예산에 미반영하여 징수결정액과 예산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징수결정된 재원에 대해서는 전액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세입예산 누락으로 인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추진의 소홀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지방재정법 제50조에는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사고 또는 계속비 이월제도 운영을 통해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당해 연도에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타예산보다 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107건, 284억 7,818만 8,000원 중 29.5%인 84억 221만 3,000원이 2017년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추진완료되도록 하고 부득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예산보다 우선하여 추진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잔액 과대발생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요인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정확한 세액 산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지난해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 양식어민들에게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 비로 예비비 5억이 사용 승인되었으나 집행잔액이 1억 533만 8,000원이나 과대하게 발생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비비 사용의 정확한 세액 산정이 이루어져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예산의 과대편성입니다.

다. 연구용역비는 주관부서별로 가원가 원가 계산금 용역계획안을 수립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함에도 군에서는 지난해 완도군 신규 현안사업 공모 등 5건의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6억 3,357만 5,000원을 과다 편성하여 1억 6,098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정확한 산정 이후에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과제의 사전심의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불용 과다발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350억 2,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338억 1,400만 원이 발생하고 군비 10억 원 이상 불용된 경제산업과 외 6개 부서의 불용액만도 113억 200만 원이 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소요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 잔액 과다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운용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건의 국도비사업비 36억 3,600만 원이 반납되고 적조방재 등 2건의 국비보조금 16억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귀중한 국도비보조금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민주택 융자금 징수결정액에 대한 세입예산안 반영의 미조치입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에서 74년부터 86년까지 시행된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금 6억 4,488만 1,000원의 세입대상 재원을 지난 연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만 하고 세입예산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

고 있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에 위반되므로 앞으로 세입에 포함시켜야 되는 재원이 예산에 미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미흡입니다. 군에서는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인 완도전북주식회사 등 5개소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와 재정공시 등을 추진해야하나, 화산산업개발과 해조류박람회조직위가 2017년도 결산서에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추진실적 등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토록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 누락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안전부 고시 및 결산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결산 및 재정공시 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정개선입니다. 자치단체의 성과관리는 지방행정 운영에 대한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군정 주요시책과 정부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7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지표는 175개로, 이중 151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결산액은 4,133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시 외부평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단기간 달성도가 높고 해소화가 용이한 분야에 대해서만 내부지표를 설정하여 예산의 효과적인 성과관리와 평가결과 합류에 부족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군에서는 성과중

심 위주의 단기적인 성과지표 운영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성과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과정에서 군민의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운영하시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이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16년도 회계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계속비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2017년도도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계속 안 줄어들고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내가 그 회계하면서 예산을…… 우리가 지금 각 부서에서 다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 추경…… 2회 추경까지 예산을 따가지고 가는데 사업을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일단 계속비사업은 5개년도 이상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계속비라고 표현이…… 표시가 되고요. 그 외에 이월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명시이월이……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명시이월.

□ 박인철 위원

계속비사업은 회계연도 사업으로 넘어가니까 괜찮은데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다, 이 말이에요. 회계연도…… 당해 연도에 끝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꼭 12월 말에 되어 가지고, 그리고 또 예산을 잡을 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과다로 잡아놓고 사업이…… 꼭 내가 회계검사하면서 보니까 이유가 어느 부서나 다 똑같거든요. 민원발생 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예산을 세울 때 더 시급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그런 예산들은 안 잡고, 그냥 뭐 예산서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합시다라는 필요치 않은 예산을 잡아놓고 12월 달이 되면 거의 명시이월로 해놓고 그…… 다음 년도에 회계결산검사를 할 때 불러서 보면 다 이유를 대는 것이 다 똑같아요, 민원발생.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예산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라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사유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민원발생이라든가, 또 예산이 늦게 성립되어가지고, 연말이나 성립되어 있는데 그 연도 말에 종료를 못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는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에서 주관을 합니까라는 이런 것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산검사에 꼭 그런 지

적을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 또 예산팀…… 명심해서 그 지적사항을 듣고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7년도도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사업이다 틀리겠지만 저기 노화 관광…… 건강테마촌 같은 데나 또 다른 데를 보면 9년, 10번씩하면 9년, 10년 동안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명시이월은 1년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1년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을 벗어날 수가 없죠.

□ 박인철 위원

뭐 통상적으로 5년…… 5년을 안 벗어나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그렇게 9년, 6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이 아닌 이상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3년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죠.

□ 박인철 위원

내가 잘못 본 것입니까, 여기 (청취불능)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그 문화관광과장할 때 해봤으니까 건강테마촌…… 저것은 지금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건강테마촌은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계속비사업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계

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국비 반납을 하든가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거의 사업이 이제 그……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내가 봐서 저기……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5년됐습니까마는 그때부터 처음 들어올 때부터 봤는데 계속 넘어가요,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사업이 내용하고 안 맞게 추진이 되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승인이 좀 지연되는 것으로……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비사업비로 나갈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불용처리를 안 해버리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정산을 받고 나머지 절차는 진행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 박인철 위원

여기 지금 결산위원들이…… 국장님, 두 가지를 다 봐도 해년마다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 저기 예산담당관도 와있으니까 내년도 `19년도 예산부터는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에서 철저히 빼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잡아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리고 심지어…… 뭐야, 예산할 때는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고 다음 연도 예산을 잡아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지금 이것 저…… 들어와 가지고 `1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17년도까지

됩니다마는 이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대부분 (청취불능) 하거든요, 통일된 것이 없이.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까지 했으면 좀 바뀌지는 묘가 있어야 되는데 해년마다 그 지적사항이 똑같은 결산감사 위원들이 앞전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전 위원들이나 그 후 위원들이나 지적해 놓은 것은 다 똑같아요. 보면, 이 책자를 봐 보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것을 좀 거울 삼아서 철저히 잡아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좋은 지적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산의 이월제 도라는 것은 분명히 제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활용 하라는 그런 예외적인, 회계연도 다년도 주의의 예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우리가 계속비사업에서 또 이월사업에서 넘어가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은 건수들이 너무 많고 액수도 꽤 많이 되고. 그러면 그런 데를 우리가 시급한 데에 투입을 하면 군민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최정욱 위원

예, 저희는 지금 처음 심사를 해보니까 그러는데, 원래 이 위원들이 해온 것,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까? 우리 결산…… 우리 그 책자가 미리 온 것이 아니고? (예)

아, 그렇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게 지금……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5월 달에 결산감사위원 선임을 해서 결산검사가 끝났는데, 6월 중에는 이게 의결이 됐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선거가 있고 사정상…… 의회 내부 사정상 지금 보면 10월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군청에서 해오는가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한 거예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결산감사위원님들이 5분으로 선임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거기 대표위원으로 의원님 중에 한 명이 대표를 맡게 되고요. 그러면 그 분, 5분들이 20일 동안 군청에서 결산검사를…… 각 부서를 이렇게…… 뭉니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죠. 이 의회에서,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 정리를? 이 책자, 이 정리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결산감사위원회죠.

□ 최정욱 위원

위원회에서 하나요? (예)
글씨가 오타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
확인도 안 해봤는가 싶어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은, 오타가 있는 그런 것은…… 물론,
세무회계과에서 보조는 합니다. 그러나 최종
적으로는 결산검사위원회 명의로 이 자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보면 지적사항에 그 출연·출자기
관ियो. 화산산업에 대해서 지적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그렇습니까.

□ 최정욱 위원

그 이유…… 그런 것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했다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죠,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는 그 조치내용을 조치…… 검사 지적사항
에 대한 개선의견을 관련 실과소에서 내야
죠.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조치계
획을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 이병성 위원 의석에서 - 94페이지입
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감사자 의견이 나와 있고,
감사자는 재정공시 등에 착오가 없도록 집행
부에 권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
음 장에 보면 “착오 없이 매 회계연도 중

료 후 3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성
실한 경영실적 평가와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음.”, 이게 조치계
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검사라는 의미가 그렇습니
다. 한 해에 예산을 전부 집행했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에 따른, 말 그대로 검사입니
다. 감시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1
년 동안 이루어진 예산 집행행위를 의회차원
에서 정치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검사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아무
리 잘못되어 있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기집행이 이루어져버
린 사항이고, 그래서 감사하고는 또 다르겠
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
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반납을 받아야 될 사
항, 회수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은 명시가
정확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
다마는 결산검사에서는 감사의 개념과는 약
간 다릅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 한해
집행…… 예산 집행실적을 정치적으로 승인
해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사항이 아니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뭐 질문사항……

□ 최정욱 위원

어떤 시정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
라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이
것을 보면요. 우리들이 주로 예산을 말할 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
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제가 보
면서 불용액이나 또 뭐 명시이월로 넘어간
그 내역이 났든, 이런 예산자체를 철저하게

못해서…… 어찌됐든 불용액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돈을 잘했다라면 아무래도 그 연도에 많은, 어떤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고…… 해서 이렇게 많이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박 위원님이 질문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무래도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회도 느꼈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 또 뭐 기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대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 같은 경우 단가, 인건비, 뭐 어떤 관급자재비.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서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하고, 또 편성을 그렇게 의회의 심의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억짜리 사업이라고 그러면 뭐…… 아니, 이게 1억이 아니고 9,859만 2,000원 사업이다.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의회에서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불용액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지다 보니까 과다편성된 것 같이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말 그대로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대강 계산해서 추계를 낸, 그런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래도 불용액이 지금 한 100억이 넘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나오죠.

□ 최정욱 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여서 그렇게 되고

요.

그리고 국도비 같은 경우,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가에서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 자기들도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가. 국고보조금을 50억을 줘도 되는데 70억, 80억,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1년 동안 집행을 하다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 돈 집행을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런데 해마다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더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정욱 위원

예, 하여튼 그래도 어찌됐든 그것을 좀 우리들이 볼 때는 그게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저희들도 항상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칭취불능) 정말 가난한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있네요. 이런 것을 처음 알아서 깜짝 놀랐고요.

그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서 차광막을 해 준 것이요. 5억 예산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지출한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듯이 1억 5,000인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던데. 그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계를 낼 때 정확하게 “자, 5억 정도 되겠다.” 라고 대강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원인이 있을 것이지만…… 전복양식어가에서 “우리는 필요치 않다. 나는 안하려고 한다.” 라는 그런 어가들도 있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히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금년에 유난히 더웠잖아요. 많이 더워서 차광막이 필요했을 것이고.

아니, 우리 박재선 위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때도 왜 그 사업이 필요하냐고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운 것 같았는데. 그 전복…… 뭐 어가들이 몇 어가라는 것이 계산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하여튼 더 자세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예비비 지출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적조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해 연도에 적조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 여기에 보면 적조피해예방도 가능하거든요. 예방기구, 즉 예를 들어서 액화산소탱크를 보급한다든지 반환을 하지 않고, 이런 것 가능하지 않나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방을 위해서요?

□ 허궁희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조가 올 것을 대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완도군 양식어가에 액화산소탱크가 굉장히 부족해요, 참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보급을 했지만 꼭 이렇게…… 그 정부지원을 받아서는 상당히…… 1년에 잘 보급되어야 10개 미만. 그래서 지금도 없는 그…… 통으로 쓰는 어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효율이 떨어지죠, 통으로 쓰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반환하지 않고 그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소비……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더 안 좋냐, 반환을 하지 않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예산 과목이 정해져서 쓸 수 있는 과목이 있고. 그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그……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좀 쓰면 되잖아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쓰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죠?

□ 허궁희 위원

그렇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 허궁희 위원

왜요?

예방차원에서, 예방도 가능하니까 예방책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분명히 사용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올 것이고, 또 그게 아니고 예비비, 군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그렇게 긴급한 순간에 투입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단,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마는……

□ 허궁희 위원

당연히 의회에서는 국가 돈 같은 것을 반환하는 것보다 군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당연히 의결해주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그러니까 각 목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과목만……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꼭 그 액화산소를 공급해라, 이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를 그 돈만큼을 사가지고 보유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보관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렇게 액화산소도 중요하지만 수중모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허궁희 위원님,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결산검사 내용하고 다른 부분 같습니다. 제가……

□ 허궁희 위원

아니, 저는 해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목적사업비는 그 목적을 보는 데에다가만 이렇게 비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취불능) 아까도 말씀드렸는

데, 예비비로 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좀 말씀하시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예산…… 본예산 때, 그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이…… 저기하고 안 맞는 것이라고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예.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허궁희 부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가능하다면 해야죠.

□ 허궁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해마다 이렇게 반납하는데 없는 데에는 이런 것을 비축하지는 않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리 추관호 전문위원님, 잠깐 설명을……

□ 허궁희 위원

예.

□ 전문위원 추관호

예, 적조예방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황토 (청취불능) 있는데 이것을 적조가 안 왔을 경우에는 도나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액화산소라든가 수중펌프, 이런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 허궁희 위원

예,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는 비축을 하고, 있는 데는 있는 그대로 다 쓴

아부어도 부족해요.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전문위원 추관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검토를 잘해보십시오.

□ 전문위원 추관호

예.

□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다른 위원님, 질의……

□ 박인철 위원

우리 국장님보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할게요.

지금 예산 잡고 있죠? (예)

우리 각 실과에서 용역비가 많이 올라오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요. 이번에는 그 용역비를 철저히 체크를 해주십시오. 용역비를 세워놨다가 안 써버린 용역비도 많고 너무 용역비를 과다하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남은 잔액도 많고 그러니까 용역비 관계만큼은 좀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철저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철 위원님께서 우리 용역심사위원회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더 철저히 이제……

□ 박인철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 가보니까 위원회에 오면 다들 해주더구먼요. 혼자 반대해도 되

지도 않고 불필요한 용역들이 많은데 거기서 혼자 반대하면 내 입만 아프고. 애당초 원천…… 어떤 봉쇄를 하십시오, 우리 예산계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조례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국장님. 잠깐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자주 보고 해놓으니까 말씀인데, 우리 전북거리 조성사업의 부진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해가 안돼요. 그게 누차 연기되고 연기…… 전북거리라는 것이 지금 수협 가는 데, 거기 말씀이거든요? (예)

그 부분들이 무슨 연유, 뭐 민원사항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또 처음부터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과정을 올렸었는가. 거기가 공사를 하면서 불편사항이랄까 민원사항이랄까 여러 가지를 저는 스스로 느껴서 이 말씀을 한번 여쭙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성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당시에 제가 관광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그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용이 몇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점자블록 형식의 그런 도로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아스팔트로 남겨놓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 또 간판글자 이렇게…… 간판글자를 시설하는데 우리 군 로고체를 그 간판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 저기 기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 이범성 위원

모든 사업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일치될 수 있고 설계가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이 가면 이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가면 저 얘기 듣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그 공사과정에 진척되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더 사업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용역과정에서도 특별하게 하고 설계부분들에서도 일찍 사업설명회를, 사업하기 전에 여러 번 개최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주지해서 국장님이 좀 다뤄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알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그것은 여기 보면…… 오늘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계정과목에서요. 미수납액, 이 계정과목이 됩니까?

□ 허궁희 위원

예, 세입에서요?

□ 김재홍 위원

예, 세입에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수납액인데, 우리 군에 52억 미수납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원인은 뭔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주로 이제 고질 체납자들, 또 사소한……

□ 김재홍 위원

2017년도 것인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금 미납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은 2017년도 회계…… 한 해 연도 것을 말합니다.

□ 김재홍 위원

이야, 이렇게 많은가요? (예)

이게 수차례 문제점이 안 됐는가요, 이게 문제가 좀 안 되는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 김재홍 위원

주미납액이 어느 분야인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잠깐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징수……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저기…… 체납액은 지금까지 자동차 같은 10년 동안 과태료, 이렇게 미납된 금액

을 포함해가지고, 매년 이게 전년도, 익년도, 이게 체납된 금액이 계속 넘어옵니다.

그런데 체납금액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징수하고 7억 체납되고 나머지 한 3억 징수하고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그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을 위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미납금액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 모든 금액이 이 예산서상으로 이렇게 올해는 5,000억이다. 그러면 5,000억 중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발생을 하고요, 이 금액입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독려를 좀 해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52억, 이 정도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꼭 이렇게 징수를 해서 이렇게 미납된 금액은 아니고요, 예산상 이렇게 정산하는 데에 있어서 미납금액이 좀 발생을 합니다. 체납으로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을 미징수한 금액을 이렇게……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면서 불법했다든가 과태료를 징수…… 해가지고 그 금액이 현재 한 10억 정도 이렇게 미납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서류상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 (청취불능)

□ 김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훈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 동안 김동삼 대표위원을 비롯한 5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과 오늘 본예결위에서 결산 승

인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등은 향후 경영·운영에 적절히 이행되도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하기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김 양 훈
허 공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2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박 인 철		
의 원	박 재 선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6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6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09시57분

제26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 식

(09시57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6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폐식)

제26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10시01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

- 군 수
- 부군수

□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

- 군 수
- 부군수

□ 의장 조인호

(10시01분 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10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3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63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61호와 2362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안번호 제2362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군정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군의회에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이번 회기동안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은 집행부와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정전반을 위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과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은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을 1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32조에 의하면 동일의 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과 횃수를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되 ‘검토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를 지양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질문·답변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전부서 대상으로 의원님별 일괄질문을 실시 후 군수의 답변을 먼저 듣고 부군수님, 담당부서장의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궁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궁희 부의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군민

을 대변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저를 선택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우리 군의 유례없는 폭염·가뭄과 두 번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와 생활불편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태풍피해와 가뭄에 불편을 겪은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뭄해결과 태풍 복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8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농·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귀농·귀어 정책, 출산장려정책 마련과 군민들의 불편·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 군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해결책을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성실히 임해나갈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은 신지·고금 돈사 신축과 완도 변환소 고압송전탑 설치 등 각종 민원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 다시는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7기 완도군과 제8대 완도군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완도 미래를 위해 활기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군정 질문·답변은 군민들의 관심사항,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들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군정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관심사항과 문제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미래 완도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년 연속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변환소, 축사, 풍력발전 등으로 행정과 주민, 주민 간 주민 등 지역갈등이 발생되어 불신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갈등요인은 무엇이며, 갈등과 관련한 행정행위와, 사회학자 집멜은 갈등을 두려운 존재나 피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타협이나 화해라는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요인 해소를 위한 노력 및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라는 브랜드가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에서 유입된 여러 가지 오염원 중 분뇨 또한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지역 오폐수 처리 시설이 되지 않은 일반주택 등지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여객선 등 선박에서 발생된 분뇨 처리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춤형 지역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의 조직구성과 연도별 기금 조성액, 지금까지 지원현황, 앞으로 기금조성계획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다문화가족 수는 13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는 현재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완도군도 다문화가족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족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 및 관리와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백사장을 지닌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남해안 최고의 해수욕장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우리 군 관광산업과 연계된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및 국제인증받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기대효과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무허가 축사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상 문제점과 축산농가 측면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여름 무더위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기후변화 용역결과 우리 군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 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수산, 농업, 생태계 등 분야별 적응대책,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군의 당연한 의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층건물 화재 시 군민 안전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완도군 소화전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지~고금간 장보고대교는 우리 군 동부권역 교통난 해소와 도로시설 개선으로 농·수·축산물 운송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보고대교

개통 후 진입 회전교차로는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내리막 곡선부에 회전교차로가 위치함으로써 시거 및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며, 교차로 접근 전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장보고대교 진입 회전교차로의 개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기온의 점진적인 상승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농작물 재배 품종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난대·열대작물 재배 시험연구센터를 완도에 유치하여, 농업소득과 지역관광 자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3년간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내실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군민의 행복한 미래 완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 한편으로 떨리고, 설레고, 고민스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여러 방면의 사회활동을 해왔지만 경험해보지 못

한 어려운 자리여서, 군민을 대변하고 완도군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군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회는 행정의 감시와 견제로 무조건 하는 일을 막고 반대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의회에 입성해 3개월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밖에서 느끼는 생각과 다르게 의회와 행정은 완도군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상생관계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들의 편익과 행복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좋은 제도나 시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보다 잘사는 미래완도 건설과 선진 의회상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8대 완도군 의회는 소통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을 모시고 부족하지만 열성을 다해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이 편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한 위원회 구성현황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 현황, 동법에 의한 위원회 재구성 여부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의 보완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장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실적과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경비 지원내역 및 모범표창을 받은 이장 또는 10년 이상 연속해서 재직한 이장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 마을 행정방송 시스템 구축은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 마을 행정방송 개요,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제 이후 지자체간 경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또한 더불어 향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내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시대 여성들은 사회와 국가측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사회참여와 여성권의 향상은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또한 아동들은 우리들의 미래임에도 이들에 대한 사회 관심도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및 아동복지 주요사업 현황과 이들 사업에 대한 특수시책, 인구 늘리기 시책과 연계한 아동복지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작은 도서관 운영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별 작은 도서관 시설 및 운영현황과 앞으로 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관광객을 유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토요 싱싱 콘서트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개년 예산 투입액과 콘서트 개최로 인한 성과와 관외 관광객 비율, 관광객 계수 신뢰 등을 포함한 관광객 유치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귀어, 귀촌, 귀농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기

반 마련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촌인 관리현황 및 이들에 대한 지원실적과 우리 군의 정책방향, 정책 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슬레이트는 경관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유익한 물질이 아니라고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철거현황과 제외 대상인 공장,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읍면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체제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읍면 배치 공보의 현황 및 이들에 대한 근무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제8대 완도군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고자 다짐한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시간이 참 빨리도 지나간 듯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 가뭄, 태풍 등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대책마련과 복구에 애써주신 신우철 군수님, 기관관계 임직원 및 우리 군 관련분야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인호 의장님과 한 마음으로 동고동락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의원의 본분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정립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했으며, 이를 위해 때로는 끌어안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도 완도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우리 군의 존폐 위기,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군민 생활 향상,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등 너무 많아 모두 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산재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체했었던 사항들을 군정에 반영하여 완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포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제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올바른 대안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 드립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에는 물론, 좋은 취지와 사업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나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과 잘 맞는 효율적인 공모사업만 선별하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 드립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주요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선정 현황, 관련된 용역비의 사용 내역,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 후 포기한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공모사업 유치와 관련되어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과 문제점을 개선한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연구, 학술, 정책 용역을 통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사업성 검토 등을 이유로 외부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용역 현황과 그 결과물에 대한 활용실태 및 성과분석 결과를 적용한 사례와 함께 세부

단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용역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완도군 공무원 신규임용자 총 33명 중 19명이 완도소재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참 고민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결과물을 볼 때 장학 기금의 향후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보고 장학기금의 사용과 관련되어 투입된 군비, 기탁금, 그리고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의 5년간 변화 추이 및 최근 3년간의 기탁금 사용 내역을 답변해주시고, 장학기금 운영시 기탁금,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 상황에 대한 대비책과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완도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장학재단 측의 추진 중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완도군 공유재산 현황 및 확보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 현황과 공유재산 대부계약 용도별 현황, 보존 부적합 재산의 사유별 매각 현황 및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용도별 반영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중 2,000제곱미터 이상 토지현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확보계획, 폐교를 포함한 미활용 시설물에 대한 조치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산업과 관련 산업이 주요 소득원 중 하나로써 수산업을 통한 소득 증대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 소득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촌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어촌계 인가 현황과 설립시 인가자격 및 어촌계원 자격, 그리고 어촌계의 운영실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조류 효능인증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

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이 잦아지면서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수산양식 재해보험의 개요를 설명해주시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안어장 조사 추진과 어장 재배치와 관련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의 어장 재배치 추진 실적과 아직까지 재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꾀하고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재적소의 탐방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읍면별 탐방로 현황과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홍포 연안항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현재 화홍포항 개발이 지연되는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배가 결항되거나 출항이 어려울 때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게 됩니다. 특히 정기적인 혈액 투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나 영유아 및 응급환자의 진료 가능 여부가 해당 지역의 거주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며,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이유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의료원에 집중된 전문의 및 치료 설

비의 도서지역 재배치 및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 미래 완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완도군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생각해볼 때 어깨가 무겁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해와 협력, 양보와 견제, 그리고 조화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지방화 시대, 진정한 자치 실현이라는 알찬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8대 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군정 질문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이 제시대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한 사항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국장님께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장사문화 변화에 맞는 자연친화적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공원화로 장사문화를 조기에 정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추모공원 시설현황 및 사용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추진 현황, 앞으로 운영방법과 향후 운영비 부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께 새우표 완도물산 세척수 확보와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군민 생활현장 방문 시 약산면민들의 민원 사항으로 새우표 완도물산 건립에 따른 지하수 관련 문제입니다. 새우표 완도물산 지원 현황, 김 가공시 세척수 확보현황과 사용량, 인근마을 지하수 고갈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조류 산업의 활력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성공개최에 따른 청정바다 수도 완도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해조류 산업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군 해조류 산업의 현황과 해조류산업 활력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완도 명품광어산업 경쟁력 지속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부터 추진한 우리 군 광어산업에 대하여 완도명품광어로 브랜드화한 결과 광어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확보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완도 명품광어 산업현황과 추진실적, 경쟁력 지속 확보를 위한 완도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농업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산업인 식품 제조·가공, 3차산업인 유통·판매·체험·관광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

하여 6차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6차산업화 추진현황과 주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완도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 쌀 고급화를 위한 RPC 시설 지원 현황과 문제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내역, 친환경 쌀 생산량과 유통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도해 일출공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며, 관광명소인 다도해 일출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른 일출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과, 유지관리 사업현황, 수목관리 전문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외 원동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외면은 우리 군의 관문으로써 좋은 숲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곳입니다. 군외 원동항을 수변공원을 반영한 아름다운 항으로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따른 군외 원동 지방어항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외 달도 테마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외 달도 테마공원은 국도13호선인 완도대교 완공으로 접근성이 저하되어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군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테마공원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세·고령 농가의 영농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가 출범한지 엿그제 같은데 그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밟고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태풍과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제7대에 이어 제8대 의원을 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차츰 채워나갈 계획이니, 지켜봐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에서는 제가 7대, 8대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차례

집행부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부문, 아쉬웠던 부문과 군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저의 질문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군정 질문이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에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 운영방향과 공약사항 이행 계획 및 예산 확보계획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민선6기,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소안~노화 연도교 사업, 완도 구도심 활성화사업, 수산대학교 유치 사업 등 미흡한 사업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7기 군정 운영방향 및 핵심전략과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의 핵심전략 추진 및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해상풍력 추진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상풍력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있는지와 이에 따른 공익상 지장유무 등을 검토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산업과 공존방법이 있는지, 어떤 부대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계통연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7기 완도군 인사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공직에 있어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매년 인사철만 되면 시내에서 잘된 인사니, 잘못된 인사니 하는 무성한 소문들이 난무합니다. 이에 따른 민선7기 완도군 인사운영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면, 직렬별 정·현원 현황과 6급 직렬별 팀장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 정·현원 직렬 불·부합 현황 및 해소 대책과 6급 무보직 직원 현황 및 해소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 유통, 도시계획, 축제, 기상 등 특수 업무에 대한 전문직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MOU·MOA 협약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MOU·MOA 체결 현황과 이후 진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MOU·MOA 체결 후 미추진 사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공직자의 청렴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 청렴도 측정결과와 비위관련 공무원 현황 및 조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비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등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인 교육센터 완도유치 관련 사항입니다. 체육인 교육센터가 완도에 유치된다면 우리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도 지역만의 타당성과 인맥을 활용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어 우리 군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체육인교육센터 완도유치에 따른 위치, 면적, 소요 사업비 등 지금까지 추진 현황과 타지자체의 신청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 꼭 유치되어야 한다는 타당성과, 어떤 유치전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에 개최 예정인 해조류박람회 개최 필요성 및 개요와 지금까지 추진상황,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박람회 종료 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비 최소화 대책 및 시설물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준비 중인 지자체 현황과 국제행사 미승인시 박람회 개최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이 우리 군으로 확정되어 우리 군민이 미래 100년을 먹고 살 만큼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 주민들은 금방이라도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 개요 및 종합계획과 선도 지자체 선정이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 불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은 제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근 5년간 해외시장 개척 현황과 출장목적, 출장기간, 소요경비, 동행인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수출 현황과 업체, 금액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출계약 체결 후 미 이행 현황 및 사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시장 개척 방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완도군 슬로시티 종합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2007년 청산도 슬로시티 지정 후 청산도에 대한 자체평가와 관광활성화 방안

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10주년에 대한 성과 분석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슬로시티 권역 확대에 따른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추진상황 관련 사항입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추진 실적과 성과분석, 금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시설현황과 시설규모, 매립지 잔여면적, 향후 사용가능기간, 침출수 발생량 및 처리방법, 재활용선별량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보고유적관리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생태전시관 운영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해양생태전시관 현황과 월별 방문인원 및 수입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 완공 후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 결과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사회단체 경험을 밑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를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완도군의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의회가 시작 한지도 벌써 3개월의 시작이 흘렀습니다. 개인 시각에서 우리 군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잘사는 완도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군민들과의 소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의 현실 속에서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상인은 상인들대로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들은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8대 완도군의회와 민선7기 완도군은 공통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군을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야 할 과제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활기차게 도약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의문스럽고 궁금했던 점과 또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구축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 추진실적과 묘당도의 최근 3년간 관광객 현황, 연도별 사업목표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보고대교 개통은 동부권 주민 및 우리 군을 찾는 완도군 관광객들의 이동편의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

합니다. 이에 따라 장보고대교 개통과 연계한 동부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 주민들의 주소득원은 농·수협 등 1차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관광산업이 보탬을 주고 있는 사업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사업은 접근성 개입 및 인프라 부족, 경제 침체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광객 현황과 대표관광객 현황 추이, 케이블카 설치사업, 완도수목원 관광해상상품 개발 등 완도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재정주체로써 수입과 지출간의 수지균형을 유지해야 되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도록 조정해야 하고 예산의 경비구성과 수익구성은 적정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세입을 확보해야 하며, 자기책임 하에 재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7기 예산편성 방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또한 국도비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하반기 인사시 각 읍면에 맞춤형복지허브팀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밖으로 표출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대상, 즉 복지 사각지대 대상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읍면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및 이들에 대한 지원실적과 우수사례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우리 지역의 뜨거운 현황이자 지역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지~

고금면의 가축 사육과 관련하여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본의원 또한 해당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가축사육에 따른 인허가 처분현황, 시설 허가현황 및 사유 시설에 따른 피해 허가자의 대응 및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고, 특히 진행여건상 문화적 수요가 부족한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라 하면 생활의 활력소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조성한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상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확충계획과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구역으로 지정한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이 지역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상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대책, 해제, 관리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확대 및 축소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외, 고금, 약산, 금일, 금당면과 해남, 강진, 장흥, 고흥 사이의 해역은 수산동물의 주요 산란장이며 육상오염을 저감시켜주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역입니다. 이러한…… 이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역에 강진만 사내호와 만덕호에서 방류되는 담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

진만 사내호, 만덕호 권역 및 우리 군 해역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문제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는 한시적으로 혁신 일자리 창출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군 또한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일자리 창출 실적과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새로운 사업 발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라남도 시책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섬으로 형성된 우리 군 지리적 여건상 최적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주변 환경을 감안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그리고 본사업과 연계한 주민소득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개발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입장에서 그동안 각종 인프라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서개발 사업지구 대상이 아닌 읍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는지 않았는가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금년부터 도서개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도서개발 대상이 아닌 신지, 고금, 약산 등 3개 면의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고금면에서 완도읍을 자동차로 오다보면 불안하고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읍면별 위험도로 지정현황과 위험도로 개선계획, 그리고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정바다 수도 완도' 선포를 통하여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중요하고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읍면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 회 이범성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군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그동안 저를 6.13 선거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기관인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군민 곁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에 담아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완도사랑 작은 실천과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에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7기 국·내외적 여건은 안정보다도 변화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남북관계와 지방분권이라는 소용돌이와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세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여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전북산업은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손실이 가중되고 있고 가격하락, 소비한계 등으로 양식 이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조류 또한 생산증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제값을 못 받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감소,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경기 침체 등은 우리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263회 임시회에 진행되고 있는 군정 질문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상을 타개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실태파악과 생산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량이 부족해 사람을 입으로만 생각하던 시대에는 인구가 짐이 됐지만 이젠 인구는 짐이 아닌 국력이며, 미래의 희망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이미 인구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써, 최근 10년간 인구 변화추이와 유형별 인구 감소요인, 그동안 추진실적 및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공직지는 공복으로서의 봉사 의무가 있으며 친절은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 덕목으로 행정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자

가치라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완도군 공직자 친절도에 대하여 자체평가는 어느 수준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인센티브와 네거티브 적용 등 시스템에 의한 공직자 친절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빈집현황과 최근 3년간 정비사업 실적 및 정비 후 활용실적과 빈집을 정비하여 귀촌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 65세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30.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땅과 우리들을 지키고 길러 왔고, 이분들이 흘렸던 땀과 정열은 후손인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맞춤형 노인복지 지원현황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및 운영비 확대 지원방안,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여름철 고수온 및 적조에 의한 전북 피해가 2015년도부터 매년 상승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어업인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가적·사회적 손실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수온 및 적조 피해현황과 피해예방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 5월 1일 선포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는 외형적으로는 지역 이미지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내형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영역이 많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선포 이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군민 및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산물 수출 확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개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 수출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 수산물의 미래 차별화 전략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국제인증인 ASC 및 MSC 인증실적과 확대계획 및 ASC 선점에 따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연근해 조업선단의 완도항 입항은 완도읍 지역경제 주요소비원으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업선단 완도항 입항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연근해 어선들의 완도항 유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현황, 그리고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수화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도읍 해변공원, 완도타워, 완도수목원, 청산도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은 우리 군 3대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외부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예산 투입액 및 가을빛 여행 추진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 실적 등 계수화된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안구도와 소안 간을 연결하는 연도교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향후 일정 등 종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완도군의회 의원으로 선출하여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사회적 약자지원과 지

역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군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올 한해는 극심한 가뭄과 최근 우리 지역에 솔리크 콩레이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과 전복, 김 등 수산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복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전복피해가 발생하여 전복양식 어가의 한숨 소리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고, 전복양식으로 잘살아 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을 찾았던 청년들은 태풍·고수온 등 악순환의 연속으로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누구의 잘못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치유되고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강구되어 지역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청년들이 되돌아오는 ‘모두가 잘사는 미래완도’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뭄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제8대 의원을 하면서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은 미비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비록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군민들의 관심사항과 불편사항, 그리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중심으로 이번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 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과 운영 관리상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촌민속전시관을 이전, 통·폐합, 민간 위탁 등 의향은 있는지와 금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완도군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활성화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 보조금 지원내역과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완도군 장애인 단체별 운영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도 법화사지 정밀 발굴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선양사업 종합계획 수립여부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일본, 중국 등 견학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주 골프장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최경주 골프장 조성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후 추진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해정 건물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청해정이 농공단지 내에 신축되어, 이전을 완료하여 2010년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청해정 건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청해정 건물에 대한 재활용방안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완도 초등학교 내에 건립 중인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체육관 준공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과 운영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어민들이 분신하고 있는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완도전복주식회사 설립 근거법령을 포함한 현황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형별 매출실적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최근 2년간 재무재표, 최근 2년간 출자한 어업인 원물구매현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형별 가공제품 및 판매실적,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공품 제고 현황, 1일 현물 제고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일 폐사에 따른 거래처별 처리 및 제고를 포함한 현황,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별, 제품별 수출실적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실채권 발생현황 및 회수계획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완도전복주식회사 설립취지 이행여부와 유통 효율화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전복 양식산업 활성화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전복산업의 종자, 생산, 가공, 유통, 수출현황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전복산업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완도 수산물유통공사 화산산업 출연금 회수에 대한 경위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완도 해양생물 특화단지 관리 및 분양대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완도읍 죽청리 일원에 조성 중인 특화단지 조성현황과 지금까지 유형별 분양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과 향후 농공단지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종합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상 3D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최근 들어 외국이 근로자가 많이 상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외국인 관리주체 및 관리현황과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종사현황, 군민과 융합할 수 있는 정책 등 외국인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읍면별 특색 식단 개발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타시군과 차별화된 읍면별 특색 있는 식단을 개발하여 전국 홍보 및 브랜드화하여 완도군을 찾고, 관광객들이 완도군을 방문하면 꼭 먹고 싶은 대표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읍면별 특색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 식당 현황과 활용 및 관리실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 다도해 일출공원, 해변공원, 빙그레 공원, 신지대교 조망쉼터, 신지·완도 해안경관 등 전 읍면에 아름다운 경관이 많으나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 경관관리 근거법령 및 조례, 경광관리의 주체의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유형별 실태와 개선대책으로 제도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일괄질문을 모두 마

치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 군수 신우철

답변에 앞서서 늘 군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도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7기 군정이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군정을 시작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군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은 적극 개선·보완하면서 완도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시책 발굴·추진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발생되고 있는 지역갈등 요인 및 해소대책부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역갈등 요인 및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역갈등 요인으로서는 변환소와 풍력발전, 태양광, 그리고 돈사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 군에 변환소와 풍력발전, 그리고 기업형 돈사 등과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중의 하나는 우리 군이 연륙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과 입지 요건이 좋아지면서 관련사업 허

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국가의 장려사업으로 많은 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의 지역적 특수성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사업 인허가 신청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검토하는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어 지역갈등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와 자자체간 소통이 부재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사의 경우 사업신청시 행정절차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나 사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인허가 부서별 의제 협의를 통해서 최종 건축허가를 하게 됩니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은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과 대책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계에 연관된 각종 사업을 신청할 시에는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민원 등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뜻을 함께하면서 행정의 중재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지·고금 돈사신청 민원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신지면, 고금면 지역에 신청된 돈사 신청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30일 신지면 동고리 지역과 2017년 12월 13일 고금면 도남리 지역에 이어 올해 2월 6일, 그리고 7월 25일에 신지면 대곡리 지역에 총 6건 2만 6,000여 평방미터의 돈사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금면 도남리 신청 건은 2017년 12월 13일 신청 이후, 3월 6일과 4월 13일에 각각 제1, 2차 완도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8년 4

월 24일에 최종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가과정과 관련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사업주가 제출한 주민동의서와 주민설명회 이행관련 서류에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허가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고 최종 10월 11일, 사업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통보하였습니다. 금후 계획……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주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에 대비해서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허가취소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지면 동고리 신청 건입니다. 2017년 11월 30일에 신청된 본건은 제1, 2차 완도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문제와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부결 처리되었으며, 군에서는 사업주에게 10월 1일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통보를 하였습니다. 본건 또한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지면 대곡리에 허가 신청된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신청 건은 2명의 사업주가 사업대상지간 약 80M 거리를 두고 각각 1건과 3건을 신청하였으며, 산 101번지 일대에 신청한 1건은 제1차 완도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환경오염과 주민사업설명회 등 보완사항 및 문제점이 도출되어 재심의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허가에 대한 적법성, 적정성 검토를 위한 복합민원일괄협의회 개최 등 관련부서 의견 수렴과 관련법령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 92번지 일원에 신청된 3건에 대해서도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우리 군 관련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으며 해당 건 또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서 의견 수렴 및 관련법령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검토 중인 허가신청 건들을 비롯한 향후 우리 지역 이미지와 지역민의 뜻에 반하는 각종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

해서는 우리 완도의 청정이미지와 부합여부는 물론 주민수용성, 공익성, 공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역갈등 요인 및 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도 꼭 말씀하신 답변 내용대로 우리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군수 신우철

그렇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저도 이런 질문을 드릴 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지역에 좋은 일만 있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변환소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책의 집행기관인 완도군과 군수님께서 산자부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변환소 건설에 대하여 의견 및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신우철

예, 변환소 설치문제는 한전에서 산자부의 허가를 득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군은 지역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지역민이 반대한 변환소는 군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그동안에 지난 6.13 선거과정을 통해서 범국민대책위가 구

성이 되었고, 그때마다 나름대로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의, 또는 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뜻에 따라서 지역민이 반대하면 군도 반대하고, 지역민이, 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다시 구성된 만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서 군도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군수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본의회에서도 군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반대성명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반대와 찬성은 별론으로 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갈등의 요인을 해소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서는 저의 의견과 다르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시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신우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군민 모두가 지혜와 중지를 모아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서 지역갈등을 해소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래서 본의원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최근 담양군 같은 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조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공론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군수 신우철

물론 지역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그런 갈등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범국민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변환소 건설사업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다시 구성됐으니만큼 이와 같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합의된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신중히 검토하셔서 지역의 갈등들을 하루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지 풍력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년도 9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 부라는 것은 민원해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쪽 이렇게…… 우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해 오다가 금년 8월말부터 갑자기 이런 민원해결은 하질 않고, 도로를 전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민원해결은 뒷전이 되고 개발행위를 하는지……

(종이를 들며)

제가 이런 그…… 우리 군에서 해줬던 이 확인서도 있습니다.

영상실, 자료 좀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서에 보면 이때 이런 서류를 받을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어요. ‘군에서도 참 지역민의 그 여론을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금년 8월말부터 그 어느도, 누구도 모르게 강독에서부터 동고리 고개까지 일주도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지역민의 민원해결은 뒷전이 되고 개발행위를 하는지. 혹시 군수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신우철

이 사항이 이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한 과정이고, 이제 군에서 이것을 특별히 규제하거나 강제할 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답변서에서도 했던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와 같은 것을 협의할 수 있는, 또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그러면 지금 왜 이 대목이 저희 신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냐면요, 이런 확인서를 받고 주민들은 이 확인서를 믿고 여태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그 의견이 무시당하고 아일랜드라는 사업자는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아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해냈어요. 우리 신지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 아닌가.

왜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느냐, 그동안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만큼 행정과…… 행정이 가운데 서서 아일랜드라는 사업 업체하고 우리 반대추진위원회라면 위원회고, 우리 주민들하고 이런 관계를 좀 연결을 잘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 연구는 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분이 와서 어떤 분들한테도 이 설명회 한번 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도로를 파헤치고.

지금 뭐 평생을 살아온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자 같은 그런 지금 모습들이 되어 있어요.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이런 참 수모를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겪으면서 이게 우리 완도군이 행하고 있는 행정인가, 정말 안타깝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의원이랍시고 저한테 그러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냐?”, “그것도 해결 못하냐?”

저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저도 군수님께 이런 그 질문을 할 때 제 마음인들 가볍겠습니까. 저도 한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그러면 “민원이라는 해결을 해라.” 라고 조건부로 걸었음에도 불

구하고 무시를 하고,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허가를 하고 안 있습니까,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민원해결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군수 신우철

아, 일단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이 돼있고, 1차가 다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중화를 하는데 안심기표라고 할 수 있는 1.2M, 이런 부분하고, 지역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사부분은 군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우리 행정이 필요하냐면요,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그 업체한테 얘기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가운데 역할을 잘해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작년 4월 달만 하더라도 그 게 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종이를 들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확인서에도 작년 7월 달에, 4월…… `17년 4월 10일자입니다. 이럴 때만 해도 우리 지역민들이 아주 행정을 그렇게 믿고 있다가 갑자기 금년에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주민들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야 우리 참…… 담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행정이 나서서 업체와 지역민들 간의 좀 원활한 그런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군수님 생각은……

□ 군수 신우철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안심기표를 지켜 나가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지~고금간 돈사 관련 문제는 이제 충분히 군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지역민들이 행정을 그렇게 못 믿기 시작하다보니까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돈사 부분도, 과연 믿어야 되느냐, 풍력도 이렇게 우리가 못 믿었는데 지금 4개사업소가 있는데 이 해결책을 아까도 잠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금년에…… 저는 3개월 남았습니다, 금년을 넘기려면, 이 3개월 안에 마무리가 잘되어서 내년 `19년도에는 정말 우리 참 완도군민들을 위하여 완도발전을 위한 그런 곳에 우리 그 군과 민이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이런 부분이 마무리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행정은 행정대로 민은 민대로 이렇게 가다보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지역을 관리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불신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4개…… 그 4개 업체에 앞으로 해결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 군수 신우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건에 대해서 불허처분을 했듯이, 우리 다수의 지역민들의 이익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

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인근 진도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와 금년에 진도가 21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완도가 6건인데요, 그중에 진도가 4건의 허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완도에서는 아직까지 허가가 나간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과 비교해서 가장 매끄럽게 처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적극 대응해서 우리 군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지역민들의 갈등이 더 이상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각 실·국에서는 참고하여 민원해결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님, 오늘은 군수님과 군의원으로서 군정 질문답변이며 지금부터 군수님께 질문은 추후도 지적과 탓을…… 또는 인기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질문과정에 서운한 점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변환소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을…… 본의원의 질문을 통해 완도에 난무한 유언비어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의 신뢰를 되찾아 변환소 현안문제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간추려서 네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군에서 군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한전이 우리 완도군민께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변환소 문제와 관련된 군수님의 확고한 생각과 의지를 듣고 싶

다. 네 번째,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한전에 우리 군이 속았고, 이런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 보자면 “제주에서 남은 전력을 완도, 우리 부족한 전력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완도군에 와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군수 신우철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 최정욱 의원

모르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그 회의록…… 우리 군 관계자의 설명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그런 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좀 봤거든요. 그렇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군을 그것도 한전이 와서, 공기업이 그렇게 속이려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것은…… 거기에 대한 속았다고 한다고 하면 책임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군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 군수 신우철

변환소 문제는 변환소라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 남은 전력을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 설명을 제주의 것을 완도로 왔다고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 됐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변환소 문제는 이것은 우리 완도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인 진도나 해남에서도 과거에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환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역민이 반대한 어떠한 것도 우리 군도, 군수도 반대다. 그러나 지역민이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것은 우리도 동참한다.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 저는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 의원들로서 지역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각종…… 약간의 유언비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돌아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군이 그것을 모를 수가 있느냐.”, “한전이 말한 대로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것 뭐가 있지 않겠냐.” 라는 이런 유언비어도……

□ 군수 신우철

한전이 말한 대로 따라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제가 회의록을 그러면 읽어야 되겠네요. 아니, 속기록을.

이제 그 속기록을 보면 정관법 의원님…… 아니, 저기 의장…… 박종연 의장님이 “김갑덕 실장님 설명에 대해 의원 여러 분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법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제주도에서 완도까지 3연계선을 시설해서 제주도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완도에 공급하겠다, 이런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라는 이 내용하고, 우리가 간담회 때 서길수 과장님이었을 거예요. “한번 불러서 그 내용을 해보라.” 라고 그러니까 서길수 과장도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들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 군수 신우철

그것은 한전이 잘못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전이 그렇게 한 대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믿고……

□ 군수 신우철

그렇게 믿고 동참한 적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서길수 의원이…… 아니, 과장이 그때 우

리 간담회 때 와서 대답을 했다가요.

□ 군수 신우철

군의 객관적인 입장을 한전 얘기를 듣고 취한 바는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는 처음에 제주도에서…… 완도에서 제주를 위한 전기가 아닌, 제주에서 완도를 위한 설명으로 알고 우리는 추진을 했다……

□ 군수 신우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변환소 문제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산자부 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군에서 규제하거나 강제할 만한 어떠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고, 이게…… 특히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보면 타지자체의 경우라도 지역민들이 나서서 반대 입장을 확실히 취해주고 이럴 때 군이 힘을 얻어서 주민과 뜻을 같이 해서 결국의 지역의 실익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인근에 아까 말씀 드린 진도나 해남 같은 경우도 5년 단위, 이렇게 걸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제 군수님. 뭐 누차 이야기한 군수님의 의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다만,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만이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또 잘잘못이…… 어떤 사업은 두 번째죠. 어떤 신뢰와 자존심간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꾸 이런 말들이 나와서 본의원은 여론을 듣고 ‘아,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서 마지막에 대안제시를 해보야겠다.’ 는 생각을 가지고한 것입니다……

□ 군수 신우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전이 설명했다고 하면 한전이 잘못됐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한전이 잘못됐죠. 저는 이제 그제일 나쁜 것이죠, 사실은. 우리 군도, 아마 관계자들도 한전이 공기업이니까 와서 말하니까 그대로 들었겠죠. 사실 사기업체가 와서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철저히…… 그냥 대강 넘기지는 않았겠죠. 나도 이것을 이해는 합니다. 공기업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들었겠죠. 원래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오면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맞죠, 우리 군에 와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나는 믿고 갔다고, 나는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나 나 역시도 군의원이 되기 전에 ‘ 과연 어떻게 우리 군이 한전 말 한 마디를 믿고 저렇게 했을까?’ 라는 의문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 군수 신우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전 얘기를 듣고 행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이제……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사과의 어떤 의지는 없네요?

□ 군수 신우철

지금은 우리 지역민들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이런 갈등요인을 해소해 나갈 때입니다. 이제 변환소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선거 때,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풀어먹을 대로 다 풀어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갈등요인을 온 군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에 역량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저도 결론은 그것입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어차피 꼭 못하겠다면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두 번째로 그러면 한전이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와서 우리한테 했어요. 했는데 한전한테 우리가 공개사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을 속였다는 것은 5만 2,000여명의 군민을, 한 마디로 무시한 것과 똑같죠. 군민들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신우철

한전이 그렇게 했다면 한전은 반드시 잘못됐다고 인정해야죠.

□ 최정욱 의원

공개사과를 받아야 되겠죠?

□ 군수 신우철

(고개를 끄덕임)

□ 최정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받아야 우리 군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이 좀 풀어질 것 같습니다. 모두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

□ 군수 신우철

지역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뭐, 그거야 한전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 최정욱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군수님이 주민대책위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듣고 어떤 참고적인 말을 하겠다고 아까 했죠. 그런…… 그 주민대책위에,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 군의 대변인 어떤 결정으로 그렇게 듣고 계신가요?

□ 군수 신우철

지금 25일에 그 부분에서 또 논의가 진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일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표성을 떨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 지역민들의 합의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 결과를 대표성으로 본가요, 아니면 그 단체를 대표성으로 본가요?

□ 군수 신우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반대의견이 없고 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주면 그것을 대표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우리 한전을 받아들이어서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 군수 신우철

전체 뜻이 합의되었다면 저희들도 협력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 지금 단체의 협의를 말하는가요?

□ 군수 신우철

거기서 참여한 군민들의 뜻을 하나로 묶어놨다면 거기에 우리가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군수님, 그러면 우리 주민대표기관이 어디 인가요?

□ 군수 신우철

이 통상 변환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을 군이 나서서 하고, 의회가 나서서 할 사안의 것은 아닙니다. 사례로 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철저히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군과 의회는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실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냉철한 판단 하에서 지역을 위한 일에, 지역민의 합의점을 가져오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 뭐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합시다마는 그쪽에 어떤 결과가 곧 우리 군이 해야 되는 결과로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비칠 수가 있어서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군수 신우철

그래서 지난번에 주관사회단체의 장들까지 참여해서 1차 논의가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럴 때 군에 어떤 참여를 얘기했지만 군은 지역민이 합의점을 이끌어내서 그랬을 때, 군이 그때부터 협력한다. 그리고 지역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결코 반대이기 때문에, 지역민이 이제 뭐 지난 그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로 합의를 이끌어낼 때 그때 군이 적극 협력한다. 이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제 잘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적어도 우리 대표기관은 우리 군의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의회가 반대성명 발표를, 우리가 공동성명 발표를 했죠. 그러면 적어도 대표기관은 군의회라고 봐야 맞겠죠. 의회에서 어떻게 나서도 앞장선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대책위에 공신력이 있는…… 적어도 거기에 결정이 나는 그 부분에 의원들이 거기서 참여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서 하는 결과라고 하면, 또한 어떤 반대세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또 다른 공신력이 없는 단체라고 하면 또 다른 반대가 생겨서 이게 오히려 군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신우철

이제 이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마는 의회에서 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

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군수님.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결론은 “우리 군민이 원하지는 않는다.” 라는 이 말은 변함이 없네요, 지금?

□ 군수 신우철

그렇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제가 그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군수님과 저희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군수님한테 말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군의원은 편해서 그냥…… 항상 주민들과 가까이 대화를 많이 하니까요.

이런 지금 현재 반대대책위는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군민들이 모여들어서 만든 반대대책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대책위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에 생기는 것은, 한 쪽에서는 지금 저게 뭐냐. 어떻게 해서 공개적으로 저기는 발족이 됐느냐. 과연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신뢰를 앞졌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공개사과를 한전에 받잖아요. 왜냐하면 공개사과라는 것은 한전이 우리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공개사과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면 그동안 했던 것은 아니죠. 이제 자기들이 우리한테 속여서 그 진행 과정을 해왔기 때문에, 속이지 않았다면 우리 저…… 입지선정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동참해서 끝까지 안 왔겠죠.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을 믿고 같이 그 11단계까지 오지를 않았겠죠. 자기들이 사기…… 사기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어쨌든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입지선정위

원이나 공무원들도 같이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공개사과를 우리가 받는 취지는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고, 전면백지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자기들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여기 완도에 와서 정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나요. 갖고 와서 군수님과 대화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군과 의회, 사회기관단체, 주민들과 정당하게 공청회를 해서 하면 그 이상 공신력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 군수 신우철

예, 제안은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제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타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의회나 군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거기에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을 때 대단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위원회에 군을……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이 사업을 매끄럽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토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반대…… 공동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지금 어디를 믿고 우리 의회도 누구하고 대화할 상대가…… 주민들한테 솔직히 서질 않아요, 지금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다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맞는 우리들이 공청회도 하고, 해서 하면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일부 반대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공신력 바탕에 조금이라도 덜 민원이…… 더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예)
괜찮겠죠, 그것 어떻습니까?

□ 군수 신우철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이렇다하고 답할 사항은 아니겠고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우리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함께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일이 원만하게 해서 우리 군 좀…… 이런 군민들 간에 서로 반목되지 않는, 그런 것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다음은 6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군정 운영방향과 공약사항 이행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약산간 연륙교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도·연륙사업 중의 하나인 금일~약산간 연륙교사업은 2005년도 신지~금일간 국도13호선 연장 건의를 시발점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우리 군의 숙원사업입니다.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군과 전남도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수십 차례 건의와 방문을 통하여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불어 정치권의 도움을 얻기까지 청와대, 국회, 장·차관 등을 면담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민들께서 국도승격 범군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촉구서명서를 징구하는 등 저희 행정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에서 대규모 소요사업비에 따른 경제성 부족과 SOC사업 축소 방침을 들어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순신 호국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이 현재 광주·전남과 경남발전연구원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고, 전남도 최우선 순위로 국토부에 반영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서 제2안으로 지방도 830호선인 고금에서 고흥 금산까지 42.4 km구간에 대하여 국도 기점 변경을 통하여 국도로 승격시킨 후 단계별로 추진하되, 금일~약산간 1단계 연륙사업을 우선하여 건설하는 방안으로 전남도와 익산청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접근함으로써, 본 연륙교사업이 조기에 실현되어 우리 군 동부권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이고, 완도 500만 관광시대를 열어 가는데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완도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사업으로 도심 관광지 활성화사업과 낙후지역 주거지 정비를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활성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1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군내 2지구 성내리, 남성리, 당산리 주거지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국비 70억 원, 군비 30억 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주차장, 공원, 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77%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사업인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 60억 원으로 완도읍 중앙리 상업지역 내 게이트볼장, 청해시장 일원을 청산도와 완도타워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

성사업은 국비 50억 원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연구용역을 10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공모사업으로 중앙리 중심 도심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반근린형과, 향동리 중심의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거지지원형 두 가지 유형으로 공모하여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산대학교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수산인력 양성을 통해 수산업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수산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국수산대학의 설립 및 FAO세계수산대학 글로벌양식훈련소 개설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건의와 국회에 정책질의 및 한국수산대학 설립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결과 특수대학의 경우, 관련 법률제정이 선행되어야하는 관계로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범정부 교육개혁 차원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로, 신규대학 설립이 탄력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한국수산대학 설립은 대선공약화 등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하여, 관련기관 및 민간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했던 한국수산 대학설립 토론회에서 논의된 대안인, 제3안인 FAO세계수산대학 글로벌양식 훈련소 유치로 공약 이행 주민배심원단 안건으로 상정되어 계획변경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19년도에 개교할 예정인 FAO세계수산대학에 학위과정, 석박사로 별도로 개설되는 3 내지 6개월의 단기훈련 프로그램인 글로벌양식 훈련소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민선7기 군정 운영방향 및 핵심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운영방향입니다. 첫 번째, 미래희망이 있는 성장 동력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전복산업에 대

한 장단기 대책마련과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전계층을 아우르는 사람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화사업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등을 통하여 맞춤형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청정바다 수도 완도 이미지에 맞는 환경친화형 청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선7기 52개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여 군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2016년 12월 30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수립된 공약실천계획서에 의거 공약이행상황 보고회를 마치고 매년 1월 공약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공약 실천계획 대비 세부 이행과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약 이행에 따른 공약이행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매년 1회 이상 운영하여, 군수의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약 추진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공개내용은 공약목록, 이행계획, 이행실적, 공약 평가 및 활동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선7기 핵심전략 추진방향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핵심전략은 미래성장 해양치유, 지속가능 지역경제, 사람 중심 포용복지, 생태중심 문화관광, 가치보전 청정환경의 5개 분야로 추진합니다. 먼저 미래성장 해양치유 분야는 완도의 미래성장 과 완도의 세계화를 목표로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과, 2021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개최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 지역경제 분야는 완도의 지역경제와 기후변화 대비를 목표로 전복사업 활성화 장단기 대책 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센터 운영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람중

심 포용복지 분야는 완도의 맞춤형복지와 지역안전을 목표로 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추진, 군민 안전보험 확대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태중심 문화관광 분야는 완도의 역사문화와 휴양관광을 목표로 원교 이광사 거리조성, 이순신·진린 장군 선양사업 추진,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치보전 청정환경 분야는 완도의 청정환경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신지명사십리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연도·연륙교사업 및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사업 조기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14쪽, 연도별, 재원별 예산확보 및 재원확보대책입니다. 5개 분야 10개 전략 52개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총 사업비는 1조 9,459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비 5,126억 원, 도비 138억, 군비 2,471억 원, 민자 1조 92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확보대책으로는 연도별, 단계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공약별로 사업계획에 의거 중앙부처 방문 등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원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약별 국도비 예산순기 등 시기별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여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민선7기 공약을 100%로 이행한다는 각오로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군정 운영방향과 공약사항 이행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에 대한민국 경제……

경제리더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일~약산 연륙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륙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에 반영하거나, 지방도 830호를 국도로 승격시켜 건설하는 등 2가지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5일마다 국도 승격계획이 마련돼요, 군수님? (예)

지금 2년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안에 우리가 지금 국도가 승격되어야 뭐, 연륙도 할 수 있죠?

□ 군수 신우철

예, 20년에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남도와 협의해서 최우선으로 추진……

□ 박인철 의원

지금 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일~약산 연륙교사업은 우리 군 지역경제와 또 동부권 관광객을 완도로 유치하는 등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SOC사업이기 때문에 민선7기에는 반드시 계획이 확정되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실시설계비라도 확보되기를 기대하는데 군수님, 어떻습니까?

□ 군수 신우철

예, 금년에 지금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도 27호선과 77호선 기점을 변경해서 고금에서 고흥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국도 승격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남해안권 해양관광벨트사업에 도로로 확장이 되면,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연륙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남 완도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특히 총리까지 방문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각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민선6기 공약사항에 완도항에서

신지대교간 입항도로 개설사업이 있었죠, 소요예산 200억 정도 들어가고? (예)

이것이 폐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군수 신우철

아, 그게 10년마다 항만기본계획에 수립되고 5년마다 수정계획에 반영됩니다. 그 2015년도에 수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사실 신지대교는 한계 밖입니다. 그래서 한계 밖에 있기 때문에 수정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2020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금도, 지금…… 신지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과 또 국제항으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그 현지답사팀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일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이 7기 공약사항에…… 이게 지금 좋은 사업이거든요, 7기 공약사항에서 빠져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군수 신우철

이것은 이제 2020년에 항만기본계획에 들어…… 아니, 반영하기 때문에.

□ 박인철 의원

우리가 지금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반영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 군수 신우철

예, 최종 2020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 꼭 군수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수산대학유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수산대학 유치목적은 수산양식 등 전문인력을 불러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또 문화.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 있거든요, 수산대학교 유치는. 공약으로 채택했죠, 군수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수산대학 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이제 양식어업인들도 경영이나 마케팅 등을 알고 내가 CEO라는 인식 하에 어업에 종사해야 만이 양식업 등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때 본공약을 실현하려고 고생하시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수산대학교 건립을 위하여 군수님과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예, 당초에 그 취지는 지금 우리 수산고등학교 출신들이 수산대학 진학률이 낮아서 중앙정부에, 특히 해양수산부에 우리 지역 출신이 50대 중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역인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대단히 큼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시작이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공약이……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임기 내에 실천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을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부수적인 시너지 효과로 얻어낼 수 있는 공약,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수산대학을 들고 나왔을 때는 두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수산대학에서 해양수산부가 없기 때문에 농수산대학으로 해서 농림부 산하로 있습니다. 여기에 수산대학을 떼 오자, 이제 해양수산부가 독립됐으니까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FAO세계수산대학이…… 우리가

지금 가져오겠다고 우리도 갖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완도의 입장은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되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부경대학에서 할 때, 우리 완도에 일정부분 떼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다. 그래서 아까 훈련소 유치, 글로벌양식훈련소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것도 앞으로 과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끌어오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완도캠퍼스에 유치하려고 했죠, 중간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 군수 신우철

예, 그것 유치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그동안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아까같이 제가…… 그 답변 자료에서 나왔듯이 여기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특히 설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대학을 완도에 유치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추진하다 보면 농수산대학에 수산분야를 떼 오는 것과 그다음에 FAO세계수산대학에서 훈련소 유치, 이 두 가지에 부수적인 효과를 얻어내자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정책이 신규대학 설립이라는 당위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수산대학 설립 결의문도 채택하고 또

가장 중요한 어업인, 지역민들로 구성된 수산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위기도 확산하고, 정부나 국회를 방문해서 건의 및 투쟁도 하고 전국수산단체들을 활용한 대정부 압박도 하고, 이렇게 공격적인 유치활동이 있어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전혀 없었죠, 군수님?

□ 군수 신우철

그런 활동을 병행해서 추진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동안 제가 7기 때부터, 7대 때부터 들어와서 용역이…… 수산대학 유치용역이 1억 잡힐 때부터 업무보고나 질문·답변 때 실무담당자한테 계속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이런 것들이 좀 선도적으로 같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전혀 안가고 1차 토론회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 군수 신우철

그러니까 토론회를 유치했을 때도 결국에 FAO세계수산대학 중 글로벌훈련소를 완도에…… 그러면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수산대학뿐만 아니고 우리 군 행정들이…… 군수님이 두 어깨에만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 한 달에 출장을 몇 번 가십니까?

□ 군수 신우철

글쎄요, 몇 회는……

□ 박인철 의원

제가 봐서는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

면 그에 맞게 직원들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안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 군수 신우철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볼 말을 우리 군수님이 먼저 하셨는데, 해결방안으로 FAO세계수산대학 글로벌양식훈련소를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토론회도 했죠, 군수님? (예)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언론 등에서 FAO세계수산대학 설립이 불투명하다고 보도가 되고 세계수산대학은 1919년 7월에 FAO총회에서 최종 승인결정이 되는데, 금방 뭐야, 군수님이 말씀했던 일본이나 중국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 군수 신우철

그게 이제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가져가야되는데 못 가져가니까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반대하는 기류도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 제가 문의했던 바, 세계수산대학은 국내에 수산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아니고, 뭐 새마을운동처럼 개발도상국 어업인들을 위한 상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국가 간 정보공유 또는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목적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이 생각하셨던 수산대학 설립과 세계수산대학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생각했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신우철

목적은 세 가지로 났다면 하나는 지역인재육성도 있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여기에서 지역인재육성은 크게 도움

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떻습니까, 군수님. 수산대학 설립이 어렵다면 전에 군수님이 어디 축사에선가,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전라북도 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양식학부 완도캠퍼스 유치가 더 현실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

□ 군수 신우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약을 추진하면서 어떤 부수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강력히 세계수산대학, 한국수산대학 유치를 우리 완도로 해야 되겠다고 해가면서 그렇게 유도해서…… 스스로 지금 농림부에 가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있는 농수산대학 중에 수산대학을 떼어내는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 대학에 대해서 자꾸 군수님한테 강조를 하나면 대학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구정책이나 문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거든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학유치만큼은 군수님이 남은 기간 동안 꼭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민선7기 운영방향과 이행계획, 예산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 내년도 우리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완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 군수 신우철

골드만삭스나 짐 로저스가 분석한 자료에는 3%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나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은 하락할 것이며 성장률을 2% 중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소비둔화, 금리인상, 소비자물가상승 등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대안을 들어보면 투자활력이 필요하고 고용안정 및 소득증대, 서민생활 안정, 수출리스크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회복이 단기간에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사항이 계속하여 안 좋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공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신우철

그래서 공약사항 중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해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13페이지, 민선7기 핵심전략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행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군수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치를 보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제시했던 5개 핵심전략 중 지속가능 지역경제와 사람중심 포용복지 공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 군수 신우철

우선 지역경제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데에는 뭔가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경제전문가들은 어느 하나도 밝게 전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할 때 우리 군의 생존전략인 해양치유산업을 가장 우선해서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 수산업이 지속될 수도 있고, 농업, 그리고 축산과 더불어

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금년에…… 금년을 비롯해서 내년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은 해양치유산업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군수님, 지금 이 공약별로 보면 미래완도, 성장완도, 복지완도, 감동완도, 청정완도 다 좋거든요. 그러면 군수님, 이 예산영역을 보면 성장완도와 복지완도 영역이 많아 되는데 자료에 보면 미래완도 부분이 5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부분이 성장완도와 복지완도인데, 고작해야 지금 이 도표에 보면 7%밖에 안 됩니다.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완도 공약도 중요하지만 공약별 예산투입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현 경제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군수 신우철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 공약사항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4년 내에 실천 가능한 것,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수립된 것은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전체에 비해서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군수님의 공약을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금방 군수님이 말씀하신 해양헬스케어 중요합니다. 군수님이 자주 축사에서 우리 완도 앞으로 백년먹거리라고 그러는데, 백년먹거리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 투자 같은 것을 성장완

도나 복지완도 쪽에 좀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당장 주민들이, 군민들이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 군수 신우철

(고개 끄덕임)

□ 박인철 의원

제가 예산에 대해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공약사항을 보면 32가지에 필요예산이 1조 9,000…… 4,50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실 것인지 좀 이야기해주시고.

□ 군수 신우철

예, 여기는 장단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실천이 가능한 부분, 또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미래완도를 준비해 나가는데 소요한 예산, 이렇게 구분되어서 전체 액이…… 지금 보면 국비가 5,126억, 도비가 138억, 군비가 2,471억, 민자가 1조 928억인데 대체적으로 민자로 유치되고 있고, 해양치유산업의 경우 지금 우리가 공공센터만 설치가 되면 지금도 투자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민자 유치가 발 빠르게 지원될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가 해양치유만 해도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민자 유치가 7,000억이죠? (예)

공공이 3,000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장 우리가 2021년도에 해조류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군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 군수 신우철

우선……

□ 박인철 의원

아니, 군수님.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내년도 예산에 우리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라도 20억 정도 들어가는, 설계비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 그것 통과가 안 됐죠, 아직?

□ 군수 신우철

예, 지금 이제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가고 있고, 국회로 해서 지금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 가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 군에서 기획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 해서 100대 과제에 됐지만, 지금 4개 선도지자체를 선정해놓고 동일시에 가져가려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 완도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똑같이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장관한테까지 이야기해서, 내년에 우리가 별도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정부예산에 빠져있어서 국회에서 우리가 확보할 테니 반대만 하지 말라고 해서 해수부와 기재부……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수님 관심만큼 우리 해양헬스케어 백년대계라고 하니깐 관심이 많아서 해수부에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해수부에서 답변이 우리가 지금 4개의 지자체가 공모선정이 되었죠? (예)

그래서 그쪽 해수부 담당관 답변이 3개…… 뭐 3개의 공모팀보다 우리가 1년이 빨리 가고, 해수부보다 우리 군이 1년이 빨리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용역이 되어야 예산을 세우지, 예산을 못 세운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군수님, 내년도 예산에 쪽지라도 좋으니까 20억 꼭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라도 되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 그 전임군수 시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군수와 의회도 관계없이 같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물론 군수님이 동분서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 군수 신우철

아……

□ 박인철 의원

제가 말씀하고요, 답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의 의장님과 같이 중앙부처도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군수 신우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언제든지 저는 좋습니다. 동행할 수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꼭 좀 다음부터라도, 다른 것들은 몰라도 예산확보에서 만큼은 집행부와 군이 따로 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 군수 신우철

그것은 좋은 제안입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다음은 15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순신 호국관광벨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삼도수군통제영이었던 묘당도 유적지와 임진·정유재란 승리의 원동력인 가리포진을 관광자원화하고, 2017년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대학교 강연과 2014년 7월 4일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언급한 한·중 우호 협력사업의 일환인 이순신·진린 장군 선양사업을 통해 사드문제로 냉각되어 있는 한중 관계를 개선하여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당도 이 충무공 유적 관광객은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고금 충무사를 경유해서 인근 완도, 신지, 보길 등의 관광지로 관광객이 유입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16쪽, 사업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묘당도 이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서 2020년까지 4년간 관왕묘 재건, 정유재란 테마전시관, 동상 건립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에 묘당도 이 충무공 기념공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7월에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개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9년도 군특사업비 10억 원이 확정되어서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까지 관왕묘 정전 건축공사, 테마전시관 건립을 마무리하고 2020년까지 이순신, 진린, 민중, 수군테마 동상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순신·진린 장군 선양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해남도 역사공원, 선소와 사우, 체험거리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까지 고금 덕동리 일원을 발굴·조사하였고, 올해 9월까지 해남도 일원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18년 12월까지 해남도 일원 문화재 시·발굴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 타당성 기본계획용역,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22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묘당도 이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단계 확대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가리포진 복원 및 세계해양영웅 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7월까지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문화재 시·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토지매입과 도지정 문화재 등록, 그리고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완도군 동부권 관광활성화사업 연계방안입니다. 장보고대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동부권역과 완도권역을 하나로 묶는 완도 여행상품 통합 투어패스 개발을 추진하고 생일도 가고 싶은 섬, 약산 동백 치유숲, 고금 충무사, 장보고대교, 장보고기념관, 완도타워와 완도수목원을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완도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파워블로거나 여행작가 등을 초청한 팸투어를 수시로 실시를 해서 관광지와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순신 호국관광벨트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2020년도까지 총 공사비 85억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균특예산에 1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75억은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군수 신우철

지금 현재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금액이 85억인데, 이것은 금년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우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우선 내년에 지금 10억 확보되고 75억은 2020년도에 확보해서 2020년도에 공사가……지금 마무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군수 신우철

예, `20년까지 완공목표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 김양훈 의원

예산확보를 잘 해주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게끔 좀 해주십시오. 사업기간상 좀 늦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예산확보가 문제겠죠.

그리고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한 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군수 신우철

예, 지금 이제 그 이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85억 원이 균특 50억, 국비 50%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은 지난 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에 가서 연설한 후에 우리가 발 빠르게 모 신문에다가 게재를…… 연재를 하고 이것을 청와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바로 문화재청을 방문하고, 문화체육부를 방문해서 이순신, 진린 선양사업을 300억짜리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묘당도 이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 이 사업이 연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점에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가리포진 (청취불능)

□ 김양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말씀……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그 위에서 얘기를 좀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공약사업에서 배제됐다. 이런 얘기가 좀 흐릿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직 공약사업에 계속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군수 신우철

이것은 이제 이 충무공 호국관광벨트사업이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에서 연설할 때…… 이순신 장군과 진린장군,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나타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경대학에서 연설할 때도 한중 우호협력관계로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의 선양사업이 완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실시되고 있다. 이것을 언급하셔서 바로 뒤따라서 문화재청하고 문화체육부를 방문해서 이것이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쪽 밀어붙여서 300억 사업으로 키우는데 이게 그 같은 부처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 85억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바로 연달아서 합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양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지역 그 관광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 군수 신우철

우리 지역 관광여건은 해양치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좋은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유네스코 해양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리고 신지명사십리 블루플래그. 그리고 명승지정 등과 같이 해양치유산업에 도움 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완도의 관광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4년에 광주~완도간 성전까지 준공이 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발 빠른 얘기는 됩니까마는 그보다 더 나은 교통편이 우리 완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엿보고 있어서 완도의 관광산업은 굉장히 활기를 띠는 것이다. 이런 전망을……

□ 김양훈 의원

본의원이 냉정히 판단할 때 그 자연경관 자원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물자원을 활용한 관광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신우철

예, 우리 지역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이 장보고, 이순신, 또 그외에도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인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변환경과 맞물려가고, 또 특히나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에 연계하는 사업과 그리고 장보고유적지를 지금 우리가 쪽 발굴해가고 있고, 그다음에 법화사터 발굴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서 동북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고 싶은 섬에서 약산의 동백치유숲, 고금의 이 충무공, 장보고대교를 거쳐서 해양치유산업, 그다음에 완도의 랜드마크인 타워, 그리고 장보고기념관, 그리고 수목원, 그리고 정도리, 그리고 남산면 일대와 소안도 부지로 연결되는 이 관광지역, 청산과 연결되고…… 대단히 앞으로 각광받는 그런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홍길동, 바보온달, 효녀심청. 그 설화 속, 전부다 얘기를 아십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도 관광자원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있는 분들, 역사에 있었던 분들. 장보고나 이순신, 윤선도 이런 역사의 인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용도가 좀 많이 낮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도 있게 관광자원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에 취약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역사인물 속으로 관광자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이순신 문화자원 중, 총 조사하고 선양 활용방안, 그 용역을 순천대학교를 박물관에서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용역은 전라남도가 이순신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주요 근거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이순신 장군 관련 문화유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논란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금도에 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그 수군 재건로, 고금도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보면 제가 간단히 메모를 좀 해왔는데요. 거기는 이순신이라고 등록은 안 되어있고요. “순신이 진인과 더불어 연회하려고 하는데 적이 습격하여 보고…… 습격한다는 것을 보고 들으

면서 제장이 군사를 정돈해 대기하게 해가지고 적선을 이순신이 스스로 나가서 수군 50척을 확보로 물리쳤다.” 라고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제사 이순신은 적병을 강진에…… 강진은 옛날에 고금도가 강진이 아니겠습니까. 강진에서 고금, 강진…… 고금도에서 크게 격파를 했다고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앞전 세미나, 학술을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신우철

아,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고금에 충무사가 있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고금뿐만 아니고 금당도 근처에서도 벌어진, 그 절이도 해전이라는…… 뭐 있는데 그 날짜가 법령과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절이도 해전으로 (청취불능) 되거나 전쟁이 없었던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리다 보니까 삼두수군 통제용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자연스럽게 고금도 해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 알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금도 해전에 대한 기록을 잘 파악해서 완도에서 이순신의 역사, 정유재란의 역사를 잘 알리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신우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완도군에서 고금해전기록도 발굴하

기 위한 학술세미나, 이렇게 좀 추진을 해 가지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이순신 수군 재건로에 당당히 고금도의 이름을 좀 올려놓았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재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고금면에 시설 중인 이 충무공 기념공원과 이순신, 진린 장군 선양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동사업들은 역사성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했을 시, 이곳을 찾는 이들은 전혀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 특산품, 이런 것 모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경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본사업과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의 생각은……

□ 군수 신우철

예, 당연히 이 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이순신, 진린 장군 선양사업. 이것이 진행되면 지역경제를 고려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거기에 선행될 것으로……

□ 김양훈 의원

지역경제…… 관광객들도 많이 와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이 충무공에 들어가서 보면 한 10분 돌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와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10분 정도 보면 볼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냥 핑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진입로가 없습니다. 관광버스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폭이 좁아서.

그래서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로 관광지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통문제도 같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예, 거기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다음은 동부권 관광화,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도군에서 관광부분과 관련하여서 가장 뒤떨어진 권역이 동부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관광객들 이동편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동부권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동부권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수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 군수 신우철

앞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부권의 관광산업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특히나 해양치유산업과 관련해서는 금일 동백해수욕장을 대단히 좋은 적지로 체험…… 적지로 판단을 합니다. 거기다가 생일도에 가고 싶은 섬이 되어 있고, 약산에 건너오면서 바로 동백치유숲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에도 그 치유체험센터가 일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이 충무공 유적지가 있는 곳에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그 다음에 이순신, 진린 선양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된다면 이것이 가장 또 많은 관광객 모여들 수 있는 좋은 관광지가 될 것이고, 또 병행해서 장보고대교를 거쳐서 해양치유산업의 센터인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는 신지명사십리가 있고, 그리고 완도로 건너오면 완도타워인 다도해일출공원, 이것도 지금 계획이 50억 원으로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1차적으로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해변공원을 경유해서 장보고기념관. 그리고 또 국내 최대의 난대림자생지인 수목원. 그리고 우리 정도리, 군외 등. 그리고 이어서 청산과 그다음에 보길도, 노화, 소안 가고 싶은 섬. 이렇게 연결된다면 정말 완도는 앞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 김양훈 의원

이제 동부권 주민들은 지금 동부권은 관광지
가 전혀 없다. 지금 보면 신지같은 경
우…… 아니, 생일 같은 경우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막상 그 관광객
들이 들어오서 가지고 갈 데가 없다고 합니
다, 먹을거리도 없고, 지금 막상 생일도에
가면 생일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잘나오고 있
었는데, 관광객들은 와서 뭐라고 하나면 특
산품도 먹을 것이 없다보니까 “배고픈 섬이
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
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이렇게 해주시고요,
배고픈 섬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

또 교통문제도 버스, 이렇게 철부선으로
가다보니까 교통문제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
팀 먼저 가고 또 한 팀가고, 또 버스는 못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점
이 참 많다고 관광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방송실, 사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저 유람선 보셨습니까?

□ 군수 신우철

어디 유람선입니까?

□ 김양훈 의원

저게 지금 고흥에서 금당팔경을 돌아다니
는 유람선입니다. 고흥 것인데요, 제가 가서
그…… 저것을 보고 참 어쩔 때는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참 기분 안 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금당팔경 그러
면 그래도 알아주는 경관 아닙니까. 그런데
금당팔경은 육지에서는 관람을 할 수가 없습
니다, 관광을 할 수가 없고, 해상으로만 해
야 되는데, 고흥 분들이 저 배로 유람선을
 띄워서 우리 완도 관광자원을 가지고 고흥
사람들이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은 군수님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
번……

□ 군수 신우철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해양치유산업이 진행되면서는 반드시
유람선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해양
치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의료, 관광, 바이
오가 같이 이제 융합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유람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양훈 의원

꼭 그 금당팔경만이 아니고 완도는 유람선
을 띄워서 이렇게 한 4~5시간 정도 코스가,
참 좋은 코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신경써
가지고 이렇게 진짜 완도 관광지를 관광객들
에게 잘 알려져서 “완도가 진짜 관광지다.”
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부권 관광활성화 대책도 많
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도 해주십시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이범성 의원

먼저 1시간20분 동안 서있다는 것이 참
힘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군수님, 고생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
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서계십
시오.

제가 조금…… 우리 김양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
금 강진에 밀려드는 관광객들이 고금을 통해
서, 신지를 통해서 완도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교 이
광사 거리 조성이 지금 이미 군수님의 정책
이랄까, 여러 가지 예산이랄까, 그런 부분들
에 잡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그런 그…… 지금 계획이랄까,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 군수 신우철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은 이미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계획수립이 되어서 이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해양치유산업이 진행되면서 장보고대교가 개통되었고 고금대교가 개통되어서 실제 완도를, 특히 청산을 찾는 60%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볼 때, 지금도 그 치유산업에 대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들이 참여도 하고 있고, 그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병행해서 같이 완도를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우리 완도군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한 치의 그런 우리…… 농침이 없이 연계과정을 우리 군수님이 계속강조하고 있는데, 그 연계과정을 꼭 우리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이 잘 성실히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다음은 19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민속전시관 운영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완도읍 화흥포에 연면적 1만 1,000여평 방미터에 국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65억 원의 사업비로 2002년 5월 17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일반직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시물 현황으로는 어류박제 246종, 패류

1,701종, 어구 47종 등 총 3,390여종을 보유·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현황으로는 2002년 개관하여서 2018년 10월 현재까지 유료 총 59만 1,32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3,400여종의 전시물을 보유한 어민들의 생활상을 전시해놓은 좋은 소재의 어촌민속 전시관이지만, 접근성과 전시물 위주의 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유로 인해서 관광객 방문이 적어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김 뜨기 체험 등 어민의 체험활동이 포함된 동적인 시스템을 병행해서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추후 해조류박람회와 연계해서 해조류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물관 건립이 추진될 시에 조직의 통·폐합 계획을 검토하는 등 질 좋은 전시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민속전시관 운영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군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오랫동안 서서 이렇게 하게 해서.

답변 내용 중에 현재 어촌민속전시관은 단순히 정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 활성화할 수…… 하도록 유도하고, 추후 해조류박물관 건립 계획수립시 통폐합계획을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예,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에 3,400여종이 전시가 되지만 전시관의 기능이 어촌민속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주로 박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민들의 삶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단히 값있는 전시물이기도 합니다마는 요즘에는 뭔가 반드시 볼거리와 더불어서 체험거리, 또는 즐길 거리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촌민속전시관이 태동할 때부터 그런 한계점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곳에 접근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체험활동을 결들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지만 앞으로 지금 해조류박물관을…… 어차피 해조류박람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될 때는 그런 상설전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박람회가 끝나고 철거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 그래서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것은, 이른바 킬러 콘텐츠는 재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으로 되어 있고, 생태체험관으로 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해조류박물관, 이것은 가칭입니다. 또는 수산역사관,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해조류박물관으로 가져가는…… 이럴 때 여기서는 진귀한 전시품들은 그런 해조류박물관이 됐든 수산역사관이 됐든 옮겨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은 별도의 활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도 어촌민속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에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여러 가지 전시회 개최를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것,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또한 제가 7월에 한번 토요일, 그것도 제

일 많을 때 3시쯤에 갑자기 제가 방문을 한번 했었고, 또 얼마 전에 9월말쯤인가, 아마 그때 7월초인가 제가 또 한 번 토요일날 오후 2~3시쯤에 갔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단 한 명도 우리 관광객을 그 시간대에…… 토요일과 오후 2시~3시쯤에 제일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없는 것을 보고…… 물론 저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전시물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인근시설과 통폐합 관리하는 것이라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 군수 신우철

아, 저기에 제가……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들을 보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지금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에서 저것을 전부 다 소화할 만한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은 해조류박물관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전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잠시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본의원이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장섬과 타워에 지금까지 그 우리 관광지로써 갖춰진, 어느 정도 기본 구축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타워를 한번 가봤어요. 정말 거기에 가서 보고 예전 타워에다가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도 좋고, ‘아, 참 잘됐구나.’ 라고 우리도 스스로 모르게 그런 것을 좀 느꼈는데, 사실 그러면서 모든, 누구나 아마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느낌은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섬에서 지금 동상까지 이렇게 보면 군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또한 주민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뭔가 아쉬운 점이 많

다. 뭔가 와도 특별하게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것이 아직 없고 뭔가가 부족하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저기서 이 타워와, 중심에 어촌민속전시관이…… 지금 있는 제품과, 우리가 지금 해조류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완도에 해산물을 많이 알리다시피…… 실질적인 체험관을 할 수 있으면 조형물을 통한 생생한,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것과 접목을 해서 전시관 건립을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포인트라서 옆에 시너지 효과도 같이 누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군수 신우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는 장보고 선양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법화사 발굴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그리고 지금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수상자들에 대한 거기에 이제 쪽…… 그들의 공적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저 공간도 부족할 사항이 되어서, 별도로 지금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전시품들은 해조류박물관을 건립해서 별도의 장소에다가 전시하는 것이, 그게 두 번 일을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인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까?

□ 군수 신우철

음……

(웃음)

지금 장소를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어촌민속전시관에 예산 투입되는 것이요, 1년에 3억 한 5,000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7명이 근무를 하면, 적어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한…… 최하 6~7억에서 10억 원까지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저 혼자 추측입니다만 그런 예산이 아무 효과 없이 또 우리가 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어떤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저기는 예전 김종식 군수 때부터도 주민 여론이 들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십 년을, 몇 년을 끌어오면 그 예산 자체가 다 낭비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굳이 그 낭비를, 소요를, 낭비하면서 가야될까. 안 그러면 그 1년에 10억이라고 가정할 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새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내년에 구입할 수 있는 돈도 될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우리 7명이라는 직원들이 정말 옮길 자리에 거기를 연구하고 그런 것을 할 때 이럴 때 힘을 쏟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은 어떠십니까?

□ 군수 신우철

예, 어촌민속전시관은 2002년에 개관해서…… 2002년에 개관해서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와 같은 접근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해조류박물관을 건립하는 데는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그리고 반드시 다른 어떤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접근성으로 보거든요. 저기다가는 솔직히 단 1원도 저는 아깝다고…… 본의원은 예산 자체가 참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이런 애물단지가 안 되어야죠. 이런 것들이……

하여튼 군수님, 좋은 자리에 해서 이 전시관을 해서 우리의 어떤…… 저것을 중요하

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보면 자료가 중요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새로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조형물이라든가, 또 거기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해서, 아마 저는 좋은 볼거리가 안 될까.

우리 완도에 지금 보면 먹을거리는 되어 있고 또 즐길 거리가 타워에 가보니까 ‘아, 일부분 즐길 거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가, 볼거리가 하나 완도읍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저 그림과 같이 장섬에서 저는 접근성이, 타워 중간에 어디인가 있다면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6시10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 부군수 박현식

예, 부군수 박현식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을 먹어서 넥타이를 해야 되나, 열이 좀 많이 나오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분뇨처리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완도군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실시하게 됩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게 되고, 그 안에 분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발굴이 되면 것을 정화조를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완벽하게 분류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정화조를 놔두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빠진 도서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정화조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건물, 1톤 이상의 신규건축물을 짓게 된다면 하수처리구역 밖의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하게 되고, 1톤 미만의 경우에는 개인정화조를 묻게 되는 그런 형태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도서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 그 분뇨처리장이 분뇨차가 가다 보면 좁아서, 그리고 양이 적어서 좀 수도가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으로 도서지역에 있는, 그리고 좀 큰 데 말고 조그마한 데에 있는 소규모 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차량을 이용하는데 조금 주민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수거하는 그런 방향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의 처리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

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여기에는 행사라고 해 났었습니다마는 선거철에 유니폼을 입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그날 상당히 일기가 안 좋았어요. 뒤에 이렇게 유니폼을 안 입었더라면 이렇게 객실에 대강 누워도 괜찮는데, 유니폼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남의 눈이 있어서, 이제 뒤쪽에 서있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물질이 떠오, 처음에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관광객들이 날 쫓아오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리로 와서 봐라.”

(웃음)

황당해 가지고 말을 못하고 참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해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일기가 안 좋아서 아마 배가 이렇게 많이 뒤통거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제 나름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제가 기회가 돼서 입성을 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라. 그렇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관광객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론을 안 한다면 안 되는 제 입장이 되어서…… 참 좋지 않은 이렇게 분노를 들먹여서 굉장히 제 스스로도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 예도 있구먼요. 그 녹동항에서 제주항으로 가다가 분노를 이렇게…… 분노처리를 가동하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 2톤 정도를 바다에 배출하다가 이렇게 기소된, 그

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배는 어디서 이렇게 오폐수를 관리 합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분뇨처리 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그 안에 기본적으로 최대승선 인원의 저장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과거의 양하고 또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일 경우에는, 거의 이제 비수익노선일 경우에는 양이 차면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우리 분뇨처리장에 의해서 분뇨처리장으로 옮기면 되는데 아까 저기 사후도라든가 이 조그마한데…… 비수익노선은 사실은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깜빡 잊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총톤수가 400톤 이상인 선박이나, 이런 선박에 대해서도 일정규정이 있네요. 뭐 분뇨처리장치에 대해서도, 뭐 마쇄장치도 있고 탱크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객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관리를 합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한 법률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오분법은 시장·군수가 일단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객선이 우리 관할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면 일단 저희들이 (청취불능) 되고.

다만, 이제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거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이제 제주도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이제 그 관내 여객선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나…… 관내역이나 그 대책,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만약에 다음에 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관광객들 눈에 띈다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그 조그마한 섬에, 도서지역에 있다 보면 공동으로…… 사실은 개별로 분노차량을 부를 경우에는 상당히 도선료부터 처리료 이런 부분이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공동으로 이렇게 하루 빌려서 임차라든가 주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는 아까 여객선이 있는데 수익노선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처리하게 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조례에, 아까 의원님들이 한번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면 저희들이 조례로 한번 제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 정화조 자체가 사실은 그것도 나름대로 처리시설이거든요,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현기성 분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양을 줄이는 그런 방식인데, 그 양이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이 오다보면 현기성 분해가 안 되고 그냥 초과해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조례제정을 할 때, 아니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할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박도 선박인데 이제 제가…… 그 또 한 가지는 정화조 설치를 하기는 했어요, 눈에

띄는 것이, 정화조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보면 나라도 거기는 두 번 다시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 한번 이렇게…… 지역을 둘러보시고 실태조사를 잘해서 현황과 악을 잘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꼭 해서 관광객들 눈에는 이게 안 띄어야 됩니다.

꼭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저도 그것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낙후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조례라든가 이런 대책을 마련하려면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선박에 정화조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실태를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부군수님 말씀 중에 소규모 작은 섬마을들은 그렇게 공동으로 한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 혹시 그 쪽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더라도 “아, 이런 처리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굉장히 믿음이 가게끔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그것은 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그런 부분은 협조해야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7기 완도군 인사운영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완도군 인사운영 방침입니다. 자료에 났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는 원칙 중심의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인사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지금 최근에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육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기피 부서 우대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과 성과도 고려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100% 완벽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완벽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직렬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현재 정원은 695명이고 현원은 656명으로 결원이 39명입니다. 결원 수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별도 정원이 42명입니다. 이중 육아휴직 32명, 병역휴직, 일반휴직, 장기교육, 가사휴직 등이 있으며, 직렬별 정원 현황도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의회, 정·현원 현황 등입니다마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결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저희 인원 결원 해소를 위해서 전라남도에 22개 직렬 62명을 공개채용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37명이 채용되어서 아직도 25명이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라남도와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기술 직렬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와의 협의를 하고, 특히 최근에

기술직렬 쪽에서 자격제한이 지금 많이 풀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자격증이 없어도…… 아니, 옛날에는 자격 가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규제가 없어지면서 조금 기술직렬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신규채용계획에 반영해서 결원을 해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6급 직렬별 팀장 현황 및 직렬 불부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직렬별 팀장은 147명입니다. 이중 행정직군이 64%, 나머지 기술직군이 36%입니다.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복수직렬을 만들어서 조직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시작은 환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98년에 시작을 해서 딱 공무원 생활 한 급 승진하는 데까지 지금까지 한 급 승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업무를 하면서 관리자로써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환경부의 경우에는 아예 기술직군이냐 행정직군이 뽑을 때만 그렇게 뽑지, 아예 그냥 다 풀어버립니다. 일부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이 맞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급 무보직 현황 및 해소대책입니다. 현재 무보직자는 행정 10명을 포함해서 총 54명입니다. 무보직에 대해서는 증가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11년이 지나면 거의 대상자가 되고, 또한 조직에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기여도라든가 고려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해소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적체현상을 고민하겠습니다. 무보직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부처의 경우를 설명 드리면,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무관이 중앙부

처의 실무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팀장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있고 무보직 6급도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바로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군에 예기치 않은, 아니면 굉장히 그 기존 조직에서 구할 수 없는…… 굉장히 특수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유통, 도시계획 등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일반직 공채에서는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임기제로 해서 전문직 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일반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버섯연구사라든가 해양치유산업전문가 등 일반 임기제를 채용할 계획이면서 이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워크숍 추진과 멘토와 멘티 결연을 하고 조직적응에 많은 도움을 줘서 최대한 성과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완도군 인사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민선7기가 시작되었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성과 분석하셨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 이제…… 바로 이제 되어가지고 한 달, 두 달…… 두 달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일단은…… 바로 그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의 성과가 나온다, 이런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가 8대 의회가 되어 가지고,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가지고 결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도 결원이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 결원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부군수님 하고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님이 100% 충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설명은 지금 20…… 몇 명입니까, 결원이? 39명에 대한 이 결원을 지금 부군수님 답변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이 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지금 최종적으로 인사…… 저희가 발령한 것이 9월 4일자입니다. 조직개편은 9월 초에 됐고.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내가 누누이 물어봤습니다. 과가 늘어나고 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 육아휴직이나 병가, 이런 결원이 있는데, 이러하면 결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100% 충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결원이 39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저기…… 이 답변서에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요, 부군수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완도의 특수성…… 완도, 그다음에 진도, 신안에 대한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결원만큼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을 제외한 부분은 좀 아쉽게도 이렇게 과락이 나와서, 특히 기술계통에 계시는……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 결원들이 전부다 그럼 기술직 직렬들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그렇습니다. 아니, 결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서 떨어진……

□ 박인철 의원

아니, 지금 시험에서 합격 65명을…… 62명을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했는데 37명밖에 합격이 안 되어 가지고 나머지 결원이 지금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지금 인사 이후에 병가나 이런 것을 내서 그러면 그때 조직개편할 때는 이것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냥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때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님,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님.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를 하면서 그때도 좀 많이 휴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휴직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라든가, 그러면 아니면 육아…… 서로 육아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심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인사 이후에 사실은 휴직계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저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인사 이후 인사 불만으로 병가나 사표내신 분 있으십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인사 불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표, 그러니까 내가 무

슨 일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사표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사표 수리는 했습니까, 아니면 병가 조치시켰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사표 수리한 분도 있고 병가 조치한 분도 있고……

□ 박인철 의원

그 합당하게 했습니까? 사표야 뭐 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병에 맞게끔 합당한 병가조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기 어려우니까 병가 조치로 해놓은 것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사표는 굉장히 그……

□ 박인철 의원

사표를 쓴 사람은 말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 부군수 박현식

병가를 내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그 근거를…… 임의로 우리가 휴가를 댄다, 휴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병가증명서를 냅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시중에 흥흥한 소문이 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알고 인사권자인 인사위원장으로서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사표를 냈으면 사표 수리하면 되지. 그것을 또 병가 조치해가지고 병적…… 떼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 없는 (청취불능) 어디에 있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지금 사표를 공식으로 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이제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결원이 내년도까지 가겠네요. 내년 공무원 시험이 4월…… 매년 4월에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공무원…… 매년 5월에 있습니까, 공무원 시험이?

□ 부군수 박현식

공무원 시험은 제가 한번 구체적인 날짜까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매년……

□ 박인철 의원

통상적으로 5~6월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결원이 그러면 그때까지 가겠네요. 또 여기서 육아휴직이나 뭐 나오면 더 생기겠네요?

□ 부군수 박현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임기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인사부서하고, 그 도 인사부서하고 좀 저희들이 공존하려고 합니다. 이게 완도만의, 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완도, 진도, 신안, 이쪽 부군은 저희와 공통된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 기술직이나 이런 경우는 영어를 좀 전공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대처하고, 후보자를 내년에는 좀 뽑아놓고 빠지거나 하면 그 후보자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도저히, 뭐 시험은 봐놨는데 매년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공동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조직이 이장님을 뺀 읍면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읍면…… 각 읍면마다 다 결원이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 물론 본청에도 결원이 있습니까마는 읍면에는 근무특성상, 또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많죠?

□ 부군수 박현식

그것은……

□ 박인철 의원

항상 보면 읍면에다가 결원을 두는데 차라리 본청에 결원을 두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인원을 읍면에 충원시켜주고?

□ 부군수 박현식

지금 보시면 이제 읍면하고 또 과마다 결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둘 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3개 시군이 연합을 해서…… 일단은 기술직의 경우에는 영어를 빼고 전공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후보자를 놓고 후보자 순위로 면접을 봐서 이렇게 바로 임용하는 방안을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군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자꾸 기술직렬, 기술직렬 그러는데,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복수직렬이 안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직이라도 더 많은 채용을 해 가지고 좀 메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부군수님,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 조직기구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지금 원장 밑에 과장이 있고 8개 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보건의료원은요, 1과…… 원장님하고 1과, 7팀, 11개지소, 18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전체공무원이 190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직이 방대한 조직이죠?

□ 부군수 박현식

예, 이번에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분과로 해서 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몇 개 과를 최소화하고 팀을 최소화하자고 해서 이번에는 과를 안 만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적정관리인력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떻습니까, 다음 내년도 인사 때 이 계를…… 보건의료원을 2개 부서로 개편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꼭 이것을 가급적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피해는, 보건의료원은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완도지역특성상 건강,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꼭 2개의 부서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채용인프라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타 시군들에서는 체육시설만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를 신설하고 설치하고 있던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이 부분은 뭐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의 생각이요.

□ 부군수 박현식

제 생각,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체육사업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도서관에 대한 도서관장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하나의 팀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화생활공간이면서 중요한 핵심공간인데, 사실 팀으로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너무 체육시설이 많다보니까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도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도서관도 좀 분리를 해서, 잘 관리되고 문화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부군수님, 그 우리가 장보고사업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거의 중복이죠, 성격이?

□ 부군수 박현식

지금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장보고사업소에서 하고, 장보고는 장보고사업소에서 또 이순신, 진린,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뭐 용역심의를 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던 것이 또 환경산림과로 가있고, 또 문화체육과 TF팀이 만들어져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도 환경산림과 기후변화로 가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환경산림과가 힘이 약해서 거기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중요한 사업이 아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기후변화하고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기존에 저희가 TF팀이 있는데 TF팀은 항상 한시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은 TF팀을 이번에는 거의 없애고 이번에는 통합을 시키는 과정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해서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 환경부에서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부로 옮겼는데……

지금 우리 계를 이번에 많이 못 만들어서 사실은 제가 환경산림과에다가 자연환경계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요즘 자연환경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면 4개 계가 되어 버려서 계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후변화팀에다가 넣을 수밖에……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부군수님, 우리 조직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됐다. 그런 것이 단점이에요, 지금 목포시도 보니까 이제야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더군요, 그렇게 큰 데에서도.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전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유네스코 예산용역 8,000만 원 해가지고 그 용역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는 모르겠습니 다마는 진행이 된 사항이에요, 거기서 사업 이.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기획부서에서 그 사업…… 나중에 사업을 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 조직이든지.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업무를 주게 되면 사실 혼란이 생깁니다, 그 앞의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 잡자고 해서 지금 그런 것이……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잘 알았고요, 부군수님.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됐으니까 내년 도 인사에는 계를, 한 계를 만들…… 지금 무보직 직렬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 계를, 한 팀을 만들더라도……

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의 군수님 핵심공약사항에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한 팀을 만드십시오, 그리 하면…… 그렇게 중요하면.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번에 의회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 부군수 박현식

그리고 전문직도…… 저희가 굉장히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문직도 일반임기제로 전문직을 한번 같이 고려해서, 이 부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체육 인프라 시설이 늘어나니까 체육……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체육사업소를 신설하고 업무가 유사한 장보고사업소하고 문화체육과는 통폐합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민선7기 조직개편 때 인사를 단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금번 인사가 잘된 인사입니까, 잘못된 인사입니까?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 그런 말은 좀 꺼려집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느 조직이고 아마 인사가 잘됐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부군수님한테

하나면, 물론 인사는 만사라고.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잘못됐고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 인사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우리 군 전라남도 종합감사시 징계처분요구자는 총 몇 명이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일단 그전에 지금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전에 사실 우리 상반기 인사, 하반기 인사는 1월이랑 7월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반기에 인사예고는, 1차 국·단장 인사는 8월 9일에 하고, 2차는 8월 13일에 저희들이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불가피하게 지금 고금의 돈사문제 때문에 너무 군에 (청취불능) 많아서 인사를 하게 되면 저것 대응이 안 된다. 내부방침에 의해서 한 달간 정도 인사를 연기한 부분이 있고요.

전라남도 종합감사는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통보는 8월 23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사 대상자 분들이, 몇 분이 공무원 징계업무 규정에 따라 가지고……

□ 박인철 의원

아니, 부군수님. 그런 자세한 사정은 알겠고요.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통과 안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인사를 못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시중에. 공무원사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 맞지 않는 조직개편이지만 한번 해보자고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인사…… 국·단장 인사를 하고 인사예고도 뗐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도 이제야 알겠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사를 부군수님 말씀처럼 거의 3주 이상 미뤘습니다. 이래 가지고 인사를 미루다보니까 도 감사에서 적발된 그런 분들이 나왔단, 이 말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아, 그 부분은……

□ 박인철 의원

공무원 임용 제32조를 보면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자는 승진될 수 없다고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 부군수 박현식

아……

□ 박인철 의원

잠깐만요, 전라남도 징계처분요구가 왔고. 이미 인사 시즌까지 예고를 했는데 조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적감경을 불문경고한 후 승진시켰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저는 일단은 그 징계처분요구서는 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일단 먼저 심사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몇 분들 중에서 승진 대상자가 있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팀장급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이제 팀장으로 책임을 지면서 그것을 받아드리고 가지고 수용을 하고. 직원들한테 어떤 분들은 직원들은 놔두고 팀장님이 직접 확인서를 쓰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는데.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 중에 대부분은 실제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더 그때 도 감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 저희들이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다……

□ 박인철 의원

저도 그 사항을 봤기 때문에 부군수님, 잘 압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감사…… 거기에서 도 감사가 됐든 감사원 감사가 됐든 간에, 그 자

리에서 이 감사가 잘못됐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부군수님, 경징계면 인사할 수 없죠?

□ 부군수 박현식

예, 그분들은 이제……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경징계는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인사 못하죠? (예)

우리 군 설군 이래 이런 식으로 징계처분 요구 해가지고 인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공무원징계령…… 징계업무 절차를 보면 징계처분요구에 보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도 통과하고 징계위원회는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징계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가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뭐 특징인은 이야기 안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인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부군수님이 위원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인사위원장 다 맞죠? (예)

그 이유가 뭘니까, 지금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 부군수 박현식

그러니까 감사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대로 우선 심사요청을 했었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감사가 시작……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불문경고해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항이 된다고 해서 했었고……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우리가 인사예고를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 군민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사를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도 없어요. 우리 지금 인사가 있기 전까지 나중에 인사를 했는데 뭐 돈사문제 해결됐습니까. 변환소 문제도 해결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인사를 미루다 보니까……

제가 도에다가도 알아봤어요. 도에서는 우리 인사예고가 떴고 인사가 끝난 줄 알고 이것을 보냈더구먼요, 우리 군에다가 감사조치를. 우리는 인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이래 가지고 급하게, 단 며칠 만에 감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불문경고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결과적으로 보면 인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단 그렇게 심하게 고금에서 했을 때는 사실 전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인사가 늦어진 것은 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때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은, 하여튼 부군수님. 이것이 뭐 절차상 어떤지는 몰라도 최소한으로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군수님 하고 부군수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 박인철 의원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있으면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할 것입니까, 이 분들이 뭐 특혜 받은 분들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 박인철 의원

이번에 인사 조치가 온 것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왜 또 세 분만 이래 가지고 인사로 빨리 교체했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조치가 안 되어 있던데. 한 분은 도에 가서, 중징계니까 도로 가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연계된 분도 훈계 조치가 되었던데, 같이 도로 가야되는데 한 묶음이니까. 훈계가 됐든 주의가 됐든 경고가 됐든 간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했더라는 말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렬 불부합 현황을 보면 반드시 전문직종에 있어야 될 직렬들이 읍면에 있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행정직들이 반드시 전문직이 있어야 될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기술 파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 부군수 박현식

그러니까 의원님, 불부합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부군수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 토목직이 행정직으로 갔다가 행정직이 토목직을 했다,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을 아니고 간호·보건직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호·보건은 우리 지역여건상 우리 완도가 제일로 취약한 것이 의료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이 부분은 바로 시정……

□ 박인철 의원

지금보면 보건직렬이 7개있는데 행정직이 처음에 한 분이 지금 병가를 내서 그러는데 행정직이 4명 갔어요. 우리 생명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봐보십시오, 다른 데는 급하게 결원이 생기면 인사를 하던데. 노화읍사무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책임지는 보건직이 또 없어요, 결원이예요. 지금 인사했습니까, 그 자리. 완도읍에, 보건의료원에서 병가를 내니까 노화에 있는 직원을 빼다가 지금 보건의료원 팀장으로 앉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바로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고.

지금 보건의료원에 보면 그 6급 무보직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이 무보직들은 그 대로 놔둬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후에 이 부분은 좀 좋은 방향은 아니어서 바로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 좀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감사에 음주운전 징계자들 문책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저기…… 똑같은 잣대를 댄니까, 아니면 직원에 따라 잣대가 달라 집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 박인철 의원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가 가, 나, 라 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인사 조치를?

□ 부군수 박현식

일단은 그 음주는 이 감경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농도에 따라가지고 견책부터 감봉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은…… 일단 읍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틀렸습니다. 그 잣대를 확실히 대라는, 이 말이에요. 어떤 음주자는 읍면으로 보내고 어떤 음주자는 자리만 바뀌가지고 앉히고, 이것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군이 인사위원회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인데.

뭐 제가 잘못 지적한 것입니까. 부군수님,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있어요, 그런…… 이번 인사에도, 금번 인사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 부군수 박현식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저는 이번 조직개편 플러스 인사가 그런…… 다른 일률적인 인사는 뭐…… 부군수님,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은 인사들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분석을 좀 해가지고 다음 1월 인사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감안되고 또 우리 무보직 직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팀장을 늘려…… 제도를 늘려가지고 팀을 좀 늘려가지고 능동적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 지금 보건의료원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대성병원 앞에 보면 건강검진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주민들이 매우 좋은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원들이 꽤 됩니다. 거기도 팀장이 없어요, 지금.

□ 부군수 박현식

알겠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그때 사실…… 노조라든가 여러 측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직원들 조직개편을 할 때 팀을 많이 만들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팀을 너무 많이 만들다보면 사실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팀을 많이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조직개편에서는 팀을 좀 줄이고 최소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은 좀 뼈아프지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 건강검진센터가 우리 지금 도지사이신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의원 시절 때 국비를 내려서 했는데.

지금 그 건강검진센터도 6급 무보직이 가서 있다니까요, 보건직이, 그쪽 직렬들이…… 그런데 왜 우리가 그대로 놔두느냐는 거예요. 거기도 인원들이 많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할 때나 사용을 그만큼 많이 하는데, 그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보충을 해주고 직렬도 팀장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부군수님이 열심히 하시는지는 압니다, 부군수님한테 항상 고맙고요. 이런 것들이라도 좀 포괄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다음 인사 때는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독단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다음 인사 때는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그리고 무보직 6급 좀 많이 해주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도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대한 수산전문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양식수산물 판매 및 가격파동을 겪을 때마다 지역경제가 한바탕 소용돌이치는 일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근본적인 처방과 해결책은 만들지 못하고, 그때그때 급한 사항을 처방만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 수산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지역미래와 주요현안에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전문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때 줄기차게 과 신설을 요청했지만 전문부서 약속과 전문가 채용을 약속받은 선으로…… 약속했었습니다.

부군수님, 전문부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수산분야에 대해서 한정을 짓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 최정욱 의원

수산분야요.

□ 부군수 박현식

지금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 군 단위에서 아니면 우리 읍면…… 아니, 시군에서…… 22개 시군에서 2개의 과를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

단지, 이제 조금 수산파트가 굉장히 특이하게 완도의 경우에는 읍면까지 수산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현장에도 지휘를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현장도 가보고, 현장 태풍피해라든가.

그래서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을……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수산직으로 채용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2개 과에 읍면까지 있다 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읍면마다 수산파트라든가 이쪽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22개 시군 중에서 2개과를 운영하고 읍면에 수산직 계장님들이라든가 수산직까지 배치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지 않다. 굉장히 부럽…… 타 시군에서는 부럽다는 말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부군수님. 전혀 다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전문 부서에 지금 직원들의 일도 더블업무를 주지 말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선에서 그때 하기로 했거든요. 전문가란, 밖에 있는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급한 땀질식으로만 처방이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뭐가 있냐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일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거기서 업무가 도로 바뀌지면서 지속가능하게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서를, 전문부서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밖에서 전문가를 채용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 전문 부서를 과는 아니며, 그렇게 팀별로라도 해주라.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로 전문부서를 짜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것은 뭐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왔던 일이니 까요.

□ 부군수 박현식

이 유통분야는 이번에 좀 어학이 되시는 분을 채용할 것이고요, 일반임기제로.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의원님의 말하는 바를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부서라는 것이 과연 어느 부서인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통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좋게요.

우리가 전문부서라고 하면 1인이 전문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갖춰야 만이, 저는 적어도 최소한의 전문부서라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무역전문가. 두 번째, 가공전문가. 세 번째, 양식전문가. 네 번째, 유통전문가.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역전문가는 제가 지금 사업

을 30년 넘게 합니다마는 아직도 무역을 하는 전문가들하고 앉으면 제가 10분의 1도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30년 동안 사업을 해왔으면서도 그만큼 그 사람들하고 앉았을 때 전문분야에서 전혀 떨어진다 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계시장과 그 나라, 각 국마다. 그 바이어, 또 국민성, 우리 전복하나만 갖고도 먹는 방식이 달라요. 일본과 중국,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그런 정도까지 다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무역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바이어를 상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역을 늘려갈 수가 있는 데.

그런데 알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수출방향이나 지속가능한, 어떤 것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고.

가공전문가는, 적어도 우리가 제품 하나를..... 대기업으로 예를 들려고 합니다. 대기업은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출시하기까지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하나를 만들어서 각 직원들과 시식을 해서 “아, 괜찮다.” 라고 하면 다음은 회사 전직원들하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라고 하면 군민들에게 다시 시식을 시켜서 “괜찮다.” 라고 하면 상품개발을 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소비자한테 나가서 소비자의 반응이 좋냐, 안 좋냐가 그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 제조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하게 한다든가. 창업자를, 젊을 애들을 택하든 어찌든 창업자를 선택해서 해야 되고. 이런 정도로 가야지 유통전문분야라고 할 수..... 아니, 가공.

그 다음에 양식전문가, 물론 우리 군수님도 양식전문가이고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 일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신개발도, 신품종도 찾아야 되고. 또 양식업 재배치. 또 어느 것이 우리가 지금의 전복의 다른, 또 다른 상품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전북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해내야…… 이 전문가들은 거기에, 해야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어렵고요.

유통업도 뭐냐면 생산과 수요를 알아야 만이 가격 안정화가 되고, 우리 완도지역에 수협이라든가 전북단체에…… 예를 들자면 전북주식회사. 어민들의 유통하는 양,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유통을…… 그 해의 유통에 대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은, 우리 군 직원이 유통을 뭐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정보주고, 또는 컨트롤타워를 해야죠. 즉, 수협이나 전북단체나. 예를 들어서 전북주식회사, 어민들을 한 자리에…… 여기에 대해서 끌고 갈 정도가 되어야죠. 그래서 정보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이런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네 사람 정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직원들이 배워서, 적어도 2~3년 안에 직원들이 배워서 실질적으로 부서를 갖고 갈 수 있는…… 나는 그런 취지에서 그때 말을 하고, 분명히 그런 취지에 대해 약속도 했었어요. 그런 업무를 2개 이상 주지마라, 우리 직원들…… 왜냐하면 뒤받쳐줘야 되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해서 전문부서를 만들어 보자. 그래야 올 해 같은 그런 파동이 와도 미리 다 예측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런 것이. 또 수출도 맨날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만 있는 것이지. 또 한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런 것들도 전문가들은 한 눈에 파악이 됩니다. 관리가. 그런데 그동안 못한 것이 우리 직원들은 행정전문가지, 우리들은 저런 쪽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네 가지 정도는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때…… 적어도 이런 설명까지 전체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죠. 왜냐하면 빨리 통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전부 의견이 그래서 그렇게 했습

니다마는 저는 이 취지가…… 이것을 말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박현식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각 분야별로 8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2개 과에. 그래서 그 2개 과에서 저희들이 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라든가, 뭐 KMI에서 다 자료를 받고 어민들에게 알려주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런 변화는…… 사실은 큰 변화상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8개 팀들이 그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면밀히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이 과에, 팀에 한 사람이 업무를 맡으면 달랑 한 사람의 업무를 맡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요. 굉장히 많은 업무를 맡다보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한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또 다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고, 또 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부군수님. 그러니까 그 기본취지에 저번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 라고도 했고.

(집행부 좌석을 보며)

미래…… 단장님, 그랬죠?

□ 부군수 박현식

그러니까……

□ 최정욱 의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야 다시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조직개편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대답만 했다는 얘기랑 똑같죠.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고 그게 아니고, 그 8개 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그 8명 중에서 전문가들 4명으로 딱 팀을 만들면 나머지는 뭐 하겠습니까?

□ 최정욱 의원

아니……

□ 부군수 박현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다시 한 번…… 좀 더 이번에 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충분히 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의회에 다시 한 번 그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직접 못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그 8개로 나뉘었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한 군데로 집합해서 전문가가, 전문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주원칙 하에서 이것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설명하고 전혀 다른 것이고, 이게 그렇게 아니라고 다시 나와 버리면 우리 조직개편 뭐…… 의원이 말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은 뭐 전혀……

□ 부군수 박현식

아니, 의원님. 아직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전문가 4명으로 팀을 구성하자는 말 아니겠습니까.

□ 최정욱 의원

아니, 이제 제가…… 선거기간에 첫째 이슈가 뭐였어요. 전복파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로……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반복적으로.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 길밖에 없겠구나, 이 전문부서밖에. 그래서 그때 즐기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 다시 한 번 전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때 했던 것을 봐보십시오.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뭔가 우리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만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직원채용 그때 숫자도 같이 늘려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꼭 해주시고요.

이것이, 전복사업 이것이 뭐 요즘 해양헬스케어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 이상 중요하죠. 전복양식사업 하나로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청취불능) 사업자들이 살죠. 거기 또 한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 되죠, 거기에 대한. 우리 어민들, 젊은 애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 하나만 해도. 이런 것에 운운하면 안 되죠. 예전같이 우리가 지금 행정서비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군이 어찌됐든 우리 수산군인만큼 그런 것 준비를 잘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아,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다른 생각으로 저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KMI라든가 수산과학원이라든가 다양한 자료를…… 전복산업 동향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안한다는 것

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다 모여서 한번 팀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내부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팀이 만들어 놓고 보면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다보면 이제 효용성이 있겠냐고도 의원님들께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팀이 정말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것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의원하고 약속한 일을 그냥 넘기면 안 되죠.

□ 부군수 박현식

그러니까요.

□ 최정욱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의논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이게 무조건……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니까요.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굳이 그것을 하자고 했겠어요.

□ 부군수 박현식

이 부분은 한 번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꼭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20분 발의, 보충설명은 10분. 그리고 답변자…… 답변하는 부군수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17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다음은 6페이지, 존경하는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은 한국남동발전에서 설비용량 600메가와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총 3조원으로써 위치는 금일읍 남쪽 덕우도와 황제도 해상이며 면적은 약 30km²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하였고, 2017년 7월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대표 제주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10월 덕우도에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11월 우리 군과 MOA를 체결하였습니다. 12월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완도 현장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2018년 1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7월 산자부에 1차분 8메가와트 풍력발전기 25기, 200메가와트를 허가 신청하였으며, 9월에는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에 2차분 400메가와트에 대해서 허가신청과, 1~2

차분에 대해서 통합·설계를 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공사에 착공, 2022년 준공을 하고 2023년에 상업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된다면 좋겠습니다. 주민 동의 등 공익상의 지장 유무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대표단 제주 견학을 3회, 그리고 올해 3월 금일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확보하였으며, 보다 많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과 공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업과 공존방법은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산자원을 형성하는 인공어초와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연결하는 양식기술을 적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된 이래에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자원조성과 그리고 해조류를 양식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측기 부대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일단은 바람의 풍향을 조사할 수 있는 계측기와 그다음에 금일읍에 설치예정인 승압변전소가 있으며,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저 및 육상 케이블을 통해 완도변전소까지 35km 정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의 정부정책 방향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해상풍력 바람이 불고 있

는지 아시죠? (예)

전국 몇 개 지역에서 준비 중인지 아십니까?

□ 부군수 박현식

지금 자료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상업운전은 되고 있는 것이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제주, 그다음에 신안 임자, 또 한 군데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세 군데로

□ 박인철 의원

6월 현재 22개 지역에 6개소에…… 이렇게 준비하는 지역들이, 우리 지역도 3개소가 준비 중이고, 왜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후변화가…… 가장 주원인이 지금 그 전임 이명박 대통령 때 온실가스 30% 그 이후에 그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그런 발전사업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신재생에너지밖에 없다고 해서 육상의 경우에는 주로 태양광이 많이 활용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풍력을 하다보니깐 일부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그래서 가장 환경적으로나 조금 공간도 넓고 할 수 있는 해상풍력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부분 대책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맞습니다.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50만키로와트 이상 발전사업자들을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그전에 문재인 정부……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전에도 그렇게 했고, 특히 이번에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 그 부분 맞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군수님, 보이시죠? 사진?

□ 부군수 박현식

예, 보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다른 지역들은 해상풍력을 결사반대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우리 군에서는 너무 조용하죠, 우리 군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 부군수 박현식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 박인철 의원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면 그 이유는 부군수님, 뭐겠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모든 분들이……

□ 박인철 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 부군수 박현식

지금 신안의 경우에는, 저도 보겠습니다. 신안 임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상풍력이라고 하지만 바로 섬 아래에 꽂혀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일부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조용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것으로……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해상풍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없어서 조용한 것인지, 아니면 해상풍력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제가 그분들 구체적인 머릿속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께서, 일단은 맨 처음에 견학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 일부는 또 수산업과 공존하는 부분,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인철 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면요. 부산 기장군 같으면 기장군 해안에 지금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군부터, 군수부터 해가지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너무 상이하게 되어 있으니깐 부군수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해상풍력이 들어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부군수님?

□ 부군수 박현식

뭐 제가 보기에는 전 지구적, 대의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이 자꾸 계속기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면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설명회를 거치고 있는데 공론화가 더 되다보면 문제가 도출될 텐데. 그렇게 하면 우리 변환소 문제, 돈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듯이 이것이 또 사회갈등

부분이 될 텐데. 그때 부군수님은 어떻게 하
실 것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서 갈등이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추진 과정에서
뭔가 이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갈등도 있으니까 치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래서 지금……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이나
는……

□ 부군수 박현식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생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안을 가지고 사업자하고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제 부군수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해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남동발전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두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서부발전하고 완도 해상풍력발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완도 해상풍력의 경우 가장 먼저 완도군에

계측기를 설치하였고 현재 산자부에 발전사
업 허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
고서에는 빠졌네요. 이유는 뭡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일단 저희……

□ 박인철 의원

저보다 뭐 저기…… 남동발전에서 한 해
상풍력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입
니까, 아니면 제가 통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풍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거
기하고 우리 코오롱에서 하는 것이 다 빠져
있네요.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은, 일단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완도 해상풍
력, 그 완도읍 망석리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MOU는
2017년 9월에……

□ 박인철 의원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예)
지금 우리가 풍력…… 해상풍력을 해가지
고 MOU를 세 군데에 체결했죠? (예, 그렇
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동하고는 MOA를 체결했
죠?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이유 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일단은 MOU 체결한 데는, 일단은 완도
해상풍력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서부발전까
지는 MOU입니다. 그 다음에 남동발전의 경
우에는 MOA까지 가고요.

□ 박인철 의원

MOU하고 MOA하고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법적근거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 박인철 의원

구속력이 어떻게 다르냐고.

□ 부군수 박현식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MOU의 경우에는 일단 의지나 의도 정도,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면 이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MOA는, 뭐 아시겠지만 본계약에 앞서 가지고 목적이나 책임 등을 좀 명시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MOU보다는 MOA가 훨씬 법적 구속력이 있죠?

□ 부군수 박현식

일단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남동발전에서 금일 부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풍력단지 조성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부군수 박현식

남동발전을 말씀하십니까?

□ 박인철 의원

우리…… 예, 남동발전. 저기 금일 쪽에서 하고 있는 것.

□ 부군수 박현식

아까 면적으로 한 30km² 정도, 구역은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1차가 200메가와트죠? (예, 그렇습니다)

3,200헥타르고, 2차가 400메가와트죠?

(예)

총 합치면 600메가와트인데 한 9,600 정도 되거든요, 헥타르가. 방대하죠?

□ 부군수 박현식

좋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 하면 이 큰 면적인데, 설치하고자 하는 수역에 대해서 어업적 가치는 혹시 평가해 보셨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 박인철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우리 화홍포에 가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사를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학생을 못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다로 있을 때, 갯벌로 있을 때는 바지락, 낙지. 이런 것을 어민들이 맨손어업으로 해가지고 해서 다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일반적으로 갯벌은 생산력이…… 지금 와서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와서 갯벌의 높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해상입니다. 일단 갯벌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여기 해상도 전부 조업이 가능한 해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년, 그 전년도에 우리가 완도금일수협에다가 김발…… 여수하고 한 개점에다 600헥타르를 줬죠, 600헥타르 어업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옛날 같으면 금일 같은 데에서는 김을 안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군에서 선점하자고, 장흥하고 여수, 고흥 쪽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금일수협에다가 600헥타르를 내줬어요. 그래서

금일 분들이, 전복하시는 분들도 거기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역들은 전부 어장권이 있는 수역들 아닙니까? (예)

그리 하면 우리 남동발전에서 할 때 우리 군에서는 이 가치를 전부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해상풍력에서 얻은 것하고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 군에서, 우리 어민들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 나으냐. 이런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의원님, 저도 생각을 거기까지 못했는데요. 아주 저도 동의를 합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은 뭐 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뭐하고, 하여튼 이런 것은 군에서 좀 부족했더라,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2차적인 문제고, 9,600헥타르예요. 어마어마한 헥타르예요. 이 헥타르를 발전단지로 내주면서 어업의 값어치를 평가를 안 해봤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그것 또 외에 저희들이 지금…… 저도 지금 다른 자료에 보니까, 수산업과 공존하는 독일 같은 데도 보니까 수산업과 공존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 박인철 의원

아니, 지금 독일을 가지고……

□ 부군수 박현식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답변서에도 나와있지만 이제 용역을 안 합니다. 내가 수산업과 공존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밑에 하루 층으로 해가지고, 뭐 저기 한다는 것. 이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애당초 남동발전에서 600와트를 신청했는데, 혹시 1차, 2차 분할해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이유를 아십니까?

□ 부군수 박현식

뭐 거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제 본의원이……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변전소, 변환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계통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 부군수 박현식

지금 계통연계는, 구체적인 안까지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상을 지금…… 해상 쪽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해상계통이죠, 계통연계선이죠?

□ 부군수 박현식

예, 현재는 제시된 안입니다.

□ 박인철 의원

생산된 전력을 육상 변전소에 송합시켜 생일, 신지 해역을 거쳐 완도 변전소로 연결되는 것이죠?

□ 부군수 박현식

지금 현재 제시된 안은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이제 뭐 문제점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전

에 일단 저 부분은 어업권 보상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은 거기를 계통연계로 끌고 가다 보면, 지하로 끌고 가더라도.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좀 더 환경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그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이 전기가 직류입니까, 교류입니까? 어떤 것이 전자파가…… 우리 부군수님이 전문가니까, 어떤 것이 전자파가 많이 발생합니까?

□ 부군수 박현식

전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일단은 가장 많은 전자파는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휴대폰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컴퓨터라든가 TV,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폭당하는 것은, 이야기했지만 많이 쉬쉬하고 있지만 휴대폰이 제일 많이 피폭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것, 좋아요. 그런데 너무 접근을 쉽게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1년에 완도~제주간 해저케이블해가지고 변환소하고 철탁, 2개를 세운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200메가와트, 400메가와트…… 저기서 전기를 가져오면 변환소를 들렸든 변전소를 들렸든 들려야 되는데. 연결계통 문제도 있거니와, 또 잘못하면 철탁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방향들을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자들이 생각을, 이야기를 안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것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들이 많이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뭐 대두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

니다.

발전허가 신청에 따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의견조회가 왔죠? (예)

주민수용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하였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담당과장님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남동발전에서 하고 있는 주민수용성 관련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주민동의라고 했는데, 그 주민동의를 어디 일정부분 지역입니까? 아니면 우리 완도군민 5만 2,000에 대한 동의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일정부분입니다. 금일읍……

□ 박인철 의원

뭐 금일읍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 해상풍력단지가 금일 바다입니까. 어업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쪽 일부는 금일과 생일……

□ 박인철 의원

어떤…… 금일에 가면 어느 마을의 어촌계와 이것 관여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금일 쪽에는……

□ 박인철 의원

아니, 금일의 위치에…… 가까운 위치가 되는데, 어느 특정 어촌계에 지금 이것 인접해 있는 것, 어촌계에 그 관할 바뀌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런데 왜 금일만 합니까. 여기 연결계통을 보면, 오다보면 신지, 고금, 약산, 완도읍 다 들리는데.

그러면 여기 담당과장님으로서…… 여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군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변환소, 철탑…… 철탑 2개를 세우는데도 저 지역에서 이 난리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수용성 회부는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동의한다고 했습니까? 동의서는 첨부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일이라고 하면 금일 분들의 일정부분에 뭐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사인을 받았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금일 분들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니다.

□ 박인철 의원

금일 지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3,800명 정도 됩니다.

□ 박인철 의원

몇 %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너무들 쉽게 생각을……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나중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문제 공론화를 시켜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풍력이 아니고 계통연계입니다. 이 전기는 직류입니다. 전자파가 제일로…… 우리 부군수님이 금방 핸드폰 전자파라고 했는데 전자파가 제일로 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산, 신지, 고금, 완도읍,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주무부서장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이후에 또 저희들이 수용성에 대해서는, 일단 금일 쪽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또 필요하다면 수용성 조사를 좀 더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이것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시라니까요. 부군수님.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그……

□ 박인철 의원

왜 금일에다가 한정해요. 금일 어장 아닙니다.

□ 부군수 박현식

그러니까 의원님,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 박인철 의원

완도군민에 대한 어장입니다. 나도 어업권이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요. 우리가 흔히 영해, 공해 따지듯이 이것은 공해상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특정 어업권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 주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리고 나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신지풍력에서, 아까 허궁희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나도 신지에 가보면 도로가 전부다 파헤쳐져가지고, 이 풍력이 된다면 확실히 연계계통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상으로 올 것인가, 육지로 올 것인가. 그렇게 하면 신지도 지금 도로 굴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굴착을 다시 한 번 안 되게. 주민들을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너무 우리 지금 저기…… 질문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마는 너무 우리 군에서 안 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급일로만 한정해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완도군민, 전라남도 도민 누구나 어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지금 부군수님…… 과장님, 됐습니다.

수산업과 공존방법을, 현재 용역 중에 있다고 했는데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9,600헥타르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전체 (청취불능) 꽃아져있는 부분이……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600메가와트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혹시 여기에다가 신풍종양식과 어종,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

것 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지금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하고 있죠?

□ 부군수 박현식

예, 우리가 용역을 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용역을……

□ 박인철 의원

아니, 사업자가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우리 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좋습니다.

이런 모든 민원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부군수님. 남동발전에서 아주 여기 체계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던 일이 순차적으로 다 1차, 2차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발전기금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아까 이 용역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족자원이라든가, 그런 어떤 해조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 하면 우리 군에서 발전기금이라고 했는데 600메가와트를 하면 총 얼마 투자된다

고 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지금 그……

□ 박인철 의원

3억이라고 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450억 정도 총……

□ 박인철 의원

아니, 그것은 450억은 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3조 투자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지금 계획상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3억을 투자해서 그러면 1.5%를 우리 발전 기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450억을…… 그러면 그 비용은, 그 예산은 우리 군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데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나름대로 이용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뭐 주민들 사업으로 뭐하고 공동기반사업으로 얼마…… 영향권 범위에 따라 가지고 우리 뭐 원자력특별법이라든가 (청취불능) 지원에 관한 법, 전기……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잘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1.5%, 총 투자액 1.5%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안 내놓습니까. 투자액인 1.5%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안 내놓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3조를 투자했을 때 450억을 우리 군 발전기금으로 본다고 하면 그 450억은 어디다가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 박인철 의원

우리 그…… 완도군의 전반적인 SOC사업에다가 쓸 수 있죠?

□ 부군수 박현식

일단 그 부분은 관련법을 봐야 됩니다마는 관련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 박인철 의원

예, 좋습니다. 이야기해주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은 아까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특별 지원금이 있고 기본지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특별지원금은 공동…… 주민공동사업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기본지원금에서 주민소득증대 사업, 공공 뭐 시설, 뭐 유경사업. 이런 것은…… 대부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 비슷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기…… 부군수님, 산자부 국정감사 봤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못 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국정감사장에 한전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풍력에 대한 주민보상금을 이야기했거든요. 메가와트당 2억 원으로 금액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아시아경제 뒤에 나와 있는데 김종갑 한국전력사장이 해상풍력설비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보상비용을 메가와트당 2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것 압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이것 한번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 하고……

부군수님, SPC 잘 알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 풍력이 들어오면 1.5%는 우리가 발전기금으로 받고, 지금 우리가 완도군에 해상풍력을 하면 이것이 설비가, 용량이 돌아가지고 발전기금이…… 그 이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매년 우리 군에 얼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협상을 할 것이죠?

□ 부군수 박현식

그것은 SPC가 되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지금 SPC가 구체적으로 윤곽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면 그것은 그때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에서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덕우도 뒤쪽 해상 남동발전, 덕우도 앞쪽 해상에 서부발전, 완도읍 망석리 앞 해상에 서부발전이 진행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은 한전 자회사인 발전회사가 산자부에 발전허가를 득한 후 풍력발전단지 선서를 위한 SPC, 즉,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투자자를 유치하여 SPC에서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발전소 운영은 발전회사가 풍력발전단지 건설비를 투자한…… SPC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운영할 수 있고 수익을 가져간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기 어떻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이런 것은?

□ 부군수 박현식

SPC는 말 그대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SPC가 되면 지역에서 하는 사업비들을…… 이렇게 계약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풍력단지를 조성하는데 당신네 회사, A라는 회사에서 1년에 뭐 1,000만 원을 벌면 거기 몇 %를…… 우리가 처음에 발전기금을 받은 것 빼고 몇 %는 우리 군에 하는 사업비로 주라,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이 부분은 전략……

□ 박인철 의원

이런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지금 구체적으로 전략…… SPC가 구체적으로 설립이 되면 전략적 출자자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는 저희들이 협상에 들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략적

출자자라든지, 그 윤곽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시설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이 지금 지방재정도 열악하니까 최대한 우리 군에서 이익을 봐야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협상을 잘해 가지고……

□ 부군수 박현식

예,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내가 아까 침에 지역환원비를 물어봤죠? (예)

이 지역환원비를 만약 남동발전에서 이렇게 투자가 되어 가지고 한다면 고금에다가만 쓸 것입니까? 아니, 금일에다가만?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법에 따른 영향범위라든가, 그것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그렇겠지만…… 법에 이렇게 보면 지원에 관한 법…… 그 법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떠한 지원에 관한 법이 있다고 그러면 영향범위도 다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이렇게 테두리를 맞춰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왜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우리 부군수님께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정확하게 다 오픈을 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금일에 가보셨죠? (예)

금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남동발전에서 이 사업이 되면 정확하게…… 차후 SPC하고 계약은 따로 협상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차, 2차 다했을 때 450억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금일 분들은 뭐

1,500억을 받니 이것을 가지고 금일, 약산~당목간 다리를 놓는데 4,700억이 들어가는 데 1,500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국비를 가져와서 나머지만 국비를 가져오면 되니……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이런 말이?

□ 부군수 박현식

일단 그 부분은 이제 MOU나 MOA를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1,500억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은, 아까 그 별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법상에 법에 따라 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남동발전에서 진짜 600메가와트를 한다고 하면, 3조 원이 투자되면 발전기금으로 450억밖에 없 다니니까요, 나머지는 SPC가 어떻게 그쪽 회사에서 남동발전하고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협상에 따라서 얼마를…… 뭐 100원도 받을 수 있고 1,000억도 받을 수 있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금일 쪽에서 가서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보니까 금일 노인회장님이 그러시더군요요, 금일읍장실에서. “아니, 1,700억이 들어올 것인데 된 걱정을 하냐?” 라고.

그러면 만약 1,700억 원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금일에다가만 쓸 수 있습니까.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완도군에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왜 이런 것들을 금일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왜 주민들을 호도합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일단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 그 외에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때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그때 그게 다리를 놓은 데……

□ 박인철 의원

그런 것들이 별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 발전소하고,

왜…… 엇그저께 군수님도 포함해 가지고 지금 2차인가 3차 금일에서 저기…… 이 발전기금,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설명회를 한번 했죠? (예)

거기에 보니까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보니까 뭘니까, 다리……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1,500에 대해서 들먹였거든요, 1,500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군수님. 우리가 지금 세 군데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남동발전은 세무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이번에 경제교통과 신재생에너지팀으로 넘겼죠?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원래 이제 추진은……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원래 그랬습니다.

□ 박인철 의원

사람 따라가지 말고 이 업무를 따라 가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떤 사업은 군수님이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어떤 사업은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어떤 사업은 읍면 산업계장이 사업설명회를 합니까. 그것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이 부분은 아마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수용성에서 완도읍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망석리인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국립공원지역 내에 있습니다. 하겠다는 위치가.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와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코오롱…… 한국서부 발전하고 코오롱글로벌의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같이 완도군 코오롱 전남도 같이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절차만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이런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절차도 중요하지만 주민수용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맨 먼저 와서…… 사실은 절차는 다 거쳤는데 주민반대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99%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주민수용성을 하는 데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규모사업의 경우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똑같은 사업들인데 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일해상풍력, 남동발전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면 금일만 이야기를 좀…… 크게 보십시오. 나중에 좋은 사업하다가 잘못하면 브레이크 걸립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의원님의 그 말씀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깊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 박인철 의원

아니, 이런 좋은 사업이 잘되다가 또 여기 계통연결하다가 브레이크 걸리면 그 책임을 누가질 것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렇게 600메가와트가 되면 450억 원입니다. 나머지 SPC 하는 것은 놔두고, 그리 하면 금일 주민들한테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다리는 다리대로 국지도가 승격되어 가지고 다리가…… 국가가 놓는 것이지, 풍력에서 놓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잘못 와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들도 우리 12개 읍면 전체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을, 꼭 금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주십시오.

나중에 뒷감당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뒷감당들을.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은 사업자한테도 누된 것입니다, 잘못 이렇게 와전되면, (예, 그렇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예, 정확하게 한번 저희들이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다음은……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존경하는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관광활성화 전략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연도별 관광객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2015년에 250여만 명, 2016년에는 220여만 명, 2017년에는 330여만 명이 되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관광지는 명사십리, 청산도, 완도타워, 그다음에 수목원, 장보고유적지 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지명사십리와 소세포 세트장을 제외한 부분은 조금씩 관광객이 증가하는 방향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좀 아쉽게, 저희들이 관광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완도군 종합 개발계획이 지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헬스 관광기반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체험관광을 하겠습니다. 여서도 가고 싶은 섬, 완도 수목원 등, 청산 슬로생태공원 조성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장입니다. 관광 힐링자원…… 힐링관광 자원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역사문화관광 상품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설치 건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상관광상품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선7기 내에 해상유람선에 대해서 우리 지역 관

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민자 투자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관광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부군수님, 그 버킷 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버킷리스트>의 표 준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이유가…… 보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의 목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목록을 작성한 후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주로 그 여행, 먹거리, 캠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들 중에 버킷 리스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이 자리에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완도타워가 가장 많이 나오구요, 두 번째는 이제 수목원, 세 번째 명사십리 해수욕장. 그리고 청산도 슬로시티. 그리고 장보고유적관, 장도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기타 지금 현재 많이 뜨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최근에는 걷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소안도, 생일도, 여서도, 그다음에 여서도에 대한 로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당팔경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보길은 뭐 어차피 많이……

이정도, 그 외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버킷 리스트라는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부군수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참 완도는 이렇게 보면 관광지나 가고 싶은 곳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생소하게 버킷 리스트를 왜 말씀했냐면 우리 군의 관광개발계획은 반드시 감성이 포함된, 그 버킷 리스트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관광객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전체 관광객 수는 또 증가를 했지만 대표관광객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그 명사십리 해수욕장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광객 계속 추계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까?

□ 부군수 박현식

관광지……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도 여수엑스포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료요금제는 정확하게 관광객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계량기가 없지만 주차장이 있는 공간을 통해서 추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차량에, 우리 그 도로에 가보면 지나가는 차마다 치면 차량…… 그 통행량을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관광객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몇 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도 (청취불능) 관광객 수를 물어보니까 터무니없는 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랬었는데. 관광객 수를 측정한다는 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확한 관광객 수를 파악하고 또 분석해야 그에 대응하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추계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광정책에 전략을 세우는 데에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설문이라든가 모니터링은 좀 하고 있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저희들도…… 주로 이제 요즘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설문조사는 또 축제라든가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찾아오신 분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또 끊임없이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설문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꼭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완도군 관광종합개발 용역이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 부군수 박현식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까지입니다.

□ 김양훈 의원

기존관광지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은, 뭐 기반조성이라든가 상품개발을 좀 해가지고 종합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알겠습니다.

그 관광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의원님들께서 더 아마 전문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있습니다마는 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렇게 추세가 많이 바뀌더라, 추세가 많이 바뀌고, 또 요즘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나옵니다. 기껏 해놓으니까 외지자본 인프라에서 내가 쫓겨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환경영향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계층별로 내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어떤 분은 체험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 관광종합개발 안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담을 것이고, 결국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고 생각하고.

또 하나,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 지금 임시하고 보성간 철도가 연결됩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해남하고 강진 사이에 역이 하나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여기서…… 여기에 기차가 연결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관광패턴에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요즘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뭐 단체, 이렇게 뭐 많이 들어오지만 요즘은 가족단위, 여행단위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좀 많이 다니는 추세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도타워 해상케이블카 설치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완료되면 바로 의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필요하면 그전이라도, 중간 부분이라도 같이 의회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뭐 한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거기가 국립공원 지정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지금 상산에 거기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또 다시 밑에서 모노레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완도타워에서 상산까지만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명사십리까지, 명사십리가 또 관광객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청취불능) 모노레일을 설치해도 거기서 완도타워까지 온다고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 부군수 박현식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 부분도 좀 용역에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용역팀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 알

고 계십니까? (예)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양 경관을 활용한 관광, 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그 삼척시의 경우 해양관광진흥지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지금 그……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미처 준비 못했던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좀 잘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도 미래를 대비해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용역을 통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환경…… 자연환경보전지구, 수자원보전지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사항들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이 부분은 뭐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부터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답변서에서 보니까 우리 군에 아주 적합한 관광상품 하나가 있더라고요. 수륙양용버스 운행, 그것인데, 우리 군하고 우리 지역하고 거의 잘 맞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좀 빨리 시설을 해서 도입을 해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굉장히 많은 부분…… 시험 운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업체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다음은 14페이지, 존경하는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인구변화 추이입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완도군 인구는 2,579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2만 5,792세대에 5만 1,639명이 되겠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서 2,662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9세 이하가 감소하였고, 50세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감소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출생자보다는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입자보다는 전출자 수가 더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가 가임여성 인구수와 출생자 수가 되겠습니다. 15세부터 49세 가임여성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에 반해 출생자 수와 출생률은 약간 지금…… 증가를 하다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합계출산율인데 합계출산율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지금까지 노력을……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

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부분 기여를 하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소폭으로 증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명연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전입과 전출의 차를 나타내는 인구 순이동 분석입니다. 표에 보시면 2009년에는 굉장히 그 순이동이 굉장히 감속…… 우리 군을 빠져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마는 2017년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그래프가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이동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폭이 줄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 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인구 늘리기 TF를 구성했는데 여성분들과 우리 다문화가족들로 구성된 TF를 좀 해보니까 거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그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서 조례에 반영된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분들과 다문화가족들 위주로 TF를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늦은 시간에 다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런 부분들이, 인구 늘리기 중 합대책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들이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와 땅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이자 미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완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땅 또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와 공익적사업을 위한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 원인분석입니다. 출생보다는 사망이 더 높고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높은 것이 지금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입보다도 전출이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부군수 박현식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그 기업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인력을…… 제조기반이 되는 그런 기업체가 많이 있지만 현재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망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주민등록주소를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결혼할 때가 되면, 직장을 잡게 되면 떠나는 부분. 그리고 또 학교로 해서 떠나는 부분,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인구가 조금 줄어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본의원도 부군수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금 부군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많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어디를 보더라도 완도의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등록 거주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군은 화순입니다. 화순은 실제로 주민등록은 많은데 실제 인구는…… 주민등록보다도 실제 더 많이 산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범성 의원

본의원은 주민들의 사정상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는 실제거주 인구수가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한 후,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우리 군에다가 두지 않고 다른 타 지역에 있게끔 하시는 분들을 좀 완도로 옮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까지는 뭐 사실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법에 따라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어디 있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법에 조치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관장…… 군수님과 기관장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와있으신 분들 주소지를 옮겨 달라. 그리고 대대예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군인들도 좀…… 군인들 중에서도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좋겠다.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을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주민등록을 조사하다가 굉장히 심한 반발에 부딪쳐서, 그리고 굉장히 좀 인권

침해요소나 개인정보 침해요소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범성 의원

좀 더 우리 인구가 감소되면 완도군이 아마 또 소멸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흥, 신안군의 경우 30년 이내에 소멸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로 판단되었고, 완도군의 경우에는 소멸 위험지수가 0.253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하였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존립문제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저도 그 내용을 잘 봤고 통계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어차피 지금 보니까 완도도 5만 1,000에서 거의 지금 다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런데 가장 안 좋은 부분은,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승주군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순천하고 통합이 되면서 승주군이…… 승주군 읍내에 한 때 2만 명 정도 있었는데, 승주군 읍에. 지금은 2,000~3,000명이 있습니다. 가장…… 그 인구소멸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그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 저…… 실제로 군수님과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좀 자극을 받아서 좀 더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보기에는 활력이 좀 넘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완도군의 인구여건들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부분들에 힘써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2.0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대책 2.0이란 합계출산율 2.0명을 목표로 한 출산장려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이…… 아마 일시금이 147명, 분할금이 725명이네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출산장려금 때문에 애들을 낳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이…… 본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세 자녀 이상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다섯 자녀, 여섯 자녀가 6세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두 자녀가 있으면 세 자녀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자녀가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럭저럭 소득이 받쳐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완도에 대해서는 다자녀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소득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1.64 정도 돼서 전국에서 굉장히 탐상위 클래스입니다. 합계출산율이.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인구 늘리기……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도 합계출산율을 2.0으로 만들자, 2.0으로 하자는 것이 저희들 주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그 목표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제가 자료를 본 부분에서는 출생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459명, 2015년

도에는 379명, 2016년도에는 365명 등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므로써 장려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본의원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군수님께 물어본 과정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그 옆에 의원님, 그 출생율도 좀 있지만…… 그 옆에 15페이지의 표에 보시면 합계출산율이 있습니다. 조금 요즘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전국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 1.634인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뭐 15세에서 49세 가임여성 인구 중에서 출산하는, 그런 숫자를 나타낸 것인데. 일단 이 수치는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252개인가, 254개 자치구…… 시군구 중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넓혀보도록,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많이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들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다뤄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구 늘리기 시책은…… 부군수님, 여기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견해 좀 말씀해보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지금까지 국가나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 외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장려금도 많이 올려지고, 그 외에 우리 지금 뭐 인재육성기금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출생율을 높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문화적인 향유부분이 조금 젊은 여성분들이 왔을 때 우리 군에 문화적인 부분이 있느냐. 젊은 남직원이 왔을 때, 그 문화적인 향유관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좀……

특히 섬 지역, 노화읍이라든가 금일읍. 이런 섬 지역은 좀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해서 그분들이 와서 심심하지 않다, 참 좋더라.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그래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래들끼리 모여서 좀 즐거움도 있다는, 그런 것을 해준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내년부터는 좀 정책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어떤 부분이 됐든지 더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할 수 좀 있는 우리 완도군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구요.

부군수님,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가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 옛날에 완도가 미역가공업의 주축이 되었었는데 지금 관내 미역공장들이 고흥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박현식

뭐 단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모 사장님한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미역이 조금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역에 미역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를 빼놓고는 전복먹이용으로만 많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식용으로, 굉장히 고품질의 미역생산이라든가 조금…… 그 원료공급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공장을 금산으로 옮겼다는 말을 저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려면 일단 저희들이 전복을 위주로 하다보니 다시마나 미역에 대해서 일단 먹이용으로 키우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것만 전문으로, 나는 미역을 고품질로 하겠다는 부분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역공장 입장에서 양질의 미역이 와야 공장을 돌리는데, 사실 전복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양질의 미역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안타깝게도 고흥 쪽은 사실은 전복이 이렇게 막 번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고품질…… 그때 생산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제가 미역공장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완도에 미역을 찢는 여자들이 한 400명 정도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공장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이…… 원초 자체가 안 좋다고 할 때는 원초를 바꾸고, 또 우리가 전복먹이로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촌계에 전복먹이로 활용하지 않는 곳을 이용해가지고 완도에 수급되는 원료 자체, 원초 자체를 줬을 때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됨으로써 외지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원초 부분들, 미역공장이 통째로 고흥에게 뺏겨버리는 그날이 오지 않게끔 많은 대책을…… 인구도 늘리고 기업이 유치되어서 또 고용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정확한 원인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시간이……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여건들이라 시간에 쫓깁니다. 나한테 오래하면 욕할 것 같아가지고.

부군수님, 인구 늘리기 정책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쪽 인구 늘리기 정책을 써오면서 증가된 적은 없을 거예요.

□ 부군수 박현식

제가 89년도에 군부대에 있을 때는 가족 기획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때 아마 시기를 놓치지 않았을까. 그때 89년, 90년 이후까지도 계속 두 자녀 갖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늘어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렇 거예요. 제가 당시 언론보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완도군에서 인구 늘리기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6만 군민회복운동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공직자들을 동원해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들을 완도로 주민등록만 옮기는 그런 여건이었고, 아마 당시 저도 거기에, 그 운동에 동참했었다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인구 6만 회복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마지막에 2015년에는 인구가 1,255명이나 감소되어서 5만 3,014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얘기를 하나면요. 그만큼 인구 늘리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그 부분들을 좀…… 얼마나 어려우면 그 많은 동원량…… 아니면 뭐 별의 별 방법을 다 쓰고 했어도 인구가 안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들에서 더 깊이 있게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풍선효과가 많습니다. 한 쪽에서 늘리면 한 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인구 늘리기 운동이 또 바뀌기 형태가 되었다. 아니면 이제 인구 늘리기를 안 해도 어느 신도시를 개발해서 그냥 블랙홀처럼 뽑아버리는, 인구를……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 공무직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여기에 안착시키면 네 분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네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은 인구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든 그분들이 완도에서 살 수 있게,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모든 정책을,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뭐 어떤 여건들이 있든지 인구는 참…… 우리가 작년에는 458명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또 계속 이런 추세로 인구가 감소되면 2025년도에는 아마 5만 인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2025년 이전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만 인구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사회유관기관 단체 및 전군민이 참여한 인구 감소 최소화 대책으로 추진함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군수님께 제안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합니다.

□ 부군수 박현식

역으로 마지막 한 마디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역으로 우리 실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자제 분들이 우리 동네에 산다. 그런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을 때 저는 인구가 안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자제 분들이 우리 동네로 내려와서 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공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불출석 공무원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24일(수) 09시59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
 - 기획예산담당관
 - o 복지행정국

□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o 기획예산담당관
 - o 복지행정국
 - 문화체육과
 - 주민복지과
 - 여성아동과
 - 민원봉사과

(09시59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

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1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먼저 1페이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은 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발굴한 다음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예산소요, 우리 군과 해당 없는 건 등을 제외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3년간 총 293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113건을 공모 신청, 70%인 79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35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사용내역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시 선행조건 및 선정을 위하여 총 24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포기 현황입니다. 2018년 수산경영과 소관 U-IT융합 모델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오인하여 선정되었으나 포기하였으며,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은 미추진되었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발굴 및 계획서 작성 등 공모사업 매뉴얼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제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업추진 대상자가 없거나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 과도한 군비부담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부담, 실효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다수 공모사업 신청시 군비 부담분 미확보 상태에서 응모하고 선정 후 군비를 확보하는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여부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

문하신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첫 번째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첫 번째 본안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박재선 의원입니다.

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부처에 국고지원사업비를 균등하게…… 공모사업 형태로 전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공모사업 유형이 다양해지고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열악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이 적극 활용되어야 된다는 데에 담당관님도 동의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동의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연평균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금 3년 동안 79건에 769억 3,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자료에 보면요, 우리가 293건에…… 3개년 동안에 293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했으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청은 113건이고요, 공모 제외된 것으로 172건이 나와 있는데, 어

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먼저 저희 정책기획팀에서 공모사업을 발굴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제시된, 그런 공모 사업들을 쪽 리스트를 뽑아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게 되면 관련부처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중앙부처로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발굴 받아서 심사한 후에 공모는 제외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제외관계는 저기…… 각 부서에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대상자 모집이 가능한지, 공모여건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올해 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분석을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되면 신청하게 되고 아니면 사업추진을 미추진으로 하게 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공모된 그 사업들을 보면 우리 군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렇게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ppt도 만들어야 되고, 또 평가도 받고 복잡한, 이렇게 힘든 절차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요즘 추세가 중앙부처 예산 배분방식이 분배방식에서 경쟁공모로, 이런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선정…… 공모사업선정을 위해서는 ppt라든지 사전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공모사업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또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서 부서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공모사업에 최종선정이 되게 되면 근무성적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검토보다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검토하기 보다는 꼭 그렇게 해달라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2017년 해양유치 가능 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연구 있죠. 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산업 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연구…… 중앙부처 연구사업인데 우리 군, 다음에 충남 태안, 강릉, 보성, 울진…… 경북 울진에서, 4개의 지자체에서 `18, `19년 동안 각 연도별로 2억씩 공동출자하는…… 시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용역 사항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 보면, 용역비에 보면 2017년도에 2억 원이 나갔고요. 2018년도에 2억 원이 나갔는데, 이게 3개년도에 걸쳐서 6억 원이라고 비교란에 또 나와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요.
`18년, `19년도 동안 2억, 2억해서 4억
이 추진되고요.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아니, `17년도에 나와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7년도에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16년 완도 해양헬스케어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4,000만 원, 자체적으로 실시
한 사항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사업에서 누가 추진할 것인가…… 즉,
사업의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좀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규로 시행되는 공모사업을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고사업들이 공모체제로 이렇게 바뀌었
기 때문에 1년 전에 충분히 사전준비를 해
놓으면, 당해 연도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공모 시 신청을 하면 훨씬 더 계획적이고 추
진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공모사업 선정 이전에, 계획서 수립 이전
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공모사업 추진 시에 군비 소요가 되는 사
업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것은 군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이제 필요하다면 과다한 사업비가 소

요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군의회하고 협의
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군비가 소요될 때
이렇게…… 사전에 의회와 함께 이렇게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4페이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께서 질의하신 용역결과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용역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총 86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64%인 55건이 연구용역입니다. 용역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용역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입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책
임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실명제 시
행,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등록 및 공개하도
록 되어 있는 프리즘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시스템을 통하여 선행연구가 있
는지 여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의뿐만 아니라 추진완료
용역에 대해서도 군정 기여도 및 우수성 등
을 반영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내실화 및
군정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
문하신 용역 결과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두 번째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두 번째 본안질

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년간 86건의 연구용역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역결과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지금 각 부서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무에 접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활용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보고선양사업 중 선양사업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나왔는데요. 연구용역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우선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먼저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장보고마라톤…… 장보고를 알릴 수 있는 장보고마라톤대회 개최, 그다음에 해상 왕장보고 판소리 공연을 추진한다든지 장보고한상명예의 전당사업들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사업을 먼저 착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집행부 좌석을 보며)

그 장보고유적관리소장님께서는 용역결과가 있죠, 그것 한번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완도군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2018년도에 경관계획…… 재정비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용역을 추진…… 있는데요. 경관법에 보면, 제15조 규정에 보면 5년마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관 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완도군 경관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재정비를 하지 않다가 2018년 금년 들어서 경관계획 재정비를 하고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2017년 해조류박람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야간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아니, 정비계획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5년마다 하기로 했는데 왜 3년마다 한다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5년을 넘어서 지금 저희들이 좀 늦게 착수를 했고요. 2006년도에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재정비계획을 `18년도에…… 올해 처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해야 했는데 좀 늦게 저희들이 착수한 사항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보면요, 완도항 해수유입 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2017년도에 그 완도항 해수유입시설 설치사업 용역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이게 저기…… 그 대상 업체가 102개 업체 중에서 96개의 업체가 해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4%가 거의……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 사유가 기존시설을, 업체

들이 깔아놓은 기존시설을 사용해도 불편이 없고, 중앙공급 방식은 아직 필요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서 당시……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결과든 또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요. 완도읍 내의 횡집 등이나 사용하고 있는 수질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본의원은, 깨끗한 수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역 같은 데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또 아까 침에 이야기했던 연구·학술·정책 용역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투입된 예산만큼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또 수행된 용역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용역 결과 및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꼭 이것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김재홍 의원입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매생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몇 페이지입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5페이지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 이것은 매생이 상품권을 우리가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근거자료인가요, 아니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 앞전 2017년도에도 매생이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군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미래사업단의 질의내용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 제가 보고를 잘못…… 말씀을,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CI개발, CI, 상품…… CI.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내가 봐도 ‘출원서보정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CI 개발 관련 용역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15페이지,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MOU·MOA 협약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이 체결한 MOU는 총 69건으로 투자유치보다는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홍보 및 방문객 유치용 건수가 많았습니다. 체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 이후 미추진현황입니다. 총 8

건으로 5건은 부지 및 진입로 미확보, 2건은 과대 사업계획 등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초기 및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나머지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 건으로 처리물 확보 문제로 최종 포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투자관련 MOU 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재정상태, 토지확보 및 사업 가능지역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행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 등 불합리한 MOU가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OU·MOA 협약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MOU라는 정의가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권리, 권한이 없는 그 의사표시적인 단계에 있는 그런 행위, 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에 서로, 상호간에 양해한 내용을 기재한 합의문서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반하면 도덕적 비난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MOA는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어떠한 내용을 하겠다는 약속인 MOA는 통상적인 합의각서로, 계약서보다는 법적 구속력은 떨어지지만 법적증거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협약

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계약위반의 법적, 이것은…… MOA는 법적효력도 갖고 있죠, 계약내용에 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우리 MOU……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저희 MOU는 총 69건이 체결되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18년도까지 하면, 그러면 몇 건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8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 박인철 의원

그렇죠.

MOU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 각 도와 언론사에다가 다 홍보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 MOU를…… 3년도 갓 MOU 현황을 봐보니까 해조류가 한 16건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분석해보면 해조류박람회 홍보 및 협조에 관한 건이 28건이구요.

□ 박인철 의원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MOU 체결을 안 해도 되는 것을 MOU 남발을 했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 박인철 의원

이 MOU 현황을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데 인구 늘리거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미추진, MOU 미추진이 된 데에도 거의 8개 업체에서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증대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냥 군수님하고 MOU 체결한 데하고 사진을 찍고, 그냥 특별한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그 이후는 전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니까,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게……

□ 박인철 의원

단장님, MOU를 이렇게 남발하는 이유가 뭐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MOU가……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사업이라든지, 행사 등을 홍보하고, 군정 이미지도 홍보를 하고 또 뭐 협약 체결한, 그런 단체에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군…… 뭐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유치를 하려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 담당관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군에 어떤…… 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지금. 한번…… 그 MOU 체결한 것을 내밀하게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이제 저희들은 총괄관리부서로서 종합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무실과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계획은 사업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이미 포기를 하고, 부지 미확보라든지, 그런 기타 사유등으로 통해서 사업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은 지속적인 독려로 우리 군에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미추진 사항을 보면 이것은 뭐…… 기획예산담당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실과의 다 문제입니다. 이것은 치적 쌓기에 불과해요, 이 MOU를 체결해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미추진이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업체들은 전체 미추진이 됐어요. (주)청산 리조트, 이것도 미추진. (주)에덴 키즈 글램핑 해가지고 이것도 미추진. 전복 먹이공장,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기도 미추진. 한류테마파크 조성, 이것도 미추진. 한약초 가공, 이것도 미추진. 미추진 사유를 보면…… 이것 가족호텔을 짓는다는 것도 전부 미추진.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투자…… 업체들은 전부 미추진이 되어 있어요. 아일랜드…… 왜 완도 청정수도 해가지고 특산품을 한다는 것도 전부 미추진. 이 사유가 뭐니까, 지금. 이런 것도 군에서 MOU를 체결할 때 확인 안 하고 그냥…… 이런 기업체에서는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MOU 체결과 투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그 회사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그냥 남발하는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뭐 담당관님한테 지금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직자들한테, 각 실과장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주무부서장으로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이제…… 어떻게 MOU를 체결해서 100% 되겠습니까마는 그중에 30%만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건 이외에도 우리 군에 투자하는 업체들이 자료에 붙이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 박인철 의원

아니, 단장님. 완료된 것…… 자료에 의하면 완도지역자활센터, 성광교회자원봉사회, 완도군어린이급식센터, 이것 전부 우리 군에서 MOU를 안하고도 할 일들이예요. 재미한 국여성경제인 총연합회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뭐를 했습니까. 특산물 판로 개척을 얼마 했습니까. 우리 업무이관으로 지금 수산경영과로 갔는데 경제산업과…… 지금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일고속 이것 하나…… 우리 군민들한테 제주도 배를 타면 20% 할인해주는 이것 하나 있네요, 지금. 전남어린이집연합회, 완도군수산경영인연합회, 완도초등학교, 뭐 전부 그런 거예요. 이 MOU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앞으로는 좀 더 실효성이 있는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나하나를 체결하더라도 MOU를 체결했으면 그것이, 그 MOU 건이 성사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체결할 때부터 이 업체가 우리 군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판단하시고, 진짜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한 것을 신문기사 가십거리로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이 업무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가있어서 그러는데,

(집행부 좌석을 가리키며)

여기 계신 전체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이에요. 그냥 군수님하고 사진 한 컷 찍고 완도의 각 지역신문에, 아니면 목포 MBC방송에 이런 MOU를 체결해 가지고, 투자가 얼마 되어 가지고, 금방 기업주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게끔 해놨는데 돌아오는 것은 다 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관님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총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이제 미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앞으로 MOU 체결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느 A라는 기업체가 됐든 B라는 기업체가 됐든, 그런 기업체하고 MOU를 할 때는 꼭 우리 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하고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21페이지,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우리 군 청렴도 측정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군 단위 청렴도 측정 항목은 외부 및 내부청렴도 등을 종합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남도 16위, 2017년 역시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남도 18위, 22개 시군 중 하위로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비위관련 공무원 적발 및 징계현황입니다. 2016년 항응접대 1건을 적발하여 1명 감봉 처분했습니다. 2018년에는 공금횡령 2건을 적발하여 정직 2월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음은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먼저 투명한 공사 관리, 감독을 위하여 공사업체 관계자 계약부터 준공까지 전유면 감사팀을 직접 관리하고,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완도군은…… “완도군 공무원은 절대 금품·향응·편의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 옴브즈만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익명 제보 신고시스템을 운영, SNS를 이용한 부패비리 척결 청렴문화 전파, 공사 부실 시공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민원처리 공정성을 점검하고 민원처리 기록을 매월 확인하고 있으며 방문민원 청렴안내문과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분야로는 일상경비 집행 실태 특검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팀 운영 내실화를 하고자, 사전예방형 시스템 감사를 추진 운영하고 취약업무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찰 강화, 비위 공무원 발생 예방 및 처벌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 및 민간인 청렴특별 교육을 11월 2일 실시하고 간부공무원 청렴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도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교육 및 청렴도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청렴방송과 청렴컬러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홈페이지 신고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갑질 및 부정부패 신고게시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

획입니다.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19년부터는 매월 초 2주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업무 처리과정, 결과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2018년도 우리 청렴도는…… 1등하죠,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1등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군은 언제쯤에나 청렴도에서 1등할까요,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전년도 18위였는데, `17년도 18위였는데 `18년도는……

금번 도 감사도 지금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 다 들어가죠, 순위에?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금년도 감사는 8월 21일자로 처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사평가대상 기간에는 포함되

지 않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언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내년도 평가입니다.

□ 박인철 의원

`18년도는 그러면 언제 것을 평가해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7년 7월 1일부터 `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박인철 의원

`18년 6월 30일입니까.

그러면 별다른 것 없으니까 1등하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등 한다기보다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말하는 상위권은 어떤 정도의 상위권을 말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보다는, 작년보다는 나은 상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주 하위권에서 더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내부적으로는 인사도 좀 투명해졌고 청렴 문화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관리감독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직·간접적으

로 경험했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박인철 의원

단편적으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2014년도부터 우리 군 청렴도를 봤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담당관……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담당관님입니다마는 그전의 실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답은 꼭 그 답입니다. 뭐 새장에 앵무새가 이야기하듯이 딱 그 답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등수는 딱 이 등수입니다. 16등, 17등, 18등.

우리 공무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뭐 어디 외부에 의뢰해가지고 교육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11월 2일에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박인철 의원

집합교육입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청렴도 교육을 합니까? 그런 교육은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청 내 방송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

□ 박인철 의원

그런 것은 단편적이고요. 우리가 진짜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아니면 팀별로, 이런 청렴도 뭐 교육, 이런 것을 합니까. 실질적인 교육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교육은 지금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직 제가 부서에 위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안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하는데, 해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렴도 향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모든 교육 시에 청렴도에 대한 과정은, 프로그램은 들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프로그램만 들어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도 감사도 있고 올해 각 읍면…… 또 자체감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평가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렴도 평가기간도 11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거의 올해…… 청렴도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남은 30일 동안이라도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부서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정 비리 공직자, 그 사이버신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사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서 (청취불능) 그다음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봐보십시오. 편의를 위해서…… 중징계가 내려오고 경징계가 내려왔는데 불문경고를 해가지고 인사를 해버린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감사라는 잣대는 누구한테 대도 똑같은 잣대를 대줘야 만이 그 법의 원칙에 따라서 맞는 것이지. 우리 편의주의에, 집행부의 편의주의에서 어떤 직원은 절차도 무시하고 해가지고 인사를 해버리고, 불문경고를 때려가지고 인사를 하고, 어떤 직원들은 원칙대로 나가고, 그 잣대가 어디에서 나오는 잣대입니까.

물론 감사관님…… 담당관님이 그 직에 가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떤 잣대인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 부서에서는 징계…… 그 요구만 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은 별도로 징계처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은……

□ 박인철 의원

아니, 우리 감사관실이 거기에 안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요구는……

□ 박인철 의원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저께 부군수님한테도 물어봤지만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이 있으면…… 절차가 있으면서도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루어진 것, 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문제는 어제 부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누가…… 우리 처음 발단이 감사관

실에서 안 올랐으면 그것 안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도 안올리고 인사위원회에도 안올릴 것 아닙니까. 누가 올리라고 했습니까, 일부러 인사계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 사항은 어제 부군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대답하기 조금 난감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어렵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저도 물어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룰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벌을, 잘못을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딱 서야 만이 우리 직원…… 다른 나머지 직원들도 “아,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되는 것이지. 자꾸 뭐 이 이유, 저 이유 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버리면 어떤 직원들이 이 감사를 믿겠어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위 그렇게……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1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위 안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사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버리면 그런 감사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인철 의원님께서…… 징계요구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2항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징계 등 사건에 우선해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심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요청서를 제출해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분들이 그랬으면 도 감사관한테 그런 것을 했어야죠. 지금 우리 도 감사할 때도 불문경고로 안 있습니까. 그래서 면책도 해줬고, 답변을 잘했으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부군수님한테도 좀 강조를 했고.

뭐 금방 담당관님이 이야기했던 법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데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 도의적인 책임은.

지금 그러면 우리가 38명 아닙니까.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는 어차피 불문경고로 해가지고 해버렸으니까. 훈계, 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지금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신분상 조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재정상 조치관계는, 실과소에서 지금 조치계획을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다시 한 번 강조를 할게요. 훈계 정도는 아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더 가벼운 벌은 조치도 안취해져 있는데. 중징계야 도에서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하니까 뇌물이라도 경징계 같은 것은 훈계보다 훨씬 무거운 벌인데도, 경징계를 받으면 인사도 할 수 없는데도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됐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18년 자체종합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8년도요?

□ **박인철 의원**

예, 우리…… 보건의료원, 보길면, 노화읍, 군외면, 소안면이라고 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결과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보면, 거의 각 읍면 간에 유사하거든요. 우리 자체감사에 적발해놓은, 그런 목록들을 봐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도라도 마찬가지로 `18년도도 이제 면만 틀리다뿐이지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 적발된 것들이,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우리 청렴도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냥 강당에다가 우리 직원들 전체를 모아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심층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좀……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알겠습니다. 취약부서, 그 공무원들별

로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단위별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전에 것은 우리가 접어놓더라도, 기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접어놓더라도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계신 한 최소한 우리 군도 좀 청렴도 순위를…… 1등은 못하더라도 최상위 클래스로 좀 올려주시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우리 군의 가장 핵심업무로 삼고 모든 노력을…… 모든 행정력을 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 한 컵 드시고 하시지요.

(웃음)

참 고생하시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렴도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부평가에 대해서 그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규정이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세한 규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제가 공부한 것으로 해서는 첫째는 부당한 인사하고, 또 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지시라고 내부평가로 되어 있고요. 외부평가는 지역주민이라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평가보다 외부평가가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앞전에 보면. 그래서 왜…… 특히 외부평가가 낮아지는 이유가 혹시 담당관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인허가 공사 관련해서 금품이라든지 향응 제공, 그런 사례를 경험했다는 유형의 설문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제가 알기로는 해조류박람회 때 상당히 그 티켓을 많이 강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라든가, 또 단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 군 내의 사람들은 조금 강매를 해도 상관없이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외부단체에서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제가 이장을 해보면 이장단체에서 오죠, 여성단체에서, 소방단체에서 오죠. 또 자원봉사, 이렇게 하면 한 네 군데 정도에서 그 티켓을 받아요. 그러면 몇 십장이 됩니다, 그게.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외부 이렇게 업체…… 업체, 이런 데에서는 그게 뭐 100장, 200장, 뭐 1,000장이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안 좋고, 나쁜 평가가 나오고.

그래서 해조류박람회를 꼭 해야 된다면 이런 방안을 달리 모색해가지고 좀 해볼,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요즘 그런 이제 그 표…… 뭐 매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

고 그런 분위기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하기 힘든 이유가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노조가 생겨가지고, 제일 먼저 노조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람회가 진행된다면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끝나고라도 지금은 현재 우리가 뭐 몇 백, 몇 만 명이 왔느냐, 몇 십만 명이 왔느냐…… 뭐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왔고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끝나고 나서도 정말 개운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 잘했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24페이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민선7기 예산편성은 해양치유,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복지 등 민선7기 군정 핵심과제 추진에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민생활력을 도모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시책사업 중 완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가치 제고에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와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능력 강화 등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방재정 운영에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예·결산 정보공개 확대 및 군민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상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과감하게 절감하여 지역의 주요 정책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축제 효율화를 통해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부적정 수급 차단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6.3%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국고확보 및 지방교부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고확보는 국·과·소장 책임제로 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 순기에 맞춰 전략적 대응으로 최대한 많은 국고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020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부서별 사업이 취합되면 11월 중 부군수·군수 주재 보고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4,488억 9,800만 원, 특별회계 188억 300만 원, 총 4,677억 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3%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보시는 표와 같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49.96%, 보조금이 33.47%, 조정교부금이 1.34%로 전체예산의 8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은 6.28%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농림수

산분야 비율이 21.21%, 사회복지분야가 18.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치성 기금으로써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9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기획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요, 재정역량 집중, 재정확대, 건전운영, 전부 다 일자리 창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게 전부 다 소요는…… 예산 소요는 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계획대로 편성된……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예산 금액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제가 계수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답변하시다가 정부 정책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현정부의 정책이 아닙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제가 알기로는 저임금이라든지…… 저임금 노동자 가게 임금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증대시키고, 기업은 투자나 생산을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현정부의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저소득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고 소득을 좀 높여서 소비를 시키자, 이런 선순환 구조 정책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내년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2%대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제 생각에는 한 2점 중반대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나 정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수준에 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뭐 고용 안정이나 서민생활…… 취약계층 등, 이렇게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 제시해서 또 예산을 편성·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런 분야에 신경을 갖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또 세입기반 확충, 특단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지방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방세가…… 140억. 아, 예. 163억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세가 약 5억, 재산세가 23억, 자동차세가 49억, 담배소비세가 46억, 지방소득세가 34억 원.

□ 김양훈 의원

저는…… 책자에 보면 163억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그 예산이 158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11종, 우리 목적세가 4종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그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지방세는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가장 높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게 얼마 정도나……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동차세가 49억, 담배소비세가 46억.

□ 김양훈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자주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확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동의합니다. 그 세입부분은 세입담당부서인 세무회계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구축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밀하게 분석해서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주재원, 그 확충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가 346억……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불용액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저기…… 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총 347억으로써 이중 125억 원이 예비비입니다. 지난해 정기추경시 삭감된 62억 원이 포함된 122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농림수산사업…… 예산이 불용액으로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나야 되는데 농림수산보조사업들이…… 2016년도에 사업이 내려왔으면 그때 당시에 다 소화를 못하고 2017년 사업으로 다 이월시켰다. 그래서 2016년 사업을 2017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산이라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가 예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불용액이 나온 것을 지금 다 내년 연도로 이렇게 이월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다, 불용액이 나온 것을?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불용액이 나온 것을 내년도로 이월…… 이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내년 신규예산에 다시 편성을 시키죠.

□ 김양훈 의원

신규로요? (예)

그랬을 때 큰 페널티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하반기 재정집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할 사업들은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예산 편성시에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그러면 민선7기 예산편성……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너무 예산을 전년도의 것만 치중을 해서 새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볼 때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해본 것입니다.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짜 할 사업, 또 안할 사업, 그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이 있는데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투자를 통해서 세금이 제일로 많이 들어오는 쪽부터 우선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수입이 많이 되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랬을 때 그런 형태…… 그쪽에 투자가 우선되면 SOC시설이 됐든, 뭐 건축시설이 됐든 우리 군의 인구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뭐 보통교부세나 이런 모든 것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주재원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예,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장시간 서서 고생하십니다.

그 페널티 금액 때문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봐도 2018년, 41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그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각종……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마는 민간이전 지방보조금을 절감해야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민간이전 보상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41억 7,000만 원이……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못 파온…… 그냥 삭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

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보면 이게…… 올해가 이러면 내년에는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내용을 여기 답변서에서 봤는데, 어떤 내용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앞으로 교부세 감액요인을 철저히 제거나가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법규를…… 법규에 근거해서 법규에 위반된 사항들은 철저히 차단하고요, 저희들이 또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더 기울여서 올해는 페널티를 받는…… 올해 이후부터는 페널티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혹시 이런 우리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다시 올리는 사업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여건이 안맞아서 포기하는……

□ 최정욱 의원

그럴 때는 페널티를 안 받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차지……

□ 최정욱 의원

있죠, 좀 철저히 잘해서 이것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40억이면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국비를 뭐 10억 이상 확보하기는 참 진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번에는 간단히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것도 철저히 저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서 패널티를 최소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앞으로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 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 소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행정국장님이 한 건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직제 순에 따라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

- 문화체육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먼저 우리 군이 조직개편 인사로 인해서 지난 9월에 복지행정국장을 맡은 이후, 오늘 처음 군정 질문·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동안 군정 질문·답변을 1개 과의 과장으로서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복지행정국장으로 6개 과

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과 업무를 완전히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행정국 소관 2018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국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세무회계과 이렇게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작은도서관 시설현황 등 7건입니다.

먼저 1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도서관 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권 중심의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지역민들의 지식정보제공과 평생교육 증진 등 마을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작은도서관은 2014년 신지햇살작은도서관, 2016년 소안 사립학교와 금당섬마을작은도서관, 2017년 생일 열린꿈터작은도서관, 2018년 녀도행복작은도서관, KB국민은행 후원의 약산 진달래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6개소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운영방식으로 마을의 자치위원회와 청년회, 번영회 등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구입비 등 연간 7,840만 원, 1개소당 1,300만 원 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하루에 5시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서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작은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도서관의 주이용층은 어린이와, 특히 초등학교

생들입니다. 금년 9월 현재까지 4개 작은도서관 이용인원은 8,151명으로 월 이용자수는 226명입니다. 특히 신지햇살작은도서관은 수요자 중심의 문화강좌 운영과 생일열린꿈터작은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운영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아동,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문화시설이 없는 도서 지역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화읍 넓도행복작은도서관, 약산진달래작은도서관은 올해 10~11월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군외와 고금면에 대해서는 유희공간을 활용한 지역 내 접근성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고려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작은도서관이 지역민들의 생활공간에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서관별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운영자 직무교육 등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도서관 시설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회운영장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회운영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33평방미터 이상인 유희건물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뭐 장서는 1,000권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보유하는 도서관…… 이런 것이 작은도서관이죠? (예)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찾아갈 수 있는, 지식정보서비스도 줄 수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 군 작은도서관은 규모로 보면 가장 작은 규모가 33제곱미터가 있고, 144제곱미터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 그 규모를 갖춘 도서관도 있는데. 혹시 또 더 큰 도서관도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기준은 이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장소에 33평방미터로 해서 장서는 1,000권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이것을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유희공간, 즉, 말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크면 좋겠죠, 클수록. 그러나 어떤 우리 지역형편상 보면 읍면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그렇게 그닥 큰 건물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여기 보면 크다고 해서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이용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국장님, 작은도서관 유지관리비나 운영비는 군에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서를 구입해주고 거기에 따른 그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운영비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한 도서관당 얼마 정도 유지비가 드나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그래서 아까 한 도서관당…… 1년에 1개소에 1,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1개소에 1,3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제 생각은 작은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가면 좋겠는데 공모사업으로 안하고는 안 됩니까. 공모사업을…… 내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고금하고 군외를 한다고 하셨는데, 꼭 공모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순군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어떤 형식절차를 거치는 것은 도비를 더 지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도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 이것을 보면 엄청 효과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군비로라도 좀 더 확대해주시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섬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완도, 금일, 노화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런 공공도서관이 없는 우리 도서지역 읍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공간을, 공간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찾고는 있습니다. 특히 없는 읍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서관팀에서…… 저도 문화체육과장할 때 2~3개소를 개소를 해봐서 아는데, 저희들도 적극 장려를 하고 있고. 그런 공간만 찾아주라, 지역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무래도 도서지역은 이런 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고 그러니까 신경 좀 꼭 써주셔가지고 널리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공공도서관은 지금 3개소가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에 사서직렬이 몇 명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사서직렬이 지금 4명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되죠, 지금 그러면 완도군은, 완도에 있는 도서관은 사서직이 있는데 금일하고 노화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금일…… 아니, 금일에 사서직이 1명 배치되어 있고 노화에도 사서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도서관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도서관 업무를 겸해서 읍면 총무계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일반행정하고, 지금 우리 완도읍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이 상주하면서 하는데, 지금 금일하고 노화는 일반행정을 겸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국장님. 내년 1월 달에 조직이 개편되면 노하나 금일도 우리 문화체육과 도서관담당팀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서직들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군에서요?

□ 박인철 의원

예, 군에서 사서직들이 거기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을 겸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행정도 미비한 점이 있고 도서관 관리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일도서관하고 노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갖춰져 있는데 그 활용도가 작은도서관보다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면 읍면에 배치된 2명의 사서직을 차라리 도서관팀으로 발령을 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읍면도서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공공도서관이, 완도읍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지금 신축이 된지 꽤 오래됐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우리 공공도서관이요. 1990년대 초에……

□ 박인철 의원

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좋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신축할 그런,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완도읍권에요?

□ 박인철 의원

완도군…… 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군이라고 생각하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장보고대교가 개통된 후로 해서 고금, 약산면민들까지 이제 완도권으로 생활권으로 형성이 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도서 문화적인……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완도읍권을 많이 활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도서관 이용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을…… 완도군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지금 1일 평균 한 185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가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확대할 필요는,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저 한 곳에만 집중시킨다고 하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도서관의 어떤 분관형태라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타당……

□ 박인철 의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꼭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완도읍에도 인구과밀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또 추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완도읍에도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공공…… 우리가 시설물을 건축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 이럴 때 꼭 작은 도서관을 그 공공시설물에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

리 그 지역민들이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증가와, 또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신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공시설물 건축 시에 어디 자투리 공간이라도 배려를 해서 거기에다가 작은도서관 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완도읍에 있는 군립도서관도 보면 저쪽 가용리 쪽이나 수고 앞에…… 완도가 이런 데는 보통 도보로 한 30분, 차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은…… 장난감도서관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작은도서관을 시내에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에 자체위원회를 우리가 좀 운영하든가, 아니면 공모해 가지고 그런 데에도 작은도서관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좋습니다.

개포리라든가 가용리, 이런 인구밀집지역에는 우리 군립도서관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밀집지역…… 또 아파트 지역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도서관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3개 있는데, 지금 완도읍이 공공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다시 부탁드립니다. 금일, 노화 부분, 사서직들이 그 업무에만 열중할 수 있어야…… 그 도서관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인사에서는 꼭 그렇게 좀…… 우리 군에서, 직접 문화체육과 도서관담당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도 그런 체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서직들이 그 업무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인철 의원

그것이 문제죠. 사서직으로 들어갔으면…… 완도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문화혜택이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배치했는데 그 배치된 인원이 그 업무에만 종사를 해야 되는데 거의…… 100으로 보면 행정이 80이고 사서업무는 20도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업무비율로 봐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했다가 꼭 다음 1월 달에 인사가 있을 때는 이 관계를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현장에서 상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

□ 박인철 의원

공무직이라도 우리가 채용을 해야죠,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게 된다면 인력지원 부분에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그 인력도 국장님 소관이니깐 하여튼 잘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인 교육훈련센터 완도 유치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 유치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산소음이온이 전국 최고로 발생하고 있고 기후가 온화해서 스포츠 산업의 최적지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해양 치유산업과 연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재활치료는 물론 체육지도자, 심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체육인에 대한 동·하계 전지훈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체육인 교육센터를 완도에 유치를 위해서 대한체육회장과 태릉선수촌장 등을 면담하고 유치 건의를 하였으며, '17년 7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18년 5월 17일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만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왔습니다. 현재 전남이…… 우리 완도를 비롯해서 여수와 순천, 장흥 등 10개 시군이고, 경남이 하동과 함양 등 2개 군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부지선정위원회 평가에 적극 대응을 할 계획이고, 또 우리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회에…… 또 임대를 해주는 방안 등, 그리고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등. 이런 사항들을 의회와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의 건의를 통해서 체육인 교육센터가 완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군을 비롯한 10개의 지자체가 유치신청을 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확정 및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달 말경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한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인 교육센터 완도 유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토지만 매입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첫 장에, 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65억에서 군비 200억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유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지만 매입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9억도 반영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라고 그 정도까지 하고, 우리 군에서 뭐 부지만 매입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완도군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 예산의 경비가 200억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200억으로……

□ 박인철 의원

부지매입비가 200억이나 됩니까?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장님이 여기 설명했듯이 약 8,300평, 9,000평이 안 들어갑니까,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예)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200억이나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가 완도읍하고 신지일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 잘못이야기가 되면 땅값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처음 보고됐을 때는 그런 금액이 안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200억이라는 돈이 올라와있으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그것은 군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가…… 진입도로가 있는 부지라고 한다면 부지매입만 들어가겠지만 진입도로가 없거나, 또 다른 어떤 시설을…… 뭘니까, 개설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는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하여튼 부지매입을 이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완도의 땅 시세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비로 200억을 잡은……

□ 박인철 의원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은 부지매입만 해주면 되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 더 유리한 조건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체육회 정책…… 체육정책연구센터장이라는 분하고 계속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을 붙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는 “뭐까지 해주겠다.”, “뭐까지 해주겠다.” 라고 우리 군보다 더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군으로써는 이것 외에 뭐 더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여력이 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처음…… 제 일 먼저 우리 군에서 대한체육회한테 접근을 해서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했는데, 지금

유치가능성은 몇 %로 보니까, 국장님?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지금 이달에 대한체육회에서 용역을 별도로 맡겨가지고 결과가 이달 말에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체육회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체육회에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주무부서인 대한…… 아니,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칼자루는 지금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부가 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체육인교육센터의 설립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가장 먼저 접근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 있을 때 군수님하고 직접 대한체육회장을 면담하고 태릉선수촌을 2~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실무적인 그런 연계를 해왔던, 그런 과정이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의 문제는 문체부가 이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기재부가 그 예산을 국비로써 확보해줘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듣기로는 대한체육회 용역결과…… 이 체육인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BC 분석결과가 1.4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궁을 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기재부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지자체, 어디다가 그러면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내년도 국비예산에는 전혀 뭐 문체부나 기재부에는 전혀 반영된 것이 없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하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지금 없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발전이 오고, 또 완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여러모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질문이 비켜갑시다라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그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엘리트 여성체육인들이 완도에 와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인가, 1회 추정인가 예산을 잡아줬는데 그런 것도 안 비켜갑니까.

이런 것도 하여튼 우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손을 들)

예,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우리 체육인재센터가 완도에 유치되면 참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체육인재센터가 지금 쪽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

회에서…… 그것이 예산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쪽지예산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기재부와 지금 문체부 간에 서로 갈등차이가……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그제께인가 말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갈등은 좀 풀렸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에 정확히 반영이 되냐, 안되냐. 예산에는 아직 안 하고 있다, 서로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능이 조금 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잠깐…… 국비로 3억 원을 들여서 대한체육회에서 용역을 작년 말에 했는데, 올해 완료된 결과……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BC 1.4가 나왔다, 이 정도만 지금 되어 있고.

아마 체육회에서 공모…… 문체부와 협의가 되면 그것을 공모로 의뢰를…… 뭘니까,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우리가 지으려고 하니까 유치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에서만 8개 군에서 지금 유치 전략을 펴고 있는데 주로 해안을 끼고 있는 군들이예요, 이렇게 보면. 장흥, 강진, 순천은 아니지만 여수, 광양, 인근에 해남, 강진, 장흥까지.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정리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도와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사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육회와 먼저 이야기가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시군끼리 경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완도군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제가 알기로 이 앞전 전남체육회장 김홍식, 그 체육회장님하고 이기흥 체육…… 대한체육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가…… 완도군하고 발 빠르게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방금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고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에서는 황주홍 국회의원이 좀 많이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만 100%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정치권에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야 우리가 추진하는데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고생되시겠지만 잘 추진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김양훈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깊은 부분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절히 대처를 나름대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운영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현황과 이용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각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 현황은 147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답변서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관 운영현황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고급국민체육센터 2개소이며, 활용실적은 월별 이용객 8,500명입니다. 이용상 문제점으로는 시설물 사후관리 미흡과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읍면 합동으로…… 읍면과 군이 합동으로 분기별 지도·점검하여 접근성과 고장 기구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설과 보수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읍면 운동기구 설치 건의 현황입니다. 20개소입니다. 게이트볼장 신축 2개소와 운동기구 설치 18개소 건의가 있어 현장조사 및 검토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운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읍면별 마을 운동기구 설치를 보니깐요, 설치대수가 147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면에도 27건으로 제일 많고요, 약산은 한 5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것은 지금 마을별로 운동기구…… 간이 운동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연차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일찍 해놓은 데는 대수가 많고, 지금 들어서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읍면 간에 격차가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욱 더 설치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읍면에 지원해줄 때 형평성에 맞게 동네마다 원하는 곳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에 좀 맞게 골고루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실, 사진 한번 비춰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읍면 단위에 보면 저렇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잡초도 많이 나오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설이 필요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전혀 그 파악 정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보셨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리가 우선 건의가 들어온 것부터 하다가, 건의가 들어온 것부터 개보수를 하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지금 보면 설치도 이렇게…… 저 기구가 동네별로 어르신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참 활용을 잘하는 데는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기구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저 사진처럼 녹슬고 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홍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저런 부분은 군에서 관리……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스스로 마을주민들이 그 운동…… 주민들이 관리를 하계끔 그렇게 유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사해놓은 것이 불량이…… 지금 한 23군데로 나와 있네요, 청산 쪽에 주로 많고 23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설이 필요한 곳, 즉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을 별로 안 하니까. 더구나 또 이렇게 장비가 빨리 노후화되고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다섯 군데이고, 그 게이트볼장에 많이 있는데 그쪽에 해야 될 것들이 13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악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옮겨주라고 하면 옮기고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보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관리를 잘해서…… 보면 필요 없는 곳에, 이용을 안 하는 곳은 좀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원하는 쪽에 지원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게이트볼 같습니다,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이 지금 전천후로 지금 된 데가 완도에서 다섯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데가, 뭐 게이트볼 자체가 없는 데가 노화 한

군데 있더라고요. 노화는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줬던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까지 요구가 없었습니다. 노화에서는.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게이트볼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다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리고 부지선정을 못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화가. 지금 올해…… 내년엔 부지선정만 되면 그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게이트볼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사용을 잘하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거기서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거기 환풍기가 없는 게이트볼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지에…… 어르신들 몸이 더 안 좋아진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대표적인 곳이 우리 다섯 군데 중에 고금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 전천후게이트볼장하고 군외, 그다음에 소안, 고금. 이런 데는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지까지. 고금에서 특히 환풍기 시설까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환풍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고금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약을 좀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환경이 쾌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파크골프라고 아십니까? (예)

지금 완도에 파크골프를 하는 동호인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고금, 약산 쪽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지금 그분들이 목포로 운동을 다닙니다. 이렇게 운동은 하고 싶어 하고, 또 운동은 해야 되겠고 그러는데 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완도에도 파크골프장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직 없습니다. 그게 그라운드골프라고도……

□ 김양훈 의원

아니요, 그라운드하고 파크골프는 다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직 그 파크골프장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파크골프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골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잔디…… 인조잔디가 아닌 이런 그냥 일반 국산잔디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하는 것은 같은데.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포에만 그 구장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 하면 뭐 교통사고나 이렇게 좀……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힘들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용역이라도, 아니면 뭐 계획이라도 잡아주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예. 이제 수요가…… 파크골프 인구가

많으면 또 해드려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한번 좀 잘 살펴가지고 꼭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운동 같은데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까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완도군에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보니까 뭐 대회도 많이 치르고, 그리고 이번에 11월 6일에 도지사배도 완도에서 개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도 좀 이렇게……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마찬가지로입니다. 부지문제인데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공원, 완도읍에 있는 체육공원은 지금 테니스장, 축구장, 보조구장, 야구장, 종합운동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시설을 가지고는 모든 스포츠 종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든, 뭐 전국단위 대회를 하든, 보다 넓은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에 제2의 체육공원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하루 아침에 1~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의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넣어

서라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완도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동호인 분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15쪽, 장보고 업적 알리기와 장보고…… 아, 죄송합니다.

14쪽,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은 우리 완도를 장보고 정신과 활동이 살아 숨 쉬는 문화명소로 부각하고, 장보고의 고장 청해진 완도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선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선 장보고한상어워드 추진입니다. '16년도에 3명, '17년도에 4명, 올해 6명 총 13명의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 확장에 기여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왕 장보고 창작판소리 공연 콘텐츠 개발입니다. 판소리 사설창작과 소리훈련, 시연 등 공연 개발이 주사업내용으로 현재 창작판소리 열두바탕 추진위원회에서 사설 창작 및 작사·작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에서 장보고대사 업적강의와 특강, 전통공연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2개 읍면 순회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0월 12일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체도권 5개 읍면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추모다례제의 경우, 올해 12월 초 실시예정으로 장보고대사 추모공연 및 전통제례가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연관해서 완도 법화사지 정밀발굴 진행상황입니다.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규모 2,000제곱미터 총 사업비 1억 8,940만 원 순군비사업으로 발굴한 결과 담장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축조 수법…… 그리고 3동의 건물지가 확인 또는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기와와 고려시대 청자 등 유물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정밀발굴은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는데 1,400제곱미터의 총 사업비 1억 7,52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600을 보조받아서 발굴작업을 실시했으며 출입시설 조사와…… 조사를 한 결과, 중앙에서 남쪽 건물지까지 유물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정밀발굴은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2,000제곱미터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동쪽, 북쪽 담장지를 발굴하고 기존 건물지를 재노출하고 법화사지 전체 유구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차 발굴 이후에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화사지 보존 및 재건 활용방안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쪽,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2017년 7월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을 통해서 장보고선양사업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리 군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선추진 가능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과 중국 등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장보고 아카데미의 2018년 장보고 여름학교로 올해 초등학생 28명이 중국 산둥성 일대를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초등학생 30명, 2017년에는 25명이 일본으로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데다가 이렇게 밖에서 들으면 설명도 좀 해야 되고,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굴과…… 발굴실적과 결과계획을 첫 번째로 질문할 것이고, 두 번째로 용역결과, 세 번째로 우선추진사업, 네 번째로 학생 견학기준, 다섯 번째로 장보고한상어워드 추진, 시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궁금해서 차례차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완도법화사지 정밀발굴 진행 사항을 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 발굴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발굴실적과 향후 발굴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법화사지 발굴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2차 발굴은…… 지금 2차 발굴을 진행 중에 있고 3차 발굴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여기를 발굴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가 역사적으로 있는데 실체를 지금…… 실체가 지금 없어서 우리 역사 문화적으로 우리 완도가 청해진이고, 또 그만큼 유서 깊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또 문화적 보호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화사지로 추정되는 현재 위치를 지금까지 발굴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장도 청해진 유적지와 법화사 터를 놓고 문화재청에서 지난 1980년대에…… 먼저 이 법화사지 터를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시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거기를 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청해진, 그 장도를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자체발굴을…… 청해진유적이라는 장도를 먼저 발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결과,

아마 통일신라시대에 유물·유골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거기 장도가 청해진 유적지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복원까지 완료하고, 장도에 대해서, 토성복원과 유물, 성문, 또 치, 이런 것들을 발굴 완료한…… 복원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눈을 법화사지로 돌려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저기 문헌에 저기 장보고대사가 중국의 법화원과 일본의 법화원과 법화원, 그리고 법화원을 짓고…… 우리 완도에서는 법화사를 지어서 거기서 장도와 더불어서 해상무역 활동을 했고, 또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곳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기록에 보면 지금 현재 터가 맞다는 기록도 있고, 또 아니고 다른 데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가 유력하다고 보고, 여기 발굴을 하는데,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못 받고 군비 자체…… 순군비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그런 유물, 유골들이 발굴이 된다고 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국비를 받아서 이제 발굴이나 복원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군비를 투입해서 발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발굴한 결과, 1차 정밀발굴은 201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의 형태와 규모, 이런 것들은 지금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건물지가 3동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와라든가 고려시대 청자, 뭐 이런 것들이 300여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기와 중에 일부는 분명히 통일신라시대의 기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발굴을 마쳤고, 그래서 더 발굴해보면 더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

까 싶어서 2차 발굴을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발굴결과를 보면 이 출입시설 위주로 해서 발굴을 했는데요, 그 출입시설이라는 곳이 절로 추정되는, 건물을 드나드는 그런 출입시설이 되는데 그쪽 밑에 쪽에 발굴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2차 발굴에서는 청해진, 장도 쪽으로 향하는 출입시설이…… 그런 방향의 건물이 또 있었다는 그 건물지를 새로이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연못으로 추정되는 그런 장소를 또 발굴했고, 지금 계속해서 통일신라시대, 그다음에 고려시대…… 이 고려시대에 정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외편만 발굴된 것이 아니고, 흙속에 묻혀있는 외편들을 모아보면 중간에 중건…… 정착을 할 때 고려시대 것 삼별초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때 삼별초들이 와가지고 법화사를 다시 또 중건을 해서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서 고려시대 유물 기와 외편들까지 출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미확인지역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3차 발굴을 통해서 완전히 발굴을 마칠,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장도…… 1차적으로 발굴한 과정이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닙니다. 장도는 뽕니까, 완료가 됐고, 군부대의 저수지 밑에 여기서 올라가다보면 저수지…… 저수지 뚝 부근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3차 발굴하는 데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 2, 3차 다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

드립니다, 거기.

□ 최정욱 의원

잘 알았습니다.

용역결과, 두 번째 그것……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종합계획을 2017년 7월에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사업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인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장보고대사와 관련해서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장보고대사의 정신을 알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추진 중인 것은 없습니다. 장보고 동상, 그것 완료됐고.

□ 최정욱 의원

예, 우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없고요. 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용역결과보고서에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은 자료를 보고 하죠.

그다음 우리 학생들…… 지금 초·중·고 등학생 대상으로 `16년부터 일본, 중국 등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견학 선별기준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는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학생들 견학은 지금 관내 초·중·고 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 견학인데 저쪽 중국 산둥성…… 장보고 대사의 활동지였던 산둥성 일대 그쪽하고 일본은 장보고대사와 관계있는 곳이라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라는 대표적인 곳이 일본에 엔라쿠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쪽 지방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단법인 장보고아카데미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보고 여름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 초등학교들 28명이 산둥성을 다녀왔고, 그전에 2016년도와 2017년도에도 30명, 25명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지금 그 장보고연구회라고 또 있습니다, 완도에.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에서 우리 초등학교들, 초·중학생들 견학을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예산반영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한 1,000만 원 정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어차피 우리 장보고를 알리기 위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제가…… 밖에서도 참 좋은 것으로 많이 들리거든요. 서로 이렇게, 애들도 서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숫자는 왜 한정이 되어 있는가요? 더 가도 되는데, 이 숫자만 하는 이유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무래도 이제 예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 최정욱 의원

예산이요? (예)

많이 이렇게 애들이, 학생들이 가려고 하면 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것은? 기왕 이런 사업을 하면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또 예산을.....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견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일찍부터 알아야 이것이 꾸준히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이예요.

그리고 어차피 선양사업의 발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래도 완도에 주둔한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것을 알고 있던데, 그분들의 어떤..... 이렇게 같이 뭐랄까, 간담회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은 나름대로 장보고연구회라든가, 우리 완도군 문화원에서 주로 민간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군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최정욱 의원

어떤 우리 장보고 선양에 대한 발굴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위원회식으로 구성은 안 되어있는가요? 전문가들로, 우리 지역 내에?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역 내에는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라고.....

□ 최정욱 의원

아, 그쪽에서 같이 통일하나요? (예)

그러면 여기 어디어디 시상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상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장보고한상어워드를 말씀하십니까?

□ 최정욱 의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게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인데 끝에는 장보고글로벌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뭘니까, 이 사장이 김성훈 전농림부장관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장보고에 대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자, 우리가 장보고를 완도 내에서만 알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고 그래서..... 이것 우리 장보고한상..... 한상이라는 말은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경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한 스토리를 엮어서 널리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곧 장보고대사의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다,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대한 상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것이 장보고한상어워드입니다. 거기에는 심사위원으로 김덕룡..... 전의원인 김덕룡 의원님, 그 분이 한상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라서 위원회에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임총리이신 정은찬 총리, 그다음에 지금 부산시장을 하십니다마는 오거돈 전해양수산부장관님, 그다음에 또..... 하여튼 저명하신 분들로 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나 신문홍보를 통해서 장보고한상어워드 대상자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추천을 하든 본

인이 신청을 하든, 그렇게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상과 국회의장상, 대상은…… 대상, 그다음에 국회의장상, 해양수산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장관급 이상 상으로 이분들의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수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 3회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명이 선정됐는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굉장히 이름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상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욱 더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5년 동안 지속되면 앞으로 대상은 대통령상으로 이제 승격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3회째니까 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상을…… 우리 장보고대상을 이렇게 줌으로써 완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분들을 완도에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고, 또 우리 장보고에 대해서…… 그분들이 장보고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지만 상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완도를 알게 되고, 우리 완도와, 그분들은 어차피 경제인들이기 때문에 완도와 그 사람들 간에 어떤 장보고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완도의 경제, 또는 기업투자 내지는 뭐 판촉, 알선,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분들이 수행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

하여튼 계속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장보고대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일부 인이요?

□ 박인철 의원

일본인들의 시각, 장보고대사를 바라보는 시각.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일부 인들이요?

□ 박인철 의원

일본인이요, 일본인.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일본인이요, 그것 저는 전반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야 뭐 장보고대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군의 어떤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엔닌 스님하고 법화원에서 만났던 인연으로 해서 장보고대사가…… 엔닌 스님이 쓴 글에 보면 장보고대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 엔닌이 세운 절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 어디 지방이었더라, 교토 쪽에 있는……

□ 박인철 의원

잘 알았고요.

지금 국장님이…… 엔닌 스님이 장보고대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해진대사, 즉 장보고대사 어진 덕을 삼가 우러러볼 따름입니다. 그러면 엔닌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 일본 최초의 대사 칭호를 받았으며, 일본 천태종의 3대 좌주로서 일본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엔닌 스님을 모시고는 일본 연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연역사라는 절이요. 그러면 장보고기념비도 있고 엔닌 스님을 알고 있는 분

들은, 일본인들은 장보고대사를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 군에서 미처 거기까지 지금 받을 못 뵈었는데.

그리 하고요, 그렇게 하면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영웅으로 평가하죠, 장보고대사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중국에서……

□ 박인철 의원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중국 영성시에 가면 기념관이 있죠.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본의원 지인이 갔다 와서 하는 말에 의하면 그 영성시 운영책임자가 있다고 합니다. 운영책임자가 장보고대사를 자랑하고 장보고기념관을 관리하는 자체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국장님은 가봤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저는 가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장보고정신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금방 나열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큰 관심은 없습니다. 한상어워드상을 한다고 하고 해상장보고 판소리…… 내년 `19년도 2월까지 한다고 하고, 그리고 사단법인장보고에서 엇그저께 했던 이러이러한 것하고, 또 올해 장보고축제 때 추모 다례제하는데 이런 문제하고, 하는 것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보고선양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종합개발용역도 했고, 우리가 지금 민선 초기에는 장보고축제를 통하여 선양사업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보고축제도 없어지고 그냥 장보고수산물축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제 장보고동상도 이제 세워놓고 장보고기념관도 전시관으로 해서 꾸며놓고 있는데, 그런 사업,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장보고를 더 알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상어워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재외동포들한테까지 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완도관광정보센터, 거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를…… 장보고기념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완도역사문화관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를 한상어워드 홍보를 비롯한 완도역사문화회를…… 장보고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인 완도출신 인물들, 거쳐 간 인물들에 대한 역사문화관을…… 거기다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역사문화관하고 장보고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집행부 좌석을 보며)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최정욱 의원이 질문을 했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장보고대사의 선양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장보고선양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종합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보면 우리 지금 법화사지 발굴을 비롯해서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운

영,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인 해상장 보고 용역 콘텐츠 개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이 사업을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내년부터 또 추가적으로 이 종합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이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장보고 선양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용역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갑자기 우리 장보고대사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와서 강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대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이순신과 진린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장보고선양사업은 정제되어 있고, 우리가 세계 해양사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유신정권 하에서 이순신을 갑자기 띄어놨습니다. 그런데 세계 해양사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는 장보고대사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영국 황실에서 봐서도 장보고대사를 이순신보다 훨씬 더 쳐줍니다. 이순신 대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이순신 장군벨트하고 진린 장군에다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데, 장보고대사는 어느 순간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이 불을 어떻게 켜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손을 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군수님 답변에서도 보면 김양훈 의원님이 질문했던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추진사업에 보면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우리 군에서 한 발짝 빠지 않는가, 여기 사업이 밀리지 않은가. 실질…… 역사적으로 보나 뭐를 보나 우리 완도라고 하면 장보고대사라고 하는데, 밀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제…… 감안도 하고,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제가 뭐를 보면 장보고대사라고 하면 알하고 혼하고 정신…… 장보고대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관내에 초·중·고 등학생이라고 했는데 거의 중학생…… 초등학교 위주로 가거든요, 예산 2,000만 원 소요돼서. 이런 예산도 조금…… 우리가 SOC 사업, 어디 방파제 하나 안 막고 포장 하나 달하면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관내 학생들한테도 장보고 정신을 심기 위해서는 이런 견학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중국이나 일본, 장보고대사가 거쳐 왔던 이런 지역들을.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견학 관련은 내년 본예산에……

□ 박인철 의원

그대로 2,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좀 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요구를 해놨는데요. 진행상황을 봐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은 해년마다 해오는 사업이고 이런 데 에다가 예산이 좀 우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산들이. 이런 데 예산에 인색하지 말고 좀 더 잡아가시고 많은 학생들이 장보고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장님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법화사지가 문화재청하고 해가지고 금방 복원될 것처럼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문화재청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거쳐서 고고학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를 더 확대 발굴을 한다든지 심층 발굴을 한다든지 복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때 우리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문화재청장님을 만나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국장님도 문화재청하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복원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뭐 순군비가 들어가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행히 2차 발굴 때부터는 도비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3차는. 그래서 3차 발굴까지 완료돼서 거기서 발굴된 유구라든가 유물들

을…… 유물들이 말 그대로 통일신라시대 때 법화사로 증명이 되면, 가치를 인정받으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만일에 3차 발굴조사 결과까지도 그런 것이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엇그저께 용역심사를 하다보니까 3차 발굴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던데, 그런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러면 이 값어치가 문화재에서 인정할 수 없는 값어치가 된다고 하면, 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 부지도 우리가 다 매입을 했죠, 군비로? (예)

그러면 그대로 뇌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순군비로라도 복원할 것입니까?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그것은 3차 발굴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발굴결과가 끝나는 시점에서 약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꼭 이 3차 용역까지 마치고 나서 문화재청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발굴만…… 문화재가 거기서 이렇게 발굴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18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일원에 골프장 18 내지 27홀과 기타 부대시설 등 약 570억 원의 사업비가 민간투자자가 될 사업입니다. 이 골프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5월 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21일에는 최경주 프로와 대상 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하였고, 7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 1일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1월경에 최종보고회를 또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입안과 더불어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을 2021년경에나 전남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건강을 위하여 골프가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어, 우리 군에 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골프장에 18홀에서 27홀…… 27홀이 제 생각으로는 한 3,000~4,00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57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게 그 저희들 계획은 그대로 잡고 용역하고 있는, 그 용역사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는 일단은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57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간에 문제는 우리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규제에 묶여있는 골프장 부지를…… 지금 거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우리 군 관내에 서너 곳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조치를 풀어준 다음에, 그런 것을 해결해 준 다음에 이제 민자유치를 통해서 골프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 최정욱 의원

어쨌든 이게 지금 거의 중간 정도 와있네요, 사업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보면 중간이라고 할 수……

□ 최정욱 의원

원래 시작이 반이니까요, 그렇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간입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기가 좀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부지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과정에서 여러 또……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라든가 수시 보고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골프장 건립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방법과,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2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해정 건물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해정 건축물은 완도읍 군내리 산 180-1번지 외 2필지입니다. 1986년 11월에 준공한 건축물로서 지상2층, 연면적 132제곱평방미터 규모로 지금 현재 용도는 운동시설입니다. 지난 2017년 7월에 (구)청해정 건물관리를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수·보강을 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지번은 1필지이나, 완도군 공간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필지에 건축물이 접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물대장 등재 당시 소유권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접해있는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에 보상관계 등 협의를 거쳐 활용도가 적을 경우, 이 건물이 활용도가 적을 경우 용도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후에 매각 절차 방안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해정 건물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세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본의원이 현지 확인결과, (구)청해정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내부 또한 파손되어 사고위험성과 각종 쓰레기 등으로 매우 불결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저는 한 2~3번 갔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요.

아까 용역을 내년에 그…… 진단한다고 하셨죠, 건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내년이 아니고 작년에 진단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청해정을 지금 저기 보건의료원 밑에 별도로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저 건물을 지금 저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그러면 저 건물을 안전진단을 받아보자고 그래서 사용할 만하면 팔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그리고 안전등급이 낮게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등급이면 리모델링, 또는 약간의 보수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그러합니다. D등급 정도 되어야 만이 철거가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으로써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체육

시설 용도 폐지가 됐으니까 우리 군의 일반 재산으로, 직접……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이라든가 체육, 문화시설, 공공청사, 이런 것이 행정재산인데 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바뀌가지고 저것을 팔든지 철거하든지 해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C등급이니까 지금 바로 당장 철거를 안 해도 되지만 저것 철거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는가.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거기서 다시 활을 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니까 좀 빌려 달라, 거기를 활용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 의원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저것을 정리한 다음에…… 지금 거기가 묘하게 건물이 지금 2필지가 물려있습니다. 사유지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과 정리를 한 다음에 저것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2필지가 걸렸다면 건물을 거기에다가 올릴 수 있었을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지금……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건물을…… 토지는 따로 건물은 따로겠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많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닌데 한 3분의 1 정도가 걸려있습니다. 사유지에.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건물은 우리 군이잖아요, 저게.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 최정욱 의원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 최정욱 의원

이것 지금까지 다른 전의원들도 수차례 지적한 것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안했을까요. 그것 진즉 의원들이 지적하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달에 안전진단을…… 구조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그래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것을 임대를 하든 팔든 그렇게 하자고 미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쓰레기 투기가 되고, 흉물스러우니까 저것을 이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것을 사유지…… 거기를 정리한 다음에 매각하는 방안, 그것을 강구하고 있고. 매각하게 되면 저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서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 안 된다고 한다면 C등급이지만 저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 거기를 살 사람들이 있어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주무과에 문의

를…… 두 사람이 문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것은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고쳐서 쓴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집을 짓는 것보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양지가 바르고, 그래서 아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마 그렇게 해서 판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죠. 왜냐하면 철거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일단 사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최소한 안전펜스나 안내문자, 거기에 애들이 잘 못 들어가게…… 제대로 2층이나, 이런 데에 펜스를 쳐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해놔서 안전하게 누가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22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현황입니다. 완도초등학교 내에 지난 해 4월 착공한 수영장형 체육관은 국비 30억, 도교육청 20억, 군비 40억 원 등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52제곱평방미터의 규모로 지하 1층은 수영장, 지상 2층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4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바다모래 채취 불가에 따른 레미콘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7%이고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 후에 내·외부 마감공사 중입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작년과 올해에 주변의 토지 3필지 409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인력 확충과 조례제정 등 시험가동을 거쳐서 2019년 2월에 군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내년 도에도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내 번째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 초등학교 수영장 건립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던데 레미콘 문제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작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바닷모래 채취를 하지 말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재인 레미콘 공급이 지연 되어 가지고 몇 달 동안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다른 이유는 없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층 수영장, 2층 다목적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와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당초에 저기…… 완도초등학교 체육관 부지가 아닙니까, 완도초등학교 재산인데. 우리가 수영장은 필요하고 그래서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땅은 거기다가 짓되, 그때 당시 체육관을 철거하고 여기다가 수영장을 짓고 2층에다가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실내수영장 겸 체육관을 그렇게 짓게 됐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수영장 관리는 군에서 하고 체육관 관리는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뭐요, 잠깐만 다시 한 번 부탁……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수영장은 우리 완도군에서 관리·운영을 하고요. 체육관은 학교에서 쓰되, 말 그대로 다목적개방형 체육관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주민들에게 개방할 것입니다. 학교수업 외에 나……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결론은 건물관리는 학교에서 하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닙니다. 전체 관리가 1~2층으로 분리되

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체육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니까…… 아닙니다.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 학교 쪽에서. 수영장 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에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관리는 이원화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따로 관리가 가능한가요, 그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층 수영장은 군에서 하면 됩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운영 시험가동을 거친 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확충한 후에 2월경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도 어떤 대강……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예)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선 인력채용 면에서 보면 한 10여명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뭘니까, 수영장이다 보니까 스포츠강사…… 수영, 그 자격증을 가진 스포츠 강사가 필요하고, 또 구급요원이 필요하고, 구조요원,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할 청정이 필요하고, 또 그 외의 인원들로 해가지고 기계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

직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10여명 지금 잡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제 저게 준공을 해서 운영하면,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다녀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해결이 제일 문제였던데, 지금 주차장, 어디 매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마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매입을 3필지했습니다, 그 부근에, 당초에 지을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그 곳으로 이제 학교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짓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을 것인데 학교부지 내에는 운동장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길 건너편에 있는 사유지 3필지를…… 지금 건물이 들어섰습니까마는 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지난번 사업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26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준공되면 그 수영장 내에 학교부지……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9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면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수영장 이용객 수를 봐서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정욱 의원

이 주차장이 400평방미터면 한 100평 가까이 되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00평 넘게……

□ 최정욱 의원

그것 가지고…… 보통 100평이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음……

□ 최정욱 의원

아직 잘 모르겠으면 알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거기……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길가에 많이 세워져있고, 현재도 지금 수영장을 개방 안했는데도 그런데다가,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게 되면 또 체육시설에 따른……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차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꾸준히……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더군다나 학생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또 미관상 보기 싫고 주차장, 그쪽에 개통하고 나면 아마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의원 생각은 우리 지역에 한정된 수용인구로 인하여 수영장 운영시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물론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하게 되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체력향상을 위한다면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마는 우리가 꼭 흑자를 보고 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료로 입장은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이제 수치상 균형이 안 맞겠죠, 그러나 군민들의 편의

성을 도모한다면 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 최정욱 의원

어쨌든 적자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운영 관리 등 5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운영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조직구성 현황입니다. 복지사 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10월에 설립된 복지재단은 사무국 3명,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무국장 결원으로 사무국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5년부터 3개년에 걸쳐 50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 목표액은 달성하였습니다. 기부금은 2015년 4억 1,700만 원, 2016년 6억 9,400만 원, 2017년 4억 3,800만 원, 2018년도는 9월까지 2억 6,6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765건에 18억 1,600만 원을 모금하여 기금 조성 총액은 68억 1,6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연도별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시행 초기인 2015년에는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702세대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저소득층 및 요양시설 3,005세대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7년에는 저소득 영아조제 분유지원 및 저소득 노인 하절기 전기료지원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추가하여 19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6,62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에도 저소득 청소년 교복비 지원 및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 에어컨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 추진으로 소외계층 7,575세대에 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 주변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구현을 위해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금 조성계획입니다. 연간 3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행복복지재단 사업을 위하여 군민,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출향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지정기탁금, 후원물품, 행복천사 1인 1구와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연간 총 3억 3,000만 원을 목표로 행복복지재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복지재단 운영 성과분석 내용입니다. 복지재단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기반 확충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더욱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군민 기부문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지자원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직능별 간담회 개최로 행정과 민간기관 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완도군 치과협의회, 굿모닝보청기와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k-water의 사회공헌활동을 유치하여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과 기업·협회·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재단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주민복지과 소관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2억 한 7,000여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는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관심들을 갖고 또 사무국에서 팔방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모금액이 목표액만큼 이렇게…… 목표액 달성을 하고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해가 갈수록 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모금이 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저희들이 이렇게 표를 봐도 금액이 점점 줄어드네요.

다음에 지원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계신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말 그대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공적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그러면 혹시나 읍면에서 추천을 받거

나 또 뭐 이렇게 지역안배 제도나…… 아니면 그동안의 추천이나 이렇게 선정하면서 우수사례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읍면 추천은 당연히 받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이장님들이나, 또 그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또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지실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우수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고 또 수혜를 받는 이웃들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다고……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가 예산으로, 우리 군 행정 예산으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고, 우리 복지재단과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협력해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고, 또 더불어 모금기금이 많이 될수록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저소득층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복지재단 설립취지에 맞게 (청취불능) 빈곤층과 취약계층 분들에게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손을 들)

□ 의장 조인호

예,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년도에 저소득층 청소년 교복비 지원이 있고 `18년도에도 청소년 교복비 지원이 있고,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도 중학생들 교복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비는 어디…… 고등학교생들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요, 저기…… 교복 지원 관계는 저소득층 청소년 중·고등학생이 이었는데, 이제 여성아동과에서 하고자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아닌 전체 중학생들, 완도관내 중학생들한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 지금 이것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7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사시설은 군외면 삼두리 산 87-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와 추모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 1만 8,215평방미터의 공설묘지는 유연고묘 1,496기, 무연고묘 373기가 매장되어 있고, 2015년 11월 30일자로 만장되어서 매장은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설치된 추모공원은 봉안당과 자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는 화장한 후에만 이곳 추모공원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추모공원 사용현황으로 2018년 올해에만 봉안당 99기, 수목장 3기를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봉안당에 341기, 수목장에 16기 등 총 357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우리 군 화장률이 62.1%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적인 특성상 화장 후에도 개인 또는 선산에 안치하고 있어 추모공원 이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해남군 황산면에 건립되고 있는 서남권 광역화장장이 내년 준공되면 우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한 장제를 치를 수 있고, 서남권 광역 추모공원과 우리 군 추모공원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입니다. 해남군 황산면 산159-1번지 일원에 2018년 12월 준공예정인 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로 3기, 봉안당 9,66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완도군과 해남군, 진도군 3개 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을 60%로 화장로 3기가 설치된 화장장은 완료되었고, 봉안당은 그 지역의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착수지연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해남군에서 공동운영 규정 및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운영하게…… 해남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 군 협의를 거쳐서 12월말까지 운영규정과 이용료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화장장 운영은 구조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지자체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영비 부담은 인구수에 비례한 해남군이 50%, 완도군 25%, 진도군 25%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기본 운영비 등의 군비 부담금은 화장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려금을 재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

했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주민복지와 소관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외 산두리 추모공원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도서로 이루어져서 이용률이 낮다고 그랬는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한 봤을 때 봉안장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의…… 몇 구나 더 안치를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용률이 낮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완도, 군외, 청산.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청산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청산 쪽에서 좀 들어오고, 나머지 저쪽 읍면에서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그래서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읍면…… 군의 특성상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이 화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혀 봉안장이나 수목장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설사 화장을 했더라도 각 개인의 선산, 그런 곳에 안장을 시키기 때문에 공원…… 뭘니까, 우리 공원묘지 이용률이 저조했다고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안당 시설에 지금…… 우리 현재 완도군 산두리 공원의 봉안당 시설은……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제가 보서는 아직도 뒤편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봉안당은 지금 1,508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341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거의 한 1,000…… 한 150기 정도는 남아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그 이용률 추이를 볼 때 적어도 40년 이상은 완도군 추모공원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주무부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이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산두리 공원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서남권, 방금 광역 화장장 건립준공이 언제쯤 될 것이고,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여기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완도, 진도, 해남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서남권 화장장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해남 황산으로 정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혐오…… 기피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화장로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봉안당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피시설이라 서로 안하려고 그랬는데, 3개 군이 광역화장장을 설립하자고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군이 나뉘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해남이 50%고 완도, 진도가 25%씩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짓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년…… 아니,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벌써 준공이 됐었어야 했는데 그것도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무엇을 더 달라고, 귀를 막고 공사하고 있는 중에…… 그래 가지고 이것도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월,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장로가 3기가 들어섭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 완도군에서 화장장을 하기 위해서는 목포나 광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훨씬 더 가까운 해남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3기면, 화장로가 3기면 완도와 해남, 진도군이 사용하는 데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률이 더 높아지는 추세고, 거기서 화장을 하게 되면 해남 공원에, 거기 봉안당에 안치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선산으로 갈 수도 있고, 완도 추모공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로가 아무래도 완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화장률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군외 산두리 공원으로 안치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렇게 유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군도 어차피 투입이 되니까 봉안 시설 이용료 수입배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10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진정으로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읍면 맞춤형복지팀, 그리고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가정사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한 부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기·수도사용료 체납자, 병원비 과다 청구자 등을 전수조사하여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을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현황으로 2016년에는 1,103건, 2017년 1,440건, 2018년 9월까지 542건을 발굴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지원현황은 1,103건을 발굴하여 1,055건을 지원하였으며 주된 지원사항은 부식 지원, 생활용품 지원, 그리고 생계비 지원, 양곡 지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2017년도에도 각종 자료와 지역민들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 1,440건을 발굴하여 지원에 적합한 1,396건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 생활용품, 밑반찬 지원 및 집수리 사업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해 542건을 발굴해서 527건에 대해서 생활용품 지원, 양곡, 생계비 지원 등을 하였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사람 우선인 포용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완도형 정신질환자 윈스톱 치유서비스 Q-net입니다. 이 Q-net은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책으로, 정신질환자를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전수조사해서 관리대상자 38명에 대해 보건의료원과 연계하여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약물복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보건의료원 또는 지정병원에 방문 진료한 후에 처방 및 조제를 받으면 이후에 질환자가 제대로 약물 복용을 하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치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또 선박 및 차량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질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과 정신질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건강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완도형 정신질환자 원스톱 치유서비스 Q-net 사례는 2018년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특화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지난 9월 6일 전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주민복지와 소관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며)

읍면 노인 현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뽑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독거노인이 완도군에 1,05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활관리사가 39명입니다. 그 39명이 1,053명을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65세 이상 노인은 1,570…… 아니, 1만 7,782명입니다라는 거기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정도 숫자는 아니죠.

□ 김양훈 의원

지금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독거노인 어르신들만. 그래서 생활관리사가 아까…… 이 앞전 자료를 보니까 46명이라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삼십구 분이라고. 그 삼십구 분이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독거노인 그 분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읍면별로 보면 완도읍이 8명, 완도읍은 워낙 인구가 많은 곳이고 대개 보면 세 분, 네 분. 또 적은 데에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러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생활관리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의 독거사 예방이라든가 사고발생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 숫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제가 알아보니깐 한 분이 20~30명 정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방문 1번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2번 드리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관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좀 더 충원을 해서, 관리사를 충원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주 2회, 이렇게 좀 하루에 뭐 20~30명…… 1명이 20~30명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15명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방문하고 이렇게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독거노인들이 좀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거노인들의 관리가 더 잘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일주일에 1번 방문, 뭐 2번 이상 전화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직접 가서 무엇을……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그 사람한테 생활관리사가 가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 그 뭘니까. 계통을 통해서 읍면사무소에 또 담당 직원, 또는 군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는 이제 읍면사무소…… 군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부를 살피러 다니는, 그런 역할을 가장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보면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이쪽은 독거노인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벨을 누르면 119, 112나 같이 요즘은 다 통합이 됐으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19로 변경이 됐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12에다가…… 119에서 112로 가게 되면 112에서 바로 출동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파출소, 지역에 있는 파출소로 바로 연계가 되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119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112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일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112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지요?

□ 김양훈 의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그 아까 완도 군외, 신지, 고금만 대상으로 해서 응급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지역도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독거노인 3년간…… 이렇게 고독사를 알아보니까 3년 동안 고독사 그 현황이 1명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독사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고독사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 김양훈 의원

제가 알기로 고독사라는 것은 3일, 그 이후로, 3일 동안을 고독사로 치지는 않더라고요. 3일 이후로 몰랐을 때, 혼자 돌아가셨는데 65세 이상 분이…… 젊은 층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3일 후로 알았을 때 고독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 특별히 다시 당부 드렸습시다마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관리사뿐만…… 의지하지 말고 읍

면조직을 통해서 각 마을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1번 전화나 방문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한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겪어봤습니다.

□ 김양훈 의원

보면 고독사를 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 면사무소나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혼자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답변서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복지 사각지대를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보면 2018년도는 540건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원현황입니까?

□ 김양훈 의원

아니, 발굴현황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발굴현황이요. 2018년…… 2018년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그 발굴을 하반기 때 다 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요, 연중하는데.

이게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굴이 되면, 그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차례, 4차례 이상 관리를 하면서 또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만이 행복e음시스템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읍면별로 격차가 있는 이유도 거기입니다. 읍면직원들이 한 번 가서 안부 전화한, 이런 건도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더 했어도 안올리는 경우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앞으로 담당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지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발굴을 보면 3,285건이 됐습니다. 지원은 3,178건이네요? (예)

107건이 제외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게 발굴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또 추천이 들어왔든지, 직접 가서 거기를 살펴봤든지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에 가서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또 그 사람의 소득재산 같은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건강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고, 증빙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100% 지원이 안 되서 이런 갭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 것을 발굴할 때 약간 지원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발굴해서 나중에 심사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이렇게 있는 지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지원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렇게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것은 뭐 특별히 무엇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것을 드리고, 또 생계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드리고, 뭐 부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부식비를 지원해 드리고, 또 그 외에도 보행 보조기, 밀고 다니는…… 그런 것이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유형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으로 대체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보통 맞춤…… 개인 맞춤형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지원내용에 보면 기타서비스 지원이 참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니까 일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장이 대신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양훈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청취불능) 가서 보면 그분이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밑반찬이나 그런 배달을 하지 않고요, 국가에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던 사항들은, 부식지원이라는 것은…… 생활용품으로 취급을 하는 것은 그게 필요해서 그때 즉각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진짜 어렵다. 그럴 경우는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든지, 생계비를 지원받든지 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원할 때 재원 말씀하십니까?

□ 김양훈 의원

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것은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면 공적 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행복복지재단과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 봉사단체들 그런 곳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물품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이쪽 지역협의체, 이런 분들과 한번 서로…… 협력, 상생이 좀 잘되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수사례로 이렇게 발굴된 우리 완도 정신질환자 원스톱치유서비스,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전라남도 우수사례로 채택되기까지 했는데, 관련된 그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감사합니다.

□ **김양훈 의원**
하어튼 문졌습니다.
사각지대의 복지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
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말 그대로 우리 작년도에…… 읍면에 맞
춤형복지팀이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전
에 민원팀이 있었는데 민원팀을 없애고 총무
팀하고 합치면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습니
다. 그래서 복지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복지팀을 신설해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읍면장은 한 달에 뭐 15건…… 아, 5건 이
상. 계장은 10건 이상, 직원은 15건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해라. 관리라기보다는 발굴하
고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
서 읍면 일선에서 읍면 복지담당직원들이 현
장을 돌면서 직접 발굴을 하고, 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인가요, 그것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 **김양훈 의원**
지역보장협의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역보장협의체요. 그 협의체를 통해
서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면장 몇 건, 팀장 몇 건, 직원 몇
건 이렇게 하면 너무 무더기로 발굴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말해서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계층들

을 많이……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사각지대에 있는 주
민들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살펴보라는 그런
취지죠.

□ **김양훈 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누락되거나 또 소외된 자들이, 그
래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꼼꼼히
잘 챙겨서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일들이 없도
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에 대
해서 혹시 홈페이지에 올려져있습니까, 어떻
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매뉴얼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리 군 홈페이지에요?

□ **김양훈 의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리 군 홈페이지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지금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만약에 없다면 홈페이지에 고지해 가지고,
또 면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청 행정에
있는 직원 공무원들 말고도 이렇게 홈페이지
를 보고 주위에서 동네 분들을 차출할 수 있
게끔.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좀 게시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
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확인해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
위계층, 겹으로 막 드러난 것들은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수혜를 받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겹으로 드

러나지 않은 차상위계층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하고 또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어떤 부분은 수혜를 주도록 개정을 하고 있고, 김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범위를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 복지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런데 차상위계층, 그 자식들의 이름이 좀 있다든가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들인데, 꼭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15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증진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의 현물지원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9개 사업에 15억 9,900만의 사업비로 노인복지 증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29개소, 이래가지고 총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1,115명으로 의료복지시설에 264명,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837명이 있으며, 이들에게 450여명의 종사자가 시설서비스와 방문

요양, 그리고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원받고 있으며, 기능보강사업 등의 경우 국도비 사업 신청 및 군비 등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답변서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13개 사업에 379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현재 완도, 군외, 신지, 고금 등 독거노인 195명에게 제공되고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내년부터는 8개 읍면에 연차적으로 매년 100대씩 추가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증진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주민복지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국장님, 자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본안질문 시 드렸던 말씀입니다. 마는 노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땅과 우리들을 지키고 길러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예우는 후손인 우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노인복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15억 정도 되고 지원받는 총체인원 수는 2,221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을 받는 자도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거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물지원과 보호지원으로 나눠서 지금 9개 사업인데요,

거기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인구가 1만 5,771명에 14%가 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고, 그 나머지 여건들. 그 뜻은 지금 우리가 1만 5,000명 정도…… 1만 5,771명의 14% 정도가 되는데, 노인…… 지금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말씀인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맞춤형노인복지…… 그것 합계율을 보면 2,200여분 정도 되고요. 2,200……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총 여기서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빼고 나니까 한 14%가 지금 65세 인구 1만 5,771명 중 지금 14%가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예, 말씀하십시오.

□ 이범성 의원

혹시 그분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물론 이분들…… 아니, 2,200여분 외에 더 지원을…… 예산이 많아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 대상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에 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주간보호를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복지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5개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2,200여분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로 돌아가고 있는 기초연금…… 이것은 우리 군 90%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제외한…… 그분들이, 그분들 중에 또 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돌아다니다보면 서비스…… 노인돌봄지원사업들을 확대가 조금필요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본의원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보고 드렸습시다마는 독거노인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완도군외 등 4개 읍면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사업이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순군비로 12개 읍면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매년 100명씩 확대를 해서 600여명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이 맞춤형복지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더 부담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기능 및 역할이 미흡한 사업예산들이 좀 많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좀 자제하고 이제는 우리가 후손인으로서 그런…… 꼭 지켜줘야 할 노인, 그런 복지서비스사업에 지원을 확대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79억 8,100만 원인데요, 기

초연금지원사업과 노인사회활동 지원비를 제외한 것이 한 7억 2,000됩니다. 경로당 지원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범성 의원

경로당 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320개소입니다. 그중에 경로복지센터가 53개가 있고 경로당이 249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 우선 운영비로 보면 운영비 지원은, 경로복지센터에는 매월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경로당은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방비는 매월 20만 원, 아니, 저기…… 냉방비가 20만 원이고 난방비가 150만 원 이래가지고 냉난방비로 해서 연간 170만 원이 경로당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20만 원이 최하인데 그렇게 보면 한 290만 원 정도, 보통 일반경로당,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현장을 가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너무 좀 적다고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없냐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인데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좀 늘려주는 그런 부분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난방비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170만 원이고 운영비가 120만 원, 최하…… 이렇게 290만 원 이상인데, 이것을 전체 통틀어서 경로당 공공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를 더 확대 지원해 달라. 이것은 어디 경로당이나 끊임없이 그런 건의를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올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개소의 경로당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역으로 다른 예산들이 많이 줄어든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풍선효과 같이 한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한쪽은 또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삶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되고 있는 냉난방비, 이런 것 공공운영비 중에서…… 즉, 말해서 지금 그쪽…… 아니,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식사를 경로당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 한 끼 하는 경로당이 있고 두 끼 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운영비를 많이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맞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운영비는 국비·도비 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순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계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 만이,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 애기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에 들어가면 마을회관에서 뭐 점심, 저녁을 먹고 같이 공동체생활을 하다가 외딴섬이나 도서 지역에서 저녁에는 개인집에 가서 자고 그렇거든요. 국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섬 쪽에? (예)

이런 지역, 혹시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

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군비지원은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로당별로 월…… 아니, 매년 쌀 7포씩. 쌀만 기본적으로 7포씩 들어가고 있고, 냉난방비 공공운영비는 대개 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남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각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께서 그것을 좀 아끼고 해서 그것을 부식비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식비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고 쌀 1년에 7포씩 지원하고 있는, 그것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먹고 놀고 하는 데가 주목적인 것 같아요, 뭐 들어가면서 다른 여건들은 아니고, 오늘 좀 맛있는 것을 해서 누가 가지고 왔든가, 그런 것을 나눠먹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그런 것들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한 50%는 좀 부담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행하게 하고, 나머지 한 50%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13만 원, 16만 원, 19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는데요, 월…… 그래서 이제 순군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원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한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어떤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어른들이 매년 600명씩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노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 도서관도지역의 노인들, 모든 여건들이 열악합니다. 좀 그런 도서관도들…… 아주 그냥 뭐 먹을 것도 구입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본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밥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한 그릇이라도 더 먹고 가시게끔 하여튼 과장님…… 아니, 국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17쪽,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내역으로는 운영보조금 6억 5,4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63%, 운영비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5명, 물리치료사 1명, 조리사 1명 등 총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진단평가, 기능향상, 교육재활 등 7개 부문 26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4만 4,0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현황은 답변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단체별 운영 지원현

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총 연합회 3개 단체에 8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주민복지와 소관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평소에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 복지관협회, 협회조, 협회와 복지관을 몇 번 이렇게 다니면서 '아, 과연 내가 군의원이 되면 뭘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되고 나서 내가 한 번씩 가끔 가고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질문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줄리고 그럴 것인데, 잠시 영상을 한 3분만 우리가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방금 몇 개 했던 것이 복지관의 장애인들과 제가 인터뷰를 좀 했고요. 그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들과 했던 것, 문제를 관장한테 내가 이것은 왜 그러느냐고 질문을 했던 내용이지요.

먼저 아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어떤 상생할 길이..... 이런 타 지역은 프로그램,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장애인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전남대학교와 목포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분들께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을 꺼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잠깐 드는데, 거기 문호를 개방을..... 닫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지체부자유가 아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서도 수강이 가능하고, 이제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장애인 위주로,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된다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고,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내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 꺼려한다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꺼려한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뭔가 다른 장소나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래서 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고요. 혹시 비장애인들이 안 오는 것이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느냐. 왜 그것을 느끼느냐고 그랬더니 접근성이 문제인 것 같다는 말……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장애인복지관이요?

□ 최정욱 의원

아니,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에 비장애인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접근성이 좀 문제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비장애인들도 와주셨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그분들의 애환이 뭐겠어요. 아마 그것이 아주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것이. 물론 그분은 원래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희귀병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사회를 많이 아는 거예요. 어디가면 보고 듣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타군은 하는데 우리 군은 못하느냐, 그런 것 좀 해주라.” 라고 하는데, 물론 저야 뭐 거기서 듣고는 왔지만 거기서 한다, 안한다는 안했지만. 아마 그런 것이 타시군도 있다고 하면, 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왜 못하겠느냐.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도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신지, 군외…… 아니,

신지나 고금, 약산이 다리가 놔지면서 그쪽 장애인분들이 접근성…… 이쪽에 오기가 참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한데요, 복지관에. 그러니까 접근성을 좀 앞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다리가 놔짐으로 인해서 인구가, 장애인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고, 장소가 좁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아까 사진이 안 나왔는데 밥 먹거나 물리치료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지금은 보입니다마는 저렇게 자리가 좁아요. 밥 먹는 데도 2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지금 다리를 놓으니까 아마 비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 숫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미래지향적으로 잘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듣고 보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준비는 해야 될 것으로 저도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1층에 빈공간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층에 있는 직업…… 아니, 재활치료실을 2층으로 옮기는, 옮기고 재활치료실을 다른 프로그램실로 더 확장하는…… 그렇게 지금 요구가 들어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 아래층 지금 주차장이 있는 곳을 내려서 물리치료실로 내려간다는 것 맞죠? (예)

우리 전…… 그때 과장님이 그것 해가지고 올렸다고 했죠. 그것도 금방 나오듯이 식당 같은 데도 밥을 2교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쪽에 늘릴 길이 없더군요, 거기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3~4층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 건물구조상 3층 이상 증축을 또 못하게 되어 있는 모양

이에요. 그 구조가 당초에 지을 때……

□ 최정욱 의원

예, 저도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차피 우리가 다리가 놔져서 점점 장애인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도…… 하여튼 고민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밥이라도 편하게 먹어야죠, 장애인들이 와서. 우리가 기왕 복지관이라고 지어놨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편의시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이것은 고민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네들한테 설명하면서 “자리가 이래서 당장 어디다가 할 데가 없지 않느냐?”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군으로써는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

물리치료실은 거기로 내리기로 했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그 선생이 느닷없이 이렇게 장애인들이 필요해서 어디를 가게 되면…… 아마 우리 군에서 차를 지원해줬다고 그러더군요. (예)

그래서 신고 가야되는데 기사가 없나 봐요, 지정된 기사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그냥 빠른…… 우선 시간이 있는,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선생이 우선 스스로 가나 봐요. 그러니까 하던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장애인이 저한테 불만사항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관장한테 인터뷰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왜, 그 문제는 뭐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정된 기사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우선 필요한 대로…… 우선 장애인은 급하고 가야되고, 이것을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장애인 먼저 편의를 생각해서 데려다주다 보면 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말하자면 인원문제가 아니겠어요, 거기 인원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번 해보셨을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충 아홉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뭘니까. 지금 현재는 관장으로부터 인원 증원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 말씀대로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에 더구나 장애인복지관의 버스까지 지금 구입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어찌 됐든 그 시설이 됐든 인력이 됐든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시간이 남으면 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니까 불편하다. 불만들이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니깐 그런 내용이니깐요.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답을 주니까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 아까 들었지만 협회회장님하고 댈이 있었는데 회장님보고 제가 “대신 인터뷰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 아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니발 차가 있대요. 그런데 11년이 넘어서 고장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지원문제가…… “사실 제가 여기서 답을 못합니다. 다만 가서 길이 있는가, 실과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하고 왔습니다, 어떨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노후차량 교체문제인데 그 부분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교체할 시기가 됐으면 교체하는 것이고 수리해야 되면 수리해야 되는 것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차가 없으면 안 되냐고, 우리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거기는 자기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어렵대요, 거기에 또 기준도 있고, 또 저녁에 거기는 몇 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자기들은 밤늦게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협회에서는 스스로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참고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장애인 날, 이것도 지원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장애인 날 기념식 운영비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답은 안하고 왔습니까마는……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참고는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치유 탐방과 문화체험을 예전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1,500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그런데 2개를 합치면서 1,0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 500을 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 답변서에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1,0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왜 협회에서는 그렇게 알았을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시 한 번, 무엇이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 최정욱 의원

보면 장애인 치유 탐방과 문화체험, 두 가지를 예전에는 나눠서 1,000만 원, 500만 원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그 협회장은 1,000만 원으로 알고 1,000만 원 지원밖에 안 해줬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것을 나눠서 1,500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왜 협회장은 그렇게 알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줬는데 여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이것 공감과 치유 탐방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니까 1,000만 원 별도 편성을 했고, 장애인 문화체험 500만 원이 편성되

어 있는데요?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이것이 맞죠? (예)

그런데 왜 협회장이 이랬는가, 이것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말했지만 편의시설이 뭐냐, 불편한 것 장애인들이 주로…… 앉으면 이야기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화장실을 말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어디가면 화장실에 편하게 들어갈 데가 없다. 우리 완도도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또……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공공화장실 말씀하십니까?

□ 최정욱 의원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것은, 공공건물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이것 장애인 편의를 위한 화장실은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사용시설물이라든가, 장소는 공공장소인데……

□ 최정욱 의원

문화체육공원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체육공원이요?

□ 최정욱 의원

어민체육관…… 농어민체육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농어민체육센터요?

□ 최정욱 의원

그런 데도 무엇이 잘 안됐는가, 그런 데에
가도 어렵다고 하던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잘 점검해가지고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거기에 물이 자꾸 샌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는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협회건물 말씀하십니까?

□ 최정욱 의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터 시
작해서 (청취불능) 지붕을 씌워줄 수 없냐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검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언제 새로 짓고 또 부
지를…… 건물을 이전해야 될지 거기다가
신축을 해야 될지. 본인들은 이제 적당한 부
지가 없어서 거기서 계속 살고 계시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하고 맞물려서
보수를 지금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보수해
봐야 새 건물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뭘
니까. 더 늦을 것 같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 알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건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6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여성아동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다문화가
족 지원사업 추진 등 2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
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2018년 9월 기준 완도
읍 107명 등 현재 총 366가구이며, 국적별
로는 베트남이 17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71명, 필리핀 56명 순입니다. 지금까지 다
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친정방문 항공료
를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과
읍면 다문화가정과 부녀회를 결연하여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되
어주기 사업 등 군 직접사업으로 총 4개 사
업 5,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교육 등 다문화가
정 방문교육서비스와 생활에 필요한 각종 통
번역서비스 지원사업, 이주여성 수준별 한국
어 집합교육 등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
터 추진사업으로 248세대에 6개 사업, 2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다문화가정 관리 실태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읍
면 공무원 및 기존 이주여성 등을 통해 신규

전입자를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필요시에 방문하는 등 전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취업 등의 이유로 교육 및 행사 추진 시 참여가 저조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교육 참여 등을 고려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 군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나, 센터운영과 사업에 대한 세부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내년도에는 평가전문기관을 통한 운영평가를 실시해서 운영의 효율성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근로자의 인건비가 호봉제로 운영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 재위탁시에는 위탁 법인의 재산 출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여성아동과 소관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관리 실태를 보면 남편의 비협조로 적극적인 다문화가족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 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아무래도 그 남편 되신 분들이 외국에서 시집온 아내를 밖에 내보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분을 만나봤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분

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거예요. 그것을 경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렵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조금씩 해주는 부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취업을 위한 교육,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 부의장 허궁희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장, 그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이런 경제적인 것이 어려워 자기들 돈을 가지고는 어렵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또 건의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문화가족 관리를 하고 있는 읍면에 여성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지금 면담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늘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의회에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한 11월로 지금 미뤄 놔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라든가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전부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리고 지금 한글학교…… 저기 교실을 읍면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한글학교……

□ 부의장 허궁희

한글교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파악을 못했
고요. 한글학교……

□ 부의장 허궁희

그것을 또 원하더라고요, 한글교실을. 일
주일에 여러 차례는 아니어도 토요일쯤이나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열어주면…… 그러니
까 완도읍에서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완도로 나가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교통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활하
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십 년씩 되니까 읍면에
해주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더 한글공부를 하
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주라. 이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한 곳에 모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
데 우리 군의 특성상 12개 읍면을 전부 한
군데에 모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 이민자들
이…… 아니, 다문화가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완도나 금일, 노화, 신지, 고금, 약산,
소안, 보길, 이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면
20명 이상, 30명 이상 되는 곳이.

한글학교라는 것이 뭐 특별히 자격증을 가
지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은 저희들이 여성아동과에서 다시 검토를 한
번 해서 읍면에서 읍면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병역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
요원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능직을 받아서라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제가 왜 이 말을 굉장히 깊이 들었냐면요.
제가 번영회장할 때 한번 한글학교를 나이
드신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신지면 신지만 놓고
할 것이 아니고, 신지, 고금, 약산이나 이런
데는 연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를 한 사

람 이렇게 정해놓으면 3개 읍면을 돌면서
요일을 정해서 하면 그렇게 큰 경비가 안 들
고 다문화 이주여성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안을 한번 해볼
까하고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안을 해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제가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국어교육을 완도읍에 두 군데하고
있고 노화읍과 생일면에서 결혼이민자를 대
상으로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
산 2,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 외에 여
타 읍면들이 문제인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수요자들이 많고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권
역별로 묶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왜냐하면 신지 같은 경우는 큰돈이 안 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번영회 안에 칠판이
고 의자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이
렇게 나와서 강사만 한 사람 있으면 바로 가
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가능하
면 그렇게 지원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말
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를 더 요구한 것이 이제 한국음식
을 좀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이런 제안
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
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실
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것들이 모두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한국어를 알아먹어야 음식을 배우든 기술을
배우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차근차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그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한 후에, 뭐 사
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야 인구 늘리기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최정욱 의원

아닙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4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아동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완도군에 여성단체 현황은 8개 단체에 1,200명, 읍면 여성단체협의회는 2개 단체, 그래서 총 10개 단체에 1,500여명이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과 여성직업훈련 및 취미교실,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 지원 등 총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아동복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만 16세 입양아동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대학진학금, 명절 제수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는 금년 9월부터 지원된 신규사업으로 가구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 전체아동의 90%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군 특수시책 사업 현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중학생 교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0세부터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장난감 이용 및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교복지원 사업은 `19년도 중학교 신입생 365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 인구 늘리기 시책과 연계한 아동복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난감 도서관의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장난감 구입비 3,5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전당과 작은영화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적극 발굴하는 등 아동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아동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여성아동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여성직업훈련 취미교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내용과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또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여성직업훈련……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교육 내용이고 또 소요예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잠깐만요,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주무계장, 빨리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자료가 미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업훈련 대상자를 보면 대부분 거기서 사람들이 받고, 좀 확대되지 않고 읍에서만 조금 이런 것이 있었던데,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거기 참여하는 수강생들이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부분은 뭐 홍보 부족도 있겠고, 또 원거리에서 완도읍까지 와서 수강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된다고 한다면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렇죠, 제가 와서 판단해볼 때 특정지역에서만 계속 운영하는 단점이 있었고요. 홍보가 안 되고 또 지역의 여성들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여기 와서 보면 여성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교육에 2,000만 원이 있고 양성평등에 3,000만 원. 이외에는 여성들한테 지금 지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우리의…… 완도 여성들이 혜택을 보지 못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여성단체의 회원들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그 행사의 인원 동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도여성단체에서는 잘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혹시 뭐 대우나 격려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뭐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가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애써 오신 분들, 특히 여성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지금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우리 해조류박물관나 아니면 무슨 가을빛축제나 뭐 행사할 때마다 와서 차 봉사도 하고, 또 차 봉사뿐만 아니라 인원도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서.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워크숍을 하는데 2,000만 원, 저기 양성평등을 할 때 3,000만 원, 그 외에는 지원한 것이 없고 여성단체 지역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고급하고 소안, 그 2개의 단체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한 것, 그 외에는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고급에 다리 개통이 안 되었을 때 항상 한이 되는 것이 읍 단위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우리 완도는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없어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대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성직업훈련과 취미교실 운영을 더 확대하고, 권역별로, 또 각종 행사에 봉사하시는 여성단체 회

원님들의 어떤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성으로서 느끼는 점이 사회 참여하고 같이 활동하고, 또 봉사하고 이럼으로써 보람을 느끼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여성단체조직을 해서 보니까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지원이.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이 되지 않은 그 읍면에도 여성단체조직을 해서 이 바람…… 이 분들이 여성들로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사회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여성단체조직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현재 읍면별로 고금과 소안만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고금과 소안의 경우는, 고금은 역사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본받아서 소안이 새마을부녀회, 또 의용소방대, 지구생활개선회, 적십자회…… 적십자봉사회, 뭐 이런 등등의 여성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조직을 모아서 단체협의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없는 읍면은 새마을부녀회 위주로 여성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있는 읍면과 없는 읍면의 차이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순기능적인 면을 더 부각시켜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여성단체, 또는 여성권익이 향상되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전읍면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구성을 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읍면에서, 부녀회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결성한다면 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이제 국장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너희가 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여성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여성…… 읍면의 여성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든 읍면장님한테라도, 그 소스를 쥐가지고라도 여성단체를 조직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회참여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야지. 스스로는 절대 못합니다. 소안면도 그때 조정석 면장님이 고금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가 고금에 와서 보고 “아, 이것은 좋구나.” 라고 해가지고 소안에 가서 그것을 조직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대충하셔가지고라도…… 제가 여성단체 처음 조직을 읍면에서 해봤기 때문에 저도 같이 동참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학교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년예? (예)

그러면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죠. 혹시 고등학생은 이것을 하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고등학생 교복도 한다고 하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내년예 해볼…… 올해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중학생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고등학생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고등학생은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아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원이 안 되니까 순군비로 하기에는 벅찬 그런 실정이라 우선 중학생부터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래도 제 생각에 완도고등학생이 779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신입생들은 아

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고등학생까지 한번 그 교복을…… 한번 입혀서 하신다면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보다 좀 부모들도 소득이 줄어…… 아니, 소비가 줄어들고 학생들도 좀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점은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가지고 이왕이면 고등학생까지, 학생을 유치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민원봉사와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답변 드리기 전에 방금 여성교육훈련 취미 교실 운영에 대해 제가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내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또는 취미교실을 자기 있는 취미를 더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2개 반 내지는 4개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요양보호사반과 한식조리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완도읍권에 계신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확대해서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것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지고 전체 여성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주로 이제 요양보호사반과 제과제빵반 내지는 한식, 이런 것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런 것 수요가 많더라고요.

이어서 민원봉사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가축사육에 따른 인허가 처분사항 등 2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에 따른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신청현황입니다. 고금면에 1건, 신지면 5건으로 총 6건의 돈사건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사 허가처분 취소사유와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고금면 도남리 돈사신축 허가취소 처분사유입니다. 도남리 돈사신축 건은 2회에 걸친 완도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8년 4월 24일 최초 건축허가가 나갔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한 주민동의서 및 주민설명서 이행 관련 서류가 유사 양도장 견학 및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을 참석·동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임이 확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2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지면 동고리 돈사신축 불허가 처분 건은 대규모 토사 및 분노 유출,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양식장 등 피해 우려와 협소한 진입도로 사용으로 영농활동 지장 및 안전사고위험 상존은 물론, 가축전염병 발생시 매몰지 미확보 등 방제대책 미흡으로 보완이나 대책이 불가한 사항이 확인되어 제2차 심의에서 부결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2018년 10월 1일 건축 불허가 처분 통보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지면 대곡리 신청된 1건은 완도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1차 심의에서 해양오염 방지대책,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제대책, 종합적인 분노처리대책, 주민사업설명회 및 진입도로 확보 대책 등 보완사항이 많아서 재심의 의결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신지면 대곡리 일원에 신청된 3건의 돈사신축 건은 관련법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법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돈사신축 건축허가취소 및 불허가에 대한 피허가자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시 우리 군의 대응방안입니다. 고금면 도남리 허가취소의 건은 우리 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시 제출한 주민동의서 및 주민설명회 관련 서류는 허위로 작성 제출된 것으로 심의의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사업주의 심의를 통과하여 허가를 득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바, 허가취소의 충분한 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지동고리 돈사 신청 건 또한 입지의 적정성이라든가 공익성 등 불허가 처분 사유가 타당함으로 소송에서 이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부서간 협력과 법령 검토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사육에 따른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민원봉사와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허가 현황, 그 표를 보면 저희들이 6건 아납니까? (예)

6건 중에 2건은 허가취소 불허가가 잘됐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 중에 있는 것도 좀 잘 처리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깊게 말씀 안 드려도 뻔히 다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신중히 검토하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정지역,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를 보존하고 우리 주민들의 바람을 감안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꼭 좀 잘 처리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는 민선6기의 대표적인 지역브랜드죠? (예)

해양치유사업의 미래 100년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돼지돈사 허가를 내줬다는 것, 그 자체가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도군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인허가 문제에 대처해야겠다는 교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확실히 가동해서 우리 지역이 특장개인의 사익을 위한, 그런 시설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우리 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고 그런 인허가에 대해서는 다소 법령에서 정한 규정이 느슨한 점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신중히 검토를 해서 허점을 발견하고 계속 보완요구를 한 다음 그래도 안 될 경우, 또는 보완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 법적으로는 허가를 내는 데에 솔직히 하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잘못을 따지기보다

도……

우리 행정에서, 또 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뭐 청정바다수도, 해양치유산업,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이 연루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여기까지는 아마 안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 개발현황, 농지전용허가, 뭐 건축허가, 여러 부서로 연결된 복합민원 성격의 행정행위고, 누구 하나 심각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우리 군에 이런 기업형 돈사가 이렇게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산림, 농지, 도로, 수산, 건축법 등에서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최종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검토를 하고, 또 주민수용성 등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에서도 발 빠르게 이와 관련해서 입법 발의를 해주셨는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500M에서 2km로 이렇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신축허가 신청이 없으리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개발행위나 이렇게 보면 부서가 여러…… 개발행위부서가 다섯 부서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민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5개의 부서가 한 군데에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어가지고 거기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집행부 좌석에서 - 의장님, 저 한 가지만……)

□ 의장 조인호

질문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 김양훈 의원

그 돈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사업주가 민·형사상 이렇게 민사소송을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나.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면 이 허가취소나 불허가에 대해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후에 그 발생한 지역에서 향후 그 소송 과정에서 승소해서 다시 재허가를 받더라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전 취하한 경우도 알아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우

리가 생각하기에는 허가취소나 불허가의 사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대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는 물론, 그 관련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민들이나 고금 주민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허가취소는 됐지만 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불안하냐, 돈사가 행정소송으로 가서 패소를 하게 되면 (청취불능)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패소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사업을 못했던…… 뭐라고 합니까, 돈을 또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게 되면 허가를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포상금이겠죠, 그게. 공사를 못한 포상금. 이것을 지불하게 되면, 패소를 하더라도 지불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내 부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자리에서 꼭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그리고 자료실, 신문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실…… 안 됐으면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그 신문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축사민원 아름다운 양보가 이룬 상생’이라고 이렇게 경남일보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거기에 사업주하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인허가가 들어와서 갈등이 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주가 아름다운 양보를 했더라고요.

어떤 양보냐고 그러면 축사 부지를 준비해 놓은 것을…… 이미 기초까지 다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됐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가는 돈까지 다 보상해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없는 것으로…… 그레가지고 동네 분들이 행정에서 돈을 보태고, 부지하고 들어간 비용하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것도 본의원의 고민거리다.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최후에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주나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홍보나, 이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민원봉사와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3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 30동, 2017년에 39동, 2018년 사업량 45동에 3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우리 군 빈집 실태조

사 현황은 총 339동의 빈집 중 철거형이 273동이고, 활용가능형이 66동입니다. 철거형 빈집 273동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와 빈집 정비사업 물량확대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총 사업량 45동 중 10월 현재 30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잔여물량 15동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거형 빈집 273동에 대해서 1~2년 이내에 전량 정비가 가능하나, 빈집 소유자의 소유자 불명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이유로 매년 40건 미만 정도로 접수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 66동에 대해서도 귀촌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빈집 현황을 매년 파악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수가 적어서 올해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빈집정보가 15건밖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민원봉사와 소관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국장님, 자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가 철거형 273동, 활용가능한 형이 66동으로 조사되었네요? (예)

저희들이 시골이나, 어떤 빈집이 있는 데를 보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철거대상 273동에 대해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가지고 설득을 못해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빨리 못하는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더라도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고는 싶으나 하지 못하는 사항들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데 실은 저의 집이 빈 채로 지금 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니면 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철거정비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면이랄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더 살펴봐주시기 바라구요.

시간이 얼마…… 너무 오래 장시간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고, 또 더불어 귀농, 귀촌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수요를 파악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여기도 물론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00% 다 올라가지는 않고, 거기에…… 그 센터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분이 당사자들과 전화연락을 해서 협상을 하든지 흥정을 하든지 그렇게 편성합니다. 임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인 간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문제는…… 문의는 들어오지만 막상 개인들 간에 협의를 할 경우에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가지고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도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나 축사나 오래된 건물…… 뭘니까, 공장이나 이런 슬레이트까지도 수요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업무가 일원화되어서 빈집…… 빈집이 물론 슬레이트 지붕도 있고 아닌 지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해서, 업무를 환경산림과에서 빈집철거까지 업무를 거기서 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빈집 철거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아마 이러한 애로 때문에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우리 공무원, 우리 집행부 여건들에서 더 세심하게 좀 챙겨가지고 한번 안 되는 것…… 한번 찾아가 가지고 “이것 정비 좀 하려고 그러합니다.” 라고 해서 “안돼요.” 라고 그러면 또 갈 수…… 찾아가서 다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본의원은 다른 것보다도 활용 가능한 66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귀어, 귀촌인들하고 연계를 다 시키느냐. 그게 저희들 인구 늘리기 여건이랄까,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줌으로써 또 와서 그런 분들이…… 만약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터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추진을…… 66동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활용 가능한 빈집으로 저희들이 파악

한 66동은 말 그대로 지금 누가 들어오더라도 약간의 수리만 하면 바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현재 그…… 들어보니까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사이트가 지금 현행화 중이라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내에 활성화가 되고 현행화…… 정비 중이기 때문에 정비가 완료되면 거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공할 것이고, 읍면별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소유자들과 이런 자세한 홍보와 함께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소유자들이 바뀌는 경우, 또는 소유자들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심신허약상태로, 노약상태로 되어가지고 자식들한테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유는 아버지나 노인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자식들이 결정권이 있는데, 보면,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분들은 “그 집 안 팔려고 한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안 살고 집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든 집이고, 아버님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집이고, 이런 개념들이 강해서 사실 활용 가능한 집이라도 참 이렇게 뚫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러나 행정에서는 최선을 이런 빈집들이 흥물스럽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귀농, 귀촌어가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우리 인구 증가가 되고 또 활기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일단 뚫어질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한편으로는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부산, 각지 전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찾기도 힘들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질문에 대해서는 귀농, 귀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귀농, 귀어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주소

가 연결된다면 본인들, 그냥 쌍방 간에 해가지고라도…… 우리 행정에서 낚다면 ‘돈이나 좀 많이 주면 정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밀접하게 해가지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계속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불출석 공무원

여성이동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24일(수) 09시59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
 - 기획예산담당관
 - o 복지행정국

□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o 기획예산담당관
 - o 복지행정국
 - 문화체육과
 - 주민복지과
 - 여성아동과
 - 민원봉사과

(09시59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

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1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먼저 1페이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은 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발굴한 다음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예산소요, 우리 군과 해당 없는 건 등을 제외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3년간 총 293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113건을 공모 신청, 70%인 79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35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사용내역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시 선행조건 및 선정을 위하여 총 24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포기 현황입니다. 2018년 수산경영과 소관 U-IT융합 모델화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오인하여 선정되었으나 포기하였으며,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은 미추진되었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발굴 및 계획서 작성 등 공모사업 매뉴얼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제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업추진 대상자가 없거나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 과도한 군비부담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부담, 실효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다수 공모사업 신청시 군비 부담분 미확보 상태에서 응모하고 선정 후 군비를 확보하는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여부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

문하신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첫 번째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첫 번째 본안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박재선 의원입니다.

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부처에 국고지원사업비를 균등하게…… 공모사업 형태로 전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공모사업 유형이 다양해지고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열악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이 적극 활용되어야 된다는 데에 담당관님도 동의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동의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연평균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금 3년 동안 79건에 769억 3,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자료에 보면요, 우리가 293건에…… 3개년 동안에 293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했으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청은 113건이고요. 공모 제외된 것으로 172건이 나와 있는데, 어

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먼저 저희 정책기획팀에서 공모사업을 발굴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제시된, 그런 공모 사업들을 쪽 리스트를 뽑아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게 되면 관련부처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중앙부처로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발굴 받아서 심사한 후에 공모는 제외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제외관계는 저기…… 각 부서에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대상자 모집이 가능한지, 공모여건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올해 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분석을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되면 신청하게 되고 아니면 사업추진을 미추진으로 하게 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공모된 그 사업들을 보면 우리 군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렇게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ppt도 만들어야 되고, 또 평가도 받고 복잡한, 이렇게 힘든 절차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요즘 추세가 중앙부처 예산 배분방식이 분배방식에서 경쟁공모로, 이런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선정…… 공모사업선정을 위해서는 ppt라든지 사전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공모사업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또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서 부서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공모사업에 최종선정이 되게 되면 근무성적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검토보다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검토하기 보다는 꼭 그렇게 해달라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2017년 해양유치 가능 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연구 있죠. 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산업 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연구…… 중앙부처 연구사업인데 우리 군, 다음에 충남 태안, 강릉, 보성, 울진…… 경북 울진에서, 4개의 지자체에서 `18, `19년 동안 각 연도별로 2억씩 공동출자하는…… 시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용역 사항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 보면, 용역비에 보면 2017년도에 2억 원이 나갔고요. 2018년도에 2억 원이 나갔는데, 이게 3개년도에 걸쳐서 6억 원이라고 비교란에 또 나와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요.
`18년, `19년도 동안 2억, 2억해서 4억
이 추진되고요.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아니, `17년도에 나와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7년도에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16년 완도 해양헬스케어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4,000만 원, 자체적으로 실시
한 사항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사업에서 누가 추진할 것인가…… 즉,
사업의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좀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규로 시행되는 공모사업을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고사업들이 공모체제로 이렇게 바뀌었
기 때문에 1년 전에 충분히 사전준비를 해
놓으면, 당해 연도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공모 시 신청을 하면 훨씬 더 계획적이고 추
진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공모사업 선정 이전에, 계획서 수립 이전
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공모사업 추진 시에 군비 소요가 되는 사
업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것은 군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이제 필요하다면 과다한 사업비가 소

요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군의회하고 협의
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군비가 소요될 때
이렇게…… 사전에 의회와 함께 이렇게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4페이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께서 질의하신 용역결과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용역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총 86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64%인 55건이 연구용역입니다. 용역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용역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입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책
임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실명제 시
행,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등록 및 공개하도
록 되어 있는 프리즘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시스템을 통하여 선행연구가 있
는지 여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의뿐만 아니라 추진완료
용역에 대해서도 군정 기여도 및 우수성 등
을 반영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내실화 및
군정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
문하신 용역 결과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두 번째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두 번째 본안질

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년간 86건의 연구용역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역결과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지금 각 부서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무에 접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활용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보고선양사업 중 선양사업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나왔는데요. 연구용역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우선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먼저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장보고마라톤…… 장보고를 알릴 수 있는 장보고마라톤대회 개최, 그다음에 해상 왕장보고 판소리 공연을 추진한다든지 장보고한상명예의 전당사업들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사업을 먼저 착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집행부 좌석을 보며)

그 장보고유적관리소장님께서는 용역결과가 있죠, 그것 한번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완도군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2018년도에 경관계획…… 재정비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용역을 추진…… 있는데요. 경관법에 보면, 제15조 규정에 보면 5년마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관 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완도군 경관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재정비를 하지 않다가 2018년 금년 들어서 경관계획 재정비를 하고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2017년 해조류박람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야간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아니, 정비계획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5년마다 하기로 했는데 왜 3년마다 한다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5년을 넘어서 지금 저희들이 좀 늦게 착수를 했고요. 2006년도에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재정비계획을 `18년도에…… 올해 처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해야 했는데 좀 늦게 저희들이 착수한 사항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보면요, 완도항 해수유입 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2017년도에 그 완도항 해수유입시설 설치사업 용역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이게 저기…… 그 대상 업체가 102개 업체 중에서 96개의 업체가 해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4%가 거의……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 사유가 기존시설을, 업체

들이 깔아놓은 기존시설을 사용해도 불편이 없고, 중앙공급 방식은 아직 필요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서 당시……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결과든 또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요. 완도읍 내의 횃집 등이나 사용하고 있는 수질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본의원은, 깨끗한 수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역 같은 데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또 아까 침에 이야기했던 연구·학술·정책 용역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투입된 예산만큼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또 수행된 용역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용역 결과 및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꼭 이것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김재홍 의원입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매생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몇 페이지입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5페이지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 이것은 매생이 상품권을 우리가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근거자료인가요, 아니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 앞전 2017년도에도 매생이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군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미래사업단의 질의내용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 제가 보고를 잘못…… 말씀을,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CI개발, CI, 상품…… CI.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내가 봐도 ‘출원서보정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CI 개발 관련 용역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15페이지,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MOU·MOA 협약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이 체결한 MOU는 총 69건으로 투자유치보다는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홍보 및 방문객 유치용 건수가 많았습니다. 체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 이후 미추진현황입니다. 총 8

건으로 5건은 부지 및 진입로 미확보, 2건은 과대 사업계획 등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초기 및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나머지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 건으로 처리물 확보 문제로 최종 포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투자관련 MOU 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재정상태, 토지확보 및 사업 가능지역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행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 등 불합리한 MOU가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OU·MOA 협약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MOU라는 정의가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권리, 권한이 없는 그 의사표시적인 단계에 있는 그런 행위, 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기 전에 서로, 상호간에 양해한 내용을 기재한 합의문서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반하면 도덕적 비난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MOA는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어떠한 내용을 하겠다는 약속인 MOA는 통상적인 합의각서로, 계약서보다는 법적 구속력은 떨어지지만 법적증거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협약

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계약위반의 법적, 이것은…… MOA는 법적효력도 갖고 있죠, 계약내용에 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우리 MOU……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저희 MOU는 총 69건이 체결되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18년도까지 하면, 그러면 몇 건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8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 박인철 의원

그렇죠.

MOU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 각 도와 언론사에다가 다 홍보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 MOU를…… 3년도 갓 MOU 현황을 봐보니까 해조류가 한 16건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분석해보면 해조류박람회 홍보 및 협조에 관한 건이 28건이구요.

□ 박인철 의원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MOU 체결을 안 해도 되는 것을 MOU 남발을 했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 박인철 의원

이 MOU 현황을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데 인구 늘리거나…… 아니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미추진, MOU 미추진이 된 데에도 거의 8개 업체에서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증대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냥 군수님하고 MOU 체결한 데하고 사진을 찍고, 그냥 특별한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그 이후는 전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니까,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게……

□ 박인철 의원

단장님, MOU를 이렇게 남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MOU가……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사업이라든지, 행사 등을 홍보하고, 군정 이미지도 홍보를 하고 또 뭐 협약 체결한, 그런 단체에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군…… 뭐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유치를 하려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 담당관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군에 어떤…… 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지금. 한번…… 그 MOU 체결한 것을 내밀하게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이제 저희들은 총괄관리부서로서 종합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무실과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계획은 사업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이미 포기를 하고, 부지 미확보라든지, 그런 기타 사유등으로 통해서 사업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은 지속적인 독려로 우리 군에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미추진 사항을 보면 이것은 뭐…… 기획예산담당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실과의 다 문제입니다. 이것은 치적 쌓기에 불과해요, 이 MOU를 체결해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미추진이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업체들은 전체 미추진이 됐어요. (주)청산 리조트, 이것도 미추진. (주)에덴 키즈 글램핑 해가지고 이것도 미추진. 전복 먹이공장,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기도 미추진. 한류테마파크 조성, 이것도 미추진. 한약초 가공, 이것도 미추진. 미추진 사유를 보면…… 이것 가족호텔을 짓는다는 것도 전부 미추진.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투자…… 업체들은 전부 미추진이 되어 있어요. 아일랜드…… 왜 완도 청정수도 해가지고 특산품을 한다는 것도 전부 미추진. 이 사유가 뭡니까, 지금. 이런 것도 군에서 MOU를 체결할 때 확인 안 하고 그냥…… 이런 기업체에서는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MOU 체결과 투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그 회사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그냥 남발하는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뭐 담당관님한테 지금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직자들한테, 각 실과장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주무부서장으로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이제…… 어떻게 MOU를 체결해서 100% 되겠습니까마는 그중에 30%만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건 이외에도 우리 군에 투자하는 업체들이 자료에 붙이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 박인철 의원

아니, 단장님. 완료된 것…… 자료에 의하면 완도지역자활센터, 성광교회자원봉사회, 완도군어린이급식센터, 이것 전부 우리 군에서 MOU를 안하고도 할 일들이예요. 재미한 국여성경제인 총연합회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뭐를 했습니까. 특산물 판로 개척을 얼마 했습니까. 우리 업무이관으로 지금 수산경영과로 갔는데 경제산업과…… 지금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일고속 이것 하나…… 우리 군민들한테 제주도 배를 타면 20% 할인해주는 이것 하나 있네요, 지금. 전남어린이집연합회, 완도군수산경영인연합회, 완도초등학교, 뭐 전부 그런 거예요. 이 MOU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앞으로는 좀 더 실효성이 있는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나하나를 체결하더라도 MOU를 체결했으면 그것이, 그 MOU 건이 성사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체결할 때부터 이 업체가 우리 군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판단하시고, 진짜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한 것을 신문기사 가십거리로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이 업무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가있어서 그러는데.

(집행부 좌석을 가리키며)

여기 계신 전체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이에요. 그냥 군수님하고 사진 한 컷 찍고 완도의 각 지역신문에, 아니면 목포 MBC방송에 이런 MOU를 체결해 가지고, 투자가 얼마 되어 가지고, 금방 기업주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게끔 해놨는데 돌아오는 것은 다 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관님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총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이제 미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앞으로 MOU 체결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느 A라는 기업체가 됐든 B라는 기업체가 됐든, 그런 기업체하고 MOU를 할 때는 꼭 우리 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하고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21페이지,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우리 군 청렴도 측정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군 단위 청렴도 측정 항목은 외부 및 내부청렴도 등을 종합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남도 16위, 2017년 역시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남도 18위, 22개 시군 중 하위로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비위관련 공무원 적발 및 징계현황입니다. 2016년 항응접대 1건을 적발하여 1명 감봉 처분했습니다. 2018년에는 공금횡령 2건을 적발하여 정직 2월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음은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먼저 투명한 공사 관리, 감독을 위하여 공사업체 관계자 계약부터 준공까지 전유면 감사팀을 직접 관리하고,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완도군은…… “완도군 공무원은 절대 금품·향응·편의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 옴브즈만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익명 제보 신고시스템을 운영, SNS를 이용한 부패비리 척결 청렴문화 전파, 공사 부실 시공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민원처리 공정성을 점검하고 민원처리 기록을 매월 확인하고 있으며 방문민원 청렴안내문과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분야로는 일상경비 집행 실태 특검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팀 운영 내실화를 하고자, 사전예방형 시스템 감사를 추진 운영하고 취약업무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찰 강화, 비위 공무원 발생 예방 및 처벌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 및 민간인 청렴특별 교육을 11월 2일 실시하고 간부공무원 청렴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도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교육 및 청렴도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청렴방송과 청렴컬러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홈페이지 신고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갑질 및 부정부패 신고게시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

획입니다.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19년부터는 매월 초 2주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업무 처리과정, 결과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2018년도 우리 청렴도는…… 1등하죠,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1등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군은 언제쯤에나 청렴도에서 1등할까요,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전년도 18위였는데, `17년도 18위였는데 `18년도는……

금번 도 감사도 지금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 다 들어가죠, 순위에?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금년도 감사는 8월 21일자로 처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사평가대상 기간에는 포함되

지 않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언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내년도 평가입니다.

□ 박인철 의원

`18년도는 그러면 언제 것을 평가해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7년 7월 1일부터 `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박인철 의원

`18년 6월 30일입니까.

그러면 별다른 것 없으니까 1등하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등 한다기보다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말하는 상위권은 어떤 정도의 상위권을 말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보다는, 작년보다는 나은 상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주 하위권에서 더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내부적으로는 인사도 좀 투명해졌고 청렴 문화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관리감독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직·간접적으

로 경험했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박인철 의원

단편적으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2014년도부터 우리 군 청렴도를 봤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담당관……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담당관님입니다마는 그전의 실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답은 꼭 그 답입니다. 뭐 새장에 앵무새가 이야기하듯이 딱 그 답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등수는 딱 이 등수입니다. 16등, 17등, 18등.

우리 공무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뭐 어디 외부에 의뢰해가지고 교육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11월 2일에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박인철 의원

집합교육입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청렴도 교육을 합니까? 그런 교육은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청 내 방송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

□ 박인철 의원

그런 것은 단편적이고요. 우리가 진짜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아니면 팀별로, 이런 청렴도 뭐 교육, 이런 것을 합니까. 실질적인 교육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교육은 지금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직 제가 부서에 위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안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하는데, 해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렴도 향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모든 교육 시에 청렴도에 대한 과정은, 프로그램은 들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프로그램만 들어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도 감사도 있고 올해 각 읍면…… 또 자체감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평가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렴도 평가기간도 11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거의 올해…… 청렴도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남은 30일 동안이라도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부서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정 비리 공직자, 그 사이버신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사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서 (청취불능) 그다음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봐보십시오. 편의를 위해서…… 중징계가 내려오고 경징계가 내려왔는데 불문경고를 해가지고 인사를 해버린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감사라는 잣대는 누구한테 대도 똑같은 잣대를 대줘야 만이 그 법의 원칙에 따라서 맞는 것이지. 우리 편의주의에, 집행부의 편의주의에서 어떤 직원은 절차도 무시하고 해가지고 인사를 해버리고, 불문경고를 때려가지고 인사를 하고, 어떤 직원들은 원칙대로 나가고, 그 잣대가 어디에서 나오는 잣대입니까.

물론 감사관님…… 담당관님이 그 직에 가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떤 잣대인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 부서에서는 징계…… 그 요구만 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은 별도로 징계처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은……

□ 박인철 의원

아니, 우리 감사관실이 거기에 안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요구는……

□ 박인철 의원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저께 부군수님한테도 물어봤지만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이 있으면…… 절차가 있으면서도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루어진 것, 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문제는 어제 부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누가…… 우리 처음 발단이 감사관

실에서 안 올랐으면 그것 안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도 안올리고 인사위원회에도 안올릴 것 아닙니까. 누가 올리라고 했습니까, 일부러 인사계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 사항은 어제 부군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대답하기 조금 난감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어렵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저도 물어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룰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벌을, 잘못을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딱 서야 만이 우리 직원…… 다른 나머지 직원들도 “아,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되는 것이지. 자꾸 뭐 이 이유, 저 이유 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버리면 어떤 직원들이 이 감사를 믿겠어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위 그렇게……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1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위 안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사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버리면 그런 감사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인철 의원님께서…… 징계요구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2항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징계 등 사건에 우선해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심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요청서를 제출해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분들이 그랬으면 도 감사관한테 그런 것을 했어야죠. 지금 우리 도 감사할 때도 불문경고로 안 있습니까. 그래서 면책도 해줬고, 답변을 잘했으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부군수님한테도 좀 강조를 했고.

뭐 금방 담당관님이 이야기했던 법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데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런 도의적인 책임은.

지금 그러면 우리가 38명 아닙니까.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는 어차피 불문경고로 해가지고 해버렸으니까. 훈계, 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지금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신분상 조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재정상 조치관계는, 실과소에서 지금 조치계획을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다시 한 번 강조를 할게요. 훈계 정도는 아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더 가벼운 벌은 조치도 안취해져 있는데. 중징계야 도에서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하니까 뇌물이라도 경징계 같은 것은 훈계보다 훨씬 무거운 벌인데도, 경징계를 받으면 인사도 할 수 없는데도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됐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18년 자체종합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8년도요?

□ **박인철 의원**

예, 우리…… 보건의료원, 보길면, 노화읍, 군외면, 소안면이라고 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결과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보면, 거의 각 읍면 간에 유사하거든요. 우리 자체감사에 적발해놓은, 그런 목록들을 봐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도라도 마찬가지로 `18년도도 이제 면만 틀리다뿐이지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 적발된 것들이,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우리 청렴도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냥 강당에다가 우리 직원들 전체를 모아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심층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좀……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알겠습니다. 취약부서, 그 공무원들별

로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단위별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전에 것은 우리가 접어놓더라도, 기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접어놓더라도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계신 한 최소한 우리 군도 좀 청렴도 순위를…… 1등은 못하더라도 최상위 클래스로 좀 올려주시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우리 군의 가장 핵심업무로 삼고 모든 노력을…… 모든 행정력을 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 한 컵 드시고 하시지요.

(웃음)

참 고생하시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렴도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부평가에 대해서 그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규정이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세한 규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제가 공부한 것으로 해서는 첫째는 부당한 인사하고, 또 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지시라고 내부평가로 되어 있고요. 외부평가는 지역주민이라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평가보다 외부평가가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앞전에 보면. 그래서 왜…… 특히 외부평가가 낮아지는 이유가 혹시 담당관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인허가 공사 관련해서 금품이라든지 향응 제공, 그런 사례를 경험했다는 유형의 설문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제가 알기로는 해조류박람회 때 상당히 그 티켓을 많이 강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라든가, 또 단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 군 내의 사람들은 조금 강매를 해도 상관없이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외부단체에서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제가 이장을 해보면 이장단체에서 오죠, 여성단체에서, 소방단체에서 오죠. 또 자원봉사, 이렇게 하면 한 네 군데 정도에서 그 티켓을 받아요. 그러면 몇 십장이 됩니다, 그게.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외부 이렇게 업체…… 업체, 이런 데에서는 그게 뭐 100장, 200장, 뭐 1,000장이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안 좋고, 나쁜 평가가 나오고.

그래서 해조류박람회를 꼭 해야 된다면 이런 방안을 달리 모색해가지고 좀 해볼,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요즘 그런 이제 그 표…… 뭐 매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

고 그런 분위기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하기 힘든 이유가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노조가 생겨가지고, 제일 먼저 노조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람회가 진행된다면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끝나고라도 지금은 현재 우리가 뭐 몇 백, 몇 만 명이 왔느냐, 몇 십만 명이 왔느냐…… 뭐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왔고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끝나고 나서도 정말 개운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 잘했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24페이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민선7기 예산편성은 해양치유,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복지 등 민선7기 군정 핵심과제 추진에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민생활력을 도모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시책사업 중 완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가치 제고에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와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능력 강화 등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방재정 운영에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예·결산 정보공개 확대 및 군민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상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과감하게 절감하여 지역의 주요 정책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축제 효율화를 통해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부적정 수급 차단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6.3%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국고확보 및 지방교부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고확보는 국·과·소장 책임제로 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 순기에 맞춰 전략적 대응으로 최대한 많은 국고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020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부서별 사업이 취합되면 11월 중 부군수·군수 주재 보고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4,488억 9,800만 원, 특별회계 188억 300만 원, 총 4,677억 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3%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보시는 표와 같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49.96%, 보조금이 33.47%, 조정교부금이 1.34%로 전체예산의 8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은 6.28%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농림수

산분야 비율이 21.21%, 사회복지분야가 18.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치성 기금으로써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9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기획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요, 재정역량 집중, 재정확대, 건전운영, 전부 다 일자리 창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게 전부 다 소요는…… 예산 소요는 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계획대로 편성된……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예산 금액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제가 계수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답변하시다가 정부 정책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현정부의 정책이 아닙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제가 알기로는 저임금이라든지…… 저임금 노동자 가게 임금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증대시키고, 기업은 투자나 생산을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현정부의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저소득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고 소득을 좀 높여서 소비를 시키자, 이런 선순환 구조 정책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내년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2%대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제 생각에는 한 2점 중반대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나 정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수준에 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뭐 고용 안정이나 서민생활…… 취약계층 등, 이렇게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 제시해서 또 예산을 편성·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런 분야에 신경을 갖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또 세입기반 확충, 특단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지방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방세가…… 140억. 아, 예. 163억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세가 약 5억, 재산세가 23억, 자동차세가 49억, 담배소비세가 46억, 지방소득세가 34억 원.

□ 김양훈 의원

저는…… 책자에 보면 163억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그 예산이 158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11종, 우리 목적세가 4종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그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지방세는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가장 높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게 얼마 정도나……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동차세가 49억, 담배소비세가 46억.

□ 김양훈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자주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확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동의합니다. 그 세입부분은 세입담당 부서인 세무회계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구축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밀하게 분석해서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주재원, 그 확충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가 346억……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불용액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저기…… 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총 347억으로써 이중 125억 원이 예비비입니다. 지난해 정기추경시 삭감된 62억 원이 포함된 122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농림수산사업…… 예산이 불용액으로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나야 되는데 농림수산보조사업들이…… 2016년도에 사업이 내려왔으면 그때 당시에 다 소화를 못하고 2017년 사업으로 다 이월시켰다. 그래서 2016년 사업을 2017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산이라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가 예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불용액이 나온 것을 지금 다 내년 연도로 이렇게 이월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다, 불용액이 나온 것을?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불용액이 나온 것을 내년도로 이월…… 이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내년 신규예산에 다시 편성을 시키죠.

□ 김양훈 의원

신규로요? (예)

그랬을 때 큰 페널티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하반기 재정집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할 사업들은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예산 편성시에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그러면 민선7기 예산편성……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너무 예산을 전년도의 것만 치중을 해서 새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볼 때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해본 것입니다.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짜 할 사업, 또 안할 사업, 그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이 있는데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투자를 통해서 세금이 제일로 많이 들어오는 쪽부터 우선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수입이 많이 되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랬을 때 그런 형태…… 그쪽에 투자가 우선되면 SOC시설이 됐든, 뭐 건축시설이 됐든 우리 군의 인구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뭐 보통교부세나 이런 모든 것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주재원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예,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장시간 서서 고생하십니다.

그 페널티 금액 때문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봐도 2018년, 41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그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각종……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마는 민간이전 지방보조금을 절감해야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민간이전 보상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41억 7,000만 원이……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못 따온…… 그냥 삭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

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보면 이게…… 올해가 이러면 내년에는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내용을 여기 답변서에서 봤는데, 어떤 내용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앞으로 교부세 감액요인을 철저히 줄여나가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법규를…… 법규에 근거해서 법규에 위반된 사항들은 철저히 차단하고요, 저희들이 또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더 기울여서 올해는 페널티를 받는…… 올해 이후부터는 페널티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혹시 이런 우리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다시 올리는 사업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여건이 안맞아서 포기하는……

□ 최정욱 의원

그럴 때는 페널티를 안 받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차지……

□ 최정욱 의원

있죠, 좀 철저히 잘해서 이것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40억이면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국비를 뭐 10억 이상 확보하기는 참 진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번에는 간단히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것도 철저히 저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서 패널티를 최소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앞으로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 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 소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행정국장님이 한 건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직제 순에 따라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

- 문화체육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먼저 우리 군이 조직개편 인사로 인해서 지난 9월에 복지행정국장을 맡은 이후, 오늘 처음 군정 질문·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동안 군정 질문·답변을 1개과의 과장으로서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복지행정국장으로 6개 과

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과 업무를 완전히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행정국 소관 2018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국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세무회계과 이렇게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작은도서관 시설현황 등 7건입니다.

먼저 1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도서관 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권 중심의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지역민들의 지식정보제공과 평생교육 증진 등 마을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작은도서관은 2014년 신지햇살작은도서관, 2016년 소안 사립학교와 금당섬마을작은도서관, 2017년 생일 열린꿈터작은도서관, 2018년 녘도행복작은도서관, KB국민은행 후원의 약산 진달래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6개소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운영방식으로 마을의 자치위원회와 청년회, 번영회 등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구입비 등 연간 7,840만 원, 1개소당 1,300만 원 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하루에 5시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서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작은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도서관의 주이용층은 어린이와, 특히 초등학교

생들입니다. 금년 9월 현재까지 4개 작은도서관 이용인원은 8,151명으로 월 이용자수는 226명입니다. 특히 신지햇살작은도서관은 수요자 중심의 문화강좌 운영과 생일열린꿈터작은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운영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아동,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문화시설이 없는 도서 지역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화읍 넓도행복작은도서관, 약산진달래작은도서관은 올해 10~11월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군외와 고금면에 대해서는 유희공간을 활용한 지역 내 접근성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고려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작은도서관이 지역민들의 생활공간에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서관별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운영자 직무교육 등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도서관 시설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회운영장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회운영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33평방미터 이상인 유희건물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뭐 장서는 1,000권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보유하는 도서관…… 이런 것이 작은도서관이죠? (예)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찾아갈 수 있는, 지식정보서비스도 줄 수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 군 작은도서관은 규모로 보면 가장 작은 규모가 33제곱미터가 있고, 144제곱미터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 그 규모를 갖춘 도서관도 있는데. 혹시 또 더 큰 도서관도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기준은 이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장소에 33평방미터로 해서 장서는 1,000권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이것을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유희공간, 즉, 말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크면 좋겠죠, 클수록. 그러나 어떤 우리 지역형편상 보면 읍면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그렇게 그닥 큰 건물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여기 보면 크다고 해서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이용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국장님, 작은도서관 유지관리비나 운영비는 군에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서를 구입해주고 거기에 따른 그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운영비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한 도서관당 얼마 정도 유지비가 드나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그래서 아까 한 도서관당…… 1년에 1개소에 1,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1개소에 1,3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제 생각은 작은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가면 좋겠는데 공모사업으로 안하고는 안 됩니까. 공모사업을…… 내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고금하고 군외를 한다고 하셨는데, 꼭 공모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순군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어떤 형식절차를 거치는 것은 도비를 더 지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도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 이것을 보면 엄청 효과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군비로라도 좀 더 확대해주시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섬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완도, 금일, 노화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런 공공도서관이 없는 우리 도서지역 읍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공간을, 공간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찾고는 있습니다. 특히 없는 읍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서관팀에서…… 저도 문화체육과장할 때 2~3개소를 개소를 해봐서 아는데, 저희들도 적극 장려를 하고 있고. 그런 공간만 찾아주라, 지역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무래도 도서지역은 이런 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고 그러니까 신경 좀 꼭 써주셔가지고 널리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공공도서관은 지금 3개소가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에 사서직렬이 몇 명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사서직렬이 지금 4명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되죠, 지금 그러면 완도군은, 완도에 있는 도서관은 사서직이 있는데 금일하고 노화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금일…… 아니, 금일에 사서직이 1명 배치되어 있고 노화에도 사서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도서관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도서관 업무를 겸해서 읍면 총무계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일반행정하고, 지금 우리 완도읍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이 상주하면서 하는데, 지금 금일하고 노화는 일반행정을 겸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국장님. 내년 1월 달에 조직이 개편되면 노하나 금일도 우리 문화체육과 도서관담당팀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서직들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군에서요?

□ 박인철 의원

예, 군에서 사서직들이 거기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을 겸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행정도 미비한 점이 있고 도서관 관리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일도서관하고 노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갖춰져 있는데 그 활용도가 작은도서관보다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면 읍면에 배치된 2명의 사서직을 차라리 도서관팀으로 발령을 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읍면도서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공공도서관이, 완도읍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지금 신축이 된지 꽤 오래됐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우리 공공도서관이요. 1990년대 초에……

□ 박인철 의원

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좋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신축할 그런,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완도읍권에요?

□ 박인철 의원

완도군…… 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군이라고 생각하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장보고대교가 개통된 후로 해서 고금, 약산면민들까지 이제 완도권으로 생활권으로 형성이 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도서 문화적인……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완도읍권을 많이 활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도서관 이용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을…… 완도군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지금 1일 평균 한 185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가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확대할 필요는,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저 한 곳에다가 집중시킨다고 하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도서관의 어떤 분관형태라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타당……

□ 박인철 의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꼭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완도읍에도 인구과밀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또 추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완도읍에도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공공…… 우리가 시설물을 건축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 이럴 때 꼭 작은 도서관을 그 공공시설물에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

리 그 지역민들이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증가와, 또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신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공시설물 건축 시에 어디 자투리 공간이라도 배려를 해서 거기에다가 작은도서관 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완도읍에 있는 군립도서관도 보면 저쪽 가용리 쪽이나 수고 앞에…… 완도가 이런 데는 보통 도보로 한 30분, 차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은…… 장난감도서관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작은도서관을 시내에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에 자체위원회를 우리가 좀 운영하든가, 아니면 공모해 가지고 그런 데에도 작은도서관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좋습니다.

개포리라든가 가용리, 이런 인구밀집지역에는 우리 군립도서관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밀집지역…… 또 아파트 지역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도서관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3개 있는데, 지금 완도읍이 공공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다시 부탁드립니다. 금일, 노화 부분, 사서직들이 그 업무에만 열중할 수 있어야…… 그 도서관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인사에서는 꼭 그렇게 좀…… 우리 군에서, 직접 문화체육과 도서관담당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도 그런 체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서직들이 그 업무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인철 의원

그것이 문제죠. 사서직으로 들어갔으면…… 완도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문화혜택이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배치했는데 그 배치된 인원이 그 업무에만 종사를 해야 되는데 거의…… 100으로 보면 행정이 80이고 사서업무는 20도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업무비율로 봐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했다가 꼭 다음 1월 달에 인사가 있을 때는 이 관계를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현장에서 상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

□ 박인철 의원

공무직이라도 우리가 채용을 해야죠,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게 된다면 인력지원 부분에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그 인력도 국장님 소관이니깐 하여튼 잘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인 교육훈련센터 완도 유치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 유치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산소음이온이 전국 최고로 발생하고 있고 기후가 온화해서 스포츠 산업의 최적지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해양 치유산업과 연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재활치료는 물론 체육지도자, 심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체육인에 대한 동·하계 전지훈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체육인 교육센터를 완도에 유치를 위해서 대한체육회장과 태릉선수촌장 등을 면담하고 유치 건의를 하였으며, '17년 7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18년 5월 17일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만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왔습니다. 현재 전남이…… 우리 완도를 비롯해서 여수와 순천, 장흥 등 10개 시군이고, 경남이 하동과 함양 등 2개 군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부지선정위원회 평가에 적극 대응을 할 계획이고, 또 우리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회에…… 또 임대를 해주는 방안 등, 그리고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등. 이런 사항들을 의회와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의 건의를 통해서 체육인 교육센터가 완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군을 비롯한 10개의 지자체가 유치신청을 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확정 및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달 말경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한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인 교육센터 완도 유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토지만 매입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첫 장에, 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65억에서 군비 200억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유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지만 매입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9억도 반영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라고 그 정도까지 하고, 우리 군에서 뭐 부지만 매입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완도군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 예산의 경비가 200억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200억으로……

□ 박인철 의원

부지매입비가 200억이나 됩니까?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장님이 여기 설명했듯이 약 8,300평, 9,000평이 안 들어갑니까,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예)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200억이나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가 완도읍하고 신지일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 잘못이야기가 되면 땅값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처음 보고됐을 때는 그런 금액이 안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200억이라는 돈이 올라와있으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그것은 군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가…… 진입도로가 있는 부지라고 한다면 부지매입만 들어가겠지만 진입도로가 없거나, 또 다른 어떤 시설을…… 뭘니까, 개설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는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하여튼 부지매입을 이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완도의 땅 시세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비로 200억을 잡은……

□ 박인철 의원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은 부지매입만 해주면 되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 더 유리한 조건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체육회 정책…… 체육정책연구센터장이라는 분하고 계속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을 붙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는 “뭐까지 해주겠다.”, “뭐까지 해주겠다.” 라고 우리 군보다 더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군으로써는 이것 외에 뭐 더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여력이 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처음…… 제 일 먼저 우리 군에서 대한체육회한테 접근을 해서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했는데, 지금

유치가능성은 몇 %로 보니까, 국장님?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지금 이달에 대한체육회에서 용역을 별도로 맡겨가지고 결과가 이달 말에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체육회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체육회에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주무부서인 대한…… 아니,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칼자루는 지금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부가 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체육인교육센터의 설립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가장 먼저 접근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 있을 때 군수님하고 직접 대한체육회장을 면담하고 태릉선수촌을 2~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실무적인 그런 연계를 해왔던, 그런 과정이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의 문제는 문체부가 이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기재부가 그 예산을 국비로써 확보해줘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듣기로는 대한체육회 용역결과…… 이 체육인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BC 분석결과가 1.4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궁을 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기재부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지자체, 어디다가 그러면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내년도 국비예산에는 전혀 뭐 문체부나 기재부에는 전혀 반영된 것이 없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하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지금 없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발전이 오고, 또 완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여러모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질문이 비켜갑시다라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그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엘리트 여성체육인들이 완도에 와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인가, 1회 추정인가 예산을 잡아줬는데 그런 것도 안 비켜갔습니까.

이런 것도 하여튼 우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손을 들)

예,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우리 체육인재센터가 완도에 유치되면 참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체육인재센터가 지금 쪽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

회에서…… 그것이 예산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쪽지예산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기재부와 지금 문체부 간에 서로 갈등차이가……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그제께인가 말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갈등은 좀 풀렸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에 정확히 반영이 되냐, 안되냐. 예산에는 아직 안 하고 있다, 서로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능이 조금 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잠깐…… 국비로 3억 원을 들여서 대한체육회에서 용역을 작년 말에 했는데, 올해 완료된 결과……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BC 1.4가 나왔다, 이 정도만 지금 되어 있고.

아마 체육회에서 공모…… 문체부와 협의가 되면 그것을 공모로 의뢰를…… 뭘니까,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우리가 지으려고 하니까 유치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에서만 8개 군에서 지금 유치 전략을 펴고 있는데 주로 해안을 끼고 있는 군들이예요, 이렇게 보면. 장흥, 강진, 순천은 아니지만 여수, 광양, 인근에 해남, 강진, 장흥까지.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정리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도와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사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육회와 먼저 이야기가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시군끼리 경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완도군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제가 알기로 이 앞전 전남체육회장 김홍식, 그 체육회장님하고 이기흥 체육…… 대한체육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가…… 완도군하고 발 빠르게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방금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고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에서는 황주홍 국회의원이 좀 많이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만 100%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정치권에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야 우리가 추진하는데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고생되시겠지만 잘 추진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김양훈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깊은 부분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절히 대처를 나름대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운영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현황과 이용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각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 현황은 147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답변서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관 운영현황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고급국민체육센터 2개소이며, 활용실적은 월별 이용객 8,500명입니다. 이용상 문제점으로는 시설물 사후관리 미흡과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읍면 합동으로…… 읍면과 군이 합동으로 분기별 지도·점검하여 접근성과 고장 기구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설과 보수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읍면 운동기구 설치 건의 현황입니다. 20개소입니다. 게이트볼장 신축 2개소와 운동기구 설치 18개소 건의가 있어 현장조사 및 검토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운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읍면별 마을 운동기구 설치를 보니깐요, 설치대수가 147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면에도 27건으로 제일 많고요, 약산은 한 5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것은 지금 마을별로 운동기구…… 간이 운동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연차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일찍 해놓은 데는 대수가 많고, 지금 들어서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읍면 간에 격차가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욱 더 설치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읍면에 지원해줄 때 형평성에 맞게 동네마다 원하는 곳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에 좀 맞게 골고루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실, 사진 한번 비춰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읍면 단위에 보면 저렇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잡초도 많이 나오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설이 필요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전혀 그 파악 정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보셨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리가 우선 건의가 들어온 것부터 하다가, 건의가 들어온 것부터 개보수를 하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지금 보면 설치도 이렇게…… 저 기구가 동네별로 어르신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참 활용을 잘하는 데는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기구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저 사진처럼 녹슬고 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흉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저런 부분은 군에서 관리……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스스로 마을주민들이 그 운동…… 주민들이 관리를 하계끔 그렇게 유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사해놓은 것이 불량이…… 지금 한 23군데로 나와 있네요, 청산 쪽에 주로 많고 23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설이 필요한 곳, 즉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을 별로 안 하니까. 더구나 또 이렇게 장비가 빨리 노후화되고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다섯 군데이고, 그 게이트볼장에 많이 있는데 그쪽에 해야 될 것들이 13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악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옮겨주라고 하면 옮기고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보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관리를 잘해서…… 보면 필요 없는 곳에, 이용을 안 하는 곳은 좀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원하는 쪽에 지원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게이트볼 같습니다,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이 지금 전천후로 지금 된 데가 완도에서 다섯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데가, 뭐 게이트볼 자체가 없는 데가 노화 한

군데 있더라고요. 노화는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줬던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까지 요구가 없었습니다. 노화에서는.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게이트볼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다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리고 부지선정을 못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화가. 지금 올해…… 내년엔 부지선정만 되면 그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게이트볼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사용을 잘하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거기서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거기 환풍기가 없는 게이트볼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지에…… 어르신들 몸이 더 안 좋아진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대표적인 곳이 우리 다섯 군데 중에 고금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 전천후게이트볼장하고 군외, 그다음에 소안, 고금. 이런 데는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지까지. 고금에서 특히 환풍기 시설까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환풍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고금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약을 좀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환경이 쾌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파크골프라고 아십니까? (예)

지금 완도에 파크골프를 하는 동호인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고금, 약산 쪽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지금 그분들이 목포로 운동을 다닙니다. 이렇게 운동은 하고 싶어 하고, 또 운동은 해야 되겠고 그러는데 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완도에도 파크골프장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직 없습니다. 그게 그라운드골프라고도……

□ 김양훈 의원

아니요, 그라운드하고 파크골프는 다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직 그 파크골프장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파크골프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골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잔디…… 인조잔디가 아닌 이런 그냥 일반 국산잔디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하는 것은 같은데.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포에만 그 구장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하면 뭐 교통사고나 이렇게 좀……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힘들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용역이라도, 아니면 뭐 계획이라도 잡아주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예. 이제 수요가…… 파크골프 인구가

많으면 또 해드려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한번 좀 잘 살펴가지고 꼭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운동 같은데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까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완도군에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보니까 뭐 대회도 많이 치르고, 그리고 이번에 11월 6일에 도지사배도 완도에서 개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도 좀 이렇게……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마찬가지로입니다. 부지문제인데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공원, 완도읍에 있는 체육공원은 지금 테니스장, 축구장, 보조구장, 야구장, 종합운동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시설을 가지고는 모든 스포츠 종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든, 뭐 전국단위 대회를 하든, 보다 넓은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에 제2의 체육공원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하루 아침에 1~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의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넣어

서라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완도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동호인 분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15쪽, 장보고 업적 알리기와 장보고…… 아, 죄송합니다.

14쪽,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은 우리 완도를 장보고 정신과 활동이 살아 숨 쉬는 문화명소로 부각하고, 장보고의 고장 청해진 완도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선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선 장보고한상어워드 추진입니다. '16년도에 3명, '17년도에 4명, 올해 6명 총 13명의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 확장에 기여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왕 장보고 창작판소리 공연 콘텐츠 개발입니다. 판소리 사설창작과 소리훈련, 시연 등 공연 개발이 주사업내용으로 현재 창작판소리 열두바탕 추진위원회에서 사설 창작 및 작사·작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에서 장보고대사 업적강의와 특강, 전통공연 등 전문가사를 초빙해서 12개 읍면 순회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0월 12일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체도권 5개 읍면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추모다례제의 경우, 올해 12월 초 실시예정으로 장보고대사 추모공연 및 전통제례가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연관해서 완도 법화사지 정밀발굴 진행상황입니다.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규모 2,000제곱미터 총 사업비 1억 8,940만 원 순군비사업으로 발굴한 결과 담장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축조 수법…… 그리고 3동의 건물지가 확인 또는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기와와 고려시대 청자 등 유물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정밀발굴은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는데 1,400제곱미터의 총 사업비 1억 7,52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600을 보조받아서 발굴작업을 실시했으며 출입시설 조사와…… 조사를 한 결과, 중앙에서 남쪽 건물지까지 유물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정밀발굴은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2,000제곱미터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동쪽, 북쪽 담장지를 발굴하고 기존 건물지를 재노출하고 법화사지 전체 유구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차 발굴 이후에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화사지 보존 및 재건 활용방안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쪽,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2017년 7월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을 통해서 장보고선양사업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리 군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선추진 가능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과 중국 등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장보고 아카데미의 2018년 장보고 여름학교로 올해 초등학생 28명이 중국 산둥성 일대를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초등학생 30명, 2017년에는 25명이 일본으로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데다가 이렇게 밖에서 들으면 설명도 좀 해야 되고,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굴과…… 발굴실적과 결과계획을 첫 번째로 질문할 것이고, 두 번째로 용역결과, 세 번째로 우선추진사업, 네 번째로 학생 견학기준, 다섯 번째로 장보고한상어워드 추진, 시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궁금해서 차례차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완도법화사지 정밀발굴 진행 사항을 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 발굴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발굴실적과 향후 발굴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법화사지 발굴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2차 발굴은…… 지금 2차 발굴을 진행 중에 있고 3차 발굴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여기를 발굴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가 역사적으로 있는데 실체를 지금…… 실체가 지금 없어서 우리 역사 문화적으로 우리 완도가 청해진이고, 또 그만큼 유서 깊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또 문화적 보호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화사지로 추정되는 현재 위치를 지금까지 발굴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장도 청해진 유적지와 법화사 터를 놓고 문화재청에서 지난 1980년대에…… 먼저 이 법화사지 터를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시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거기를 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청해진, 그 장도를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자체발굴을…… 청해진유적이라는 장도를 먼저 발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결과,

아마 통일신라시대에 유물·유골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거기 장도가 청해진 유적지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복원까지 완료하고, 장도에 대해서, 토성복원과 유물, 성문, 또 치, 이런 것들을 발굴 완료한…… 복원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눈을 법화사지로 돌려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저기 문헌에 저기 장보고대사가 중국의 법화원과 일본의 법화원과 법화원, 그리고 법화원을 짓고…… 우리 완도에서는 법화사를 지어서 거기서 장도와 더불어서 해상무역 활동을 했고, 또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곳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기록에 보면 지금 현재 터가 맞다는 기록도 있고, 또 아니고 다른 데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가 유력하다고 보고, 여기 발굴을 하는데,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못 받고 군비 자체…… 순군비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그런 유물, 유골들이 발굴이 된다고 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국비를 받아서 이제 발굴이나 복원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군비를 투입해서 발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발굴한 결과, 1차 정밀발굴은 201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의 형태와 규모, 이런 것들은 지금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건물지가 3동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와라든가 고려시대 청자, 뭐 이런 것들이 300여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기와 중에 일부는 분명히 통일신라시대의 기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발굴을 마쳤고, 그래서 더 발굴해보면 더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

까 싶어서 2차 발굴을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발굴결과를 보면 이 출입시설 위주로 해서 발굴을 했는데요, 그 출입시설이라는 곳이 절로 추정되는, 건물을 드나드는 그런 출입시설이 되는데 그쪽 밑에 쪽에 발굴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2차 발굴에서는 청해진, 장도 쪽으로 향하는 출입시설이…… 그런 방향의 건물이 또 있었다는 그 건물지를 새로이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연못으로 추정되는 그런 장소를 또 발굴했고, 지금 계속해서 통일신라시대, 그다음에 고려시대…… 이 고려시대에 정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외편만 발굴된 것이 아니고, 흙속에 묻혀있는 외편들을 모아보면 중간에 중건…… 정착을 할 때 고려시대 것 삼별초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때 삼별초들이 와가지고 법화사를 다시 또 중건을 해서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서 고려시대 유물 기와 외편들까지 출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미확인지역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3차 발굴을 통해서 완전히 발굴을 마칠,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장도…… 1차적으로 발굴한 과정이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닙니다. 장도는 뽕니까, 완료가 됐고, 군부대의 저수지 밑에 여기서 올라가다보면 저수지…… 저수지 뚝 부근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3차 발굴하는 데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 2, 3차 다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

드립니다, 거기.

□ 최정욱 의원

잘 알았습니다.

용역결과, 두 번째 그것……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종합계획을 2017년 7월에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사업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인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장보고대사와 관련해서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장보고대사의 정신을 알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추진 중인 것은 없습니다. 장보고 동상, 그것 완료됐고.

□ 최정욱 의원

예, 우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없고요. 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용역결과보고서에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은 자료를 보고 하죠.

그다음 우리 학생들…… 지금 초·중·고 등학생 대상으로 `16년부터 일본, 중국 등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견학 선별기준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을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학생들 견학은 지금 관내 초·중·고 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 견학인데 저쪽 중국 산둥성…… 장보고 대사의 활동지였던 산둥성 일대 그쪽하고 일본은 장보고대사와 관계있는 곳이라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라는 대표적인 곳이 일본에 엔라쿠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쪽 지방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단법인 장보고아카데미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보고 여름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 초등학교들 28명이 산둥성을 다녀왔고, 그전에 2016년도와 2017년도에도 30명, 25명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지금 그 장보고연구회라고 또 있습니다, 완도에.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에서 우리 초등학교들, 초·중학생들 견학을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예산반영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한 1,000만 원 정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어차피 우리 장보고를 알리기 위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제가…… 밖에서도 참 좋은 것으로 많이 들리거든요. 서로 이렇게, 애들도 서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숫자는 왜 한정이 되어 있는가요? 더 가도 되는데, 이 숫자만 하는 이유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무래도 이제 예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 최정욱 의원

예산이요? (예)

많이 이렇게 애들이, 학생들이 가려고 하면 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것은? 기왕 이런 사업을 하면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또 예산을.....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견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일찍부터 알아야 이것이 꾸준히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이예요.

그리고 어차피 선양사업의 발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래도 완도에 주둔한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것을 알고 있던데, 그분들의 어떤..... 이렇게 같이 뭐랄까, 간담회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은 나름대로 장보고연구회라든가, 우리 완도군 문화원에서 주로 민간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군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최정욱 의원

어떤 우리 장보고 선양에 대한 발굴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위원회식으로 구성은 안 되어있는가요? 전문가들로, 우리 지역 내에?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역 내에는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라고.....

□ 최정욱 의원

아, 그쪽에서 같이 통일하나요? (예)

그러면 여기 어디어디 시상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상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장보고한상어워드를 말씀하십니까?

□ 최정욱 의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게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인데 끝에는 장보고글로벌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뭘니까, 이 사장이 김성훈 전농림부장관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장보고에 대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자, 우리가 장보고를 완도 내에서만 알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고 그래서..... 이것 우리 장보고한상..... 한상이라는 말은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경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한 스토리를 엮어서 널리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곧 장보고대사의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다,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대한 상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것이 장보고한상어워드입니다. 거기에는 심사위원으로 김덕룡..... 전의원인 김덕룡 의원님, 그 분이 한상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라서 위원회에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임총리이신 정은찬 총리, 그다음에 지금 부산시장을 하십니다마는 오거돈 전해양수산부장관님, 그다음에 또..... 하여튼 저명하신 분들로 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나 신문홍보를 통해서 장보고한상어워드 대상자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추천을 하든 본

인이 신청을 하든, 그렇게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상과 국회의장상, 대상은…… 대상, 그다음에 국회의장상, 해양수산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장관급 이상 상으로 이분들의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수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 3회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명이 선정됐는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굉장히 이름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상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욱 더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5년 동안 지속되면 앞으로 대상은 대통령상으로 이제 승격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3회째니까 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상을…… 우리 장보고대상을 이렇게 줌으로써 완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분들을 완도에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고, 또 우리 장보고에 대해서…… 그분들이 장보고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지만 상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완도를 알게 되고, 우리 완도와, 그분들은 어차피 경제인들이기 때문에 완도와 그 사람들 간에 어떤 장보고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완도의 경제, 또는 기업투자 내지는 뭐 판촉, 알선,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분들이 수행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

하여튼 계속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장보고대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일부 인이요?

□ 박인철 의원

일본인들의 시각, 장보고대사를 바라보는 시각.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일부 인들이요?

□ 박인철 의원

일본인이요, 일본인.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일본인이요, 그것 저는 전반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야 뭐 장보고대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군의 어떤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엔닌 스님하고 법화원에서 만났던 인연으로 해서 장보고대사가…… 엔닌 스님이 쓴 글에 보면 장보고대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 엔닌이 세운 절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 어디 지방이었더라, 교토 쪽에 있는……

□ 박인철 의원

잘 알았고요.

지금 국장님이…… 엔닌 스님이 장보고대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해진대사, 즉 장보고대사 어진 덕을 삼가 우러러볼 따름입니다. 그러면 엔닌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 일본 최초의 대사 칭호를 받았으며, 일본 천태종의 3대 좌주로서 일본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엔닌 스님을 모시고는 일본 연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연역사라는 절이요. 그러면 장보고기념비도 있고 엔닌 스님을 알고 있는 분

들은, 일본인들은 장보고대사를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 군에서 미처 거기까지 지금 받을 못 뵈었는데.

그리 하고요, 그렇게 하면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영웅으로 평가하죠, 장보고대사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중국에서……

□ 박인철 의원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중국 영성시에 가면 기념관이 있죠.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본의원 지인이 갔다 와서 하는 말에 의하면 그 영성시 운영책임자가 있다고 합니다. 운영책임자가 장보고대사를 자랑하고 장보고기념관을 관리하는 자체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국장님은 가봤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저는 가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장보고정신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금방 나열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큰 관심은 없습니다. 한상어워드상을 한다고 하고 해상장보고 판소리…… 내년 `19년도 2월까지 한다고 하고, 그리고 사단법인장보고에서 엇그저께 했던 이러이러한 것하고, 또 올해 장보고축제 때 추모 다례제하는데 이런 문제하고, 하는 것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보고선양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종합개발용역도 했고, 우리가 지금 민선 초기에는 장보고축제를 통하여 선양사업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보고축제도 없어지고 그냥 장보고수산물축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제 장보고동상도 이제 세워놓고 장보고기념관도 전시관으로 해서 꾸며놓고 있는데, 그런 사업,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장보고를 더 알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상어워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재외동포들한테까지 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완도관광정보센터, 거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를…… 장보고기념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완도역사문화관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를 한상어워드 홍보를 비롯한 완도역사문화회를…… 장보고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인 완도출신 인물들, 거쳐 간 인물들에 대한 역사문화관을…… 거기다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역사문화관하고 장보고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집행부 좌석을 보며)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최정욱 의원이 질문을 했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장보고대사의 선양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장보고선양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종합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보면 우리 지금 법화사지 발굴을 비롯해서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운

영,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인 해상장 보고 용역 콘텐츠 개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이 사업을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내년부터 또 추가적으로 이 종합 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이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장보고 선양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용역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갑자기 우리 장보고대사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와서 강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대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이순신과 진린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장보고선양사업은 정제되어 있고, 우리가 세계 해양사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유신정권 하에서 이순신을 갑자기 띄어놨습니다. 그런데 세계 해양사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는 장보고대사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영국 황실에서 봐서도 장보고대사를 이순신보다 훨씬 더 쳐줍니다. 이순신 대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이순신 장군벨트하고 진린 장군에다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데, 장보고대사는 어느 순간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이 불을 어떻게 켜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손을 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군수님 답변에서도 보면 김양훈 의원님이 질문했던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추진사업에 보면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우리 군에서 한 발짝 빠지 않는가, 여기 사업이 밀리지 않은가. 실질…… 역사적으로 보나 뭐를 보나 우리 완도라고 하면 장보고대사라고 하는데, 밀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제…… 감안도 하고,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제가 뭐를 보면 장보고대사라고 하면 얼하고 혼하고 정신…… 장보고대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관내에 초·중·고 등학생이라고 했는데 거의 중학생…… 초등학교 위주로 가거든요, 예산 2,000만 원 소요돼서. 이런 예산도 조금…… 우리가 SOC 사업, 어디 방파제 하나 안 막고 포장 하나 달하면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관내 학생들한테도 장보고 정신을 심기 위해서는 이런 견학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중국이나 일본, 장보고대사가 거쳐 왔던 이런 지역들을.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견학 관련은 내년 본예산에……

□ 박인철 의원

그대로 2,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좀 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요구를 해놨는데요. 진행상황을 봐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은 해년마다 해오는 사업이고 이런 데 에다가 예산이 좀 우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산들이. 이런 데 예산에 인색하지 말고 좀 더 잡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장보고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장님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법화사지가 문화재청하고 해가지고 금방 복원될 것처럼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문화재청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거쳐서 고고학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를 더 확대 발굴을 한다든지 심층 발굴을 한다든지 복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때 우리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문화재청장님을 만나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국장님도 문화재청하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복원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뭐 순군비가 들어가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행히 2차 발굴 때부터는 도비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3차는. 그래서 3차 발굴까지 완료돼서 거기서 발굴된 유구라든가 유물들

을…… 유물들이 말 그대로 통일신라시대 때 법화사로 증명이 되면, 가치를 인정받으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만일에 3차 발굴조사 결과까지도 그런 것이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엇그저께 용역심사를 하다보니까 3차 발굴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던데, 그런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러면 이 값어치가 문화재에서 인정할 수 없는 값어치가 된다고 하면, 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 부지도 우리가 다 매입을 했죠, 군비로? (예)

그러면 그대로 뇌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순군비로라도 복원할 것입니까?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그것은 3차 발굴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발굴결과가 끝나는 시점에서 약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꼭 이 3차 용역까지 마치고 나서 문화재청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발굴만…… 문화재가 거기서 이렇게 발굴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18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일원에 골프장 18 내지 27홀과 기타 부대시설 등 약 570억 원의 사업비가 민간투자자가 될 사업입니다. 이 골프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5월 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21일에는 최경주 프로와 대상 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하였고, 7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 1일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1월경에 최종보고회를 또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입안과 더불어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을 2021년경에나 전남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건강을 위하여 골프가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어, 우리 군에 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골프장에 18홀에서 27홀…… 27홀이 제 생각으로는 한 3,000~4,00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57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게 그 저희들 계획은 그대로 잡고 용역하고 있는, 그 용역사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라는 일단은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57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간에 문제는 우리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규제에 묶여있는 골프장 부지를…… 지금 거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우리 군 관내에 서너 곳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조치를 풀어준 다음에, 그런 것을 해결해 준 다음에 이제 민자유치를 통해서 골프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 최정욱 의원

어쨌든 이게 지금 거의 중간 정도 와있네요, 사업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보면 중간이라고 할 수……

□ 최정욱 의원

원래 시작이 반이니까요, 그렇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간입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기가 좀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부지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과정에서 여러 또……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라든가 수시 보고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골프장 건립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방법과,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2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해정 건물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해정 건축물은 완도읍 군내리 산 180-1번지 외 2필지입니다. 1986년 11월에 준공한 건축물로서 지상2층, 연면적 132제곱평방미터 규모로 지금 현재 용도는 운동시설입니다. 지난 2017년 7월에 (구)청해정 건물관리를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수·보강을 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지번은 1필지이나, 완도군 공간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필지에 건축물이 접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물대장 등재 당시 소유권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접해있는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에 보상관계 등 협의를 거쳐 활용도가 적을 경우, 이 건물이 활용도가 적을 경우 용도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후에 매각 절차 방안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해정 건물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세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본의원이 현지 확인결과, (구)청해정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내부 또한 파손되어 사고위험성과 각종 쓰레기 등으로 매우 불결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저는 한 2~3번 갔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요.

아까 용역을 내년에 그…… 진단한다고 하셨죠, 건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내년이 아니고 작년에 진단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청해정을 지금 저기 보건의료원 밑에 별도로 지어가고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저 건물을 지금 저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그러면 저 건물을 안전진단을 받아보자고 그래서 사용할 만하면 팔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그리고 안전등급이 낮게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등급이면 리모델링, 또는 약간의 보수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그러합니다. D등급 정도 되어야 만이 철거가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으로써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체육

시설 용도 폐지가 됐으니까 우리 군의 일반 재산으로, 직접……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이라든가 체육, 문화시설, 공공청사, 이런 것이 행정재산인데 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바뀌가지고 저것을 팔든지 철거하든지 해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C등급이니까 지금 바로 당장 철거를 안 해도 되지만 저것 철거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는가.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거기서 다시 활을 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니까 좀 빌려 달라, 거기를 활용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 의원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저것을 정리한 다음에…… 지금 거기가 묘하게 건물이 지금 2필지가 물려있습니다. 사유지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과 정리를 한 다음에 저것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2필지가 걸렸다면 건물을 거기에다가 올릴 수 있었을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지금……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건물을…… 토지는 따로 건물은 따로겠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많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닌데 한 3분의 1 정도가 걸려있습니다. 사유지에.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건물은 우리 군이잖아요, 저게.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 최정욱 의원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 최정욱 의원

이것 지금까지 다른 전의원들도 수차례 지적한 것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안했을까요. 그것 진즉 의원들이 지적하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달에 안전진단을…… 구조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그래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것을 임대를 하든 팔든 그렇게 하자고 미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쓰레기 투기가 되고, 흉물스러우니까 저것을 이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것을 사유지…… 거기를 정리한 다음에 매각하는 방안, 그것을 강구하고 있고. 매각하게 되면 저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서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 안 된다고 한다면 C등급이지만 저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 거기를 살 사람들이 있어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주무과에 문의

를…… 두 사람이 문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것은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고쳐서 쓴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집을 짓는 것보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양지가 바르고, 그래서 아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마 그렇게 해서 판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죠. 왜냐하면 철거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일단 사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최소한 안전펜스나 안내문자, 거기에 애들이 잘 못 들어가게…… 제대로 2층이나, 이런 데에 펜스를 쳐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해놔서 안전하게 누가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22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현황입니다. 완도초등학교 내에 지난 해 4월 착공한 수영장형 체육관은 국비 30억, 도교육청 20억, 군비 40억 원 등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52제곱평방미터의 규모로 지하 1층은 수영장, 지상 2층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4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바다모래 채취 불가에 따른 레미콘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7%이고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 후에 내·외부 마감공사 중입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작년과 올해에 주변의 토지 3필지 409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인력 확충과 조례제정 등 시험가동을 거쳐서 2019년 2월에 군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내년 도에도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내 번째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 초등학교 수영장 건립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던데 레미콘 문제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작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바닷모래 채취를 하지 말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재인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어 가지고 몇 달 동안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다른 이유는 없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층 수영장, 2층 다목적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와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당초에 저기…… 완도초등학교 체육관 부지가 아닙니까, 완도초등학교 재산인데. 우리가 수영장은 필요하고 그래서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땅은 거기다가 짓되, 그때 당시 체육관을 철거하고 여기다가 수영장을 짓고 2층에다가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실내수영장 겸 체육관을 그렇게 짓게 됐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수영장 관리는 군에서 하고 체육관 관리는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뭐요, 잠깐만 다시 한 번 부탁……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수영장은 우리 완도군에서 관리·운영을 하고요. 체육관은 학교에서 쓰되, 말 그대로 다목적개방형 체육관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주민들에게 개방할 것입니다. 학교수업 외에 나……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결론은 건물관리는 학교에서 하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닙니다. 전체 관리가 1~2층으로 분리되

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체육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니까…… 아닙니다.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 학교 쪽에서. 수영장 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에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관리는 이원화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따로 관리가 가능한가요, 그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층 수영장은 군에서 하면 됩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운영 시험가동을 거친 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확충한 후에 2월경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도 어떤 대강……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예)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선 인력채용 면에서 보면 한 10여명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뭘니까, 수영장이다 보니까 스포츠강사…… 수영, 그 자격증을 가진 스포츠 강사가 필요하고, 또 구급요원이 필요하고, 구조요원,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할 청정이 필요하고, 또 그 외의 인원들로 해가지고 기계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

직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10여명 지금 잡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제 저게 준공을 해서 운영하면,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다녀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해결이 제일 문제였던데, 지금 주차장, 어디 매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마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매입을 3필지했습니다, 그 부근에, 당초에 지을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그 곳으로 이제 학교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짓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을 것인데 학교부지 내에는 운동장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길 건너편에 있는 사유지 3필지를…… 지금 건물이 들어섰습니까마는 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지난번 사업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26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준공되면 그 수영장 내에 학교부지……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9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면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수영장 이용객 수를 봐서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정욱 의원

이 주차장이 400평방미터면 한 100평 가까이 되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00평 넘게……

□ 최정욱 의원

그것 가지고…… 보통 100평이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음……

□ 최정욱 의원

아직 잘 모르겠으면 알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거기……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길가에 많이 세워져있고, 현재도 지금 수영장을 개방 안했는데도 그런데다가,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게 되면 또 체육시설에 따른……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차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꾸준히……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더군다나 학생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또 미관상 보기 싫고 주차장, 그쪽에 개통하고 나면 아마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의원 생각은 우리 지역에 한정된 수용인구로 인하여 수영장 운영시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물론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하게 되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체력향상을 위한다면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마는 우리가 꼭 흑자를 보고 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료로 입장은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이제 수치상 균형이 안 맞겠죠, 그러나 군민들의 편의

성을 도모한다면 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 최정욱 의원

어쨌든 적자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운영 관리 등 5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운영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조직구성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10월에 설립된 복지재단은 사무국 3명,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무국장 결원으로 사무국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5년부터 3개년에 걸쳐 50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 목표액은 달성하였습니다. 기부금은 2015년 4억 1,700만 원, 2016년 6억 9,400만 원, 2017년 4억 3,800만 원, 2018년도는 9월까지 2억 6,6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765건에 18억 1,600만 원을 모금하여 기금 조성 총액은 68억 1,6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연도별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시행 초기인 2015년에는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702세대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저소득층 및 요양시설 3,005세대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7년에는 저소득 영아조제 분유지원 및 저소득 노인 하절기 전기료지원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추가하여 19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6,62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에도 저소득 청소년 교복비 지원 및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 에어컨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 추진으로 소외계층 7,575세대에 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 주변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구현을 위해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금 조성계획입니다. 연간 3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행복복지재단 사업을 위하여 군민,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출향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지정기탁금, 후원물품, 행복천사 1인 1구와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연간 총 3억 3,000만 원을 목표로 행복복지재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복지재단 운영 성과분석 내용입니다. 복지재단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기반 확충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더욱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군민 기부문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지자원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직능별 간담회 개최로 행정과 민간기관 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완도군 치과협의회, 굿모닝보청기와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k-water의 사회공헌활동을 유치하여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과 기업·협회·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재단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주민복지과 소관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2억 한 7,000여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는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관심들을 갖고 또 사무국에서 팔방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모금액이 목표액만큼 이렇게…… 목표액 달성을 하고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해가 갈수록 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모금이 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저희들이 이렇게 표를 봐도 금액이 점점 줄어드네요.

다음에 지원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계신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말 그대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공적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그러면 혹시나 읍면에서 추천을 받거

나 또 뭐 이렇게 지역안배 제도나…… 아니면 그동안의 추천이나 이렇게 선정하면서 우수사례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읍면 추천은 당연히 받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이장님들이나, 또 그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또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지실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우수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고 또 수혜를 받는 이웃들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다고……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가 예산으로, 우리 군 행정 예산으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고, 우리 복지재단과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협력해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고, 또 더불어 모금기금이 많이 될수록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저소득층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복지재단 설립취지에 맞게 (청취불능) 빈곤층과 취약계층 분들에게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손을 들)

□ 의장 조인호

예,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년도에 저소득층 청소년 교복비 지원이 있고 `18년도에도 청소년 교복비 지원이 있고,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도 중학생들 교복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비는 어디…… 고등학교생들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요, 저기…… 교복 지원 관계는 저소득층 청소년 중·고등학생이 이었는데, 이제 여성아동과에서 하고자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아닌 전체 중학생들, 완도관내 중학생들한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 지금 이것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7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사시설은 군외면 삼두리 산 87-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와 추모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 1만 8,215평방미터의 공설묘지는 유연고묘 1,496기, 무연고묘 373기가 매장되어 있고, 2015년 11월 30일자로 만장되어서 매장은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설치된 추모공원은 봉안담과 자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는 화장한 후에만 이곳 추모공원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추모공원 사용현황으로 2018년 올해에만 봉안담 99기, 수목장 3기를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봉안담에 341기, 수목장에 16기 등 총 357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우리 군 화장률이 62.1%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적인 특성상 화장 후에도 개인 또는 선상에 안치하고 있어 추모공원 이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해남군 황산면에 건립되고 있는 서남권 광역화장장이 내년 준공되면 우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한 장제를 치를 수 있고, 서남권 광역 추모공원과 우리 군 추모공원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입니다. 해남군 황산면 산159-1번지 일원에 2018년 12월 준공예정인 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로 3기, 봉안당 9,66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완도군과 해남군, 진도군 3개 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을 60%로 화장로 3기가 설치된 화장장은 완료되었고, 봉안당은 그 지역의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착수지연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해남군에서 공동운영 규정 및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운영하게…… 해남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 군 협의를 거쳐서 12월말까지 운영규정과 이용료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화장장 운영은 구조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지자체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영비 부담은 인구수에 비례한 해남군이 50%, 완도군 25%, 진도군 25%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기본 운영비 등의 군비 부담금은 화장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려금을 재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

했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의 주민복지와 소관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외 산두리 추모공원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도서로 이루어져서 이용률이 낮다고 그랬는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한 봤을 때 봉안장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의…… 몇 구나 더 안치를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용률이 낮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완도, 군외, 청산.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청산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청산 쪽에서 좀 들어오고, 나머지 저쪽 읍면에서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그래서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읍면…… 군의 특성상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이 화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혀 봉안장이나 수목장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설사 화장을 했더라도 각 개인의 선산, 그런 곳에 안장을 시키기 때문에 공원…… 뭘니까, 우리 공원묘지 이용률이 저조했다고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안당 시설에 지금…… 우리 현재 완도군 산두리 공원의 봉안당 시설은……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제가 봐서는 아직도 뒤편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봉안당은 지금 1,508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341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거의 한 1,000…… 한 150기 정도는 남아있다는 말씀 아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그 이용률 추이를 볼 때 적어도 40년 이상은 완도군 추모공원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주무부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이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산두리 공원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서남권, 방금 광역 화장장 건립준공이 언제쯤 될 것이고,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여기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완도, 진도, 해남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서남권 화장장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해남 황산으로 정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혐오…… 기피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화장로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봉안당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피시설이라 서로 안하려고 그랬는데, 3개 군이 광역화장장을 설립하자고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군이 나뉘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해남이 50%고 완도, 진도가 25%씩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짓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년…… 아니,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벌써 준공이 됐었어야 했는데 그것도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무엇을 더 달라고, 귀를 막고 공사하고 있는 중에…… 그래 가지고 이것도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월,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장로가 3기가 들어섭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 완도군에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목포나 광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훨씬 더 가까운 해남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3기면, 화장로가 3기면 완도와 해남, 진도군이 사용하는 데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률이 더 높아지는 추세고, 거기서 화장을 하게 되면 해남 공원에, 거기 봉안당에 안치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선산으로 갈 수도 있고, 완도 추모공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로가 아무래도 완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화장률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군외 산두리 공원으로 안치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렇게 유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군도 어차피 투입이 되니까 봉안 시설 이용료 수입배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10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진정으로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읍면 맞춤형복지팀, 그리고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가정사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한 부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기·수도사용료 체납자, 병원비 과다 청구자 등을 전수조사하여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을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현황으로 2016년에는 1,103건, 2017년 1,440건, 2018년 9월까지 542건을 발굴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지원현황은 1,103건을 발굴하여 1,055건을 지원하였으며 주된 지원사항은 부식 지원, 생활용품 지원, 그리고 생계비 지원, 양곡 지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2017년도에도 각종 자료와 지역민들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 1,440건을 발굴하여 지원에 적합한 1,396건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 생활용품, 밑반찬 지원 및 집수리 사업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해 542건을 발굴해서 527건에 대해서 생활용품 지원, 양곡, 생계비 지원 등을 하였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사람 우선인 포용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완도형 정신질환자 윈스톱 치유서비스 Q-net입니다. 이 Q-net은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책으로, 정신질환자를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전수조사해서 관리대상자 38명에 대해 보건의료원과 연계하여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약물복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보건의료원 또는 지정병원에 방문 진료한 후에 처방 및 조제를 받으면 이후에 질환자가 제대로 약물 복용을 하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치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또 선박 및 차량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질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과 정신질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건강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완도형 정신질환자 원스톱 치유서비스 Q-net 사례는 2018년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특화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지난 9월 6일 전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주민복지와 소관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며)

읍면 노인 현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뽑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독거노인이 완도군에 1,05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활관리사가 39명입니다. 그 39명이 1,053명을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65세 이상 노인은 1,570…… 아니, 1만 7,782명입니다라는 거기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정도 숫자는 아니죠.

□ 김양훈 의원

지금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독거노인 어르신들만. 그래서 생활관리사가 아까…… 이 앞전 자료를 보니까 46명이라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삼십구 분이라고. 그 삼십구 분이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독거노인 그 분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읍면별로 보면 완도읍이 8명, 완도읍은 워낙 인구가 많은 곳이고 대개 보면 세 분, 네 분. 또 적은 데에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러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생활관리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의 독거사 예방이라든가 사고발생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 숫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제가 알아보니깐 한 분이 20~30명 정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방문 1번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2번 드리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관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좀 더 충원을 해서, 관리사를 충원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주 2회, 이렇게 좀 하루에 뭐 20~30명…… 1명이 20~30명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15명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방문하고 이렇게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독거노인들이 좀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거노인들의 관리가 더 잘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일주일에 1번 방문, 뭐 2번 이상 전화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직접 가서 무엇을……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그 사람한테 생활관리사가 가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 그 뭘니까. 계통을 통해서 읍면사무소에 또 담당 직원, 또는 군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는 이제 읍면사무소…… 군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부를 살피러 다니는, 그런 역할을 가장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보면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이쪽은 독거노인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벨을 누르면 119, 112나 같이 요즘은 다 통합이 됐으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19로 변경이 됐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12에다가…… 119에서 112로 가게 되면 112에서 바로 출동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파출소, 지역에 있는 파출소로 바로 연계가 되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119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112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일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112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지요?

□ 김양훈 의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그 아까 완도 군외, 신지, 고금만 대상으로 해서 응급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지역도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독거노인 3년간…… 이렇게 고독사를 알아보니까 3년 동안 고독사 그 현황이 1명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독사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고독사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 김양훈 의원

제가 알기로 고독사라는 것은 3일, 그 이후로, 3일 동안을 고독사로 치지는 않더라고요. 3일 이후로 몰랐을 때, 혼자 돌아가셨는데 65세 이상 분이…… 젊은 층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3일 후로 알았을 때 고독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1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읍면에 특별히 다시 당부 드렸습니까마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관리사뿐만…… 의지하지 말고 읍

면조직을 통해서 각 마을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1번 전화나 방문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한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겪어봤습니다.

□ 김양훈 의원

보면 고독사를 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 면사무소나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혼자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답변서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복지 사각지대를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보면 2018년도는 540건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원현황입니까?

□ 김양훈 의원

아니, 발굴현황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발굴현황이요. 2018년…… 2018년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그 발굴을 하반기 때 다 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요, 연중하는데.

이게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굴이 되면, 그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차례, 4차례 이상 관리를 하면서 또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만이 행복e음시스템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읍면별로 격차가 있는 이유도 거기입니다. 읍면직원들이 한 번 가서 안부 전화한, 이런 건도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더 했어도 안올리는 경우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앞으로 담당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지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발굴을 보면 3,285건이 됐습니다. 지원은 3,178건이네요? (예)

107건이 제외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게 발굴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또 추천이 들어왔든지, 직접 가서 거기를 살펴봤든지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에 가서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또 그 사람의 소득재산 같은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건강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고, 증빙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100% 지원이 안 되서 이런 갭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 것을 발굴할 때 약간 지원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발굴해서 나중에 심사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이렇게 있는 지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지원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렇게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것은 뭐 특별히 무엇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것을 드리고, 또 생계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드리고, 뭐 부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부식비를 지원해 드리고, 또 그 외에도 보행 보조기, 밀고 다니는…… 그런 것이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유형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으로 대체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보통 맞춤…… 개인 맞춤형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지원내용에 보면 기타서비스 지원이 참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니까 일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장이 대신 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김양훈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고영삼

(청취불능) 가서 보면 그분이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밑반찬이나 그런 배달을 하지 않고요, 국가에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던 사항들은, 부식지원이라는 것은…… 생활용품으로 취급을 하는 것은 그게 필요해서 그때 즉각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진짜 어렵다. 그럴 경우는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든지, 생계비를 지원받든지 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원할 때 재원 말씀하십니까?

□ 김양훈 의원

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것은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면 공적 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행복복지재단과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 봉사단체들 그런 곳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물품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이쪽 지역협의체, 이런 분들과 한번 서로…… 협력, 상생이 좀 잘되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수사례로 이렇게 발굴된 우리 완도 정신질환자 원스톱치유서비스,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전라남도 우수사례로 채택되기까지 했는데, 관련된 그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고맙습니다.

□ 김양훈 의원

하어튼 문졌습니다.

사각지대의 복지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말 그대로 우리 작년도에……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이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민원팀이 있었는데 민원팀을 없애고 총무팀하고 합치면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복지팀을 신설해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읍면장은 한 달에 뭐 15건…… 아, 5건 이상. 계장은 10건 이상, 직원은 15건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해라. 관리라기보다는 발굴하고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읍면 일선에서 읍면 복지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직접 발굴을 하고, 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인가요, 그것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 김양훈 의원

지역보장협의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역보장협의체요. 그 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면장 몇 건, 팀장 몇 건, 직원 몇 건 이렇게 하면 너무 무더기로 발굴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말해서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계층들

을 많이……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살펴보라는 그런 취지죠.

□ 김양훈 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락되거나 또 소외된 자들이, 그래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꼼꼼히 잘 챙겨서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홈페이지에 올려져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매뉴얼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리 군 홈페이지에요?

□ 김양훈 의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리 군 홈페이지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지금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만약에 없다면 홈페이지에 고지해 가지고, 또 면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청 행정에 있는 직원 공무원들 말고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고 주위에서 동네 분들을 차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좀 게시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확인해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겹으로 막 드러난 것들은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겹으로 드

러나지 않은 차상위계층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하고 또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어떤 부분은 수혜를 주도록 개정을 하고 있고, 김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범위를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 복지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런데 차상위계층, 그 자식들의 이름이 좀 있다든가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들인데, 꼭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15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증진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의 현물지원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9개 사업에 15억 9,900만의 사업비로 노인복지 증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29개소, 이래가지고 총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1,115명으로 의료복지시설에 264명,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837명이 있으며, 이들에게 450여명의 종사자가 시설서비스와 방문

요양, 그리고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원받고 있으며, 기능보강사업 등의 경우 국도비 사업 신청 및 군비 등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답변서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13개 사업에 379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현재 완도, 군외, 신지, 고금 등 독거노인 195명에게 제공되고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내년부터는 8개 읍면에 연차적으로 매년 100대씩 추가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증진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주민복지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국장님, 자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본안질문 시 드렸던 말씀입니다. 마는 노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땅과 우리들을 지키고 길러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예우는 후손인 우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노인복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15억 정도 되고 지원받는 총체인원 수는 2,221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을 받는 자도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거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물지원과 보호지원으로 나눠서 지금 9개 사업인데요,

저기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인구가 1만 5,771명에 14%가 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고, 그 나머지 여건들. 그 뜻은 지금 우리가 1만 5,000명 정도…… 1만 5,771명의 14% 정도가 되는데, 노인…… 지금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말씀인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맞춤형노인복지는…… 그것 합계율을 보면 2,200여분 정도 되고요. 2,200……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총 여기서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빼고 나니까 한 14%가 지금 65세 인구 1만 5,771명 중 지금 14%가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예, 말씀하십시오.

□ 이범성 의원

혹시 그분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물론 이분들…… 아니, 2,200여분 외에 더 지원을…… 예산이 많아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 대상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에 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주간보호를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복지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5개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2,200여분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로 돌아가고 있는 기초연금…… 이것은 우리 군 90%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제외한…… 그분들이, 그분들 중에 또 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돌아다니다보면 서비스…… 노인돌봄지원사업들을 확대가 조금필요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본의원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보고 드렸습시다마는 독거노인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완도군외 등 4개 읍면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사업이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순군비로 12개 읍면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매년 100명씩 확대를 해서 600여명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이 맞춤형복지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더 부담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기능 및 역할이 미흡한 사업예산들이 좀 많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좀 자제하고 이제는 우리가 후손인으로서 그런…… 꼭 지켜줘야 할 노인, 그런 복지서비스사업에 지원을 확대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79억 8,100만 원인데요, 기

초연금지원사업과 노인사회활동 지원비를 제외한 것이 한 7억 2,000됩니다. 경로당 지원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범성 의원

경로당 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320개소입니다. 그중에 경로복지센터가 53개가 있고 경로당이 249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 우선 운영비로 보면 운영비 지원은, 경로복지센터에는 매월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경로당은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방비는 매월 20만 원, 아니, 저기…… 난방비가 20만 원이고 난방비가 150만 원 이래가지고 난방방비로 해서 연간 170만 원이 경로당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20만 원이 최하인데 그렇게 보면 한 290만 원 정도, 보통 일반경로당,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현장을 가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너무 좀 적다고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없냐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인데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좀 늘려주는 그런 부분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방방비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170만 원이고 운영비가 120만 원, 최하…… 이렇게 290만 원 이상인데, 이것을 전체 통틀어서 경로당 공공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를 더 확대 지원해 달라. 이것은 어디 경로당이나 끊임없이 그런 건의를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올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개소의 경로당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역으로 다른 예산들이 많이 줄어든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풍선효과 같이 한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한쪽은 또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삶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되고 있는 냉난방비, 이런 것 공공운영비 중에서…… 즉, 말해서 지금 그쪽…… 아니,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식사를 경로당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 한 끼 하는 경로당이 있고 두 끼 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운영비를 많이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맞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운영비는 국비·도비 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순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계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 만이,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 애기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에 들어가면 마을회관에서 뭐 점심, 저녁을 먹고 같이 공동체생활을 하다가 외딴섬이나 도서 지역에서 저녁에는 개인집에 가서 자고 그렇거든요. 국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섬 쪽에? (예)

이런 지역, 혹시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

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군비지원은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로당별로 월…… 아니, 매년 쌀 7포씩. 쌀만 기본적으로 7포씩 들어가고 있고, 냉난방비 공공운영비는 대개 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남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각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께서 그것을 좀 아끼고 해서 그것을 부식비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식비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고 쌀 1년에 7포씩 지원하고 있는, 그것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먹고 놀고 하는 데가 주목적인 것 같아요, 뭐 들어가면서 다른 여건들은 아니고, 오늘 좀 맛있는 것을 해서 누가 가지고 왔다는가, 그런 것을 나눠먹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그런 것들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한 50%는 좀 부담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행하게 하고, 나머지 한 50%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13만 원, 16만 원, 19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는데요, 월…… 그래서 이제 순군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원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한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어떤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어른들이 매년 600명씩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노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 도서관도지역의 노인들, 모든 여건들이 열악합니다. 좀 그런 도서관도들…… 아주 그냥 뭐 먹을 것도 구입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본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밥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한 그릇이라도 더 먹고 가시게끔 하여튼 과장님…… 아니, 국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17쪽,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내역으로는 운영보조금 6억 5,4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63%, 운영비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5명, 물리치료사 1명, 조리사 1명 등 총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진단평가, 기능향상, 교육재활 등 7개 부문 26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4만 4,0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현황은 답변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단체별 운영 지원현

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총 연합회 3개 단체에 8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주민복지와 소관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평소에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 복지관협회, 협회조, 협회와 복지관을 몇 번 이렇게 다니면서 '아, 과연 내가 군의원이 되면 뭘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되고 나서 내가 한 번씩 가끔 가고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질문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줄리고 그럴 것인데, 잠시 영상을 한 3분만 우리가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방금 몇 개 했던 것이 복지관의 장애인들과 제가 인터뷰를 좀 했고요. 그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들과 했던 것, 문제를 관장한테 내가 이것은 왜 그러느냐고 질문을 했던 내용이지요.

먼저 아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어떤 상생할 길이..... 이런 타 지역은 프로그램,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장애인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전남대학교와 목포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분들께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을 꺼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잠깐 드는데, 거기 문호를 개방을..... 닫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지체부자유가 아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서도 수강이 가능하고, 이제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장애인 위주로,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된다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고,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내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 꺼려한다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꺼려한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뭔가 다른 장소나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래서 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고요. 혹시 비장애인들이 안 오는 것이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느냐. 왜 그것을 느끼느냐고 그랬더니 접근성이 문제인 것 같다는 말……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장애인복지관이요?

□ 최정욱 의원

아니,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에 비장애인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접근성이 좀 문제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비장애인들도 와주셨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그분들의 애환이 뭐겠어요. 아마 그것이 아주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것이. 물론 그분은 원래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희귀병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사회를 많이 아는 거예요. 어디가면 보고 듣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타군은 하는데 우리 군은 못하느냐, 그런 것 좀 해주라.” 라고 하는데, 물론 저야 뭐 거기서 듣고는 왔지만 거기서 한다, 안한다는 안했지만. 아마 그런 것이 타시군도 있다고 하면, 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왜 못하겠느냐.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도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신지, 군외…… 아니,

신지나 고금, 약산이 다리가 놔지면서 그쪽 장애인분들이 접근성…… 이쪽에 오기가 참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한데요, 복지관에. 그러니까 접근성을 좀 앞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다리가 놔짐으로 인해서 인구가, 장애인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고, 장소가 좁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아까 사진이 안 나왔는데 밥 먹거나 물리치료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지금은 보입니다마는 저렇게 자리가 좁아요. 밥 먹는 데도 2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지금 다리를 놓으니까 아마 비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 숫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미래지향적으로 잘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듣고 보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준비는 해야 될 것으로 저도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1층에 빈공간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층에 있는 직업…… 아니, 재활치료실을 2층으로 옮기는, 옮기고 재활치료실을 다른 프로그램실로 더 확장하는…… 그렇게 지금 요구가 들어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 아래층 지금 주차장이 있는 곳을 내려서 물리치료실로 내려간다는 것 맞죠? (예)

우리 전…… 그때 과장님이 그것 해가지고 올렸다고 했죠. 그것도 금방 나오듯이 식당 같은 데도 밥을 2교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쪽에 늘릴 길이 없더군요, 거기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3~4층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 건물구조상 3층 이상 증축을 또 못하게 되어 있는 모양

이에요. 그 구조가 당초에 지을 때……

□ 최정욱 의원

예, 저도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차피 우리가 다리가 놔져서 점점 장애인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도…… 하여튼 고민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밥이라도 편하게 먹어야죠, 장애인들이 와서. 우리가 기왕 복지관이라고 지어놨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편의시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이것은 고민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네들한테 설명하면서 “자리가 이래서 당장 어디다가 할 데가 없지 않느냐?”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군으로써는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

물리치료실은 거기로 내리기로 했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그 선생이 느닷없이 이렇게 장애인들이 필요해서 어디를 가게 되면…… 아마 우리 군에서 차를 지원해줬다고 그러더군요. (예)

그래서 신고 가야되는데 기사가 없나 봐요, 지정된 기사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그냥 빠른…… 우선 시간이 있는,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선생이 우선 스스로 가나 봐요. 그러니까 하던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장애인이 저한테 불만사항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관장한테 인터뷰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왜, 그 문제는 뭐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정된 기사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우선 필요한 대로…… 우선 장애인은 급하고 가야되고, 이것을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장애인 먼저 편의를 생각해서 데려다주다 보면 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말하자면 인원문제가 아니겠어요, 거기 인원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번 해보셨을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충 아홉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뭘니까. 지금 현재는 관장으로부터 인원 증원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 말씀대로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에 더구나 장애인복지관의 버스까지 지금 구입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어찌 됐든 그 시설이 됐든 인력이 됐든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시간이 남으면 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니까 불편하다. 불만들이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니깐 그런 내용이니깐요.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답을 주니까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 아까 들었지만 협회회장님하고 댈이 있었는데 회장님보고 제가 “대신 인터뷰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 아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니발 차가 있대요. 그런데 11년이 넘어서 고장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지원문제가…… “사실 제가 여기서 답을 못합니다. 다만 가서 길이 있는가, 실과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하고 왔습니다, 어떨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노후차량 교체문제인데 그 부분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교체할 시기가 됐으면 교체하는 것이고 수리해야 되면 수리해야 되는 것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차가 없으면 안 되냐고, 우리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거기는 자기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어렵대요, 거기에 또 기준도 있고, 또 저녁에 거기는 몇 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자기들은 밤늦게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협회에서는 스스로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참고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장애인 날, 이것도 지원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장애인 날 기념식 운영비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답은 안하고 왔습시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참고는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치유 탐방과 문화체험을 예전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1,500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그런데 2개를 합치면서 1,0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 500을 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 답변서에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1,0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왜 협회에서는 그렇게 알았을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시 한 번, 무엇이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 최정욱 의원

보면 장애인 치유 탐방과 문화체험, 두 가지를 예전에는 나눠서 1,000만 원, 500만 원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그 협회장은 1,000만 원으로 알고 1,000만 원 지원밖에 안 해줬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것을 나눠서 1,500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왜 협회장은 그렇게 알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줬는데 여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이것 공감과 치유 탐방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니까 1,000만 원 별도 편성을 했고, 장애인 문화체험 500만 원이 편성되

어 있는데요?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이것이 맞죠? (예)

그런데 왜 협회장이 이랬는가, 이것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말했지만 편의시설이 뭐냐, 불편한 것 장애인들이 주로…… 앉으면 이야기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화장실을 말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어디가면 화장실에 편하게 들어갈 데가 없다. 우리 완도도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또……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공공화장실 말씀하십니까?

□ 최정욱 의원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것은, 공공건물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이것 장애인 편의를 위한 화장실은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사용시설물이라든가, 장소는 공공장소인데……

□ 최정욱 의원

문화체육공원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체육공원이요?

□ 최정욱 의원

어민체육관…… 농어민체육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농어민체육센터요?

□ 최정욱 의원

그런 데도 무엇이 잘 안됐는가, 그런 데에
가도 어렵다고 하던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잘 점검해가지고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거기에 물이 자꾸 샌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는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협회건물 말씀하십니까?

□ 최정욱 의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터 시
작해서 (청취불능) 지붕을 씌워줄 수 없냐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검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언제 새로 짓고 또 부
지를…… 건물을 이전해야 될지 거기다가
신축을 해야 될지. 본인들은 이제 적당한 부
지가 없어서 거기서 계속 살고 계시는 것 아
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하고 맞물려서
보수를 지금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보수해
봐야 새 건물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뭘
니까. 더 늦을 것 같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 알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건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6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여성아동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다문화가
족 지원사업 추진 등 2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
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2018년 9월 기준 완도
읍 107명 등 현재 총 366가구이며, 국적별
로는 베트남이 17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71명, 필리핀 56명 순입니다. 지금까지 다
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친정방문 항공료
를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과
읍면 다문화가정과 부녀회를 결연하여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되
어주기 사업 등 군 직접사업으로 총 4개 사
업 5,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교육 등 다문화가
정 방문교육서비스와 생활에 필요한 각종 통
번역서비스 지원사업, 이주여성 수준별 한국
어 집합교육 등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
터 추진사업으로 248세대에 6개 사업, 2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다문화가정 관리 실태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읍
면 공무원 및 기존 이주여성 등을 통해 신규

전입자를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필요시에 방문하는 등 전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취업 등의 이유로 교육 및 행사 추진 시 참여가 저조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교육 참여 등을 고려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 군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나, 센터운영과 사업에 대한 세부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내년도에는 평가전문기관을 통한 운영평가를 실시해서 운영의 효율성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근로자의 인건비가 호봉제로 운영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 재위탁시에는 위탁 법인의 재산 출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여성아동과 소관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관리 실태를 보면 남편의 비협조로 적극적인 다문화가정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 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아무래도 그 남편 되신 분들이 외국에서 시집온 아내를 밖에 내보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분을 만나봤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분

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거예요. 그것을 경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렵다, 이것이지. 그래서 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조금씩 해주는 부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취업을 위한 교육,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 부의장 허궁희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장, 그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이런 경제적인 것이 어려워 자기들 돈을 가지고는 어렵다, 이것이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또 건의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문화가족 관리를 하고 있는 읍면에 여성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지금 면담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늘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의회에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한 11월로 지금 미뤄 놔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라든가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전부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리고 지금 한글학교…… 저기 교실을 읍면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한글학교……

□ 부의장 허궁희

한글교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파악을 못했
고요. 한글학교……

□ 부의장 허궁희

그것을 또 원하더라도요, 한글교실을. 일
주일에 여러 차례는 아니어도 토요일쯤이나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열어주면…… 그러니
까 완도읍에서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완도로 나가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교통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활하
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십 년씩 되니까 읍면에
해주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더 한글공부를 하
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주라. 이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한 곳에 모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
데 우리 군의 특성상 12개 읍면을 전부 한
군데에 모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 이민자들
이…… 아니, 다문화가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완도나 금일, 노화, 신지, 고금, 약산,
소안, 보길, 이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면
20명 이상, 30명 이상 되는 곳이.

한글학교라는 것이 뭐 특별히 자격증을 가
지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은 저희들이 여성아동과에서 다시 검토를 한
번 해서 읍면에서 읍면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병역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
요원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능직을 받아서라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제가 왜 이 말을 굉장히 깊이 들었냐면요.
제가 번영회장할 때 한번 한글학교를 나이
드신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신지면 신지만 놓고
할 것이 아니고, 신지, 고금, 약산이나 이런
데는 연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를 한 사

람 이렇게 정해놓으면 3개 읍면을 돌면서
요일을 정해서 하면 그렇게 큰 경비가 안 들
고 다문화 이주여성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안을 한번 해볼
까하고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안을 해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제가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국어교육을 완도읍에 두 군데하고
있고 노화읍과 생일면에서 결혼이민자를 대
상으로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
산 2,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 외에 여
타 읍면들이 문제인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수요자들이 많고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권
역별로 묶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왜냐하면 신지 같은 경우는 큰돈이 안 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번영회 안에 칠판이
고 의자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이
렇게 나와서 강사만 한 사람 있으면 바로 가
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가능하
면 그렇게 지원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말
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를 더 요구한 것이 이제 한국음식
을 좀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이런 제안
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
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실
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것들이 모두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한국어를 알아먹어야 음식을 배우든 기술을
배우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차근차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그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한 후에, 뭐 사
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야 인구 늘리기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최정욱 의원

아닙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4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아동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완도군에 여성단체 현황은 8개 단체에 1,200명, 읍면 여성단체협의회는 2개 단체, 그래서 총 10개 단체에 1,500여명이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과 여성직업훈련 및 취미교실,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 지원 등 총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아동복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만 16세 입양아동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대학진학금, 명절 제수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는 금년 9월부터 지원된 신규사업으로 가구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 전체아동의 90%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군 특수시책 사업 현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중학생 교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0세부터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장난감 이용 및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교복지원 사업은 `19년도 중학교 신입생 365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 인구 늘리기 시책과 연계한 아동복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난감 도서관의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장난감 구입비 3,5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전당과 작은영화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적극 발굴하는 등 아동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아동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여성아동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여성직업훈련 취미교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내용과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또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여성직업훈련……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교육 내용이고 또 소요예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잠깐만요,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주무계장, 빨리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자료가 미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업훈련 대상자를 보면 대부분 거기서 사람들이 받고, 좀 확대되지 않고 읍에서만 조금 이런 것이 있었던데,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거기 참여하는 수강생들이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부분은 뭐 홍보 부족도 있겠고, 또 원거리에서 완도읍까지 와서 수강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된다고 한다면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렇죠, 제가 와서 판단해볼 때 특정지역에서만 계속 운영하는 단점이 있었고요. 홍보가 안 되고 또 지역의 여성들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여기 와서 보면 여성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교육에 2,000만 원이 있고 양성평등에 3,000만 원. 이외에는 여성들한테 지금 지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우리의…… 완도 여성들이 혜택을 보지 못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여성단체의 회원들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그 행사의 인원 동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도여성단체에서는 잘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혹시 뭐 대우나 격려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뭐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가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애써 오신 분들, 특히 여성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지금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우리 해조류박물관이나 아니면 무슨 가을빛축제나 뭐 행사할 때마다 와서 차 봉사도 하고, 또 차 봉사뿐만 아니라 인원도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서.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워크숍을 하는데 2,000만 원, 저기 양성평등을 할 때 3,000만 원, 그 외에는 지원한 것이 없고 여성단체 지역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고급하고 소안, 그 2개의 단체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한 것, 그 외에는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고급에 다리 개통이 안 되었을 때 항상 한이 되는 것이 읍 단위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우리 완도는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없어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대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성직업훈련과 취미교실 운영을 더 확대하고, 권역별로, 또 각종 행사에 봉사하시는 여성단체 회

원님들의 어떤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성으로서 느끼는 점이 사회 참여하고 같이 활동하고, 또 봉사하고 이러므로써 보람을 느끼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여성단체조직을 해서 보니까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지원이.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이 되지 않은 그 읍면에도 여성단체조직을 해서 이 사 람…… 이 분들이 여성들로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사회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여성단체조직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현재 읍면별로 고금과 소안만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고금과 소안의 경우는, 고금은 역사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본받아서 소안이 새마을부녀회, 또 의용소방대, 지구생활개선회, 적십자회…… 적십자봉사회, 뭐 이런 등등의 여성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조직을 모아서 단체협의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없는 읍면은 새마을부녀회 위주로 여성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있는 읍면과 없는 읍면의 차이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순기능적인 면을 더 부각시켜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여성단체, 또는 여성권익이 향상되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전읍면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구성을 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읍면에서, 부녀회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결성한다면 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이제 국장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너희가 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여성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여성…… 읍면의 여성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든 읍면장님한테라도, 그 소스를 쥐가지고라도 여성단체를 조직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회참여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야지. 스스로는 절대 못합니다. 소안면도 그때 조정석 면장님이 고금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가 고금에 와서 보고 “아, 이것은 좋구나.” 라고 해가지고 소안에 가서 그것을 조직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대충하셔가지고라도…… 제가 여성단체 처음 조직을 읍면에서 해봤기 때문에 저도 같이 동참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학교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년예? (예)

그러면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죠. 혹시 고등학생은 이것을 하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고등학생 교복도 한다고 하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내년예 해볼…… 올해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중학생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고등학생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고등학생은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아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원이 안 되니까 순군비로 하기에는 벅찬 그런 실정이라 우선 중학생부터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래도 제 생각에 완도고등학생이 779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신입생들은 아

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고등학생까지 한번 그 교복을…… 한번 입혀서 하신다면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보다 좀 부모들도 소득이 줄어…… 아니, 소비가 줄어들고 학생들도 좀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점은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가지고 이왕이면 고등학생까지, 학생을 유치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민원봉사와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답변 드리기 전에 방금 여성교육훈련 취미 교실 운영에 대해 제가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내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또는 취미교실을 자기 있는 취미를 더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2개 반 내지는 4개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요양보호사반과 한식조리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완도읍권에 계신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확대해서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것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지고 전체 여성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주로 이제 요양보호사반과 제과제빵반 내지는 한식, 이런 것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런 것 수요가 많더라고요.

이어서 민원봉사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가축사육에 따른 인허가 처분사항 등 2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에 따른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신청현황입니다. 고금면에 1건, 신지면 5건으로 총 6건의 돈사건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사 허가처분 취소사유와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고금면 도남리 돈사신축 허가취소 처분사유입니다. 도남리 돈사신축 건은 2회에 걸친 완도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8년 4월 24일 최초 건축허가가 나갔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한 주민동의서 및 주민설명서 이행 관련 서류가 유사 양도장 견학 및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을 참석·동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임이 확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2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지면 동고리 돈사신축 불허가 처분 건은 대규모 토사 및 분노 유출,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양식장 등 피해 우려와 협소한 진입도로 사용으로 영농활동 지장 및 안전사고위험 상존은 물론, 가축전염병 발생시 매몰지 미확보 등 방제대책 미흡으로 보완이나 대책이 불가한 사항이 확인되어 제2차 심의에서 부결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2018년 10월 1일 건축 불허가 처분 통보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지면 대곡리 신청된 1건은 완도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1차 심의에서 해양오염 방지대책,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제대책, 종합적인 분노처리대책, 주민사업설명회 및 진입도로 확보 대책 등 보완사항이 많아서 재심의 의결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신지면 대곡리 일원에 신청된 3건의 돈사신축 건은 관련법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법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돈사신축 건축허가취소 및 불허가에 대한 피허가자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시 우리 군의 대응방안입니다. 고금면 도남리 허가취소의 건은 우리 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시 제출한 주민동의서 및 주민설명회 관련 서류는 허위로 작성 제출된 것으로 심의의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사업주의 심의를 통과하여 허가를 득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바, 허가취소의 충분한 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지동고리 돈사 신청 건 또한 입지의 적정성이라든가 공익성 등 불허가 처분 사유가 타당함으로 소송에서 이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부서간 협력과 법령 검토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족사육에 따른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민원봉사와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허가 현황, 그 표를 보면 저희들이 6건 아닙니까? (예)

6건 중에 2건은 허가취소 불허가가 잘됐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 중에 있는 것도 좀 잘 처리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깊게 말씀 안 드려도 뻔히 다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신중히 검토하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정지역,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를 보존하고 우리 주민들의 바람을 감안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꼭 좀 잘 처리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는 민선6기의 대표적인 지역브랜드죠? (예)

해양치유사업의 미래 100년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돼지돈사 허가를 내줬다는 것, 그 자체가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도군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인허가 문제에 대처해야겠다는 교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확실히 가동해서 우리 지역이 특장개인의 사익을 위한, 그런 시설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우리 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고 그런 인허가에 대해서는 다소 법령에서 정한 규정이 느슨한 점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신중히 검토를 해서 허점을 발견하고 계속 보완요구를 한 다음 그래도 안 될 경우, 또는 보완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 법적으로는 허가를 내는 데에 솔직히 하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잘못을 따지기보다

도……

우리 행정에서, 또 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뭐 청정바다수도, 해양치유산업,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이 연루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여기까지는 아마 안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 개발현황, 농지전용허가, 뭐 건축허가, 여러 부서로 연결된 복합민원 성격의 행정행위고, 누구 하나 심각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우리 군에 이런 기업형 돈사가 이렇게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산림, 농지, 도로, 수산, 건축법 등에서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최종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검토를 하고, 또 주민수용성 등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에서도 발 빠르게 이와 관련해서 입법 발의를 해주셨는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500M에서 2km로 이렇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신축허가 신청이 없으리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개발행위나 이렇게 보면 부서가 여러…… 개발행위부서가 다섯 부서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민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5개의 부서가 한 군데에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어가지고 거기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집행부 좌석에서 - 의장님, 저 한 가지만……)

□ 의장 조인호

질문하고 있으니깐 하지 마세요.

□ 김양훈 의원

그 돈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사업주가 민·형사상 이렇게 민사소송을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나.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면 이 허가취소나 불허가에 대해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후에 그 발생한 지역에서 향후 그 소송 과정에서 승소해서 다시 재허가를 받더라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전 취하한 경우도 알아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우

리가 생각하기에는 허가취소나 불허가의 사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대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는 물론, 그 관련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민들이나 고금 주민들이나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허가취소는 됐지만 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불안하냐, 돈사가 행정소송으로 가서 패소를 하게 되면 (청취불능)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패소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사업을 못했던…… 뭐라고 합니까, 돈을 또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게 되면 허가를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포상금이겠죠, 그게. 공사를 못한 포상금. 이것을 지불하게 되면, 패소를 하더라도 지불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내 부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자리에서 꼭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그리고 자료실, 신문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실…… 안 됐으면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그 신문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축사민원 아름다운 양보가 이룬 상생’이라고 이렇게 경남일보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거기에 사업주하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인허가가 들어와서 갈등이 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주가 아름다운 양보를 했더라고요.

어떤 양보냐고 그러면 축사 부지를 준비해 놓은 것을…… 이미 기초까지 다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됐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가는 돈까지 다 보상해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없는 것으로…… 그레가지고 동네 분들이 행정에서 돈을 보태고, 부지하고 들어간 비용하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것도 본의원의 고민거리다.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최후에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주나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홍보나, 이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민원봉사와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3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 30동, 2017년에 39동, 2018년 사업량 45동에 3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우리 군 빈집 실태조

사 현황은 총 339동의 빈집 중 철거형이 273동이고, 활용가능형이 66동입니다. 철거형 빈집 273동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와 빈집 정비사업 물량확대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총 사업량 45동 중 10월 현재 30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잔여물량 15동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거형 빈집 273동에 대해서 1~2년 이내에 전량 정비가 가능하나, 빈집 소유자의 소유자 불명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이유로 매년 40건 미만 정도로 접수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 66동에 대해서도 귀촌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빈집 현황을 매년 파악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수가 적어서 올해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빈집정보가 15건밖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민원봉사와 소관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국장님, 자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가 철거형 273동, 활용가능한 형이 66동으로 조사되었네요? (예)

저희들이 시골이나, 어떤 빈집이 있는 데를 보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철거대상 273동에 대해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가지고 설득을 못해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빨리 못하는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더라도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고는 싶으나 하지 못하는 사항들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데 실은 저의 집이 빈 채로 지금 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니면 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철거정비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면이랄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더 살펴봐주시기 바라구요.

시간이 얼마…… 너무 오래 장시간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고, 또 더불어 귀농, 귀촌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수요를 파악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여기도 물론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00% 다 올라가지는 않고, 거기에…… 그 센터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분이 당사자들과 전화연락을 해서 협상을 하든지 흥정을 하든지 그렇게 편성합니다. 임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인 간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문제는…… 문의는 들어오지만 막상 개인들 간에 협의를 할 경우에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가지고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도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나 축사나 오래된 건물…… 뭍니까, 공장이나 이런 슬레이트까지도 수요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업무가 일원화되어서 빈집…… 빈집이 물론 슬레이트 지붕도 있고 아닌 지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해서, 업무를 환경산림과에서 빈집철거까지 업무를 거기서 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빈집 철거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아마 이러한 애로 때문에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우리 공무원, 우리 집행부 여건들에서 더 세심하게 좀 챙겨가지고 한번 안 되는 것…… 한번 찾아가 가지고 “이것 정비 좀 하려고 그러합니다.” 라고 해서 “안돼요.” 라고 그러면 또 갈 수…… 찾아가서 다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본의원은 다른 것보다도 활용 가능한 66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귀어, 귀촌인들과 연계할 다 시키느냐. 그게 저희들 인구 늘리기 여건이랄까,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줌으로써 또 와서 그런 분들이…… 만약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터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추진을…… 66동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활용 가능한 빈집으로 저희들이 파악

한 66동은 말 그대로 지금 누가 들어오더라도 약간의 수리만 하면 바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현재 그…… 들어보니까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사이트가 지금 현행화 중이라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내에 활성화가 되고 현행화…… 정비 중이기 때문에 정비가 완료되면 거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공할 것이고, 읍면별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소유자들과 이런 자세한 홍보와 함께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소유자들이 바뀌는 경우, 또는 소유자들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심신허약상태로, 노약상태로 되어가지고 자식들한테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유는 아버지나 노인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자식들이 결정권이 있는데, 보면,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분들은 “그 집 안 팔려고 한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안 살고 집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든 집이고, 아버님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집이고, 이런 개념들이 강해서 사실 활용 가능한 집이라도 참 이렇게 뺏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러나 행정에서는 최선을 이런 빈집들이 흥물스럽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귀농, 귀촌어가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우리 인구 증가가 되고 또 활기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일단 뺏어질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한편으로는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부산, 각지 전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찾기도 힘들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질문에 대해서는 귀농, 귀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귀농, 귀어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주소

가 연결된다면 본인들, 그냥 쌍방 간에 해가지고라도…… 우리 행정에서 낚다면 ‘돈이나 좀 많이 주면 정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밀접하게 해가지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계속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불출석 공무원

여성이동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25일(목) 09시57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
 - 복지행정국
 - 미래해양사업단

□ 부의된 안건

<제3차 본회의>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복지행정국
 - 자치행정과
 - 세무회계과
 - 미래해양사업단
 - 해양정책과
 - 해양치유산업과

(09시57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질

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건입니다.

먼저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이장 사기진작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마을은 총 246개로써 246명의 이장이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한 도내 22개 시군에서, 직무향상교육은 9개 시군, 선진지 견학은 12개 시군, 또 한마음행사는 16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은 읍면별로 선진지 견학과 한마음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무향상교육은 2015년도에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장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직무교육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 시군별 이장단 지원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재직한 이장 공로패 수여 현황입니다.

이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지난 2016년 9월부터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지사 표창과 군수표창을 열세 분에게 수여한 바 있으며, 내년에 10년 이상 연속 재직하신 여섯 분에 대해서 기념패나 공로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매년 이장 상해보험을 들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32건에 5,7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여성이장 사기진작에 따른 상사업비로 여성이장마을 한 곳당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과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 주민의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이장 사기진작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장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장들은 그 마을에서 마을의 리더로서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의 대소사, 모든 총괄적인 부분을 주민과…… 대의기관의 가교역할을 하고, 또 마을 화합을 위해서 선두해서 마을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국장님의 말씀대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전달·반영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요. 또 마을의 발전에 대해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도 하고 또 마을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도 하고 있고요. 마을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각지대 발굴도 하고 또 복지도우미 역할도 하고, 마을이장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보면 “이장은 마을구역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다년간 이장을 해봐가지고 그 역할에 대한 애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20만 원의 수당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 국장님께서…… 제가 여기 보니까 `15년 10월 8일 날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번 하고 그 뒤로 안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이장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 이장들이 보면, 이제 역량…… 자신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연말이 되면 결산하고 그럴 때 연성을 높인다거나…… 그렇게 하다보면 고발, 고소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들이.

그래서 항상 그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해주셔야 만이…… 이제 이장들이 마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주시고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이장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8만 원어치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246명 전체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면사무소 총무계로 8만 원씩 지출을 했죠, 이장 1명당 8만 원씩으로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선진지 견학을 안보내고 현금으로 주셨는가, 그것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그것은 이제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이장 한 분당 8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읍면에 전도를 했는데 그게 읍면별로…… 전체 완도군 이장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읍면에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이장단들과 읍면장이 협의를 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고 며칠날 갈 것인가를 정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해본 결과 2개의 읍면이 갔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11월에나 뭐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그래서 제가 엇그제 보니까 군외는 여행을 가지 않고 그것으로 사회단체끼리 모여

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금은 오늘 이장회의 때 타협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이제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합해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이장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그런 길도 마련해 주시고, 벤치마킹시켜 가지고 이장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왜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읍면별로 가라고 했을까, 그것도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읍면에다 맡기지 마시고 모여서라도 역량강화를 시켜서 이장들이 자기 역할을 다해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송곳이 밑에서부터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장들이 자기 역할을 다해서 행정에 도움을 주면 행정에서도 그만큼 효율적으로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교육을 연초에 시작해가지고 이장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이렇게 매일…… 요즘에는 출장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이장들이 행정을…… 사무실로 나갑니다, 교통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장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고요. 또 본업이 있는 이장들은, 사실 20만 원을 가지고 교통비도 안 됩니다. 그것을 받고…… 그래도 어떤 사명감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장들이 돌아가는 군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한마음대회 때 2,100만 원 쓰시고, 이번에 선진지 견학으로 1,968만 원 지출하시고,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고금, 그런 것 외에……

그래서 이렇게 이장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수당이 적은데, 혹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나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20만 원을 지금 이장수당으로 지급한지가 몇 년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파악해서 그것 뭘니까,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자료를 들며)

그리고 저도 아까 그 전남의 시군…… 이렇게 하는 내용을 파악해봤습니다. 직무항상 교육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군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꼭 참고해주시고.

그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를 보면 너무 열악해서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사기진작의 내용을 해서 개정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사기진작에 대해서 제6조를 보면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이것은 보험 가입은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국내의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 모범이장 표창 및 이장으로 10년 연속해서 재직한 사람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그 밖의 이장 업무수행 중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영도군에서는 이장들한테, 고등학교생이나 대학생 학자금과 주고 장학금도 지급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그 영도군을 예로 들어가지고 장학금이나 대학교 학자금 같은 것을 지원할 의사도 있으신지, 국장님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비단 영동…… 충북 영동군인 것으로 아는데 영동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사실 지금 현재 이장 실정으로 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받을 이장이 몇 안 됩니다. 전부 60대, 70대, 80대까지 이장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몇 분이 안 되지만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또 젊은 이장들이 나와 가지고 정말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면을 위해서, 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 꼭 이것을 신경써주십시오.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봤을 때 10년 이상 연속으로 재직한 이장들은 기념패나 뭐 공로패,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군이 내년에 하신다는 의사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장 한마음을 했는데 왜 그때 전달을 안 하시고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내년이라는 말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요. 6명이 있는데 왜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10년 이상 연속근무하신 분이 6명이 여기에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작년이나 금년에 안하셨는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의 저희들이 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을 보며)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신…… 금년이 넘어가야 10년이 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제대로 파악하셨어요, 저는 11년 6개월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10년 이상 재직하고 계신 분들을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이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10년 이상 되시는 분이 금년 말까지 하셔야 10년이 넘으십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니, 여기는 10년 연속 6명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이 넘어가야 10년이 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여기 금년에 했을 때는 10년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금년까지 해서 10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 초되면 10년이 딱 넘어가니까 내년 초에……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니, 그러면 저는 11년 6개월을 했는데…… 정확히 11년 5개월 14일했습니다. 왜 10년이 됐을 때 그것 시행을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알았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런 부분을…… 그것 감사패, 공로패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놔요면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자꾸 궁금해 합니다. 지금 한다고 하면 작년, 재작년에 이제 10년이었죠. 그래서 이장들이 자꾸 저한테 물었어요. 뭐, 10년 해가지고 뭐를 받았냐고. 그래서 “아니, 이제 이장 마무리되면 주겠죠.”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공로패 10년 이상 해가지고 공로패 하나 받는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저는 이미 끝났지만 좀 잘 파악해서 가지고 이장들이 ‘아, 내가 10년 이상 해가지고 조금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여기다가 신경을 쓰셔서. 달리 이 조례를 바꾸더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신경써주실 수 있죠? (예)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해서만 놓고 실천을 안 하면 그것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3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령에 의한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68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입니다. 전체 위원 수는 824명으로 당연직 311명, 위촉직 513명입니다. 위촉직 513명 중 남성이 351명, 여성은 162명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구성 여부입니다. 10월 현재 위촉직 여성 비율은 31%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위원회 임기 종료 후 신규 위촉 시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위촉직 여성위원이 40% 이상 되도록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완도군 위원회 세부자료는 4쪽부터 9쪽까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우리 군 위원회 구성현황에 위촉직 여성이 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많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것은 제가 잘된 사항이라고 치하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완도가 여성이 의원으로도 좀 잘 채택되지 않고 이리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괜찮고요.

혹시 심의하는데 수당은 얼마 정도 주시는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수당은 지금 하루 7만 원……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7만 원, 그러면 위촉현황을 봤을 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를 맡고 있는 것을 봤는데, 혹시 국장님, 한 사람이 몇 가지 정도 심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중복되

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이 14개 심의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단체장만 보시지 말고 부회장도 보시고 총무도 보시고 회원도 보시고, 그중에서 여러 사람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잠재해있는 의식을 발굴해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나 또 많은 군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위촉…… 그 제정할 때는 40% 이상 되도록 신경써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10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재난방송은 재난·재해 및 AI, 구제역, 그리고 각종 감염과 질병 발생 시에 행정안전부 및 재난방송시스템과 연계해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개년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권역별 공모사업을 통해 기구축된 21개 마을을 제외한 12개 읍면 226개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자동수신단말기와 무선송수신제어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매년 5,000만 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군에서 구축한 장비는 군에서 일괄 운영관리하고, 마을회관에 기설치

된 앰프나 스피커, 마이크 등 노후장비 교체·구입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연속으로 제 것만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힘들고 하시는데……

재난마을방송시스템은 각종 재난이나 발생시에 한 곳에서 할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맞죠? (예)

그러면 이제 권역별로 재난방송을 이미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거기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21개 마을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21개 마을이요? (예)

그러면 246개 중에서 21개면 많이 했네요.

그러면 기구축된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혹시 어떤가 알아보셨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제가 듣기로는 우선 마을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장님들도 방송을 하기가 편하고 수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급한 사항을 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고 효과 높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그래서 제가 전남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들며)

그런데 여수, 목포, 구례를 제외하고는…… 구례도 일부는 했고요. 전부 마을재난방송 시스템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장을 하면서 권역사업으로 이 마을도 모든 것을 다 설치해가지고 저희 마을은 옥내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옥내에까지 하면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고, 올해는 옥내까지는 재난방송을 할 수 없다고 법령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 마을이 여러…… 이렇게 떨어져서 산재해 있는 그런 마을은 방송을 2번, 3번합니다. 저도 이장할 때 방송을 2번씩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이장이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긴급을 요할 때 그 시기를 놓치면 좀 뭐야, 형평성에 안 맞아서 사망사고가 난 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장…… 단장 때 의원님들이 순회 때 와가지고 그때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할 말이 없냐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방송을 2번, 3번하는 마을만 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도 없고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의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건의하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올해 의원이 되어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을 우리 이장님이 다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참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2년간 하시지 말고요. 내년에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럴 생각이었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말씀 드릴 때도 일괄 예산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렸었는데, ‘군 예산형편상 이것을 2개년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구축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총 18억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2개년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현재 이 방송을 하게 되면 그 한 마을에…… 한 마을 방송에 전화번호 10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반장, 또 담당 이런 직원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장이 혹시 뭐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면직원도 할 수 있고, 또 부녀회장이 자기 업무가 있을 때는 부녀회장이 할 수 있고 또 바다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또 어디 서울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시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아요,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앰프나 스피커를 걱정하셨는데 원터치로 하면 이게 일괄 전부 안에…… 실내의 장비는 전부 같이 따라오고 실외의 스피커만 새로 구입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국장님,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도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제 생각도 그랬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라 제가 그 예산부서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의원님께……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2개년도에 걸쳐서 확보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

리 예산파트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꼭 이것을 전남에서 오죽하면 제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왔겠습니까?

(자료를 들며)

전남에서 이렇게 하면 여수나 목포…… 시 외에는 구레가 약간 미흡하고 나머지는 전부 완공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꼭 약속하시고 이것을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 12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서 행정의 효율 향상과 군민에 적극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후생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직 및 공무직 1,190명이며 예산은 18억 5,6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보험 지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1,190명, 8억 7,600만 원, 단체보장 보험가입에 1,190명, 3억 7,700만 원, 종합건강 검진비, 140명, 6,300만 원입니다.

13쪽, 맞춤형 복지점수 청구는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친화에 855명, 건강관리에 506명, 자기계발에 116명, 여가생활에 903명, 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은 1,045명에 2,400만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관내에서 사용 장려하고 있으나 분석해본 결과, 관외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화를 위해 우리 군은 온나라 상품권을 권고 기준인 10%보다 더 상향해서 20%로 의무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상가를 많이 이용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제 것만 있어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지역예다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싫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로 했으면 너무 좋겠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50%라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도 좀 살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1만 원짜리를 사러가 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살 수 있고, 또 단골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완도 지역에서, 우리 권역에서 좀 상품권을 한 50%라도 쓸 수 있게 한다면…… 제가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50%로 딱 결정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50%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제 생각은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50%로 50% 사용하는 것, 그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문제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리고 혹시 그것을 먼저 군청에서…… 군수님이 계시면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군청에서 먼저 하시고, 또 우리 군수님이 그 기관단체 회의 때 나머지 기관들도 좀 협조해달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같이 50%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국장님,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욕심은 100%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50%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국장님, 이 질문은 답변을 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이 우리 고금면사무소가 너무 직원이 적고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2명 더 추가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서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고금면사무소 직원 뭐…… 충원 말씀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그때 2명을…… “고금면사무소가 너무 인원도 많고 지역도 넓은데, 왜 다른 군하고 똑같이 하느냐?” 라고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더니 “2명 인원을 충원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올해 그게 안 됐어요. 그 부분이 이제 국장님 소속이라 한번 왜 그러셨는가, 그것에 대해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손을 들)

□ 의장 조인호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을 보며)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2명을 지원해주겠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물어가지고 하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갔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그 부분 다음 1월 인사 때 제가 충원…… 조정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꼭 할 수 있죠, 전부 다 들었으니까…… 그때는 약속만 하셨고, 혹시 그때 말로만 하셨는가,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1월 달에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 14쪽,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 장학기금 내 고장 인재육성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의 과거 5년간 변화 추이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군비출연금 80억 5,828만 5,000원, 기탁금 14억 8,496만 5,000원, 이자수입 14억 6,234만 5,000원 등 총 110억 59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탁금은 매년 줄어들고 더불어 이자수익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장학금 사용 내역입니다. 매년 완도고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 등 17개 내외의 다양한 장학사업과 장보고장학회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장학기금 적립액 등으로 연평균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연도별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쪽, 기탁금과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재원부족 상황에 대한 대책입니다.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자 2017년 10월에 장보고장학회 제3차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모금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목표액 달성시까지 모금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사회단체장 및 읍면이장 246명에게 이사장 서한문 발송, 홍보전단지 및 신문보도 등을 통해 장보고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완도군민 및 향우 장학기금 1계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총 145억 8,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찾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 1년 단위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재예치 시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예치해서 장학기금 이자 수익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증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출신 인재 완도 정착을 위한 장학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율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완도군 장학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완도군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2018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매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26개 사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 장학기금 내 고장 인재육성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국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되고 있는 장보고장학기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8년 10월 현재 총……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을 보며)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과장님이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110억…… 149억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보면요, 14쪽에 이자수입 기탁금 과거 5년 동안 변화를 보면요, `16년도에 16억, 그리고 `15년도에 보면 10억 9,950만 원보다 46%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반면에 `15년도에 보면 50% 감이 됐는데, 크게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16년도에 50% 감된 것이요?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기탁금인데요. 군비 출연금은 이제…… 군비는 말 그대로 군비로 출연했는데, 기탁금은 그만큼 걷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금이 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는 교육기관 등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기획재정부에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

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체에서는 교육기관 등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이나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하여 군비로 장학금·장학회를 출연한 후에 장보고 장학회에서 교육기관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리고 14쪽에 또 보면요, 3년간 장학기금 내역에 보면 18억…… 지금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해오고 있죠? (예)

그중에 보면 완도수고, 마이스터고 육성지원사업을 보면요, 매년 3억씩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16년도에는, 그리고 `17년도에는 2억 5,000, `18년에는 11억 9,600만 원 이렇게 일정액을…… 일정액은 아닌데 꾸준히 이렇게 지원해오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고 했는지 아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수산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지가……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을 보며)

지금 한 4~5년 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집행부 좌석에서 - 2014년……)

예, 2014년이니까 5년 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어서 수산고등학교가 우리 지역 학교고 그래서…… 마이스터고로 전환된 이후로 그 수산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액을 그렇게…… 장학지원사업을 확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제가 알기로는요, 지정될 때 완도군이 매년 3억씩 해가지고 9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지점은 지났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3년이요?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3년간에 걸쳐가지고 3억씩 1년에 9억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끝났으면…… 지금 끝난 것을 보니까 `16년, `17년, `18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그것은 장학회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그게 3년 지원하고, 그 이후로의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을 보며)

예,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당초에 마이스티고로 지정을 받을 때 완도 군하고 3년간 완도수산고등학교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식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상 갑자기 지원을 하게 되면 그전에 쭉 추진해왔던 그런 사업들이 그때 전부터 단절된다고 그래 가지고, 매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씩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꺼번에 전체 3억 원을 다 줄이면 그전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의 사업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단절되니까, 전체 사업비를 좀 줄여가면서, 매년 조금씩 줄여가면서 축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요, 장학기금 목표액을 15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 조성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무슨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그것은 모금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래서 이것…… 주로 당초에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장학사업을 확대 전개해나갈 계획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니까 기존 목표액 150억 원을 가지고는 원활한 장학사업이 힘들다고 그래서 장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서…… 목표액을 그러면 200억으로 50억 더 상향해서 모금을 하고 조성을 해서 더 원활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별도로 몇 년도까지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2018년도에 보면요, 지금 현재 기탁금이 5,972만 4,000원.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상태로 200억까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는데, 부족하면 군비 출연금으로 이것을 충당할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군비 출연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우리 기금 모금을 더 활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제가 마무리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은 일회성이 아니고, 또 앞으로 소모성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장래를 위해서도 지속적이고 또 내실 있게 추진해야할 중요한 투자이고 사업이라고 봅니다. 해가 지날수록 장학금 조성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 지금보다 조금 더 열성적이고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 19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스템에 의한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완도군 공직자 친절운동 현황입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느끼는 완도군 공직자의 친절도는 다소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중 친절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매년 베스트 스마일 공무원을 선발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베스트 스마일 공무원 표창 및 부상, 포상휴가, 그리고 근평 시에 또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친절로 민원 발생 시에 인사조치 및 근무평정 시에 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불친절 공직자에 대한 민원발생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1건으로써 그 직원에 대한 징계와 근무 감점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불친절 공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친절한 교육을……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일 공무원 선발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친절도를 높이고 친절공무원 선발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마을이장 등 마을임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친절직원 추천 엽서를 친절·불친절 직원 엽서로 변경하고, 전 부서 및 읍면에 배치하여 완도군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중 접수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민원 응대 요령이 미숙하여 발생하는 불친절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시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응대 요령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자체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친절과 투명, 책임과 공정성을 측정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친절을 공직자의 기본덕목으로 삼고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훌륭한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친절운동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절은 공무원이 가져야할 최우선 덕목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자체평가 자료를 보니까 공직자 친절도가 우리 군이 다소 낮게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변경 같아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자세, 또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완도군 민원실에는 안내도우미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읍면으로 가보면 이장이나 아니면 부녀회장이나 또 뭐 노인회장님, 그런 분들이 오면 일어나가지고 차나 한 잔 대접하고 뭐하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오면 업무를 본다는 식으로 그냥 왔다 가는가 보다, 오려면 오고 일 났으면 가거라. 그런 실정이 많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은 대단한, 그런 여건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거든요. 작은 것들에 감동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여튼 너무 중요한 부분이

라 제가 한 번 더 묻고 가겠습니다. 베스트 스마일 공무원 선발 제도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8명이 선발되었네요, 8명이 선발되었다고 여기에 보고되었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민선…… `14, `15, `16년도까지 해서 8명이 아니고 상반기·하반기 매년 2명씩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년도에 걸쳐서 지금 14명 이렇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 14명이라고요? (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8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8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여기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지금 포상휴가라든가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요, 지금 파악을 해봤는데 근무성적평정 시에 가점 제도는…… 그것은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평 시에 인사가점을 또 부여하는,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절운동을 배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가점제를 꼭 실현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 일반인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어디다가 떨어뜨려봐도 그 공무원은 몸에 친절이 배어가지고 도저하……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친절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국장님. 제일 문제가 불친절, 친절, 친절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불친절한 공직자가 아니겠어요.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자료 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불친절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저도 그 시스템상 뭐 불친절공무원, 친절공무원…… 친절공무원은 시스템화를 시켜서 이렇게 선발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또 우대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불친절 공무원을 적발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계통을 통해서 민원을 야기 시켰거나 민원인에게 그런 오해를 살만한 일을 했다거나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지금 적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 그 본질의 때 설명한……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친절공무원 염서제도만 가졌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불친절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들이 된다면, 친절이나 불친절이나 모두 시스템화만 시키면 연중 파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원들은 공무원의 덕목인 친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이 아주 몸에 밸 수 있도록, 일을 하다보면 괴롭고 또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그런 환경에서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상습적인 어떤 민원인, 그런 고질적인 민원인이 발생했을 때 잠깐 흥분하고 또 오버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더 참고 민원인에게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더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응원해주시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본의원이 본안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불친절한 공직자가 앞으로 없길 바라니까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너무나 친절하게 주민들을 응대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가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표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에 대한 전문강사 교육도 필요하지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자료수집, 이들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시스템화…… 시스템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리고 제가 이것을 참고하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해보니, 친절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친절마인드를 정립하기 위하여 기존 친절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신규시책사업으로 1일 민원실장제 운영, 민원행정 및 서비스업체 벤치마킹, 민원공무원 CS평가회, 친절음악방송, 공무원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 스마일거울 제작, 공무원 친절도 평가강화, 종합성과평가 및 인사반영 등을 추진해 지역민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국장님,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친절이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어떤 부분이라도 친절한 우리 완도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 21쪽,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군 등록 외국인은 1,848명입니다. 그 중 외국인 근로자는 1,265명이며, 서남아시아 지역인 스리랑카와 네팔에서 693명, 동남아시아 지역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509명, 그 외 6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종사현황입니다. 축양장에 월급형 또는 일일고용 형태로 1,124명, 식당 및 모텔에 63명, 농공단지에 53명, 기타 25명으로 대부분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수산업…… 수산업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현황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야간에 집단으로 돌아다니는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 군민 일부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찰과 방범대 합동 야간순찰 강화는 물론이고 외국인 고충상담소 운영 등 9팀 9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우리나라에 편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길거리에 흔히…… 우리 완도는 외국인들이 보이죠? (예)

낮이고 밤이고 보면 몰려있는 그런 그룹을 많이 보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많이 봅니다.

□ 최정욱 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끼리 어떤 의사소통을 할 그럴 장소가 주로 낮 시간대가 아닌 밤 시간대로써, 특히 와이파이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리지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현재 지금 외국인 등록……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사람만 지금 1,848명이잖아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 외에 아마 불법체류까지 하면 한 8,000명으로 본다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 시즌 때, 뭐 다시마철이라든가 이런 시즌 때는 훨씬 더 많이 온다고 보지 않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계절근로자……

□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런 때는 금일만 해도 뭐 인구보다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이제 그런 숫자가 이렇게 완도에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외국…… 도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를 보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조직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조직화가 뭐냐면 범죄조직화도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취업문제, 이런 것도 잘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관리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경찰서와 방범대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치안을 강화하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완도가 외국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3D업종이다 보니까 외국인 아니면 제조업이나 자영업, 모든 업에 많이 이런 경제적인……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완도에 외국인이 도움을 많이 준다고 봐야죠,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우리 완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아까 말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쪽에 문화공간을 갖고 그쪽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그런 와이파이존을 지금 확대 설치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9개 팀이 9개 과제를 발굴해서 다각적인 그런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축구 또는 테니스,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개방하고 취미활동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것하고, 또한 주말에는 축구 보조구장을 개방해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완도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도 막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 완도가 쓰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아마 외국인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완도의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외국인들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외국인들도 완도가 좋아야 오겠죠. 자기들끼리는 아주 정보교환이 잘됩니다. 그래야 완도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쉬워야 우리 경제에 영향도 주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을 보며)

저는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수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남의 인력이 부족한 지역 여건상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현장에서 1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자료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 박인철 의원

저 이후, 내년도 3월 30일 이후면 불법체류자들을 법무부에서 집중단속을 할 것인데, 이 이후에 과장님, 뭐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 대체인력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해양수산정책과장을 할 때 베트남 쪽하고 계절근로자들을 데려오는 방안을 협의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정부 승인을 받는 데 한 1년 정도 걸려가지고 지난 8월 달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쪽들과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충분히 데려올,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 해양정책과장님이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 2,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박현식 부군수님하고 권혁 팀장님이 베트남에 가서 MOA를…… 계절근로로 해가지고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

로 아직 진행상황은 없다, 이제 효과가 온다, 이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법무부에서 승인한 계절근로자는 최장 3개월이고, 고용노동부, 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는 최장 4년 8개월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3월 30일…… 겨울철이 되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최고로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그 인력보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흔한 예로 금일이나 생일이나 금당, 뭐 톳을 할 때 보면 거의 외국인 노동자가 1위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괴산군, 홍성군, 춘천시 등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부족한 인력을 관리하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 시기가 되면 맞아들어 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가 지금 법무부에서 자진출국일을 내년 3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피부로 느끼고 듣기로도 여기 법무부 쪽에서 안 나왔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기습적으로 많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있거든요, 나와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해양수산정책과에서 했던 이것을 좀 잘 발전시켜가지고 꼭 우리 농어업인들, 아니면 공공…… 참, 남의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경제산업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김영식

예, 경제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 박인철 의원

교통과장 어디 갔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영식

예, 변환소 때문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간담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 경제, 우리가 이 문제가…… 농공단지에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을 안 지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영식

그게 외국인 전용이 아니고 거기는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요.

□ 경제정책과장 김영식

그래서 전체 24실이 있는데 현재 입주자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애당초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근로자라고

했는데, 우리의 애당초 취지는 외국인근로자로 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7대 의회에서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그랬지만, 저도 경험상, 저도 젊은 시기에 외국생활을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본의원이 강력하게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내가 봐보면 거기가 다 입주됐다고 하는데, 일반 그 회사명의만 빌려가지고 입주해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한번 확인해봤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영식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당초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가고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 박인철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공유재산 현황 및 확보계획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와 건물, 그리고 선박, 공작물 등의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3만 5,957건을 보유 중이며 면적은 2,227만 6,000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재산가액으로 보면 4,70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완도군 군유재산 대부계약 현황을 용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대부계약현황은 330건에 면적은 18만 8,878제곱미터이며, 용도별로는 경작용 138건, 주거용은 74건, 건조장 용도로는 23건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창고용, 사무실용, 야적장 등의 용도로 대부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토지 17건과 건물 2건을 합하여 총 19건을 매각처리를 하였고, 매각금액은 2억 8,777만 2,000원입니다. 매각 사유별로는 주거용이 7건으로 면적은 830제곱미터에 매각금액은 1억 6,534만 2,000원입니다. 이외에 경작용, 양어장, 마을 공동시설 이용 등의 사유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현황입니다. 올해 군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현황은 완도군 보훈회관 건립 외 10개 사업으로써 토지 취득 67필지, 토지처분 1필지, 건물취득 3동이 반영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0제곱미터 이상 지목별 토지현황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는 총 1,087필지이며 면적은 1,578만 3,93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전이 69건, 답이 252건이며 면적은 각각 24만 3,827제곱미터와 179만 1,515제곱미터입니다. 이외에 임야 324필지, 잡종지 33필지, 수도용지

50필지 등이 있으며, 임야와 도로, 전, 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확보 계획입니다. 군 청사 앞 주차장 내 공유지 매입 등 3개 사업으로 토지 7필지 취득을 계획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에 관리계획 반영 대상 사업은 의회의 승인 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활용시설물에 대한 조치계획 및 활용방안입니다. 우리 군 공공시설물은 군 청사, 읍면청사, 관사 등을 포함하여 493동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활용시설물 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관의 (구)문화원, (구)청해정, (구)청해어린이집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교육지원청 소관 재산인 군외초등학교 불목분교, 그다음에 보길동초등학교 예작분교, 소안고등학교 3개소를 포함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활용 시설물 활용방안으로 (구)문화원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재산으로써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슬로시티 명품화사업단의 사무실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서,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 등에 대한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구)문화원 건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구)청해정 건물 또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건물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지 소유권 정리 등의 검토를 통해서 철거나 매각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해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산악연맹 사무실로 일부 활용 중에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실을 기관단체 사무실로 임대하거나, 직원관사 부족 시에 리모델링 후에 관사로 사용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도교육지원청 재산인 폐교 및 폐교예정 재산의 활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교입니다. 불

목분교를 예를 들면 완도군 자연그대로 농업을 주제로 하여 농장 체험학교, 자연그대로의 농업전시관, 그리고 군외면 지역에서 나오는 방울토마토나 포도, 딸기, 개불, 낙지, 이런 것의 특산물 판매장 및 그 특산품들을 활용한 음식점 등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작분교는 2019년 3월에 폐교 예정입니다. 폐교 시에는 명품어촌마을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안고등학교는 가고 싶은 섬 소안 운영위원회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교 등의 공유재산의 매입을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목적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하신 완도군 공유재산 현황 및 이후 확보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완도군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1,286건에…… 주로 어떤 유형의 재산인지 좀 말할 수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공유재산은 용도별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공용재산이라든가 공공용 재산, 그리고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이렇게 나뉘지는데.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이 제한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매각, 또는 교환, 양여, 신탁을 할 수 없다고 원칙으로 정해져있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에, 방금 말씀드린 행정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써 대부분 매각, 교환 등 이런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그렇고, 어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들은 주로 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주로 공공용 청사라든가 도로, 하천, 둑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 답, 임야, 이런 것이 건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페이지, 완도군 공유재산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330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로 세외수입은 얼마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이 부분 세외수입이…… 잠깐만요.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집행부 좌석을 보며)

예, 말씀하세요.

(「4억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2쪽에 보면요, 11개 사업으로 1억 원 미만의 사업이 4개 되는데, 4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취득이 완료된 사업은 몇 가지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은 지금 담당…… 담당팀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하여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페이지를 보면요, 완도군 보훈회관 토지취득이 2필지고요, 취득이 1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아래가 신축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건물과 토지가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유족회, 이렇게 보훈단체 3개 단

체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취득을 하고, 한 후에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지난 몇 월인가요, 6월인가요, 7월인가요, 의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훈단체 간에 서로 어떤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장기보류 중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땅만 지금 이렇게 사유지 땅을…… 토지취득 2필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땅을 우선 확보해놓고, 이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비예산을 확보한 후에 장소문제가 결정이 되면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요, 완도군 어구생애관리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디에다가 어떻게 건립할 것입니까? 3페이지입니다, 3쪽.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어구생애관리센터 건립……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정책과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해양기획팀장 김일

해양기획팀장 김일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 미활용, 6쪽에요. 미활용 시설물 활용 방안 중에 청해정, 이게 C등급으로 나와 있죠? (예)

C등급이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구조안전 진단결과가 A, B, C, D등급 이렇게 4개로 나뉘지는데요. A가 제일 양호한 상태고 D가 제일 노후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D등급 정도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고요, 또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C등급 정

도면 리모델링 또는 보수 후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청해정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C등급이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한지 꽤…… 작년부터 제가 방법연합대를 하면서 사무실이 필요해가지고 좀 해보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까지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해정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거기를 보면 다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수리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리고 보면 행정사무실…… 감사실의 지적을 봤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전의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계속 검토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국장님께서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6쪽에 보면요, 교육지원청에서요. 재산 3곳에 대해 우리 군이 앞으로 이 재산들을 매입해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하겠다고 하는데, 소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3년 3월에 이미 폐교가 되었고요. 매각 중에 2회나 유찰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되었습니까, 완도군에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우리 군에서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참가했던 모양인데 계속 유찰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유찰된 이

유가 굉장히 지가가 높은 모양입니다. 평당 한 40만 원 꼴을 이야기하는데…… 소안면에서 아무리 소재지지만 40만 원 땅은 너무 비싸다고 개인들도 엄두를 못 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부지가 넓기 때문에, 100평, 200평도 아니고…… 그래서 몇 십 억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선뜻 이렇게 매입을 하고 매각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소안면민들이 변영회를 비롯해서 그 소안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해 주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하고 하는 계획을 갖고 이렇게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소안진산초등학교라는 곳이 한 10년 전에 폐교가 됐는데 거기를 개인이 사가지고 전부 태양광 시설로 해버렸습니다. 그 동네 중간쯤 되는 부근인데,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고, 학교부지 자체도 뭐 학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버렸고, 주민들이 굉장히…… 하여튼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고, 면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용도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청과 폐교된 학교를 이렇게 협의해서 수익계약 형태로 해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저도 이제 알아본 바로는요, 소안고등학교가 폐교될 때 소안면민들이 군에다가 이렇게 매입할 수 있게끔 건의도 했고, 또 활용계획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관철되지 않게끔 우리 군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서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적절하게 우리가 보존하고 또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또 새로운 재산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게 운영하고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계획성 있게 공유재산관리

를 꼭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본안질문하고 다릅니다.

담당과장들 출장사유서를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완도군민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민과의…… 주민설명회 제주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경제교통과에 이 팀이 있는데 왜 경제교통과장이 안가고 세무회계과장이 간 것입니까? 지금 부군수가 없어서, 내가 부군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박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업무분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갈라졌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일을 추진해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에 대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로 사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이관이 됐으면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경제교통과에서 과장이 가든 팀장이 가든 가야되는데. 의회가 열려있는데 왜 이런 이유로 의회에 불참한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 박인철 의원

군청 앞 광장에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것, 이것 세무회계과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을 보며)

재산담당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차공간이 어떻습니까?

□ 재산관리팀장 황경우

지금 공영주차장이 10월 말쯤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 박인철 의원

그 면수로 민원인하고 직원들 주차공간으로 다 뵈니까,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 재산관리팀장 황경우

계속해서 군청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할 계획도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환경산림과장 정성조를 보며)

□ 박인철 의원

잠깐만요, 환경산림과장님.

도시공원화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했죠.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주차공간에다가 공원화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 내용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 박인철 의원

뭡니까, 이것 군청 안에서 나온 서류인데.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에다가 도시공원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디다가 부지 매입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안이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을 보며)

이것 담당관이 이야기해보세요, 한번.

추진절차를 보니까 `19년 1월 달에 공원 화사업 계획 수립, 3월까지 기본설계용역,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8월까지 착공 및 준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군청을 한 번 가려면 차를 뱅뱅 돌려가지고 주차공간을 찾고 있는데. 부족한 공간을 더 확보는 못할 망정 공간에다가 지금 소요예산 3억, 환경산림과에서 국비사업 신청완료해가지고 이렇게 국비 2억…… 뭐야, 2억은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말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환경산림과에서는 주차장이 완공되면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여기 서류에는 도시공원화사업으로 국비사업 신청완료로 해놨는데, 환경산림과에서.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러니까요. 완공이 되면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차장 공간에 국유지가 좀 있죠. 그것을 또 우리가 매입하고, 그 매입비는 `19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공영주차장은 금방 팀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주차 수요를 전부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향후 주차공간을 또 확보한다고 하고.

저기 지금 주차공간이 몇 면입니까. 199면입니까, 194면입니까?

□ 재산관리팀장 황경우

194면입니다.

□ 박인철 의원

저것도 부족하죠, 지금 해도. 그런데 세무회계과에서는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주차공간에다가 도시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이것 뭐야, 팀장님이 올린 것입니까, 과장님이

올린 것입니까?

□ 재산관리팀장 황경우

제가 올린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은 안 맞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산관리팀장 황경우

저희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관리계획에 승인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그때 다시 좀……

□ 박인철 의원

아니, 관리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기주차공간이 부족한 데에다가, 여기다가 없는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또 주차…… 거기 공원을 만들어 버리니까 또 다른 인근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또 예산이 투입되고, 이것 지금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완도 시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더구나 군청은 우리 군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 앞을 보면 항상 민원인들이 좀 늦은 시간에 오면 직원들이 주차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다가, 잘 사용하는 주차장에다가 도시공원화로 만든다고 하면 그게 이유가…… 말이 되는 말입니까?

□ 재산관리팀장 황경우

청사 앞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면……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청사 앞…… 알아요, 해남에 가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역여건상 맞는 것이고. 우리 여건에 안 맞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세요.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공원화 시켜버린다고 하면 그것 말이 됩니까. 그렇게 공원화시킬 데가 없습니까, 완도에?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도시공원화사업으로 어디로 장소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우리가 계획을 잡기로는 완도군청에 주차장이라고 하면 전체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군청 앞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획재정부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300만 원 이상의 대부료를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그래서 저것을 언젠가는 주차장으로 하든, 군청 앞 광장을 조성하든 간에 기재부로부터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일단 토지매입……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매입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질문·답변 때도 매번 나왔었어요. 누누이 7대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박성규 의원님이 “왜 매입을 안 하나?” 라고 해서 우선 부지매입…… 1년 사용료만 주면 되니까, 기재부 땅이니까 그렇게 쓰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래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뭐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도시공원화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시·군청이나 청사 앞에 가면 이렇게 바로 앞에다가 주차를 무질서…… 무질서는 아닙니다. 마는 주차공간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외지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뭉니까, 청사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환하게 트인 느낌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군청도 주차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저기를 소공원식으로, 아니면 광장 형태로 조성을 해서 기재부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공원조성을…… 소공원식으로 조성해 주면 더 분위기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좋아요, 민원동을 제외한 군청 앞에 490평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공원화 좋습니다. 환경개선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차 면을 확보하고 나서 나와야 계획안이 아닙니까, 이 계획안이. 뻔히 불을 보듯 뻔한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저것을 도시공원화를 하면 또 다른 주차 전쟁을 치를 것인데 일은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은. 그래서 먼저 충분한 주차 공간…… 충분한 주차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도 490평을…… 거기에 버금가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이런 사업이 계획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별써 내년도 뭐 국비 1억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린다고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좀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저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질문을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중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산 화가리에 약 2만평 정도 균유재산이 있습니다.

영상실, 사진 한 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부지가 약 2만평 정도 됩니다. 약산 화가리에 있는 것이. 저것이 민선 1, 2기 때 육상 양식조성사업을 하려고 부지매입하고 도로개설하고 이렇게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저렇게 잘해 놓은 것을 이번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전부 다…… 개설하고 포장해놓고, 이런 군유재산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군 재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저것이 저 상태로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더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좀 잘 파악해주시고요.

본의원 생각은 저런 방치된 군유지를 좀 군에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필요가 없으면 매각해버리든지, 또 아니면 좋은 임대자가 나타나면 임대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 소유 부지를 우리들이 매각한다든가 하면…… 우리 군 재정도 안 좋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땅 같으면 매각을 해가지고 군 재원이라도 쓰게끔 잘 활용하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행사에 참석한 관제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해양사업단장님 나오셔서 해양정책과 소관부터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

- 해양정책과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은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사업단장으로서 우리 군의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해양사업단 소관 2018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효율적인 어촌계 운영 및 관리방안 등 5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어촌계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87개 어촌계에 8,242명의 어촌계원이 있습니다. 읍면별 어촌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촌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각 어촌계 정관에서 정하는 어촌계원 자격에 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쪽입니다. 어촌계 운영 실태를 보면 수협 조합원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어촌계에서는 각 어촌계의 내부 자치 규약에 의하여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 시 지선민으로 제한하고, 귀어자에 대해서는 행사 계약 체결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어자와 어촌계 간의 잦은 마찰이 생기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다한 행사료 등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제약사항을 완화토록 지도하고 어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귀어, 귀촌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어촌계의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어업인들의 최고 하위집단이 우리 어촌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촌계 구조나 운영 등에 관하여 파악도 해보셨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파악을 해봤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어촌계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산업의 군이고 해서.

어촌계들이 반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쇄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 단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어촌계의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은 수산업협동조합 시행령에 의해서 관할 수협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까 “실질적으로 지도와 감독이 잘 안 된다.” 라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개선방안으로는 지도와 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러면 우리 어촌계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세 가지 정도로 한 번 답변을……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일단은 수협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요. 또 어촌계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어떤 자격조건을 갖춰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그것이 맞습니다. 수협 조합원이 꼭 되어야 되고 마을에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총회에서 마을에서 인증을 해줘야 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맞추고 그래야 합법적으로 어촌계라고 할 수 있는데, 완도군 수협 구조조정 이후에 어촌계 자격이나 운영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적다툼도 좀 하고 민원 발생이 되면 우리가 항상 기준에 하고 있는 어업인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어촌계의 조직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재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전제조건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보면 “반드시 수협 조합원이어야 된다.” 라는 이런 전제조건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완화시켜서 일정 뭐 60일 이상 이렇게 어업에 거주…… 어업에 종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증원될 수 있는 문호를 많이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왜 이런 생각을 하나면 현재 어촌계의 자격 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수협 조합원에 꼭 가입을 해야 되고 어촌계 자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요건을 없애고 1년에 한 60일 이상 어업을 하는 자는 어촌계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 그런 것을 건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의원님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쪽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상 양식장, 이렇게 인 수라인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수라인을 설치하다보면 허가를 연장해야 되고 어촌계의 업체들한테 많은 돈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그것 좀 알고 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여론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이게 좀 심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가……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양식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 하고 있고요. 당연히 또 양식하는 사람들은 양식수가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꼭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또 있는지 아시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거기 출자를 내야 되고……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권을 갖기 위해서는 집에서…… 꼭 마을에 거주해야 되고, 아까 침에 이야기했듯이 어촌계에 가입비가…… 자치법 인데요, 이것은. 가입비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단장님께서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어촌계에 수수료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여기에……

여기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요. 관행에 의해 지속되는 불합리적인 제도는 지속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촌계의 구성 및 운영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완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촌계의 구성, 또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꼭 그 제도를 개선하고, 또 어촌계가 시대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끔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3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등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완도읍 외 4개면 총 256km²로 육지부 37km², 해면부 219km²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주민불편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행위제한에 따른 허가를 득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선 6기부터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

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대규모 현안사업 및 계획에 의한 경우에만 변경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없어 사업계획에 의한 협의 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에 군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정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 등 재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수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수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또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용도구역 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주민과 또 어업인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인허가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다소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여러 분야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음식점하고, 뭐 이렇게 숙박업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한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제한되어 가지고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음식점이나 숙박, 이런 것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 전남도에서 해수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리 군은 2008년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했고, 또 구적 오차라든지, 그런 것을 정정했기 때문에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자연환경보호 지역으로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건폐율이 40%에서 60%로 많이 축소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이용하기에 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다가 주 생활터전인 우리 군은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를 통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없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 군 및…… 의회가 담당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복잡한 제도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개선이 필히 꼭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8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강진만 사내호, 만덕호 담수방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 사내호는 전남 강진군 신전면과 해남군 북일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수호 면적은 310헥타르, 유효저수량은 390만 톤입니다. 그리고 만덕호의 위치는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와 학장리 일원으로 담수호 면적은 59헥타르, 유효저수량은 140만 톤입니다. 방류실태는 사내호는 배수갑문을 6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9월말 현재 48회 운영하였습니다. 만덕호는 2개의 배수갑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9월말 현재 28회 운영하였습니다. 주로 우기를 감안하여 사전 방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해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저염분과 영양염류에 의한 적조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리청인 강진군과 강진 농어촌공사를 방문, 담수의 양을 연중 적절하게 조절하고 집중호우 시에 다량의 담수를 방류하지 않게 배수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수갑문 개방 시 어업인들에게 문자 알리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 시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강진군, 해남군 3개 시군 강진만 사내 만덕호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개선 및 담수 방류량, 방류시기 조정 등 적극 대처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만 사내호, 만덕호 담수방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

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사내호와 만덕호에 방류하고 있는 군외, 고금, 약산 해역이 생태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써, 거의 아마 어패를 서식하고 산란기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패류, 그 산란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가 참 좋은 바닷가 해역입니다. 산란장으로써, 모든 고기들의 서식지가 저는 거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육상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이 갯벌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담수, 그 물을 품으로써 산란장이나 갯벌 오염이 엄청 심각한 상태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기본 해양…… 해양환경기본법에 의거해서 동해역이 무슨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거기가 아마 환경보전지역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해양환경기본법에 의거해서 무슨 해역으

로…… 동지역이 무슨 해역으로 지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거기가 아마 환경보전지역인가 그렇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전지역인데, 이렇게 담수가 됐다는 것이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기본법…… 동해도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해역으로, 그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이 양호한 곳이어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을 환경보전해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해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류할 때 혹시 바닷물에 대해서 염도, 뭐 비중, DO,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혹시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죄송합니다.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여기에 엄청난 방류를 함으로써 민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민물뿐만이 아닙니다. 그 담수에 있던 쓰레기, 그 쓰레기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청산까지 들어갑니다. 청산. 그리고 완도 해역 전체를 다 덮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민물들이, 지금까지 DO나 비중 염도, 한 번도 모니터링을 안 하고……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한번 하고 지금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민들을 생각하고 바다를 청정바다수도라고 생각했으면 한 번쯤은 해봤으면…… 모니터링을 해보고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담수가 나오는 곳이 꼭 완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간척지에 담수를 막은 데는 다 마찬가지입니

다. 약간, 고금, 이쪽 완도 정도리 쪽, 그 담수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 약산, 뭐 고금, 완도 이쪽도…… 정도리 쪽도 여기에 비가 좀 많이 온다든가 담수가 쌓여서 방류를 할 때 그 앞이 전부 다 해양자원들인데, 매생이부터, 굴 양식부터, 가두리부터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니터링이 한 번도 안 됐더라고요, 그랬죠? (예)

다음에는 꼭 그쪽에 담수 DO나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내호와 만덕호 방류 시에 어민들한테 어떤 민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거기 방류 후에 자원이 고갈되고, 어족이 고갈되고 낚시도 안 되고 그런다고 양식장에서 피해를 입고 그런다고 합니다.

□ 김양훈 의원

보면, 그 완도지역 어민들이 참 배려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내서 그런지 어쩐지 크게 뭐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자료실, 사진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아닌데, 그 담수자료가 없습니까? 아침까지 확인을 했는데……

안됐으면 놔두십시오.

(자료를 들며)

제가 이것으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저희들이 방수를 했던 것은…… 지금 흑백이라 자세히 잘 안 나올 것입니다. 제가 드론을 띄워서 방류할 때 한번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군정 질의하기 전에는 방수를 잘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방류 쪽인데, 어마어마한 검정 물, 빨 물…… 그러니까 오염된 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서 이 물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아까 침에 말씀드렸다고 완도항, 하다못해 청산. 그 때 왜 청산까지 이 물이 갔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민들이 모니터링을 한번 했습니다.

물병, 빈병…… 이런 빈병을 가지고 표시를 해서 놔뒀더니 청산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큰 오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방류할 때 모니터링 정도, 우리 군에서 무조건…… 아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시행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대책, 수질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보고서…… 답변서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강진, 해남군하고 우리 군하고 포함해서 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유입된 오폐수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게만 하면 수질개선이 되겠습니까. 수질개선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내호는 배수관문 저수지 구조 자체가 수질……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대책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또 완도, 강진, 해남 3개의 시군과 농어촌공사 이렇게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방안을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저 또한 전라남도 신의준 의원님과, 도 의원님과도 미팅을 하고, 또 이렇게 농어촌공사까지 갑시다, 한번 찾아가서…… 방치해놓을 사안이 아니다보니까. 추관호 전문의원님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셔서 미팅 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또 농어촌공사까지 가서 항의하고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단장님도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군외, 고금, 약산 해역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해역입니다. 사내호의 오염담수를 우리 군 해역에 방류하여 생태기능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사항을 볼 때 마음이 매우 비통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방류 시 즉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3개 시군 및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후, 본의원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미래해양사업단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9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선포 후속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정바다 보전·관리를 위하여 육상 오염원 관리는 환경산림과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상 오염원 관리는 해양정책과와 수산경영과에서 관리하는 등 각 부서별로 청정바다 보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선포 이후 시책 및 성과로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주민의식개혁 및 3C운동 등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상징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깨끗하고 안전함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바다지킴이 365기동대와 대한민국 청정바다 완도지킴이 운영을 통해 민간주도로 해양쓰레기 1만 2,000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보전·관리 종합계획이 완료되어, 수립 완료된 58개 세부과제 중, 실현가능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10개 과제에 대해 2020년 국비 신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내년에는 해양환경관리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요원 6명을 채용하여 시범운영 중인 탐재형 이동식 페스티로폼 감용기 2대와 함께, 해안가에 산재된 해양쓰레기와 페스티로폼을 수거·처리하여 청정바다수도 완도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선포 후속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식은 2015년 5월 1일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시간에도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환경미화원이나 방금 말씀하신 365기동대나 여러 가지로 투입을 해가지고 바다쓰레기 수거랄까, 여러 가지에 참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들이 태풍이 한번 왔다간다고든가, 또 온통 쓰레기로 그냥…… 요즘 섬들에 가면 다 둘러 쌓여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선포 이후에 후속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에 해양환경관리단 공무원으로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또 8명을 저희들이 추가 채용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도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지킴이 365기동대도 추진할 것이고요.

아무튼 의원님께서 이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에 만전을

을 기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일단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예산부족 관계로 그러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읍면 순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후속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앞으로 잘 보완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단장님, 청정바다를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유입…… 방금 우리 김양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내호랄까, 만덕호의 그런 부분들. 그런 오염은, 육상에 주 오염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염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생활쓰레기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수, 그다음에 또 분뇨, 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 이범성 의원

그중에 가장 심각한 오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바다환경으로 생각했을 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생활하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생활하수 분뇨로 생각을 하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로 봤을 때는 통영시의 경우는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는 9개의 어촌계가 전부 다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이런 오염원들

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한테 오페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봤더니 우리 군에서는 42개소가 되어 있고요. 거기가 예산관계 때문에 1년에 하나씩밖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상당히 시설이 미약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우리 군에서는 각 섬…… 읍면들이 많다 보니깐. 그런 부분들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단장님 말씀대로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이랄까, 그런 부분. 또 실태조사랄까,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를 선포한 완도군이 이러한 계획이 없는 것은 내심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예산이 소요가 좀 되더라도 어장 형성 해역부터 장기적인 오페수처리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그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 중에…… 또 가장 심각한 것들이 저도 많다고 그러거든요, 육상에서 발생한…… 유입된 것 말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오염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요즘 대두되고 있는 미세 스티로폼이랄지, 또는 페어구, 어막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 이범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통발이랄까…… 요즘에 스티로폼, 아니면 페트병이랄까. 그

래가지고 물고기에서도 미세 스티로폼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근해에서부터 전해역에 폐통발이 지금 산재해 있고, 또 폐통발에 들어가 가지고 어류들은 뭐 죽으면 또 썩고, 그런 것들이 오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정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거한다든가 정화를 일부 몇 번하고, 말고 그런 부분…… 이런 대책을 앞으로 좀 연근해라도, 뭐 외부는…… 관계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쪽에 그런 대책을 좀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래서 거기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금일 수협에다가 위탁해서 조업 중인 어장쓰레기 수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그런 것들도 아마 실용성이 있고 청정바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잠시 영상 좀 한번 틀어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영상이 뭔지 아시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폐각을 버려놓은 것 같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자체적으로 전복양식 어업인들이 바다에 가면……

조금 더 볼게요.

(영상자료 시청)

자세히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찍은 것입니다, 저것은…… 우리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찍어온 것입니다.

배하고 가두리 사이에다가 살짝 넣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북양식어민들이, 참 실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로 지금 저희들이 가서 보면 저것을 육상으로 가지고 오면 처리도 불가능 할뿐더러…… 아까 그렇게 쌓아진 것, 일부 양심 있는 어가들은 다 가지고 와서 쌓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주 청정바다수도의 위상을 참 저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해야 청정해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방금 보셨듯이 단장님, 저것을 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가 끝나면 단장님을 모시고, 하여튼 가서 하는 데에…… 우리가 가면 아마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보이지 않게끔, 그냥 순식간에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 대책, 홍보랄까. 그런 부분들을 각 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해양사업단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지금 구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청정바다는 살리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육상오염원이나 아니면 일반폐기물이나 여러 가지를 보이지 않게끔 바다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뭐 갖다가 막 퍼버리고, 그런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의 수혜자인 어업인들이 청정바다수도 선포를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희들이 선포 이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많이 홍보를 했고 또 우리 군 슬로건이 지금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홍보는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대대적으로 교육과 홍보는 하시고 있는데.

어업인들의 참여, “아, 내가 주인이다. 내가 바다를 지킴으로써 앞으로 내가 먹고 살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의 인식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이 남이 안보면 살짝 삼으로 떠서 그냥 바다로 갖다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실은 가두리든 모든 것을 접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졌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어촌계의 회의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실과에서 나가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요. 앞으로 좀 많은 홍보, 많은 대화, 또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미래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여 누가 보더라도 역시 완도군은 청정바다수도라는 말에 동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런 막중한 업무는 과 서무계에서 총괄하고 세부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예,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2018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완도군 어구생애관리센터라고 해가지고 양식 폐기물 관리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며, 이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내용과약은 아마 팀장님이 한 것 같은데,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 해양보전팀장 문제술

어구생애 지원사업은 도비…… 아니, 국비 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환경부의 권한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못하는 것으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처음에 배정택…… 지금 완도읍장이 수산정책과장을 하고 계실 때 쓰레기소각장 처럼 해양쓰레기소각장을 한다고 500억이 올라왔는데, 그 건하고 이 건하고는 신안과 제주도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이고, 그 건은, 이것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거예요.

□ 해양보전팀장 문제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했다가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140억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신규 사업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환경부 관할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 박인철 의원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언제입니까?

□ 해양보전팀장 문제술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18년도에.

□ 박인철 의원

이것 `18년 얼마 되지 않아도…… 지금 정인호 과장님이 도서개발과인가 있을 때 이 군 관리계획을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산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 해양보전팀장 문제술

맞습니다. 지금 부지사업비 1억 2,000 정도 추경에 세웠거든요.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그때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폐기물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환경…… 약산면 쓰레기소각장 옆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 해양보전팀장 문제술

예, 맞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 해양보전팀장 문제술

지금 사업은 취소가 됐기 때문예요.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1억 2,000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군유지로 확보할 수 있으면 일단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사업이 다 될 것처럼 해가지고 그때 예산할 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라고 하니까 통과…… 좋은 일이라고 해서 통과시켜줬는데.

그러면 사업도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부지부터 했다는 이 말이죠, 잘못됐죠?

□ 해양보전팀장 문제술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청정바다수도

완도…… 구호는 어디다가 던져버릴 수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서울은 수도고, 세종시는 뭇니까, 무슨 수도라고 합니까, 세종시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행정수도.

□ 박인철 의원

행정수도라고 하죠, 좋죠.

어떻습니까. 여기 대한민국청정이라는 말에 맞게…… 해안가나 어떻습니까, 맞아갑니까? 조금 전에 이범성 의원님이 보였듯이, 화면에 띄웠듯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실적들을 보면 5월…… `15년 5월 1일에 선포식을 해가지고 우리 관문인 원동에다가 조형탑만 세워놓고, 또 바다지킴이 365기동순찰대는, 지금 뭇니까. 수산경영인들이 되는 것이죠, 주축이 되는 것이죠? (예)

이분들한테 1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통상적으로 마을 단위, 면 단위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돈을 다 입금시키죠. 그것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죠. 이것은 예산을 먹는 하마입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15년 5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18년이니까 한번 결과보고…… 용역도 했던데, 용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전관계 종합계획수립 용역도 했던데, `17년 1월 29일에 했구면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단장님. 이 문제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 박인철 의원

아니, 많이 부족하다니까요. 우리가 뭇냐, 저기 보면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 추진계획들도 보면 항상 업무보고 때 했던 그것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제가 질문·답변할 때도 제 경험을 이야기해서 하와이나 파푸아뉴기니나 피지나 타

이티 같은 곳에 가면 항내에…… 하여튼 바다에서 오는 쓰레기는 다 건져서 육지로 한다고 해서요. 우리 완도도 관광객들이 많이 접한 지역이라고 해서 항내에 쓰레기 수거선박을 하자고 군수님한테도 누차 이야기했고 담당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육지부만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김양훈 의원님이 사내호에서 말했듯이 중국에서 떠밀려오고, 어디서든 다 떠밀려 와요. 그러면 그것을 바다로 다시 조례에 의해서 떠밀리지 말고 육지부에서 건져서 소각처리 하자고 누누이 여기서 제안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항내에 청소선을 띄우자고 하니까 군수님은 서해…… 저 청소선을 이야기하던데. 우리가 그 남태평양에 가보면, 지금 뭇니까. 우리 전복이나 아니면 김 채취선 같은 그런 (청취불능) 빠로 해가지고 바다에 있는 부유물들은, 쓰레기를 다 건져 올리거든요, 육지부로. 그래서 소각처리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한번 시험적으로 우리 항내만큼이라도 해보자.” 라고 그랬는데 전혀 묵묵부답이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가 청정바다면 청정바다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민한테 부탁도 하고, 또 계몽도 하고, 또 운동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예)

이것 꼭 한번 저기…… 뭐 내년도 예산은 벌써 잡혀진 것 같으니까 1회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 15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나오셔서 계속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11쪽입니다. 이범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여름철 고수온 피해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피해현황을 연도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적조로 인한 피해입니다. 피해어가 161어가, 피해물량 전복, 어류 등 500만미, 피해금액은 45억 5,800만원입니다. 2016년 적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피해어가 424어가, 피해물량 4,370만미, 피해금액은 348억 8,700만 원입니다. 2018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피해어가 69어가, 피해물량 전복 등 131만미, 피해금액은 1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8년 고수온피해는 10월 12일 완도군 유관기관 심의회를 개최하여 복구계획서를 전라남도예 제출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유관기관 심의회 및 해양수산부 심의결과에 따라 신속한 복구지원을 하겠습니다. 피해예방 저감대책입니다. 전복 등 사육관리 매뉴얼에 의한 사육관리 지도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온기 먹이 절식 및 금식을 지도하고, 산란 이후 용존산소량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가두리 그물망 세척지도 및 전복 우량종자 보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복가두리 조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복 칸 줄이기를 추진하였으며 고수온기 직사광선에 의한 스트레스 저하와 먹이금식 효과를 볼 수 있는 차광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히트펌프, 인버터사업과 액화산소 공급사업 확대를 통해 고수온기 피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고수온 피해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해양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답변서에 의하면 2017년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는 자료에 누락되어 있네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 그 2017년도에는 전피해 어가가 보험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현황을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 그러면 그 여건들이 전부다…… 보험 가입 어가는 피해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죠, 이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4년 동안 그 피해가 발생된 심각한 우려 속에서 참 전복 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난감한 실정인데, 단장님께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고수온 피해가 발생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서는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되는 온

도가 몇 도에 발령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28℃를 기준으로 하는데 진입단계에는 고수온주의보…… 또 28℃가 3일 이상 이렇게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알고 있는 것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지구온난화현상으로 해가지고 온도상승폭을…… 온도가 상승해 가고 있는 그 부분들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잡아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수온 한계점은 28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27.5도 수온이 15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 전복이 절반 이상이 폐사한다는 문헌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전복양식 환경이나 종묘, 면연력 등을 감안했을 때 수온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을 때는 25도에도 폐사가 발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8도는 고수온 주의보 등 정보소…… 수온을 지금 28도에서 25도로 국립수산물과학원 등과 협의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양식품종에 따라서 고수온 한계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요.

이 규정에 대해서는 국립과학…… 국립수산물과학원, 거기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제가 정치적인 여건들까지, 국회의원들한테까지도 전복유통협회장을 하면서 제가 접근해본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만만치 않더

라고요. 그냥 말로만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이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에요. 수산물과학원도 찾아가야 되고 수산물과학원 원장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처리해줘야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피해액만 보더라도 한 500억,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쪽 지금 전복 피해로……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것들이, 엄청난 그런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피해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 과정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단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고수온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고수온 관련해서 주요시책으로 해서 네 가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름철을 지나지 않는 어떤 품종으로 음식을 전환시킨다든지, 두 번째는 이동군수실을 확대해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요. 셋째는 사육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음으로는 차광막을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네 가지 조건도 좋은 착안점이고, 또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 나름대로 보면 단장님의 얘기로는 근본 대책이 좀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 특별…… 우리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차광막을 덮고 하는데…… 아마 단장님은 그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모르시겠어요.

그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현장은 못 갔고요. 그 여론을 들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양식담당자 아니면 과장님 없습니까?

(해양보전팀장 문제술 손을 들)

지금 차광막이 지급되는 것이…… 우리가 엄청 지급을 했는데 그것 안 쓰고 있는 사람은 파악해봤어요?

□ 해양보전팀장 문제술

저도 이번에 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이번에 와서 못했지요. 저번에 있던 분은 계십니까?

□ 해양보전팀장 문제술

수산경영과가 지금 참석을 안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안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 필드를 뛰어보면 “쉬기가 힘들다.”, “떡이를 주려면 또 일일이 벗긴다.” 라고. 어민들이 너무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는 아직도 미비하고, 본의원으로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우리 그물망을 해서 조류소통을, 그물망 지원 여건이랄까 그런 부분들로 차광막을 돌린단든가. 차광막을 한번 주면 저 차광막이 1~2년 쓰면 햇빛에 노출되어 가지고 그냥 다 버려야 되고, 저게 쓰레기가 되는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 진짜 덮을 여건들도 조금…… 차광막이 아니라 수준 높은 여건으로, 뭐 차광막을 우리가 덮으려고 그러면 금방 가가지고, 어디 천막 사이에 가가지고 도르래에 갖다가 짝 펴버리면 끝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연구해서, 좀 연구를

하더라도 해가지고 덮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왕 지급되고, 또 특단의 대책이 없어서 저감대책을 필요로 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까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피해가 발생되고 어업인들의 손실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손실도 아주 큼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완도에서 1년이면 전복이 죽어가지고…… 어쩔 때는 현장에 제가 나갔을 때 유통차를 끌고 가서 전복을 실으러 갔는데, “오늘 1톤 700 작업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갔는데 200kg을 작업해가지고 올고 있는 사람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조류소통이랄까, 우리가 진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한 칸 줄이기 20년째,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근차근 아마 단장님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데, 솔직히 누구보고 칸 열칸만 줄이라고 그러면 줄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칸이라도 더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이니깐, 그런 부분들도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자, 올해 열 칸을 줄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랄까. 장기적인 특단의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4년 동안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문기관과 심도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전복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중간패를 입식한 후 다음 년도 고수온이 오기 전에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지역에서는 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주시기 바라고요.

셋째는 답변서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조류소통으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왕 시설축소, 또 입식량 조절, 가가지고 치패가 좋다고 해가지고 30만 넣어야 할 사람이 50만 갖다가 넣습니다, 50만을 넣으

면…… 그래서 칸수를 못 줄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흘러가고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행정에서도 확인을 해서 입식량도 좀 줄이고, 또 좀 몇 칸이라도 줄여가지고 조류소통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하여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업피해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얼마나 특단의 대책이 나왔는가, 제가 꼭 점검하겠으니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고 죽느냐고, 어민들 죽는다는 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복산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특단, 특단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고, 현실에 일치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만 논하지 말고 실질적인 여건들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가서 ‘아, 어떻게 되어가고 있구나.’, 죽은 껍데기가 올라와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도 보셔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예,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해양치유산업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다음으로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해조류의 효능 입증에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3건입니다.

먼저 1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조류 효능입증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조류 효능 입증에 위한 연구개발사업 진행상황입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개발사업은 10건입니다. 10건 중 국비사업 5건, 도비사업 4건, 군비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4,200만 원이고,

그 중 군비 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해조류의 기능성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는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기능성 평가를 위한 시험관 실험, 그리고 동물 실험까지 약 2년이 소요됩니다. 또한, 독성시험,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인증 받기까지 약 3년 정도가 걸려 총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금까지 기능성 효능입증은 완도산 해조류 16종에 대해 시험관 실험으로 기능성을 검증하였고, 그 중 9종에 대해서는 동물실험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검증된 해조류의 기능성은 김의 면역증진과 장 기능 개선, 청각과 뜻에는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생이는 간 건강, 다시마·모자반·참도박은 인지능력 개선, 쇠미역은 아토피 개선, 넙패는 간을 보호하는 기능성 물질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검증 결과에 따라 13건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최종 기능성 후보소재 중 인체적용시험은 2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중 모자반류에 대한 항치매 시험은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2018년 4월 실시 완료하였고, 김의 면역증진 추출물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기능성 소재를 활용하여 자체개발한 제품은 17종이며, 주요 상품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자반류 항치매 인지능력 개선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예방 및 치료용 식·의약 소재개발을 국가과제로 제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면역증진 추출물은 2019년에 인체적용시험이 완료되면 2020년에 식약처 개별인정형 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해조류를 이용한 기능성 연구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이 일 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조류 효능입증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조류기능성 소재 개발은 현재 해양바이오센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거기가 연구기관이라서 군에서 위탁해서……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일반대학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또 바이오센터는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우리 완도군이 해조류의 중심지가 아닙니까. 생산되는 해조류 중에 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개별인증을 그런…… 받은 것이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리 군은……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도는 없고요. 개발만, 연구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해조류를 보면 식품원료로 개발 인증가능 품목은 없고요. 제주도에 감태가 있습니다, 감태. 감태가 있고, 수면 유도되

는 원료로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제.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뭘니까, 고수온 건강기능식품으로 김과 다시마가 있습니다. 건강 고수온 개별 인증성과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양바이오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양해해주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품개발팀장 안병제

예,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상품개발팀을 맡고 있는 안병제라고 합니다.

국내건강식품원료는 고시용과 개별 인정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시용 원료는 오랜 기간 그 효능을…… 성분의 효능이 입증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식약청 고시에 의해 정해진 품목입니다. 일정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나 사용가능한 원료로, 현재 95종이 등록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인정형 원료는 특정기관에서 개별적인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시킨 원료로 영업자가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기준규격 등을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정받은 업체만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정조건이 되면 다시 고시용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조건은 인정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해야 되고, 품목제조신고가 50배 이상 진행을 해야 고시용으로 품목이 고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본의원이 왜 이런 내용을 물어보냐면요. 해조류에 대한 효능입증, 그리고 또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목표를 설정하고 또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

니까. 그래서 한번 여쭙봤고요.

완도의 미래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양 헬스케어사업이나 또 해조류산업의 부가가치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고 건강식품 개별 인증을 받아야 효능을 자신 있게 홍보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교수들의 논문은 제가 봐서는 활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적, 이렇게 해야지만 되고. 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김, 미역 증진으로 2020년까지 우리가 개별 인증을 추진하자고 하는데, 이 분야에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 여기에는 군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아, 그렇습니까.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기능식품 (청취불능) 동물실험도 해야 되고 임상실험도 해야 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요, 사업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시더라도, 꼭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리 해조류 (청취불능)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재선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해조류 효능 입증 위한 연구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양헬스케어와 해조류사업의 부가가치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인증까지 받아야 꼭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

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본의원한테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4쪽입니다.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람회 개최 필요성입니다. 우리 군은 해조류를 주제로 국제박람회를 두 번 개최하여 해조류에 대한 인식과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박람회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이 증대되는 등 해조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산업적 가치의 지속성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해조류 양식산업의 시험무대로써 완도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서 해조류를 치유자원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해조류산업의 국제적 동향은, 해조류 생산량은 중국이 우위에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해조류에 관심을 갖고 산업적 활용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해조류산업 관련 품질 표준이 유럽기준으로 확립되기 전에 오랜 기간 해조류양식의 경험과 기반이 탄탄한 대한민국, 즉, 완도군 기준의 국제화·표준화 구축방안이 절실합니다. 2021년 박람회를 계기로 완도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해조류산업 활성화로 어업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5쪽, 박람회 개최 개요입니다.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주제는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완도항 해변공원과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목표 관람객은 외국인 3만 2,000명을 포함, 64만 명을 설정하였으

며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시, 체험,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권역별 주민 공청회를 열어 박람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였고, 지난 3월부터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전라남도과 해양수산부에 박람회 개최 지원 협의 후, 국제행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해수부에 제출된 신청서가 금년 1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접수되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6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국제행사 승인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설비 최소화 대책 및 시설물 재활용 방안입니다. 차기 박람회는 저비용 고효율의 박람회가 되도록 건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및 이벤트성 행사비용을 조정하고 수익사업 비중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겠으며, 특히 지난 박람회에서 사용하였던 워터스크린, 영상콘텐츠 장비 등을 보강·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후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물은 인근 해양생태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 등에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국제행사 승인신청 지자체는 울산시 세계산악관광엑스포를 포함하여 2개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미승인 시 박람회 개최여부입니다. 국제행사 승인신청은 5개국 이상 참여하고, 행사비가 10억 원 이상 지원을 필요로 할 때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난 박람회는 대통령 탄핵, 사드 갈등, 메르스 사태 등 국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목표관람객을 유치하였고, 해조류에 대한 인식개선, 완도군 브랜드가치 향상 등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기 박람회는 해조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

고,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전남도와 해수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국제행사 승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국제행사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관련해서 단장님하고 탁 터놓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토의를 한번 하시고요, 이 자리에서 단장님하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해조류박물관의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사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2회에 걸쳐서 사후평가를 했고 2017년 박람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본 결과 만족도라든지…… 주민만족도, 또 차기박람회 개최에 대한 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자료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게 그……

□ 박인철 의원

(자료를 들며)

이것입니까. 2017년 박람회 성과 관람객 93만 명, 수출계약, 수출상담, 경제파급력. 전남개발연구원에서 했던 것, 이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전남 광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수출계약을 했고 수출상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1,421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내가 이것 광주전남개발연구원하고도 용역보고를 할 때 한번 논쟁을 벌였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했는가, 그 논쟁을 좀 벌였는데, 우리 단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018년 10월 19일 완도신문 특별기고로 해가지고 신우철 군수님이 해냈는데, 기고를 했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이 이야기했던 탄핵 사태, 메르스 그런 갈등 속에서도 96만 명을 유치해가지고 수출계약을 5,230만 불, 수출상담은 2,900만 불. 이것 계약만 하고 상담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출된 것이 있으십니까? 그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수출실적은 저희들이 모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 박인철 의원

아니, 여기는 수출실적이 아니고 해조류…… 2017년 해조류박람회라고 해가지고

박람회 기간 중에 수출계약을 5,200만 불하고 수출상담을 2,900만 불을 했다고 신문에 다 공포되고 광주전남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공고를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출현황을 좀 주라는 말이에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 박인철 의원

잠깐만요, 단장님.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수산경영과로 왔는데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경제산업과 투자유치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민선6기 들어…… 7기 들어서 해외수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10회 이상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잘 찾아도 100억이 안돼요, 100억이. 우리 수출상품이…… 우리 완도 해조류가 수출됐든 완도 것이 됐든, 어디 타 지역에서 완도로 와서 가공이 됐든 간에 다시 재가공이 되어서도 100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자료를 들며)

이것 공신력이 있는 신문에다가 우리 군수님이 기고한 것입니다, 이것. 계약하고 상담하고는…… 저도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해조류가 열리면서 어떠한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알려줘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수출계약을 했다, 수출상담을 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를 수출했다고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단장님. 그런 것은 뭐 광주전남개발연구원에서 안했습니까. 제가 그때 광주전남개발연구원 박사 분들 세 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용역이라고 해서 하는 말…… 이런 용역은 우리 군청 직원들이 해도 되고 2014년도 해조류박람회 용역을 그대로 베껴놨어요, 이 용역이.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청 상황실에서. 이런 용역

을 왜 하냐고.

뭐 그러면 좋습니다. 수출상당하고 계약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파급효과가 1,421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수치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다 공신력이 있는……

□ 박인철 의원

아니, 전남개발연구원에서 왔다니까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연구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의심하시면……

□ 박인철 의원

의심이 아니고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필요하시다면 여기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군수님이 그래냈구먼요. 완도군 해조류 수출실적은 `14년도 209억 원, `17년에는 276억 원 이렇게 해냈구먼요.

(「의원님……」 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내가 부를 때 나오세요.

고용창출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고용창출은 어떻습니까, 그 숫자는 맞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저희들이 이 숫자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제출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 고용창출……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이 이야기해보세요. 고용창출이 어디어디 됐습니까, 고용창출이? 그 당시 이십

여칠을 한 그 기간입니까, 그 고용창출이 지금까지 쪽 이어져옵니까? 아니면 단기간입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말한 6개월짜리 일자리입니까, 3개월짜리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쪽 이어온 일자리입니까? 고용창출 2,400얼마 되어 있던데……

(「고용창출관계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했고요. 수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기부금 초안을 잡으면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포관세청에 직접 통화를 해서 완도에서만 나간 수출물량 자료를 좀 부탁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209억 원어치가 이렇게 수출이 됐고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동안 경제산업과 유통 그 수출 거기에서는 틀리다, 이 말입니까. 거기 자료에 의하면 100억이 안 넘어간단니까요, 그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군수님이 태풍피해 때문에 솔리하고 콩레이 때문에 2번 출장을 못 갔는데 공교롭게도…… `14년도부터 지금까지 10회 이상 해외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나온 실적은 100억이 안 넘어가요. 계약은 엄청 많은데 체결만 하고 계약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기고문에 있는 수출물량은 저희들이 관세청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을……」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7년에는 276억 원이 맞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년은 어떻습니까?

(「`18년까지는…… 현재까지는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김종식 전임군수가 있을 때, 2014년도에 국제해조류박람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평가는 어떻습니까? `14년도에 이 기고문에는 209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5년도, `16년도 (청취불능) 관세청에 물어봤다고 하니까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14년, `15년, `16년은 별 차이 없이 이 금액 사이에서 있기 때문에 기고문에 있는 내용을 좀……」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해조류박람회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대로 쪽 간다면 의미가…… 해조류박람회를 거쳤으면 `14년도에 뭐 (청취불능) 됐다면 `17년에는 그동안의 노하우가 쌓여있으니까 `17년 해조류박람회가 끝나면 최소한 배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단장님, 국제해조류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완도 인지도는 상승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지역 경제에?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때 100만 명 이상……

□ 박인철 의원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에 얼마나 이 것이 됐냐는 말입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박람회 기간 동안에 우리 완도를 찾은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됐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도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100만 명이…… 정확한 데이터로 한다면 96만 명이 맞는데 100만 명으로 잡으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소비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까지도 대비를 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인근 강진이나 해남에서 재미를 봐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을 강진, 해남에서 다…… 진도, 여기도 더불어 재미를 봤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단장님.

그러면 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해조류산업에 대한 발전이나 도약이 있었습니까? 더불어 있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해조류박람회하고 지금 현상황과 연계시켜서 우리 완도의 산업구조를 말씀드리면 박

람회를 통해서 완도의 어떤 해조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 박인철 의원

단장님, 물론 가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2번에 걸쳐서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 이후, 해조류박람회 개최 이전과 이후, 또 2017년도 제2차 해조류박람회 이후 해조류산업의 발전을 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전, 해조류산업의 발전.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박람회 개최 이후로 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양헬스케어산업을 우리 군으로 이렇게 유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 박인철 의원

해양헬스케어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것 이야기하지 말고요. 박람회하고 해양헬스케어는 성격이 다르니까 대답하지 말고요.

어떻습니까, 2회에 걸쳐 박람회를…… 박람회로 인하여 해조류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는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보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래서 수출량도 많이 향상이 됐고요, 실적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해조류산업이 발전됐다고 봅니까, 우리 어민들이 고스란히 어민들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거기에 반문하겠습니다. 완도가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중학교에 다닐 때 저도 미역을 푸고…… 학교 끝나고 미역

을 푸고 그 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완도가 해조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 우리가 해조류박람회를 한 뒤로도 생산량 및 부가가치는 타 시군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미역 어떻습니까. 지금 미역의 주생산지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미역을 주생산지로 가공을 하는데…… 완도에 있는 해산물 업체들은 가공품을 다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고흥에서 가지고 옵니다. 김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복산업이 고수온, 적조, 태풍피해로 꺾히다보니까 김도 해남과 진도에서 다 뺏어갔습니다. 톳은 어떻습니까. 톳 생산자들 톳이 안 팔려서 난리가 났죠. 톳은 진도로 갔습니다. 완도군에 점유율이 높다는 다시마는 어떻습니까. 경남 부산 기장에 다 뺏기고 있어요. 매생이는요, 작년에 매생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올 초에도. 매생이는 장흥에 뺏기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선점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해조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단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완도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해조류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딱 우리 것이다, 우리가 옛날 같이 김이라고 하면 점유율이 70%, 전국 70%, 60%. 지금 전복 점유율이 완도군이 많듯이 해조류가 아니라 점유율이 많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품종이 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해조류에 대한 점유율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해조류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식용분야에서는 충분히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지금 다른…… 추진하고자 하는 박람회는 비식용분야, 그러니까……

□ 박인철 의원

그것은 알았고요.

자, 봐보십시오. 박람회도 좋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박람회를 했으면 그런 실질적인 이익을 우리 어민들이 봐

야죠. 올해 어떻습니까, 매생이 값이 톳값이죠. 미역 값이 톳값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수협에다가 1역을 쥐가지고 미역을 수매했죠. 그리고 그것 수매도 못한 어민들은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해양정책과할 때 뭐야, 청정바다수도 완도라고 했는데. 그런 해조류들이 다 바다에 퇴적물이 되어 가지고 썩어나간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실정이 이래요.

단장님, 우리 완도군 해조류 가공시설은 어떻습니까, 해조류 가공시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보기에 타 시군보다 매우 열악합니다.

수출바이어들이 오면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는 미역가공공장 완도에 있습니까. 이것도 가까운 강진이나 고흥에 다 뺏겼죠. 완도 분들이 거기에 가서 공장들을 하죠.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딱 내놓고…… 없어요.

아니, 지금 단장님이 경제산업과장이었습니다마는 저도 농공단지 향아식품에서 수출한다고…… 뭐야, LA에 수출한다고 해서 컨테이너할 때 같이 갔어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해조류산업이 생산, 가공, 유통, 원물까지 어울려서 가야 되는데.

우리 완도는 원물은 그런 대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 유통…… 이 많은 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십시오. 이런 것을 연구해야 돼요, 해조류박람회보다는.

그러면 단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해조류박람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2021년도 해조류박람회를 꼭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 제가 그동안 완도군의 해조류산업이 이렇게 퇴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2021년도에 해야 되는 이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해조류박람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박람회는 관람객 유치라든가 또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해조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또 정성적인 이런 성과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조류박람회를 통해서 국내 해조류산업에 전략적 육성을 하고, 또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박람회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국가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지역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국가의 지위를 선도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요, 또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박람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했어요. 박람회의 정성적 성과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100번, 1,000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량적 성과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일부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도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 박인철 의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단장님, 만약 제가 기재부의 실무예산담당

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완도에서 왜 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재부 주무관이라고 생각하고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리 완도는 전국에서 해조류의 주생산지이고 해조류 메카라고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에서 해조류를 주제로 해서 당연히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이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그 논리로 안 되고요. 논리개발 좀 더 하고요.

좋습니다, 해조류박람회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하고 가공하고 거기에 둔 기반입니다. 이것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2번할 때 우리 군비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해조류박람회 2014년, 2017년도를 하면서…… 우리 순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대략한 300억 이상 들어갔죠, 순군비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300억까지는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100억 이니까……

□ 박인철 의원

아니, 단장님. 본예산에 할 때는 국비 30억하고 뭐 군비 얼마 했는데, 각 실과부서에 해조류박람회라고 제가 2017년도에 할 때도 예산…… 본예산할 때도 80억 정도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성립 전으로 써버린 예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해조류박람회를 한다고. 그렇게 성립 전 예산을 쓰지 말라고 했어도……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300억…… 최소한 200억 이상은, 250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런 비용들을 실질적으로 이 기반시설에 투자했다면 지금 완도 경제가 어떻게 변했을

까 생각해 봤습니까, 단장님. 기반시설이요. 지금 농공단지 해양생물단지도 지금 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데에다가 더 빠르게, 더 알차게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랬으면 인구 늘리기 정책이나, 우리가 완도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좀 대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런 기반시설로 해가지고 했으면 이 효과…… 여기에 뭐 경제적 파급효과가 1,421억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몇 배를 더 안했을 것 같습니까.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반시설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해조류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준다는 그런 분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저는 하여튼 해조류박람회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는 우리 완도군에 좋은 기업들이, 우수기업들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투자여건 개선이 우선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습니까, 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승인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하고 같이 2개가 병행됐죠, 나주에서 하는 농업박람회하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돼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마 농업박람회는 아마 국제행사 승인대상인 것 같습니다. 4년 연속……

□ 박인철 의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국제농업박람회라고 안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 보고서에 빠져……

□ 박인철 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예, 이야기하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농업박람회는 2년마다 개최하기 때문이에요. 올해 지금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확보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확보했다면 됐고요.

2017년도에도 국비 30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중앙부처를…… 해수부, 기재부, 또 국회 이렇게 다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는,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들 국제행사 승인을 못 맡는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를 좀……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 해조류산업은 완도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번의 박람회를 통해서, 하여튼 식용분야는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비식용분야, 뭐 뷰티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에너지 개발, 이런 분야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그게 정답이에요.

(자료를 들며)

단장님, 군수님의 특별기고문 한번 읽어봤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읽어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타이틀이. 박람회는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한다고 했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잘 써놨더구

면요. 이 기고문을 읽어 보고 느낌을 한번 단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도 완도군에서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국제 행사로 해서 중앙정부가 하고, 장소만 우리 완도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접근을 안 해봤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물론 그 부분도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가 국제행사…… 나도 2014년도에 처음 의원이 되어 가지고 국제행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다 대주는 줄 알았는데 기껏해야 30억이죠. 이번에 이렇게 계획서를 보니까 많은 돈입니다마는 20억이네요. 더 낮은 이유는 뭡니까, 앞전 `17년보다 10억을 더 낮춰서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우리 군비, 순군비가 덜 투자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30억 원의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0억으로 이렇게 뭐 한다고 해놨네요, 사업계획서에는.

단장님, 특별한 뭐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이유……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 이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기가 힘들어서 액수를 다운시킨 것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최기간이 2017년도하고 이번 2021년도 그 박람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 박인철 의원

차이도 없구면요. 앞전에도 `17년 박람회 때도 한 달을 못했는데, 여기도 24일이여가지고 기간은 뭐…… 대동소이한 것 같구면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지금 2017년도……

□ 박인철 의원

`14년도에만 우리가 박람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당초에 2017년도에도 20억입니다, 20억.

□ 박인철 의원

20억입니다.

그러면 해수부나 기재부에 더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 박인철 의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우선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20억을 우선 요구합니다마는, 건의합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면 해수부를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도비 20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는 뭐 걱정 안 합니까, 국비만 따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닙니다. 도에서도 지금 공동개최를…… 도지사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승인 수락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 박인철 의원

기하는데 우리가 우리 군비, 또 수익사업 40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군비 20억이면…… 단장님,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해보면 거의 100억 들어갑니

다. `17년에도 거의 우리 각 실과에다가 80억 이상을 숨겼어요.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봤어요. 박람회 예산이 어떤 것인가. 막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6.4%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1년 예산 순군비가 얼마입니까, 순군비요. 400 얼마 정도, 420억 정도밖에 안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을 보며)

예산…… 없죠, 아무도.

예산담당관님, 우리 1년 순군비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가지고 와서 확인을……

□ 박인철 의원

어제 보고한 것을 보니까 400…… 440억인가 420억 정도밖에 안 되던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정도……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 1년에…… 그래서 전부 주민들이 아우성이예요, 해조류만 하고 나면, 해조류 때문에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SOC사업이나 주민, 문화, 이런 모든 것이 다 거기로 쏠려버리니까.

그래서 기하려고 하면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해수부가 나서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부산 기장 같은 데는 보니까 기장군은 해수부에서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해나가더구먼요. 여기까지 하고요.

해조류박람회 운영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완도항과 해변공원, 신지면 명사십리에서 분산 개최한다고 했는데, 완도항 일원은 기존방식으로 추진할 것

이고, 그러면 신지면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기해조류박람회를 국제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재부 예산까지 받아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도하고 신지 명사십리 해변 일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신지에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 박인철 의원

예.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2021 박람회는 그동안 저희가 2번의 박람회를 겪으면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농공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향후에는 그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명사십리에 앞으로 우리가 해양치유산업을 거점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콘텐츠를 그쪽에다가 마련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분산시키면서, 앞으로 유람선이라든가, 뱃 육지에서는 셔틀버스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동부권에서 오는 관람객들은 우선 명사십리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완도항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분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신지 명사십리라고 하면 해양치유센터하고 더불어 같이 간다, 이 말이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치유센터가 지어진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 마는 치유센터가 많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양치유산업관을 거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산업관은 텐트식입니까, 아니면 연

구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현재 저희들 연구보고서에는, 연구시설은 해양치유센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텐트로 하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해양치유산업 육성 보고서에 보면 해수부에는 2020년도에 설계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전혀 가능하지 않는데 지금 하나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양치유센터가 건립이 2021년까지 안 된다고 하면 신지면에는 무슨 콘텐츠를 넣을 것입니까. 어떤 콘텐츠를 넣어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할 생각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물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지면은 해양치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대상지기 때문에 해양치유산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구상할 계획입니다. 기후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해양치유센터가 그동안 건립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거의 안 되어있을 때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분산 이렇게 해가지고 개최한다고 했는데.

잘못 오면…… 그렇지 않아도 2014년, 2017년 해조류박람회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콘텐츠가 없다고 해가지고 욕을…… 완도 이미지는 좋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엉망진창으로 욕을 얻어먹었는데, 잘못하면 욕먹습니다, 과장님. 그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4년도, `17년도 콘텐츠가…… 진짜 해조류에 대해서 콘텐츠를 내놓을 것이

없어요. 바다에 바지선을 띄워놓은 딱 그것 하나 볼거리가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연구를 잘하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그러면 해조류박람회 사업비 관련입니다. 2021년 소요예산이 100억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 박인철 의원

100억 들어간다고 되었죠. 이것 단장님이 설명해도 좋고 과장님이 해도 좋고 해도 팀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2017년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나오지 않고 실제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것 뭐 단장님이 해도 좋고 과장님이 해도 좋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박람회 총 집행액은 4억 2,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총 예산은 100억 중에서도, 2억 3,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여기 국비와 도비는 각각 반납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국비 1억 2,100만 원을 반납을 했고, 도비 1억 1,600만 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도비…… 뭐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도비, 국비를 반납했다는 이 말이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180억 들어갑니다, 최소한. 과장님, 거기에 동의합니까? 안하면 제가 그 자료를 과장님한테 보

여줄게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물론 박람회 중 예산은 그 외에 다른 기반시설을 박람회 영향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박람회 기반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박람회가 기반시설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014년도에 할 때 지금 주재관 하나 남았습니다. 전부 소모품입니다. 콘텐츠 하나 이용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하기가…… 여기서 말이 다르게 나갑니다만 장보고축제도 그래서 어렵다는 이 말입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사가 끝나면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딱 철거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 멀게 `14년도를 보지 말고 `17년도에 박람회를 마치고 나서 지금 우리 군이 돈을 한 180억…… 뭐 좋습니다. 과장님의 말처럼 90몇 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콘텐츠나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박람회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정성적, 정량적 한 가지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이런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콘텐츠나 남아있는 것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일부 지금 전시물은 어촌민속전시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해양생태관에 전시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해양생태전시관이에요. 과장님, 해양생태전시관, 저것을 지어가지고 저기 안에 콘텐츠를 한다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모르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저기도 예산을 30억 이상 쏟았어요. 과장님이 한번 시간이 나면 가서 보십시오.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해조류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재활용 콘텐츠가 빵입니다. 농공단지 신재생을 하는 데에다가 컨테이너(청취불능) 해놨다가 그것을 공모해서 처리했더구먼요. 나머지는 어촌민속박물관에 보관한다고 하는데 보관하면 4년 후에는 그것다…… IT 요즘 기술이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는 사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이제 활용가치가 있도록 계속 보존을 하고요. 지금 그 어촌민속전시관에는 팝업북이라고 지금 하나가 있고. 바닷말 음식 만들기 미디어테이블이라고……

□ 박인철 의원

저도 엇그저께 질문·답변을 위해서 다시 또 갔다 왔어요. 개관식을 할 때도 가고, 개관식을 할 때 못 봤으니까 못 봤는데. 엇그저께도 갔다 왔어요. 그 건물도 하자 투성이예요. 지금 그 건물도,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의 말씀처럼 나머지 우리…… 각 실과에 있던 예산은 다 빼고 과장님의 말씀처럼 97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2021년 콘텐츠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그 계획이 확정인 안됐기 때문에……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과장님의 말씀처럼 어촌민속전시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보관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제가 당장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보서는 5억도 안 돼요. 그것을 처리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조류박람회야 끝나고 서길수 해조류박람회단장이 지금 장보고 죽청리에 있는 장보고동상……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데 에다가 그 건물을 짓자고 했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맨날 건물만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IT가 들어간 것이라서 금방 금방 변합니다. 4년이면 바로 다 변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러는데 해조류박람회는 모든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100으로 준다고 해도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매몰비용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1차할 때 다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조류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든가. 하여튼 SOC사업을 했다면 우리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전시품만 가지고 새로운 전시품만 다시 넣으면 되는데, 전체 매몰비용입니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일부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2021년 박람회는 좀 퀄리티 높은 그런 콘텐츠로 구성해서 미래에도 활용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비용 같으면 우리 군에

다가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단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단장님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해조류박람회는 국제행사로 추진하되 양식이나 유통, 가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을 규모와 현대화 등 같이…… 국제 해조류박람회하고 발맞추어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래야만이 우리 업무를 이런 기반시설을 갖춘 공장들이 어민들한테 사들여서 우리 어민들이 생산해놓고 판매하지 못한, 이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둘째, 우리가 2번 해조류박람회를 안 치러 봤습니까. 너무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매몰비용이. 전시했던 콘텐츠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뭐 방안 있습니까?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 콘텐츠 재활용 방안 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또 퀄리티가 높은 그런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이것 강구하십시오.

셋째로 해조류박람회는 기초단체……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6.4%밖에 안 되는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해년마다…… 뭐 3년마다, 4년마다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군수님은 하고 싶겠지만 무리입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꼭 이렇게 2021년도에 해조류박람회를 하고자하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국가나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농업박람회를 하는 나주에서는 도에서 안합니까. 나주시에서는…… 물론 도 산하로 있지만, 도에서 해도 나주에서 하다보니까 나주시는 이익을 다 얻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들어가고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2021년 도에 하게 된다면 축소는 좀 하더라도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매몰비용이 전혀 안 나올 안 나올 수는 없지만 매몰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것 연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생각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존경하는 박인철 의원님께서 박람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또 걱정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잘 보완해서 2021년 박람회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심사숙고하십시오.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뜻이 합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진짜 2번 하면서 너무 매몰비용이 아깝습니다. 이런 것을 내 지역인재나……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나왔지만 장보고장학금 같은 것도 지금 거치가 안 되어 가지고 뭐하는데, 인재육성이나 다른 SOC사업에 했으면 완도에 더 큰 발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해조류박람회를 하면서 얻는 이익도 있었겠지만 그 이익에 버금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미래해양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6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군정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7쪽입니다. 박인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완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 개요 및 종합계획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은 청정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질병예방과 재활,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산업입니다. 우리 군 해양치유산업 사업화계획은 2017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시설과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건강리조트 등 민간시설을 유치하게 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완도와 신지를 거점화하고 금일권역, 청산권역, 소안권역의 섬 지역 특성을 살린 해양치유시설을 유치하여 클러스터화하고자 합니다.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 선정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8월, 해양치유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7대 군의회에 두 번에 걸쳐 보고하였으며 8대 의원님들께도 10월 16일 간담회를 통해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017년 1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6월에는 독일 노르더나이스와 상호 정보공유 및 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 공모에서 전국 11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완도군은 전국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

자체 선정 이후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와 4개 선도지자체가 협력하여 2017년 10월,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연구 용역을 고려대학교 해양치유산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산업 추진사항은 홍보영상, 전단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맥반석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완도 해저 전 지역에 맥반석이 분포되어 있음을 밝혀냈으며, 금년 2월에는 해양기후 치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6월부터 9월까지의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과학적 검증 임상실험, 8월과 10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해양기후환경을 이용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을 완도군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역점 추진하기 위해 기존 팀조직에서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10월에는 해양치유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대표로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내년 5월쯤 법률이 제정되면 해양치유산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국회, 기재부, 해수부를 방문하여 해양치유센터 건립 설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치유자원인 염지하수의 부존성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해양치유산업 자문기구인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 공포 시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 준비, 전문인력 양성, 공공과 민간 해양치유전문병원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은 완도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미 사업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군은 2019년 센터 건립 설계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2020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사업 조기 추진 타당성을 제시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설득하여 2019년에 설계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해양치유산업 육성추진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예,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우리 군 환경적 여건을 봐서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군민들에게 미래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미래 100년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희망은 좋으나 실현가능성과 시기의 적합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군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감 또한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단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이 설명……. 답변해도 좋습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해양치유산업과장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해양치유센터 건립입니다. 이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만이 주변에 민자 시설을 유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이…… 과장님이 설명한 것도 맞지만요, 최우선시 되는 것이……

(임대용 팀장을 보며)

임대용 팀장님이 처음부터 준비했으니까,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우선시하는 것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해양치유센터가 먼저 들어와야지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국민적 인기도 확보가 되고, 현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군민들의 의지입니다,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의지인데.

어차피 지금까지 해양치유산업의 개념에 대해서 홍보는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인프라 시설을 안보여주면 해양치유센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직접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이것을 필드에서 직접 인프라를 통해가지고 해양치유가 무엇인지,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하기 위해서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양치유센터가 건립이 되면 해양치유산업이 무엇인가를 알릴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사업화가 됐을 때,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민간적인 추가 지원도 되고……

□ 박인철 의원

예, 좋습니다.

물론 해양치유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맞으십시오.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법

률이 있어야 만이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지원 법률이요, 뭐 대통령령이든 무슨 령이든 지원 법률이…… 국회에서 지금 10월 5일에 황주홍 의원이 민평당 의원 15명하고 지금 해수부장관 김영춘 장관님 해가지고 16명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해가지고 의안번호 15898호로 해가지고 했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 박인철 의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만이 지원 근거가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 되어야 국비가 되고……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졌죠. 우리 임대용 팀장님이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현재 해양치유자원 법률안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10월 달, 10월 5일로 해가지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장님께서, 황주홍 위원장님 외 열여섯 분이 국회에 10월 5일에 제출해 가지고 내년 2월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 근거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여러 가지 해양치유 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현재 해양치유산업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법률 이전에 해양치유산업이 추진되기 위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기본법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발전법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원근거로 보고 나머지 한 가지는 100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

제이기 때문에 “정부기관 내에, 어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근거를 세 가지로 보고 있고.

이러한 산업이 향후에도 정부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치유 산업 법률이 필요하고……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제 잘 알았고요.

자꾸 군수님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러는데,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100대 과제를 합니다. 그것은 과제일 뿐이에요. 그전에…… 벌써 문재인 정권 2년차에 들어갔습니다. 3년, 4년 되면 임기말 레임덕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들며)

이것 중앙부처 직원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때부터는 후임정부의 눈치를 봅니다. 이제 힘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방 임대용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들이 내년 2월 달에 통과가 된다고 했는데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의회에…… 국회에 법안발의가 1만 몇 건이 되어 있습니다.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해수부가 관련법과 시행령, 규칙들을 빨리 만들어서 시행령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군과 같이 됐든 충남 태안, 경남 고성, 경북 울진. 이 분들하고 말을 맞추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예, 동의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 매입부지 면적이 평수로 하면 약 4,000평인데,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데. 뭐 향후 더 필요하니까, 이 면적에다가 센터를 다 건립할 수 있습니까? 이 보고서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우선 지금 금년 현재까지 매입한 땅이 약 5,000평 정도 되고요. 군유지가 명사십리 주변에 좀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필요한 땅은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비로 16억의 군비를 확보했는데, 매입은 완료됐는지 모르겠고, 명사장 제2주차장이 있는 데에다가 한 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주차장…… 어디 다른 데에 또 만듭니까, 아니면 그 범위 안에서 이 센터를 건립하고 그 주차장을 가지고 나머지를 활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부지매입을 또 합니까?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그 센터 기능에 주차 시설까지 확보가 될 예정이고요. 그 주변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는 앞으로 국립해양치유병원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때 보고할 때 이송현 담당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계로 있을 때 우리 임대용 팀장님이 다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명사장 제2주차장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옆에 고려대학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려대학교. 이 부지는 여기에 근접해 있는데 그 부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는 민자시설로 해서 고려대학교 병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조선대학교 부지에도 그런 시설물을 좀 이용해서 병원을 유치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예, 하여튼 빈틈없이 해주시고요.

단장님, 사업 이것은…… 2030년까지 사업비는 공공 3,000억, 민자 7,000억에 1조 원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장소가 완도, 신지 거점…… 금일 권역, 청산 권역, 소안 권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1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권역별로?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렇습니다. 이 안에 공공하고 민자가 포함되어서 이쪽으로……

□ 박인철 의원

지금 공공 뭐 3,000억은 그렇다고 치고 민자 7,000억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지금 저번에 내가 보고 받기로는 여기도 광주전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죠. 용역을 준 것이 없습니까, 광주전남개발연구원에 다가? MOU를 체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광주개발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했던 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 MOU 체결이 되어 있는 것은 전남개발공사하고 작년 12월 달에 체결을 했고요. 그 체결한 목적은 해양치유산업이 공공부문의 역할이 시작되었을 때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자 투자 부분이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개발공사는 민간 투자유치에 대한 접촉도 많고 하다보니까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전남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사……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향후에 서로가 매월 만나면서 서로 간에 정보공유를 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단장님,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전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지금 용역을 하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해수부에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4억씩 내고 해수부에서 35억해가지고 51억, 이 용역 말고 우리 군에서 실시했던 용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리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 용역 끝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 박인철 의원

아니,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있는 것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방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보고서에는 체계적인 그것이 안나와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본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도 비밀입니까, 기본방향이?

이렇게 해양치유센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것은 우리 언론에서도 볼 것이고 군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 볼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우리도 좀 홍보병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누구에게나 해양치유산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에 조광용 해양정책과장이 있을 때 종합적인 그림을 내보라고 그러니까 극비사항이라고 안 내놓던데,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용역이 마무리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미래 100년의 비전을 종합계획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변경된 계획이나 종합된 것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나오니까, 이것은, 이 종합계획은? 우리가 그 해수부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예.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2016년도 3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2017년 8월 달에 완료를 해서 7대 의회 때 2번 보고 드린 바가 있고요. 앞전에 또 8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에서 간단히 그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그때도 예산만 1조원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안 나왔다는 이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제2부지에다가 무엇을 하고 어떤 센터를 어떻게 짓고, 대강 조감도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번에도 소회의실에서 간담회할 때 보여줬는데 그 정도라는 이 말입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치유센터 건립계획은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가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내년도에 지금 설계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지금 해수부하고 기재부에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맞아요. 제가 해수부담당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이 의회로 넘어갔는가. 국무부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우리?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 예산은, 흔히 들리는 말로는 황주홍 의원한테 해가지고 설계예산 20억을 쪽지예산으로 확보한다는데. 그것은 쪽지에 산일 뿐이죠, 지금 뭐 정확한 답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국회로 내년도 예산안이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빠져있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만약 예결위를 하면서 쪽지예산이라든가 20억이 확보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뭐 순군비로 우선 세운다든가. 이것은 또 국비로 받아야 되니까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순군비 부담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 답변을 보면 앞전에 해조류박람회

회…… 조금 전에 질문할 때 단장님께서 해 조류박람회에 같이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는 못하죠, 과장님?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물리적인 시간이…… 저희들이 장담하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이 어디 행사장이나 가면 축하할 때 해양치유산업이 앞으로 우리 군에 100년 먹거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또 이 보고서에 보면 해양치유산업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이 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추진되니까?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추진합니까? 뭐 어디 국가기관에다가 위탁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치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은 해양수산부에서 3년 동안 해가지고 5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양치유산업법률과 그리고 제도, 전문인력 등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해양치유산업법률안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해양치유사라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뒤킵고 해양치유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문인력, 이 부분은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해양치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양성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면 현재 해양치유산업…… 해양치유센터에서 해

양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대부분이 가장 크게 하는 것이 해수 요법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에서 해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중운동지도사라든가, 그다음에 수중개발지도사, 이런 분들을…… 현재 민간협회에서 자격을 부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황을 먼저 파악해 가지고 향후에 해양치유산업에 의한 보고를 하고, 나중에 해양치유사라는 국가기술자격증이 나오면 다시 이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해양치유사로 양성을 해서 할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여기에 이 해양치유센터가 생기면 대거 발탁이 되어 가지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완도군의 인구 증가나, 또 인구 늘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하고는 크게 별것이 없겠네요?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아닙니다.

□ 박인철 의원

내 지역 인재.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현재 해양치유센터는 외부 도시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것보다도 지역 내에 있는 인력을 공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지역에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고, 해양치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해양치유센터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공해양치유 전문명원이라든가 바이오기업, 이러한 산업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산업체에서 만들어지는 인력이 지역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그런 일을 하려면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병원이나 치유센터라고 생각하니까.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우리 지역 인재,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나와 가지고…… 이 지역의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양성소가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맞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지금 현재 완도수고가 마이스터고로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완도의 해양치유산업이 미래의 후손들, 우리 완도의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 100년의 먹거리와 일자리 만들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 마련이 필요한데. 그중에 한 가지가 완도수고에, 앞으로 해양산업 쪽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양치유와 관련된 이런 전문인력 과정들을 또 양성할…… 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에 마무리가 되면 교육부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과를 또 신설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도 늦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보고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쯤은 양성반이 생겨가지고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완공이 되고 병원이 들어오면 딱 맞아떨어져요.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 하고, 단장님. 민자 7,000억에서 전문병원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보고서나 듣는 바에 의하면 전대, 조대, 고려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교섭

중입니까? 이것이 교섭이 이루어져야 만이 민자 7,000억이 맞아들어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좀……」 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그 민자 투자는 리조트라든가, 이런 분야 쪽에서는 저희들에게 접촉해 오시는 분들이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지금 병원 관련해서는 민자이기 때문에 ‘일단 해양치유센터라는 컨트론타워가 들어서야 만이 외부에서 이 기능을 알고 또 보고, 믿고 민자에서 선뜻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 치유병원하고 해양건강 리조트 시설을 좀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면 해양치유센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보고 그러면 전대, 조대, 고려대학교에서 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그런……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아니, 사전에 접촉을 해서 저희들도……

□ 박인철 의원

아니, 왜 자꾸…… 제가 빠르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자꾸 설명회나 어떤 보고서에나 보면 거의 전대, 조대, 고려대가 안 빠져요. 안 빠지고 들어와요.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만이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지금 고려대하고 조선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그 학교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내버려두지 말고 앞으로 이런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된 병원을 빨리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 박인철 의원

그리 보면 우리 군의 희망사항이네요, 그것이. 들어오면 금상첨화고……

□ 해양치유기획팀장 임대용

희망사항은 아니고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고려대나 조선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제3의…… 모색해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2017년도에 해조류박람회를 할 때…… 임대용 팀장님, 처음부터 상황실에서 보고를 했죠. 제주도에 무슨 병원원장님인가 누가 와서 사업설명회를 했죠. 베트남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이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그런 것들…… 그때 그후로 MOU를 체결하고 독일 노르딕인가 뭐해가지고, 문화재청장인가 그때 안 왔습니까, 2017년도에, 그래서 해양…… 뭐 우리가 용어도 모르고 독일어도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번역자에 의하면 해양치유가 좋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너무 좀 빨리 가는 감도 있어요, 빨리 가는 감이. 이 뒷감당을 누가…… 이것이 잘 되면 좋은데, 아까 자꾸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라고 했는데, 100대 과제 중에서 30개, 40개 이루어지면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민선6기, 민선7기 공약사항을 확보하십시오. 다 예산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너무 많이 빨리나가서 그런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야, 해양헬스케어센터는 공공이니까 놔놓더라도, 이 사업이 성공하고 또 장래에 우리 완도의 100년 먹거리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병원이, 대형병원 이 들어와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사업이죠.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 해양치유센터 성공은 병원입니다. 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하나

만 가지고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간접자본은…… 장사하고 구멍가게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병원이 아닙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100년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희망은 어디다가 던져버릴 필요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과 시기적합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매우 큰 허탈감을 군민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뭐 조금 전에 내년 2월 달에 통과된다고 그랬는데, 꼭 이번 국회에서 내년 이 지나면 국회의원들도 내년이면 선거니까 법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꼭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사업의 성공여부는 전문병원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가 아니고 전문병원 유치에 성공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잘할 수 있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보충질의를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 불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 09시58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
 - 미래해양사업단
 - 경제산업국

□ 부의된 안건

<제4차 본회의>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미래해양사업단
 - 수산경영과
 - 경제산업국
 - 경제교통과
 - 관광정책과

(09시58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수산경영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등 11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수산양식 재해보험은 전복, 종자, 톳, 다시마, 어류 양식어가 총 3,324어가 중 1,000여가가 가입하여 가입률이 30%입니다. 현행 수산재해보험에서 전복양식의 경우, 연속 피해발생으로 보험료 할증, 손해를 증가 등 보험상품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양식 환경 및 구조를 감안할 때, 권역별 읍면 단위로 분리하여 보험할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상품의 특약사항을 검토하여 선제대응하고, 이 동군수실 운영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4년 연속으로 전복피해가 발생되고 또 어업인의 손실이 크며 우리 보험가입 어가들은 일정 부분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고 있으나, 연속된 피해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해역의 어업인들은 보험료 할증으로 많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정책보험 중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우리 자료를 보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종류가 몇 가지이며, 우리 품종이 몇 가지 정도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수산양식물, 그 재해보험을 말씀하십니까?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보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고, 또 우리 군에 품종이 몇 가지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현재 수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총 19종이 있습니다. 넙치, 전복, 또 조피볼락, 참돔 등해서요.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현재 보험의 제도 중에……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발생지역이 완도군 전체로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피해는,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금일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청산…… 발생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험 할증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안 받은 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피해로, 피해가 가는 문제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어가들의 보험료 할증이 계속 높다는 것이 문제예요, 앞으로…… 그래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 보험을 넣을 때 재원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기 때문에 부담률을 저희들이 차감시키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도액을, 지방채 한도액이 300만 원인데 이것을 500만 원으로 해주도록 도에다가 건의해서 그게 시행이 되면 부담이 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때 태풍피해 때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군수님께서 건의하고, 300에서 500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본의원이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완도, 해남, 진도, 강진, 진도는 아니고요, 강진. 그게 5권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도해역에 피해가 자주 발생하다보니까 해남 등지에서 분할요구를 해서 5-1권역으로 완도가 분리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지금 금일수협과 소안수협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지금 소안수협은 가입률이 23%고요, 금일수협은 32%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취 불능) 양식은 50%.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하고요.

또 현재 약관에 보면 태풍 및 적조, 고수온 등이 전체적으로 주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조나 고수온은 특약에 포함시켜서 어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데……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어업인들의 할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보험제도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꼭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복…… 그 도지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꼭 500으로 올려서 어민들의 속을 좀 풀어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상품 중에 우리 지역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무부서에서 현안 파악도 잘해 주시고, 또 실태 파악도 분석해서 현실과 맞게 동떨어지지 않는 제도와 맞게, 과감하게 개선도 해주실 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전복보험에 대해서 박재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집행부 좌석을 보며)

보충질문은 담당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복보험…… 전복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피해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할증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분들을 구분을 해서, 동부 쪽하고 남부 쪽으로 구분한다든지, 구분을 해서, 권역을 구분해서 보험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매년 전복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전복보험 손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손해율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협에서도 이렇게 계속 피해가 나니까, 보험이 적자 부도납니다. 그

래서 수협중앙에서도 별도로 재해보험사에 보험을 다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할증요인이 발생된다,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험 손해율이 한 430% 이상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엄청 손해를 보는 것이죠, 보험회사에서.

전복보험 그 운영자는 누구고, 그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양훈 의원

전복보험 운영자, 그 운영하는 곳. 그리고 그 체계,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알고 계시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수협지구별 지역…… 그 지구 조합에 보험 가입을 하고요. 수협은 또 별도로 재해보험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그 보험 운영자는 수협중앙입니다. 그런데 그 체결은 수협에서 이렇게 국내보험사하고 체결을 합니다. 따로, 그런데 국내보험사는 또 이렇게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니까 또 외국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손해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보면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하고, 또 어민들이 납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그러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돈이 430원이라는…… 예를 들면 그런 돈이 나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전복 그 보험 운영사들이 계속 운영이 되겠는가, 이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것으로 아마 적자 분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험사들이 계속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안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계속해서 아마 보험사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아마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적자부분은 우리 국비나 지방비로 보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아니, 보험회사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거의 지방비, 도비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손해를 보는 그 부분이 다 감당되겠어요. 그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오려고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어민들을 위한 보험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비와 지방비 80%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자담이 20%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계속 보면서 이 보험이 없어진다, 이랬을 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도 그럴 것 같고, 그 대책을, 그 방안을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보험상품, 그 손실보상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년 이상된 전복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폐액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최대 보상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제일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저희들 자부담을 한 20%하고요. 폐사율에 적용을 좀 많이 한 것입니다. 35%. 그러면 그 폐사율은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했을 때 자부담과 폐사율을 빼면 한 45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령되는 금액이. 이제 그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제일로 크게 발생하는 것이 폐사율입니다. 폐사율의 적용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사가 나오는 부분하고 보험을 우리가 수령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그 폐사율이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1번, 2년 1번, 3년에 1번 이렇게 분만을 합니다. 전복이 많다 보면.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 김양훈 의원

거기를 할 때 폐사가 거의 2차 분만, 3차 분만에 들어갈 때는 별로 폐사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를 다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죠.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여기 보험회사나 수협에 건의를 해가지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다음 2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안어장조사 및 재배치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취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후변화 등 어장환경 변화로 생산성이 감소 추세에 있고 면허와 실제 시설 간 괴리발생으로 어업면허의 당초 취지인 계획생산 차질 및 무질서가 장기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생산, 품질향상, 법질서 준수 등으로 어촌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동사업 추진실적은 10개 읍면 1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323건 1만 151헥타르를 재배치하였으며, 연도별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 미포함 지역에 대한 추진 계획은 잔여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금일, 노화어촌계 전복가두리 125건, 1,488헥타르를 재배치할 계획이며 어촌계 간의 협의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금년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매년 수산관측센터에서 양식시설물에 대한 항공촬영을 하죠? (예)

그것 군에 통보가 왔습니까, 올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올해 지금……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받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그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촬영은 하고 있지만 본인이 정작 가두리가 면허지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시고요.

보면, 김은 54%가 면허지 외에 시설되어 있고요. 미역이나 다시마 31%가 면허지 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33%가 면허지 밖에 이렇게 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장님께서 정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면허지 정비 업무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가에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어촌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완도군이 항상 보면 불법의심지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에서 이렇게 철거가 가능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뭐 절차에 의해서 강제될 수 있도록……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강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어장실태 조사를 제대로 한 후에 제도권에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시키고 통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연안조사나 재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고 군비를 좀 많이 투입해서 우리 어업권 배치를 잘 확대·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의 결심을…… 아니,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단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상당히 어려운 업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꼭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재배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꼭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3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새우표 완도물산 세척수 확보와 이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우표 완도물산 현황입니다. 새우표 완도물산은 2016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연면적 2,188평방미터, 건축면적 1,887평방미터이며 2016년 6월 착공하여 2017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연간 평균 생산량은 120만숙이며 매출금액은 100억 원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

니다.

다음은 김 가공 시 세척수 확보현황 및 사용량입니다. 우리 군 관내 김 가공공장 운영개소는 44개소로 평균 생산량은 최소 50만속에서 최대 120만속으로 김 가공에 많은 세척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각 업체별로 지하수 관정 5개소에서 8개소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고 세척수 평균 사용량은 1일 최소 500톤에서 최대 1,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인 소안도와 노화 념도의 김 가공공장 지하수 확보량은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 가공 시 세척수로 인근 마을 지하수 고갈 관련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서지역은 지방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수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군에서는 한번 사용한 세척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7개 업체에 사업비 18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업량 15개 업체 사업비 45억 원 중 국비 13억 5,000만 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며, 2020년까지 22개 업체에 대해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상수도 사용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국비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새우표 완도물산 세척수 확보와 이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적합한 부지가 없고 김 공장을 유치하

려고 해도 세척수가 좀 부족한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척수가 부족해서 노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세척수가 부족한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본건은 지금 읍면 순회 시에 약산면 관산지구 대표…… 마을 대표 분들이 “김 공장으로 인해서 관정에 물이 말라서 농사를 짓는데 막대한 (청취불능) 초래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공공장을 유치하는데 이 부분 사전검토를 하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우표 일일물산 세척수량이 500에서 1,000톤이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희들이 거기 새우표 완도물산 현장에 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관산리하고 여동리에 있는 농업용 관정, 그것을 연결해서 직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아마 그런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거기 관산리에서 20개 정도 관정이 있고, 여동리에 10개 정도 이렇게 관정이 있어서 쓰고 있는데, 아마 거기 전기료를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여름에는, 농사철에는 농업용으로 쓰고 겨울에만 이렇게 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관정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깊게 뚫으면 위에 있는 관정은 마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원인이 오지 않았느

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주민들도 동의하신 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거기가 대형 관정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공사용 관정이기 때문에.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대책 중에 한 가지를 보면 해수담수화라고 13억 정도를 투입해서 세척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가능한 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담수화는…… 시설은 여기가 상당히 전기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과연 동의할 것이나……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군민들이 동의하지 않겠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어려울……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그러면 세척수 확보를 위한 시설은 업체에 담당하고, 그 과정에 수질개선 및 각종 세균제거 등 정수시설들의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맞지만, 세척수 확보를 위한 담수화 사업시설은 군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고하여 주시고요. 단장님께서서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담수화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비도 많이 들고 또 업체가 전기세 부담도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검토해 주시고요.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군비가 지원되고 그러면 민원 해결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5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한 해조류산업의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해조류산업은 김,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등 지역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양식현황이 특화되어 어업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 양식시설은 299어가에 12만 6,539책을 시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대비 3만 2,265책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물김가격 상승과 전복가격 하락으로 전복 양식여가의 전업 및 신규 김 양식여가의 진입이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 김 작황 양호시 가격 하락 등이 예상되고 있어 적정시설을 통한 생산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역 양식현황은 4,070어가가 37만 줄을 시설하여 55만 5,042톤을 생산하였으며 전년대비 시설량이 9%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미역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kg당 55 내지 75원으로 형성되어 전년 kg당 122원 대비 50% 하락되었으며, 미처리된 가공용 미역을 전복묵이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700톤을 구입하여 노화, 보길, 소안 전복양식여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시마 양식은 금일, 생일이 건다시마 생산 주 지역으로 4,044어가가 10만 3,440줄을 시설하여 15만 5,16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시마 작황 양호 및 가격 상승

으로 내년 시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톳, 매생이 또한 작황 양호로 생산량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양식 어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조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는 기후변화 대비 육종프로그램 개발 및 양식 환경 특성조사를 통해 미역 신품종에 대한 우리 지역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안김 우량종자 생산, 개발용역을 통해 4개 우량종 유리아상체를 확보하여 2019년 소안면 부상리 외 3개 어민에게 폐각을 공급, 시험양식을 추진하여 2021년 소안김 4개 품종을 등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14개소에 양식장 환경관리 시스템의 구축하여 수온 및 용존산소 측정자료를 1일 2회 어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역, 매생이 등 해조류 과잉 생산 시 대책으로는 해조류 과잉 생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적정량을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업관측센터 협조를 통한 수산물 생산전망에 대해 각 어민들에게 홍보하여 시설 및 생산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도시 특판행사, 유통업체 할인 판매 등을 통한 소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해조류 유통조절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역 과잉생산 시 전복먹이용 수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매생이 또한 긴급 수매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조류산업의 활성화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원래 해조류양식산업의 중심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완도군에서는 해조류박람회도 개최를 했었고 헬스케어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해조류 중심에 선정되어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의 기초사업이자 우리 지역의 핵심사업인 해조류 성장…… 해조류산업이 성장은커녕 타 지역과 비교할 때 퇴보하고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하게 돼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단장님, 수산업무를 접한 지가 2개월밖에 안됐죠? (예)

그래서 보충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경우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도가 해조류 중심지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동의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어떤 이유로써 단장님이…… 견해를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전복과 해조류의 생산량을 보면 그중에서 완도가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 별로 보면 김이 한 40%, 미역이 60%, 다시마가 70%. 그리고 또 면허면적도 완도가 제일 많고 어업종사자들이 많아서 완도가 해조류의 메카도시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해조류의 중심역할은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박인철 의원이 해조류 관련해서 얘기했듯이 김은 해남, 진도 등으로 선정되어 있고, 미역은 고흥, 장흥으로 선정되어 있고 톳은 진도 쪽에 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마, 매생이는…… 매

생이가 주로 보면 고금이나 약산 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장이나 장흥 쪽으로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 면에서 이미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완도가 해조류 중심지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앞으로 중심지로써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이 앞전에 이범성 의원님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역가공공장이 고흥으로 옮겨간 것 알고 계시죠? 고흥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요. 공장이 필요한데, 주로 완도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 때문에 고흥으로 옮기는 것이예요. 그래서 본안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해조류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 주요업무 때 다루기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미역과 매생이의 작황이 좋아 과잉생산으로 제값을 받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팔기도 하고 일부 어민들이 바다에 버리는 사례까지 있었어요, 혹시 보고 계셨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알고는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본의원은 미역이나 매생이가 생산되는 내년도 생산은…… 과다 생산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매생이 과다 대책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 매생이협동조합을 하고 있고, 더 필요하다면 수협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우선 매생이는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재고물량을 파악한 후 시설량을 줄일 수 있도록 어민들에게 협조하고, 완도군 관내에 매생이를 양식하고 있는 타 시군 사람들도 있죠, 타 시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특별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매생이의 경우 반드시 이렇게 동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업체들의 재정상 설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양바이오센터, 지금 완도에 있는…… 내년에 설치 계획이 있다는데 이번에 군비를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수협과 협의해서 가격을 지지할 수 있도록 자체수매를……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음 미역입니다, 미역. 재고량 파악해 보셨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직 그것은 통계……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지금 현재 보면 재고량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군납을…… 군납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수협과 수협중앙회와 금일수협 등에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역산업은 최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미역 및 수출용 미역 생산지구를 선정한 후 가공업체들을 재계약 체결 후 청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상향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미역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내년에 미역이나 매생이가 과잉 생산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리고 보니까 본건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CI개발, 이 앞전에 보니까 기획예산 담당관이 얘기할 때보니까 완도매생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와 용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추진 중인데 언제쯤 완료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방금 말씀하신 매생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게 행정적으로 절차와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표장에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매생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어차피 이게 제목에도 있습니다마는 완도 매생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생이를 상대하는 어민들이 포장지에다가 완도 CI를 개발을 해서요. 완도매생이를 이렇게 상표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은 인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선거운동 기간에 느끼는 부분인데 약산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

화를 해주라고 그러고 규격화를 또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CI,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사업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서……

보면 작년에도 매생이 부분에 막 가격이 하락해서 팔아주기 운동까지 군에서 개최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7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완도 명품광어산업 경쟁력 지속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 명품광어는 191어가가 120헥타르 규모로 양식 중이며, 1만 2,888톤을 생산하여 1,50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완도 명품광어산업의 경쟁력 지속을 위해 히트펌프, 인버터 등의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광어 항생제 잔류검사 지원사업, 폐사어 처리 수거비 지원사업, 넙치수출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광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쟁력 지속을 위한 대책으로는 향후, 광어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양식광어 품종의 다양화와 2021년까지 광어 양식어장의 10% 이상이 AS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u-I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양식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등의 수산동물 질병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어류 소비 촉진과 해외시장 수출지원 등으로 완도 명품광어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명품광어산업 경쟁력 지속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완도 광어가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고 현재 광어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리가 그 명품광어를 만들기까지 백신공급, 항생제나 백신공급. 그다음에 거기 사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먼저 앞서서요, 지금 완도 명품광어……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명품광어를 후원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완도 명품무지개 광어로 조금 호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완도 광어에서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세 분,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광어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요인은 방금 단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민선6기 들어와서 항생제를 근절했어요. 그리고 백신을 통해서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도 확보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공급사업이 굉장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어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신공급을 하는 것 중에서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단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질문하시면 그 사항을 판단해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지금 백신공급이 현재 보면 한 4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혈할 양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봤을 때 어떻게 바뀌어가는 현상이냐고 그러면 지금 3종은 연쇄구균이라고 전문용어거든요. 4종은 연쇄구균과 에드워드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이 4종이에요. 그 정도로 세균이라든가 질병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수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올해 백신공급사업이 30억으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것은 자담이…… 지원사업에서 30억, 40억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25%, 지방비가 25%, 자담이 50%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부분에서 보면 막 단위가 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위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봐서 한 5억 정도 지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검토해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확신을 한번 해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리고 두 번째로 배합사료라고 아십니까, 배합사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EP라고 들어봤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이 자료를 드려서 그럴까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배합사료라는 것이 방금 말하셨다시피 EP입니다. 알갱이사료입니다, 알갱이사료, 이런 부분인데……

(자료를 들며)

이게 뭐냐고 그러면 사료연구센터에 나옵니다. 즉, 말하자면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그러면 이 배합사료 성분분석만 평한 것이고, 우리 어가들이 피해야 되는 사항은 MP입니다,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공문을 들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지하기 위해서…… 완도군은 이 공문이 안 왔어요, 이 공문이 안 왔습니다. 이게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온 공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0년에 의무화해 가지고 2022년에 완전 의무화를 시키겠다. 지금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우리 어가들의 생산량을 따져보면 이 배합사료를 먹인 것하고 생산해서 먹인 것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200원에서 300원 차이거든요. 또한 육질, 육질 자체가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김양훈 의원도 보충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EP를 먹었을 때는 육질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이런 원인이 뭐냐고 그러면 생산 출하단가를 저하시키는 원인입니다. 이게. 판매가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덤핑을 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사업단장님께서서는 배합사료 저지를

좀 해주시고, 완도군에 맞는, 실정에 맞는 배합사료를 할 수 있게끔. 해양수산부하고 우리가 여러 차례 7~8년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행정하고는 하지 않고, 완도군은 모른다는 자체에서 이런 것을 생산…… 어가들한테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배합사료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배합사료를 원하는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해주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 전문위원 추관호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의장님!)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짧게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광어나 전복양식장에 보급하고 있는 히트펌프나 인버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큼니다.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대당 한 1억, 상당히 고가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몇 %를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지금 7점…… 몇 %.

□ 부의장 허궁희

지금 이율도 굉장히 싸졌는데 이것은 너무 고가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는 상당히 싫어할 말입니다마는 농어촌공사가 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해수부에서 아마 그 사업지침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 부의장 허궁희

이런 것 건의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완도군, 군에서도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수수료는 7.3%, 7.4% 이렇게 높게 줘가면서까지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7.1% 안에 설계비도 일단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지침이 아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 부의장 허궁희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것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것은 사업성격을 검토해보고 어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개선방향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수수료도 낮추는 방법, 정 안되면, 7%가 넘어간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니에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것은 이제 농어촌공사 수익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요.

□ 부의장 허궁희

그랬다고 하면 우리 어민들이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9쪽입니다.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시장 개척 추진성과 및 금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현황입니다. 참여인원은 행정 32명, 기업체 40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2016년 이후 해외시장 개척현황은 9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출계약 및 수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국으로 완도군 16개 수출기업에서 해외 7개 수입업체와 3,60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8만 6,300만 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출계약 체결 후 미실현 현황 사유로는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 수출계약 건으로 홍콩 린스 트레이딩과 베트남 SLS 컴퍼니와 체결업체 간의 품목별 단가 협의 및 수출 통관 절차 후, 11월 중에 수출 선적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추후 해외시장 개척방법 및 개선방안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에는 “완도군 수산물의 우수성과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이다.” 라는 홍보 비즈니스 위주 활동을 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완도수산물 해외시장 대형 유통업체의 완도수산물 프로모션 개최를 통해 완도상품 입점 판매와 함께 수출기반의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여 2017년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국내 농수산물 수출 전문유관기관 단체인 AT, 코트라, 해양수산부 수산물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농수산물 전문취급 우수바이어를 1 대 1 매칭 하는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해외 시장 다변화 추진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시장 개척 추진성과 및 금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외시장에서 소비한계는 해외시장 개척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그 성과도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7회 해외 개척활동을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2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2번 다 태풍으로 복귀했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복귀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어찌됐든지 `15년도를 합치면 7회 이상 해외출장을, 해외시장 개척을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성과가 있었다면 정성적 성과와 정량적 성과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요, 단장님이 대답이 안 되면 제가 할게요.

성과를 말할 때는 수출계약은 성과가 아닙니다. 수출계약은 과정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 성과보고를 할 때는 계약체결을 하고 수출이 됐을 때 이것을 좀 보고해주십시오, 이 보고서에 보면…… 제가 봤을 때 정성적 성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완도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6기 시 10회 이상 해외시장 개최활동을 하였는데, 어느 정도 정량적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성적 성과는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하고요.

자료에 의하면 수출실적이 86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7억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8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330만 달러, 37억 수출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단장님, 2월 동안에 60억 수출을 했다는 말입니까, 2개월 만에. 이 업무보고, 8월 업무보고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60억을, 60억을 수출했으면 어떤 회사가 어떤 지역에 어떤 품목으로 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수출절차를 보면 계약을 하고 수출…… 그 실적까지 산정할 때까지는 보통 2~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 수출계약 그 목표하고 실적하고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수출 바이어하고 상담이 되면 무슨 산정하고 하는 것이 2~3년이 걸려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내보내면 수출실적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수출……

□ 박인철 의원

수출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출계약은, 수출실적이 중요한 것이죠. 이 도표에서도 보면 수출계약을 아주 엄청…… 계약은 많이 안했습니까. 어제 제가 해조류 박람회 때도 다시 한 번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때도 계약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품이, 완도산 상품이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선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물론……

□ 박인철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뭐 5개년 계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 박인철 의원

우리가 개발을……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10년도 좋지만, 기개발된 상품을 수출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무슨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립니까. 이것이 바로 바로 나와야죠, 실적들이. 그래서 우리 계약체결이……

왜 제가 누누이 이 말을 단장님한테 강조를 하나면, 봐보십시오. 해외에 갔다 오고 출장, 고생했습니다. 갔다 오면 미국 LA나 중국, 베트남에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언론에 나옵니다. 얼마만큼 계약체결을 했다고, 그러면 100원에 계약체결을 했으면 그 100원의 가치로 전체 수출이 됐는가. 아니면 계약만 100원으로 하고 수출은 실질적으로 10원을 했는가. 이런 관계를 좀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하는 것입니

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내 질문·답변자료와 상반기 업무보고, 8월 달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실제 수출액은 170만 달러예요. 19억 정도밖에 안돼요, 지금. 내 자료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성적 성과는 매우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정량적 성과입니다. 이 성과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정합니까? 저도 정성적 성과는 200%, 300%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장님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어제도 해조류박람회에서 제가 단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을 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문제점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수출업무가 상당히 쉬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수출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완도군이 수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기관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단장님한테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수출에 대해서.

첫째로 완도에 있는, 또는 국내에 있는 제

품을 가지고 이 제품을 사먹으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맞죠? (예)

따라서 나라마다 소비성향을 파악해서 그 나라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둘째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후 완도산 농수산물물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샘플링 비용, 통관비, 물류비 등 관내 업체들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지금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런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통관비, 물류비 등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외시장은 넓습니다. 또한 고객도 엄청 납니다. 제대로 홍보가 되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했을 때 과연 그 수급을 관여하는 관내업체들이 그 물량들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단장님한테 매번 건의도 드리고 누차 강조한 것입니다. 완도의 수산물 가공업체 규모와 위생화,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단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완도에도 하여튼 일류기업, 스타기업, 이런 것들이 육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인철 의원

동의하십니까면요, 체계적으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

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국 위해시에 있는 한국관에 완도 전북이 입점했죠?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00만 원인가 군비를 지원해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거기 운영은……

□ 박인철 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팀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수산유통팀장 조승호입니다.

지금 한국관 이외에 설치는…… 입점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조금 상권이라든가 또 판매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지금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 박인철 의원

중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 실태는 우리 팀장님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죠. 여기 책을 보니까 수산유통팀이라고 했는데, 단장님이 조직개편을 할 때 그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까…… 그러면 농업하고 축산은, 유통은 어디서 합니까. 따로 농업축산과 유통팀이 있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안에 봐보면, 조직도에 보면 그런 것이 없던데. 그러면 농업축산과 안에서 농업유통은…… 유통관리를 합니까, 그때 단장님이 조직개편 때 보고하실 때 이 유통팀에서 총괄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뭐 유통팀이라고 안 하고 수산유통팀이라고 해놔서 수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 생산되는 모든 물량들을 수산유통팀에서 총괄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총괄은 수산유통에서 하고요. 업무는 각자……

□ 박인철 의원

업무는 각자 보고, 어떤 것을 총괄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농업축산과 같은 데는 보니까 과장 1명, 계원 1명해가지고 유통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다 보고, 국도비 공모사업, 이런 것도 다 보고 해가지고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여기서 그러면 다 한다고요, 수산유통팀에서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총괄기능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에서 유통, 유통을 누누이 강조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통팀에서 활발하게 개발해 가지고 어민들이 살아가는데 또 저번처럼 미역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가 안 되어가지고 바다에 빠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시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SC, MSC 등 국제인증 추진 및 활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ASC는 지속가능한 양식어업과 친환경수산

물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써 2018년 7월 13일에 아시아 최초 전복양식 14여가가 ASC 인증 획득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 30 일에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향후 2021년도까지 우리 군 양식장의 10%까지 ASC 인증을 확대 추진 중 있습니다. ASC 인증 홍보 및 선점에 따른 활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마트, 유명호텔에서 ASC 인증을 받은 수산물 사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로써, 글로벌 체인인 하얏트 호텔의 경우 ASC 인증 수산물을 15%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ASC 인증 수산물만 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내외적 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글로벌 친환경 인증 취득으로 수출증대 등의 차별화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SC, MSC 등 국제인증 추진 및 활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수산 행정업무가 지금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어렵습니다.

□ 이범성 의원

어렵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어렵지만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왜 어려운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군의 먹고 사는 문제의 중심이고, 또 다양한 요구가 많고 또 민원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단장님이 3개월 동안이나 2개월 동안 업무과약을 하는데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번에 ASC 선포 때 행사장에 오셨어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개인사정이 있어서 행사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 행사장에 못 갔으면…… 왜 그 말을 물어보냐면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단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ASC를 왜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군이 ASC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선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단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ASC 인증 추진은 우리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세계국제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렇습니다. 뭐 식품, 환경 변화로 인해 안전성 확보랄까.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수산물을 대대적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우리 군의 전략적인 거대한 사업이 ASC 인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포식 때 확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금년도에 14어를 일단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10% 이상 이렇게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앞으로 전복뿐만 아니라 해조류, 광어 등 품목들을 다양하게 해서 ASC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이 여건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군수님의 인사말씀에서 느끼는 바로는 모든 일들이 금방 막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장님,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ASC를 14개어가, 즉 14개 어가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말씀드릴게요. ASC 인증이 딱 되니까 일본시장에 지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냐면 바로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딱 “따르릉” 하고 와요. “ASC 인증을 안 받을래요.” 라고, 왜, “저희 업체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딱 도출되는 거예요.

ASC 인증을 받은 업체가 청산바다라고 한 군데입니다. 지금 14개 어가에 포함된 것이 청산바다, 주식회사 청산바다라고. 청산바다 바이어가 무슨 말을 일본에서 하고 다니는지 모르시죠. 즉, 그 부분이 어려운 지금의 완도의 현실입니다. ASC 인증을 받은 것을 그 바이어가 다니면서 “우리는 ASC를 받았으니까 우리 것만 써라.” 라고, 지금 완도에서 15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일본에는 꾸준한 수출이 이루어져가지고 일본 시장이 엄청나게 안정화를 찾고 있는데, 느닷없이 ASC가 들어가니까 바로 혼란이 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이어가 다른 업체의 바이어까지 다 흡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14개 업체 물량이라도 얼마 되는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일주일에 저희 업체에서만 실은 물량이 2톤 정도로 일주일에 계속 일본으로 싣고 있는데, 다른 그것을 받은 업체가 와서

우리 업체한테 “자, 우리는 ASC를 받았으니까 우리 물건 좀 써라.” 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이왕 추진이 됐으면 ASC를 빨리…… 우리가 어느 정도 분포 몇 %를 하겠다는 목적이,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목적을 빨리 완수해줘야 된다는 이것이에요. 군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들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그 부분이 와야 완도산이 전체적으로 다 ASC 인증을 받았다는 검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ASC만 받아가지고 사후관리를 안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ASC를 받은 호텔이랄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 아닙니까. 환경적인 여건들을 무조건 앞으로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서울에 가도 홍콩에 가도, 미국에 가도 ASC 인증을 14개 받아가지고 “ASC를 받은 물건만 쓰세요.” 라고 하면 완도 물건을 팔아먹기가 힘듭니다. 14명만 팔아먹고, 우리 어가가 몇 천어가가 되는데 14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헌신만 하라는 그 뜻은 절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추진을 하려면 내년까지 해서 몇 %를 하겠다는 부분들의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ASC 어가에 관해서, 제가 그 어가 중에 한 어민입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 그렇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받는 것 중에서…… 그렇고요.

단장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8월 30일에 선포식을 한 이후에 군에서 너무 대응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혹시 타 시군에서 ASC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타 시군…… 도내에 말씀하십니까?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아니, 현재 ASC라는 어가는 전북밖에 지금 현재…… 우리 최초로 받았는데, 지금 선포식 이후에 타 시군에서 ASC 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시냐고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내용에 대해서는……

□ 의장 조인호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경남 통영시에서 아마 일부…… 가장군하고 ASC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렇습니다.

현재 진도라든가, 신안, 통영. 그런 데에

서 지금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바다가 지금 처음 받았는데, 계속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군에서 안 일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군에서 선점을 했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야하는데, 지금 8월 30일에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게 인증을…… 기간을 상당히 (칭취불능) 해야 되고 생태조사도 해야 되고, 보통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가 어렵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30어가 정도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하고는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산도 저희들이 8,000만 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8,000만 원 예산을 확보는 했는데, 어디 사용하려는 용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30여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지금 그 여가를…… 여가는 전부 준비가 됐습니까, 30여가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교육 중에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교육 중에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전북 뿐만 아니라 해조류까지 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대처해주시고요.

제가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퇴적층입니다. 퇴적층. 환경은 우리가 좀 보전할 수 있는데 퇴적층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공인조사결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최종 심사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한 8개월 이상…… 그래서 빨리 관리 상태를 해주시고, 그런 어가들이 받으려고 준비하면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빨리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국제인증 받기 위해서는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서, 일반 행정으로는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전담직원을 꼭 배치해서 2년 동안 인증업무를 전담해서, 한 2021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관심을 좀……

(부군수를 보며)

아니,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적극 또 검토해서 ASC 인증을 꼭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다음은 18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위치는 완도항 배후부지이며, 건축면적은 3,513평방미터 규모로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 국비 25억, 도비 5억, 군비 25억 원이며, 주 사업 내용으로는 관리사무실, 수조동, 급속동결실, 냉동·냉장시설, 사후면세점 등으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7년 3월부터 수출물류센터 입주 업체 조사와 투자 심사, 항만시설 사용 협의 등 행정업무, 수출물류센터 운영계획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 상징적 시설물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8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과업추진 중에 있으며, 9월 17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 그동안 용역 추진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책을 발굴, 용역과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8년 10월 중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중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2019년 12월 시험가동 및 준공식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기능 확보를 위해 급속동결장치 시스템 구축비 20억 원이 반영되어 '1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주체는 전복수출협회 및 전복유통협회에서 가칭 수산물수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운영비 확보방안으로는 수출물량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 징수와 입주업체들의 포장재 공동구매에 따른 경비절감액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고 질문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면적이 450평이라고 하죠, 면적?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1,500평방미터.

□ 이범성 의원

예, 1,500평방미터. 이 면적 전체를 물류센터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

그 4,500평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건물은 1,062평, 그게 2층이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2층으로……

□ 이범성 의원

2층이고, 사업비는 55억. 전체 사업입니까, 사업비가 55억이라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55억……

□ 이범성 의원

국비…… 도비도 이번에 5억 추가해서……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5억 포함해서 55억.

□ 이범성 의원

지금 급속동결시설은 없죠? 이번에 기계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시설만 하고……

□ 이범성 의원

시설만 거기서 해놓고 기계는 안 들어가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나중에 20억을 별도로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의원

왜 급속동결시설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완도의 전복사정은 제가 느끼기로는 홍수출하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수출물류센터를 해가지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그 홍수출하 시기를 커버해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급속동결시설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장님, 추진 중인 이 물류센터는 어떤 기능을 담당……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수출용, 어떤 전복의 냉동…… 뭐 저장,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후면세점이 입주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식코너, 그 다음에 홍보시설 이런……

□ 이범성 의원

그 부분이 지금 거의 사업계획에 다 짜져가지고, 이 앞전 중간보고에서 그 여건들이……

(사진을 들며)

이 부분이 당선작인데 정확하게 건물만 반

듯하고, 보기만 좋은 여건이 된다면 큰일이 납니다. 단장님, 진짜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2의 주식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완도가 난리 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특별하게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27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희들이 입주희망자를 조사한 업체……

□ 이범성 의원

그런데 거의 입주업체가 다들 수출하는 업체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수출한 업체든지, 유통을 하는 업체든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유통을 하는 분들이 그냥 본인의 유통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그 뜻이죠, 거기를 들어가면 본인의 유통을 그만두고 거기로 다 옮기라는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것은 아니고요, 각자 유통시설을 갖고 있되, 수출에 어떻게 참여할 그 업체만…… 업체가 거의 입점해서 수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수출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 유통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 이범성 의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모집을 한다든가, 여건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일단 거기에 가서 한 목소리를 내고 뭔가 우리가 전

복산업을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판을 만들어 주니까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는 업체들이 들어가야 돼요. 가서 괜히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돈벌이만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수출물류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본의원의 의아심이거나요. 그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매시설도 있습니까, 거기 있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판매시설은 없습니다, 시식코너 정도
로……

□ 이범성 의원

시식코너만 있습니까, 판매시설은 없습니까? (예)

일단 수출물류기지로써만 활용을 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매…… 제가 지나가다보면 ‘어느 시점에는 판매시설이랄까, 광어판매랄까 아니면 전복판매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차근차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거기서 만약에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주변에 상권이랄까, 지금 학림회센터, 우성회센터, 또 여기 영진회센터.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제기가 엄청 있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 잘 체크를 단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좋은 이미지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지금 받아야 되겠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인력비 충당을 위해서……

□ 이범성 의원

여건들을 보면, 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있으면 띄워줘 보십시오, 사진이 없

습니까? 왜 사진을…… 사진이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며)

이 부지 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부지가 중요한 부지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조성하는…… 완도항 관문입니다. 거기가, 그 부지가…… 중요한 위치이고, 또 우리 완도에서 활용하는 여건들이 아주 많은 부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완도군은 타 부지보다 부지가 없어서 뭐 할 여건들이 안 되는데, 이 요충지에다가 수산물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이유는 제가 판단…… 본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위기의 전복산업을 이제는 원상적으로 계속 끌고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맞고 단장님의 생각에도 맞는 그 과정에서, 저는 철저한 준비가 안 되면…… 방금 전에 말했던 제2의 주식회사가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복 등 수산물 수출을 위해 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라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출에 대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다른 분들은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의견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여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2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

리겠습니다.

먼저 완도전북주식회사 현황입니다. 완도전북주식회사는 2009년 4월 1일 완도읍 농공단지 8길 11에 공장면적 3,898평방미터, 부지 6,611평방미터로 설립되어 종업원 39명과 자본금 89억 1,778만 5,000원에 발행주식 178만 3,557주, 주주 1,234명에……우리 군은 33%의 대주주입니다. 완도전북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완도전북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매출실적입니다. 2017년 매출실적은 활전복과 가공전복을 포함하여 502억 2,500만 원이며, 2018년 상반기 실적은 활전복 293억 1,500만 원입니다. 최근 2년간 재무재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출자한 어업인의 원물구매 현황은 2017년 출하주는 132어가이고, 2018년은 6월 30일까지 144주주에게 원물을 구매하였습니다. 통계상으로 주주에 대한 원물 매입비율이 낮으나, 고령주주들의 양식장 자녀이전과 가족이더라도 납품자 및 주주 명의자의 상해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도 많아, 실제로 주주 30% 정도가 전북주식회사의 전복을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유형별 가공제품 및 판매실적은 보시는 표와 같고 매출비중은 냉동제품, 통조림제품, 파우치제품 순입니다. 가공제품 제고 현황과 1일 폐사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고 폐사한 전복은 농사퇴비용으로 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가별, 제품별 수출실적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9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활전복 비중이 80.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부실채권 발생현황 및 회수계획입니다. 부실채권은 악성채권 3억 7,610만 2,679원과 거래중지채권 7억 1,906만 5,010원으로, 부실채권은 2013년 이후 3억 5,000만 원 회수와 7억 3,00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며, 고액 부실채권 4억 9,700만 원은 전문 추심업체 추심 의뢰 중이며, 회수불능 악성채권은 대손상각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도전북주식회사 설립취지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전북주식회사는 전복 판매의 덩 문화 개선과 결제일 단축 등에 기여한 바 있으나, 완도전북주식회사 설립취지를 살리고 전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공공성 확보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전북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단장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제가 언론에서 듣기로는 변환소 문제, 돈사 문제, 전북주식회사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전복 그…… 가격 하락에 있어서 거기 중심에 전북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왜 중심에 서있었을까요, 전북주식회사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때 전복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을 못했기 때문에……

□ 최정욱 의원

그것에 대해, 우리 단장님은 그때 부서담당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도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어민들이 왜 출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출자를 하면요, 개인들이 회사에서 출자를 하라고 하면 누가 할까요, 안하겠죠. 농·수협을 봐도 농·수협을 봐도 출자를 해달라고 조합원들한테 하면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가들이, 어민들이 한 1,200 정도 되죠, 1,200어가요. 왜 했겠어요, 다 자진해서 다들…… 무슨 말을 믿고 했을까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리 군에서 33%라는 출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의지했지 않겠느냐, 신뢰 차원에서……

□ 최정욱 의원

출자를 해서 한 것은 아니죠. 우리 군에서 직접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전복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또한 유통질서에 대해서 완만하게 잘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담겨있었고, 또 어민들은 ‘기르기만 하면 판로는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 그렇게 해왔을까요, 전복주식회사?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약간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공공성이 미진한가요, 아니면 우리 어

민…… 전복을 키우는 양식어민들한테 부족했는가요. 공공성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복주식회사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봐야죠, 안 그래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런데 현행 법률체계가 상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 상법규정이 언제까지인데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주식회사의 어떤 기본 법률이 상법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 최정욱 의원

그 상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것 참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출자를 하고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어요. 우리 어민들이 출자하는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군에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대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이에요. 본의원은 전복주식회사에 대해서 사실은 군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건상 안 돼서 지금 단장님께 하는데요.

(집행부 좌석을 보며)

이 질문에 대해서 단장님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감사를 받았죠, 전복주식회사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 감사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이 답변하려면 하세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작년 11월에 감사원 광주분서에서요. 기

관운영감사 때 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 지적사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련한 법률에 보면, 18조에 보면 매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렇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 그런데 그것이 미이행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정관에 규정이 없이 임의적으로 지급을 했다. 그 사항하고, 세 번째로는 매년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공시 때에 업무추진비…… 추진실적이 없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가 감사원 감사 때 지적대상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 전북주식회사 정기종합감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때도 뭐가 있냐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업계획서를 지적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전임 담당계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출을 안 해가지고 지적된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요. 2014년 3월 24일에 제정되고…… 시행이 돼서 제정이 됐어요. 그 후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왜 안 해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독려를 했음에도 아마 전북주식회사에서……

□ 최정욱 의원

그것은 독려로…… 독려로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군은 돈을 정부에서 갖다가 그 돈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지만, 주식회사 같은 곳에서는 이런 돈을…… 수익으로 해서 버는 곳은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만이 내년 예산을 가지고 내년의 사업과 진로 방향,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는가. 그래서 정말 수익이 얼마 창출이 되는가. 이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사업계획서예요. 그런데 이것, 그 법령에도 되어 있고.

이것 지적을 당했는데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안했다는 것은 뭐냐면 방치한 것이며, 또 전북주식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흥흥한 루머가 돌니다마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왜 군에서 방치를 해요. 이것을 몰랐던 것인지,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제가 9월에 경영과장을 맡고 나서 이사회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번 주에 공문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처리된 상태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중요한지 알았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중요하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중요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한번 더 묻겠습니다.

완도군에서 전복주식회사를 설립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설립취지는 전복어가들의 텃 문화 개선과 결제일 단축, 또 전복가격의 안정, 또는 우리 어민들의 권익보호, 이런 측면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전복주식회사 설립계획서를 한번 단장님이 검토하셨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받았습니까. 한번 거기에 전부…… 보셨어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첫째, 텃을 축소하고 (청취불능) 유통이익 및 유통비용을 절감한 후 생산자 수취를 올리고 소비자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이를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맞는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정관을 두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은 조금 그래도 도움은 됐죠, 주식회사가 있으면서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둘째,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담당하고, 우리 주식회사가 일반유통업체가 못한 부분을 주식회사가 앞장서서 수출을 개척하고, 그래야 우리 어민들의 수출활로가 터지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지금 일본 쪽에 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셋째, 전복소비 확대를 위해서 가공산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주식회사가 담당하기 위하여 전복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유통이나 활전복, 이런 것은 누구나 다해요. 우리가 전복주식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하지 못한 가공사업이나, 이런 새로운 신개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판매를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통조림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떤가요, 볼 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 최정욱 의원

아직은 미비하죠? (예)

그런데 언론을 보면 너무 막 많이 한 것처럼 가끔 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해야지. 항상 지금부터…… 들어보면 유통산업이나 뭐든 보면 금방 뭐가 될 것 같이 다들 떠들던데,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해야지. 어민들이 보면 기대하고 있죠, 그런 것을. 그런데 실질적인 실적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잘 좀 검토해서 발표를 할 때는 심각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9년차 우리가 했죠, 지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취지에 안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우리가 취지에 맞게 해왔는가요, 안 해왔는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군수님께서도 전복주식회사에 대해서 당초 설립취지대로 운영방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사실은 전북주식회사가 생겨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뭐 편차 등을 최소화하고 또 15일 내에 결제를 하는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에 해외시장 개척 및 가공산업에 진입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민들을 중심으로 주식회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었고 흥흥한 루머들이 나돌고 있는 이 시점에 주식회사에 대한 방향 결정을 지금쯤은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 최정욱 의원

단장님, 동의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 진로방향을 해야 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지금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근거 법률이 방금 말씀드렸드시피 상법하고…… 상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상법에 기반을 뒀으면 독립생산체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한다고 그러면 이 관련 법률을, 근거 법률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법령으로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한번쯤 보셨어요? (예)

보셨죠, 그러면 알겠네요.

지금 우리 단장님은 그래서 결론은 공익적으로도 가야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결심도 선 방향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설립취지대로 전북주식회사가 가아되지 않겠느냐, 그 방향설정을……

□ 최정욱 의원

확실하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면 질문자체를 내가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데 맞다고, 확실히 맞죠, 군수님의 의향도? (예)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공익을 우선한 주식회사의 진로를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 방향에 한정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설립 시 지방공기업법 상법에 의거 설립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지방출연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고 있죠, 맞습니까? (예)

맞죠, 지방출연법을 전북주식회사에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할까요? (예)

제가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동법규칙에 의하여 지방출자출연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임원 해임, 성과, 계약, 직원 채용, 임직원 등의 보수, 예산의 편성, 결산회계 등 검사 등에 대한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그전에 우리 상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법률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저 8쪽……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할 건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중식 후에 하려고요.

□ **최정욱 의원**

예, 그렇게요.

□ **의장 조인호**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가 공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공익을 위한 사업추진 시 군비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조례는 주식회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추경 때도 했지만 그런 근거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시죠? (예)

따라서 공익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려면 먼저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고 여기에 적합한 구조와 운영이 되어야만 주식회사의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본대안을 본의원이 검토해보면 행안부 질의에 의해서…… 지금부터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은 법령에 맞는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다 100% 대안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법령에 의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가야 그래도 전복주식회사를 관리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령을…… 지금 있는 법령을 다 검토해서 이 대안 제시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맞으면 “예.” 라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시고 이유를 대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주식회사 자본금의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주내용은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익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또 군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이런 내용이 법률에서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법 기관운영 법안에, 법률에 이게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알겠죠? (예)

둘째,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정관 개정 시에는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주내용은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한 내용, 그게 뭐냐면 우리가 2015년 전에는 법률에 어떤 내용을 못하게 되어 있냐면 임원 해임이나 또는 임원 등의 보수, 회계연도의 회계처리 원칙 등, 회계 등의 검사, 뭐 경영실적 평가. 이런 것을 그전의 법령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는 이 법령……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법에는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5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넣어야 만이 가능하다고요. 예전에는 법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이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법이 없이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근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법률.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리고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며, 분기별 추진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예산을 갖고 와서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만, 전복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벌어서 예산을 쓰고 얼마 벌면 적자가 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주식회사에서. 수출을 얼마 할 것이며 내수를 어떻게 하는데…… 대신 직원을 얼마 정도 써서 경비 총 지출을 하고, 이런 것을 떼다 보니까 잉여를 얼마 내겠다. 이 계획서가 나와야 우리 전복주식회사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복주식회사가 기존에 자기들이 해온 대로 보고하면 그것으로만 우리들이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자꾸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자율성을 주면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기별로 그것을 보고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러면 그것이 분기별로 파악이 되죠. 그리고 또 사장이 계획서에 의해서 했는데 적자를 봤다, 그러면 책임감이 따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고, 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해왔다는, 아주 잘못된 것 맞죠. 해야 된다고 보죠.

다음은 구조적 측면입니다. 대주주인 완도군은 이제부터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이사회 참여도 안 했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감사만……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이사회에 들어가야 우리 군에서 바라는 내용도 같이 토의해서 실행할 수 있고, 돌아가는 회사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가 되어야.

그런데 중요한 부분인 그런 것이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지만 지금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법률에 정해져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있죠? (예)

마지막으로 운영적 측면입니다. 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군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법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책임은 어디로 옵니까, 우리 군한테 오지 않습니까. 군수는 어찌네, 너희는 뭐하느냐, 우리 의원한테도 그 책임이 오잖아요. 결국 그렇게 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맞죠. 이제 단장님 이해가 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도를 보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래 개정과 정관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본의원이 설명을 쭉…… 대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구조적, 뭐 제도적, 운영방법에 대한…… 했죠? (예)

그것을 방금 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것을. 이러한 제안을 군수님께 보고한 후 11월 말까지 제정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아니. 해야 돼요, 이것을 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복주식회사의 이익과 공익성을 위

해서 어민을 위한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관과 조례, 이런 것 개정 없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없어요. 저쪽이 운영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11월 말까지 이것을 해서, 11월 말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11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1월부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맞겠죠. 그래야 내년부터 정확한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회라든지, 아마 총회를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길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2달 안으로 안 해버리면 내년 1년이 또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쨌든 11월, 12월까지 해서 사업계획서가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빠른 시일 내에…… 알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빠른 시일 내에 하면…… 그 뒤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세부적인 질문이 많습시다마는 그것은 여기서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부분별로 다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 33쪽입니다. 최정욱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전복산업의 실태를 보면 양식규모는 2,673어가 3,093헥타르에 칸수로 73만 칸입니다. 전복의 수출동향은 2017년 1,807톤, 2018년 9월까지 1,953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전복치패 종자 생산어가는 295어가이고 가공업체는 완도전복주식회사 등 9개 업체입니다. 전복유통협회는 완도군 전복유통협회 소속에 23개, 또 최근 설립된 남도 전복유통협회에 27개사가 종자생산, 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전복 종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분야입니다. 전복 적정생산량은 1만 125톤이고, 적정시설량은 54만 8,000칸입니다. 적정생산을 위해서 전복가두리 한 줄 비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자 및 양식 생산원가 분석 후 가격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작 및 생산력이 저하된 어장에 타 품종을 대체 개발하여 전복 생산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야입니다. 읍면 주요 관광지 내 전복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전복 가공공장 건립 및 활급냉순살전복 시스템 구축 등을 하여 전복의 판매처를 다양하고…… 수출용 물류센터 건립 등 해외시장 개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분야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공격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국내 대형 소비처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물류 거점지역에 수산물 소비자 직거래 유통센터를 운영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단장님 너무 전북주식회사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양식규모가 2,673어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제가 보기는 약 70% 이상이 젊은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완도로……

지금 원물 구매자금을 우리가 이 앞 업무 보고 때 한 200억 정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때 질의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희들이 그 수산물발전기금을 aT에서 취급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한번 협의했습니다. 거기 aT 답변이 수산양식……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2차적으로 지금 해수부에다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할까요, 아니면 하려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해야죠, 이것은 반드시 안하면 안 됩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런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우리가 그런 파동을 겪으면서 이런 대비도 안하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되겠죠. 의지라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만이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적극성을 갖고 다음 업무 보고 때 꼭 이 내용을 설명이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국내 대형전복소비처 발굴, 상품개발, 군납, 학교급식, 산후조리원 많습니까라는 오늘은…… 행정감사 때 조목 조목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답변을 끝내려고 합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36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체단체 출연·출자기관 관리 완도 수산물유통공사, 완도전복 직판장 시설사업, 주식 출자금 회수에 대한 경위 전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 수산물유통공사는 활전복 도·소매 및 수출을 위하여 민간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 방식의 상법상 주식회사로 지난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총 출자금 19억 5,000만 원으로 완도군이 4억 8,700만 원인 25%의 지분을, 나머지 15%인 14억 6,300만 원은 민간에서 출자를 하였습니다.

출자금 출연 배경 및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도산 활전복을 유통단계를 줄여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초기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식당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당시 감사원, 완도군 의회 등의 감사를 통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6년부터 최수철 대표에게 우리 군의 소액 출자자 27명의 4,700만 원에 대한

출자금 매수 청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2010년 대표이사가 4,700만 원의 소액 투자자 출자금을 매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의 출자금 4억 8,700만 원에 대해서도 공문 등으로 지속적으로 매수 청구를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매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 수산물유통 공사는 지난 2008년 화산산업개발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 법인은 사라졌으나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사무실이 비어있는 등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후 대표이사에게 우리 군의 출자금에 대한 매수 청구를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주주총회 개최를 통하여 법인 해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수산경영과 소관 군정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세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단장님. 우리 군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실패한 사업이죠, 이게. 그렇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당초에는 아마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는 그렇게……

□ 최정욱 의원

어쨌든 결론은 실패한 사업인 것이죠, 이게. 지금 보면 문이 닫아져 있다고 했죠,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보충설명은 제가 들었고, 또 찾아와서 설명한 내용을 받았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업무보고 때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설명한 대로 해서 꼭 보충…… 아니, 다음 업무보고 때 꼭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직제 순서에 따라 경제교통과부터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

- 경제교통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제8대 군의회가 개원하고 첫 군정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경제산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2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대한 질문이라 다소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8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등 총 3건입니다.

1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우리 군 추진현황과 취업지원 연계사업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 7개 사업에 8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2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청년일자리사업 등 9개 사업에 275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2쪽, 취업지원 연계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과 2018년 국비 3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 특화작물인 황칠과 비파, 해조류와 전복을 활용한 가공 실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80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이 중 18명이 취업 및 창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만의 공공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우리 군 공공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경제교통과를 비롯하여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일자리와 청년일자리사업 등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고용창출 사업으로 일자리 상담사를 배치,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여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식, 도소매 및 숙박업 등 경영 애로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지금까지 지역 특화자원인 전복, 해조류, 황칠, 비파 등에 대한 가공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가공실무교육과 연계한 마케팅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마을로 사업과 민간취업연계형 청년 내일로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 청년들이 청년 일자리 사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우리 군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17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8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억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가장 큰 것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당초 우리 계획은 마을기업 신청을 신규로 하나 받고 재지정을 2개 신청하기로 했었는데, 재지정만 하나 신청하고, 신규하고 재지정 하나가 신청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제 아까 나머지…… 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나머지는, 공공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는 사회참여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좀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창업취업아카데미 운영에서는 전액이 다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하고 일이

좀 중복되는 사업이었고,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키워드가 일자리 창출이죠? (예)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했을 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장님의 전반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고 또 하나는 인구 늘리기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 공공형 일자리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일회성 일자리로 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엇그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단기적인 일자리를 5만 9,000개를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일회성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2년 동안 54조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의원

보면 젊은…… 귀농하시거나 귀농, 귀어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참 많이 물어봅니다. 와가지고, 막상 도시권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수산 뭐 조금하다가 남은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한 1개월 본연의 일을 하면 7~8개월 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우리 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가 많이 넘쳐난다고 봅니다. 넘쳐는 하는데, 사업현장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없고,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로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현장 인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문제가 뭐냐면 편한 자리, 좋은 자리, 그냥 힘 안들이고 약한 노동을 하는 자리.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개 사업인데 10억을 지원해가지고 27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랬죠? (예)

그 마을기업에 10명인데, 우리 군에 마을기업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우리 군에 마을기업이 9개가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사회적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사회적기업은 4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고 3개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는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죠? (예, 그렇습니다)

8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18명이 취업과 창업을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

니다. 창업 내용은 무엇이고 취업지는 또 어디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우리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80명이 이수를 해서 7~8명이 창업을 했는데, 창업 전에 취업을 했는데. 대부분 파악을 해보니까 수산물 유통, 또 수산양식, 이런 쪽에 많이 창업을 하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창업을 해가지고 큰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하던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취업했으면 그런 부분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가지고 창업도 하고 취업은 했는데…… 창업해 가지고 애로점은 있고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일, 중간에 관두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전남 동행일자리사업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죠? (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바이오센터에서 지역산업형 일자리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따라서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산업도 맞춤형 일자리나 전남 동행일자리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주시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분야에 대해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

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수익도 올리고, 또 우리 공공서비스, 이런 쪽에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하다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가야되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법인도 조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유치나, 이렇게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들어옴으로써 인구 늘리기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이 갈 수 있는 일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소상공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 분포를 보면 농림수산분야가 21.21%, 사회복지분야가 18.96%입니다. 그러면 산업중소분야는 몇 %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산에서?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정확하게……

□ 박인철 의원

1.48%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민, 어민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그런 경영 애로사항을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금년에 실시해서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또 어떤 쪽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했으면,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지원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 질문·답변 시에도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딱 있는 것은 경제산업과에서 읍사무소에서 소상공인들이 군수하고 했든, 과장하고 했든 간에 미팅한 번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동군수실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국감 중인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최대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국감 중인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최대 이슈.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소상공인 대책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중점사항인 소상공인 중점대책은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우리가 오늘 4일째, 쪽 질문·답변을 합니다마는 거의 해조류와 전복입니다. 5만 2,000 인구분포도를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도 보듯이 1.48%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은커녕 관심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동군수실을 할 때 맨날 어업인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답변…… 전년도 질문·답변에서 해서, 딱 한번인가 소상공인들하고 마주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저도 소상공인 관련 대표입니까, 회장님…… 한국관 식당대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잘 모임도 안 되고 활성화고 안 되고, 그런 모임이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군에서 무슨 요구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모임 자체가 잘 안된다고 애로사항……

□ 박인철 의원

그것은 소상공인 모임이고요. 국장님, 그런 모임을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굴해 나가야 된단니까요.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그런 사항을 들어보기 위해서 컨설팅을 주로 하겠다는 계획을……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국장님, 지금 시중이 흥흥하죠, 우리 행정

에 대해서?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경제도 안 좋고……

□ **박인철 의원**

그 불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조류를 하는 사람들은 해조류 하는 사람들대로……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앞으로……

□ **박인철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전복을 키우는 사람들은 전복을 키우는 사람대로, 또 우리 완도읍의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한번 인터뷰해 보십시오. 아우성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내고 지원책도 조금씩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봐보십시오. 이번에도 태풍이 2개가 오고 갔는데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발 빠르게. 또 우리가 내년…… 뭐 올 12월 달에도 `19년도 본예산을 보겠지만,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방파제, 물양장, 도로에 엄청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조금만 쪼개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만큼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실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하여튼 이동군수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

는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본의원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잠깐 자료를 한번 수집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영양군에서는 환경개선 특례보증제도 상품권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생애 단계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양산시에서는 공무원이 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관내식당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나 양산시는 특례보증, 이자보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한테 이자보전은 지원해주죠, 보험도 지원해주죠? (예)

소상공인 전혀 없어요. 제주시에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행정 수혜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예산 안 묶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거의 예산이 확정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발굴을 하십시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남신용보증재단 1년에……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1억씩……

□ 박인철 의원

1억씩 출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7,500만 원도 출연하고 있죠, 1년에 출연금으로.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한번 이것 모니터링을 해봤습니까, 어느 정도……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금 알기로는 한 800억 이상……

□ 박인철 의원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합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하고요. 내년도부터라도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서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에…… 다 군민의 일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다음은 3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현황입니다. 선박 입항실적은 2016년 8,216척, 지난해 5,560척, 금년 9월 말 현재 3,109척이 입항하였습니다. 어획량 감소에 따른 조업일수가 축소되어 입항하는 선박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단별 입항 및 조업시기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업선단이 완도항 입항에 따른 개선을 요구한 선박 접안장소 증설 및 구간조정, 선박 급유 공급 및 위판장 운영 개선, 선박 접안비 및 크레인 사용료 균일가 적용 등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금일수협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통하여 개선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인센티브 지급현황입니다. 완도항에 입항하는 조업선단에 대하여는 식수 1차당 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얼음 1각당 3,000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으며, 9월까지 인센티브 지원액은 총 1억 1,1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선단 1척 입항 시 예상 지출비용은 면세유, 부식 및 생활필수품, 선원경비, 숙식 등 총 2,54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경제적 효과는 2016년, 2,086억 원, 2017년, 1,412억 원, 금년 9월 현재까지 79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주낙 정리, 멸치 건조, 고등어 선별 작업에 따른 매년 평균 429명, 61억 원의 고용 및 인건비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입항은 완도군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니까 7개 업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 어떤 선단이 주로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채낚기랄까 통발연승이 가장 우리 지역 선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제가 조사해본 결과, 씹씹이가 큰 업종은

주로 통발이나 연승업종이라고.

그렇습니다, 우선 연근해 어선 완도항 유치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연근해 어선 유치활동은 어디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난해는 부산에 채낚기선단을 방문했고 또 대형 트롤선단, 그리고 통영에 있는 장어 통발수협을 방문해서 선단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통영 연승협회를 방문해서 선단 유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범성 의원

일단 많이 다니고 하는 것은 제가 기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 타깃 대상은 통발어선인 것 같습니다. 통발어선하고 연승어선들이 중심이 되어야 될 그런 것을 저도 파악했습니다. 이런 파악만 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번 가서 안 되면 또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통영시에서는 근해 어선 유치를 위하여 입항한 어선에 대하여 횡수별, 톤수별 유류대를 인상해서 해준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적극적으로 파악해보시고요.

실제 우리 지역에 씹씹이가 큰 선단이 통영에 꽃게통발이나 장어통발인데, 이런 사항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하게 강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완도읍내 소비 여건들에 참 엄청난…… 그런 여파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아직 그것도 파악 안 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2022년도까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 채낚기…… 면담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파악을 못하셨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때 제가 갔던 사항이 아니고 전임과장이 갔다 온 그런 사항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동어시장에 입항한 선단들이 지역항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은 전에 갔던 사람들이 전의 여건들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완도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검토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2,000억, 2017년도에는 1,400억 경제적 효과입니다. 보고 있는데,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제일…… 그분들이 완도항으로 지금…… 동진항에서나 아니면 조업을 하다가 완도가 제일 가까워서, 지금 유류랄까,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주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도항에 들어오는 기는 들어오는데, 일단 여러 가지의 부대시설이나 유류금들이 매우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유류 공급을 하는데 수협에, 신지 송곡항에 접안을 하는데 한 척하고…… 한 척 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하고 옆으로, 그러니까 두 척이…… 그런데 그 기름을

실으려고 기다리고 앞에서 뭐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엄청 열악한 현실인줄 아시죠? (예)

그 부분들도 잘 챙겨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고고에너지에서 현재 수협으로 돌려가지고 차가 한 대로 유류를 공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들도 깊이 있게 챙기셔가지고, 지금 기름 한 차로 운반을 하니깐 뭐 기름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말썽이 많은 모양이에요. 서로 받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많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뭐, 식수…… 지금 지원사항은 많이 있는데, 그 지원사항들이…… 뭐 많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추가 안할 사람은 한 명도 없겠쥬. 적재적소…… 그런 부분들의 파악들을 잘 해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계시고, 또 계속 유치하는데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연근해 선단을 유치할 방향이랄까,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방금 이범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합선단이 많이 있는데, 완도항을 끼리는 이유가, 우리가 작년에 또 금년 상반기에 통영이라든가 부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내용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선박 접안 및 하역이 불편하다. 그리고 급유시간, 또 강도 접안장이 불편하다. 또 세 번째가 입항 가격이 라든가 입항 운영시스템이 완도가 좀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선박 접안비, 그리고 크레일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다. 이런 쪽으로 조합선단들이 내놓은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유치하는데 저희들의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 이범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챙김으로써 뭔가 우리 완도항 입항에 많은…… 다른 선단들, 우리가 고등어선단들이랄까 지금 우리 완도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대시설,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약해가지고 더 들어와서…… 한번 들어오면 수십 척, 수백 척씩 오게끔 하고.

지금 진도로 간 꽃게통발 여건들도 아시죠, 원래 본…… 원초적인 것이 완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횡수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매립지가 아예…… 집이 하나도 안 지어졌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냄새가 난다고 쫓겨내다시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여건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랄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아예……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잘 들었고요. 본의원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고등어선단이랄까, 뭐 꽃게선단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신지면 물하태 해역에 선석, 거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에 부두 및 물양장을 만들고, 뒤에 부지를 매입해서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물하태에서 완도읍 쪽으로 방파제 시설을 한 400미터 정도 시설하면 천혜의 항이 조성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조성된 배후단지의 유류 및 얼음 공급, 하역시설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면 되겠고요. 이렇게 조성을 했을 경우 지금 입항하는 선단들의 몇 배가 들어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정확하게. 또한 400미터 정도의 방파제 시설은 완도항 (청취불능)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물론 이런 계획은 완도항 개발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되겠지만요.

본의원이,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의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실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꼭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완도의 살길입니다. 정확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우선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완도항은 근해 어선업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 부대시설만 보완한다면 선호하는 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했던 사항을 포함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현재 완도읍 상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경기침체는 물론, 관광객 감소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근해 선단들의 소비는 그나마 조그마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속가능한 소비원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다음은 6쪽.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해양생물 특화단지 관리 및 분양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 해양생물 특화단지 조성내역입니다. 완도읍 죽청리 1020번지 일원에 조성된 특화단지는 총 11만 228제곱미터 면적에 산업시설이, 7만 846제곱미터, 지원시설이 3,842제곱미터, 공공시설이 3만 5,540제곱미터입니다. 본특화단지는 지난 2011년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23억 4,000만 원 등 총 13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입니다. 2018년 2월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지원시설 6필지는 모두 분양 완료되었고, 산업시설은 18필지 중에 최근 2필지가 더 분양되어서 분양 필지는 11필지입니다.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입니다. 미분양된 필지는 산업시설 7필지, 약 3만 3,000여 제곱미터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분양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 죽청 농공단지 관리실태입니다. 1998년도에 조성된 완도 죽청 농공단지는 55만 9,000제곱미터로써 현재 122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100%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은 도로 7.2km, 보도 14.2km, 녹지 1만 6,000제곱미터이며, 사유시설물로는 건물 160동이 입주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년이 지난 현 농공단지는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와 사유시설물의 파손, 그리고 노상 적치물의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물은 농공단지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별로 자발적으로 정비토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공공시설물 중 보도 및 가로수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14.2km 중 12.2km를 도막포장과 화단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녹지는 1만 500제곱미터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내판, 가로수 정비를 실시하여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등 안전하고 활기찬 농공단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해양생물 특화단지 관리 및 분양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생물특화단지에 채무는 없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채무 없이 국비, 군비, 도비를 투자해서……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채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지방채 발행 없이 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보면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요, 필지 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산업시설 필지만 7필지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 최정욱 의원

9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7개라는 얘기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최근 2개가 더 분양되어 가지고 지금 분양이 안 된 것은 7필지 남았습니다.

□ 최정욱 의원

산업 필지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규정이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산업시설 필지는 일반수산물, 수산, 유통…… 이런 시설에 들어갈 시설입니다.

□ 최정욱 의원

수산물 유통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식품품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데,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분양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그런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 산업시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미비하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렇죠, 지원시설 같으면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남았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총 7필지 남았네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이정도 되면 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농공단지에. 혼자 좀, 누군가 상주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우리 전담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저도 농공단지에 주로 많이 있어 봤습니까마는 뭔가 체계적으로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있어 가지고 협회 구성도 하고 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무실만 있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방치할 것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뭔가 관리도 하고, 또 어떤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지 수시로 파악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야 거기에 대표들도 가서 차 한 잔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사무실은 예전부터 만들어놓고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쯤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우리 해양생물특화단지도 조성이 됐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게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봐야 뭐, 사람 한두 명이 있어봐야 큰 예산이 들지도 않고 그만큼 효과를 충분히 낸다고 보거든요. 꼭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민원 사항을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경제교통과장님.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쭈쭈 넘겨보십시오.

그다음, 또 다음, 다음. 위치는 아시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농공단지의 현실입니다. 한 쪽에서는 농공단지에 유통회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활어차를 실어놓고 있으니까 한 쪽 인도 가…… 인도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저기가 지금 인도입니까, 아니면 어디 산업니까? 올 여름 내내 작년에 쭈쭈 저렇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렇게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농공단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 네 분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에 한계가 있고, 공공시설 부지는 그 인력으로 관리가 되는데 개인들이 분양해서……

□ 박인철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저기 부지가 어디인지도 과장님은 모르죠. 공공부지인가, 아니면 개인부지인가 어디인지도 모르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공공부지인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저기 인도예요, 인도. 그냥 분양을 받아가지고 맨땅에다가 뇌놓은 것은 뭐라고 안 해

요, 자기 사유지니까. 저기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라니까요. 인도가 몇 년째 저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인도인지, 풀밭인지, 뭐 칩밭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렇게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봤는데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사진을 처음으로 돌려보십시오. 저기, 과장님은 어딘지 아시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해양생물특화단지예요, 저쪽이. 지금 분양이 6필지가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인도가 저 상태로 있습니다. 인도가. 공사를 하고 마무리하면 그 보도블록처럼 위아다가 배수구를 해주든, 아니면 다른 물줄기를 해가지고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있다 보니까 암반에서 내려온 흙물이 보도블록을…… 뭐 풀이 난 데는 저기를 뽑으면 되지만 저기는 보도블록의 일부분인데, 일추 보도블록이 다 저렇게 되어 있던데, 저 보도블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체를 할 것입니까. 저것은 뭐 닦으려고 해도 닦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는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보도블록 공사를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예요.

□ 박인철 의원

저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특화단지를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덜 분양이 되었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 박인철 의원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 현재 준공해온 저 상태라니까요. 사람 발자국을…… 한두 번은 걸어야 봤어야 되는데 걸어보지도 않고, 흰색이었는데 저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저것 조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비가 오면 도로로…… 저게 지금 층으로 되어 있죠, 저기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 박인철 의원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상태가 된 거예요. 배수로를 안하다 보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이것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이 풀베기…… 도로, 인도에 풀베기부터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루플래그는 깨끗한 물과 환경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는 해수욕장에 대해서 환경교육재단에서 국제적으로 인증해주는 것으로써, 우리 군은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국제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환경교육재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내년 2월에 심사 후 결과는 4월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5월 환경교육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국내 1호 신청,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예비단계인 파일럿 블루플래그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국제인증 취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블루플래그 인증기준에 적합한 안내판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금년 내 정비 또는 구입·비치하는 등 내년 1월 국제인증 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입니다.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국내 제1호 해수욕장으로 지역 브랜드 및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청정바다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풍경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수질과 해안의 품질까지 깨끗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지금 설명으로 들어보면 예를 들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크게 뭐 변화하는 것은 없겠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대효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블루플래그라는 것이 친환경적인 해변이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계절 피서객이라든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효과도 크고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이런 방안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런데 요즘 피서객들이요, 땡벌에서 물놀이 하는 피서객들이 별로 없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이제는…… 그래도 우리 명사십리해수욕장이 전국에서도 손꼽힌다고 소문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모래야 어디다가 내놔도 좋죠, 모래밭은, 물도 맑고, 좋으나, 주변에 즐길만한 것이 없어요. 즉, 놀이기구나……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사장 그 옛날에 쓰던 저수지가 하나 있죠, 그 위쪽에,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압니다.

□ 부의장 허궁희

거기 땅이 좀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옛날에 빙그레테마촌……

□ 부의장 허궁희

예, 거기다가…… 거기를 좀 하고, 몇 군

데 땅을 준비해서, 저는 스포츠단지를 그쪽으로 옮기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겨울이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야구부, 축구부. 그러면 어린 선수들은 부모가 따라와요. 엄청난 아주 그……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뭐 자주는 안 합니다마는 이렇게 몇 개를 해놓게 되면……

요즘은 접근성도 우리 완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접근성이 나빠서 안 된다, 어쩐다고 그랬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데 그쪽이 저희들이 빙그레테마촌을 조성하려다가 못했던 것이 성토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거기가 지대가 낮다보니까. 그리고 문중묘가 있어 가지고 문중묘를 매입하기가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테마촌 유치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던 부분이 성토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것, 문중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안됐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요즘은 거기 성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지금 독고재 고개를 파낸 흙으로만 해도 큰 비용이 안 들어요, 업자하고 이야기를 하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때 당시 검토는 그렇게 해서 못했던……

□ 부의장 허궁희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하반기라고 해도 그런 사업과 연계해 보십시오, 업체하고. 어차피 그분들은 흙을 실어내야 돼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일부 국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앞으로 테마촌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매립을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해서 준비를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어요. 저 개인 같으면 100%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 해수욕장에 그 맞추조물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블루플래그, 이런 좋은 국제 인증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녹이 슬어가지고…… 그것 한번 점검해보셨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이 지금 금년에 완료되어 가지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해서, 용역을 다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용역을 지금 금년에 발주를…… 10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맞추조물을 대신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금년에 철거하고 내년에 개장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여러 가지로. 명사십리변영회라든가 상가협의회라든가, 그런 협의회를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용역결과에 맞게 믹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철거 후 계획은 아직 확실하게 세

우지 않았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철거는 하는데, 철거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민박 밀집지역을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꼭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집을 한 두 채 판다는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군의 입장은 어떤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2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싱싱콘서트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싱싱콘서트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400만 원 증가한 2억 6,000만 원으로 예산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최 성과 및 관광객 유치 실적입니다. 토요싱싱콘서트는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라 동부권 주민과 관광객을 완도읍권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7회, 금년에는 6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쪽, 연도별 관람객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관람객 8,910명 중 관외 관광객은 46%인 4,090명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해조류박람회 개최효과와 장기간 운영으로 1만 4,12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이중 관외관광객은 54%인 7,57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특색 있고 지속적인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완도 인지도 상승과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지역 예술인의 공연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문화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복경매와 무료시식회 등 특산물 홍보와 판촉활동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토요싱싱콘서트 주말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기별·테마별 차별화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은영화관, 언론·SNS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와 대도시 단체 관람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싱싱콘서트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싱싱콘서트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보고서처럼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토요싱싱콘서트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량 놀토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광객이 상당히 몰려오는 것이지. 단기간에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그럴 것도 같기도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또 넘겨주세요, 또 한 번만, 더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는 완도 싱싱콘서트고 앞에 본 2개의 화면은 마량입니다, 마량 토요일마당.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비교하시라고 찍어온 것이고.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75%가 나왔다고 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75%로 나왔나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매주 계열사에서 알바생을 고용해가지고 계측을 해서 나온 설문조사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계열사에서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한 것이 정확할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저희들이 지난주에……

영상 내려주세요.

지난주에 여수로 저희들이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녁에 포장마차를 가봤어요. 그런데 너무 포장마차에 손님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가보니까, 국장님도 가보셨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저는 가본 것보다도 그런 언론보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다가 소주 한 잔씩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우리 완도보다 여건이 너무 안 좋고 별로 아름답거나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완도는 정말로 그렇게 해놓는다면 너무 너무 좋고 잘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국장님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여수는 ktx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완도보다 접근성이 훨씬 낫습니다. 완도는 접근성이 열악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여수보다는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2회째 이렇게 했는데 3회째, 4회째를 거듭하면서 좀 더 마량 놀토처럼 정착되어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적극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물론 여수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수는 원래 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는데.

사실 완도에서도 이 싱싱포차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완도를 우리 주민들도, 고금 사람들도 마량을, 토요일에 거기 가려고 아예 일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완도까지 누가…… 아직 홍보도 덜되고, 또 누가…… 그때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여름에 한번 와봤더니 주위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정말 마량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5만 원권 경품을 20장 발행하거든요. 그리고 단체로 오면 경품으로 안하고 그냥 또 이렇게 한두 장씩 줘요. 그러면 5만 원짜리 하나 경품에 당첨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버스가 한 대 오면

20만 원씩 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버스 한 대가 오면 그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 여행사들을 통해서 고객을 모객해서 오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지금…… 물론,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전혀 안된다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아예 이것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연구시설로 주무대로 설치한다고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진짜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많이 편성해 가지고 제대로 하게끔 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어설픈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도사람들이라도 ‘진짜 여기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대로 하시려면 하시고, 국장님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보다 발전적인 콘서트가 그런 콘서트가 되도록, 토요일콘서트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거기는 가수들도 상당히 이름 있는 가수들이 와요. 처음에 자리를 잡기까지 정말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이것으로 해가지고 단 순하게 돈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완도에 가즈아.”라고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도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자리매김을 하고 친구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하다보면 이게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시려면 국장님께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4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슬로시티 종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슬로시티 지정 후 자체평가 내용입니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청산도 슬로길이 세계 슬로길 1호로 지정이 되었고, 슬로걷기축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회 개최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 봄 걷기 축제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청산도의 구들장논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고 2014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으며 2014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 중 3위, 특히 도내 1위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전라남도 대표 관광지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2016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2017~2018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 되는 등 지역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산도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산도는 슬로시티 지정 10년이 지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슬로길 11코스에 대한 재정비 사업과 스토리 텔링화를 위해 8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도서개발 10개년사업으로 62억 원을 투자하여 용역결과에 맞춰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년째 유채와 코스모스로만 이뤄진 경관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봄동, 메밀, 핑크몰리 등 다양한 초화를 식재해서 색채경관을 새롭게 디자인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흥리 갈대 숲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9억 원을 투자하여 청산 슬로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범바위 명소화사업, 파시문화거리 정비사업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고, 사계절 특색 있는 테마상품 개발과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추진 등 체계적인 홍보도 병행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청산도 해양치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들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주민 관광마인드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슬로걷기축제 10주년 성과분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8 우리나라 대표 봄 걷기축제인 슬로걷기축제는 주말 기간 잦은 안개 및 풍랑주의보 등 좋지 않는 기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8만 3,100명이 방문하는 등 국내 슬로시티 지역 중 가장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슬로걷기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 현황을 보면 금년에는 2015년 대비 8.3%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04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연도별 청산도 관광객은 지난해 34만 4,000여명으로 2007년 9만 2,000여명 대비해서 2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시설 또한 2018년 119개소로 2008년 20개소 대비 99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슬로시티로 지정되고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하면서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슬로시티 지정과 슬로걷기축제의 문제점은 한정적인 관광 연령층과 기상악화로 인한 입·출항 제한과 그리고 청산도 내에 교통 불편사항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슬로시티 인식과 주민 소득창출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슬로시티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화리, 진산리 등 청산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앞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서 청산농협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청산도 내 순환버스 확대 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기상악화에 대

비한 항만터미널 주변 행사 및 완도읍권 주변 관광지 안내로 관광객 불만요소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주민소득 연계 상품을 개발해 주민이 참여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권역확대에 따른 종합계획입니다. 청산도는 2007년 12월 1일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받은 이후, 매 5년마다 재인증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과 금년 4월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 2차 재인증은 슬로시티 지역을 청산도에서 우리 군 전 지역으로 확대 인증한 것으로써, 현재 전지역 확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기본계획 주요내용입니다. 군정방향과 정책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슬로시티 단계별 5개년 관광자원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권역별 슬로시티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슬로시티 발상지로서의 청산도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산도를 중심으로 제2, 제3 거점지역을 지정해 우리 군 전지역이 슬로시티 이념에 맞는 공동체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슬로시티 종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슬로시티를 한지 10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청산도 슬로시티가?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방금 자체평가 내용을 제가 말씀을, 설명

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봄 걷기축제로 발돋움을 했고,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 자원이 발굴되었습니다. 구들장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굴되어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농업유산으로도 등록되고, 또 세계슬로길 1호로도 지정되고, 특히 가장 큰 것은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역경제에 큰 성과를…… 활성화하는데 큰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관광객이…… 자꾸 국장님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전체 내지는 거의 그 상태죠.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청산도로 해가지고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습니다. 별다른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0년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청산도 슬로길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완도 전권역을 슬로시티로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산도 분들은 소외를 받을까봐 안절부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많은 문의가 왔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문제점과 대책들을…… 여기에 나열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제는 획기적으로 청산도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손을 떼야 될 시기입니다, 10년이니까. 언제까지 청산도에만 이렇게 투자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봐보면 청산도 쪽에 우리 관광객이 있는, 관광지가 있는 보길도나 뭐 생일도, 소안도도 가고 싶은 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비하면 월등히 투자액이 많습니다. 한 면에다가. 관광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청산도에 거의 치우친다, 용역도 거의 청산도 쪽에다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것은 별

로 없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맞습니다. 그 부분은 청산도 주민들이…… “행정에서 손을 떼야 된다.” 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청산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 이질감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뭘 대가를 안주면 참여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이질감이…… 주인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지금 당장 그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더 끌어야 된다는……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국장님, 여기 설문조사해 가지고 산출근거라고 해놨는데 1인당 12만 6,337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청산에 있는 주민들의 호주머니로 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몇 부류만.

물론, 청산도 말썽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느린섬 학교부터 해가지고 재단에 문제가 많죠, 정리가 좀 되어 갑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저도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관여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어느 정도 우리가…… 물론 청산도가 완도읍에서 단일노선이어서 청산도로 들어가면 그분들, 관광객들이 완도읍으로 와서 또 완도읍에서 노화나 보길로 가고, 또 고금 쪽으로 나가고 이러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청산도에만 목매어있을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말씀도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산도만 완도읍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나올 데가 완도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34

만 명 선에서 정채되어 있는데, 슬로시티로 지정되기 전에는 한 9만 명 선에 있다가 34만 명 정도 왔는데.

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청산도 색채경관 디자인사업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소외된 동부지역 진산리, 국화리 쪽도 여러 가지로 보완해서 그쪽 주민들이 소외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청산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다 좋습니다. 청산도도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작년도 질문·답변할 때 동부권 화홍포에서 들어가는 여객 수를 봐봤어요. 우리 주민들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런데 청산도보다 월등히 맞습니다. 내가 항운…… 해운조합에서 뺏던…… 우리가 도선을 하고 선박들을 예매해서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산양진에서 노화로 들어가는데, 땅끝에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빼고도 화홍포에서 가는 것이 청산도에 들어가는 것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면 청산도도 좋지만, 우리 보길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길도가 10년 이상 정채되어 있죠, 청산도가 뜬 만큼. 예산도 빠져있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보길도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산도가 뜨기 전에는 보길도를 많이 찾았는데 청산도로 옮겨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길도에 관광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저는 청산도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국장님. 완도읍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동부권, 남산면을 두루두루 우리 관광으로, 관광벨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대답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가고 싶은 섬도 생일도도 있고 소안도도 있고 여서도도 있고, 앞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잡아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전권역이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거기는 그 나름대로 10년이 됐으니깐 해나가면 됩니다. 또 다른 우리가 먹거리를 발굴해 가지고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보고대교가 개통되어가지고 금일이나 약산, 금당 다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완도읍에서 1시간이면 다들…… 2시간, 3시간이 걸렸던 거리가 1시간이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좀 같이 분산해 주고요.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11월에 장보고대교 개통을 했죠? (예)

장보고대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동부권 아니면…… 우리 동부권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동부권, 경남권 일부 권역이 완도읍으로 관광객들이 유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용역 같은 것을 실시해봤습니까, 관광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용역은…… 실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남보다도 대구 쪽, 경북 쪽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도 장보고대교 개통이 안됐을 때도 완도읍에서 기존노선으로 가도 3시간, 3시간30분이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장보고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월등히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객도 청산 슬로시티, 이런 것과 더불어 유입을…… 대구 쪽

으로 많이 옵니다. 이제는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죠, 타워에서 상산까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역개발과.

□ 박인철 의원

아닙니다, 문화관광과로 안 왔습니까?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 이것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관광정책과장 정인호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하고 있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결과가 연내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 박인철 의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상산까지 케이블카를 떼고, 상산에서 우리 해안선을 건들지 않는 해안가로 해가지고 명사장까지 모노레일을 깔자. 그래서 명사장도 살고 완도읍, 신지 전체에 동부권까지 같이 어울리자고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 부분은 중간보고회 때…… 어차피 상산 케이블카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승차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현재 공원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주신 의견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쪽 용역팀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예다가 만약 케이블카가 놔지면 타워를 구경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신지로 넘어가서 모노레일을 탄다면 최소한 한나절은 관광객들을 완도읍예다가 묶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업이나 또 오 후에 오시는 분들은 완도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같이 병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슬로시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완도읍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송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요트 계류장인데 옛날에 퇴직하셨 습니다마는 이주찬 과장님이 당시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업무보고 때나 질문답변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처리를, 물론 도에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이 태풍이 지나간 후 도하고 과장님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도하고 의논해가지고요, 도에서…… 일단 저희들 입장은 저희가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완도항의 정원도상, 완도항은 태풍이 오면 배가 피하는…… 완도항에 정박된 배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항을 갈 정도로 정원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고, 지금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파손 났기 때문이라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해수부하고 최종 조율 중인데, 도에서는 조만간 이쪽과 관련된 해양구조대라든지, 저쪽 레포츠라든지 바다산업에 관련된 분들과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최종 조율한 다음에 해수부하고 최종 설득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여기가 태풍이 와서 파손이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너울만 있으면…… 금방 아홉 차례 교체했다는 이것이지요. 너울만 와도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완도항이 선석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고 나서 우리 군의 청소선이 도교를 띄우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같이 댔습니다. 또 앞이 완도 마이스터고 청해진호가 항상 거기에 접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석 부족도 있고 이것, 전혀 맞지 않는 장소에다가 이 요트 계류장을 했습니다.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요트 계류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비가 들어가 있던데.

그래서 이것은 꼭 도하고 의논해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해서 우리 어민들이 이 부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8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고 싶은 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군 가고 싶은 섬은 소안도와 생일도, 여서도 등 3개 섬으로서, 사업비는 각 섬별 5년간 동일한 40억 원이며 주민소득사업과 탐방로 구축, 경관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에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소안도는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19실의 규모를 갖춘 미라펜션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을 완료하고, 10월에는 풍경카페 및 특산물 판매장 신축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탐방로 구축 및 경관 정비사업으로 비자에서 북암간 대봉산과 미라 아부산 둘레길을 개설하였으며, 내년에는 소재지 환경정비를 위해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쪽, 생일도는 지난해부터 13실의 규모를 갖춘 금곡펜션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 그리고 용출리 게스트하우스 신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까지 6km의 섬길 개설을 완료하고 지난 9월 생일케이크 상점물 설치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여서도는 올해가 사업시행 1차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고 싶은 섬 관광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가고 싶은 섬 관광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과 스토리텔링 북 및 안내 지도를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활용,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고 싶은 섬 5개년 계획에 따라 1차년도는 자원도 조사 등 사업구상을 하고 2차년도에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그리고 3차, 4차년도에는 주민 소득시설 확충, 5차년도에는 깨끗한 마을가꾸기를 위해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음은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추진 방안입니다. 주민소득과 연계해 추진한 소안 미라펜션의 경우 통계착오가 있었습니

다, 죄송합니다. 연간 1억 1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생일 금곡펜션은 금년 8월경 오픈하여 여름철에만 1,8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일 용출 게스트하우스 신축과 소안 풍경카페 및 특산품 판매장 신축, 여서도 유어장 조성 및 해양레저체험장 조성 등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고 싶은 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의 지역이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었고, 5년간 4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하셨습니다. 소안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또 생일은 2000년도, 여서도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1년, 1년 차……

□ 김양훈 의원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1개 지역에 5년간 40억 정도 투자해서 관광객들을 얼마나 유입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안 미라펜션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되고 이용객 수도 보니까 약 3,0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소안 미라펜션 수익사업도 1억 100만 원 정도 올랐고 생일도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 관광객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고 싶은 섬’이라는 그런 브랜드 이름만 가지고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현황을 보니까 소안은 제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생일 금곡펜션 같은 경우 관광객 현황을 보면 관광객 수가 1,000명 정도 이용객수가 있다고 했는데 거의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고……

□ 김양훈 의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었고요. 그리고 생일 관광객들이 10만 명 정도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10만 명이 왔는데 학생들, 관광객 이용객 수 학생들을 빼고 몇 명이나 거기에서 주무시고 갔을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정확한 군에서 통계는……

□ 김양훈 의원

정확한 통계를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만큼 10만 명이 와가지고 생일에서 하루를 머무르고 가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왔을 때 생일에서는 경제적인 주소득이나…… 경제적인 효과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생일 특산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쪽 금곡펜션, 이 부분에다가 매장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보완되도록……

□ 김양훈 의원

지금도 생일도에 들어가면 도선장 옆에 관광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컨테이너로 있는데, 혹시 자세히 아시죠, 들어가 보

셨으니까. 안보셨습니까? (예)

지금 거의 흥물이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흥물. 그것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얼른 다른 데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특관장, 판매장, 뭐 안내센터라고 했는데 흥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관광객들에게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먹거리, 볼거리가 아납니까. 생일, 저는 소안은 많이 안 가봐서…… 해남권을 보면 잘되어 있는데 생일 같은 경우는 다녀보면 볼거리, 먹을 거리가 참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말씀들이 뭐냐고 그러면 가고 싶은 섬이 아니고 배고픈 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생일도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 김양훈 의원

생일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했었는데, 이게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놓고, 관광객들이 없을 때 그냥 음식을 준비해놓고 비용만 나가고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래서 오죽했으면 생일밥상패키지가 나올 정도로…… 그런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되면 지원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온 관광객들한테 배고픈 섬이 아니고 진짜 가고 싶은 섬, 한번 왔을 때 '다시 내가 찾고 싶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가고 싶은 섬이라고 해서 와봤다. 다음에는 볼 것이 없더라, 먹을 것이 없더라. 하다못해 자기네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들어왔는데, 돼지고기, 뭐 통닭 이런 것, 그것은 바깥에서 먹을 수 있다. 여기 섬에는 먹을 것이 없

다. 그래서 모 관광객들은 와가지고 집행부와 관광객들하고 같이 싸움도 했다고 했더라고요, 저녁 내내. 여기 특산품이 뭐냐, 먹을 것이 뭐냐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진짜로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그런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계속 분산투자하지 말고 지역마다 킬러콘텐츠를 1개씩이라도 만들어서 꼭 찾아오는 분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야 성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소안 같은 경우에는 항일운동의 성지이다 보니까 마을마다 태극기나 거리, 이런 모든 것이 행사할 때마다 태극기로 참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참 잘됐습니다, 잘됐고. 또 진산리에서 맹선리로 가는 도로의 경지도 참 좋습니다. 이런 것도 더 다듬어가지고 좀 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생일은 섬길 개설편이 있는데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 것도 킬러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서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서도 접근성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들도 한번 들어가려면 진짜 파도가 없고 잔잔한, 날씨가 좋은 날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접근성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고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은 됐지만 저희들도 가기가 어려운데 관광객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접근성,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자 이렇게 적어

봤었습니다. 여서도 같은 경우는 도서낙도 보조항로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항로입니다. 이 항로에서 완도에서 출발해서 청산 모도, 청산 장도, 여서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따라서 여서도는 청산도항에서 1일에 2번 정도 다닐 수 있도록 보조항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포 지방해양항만청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의 경우는 업체하고 이렇게 상주…… 어떻게 보면 농협하고 (청취불능) 쪽인데 그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야간에라도 한번 정도, 1회 정도 배가 운행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면 관광객들도 늦게까지 관광하고, 또 저녁에나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조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11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가을빛 여행축제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을빛 여행축제는 금년에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완도해변공원을 주무대로 완도타워, 완도수목원, 청산도 일원에서 공연과 체험행사 등 13개 테마 56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4번째 개최가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해변공원 주무대 행사장에 2억 3,500만 원, 완도수목원 가을숲 음악회에 1,5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방문객은 2015년 2만 9,600명, 2016년 3만 7,600명, 2017년 4만 7,500명

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축제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올해는 4만 6,5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사장소가 네 군데로 분산되어 주무대인 해변공원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매년 10월말 행사추진으로 날씨가 추워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며 다도해일출공원에 전시한 국화 개화시기가 맞지 않아서 시각적 효과가 미비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년 행사는 청정완도 싱싱포차, 그리고 오세득 셰프 쿠킹쇼, 완도자연그대로 가을장터 운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행사장별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행사시기를 날씨 등을 감안해서 10월 중순으로 변경하고, 국화를 사전에 종류별로 관리하여 행사시기에 맞춰 국화 개화시기를 조절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완도만의 강점을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문화 예술인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 참여도를 높이고, 완도 자연그대로 가을장터를 보강하여 특산물 홍보와 판촉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가을축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가을빛 여행축제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가 4번째 개최됐죠? (예, 그렇습니다)

가을이란 계절 하나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을 유인하려고 본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이제 뭐 작년에는 아까 보고…… 답변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작년 축제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이렇게 축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춥고 그래서 관광객이 조금 찾아오는 것이 적었고, 또 국화 개화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완도타워 같은 데는 관광객들한테 “너무 시각적으로 미비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개화식도 잘 맞춰서 국화가 피었고, 또 시기적으로 날씨도 별로 춥지 않은 가운데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 축제보다 발전적인 축제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시다마는 우리 지역민들은…… 일단은 모든 행사. 행사장이 여러 군데로 지금 분산되어 있으니까, 주로 완도지역민들의 평가는 완도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행사 여건들. “너무 썰렁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올해 관광차가 몇 대 왔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관광차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집계를……

□ 이범성 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팀장님, 관광차가 온 대수는 알고 있어야죠. 10대밖에 안 왔죠. 제가 일일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의……

아니, 고생은 하셨는데 유인책에 대해서, 관광차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까. 개인차를 타고 온다는 것은, 큰마음을 먹고 완도까지 온다고 생각합니다. 동백여행사가 아니면 어디서 하려고 안 해요. 과장님, 그것 이제까지 행사 꾸준히 같이 했잖아요. 그 관광차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엄청 불러드릴 수 있고.

아까 관광차에…… 국장님, 관광차 한 대당 얼마씩 뭐 그런 것이 있다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금 행사 축제장에 올 경우에는 내국인인 경우에 30인 이상 이렇게 숙박조건으로 해서 숙박……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음식을 또 한 군데 이상 식당을 이용하고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하는 조건으로 해서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니, 그런 많은 조건을 놓고 서울이탈까…… 제가 이제까지 보면 오직 하는 곳은 동백여행사 하나예요, 하나. 조금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아니, 전국에 여행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1박 2일인데, 당일치기로 관광차나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담당팀장 있음)

그것은 이제 다른 데에 마량에 갔다가 완도에 들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보다도 우리는 이 행사를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하든지, 팀장님이 근무하지 말고 돌아다니면 된단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는 담당팀장 있음)

그것 확실히 해줄 것이죠, 내년부터는, 이런 좋은 축제,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활동하면 충분히 끌어들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하려면 의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 행사를 봤을 때는 당신이 의원을 안 해야겠다고, 그 말을 듣는다니까요. 조금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제가 테마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데 우선 완도 국화전시는 관광객들의 좋은 볼거리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국화전시에 따른 소요예산, 그 축제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 이범성 의원

별도죠? (예)

제가 그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국화는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전시한 국화. 국화가 꽃이 피어서…… 아, 매년 삼목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국화 전시 및 연출, 이런 용역은 예산이 확대되더라도 좀 볼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올해 국화를 1만 8,000본을 전시했는데,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잘됐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보완해서 더 좋은 국화 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라고 할까, 소장님도 와서 계시는데, 좀 할 때 자리가 협소하면 하우스 한 동을 더 쓰더라도 좀 밑에서 내려오는 계단이랄까, 그런 부분들하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계단으로 올라다니는 관광객들이 하는 소리가 또 있습니다. 일출공원의 썰라인, 지금 타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 지금 그게 실은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참 잘 되어 있고 더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소리가 엄청 세서, 그 부분들이 소음 때문에 부담이 좀 되는데 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글쎄요, 소음관계는…… 한번 저희들도 확실하게……

□ 이범성 의원

예, 한번 여건들을 보완할 것이 있다면 소

음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혹시 없다면 팻말이라도 써가지고 소음이 좀 있으니 널리 양해해 주라고 해서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수목원 가을숲음악회, 제가 두 번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수목원 가을빛여행축제 때만 음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가을빛여행축제 때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목원 자체 예산으로……

□ 이범성 의원

그 부분들을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가을빛여행축제를 위해서 연중 동안에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그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끔. 예를 들어서 동양 최대 난대림으로 떠나는 주말여행, 뭐 그런 부분들의 여건들을 갖춰가지고 주말마다 와가지고 음악회를 개최…… 거기는 주말에 가면 꼭 음악회를 하더라, 내가 필요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난대림 속에서 음악을 듣고 오면 내가 1년을 더 살겠다, 그런 테마가 된다는 거 어떤 부분들을…… 국장님이 자주 다니면서 그 부분들을…… 왜 좋은 여건들을 갖추면서도 끌어들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좀 끌어들이게 신경을 쓰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수목원하다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해변공원 주무대가 제일 문제죠? (예)

토요싱싱콘서트도 이제까지 하면서 어디

자리 하나 못 잡고 있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팡질팡, 그리고 가을빛여행축제도 갔다가 금방 지었다가 뜯어버리고, 완도가 제일 부지 확보가 없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박인철 의원이 요트장, 부수계끔 그것 철거하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물하태 어항을 만들어서 지금 선석이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그쪽으로 해주계끔, 분명히 제안했죠? (예)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앞이 여수의 밤거리같이 완도의 밤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가을빛여행축제랄까, 토요일싱싱콘서트랄까, 그런 부분들이 밀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또 우리가 일회성…… 그냥 그 행사를 계속…… 지금 박람회부터 일회성 행사잖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일회성. 부지가 없다, 뭐가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일회성 비용들을 좀 어디다가 계속…… 뭐 주말에도 관광객들이 오면 즐기고 보고 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변공원…… 거의 정관조명, 그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행사를 할 때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수들만 와가지고…… 가수들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누구입니까, 감…… 아니, 그 가수 왔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최진희.

□ 이범성 의원
아니, 가을빛축제에 젊은 사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현진우?

□ 이범성 의원

현진우, 얼마 줬어요?

(「2,000」 하는 이 있음)

2,000?

현진우를 데려오는데 얼마나 들었냐고요.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하는 이 있음)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얼마 들었는가 알려주세요. 현진우가 꽤 비쌀 것이라고 내가 생각해 가지고.

그런 소모성도 가을빛여행…… 커플가요 제랄까, 참 잘됐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전부 다 확인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더 다른…… 뭐 커플만 아니라 80살 드신 노인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상품을 좀 주면서, 자, 80살 이상 10팀이 온다고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 이라고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장내 웃음소리)

의장님, 제 말에 웃으셨습니까?

아니,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웃음)

소모성 일회성 행사보다 볼거리, 체험거리들을 구축하여 관광객이 자율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기반구축에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잘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13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읍면별 특색 식단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읍면별 특색 식단 운영식당 현황

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친절한 서비스와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36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남도음식 고유의 맛과 멋을 간직한 3개소의 음식점을 발굴하여 남도음식 명가로 지정·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전통 음식문화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30년 이상 대물림 향토음식점 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6년까지 읍면별 특색 있는 메뉴로 음식점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가고 싶은 섬 소안도, 생일도에는 단품 및 간편음식 개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함께하는 생일도 밥상을 개발, 전시회를 가졌고 전복소비 촉진을 위해 유자·레몬·겨자로 만든 전복소스를 보급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생일 도시락, 택배로 받는 생일밥상 패키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 전지역 슬로시티 지정 확대에 맞춰서 읍면별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향토음식 취급업소를 공모하여 특화된 찬가지원 등으로 향토음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1월까지 우리 군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점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읍면별, 업소별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메뉴는 발굴하였으나, 레시피 보급이 미흡하고 가격 등의 이유로 음식점에서 메뉴로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의 보급 확산을 위한 레시피 보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다양한 홍보, 지원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읍면별 특색 식단 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완도에 보면 모범음식점 그래 가지고 완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정한 식당이 우리 특산…… 특별하게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을 하는 지정이 아니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살짝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남도 음식명가는 무슨 뜻이에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전라남도에서 방금 설명한 것 같이 도내에서 조금 음식문화운동 실천을 잘하고 있고, 또 영업장 면적이 50평방미터인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도화타운이라든가 보길도에 있는 바위섬식당, 이런 식당이 지금 남도 음식명가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되물림 향토음식점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되물림 향토음식점은 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30년 이상 식당을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되물림 식당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완도에서는 문화식당, 추어탕을 하고 있는 문화식당하고 청싹집이 되물림 식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전통음식점이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어떻게 보면 전통음식점입니다. 지금 생일도가 우리 특산품…… 뭐야, 전복 같은 것, 이런 식당으로 특색 있는 식당을 꾸렸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호응은 어떤가요, 지금?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생일도, 아까 가고 싶은 섬…… 김 양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야기가 됐습시다라는 식당이 없다 보니까 생일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이런 시군역량 공모사업에 생일도 밥상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전복이라든가 미역, 생선, 해조류 등으로 해서 생일도 밥상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그것을…… 판매는 안 하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생일면에서 뭐 어디 청년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식당이나 음식점을 줄 것인가, 업체를 줄 것인가. 선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생일도밥상이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그런 좋은 패키지 상품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저번에 읍면순회 때 갔는데 그 밥상을 받아봤거든요. 완성품은 아니죠. 그 밥상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 최정욱 의원

참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구색을 갖추
고, 패키지를 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것에 대해 질문을 했
거든요. 그것을 우리 완도나 이런 데에, 각
읍면에 해보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무슨 계획은 정확하게 없습니까. 계획만 있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보니까 읍면별로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

당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장수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그 식당..... 식당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특색 있는 메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도 완도만의 전통음식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충분한 그런 좋은 식당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5일시장, 거기 전복코스요리 분양은 끝났나요, 누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 데에다가 참 이런 것을 해서 넣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이라도…… 아마 다른 식당에 하라고 하면 안할 거예요, 쉽게 바꾸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연구개발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것 하나 모범적으로 식당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해주면서, 또 그런 식
당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같이 맞
춰서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어떤 방법을 찾으
면, 아마 할 사람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니
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완도의
 밥상으로 해간다고 하면, 아마도 그럴 사람
 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쯤은 이것을 해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관심을 가
 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관광과장님, 전복특화거리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준공 이후 확인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사진을 들며)

여기요, 내가 지금 사진을 못 올렸는데, 전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가로등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을 보며)

안봉일 전과장님, 확인했습니까. 우리가…… 이 전복특화거리요. 전임이 안봉일 과장님인데, 준공이 됐죠, 준공된 지……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 안 됐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전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0억입니다.

□ 박인철 의원

10억이죠, 하지 말라고 저것 반대했죠.

그때 처음에 할 때 도비 5억만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비 5억 더 넣었어요, 10억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가서 보면 특색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저것은 도에서 공모 사업인데, 실패사업인데 기존에 사업을 해놨으면 저런 태양광으로…… 밤에 불이 들어와야 되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저것 하나만 불이 안 들어오는 줄 알고 봤더니만, 전체 다 안 들어와요.

이것 정인호 과장님,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한 번만 안 들어오나 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들어옵니다, 불이 전체 다 안 들어옵니다. 이것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확인해서 바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불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29일(월) 09시58분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
- 경제산업국

□ 부의된 안건

<제5차 본회의>

-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경제산업국
 - 안전건설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09시58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부터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군민안전을 위한 관

리대책 등 총 4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안전전을 위한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층건물 화재 시 군민안전 관리대책입니다. 고층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 1호 19항에 의거,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상 11층 이상을 고층건물이라고도 하며, 우리 군의 10층 이상 고층건물은 현대아파트 외 8개소로 고층건물 현황은 3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완도119안전센터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실시하며, 해남, 강진소방서와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재진압은 건물에 설치된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진압이 가능하고, 전남소방본부 헬기로 인명구조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현안인 완도소방서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금년 5월에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에서 사망 및 상해등급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 재난발생 매뉴얼에 따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완도군 소화전 설치현황입니다. 완도군 소화전은 총 35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맑은물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며 읍면별 설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시 문제점은 옥외 소화전 대부분이 다중건물 밀집지역과 문화재 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서 및 주민들이 소화전 설치 건의 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관 50mm미만 지역 등 외진 곳에는 소화전 설치가 불가하여 화재 발생 시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옥외 소화전함도 고려하고 있으나 수압이 낮아 용수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매년 12월에 해남소방서 주관으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소화전 신설 요청시 반영해주고 있으며 추가로 소화전

이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안전을 위한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아침에도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호텔에서 불나고 아파트에서 불나고 계속…… 이런 안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죠? (예)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가 아닌 것이 안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맞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보고 혹시 국장님께서 느낀 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화재가 날 경우에는 골든타임 5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119센터만 있는데 우리 완도에도 빨리 소방서가 신축되어서, 긴급하게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바로 그것입니다. 본의원도 크게 두가지를 느꼈습니다.

저유소는 국가의 주요 시설물인데 그 조그마한 풍등 하나로 인해서 그런 큰 화재가 났

다는, 그 자체에 대해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렇게 허술할까.

두 번째는, 화재가 발생한 저유소가 작년 도에 안전평가 우수등급을 받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시범훈련까지 했다고 언론에 나왔던가요? (예)

그것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완도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국가시설도 안전에 취약한데 우리 군은 어떠한지. 그때부터 조금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고층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점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고층건물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시범훈련이나 이런…… 지역민들과 함께 해서,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엇그저께도 재난안전관리 훈련을 군민회관에서 인명구조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범훈련을 해서 화재라든가 재난발생 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 옥내에서보다는 옥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도 동참을 해서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물론,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큰 재앙이 없어서 참 다행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이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꼭…… 그런 주민안전대피에 대해서도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소화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화전 시설은 부족함은 없는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소화전은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소방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바로 바로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여기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야 해주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일단 다 모르니까, 어느 지역에…… 지금 353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이쪽이 좀 취약하니까 해주라.” 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행정이나 소방서가 조사를 해보고, 이런 곳에는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농공단지에서 사고가 한번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혹시 그 현장에 계셨나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니, 저는 못 갔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렇죠, 그때 계신 분들이 다 한결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용수도 안 나오고, 수압이 첫째는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있으나 마나다. 아주 지적을 굉장히 뼈아프게 하더라고요. 그것만 그러니까 용수만, 물만 잘 나오고 수압만 좋았으면 조기진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데 그게 아쉬움으로 남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그런 현실을 봤어요. 그러면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러니까 농공단지 이런 부분은…… 소화전 설치현황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사업소에서 아마도 대책을 잘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안전관리…… 사업소에서는 안 나오셨겠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니요, 저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 부의장 허궁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을 보며)

소장님, 한 가지 물을게요. 그 소화전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소화전은 현재 그 수자원공사, 완도수도관리단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도군이 얼마나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물론 전문직으로 나누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점검을 하나 하려고 보더라도 이렇게 이 과에서 저 과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것 농공단지 사건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봐서?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협조체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요, 국장님. 뭐 이렇게 누구의 탓이라는 이 말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는

‘아, 참 관리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되어야죠. 그래도 수입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한번씩 열어보고 그래도 뭔가 대비를 해놔야 이것이…… 겨울철은 다가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불안 하겠습니까,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아무튼 총괄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시점검을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화재 등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방서와 소화전도 점검을 좀 잘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안 하니까 이렇게 시설을 안 한다고 그런다면 소화전에 대한 점검도 소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꼭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상식이…… 나부터도 좀 부족합니다. 또 관심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래도 주관을 해서 한 번씩 더 점검을 하시고 검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의원 전에는 사실 못 느꼈었습니다. 못 느꼈었는데 의원이 되고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죠, 왜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할 때 사안마다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안일한 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검을 한번 하는데 서로 좀, 눈에 이렇게…… 말로 꼭

집어서는 못 꺼내지만 느낌으로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동안 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완도소방서 조기신축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잡어진 것 있습니까, 도 예산이 뒀든 우리 군 예산이 뒀든 간에?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도에서 10월 16일에 도 기획행정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지금 부지는 다 확보됐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부지는 19필지 중에서 2필지만 아직 매입이 안 되고 거의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안전건설과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줘가지고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쯤에는 틀림없이 발주가 되겠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내년하고 2020년까지.....

□ 박인철 의원

발주가 되어야 2020년까지 준공될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4쪽, 계속해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대교 진입 회전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보고대교 진입 회전교차로는 일부 구간 굴곡과 경사로로 인하여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차량통행의 불편 등 교통사고 발생이 상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을 위하여 완도경찰서, 신지번영회 등과 함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에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전라남도에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어깨 확장 1개소, 감속 유도 포장 2개소, 회전교차로 턱 낮춤 등 일부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부 개선사업은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절대 부족함에 따라서 회전교차로 3개 방향 중, 3개 방향 총 464미터에 대하여 1차선 추가확장을 통하여 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금년 12월 수요조사 예정인 국도 병목지점 6단계 개선 수정계획에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사업이 전라남도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항구적인 시설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대교 진입 회전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회전교차로가 생기기 전에 그곳에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설명…… 그 답변 중에서도 우리 지역 단체들과 많은 교류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아쉬운 점이 당초 설계변경부터가 아주 잘못된 도로입니다. 저게 사실은…… 국장님,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가진 줄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모르죠.

(집행부 좌석을 보며)

담당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당초설계에 대해서 설명의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렇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분장 때문에 다 바뀌어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 당사자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깊은 질문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런 데에 대응을 하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익산도로관리청을 제가 그때 같이 갔어요. 2시간 동안 제가 싸웠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시정하고 있는 회전교차로의 가운데, 회전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줄이자고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 줄인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답변이. 그런데 지금은 하더라고요,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금방 안 된 일이 금방 돼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너무나 아쉬워요.

왜 제가 주민설명회 얘기를 물었냐면 저도로는 미안하지만 우리 고금, 신지를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송곡 주민들 아주 소수가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송곡 주민들을 얹혀놓고 설명회를 한 도로가 바로 저 회전교차로예요. 제가 그래서 지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주민이 필요한지, 어느 대상자를 모셔놓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진행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무 필요 없는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다 느끼잖아요. 이 도로만큼은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러니까 이제 좀 일단 이것이 항구적인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15억 원 정도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일단 응급복구…… 응급차원에서라도 도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길 어깨를 일부 확장하고 유도포장 2개소를 하고, 아까 말한 회전교차로 쪽 턱을 조금 낮추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 부의장 허궁희

예,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익산청에 가서 목소리가 쉬도록 고함을 치고 싸웠던 부분,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한 300~400미터를 신지 전용도로로 주라. 개설해주라, 한 도로를. 그리고 완도로 나오는, 그 고금 쪽에서 완도로 나오는 차 도로를 쪽 길게 하나 빼주라. 앞으로 왜 그래야 되냐고 얘기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멀리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해양치유산업을 신지가 주…… 그것보다 뭐 주체를 놓고 본다면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쪽 설명하니까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대비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행정실무자들이 그 얘기를 했더라면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더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꼭 해 줘야 되겠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비를 더 거기다가 추가할 수가 없다.” 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준공된 후로는 바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님하고도 제가 그때 당시에 통화를 서너 차례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 과정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됐는가, 제가 사실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러니까 지금 회전교차로 3개 방향을 1차선을 더 확보해서, 그것이 464미터 정도 됩니다. 3개 방향으로 해서 464미터를 확장해서 신규투자해서 지금 할 계획인데.

그것이 일단은 병목 지점, 그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병목 지점 6단계 개선 수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방문했고 전라남도도 방문해서요. 이 부분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어요.

사진 한 번 띄워보십시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법에 위배되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통안전진단에서 위배라고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꼭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하고 안 맞는 사업을 해서. 그래 가지고 저게 지금 세 번째 작업이죠,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는 저기다가 중간턱을 또 났었어요. 그것을 한 마디 말로 일일이 깨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다음에 저쪽 신지로 들어가는, 이것을 보고 커브라고 하죠? (예)

그 부분을 그때 당시 익산청에서 그래도 사업비를 좀 줘서 거기를 늘리고 나서 사고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 공사인데도 저렇게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바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사진을 하나만 더 올리려고 합니다. 이 분야하고 약간 다른, 이 부분을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 설계가, 저게 무슨 설계냐면요. 어차피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신지 풍력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전 사용허가를 얻어서 당초에 설계…… 국장님, 설계도입니다. 복구설계도, 저게. 저게 2017년도 3월 6일에 나왔더라고요. 저기를 보면 콘크리트 포장,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청취불능)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왜 이것을 보자고 하나면 이 부분을 허가해준 당사자…… 그 관계공무원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묻고 싶습니다, 계시면 그 분한테 답변을 좀 부탁하려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복구담당 계장……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제가 할게요.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당시 업무를 다루었던 분은 전부 다른 계로 가시고 안계십니다. 지금 허궁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꼭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 장 더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변경된 설계도입니다, 이번에. 여기에 보시면, 관심 있게 보시면 세면포장이나 이런 것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훼손이 되냐면 강둑에서부터 시작해서 동고리 고개까지 일주도로 전체가 파괴된, 훼손된 도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화조나 정화사업이나 더 이런…… 사업을 해도 도로가 꺼져서 사고가 발생되고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신지 같은 경우에도 먼 소재지에서 그 폐수관로사업을 하고 나서 땅이 꺼져가지고 사고도 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이런 관리네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설계변경이 우리 군에서 해주라고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의장 조인호**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담당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꼭 보고를 해주시고. 제 지적사항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대비를 하게 되면 업자들도 신중하게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요, 진짜 눈 가리고 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뭐 꼭 신지 분들만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저 도로는 장보고대교를 거쳐서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많은 읍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꼭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국장님 업무분장이 되어 가지고 일이 많이 늘어나서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5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외 달도 테마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도 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군외면 달도리 일원에 위치해 있는 테마공원은 1만 8,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51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말 완공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용 및 활용 실태입니다. 달도 테마공원은 역사공간, 체

험공간, 전망공간으로 조성돼 있으며 특히 개매기 체험장은 1만 5,000평방미터의 면적에 갯벌을 이용하여 맨손 고기잡이체험, 바지락 캐기 등 체험행사로 2013년부터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테마공원과 연계한 사업추진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노두길 100미터 조성 및 물놀이 시설 3억 원이 반영돼, 금년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토캠핑장시설 건의 여론에 따라 다목적 광장을 정비하여 카라반 5동에서 10동 규모로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오토캠핑장 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광장 내 그늘 조성을 위해 휴게쉼터 1동을 건립하고 해안 둘레길 약 700미터 조성계획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달도 테마공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테마공원을 운영하는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개매기 체험행사 등으로 수익이 적어 시설물 유지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시설물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외 달도 테마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달도 테마공원이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해서 51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만든 공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의 개발목적이 뭐였는가

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우리 테마공원의 조성목적은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이 관광산업을 접목해서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활용을 하고 잠재된 문화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자원화를 통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런데 국장님, 사업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저도 거기를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운영주체인 달도 마을 주민들도 수익이 좀 안 나오니까 의지도 없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렇죠, 관광객이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뭐 관광 인프라라든가, 주변관광지가 좀 없으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13호선이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이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현재 저 정도로 녹이 생겨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려주십시오.

저기가 지금 어디냐면 주무대입니다, 주무대. 그런데 저게 테크시설로 되어 있는데 자꾸 저렇게 빠져있어요.

또 한 번 더요.

저기는 지금 둘레길에 있는 것이거든요. 나무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저 정도입니다. 그 개매기 체험장…… 저것은 봤을 때, 나무를 심었을 때 일반적인 상식도 마찬가지로인데요. 고무바를 그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가지고 뿌리발이 성장이 안 되어요. 저렇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질 정도로,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진 됐습니다.

국장님, 달도 테마공원은 그냥 1년에 1~2번, 1번 내지 2번 개매기 체험장 때에만 거의 사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잡초만 무성하고, 그때 실질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만,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되어 허름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관리인을 하나 두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저도 개매기 체험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전 주말에 한번 사전점검을 해보니까 화장실도 조금 부실하고, 잡초 예초작업도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풀도 무성하고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달도마을이 지금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다보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런데 무임으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개매기 체험, 이런 행사가 수익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 수익창출이 안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5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방치되고 있고, 당초 테마공원의 개발목적,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보면 군외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된 로드길 개발, 오토캠핑장시설 검토, 광장 내 휴게소 쉼터 및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전부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답변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이제 민간투자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유치해보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캠핑장이…… 신지도 캠핑장이 있는데 당초보다는 캠핑장 운영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해서 시설하면 이것도 상당히 잘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니,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달도 부락에 사랑모임이라고 있어요, 청년회까지 전부 합쳐져 있는데.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설명회를 약간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광주에서 1시간 20분에서 30분이던데요. 아주 경관도 좋고 충분한 장소라고.

(자료를 들며)

그래서 우리 부락에서는 동의서를 받아서 서명 날인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요청하면

서. 이따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하여튼 국장님, 달도 테마공원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된 시설인 만큼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시설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억 원 중에 국비 25억, 군비 26억이 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4년도 7월 달에 처음 의회에 입문해 가지고 달도 테마공원하고…… 참 속된 말로 뒤로 자빠지고 왔는데, 51억을 들여서 해냈다는 것이…… 지금 보고서에도 5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 공모사업이 죠? (예)

1년에 2번, 개매기 체험행사를 하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1년에 2번씩 합니다.

□ **박인철 의원**

이 사업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개매기 체험은 저도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할 때 저도 한번 거기를 가 봤습니다 마는, 일단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 **박인철 의원**

국장님, 그 51억이라는…… 군비 26억을 투자해가지고 1년에 딱 2번 개매기 체험을 하려고…… 아니, 장좌리 장섬 같은 데에서 돈 10원짜리 한 장 없이 개매기 체험을 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여기 달도만 있습니까. 원동 첫마을 권역사업은 어떻습니까, 그것 지금 행정에서 안 맞게 지금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죠. 장좌리 청해진 권역은 어떻습니까. 신지 명사장 권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국비 50억을 받아왔다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전체 국비가 70~80%도 아니고 거의 반반 매칭사업이네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민들한테 누가 되고 있단니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김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캠핑장 같은 것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면 유치해서 그 쪽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 달도 테마공원도 일부러 찍지 않으면…… 우리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완도 사람들도, 저희도 모른다니까요, 찾아가려면. 이런 자리에다가 5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가서 51억 원을 투자했으면, 또 순군비 26억 원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가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업들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꼭 다시 체결해서 합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강진지사에서 해냈던 것들, 현장에 가면 다 부실투성이예요. 지금도 금일에서도 하고 있고 금당에서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우리 의장님 비롯 경우회 분들이 공사 감독관들한테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거의 공사가 부실입니다. 왜 저렇게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이렇게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하니까 피치 못

할 사정도 있더구먼요. 이 공모를 따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정도 있던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 **박인철 의원**

노하우보다는 우리 군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하면 훨씬 관리감독이 철저히 잘돼요.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나온 감독관 직원 1명이 여러 군데를 감독하더구먼요, 돌려치기하고 있더구먼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도 한 노화의 배수관로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군에서 직접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농림부나 이런 데에서 공모할 때 점수를 적게 받습니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거기까지는 제가 잘……

□ **박인철 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설계변경하고 그럴 때,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돈도 더 받아와야 되는,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까지도 제가……

□ **박인철 의원**

공사가 말끔히 잘되면 좋은데, 하는 공사마다 전부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감독하는 것은 다 하자투성이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공모사업 좋습니다.

우리 같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는 공모사업이 좋은데, 그 공모사업을 따와서 우리 순군비를 집어넣어가지고 할 때는 이 공사가 끝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본안질문하고는 다릅니다. 원동첫마을 권역도 봐보십시오. 군위면 분들이 거기서 처음에 첫마을 권역을 하는 그 목적 그대로 가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분이 가서 하고 있죠. 그 위수탁은 법에는 뭐 안 걸립니까. 그리고 그 위수탁 자가 군 외면예다가 어느 정도 돈을 내고 하고 있습니까, 원동리에다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 **박인철 의원**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잘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보니까 신지명사장 권역도 그렇게 하고 이 농촌개발탐하는 데에서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위수탁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위수탁 절차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 수탁자가 그 마을에, 아니면 권역단위에서 벌어가지고 얼마든지 내놓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총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받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파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는 꼭 그 공모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근에 계시는 분들이 그 공모사업을 함으로써 삶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금전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8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관내 위험도로 현황과 연도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77호선 위험도로 현황입니다. 국도 77호선 위험도로는 8개 지구가 위험도로 선형개량 계획에 반영되어 5개 지구는 선형개량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는 3개 지구 중 고금 진등지구는 공사 중으로 금년 10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고금 상정·대곡지구와 완도 화개지구는 실시 설계 마무리단계로 12월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방도 830호선 위험도로 현황입니다. 지방도 830호선 위험도로는 3개 지구로서 내년엔 고금 도남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위험도로는 11개 지구로 행정안전부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군비를 투입하여 위험구간 개량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위험도로 현황과 연도별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금도에서 상정리를 거쳐서 완도로 오는 도로는 우리 동부권 주민들만이 아니고 강진, 뒀 장흥, 보성…… 인근 지자체 관광객들이 참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되어 가지 않아가지고 교통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보고대교 개통 후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쪽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완도경찰서에다가 알아보니까, 장보고대교 개통 후 딱 1년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34건입니다. 그리고 사망사고가 4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런 사소한 교통사고는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에 사고처리를 안하면 안 올라오니깐. 거의 한 달로 봤을 때 그 미비한 사고 빼고, 한 달에 한 3건 정도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질문 때나 업무보고 때나 계속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든 그 후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군정질문 부분은 전에 했던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 지금 계획은 고금 상정지구는 거의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

단계에 있고, 처음에는 교회 쪽, 상정교회 쪽이 편입 반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 왼쪽으로…… 완도에서 들어갈 때 보면 왼쪽으로 도로를 그쪽으로 편입해서 아마도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도로를 보면요, 도로도 물론 옛날 도로라 좀 좁습니다. 좁기도 하는데 제일로 문제가 노면입니다. 가드레일하고 도로 차선하고 보면 거의 2~30c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형차든 조그마한 차든 가드레일이 있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통된 후로 계속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가드레일 같은 경우도, 새로 뭐 신설을 한다든가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노면에서 충분히 이렇게 좀 여유를 두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국장님, 민선7기 공약사업이 이쪽에 보면 해양치유산업이라든가, 또 이순신, 진린장군 선양사업이라든가, 동부권 도로 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그런데 그 선형이 먼저 이렇게 도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는 이런 공약사업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일단 도로가 좋아야 뭐 대형버스타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고금 상정리,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금 도남리, 119센터가 있는 그쪽도 지금 선형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전라남도 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불법도로 위험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아마도 내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가…… 약산 회전교차로, 그 부분도 선형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지방도는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도 이런 부분은 군에서 시급한 사항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국도라든가 또 지방도, 전구간 전수조사는 다 됐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보고서에 내놓은 것이 위험도로 현황 전수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 김양훈 의원

우리 군 미래관광산업이나 활성화, 이런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위험도로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을 하계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위험도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일로 큰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확보하고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산은 이제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군에서 할 군 도로라든가 놓여준 도로, 이 부분은 우리 군비로 조금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한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국도는 이제 설계 중에 있으니까 아마도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방도 부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니까 그때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의원

이 도로 때문에 뭐 국토관리청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순번이 완도는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접촉을 잘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가 진행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위험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행정이나…… 주민들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서 우선순위를…… 진짜 위험한 도로를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 가서 보면 계속 저 밑에 있어요.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좀 잘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현황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읍면별 무허가 축사 현황은 고금면이 87농가로 가장 많고, 완도읍 39농가, 약산면 17농가 순으로 총 8개 읍면 171농가입니다. 축종별로는 한우농가가 160농가로 가장 많으며, 염소 6농가, 돼지 5농가 순이 되겠습니다. 적법화 추진실적입니다. 대상농가 171농가 중 지금까지 56농가에서 적법화 인허가를 완료하여 32.7%

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은 결과, 104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농가에 대하여는 내년 9월 24일까지 1년간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2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 여건상 영세농이나 고령농이 많아 비용부담 문제와 토지확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1농가는 적법화를 포기하였습니다. 포기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앞으로 적법화 TF팀, 축협, 건축사 등 지역상당반을 적극 활용하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들이 기한 내에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최근 제도개선사항 35개 항목과 유형별 이행기간 기준을 담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활동지침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04개의 농가는 내년 9월 24일까지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에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기간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 **부의장 허궁희**

어떤 처분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한다든지, 또 폐쇄도 안했을 시에는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됩니다. 그런 절차까지 안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축사 허가를 받게 되면 몇 평 이상이면 축사허가 대상이 되나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것은 다 다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축사를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국토관리법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또 일반지역 내에 이렇게 좀 다릅니다.

□ 부의장 허궁희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소 한두 마리는 쉽게 키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평수가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100평 미만도 포함이 된 것 같아서, 100평 미만이면 그렇게 큰 축사는 아닌데 축사라고 한다면 아주 소규모 축사인데, 그래서 그 기준이 도대체가 어디에 몇 평까지 있는 것인지.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이 아시면…… 평수 제한 혹시 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평수는 제한이 없고요.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부분은 한두 마리 키우는…… 집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키우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래요, 참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 농어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지금 11개 농가는 포기한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저도 연락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땅이 자기 앞으로 안 되어있거나 또 아까 설명하신대로 연세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지금 이렇게 외국에 가있거나 이런…… 실제로는 땅을 샀는데도 이전 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 내가 알기로는 특조법인가 무엇이 생길 것 같다는…… 그 국회의원님 발언도 있고 그래서.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4만 농가 정도가 이 적법화 이행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행계획서를 1년간 유예를 해가지고 내년 9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축산농가를 정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원래는 금년 3월 계획은, 현재 3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축산농가들이 또 단체에서 상당히 유예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적법화를 하려면, 그래서 내년 9월 24일까지 일단은 1년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가급적이면 이행계획서대로 추진해달라, 이렇게 못하면 행정절차를 밝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포기한 농가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 문제, 또 영세농,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행계획서까지 하면 한 93.5% 정도, 다른 타 시도의 평균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낮은 실정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진포기를 한다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세 드시고 또 사회생활, 밖의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설명을 좀 해서 피해를 줄이고.

또 어찌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인데 조금이라도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생계가 달린 일인 만큼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신중하면 지역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이나 이렇게 신경을 더 써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고금도 쪽에도 축산이 많습니다. 대형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에 걸러가지고 125평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450제곱미터.

□ 김양훈 의원

예, 그러다보니까 300평이라든가 200평짜리는…… 예를 들어 300평 짜리는 세 가지로 나뉘야 됩니다. 축사를. 그런데 실상 축사를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쪼개라는 소리는 포기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축사농가들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쪼개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라 똑같다. 이것은 3월에서 9월로 연장만 시켜줬지 의미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난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고금에 무허가 축사가 87농가로 제일 많습니다. 171농가 중에 절반이 고금이고, 우리 한우농가로 봤을 때도 고금이 한 4,900두 정도로 181개 농가에서 이렇게 축사…… 한우농가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검토 좀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부분 수자원보호구역을…… 신설로 하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법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데는 수자원보호구역을 일시적으로 풀어가지고 내년에 뭐 특별조치법이 있다고 하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푼 것은 우리 해양관련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 김양훈 의원

그러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법을 바꿔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양훈 의원

그분들은 축사를 못 짓게…… 무허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적법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자진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타 사람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축사, 이런 것을 너무 불법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

□ 김양훈 의원

의도는 참 좋습니다. 허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기존에 한 300평짜리를 이렇게 대형으로 갖고 있다가 못하고 무허가에서 이렇게 폐쇄시키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축산농가에서?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무허가로 불법으로 하도록 놔둔 부분이 조금 안 맞죠,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빨리 적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진폐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정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 9월 24일까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적법화를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새로 적법화를 하는 부분에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뭐 컨설팅이라든가 상담반을 통해서 가능하면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해가지고 양성할 수 있고,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잘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다음은 3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어, 귀농, 귀촌 관리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으로 이주한 귀농인은 424명, 귀어인은 276명으로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100% 관내로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은 정착 장려금 세대 당 300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세대 당 500만 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은 정착 장려금 122세대 3억 3,600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24세대 1억 2,000만 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25세대 17억 8,500만 원, 영농기초 기술교육 688명 5,000만 원, 현장실습교육 31명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귀어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귀어인 지원사업은 해양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정착장려금 15세대 7,500만 원, 빈집수리비 211세대 6억 3,3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비 5세대 4,200만 원,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비 45세대 80억 5,2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정책방향입니다. 귀농·귀어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새로운 농어업 인력 유치로 농어촌에 활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귀농어·귀촌인 관리 시스템이 없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보조금 지원자 중 타 지역 전출자나 농어업 미종사자의 보조금 환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내년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보조금 지원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함으로써 타 지역 전출자에 대한 보조금을 100%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어, 귀농, 귀촌 관리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귀농인이 424명, 귀어인이 276명, 총 700명이죠? (예)
대부분이 귀향인들이고 실질적으로 귀촌인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귀촌은…… 이제 정의가 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귀농을 하기 위해서, 귀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완도 같은 데에다가 집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래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분 말고, 진짜 서울이나 아니면 광주에서 살다가 완도로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금 귀농, 귀어하신 분들은 우리가 정착 장려금이라든가 농가주택 수리비를 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농업 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어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방금 숫자가 맞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귀농인들은 1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조인호

과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하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하시 분들이 2~30%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70~80%는 여기서 사시다가 다시 서울로 갔다가 오시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20~30%까지 된다고요? (예)

상당히 많이 되네요.

그러면 국장님, 귀농·귀어인 정책이 우리 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분들이 기왕에 완도를 선택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군 인구 늘리기, 이런 쪽에서도 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완도가 많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홍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본의원도 귀농……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귀농, 귀어인들이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업종에 어떻게 종사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관리시스템을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귀농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제점이 이렇게 귀농 지원사업을 받고, 어떻게 보면 먹튀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떤 분들이 귀촌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쪽에서도,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살기가 팍팍하고 해먹을 것도 조금…… 직장도 없고 그래서 이쪽에 와서 귀농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여유롭게 농어촌에서 살기 위해서 귀농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쪽에 와서 완도 특산물, 이런 것을 하면서 살려고 귀농·귀어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자료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원생활 31.4%, 도시생활의 회귀가 24.8%, 은퇴 후 여가생활이 24.3% 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저것은 아마도 의원님, 귀촌 사유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귀농하고 귀어의 사유는 아니고, 귀촌하는 사유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귀농·귀촌 이유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러니까 귀촌이라는 것은 농사라든가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귀촌이라고 하거든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려오신 이유가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에서 농촌이나 어촌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생각을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말이 맞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렇죠. 그래서 귀촌까지 봤을 때는 조용한 전원생활이라든가, 도시생활을 회피해서 이렇게 여가를 농어촌에서 보내려고 한다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콘셉트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군에서 용자 말고 정착장려금 300만 원, 주택수리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정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일단은 금년에도 정착장려금을 귀농 같은 경우에 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5명이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도 이쪽에 왔으니까 정착장려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해보니까 6세대만 해당이 되고 19세대는 부적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했는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큰 도움이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귀농인들에 대해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지원을 아마도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장려금 300만 원 때문에 귀농·귀어인들이 행정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귀촌·귀어인들 간에 서로가 너는 받고 나는 못 받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촌여동생이 서울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 300만 원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면에 가니까 “교육을 100시간 이수해 해라.” 라고 해가지고 교육 100시간 이수를 했습니다. 농업인상답소에서 하는 것이요,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또 경영체 등록을 해라, 농지 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

래서 신청을 하나까 한 사람만 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아들 2명은 결혼을 해서 나가고 남편이 없는데 혼자 오지,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이런 경우, 한 사람만 왔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고생을 덜하고, 또 거기다가 기대를 갖지 않게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정착장려금보다는 주택수리비에다가 조금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것은 아마도…… 제가 그것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착장려금이라든가, 아마도 귀농…… 지원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아까 그 사춘 되신 분이 어렵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원사업의 제외사유가 딱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단독가구…… 1인가구는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귀농 교육은, 지금 농업 부분은 50시간 이상이 됩니다. 어업부분은 100시간인데, 50시간만 이수하면 되고, 또 귀농한지가 5년이 경과된 사람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그 안에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또 농업경영체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300평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렇게 경작하는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족을 해야……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저기 농업경영체나 농지 업무는 사실 거짓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하면, 그래서 이것이 별로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사실 고급 청학리에 귀농인의 집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들어 봤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 집이 있는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귀농인의 집에서 누가 살다가 이쪽으로 집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을 먼저 살아보고 거기서 살면서 자기 집을, 주택을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귀농인의 집이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인들이나 귀어인들을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귀농·귀어인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면서 문제가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귀농·귀어인들이 지역……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단합이 안 되고 또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마을 간에 불협화음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맞습니다.

그 자료 한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귀농인들이 마을주민들과 서로 갈등이 있고, 또 집이나 땅의 문제 등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일한 것보다 소득이 적다. 또 자녀들 교육에 다양한…… 그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또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고 고기를

잡는, 그런 기술이 서툴러서 살기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자료에서 본 것처럼 선입견과 텃세, 또 시골문화에 대한 인식부족. 특히 마을 운영방식의 차이 등으로 상당한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갈등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런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 마을의 주민은 주민대로, 귀어하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귀농은 농업축산과에서, 또 귀어는 해양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죠? (예)

또 교육은 농업상담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기술센터.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기술상담소에서 하고 다른 행정…… 군청에서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 군은 여건이 귀농이나 귀어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고기도 잡고, 또 고기를 잡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원예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인구 늘리기 차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원터치로 한 계를 만들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이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꼭 한번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정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하के끔 해주시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배움의 장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이 귀농·귀촌하는데 불만을 갖지 않고 주민들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그쪽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흔히 완도읍 시가에 다니면 “귀농·귀촌은 우리 완도에서 시작하세요.” 라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의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냥 그렇게 플래카드로 홍보만 하는 것인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러면 객지에는, 예를 들어서 완도 내보다 밖에…… 타지에다가도 그런 것을 해놓는 것이 안 좋을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저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완도에 그렇게 많은 홍보를…… 차라리 밖에다가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농인들과, 임원진들 한 10여명 가까이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방금 우성자 의원님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빠진 부분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른 데는 이렇게 귀농인들이 와서 실패를 많이 하고 간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왔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려고 하니깐 안 돼서 그러는 것이죠. 첫째, 중요한 것이 지역 간의 갈등. 그런 것도 제일 심한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어찌됐든 자기들의 수익창출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지역이 아무래도 객지다 보니까, 또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패하기 전에 우리 완도군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먼저 터득할 수 있게끔 체험관이나 그런 것을 시설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 타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보통 거기서 6개월 정도 농사를 짓는 방법, 또 교육,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우리 완도의 체내에…… 환경이 다르잖아요. 저 도시의 대농가들하고 완도는 또 다르죠. 기후조건, 이런 것. 한 6개월 정도 이런 것들을 답습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게끔, 그래야 실패율이 적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 거기에서 제가 듣고 괜찮겠다하는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렇고, 또 타지의 대농가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도 실패들을 많이 하니깐 실패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실패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요인 때문에 귀농인들이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도 귀농인들이 따뜻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귀농인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어차피 귀농정책을 안하면 안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성공할 수 있게끔 시작해야 맞죠. 그냥 보기 좋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귀농인들에 대한 정책을 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와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귀농인들의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모여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밖의, 외지에도 알리고 그러거든요, 좋은 점을. 그래서 귀농인들이 완도로 올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실이라고 봐요. 그런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중심에 서서 서로가 정보교환도 하고, 그러다 보면 밖에서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아무래도 거기서 자기들끼리는 통하죠, 그게.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대화도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타시군의 사례도 좀 봐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이런 귀농인의 사무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뭔가 지금 다들 정보교환을 한 군데로 모으자고 해도, 협회가 자기들끼리 있지만 전혀…… 그런 뭐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어디 중심적인 모임체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제가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살면서, 귀농하면서…… 그분은 그런 대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한 4~5년 됐으니까 정착이 됐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좋은 점은 단 한 가지도 없대요, 그분이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꿈을 안고 그런 것에 지원이 많이 될 것이고, 정착을 하게 많이 도와줄 것이라는 이런 것만 듣고 왔는데 보니까 도움은 전혀 없대요. 단 한 가지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객지에서 자기들 동료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한테 문의가 많이 온대요. 그런데 정말 “내려와라.” 라고 자기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하대요. 그제 여기에 어떤…… 그분들이 내려와서 정착하기에 조건들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분들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간담회도 우리 군에서 자꾸 해야 돼요. 그분들하고 앉아서 들어봐야, 실질적으로 현장이 어떤지를 알아야 어떤 정책도 만드는 것이고, 대안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잘 해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사실 숫자가 너무 없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신청이 들어온 숫자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25농가에 신청을…… 귀농만, 귀촌……

□ **최정욱 의원**

귀농만, 귀농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귀농만요. 그렇게 신청한 사람만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결과로 보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연말까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개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5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6차산업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 3차산업의 융복합 산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산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30억 원으로 청산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슬로푸드 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산 희망흑염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3억 원으로 강진완도축협과 약산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모링가, 유자, 비파를 활용하여 차, 잼, 음료, 비누 등을 개발하여 농업 융복합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도 황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을 향토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6차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비파작물을 활용하여 잎차, 음료, 와인, 뷰티상품 등 가공품을 개발하였고 청산도 슬로푸드센터 및 가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모링가를 활용한 가공품은 중국에 50만 달러를 수출하기로 계약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6차 산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차산업으로 추진중인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금 청산도 슬로푸드 명품화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뭐 브랜드라든가 네이밍을 지금 개발했고, 청산도 도시락, 캐릭터 빵, 수제맥주, 또 슬로푸드센터를 지금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명품화사업 홍보를 저희들이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슬로푸드 팸투어도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푸드 직매장 (청취불

능) 디자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청산도 향토음식 개발과 함께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 많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그러면 청산농협 원물 구매방법은 무엇이며 현재 구매실적은 무엇일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청산도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위주로, 또 수산물로 해서…… 지금 청산 하나로마트에 지금 슬로푸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물 구매를 청산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슬로푸드센터에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판매한 실적을 보니까 1억 차이…… 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많이 판매하셨네요. 청산조합원을 통해서 원물을 구매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군에 6차산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제품이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금 야까 말씀드린 모링가라든가, 유자, 비파 이런 부분들을 6차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모링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다가 수출계약을…… 50만불 수출계약을 할 정도로 상당히 6차산업으로서 시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6차산업이라고 해도 특별하게 이렇게 개발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해양바이오센터, 연구센터에서 이런 것에 대해 연구를 하고 계시죠? (예)

농업도 6차산업,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금 비파나, 모링가나 유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체험관광에 플러스된 6차산업 인데, 전부 그쪽에 와서 유자 따기, 또 이렇게 비파 따기 행사도 하고 있고, 모링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비파나 황칠,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황칠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황칠도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준비 중에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효과물이나 결과물을…… 중앙부처에 농수산물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사업 추진하는데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마케팅도 좋지만 연구를 통한 효능이 입증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데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법인이나 개인 등이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6차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금 모링가도 마찬가지로 비파도 지금 두 군데에서, 유자도 마찬가지로 청학동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체험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금 6차산업이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김양훈 의원**

체험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체험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이렇게 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런 제품을, 우리 농산물…… 좀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체험을 많이 해봐야 타지 분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완도에는 이리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는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야 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완도 6차…… 농업 6차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뭐 경쟁력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황칠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입니다. 황칠도 있고요. 비파,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 **김양훈 의원**

지금 황칠 같은 경우는요, 완도에서 참 열

심히 개발하고 있고 상품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 황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면 “만약 황칠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게 또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너무 과다생산이 되지 않겠냐.”라고 여론들이 많이 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 이렇게 뭐냐,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링가 같은 경우도 아까 침에 중국에 수출을 50만 불 했다고,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보면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유망한 그런 종목인데, 완도하고 화순에서 이것을 하시는 분이…… 재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유망 6차산업으로 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모링가 같은 경우는 저도 들어보니까 앞으로 전망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야기한 것은 황칠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적정하게 재배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과다생산이 안 되고 진짜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예산은 참 투입을 많이 하는데, 소득은…… 예산에 비해서 소득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7쪽, 계속해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완도농협 연합RPC 지원현황은 2016년도에 군비 8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기계를 교체하고 지난해에는 군비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외벽 공사 등 RPC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결과 금년 9월에 완도산 자연그대로 미가 까다로운 할랄인증을 받아 말레이시아로 12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RPC와 읍면 쌀 계약재배 면적, 수매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위해서 유용미생물 공급 1,012헥타르, 수도작 향공방제 1,933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019농가에서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쌀 3,983톤을 생산하여 유기농 쌀 179톤은 전량 완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으며, 무농약쌀 3,804톤은 공공비축미나 일반가공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RPC에서 매년 완도 쌀을 수매하고 있으나 흑수피해 및 풍수해 피해쌀을 농가들이 수매요청 시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수매 후 가공하더라도 도정수율과 미질이 떨어져 연 2~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피해 수매 벼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거나 고품질 완도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완도 쌀 택배비 또는 포장재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쌀 고급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RPC 친환경 매입으로 해서 매년 뭐 2~3억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적자가 발생된 그 대책이라든가, 뭐 무슨 방법이 있는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적자를 직접 보조해주는 것은 어렵고 간접적으로 택배비라든가, 이런 포장재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보조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런데 RPC에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2018년 전복 수매 시 솔릭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25%에서 한 60% 수확량이 감소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줬는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 농업피해 부분은 이제 별도로 태풍피해 사항을 조사해서 종자대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RPC 부분은 이것 때문에, 태풍피해 때문에 매진도 떨어지고 농협에서도 억지로 농민들이 수매를 해주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면 뭐 도정률이 72에서 73%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4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RPC에 적자가 난 이유가 이런 데에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아마도 그런 도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적자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그것을 RPC에다가 직접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간접적으로 우리 RPC 부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 이미지를 위해서 포장지라든가 아까 말한 택배비, 택배비가 우리 군이 4,000원인데 우리 군에서 한 1,500원 정도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지금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타 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해남 같은 곳은 한 2,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알아보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택배비를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택배 20kg에 4,000원인데 해남군은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완도군은 1,5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그래서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인근 해남이나 강진에 비해서 수매율도 매우 높고, 벼 판매, 해남, 강진 타 거래가 많이 있으나 우리 군은 도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공공비축 및 농협수매 의존도를 보고 있죠? (예)

거의 완도군에서 그러니까 RPC에 전량 수매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많이 수매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거의 아마 군외 지역에서는 저쪽…… 소수, 저쪽 도농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판매하는 업종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느끼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그래도 완도군은 나락 가마니를 가지고 군청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제가 파악을……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내가 RPC를 너무 높이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 해남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북평만, 해남 북평만 가더라도 겨울철에 농민들이 투쟁을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군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완도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잘 활용해서 완

도 쌀을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9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그대로 농업 주요 품목별 인증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자 13헥타르, 감귤 3헥타르, 한우 3,062두, 흑염소 4,800두로 유자와 감귤은 인증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실천을 위하여 2014년 9월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 실천선포식을 개최하고 브랜드 개발, 농업축산소식지 발간, 이동군수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홍보실적은 언론 및 소식지 홍보 9회, 각종 행사와 축제 시 부스운영 등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자연그대로 기반구축을 위해서 소안감귤작목반 지원, 농축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포장재와 RPC 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농축산물 판매장 신축, 그리고 약산 흑염소 명품화사업 육가공 제조공장 신축 등 축산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11쪽입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성과분석입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물의 강점은 타 지역에 비해 온난한 기후조건과 음이온, 해풍 등 천혜의 자원으로 자란 농산물의 과실 당도, 비타민이 풍부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한우생산, 약산 흑염소 명품화 가공 공장 구축으로 안정적인 제품생산 및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통한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 실천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통출하물량이 부족하고 영세화·노령화로 인한 생산의 한계, 대도시 소비시장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물의 강점을 바탕으로 소비의 양극화에 따른 고급화 전략과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촌 융복합화를 통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산 과일 수입량 증대, 그리고 흑염소 산지가격 하락 등은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가시적인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후 계획입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이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되도록 약용·식용 꽃잎차 산업 활성화, 로컬푸드 판매점 개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농정 시스템 구축, 그리고 황칠 고부가가치 가공 특화산업 추진, 그다음에 흑염소 산업 경쟁력 확보 등 연차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민선6기부터 우리 군 대표적인 브랜드가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청정바다수도 완도도 있고 자연그대로…… 완도 자연그대로가 있고, 아발론 전복브랜드도 있고,

□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 군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민선6기부터 지금 7기까지, 청정바다수도 완도와 완도 자연그대로가 있죠? (예)

또한 완도 자연그대로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 선호 1위,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에 대상을 하셨죠? (예)

브랜드 개발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도 자연그대로를……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이제 우리 완도…… 자연그대로 농법이 완도에 기후조건인 해풍, 또 유용미생물, 이런 것을 활용해서 생산한 농법에다가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또 우수농산물 인증, 무항생제 인증, 해썬 인증, 이런 것 하나만 가미되면 자연그대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자연그대로 농업이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연그대로 농법이 2016년도에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로 올해 히트상품 대상에 선정될 정도 상당히 네이밍도 좋고,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생산 쪽이죠, 지금? (예)

생산을 했으면 가공, 유통 등의 관리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이제 그 흑염소라든가…… 흑염소는 육가공제조공장을 해서 하고 있고, 유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청학동 마을에서 유자청이라든가 유자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원도 횡성군 명품한우 잘 알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잘 압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사육관리에 따른 매뉴얼이 정해져있고, 농가들은 그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매뉴얼에서 사육된 한우들의 품질을 보증 받아서 비싼 값으로 소비를 하고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횡성한우는 굉장히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자연그대로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자연그대로…… 이 부분이 참 정착을 시키려고 군수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11월 중에는 아마도 자연그대로 관련 기관단체, 농·수·축협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점이……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브랜드는 잘 만듭니다, 브랜드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과정에서 전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매뉴얼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브랜드만 만들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매뉴얼도 이제 인증에서부터 이런 육

가공 부분까지 해서 매뉴얼을 앞으로도 마련해서 우리 자연그대로 농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감귤, 작목반 지원, 포장재 지원, 축산 지원, 흑염소 명품화사업 등 주로 기반시설입니다. 유통에 필요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생산하면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약산 흑염소를 봐봅시다, 거기. 지금 약산 흑염소에서 도축장을 해주라고 난리죠? (예)

여건상 안 되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여건상 안 됩니다.

□ 박인철 의원

흑염소만 보더라도 사육관리 규정을 만들고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해야 되고, 거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 그래야 만이 소비자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제가 급한 것은…… 당장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완도 자연그대로 브랜드는 개발했는데 개발해서 얻은 성과가 없다고 보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뭐 성과를 꼭 집어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자연그대로 이름 자체가, 네이밍 자체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네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특산품의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특산품의 이미지가 좀 개선이 되고 가치가 향상되지 않냐, 이렇게 성과를 분석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매뉴얼을 좀 준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답변서 11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이 성과보고입니까, 아니면 계획수립 시 스마트 분석인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스마트 분석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보면 이 부분이 저도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농산물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좀 양이 부족하기도 하고, 계통적으로 출하하려고 하는 출하물량도 부족하고 그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출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위험요인을 보면 미국산 과일 같은 것이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과일 같은 것이 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성과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그대로 농법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보면 거의 나열형식입니다.

우리가 자연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사업들이 거의 뭐 접목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보면 거의 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을 했으면 그 지원에 맞게끔 성과도 나와야…… 지금쯤은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 그 성과들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 부분이……

□ 박인철 의원

여기 봐보십시오. 연도별로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해가지고 전부 지원, 지원한 것 밖에 없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어느 정도 정착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다음부터는 자생할 수 있도록……

□ 박인철 의원

지금 이 자연그대로는 2014년도에 바로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 팀장이 지금 지역개발과입니까. 황창령 팀장이 있을 때 만든 것으로 아는데, 이 자연그대로를,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러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 봐보십시오. 자연그대로 뭐했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점마을 육성, 농기계, 농자재 지원사업, 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완도 자연그대로 네이밍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포장재 지원, 농기계 및 농자재, EM, 이런 것은 다 우리 군에서 자연그대로와 관계없이 해왔던 사업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자연그대로 그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인증해준 것이, 포장재를 지원해 준 것이 아까 말한 완도의 그런 천혜 기후조건……

□ 박인철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앞전 질문답변에서, 동료의원의 답변에서 모링가 그것을 중국에 50만 불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포장재 지원 1,000만 원은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년도, 우리가 `15…… `14년도에 완도 자연그대로를 해가지고 `14, `15, `16, `17, `18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완도 자연그대로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수산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5만 2,000의 인구를 놓고 보면 농가도 많거든요, 축산농가도 많고, 그런데 전혀 그런 데에 뒤떨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거기 농업축산과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순군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정확한 수치는 잘……

□ **박인철 의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기획실장님, 전임기획실장을 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산양식과, 해양정책과에서 쓸 수 있는 순군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축산과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해 놓은 것은 15억밖에 안 됩니다. 어디다가 쓸데가 없어요, 예산도. 그만큼 이런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도 할 수 없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낙후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쪽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혹시 국장님, 이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에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안 그러면 학교급식…… 여기에 나열된 학교급식 말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말고, 완도지역을 벗어나서 전국 다른 데에다가 자연그대로를 가지고 혹시 납품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입점한 실적이냐?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뭐 친환경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친환경은 177개 학교에 공급을…… 친환경 쌀 같은 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도 자연그대로 상표를 가지고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혹시 백화점이나 마트에 없죠, 전

혀 없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백화점을 확실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 **박인철 의원**
제가 파악을……

□ **의장 조인호**
과장님, 답변하세요.

□ **박인철 의원**
(농업축산과장 박기제를 보며)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우리 완도군에서는 딸기라든가 감귤이라든가 참다래, 이런 만감류 종류는 소량으로 재배가 되기 때문에 거의 농협이라든가 계약재배라든가 직거래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자 같은 부분은,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유자 같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해가지고 거의 다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쌀 부분은 저희들은 전체 유기농,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하고 있고요.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쌀은 뇌농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고흥농협에서 안 받아주면 유자 판매도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 떨어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고흥…… 물론 올해 동해도 입었겠지만 고흥농협에서 유자를 안 받아주면 우리 농가들이 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저희들이 그래서 유자 같은 경우는 가공시설을……

□ **박인철 의원**
고흥으로 유자를 싣고 가면, 고흥 농가들이 받아주고 나면 제일로 팔찌가 아닙니까?

우리 농가들이?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유자 가공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군에서 유자하고, 또 저번에 김영록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을 때 고금도 쪽에서 유자 가공시설을 만들어 주라고 했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 **박인철 의원**

그것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지금 도하고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인철 의원**

건의만 하고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전년도에 뭐한 것 같던데.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전년도에……

□ **박인철 의원**

김영록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고금도에 가면 1순위가 유자 가공시설……

뭐 때문에, 고흥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냐고 하니까 고흥으로 가면 천덕꾸러기를 받는다. 우리가 좋은 상품을 가져가도 고흥에 가면 고흥 것을 먼저 수매하고 나서 우리 완도 것이 그 다음이다. 그래서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계속 그대로 건의 중……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추진 중입니다. 저희들이 2번 올라갔다왔고 도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1년 예산이 어떻습니까. 우리 순군비 예산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작년에 17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5억 정도.

□ **박인철 의원**

왜 작년에 17억이었으면 올해는 2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깎아버렸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다른 실과가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하다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군에서 너무 수산, 수산, 수산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돈 없고 힘없고, 없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작영농부터 해가지고 완도도 5만평 이상 농사를 짓는 데가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항상 우리 군에서는 2순위도 아니고 3순위, 4순위로 밀려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투쟁의 산물을 만들어 내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혹시 국장님,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채널 19번이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어떤 채널……

□ 박인철 의원

공영홈쇼핑 채널, 농산품 이렇게 파는데, 그런 데에 런칭할 계획 혹시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 물건이 충분하게 뭐냐, 수급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된다면 해야 되는데, 물량이 적으면 거기에 런칭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물론 그렇겠죠, 우리 농업을 하는 부농들이 대농들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래도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완도도 지금 농업에 많이 치우쳐있지만 여러 가지 농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들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행사장에 다녀보면 우리 군수님이 제일로 축사에서 하는 큰말이 청정바다수도 완도하고 완도 자연그대로입니다. 군수님은 자연그대로를 외치고 다니는데 우리가 완도 자연그대로라고 하면 타 지역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우물 안 개구리, 우리 안에서만 외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멋지게 선점은 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2015년인가 이순만, 지금 퇴직했지만 당시 농업축산과장한테 내가 황성한우를 들먹이면서 한 말이 있어요. 황성한우에는 중두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소 한 마리가 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물었는데 그 뒤로 과장님이 바뀌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농업 쪽에다가도.

하여튼 완도 자연그대로, 이 좋은 브랜드를 브랜드로만 외치지 말고 생산·유통·가공 이 매뉴얼을…… 지금 이 이후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축산농가나 농민들이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도록, 우리 완도에서 생산된 농업·축산 이런 품목들이 비싼 값으로 대도시에서 팔릴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실태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기후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기온이 14.9℃로 평년대비 0.8℃가 상승하였으며, 최고기온은 올해 35.7℃로 기상관측 이래 역대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폭염일수는 20일로 역대 3위, 열대야일수는 26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대비 49.7%의 수준인 384mm에 그쳤습니다. 여름철 해수온도는 지난해 대비 1.4~2.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그리고 재난재해 등 8개 부문 32개 사업을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3~4회씩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계절별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보고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성과로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개 분야별로 바다숲·목장 조성, 신품종 개발,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기후취약계층 관리 강화 등의 32개 대응시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기상상황을 분석하여 부서 및 전직원 공유를 통하여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예산으로 도서지역 폭염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효과가 좋을 시에 확대 추진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고수온과 적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품목 육성, 재해 저감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수산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기왕 정리된 데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 군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느낌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폭염 때문인지 어장이라든가 고수온, 이런 것 때문에 양식어류가 피살된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열사, 이런 현상도 상당히…… 그래서 군민 안전보함에 서도 그런 의사로, 익사사고가……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폭염으로 인해서 명사십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피서객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뭐 감귤이 완도에서 잘 안되고,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고, 뭐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역에 문제가 돼요? (예)

좋습니다. 기후변화전담조직은 구성하셨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기후변화팀이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그 기후변화 전문가가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직은 없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가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한 분이 없다면…… 다른 전문인력은 많이 지금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한 번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 부의장 허궁희

제 생각으로는 꼭 채용을 해서 전문직원들이 이렇게 좀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우리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아,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잘못되어 가지고, 기후변화 전문직원으로 임상철이라고 있네요. 제가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혹시 나오셨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그래도 의원님들이나 실과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점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저희들도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간담회 때 한번……

□ 부의장 허궁희

그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서류라도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홍보를 하게. (예)

(□ 부군수 박현식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청취불능)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전문기관에 없으면 의뢰라도 해서, 모니터랑을 해서…… 우리 군이 그래도 피해를 보는 군이 아니라 앞서가는 군은 안 되더라도 적응은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8개 부분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해양수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 신품종을 우리 기후변화에 맞는 미역 2종, 김 1종 이렇게 개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재해위험지구…… 상습 재해위험지구도 2개소, 이런 데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기후에 맞는 아열대작물 13종, 과수 뭐 4종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기후변화에 맞게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성과는 아직 안 나와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이런 것을 개발한 것이니까 기후변화에 맞게……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추진 중이지만 성과는 아직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봤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아니,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렇게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 적응해가고 있다는……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추진 중이죠? (예)

확실하게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 부의장 허궁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조류나 농업분야, 아열대 작물 13종에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도 확실하게 활용은 못하고 있고,

제가 산림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로수 2km 조성한 것은 수고 앞에 있는 우리가 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집행부 좌석을 보며)

해당실과에서,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2017년도에 장보고대교를 조성한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지역이 저기죠, 수고 앞에?

(「예」 하는 이 있음)

왜 제가 이것을 한번 세밀히 봤냐면요, 이런 부분은 기후변화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죠. 조경사업의 일환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을까요?

(□ 부군수 박현식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십시오.

□ 부군수 박현식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후변화는 쉽게 말하면 적응하는 부분이 있고요, 적응이나 대응부분이 있고, 감축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대응부분은 우리가

지금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 재난이라든가 우리가 가로수를 심은 것도 일종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부분. 모든 부분은 다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모든 매뉴얼이 국가매뉴얼도 이 기후변화 대응에 다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감축분야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공급하는 것도 있고 나무를 심는 것.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바로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차를 보급해서 co2를 배출 안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다 이런 부분.

여기는 주로 성과가 뭐냐고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은, 정성적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량 부분, 얼마나 효과를 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명확하게……

확실한 것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해도 커지고, 태풍도 커지고, 가뭄도 강도가 세지고, 일단 모든 것이 강도가 세진다는 것. 그러니까 추위도 추워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과라고 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진과정 중이지.

□ 부군수 박현식

성과는 있을 수 없고요, 대응하는 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성과가 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자료라고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게 성과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성과라는 자체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분야나 농업분야, 지금 현재 수산분야에서도 해조

류신품종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과를 얻었다고는 못보지 않습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러면 앞으로는 주요 사업내용이라고 불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온 같은 이런 것을 쟈 수 있는 각종 측정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라고하기 좀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 사업내용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하여튼 왜 그러냐면 오해가 생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듣다보면 아무 말씀도 아닌데, 깊이 생각하고 들어보면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산과에서 남해수산연 구소에 용역을 줘서 여름철 고수온은 일주일 이 빨라졌고, 해조류 종묘 시기 일수는 10 일에서 15일이 늦어졌다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현재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성과를 어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과가 아닌가, 저는……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남해수산연 구소하고…… 해양수산과학원에 유기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벌써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과를 봤다. 이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우리 농어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지 않겠냐. 더 대비를 많이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이 듭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은 관측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농업이든 어디든. 기후변화…… 대기질 측정소도 신지에서 연말부터 돌아가니까, 이런 관측소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저 역시도 이런 내용을 앞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부군수 박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많이 변하고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지, 아니면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각 분야별로 농수산분야라든가 수산분야, 이런 부분. 또 축산분야…… 분야별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축종이라든가 이런 양식어종.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국장님. 꼭 그렇게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탄소배출

권 거래제도라는 제도가 있죠? (예)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부장 서현종

그 부분은 이제……

(부군수 박현식, 손을 들)

(부의장 허궁희, 부군수 박현식을 보며)

□ 부의장 허궁희

예.

□ 부군수 박현식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먼저 그전에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온실가스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 6개 주요가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대기 중에 너무 많이 퍼뜨리다보니까 지구의 기후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자. 그래서 그때 교토 의정서나 여러 의정서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우리가 몇 년…… 정확하게 90년 대비, 우리 현재 목표 30%를 감축하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줄일 수 없으면 너희가 사라고, 배출가스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양만큼 사라. 이것을 지금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1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 이분들이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를 70%만큼 줄이면…… 30%를 내가 줄일 수가 없으면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거래소에서.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맞습니다. 그 설명하신 대로 국가 간 거래제도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많이 배출한 나라는 적게 배출한 나라에서 사라고 하는 이 말 아닙니까, 이 제도 아닙니까?

□ 부군수 박현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국가가 곧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왜 저는 이 얘기를 드렸냐면요, 제가 이는 해조류연구소 직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좋은 제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아냐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몰라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좋은 얘기를 꼭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군에서 양식하고 있는 미역이나 다시마, 해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제안이요. 제안이 흡수를 하고 산소를 내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조류를 탄소흡수원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탄소배출권으로 거래를 하면 어업인의 소득은 물론, 국가나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우리 지역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겠냐. 물론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만 노력해볼만한 일이 아니냐는 제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묻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 부군수 박현식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인데요, 일단은 해조류가 co2를 많이 먹고 자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에서 co2를 많이 흡수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실제로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IPCC나 그런 데에서 인 증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쪽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패각의 성분 중에서 ca(co3)라는 패각이 있는데 전복이라든가 굴 패각도 마찬가지로 co2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딱딱한 껍질이 됩니다. 이 부분도 연구 중

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추진만 잘하신다면, 그래서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많이.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내일 그게 효과를 발휘할 일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꼭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은 열심히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3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정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 슬레이트 철거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89동, 2017년 94동을 철거하고 금년에는 104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9월말 현재 93동을 철거하고, 잔여 11동은 11월 말까지 100%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대상인 공장, 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비 지원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슬레이트 처리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어 공장, 축사, 창고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도 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엇그제 10월 23일 환경부에서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

었습니다. 철거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별 주택 슬레이트 배정물량을 초과달성한 후에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사업물량이 104동인데 이를 완료하게 되면 공장,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도 처리지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업무처리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단, 2019년은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2020년부터 지원기준을 수립한 후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에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정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주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특히 도시환경의 저해요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슬레이트 철거절차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슬레이트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이제 물량을 배정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량배정을 하는데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지원을 해서 신청자…… 신청이 확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들어온 숫자가 전부 매년 신청된 숫자라는 그 말이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매년…… 이제 전체 숫자는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철거 내용?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신청을 받아가지.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어느 정도 주택에 한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방금도 제가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주택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주택만 하고 창고, 공장, 축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건의를 우리 군에도 수차례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다행히 “2019년도부터는 주택 외 창고, 축사, 공장도 이제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단, 2019년도에는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라. 2020년도부터 기본적인 지원기준을 수립한 후에는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하도록 해주겠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일반주택보다도 공장, 축사, 창고 등이 가장 큰 환경 저해요인이라고 봅니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답변서의 내용대로 (청취불능) 2019년도에 계속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꼭 좀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민 건강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 4쪽,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탐방로 현황과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탐방로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12개 읍면에 18개소의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연간 탐방로 이용객수는 7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 탐방로 개설현황 및 이용객수는 답변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방로 확대 및 활용계획입니다. 완도읍 동망산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비 20억 원으로 완도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망남리 구간 5km를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생일 백운산 탐방로 조성사업은 올해 2차 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18억 원을 투자해 탐방데크, 휴게쉼터 및 안내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방로 활용계획입니다. 기조성된 숲길 임도시설 등 해양, 산림, 관광자원이 밀집된 지역을 탐방로와 연계하여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탐방로 현황과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탐방로가 완도 관광자원과 잘 어우러져서 군민 건강도 지켜주고 관광객들에게는 완도

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보면요, '탐방로 신설보다는 관리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책자에 보면 '16년도부터 '18년까지 동망산 20억이고요, 생일 백운산 18억인데,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보니까, 표를 보니까 각 지역마다 읍면 단위로 다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수명이 현저하게 차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탐방로 유지보수는 관할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금 그렇게 예산을 전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유지보수나 또 총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계획도 철저하게 수립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앞으로는 총괄관리계획을 통해 매뉴얼화가 되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지는 않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저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방로는 영

구적인 시설물이 아닙니다. 언젠가 예산을 재투자하고 다시 또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다시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유지보수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시점을 한번 늦춰보려고, 또 예산도 절감해 보자는 뜻에서 읍면 탐방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탐방로뿐만 아니라 군비에서 지원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다음 5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시설현황입니다.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설 운영 중인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민간자본 138억 원 등, 총 229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아라연 환경에서 2011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소유권은 우리 군이며 반입된 쓰레기량에 따라서 소각과 매립,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아라연 환경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단가는 민간투자협약서 제48조에 명시된 2006년 3월 31일 불변가 대비 전년도 12월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매년 1월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평균 2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5톤 용량의 재활용 선별시설과 음식물 건조시설,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2026년까지 8만 2,000여 톤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반입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지난해 조성한 3단계 매립장을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까지 1만 7,000여 톤을 매립하게 됩니다. 매립장에서는 1일 평균 약 23톤의 침출수가 발생되며, 처리장에서 1차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친 후에 농공단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연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9월까지 264톤이 반입되었으며, 지난해에는 반입된 295톤 중 재활용 가능자원 44톤을 선별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5년 12월 고금 소각장이 폐쇄되고 2017년 장보고 대교 개통으로 고금, 약산면에서 연간 500여 톤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당초 계획보다 쓰레기 매립 및 소각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각로 가동 일수를 300일에서 330일로 조정하여 24시간 가동 중에 있으며,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생활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1일 5톤을 처리하는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이 노후되어 반입된 양의 70%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를 추진해 왔으나, 본 시설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어서 시설비 15억 원을 군비로 확보하여, 기존 5톤 처리용량을 8톤으로 증설하는 음식물처리기 교체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매립장이 종료됨에 따라서 2024년부터 5단계 매립장 제방 및 부대공사를 시작하여 2031년 12월까지 1만 9,694톤을 매립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2026년도까지 아라연 환경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2026년 10월까지…… 아니, 4월까지.

□ 박인철 의원

사실 우리가 연륙이 되면서 약산, 고금의 쓰레기들이 여기로 오는데. 당초 계획보다 어떻습니까, 매립량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매립량이 상당히 좀…… 약산, 고금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매립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매립 시간도, 당초 매년 300일 정도로 했는데 330일 정도로 시간도 그렇고 일수도 늘어났고. 또 24시간 풀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약산, 고금 쪽에서 한 60톤에서 70톤 정도 반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인철 의원

2026년까지, 이후의 대안은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2026년 5단계 제방 및 매립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군에서 해야 되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산은…… 그래서 생활폐기물 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고. 매년 본예산 1,000분의 5 정도 한 15~16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뭇니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예산이고 기금이고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더 크나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던져놨는데, 다른, 국장님한테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좀 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 질문의 의향을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홍포 연안항 개발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1쪽,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홍포 연안항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홍포항은 2001년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2003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해수부에서 전라남도도 위임된 항입니다. 기본계획상 정도리 방파제를 비롯한 4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공사추진 시 인근 양식장 피해 및 해수소통 지장 초래 등 정도리 어촌계에서 어업권 피해 등을 이유로 어업권 피해보상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도리 어촌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어업권 포기서 장구를 지속 추진하여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홍포 연안항 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화홍포항이 한국법상 연안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지정되었고요.

그런데 전국에 현재 연안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전국에 지방관리 연안항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국가관리 연안항 11개해서 29개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맞습니다. 거의 11개 국가 연안항이 있고 지방 연안항이 8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화홍포항이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문의하고…… 유일하게 화홍포항만 사업이 아직까지 17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 연안항 개발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도

화홍포…… 정도리 주민들을 만나서 어업권 포기서 관계로 상당히 설득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왔었는데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 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도와고 우리 군하고 설득을 좀 해서 이 어업권 피해 포기…… 보상포기서, 이것만 제출하면 아마도 도에서는 바로 예산 신청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좋습니다.

2001년도라면 벌써 17년 동안인데, 17년 전에도 어업권 때문에 못했을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러니까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도리 그쪽 주민들은 자기들한테는 전혀 보탬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소안농협 철부선 여객선 접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전혀 이익관계가 없다 보니까. 아마도 그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이익을 떠나서 전체적인 면에서 봐야 되겠죠. 이익을 따지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방관리 연안항이라고 해서 도에서도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우리 군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면 화홍포항은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노화, 또 소안, 보길, 그쪽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산물을 실은 화물차들을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몇 백배씩 타고 다니시고요. 또 타 지역을 보면 강진이나 장흥에서는 제주도간 여객선 화물선을 유치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야단법석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완도군에서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1쪽에 보면 2013년도에 수립되었는데, 화홍포항의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거기 보면,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도리 방파제를…… 뭐냐, 정도리 방파제, 대신리 방파제 뭐 150억, 40억 이렇게 해서 하고. (청취불능) 호안도로를 하는데 41억, 또 차도선 부두…… 농협 차도선 부두를 하는데 12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화홍포항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서 28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후단지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배후단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화홍포항?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한번 알아가지고 저한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화홍포항을 개발했을 때, 화홍포항의 기능이 어떻게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완도항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도 화홍포항이 할 것 같고, 또 남부권 주민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기능도 하고, 또 해남 땅끝항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상당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완도항이라든가 보면 정 원수용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그런데 화흥포항이 제주하고도 제일 가까운지 아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우리 화흥 포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주셨 으면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흥포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이나 금 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 한테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 니다)

그리고 도에 건의도 빨리해서 화흥포항이 시일 내에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 단의 조치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령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7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개발…… 아닙니다.

5쪽입니다.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외 원동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방어항은 원동항을 비롯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17년까지 10 개항이 개발 완료되었고, 현재 개발 추진 중 인 지방어항은 생일 서성항 등 3개 항이 되 겠습니다. 군외 원동항은 1975년 지방어항 으로 지정되어서, 2008년 기본계획이 수립 된 전라남도 관리항입니다. 군외 원동항의

조기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해양수산부 의 추진방침이 현재 추진사업이 완료되는 시 점에 추가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 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선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내년에 지방어항 보수·보 강 사업비 2억 원을 전라남도에 요청을 하 였습니다. 우리 군 내년도 본예산에 어선 정 박에 필요한 계선주 시설사업비 7,000만 원 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군외 원동항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지 속 건의하는 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외 원동항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 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하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얘기한 데를 보니까 지방어항이 19 개소라고 했죠? (예)

19개 중에 지금 완료된 항하고, 진행 중 이고, 또 미개발된 것은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개발항이 어딘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완료 중인 항이 10개항입니다. 금일 화전, 동백, 노화 방축, 신지 월양, 신지 동 고, 약산 장용항, 그리고 소안 미라항, 금당 울포항이 지금 완료가 되었고, 추진 중인 어 항이 청산 모서, 생일 서성, 덕우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미추진항은 금일 충도, 군

외 원동, 고금 가교, 청산 신흥, 소안 진산항 이렇게 6개항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지방어항개발사업의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는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이것은 관리청인 도에서 우리……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의견수렴을 하나요,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의견을 수렴해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우리 군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청취불능)이라든가 개발을 해달라는 건의서가 일단 들어오면……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우선적으로, 일반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줘……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 반영을 한다는 말이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반영해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왜 물었느냐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완도군의 첫 관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인근 어촌계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빈번하게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여건에서 보면 현재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항과 비교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어항들, 이 사업이 끝나야 방금 국장님의 답변처럼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 3개 어항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방금 보니까 2021년도에, 이 부분에 반영을 좀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어항들이 차분히 마무리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동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동항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할까 합니다. 부산 영도에 가면 하리항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방어항인데요. 원동항도 하리항처럼 레저체험, 관광, 이런 복합어항 형태로 개발하면 원동항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완도수목원이 솔찬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가을빛축제 때도 보다시피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진짜 보물이더라고요. 그쪽 관광소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국장님, 그렇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하여튼 부산 하리항이 레저체험, 이런 항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원동항이 어떤 쪽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느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항로부분이 있죠. 선로, 항로, 선박이 다니는 항로. 지금 현재 보면 백일도에서 과거에는 섬사람들이 원동까지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항로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선박이 가야 되는데 김발이 전부 막아져가지고 아주 가기가 힘들습니다.

(집행부 좌석을 보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그 백일도, 흑일도하고 원동 항로는 해남 남성항이 개발되면서 그 항로가 폐소되어 가지고, 아마 항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니, 항로가 폐소되었다라든가 거기에 보면…… 지금 당인리 앞에 보면 7개 부락에 면허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박들이 가야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면허지를 확인해 가지고 혹시 항로상에 불법시설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리고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동항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7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개발사업 제외 읍면 개발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제3차 도서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완도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2,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된 제4차 도서개발사업은 신지, 고금, 약산을 제외한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1,180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1건에 53억 원이며 내년 사업비는 21건, 60억 원입니다. 읍면별, 연도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 도서개발사업 제외 3개면 지원대책입니다. 올해부터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된 신지, 고금, 약산에 대해서는 제3차 도서개발사업 계획 시 지방비 부담분인 군비 15% 수준에서 금년도 도서개발 대체사업으로 군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대체사업비는 약 22억 원 수준으로 예산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3개면 도서개발사업 재추진방안 및 대책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연륙·연도 10년이 경과한 섬 지역은 도서개발 대상도서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2016년

10월 3개면에서 주민탄원서를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 2017년 3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관련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주관, 국회 대토론회 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건의서를 채택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건의하는 등 개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기간 내 도서개발사업 재추진 불가능시 3개면 대상 장기 개발계획 수립계획입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 제외 도서에 대해 우선 기존사업비에 준한 대체사업 추진으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서개발사업비 대부분이 선착장이라든가 방파제, 호안도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질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개발사업 제외 읍면 개발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표에서 보다시피 도서개발종합사업의 총액을 비교해보면 금년도에 시작된 것이 4차 도서개발사업비하고 3차 도서개발사업비가 2018억 7,800만 원보다 적은 838억이 감소했네요? (예)

1,880억으로 감소율이 41%나 됩니다. 그

러면 우리 군 도서개발사업비 또한 2017년도에 184억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134억 원이 감소한 50억으로 감소율이 72%나 됩니다.

이처럼 총 사업비 감소율보다 훨씬 높은 사업비가 금년도에도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3개 읍면이 빠지기도 했고, 그동안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도비, 군비가 15%, 15%, 30% 정도로 더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국비로 전부 반영되다 보니까 좀 감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연도교사업으로 인해서 가지고 도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신지, 고금, 또 약산, 3개면을 별도사업으로 아까 추진한다고 했는데, 도서개발사업, 그 대체사업의 배정기준은 무엇이고 종전처럼 도서개발사업이 언제쯤…… 아까 침에 뭐 건의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언제쯤에나 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러니까 3개 읍면이 도서개발…… 올해부터 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일단은 3차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군비부담금 15%, 지방비 군비부담금 15%는 우리가 그래도 제외됐더라도 그것을 반영해서 그 정도는 3개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15% 정도는 대체사업비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서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우리가 건의해왔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그 설명하신대로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3개면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재정적 투자효과가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도 전체가 도서개발지역인데 3개면이 이렇게 제외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 3개면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소외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외감이 없도록 최대한 대체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연도교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고금, 약산 쪽은 정비여건이나 생활불편함이 연륙되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10년 전과 똑같이 농업이나 수산업, 1차산업에 이렇게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3개면에도 대체사업을 꼭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10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소안간 연도교 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연도교사업은 노화읍과 구도, 소안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1차 구간인 노화읍, 구도간 1,620미터, 2차 구간인 구도~소안간 2,873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1,77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

황입니다. 2011년 2월 1차 구간인 노화~구도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착공되어 지난해 6월 준공된 바 있습니다. 2차 구간인 구도~소안간 연도교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등 면담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설득하는 등 국가예산 반영 활동을 지속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제4차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본 연도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3억원의 예산으로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1월 사전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3월 예비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계획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본 연도교사업을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국비지원 근거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용역 추진과 병행하여 중앙부처 연계 추진가능 사업 검토를 위해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유사 추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 우리 지역에 불리한 경제성 논리보다는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을 집중 부각시켜 나가는 한편, 타당성조사 용역자료를 기초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소안간 연도교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이 11월 달에 끝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한다고요? (예)

예비타당성 용역결과는 보나 안보나 뻔한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지금 낙후도로를 고려한 계층분석법, 그 타당성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래서 본연도교 시설사업은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경제적 분석으로는…… 경제성으로 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정부나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또 지역주민들이 금일…… 약산 연도교 시설사업처럼 자체 조직구성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제가 소안면을 가보면요, 주민들이 신경은 열성적으로 엄청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직 구성의 밑바닥을 깔아주지 않아서 그러는지,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동의하고 있는데 조직이 구성되지 않아서 제가 여쭙봤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왜 본연도교 시설사업이 필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한 논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사전타당성 조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논리개발에 의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럴 거예요, 논리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국비 여건들에서 누가 주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개발에 조금이라도 건의 시 도움이 될까봐 제가 한 두어 가지나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요즘 세계수산업의 트렌드가 수직계열화라고. 수직계열화란 즉 산지,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등 혼합클러스터를 구축해야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소안, 노화나…… 김밥용 김, 김이 지금 전문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을 연도교 시설사업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 김이 담배에 이어 세계수출 2위 품목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둘째는 어촌·어항법에 의거 이용범위가 적극적인 항은 국가어항이라고 하는데, 지금 소안하고 보길은 두 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길은 보옥항과, 소안은 명성항, 그게 바로 국가어항이거든요. 저희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나는데, 그 어항을 만들면서 군사 요충지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했던 어항인데, 그런 항들을 동지나 등에서 조업하다가 태풍이랄까, 아니면 양방으로 개발했을 시 남부권 3개 읍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까지 못했던 부분을 양륙항으로 개발함으로써 소안~노화간 연계공사가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개발논리에 포함시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우리 문제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소안도에서 1박 2일 때 우리 주민과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부인께서, 여사님께서 청와대에 입성을 하면 연도교…… 소안이 제일 하고 싶은 연도교사업에 협조를 하겠다, 좀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녹취까지는 못 준비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고, 본인이 청와대에 입성해서 소안도 분들을 청와대까지 모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들, 연도교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 비서진에서도 “최대한 힘을 쓰겠다.” 라고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해서 우리가 병행될 수 있는…… 조그마한 실타래라도 잡고 늘어셔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꼭 모든 것들을 끊어놓고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노화하고 소안은 지금 모든 공사가 처음부터 1,770억, 시작된…… 그러니까 소안~노화간 연결사업으로 많이 봐야 되는데 소안~구도까지 해놨으니까 또 구도에서 소안까지 연결하려는 그런 생각보다도, 어떤 논리를 펴더라도 처음에 우리 사업이 책정될 때 노화에서 소안까지 공사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득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랄까 여러 부분들이 합심해야 저 연도교가 빠른 시일 내에…… 또 우리 주민들의 갈망된 사업이고 연도사업 여건으로써 빨리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다음은 12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경관관리 종합계획은 경관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기본법과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완도군 건축조례, 완도군 경관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6년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완도군 경관조례 제8조에 의거 5년 단위로 경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돼있어서, 금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완도군 경관관리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은 완도군 전역을 범위로 하여 현재 기준으로 2030년을 목표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중점용역 내용은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비전 및 방향성 제시, 경관의 기본계획, 중점 경관관리 구역 설정, 경관 조례 개정, 경관사업 및 경관 심의기준 등을 포함하는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행이 되며, 향후 산림경관, 하천경관, 해안·도서경관, 농어촌경관, 도시기반경관, 시가지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 실천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역 기간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군과 군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용역 결과 제반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참 오늘 하루 내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준비하고 있겠네요, 지금? (예)

그렇죠, 그것이 나오면 뭐 정확하게 기본 계획수립이 다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주차난…… 그 길가, 도로가에 세워두는 것 아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복잡하게 좀 세워져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은, 해결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진아리채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의 도로에다가 무질서하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질서가 혼잡한 구간인데, 한 195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오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국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주차…… 한 차선을 이렇게 더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거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요구해서 거기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지금 계획이 있네요. 해야 되는데, 거기가 한 800세대가 돼요. 인구로 따지자면 약 2,000에서 한 2,500명 가까이 사는 곳이 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면 단위 인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해결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진아리채 앞에 보면 고물상이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고물상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을 가지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민들한테 군의원이 되면 꼭 좀 해결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거기 고물상 부지매립을 위해서 그동안 군에서도 여러 차례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토지소유자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요청한 사항이 우리가 거기를 저번에 매입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수요자가 한번 했었고, 2015년도에 우리 군에서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다시 한 번 재감정평가를 하자.” 라고…… 군에서 감정평가한 사람을 내세우고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를 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두 사람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균가격으로 산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제 휴업보상을, 영업손실에 따른 휴업보상을 4개월 해주라고 했었고, 또 한 가지는 피해보상, 영업손실 24개월……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잔여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할 것인데, 잔여지 구역 정형화를 위해서 운동장시설 부지를 좀 개척해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한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기로 했고, 또 영업손실 4개월 휴업보상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를 위한, 토지 정형화한 것도 수용하기로 해서, 아마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거의 합의점을 이뤘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합의점을 거의 다 이뤘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예)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쾌적한 환경관리에 많이 신경써주시고.

기본설계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되겠네요? (예)

그때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불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09시57분

□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
 - 농업기술센터
 - 보건의료원
 - 맑은물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부의된 안건

<제6차 본회의>

- 2018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농업기술센터
 - 보건의료원
 - 맑은물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09시57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질

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 등 4건입니다.

먼저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 적응 아열대작물 도입 및 재배 기술 개발을 위하여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22개 사업, 61개소에 총 12억 7,9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지역특화작목 유자 가공상품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가공상품 판매액은 '17년도 5,000만 원에서 올해 8,000만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온난화 대응 감귤 재배면적은 2016년 10헥타르에서 2018년 24헥타르로 점차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사업 운영결과에 따른 사업 확대 및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확보와 병행한 방제모형을 정립하였으며, 지역적응 시험작목에 대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여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센터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을빛여행축제 시 완도타워 국화 전시 증가로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한테 아주 고생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님들 격려 한번 해겠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으로 유자 가공상품 개발 및 감귤 재배면적 확대 등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지역농업 특성화 명품유자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었고요, 감귤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 그다음에 비파 유기재배 시범사업 등 매년 5건 정도…… 그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유자 가공상품 같은 경우는 고흥이 그래도 조금 앞서가는 곳 아닌가요, 완도…… 우리 군 지역에 비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이제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어떤 가공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고급 청학동에서 그렇게 상품을 생산해서 지금 개발해놓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자청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유자쌍화차, 그다음에 쌍화…… 쌍유자티백, 이게 쌍화차라는 이름을 못 붙이고 그냥 유자쌍…… 아니, 유자쌍유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고흥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유자산업이 이렇게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승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비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신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유자가격이 기복이 심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유자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지금 고령입니다. 그러나 완도 유자가 고흥 유자에 비해서 향 같은 것이 좋다보니까, 상인들이 완도 유자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저희들

이 관리지도를 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 부의장 허궁희

이렇게 경쟁력이 있으면 그래도 각 가정에…… 이렇게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파악을 시켜줘야 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보셨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유자 묘목들을 보면 굉장히 수량이 오래 되어가지고 고목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고목들은 새로운 어린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식력 재배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그리고 답변 시에 보니까 망고나 커피, 이러한 품목을 경제성 분석…… 도입 검토하고도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이제 일부지역에서는 망고라든가 바나나 같은 경우 최근에 도입해서 재배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인근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물들이 워낙 재배상황에서 고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난방제라든가, 그런 경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그런 경영비가 부담이 되다보니까 우리 농가…… 우리 지역 농가들이 선뜻 나서는 농가가 없어서 저희들도 관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외면에서 한 농가가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주 관찰한 후에 우리 농가에, 일반농가에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나면 제가 의

원이 되기 전에는 우리 완도군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봤어요, 가끔. 그래서 ‘우리 군이 상당히 앞서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의원이 되어서 쪽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제 생각보다는 미흡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작목 한두 가지라도 개발해서 이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하면 어떨까 싶은데,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작목을 농가들한테 접목을 시킨다는 것은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향토사업으로 추진했던 비파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감귤 명품화사업이라든가, 행정에서 묘목 지원사업으로 해서 감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보니까 과학영농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기능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실은 과학영농센터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영농기술지도자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대학에 있는

과학영농실증 시범포를 비롯해서 종합검정실, 그다음에 병해충진단실, 조직배양실들을 내설 있게 운영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다 과학적인 영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난지시험장, 완도시험지를 인수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해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야리에 있는 난지시험장을 기술센터에도 인수를 한다는 얘기네요, 합병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결론은 두 군데 있는 기술센터와 그 대야리 난지시험장을 한 곳으로 묶는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니요, 대야리 시험지는 도 기관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다른 곳에 또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리고 대야리에 저희들 시험포장이 따로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아, 따로. 저는 그게 난지시험장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저는 과학영농센터라고 하니까 뭔가 변화가 크게 있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들도 많고, 또 젊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귀농인들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센터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앞서 나가는지는 못할망정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완도가 뒤떨어진다는 말은 안 듣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소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완도 자연 그대로 농업발전 생산기반 조성과 농작물의 면역체계 강화 및 병해충 발생 경과, 고품질 원예작물의 생산을 위한 바이오 기능수 생산 장치를 지원했죠? (예)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일부 농가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딱 띄게 효과가 나타난다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대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미세적으로 나오니까, 일부 농가에서 조금 관심이 있는 농가들은…… 어떤 적은 효과지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농가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관심 없이 그냥 평상적인 생각으로 관리하는 농가들은 ‘아, 그것 뭐해도 그렇게 별의미가 없다.’ 라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소장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민선6기에 들어와 가지고, 대명 바이오기능수가 만능수가 되어 가지고 얼마…… 우리가 지원이 됐는지 알죠?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수산양식과에서 해서 우리가 보조해준 것이 6억 2,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필터까지…… 필터 하나 교환하는데 50만 원이죠, 소장님이 2회 추정 시 필터 교환한다고 예산을 또 신청했었죠? (예)

그렇게 하는데 전임소장님부터 해가지고 바이오기능수하면 모든 것이 다, 병해충부터 해가지고 한우농가들은 한우농가대로, 또 우리 뒤 방울토마토나 뭐 저기…… 뭘니까, 완도에서 나오는 모든 작물들이 다 바이오기능수 물만…… 기능수 물만 주면 다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소장님의 말씀은 전혀 안 맞는 지금 대답인데, 지금.

내가 보니까 몇 농가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녀보니까 거의 뭐 무용지물 되어 있고, 다 녹이 슬어있고 다 그런 실정이던데, 그러면 이 바이오기능수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의 말씀처럼 별효과가 없어서 이것으로 마무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필터교환, 이런 예산신청을 해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3년간은 필터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6대만 저희들이 제일…… 차 후에 했던 여섯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 박인철 의원

아니, 우리 저기 우리가 기능수가 제 역할을 하면 6대고 60대고 좋겠죠. 그런데 소장님도 방금 말씀하셨고, 또 현장에서 쓰시고 있는 농가나 이런 데에서도 별효과를 못 봤는데 거기다가 다만 얼마가 났든 간에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전임소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전체 부서들…… 농업기술센터만은 아닙니다마는 부서들로 해서 설문까지 해가지고 감사의뢰까지, 시험의뢰까지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본의원이 말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바이오기능수가 최고라고…… 시험 실증성적까지 들이대던데, 그런데 이제 와서 소장님의 말씀처럼 큰 의미를 못 느낀다고 하면, 그동안 거의 10억 정도가 소요된 예산이 전부 물거품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 거의 다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양제라든가 어떤 영양식품 같은 것을 좋다고 해서 먹었을 때 하루아침에 효과가 막연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좋아지는……

□ 박인철 의원

소장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이것 `14년도부터 제가 의원이 막 되어가지고 2회 추경에 대명 바이오기능수라고, 제가 그 상호까지 압니다. 대명 바이오기능수라고 해가지고 이것 도대체…… 그 당시 7대 의회에서 “이것이 도대체 뭐냐?” 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업축산과하고 경주, 김해까지 현장까지 갔다와본 상황입니다. 완도군에서 하기 전에 그런 데에서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소장님이 그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내가 이것을 전임소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다 시험을 했다고 해서, 다 좋다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대야리 시험포에 가면 대명 바이오기능수라고 해가지고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바이오기능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기계를, 생성장치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재배되는 작물에……

□ 박인철 의원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소장님도 같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재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상추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같이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다른 농가에서는 뇌농더라도 센터에서 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교…… 제가 전임소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고추가 그렇게 탄저병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좋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오

기능수하고 일반수하고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뭐 바이오기능수로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반 고추…… 일반에서 먹는 물 보다는 1.5배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마는 2 점 몇 배로 수확이 좋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것 전부 또…… 이 예산도 전부 순군비가 아닙니까, 바이오기능수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급은 없겠네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새로운……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필터교환은 꼭 해줘야 됩니까. 이것 소장님의 말씀처럼 별의미를 못 느낀다고 하는데다가 필터 하나에 50만 원씩인데, 이것도 또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 부분은 사용하는 농가에서 “그것을 정말 착실하게 한번 써보겠다.” 라는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도 지원을……

□ 박인철 의원

지금 똑같이 축산양식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바이오기능수를 했는데, 수산 쪽으로 5개 바이오기능수가, 수산이라서 비쌉니다. 2,200만 원 합니다, 한 대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쪽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중단했거든요. 처음 시험으로 하다가. 그런데 농업축산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계속 이것을 `16년도, `17년도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8년인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스톱하려면 완전히 딱 스톱을 하고, 진짜로 바이오기능수가 좋다고 하면 농민들과…… 여기 지금 열두 농가 안 했습니까, 한우농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정도 했으면 결과가 다 도출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의뢰를 안 하더라도, 연구소에 의뢰를 안 하더라도. 이것을 좀 마무리하십시오,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다음은 2페이지,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은 2016년 20종 61대, 2017년 24종 165대, 251일이며 2018년 10월 4일 현재 26종 267대를 임대하였으며, 주로 체도권을 중심으로 40, 50, 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임대사업 추진실적은 2페이지와 3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보고대교 개통과 더불어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홍보되면서 점진적으로 임대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업기계 교관의 임대사업장 상주 근무에 따른 읍면 순회수리 교육 감소로 도서지역 대농업인의 현장서비스가 약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장비 운영 및 정비,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충원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기계 임대사업 유형이 단기임대냐, 단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단기.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농기계사업 임대료 신청방법과 임대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기본적으로 농지임무가 있는 그 농가들이 그 대야리에 있는 임대사업장을 방문하여서, 임대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그런……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답변서를 보면 임대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있네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정규직 한 사람하고 보조 한 사람, 두 사람이……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전문인력을 충원해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이 임대사업을 국비로 이렇게 가져오는 과정에 있어서 22개 시군 중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중에 우리 완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도서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제적으로는 못했고, 다음은 인력충원이었습니다. 신청조건에 인력확보 전제조건하에서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규직 2명 이상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임대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인력 충원이……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좀 힘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렇죠, 지금 실은…… 기술이 있으면 자기들이 새로 오픈해 버리는 그런 영향이 있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애로사항이 많네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단기보다는 장기임대를 하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인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여해주는 기계 자체가 어떤 엔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작업 부속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그렇게 많이 쓰는 날도 없고, 그래서 장기임대는 조금 무리가……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 보관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렇죠, 농가에서 필요하면 그것을……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런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단기임대를 하게 되면 자기 것 위주로만 하고 이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면 뭐 임대해서 쓰고 다시 반환하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렇죠, 기본적으로 3일까지 임대를 해줌

니다, 3회를.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장기임대는 힘들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힘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순환지, 순환보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소장님의 답변을 보면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이 힘들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소장님, 인사부서와 잘 협의해서 전문인력을 임대사업에 추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임대차 농기계 기종은 몇 기종이나 됩니까. 기종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 26종에 267대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26종이요. 대충 중요한 것이 콤팩트, 이런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업 기입니다, 전부 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는…… 그것도 소규모 농장에서 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누가 고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만약에 임대로 빌려간 농가에서 사용 중에 고장이 난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농가가…… 빌려간 농가가 고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원가만 그렇게 부속대만 받고 임대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부속비만 내면 여기서 고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혹시 자격증이 없으면 안 빌려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엔진이 있는 뭐냐, 소형굴삭기가 있어요. 소형굴삭기는 면허증이 없으면 임대가 안 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래도 그 농업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자격증이 없으면 안 빌려준다. 그 자격증이 있다면 내가 왜 빌려가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혹시 자격증반을 군에서나 아니면 상담소에서 개설해 가지고 그분들이 소규모 농가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소형 굴삭기 같은 경우는 적정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그 자격증반을 개설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이것도 어떤 군에서 보면 빌려갈 때 본인이 안 빌려가고 군에서 이것을 임대라고 해 가지고 갖다 주고, 또 회수하고, 이런 것을 하는 군도 있다는데. 소장님, 혹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 부분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택배회사들하고 의 어떤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다른 일부지역에서는 1~2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군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점진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자기 용달회사에서 자기들이 운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관에서 직접 운송해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밥그릇을 뺏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임대차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임대차를 했으면 그쪽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농가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탈부착을 해가고, 그런 것이 원칙인데 수송하는 과정이…… 수송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신 해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소장님, 앞으로 소농가들이 자격증이 없어 가지고 꼭 빌려가고 싶은데 못 빌려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하든지, 자격증반을 개설해 가지고 그분들이 큰 것은 못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빌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소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교육이…… 우리 센터에서 이제 집합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못합니다. 어떤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목포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뭐냐, 숫자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출장교육을 요청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하고…… 하는 방법까지도 강구는 되겠습니다마는 읍면까지 돌아다니면서는 교육하기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전부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완도에서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농민이 직접…… 민원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마는 농민 임대사업의 의미가 지역의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저런 취지의 사업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방금 우성자 의원님이 농기계를 직접 우리 농민들한테 가져다주면 어떠냐. 빌려주고 직접 실어주고, 신고 오면 어떠냐고 그랬는데

요, 그랬을 때 방금 택배…… 용달회사를 말하는 것이죠? (예)

운송비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운송……

□ 최정욱 의원

자기들이 벌어먹을 것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렇죠.

□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렇죠, 만약에 용달회사하고……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용달회사와 계약이 되어가지고 “용달회사 전적으로 너희가 운송을 해서 가져다줘라. 또 대신에 끝나고 가져다줘라.”라는 어떤 계약 시스템이 된다면 운송에 대한 마찰이 없겠죠.

□ 최정욱 의원

아니, 그것의 예산이 따르니까 그런 것이고, 사실은 임대해가는 것이 우리 농민들,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렇게 해버리면 빌려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차피 빌리러 오는 사람은 차량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있으니까 빌리러 오잖아요. 본인 차에 싣고 가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싣고 가서, 거기서 내려야 하는데, 안전사고가 그동안 난 적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되면서 다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민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싣고 가서 내릴 때,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쉽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안전사고가 꼭 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죠. 차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택배 용달차하고도 마찰도 없고, 그것만 아니면 된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러니까 차만 가지고 오면요, 저희들이 상차를 해주고.

□ 최정욱 의원

하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또 하차도 힘 안 들이고 하차를 할 수 있는 부속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톤 화물차에다가 바로 그것까지 해가지고, 뭐냐, 전기전동모터를 달아가지고 바로 농기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상·하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을 우리가 전담으로 상차, 하차를 해주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당연히 저희들이 상차는 해주지만 하차까지, 또 목적지까지 저희 직원이 대동해가지고 해주기는 어려운 그런……

□ 최정욱 의원

할 수는 있잖아요,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한다고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정규직하고 보조원 한 사람……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인원이 문제여서 그렇지. 우리가 어차피 고령화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죠. 이것은 어려우니까 안 하고, 인원이 없으니까 안 하고, 그냥 사업만 만들어놓고 농민들 누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승하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속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1톤 차에다가 우리가 임대해주는 기계하고 장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차에. 그러면 노령인 어르신들이 힘을 안 들이고 바로 기계에서…… 뭐야, 차에서 내려서 바로 탈부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상황에서.

□ 최정욱 의원

제가 민원만 받아서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차분히 한번 기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읍면으로 다리 개통이 되면서 수리과정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센터를, 대야리에 한번 갔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문제냐. 기왕이면 부속품을…… 우리가 단품종 같은 것은 바로바로 교체해줄 수 있잖아요, 순회하면서.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순회를 가버리면 여기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임대하러 오신 분들한테 임대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순회를 가버리면. 그런데 그것을 듣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직원 말은 일리가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충원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본인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수차례 농민들한테 전화가 오고 부속품 좀 알아주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여기를 빠져나가 버리면 여기를 지킬 사람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원충원이 안 되는 이유와

어떤…… 그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전에 이제 장보고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임대사업이 크게 어떤……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장보고대교가 개통되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또 수리인력이라든가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여간 인력, 뭐냐,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인력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 부속을…… 간단한 부속을…… 농민들한테 바로 가서 해주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이 참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을 안 해줘버리면 기계가 서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빨리 빨리 대처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설령 없다면 농촌에 직원이 있을 때 잠깐이라도 가서 임시라도 우선 이것을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책반을 구성하더라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직원이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연구도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동수리 같은 경우는 어떤…… 뭐냐, 군 소재지, 읍면 소재지 지역을 떠나서 도서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동수리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도서…… 아니, 소재지권에 있는 그런 농가들이 고장이 났다고 저희 센터에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또 인근에 있는 수리센터 직원하고 마찰이 빚어집니다. 저희들 이동수리의 목적은 도서 오지, 이동수리센터가 멀리 동 떨어진 마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하여간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 최정욱 의원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에 맞게 이렇게만 만들어놓고, 그냥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죠. 농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그것은 안 되지, 그러면 실망이 많죠. 그것이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대야리도 가게 되고 현지조사를 해보게 된 것이고, 그 직원들의 말도 다 들어봤거든요. 그 직원들도 필요성을 말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소장님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런 일들…… 더 이상 민원이 안 오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1전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응급환자 후송체계 보완 및 도서 읍면 공보의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응급의료 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증의 1차 응급환자는 현재 완도군 자체 공공의료기관, 즉 보건지소나 18개의 보건진료소에 응급의료 체계로 주·야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완도군에는 중증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2 내지 3차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증응급환자를 취급할 수 있는 해남, 목포, 광주 등 타 지역으로 중증응급환자를 긴급히 후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긴급 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의 경우, 넓게 분산되고 많은 도서들로 이루어진 완도군의 특성상 긴급 후송체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 긴급 이송 수단은 승용차, 구급차, 선박, 헬기입니다. 주로 선박과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완도관할 119센터의 구급차 현황은 완도센터에 1대, 노화지역에 1대, 고금센터 1대, 금일지역에 1대, 총 4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권역별 1차 응급의료체계는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두 곳의 민간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완도권역인 완도읍, 군외·신지·약산면은 민간의료기관인 대성병원에서 1차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일, 금당, 생일, 금일권역은 본섬의 각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 1인이 24시간 대기하고, 민간의료기관인 금일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연중 24시간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화, 소안, 보길, 노화권역의 경우 노화 본섬은 노화보건지소의 야간 진료실에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소안본섬은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 1인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청산권역은 본섬은 의과 1인이 24시간 비상 대기합니다. 완도해양경비함정으로 2018년 10월 기준으로 약 181건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2017년도는 73건, 2018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약 53건을 응급 이송하였으며, 완도대성병원에서 타 기관으로 이송한 실적은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자체구급차로 122회, 사설구급차로 318회, 헬기 22회 총 462회 이송하였습니다. 주간 중증응급환자 후송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야간, 기상악화 시 선박, 헬기의 운항이 안 되는 점, 도서지역에 해경경비정의 접안이 안 되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군의 향후 대책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 이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완도 해양경찰서와 섬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남소방서와 구급차에 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대책입니다. 첫째, 119 구급차 함대 배치. 두 번째, 그 사선…… 나르미선의 활성화입니다. 119 나르미선은…… 그 다음 셋째, 부잔교 접안 시설의 보강 및 확충을 해서 해안경비정 접안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헬기 착륙장의 확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야간으로 출동이 가능한 선박 및 헬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근무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된 공보의 현황은 전체 46명으로 의과전문의 4명, 의과일반의 21명, 한의과 12명, 치과 9명입니다. 읍면별로 보면 보건의료원에 신경 내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을 포함하여 8명 배치하고, 약산 등 연륙·연도된 군외, 신지, 고금, 보길에 의과 일반의 각 1인을 배치하고 도서인 노화에 3명, 소안, 청산, 금일, 금당, 생일에는 의사 2인을 배치하여 24시간 진료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의과, 치과는 섬의 민간의료현황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공중보건의의 적정인원은 의과전문의 4명을 포함하여 총 47명입니다.

2018년도 공중보건의 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현지 복무점검을 27회 실시하였고, 근무지 무단이탈 등 적발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기진작 및 기강확립을 위하여 분기별 연 4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허위병가 근절을 위하여 금요일, 월요일 병가 시 진료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응급환자 후송체계 보완 및 도서읍면 공보의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도서읍면 응급환자 발생 시에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러니까 저기……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도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이제 거기 배치된 공보의들이 1차 환자를 보고, 거기에서 처치할 수 있는 정도면 바로 처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후송을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후송을 어떻게 하시는지.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송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응급환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생명을 존각을 다투는…… 보통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1차, 2차, 3차로 분류를 합니다. first-degree, second-degree, third-degree라고 그러는데, third-degree 정도 되는 환자는 뭐 승합차나 헬기를 불러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뭐,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다고 그러면 소위 얘기하자면 해경경비선…… 그러면 해경경비선이 오면 거기에 싣고 가는데.

문제점이 항구에서 바로 접안이 안 되니까 소위 얘기하는 사선, 뭐 썩썩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다가 심든지, 아니면 119 나르미 같은 데에다가 실어가지고 해경 배에 싣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 읍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보건지소에서 1차 와서 받고, 아주 응급이 아닐 때는 행정차로 많이 운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행정차로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면에 행정차.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해경……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니, 배 아니고, 차요, 차. 보건소에서 와서 1차 받고 다시 움직일 때 119차가 없는 곳은 행정차로도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대개 승용차로 오고 자기들이 왔다가, 승용차로 와가지고 그런 것은 봤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읍면에 구급차 한 대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이 구급차라는 데에 대한 의미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단순히 그냥 환자가 타고 가는 아니면…… 타고 가는 차로만 생각을 하면 굳이 구급차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구급차를 1대 운영하려면 반드시 인력이 한 두 사람 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는 사람 그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응급구조사라든지 아니면 간호 인력이라든지, 의사와 동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 군과 해양경찰서, 해남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시가지고 진짜 도서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혹시 병이 나고 그러신 분들을 잘 좀 보살펴줄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공중보건의, 그 복무는 잘하고 계신가요, 읍면에서?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글쎄, 제가 봐가지고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제가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고 그러면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연가를 내서 쉬는 곳도 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연가를 내서 쉬는 것도 여러 번 봤는데,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지역에서는, 공보의들이 2명씩 배치되는 곳은 그런 것이 드물고요. 1인이 배치된 곳이 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배편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가야되든지 그래야 되니까 금요일에 조금 일찍 연가 처리를 하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냥……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어차피 한 사람은 근무를 해야 만이 혹시 환자가 오시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을 텐데, 어떨 때 가보면 한 사람도 없는 곳도 있고요. 또 이것은 원장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약국도 토요일이 되어버리면, 금요일 오후면…… 고금에 약국 2개가 있는데 다 같이 쉬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한 사람씩 격일제로 쉬라고 해도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도서지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보건 의의들이 자리를 뜨지 않도록, 또 그런 경우 생길 때는 한 사람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은 마치고요,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원장님한테 보건의료원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좀 신경써주시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바로 다음 날인가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치하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건의료원장님께서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다음은 박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보건진료소 운영 내실화 방안 및 보건의료원에 집중된 전문의 및 치료설비의 도서지역 재배치 및 추가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란, 농어촌의료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하는 곳으로 외딴섬 등 무의촌을 위한 의료 시설이며 완도군에는 18개 보건진료소를 운영 중입니다. 금일읍 3개소, 노화읍, 군외, 청산, 소안, 보길면에 각 2개소, 나머지 5개면에 각 1개소씩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의사가 없는 무의낙도 주민들의 진료와 방문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노인성 질병예방 및 상담으로 도서낙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을 보면 2018년 9월 30일 현재 전체 총 2만 1,090건입니다. 방문진료 건수는 8,641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장의 자격은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환자의 일정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의료전문인 신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오전은 일반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읍면 마을회관, 경로당, 가정방문 등을 통해 혈압·혈당 검사,

만성질환관리, 투약상담 등을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를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원격진료, 화상진료 확대 실시입니다. 보건진료소장인 간호사와 의사간에…… 전문의를 두면, 의사간에 원격협진 화상진료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2017년부터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화상을 통한 의료취약지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주민 대상으로 원격의료 기반을 구축,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완도군 보건의료원의 전문의들과 완도대성병원에 있는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내과 등의 전문의들과 금일보건지소에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노화보건지소에 있는 안과전문의 등 각 보건지소장들과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진료를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피부과전문의 등을 추가로 진료과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17개 보건진료소에서 화상 원격진료 요청 시 진료 및 처방을 실시하여, 2017년 42건, 2018년 97건 총 139건의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분기별 1회 내과, 한의과, 치과를 구성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등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특성상 배가 결항되거나 출항이 어려울 때, 혈액투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나 영유아,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의료원에 집중된 전문의 및 치료설비의 도서지역 재배치 및 추가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입니다.

도서지역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료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 등이 따로 별도로 필요하고 이 모든 시설을 갖추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혈액투석 환자와 영유아, 응급환자의 진료를 제대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각 도서지역마다 최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하는데, 그것은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건지소에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서지역에도 그런 설비가 갖추어지고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의 보건진료소 운영 내실화 방안 및 보건의료원에 집중된 전문의 및 치료설비의 도서지역 재배치 및 추가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진료소장들이 낙도근무 기피 현상이 있고요. 또 타 지역으로 전출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진료소장들의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 제가 다시 돌아보고……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많이 열악합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열악하고요, 혼자 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래서 그런 열악한 근무여건을 의료원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혼자 근무를 하고……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들의 진료행위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진료소장들의 개선은…… 항상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께 여쭙볼 것은 사실 많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도서지역이라 어려운 점이 많고 좀 힘들겠지만, 앞으로 사람이 죽고 사느냐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쭙볼 것은 많지만 보건소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꼭 챙겨볼 테니까 좀 잘 해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섬 주민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섬 주민들의 생명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드리구요. 보건소의 주변 환경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에게 메시지가 한 통이 왔는데요. 잠깐 읽어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동네에 팔순 되신 어르신 부부가 사는데 오래 전부터 지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현재 치매 증상까지 있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께서 항상 옆에서 돌봐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도 건강이 악화되어 서울에서 허리협착증 수술과, 다른 질병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홀로 계시는데, 식사나 약물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보니 동네에서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식들은 타

지에 있고 딸은 섬 보건소에 근무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거기 섬 보건소에 누군가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서 완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여기 완도입니까?

□ 이범성 의원

예,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그러면 보건지소나, 어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이범성 의원

그렇죠, 노부부 두 분은 여기 있는데, 어머니는 서울로 가시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너무 힘들다. 근무를 완도에서 하면서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느냐. 그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그러면 현재는 섬 지소에 있고 완도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정확하게 아가지고요,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읍면 하수관거 사업추진 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하수관거 사업은 표에서 보듯이 완도읍 2개소를 포함하여 7개 읍면 8개소입니다. 주요사업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지역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침수 대응사업 1개소, 도심지 기반침하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1개소, 농어촌지역 내 시설용량 1일 500톤 미만의 공공 하수도를 시설하고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개소, 행정 구역상 면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하고 면 소재지권 생활하수 및 오수를 차집 처리하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개소입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첫 번째, 완도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시 침수 대응사업으로 10월 현재 전남도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완도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20%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주도 앞 일부 구간에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관로교체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다수위 등 물 때에 맞춰 공사를 신속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일 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2019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약산 당목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입니다. 본사업은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2020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일부 노선 토지소유자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원만히 해결하여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안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주 10월 23일 준공하여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금당 가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생일 서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8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마을 하수관거 사업추진 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오수와 우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과 방류지역까지 운반하기 위한 배

수관로사업이죠? (예)

그러면 현재 7개 읍면에서 8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로 관로정비하고 배수설비인데, 관로정비는 노후관리를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요, 전체적으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관로들을 새로 시설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 관로를 시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비가 올 때 초기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하천에 방류된 월류수를 분류식 하수관거 원류수로 하고 있죠? (예)

그 자료를 보니까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원류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하수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지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발언을 할 수가 없어서. 혹시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을 대동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나, 아니면 직접 답변해 드리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김양훈 의원

서면으로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월류수는 관거 설치공사 때 충분한 품질을 확보해가지고 하수처리장, 그 여유용량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처리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그 부분은 제가…… 거기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양훈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면 통보할 때 같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 전부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노면상 오염물질이 오수보다 더 심하다는 통계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오폐수도 그렇겠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에서 거기에서 처리되지 않고 용량이 한계로 차다보면, 여유용량이 없다보면 바로 이렇게 집중호우 때나 넘어서서 바다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오염물질이 바다로 많이 유입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청정바다수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맞지 않는 하수종말처리장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순회 때 보니까…… 아, 읍면순회하기 전에,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공사비가? (예)

참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종합적인 뭐 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한 것은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저희가 하수처리장 시설이나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사업을 하면 최하 3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소요가 되거든요. 이 사업을 신청하는 전제조건이 저희가 환경부로 신청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그 반영된 그런 사업영역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가 신청을 중앙부처로 하거든요. 중앙부처로 하는데, 매년 환경부…… 중앙정부의 재원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해요. 충만해서 못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은 매년 지자체당 대부분 1개소 정도 할당해 줍니다. 할당을 해주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2개소 정도로 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 사업선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에 중추적인 역할은, 부군수님이 이쪽으로 전문가이시고 환경부에 인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 보다는 하나 더 사업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도 지금 2개소가 신규사업으로 됐고, 2019년도도 현재 2개소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양훈 의원

우리 군에서 보니까 기금조성을 한 네 종류로 하고 있더라고요. 식품진흥기금하고 생활폐기물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오폐수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같이 사업하고 연계되면 어찌됐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꼭…… 왜 그러냐면 계속 국비에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해주라는 데는 많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군민들도 인식이 참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오폐수처리장을 서로 하려는 읍면단위 동네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국가에다가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주시고요.

다음은 읍면순회 때 돌아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물은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적수나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여론을 들어보셨죠, 민원이나?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보길, 노화 지역에서 적수발생이 좀 있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보길, 노화 지역에 적수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발생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주요 성분이 망간으로 해가지고 이 망간이 수도 관내에 축적되어 가지고 망간 산화물의 유속변화로 인해서 적수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수원지 내에는 망간성분이 좀 있거든요, 망간성분이 있는데. 보길 부황지는 다른 수원지에 비해서 망간 성분이 다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구요.

그리고 적수는 대부분 어떤 때에 발생을 하나면 물을 갑자기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을 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화나 보길 지역도 올해 들어서,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적수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 두 번 발생했습니다. 두 번 중에 첫 번째는 여름하게 휴가철에 발생했고, 두 번째는 이번 추석명절 전날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그때 물 사용량을 보면 평상시에 이 지역의 물 사용량이 시간당 90톤 정도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최대 물량…… 그 물이 공급된 것이 시간당 193톤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적수는 시간당 170톤 이상이 났을 경우에 적수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에 적수가 한번 발생이 났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나 완도수도관리단에서 수도 공급량을 너무 급격하게, 170을 초과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물을 많이 써서 그렇게 적수가 발생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적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노화나 보길 지역 전지역에 20개소로…… 20개소에서 저희가 이토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수돗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저기 소장님, 소장님. 일부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갑작스러운 유속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서 제일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은 염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 옆에 붙어있던. 그 염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적수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저는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었었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저희는 현장에 투입조였거든요. 맑은물사업소나 완도수도관리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기 본부에서도 이 원인…… 처음에는 이 원인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저희들도. 완도수도관리단에 있는 인력으로 이 원인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본부에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것보다는 망간으로 지금……

□ 김양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염소 쪽이 많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도 왜 염소 쪽으로 비중을 많이 뒀냐고 그러면 그때 완도…… 노화에 갔더니 그분들이 영유아, 어린이들이 물을 가지고 샤워를 한다든가. 이렇게 얼굴에 닿았을 때 피부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피부병이 발생하다보니까. 염소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몸에 건조증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긴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전에서. 그러가지고 저도 얘기할 때 염소가 맞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이런 쪽으로 우리 군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전문가거든요. 전체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세부적인 사항을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끔……

(

□ 부군수 박현식 집행부 좌석에서 -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의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조인호

간단하게 하세요.

□ 부군수 박현식

적수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염소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특이하게 망간…… 빨간 물은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철 성분이 공기하고 반응해서 빨갱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망간이라는 어떤 특수한 성분이 있어서 아주 적은 농도에서는 붉게 나오고 망간 농도가 높으면 흑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흑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지금 보길에 있는 부분이 암반이 있다 보니까 망간 성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화조…… 정수장에서 충분히 제거를 했었습니다. 제거를 다 했고, 그쪽에 문제가 없었고,

단지 문제가 뭐였냐면 노화는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물을 거의 쓰지 않고 단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밑에 약간의 망간 성분이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미량 부분이, 이 물이 이렇게 많이 쓰다보니까 따라오면서, 공기하고 접촉하면서 붉은 물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아예 없도록 이번에 관을 세척할 것입니다, 전체로, 아마 지금까지 노화와 보길에서는 관을 세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을 세척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존치기간이 30년이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 김양훈 의원
관 존치기간이 30년.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내부연한이 30년.

□ 김양훈 의원
30년이죠.

그리고 노화, 보길 이쪽이 15년이 좀 넘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15년됐습니다.

□ 부군수 박현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 조사를 추석 때 했었는데, 일단 지금 주철관 부분을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나머지는 PE관이라든가 HI-PVC인가, 관이 있는데, 주철관을 보니까 한 10년 정도, 메인 관만……

그래서 관 문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관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3년 전에 혁신도시에 흙탕물 사건 때 대책반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실제로 전문가들하고 다같이 모여서 해결한 방안이 있는데요, 이번 것은 더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전체적으로 관 세척을 한다고 했는데, 관 세척하는 동안에는 주민들 식수는 어떻게 공급할 것입니까?

□ 부군수 박현식

관 세척하기 전에 사전에 정비 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 작업이. 먼저 물을 뺍니다. 통저수지에 있는 물을 다 빼고 그물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단수를 합니다. 단수기간은 기껏 해봐야 하루 정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단수를 짹 짹 해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청소를 했을 때 관 속에 있는 물들이 나중에 다시 가정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 부군수 박현식

아닙니다. 이토변이라고 해서 하수도…… 상수도 시설에는 중간 중간에 물을 뺄 수 있는 공기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브를 열어서 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실제로 보면 약간의 주스처럼, 이만큼 원액을 넣으면 빨개지는 것처럼 실제로 조금만 넣어도 빨개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칭취불능)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토변으로 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언제쯤 그 공사를, 세척을 시행할 예정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오늘 1차 구간에 대해서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단수는…… 이 작업은 대부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야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단수는,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 15시까지 보길 지역 단수에 들어가고 노화 지역은 마찬가지로 시작시간은 똑같습니다. 노화는 조금 더 단수기간이 좀 길어서 그 다음날 12시까지 해가지고 단수가 되고, 단수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관을 세척한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홍보를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주민들도 각 가정 내에 있는 물탱크를 이번 기회에 같이 청소하자고 주민계도도 하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차 시작합니다.

□ 김양훈 의원

단수하게 되면 군민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수질개선했을 때 검사를 하죠, 상수도? (예)

그 상수도 쪽에서만 하고 가정에서는 한번도 안 해보셨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가정은 지금 안하죠.

□ 김양훈 의원

그렇죠, 그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마지막 상수도…… 잘 처리되고 소독도 잘되어 가는데, 실상적으로 마지막에서 먹는 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 김양훈 의원

그 부분도 물탱크 청소를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물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한번씩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믿고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부군수 박현식

김양훈 위원님,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혹시나 노화, 보길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아까 망간에 대한 부분은 작년 후반에 망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래 같은 것인데. 망간사를 쓰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도 다 대비를 했습니다. 다른 정수장에는 없는데 우리 노화, 보길은 망간사로 되어…… 망간사로 구성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 세척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작은 군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래서 군민들이 꼭……

□ 부군수 박현식

그리고 안심지하수사업이라고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 물을 안심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심지하수라고 해서 신청하면 가정에서 수질을 측정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심지하수 신청을 받아서요. 앞으로 가정에

서도 “내 물이 의심스럽다.” 라면, 혹시나 주민들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심지 하수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바로 물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불편함 없이 믿고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소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했던 장좌리 장섬 앞 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마을마다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쯤에나 끝납니까, 그러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그 부분은 일단 완도읍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착공해가지고……

□ 박인철 의원

아, 그것을 완도읍에다가 재배정을…… 왜 맑은물사업소에서 안 하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빨리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상시 배치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비가 올 때 장섬 쪽으로 하수물이 안 내려가게 해주고요.

소장님, 홍일철물에서 우주세차장 그 사이 알죠, 그 사업은 언제 할 것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홍일철물……

□ 박인철 의원

모름니까, 제가 그 차재철 팀장님이 계실 때 누누이 이야기해 가지고 올 안으로 예산해 가지고 한다고 하던데, 올 해가 몇 달 안 남았는데……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그 사업을…… 지금 현재 하수관거 중점관리지역으로 해당되는 사업구간인 것 같은데요.

□ 박인철 의원

그 광주식당이 있는 곳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전체적으로……

□ 박인철 의원

비만 오고 만조만 되면 가정집으로 역류하는 거예요, 하수도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이번에 설명했듯이 완도가 하수도…… 그 구역은 완도군 하수관거 중점관리지역, 그 사업구간이거든요. 사업구간이어 가지고 현재 재원 협의까지는 마쳤어요, 마치고, 이번 주에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하거든요.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자 선정을 해줍니다. 사업자 선정……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이 되겠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올해 안에 착공되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해나가기 때문에 최대 3년을…… 전체 3년 기간이 끝나면 그

사업구간이, 모든 사업이 완성됩니다.

□ 박인철 의원

그 구간이 그렇게 길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이제 저기…… 지금 사업구간이 어디서부터 되어 있냐면 인공폭포, 거기 구간에서부터 쪽…… 학교 쪽 있죠, 초등학교,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는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구간이거든요, 사업구간.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커요. 2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차근차근해나가……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십시오, 공사가 그렇게 된다고. 그분들은 바로 될지 알고 있는데, 3개년이라고 한다면 그것 이야기를 하십시오.

방송실,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소장님, 자세히 봐주십시오. 노화, 보길권역 식수원 공급방안 검토입니다. 보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제가 올해 들어서 시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 박인철 의원

돌보기 하나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그래서 제가…… 아니, 아니.

□ 박인철 의원

아니, 좋습니다.

사진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 사진 말고요, 노화.

전년도에도…… 올해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데 노화, 보길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소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저희가……

□ 박인철 의원

저류조 말고요, 저류조 말고. 우리가 댐을 막는다고 안했습니까, 정자리에다가.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제2수원지는, 제2수원지 관계는 현재는 보류상태로 있고요, 왜 보류……

□ 박인철 의원

아니, 이유는 뭘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이유는 지금 현재……

□ 박인철 의원

비가 와서 뭐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요,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하저류조를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용역을 어느 정도 맞췄거든요. 1차용역 최종결과물에 대해서는……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면 지하저류조, 저류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극심한…… 전년도처럼 앞으로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년도처럼 극심한 가뭄이 있으면 지하저류조로 다 충당이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지금 현재……

□ 박인철 의원

영구적인 방법을 만들어야죠. 지하저류조는 지하저류조고, 항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자리 댐보다는, 7

대의회에서도 말을 했는데 해저관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하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해저관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까, 해저관로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이것에 대해 토론을 하면 너무 많은 장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주시면……

□ 박인철 의원

아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시간이 걸리면 어떻겠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 박인철 의원

아니,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 의장 조인호

부군수, 답변 그만하세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그러면 제가……

□ 의장 조인호

실과장들이 업무를 알아야지, 부군수한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저관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해저관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계획을 한다면 조사까지는 했습니다. 조사까지는 했는데……

□ 박인철 의원

조사, 그러면 그 결과를 얘기해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조사까지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

비가 511억 5,500만 원이 소요……

□ 박인철 의원

잠깐만요, 소장님.

제가 한 것으로는, 우리가 댐을 막으면 얼마 들어갑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233억 원.

□ 박인철 의원

댐을 막으면 대강 토지보상비……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한 300억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해저관로를 하면 1km당 얼마 들어갑니까, 1km당?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km당 가격으로 제가 환산을……

저희가 이번에 가뭄을 겪었잖아요, 가뭄을 겪으면서……

□ 박인철 의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km당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km당.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km당 가격…… km당 가격은 현재 공법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 박인철 의원

그 공법을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저기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 못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냐, 도에서 나온 자료예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런데 지금 봐보십시오. 댐을 막은 것하고 저류조는 부군수님이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가져와서 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봐보십시오. 저기 서넛도나 넵도, 소안도, 노화, 보길, 전부 김을 주생산으로 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지금 저 난리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면…… 해저관로가 우리가 보면 암반굴착을 했을 때 150mm로, km당 한 2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남 사구미해변에서 백일도까지 1km, 백일도에서 동화도까지 1km, 동화도에서 흑일도까지 3.1km, 흑일도에서 마삭도까지 0.75km, 마삭도에서 횡간도까지 0.75km라고 하면…… 지금 해저관로를 한다고 하면 지금 빠져있던 백일도, 동화도, 흑일도, 마삭도, 횡간도, 이런 곳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댐을…… 저류조는 놔놓고, 댐을 한다고 하면, 보길도하고 노화도 인구 7,794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돈도 더 적게 들어가고 공정도 훨씬 빠르고,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8,1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또 무슨 돈이 남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 안 되는 데는 거의 다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놨죠? (예)

이것도 시설비가 만만치 않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죠? (예)

필터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통상적으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필터 교체……

□ 박인철 의원

한 3억 들어갑니까, 필터 하나를 교체하는데. 해수담수화 정도 뭐 하는데.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그 정도……

□ 박인철 의원

연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필터까지 해가지고 한 3억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전체 개소를 말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제2수원지가 안 된다고 하면 해저관로…… 지금 완도에서 해저관로가 들어간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청산 장도 있는 데가 해저관로가 되어……

□ 박인철 의원

청산에서 장도까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해저관로가 들어왔고, 금당 비견도에도 해저관로가 들어가 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비견도, 거기까지는 제가……

□ 박인철 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런, 내가 지금 말하는데……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 비견도. 금당 비견도는 사실 저희가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 박인철 의원

아니, 사업은…… 예산은 어디에다가 놔놓고, 그것은 차후문제고요. 지금 충남 홍성군에서 이런 해저관로 사례가 있어요. 3.458km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공법으로 했는데 7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류조는 응급조치입니다. 항구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소장님.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제가……

□ 박인철 의원

이쪽으로 한번 사업을 툰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나오는 자료 역시 저희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도에서 나오는 자료는 부족량…… 1일 1,000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0톤에 대해서 이 가격을 산정한 금액이거든요.

□ 박인철 의원

아니, 지금 1,000톤이 아니고요. 도에서 뭐…… 똑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50mm 굴착을 했을 때 가격입니다, 150mm로, 몇 톤, 150mm가 계속 흘러들어 나가면 무슨 1,000톤이에요. 더 많이 들어가겠지. 이것은 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질문 도중에 잠깐 말하자면 저희들도 이 해저관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해저관로가 저희들이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도에서도 파악을 했는데 도에서 파악을 했을 때는 업체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간……

□ 박인철 의원

그랬겠죠, 우리도 업체에 용역 의뢰를 하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업체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고……

□ 박인철 의원
잠깐만, 소장님.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그 다음에……

□ 박인철 의원

아니, 잠깐만. 도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해저 암반굴착입니다. 해저 암반굴착으로 해가지고 150mm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방법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대부분……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대부분 암반굴착……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어찌됐든 회사용역이 도에서 했던 것하고 우리 군에서 했던 것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됐든,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도에서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도하고 같이 발을 맞춰가고 있는가, 아니면 도는 도대로 가고 우리 군은 군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묻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소장님, 어떻습니까. 벌써 도에서는 완도 물문제 관계로 해가지고 해저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 빠르게 담당실과에서는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전에 이 문제를 7대에서 정관범 의원이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해저담수화, 그때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던데. 알아보니 많은 예산도 아닌데 우리가 수원지를 막는 예산보다 적고, 수원지를 막으려면 5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은 공사가 시작된다면 2년이면 끝납니다. 이 공사는, 그러면 민원도, 암반을 하니까 민원발생도 많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쪽으로 탄해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주무부서장으로서?

□ 부군수 박현식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너무 의사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그때도 저희가 총리님이 오셨을 때 2수원지로 건의했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은 기본으로 200억 원이 넘으면 10년 걸립니다. 10년. 도에서 실링을 나눠주는데 한 군데에다가 돈을 배부 못합니다. 제가 도에서 직접 돈 배부를 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해수관로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해수관로도, 그것도 일단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업체자료인지 저도 알고 있고요. 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프로포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저관로에 따라 가지고 수공에서 물 배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수공에서 물을, 수돗물 양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1,000톤, 2,000톤 이것을 우리가 (청취불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수공하고…… 수공의 물 배분계획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수장까지 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까지 끌고 왔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2수원지든 해저관로든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지하저류조에서 속초도 가봤고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물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고……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 다 좋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류조는 우리가 가뭄일 때……

아니, 부군수님이 작년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보길도 저수지, 노화 구목저수지 물을 다 퍼서 나르지 않았습니까. 그 경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 부군수 박현식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류조는 2년 뒤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데…… 만약에 그때도 나온다면 그때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원님의 말씀대로 2년 내에 끝난다, 5년 내에 끝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공사기간이 그런다고 치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뭐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할 것 아닙니까. 저류조는 우리가…… 부군수님이 고생해서 환경부에 가서 받아왔으니까 그 공사는 그대로 하고, 그다음을 준비하는 그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부군수 박현식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저관로든 제2수원지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하고 있냐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부군수님, 제가 처음부터 저류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끊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장치를 생각해서 이런 것을 해나가자는 이 말입니다.

□ 부군수 박현식

의원님, 이것은 아무래도 의사결정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빨리하자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지 소장한테 의사결정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의견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왜 부군수님이 그러니까?

□ 부군수 박현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해저관로도 있고 (청취불능)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일단 장기적인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 자리가 이런 자리 아닙니까. 의논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당장 하라고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논의하자는 자리인데, 지금, 내가 당장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지금, 이 말이, 오늘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노화, 보길 가뭄이 심하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해서, 지금 저류조를 하고 있으니까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지금 계획이 어떤가. “이런 계획도 있

라.” 라는 의견 타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그러면 부군수님, 이런 말도 못합니까?

□ 부군수 박현식

제가 의원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뒤에 끝날 수 있는데 계속 다그치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 박인철 의원

아니, 내 말은 이런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공정이 2년……

(자료를 들며)

부군수님의 말처럼 이 자료가 개인회사 용역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2년 안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공사를 할 때 2년 하고, 민원도 없고……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 부군수 박현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 의장 조인호

잠깐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제가, 제가……

□ 의장 조인호

소장님, 잠깐만.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처음 발주했던 도 모 의원하고 우리 군하고 도 관계자하고 해서 한번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마무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아, 그래서 지금 다 고생하시는지는 알아요. 부군수님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그래서 저류조는 지금 내일 모레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런 것도 항구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는 말이에

요, 지금. 그래서 그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기 대책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방법으로 제2수원지도 있고 또 해저관로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여기에서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하면 뭐 당장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시간이 소요가 되죠.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입니다.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생태전시관 운영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생태관 현황입니다. 해양생태전시관은 완도읍 장좌리에 연면적 1,305제곱미터, 국·군비 5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8월 8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으로는 1층에 기획전시실, 체험실, 2층에 청해진유적전시실, 해양실, 생태실, 미래실을 운영·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생태전시관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8

월 8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관람객 현황으로는 1,43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개관 홍보차원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모든 관람객들에게 관람료를 면제,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장보고기념관과 통합요금 3,000원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 준공 후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엘리베이터 바닥누수, 사무실 내부 누수 등 하자발생에 대하여 2017년 10월 18일 해양생태전시관 하자보수를 1차 요청하여 2018년 11월 20일 하자보수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공업체 하자보수 공사 후에도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2018년 4월 9일 2차 보수를 요청하였으며, 2018년 4월 30일에 하자보수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차 보수 완료 후에도 태풍 솔릭과 콩레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 10월 10일 3차 보수를 요청하여 하자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장보고기념관과 해양생태전시관 통합관람권을 운영하고 완도군 관내 주요 관광지 티켓 소유자에 대하여는 관람료 20%를 할인하여 운영하였으며, 관람객 설문조사 실시 후 전시물에 대해 보강하여 운영하였으며 장보고리더십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해양생태전시관 관람을 유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변 관광지인 완도타워, 장보고기념관, 장보고동상, 수목원 등과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자가 많죠?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좀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자보수 잘하시고,

안에 콘텐츠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콘텐츠가 미비한데.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콘텐츠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한 번씩 오시면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콘텐츠 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개를 맞대고 열심히 콘텐츠를 한번 늘려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이참에 우리 정문 들어가는데…… 비가 오면 그 정문 들어가는 데에 비가 좀 내려서 그 사업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 **박인철 의원**

총 사업비가 5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저도 이것을 준비하려고 다시 한 번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미비하거든요, 미약하고.

하여튼 보충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8 군정 질문·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군정 질문·답변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사업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사업추진 방향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 질문·답변 시 본회의장에서 약속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추후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계획했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공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불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속기사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우 성 자		
의 원	이 범 성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6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6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07일(수) 09시58분

제26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 식

(09시58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6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합니다.

(10시02분 폐식)

제26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07일(수) 10시02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10월 3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친 후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4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 최정욱 의원과 허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최정욱 의원과 허궁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되며, 완도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8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각 상임위의 안전심사를 위하여 11월 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11월 8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공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불출석 공무원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09일(금) 09시58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1. 완도군交通安全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

□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1.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

(09시58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 3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된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5건, 그리고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09시5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79호와 제2380호, 2381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정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79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입 받은 권한 중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과 읍면 및 완도군 출자·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운영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을 2개의 반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0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업무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이나 추진현황을 질의하고자 완도군 산하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1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

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4호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조성하여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5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군민의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실 조사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상 수상자 및 명예군민 후보자의 추천기한을 매년 완도군민의 날 30일 전

까지 군수에게 추천했던 것을 매년 완도군민의 날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위원을 기존에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산업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복지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미래해양사업단장,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6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직공무원에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7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8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 또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설 장사시설에 중대한 규정, 공설묘지 사용료 등 환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9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공개모집원칙에 위배된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완도군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나 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공개모집원칙에 따라 수탁자 자격에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0호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 자살 시도자, 자살 위험자, 자살 예방상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자살예방센터에 설치규정과 자살 위험자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7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7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7건의 안전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

(10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8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군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완도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한정하여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2호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재취약계층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의 내용으로는 화재취약계층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구체화하였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은 완도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건축법에서 정한 단독주택, 공공주택은 제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3호, 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119나

르미션, 운항, 선주라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119나르미션 운항 지원금 지원 내용 및 지원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4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 변화에 따른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사용료, 위탁, 보증금, 분담금, 사용권의 양도금지, 공공요금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11조에 규정하였고, 시설의 변경, 공제가입, 신고, 일시사용 허가의 취소·제한, 청문 등을 제12조에서 제16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17조 규정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허가 취소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5조에 의거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를 조례안에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5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6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재정지원 대상, 신청절차, 재정지원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재정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7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른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관리지침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공사장 건설폐재류, 사업장 배출 시설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의 정의 규정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폐기물 배출방법 개정,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제작 신설, 전입자가 이전지역 종량제 봉투를 확인증을 교부받아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안 제26조 제6항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범위를 관내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포상금을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안 제26조 제6항을 삭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8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심의제의 대상 건축물에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은 제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

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82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입니다.

완도군의 지역 특수성을 저해하고 청정바다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가치의 추락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지역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완도군의회가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9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9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9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

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교통단체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을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채택 요령은 결의문 낭독 후 “하나”에 구호를 맞춰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결의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우리 완도군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로서 군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정해역을 잘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지역에 제기되고 있는 기업형 돈사 신축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저해하고, 청정바다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가치의 추락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으로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자연경관 훼손 등 연쇄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의 피해는 완도군민 전체에게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완도군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어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을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청정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형 돈사 신축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돈사 신축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완도군 의회는 군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18년 11월 9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 착석)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물론, 우리 군민들 전체의 입장일 것입니다. 앞으로 완도군의회에서는 군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회기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 불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07일(수) 13시59분

□ 의사일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3시59분 개의)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364호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364호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발의의원인 제가 제안설명해야 되나, 위원회 진행관계로 인해 허궁희 위원님께서 대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에 맞게 우리 군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여 완도군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문화예술 지역문화, 생활문화, 전통문화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그리고 안 제4조 제1호부터 8호까지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협동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하였고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위한 조항 또한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완도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복지법에 따라 완도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완도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지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 및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군수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 안 제5조에서는 사업위탁, 안 제7조에서는 지도·감독의 내용을 정하는……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64호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64호 완도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5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66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67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68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69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6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1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복지행정국 소관 5건의 조례부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2365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실 조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및 명예군민 후보자의 추천기한을 매년 완도군민의 날 30일 전에서 60일 전으

로 앞당기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쪽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65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군민의 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실 조사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호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매년 완도군민의 날 30일 전까지에서 60일 전까지로 30일 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당연직위원 변경과 위원회 서기를 행정담당에서 서무팀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66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

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가축방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에게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8쪽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66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업무의 수당을 월 50만 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 저촉 및 내용상 특이한 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6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의안번호 2367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

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사항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에 따른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 등의 부과와 관련하여 장사시설 사용증지에 따른 환급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 제4항에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계획 반환기준을 공설장사 시설의 중도반환으로 변경하고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을 개정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율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3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쪽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67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제4조의 제4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2의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잔여기간 내에 대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는 내용과 환급기준안 별표3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질의할 문제가 아니고, 오타가 나서요, 오타 고치십시오.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하고, 다음 줄에 뭘니까.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관리 조례에 환급인데 뒷장에 한 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타 수정하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제가 발견했으면 그러는데…… 의회에 내버린 상태여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고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6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8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제13조 묘지사용권의 반환에 따른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기금 부과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중지 등의 환급기준을 두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 공설묘지 사용권의 반환에 대하여 공설묘지 사용료 등 환급기준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청취불능) 일환으로 공묘의 점유면적 확대가 권고되어 제5조의 사용면적의 내용 중 1기의 사용면적을 4.5제곱미터 이하에서 10제곱미터 이하로 가족납골묘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이하에서 15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1쪽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68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공설묘지 사용료 등 반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사용면적을 법령에 맞게 묘 1기당 면적 4.95평방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확대하였으며 가족납골 수용면적은 20평방미터에서 15제곱미터로 축소하여 주민편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군수는 공설묘지 시설의 사용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를 환불하는 내용과 환급기준 안 별표2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 및 내용상 등의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6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9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 조례 제6조 및 수탁기관의 선정의 공개모집원칙에 유배된 차별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중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완도군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

체와 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을 개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6쪽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69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공개모집원칙에 위반된 지역제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나 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내용상 등의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

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65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65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6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66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7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67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8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68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69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69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70호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보건의료원장 김선중입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제2370호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완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의거 완도군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살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9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70호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완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례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완도군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자살 위험자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및 내용상 등의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0호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70호 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재 선

허 궁 희

우 성 자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08일(목) 13시58분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

(13시58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372호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교통 환경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완도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봉사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조금의 사용결과 또한 동법 제21조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할 경우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를 위하여 봉사단체를 하고 있는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박인철 위원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은 의안번호 237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2호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제2조 제1항 제1호에 보시면 화재취약계층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 내지 3급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을 포함시켰으며,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설치대상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앞서 설명한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화재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2372호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재취약계층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372호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372호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373호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김양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나르미션은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의료가각지대인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수송을 맡게 되는 중요한 선박으로 우리 군 관내 도서지역에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출항하는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손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2조 제1호를 보시면 “119나르미션 등”이라는 표현을 “해당 소방서장이 완도군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영하는 선박이나 읍면장, 완도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응급사항에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119나르미션의 운항지원금 지원내용과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췌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73호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완도군 도서에서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시 출동·운항하는 119나르미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의 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 지원내용 및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3호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3호 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374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75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76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377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78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7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중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41쪽, 의안번호 2374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 개설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 변화에 따른 현실에 맞도록 규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완도군 시장명칭과 위치를 현운영 상황에 맞게 완도읍시장, 금일읍시장, 노화읍시장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시장명칭은 49쪽의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의 사용료를 상설 및 정기시장 기준으로 해서 점포는 제곱미터당 월액 2,000원, 노점은 제곱미터당 월액 250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요금표는 49쪽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조례안 제20조에는 시장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동마케팅을 위한 공동사업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사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43쪽부터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74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 명칭 및 위치를 5조부터 제11조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공제회 가입규정을, 안 제16조에 허가의 취소 및 제한을, 안 제17조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안 제12조에 상인회 설립을,

안 20조에 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21조에 관한 위임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마는 안 제17조의 규정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허가취소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7조 제1항을 제5조에 의거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제7조 위탁에요, 지금 우리가 저기…… 시장 중에서 직접 우리 군에서 안하고 사용료를 민간인 상인들한테 위탁한 것이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없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앞으로 만약에 위탁할 경우를 대비해서……

□ 박인철 위원

노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노회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징수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18조 관리에서요, “시장관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밑에다가 “다만, 군수는 필요시” 이렇게 해 놔는데, 이렇게 필요합니까. 우리 보통 시장을 다 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별도의 뭐 이런 관리인까지 두게끔…… 과장님, 필요합니까? 이것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소속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담당…… 정규직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무직이라든지 공무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놔야지, 공무원 외에 별도의 관리인이라고 하니까. 별도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자꾸 과장님도 그러는데 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자꾸 군수님부터 공무원들을 우리 가족 외로 빼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만”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삭제해야 될 것 같고.

제20조 지원이요, 보통 5일시장을 놓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지금, 5일시장.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 박인철 위원

매일시장은 놔놓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닙니다, 그것은.

□ 박인철 위원

거기에 보면 1항, 2항 뭐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3항에 공동마케팅 디자인개발, 주말시장 관광객 이벤트행사, 축제 홍보해가지고 시장홍보사업.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말 그대로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행사라든가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추진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해 봤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그러면 5일시장을 주말시장으로도 활용할 것입니까, 그런 것 나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5일시장을 상설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일시장이 아니고 상설로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상설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항, 2항은 이해가 가는데 뭐 공동마케팅 이것은 그냥…… 예산서를 그냥 여기에 조례에 지원조례에 해놓고…… 어찌 보면 퍼주는 성격인데, 모든 시장에서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이런 것.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이제 이런 부분은 예산 (청취불능)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확보할 사항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이런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범위가.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을 보며)

어떻습니까, 과장님?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앞으로 5일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러면 5일시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

면요. 상설 매일…… 상설시장이라고 해야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이제 지금…… 현재 조성된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은 상설로 하는 것이고 5일장은 5일장대로 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이벤트행사들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어떤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5일시장을?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이제 그…… 공연장도 지금 건물 옥상에다가……)

공연장도 처음에, 애당초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 시장을 하기 위해서…… 무슨 대학교수하고 인근에 있는 전라도 시장들을 다 돌아다녀보는데 애당초 계획하고 많이 벗어나 있어요, 시장들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안했는데 단품으로 해가지고 전복 그 70평, 저것도 잘못되어 있고, 애당초 없는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저기다가 5일시장 주말장터를 해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장도 하고 강진 오감통처럼 그런 식으로 간다고 했는데, 전혀 목적하고, 애당초 처음 목적하고…… 지금 뭐 공사가, 오늘도 아침에 봐보니까 마무리 단계인데 그 단계가 다 잘못 나가있거든요, 지금. 그레가지고 애당초 처음 시장을 할 때는 그쪽 도로 쪽도 한 쪽은 먹고 한 쪽은 차선이 차가 다니고, 한 쪽은 또 노점상들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지원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있으니까 꼭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아무튼 함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너무 광범위하면 다른……)

그러니까 시장 뭐 공공 (청취불능) 고객편의시설 이런 것은 뭐 100번, 1,000번…… 고객 접근성, 이런 것은 뭐 하는데…… 빈점

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이런 것도 다 여
기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점
포를 임대해 주면 그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
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
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17조에 원상회복, 이렇게 뭐 하는데 20조
지원에서는 또 이런 것도…… 하다못해 청
소까지 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
들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근거를 상인들
이 들이대고 하면 안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
가 없죠. 손을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
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
서 - 세부적으로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함축적으로 해서 했으면 어떻게 싶습
니다.)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어떻게…… 이것 좀
조정을 하고 나갑시다, 과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
고…… 일단 5일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있
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마
련했다고 생각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우리
가 이것을 지원할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
으면 좋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해놓으면 요즘은 하
도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바로바로 보더라고
요. 그래서 이것을 들이대면서 해주라고 그
러면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5일시
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군에서 어
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조례하고

는 관계없는데, 지금 5일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완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외지 상인들이 완도 분들을…… 이것을 철
저히 막고 있죠, 그것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
서 - 상가 입점자들을 말씀하십니까?)

예.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
서 - 외지 분들 입점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외지 분들이 더 큰소리
치고 더 뭐하던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
서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18조에서 “관리를 임명한다.” 라고 했는
데 이것 뭐 삭제해도 됩니까? 별도의 관리
인을…… 통상적으로 지금 다 행정에서 관
리하고 있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 박인철 위원

공무직이고 공무원이고, 위에 1항에 다 되
어 있으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뭐냐, 시장 사
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밑에 “다만, 군수는 공무원 이
외의 별도인으로 관리인을……”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
다, 부칙 비슷하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
래서 이런 부분도 예외규정이니까, 그냥 저
희들도…… 실과장님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
도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

은 그냥 통과했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그냥 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인철 위원

그리고 제7조에 위탁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예)

사용료 징수, 뭐 민간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것도 그대로 뭐하는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국장님,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 들이대 버리면 저기 단체에서……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7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다음 55쪽, 의안번호 2375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제정법 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시행 후 5년간 효력

을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핵심이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으로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본특별회계에 존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56쪽,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75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제정법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3조 재정지원이요. 3조 3항에 보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영

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뭐 손실보전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 전문위원 추관호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다음 사항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 이것은 교통관계……

□ 박인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아, 아닙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76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376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에 재정지원에 대상이 되는 사항을 1호부터 16호까지 규정하였고 제4조는 재정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재정지원의 결정, 제6조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목적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제8조 사후관리 그리고 제9조 재정지원의 중단과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왔던 것을 우리 군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특

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63쪽부터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을 하였으며, 도내 시군 조례안을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76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해버렸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했던 3항이요, 이것은 어떤 의미

에서 손실보전금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제3조 3항입니까?

□ **박인철 위원**
예.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그 사항입니까?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막연한……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할 때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막연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지금 완도군에는 터미널이 한 군데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공영버스터미널.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말인데, 이것은 안 맞는 말인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터미널 사업자들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터미널을 폐쇄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됐을 때 터미널을 폐쇄하는 것이 낫느냐, 유지하는 것이 낫느냐. 이런 부분에 당착했을 때 지원을 해주면서, 손실보전을 해주면서 터미널을 이용하게끔 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손실보전금……)

아니, 말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터미널을 폐쇄하고 안하고 떠나서…… 터미널이 적자에 허덕인다고 손실보전해주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

는……)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 조례가 아니어도 터미널에다가 많은…… 과장님,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사업은 많이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손익 분기점, 이것 안 맞다고 해가지고 여기 조례에 이렇게 해놓으면…… 해주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일단 용역을 통해서 한다면, 손실을 따져봐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맞겠죠.)

아니, 그러니까 뭘니까. 유치원처럼 “내 배 짜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 놔버리면, 조례에 딱 정해 놓으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터미널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터미널이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군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에…… 없을 때도 우리가 터미널에다가 군민 편의시설 다 해줬잖아요, 우리 군에서. 군 예산으로 싹 해줬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해오고 있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터미널을 뭐 저기……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직접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손실보전금은 없고 우리가 환경개선

은.....

□ 박인철 위원

환경개선은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 진짜 이것은 삭제를..... 손실보전금, 이 3항은 좀 뭐하고요.

그 밑에 그것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4항?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호출시스템, 이 부분.....

(□ 교통행정팀장 조봉흠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은..... 예전에는 다 버스를 탈 때 땀니까, 터미널에서 돈을 주고 승차권을 구입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카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차에 타서 카드만 대면 거기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 그런 기기를 우리가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 교통행정팀장 조봉흠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구요.

그러면 10쪽에 보면 관내택시 외부 관광 홍보물 부착이라고 해가지고 보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대중교통.....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달차나 화물차가 외부로 많이 나가잖아요, 용달차나 화물차. 저번에 제가 그 분들을 만나보니까 우리한테도 그것을 좀 해줬으면 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해당이 안 돼서 안 해줍니다,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 교통행정팀장 조봉흠 집행부 좌석에서 - 대중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용달차나 화물차에 우리 군 관광 홍보를 한다고 하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화물차량에 저희들 관광홍보.....)

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현재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타 시군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물어봤고요.

15항에 보면 운송중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하고 환경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개선하고 환경정비가 있는데.

(□ 교통행정팀장 조봉흠 집행부 좌석에서 - 버스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버스 운전이나 아니면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어떤 복지향상을.....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환경개선하고.

(□ 교통행정팀장 조봉흠 집행부 좌석에서 - 택시하면 택시 뭐 개인택시.....)

그 개인택시나 청해택시, 장보고택시..... 완도군에 있는 택시는 다들 회사가 있고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런 데에.....

그러면 앞전에 청해택시 개선사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졌어요, 그것을?

(□ 교통행정팀장 조봉흠 집행부 좌석에서 - 그래서 그런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도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 조례보다는 군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개선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청해택시 같은 데도 분명히 군에서 돈을 대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도 조례로 상위법 조례로 했다는 이 말이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군 조례가 없어서.....)

알았고.

하여튼 위원장님, 전 그렇습니다. 제3조 3

항,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관호입니다.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는데 앞으로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터미널을 폐쇄했을 경우에, 상당히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견됐을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실보전금이라도 보전해 가지고 터미널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그런 사항이 아니고 최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들 교통편익을 위해서 군에서 보조해 가지고 운영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꼭 필요하지 않겠냐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이 지금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터미널이 생긴 지가 수십 년인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조례에 딱 이렇게 박아놔 버리면 터미널회사 측에서…… 아까 용역을 한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손실이라고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머지는 그전에 다해 줬잖아요. 직접적인 돈은 안줬지만 거기에 따른 자기 터미널회사 측에서 해야 할 것들을 공공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자부담을 얼마 넣는다고 했는데 그 자부담을 따져보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따져보니까 자부담은 들어가는 것이 없고 거의 우리 군 돈으로 다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향후에 이게 완도읍 버스터미널이 아닌 군외 원동이나 고금, 이런 터미널 부분이

제일 열악한 그런 상황이 닥쳐오지 않겠느냐……)

거기는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류소라고 합니까, 정류장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조봉흠 팀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에 3항은 빼고, 나머지 15항이 전부 조례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원동은 과장님 말씀처럼 화장실을 지어주고 깔끔하게 시설을 했던데, 고금도 같은 데는 장보고대교가 개통되고 고금도가 동부권의 교통중심지로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전임면장님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열악하거든요. 내가 화장실을 가봤어도 엄청 열악하고, 이 지원 하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 담당자는 터미널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 뭐 이런 것하면…… 제15조 이것 15항도 되고 나머지가 되는데, 3항은 놔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원이 되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조례가 돼죠, 화장실 정비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

(□ 교통행정팀장 조봉흠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국장님, 꼭 이것 필요합니까, 3항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3항은 그래도……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가 됐고.

□ 박인철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된 것은 별개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마랑의 경우에 우리 버스터미널이 조금 열악해 가지고 재정사항이……

□ 박인철 위원

아니, 마랑하고 자꾸…… 국장님도 마랑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우리 완도군 사람들이 왜 마랑, 그 작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위원님,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 위원님.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 박인철 위원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즉 다 해줬으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 근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손실보전금…… 직접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것이 아마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그런……

□ 박인철 위원

환경개선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여기 환경개선, 환경정비 사업이고. 이것은 100번 이해를 하는데, 그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도 조례에 의해서 다 해줬고, 꽤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완도터미널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터미널 주한테 이렇게 우리가 있지도 않는 것을 미리 예방해서 해놓는다는 것이 너무 빠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딱 넣어놔 버리면…… 이 조례를 넣어가지고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완도공영버스터미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시군 터미널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것이 활성화도 앞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시설개선, 환경개선 그런 차원이고.

□ 박인철 위원

이것이 지금 시설개선을 해준다고 하는 것

은 상관이 없는데, 직접적으로 터미널을 운영하는 운영주체한테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준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환경개선은, 그것은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100번, 1,000번 해줘야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려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위원님, 터미널사업자가 상당히 어렵다고 손실보전금을 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뜻 주기가……)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그래서 상당히 경영하는 것이 열악하게 돼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저희들이 손실보전금을 주면서 다시 운영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조례 문항을 넣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말장난과 비슷한데, 이래 가지고 명문화시켜놓은, 이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명문화시켜놓은 것을…… 아니, 내가 사업자면 사업자로서…… 내가 사업자라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월별로, 연별로 가져와서 이렇게 승객이…… 자가용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야죠.)

그러니까 우리 분석도 있고 자기들 분석도 있는데. 이래 가지고 문 닫는다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주변에 군민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가 되면, 그때 정도가 되면 ‘아, 여기는 보전해줄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리에 가도 끝까지 책임을 지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집행부 좌석에

서 - 알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대답을 해요. 그래야 속기록을…… 반듯이 하십시오. 안환옥 과장이 다른 데에 가더라도 책임을 진다고. 웃으면서 넘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넣어놨다는 것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77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73쪽, 의안번호 2377호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른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결의안 제2조에 공사장 건설폐재류,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및 9조의 3에서는 생활폐기물 그리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의해서는 일회용품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15조 7항부터 9항까지는 타 지역 전입자가 확인증을 교부받아서 이전지역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이 가능하다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시군 포상금지급액을 인하고 신고자의 거주지 범위를 180일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에 폐소화기를 추가하고 그밖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품목의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군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는 일반배출사업장에 무분별한 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폐미역에 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81쪽부터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77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라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그러나 안 제26조의 6항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관내에서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포상금을 도모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삭제 후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금방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21조 6항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
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폐기물…… 이
렇게 불법투기한 사람을 파파라치들이 와서
이렇게 너무 무질서하게 단속할까 싶어서,
이것을 포상금을 노리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못을 박은 것 같
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파파라치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고
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만 쫓아다니는
파파라치를……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로 제한한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신고자에 제한
을 뒀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말이죠.
우리 국내법상 어디 지역을 염두에 두고 신
고자를 하는 것은 없는데……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 집행부 좌석에서 - 저희가 지금까지 쓰레기 업무를 보면서
파파라치들이 전국적으로, 이 부분만 전문적
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내에
들어와서…… 주로 적발되는 분들이 노인분
들, 그런 분들을 많이 적발하고 있어요. 그
래서 그런 부분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180일 거주지 제한을 둔 데도
있기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안 두는 지역,

시군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담당부서에서
자꾸 계몽활동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
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 이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같
은데, 180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뭐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다 있잖아요?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 집행부 좌석에서 -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예산의 한계가 있으면 예산을 늘리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어떻게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파파
라치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면 괜찮은
데 아주 그 사람들이 돈만 벌기 위해서……

□ 박인철 위원

아니, 우리 군민들은 다 인정상 그러지도
못하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저희들이 근절하
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내가 봐도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우리 모
든 국민들은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있는 부
분이고, 이 포상금을 만든 입법취지 자체가
이런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해안 불법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
난다, 그렇게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고 있
고요. 그리고 특히 신고를 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둔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원칙에 있어서 형평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

이 부분은 당초 입법취지 부분하고 조례에 가장 밀접한,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현실적으로 파파라치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은 더욱 더 행정하고 맞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이 부분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26조 6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다음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파파라치 때문에 신고자를 180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데. 뒤에 보면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을 꼭 30%로 해야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당초에 50%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인하해서 30%로 낮췄습니다.

□ 박재선 위원

현재 50%였는데 30%로 낮춘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파파라치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가 많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신고를 하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파파라치처럼 돈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거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금액을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파파라치가 생기는 것……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를 좀 낮춰서 자연적으로 잘못된 것을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돈 때문에 신고하는 것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도 타 지역보다……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하자는 것이고, 타 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이 아예 뭐 10%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맞으니까.

□ 박재선 위원

그래도 어차피 환경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투기로 버린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30% 정도로 해놔야 파파라치가 아닌 우리 군민들이라도 신고를……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선 위원

그것 때문에 신고자, 아까 얘기했던 26조 6항 그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그것 때문으로 인해서 180일 동안 거주한 사람들로 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것은……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한 때는 한 사람이 20건을 적발해가지고 한다고…… 슈퍼마켓까지,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몰래 촬영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때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뭘니까. 금액을 낮추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전남도 22개 시군 전체가 50% 미만, 30% 이상, 이 상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군만 20%, 10%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최대한 26조 6항을 없앤다고 하면, 신고 포상금 기준 %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도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됐는데 계속 속개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78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다음은 105쪽, 의안번호 2378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9조에 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개정사항입니다. 당초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조 근린생활시설, 제2조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인 경우 심의 제외대상이었으나, 10호 이상 30호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의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5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토지의 효율적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허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지전용 시 입목축적을 적용하고 개발행위 시에는 또 입목본수도를 적용함에 따라 민원인이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입목축적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을 경감하고, 또한 현재 산지전용 허가 기준이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로써 이 규정을 적용할 시 우리 군의 임야는 대부분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100% 이하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100% 이상 150% 미만의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 및 경관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산지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는 평균 경사도를 당초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결의안 20조의 2는 본조례 개정의 핵심사항으로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특정시설물인 발전시설, 폐차장, 고물상, 도축시설의 이격거리 제한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조례에 정한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8조의 1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정사항입니다. 당초 제1분과, 2분과, 제3분과 이내로 운영해 왔던 것을 기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

과위원회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107쪽부터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2378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2에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한 강화를, 안 제20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사항을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제20조 2부터 20조 5까지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그리고 안 68조 제1항에 분과위원회를 3개에서 2개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제20조 2부터 20조의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국장님.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20조 2항에 보면 태양광에 관해서 나와요. 그런데 실과에서부터 이것을 안 지키고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더라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은 실과별로 전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전부 검토 심의를 합니다.

□ 허궁희 위원

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느냐면 제가 그 심의위원을 하다보니까 도로에 관해서 확실한 구별이 없어요. 그때 우리 담당팀장이 제시지만 군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여기에 보면 농도도 포함되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농도까지 다 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런데 왜 얼마 전에 올라온 서류들은…… 이런 것이 다 무시되어서 올라왔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번에는 3개 시군을…… 해남, 진도, 완도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완도가 가장 세부적으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났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 이것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런데 `15년도에 개정됐으면 그것을 지켜야지, 개정만 해놓고 안 지키면 무슨 의미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었고,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이 조항이 빠져가지고, 이것이 조례에, 시군 조례에다가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수립해서, 그래서 개정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 허궁희 위원

제가 심의에 가가지고 그것을 한번 지적했더니, 그 후유증이 저한테 큼니다. 왜, 우리 지금…… 저는 법 개정할 때마다 의심스러운 것이, 실질적으로 실무팀들이 이것을 얼마나 준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의 효용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법만 개정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서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은 이제 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요. 도로 부분은 명시를 하십시오. 그래야, 왜냐하면 저희한테 우리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옵니다. “예전에 이게 군도였다. 그런데 왜 여기에 태양광이 설치됐느냐?” 라고. 조사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군도가 제외되어 버렸어.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야 그런 항의전화도 안 오고.

첫째, 나부터도 모르고 있어요. 나도 군도인 줄 알고 큰소리를 쳤어요. 쳐놓고 돌아서서 실과에 그 도로에 대한 내용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언제부터인가 군도가 아니고 마을 진입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번에는 국도, 지방도, 면도, 이도, 농도, 거기까지 전부……

□ 허궁희 위원

확실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질의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인철 위원

조금만 시간을…… 좀 봅시다. 국장님……

(□ 허궁희 위원 의석에서 - 없으면 제가……)

20조 2항, 5호 이상 5호 미만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있어요, 그냥…… 다만, 인가해서 500미터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5호 미만의 경우 100미터로 이렇게 해놨는데.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 부분은, 우리 군을 5호까지 낮춰놓은 것이 다른 시군은 거의 10호 이상입니다. 10호 이상 주거지역으로 떨어진 지역은 500미터, 500미터로 하는 데도 있고 250미터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500미터까지 했고, 다만, 5호 미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다 적용은 그렇게 합니다. 10호 미만의 경우에는 300미터, 200미터 하듯이, 밀집지역이라고 할 때는 10호 이상이 되어야 주거 밀집지역이고 5호 미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5호 100미터로 해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왕 강하게 하려면 5호 미만을 500미터로 해버리는 것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해남 같은 경우에는 500미터로…… 15호 이상 500미터, 그리고 10호 미만은 100미터로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5호로 해가지고 강화를 했고, 진도도 마찬가지로 500미터를 10호 이상 그리고 10호 미만은 250미터로 했는데 우리는 좀 더 취약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을 5호 이상으로 했다. 더 강화해서 했다는 이런 사항을……

□ 박인철 위원

그것은 잘했는데, 5호 미만을 100미터로 이렇게 해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밀집 지역으로서는 아니니까, 주거 밀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규정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참고로 기준이 상당히 타 시군보다는 우리 군이 상당히 현실에 맞게 상당히 강화된, 그런 조건을 이 조례에 담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도 될까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말 나왔으니까 확실히 제가 쫓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박 위원이 지적하신 5호 미만에 대해서, 집이 한 채 있어요. 거기서 100미터라는 말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직선거리.

□ 허궁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더 명확하게 묻고 싶은 것은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는 거예요, 농로가 됐든. 우리가 보통 집을 짓게 되면 농로, 최하 좁은 도로가 농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개선을 하지 않고 대부분 도로가 있는데에다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규정에 농로로 포함되려고 하면 면 농로에서 500미터예요.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 주무관 주정화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촌 도로에서 정책하고 있는 것은 면도, 이도 농로가 아니라 농도입니다. 그래서 따로 농로를 어떻게 보면 셋길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안 되고요. 농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완도읍, 군외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12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고시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도 이도라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주무관 주정화 집행부 좌석에서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그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해 가지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얘기는 그 4조에 보면 면도, 이도, 농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도는 무엇이고, 면도는 어디서 지정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꼭 묻고 싶으냐면,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군도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리고, 또 신설이 다른 쪽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기준을 어디다가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요, 도로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정립해서 심의……

□ 허궁희 위원

그래서 내가 방금 묻은 것은요. 자, 단독 주택이 있다. 주택이 있는데,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는 이거예요. 무슨 말이나면, 여기 이도를 내가 왜 묻느냐면 면도에서 면에서

인정한 도로가 있고 마을에서도 도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규정이 어디까지가 면도고, 이도고 농도냐.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런 부분을 개발행위 심의를 할 때 심의 대상 도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물론 저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당연히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실무자들이 그 파악을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이 사항은 여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접수를 못합니다.” 라고 먼저 제의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심의위원회에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도로가 구별이 안 되니까 제재를 할 수 있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저기 그…… 주정화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20조의 2, 하단부분에 보면 이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지 경계에서 (청취불능) 최단거리로 상정한다. 예를 들어서 4가구가 있는 그 주택지역은 100미터 아납니까. 그런데 그 주택인 데가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청취불능) 그랬을 경우에는 이 주택을 중심으로 단거리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 주무관 주정화 집행부 좌석에서 -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격거리를 도로로 보지 않습니까. 도로로도 보고, 또 주택으로도 보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일치 불가능…… 그러니까 집이 네 채가 있다고 했을 때 제일 가에 있는 집을 경계로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까지 거리를 최단거리, 직선거리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500미터

안에 들어오면 일치 불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생산시설에서 3항에 보면 1과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경우 설치할 때, 이를 민간사업자 또는 위탁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것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말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몇 항입니까?

(□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 3조 3항, 115페이지)

□ 박인철 위원

생산시설에서 축산, 축양장 그 밑에요.

(□ 허궁희 위원 의석에서 - 109페이지.)

1항 도로법, 2항 5호 이상 주거 이것…… 1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항에 필요한 것을 한다면 열외를 한다고 했는데.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이게 보통 이런 부분은 법이라든가 이런 타 단체한테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공용시설을 할 때는 이런 적용을, 이격거리 제한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 국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완도에서 대두되고 있는

변환소 문제, 이런 것들도…… 여기에는 안 들어 와있는데, 같이 연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막대하게 제약을 두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관대하게 나가버린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전원개발……

□ **박인철 위원**

물론 상위법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 가지고 이것 민간위탁사업자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한전 같은 데는 민간사업자가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

주정화 씨, 이 정의는 어떻게 봐야 돼요?

(□ 주무관 주정화 집행부 좌석에서 -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조례에서 아예 막아버린다고 하면 진짜 필요할 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항은 과도하게 막아놨는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과도하게 풀어놔버렸다는 말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주민들한테 이해가 안가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 **박인철 위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좋은데 민간사업자 위탁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민간사업자 위탁. 그래서 변환소 같은 것도 한전에서 하지만, 어디입니까. 중부발전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런 데에다가 위탁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나가있다, 이 말입니다. 공공이나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 밑에 민간사업자한테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거의 다 정부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맞는 것입니까, 너무 깊게 들어간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그런 공공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꼭 그런 경우가 아마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좀 열어놓은 것입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박인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법체계 구성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인이나 개인들한테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 때 꼭 공공용으로 필요한 사항을 하고자할 때는 반드시 규칙 내에다가 군의회라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조항으로 해가지고 제한하는 기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박인철 위원님이 제시하면 됩니다.

□ **박인철 위원**

잘 들었죠, 내가 할 말은 다해 버렸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통과되면 넣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주정화 씨가 세분화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들이 금방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옛날에 그분들이 연필만 찍어놓으면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이 경우를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조례에 안하면 밑에 규칙에 정하든가 해가지고 보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축사나 축양장이 들어가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건축물하고 좀 범위가
다르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격거리를 이야기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니, 이것 태양광 얘기잖아요.

(□ 주무관 주정화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것이 발전시설이지 않습
니까.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생산시설인 축
사나 축양장 등에서 1km 떨어진……)

거리가 1,000미터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
을 내가 왜 질의를 하나면 일반건축물일 때
는 지붕 위에 바로 올릴 수 있죠?

(□ 주무관 주정화 집행부 좌석에서 - 예.)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태양광은 올릴 수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이게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축사나 축양장
에서 1km 떨어져야 되는데 축양장 위에도
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가정주택하고는 다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평수제한이 있는가요, 일반건축물
도?

(□ 주무관 주정화 집행부 좌석에서 - 아
닙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좀 안 맞는 부분
이……)

지금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너무 많아요.

(□ 주무관 주정화 집행부 좌석에서 - 그
런데 법상에서 보면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
은 태양광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
는 시설의 부속시설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까 개발행위 자체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
러다 보니까 심의대상에 안 걸립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 부분
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완도에 축양장들, 고기를 키우고 있는
축양장들이 실질적으로 축양장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축양장시설
자체가 다 가설건축이거든요. 가설건축에는
태양광 설치를 못해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저런 부분이 바뀌져가지고
경영 절감을 위해서 축양장 위에도가 태양광
을 설치하려고 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
데. 예를 들어서 이 생산시설, 축양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를 1km 이상 떨어진
곳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다 본인
건물에 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저촉되지 않
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지금 현재.

(□ 주무관 주정화 집행부 좌석에서 - 보
시면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이지 않습니
까. 그런데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 저희가 개발행위라고 하면 통상 그
토지를 갖다가 절토, 성토, 포장, 정지, 그렇
게 하는 부분이 개발행위에 들어가고요. 건
물 위에 얹히는 것 자체는 개발행위 해당 자
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기준 자체
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 말하는 축사, 축양장은……)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니,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본다면
1km가 떨어져야 되는데 축양장 위에도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5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4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4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5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5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376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6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7호 완도군 폐기물관

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7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378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8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82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의안번호 제2382호 완도군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형 돈사 신축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저해하고 청정바다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가치의 추락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으로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자연경관 훼손 등 연쇄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의 피해가 우리 군민 전체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으로 우리 군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어 본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82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82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김 재 홍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07일(수) 10시28분

□ 의사일정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28분 개의)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군민 생활현장 방문, 군정 질문·답변,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

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

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위원회 간사인 박인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인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군정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이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됨과 동시에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은 국, 단, 담당관, 직속기관, 읍면 및 완도군 출자·출연기관으로 하고 감사범위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주요 시책사업 예산 및 집행사항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65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해당 부서별 추진업무에 대한 서명 확인, 질의·답변 및 현장방문 등을 심도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정욱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감사반 편성을 보시면 여덟분의 위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고 행정자치

분야와 산업건설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2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반 편성은 계획서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감사 기간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각각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각각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최 정 욱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최 정 욱		
의 원	허 궁 희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65회 완도군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26일(월) 09시59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 식

(09시59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다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6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폐식)

제265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26일(월) 10시03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3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희망차게 시작했던 2018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19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을 설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군민들의 새로운 염원과 기도 속에 개원한 제8대 완도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군민

여러분과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한 차례의 정례회와 다섯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추경예산안 심의, 군민 생활현장 방문 그리고 군정 질문답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쳤고 지역발전과 성숙된 지방

자치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 올 한해 군민들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인 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반대결의문 채택은 군민에 대한 한전의 투명한 행정 처리로 모든 군민들이 완도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사업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군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금, 신지 돈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11월 제 26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된 완도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축사를 민간와의 거리를 500M에서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도록 확대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들과 논의하고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한 좋은 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태풍 피해현장을 포함 12개 읍면 군민 생활현장 방문을 통해 137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의회 스스로 군민들의 애로점과 여러 기관 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경청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군민들의 대변자로서의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집행부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8대 완도군의회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경험을 기반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불어서 군민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단합된 모습으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소통하여 완도군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조례 등의 안전을 처리하면서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시행되는지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계획된 사업 하나하나가 우리 완도군의 규정과 군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충실한 자세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8년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을 잘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고, 아울러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은 물론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모든 군민이 다함께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5만여 완도군민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완도군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기금운영 및 출연금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과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도군의회 회기는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의하여 본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양훈 의원과 김재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양훈 의원과 김재홍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8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 5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내역, 명시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4,854억 6,399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17억 6,2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636억 2,736만원으로 147억 2,8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8억 3,663만 원으로 30억 3,3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화와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삭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636억 2,736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47억 2,8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의 증가로 1억 6,52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1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1,8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99억 6,246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47억 2,8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11억 2,464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사업 6,078만 4,000원, 문화 및 관광비 578만 7,000원, 환경보호비 20억 4,769만 3,000원, 사회복지비 26억 3,014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비 40억 7,706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비 2억 3,16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48억 9,975만 1,000원, 예비비 28억 2,676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비 5,253만 9,000원, 보건비 2억 3,291만 6,000원, 수송 및 교통비 1억 2,585만 6,000원, 기타 31억 6,432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증감내역입니다. 물건비 5억 1,988만 6,000원, 경상이전비 39억 3,612만 9,000원, 자본지출비 78억 9,183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49억 9,156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19억 1,073만 6,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2,298억 8,342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31억 7,3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2,267억 7,152만 7,000원으로 70억 9,137

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308억 4,133만원으로 58억 8,3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1억 1,190만원으로 1억 9,8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5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110개 사업에 49억 4,874만 2,000원이 신규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8억 3,663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0억 3,3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서에서 통계목간 변경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30억 3,3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41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086억 1,728만 2,000원에서 159억 6,589만 1,000원이 증액되어 2,245억 8,317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42억 9,4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되어 145억 9,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사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사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362건에 613억 3,23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16억 2,859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

역은 제안설명서 1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예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85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집행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군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성실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세심하고 세밀하게 심사한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범성 의원을, 간사에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검토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7일 오후 1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불출석 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27일(화) 14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 휴회의 건

(14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5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수상식에 참석한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3호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출연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384호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완도군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 26일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출연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출연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3호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출연계획안입니다. 2018년 말 현재 출연금 총 규모는 2건에 46억 6,700만 원이며, 출연금 내용별로는 전남산용보증재단 7억 9,100만 원,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38억 7,600만 원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34호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4,854억 6,39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636억 2,73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3,663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77억 6,2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8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증감액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8년도 정기추경예산안인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불필요한 예산의 적극적인 삭감 등 집행부의 노력한 점을 느낄 수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성립 전 예산의 경우 집행부의 사전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출연

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허 공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 불출석 공무원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1일(화) 09시59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설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소통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8.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동의안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2.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3.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설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소통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8.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동의안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2.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3.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09시5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군수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인호 의

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희망찬 미래 완도 설계를 위한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에도 제게 완도 군정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며 모두가 잘 사는 완도를 건설하는데 저와 공직자들은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이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늘 협력하여 주시고 때로는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조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멀리 내다보며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은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완도

가 지니고 있는 청정한 환경과 해풍, 갯벌, 해조류 등 다양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해양치유산업은 의료·관광·바이오산업과 연계되어 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우리 완도의 희망이자 미래 산업입니다. 이에 해양치유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해양치유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일환인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신지 명사십리에서 운영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해양치유자원 관리와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착실하게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완도 전복이 우리나라와 아시아 최초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인증을 받았으며, ASC 인증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전복산업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해외 수출에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3개국 수출상담회를 통하여 2,100만 불의 수출 계약과 14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자연그대로미가 까다로운 할랄 인증을 통과하여 말레이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농산물 보관 시설사업으로 톤백창고를 시설하여 공공비축 미곡의 톤백 수매율 상승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 우위의 완도 황칠은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에 등록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근해 조업 선단의 완도항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올해만 1,06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고용창출도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로 개최된 장보고한상어워드는 세계 속 한상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으로 올해까지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재외한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자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입니

다. 그에 걸맞게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처리 전문 인력을 채용해 우리의 자산인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전남에서 가장 먼저 개장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풀장과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피서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해양기후치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힐링의 장으로 자리를 잡으며 친환경 해변에만 주어지는 국제 인증인 블루플래그 획득 전망을 한층 더 밝게 해주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새롭게 단장하여 4개월 동안 운영한 토요 싱싱 콘서트는 약 9,000여 명이 다녀가며 군민과 관광객에게 매주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렇듯 청정 환경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있는 우리 군은, 한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완도군이 기초자치 시군 2위에 이름을 올렸고, 바다와 해변 종합만족도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완도의 랜드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이 제3회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상에서 공원의 활용성과 심미성을 높게 평가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명품 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쥘라인은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청산대모도를 배경으로 촬영해 방영 중인 톱스타 유백이는 첫 방송과 동시에 촬영지가 각광받고 있으며, 방송 및 다양한 매체에 완도의 맛과 멋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완도의 수산물과 완도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복지재단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빙그레 시네마는 이용객이 8만여 명을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열려 군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산면 진달래도서관과 노화 녘도의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총

6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우고 주민들에게는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춰 평생학습 활성화에 힘을 쏟은 결과,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대상 특별상과 전남 평생 교육 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이 식수난과 생활의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출산 장려 정책과 귀농·귀어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 경제 발전의 근간인 전복산업이 과잉 생산과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전복 가격이 하락하여 어민들의 시름이 깊었으나 전 공직자들과 어민, 유통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금일 지역의 대조기 다시마 피해와 태풍 솔릭과 콩레이, 고수온으로 전복 가두리와 미역, 김 양식 시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동군수실을 통한 전복 입식량 줄이기 운동과 조기 출하 유도, 차광막 설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내리막을 걷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앞 다투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년을 해양치유산업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해양치유산업이 미래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900여 공직자는 치밀하게 설계하여 실행력을 높일 것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건설을 위해 군정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 해양치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세계 속의 완도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을 구체화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

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인구 감소에 따라 78개 지자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며, 이에 대한 생존전략으로 해양치유산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해양치유단지에 공공시설 분야로 해양치유센터와 해양치유전문병원 그리고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민간분야에서는 해양치유 리조트와 해양바이오 연구소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체육인교육센터를 유치하고 해양치유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복산업특구와 해조류 건강바이오 특구를 통합하여 해양치유자원 실용화특구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 개최 예정인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수출 중심의 산업형 박람회로 이끌어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 해조류 시장을 선점하여 다시 한 번 완도를 세계에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완료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중앙부처의 국제행사 승인과 함께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와 해양수산부 수출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기존 시장 판로 확대와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시장 개척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각지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사랑의 김, 미역 보내기 운동과 북녘에 수산양식 기술 전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 미역 보내기 운동은 인도적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향후 남북 경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완도산 수산물의 유통 확대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둘째,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고 기후 변화 대비 적응 체계를 건실히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최근 생산량 증가와 기후 변화 그리고 경기 침체 및 소비 한계에 부딪혀 전복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은 생산, 가

공, 유통, 수출 등 분야별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서 전복산업이 안정을 찾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인증을 전복에 이어 광어와 해조류까지 확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조류 육종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확대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백신 공급 확대로 차별화된 명품 광어의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등 어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어회 유통을 위한 가공공장 건립과 수산물 소비지직거래유통센터를 운영하여 대도시에서도 완도산 수산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농수축산업의 동반 성장에 주력한 결과, 완도 자연그대로미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던 완도자연그대로 농업과 브랜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완도의 대표 소득 작물인 유자와 비파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6차 산업화로 더 많은 농가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황칠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되었고, 동백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황칠의 경우 특허를 조성하여 완도군만의 차별화된 산업화 모델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난지시험지 부지에 노후화된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과학에 기초한 영농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병해충 진단실, 종합 검정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촘촘하고 든든한 그물망 복지로 군민행복시대를 앞당기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포용을 기본으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람우선 포용복지'를 군정 방침으로 두고 군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내 공공의료기관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진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고 및 응급 상황 발생 시에 119 신고와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가정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해 희망 더하기 결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이며, 우리 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서지역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동상 및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을 테마놀이공원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에게 놀이, 교육, 체험의 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17개 도서의 보건진료소에 영상 시스템을 통한 보건의료기관 간 원격진료 등을 추진하여 외딴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종합 검진실 및 주차장을 확장하고 생일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등 공공 보건기관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전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군민 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군민 안전 보험을 통해 완도군민 모두가 강력 범죄 피해 보상까지 보장될 것입니다. CCTV 교체 사업 및 도서 지역으로 확충하는 등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처로 군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재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재난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설한 완도 어업정보통신국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조업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완도소방서 신설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 도시로 품격을 높이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완도는 해양, 섬, 갯벌, 숲을 아우르고 있으며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계획들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완도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의 장보고한상기획전시를 여는 등 장보고대사의 선양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대학교 강연과 2014년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언급한 이순신과 진린 장군의 선양사업을 전개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가 청산도에서 완도 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슬로시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와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정완도 가을빛여행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블루플래그 국제 인증을 꼭 획득하고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원교 이광사 선생의 동국진체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광사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완도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도해 일출공원을 특색 있고 차별화된 휴양공간으로 확대 조성할 것이며, 완도타워와 신지 상산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와 수륙양용버스, 그리고 해양유람선 등을 도입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섬의 특성을 살린 섬 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환경 조성 과 정주 여건 및 SOC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완도의 깨끗한 자연 환경은 후대에 물려줘야하기에 보전은 필수입니다. 내년에는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처리 단을 더 확대 운영하고,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갯녹음 예방과 바다 숲 조성 사업, 그리고 해중림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굴 패각 친환경 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 및 금일-약산 간 연륙교 사업은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등 SOC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가뭄으로 도서 지역이 식수난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보길도 지하수 댐 건설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 대책으로 제2수원지 축조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완도읍 군내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구시가지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공모 추진하여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것입니다. 완도읍 16개 마을과 7,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연료비 절감과 안전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조성, 세계적인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의 골프테마파크를 건립하고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역점 시책들을 뒷받침할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115억 9,400만 원, 특별회계 393억 6,200만 원으로 총 4,509억 5,600만 원이며, 올해 당초 예산 3,704억 1,400만 원 보다 약 21.7%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5%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현정부의 강력한 재정분권 정책 추진과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립은 다소 개선될 것 같으나, 특별한 세입 증가 요인이 없는 지방세 및 세입수입 등 자체 재원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민선 7기 군정

역점 시책은 해양치유산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가 세입 증가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은 군민의 관점에서 시급한 현안 사업이 무엇인지 깊이 고심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완도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민선 7기는 우리 완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4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전 공직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인 해양치유산업과 기후 변화 대책, 농수축산업의 동반 성장, 해외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완도 발전을 위해 급변하는 시대에 앞장서서 대응하고, 완도 발전을 위한 일들은 엄밀하게 살피면서 긴 안목으로 완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군민의 뜻을 모아 더 나은 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88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8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이번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이 유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집행부의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군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성실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세밀하게 심사한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인철 위원을 간사에 김양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미는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1건과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9.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동의안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다.

지난 12월 6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91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복지혜택이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목욕비를 이·미용비로 확대 지원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기존 완도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등에서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기존 목욕비만 지원할 수 있었던 내용을 이·미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2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2009년부터 무료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증명서의 발급수료를 무료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3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63년 동안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를 대신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글씨는 전서체로 써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4호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가 종료되고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 완도군

민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기 위한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완도군민들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5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군, 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에서 해당되지 않아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여 기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1월 31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6호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청년단체 지원 및 청년정책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살고 싶은 완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을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12조 청년발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은 조례안의 내용상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12조를 삭제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7호 완도수영장 관

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건립한 완도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영장의 운영시간과 휴관일, 수영장 사용료를 규정하였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2호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선진장려문화 보급을 위하여 설치한 완도군 장사시설의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89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완도군 향토유적 관리에 따른 토지매입, 금일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구)소안고등학교 건물 및 토지매입, 청산도범바위 명소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건립사업 건물 취득 등 토지 취득 15필지에 11만 5,041평방미터, 건물 4동 5,970평방미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9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13.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지난 12월 6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대수만 갖추어도 자동차 대여사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완도군 자동차 대여 등록기준을 제정하여 우리 군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등록 가능하게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9호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기존에 우리 군에 이원화되어 있는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도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사회적조직에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지원 받은 시설물 또는 기계장비 등 중요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기등기를 해야 됨에 따라 안 21조 3항에 시설물 등을 지원받는 사회적조직 등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0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의 이용확대를 통한 위생상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1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지방제정법 32조의 8, 7항에 따르면 같은 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교부금 교부 결정취소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완도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8조 2항 3호는 영구적인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면밀히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

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불출석 공무원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10시06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

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9일間に 걸쳐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부서별, 세출별로 축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면밀한 과정을 통해서 의결한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6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 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4개의 기금에 92억 3,653만 8,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식품진흥기금 8,400만 4,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83억 5,354만 9,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억 3,021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6,876만 7,000원입니다. 그 중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이 18억 7,661만 2,000원, 지출이 1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7억 2,661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금계획입니다. 2018년 말 현재 출연금 총 규모는 7건에 197억 2,690만 원이며, 2019년도 출연계획 규모는 7건에 31억 7,450만 원입니다. 출연금 내용별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550만 원,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23억 8,5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250만 원,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950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1억 7,700만 원, 관광진흥기금 1억 5,000만 원,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3억 7,500만 원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예

산에 대한 증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4,509억 5,569만 8,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4,115억 9,352만 7,000원과 특별회계 393억 6,21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15억 9,352만 7,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58억 3,700만 원, 세외수입이 109억 7,366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2,093억 1,269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35억 5,800만 원, 보조금 1,519억 1,217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0억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해님이, 해맞이 축제광고 외 22건의 사업, 42억 1,29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해양치유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은 해당사업의 관련부서인 해양치유산업과로 예산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문화체육과 소안초등학교 인조잔디사업 외 두 건에 대해서는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중점으로 두었던 사항은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적이고 선심성, 소모성 그리고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심하고 심도 있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도 출된 시정·개선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집행부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족입니다. 예산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사업계획 수립, 재정관리 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황칠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완도수산물 소비자

직거래 유통센터 운영 임대료 등 다수 예산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요구하거나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과주의 재정운영 원칙 미흡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의 성과계획 작성이 의무화되고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농·업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유용미생물 공급사업 등은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성과주의 재정운영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후 유지 또는 중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조례가 없는 군 취업 우수선수 지원이라는 보상을 책정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집행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이후에는 다수의 우리 군 출신 우수선수들이 같은 혜택을 받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의 과다입니다. 2018년도 예산 중 2019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예산은 총 362건에 613억 원으로 2018년도 총 예산 대비 13%에 달하고 있으며, 16개부서가 해당됩니다. 이처럼 명시이월비가 과다한 것은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 장소, 여건 등을 일실하거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부재입니다. 우리 군 예산분포를 보면 농림수산 분야에 21%, 사회 복지 분야에 18%, 산업중소 분야에 3% 정도로 매년 예산이 편성됩니다. 예산비율만 보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

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례보증제도, 생애 단계별 대책, 사회보험료 지원, 이자보전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며, 이후에는 적정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홍보예산의 방만한 편성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홍보는 지자체마다 당연한 것이나,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홍보예산이 편성 운영되고 있고 이중에는 비슷하거나 불필요한 예산도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홍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부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요구부터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방만한 홍보예산은 줄여 반드시 필요한 주민생활 불편사업 등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시 거론된 시정·개선할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편성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윤탁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치밀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2019년도 예산안이 소기의 목적대로 투자되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수집과 질서유지 등에 적극 노력해주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안 설명 시 자료 준비와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부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정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하였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6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동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난 11월 27부터 12월 5일까지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6건, 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 83건, 총 89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우수사례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먼저 분야별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3건, 예산회계 분야에 1건, 해양수산 분야 1건, 지역개발 분야 1건으로, 먼저 결과보고서 7페이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각 부서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총 122건 중 42건의 사업만 공모를 추진하였고 80건의 사업은 수요부족, 추진여건 부합 등의 사유로 공모사업을 미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 공모사업별 세부지침을 확인한 결과, 일부공모사업의 경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임에도 관심부족 등으로 공모사업을 미추진한 사실로 확인되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부서에서는

위 조례에 의거 절차대로 장학금 지급을 이행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결과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지월양 풍력발전 개발행위업무 소홀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 20% 이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산출내역 착오로 부과 가능한 이행보증금 최대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부과하여 1억 1,856만 9,800원의 보증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9페이지, 예산회계 분야. 2017년도 세출결산불용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추진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월조서 누락, 사업 미추진, 행정절차 지연, 담당공무원의 예산처리 미숙 등의 사유로 153억 905만 5,000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운용기본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과정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실태분석이 부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0페이지 해양수산 분야, 완도전북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직원 채용, 임직원 보수, 조직과 정원의 운영, 예산 편성, 회계 등의 검사, 결산, 경영실적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나, 부칙 제4조의 적용특례 내용상 법률 적용에 배제되어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는 지방출자출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고,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정관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완도전북주식회사가 최초 설립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조례 및 정관개정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1페이지 지역개발 분야, 완도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독업무 소홀입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계획공정 대비 실적공정이 현저히 부족한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워 주민불편이 예상되는데도 적극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서는 결과보고서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33페이지, 우수사례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충전소라고 할 수 있는 빙그레시네마의 개관으로 군민 문화생활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며, 개관 이후 월 평균 6,000여명의 주민들이 빙그레시네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영화 관람을 위해 인근에 위치한 광주, 목포 등 대도시로 가야만 관람이 가능하여 이에 따른 비용지출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었으나, 빙그레시네마 개관 이후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앞으로도 빙그레시네마는 문화충전소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으로 보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인력 충원 및 시설 확충 등 28건을 제안하였고,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완도-제주간 변환소 건설사업 관련 지역갈등 해소 추진 등 55건을 발굴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

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군민이 원하는 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 없으십니까?

최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달 26일 개의회 25일간 진행되었던 제265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은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완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뜻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완도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2018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조 인 호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박현식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불출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김남수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06일(목) 09시59분

□ 의사일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

1.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09시59분 개의)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391호

완도군 노인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391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안번호 239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1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목욕비에 이·미용비를 확대 지원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의 완도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서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조례로 조례의 제안을 변경하였고 목욕비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이·미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보다 이용권의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한 달에 2매씩 10개월간 총 20매로 지급하였던 것을 지급기간을 1년으로 늘려 총 24매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예, 전문위원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91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노인의 건강을 위하여 현재 목욕비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이·미용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또 조례의 주요내용은 이용권을 연 20매에서 연 24매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지원계획은 오후 간담회 때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아니, 저기 이 목욕권이 본인만 사용하게 했지 않습니까?

□ 박인철 위원

예.

□ 우성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활동을 못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안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이라고 하면 80세 되신 분은 목욕도 못하러가고 이발도 못하러가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이장들이 그런 분들이 안 가져가면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직원들이 일일이 나눠주러 다니고 아니면 노인들한테 일일이 가지러 오라고 하고, 면사무소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

서 도와주고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분명히 그 사람 본인만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이제 74세고 제가 69세인데요. 제가 목욕권을 한번 가지고 가봤어요. “70살 됐어요?” 라고 물어보더구먼. 그래서 “70세 됐다.” 라고 하면서 제가 써봤어요. 그런 경우, 본인이 쓰려고 하는데 젊다고 못쓰게 하고.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장 중에 착실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합니다. “아줌마가 목욕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모아서 이쪽에 좀 나눠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장들이 그냥 목욕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모아가지고 나쁜 데에 쓰는 일이 있었습시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기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 당부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이것을…… 직원들이 이런 데에까지 가서 이것을 나눠주러 다니고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실이고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 전문위원 추교훈

목욕비는 이용자들한테만 지원하는 것이라, 그냥 집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저희들이 지금……

□ 우성자 위원

몇 명, 70세 이상은……

□ 전문위원 추교훈

금년도에 25%밖에 이용률이 없거든요. 금년 이용률을 보니까 25%밖에 아니예요.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키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직원들을 통해서. 이장들한테나 교육

을 정말 잘 시켜야지. 소위 이장들이 돈 몇 푼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목욕탕에 팔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좀 시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추교훈

예, 일단 오후에 간담회 때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지원계획설명이 있거든요. 그때 건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허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허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허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91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91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2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9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범성 위원님 나오

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2009년부터 무료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1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액을 무료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발의한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92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에 맞게 일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도 납세증명서 수수료를 기존 800원에서 이번 에 무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92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92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3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94호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95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96호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97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402호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9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다.

복지행정국 소관 5건의 조례부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93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써 오랫동안 관인에 사용된 전서체를 대신하여 관인의 서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2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93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관인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9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의안번호 2394호 완도군 소통 화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원을 추가함으로써 완도군민들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기 위한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역발전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기능에 갈등조정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위원장을 현행 군수님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명에서 공동위원장 2명으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일반 분과위원회와 지역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각각의 운영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조항과 위원회의 최종결정사항을 군수에게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당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94호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새로 구성하여 군민들이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과 상생협의회 관련 운영규정 등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에 맞게 조문들

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복지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전에도 이 단체가 있었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소통통합위원회라고 민선6기 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떻습니까, 뭐 그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냐 거기에 대한…… 또 위원회가 생겨서 수당도 일부 나오는데,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소통통합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5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도 갖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 분과별로 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군정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군정에 반영하고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역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 내지는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집단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수가 위원장이 아니고 공동위원장 2인 체제로 해서, 또 민간인 중에 뜻이 있는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분과위원회를 기존 5개 분과위원회 외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이런 갈등관계,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수기 과정을 통해 공론화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조례는 놔두고, 기존의 소통통합위원회 조례는 놔두고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는 지역현안, 뭐 공론화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변환소 문제, 돈사 문제, 태양광 문제, 이런 군민들 간에 지역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대표성이 있네, 없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님들이 물론 주민들의 대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나서기 어려운 사항들을 주민들과 같이 함께 수기 과정을 거치는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말고 기왕에 이 조례가 있으니 제명을 변경해서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기인원이 짜질 것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집회공고나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의…… 그 위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과별로 위원 구성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각 분과에 한두 분씩 고지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6기에 그러면 그동안 1년 정도 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취지의 어떤 성공사례가 있거나 그런 도움이 많이 됐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제가 구체적인 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업무에 종사……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 분과별로, 분야별로 여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해야 할 사항,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더 발전적인 군정을 위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게 취지대로 잘 짜지면 좋은데 잘못해서 사람을 선정해 놓고 아무 필요 없는 단체가 되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잘했을 때는 좋은데 취지대로 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 선정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잘되고 잘못되고, 사람 하나를 놓고도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점은 유의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주 신경을 잘 써서 해야 될 것으로…… 해놓고 무슨 보람도 없고 말만 더 많고 경비 지출만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끝났습니까?

□ 최정욱 위원

예.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11쪽을 보시면 “특별분과위원회는 제6조 4항에 따라 필요 시 개최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6조를 보면 그런 조항이 안 나와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뒤쪽에 신규조문 대비표 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6조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현행 조문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구조문인데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조 회의, 14쪽입니다. 제일 밑에 회의를 보면 그 다음 장 16쪽에…… 15쪽 하단부분에 보면 분과위원회란 이렇게 5개의 분과위원회와 지역 현안,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3항에 보면 일반분과위원회 운영사항과, 4항에 보면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이제 좀 됩니다.

그런데 최정욱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특별분과위원회는 상당히 그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군정질의 때도 저도 그것을 따졌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잘 구성하면 그 가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측근들로 구성하게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런 용도는 절대 아닙니다.

□ 허궁희 위원

그래서 정말 이 위원들을 신중하게 선정한다면 좋은 기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 선정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9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

속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제정법 제9조 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근거해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존속기한을 조례에다가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를 신설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9년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2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95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9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년정책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살고 싶은 완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을 완도군 청년발전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설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8조와 제12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발전협의체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2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96호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청년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을 발굴·실현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정책계획 수립사항과

청년정책사업 추진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기존에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6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좀 미비한 점이 많았고, 기껏해야 청년단체에만 국한된……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미비된 점이 있으면 보완이 되어야지. 이 조례안을 보면 거의 군수의 권한을 강화해놨어요. 군수의 권한만 첨부해 놨어요, 조례안을 읽어보면. 2005년도에 예산계에서 지원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JC하고 청년회하고 지원해주는데.

이 조례안을 봐보면 청년단체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니까. 군수 산하……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금방 뭐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소통화합……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한번 전문을 읽어보십시오. 거의 뭐 다 군수 산하라고 넣어가지고 군수 뭐 산하조직을 만듭니까, 청년단체를. 그러면 기존 청년단체하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집도 한 40명, 50명 해놨는데.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 청년발전기본조례는 전남도본청을 비롯해서 21개 시군에…… 청년발전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 군만, 지금 완도, 강진, 신안군만 제정이 안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까 하다가 기존에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중복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기존조례에 있었던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제일 뒤에 15조에 넣은……)

아니, 그러니까 17조, 15조, 18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15조에도 들어와 있고 나머지도 봐보십시오. 거의 뭐 군수한테 청년단체를 갖다가 떠넘겨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떤 청년단체를 만든다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청년단체를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나면 지금 19세에서 49세까지가 우리나라 관련법에 의해서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경제, 사회, 복지, 문화, 교육에 대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단체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데에 지원근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기존에 새로운 청년단체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존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한, 그런 단순한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기존 조례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청년센터라든가 청년몰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데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조례를.)

예, 좋아요. 그러면 청년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16조를 보면 군수는 청년정책을 발굴, 연구, 추진을 위해 완도군 청년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은 어떤 위원들로 해가지고 하자는 말이에요.

기존에 청년 두 단체, 양자 단체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원만 해주면 되지. 뭘 뜯금없는 것을 해가지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위원님, 이 청년기본정책법은……)

잠깐만, 잠깐만.

12조 청년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이라고 했는데, 군수는 청년…… 이렇게 해놨는데, 완도군 청년발전협의회 이하 협의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자 청년회는 던져버리고 군수가 뭐 협의체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문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여기 협의회는 청년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고, 기존에 청년회라든가 JC나 읍면청년회나,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 단순한 자원봉사 지원의 근거뿐만 아니고 일반청년, 완도군 청년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기본법입니다.)

아니, 말은 좋은데 문항들이 어떻게 다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문항을 읽어보니까 거의 기존에 있는 양대 청년회들은 제쳐놓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

서 -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인데요. 이 기본법은 일반적인 청년회에 관한 일반적인,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근거를 만드는 지원조례고요. 기존의 단체에 대해서 새롭게 무엇을 어떻게 관이 통제하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청년단체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줘서 한다고 하면 기존 조례안에다가 플러스만 하면 되는데.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이 법은 단순히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정책수립을 위한……)

어떤 정책 수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완도군에 제일 미흡한 것이 청년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관련 근거나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근거가…… 근거뿐만 아니라 정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보건복지부에, 국가 여가부에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경우 국비사업을 지원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완도군은 그 활동 근거로 하는 기본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가 주민복지과에서 분리되면서 아시다시피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또는 지원 사항, 이런 것들을 검토한 끝에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현황을 보니까 전

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강진, 완도, 신안만 청년 조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조례를 신설하되, 기존에 있던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더 강화시키자는 차원이고,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회나 JC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확대 지원하게 되는, 18조에 보시면……

□ 박인철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12조에 보면 18조는 기존에 이것과 얼추 같은 것이고, 청년발전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2항에 보면 4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양대 완도군에서 기존에 지금…… 양대 이렇게 청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또 다시 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40명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찌됐든 청년단체에서 했던 JC에서 했던 각 읍면 청년단체에서 했던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단체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그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 협의체가 되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무엇이나면요,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지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책을 확정짓고, 지역사회각보건법에 대해서, 즉 지역사회각보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확정을 짓듯이 완도군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의견수렴을 이 위원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지,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 설명은 잘 들었는데, 12조 청년발전협의체하고 16조 청년센터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된단니까.

그러면 기존 청년회…… 지금 다른 시군에는 청년회가 없어요? 청년회가 있는 곳이 기존에, 태생적으로 있는 곳이 완도하고 제 주도하고 있었는데, 제 주도는 없어지고 완도

는 있는데, 발전협의회를 하고 센터를 설치하고……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설치 안 할 거예요, 협의체 안 할 거예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청년센터를 저희들이 국가 여가부에 그런 국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센터의 공간조성을 국가에서 합니다. 공공건물에다가 청년센터를……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 거기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도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하듯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다른……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그런 정책적인……)

청소년,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도군에는 특수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완도군 청년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역사가 30년이 넘어가요,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조례를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 버리고, 또 거기다가 위원들을 한 40명씩 군수가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면 기존에 청년 단체하고는 어떻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 박인철 위원

아니,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기존 청년단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그런 취지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기존 청년단체와 더불어서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이라는 점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12조, 16조, 이런 안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안들이 빠져도 되는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다면……

□ 박인철 위원

기존에 지금 우리가 청년 양대 단체에다가 거기를 같이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래 가지고 해놨으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면 박 위원님, 8조만 한번 봐주십시오. 청년정책위원회 설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여기서 보면 상위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발전협의체 이외의 기구라고 봐야죠, 거기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보면 위촉직 위원으로서 완도군의 회 의원, 청년발전협의체 위원,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그 다음에 청년정책과 관련된 박식한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그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기본적인 정책은 수립됩니다.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발전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양 청년단체를 배제하거나…… 오히려 그분들을 정책위원회에 참여시켜서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요, 8조, 9조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회 구성 운영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만 끝나면…… 내가 이것을 안 물어본 것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한다는 이 말입니

다, 8조, 9조는. 그런데 갑자기 12조에 가서 이 위원회가 있는데 또 협의체를 구성하고, 16조에 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만 들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협의회니까요.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금방 국장님이 말한 8조인가 9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 군수로 해가지고 각 실·국장님들과 의회하고 이렇게…… 이것은 인정한다는 이 말이에요, 9조까지는. 그런데 12조에, 그러면 위원회가 또 있는데 발전협의체로 또 40인 이내 2년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또 이렇게 센터까지…… 금방 서길수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양대 청년회가 있는데 또 여기다가 물론…… 봐가지고 국비를 받게 센터를 설치해 버리면.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여기서 말하는 센터는 취업상담부터…… 취업상담, 그 다음에 각종 커뮤니티 공간, 그런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에 기능을 하는 센터입니다. 다른, 어떤 임의단체의 사무실로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6항을 넣어놓고, 밑에 또 3항에다가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사무관리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하게 되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박 위원님. 이것도 청년센터……

□ 박인철 위원

자꾸 충돌이 된다니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박 위원님, 청년센터를 만약에 설치하게

될 경우라면 지금 현재 청년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좀…… 기존에 다른 시군보다 완도군이 청년활동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칭취불능) 해놓든가. 이것 이렇게 다 넣어놓고 위탁한다고 하면 누가…… 위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나오면 같이 또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거기에는 청년 관련…… 나중에 위탁에다가 세부규정 세칙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청년 관련된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했는데…… 12조, 16조는 이 조례에서 뺏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12조는 그렇더라도 16조는 존치해서 청년정책을 현실화시키고 청년회의 자립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여기다가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나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해가지고 뭐 경력을 바꾼다거나 뭐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군에서 지금하고 있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운영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집행부 좌석에서 -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8조에 보면 기존에 위원회가 2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입니까. 그런데 다시 뭐 12조에서 또 다른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12조는 삭제하고, 저는 센터 설치까지도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센터 설치 16조는 존치해도…… 이것은 설치 운영하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 운영하더라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양대 청년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어떤 반하는, 그런 것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조례에 근거는 두되, 박 위원님의 지적대로 12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이것은 사실 별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았고.

그리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전에 조례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의원들이 제정했던 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는 어떤 의원이 그 조례를 제정했는가 하고, 최소한 그 의원하고…… 이전에도 제가 조례를 제정해 났는데 필요 없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청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최소한 그랬으면 그 의원한테만큼은 와가지고, 아니면 최소한 의장님한테라도, 왜 이 조례안이 전부개정안이 됐는가. 그 정도는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성아동과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실과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통계팀에서도 이런 것이 오면 최소한…… 의원들이 한 조례발의는 군민들한테 들어서 하는 조례들이 많아요. 군민 실생활에 하는 조례

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조례를 처음에 개정했던, 발의했던 의원한테는 이런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 조례가 여기 책자에 묶여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금방 땀니까, 국장님이 말했던 협의체는 앞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9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건립한 완도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되, 동일시간으로 06시부터 21시까지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07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휴관일은 법정공휴일과 매주 월요일입니다. 그다음에 안 8조 수영장의 시설사용료는 1일 사용료와 월 사용료로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근거는 인근 시군, 전남도 내 인근 시군 수영장 사용료 평균치로 결정하였으며, 완도군 체육회의 수영협회와 협의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안 제17조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설규모에 맞는 안전요원과 수영강사를 배치하고, 안 제19조에는 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그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3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397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건립한 완도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시간, 사용료, 사용료 감면대상자 조항들은 인근 지자체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 및 내용상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시설 사용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는 초과사용시간당 기본요금 플러스 10을 가산해서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그것을…… 시간을 재고 있을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집행부 좌석에서 - 들어갈 때 전자시스템으로 전부…… 운영할 것입니다.)

그 전자시스템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수영장에 가보면 12시 이전에는, 11시 40분인가 되면 나가라고 하거든요. 청소하고 그러면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8시에도 갈 수 있고 9시에도 갈 수 있고…… 강진 같은 데는 오전에는 자유롭게 가면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체력만 된다면. 원래 수영장에서는 40분 쉬고 하라고 그런, 50분하고 쉬라고 하는 그런 문구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자시스템이 된다고 해가지고 2시간 넘으면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지켜서 나가라고 하고 돈 받고 그럴 거예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운영규정이 우리가 독창적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규정을 많이 따랐더라고요. 자기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조례를 변경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규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래서 “2시간으로 제한한다.” 라는 이런 규정은 넣어놔도 “초과했을 때 돈을 더 받는다.” 라는 이런 규정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현재 우리는 수영장이 어떻게 시설되어 가지고 얼마나 사용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면 너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여기는 제가 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 적자가 납니다. 강진이나 저런 데는 선정에서도 오고 완도에서도 가고 장흥에서도 오고 이랬을 때도 적자가 나는데, 우리 완도는 편하지 않습니까. 뭐 고급, 약산에서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또 완도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제한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다가 인원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다시 신설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규정을 둬으로써 이용자들이 그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봐주시고, 우리가 뷔페식당에 가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밥을 남기는, 음식을 남기는 자에게는 벌금 3만 원을 물린다고 적어놓지만 실제로 물립니다. 그런 규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식을 2시간 이상 정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2시간 이내로 해달라는 그런 조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위원

그리고 위탁 관리를 준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해보고 위탁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위탁할 분이 나오면 위탁을……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닙니다. 군에서 직영하고요, 일단.

□ 우성자 위원

일단 직영으로 얼마 정도 해보고요? (예) 저는 그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에는 수영장이란 주민의 생명 안전이라고 했는데 보험관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박 위원님의 지적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영조물배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고, 우리 군에서도 가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고발생 시 그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례에다가 피해보상규정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우리 다른 것, 뭐 건물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행여 익사사고가 나고 그런 것 도……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화재 시, 인명사고 시, 분실물 관련 보관물 분실 시, 그런 것을 다 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성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19조 시설 위탁 관리요, 이것은 나중에 해보가지고 위탁 관리할 데가 있으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것은 삭제했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의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수의, 위탁,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선 이것은…… 이 19조는 삭제하고 나중에 만약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런 기회가 되면 그때 조례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운영하고 싶은 민간이나 법인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니까 주라.” 라고 이렇게까지 한다면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굳이 뭐……

□ 박인철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해놓으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데, 군에서…… 뭐 17조 시설 관리 이렇게 해서 군수가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시 시설 위탁 관리가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혹시 여기 아쿠아는 포함이 안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 우성자 위원

아쿠아.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쿠아…… 아, 그 수영장 내예요?

□ 우성자 위원

예, 그 강사는 따로 안 정하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11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안전요원 2명, 그 다음에 수영 강사 2명, 다음에 행정요원 1명, 매표 1명, 그 다음에 청경 1명, 또 청소하는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소요됩니다.

□ 우성자 위원

아쿠아라고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영을 안 하시는 노인들이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아직은 생각을 안 하신 것이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자격이 있는 수영강사를 채용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아마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 모집 중인데 구조요원은 2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수영강사 2명을 뽑아야 되는데 1명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 정도 보수를 가지고는 완도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체, 완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파악해서 조율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 우성자 위원

보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렇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뭐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우성자 위원

수영강사가 180만 원 받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니까 기간제로 뽑으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 해서 뽑게 되면 보수가 약간 높아지는데 기간제로 이렇게 선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 우성자 위원

수영강사가 아쿠아를 같이 하기에는 힘들 텐데.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이렇게 와서 하는 그런 강사가 있더라고요, 따로. 여기는 그런 강사를 구하는 것 자체부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이 수영강사를 모집하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영장 개장은 못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강사,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은 다됐는데 강사를 완도에서 구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완도에는 올 강사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다면 강사 역할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맡길 수 없는 것이니까 수영을 할 수도 없고……

□ 우성자 위원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숙박 제공까지 해주면서라도 불러온다든지,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완도는 강사를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하여튼 그래서 개장 전까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한번 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때는…… 공고를 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한 번 더 하고요. 재공고를 해서 그래도 대상자가 없으면, 현재 기간제로 공고를 해놨는데 단가가 한 단계 위인 공무원으로 채용공고를 또 낼 계획입니다. 그래도 없으면 방금 우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가를, 금액을 더 조정해서라도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잘 하십시오. 수영강사가 엄청 힘들어서 잘 안 오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에 했으니까 그런데 좀 폭을 넓혀서 강사가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방금 말씀하신대로 19조 그것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그것은 그대로 존치해도 별 그렇게…… 의회에 동의, 또 군 동의 없이 일반 위탁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뒤도 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02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완도군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근거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이고, 위탁 시설은 완도군 장사시설로서 추모공원과 공설묘지에 해당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완도군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이고, 운영사업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방으로써는 공개모집한 후에 완도군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고 지도 감독은 우리 군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과 위탁해서 이 공설묘지 운영관리를 위탁해 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다시 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93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93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94호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94호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5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95호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6호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완도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7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97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2호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02호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89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좀 쉽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38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해 2019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취득 19건에 12만 1,011제곱미터, 금액

은 68억 2,2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토지취득 15건에 11만 5,041제곱미터 9억 4,500만 원, 건물 4건에 5,970제곱미터 58억 6,700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완도군 향토유적 관리에 따른 토지매입과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세무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소안고등학교 매입,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산도 범바위 명소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수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 총 5건입니다.

세부사업 추진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태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완도군 향토유적(청산진성) 관리에 따른 토지매입과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에 따른 토지매입 총 2건의 안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완도군 향토유적(청산진성) 관리에 따른 토지매입 건입니다. 청산진성은 2008년 7월 18일 완도군 향토유적 제16호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청산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면서 섬의 일부가 복원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산진성터는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로서 관리부서인 한국자산공사에서 완도군 무상사용 승인(청취불능) 무상대부와 매입을 검토하였고, 미이행 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완도군에서 소유권을 취

득하여 향토유적을 관리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반영대상은 토지취득으로 위치는 청산면 당락리 1396번지 외 4필지입니다. 면적은 6,400제곱미터입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한 건씩 하세요.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다음은 5페이지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건입니다. 금일읍 체육시설사업 부지는 1987년 5월 27일 매립·준공된 건설교통부 소관 토지로서 우리 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가능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와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지적 분할측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관리부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9년 1월 감정평가 완료 후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은 토지 취득으로, 위치는 금일읍 화목리 141-12번지이며 면적은 3,690제곱미터로써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도면 및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전천후게이트볼장. 2018년도 본예산에 소안도하고 금일하고 6억씩 해가지고 5,000만 원씩인가 깎아가지고 넘어갔는데 소안도는 부지가 없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불용으로 2회 추정 때. 그러면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동의안이 올라와가지고,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됐어도 많이 거꾸로 되어 버렸고, 애당초 토지들이 다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켜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의안이 지금에서야…… 이것이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불용액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 올라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 건은, 소안 건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고요. 금일권은 당초 소재지에다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시설하려다가, 금일에서 위치를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다가 하고자 하는 그 용도, 그 부지는 군 유지에다가 할 계획이어서 가지고 예산만 세웠는데 부지를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다보니까…… 그 부지가 국가 소유인 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2억 5,000만 원 부지매입비를 이번에 요구를……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소안도도 이것이 문제가 많죠. 이전에 `18년도에 예산할 때, 본예산할 때 문제가 많았다가 두 건이 통과되었는데, 소안도도 애당초 소안도 면사무소 앞에 기존 게이트볼장에다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소안은 장소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2회 추경에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소안도를 그래서 불용 처리시켜버리고, 금일은 애당초 땅이 거기에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땅이 안 된다고 해서 또 다시 이것을……

뭐 일이 거꾸로 가는 것은 둘째 치고, 다시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들이 어느 쪽으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가고, 뭐 A와 B가 틀리냐는 거예요, 타입이 똑같아져야 되는데, 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이것하고 고금 테니스코트장하고 이런 것 다 너무 선심성이라고 해가지고 안 해주려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당시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갑자기 이 공사가 끝나고, 몇 번이든 끝나야 되는 공사인데 이제 와서 토지가 안 되어가지고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토지매입비를 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가급적이면 기존 군유지예다가 이것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말고 이 사업을 거기에다가 하자고 그랬더니 금일…… 그분들이 우선 사용해야 될 그런 시설물인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위치를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그러면 대상 위치를 내놔 보라고 하니깐 군유지가 아닌, 방금 설명을 드린 그 부지를 이야기해서 자산관리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는데.

우리 예산들이 언제부터 지역에서, 노인회나 이런 데에서 뭐하면 예산이 춤을 췄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안도도 부지가 안됐을 때는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의회에 와서 갑론을박하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소안도도 그렇게 해줘야지. 금일이 뭐 대단합니까, 금일만 이렇게 하계. 거기가 뭐 힘이 좋아서 금일을 하는 것입니까, 소안도는 힘이 없어서 뭐한 것입니까. 똑같이……

(예산서를 들며)

`18년도 예산을 봐보십시오. 위, 아래 똑같이 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무슨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하는데 6억이 들어가느냐고 하니깐 그 6억이 뭐…… 그 안에 넓은 곳에다가 에어컨을 시설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그러면 그 필요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다 군에서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5,000만 원씩인가 깎아가지고, 두 군데 다 동일하게 5,000만 원씩인가 깎아가지고 통과시켜줬는데.

하나도 힘이 없는 지역은 2회 추경에 땅이 없다고 불용처리를 해버리고, 하나는 이렇게 끝까지 연말까지 가져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토지취득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해 주라고 하면……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소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마 전임자들이 그것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향후 부지 위치를 마련해서 별도로 다음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감 처리한 것이고요, 금일은 대안을 저쪽으로, 현재에 있는 그 부지로 대안을 제시하니깐 이 부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애당초 이 예산이 통과될 때는 물어봤다니까요, 문화체육과 `18년도 예산할 때 이 두 가지하고 고금도 테니스코트장 세 가지로 해가지고, 그러면 고금도도 뭘니까, 소방서 뒤에…… 그래서 토지는 있냐고 그래서 다 토지는 댔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러면 고금도는 그대로 그 액수대로 통과시키고, 소안하고 금일은 게이트볼장이 너무 과하게 잡아줬다고 해가지고 5,000만 원씩 삭감시켜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켜 줬다니까요, 토지가 다 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 예산할 때 그때 그 당시

담당했던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제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어느 한 쪽은 예산을 불용시켜버리고 어느 한 쪽은 토지매입비까지…… 그러면 5억 5,000에서 2억 5,000하면 거의 8억이나…… 게이트볼장 하나를 짓는데 한 8억 들어갑니까, 우리 군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기존에 있는 땅을 국유지가 됐든 군유지가 됐든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는 처음에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도대체 뭐하냐?” 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 공사가 진즉 끝나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직까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 과장님, 이 동의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도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명시이월 조치를……

□ 박인철 위원

명시이월로 해놨습니까. 이것 생각 좀 합시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7페이지, (구)소안고등학교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2013년 3월 통폐합 후 6년째 사용하지 않고 흉물로 남아있는 소안고등학교 환경정비차원에서 우선 매입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마을경관 개선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매입대상은 소안고등학교 부지와 건물, 소안면 비자리 1247번지와 1247-1번지, 부지면적은 두 필지에 1만 1,824제곱미터, 건물면적은 3동에 2,457제곱미터입니다. 매입비용은 약 14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의 현황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안고등학교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소안고등학교를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활용방안은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요, 건물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10실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관사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지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용도로……

□ 박인철 위원

매입은 좋습니다, 이 매입은 좋은 것인데, 소안도 사회단체들에서 우리 군에서 매입해 놓으면 너 나 없이 사무실로 쓴다, 어쩐다고 할 텐데, 이런 것은 아니죠, 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계획은 지금 아직……

□ 박인철 위원

과장님,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 것은 없죠, 우리가 직원들 관사로 쓰고, 가고 싶은 섬도 거기다가, 그 뭘니까.

어디입니까, 미라리입니까, 비자리입니까. 거기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 사무실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너 나 없이 소안도 단체들에서 개인건물처럼 주라고 할 것인데, 그 관계를 확실히 과장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노화동초등학교가 있죠. 옛날에 우리가 오감 전복 뭐 한다고 했는데 건물이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안했던 것, 그 건물도 꼭 우리 군에서. 왜냐하면 노화 분들이 요양원을 많이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인근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보다 우리 군에서, 노화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우리 군에서 소안고등학교를 매입하듯이 노화동초등학교하고 군외면 영풍리에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무회계과 재산담당에서 올해…… 어차피 본예산에는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해가지고 꼭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그 관사로 쓸 건물은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수리를 하지 않아도…… 2011년도에 10월로 되어있는데요, 건축물이 신규로 지어가지고, 얼마 사용하지 않고 지금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 건물이나 마찬가지로.

□ 우성자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이런 건물들이 나오면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이렇게 주민복지 증진이나 마을 경관개선, 이런 쪽으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신지동중학교 자리 한번 보셨죠? (예)

개인한테 넘어가니까 얼마나 보기 좋던가요, 참 흥물스러운 곳입니다. 옥상에다가 태양광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달랑 해놓고, 관사들 꼴 참 못 봅니다, 못 봐.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통폐합된 학교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여러 가지 활용도는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개인한테 넘어서, 물론 사업이라고 달랑하는 것이 태양광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도 후회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매각할 뜻이 있는 모양이에요,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하면 어떻가.

그래서 정리를 해서 지금은 어린학생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여름철에 그 쪽이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아주 그냥 차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주 관리 자체가 안 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관광정책과 관광진흥팀장 이정국입니다. 관광정책과장이 도청 출장 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산도 범바위 명소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매년 33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서편제 촬영지 등 주로 6코스 중심으로 단일 관광에 그치고 있으므로, 관광객들의 동선을 범바위까지 확대하여 해양치유 산업과 연계한 범바위 기체험이라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청산도를 사계절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소재지는 청산면 읍리 산 350번지 외 6필지이며, 사업내용은 범조형물 설치, 범바위 (청취불능) 정비, 자기장 친환경 시설 등을 도시기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6억 5,7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관리계획 반영내역은 토지 취득으로, 위치는 청산면 읍리 산 350번지 외 6필지이며 면적은 9만 2,827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도면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산도 범바위 명소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기체험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기체험은 자기장 나침반을 만들어 가지고 체험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구체적으로 뭐 계획은 없어요?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정국

디자인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11페이지,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전복, 광어 등 완도수산물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완도읍 군내리 1449번지로 향만터미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 신축 1식으로 지상 2층 3,513평방미터로 약 1,0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19년 11월까지입니다. 관리계획 반영내역입니다. 사업예산…… 죄송합니다, 50억입니다. 관리계획 반영내역입니다. 군 취득이고 소요예산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해남 도면과 조감도이고 건물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계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지금 거기에 홍보관이 들어설 계획이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홍보관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홍보관이면 주로 어떤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 가공된 가공식품 그리고 해조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가공식품하고 전복도 가공식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뜨고 있는 것이 ASC 인증 부분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ASC 인증과정이라까, 그런 부분들도 빠트리지 않고 넣어가지고 전복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홍보 여건들이 정확하게 잘 꾸며가지고요, 어떤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완도 전복 홍보랄까, 광어 홍보, 또 해조류의 여건들이 집약되어 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총 사업비가 50억이고 토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토지매입비는 해양수산부 소유로, 협의로 해서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 박인철 위원

없습니까? (예)

그리 하면 금이 그어진 그 다음,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뒤 부지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여차피 사업 건물은 사업부지 내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부지를 가지고 뭐 어떤 분열요소는 없고요, 단지 거기가 몇 군데 어판장하고 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쪽 건물 소유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건물이 신축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수산물분류센터로 해가지고 애당초의 취지하고 많이 벗어난 도면들인데 지금…… 광어, 금방 광어를 넣었는데 광어는 앞에다가 탱크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광어라고 하는데, 이것 전복을 위한 물류센터지, 수산물물류센터가 아닌데, 처음에는 수산물 물류센터라고 해가지고 해조류고 뭐고 싹 갖다가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봐요, 누가 보나 전복을 위한 물류센터지, 무슨, 완도가 전복이 다입니까. 전복이 완도사업의 몇 %나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뒤에 배후부지를 다 흡수해야 되는데, 배후부지 흡수, 이 건은 전혀 안 들어와 있네요. 그냥 이것 뭐 다 기존에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지금 한다는 것만, 건물취득 이것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쪽 잉여부지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도 그쪽 전복산업연합회라든지 이렇게……

□ 박인철 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하는데…… 과장님, 왜 전복산업연합회가 나오니까. 전복산업연합회

는 별개예요. 수산양식과에, 지금 수산경영과에서는 이렇게 뭐하면 하다못해……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할 때 보면 전복협회 그런 데에다가 해주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전복협회에다가 해주는 것이, 수출협회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이 문제가, 과장님. 배후…… 뒤에 있는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 또 건축하고 있으신 분들…… 지금 반발이 심하죠, 뒤쪽에서?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쪽 인수관로로……

□ 박인철 위원

관로문제도 있고 물류센터가 높이 올라가니까 자기들 건물 다 가려버리고 조망권,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없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조망권은 어차피 건축법에 의해서 진행하고요.

제일 큰 문제가 그쪽 관로 부분을, 건축 기초공사를 할 때 관로를 매석해 주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부지를 우리 군에서 사주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저희들도 내부를 한번 검토해 봤어요, 임야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쪽 토지소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아시다시피…… 그 차이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감정평가대로만 매입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얼토당토않게 너무 높이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거기를 보면 마지막, 완도읍에서 마지막 남은 유희부지로 수출물류센터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지가 완도군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지인데, 지금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점유했는데 아주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지금 이 도면 완전한 최종본은 나왔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최종본은 아닙니다. 주간보고를 한번 더 해서 어차피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간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과장님, 제가 여기 회의에 한번 참석했는데 전복만 가지고 전복협회에 된 사람들로만 상황실에다가 불러놓고 하지마시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중간, 중간에 그 설계사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다 가서 보니까 회의하시는 분들이 해조류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광어 뭐, 광어하시는 분도 하나도 없고 전부 전복하시는 분들만 와가지고, 이런 공공성 건물들이 자기들 건물입니까. 그때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기가 차서 한마디도 안하고 나와 버렸는데, 돈이 50억이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50억이 들어가는데 공공성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무슨 완도에 전복산업만 있습니까. 이런 부분 꼭 의회에 와서 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부의장님도 계십니까. 저희가 광어, 전복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광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면에 보면 앞에 탱크 하나, 어디 끼워 넣기 식으로 광어 탱크 하나 있고, 나머지는 급속냉동실이나 무슨 실

이나 전부 다 전복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해조류하고 전복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 박인철 위원

애당초 물류센터를 할 때 완도군 수산 전반적인 물류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보나 이것은 전복을 위한 물류센터지, 무슨 수산을 위한 수산물물류센터예요. 차라리 여기 명칭을 전복물류센터로 하든가.

애당초 전문위원실 주관호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런 식으로 안 왔다니까요, 물류센터가. 완도해조류물류센터로 왔지.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처음에 할 때 전부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물류센터에 입주하겠다고 의향을 보인 데가 전복 관련, 그쪽 단체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처음에 광어라든지 해조류단체에서도 입주하겠다고 해서 전부 반영해 줬는데, 아마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분들의 할 의향이 다소 미진해서 전복 위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자꾸 과장님,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전복…… 자꾸 말꼬리가 들어가는데 전복협회뿐만 아니고 그러면 해조류나 아니면 광어 어장하시는 분들, 아니면 광어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한번이라도…… 그러면 공론화나 공청회라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실과에서 그런 것 없잖아요. 딱 어떤 것을 한다고 목표를 정하고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목표를, 의회에 와가지고 7대 의회에서도 할 때는…… 그 목표대로 하고 목표가 변경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됐다고 한 번쯤은 의회에도 이야기해주고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그런 데에 반영이 되어야 되

는데. 전혀 그런 과정들이, 지금 수산경영과 뿐만 아니라 완도군 전체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발목잡기 한다고 그런 식으로 돌려 차버리고, 의회에 와서는 싹 되어가지고, A, B, C가 싹 엮어져가지고 나중에 와서 우리한테 해주라. 안 해주면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다되어 가지고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와서 의회에도 한 번씩 보고를 하고 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제가 한 가지 잘못 설명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 50억이 당초 해수부에서 내려올 때 해조류는 포함이 안 되고 활수산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복이라든지 아니면 광어 대상으로만……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수산물물류센터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수산물이 무슨 광어하고 전복만 있소,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치 선정을 왜 여기다가 했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다보니가 공간, 뭘 주차문제. 또 어떤 장래적인 시설의 효용성 문제를 검토해서 지금 현재 장소로……

□ 김재홍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 자리에 가신지, 자리에 가신지 물론 몇 개월 안 됐겠지만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일본에 가서 느낀 부분을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예를 들어서 50년이면 50년, 30년이면 30년 이렇게 미래를 보는데, 지금 완도항이 국제항에 비해서 좁죠. 굉장히 장소가 협소할 것입니다. 미래를 본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 관로를 뻗힌다면 어디로 뻗칠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관로는 앞에, 앞쪽 공유수면 바닥 쪽으로 해서 인수관로를 할 것입니다. 기존에 항만 터미널을 공사하면서……

□ 김재홍 위원

지금 봤을 때 이쪽에 도로를 절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니, 지금 관로…… 맨홀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쪽으로.

□ 김재홍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국제항이 늘어난다고 하면, 신지 쪽에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본다고 그러면 옆으로 (청취불능) 있죠, 그 사진에 보면, 거기까지는 나가야될 텐데, 그러면 나중에 또 제설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래를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소로 봤을 때는 너무 안쪽이지 않느냐. 홍보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앞쪽은 항만시설로 아마 되어 있어서 기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장소 선정을 한번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인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광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위원이지만 양식 협회장으로서 굉장히 듣기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평면도를 보니까 전부 다 전복수조만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뭘니까, 급속냉동실. 해양 바이오 그쪽에는 무슨 용도로 쓴다고 했나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저기하고 개념이 다른데요, 거기는 급속냉동 동결건조장치이고 여기는 냉동만 하는 것입니다.

□ 김재홍 위원

같은 얘기가 아닌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거기는 동결건조까지, 해양바이오……

□ 김재홍 위원

해양바이오는 해조류 때문에 급속냉동이나 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여기는 전복순살이라든지 급속냉동을 해서 이렇게 시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김재홍 위원

아, 전복 폐사가 나왔을 때 그때는 한다는 이 말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폐사가 아니라 3~4월에 홍수출하가 된다든지, 하계 되면 수산가공해서 보관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또 수산을 선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산, 뭐 가공품을 만들어서 어차피 수산물은 냉동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 김재홍 위원

완도군 전체 수산물에 다 똑같은 것이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전복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이 설계가 완성도가 아니라고 했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다시 바뀌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분양을…… 전복하는 분들이 입주하겠다는 내용을 파악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제가 아직 건물을…… 일단 완성하게 되면 그 부분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공모를 해서 위탁 업체라든가, 단체들을 선정해서 이 수산물류 센터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기본방향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제가 위탁 운영 단체 업체들 공고해서, 모집을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도 완성이 아니고, 설계도 완성이 안 됐는데……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상호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복 관련단체에서 이렇게 여기 수산물류 센터운영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그래요. 일단 거기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위탁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는 것이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 것 미리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보자면 한 10개 업체에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니요, 10개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1년에 한 2,000톤 가까이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물량에다가 수수료 성격으로 1,000원을 한다든지 5,000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 운영을…… 수수료로 전기세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충당하고, 여기 시설은 전복어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그렇게 심사단계에 통과만 하거든요. 이것은 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 최정욱 위원

생물이니까 수조가 따로 있어야지.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일본에 해조류를 수출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신청하게 되면 수출을…… 입고부터 출고까지 이용하는 것이죠.

□ 최정욱 위원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그런 개념이죠.

□ 최정욱 위원

업체가 분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업체가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여기를 이용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 최정욱 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의회하고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9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2389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재 선
허 공 희
우 성 자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추관호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06일(목) 11시57분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

1.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7분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398호 완
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
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의 발의의원인인 김양훈 위
원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박인철 위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박인철 위원

의안번호 제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자동차 대수만 갖추어도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대수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 군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완도군에 소재하고 완도군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번호 제2398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예, 전문위원 추관호입니다.

의안번호 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2016년 7월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군에서도 조례에서(청취불능)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내에서 영업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현재 강진, 장성, 함평, 해남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399호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00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99호 서류

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63쪽, 의안번호 2399호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도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 관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긴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칭을 현행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도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5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를 구성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1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결격사유 및 해촉, 위원회 제척 및 기피, 회피사항과 위원회 운영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 및 제21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경영, 시설비 지원,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 28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 구매, 지방세 감면, 민간위탁사업의 청렴 장려, 민간기업 등의 청렴 확충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65쪽부터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99호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이원화되어있는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각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 받은 시설물 또는 기계장비 등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안 제21조 제3항을 신설해서 “시설물 등을 지원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 가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매매 등의 행위를 임의로 못하게 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등기에 부기권을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건물은 10년이고 기계장비 등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그것이 개인 것이 된다, 이 말입니까?

□ 전문위원 추관호

일반적으로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하고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관리 지침을 보면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면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처음에 줄 때 다 법인으로 받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받는데, 그 법인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얼마나 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하시냐고요. 그것을 묻고 싶다는 이 말이에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사회적기업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계속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사회적기업이 있는 한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사무장의 임금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에. 그러면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사무장?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5년입니다.

□ 우성자 위원

5년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이 처음에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개인 장사로 돌아가는데도 사무장한테 해주고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개인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공동…… 공익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회적,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으로 하고, 서류로는 공동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사무장 임금까지 가고 그래서. 그런 것에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렇게 돈이 많은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완도군에 정말 돈이 많더라구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우리 군비로 지원 하는 것이…… 일부 부담이 있는데요. 국비 지원, 도비 지원이 들어갑니다.

□ 우성자 위원

국비든 도비든 간에 정말로 일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다가 회장 몇 년 해가지고 받고, 뭐 또 받고 해가지고 전부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습

니다.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조치 방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뻔히 눈에 보이는, 개인 돈으로 벌고 있는데 법인만 구성됐다고 놔두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어서…… 잘 좀 관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국장님, 우성자 위원님 그 내용은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특혜성이 많다는 얘데요요.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으로 말하면 그것이거든요. 특혜성이 있어서 받지 않느냐. 그리고 사후관리가 그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안 된다는 얘데요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허가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사해서 인증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국장님 소관에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앞으로도…… 저도 꾸준히 거기에 대해서 체크할 것입니다, 물론 관리도 하고.

우리들이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눈에 다 보여요,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옆에서는 다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데요요, 지금 말씀하는 것이.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진짜 받아서 할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해야 맞죠. 부자인데 퍼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취

지로 말하는 뜻입니다. 잘 좀 참고해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설립은 법인 형태인데, 설립은 법인형태로 설립되어 가지고 실제 운영은 개인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러한 경우가 완도군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설립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출자한 법인이 전부터 참여해서 하는 사업 같은 별문제가 없지만 특정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00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81쪽, 의안번호 2400호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이용확대와 위생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 후단에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조례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83쪽부터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2400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위임조례로써 상위법 개정으로 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9호 완도군 사회적기

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99호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0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00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01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01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미래사업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제2401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제정법 제32조의 8, 제7항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영구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 완화와 상위법령 위배 소지 해소를 위하여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체도권 주민”을 제2조와 중복되어 “주민”으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3호 중 “영구”를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를 2018년 10월 24일부터 20일간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1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미래해양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341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운임 지원 제한을 “영구”에서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단장님, 보면 체도권 이것을 주민으로 하는 것은 좋고요.

영구에서 5년으로 왜 해야 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지방재정법에서, 이 관련규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 박재선 위원

5년……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5년 후에는 다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영구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서 5년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박재선 위원

섬에 사는 체도권 사람들을 주민으로 하고, 그 섬에 사는 것도…… 도서지역에 사는 것도 좀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 해놓고 나서 그 이하의 금액을 다 조정한다는 얘기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 5년까지 제재를 하고요. 5년 후에는 제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선 위원

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1호 완도군 체도권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401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김 재 홍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박 인 철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경제산업국장 허정수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1일(화) 13시59분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 제안설명 및 심사
2. 2019년도 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

□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
2. 2019년도 예산안

- 세무회계과

o 기획예산담당관

(13시59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는 우리 군의 양대 산업인 수산업과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해가고 주민소득이 증대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

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앞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본 예산 심사는 우리 군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6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9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정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19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6억 7,487만 원, 예치금 회수 92억 3,653만 8,000원, 이자수입 1억 9,364만 2,000원, 기타수입이 810만 원으로 총 111억 1,31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예치금이 109억 6,315만 원으로 총 111억 1,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

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2억 3,653만 8,000원입니다. `19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18억 7,661만 2,000원, 지출이 1억 5,000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17억 2,661만 2,000원 증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9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총 조성규모는 109억 6,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 설명을 마치고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은 기금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관광정책과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관광정책과장 정인호입니다.

1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제1항 및 완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함이고, 설치는 2001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지출은 없이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과징금 수입 등을 합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이 8,400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 조성계획은 921만 5,000원이 증액된 9,321만 9,000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징수과징금하고 예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완도군 관내에 식품위생업 일반음식점은 742개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8,400만 4,000원과 이자수입 111만 5,000원, 기타수입 810만 원을 합하여 총 수입액이 9,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또한 9,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400만 4,000원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과징금 수입 810만 원. 그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는데요. 111만 5,000원을 합해서 총 수입은…… 수입증가액이 921만 5,000원, 그래서 총 수입합계는 9,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다시 예치하는 금액으로 해서 9,3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관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김양훈 위원

거기 기타수입이 810만 원인데요. 그 기타수입, 어떤 기타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식품진흥기금은 기타수입이…… 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과징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보면 연도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올해는 과징금 수입이 33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810만 원으로 예상한 이유는, 올해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다보면 광주, 전남 이 업체가 교류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교류…… 방문하면서 점검을 하다 보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81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005년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를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2018년도 12월 현재 조성액은 83억 5,354만 8,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로 매립장,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9년 조성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 15억 원과 2018년도 정기예탁금 83억 5,354만 9,000원, 예금이자 1억 8,271만 7,000원을 합한 총 100억 4,07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환경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 3,021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30만 원, 올해 지출계획이 5,000만 원. 그래서 2019년 말 조성계획은 약 1억 51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군비전입금 2,000만 원과 함께 2018년 예치금을 1억 3,021만 8,000원을 수입액으로 잡고 이자수입은 30만 원, 총해서 1억 5,051만 8,000원의 수입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비용자성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머지 잔액 1억 50만 8,000원은 다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 3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예치금 1억 3,021만 8,000원, 우리 군비 기타회계 전입금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5,051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에 각 읍면 현수막게시대 설치로 인해서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제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치금으로 1억 51만 8,000원은 다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현재 예치금은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의 사후목표는 재난의 사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의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도 말 6억 6,876만 7,000원에서 5,988만 원이 증액된 7억 2,864만 7,000원입니다. 두 번째 (청취불능) 자치단체 전입금 정기예치를 통한 공공이자수입이며, 세 번째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대상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재난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금액은 전년도 수입액 5억 3,849만 1,000원에서 2억 9,015만 6,000원이 증가된 8억 2,864만 7,000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전입금이 전년도 1억 3,783만 4,000원에서 1,703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5,487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매년 보통세의 100분의 1 금액으로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3억 9,564만 7,000원에서 2억 7,312만 원이 증가한 6억 6,876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은 501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마는 이율에 따라 매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5억 3,849만 1,000원에서 2억 9,015만 6,000원이 증가된 8억 2,864만 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비용자성사업비는 1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예치금은 전년도 4억 3,849만 1,000원에서 2억 9,015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2,864만 7,000원입니다. 이는 지출계획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지출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비해 세운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과 46쪽은 수입계획 및 지출내역 세부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입금 13억 5,026만 7,000원, 보조금 8억 5,400만 원, 이자수입 2억 8,124만 4,000원, 기타수입 9,041만 9,000원으로 총 25억 7,593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집행액은 2013년도부터 '19년까지 비용자성사업비 17억 4,731만 3,000원이고 잔액은 8억 2,8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8년도 말 예치금은 2018년도 말 6억 6,876만 7,000원에서 1억 5,487만 원이 증가한 8억 2,36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9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2019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과 장보고장학기금 출연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우리 군은 2001년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가입하여 다양한 지역자원 및 정보 홍보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완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 출연금은 5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및 자료 제공, 각종 매체를 통한 지역 문화, 관광, 특산물 홍보,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인적역량강화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다음은 63페이지,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입니다.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예산으로 장학기금 적립과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내년도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총 23억 8,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장학기금 적립 5억 원, 명문대 진학 학생 등록금 지원 외 19개 장학사업에 16억 6,700만 원, 지역교육사업 2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역교육사업은 초·중 학력 향상지원 6,000만 원, 초·중등 영어교육 지원 1,400만 원, 학생 및 교사 독서 토론 캠프 지원 1,600만 원, 관현악부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8,000만 원, 예술체험동아리 지원 2,000만 원, (청취불능) 연구회 운영비 지원 1,500만 원, 영재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도 결산보통세, 저희들은 163억 5,000만 원입니다. 100분의 1.5를,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및 주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출연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연사업 개요 및 산출 근거는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재정……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주요 추진실적은 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관광정책과장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사업의 설립근거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하는 목적은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으로 (청취불능)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의 관광사업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총괄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1억 5,000만 원씩 출

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방법은 현금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총 사업비 600억 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라남도에서 27억 원, 22개 시군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내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기금 출연한 이 관광진흥기금 사업은 관광, 숙박업, 펜션업, 신축이나 증축, 개보수의 용자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수시설 운영업체 지원과 일반 숙박 시설 중 관광호텔로 개보수를 희망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우리 군에 용자로 결정된 금액은 약 5개 업체,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관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이고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10년간입니다. 지금까지 6억 1,9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도 출연금

은 7억 9,500만 원이며 10회 중 9회차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됩니다.

79쪽입니다. 출연사업계획서인데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해당 출연금은 창업 중소기업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공장 증·개축 건립자금 등 각종 건립사업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등의 지원사업에 운영됩니다.

참고로 81쪽, 2018년도에는 우리 군 소재에 14개 업체가 총 29억 9,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어서 83쪽,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잠깐만요, 과장님. 한 건, 한 건씩 합시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경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어서 83쪽,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인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별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9년도 출연금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85쪽, 출연사업에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자금과 관내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지원사업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87쪽입니다. 2018년도 관내 48개 업체에 총 13억 6,1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경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며, 사업대상은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입니다. 출연목적은 해조류, 전복 등 해양생물 자원을 활용한 기술 및 제품 연구개발,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수산물 가공기반이 취약한 군 영세가공기업에 대한 창업, 제품 개발, 신제품 생산,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3억 7,500만 원 현금 출연이며 전년대비 4,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우리 군 출연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양치유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6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계속해서 의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계속비사업은 설명을 듣고 인건비 여비 및 기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보조 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군비 사업만 설명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니까?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의 중점사항별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방향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운영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선7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한 균형현황 사항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세입증감 추이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금년도 교부결정액과 교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9년도 총 세입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3,704억 원 대비 21.7% 증가한 4,5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교부결정액과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도 산정액을 추계한 금액의 90%를…… 국도비보조금은 교부내시액을 별도로 반영하고 연례 반복사업의 경우에는 교부내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45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115억 9,300만 원으로 521억 2,200만 원이, 특별회계는 393억 6,200만 원으로 284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530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88억 8,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부담금은 66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1,992억 1,500만 원, 특별회계 120억 5,000만 원으로 총 2,112억 6,500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각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총 2,194억 8,2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91%인 1,992억 1,5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법정의무경비로써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및 공무원의 경우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기준으로 2019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를 반영, 5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는 `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적용하여 총 46억 3,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장보고장학회 등 7개 기관에 15억 400만 원을,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은 30억 7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7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생활폐기물 등 3개 기금에 16억 7,500만 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14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의 경우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에 균특회계로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156억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6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예산 및 자체사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산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여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등은 자체기준 정비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최소화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6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경산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213억 7,700만 원, 여비 37억 9,300만 원, 일반보상금 72억 1,500만 원, 지방보조금 68억 6,700만 원 등 총 406억 9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 사업의 적정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비교를 통해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및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부지확보, 토지매입 사전동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412억 6,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4억 500만 원, 자산취득비 16억 7,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2억 2,700만 원, 민간위탁금 14억 3,4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15억 5,500만 원 등 총 6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요. 보시면 지방세정 우수업면

시상금 내용이 있죠. 이것이 계속 가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약간 변동이 있는데 주로 올해 체납하고 이렇게 지방세를 걷어가지고 하는 비율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하고요. 그 비율로 평가를 합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 것이 좀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이런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관리를 잘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요, 보시면 위탁사업비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 자금이 지출됐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기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합니다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세외수입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그 유지……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상세히 알고, 이렇게 자금이 지출되는 부분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전산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 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받으면 입금되는 것, 또 이렇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세입도 물어봐도 되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 우성자 위원

111페이지, 자동차세가 감면됐는데,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수입은 감면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유가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산출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도 엄청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변동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 유가 판매한 금액을 산출해서 정부에서 울산이라든가 정유소에서 해가지고 한 그 금액을 내려 보내준단지요.

또 이제 증감에 보면 변동이 있습니다, 약간. 정기추경에 추가로 내려오면 변동해서……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도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세금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유가를 소비하는 금액하고 해가지고

조정해서 나오는……

□ 우성자 위원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줄어들어서 궁금해서……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하고 유가 사용하는 것하고 병합해서 여러 가지…… 그 산정방침이 있습니다. 조정이 또 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변동이 있습니다. 정기추경에 최종적으로……

(□ 징수팀장 이영수 집행부 좌석에서 - 자동차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징수계장입니다. 전국에 있는 자동차세 유류분 주행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름 판매량을 전체로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 대수를 딱 안분해 가지고…… 유류분에서 나오는 그 세금이 있습니다, 주행세라고. 그 금액이…… 이번에 주행세, 그 뭐라고 합니까. 세금할 때 국세에서 낮추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 주유세가 조금 적어집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쉽게 말하면 주행세로 전부 다 유가 소비…… 전국에 있는 유가가 소비된, 총 얼마가 소비됐다. 그런 것을 한국에 있는 자동차, 그 보유한 숫자하고 해가지고 나눠서 비율로 나눠주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완도차…… 어디로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숫자로 해서 그 비율로 하다보니까 약간 줄어들었다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어나도 다른 데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 징수팀장 이영수 집행부 좌석에서 - 우리가 부과하는, 순수 자동차로 하는 세금은 늘어났는데요. 전국적으로 10억을 가지고 차량비율로 해서 안분해서 나눠주는데, 국가의 그 세금이 줄어들면 우리 유류분에 따른

주행세가 좀 낮춰집니다. 그 금액이 내년에는 많이 낮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것은 유가 소비가 좀 줄었다, 전체적으로 많이. 배를 타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가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우리가 차량이 늘어나도 우리 소비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런 계산법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질문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천천히 하십시오.

□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46쪽이요. 공공요금 전기상수도 통신요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김양훈 위원님. 그 책을 보면 안돼요. 이 책을 봐야지.

□ **김양훈 위원**

예, 146쪽. 아니, 346쪽.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그러니까요.

□ **김양훈 위원**

그 공공요금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지금 월 예산이 36억 3,600만 원이죠. 작년에

비해서 13억 1,800만 원이 더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작년도 본예산에 100%로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조금…… 100이었다고 그러면 작년에 한 50 정도나 세워져 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 비율로는 안 되고요. 전체 금액에서 1년, 연에 쓰는 것에 대해서……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50% 반영을 했으면 올해 100%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기본경비가 원래 본예산에 100% 반영되어야 되는데 조정을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에 필요성이 있어서 쓰고, 기본경비를 좀…… 편성이 100% 안 세워진 사항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아니요, 예산의 효율성 운영 관계로 할 때 운영방법에서…… 그런 기본경비를 다음 추경에 세워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영되었던 것을……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서 안하고 100% 여기서……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기본……

□ **김양훈 위원**

이런 부분은 봐가지고 추경에서 잡아도 별 문제……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아니, 이전 회기 때 기본경비는 서울윤 의원님이 얘기했었는데 100%로 세워야지. 왜냐하면 기본경비를 100%로 세우지 않고 50%로 세우고 해가지고 추경에 요구하고 정기추경에 또 요구하고 그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반영된 것을…… 그때 의원님하고 협의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요. 본청 앞 광장 조성 설계 용역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슨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군청 앞 광장에, 민원실 앞에 50대, 군청 앞에 50대 이렇게 현재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개설되면 주차장에 102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주차장……

그리고 지금 택시라든가 약산당목에서 와가지고 완도군청에서 회차하는 이런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있고 그래서, 군청 앞에 와가지고 사람을 내려주고 회차해야 되는데, 택시도 와서 내려주려다가 사고 위험성도 있고, 군청 앞에서 회차하는 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본안을 군청 앞 광장에…… 군청 앞 쪽만, 민원실 쪽은 주차를 그대로 하고요. 이 앞쪽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시설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김양훈 위원

국비 때문에 용역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기본안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따와서 국비 1억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주차문제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서 국비, 그것 가지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지금 주차 저쪽에 100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 전체적으로 수용은 안 되지만 하게 되면 앞에……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 이런 공공기관에 가면 정문 앞에 이렇게 전부 다 전면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서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용역을 거쳐서 기본안을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안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안이 좋겠는가.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조성…… 그 앞에다가 만약에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공원을 만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런 안을, 좋은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해서, 용역을 해서.

□ 김양훈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꼭 다시 한 번……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설명을…… 기본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348쪽에요. 행정선, 일반운영비에…… 행정선 전남 557호 연료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료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뽑아낸 것입니까. 1년에 배들을 몇 번 띄우고 몇 번 운항하는지 그 내역은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1년에 기본적으로 운항하는 횟수로 해서 필요량을 산출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우선 이 금액을 산

출하고요. 또 어떤 재난이 있고 여러 가지
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많이 소요될 때
는 추경에 또 추가확보를……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시간당 연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그런 산출기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기초산출을 가지고 기본안을 산출하는 것이
니까, 운행횟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
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연
료 소요량이?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시간당,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 김양훈 위원

금방 그런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식으로 하
기에……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그 기준을 산출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이 운행 횟수로 해가지고 한번 하는데 얼마
이렇게……

□ 김양훈 위원

대충 운행횟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1년에 대부분…… 한 80회 정도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죠, 남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부족한 해도 있고 남은 해도 있고,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많이 운행을 하는 해가 있
고 적은 해가 있기 때문에.

□ 김양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남았을 때는 정기추경에 정리하기 때문
에……

□ 김양훈 위원

339쪽, 금방 행정선 557호 법정 검사비.
이게 또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법정 검사수
리비가 있더라고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매년 검사를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목포에 가가지고 검사를…… 요즘에
(청취불능) 안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올려
가지고, 그전에는……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선이 1대라는 얘기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1호선, 해양수산과에서 올라온……

□ 김양훈 위원

이게 올해는 4,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작
년에는 3,500만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검사 수리비가…… 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게 지금 1년 검사라는 얘기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1년에 1번씩 검사…… 목포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법정검사.

□ 김양훈 위원

이 배가 몇 년 되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정확한 연수는 제가……

□ 김양훈 위원

계속 노후 유지보수비라든가 긴급보수비라든가, 매년 이렇게 나가고, 이전에 다른 데에 보니까 엔진 교체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정기한이 넘으면 배를 교체를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여러 가지 경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비로,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은 국비나, 여기에서 못 따오는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면 현재 지원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 김양훈 위원

배 쪽으로 운행은 얼마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것 같은데,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특정업무경비……

□ 전문위원 추관호

359쪽입니다.

□ 김양훈 위원

359쪽, 특정업무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특정업무경비를 세무, 감사, 예산담당, 그쪽만 주는 거예요? 세무담당, 감사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예산담당, 행정담당 이렇게만 나가는데.

(□ 경리팀장 한지영 집행부 좌석에서 - 예, 특정업무경비는 법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만 주게끔 해서……)

아니, 보면 다른 과는 어디 특정하게 안 나가니까……

어디 가서 일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 복지과나 문화체육과나 전체적으로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예산을 따러갔을 때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계속 본인 사비로 들어서 가는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아니요, 그게 아니고, 특정업무경비는 법적으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정해져 있는데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우리가 일부러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다른 데에 주고……

□ 김양훈 위원

제가 부서별로 한번 뽑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기획담당예산, 이쪽에도 3,500……

□ 전문위원 추관호

그것은 아닙니다.

□ 김양훈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여기 서류를 잘못 봐가지고.

기준액이 뭐 대민활동비라든가 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특정활동비가 있는데 이쪽에만 무조건 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 경리팀장 한지영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이것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조정할 생각은?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이제 그것은 법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 완도군만 어떻게 조정하라고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김양훈 위원

이것 심의위원회가 있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아니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인석 주무관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설명을…… 특정업무경비는 필수항목이 있고요, 선택항목이 있는데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게끔, 자율적으로 하게끔 개정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선택항목에서 감사, 세무, 예산, 그다음에 여론동향, 그다음 공무원단체담당으로 해서 기존에 주고 있었던 항목에서 추가로 더 소요를 파악할까 해가지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추가로 더…… 작년에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주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고, 어느 특정담당공무원들한테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한번 더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별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는 했는데 기존하고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해서 하지는 않고, 이 부분은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 김양훈 위원

아니,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요, 선택항목에 보면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밑에 보면 있어요, 항목이.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군에 맞게, 재정에 맞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 이인석 주무관 집행부 좌석에서 - 추후에 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추후에 그것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고 꼭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6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몇 페이지입니까?

□ 우성자 위원

163페이지.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163페이지요?

□ 전문위원 추관호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항만 설명을 해주면……

□ 우성자 위원

예, 돈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전년도에 남아서, 정기추경을 하고 나면 남아가지고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하면 조정이 됩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어느…… 예치금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어도 되나요, 괜찮은가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매년 이 정도는 넘어옵니다. 1회 추경에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돈을……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비비하고 포함되어서 다 넘어오기 때문
에, 그 잔여금이 총 이렇게 해서 넘어옵니
다, 결산하면.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세출에 가서, 다시 한 번 179페이
지,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이라는 것이 있잖아
요.

□ **전문위원 추관호**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쪽……

□ **우성자 위원**

아, 여기가 아니에요.

(웃음)

이것 헛갈렸네. 미안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세무회계과만 해주십시오.

□ **우성자 위원**

예, 맞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됐습니까?

□ **우성자 위원**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 **김양훈 위원**
과장님, 346쪽예요. 보길면사무소 신축공

사 설계용역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
니다. 347쪽을 보면 방송실 교체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설계용역에
들어가면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 방송까지
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1년 반 정도는……

□ **김양훈 위원**

1년 반 하려고 램프를 다시 교체를……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램프는 그대로 씁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있는 램프도 괜찮던데.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램프시설은 보수로 새로 시설해서,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왜 그러냐면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선을 깔고
전부 다 시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선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우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1
년 더 사용할 수 있는가 봐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음에 1년…… 신규건물에
다가 시설하는 방향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346…… 아까 군청 앞 광장이요. 김양훈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그 조성 설계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왜 해야 되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군청 앞에 지금 현재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버스라든가 일반택시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사람이 내리고 하는, 이렇게 돌리고 회차하는데 위험성이 많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옆에 새로 102면 주차장 시설이 되기 때문에. 민원실 앞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군청 정면에 보이는 이쪽 공간만…… 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보기 좋게 개선하는 방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번…… 어떤 안이 좋겠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최정욱 위원

제가 보서는 크게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던데, 안 그런가요.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이 해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위에서 내려오는 민간인들, 주민들이 보도블록이라든가 사람을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회차하는 공간이라든가, 또 군청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이라든지 교통편이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시물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 최정욱 위원

그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안 되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간단하게 이렇게 안이 정해져 버렸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 도면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설계해 버리면 되는데……

□ 최정욱 위원

매입비가 5,000인데 용역비가 2,000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것은 웬만하면……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아니, 전체 매입비가 아니고 그 안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군청 앞에 두 필지가 있는데, 면적이 385평방미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국비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매입을 해야……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임대료만 받고 구두로 매각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정책에서 올해부터 매각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전체가 군 땅인데요, 가운데가…… 그 땅만 그렇습니다, 385제곱미터.

□ 최정욱 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이죠?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아니, 아니. 전체…… 이 면적만 산 것이고요. 일부분이 국비재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로 산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하도, 조금만 해도 용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용역 때문에 너무 많이 있으니깐 한번 해본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들이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간단한 것이 아니고 여러 조합이 합쳐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 됐습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본청 앞 광장 조성 설계용역으로 2,000만 원했는데, 제가 질의답변 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104면 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기존에 주차장이 남아가지고 104면을 짓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 가지고 짓는데, 그 앞을 설계용역해 주면 환경산림과에서 도시 뭐 1억 해가지고 거기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104면 주차면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주차장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아니, 남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왜 그 앞에 광장을 이렇게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전에 어떤 안이 나왔냐면 지금 민원실동이 높으니까, 지면에서…… 높으니까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자고 그런 말이 이전 7대 의회에서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앞에 광장을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출퇴근할 때 한번 잘 봐보십시오. 민원인들, 없여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쪽 내려오면…… 전부 도로가 주차장이 아닙니까. 주차장, 그런 대란 시기에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전 질문답변 시에도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 이렇게 했는데, 설계용역을 해냈는데, 만약 설계용역비가 통과되면 이 건축비는 순군비입

니까, 아니면 뭐 국비나 도비를 받아온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이것은 기존설계 승인해서 설계는 됐고요, 실시시설비입니다, 이것 시설 6억 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언제 우리가 보길도 청사 설계용역비를 줬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실시설계비 맞습니다. 기존에 설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저번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에 재난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안전진단 받았어요. 받았는데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집행부 좌석을 보며)

우리 계장님이 잘알면 설명해 보십시오.

(“진단을 받아가지고 보길하고요, 고급하고 노화 세 군데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보길도로……” 하는 주무관 있음)

몇 등급 나왔습니까?

(“D등급 나왔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고급도도 D등급 나왔죠?

(“고급도도 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노화는, 노화도……

(“노화는 그다음 단계로 나왔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C등급으로 나왔습니까.

이것 기능보강으로는 안되고 다시 재건축해야 됩니까?

(“ 예.” 하는 주무관 있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순군비입니까, 아니면……

(“ 군비로 다 넣어야 됩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군비로 다 넣어야 됩니까. 얼마나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 보길면에서 지금 대충 올라왔는데 한 3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기존에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하는데 요?

(“ 예.” 하는 주무관 있음)

뭐 기능보강도 안 되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그러면 보길은 그렇다고치고.

그러면 고금은요. 고금은 진즉부터……

(“ 다음에…… 내년부터 고금을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고금도는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자리입니까?

(“ 그것은 상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할지 다른 데에다가 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이것은 순군비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일읍사무소 홍보 전광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공사입니까. 이렇게 설치하다보면 각 읍면 전체 다 하다보면, 예산 뭐 그냥 갖다주는 것인데 이것…… 어떤 것을 금일읍사무소에다가, 우리 본청처럼 한다는 이 말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다른 데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읍면도. 이렇게 나가다보면.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전광판 이것을. 뭐 방수나 그런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전광판…… 본청 전광판도 그때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12개 읍면에 다 해줘야 되는데. 절실한 것 아니죠, 이것

은? 전광판이요, 과장님?

아니, 금일 하나만 뭐하면 몰라도 하다보면 12개 읍면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뭐 큰돈은 아니지만 하다보면 돈도 이것 이……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잘 알았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7쪽예요,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2,000만 원.

□ 허궁희 위원

예, 그 `18년도 용역결과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기관운영 연구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합니다마는 미처 발생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19년 예산도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성격으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18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는 5건에 6,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동과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도 역시 그러한 사항들이 매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비비성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확실히 서있겠네요. 아니, 내년에도?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실과소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이 종합예산에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저기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이 줄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일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안 늘어나고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일단은 저희들이 일부 업무추진비를 통합 관리했었는데요. 각 부서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주요 원인은 예비비가 많이 그렇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비비로 많이 가가지고요? (예)

아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에서요. 그 워크숍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성과나 뭐 추진실적 같은 것을 해가지고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정책개발 워크숍은 매년 초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직원들 중에서 그룹별로 한 3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조용한 데에 가서 집중적으로 내년에,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다음 연도에 추진해야 될 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2월에 경남 통영에서 워크숍을 개최했구요. 직원 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

크숍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사업계획은 2,000만 원이 되겠고요. 시책발굴은 10건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7건을 예산 확보해서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만 예를 든다면 관내 의료기관 의료비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경감, 그런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초에 우리 직원들을 계급별로 성과로 해서 정책개발워크숍을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 예산이 배로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 예산은 정책개발워크숍이…… 2,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대로예요, 그래요.

그러면 꼭 말하자면 밖에 가서 그분들만 따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우리 군 직원……

□ 우성자 위원

군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가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공부한다는 이 말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시책개발에 몰두를 하죠.

□ 우성자 위원

그러면 7건을, 그러면 시책을 냈는데 그것에서 7건으로 내년에…… 올해 추진하실 의향이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요.

□ 우성자 위원

구체적으로 그 7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혁신분야로써 전력이 있는 워라밸이라든지 직원내부청렴평가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복지분야에서 자꾸 보고, 듣고, 돕고 맞춤형복지서비스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중에서 7건은 추진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렴도를 하셨다는데 청렴도는 갈수록 낮아져가지고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예,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보니까 광고가 너무 많아요, 전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고는 어떤 시책이라든지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야 지역 인지도도 높아지고 지역특산물도 판매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선 위원

이 전체적인 면을 봐서는 따로 관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물론 군정홍보가…… 주된 업무가 우리 과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소에서도, 다른 해당 실과에 관련된 업무를…… 부서별로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호협력에 의해서 홍보를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선 위원

그리고 여기 올해 보니까 해양치유산업 홍보는 또 새로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준비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홍보해 나갈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해양치유산업 홍보비로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해양치유산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해서 힐링과 치유를 추진하는 것으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렇게 선진국에서 매우 활성화된 사업이고 미래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는 이러한 분야가 좀 생소해서 전대한민국 국민들과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양치유산업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하고 진행이 되는지, 또 해양치유산업 유치로 지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또 왜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인지, 그런 것에 대해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하려

고 3,3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박재선 위원

보면요, 우리가 해양헬스케어를 해가지고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그쪽으로 해서 홍보영상을 3분에서 5분 사이로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똑같은 영상에 똑같은 그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빨리 우리 현실에 맞게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최대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양한 매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담당관님, 일 치루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농·수·축산 지역특산물 방송광고, 이 분야에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8년도에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들이 김, 미역, 다시마라든지 그다음에 전복 패류, 그다음에 어류, 해조류, 이런 우리 지역 특산품을 각 매체로 홍보하기 위해서 KTX 역사라든지 광주 송정역이라든지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형 광고판을 부착해서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군 이송을 여러 중앙지, 조선일보라든지 뭐 중앙일보라든지, 그런 데에 신문 광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매체

를 통해서 특산품 홍보를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런데 단면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더라도 제가 봐서는 광고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전복뿐만 아니라 광어, 해조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아주 단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럴수록 홍보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효과는 나지 않겠지만 우리 지역특산품에 대한 인식이 군민들한테 많이 심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팔리지 않지만 그래도 더 이렇게 관리시키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홍 위원

이렇게 되니까 광고, 이 부분을 지적하려다가 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도 이와 같이…… 같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그런 부분을 해서, 확실한 부분을 할 수……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지역특산품 홍보 관계는 저희들 방송, 그다음에 오프라인, 신문이라든지, 주로 중앙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치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꼭 KTX라든가 이런 부착물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광고도 있더라고요, 보면, 네온으로 해서 이렇게 썬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많은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김양훈 위원

광고홍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보고축제 광고, 또 가을빛여행축제, 해맞이 축제, 슬로걷기축제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부 다 5,500만 원이죠, 광고비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3,300도 있고……

□ 김양훈 위원

아니, 축제 광고만요, 축제 광고만 했는데 이게 지금 장보고축제하고 청산슬로걷기축제하고 기간이 어떻게 틀리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장보고축제하고 같은 기간에…… 같은 기간에 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합쳐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야지. 광고비 5,500만 원을 들어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 해넘이나 가을빛여행축제도 보면 한두달 차이입니다. 따로 광고할 필요가 없이 같이 합쳐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검토가 아니고 예산을 줄이라고요. 이것은 검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억 2,000인데, 특정광고비로만.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182쪽예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5,900만 원이 2018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일정 공식에 따라서 산정해서 시군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부서별로 보니까 차이가 많던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교류협력 그리고 자매결연이라든지, 대외활동이 많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국고 확보 활동, 그 다음에 대외적인 홍보활동, 이런 부분 때문에 타부서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약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이번에 해양치유산업, 뭐 헬스케어를 한다고 계속 올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가 얼마 안돼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선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1억 1,000만 원을 각 부서 별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배정해서요, 실과에서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직원 분들이 출장을 갔을 때…… 예를 들려고 합니다. 제가 같이 그 도에 있는 분들, 아니면 정부에 있는 분들하고 밥을 먹는데 내 돈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데에 쓰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로 배정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요. 금년 저희들이 말에 점검을……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점검해 보니까 아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홍보해서 그런 부분 쪽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도나 거기나 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갖고 온 부서들, 또 출장을 많이 가서 고생하시는 그런 부서들은 업무추진비를 더 증액시켜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분들도 군을 위해서 열심히 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내 돈이 없는데 내 돈을 가지고 가서 일을 보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185쪽, 연구용역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완도군 신규현안사업 공모용역, 그 6,000만 원 올라와있습니다. 작년에 6,000만 원, 올해 6,000만 원인데 작년에 했던…… 아니면 성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현안사업 공모용역입니다. 정책기획팀에서 그 공모를 담당하는데요. `18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어촌뉴딜 300 공모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동지구 활성화사업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용성과는, 지역개발과 어촌뉴딜 300은 공모신청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동지구 활성화사업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업축산과 식량산업종합개발 수립 연구용역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용역을 할 때 꼭 성과가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올해도 3건이 올라와있는데, 올해 그러면 3건이 어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앞서 말씀드린 용역사업과 마찬가지로 실과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공모사업 용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게 지금 예비비성격이죠,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본예산에서 빼고 추경에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무래도 본예산에 확보해 놓는 것이…… 추경할 때까지 그 안에 또 무슨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 김양훈 위원

나중에 만에 하나 없어진다면 이것 불용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불용은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과소에서 간혹 공모사업 연구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어려운…… 애로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상품출연 한번…… 기타 자본이 전 특허출연등록비, 이게 작년에 비해 조금 감이 됐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180만 원이 감 됐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작년에 1,500에서 1,200만 원 정도 안 세웠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게 그 상표를 처음에 개발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0년…… 아니, 5년. 아니,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재등록비를 또 납입해야 됩니다, 특허청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올해 1,320만 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각 실과소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상표라든지 브랜드를 개발할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이런 예비비성격으로 해놨을 때 연말에 가면 꼭 불용으로 떨어지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 김양훈 위원

그래도 보면 작년에 1,500에서 1,200을 다 미집행했는데 올해도 1,3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서. 정확한, 구체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정확한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금 저희들이 상표를 등록한 현황이…… 상표가 139건입니다. 상표가 135건, 업무표장이 4건 그래서 139건인데요. 이 건건이 다 만료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186쪽에 보면 공약이행 중 배심원…… 운영이라고, 이게 군수님의 공약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몇 페이지입니까?

□ 최정욱 위원

186페이지. 18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공약이행 배심원단……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의 공약, 그것을 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전에도 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올해도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했는데, 이번에 1,500 증액을 했죠. 그런가요?

(“ 그전에도 했는데요. 2016년도에 하고 작년에는……” 하는 주무관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2016년에 시행을 하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더 했다는 얘기죠, 1,500 증액을…… 아닌가요?

(“ 올해는 안 해가지고 0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하는 주무관 있음)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요?

(“ 지금 군수님 공약 관련해서는 공약사항인 매니페스트운동본부에서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군민 중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주민배심원을 편성하고요. 그 배심원이 공약 중에, 지금 공약…… 민선7기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좀 조정을 하고요. 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중에서 배심원을 뽑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전년에 민선6기 때 한번 했고 지금 7기라서 한 번 더 하려고 한다는 얘기 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때 어땠어요, 6기 때 했을 때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줄 수 있어요, 배심원을 했을 때 효과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매니페스토 그 실천으로 해서 우리 군이 공약사항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배심원의 어떤 결과도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배심원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배심원들 평가한 사항들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어디에다가 맡긴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요, 완도읍 대표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 어떤 뜻이에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우리 군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실용신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특허라든지 실용신안권이 9건, 디자인은 4건해서 총 13건을 우리 군 대표 브랜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장에 포장지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군 대표브랜드라고 그러면 하나를 놓고 대표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금방 조금 전에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종류별로 다르니까. 방울토마토라든지, 그

런 분야를 한번……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분야별 대표브랜드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나요, 제대로 될 본 사례가 있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무래도 ‘건강의 섬 완도’ 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이 대표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청정바다수도 완도’ 라든지.

□ 최정욱 위원

이것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금방 그것은 군에 대한 어떤 브랜드고…… 이것이 말하는 것은 농산품목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완도자연그대로’ 라든지 그다음에 ‘완도전복산업특구’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 지금 매년 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지적소유권이 라든지 재산권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으면 그때 추진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 예산을 넣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도 예비비적성격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당장 급한 것은 아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예산관리부서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최정욱 위원

기왕 우리 브랜드 하나 만들어놔요면 정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런 쪽으로 잘 활용……

□ 최정욱 위원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만든 것 하나로 제대로 효율성이 있게 써야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것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 됐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허궁희 위원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옴부즈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각 읍면이라든지…… 각 읍면별로 옴부즈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정 부패라든지 공사 부실감독, 부실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 여론청취와 수렴, 감찰부서로 통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참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이 분들이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완도 공직자분들 청렴도 조사를 했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금년에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어떻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이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옴부즈맨이 활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옴부즈맨을 적극 활용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엇그저께도 제가 알기로는 1박 2일로 이렇게 봄, 가을로 갑니까. 아니면 1년에 1번 갑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년에 1번……

□ 허궁희 위원

단합대회 겸 선진지견학인지 어떤 것인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보면 그렇게 상세하게 예산집행내역은 안 나오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워크숍을 여수로 다녀왔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슬쩍 그런 얘기를 듣고 이분들의 역할이, 이분들이 역할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역할을 이렇게 하계끔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예산하고 연결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 됐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6,000 잡혔죠. 그 뒷장에 보면 연구용역에 또 6,000 잡혔죠? (예)

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앞에 있는 기관운영 연구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일반적인 연구용역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신규사업 공모용역비는 기획정책팀에 공모팀에서 공모사업을 용역을…… 한 번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공모가 좀 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같은 성격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성격은 크게 보면 같습니다. 같은데

요. 공모사업을 우리가 응모할 때 불가피하게…… 그렇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공모팀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

성격이 같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비슷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177쪽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기관공통운영. 기관공통운영 해가지고 6,000만 원, 2,000만 원, 8,000만 원 잡아놨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라고 해놨는데. 이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177쪽에 기관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운영 6,000만 원, 공공운영비 기관공통운영 2,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이 성격들은 어떻게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 및 읍면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때 긴급하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도 예비비성격이죠.

군정 종합발전 추진 1억 4,000, 이것은 어디다가 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군수님, 부군수님 시책추진…… 아니, 읍

무추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있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군수, 부군수가 쓴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죠, 이것은 별개고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죠.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업무추진비가 통상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크게 나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기관업무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4급 이상 국장, 과장급 등의 읍면장님이 기관을 대표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세무회계과에 세워져있는 기관운영공통추진비이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이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 세워져있거나 아니면 자치행정과, 각 실과에 골고루 나뉘져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군수가 1억 2,000 정도 되는데, 군정 종합발전 추진이 이번에는…… 작년 6,800만 원에서 갑자기 7,3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총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나뉘져 있거든요. 총액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2억 5,9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실과에 다 나뉘져 있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800인데 지금 넣은 것은 업무…… 실과에 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는데 총액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과는 실과에 있을 것이고, 여

기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군정 종합발전 추진해 가지고 1억 4,1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6,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7,3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왔구먼요. 뭐 세무회계과에 있는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뇌놓고요.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만……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군수님이 사용하신 2억 9,500만 원, 총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 1억 1,200만 원을 부기만 달리해서 군정 종합발전예다가 넣느냐, 아니면 뒤에 있는 홍보추진예다가 넣느냐. 이렇게 좀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부기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보면, 뒤에 페이지도 보시면, 178페이지에 보시면 국고 현안사업 예산확보 재정운영에서 전년도에 6,500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몇 페이지요?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178페이지.)

어느 쪽입니까?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가운데. 위에서 두 번째단 업무추진비, 국고 현안사업 재정확보.)

재정확보요.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것이 전년도에는 6,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6,500이 군수님이랑 같이 쓰던 경비를 지금 1,500만 원으로 해놓은 것을 순수하게 국고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팀에서 쓰겠다고 해서 1,500으로 빼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1,500, 이것도 안 맞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팀들이 가서 국고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사업부서가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가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거의

사업부서들에서 출장을 많이 가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온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업무추진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에서 군정 종합발전 업무추진비에서 각 사업부서에다가 군수님이 얼마씩 떼어준다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아니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각 실과에 배부된 것은 시책업무……)

그러면 군수님이 군수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각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딸 때 뭐 200이면 200, 300이면 300, 각 과에다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그러면……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각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배분되어서……)

그 업무추진비가 액수가 작으니까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1억입니다.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아니, 1억 1,000만 원.)

아, 1억 1,000만 원.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각 부서에 배분되어서 나가는데, 참고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배분해 드렸잖아요, 실과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봤더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못쓰고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각 부서장들 예산할 때…… 중앙부서로 출장을 갈 때 그것을 해준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그러면 군수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1억 1,000만 원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내가 설명을 잘못 듣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억 1,000만 원을 각 부서에서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 부서장님들이 그것을…… 뚝니까,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집행하기가 좀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저번에 내가 예산팀들한테 그러면 그러지 말고 각 부서장들 출장비를 현실화해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법상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항간에는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로 각 실과에 다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자꾸 부서장들이 뭐 여비가 없어가지고 출장, 그런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부분은 각 부서장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전액 다 소모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없는 말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어찌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1억 1,000만 원을 다 부서별로 집행…… 아니,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들이 그것을 잘 활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교육을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사업부서에서는 아니고, 전부 지원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우리 부서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막말로 지역개발과나 안전건설과, 이런 곳이 제일로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업무추진비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뭐 하루 출장 값이나 되겠어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정책과 이런 데도 우리 군 예산을……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 같은데 국비가 가만히 있어도 얼추 다 내려오는, 여시아동과나 그런 데도 그런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300만 원, 200만 원을 가지고 어디 한두 번 출장가면 끝나버리는 것을……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래도 이제까지 유례 없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군수님께서 실과로 배정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변태하지 말자고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답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는……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러 간다거나 할 때, 각 부서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국회를 가더라도 군수님이 거의 예산을 사용하고 계세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자기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각 실과장들한테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이것도 금방 담당관님의 말처럼 1억 1,000에서 이것이 끝나는가.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1억 1,000만 원은 각 부서…… 제일 뒷면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다 세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못쓴다는 말입니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부서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부서장들이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내년부터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1억 1,000만 원에서 자치행정과가 4,000만 원, 뭐 저기 6,000만 원, 7,500만 원은 두 과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가 다 가져갔구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소통융합행정업무, 이런 것 1,000만 원. 군정 주요시책업무 추진 2,000만 원. 이런 것 전부 군수님이 쓰고 다 가져가버리는 예산을 무슨 1억 1,000만 원이라고, 말만 1억 1,000만 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렇게 하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문제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홍보문제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홍보가 끝나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시기별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제가 담당관님, 어제 예산서를 보고 제가 각 전라남도 22개 시군 홍보에 대해서 한번 봐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부기가 한번도…… 담당관님도 봐보세요. 우리 부기하고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자료를 들며)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어요. 하는 것을 보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예산편성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홍보계에서 한 8억 5,000 이렇게 갖고 있고,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업무이관이 되어가지고 관광정책과에 간…… 20억 정도 돼요, 우리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데 봐보면 뭐 우리가 언론사를 밥을 먹여주는 곳입니까, 우리 군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봤지만 왜 우리 군청 직원들은 언론사 앞에만 가면…… 홍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체가 다 작아집니까.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군의 행정을 의회와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언론사들하고 의논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를 들며)

이것 봐보십시오,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금 우리 군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매체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이 우리 군만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 전라도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홍보매체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115개가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다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런데 이 안의 목록에 들어가서 부기를 보면…… 물론 이렇게 1억도 있고 2억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처럼 이렇게…… 25개사, 25개사, 이것이 홍보입니까, 이것이 광고지. 전부 광고가 아닙니까. 홍보하고 광고, 광고하고 홍보는 다른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산편성과목을 너무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은 아무튼 알았고요. 제가 입이 있거나 말하기가 참…… 다른 시군 것을 봐보니까 이런 홍보를 할 것이면 제대로 홍보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광고로 되어 가지고, 무슨 신문사 광고를 줘니까, 완도군이……

하여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

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박 인 철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김 양 훈
최 정 욱

□ 불출석 위원(1인)

이 범 성

□ 출석 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09시58분

□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

□ 부의된 안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 자치행정과
- 주민복지과
- 해양치유산업과
- 여성아동과
- 민원봉사과

(09시58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입니다.

99페이지,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비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자치행정과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총 사업비 18억 4,5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남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은 기구축·완료되어 시범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아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1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다 군비가 투입됨을 감안, 특별교부세 등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계속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자치행정과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9억 3,341만 원이 증액된 268억 2,098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190페이지. 그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을 모범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들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공로……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공로연수를 모범 공무원으로 해서 산업시찰로 해가지고……

□ 우성자 위원

아, 그러면 딱 정해져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퇴직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입니다.

□ 우성자 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에요, 191페이지,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라고 있잖아요. 그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또 `18년도에 해외연수라고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성과, 또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 좀 자세하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상반기에 못했고, 이제 지금 하반기에…… 12월 중에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면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취합해서 의원님들에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동안에 한번 보고연수회를 한 적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금년에는 처음 나가거든요, 12월 달에 나가도록……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12월인데……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이번 주부터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갔다가 되돌

아오면 보고회를 한번 거쳐서, 전체적으로 보고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고회를 한 번도 안하셨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나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 우성자 위원

아니, 그전에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따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다음에, 해외에 갔다와가지고 성과는 한 번도……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전에 계속 연속해온 사업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그전에는……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서무팀장 우홍래 집행부 좌석에서 - 그전에는 계속 안하고 있다가 작년에 2017년도에 한번 시작했고요,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 작년에 처음 나갔다고요?

(□ 서무팀장 우홍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뭐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아직 모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아니면 무엇 때문에 갔는지,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이렇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아니, 목적은 외국의 선진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기 위해서 공무원,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제가 따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도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해외를. 그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이 그냥 직원들…… 정해져 있는 사업에 의해서 보내시는 것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 우성자 위원

과장님, 특별한…… 설명할 때, 설명을 우리한테 할 때 어떤 의미로 간다고 특별히 막 내세우는 것이 없어가지고 자꾸 제가 물어보게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그래서 외국 선진지의 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파트…… 부분별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쪽이라든지 농업파트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쪽으로……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것에 대해 벤치마킹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12월 중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거든요.

□ 우성자 위원

아니, 오늘이 12월 12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2월 중에 나간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계획은 다 있습니다. 계획은 다 있어요.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말을 안 하시니까 저희들은 어떤 것으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나만이 아니고 전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97페이지, 보면 힐링캠프 그 것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공직자 힐링캠프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번씩 직급별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소양교육을 1년에 1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을 갖다가 공무원 힐링캠프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구먼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전체직원들. 다양한 소양교육들을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좀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은데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페이지, 공직자 청렴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청렴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저희들이 전화…… 비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청렴도를 향상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금년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향상을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이런 예산은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데, 아니,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하는데도 청렴도가 최하위로 떨어진다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최하위로 갈 것이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아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청렴도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화 쉐어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직자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이런 청렴과 관련된 문구들이 나오고 그러면 훨씬 더 청렴에 대한…… 그것이 투명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전화기에다가 비즈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돈도 사실은 다른 예산에 비하면 몇 톨 안 되는 돈이지만, 청렴도가 떨어져 가지고 최하위권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부기를 보면 공직자 청렴 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렴도 하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군정 홍보용 전화 비즈링 사용료, 이것은 꼭 청렴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군 단위 대형행사, 또는 군정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오면 그 전화기애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꼭 청렴도뿐만 아니라……

□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죽하면 그것을 꼬집어서 말하겠습니까. 청렴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애다가 예산을 쓰고 있어서……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위원이 꼬집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청렴도가 떨어지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청렴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십시오.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아진다고 하면 하겠지만 그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알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본 김에, 비영리 민간단체 15억인가, 그 부분은 됩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아, 그것은 청년회, 뭐 JC나 보훈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0개……

□ 우성자 위원

204페이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그래서 번영회에서 발간하는 청해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청년회에서 어린이 뭐 행사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JC에서 하는 청소년 체육행사, 그다음에 완도군민과 함께 하는 슈퍼스타 JC라든지. 그 JC하고 청년회, 번영회, 그다음에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아, 금년에 8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애다가 전체적으로 그 단체애다가 돈을 잡아버린다는 이 말씀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 주는……

□ 우성자 위원

완도군 전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우 위원님이 공무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김에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죠? (예)

196페이지요, 한 6억 3,500 정도에 여비까지 하면 한 3억 9,000, 그래서 한 10억이 넘는 돈인데요. 아까도 청렴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교육을 좀 체계화해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지. 연례로 이렇게 하는 교육 아니에요, 이것. 계속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죠?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전년도와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교육을 보내고 있고.

또 교육을 이수해야 이후에 승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 교육점수를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용 교육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진하는데 교육점수가 부족할 경우,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엔 청령도에서…… 아마 완도군민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비 10억이라고 하면, 넣는다고 하면 우선 받아들일 때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고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령도에 맞는 교육비를 좀 체계화해 가지고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7페이지요, 장보고장학기금 출연금 해가지고 22억 8,5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장보고장학기금 출연금은 22억 8,5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렸습시다라는 여기에 지금 150억 조성되어 있는 장학기금 총액을 200억으로 늘리…… 2018년까지 200억으로 늘리면서 매년 출연금을 5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장학기금에 적립금 5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문대 진학 장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이 있고요.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급이 있고, 고교 신입생 장학금 지급,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완도고 명문고 만들기 지원사업, 그다음에 읍면 학습지원, 완도수고 및 도서 고교 보충지도비, 그 다음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청해진 고교강좌, 그다음에 완도수고 (청취불능) 육성, 학습교재, 동백장학회, 통학버스 제공, 원거리생활 고교생 장학금, 농어민·농어촌 강사 지원, 마이스티고 육성, 그다음에 무지개학교, 도서고교 야간자율학습 지원,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그다음에 글로벌 체험학습 지원사업 등 한 20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요. 22억 8,500만 원 중에서 5억은 장보고장학기금 적립금이고 나머지 17억 8,5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교복 지원사업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실력을 향상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22억 8,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올해 8억 한 4,000 정도 증가된 것이죠? (예)

이것 내용에 대해서 잠깐……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6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억 4,3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6억 4,300만 원 중에서 5억은 장보고장학기금 적립금, 5억을 적립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사업을 조정하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 지난번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이라든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계속 장학기금, 금방 6억 추가 외에는 기존에 연례적으로 군에서 지원했다는 얘기죠, 계속?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그렇습니다. 지금 150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150억은 장보고장학회 기본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150억은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장학사업은 군비로 출연해서 매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계속, 연례 이 정도씩……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6억 얼마가 이번에 추가되고, 그것 때문ですよ.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195페이지요, 연장 근로시간이라고 해가지고 2,500시간.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 최정욱 위원

기간제요, 그것을 통틀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요? (예)

여기에서 주로 남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남기도 하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산을 그렇게 짠다는 얘기죠? (예)

보통 연례 이렇게 짜면 이정도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반영 안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

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92페이지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가지고…… 복지카드 사용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131명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1,131명은 저희들 본청 및 읍면, 사업소, 직속기관 다해서 정규직하고 공무원, 그다음에 공보위, 그다음에 의원님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복지카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1인당 보통 10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조금 적게는 한 70~80만 원 배정해가지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 그 숫자가 1,131명이라고요? (예)

우리 공무원 숫자보다 훨씬 많아서……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공무직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 최정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지금 193쪽에 보면요, 완도군 농수축산업 총조사…… 이 뜻이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군에 있는 농수축산업과 관련해서 총 조사 계획을……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가축 사육이라든지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조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는 사용이 안 됐는데요, 어쨌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작년이요?

□ 김재홍 위원

올해 2018년도에는?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법무통계팀장 고수영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내년엔 처음 할 계획입니다. 통계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만 통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집행부 좌석에서 -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요, 예산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은 뭐냐고 그러면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 한 2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간접비 소송이라든지, 지금 우리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다음에 부상금,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런 금액을 저희들한테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해줘야 되는, 그런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2억 해냈는데요.

지금 저희들 공사와 관련해서 간접비 소송이 들어온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리, 석상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건이 있고요. (청취불능)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든지 이것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2심이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최종재판이……. 완결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정금액은 배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지금 2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행정감사 시에 보니까 42건인데, 22건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손해배상사건은 그렇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2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정인가요, 아니면 확실히되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대략적인 금액이라서 이것보다 추가될 수도 있고, 최종적인 것은 대부분 판결이 나와야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하고 패소할 부분까지 판단해 가지고 예측해서 세운 금액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 김재홍 위원

일단 보니까 뭐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행정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느끼죠? (예)

그래서 간단히 봤을 때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될 수 있는 부분도 넘어갔더라고요. 최대한 잘 좀 해서 마무리할……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이런 손해배상금을 가능한 부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204페이지, 아까 물어봤던 것인데 민간이
전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이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짜리. 그
부분이 지금 몇 개 단체 입니까, 아까 침에
뒀 8개 단체……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8개로 세웠습니다.

□ 김양훈 위원

8개 사업이요?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인지 말
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번영회에서 하는 청해지 발간이 금년 같은
경우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건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협의회에서 건전한 지역사회 만
들기 운동에 2,100만 원했고요. 어린이 야
외물놀이장을 청년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2,000만 원. 완도군민과 함께하는 슈퍼스타
JC 1,000만 원. 빙그레 완도 청소년 체육행
사, JC에서 하는 행사에 900만 원 지원했
고요. ‘나는 완도인이다’ 이것을 1,300만
원, JC에서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지원했
고요. 완도인과 함께 하는 빙그레어울림 축제,
JC에서 했었는데 7,000만 원 지원했
고요. 사랑의 김, 미역 북녘 보내기 사업에 3,000
만 원 지원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보면요, JC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갔죠? (예)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무조
건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JC나 이런 데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

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여기에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연초에 사업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일부 수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
습니다.

□ 김양훈 위원

수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 산정은 되어
있죠? (예)
어떤 기준을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이 그…… 여비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편성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
로 충족해서 당초에 들어오면…… 그런 산
정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만약에 다른 단체, 비영리 다른 단체에서
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사회단체보조금 일부가 다른 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세워져 있고요, 비영리단체 쪽.

□ 김양훈 위원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중복집행이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저희들
이 그쪽에 지원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사랑의 김, 미역 보내기 운동. 거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3,000만 원이……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거기는 저희들이 한 1억 5,000 정도로 해 가지고 미역이라든지 수산물 등 기부를 좀 받고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남북교류협의 회하고 해서 이것을 운송하는 운송비입니다.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번영회 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그렇게 기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 말고도……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거기는 수산, 예를 들어서 김이나 미역,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을 받았고요. 그 물품을 전부다 구입 해서, 완도 것으로 구입해서 수송하는…… 차량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 김양훈 위원

그 임차료 부분에 3,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몇 대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 물량이 얼마나 많으면 3,000만 원 운송비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인천항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물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000만 원.)

여기에 차량 운반비……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 차량을 인천까지 가지고 가는 물류비하고 또 선박으로 해서 가는 물류비로 전체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물류비까지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

서 - 예.)

이런 것까지 다 군에서 지원해줘야 되나 요. 그쪽에서 따로…… 보내기 운동을 했으면 그쪽에서 기부 받은 것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저희들이 김이나 미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육로 쪽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육로 쪽으로 이렇게 해서 교류협의회하고 좀 조정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전부다 미역하고 김, 완도 산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예산 1억 5,000이라는 돈이 있다가 번영회하고 청년회, JC하고 딱 두 군데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되는 사업이구먼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1억 5,000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총액을 당초에는 1억 5,000으로 예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1억 2,000 정도 기부금이 모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런 정도……

□ 김양훈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이 두 단체한테만 가는 사업이라고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민간단체, 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지원은 연초에 예산계에서 단체별로 다 공모를 해서……)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이 단체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1억 5,000이라는 돈이 번영회하고 JC한테만…… 거의 보니까 두 군데로 다 1억 5,000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번영회하고 JC 청년회.

□ **김양훈 위원**

거의 두 단체한테 다 들어가는 돈이구먼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아니요. 세 군데, 네 군데입니다.

□ **김양훈 위원**

나머지 쪽은 소수금액이고, 큰 금액이 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 JC하고 번영회 아닙니까? (예)

이 목이 그 두 단체한테 치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억 5,000이라는 돈이.

그리고 2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도비 예산인데요. 이것은 금급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 그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유학 지원사업 5,000만 원은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5,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청취불능) 쪽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라는 청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대학 창조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10여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월 정도 살면서, 지역에 살면서 농촌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청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현재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신청을 하면 선정이 일단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만 내려와서 그 교육을 받고, 부모님은 안 내려오는 것이죠?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부모님들까지 같이 내려와 있는 경우가 거의……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러면 6개월 동안 여기서 공부를…… 교육을 받고 6개월이 끝나면 다시……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본학교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205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 법정운영보조가 3,160만 원인데요.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활동지원은 무슨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205쪽 제일 위쪽입니다, 500만 원.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이게 지금 완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단체,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 참가, 도 단위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사참여 여비랄까, 그런 부분들로 지급된 것이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아니, 지금 바르게살기에 지원금들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계속 해마다 주고 있는 과정입니까?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그 500만 원은 전진대회 참가경비로 해서 지원했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전국대회 참가비는 1,000만 원으로 됐고, 500만 원은 도 단위 대회 참가 경비로 해서 총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

다.

지금 전년도에는 그 예산 지원이 안 됐었어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올해 500만 원, 전진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올해요, 그런데 500만 원은 어떤 이유로 500만 원을 더 증액시켜 냈습니까?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경비부분이…… 본인들 자체자금으로 이런 사업들을, 봉사활동사업들을 하는데 자체자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좀 요청이 있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 활동은 어떻게 보면 말로만 활동을 하고, 활동하는 근거랄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증액해 주라고 하면 증액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500만 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요청해서 증액시켜냈습니까?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증액시켜주라고 그러면 다 시켜줄 것입니까?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집행부 좌석에서 - 여기에서는, 법정단체는 법에 근거한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이렇게 단체…… 민주평통이라든지 법정단체들인데, 최소한 활동비는 지원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경비하고 활동…… 전체적인 것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190쪽이요, 190쪽, 군민의 날 행사에서 보면 올해……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금년예요?

(□ 서무팀장 우홍래 집행부 좌석에서 - 서무팀장 우홍래입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선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거의 지출은 안했었습니다, 못하고 간략하게…… 대회의실에서 간략하게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안 써졌는가요?

(□ 서무팀장 우홍래 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거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큰돈은 아님니다마는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했으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서무팀장 우홍래 집행부 좌석에서 -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 위반이 되는, 그런 선관위에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간략히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군민의 상이나 명예군민 선정으로 해가지고 시상금하고, 또 주민들을 초청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봤을 때 왜 그것이 궁금했냐면 금년에는 사용한 것이 없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 됐습니까?

□ 허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저희 과 예산은 특별교부가 7억 5,000…… 아니, 757억 349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68억 5,52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신설 복지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증가, 지급액 증액 등으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살펴보면 국비가 균특과 기금 포함 537억 2,392만 8,000원으로 70.9%이며 도비가 48억 3,204만 8,000원으로 6.4%, 군비가 171억 4,751만 6,000원으로 22.7%입니다.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7.3%로 대부분 복지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며 군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예, 과장님. 231페이지를 보면요, 완도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어떤 임대료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원래 자활센터를 지어주게 되면……

성광교회, 제일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처음에 허가해줄 때 다른 시군을 보면 군 건물에서 자활센터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지어주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군에서 군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썼던 건물이 땅이 매매되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청해어린이집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은 임대료하고 보증금으로 세워 났습니다마는…… 한 6,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해요양원이 만약에 청해어린이집이 가능할 경우 돈을 안들이고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처음에…… 뭘니까, 복지시설을 할 때는 그때 처음부터 사무실이라든가 신청을 먼저 안 하니까. 신청할 때 기관에서 그것을 줌…… 사무실 같은 것을 갖추고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전혀 안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두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관리사무소를 볼 때 다 시군 건물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법인 내력이 있으면 지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군 건물에 임대료를 줘서, 그렇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80%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0~90%가.

□ 박재선 위원

보증금도 밑에 보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것도 신설로 올해 처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부 다 100% 지원을 해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위원님. 거기를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땅이 매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비용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시다마는 청해어린이집 쪽에, 거기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군 건물이기 때문에 돈을 안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할 수가 있죠. 신규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과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끝났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227쪽이요. 민간인 위탁사업비, 행복정비사업 경비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것은 서민시책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건설협회하고 하고 있는데,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 최우수사항으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군비가 45%고요, 도비가 35%입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를…… 협회에서 20%를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 실적이 노화 한 채하고 보길 한 채, 그리고 신지 한 채를 준공해서, 개보수를 해서 부의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준공식을 어제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는데……

□ 김재홍 위원

도비 부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재원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국가유공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도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비로 해주고 있는데 자가인 경우는 국가에서, LH공사에서 집수리도 하고 해줍니다. 그런데 자가가 아니고 임대라든지 그런 경우는…… 자기 부모님 앞으로 되어있다든지 그런 건물은 개보수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틈새시장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 김재홍 위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1,000만 원은…… 3,000만 원을 가지고 한 네 가구, 다섯 가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김재홍 위원

아니, 세 세대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 세대 정도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올려서 그분들이 현장을 파악합니다마는 주택건설협회에 그분들이 와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와서 봤는데 열악하면 네 세대나 다섯 세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리고 247쪽예요. 완도군 추모공원 자연장 조성, 이 건은 무엇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이 공설묘지에 자연장…… 추모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산두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규모가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실체는. 그래서 수목장을 크게 했어야 했는데 산두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면적을 줄였습니다. 반절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백나무 13주하고 황칠나무 10주해서 26주를 수목장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재하다 보니까 16주는 다 차있고요,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7주가 이번에 가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 선호도는 높아졌는데, 자연장도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해줘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 100주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1억인데, 완도군에서는 황산면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것 광역화장장은…… 화장장입니다, 화

장장이고. 봉안당은 거기에서 화장해서 저희들한테 완도군에서…… 추모공원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남 사람들은 해남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물론 우리 완도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완도군 군민들이 화장을 하고 와서 완도 추모공원에서 안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장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크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목장을 축소하다 보니까 지금 23주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긴급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저희들이……

□ 김재홍 위원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 나무를 보편적으로 해서 추산을 했는데 한 60만 원 정도 들어야 만이 저희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주당 150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한 주당 60만 원 정도 되어야 만이 사용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도가 됩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주고 100주를 할 경우는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까지 해서 한 1억 정도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21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참전 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있죠. 국가유공자는 어떤 분이고 참전유공자는 어떤 분인가요, 그 한계가 어떻게 다른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국가유공자는 말씀 그대로 보훈청에 등록 된 유공자입니다. 뭐 상이군경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를 하셨던 분들이나 상이군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국가보훈청에 등록했던 사람으로 유공자로 판명되신 분이…… 연금을 받는 분이 국가유공자고요. 6.25 참전하신 분하고 월남참전하신 분만 남북참전유공자에 들어갑니다.

□ 우성자 위원

아, 참전하신 분은 참전유공자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왜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수당이 다른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7만 원하고……

□ 우성자 위원

7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그 이유는 어떻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참전유공자는 저희들이 5만 원으로 했다가 작년 7월에 올렸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왜 한 쪽만 올리고 한 쪽은 안 올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러니까 계속 요구해 와서…… 완도군이 한 중간 정도 됐었는데 다른 시군의 선례를 봐서 7만 원으로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7만 원으로 했고요.

국가유공자 5만 원은 연금을 받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 분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요구가 없었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참전유공자는 좀 올려야 될 케이스였고, 유공자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인상 요구조건이 없어서……

□ 우성자 위원

월남참전유공자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월남참전유공자는 상이군경이나 된다든지 그럴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상이군경이 아니어도 많이씩 받던데요. 70~80만 원 받는 곳도 있고 150만 원 이렇게 받는 것도……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고엽제 수당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법으로 인해서 고엽제는 따로……

□ 우성자 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226페이지요, 요구대상자 어려운…… 긴급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대상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해서……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양곡을 말씀하시죠?

□ 우성자 위원

예, 양곡도 있고 또 어려운…… 긴급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긴급지원은 복지재단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입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청취불능) 입원을 하는데 그때 한 30만 원 선에서……

□ 우성자 위원

여기서 그러면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유동자금인데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선박이……

□ 우성자 위원

재해를 위해서 세워놓은 자금이라는 이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죠, 격려금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때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한테 이것을 준다는 이런 기준.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사건사고,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선박이 전복되어 가지고 사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냥 갈 수가 없어서…… 30만 원 미만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뭐 사망이면 사망, 아니면 몇 달 입원이면 입원, 이런 기준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읍면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오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군에서 봐서, 형평성에 맞춰서 보내주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을 1회이기 때문에……

□ 우성자 위원

그것 약간 선심성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읍면에서 보고하기에 따라서, 군수님이 가실 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읍면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군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위원님들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으면……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 어려우신 분들 맞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서.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고 이 분을……

□ 우성자 위원

그다음에 240페이지, 독거노인건강알림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것은 감지센서가 있어가지고 감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센서를 뒤서…… 독거노인 중에 어려운 세대를 선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열악하고 고령인, 그런 경우에 하는데. 센서에 하루 종일 감지가 안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독거노인 관리사를 파견합니다. 그 집이, 쉽게 말하면 홍길동이라는 집에 거동이 없다면 하루 종일…… 그런 경우에 센서로 감지해

서, 거기에 관련된 관리사를 파견해서 그 집을 한번 파악해 주라고 그렇게 하고, 사망을 했다면 한 2~3일 동안 미동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망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못 일어날 경우에는 센서를 감지해서 119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각 읍면마다 서비스…… 뭐라고 해야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읍면마다 그분들이 있는 것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죠.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읍면에 1명씩이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읍면에 총 4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전체에.

□ 우성자 위원

완도군 전체에 44명이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안부를 살피고 한번 집에 방문하고요. 2~3번 전화로 상담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소재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그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하셨네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의료기기를, 24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료기기를 지원하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마의자나 뭐 기타, 그런 것들을 하는데…… 500만 원 미만으로 해서요.

□ 우성자 위원

운동기구 같은 것?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위원님들도 어려운 세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체해 줍니다.

□ 우성자 위원

경로당에만 하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죠, 경로당에 의료…… 안마의자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저는 의료기구라고 하니까 다른 기구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 사업하고 상관없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트리스라고 합니까, 따뜻하게 좌석으로 해가지고 앉는 매트리스. 그런 것은 어떤 곳만 해줄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건강매트는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기준액이 500만 원까지입니다, 한도가. 그런데 그것을 한 2개 정도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500만 원으로는 안 되거든요. 200~300만 원인데 500만 원에 맞춰서 해 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노인회에서 “우리 무엇 좀 해주라.” 라고 그러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마의자를 해준다면 500만 원을 가지고 다 소진하는 것이고. “우리는 온열치료기, 그것을 해주라.” 라고 그러면 그것을 한 2~3개, 500만 원 선에 맞춰서 그렇게 해 드립니다.

□ 우성자 위원

내가 이장할 때 그렇게 하나 해주라고 했는데도 안 해주던데요?

(장내 웃음소리)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마을만 해주는지.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것은 예산, 일단 봐보십시오. 예산이 한 30개소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한 33개소가 되거든요.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래서 어렵고 오래된 데, 그리고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곳만 저희들이……

□ 우성자 위원

아니,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도 안 해주는데요. 해달라고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상관없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자주 보채고 좀 알고, 이런 분은 해주고, 저도 뭐 과장님도 모르는 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접 부탁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 해달라고. 그런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 달라고 보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소외되지 않게 정확하게 좀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에는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도에……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저는 전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241쪽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것을 3개소에다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 로템의 집이고, 로템의 집 건물방수로 2,000만 원, 금일 소망의 집에 다목적실을 신축합니다. 그리고 성광노인요양병원 도배, 장판으로 해서 3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씩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선별할 때, 물론 어떻게 비교분석을 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그런 시설별 사업견적서나 이런 내용을 제대로 받고 합니까.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당연히 견적서를 받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 금액이 부풀려졌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고요.

□ 허궁희 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사업비

들이 책정된 것 같더라고요. 일반가정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말이 많이 나와요, 정부사업은 주으면 돈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잘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군테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213쪽, 제가 소안이 고향이라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항일운동영상물이 소안도에 없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산제가 문화재로 등록되고, 그동안 누락된 자료들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당산제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상에 실리지 않고, 또 2006년도에 했던 것이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소안에 한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매년 다녀오거든요, 기념관을.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범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렇게 1만 5,000명 정도가 왔다고 할 정도면 영상물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저도 213쪽입니다.

과장님, 너무 말을 빨리 하는데 천천히 하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보훈단체간담회라고 해가지고요, 한 4회 이렇게 있는데, 올해 4회 이렇게 운영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올해 경로당……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3회 정도 그렇게 했고, 보훈단체별로 모여서, 회관 증축 때문에, 또 (청취불능)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모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냥 저희들이 실비는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 좀 자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215페이지, 보훈단체 시설활성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슨 사업인지.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보훈회관에서…… 원래 당초에 보훈회관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11개 단체, 9개 단체가 들어온 것으로 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반대해서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대로 건물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굉장히 헐었고 안에 캐비닛도 옛날 캐비닛 이어가지고요. 그것을 교체해주라고 보훈회관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와서 이번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캐비닛하고 (청취불능) 비품, 책상 같은 것들이 좀 큼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 보훈단체, 어느 개인…… 아니, 일반단체에…… 보훈단체 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이것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장애인일자리 시간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장애인일자리라는 두 종류로 나뉘었어요. 읍면에 파견돼서, 13개소에 파견되어 가지고 면에서 일자리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거기는 매일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하루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보조사업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떤 식으로 규정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이것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선별하고, 어떤 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보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한다고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무를 볼 사람은 사무 인지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활동을…… 단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심사해서 그렇게 사업비에 맞게끔 선정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마는 장애인일자리사업들을…… 2021년까지 지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들 일하는 장소

가 기존에 정해져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지금 공공시설.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사업비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노동을 할 수가 있고 사무보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일을……

□ 최정욱 위원

혹시 이 돈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 돈을 가지고 충분한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액수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액수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하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필요하면 더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이 지어지면 그때,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동작업장이 지어지면 일반장애인들 전체 다 받아서 군비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데에다가 더 써야 되지 않을까요. 좀 참고해서 이런 것은 진짜…… 다음부터는 예산을 이런 곳에 참고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우리 과 이번에 편성한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총 예산은 24억 8,141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1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양치유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허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6페이지요, 방금 설명한 옥상정원 케이스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용어가 생소하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조류센터 옥상정원에 계단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에 그동안 봄, 가을꽃을 이렇게 매년 식재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를 이관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1년이면 초화류 식재 철거비용으로 해서 거의 매년 2,000~3,000만 원씩 소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케스케이드라고 그러면 계단폭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상정원이 계단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폭포를 만들면 상당히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경관도 아름다운 경관으로 가꿀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조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비는 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조명시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허궁희 위원

한마디로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구먼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영구시설물로 해가지고 절감해 보자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잘 해놓으면 아주 완도의 명소도 될 수 있겠네요, 위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관리를 잘해서 꼭 지역에서 아주, 정말 필요한 시설이 되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67쪽, 완도해조류박람회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해조류박람회는 해 왔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를 새로 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문을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해조류박람회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먼저 타당성조사를 하고 지자체와 5 대 5로 이렇게 예산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5,000만 원, 저희들 5,000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했던, 이 앞전에 했던 그런 2017 박람회하고도 비교분석도 하고 앞으로 해조류의 미래 전망이라든가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기재부와 5 대 5로 저희들이 부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산이 참 많이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예산이요, 많이 증액이 됐어요.

5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저희들 있는 것도 다른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홍보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그것은 조금 이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제작했던 것이라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앞으로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하면 시대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구성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 예산이…… 실제로 받아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언제 만들었던 영상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2015년도인가……

(“ 2017년도 3월에……” 하는 주무관 있음)

맞아, 2017년.

□ 김양훈 위원

2017년도에…… 그러면 하루 앞도 못보고 또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때 만들 때 시대에 맞게 잘 만드시지.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여러 가지 콘텐츠 변화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 김양훈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1~2년 가지고 다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앞을 못보고 계속 예산만 새로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지금 15초짜리가 있고 3분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행사 성격에 맞게끔 장시간 홍보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양을 늘려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 김양훈 위원

저기다가 보충만 하면 안 됩니까, 조금 더 선정해서……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런데 제작업체도 그렇습니다마는……

□ 김양훈 위원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는데 업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실용성 있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화질이나 이런 것이 또 안 맞기 때문에 제작과정에서 그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다음에 영상을 제작할 때는 좀 자세하게 멀리보고 좀 하시게끔 하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강사 수당이나 숙박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어디……

□ 김양훈 위원

그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요. 주민설명회 개최, 강사수당 및 교통비.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이 주민설명회는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가 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과에서 이렇게까지, 주민설명회까지 강사를 불러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과에서 전혀 뭐 그렇게……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전문강사가 와서 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전문강사라고 그러면 어디서 오는 강사들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 강사들이 다르고 그래서…… 해양치유산업, 군에 있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하면 그때그때 달라지겠습니다. 꼭 한 특정인을 두고 강사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김양훈 위원

가능하면 이런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준비단계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실과에서 나가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그 밑에 해양치유 실용화 연구개발용역 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이것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해수부에서 총 51억의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고려대학교 에다가 해양치유기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4억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담금 2억이 편성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8억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내년에 부담해야 되는 것이 2억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뭐 다른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것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맞습니다. 4개 지자체에서 3년 동안 8억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뭐 해양치유산업…… 그쪽에서도 뭐 실용화 준비를 하고 있어요, 4개 지자체라고 그러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렇습니다. 선도지자체, 4개 지자체가 같

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은 솔직히 저희보다 추진이 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다음 564페이지를 봐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해양치유 염지하수 그 대행사업비가 1억 4,000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려면 해양치유 자원을 발굴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해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해수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필터링을 좀 해야 된다는가, 또한 소비자들이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이렇게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약 4번 정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앞으로 (청취불능) 해수 풀 시설이 되면 그쪽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사하게 되는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농어촌공사밖에 없습니까.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마다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뭐 다른 데는 안 알아보셨죠, 사업주를?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다른 기관보다는 농어촌공사에……

□ 김양훈 위원

농어촌공사는 항상 내가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농어촌공사는 군에서 먹여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때는 항상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공이라고 했는데 한 공에 3,000만 원…… 3,000만 원이 좀 넘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일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얻고 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견적서 같아요. 저도 지하수를 많이, 해수지하수를 많이 파보고 300M까지 파봤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농어촌공사한테 뭐 특혜를 주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철저히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수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보셔가지고 군민들의 혈세인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쪽, 투자유치기반 제일 위에 보면 도로시설 조성으로 해가지고 도로 등으로 해서 2,000만 원.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기업 유치과정에서 보면 특정 부지라든가 일반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쪽에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부지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원하는, 투자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부지정비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진입로를 약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로 계상했습니다만 그게 일반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그때그때 즉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고 있어야 만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폐업부지에 일반신규업체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해서 그때 바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쓰레기를 치워서 유치했던 그런 경험 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전보다 예비비 형식이 아납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잡아놓고 예비비 형식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 났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없으면 불용시키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불용까지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 김양훈 위원

예산 잡을 때 신중하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뭐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한다고 하지만…… 제가 봐도 이런 것은 거의 보면 예비비 형식으로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이 사업들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급하게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잠깐만요, 미래해양사업단장은 어디 갔어요? 국·단장들 배석하라고 그랬는데 왜 해양헬스케어를 하는데 미래사업단장은 안 와

버렸어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개인적인…… 연가를 좀 낸 것 같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연가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 우성자 위원

예, 저는 566페이지의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셨죠, 옥상정원. 해조류센터 옥상정원 시설물 보수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거기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옥상정원 케스케이드 설치관계는 아까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해조류센터 옥상정원 목재데크 유지공사로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옥상정원에 목재데크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계속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상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해조류센터 시설물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은 해조류센터 밑에 보시면 약 230평짜리 잔디밭 2개소가 처음에 설치할 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또 지켜보고, 또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잔디밭이 공간 활용기능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밭을 철거하고 어르신들이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라도 설치해서 문화와 놀이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래서 장기경기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스피커라도 좀 설치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서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이라도 있었는가요, 아니면 개발하신 건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구나. 아침, 저녁으로 잔디밭에다가 개를 데리고 나와 가지고 개의 배설물을 누게 하고 그래 가지고, 낮이면, 또 여름철이고 그러면 냄새가 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루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봄, 여름, 가을에 보면 보통 하루에 50~60명씩 어르신들이 나와서 휴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잔디밭이 아무 그…… 공간 활용기능을 떨어트리고 있어서 저기를 개선해서 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그래서 장기경기장도 한번 만들어 보고 스피커도 설치해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해양치유 운영에 음향장비 구입으로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음향은 어떤 장비인데 그게 2,000만 원이나 들고 그렇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이것은 해양치유프로그램을 계속 이번에 명사십리에서 여름바다, 가을바다, 겨울바다 14, 15일에 운영하겠다는 행사를 하게 되면 일반요가라든가, 일반 행사를 하게 될 때 음향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음향장비를 업체에 임대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사가지고 앞으로 계속 써야 되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쓰고, 또 다른 부서에서 밖에 야외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앞으로 예산도 좀 절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음향장비가 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군에는, 다른 과에는 음향장비가 없는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행사를 이렇게 추진할 만한 그런 장비가 없고, 그냥 스피커 하나, (청취불능) 램프 정도는 한 두 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음향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부서와 공통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 음향장비를 구입하면 그것 관리는 어디 과에서…… 해양치유과에서 하실 건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관리해야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것을 사면 이 과에서 가져가고 저 과에서 가져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이것은 저희들이 매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물론 감독은 하시겠지만 공통물건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도 해보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쓸 사람이니까 쓰다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사신다면 해양치유과에서 앞으로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564쪽 하고 567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냈나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십니까?

□ 김재홍 위원

그렇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각 담당별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 투자유치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중식비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제가 보서는 굳이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200만 원, 300만 원 분리해 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기에요, 한 과에서……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지금 56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서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배정해준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 김재홍 위원

부서별이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그 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치유과인데 한 과에서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차라리 한 군데에다가 합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전문위원 추관호

저기, 김재홍 위원님. 해양치유산업과의 총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인데 그 뒤에 있는 300만 원은 각 부서별로 지급된 부분이고, 특별히 해양치유산업과에 해양치유산업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200이 별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그런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봤을 때 한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2개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565쪽에요, 해양치유프로그램 노르딕워킹 코스 개발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2,000만 원을…… 지금 우리 참가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노르딕워킹이 모래밭을 걸어 다니는 것 아닙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노르딕워킹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모래밭에서 하는 그런 코스도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명사갯길코스하고 가용리 편백숲길을 좀…… 전국에서 최초로 전용코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일반용역보다도 거의 시설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맞춤형코스를 개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장질환자가 어디 구간에서는 어떻게 걸어야 된다, 또 근골격계 환자는 어떻게 걸어야 된다, 이런 설명도 좀 제작해서 붙이고요. 그래서 최초로 시범 운영을 그렇게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2개의 코스를……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경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코스 개발을…… 계속 개발하고 했는데, 차근차근 개발해 가는데 어떤 부분들을 2,000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코스를 새롭게 하는지 해서 여쭙봤습니다.

그리고요, 567쪽에 2021년 완도해조류박람회 홍보영상 제작이 있는데, 할 때 마다 제작할 것입니까. 홍보영상이 지난해에 다 만들어져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2017년 박람회가 끝나고요, 앞으로 2021년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 맞는 홍보영상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 이범성 위원

일단 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2017년도에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홍보물 제작을 하더라도 거기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박람회를 하더라도 뭔가 국제적인 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들을 좀 띄워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부 해조류만 가지고 그냥 홍보영상만 제작하면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그런 취지가 된다는 것이

예요. 만들어서 해놓으면 2017년도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또 그대로 돈만 들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와 닿아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2021년 박람회에 맞는……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구현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수준 높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위원

홍보영상 제작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홍보해야 우리 해조류박람회가 진정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모색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냥 뭐 미역이나 다시마,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3,000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부분들을 확실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해양치유산업 해가지고 24억 8,100인데, 거의 토지매입하고 출연금을 빼고 나면 한 13~14억이 홍보비거든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것 없잖아요, 거의 홍보비죠. 토지매입비가 8억 6,000. 여기는 어디예요, 아까 그 운영출연…… 전남생물산업, 기존에는 4억 7,000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뺀 나머지는 전

체가 홍보비예요, 거의 그렇죠. 거의 홍보비. 아니, 내가 쪽 보니까 거의 홍보비.

그런데 치유산업, 이것에 대한…… 전체 우리 준비잖아요, 그렇죠. 이 단계가 어디까지 어떻게 와있는지, 어떻게 치유산업이…… 사실 군의원한테 어디에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사용할 만큼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우리가 정부하고 어느 정도로, 어느 단계까지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대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동안 쪽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2019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사용될 그런 예산입니다. 홍보비라고는 조금 동의하기가 그렇고요. 이 과정에서 일반홍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또…… 일반기반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준비과정이라면 무엇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과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따오기를 한다든가, 무언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투자하면서 준비하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위원님, 해양치유산업에 국한된 예산이 아니고, 박람회 추진 예산, 또 투자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예산이 해양치유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내년에 국비 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해양치유센터 설계를 시작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면……

□ 최정욱 위원

방금 5억이라고 말했죠.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책정되지 않은 사업이었었는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지고 우선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사업으로 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치유프로그램…… 치유산업에 대한 어떤, 어떤 식으로 5억을 받았냐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치유산업 전체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치유센터, 명사십리에 건립될 해양치유센터 건립하는 설계예산으로 해서 국비 5억을 우선 확보한 것입니다. 전에는 아닙니다마는……

□ 최정욱 위원

센터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치유자원도 관리를 하고, 또 인력양성, 주민건강 증진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까요, 그러면 일단 첫 지원을 받는 거

네요. 5억이라는 돈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국비로서는 지자체에서도 최초로 저희들이……

□ 최정욱 위원

해양치유산업에 관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반 구성은 되었다는 얘기네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거네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래도 말은 확실히 해줘야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설계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의 원년은 내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래서 그 5억이라는 것을 확실히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이 어디에 가서 대답을 확실히 해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5억은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시설계획비,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설계비, 국비?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설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국비를 가져왔

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첫 사업을 뒀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쨌든. 과장님이 대답한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영상물을 말했는데 김양훈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면 작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지나면 내년에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잘 좀 정비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이라 조금 미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다음에 또 그렇게 말 안 할 것이죠, 또 내년이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리고 특히 한국어만이 아닌 외국어 버전으로도 녹음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기왕 하는 김에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홍보물은…… 우리가 그것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것인데. 당장 1년 뒤에 바꾸려고 아무거나 대강하지 마시고 돈이 더 들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죠,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265페이지요,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씩 5회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행사운영비에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비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여름에 3회, 또 가을에 2회 또 겨울바다를 14, 15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봄, 여름, 가을, 겨울바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구체적으로.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요. 최근에,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시범 운영하는 것은 노르딕워킹과 또 앞으로 산업화가…… 꽃차 시음이라든가 해수사우나, 다 시마팩. 뭐 이렇게 사우나에서, 찜질방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끔, 여름바다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 최정욱 위원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람들을 동원할 것 아니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동원이 아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

□ 최정욱 위원

모집하나요? (예)

도시로 하나요, 지역민으로 하는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전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보면 외부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여름바다와 가을바다 프로그램 때는 전체 참여인원의 27%가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외부인들을 많이 유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외지사람들이 해야 맞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양훈이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기관…… 이런 것은 추경에 어떻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일이 생기면. 왜 굳이 이런 것을…… 뭐 그렇게 급한 돈을 누가, 뭐 하나 유치하는데 금방 뭘 해야 되는 그런 것인가. 적어도……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위원님, 여기 부기는 '도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는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그런 부지에…… 부지를 정비해줄 필요가 있다.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에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예산을 좀 세워서 즉시즉시 이행해서 행정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경험상.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뭐 굳이 농로 포장, 진입로 포장, 이런 사업비는 아니라고 보고요.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올리면서 도로라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진입로를…… 사업량이 적은 것은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8,000만 원을 한 군데에다가 투자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비를……

□ 최정욱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해서 올릴 때는 적어도 표기를 이렇게 도로라고 하면 안 되죠, 위원한테 올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타라고 하든가 해서 해야지, 도로라고 표기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도로 등’ 이렇게……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해양기후치유 비치 바스켓 구입이라고, 전년도 우리가…… 아니, 올해 여름에 이것 한번 했던 것 아닌가요, 한번 구입했던 것?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닙니다.

□ 최정욱 위원

새로 하는 것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지금 독일에서 유행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 최정욱 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쉽게 얘기하면 의자 형식으로는 생겼습니다만 바닷가 모래밭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햇볕도 쬐고……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전 추경에 한번 했잖아요, 추경에 한번 했죠. 그때 해주냐, 마느냐 해가지고……

(□ 주무관 이인석 집행부 좌석에서 - 관광정책과에서 원래 비치바스켓이 2018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제안되어 가지고 관광정책과에 예산이 올라와서 편성이 됐었는데, 독일에서 들어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너무 시일도 오래 걸리고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삭감하고 내년에도 다시 해양치유산업과에서…… 주무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삭감한 것을 제가 몰라서 그것은 죄송한데요, 이것을 분명히 추경에 했었거든요. 안하려고 하다가,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안하려고 했는데, 부군수님까지 쫓아와서 “꼭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다시 했던,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또 다시 올리고, 이것 정확하게 검토를 잘 해야죠.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된다면…… 거기까지 보고 와서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사진이 잘못된 것은 다시 빼와가지고 다시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안 하면…… 그것을 안 하면 어떡해요. 지금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내가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 확실하게 자신해요, 좋다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저는 뭐……

□ 최정욱 위원

남 보여주기에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의자가.

예를 들자면 어떤 치유에 따라서 의자에 앉았을 때, 솔직히 뭐 음악이라도 의자에 앉으면 나온다는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색다른 느낌을 받아서, 뭐가 치유에 대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봐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 의자를 보고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겠냐고, 이것 관리를 잘 못하면 쓰레기가 되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나도 뭐 처음에 와서 자세한 설명도 못 듣고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적어도 이 의자를 놓음으로 인해서 뭔가가…… 이러이러한 치유에 맞게 뭔가 좋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과장님, 설명 좀 해줘 봐요. 다시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 안 돼서 그렇게 했다면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아까 직원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정책과에서 그때 이 예산이 불필요해 가지고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일에서 들어오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집행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빨리 삭감한 것이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옳겠다고 그래서,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 의자에 대한 효능, 예를 들어서 치유산업 프로그램에 맞게 무슨 좋은 점이 있어서 이것을 들이냐는 얘기에요. 그 설명을 좀 해달라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일단 제가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 경험상이 아니고요. 자료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것 지금 처음 놓잖아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시범사업으로……

□ 최정욱 위원

시범사업으로 놓는데 적어도 객지, 타지 분들이 앉았을 때 뭔가 느낌이 달라야지,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하나…… 오히려 이것을 놓고 또 홍보도 할 것인데. 괜히 홍보를 해가지고 좋은 점도 발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올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도, 또 전문가들도 독일에 가서 경험을 해보고 충분히 설치를 해도……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라고, 거기에서 느꼈으면 뭘 느꼈는지. 우리도 그래야 거기에 났을 때 물어보면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 설명해줄 수가 있지. 우리도 위원이 되어 가지고 하라고 해줬으면 뭔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러면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직원한테……

(“ 비치바스켓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태양광이라든지. 일광욕을 즐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또 많은 일광욕을 쬌므로 인해서 햇빛을 쬌고 비타민D 합성이라든지, 의학적으로 많이 증명되고 그래 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게 된 취지는, 이 해양치유산업을 우리 국내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 완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이용해 보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도 한번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최정욱 위원

그 내용은 전에 들어서 알아요. 왜냐하면 위원들도 저것을 놓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민들이 물어보거나 누가…… 저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면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막연하

게 독일에서 수입까지 해 와서 어떤 효능, 효과도 설명할 수 없으면 우리도 문제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이것을 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래서 그때 부군수님한테 굳이 독일에서까지 수입하면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국내에서도 좋은 제품이 있다면 거기에 해양헬스케어에 맞는, 그런 취지에 맞는 의자를 개조해서라도 국내에서 해야 될 것을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독일에서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리이러한 입증효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말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못하잖아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공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전문가들에게, 국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가지고 똑같이 제작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제작하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사용해 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다면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2019년도 여성아동과 본예산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내년도 예산은 186억 7,00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6,11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아동과 본예산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여성아동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에 청소년 건전문화정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이것은 관내 청소년 관련단체들한테 완도군 청소년 건전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출연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아카데미 여름학교가 2,000만 원, 범죄예방에 7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락 페스티벌에 2,000만 원 등 5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구요. 내년도도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7,300만 원을 가지고 연초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재선 위원

인원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지원단체는 뭐 한 곳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해서 청년회라든가 우리 청소년프로그램…… 우리가 공모신청 공고를 할 때 그것 관련해서 유관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산정합니다.

□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25억 6,19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전체적인 것은 아동보육, 드림스타트,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더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순군비에서 늘어난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그리고 275페이지.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민 건강검진비로 120명에게 지불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가 잘되고 있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내년도부터 시행해볼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원방법이랄까,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다문화가정이 전체적으로 약 366명이 있습니다. 366명을 한 해에 공무원들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하듯이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많아서, 이 366명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120명씩 잘라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인 기본건강검진은, 법정건강검진은 국가에서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여성 관련 암 진단이라든가 갑상선, 그 다음에 복부, 비뇨기 등 그런 세밀한 개인부담이 들어가는 비용을 1인당 25만 원 지원해서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볼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지금 선지급을 해가지고 검진을 받고 영수증을 제출한다든가 그런 취지로 진행할 것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듯이 건강검진확인서하고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런 비용들이…… 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돌아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주시기 바라고

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다문화통번역서비스사업,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이 부분은 완도군이 다문화가정 366세대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외국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완도로 다문화결혼을 해서 왔는데 언어장벽이나 그런 것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 중에 한국어검정시험을 통과한 중국인 다문화 1명하고 베트남 다문화 1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나 중국에서 우리나라 완도로 시집 온 여성들한테 언어적으로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2,200만 원 정도 된다면 정상적으로 완도군에, 어디 실과에 소속되어 가지고 일을 보고 있냐는 그 얘기에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아니, 이것은 다문화센터에 위탁……

□ 이범성 위원

센터에서 출근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 부분들은 잘 체크가 되고 있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이범성 위원

이 부분들을 한번…… 그러면 선택이 되면 그분만 계속 써줍니까, 통번역을 하는 데에. 일단 모집을 하는데 한 사람이 모집됐어요. 그러면 해마다 그 사람만 계속 공무원 같이 써주느냐는 이것이에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그것은 다문화센터에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

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것까지는 우리 군에서 안 하고 센터에 넘겨가지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인력관리는……

□ 이범성 위원

인력관리에 대해 소리가 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확인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어떤 사람은 특혜식으로……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도 없고, 또 통역한다고 거기에 다니면서 통역 일거리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 한 사람만 특혜성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서 이런 돈들이 골고루…… 뭐 2년 주기로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 중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선택된 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만 특혜성 있게끔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잘 알겠고 그런 사항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청산어린이집 옥상보수가……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몇 페이지……

□ **김재홍 위원**
아, 279페이지요. 보길어린이집 신설…… 보수공사해서 신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완도군입니다.

□ **김재홍 위원**
완도군이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이것은 공립입니다.

□ **김재홍 위원**
아, 그런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80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25개가 있습니다. 25개 중에 군이 설치해서 민간한테 위탁준 것이 공립이 6개,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가 5개소고요. 그다음에 개인…… 법인이 5개, 그다음에 교회 같은 단체가 5개.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5개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세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립하고 그다음에 개인, 민간시설은 국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지금…… 시설비로 편성한 청산, 보길, 고금 우리어린이집은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이것은 개인시설입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4개소로 예산편성을 했고.

말에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이것은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시설은 별도로 개소당 3,000만 원씩 해서 국도, 군비로 해서 9,000만 원. 그러니까 세 가지 분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4개소에 2,000만 원씩 해가지고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예)

그런데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지원을 해주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이것은 민간시설입니다. 법인은 별도로 말에, 하단부에 있는 3,000만 원씩 개소당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시설이 됐더라도…… 이렇게 보면 좀 내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어떻게 봐서는……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민간개인이든 그 시설은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능시설 유지보수로 하는, 해주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시설들도 누수가 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지, 개설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부분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279페이지에 보면 고금 우리어린이집 같은 경우 군에서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공립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외부 마감재가 화재에 아주 취약하고,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계상했고요. 추경 때 (청취불능) 시설비를 추가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곰팡이 때문에 어린이집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27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법인입니까, 아니면 사립입니까? 뭐 어디……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이 부분은 완도군이 작년 현안으로도 직결되어 있는 인구정책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신규로 예산을…… 신규 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했던 내용인데요. 보육교사 종사자 명절휴가비는 우리 25개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전교사한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종사자 교통비 지원은 지금 현재 소안, 노화, 보길, 청산, 금일, 생일 등 그 도서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의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확보해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유능한 교사를 유치하려면 그만큼 정비여건을 확보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부터는 이 사람

들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줘야 만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다가 들어와서 막상 같이 아이를 키울 때도 안심하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명절휴가비하고 교통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 점은 제가 나무라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과정이 어떻게 되겠는지 그런 부분 좀 알고 싶어서 했어요.

그다음에 279쪽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및 교재, 뭐 차량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느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뭐 사립입니까, 국립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전체 다 지원을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1년에 25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을 하고요. 교재교구비도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합니다. 다만, 차량운영비는 현재 차량이 있는 어린이집에, 2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입니다.

□ 허궁희 위원

완도군 전체를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거의 다 차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세 군데는 차량이 없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일부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그렇습니까, 수업료를 받잖아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아니, 없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일부 안 받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전액 학비 지원……

□ 허궁희 위원

전체가? (예)

그러면 지원비 말고는 수입이 없네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데에서도 무슨 수입이 있는데 이런 지원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262페이지, 그 학교폭력이요. 학교폭력에 원스톱지원센터라고 있죠. 그것이…… 각 읍면에서는 학교폭력 혜택을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CYS-NET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 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게 학폭위…… 학교나 경찰을 통해서 청소년상담센터로 넘어오면 전문상담사가 1 대 1 매칭을 해서 그 학교 학생을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심리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학교폭력을 위해서 직원이 나가거나 그렇지 않는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센터운영비고요. 이 운영비 안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이것이 운영비인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더니 완도에서만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이런 것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것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내년부터 더 세밀하게 그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제가 쪽 알아봤더니 읍면으로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고금 같은 데는 파출소 차가 학교 부근에서 이렇게 아침이고 저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저지를 일을 안 저지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한번 꼭 좀 확인해가지고. 읍면에도 애들이 완도보다도 읍면에 애들이 더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집행부 좌석을 보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부분은 국비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일 대 일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아시고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 경찰,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청취 불능)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학교주변 앞 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배……” 하는 주무관 있음)

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챙겨서 하라고 하는 말이고요. 진짜 완도보다는 손이 닿지 않는 읍면을 꼭 좀 챙겨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262페이지, 완도청소년문화의 집 보수공사라고 2,000만 원 있죠. 그것은 해마다 2,000만 원씩 나갑니까, 작년에도 2,000만 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금년에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보일러 교체하고 창틀에…… 누손 부분을 교체했고요. 우선 건물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업이 딱 정해져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이 2,000만 원을 세워놔 가지고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래요, 해마다 이렇게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전체다 한꺼번에 짝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3층에 있는 다목적실 옥상 쪽이 누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천장 부분을 내년도에는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2,0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뭐 성과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수혜를 가지고 따지자면 완도가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특수성 때문에 거의 대부분 완도읍이 주고요. 가까운 신지나 군외에서 클럽활동을 하면 고금, 약산까지도 가능한데요. 여기에는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소득층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청소년문화의 집에 오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럴 만한 뭐 교사라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시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거기에 있는 관리인원이, 지도교사까지 해서 6명이 근무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자격증, 청소년상담자격증부터 해가지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고객만족과 군민중심 맞춤형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억 9,9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억 8,940만 1,000원으로 국비가 1억 7,038만 4,000원, 군비가 12억 1,901만 7,000원이며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는 1,020만 원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299쪽이에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라고 있는데 5,000만 원인데요. 또 앞에 도로명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도로명주소를 정비하는데 5,000만 원이 들 정도로 해마다 이렇게 돈을 씁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도로명주소 간판이 많이 훼손됩니다. 태풍 같은 것이 들어오고 그러면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정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 큰 원주소 간판이 개선된다는 이 말이죠. 그 도로명주소를 그전에 한번 다시 정비한다고 그리고 이름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대로 정착하고 바꾸지는 않으실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지금 바꾼 상태로 그 도로명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훼손이 많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래도 그렇게 도로명주소를 1년에 5,000만 원씩 정비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대로에 있는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있고요. 또 개인들이 집을, 주택을 새로 짓는 다든가 그러면 전부…… 집 주소 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전에 보면 도로명주소가 빠진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하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전부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정비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성자 위원

한번 빠지면 그 뒤로는 설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빨리 안 해줘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 빈집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우리 군에 지금 현재 빈집이 339동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140동 정비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 339동이 있고, 올해 45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동을 마무리했습니다.

339동이 있는데, 빈집들이 대부분 저당이 잡혀져 있는 집들도 있고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집들도 있고, 또 빈집이 있으나 다시 고쳐가지고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물량을 못 늘리고 40에서 50 정도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성자 위원

읍면에 보면 빈집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집을 쓰겠다고 뜯는다고 그러면 허락을 안 해주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요.

빈집정비를 할 때 면에서 이장들한테 그냥 “빈집 있는 것 확인해주라.” 라고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러면 관심이 있는 이장 같으면 도시로 연락해가지고 “저 집은 뜯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냥 눈으로 보고 “저것이다.” 라고 갖다 줘버립니다. 면사무소에다가. 그러면 그 집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뜯을 사람이…… 집이 있어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으로 공문을 내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는 방법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빈집을 많이 정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비에 3,000…… 지금 298쪽입니다. 3,180만 원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동안 추진실적 좀 알고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그것은 우리 지적팀장으로부터 답변을……

□ 이범성 위원

예, 지적팀장님.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당초에…… 지금까지 추진하는 데는 완도하고 군외면, 신지면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남은 곳이 올해 금일, 약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아니,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이 측량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흘러도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없이 그것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예산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잡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할 때 한꺼번에 짝 해버린다는 거, 그런 부분으로는 안 됩니까?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하나만 여쭙볼게요. 297페이지예요, 지적 측량 기준점 현안조사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전년도에도 했는데, 이것 해마다 측량을 합니까, 현안조사를 합니까?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끝났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29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 쪽예요. 지금 전입세대지원금 상품권으로 2,500명이 잡혔습니다, 5만 원씩. 작년에는 몇 명이나 전입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작년에는 1,866세대가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9,185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매년 이렇게 전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보통 1,900세대에서 2,050세대 정도, 매년 그 범주 내에서 전입세대가……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2,500명으로 잡아놨는데

똑같이 2,000명으로 잡으면 안됐었어요? 2,000명 잡아도 많은 것 아닙니까, 2,500명으로 잡은 원인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특히 완도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전입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늘려놨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전입세대에서 공무원들, 선생님들 말고 일반인들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 숫자가 2,000명이 매년 들어온다고 하면 완도의 인구가 엄청 늘어나 버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감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전출이 많이 되어 버리는 실정이고 사망자도 많고 그래서 인구는 사실상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매년 2,500명 전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명 그 밑으로 알고 있었는데 2,500명이 들어와서 ‘과다예산이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해가지고 기존의 것…… 솔직히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1,800명이나 2,000명 정도로만 잡아 줬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실 때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9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산개발비,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대장자료변환관리시스템 고도화 그 8,500만 원 신규로 성립한 품목인데요.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진환입니다. 지금 현재 구대장이 부채식으로, 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열람하는데…… 열람신청을 하게 되면 일일이 책을 넘기면서 열람시켜주거나

발급해 주거든요. 그것을 DB 구축을 해서 전산화해서 영구보존하고 민원인의 발급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몇 년 보관이죠?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영구보존입니다.)

영구보존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기로, 이렇게 책자로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책자로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탈색되거나 그래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관리시스템 고도화는요?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기준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고도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올렸으니까, 고도화를 시킨다고 했으니까 뭐가 있어서 예산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그것에 3,500만 원의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나 구대장자로 변환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나 비용이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예산금액이. 뭐 그래봤자 1,500만 원 차이인데, 새로 하는 것도 5,000만 원인데 관리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고도화 시킨다고 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에요?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구대장자로 변환은……)

전부 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전산화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

서 - 예, 그것을 하게 되면 다 스캔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밑에 고도화, 이것을 한다고 3,500이나 예산을 잡아서……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서버 구입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서버요?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아니, 그 관리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때는 서버가 없었어요?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서버가 있습니다마는 고도화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서버구입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 3,500이 들어간다고요?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나중에 축조심사 때 자세히 한번 보시고 축조심사 때 다시 한번 이것 설명해주세요.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303페이지요. 세입에 있어서 군민주택용 자금 이자수입비가 있고, 또 그밑에 원금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금수입이 1년에 8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용자금을 회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용자금을 해마다 몇 년 거치로 상환을 해

서 회수가 안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현재 완도군 융자금 미회수가요. 총 58동에 8,100만 원 정도 미회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회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수하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에 3동에 690만 원, 올해 3동에 300만 원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한 800만 원 정도 회수하겠다는……

□ 우성자 위원

아니, 그 융자금을 주택자금으로 받아가지고 융자금을 해마다 안 내면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조치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계속 회수하기 위해서 회수반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거주민들이 너무 오래 되고, 또 많이 중간에 죽고 이사를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우성자 위원

주택자금을 받을 때 회수할 방법을 거기에다가…… 뭐 몇 년까지는 팔지 못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약이 없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보증인들도 연대보증인을 다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자한테 못받으면 연대보증인까지……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고, 또 전부 연대보증인까지 압류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정작 융자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그 집을 예를 들어서 저당을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압류분을

값아야 집을 팔고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그러면 다 받고 이사가 버리고, 뭐 죽은 사람은…… 사고로 죽는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집을 안 짓지 않습니까, 대부분.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주택이 77년부터 90년도까지 주로 수혜주택이라든가 국민주택융자금을 받았던 집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연로하고 죽은 사람도 많고, 또 이사가버린 사람도 있고 행불자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주택자금을 대주고 못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후속조치를 취하셔야지, 그냥 놔두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뭐 재산만 있지, 사실 내가 안 받으면 내 돈이 아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아마 결론처분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버리고. 재산만 얼마, 완도군 재산이 얼마라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는……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과장님한테 인수인계하고 가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야무지게 뭐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갚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치를 해놓으셔야 되지. 자금만 받아가지고 살다가 가버리면 끝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작년…… 아니, 올해부터 그랬다고 했죠. 주택자금을 내가 신청해가지고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를 못한다

고 그러셨죠? (예)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질 수 있으면 저야 되는데 못 지게 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아무튼 그것은 결손처리를 하든지 어찌든지 간에 타협해 보시고, 다음에 주택자금을 줄 때는 꼭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된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인 철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09시57분

□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

□ 부의된 안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 문화체육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09시57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액이 129억 8,600여만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2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7,5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보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32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322쪽이요?

□ 이범성 위원

예, 322쪽에 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 공사로 해가지고 9억이 잡혀있죠? (예)

그게 금방 설명할 때는 금당하고 생일하고 두 곳에 전천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 공사하는데…… 체육시설, 하나는 SOC 확충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응모할 때…… 하기 전에, 금당하고 생일에서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이것을 세우려고 돈을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편성요구를 해놨는데 마침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10월에, 9월에, 10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당하고 생일에 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되

어 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당은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한 6억 정도 투자하고요. 그리고 생일은 일반 게이트볼장으로 한 3억 정도로 투자해서 9억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아, 그러면 금일에도 전천후게이트볼장 그 부분 얘기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금일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금일은 금년도 예산에 6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해 놔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하기로 했던 금일에서요, 우리 군유지에다가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분들에게 장소를 옮겨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그 땅이, 옮겨주라고 했던 물양장……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앞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거기에서 국유지로 옮기다 보니까 그 6억을 집행 못했습니다.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 5,000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과되면 그 부지를 매입하고, 금일 건물은 이월된 사업비인 6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똑같이 그게…… 아마 작년도 예산에 전 위원님들이 소안도 6억 책정해 줬는데, 소안은 왜 잘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금일하고 소안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해서 그 돈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이…… 마땅한 부지도 없고, 우리 군과 소안면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그러면 나중에 부지를,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면 그때 다시 건의하겠다. 그러면 군이 다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요. 그 돈을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이전 7월 2회 추경 때 그 돈을 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금일은 계속 이월시켜 가지고 연장을 시켜주고 또 소안은 얘기가 됐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고, 그것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 좀…… 다음에 부지가……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서 소안도 고등학교 매입 건이 있으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형평성을 잘 맞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313쪽……

□ 이범성 위원

기획 초청 공연행사. 제가 지금 완도군에 와 가지고 제일 소모성 경비라고 할까요. 뭐 가수를 초청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증액되어 가요, 증액. 이런 소모성 경비는 좀 절감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이런 초청가수 행사를 잡고, 또 한편으로는 토요일싱싱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실은 얼마 주고 콘서트를 한 다든가, 또 가을여행축제를 한다든가 해놓고

다 다른 부서로 해서 모든…… 같이 군비를 쓰다보니까 군비가 계속…… 어떻게 보면 예산만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 기획 초청 공연행사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 얘기 좀 해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예술의 전당을 만들었잖아요. 각종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문화 향수도, 수도 전부 감안해서 각종 공연의 횟수를 조금 조금씩 늘려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소모성, 쓰고 없어지고 그런 낭비성,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절약을 하고 아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뭘 방파제, 물양장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고 인프라가 생긴 이 시점에서는 정신적인 그런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군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전당도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장에서 각종 공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5억 정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종…… 방금 말씀하신 기획 초청, 대중가요, 그다음에 작은 문화예술 공연, 이런 전체적인 공연으로 6회 이상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문화예술복지, 그런 쪽에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공연 횟수를 늘리고, 많이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횟수를 좀 늘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연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획 초청 공연행사, 대중가요, 그다음에 뮤지컬, 연극, 이런 부분은 분야별로 좀 나눠서, 이 돈을 찢어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각종 기획사하고 연계해서 1년 치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월별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 이범성 위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돈이 조금씩 모아지면 많은 돈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설명하실 때 기획 초청 공연행사들을 수산물축제에도 반영을 시킨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금년 같은 경우에, 5월에 수산물축제 폐막식을 할 때 그 공연프로그램 안에다가…… 물론 수산축제 관련은 관광과에 별도 예산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돈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저희들 문화예술 공연 행사비로 그런 공연을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거기 공연을 저희들이 주최해서 공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잘 알겠고요.

30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09쪽에 해양치유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갖고 있는데, 지금 민선7기 군수님이 와 가지고 해양치유산업에 대단히 열성을 기울이고 전세계인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하는데요.

문화체육과가 일할 것도 많고 체육 전지훈련이랄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치유과로 넘겨줄 수는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해양치유산업과에 관련예산이 들어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해도 되고, 거기에 예산이 안 들어있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핵심내용이 평생교육을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

□ 이범성 위원

아니, 다른 평생교육하기에도 벅차잖아요.

그런데 해양치유산업과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러면 평생교육이랄까, 치유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도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입니다.

□ 이범성 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치유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6쪽하고 317쪽 좀 봐보십시오. 지금 316쪽에는 묘당도 이충무공 전시관 및 주차장 부지매입, 그것 얼마 정도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316쪽이요. 그 시설비에 묘당도 이충무공 전시관 부지매입, 이것은 6필지 688평으로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600……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688평. 6필지 688평을 매입해서 주변 일대에 주차장으로 만들고 또 유희공간에 충무공 전시관,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85억 중에 전시관을 만드는 비용이 50억입니다. 50억짜리 전시관을 만들고 거기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6필지 688평을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1,000만 원.

□ 이범성 위원

이 부분 부지는 매입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부지매입을 하려고……

□ 이범성 위원

아니, 하려고 하는데 얘기는 다 되어 있나
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대부분 그분들이 다 팔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이요,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
314쪽에서 장보고유적 해외 벤치마킹(중국).
수없이 보냈죠, 중국?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 것 같은데. 법화
사지에 저도 한 5번인가 갔다 온 것 같습니
다. 아, 개인적으로 간 일인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안 가신 분들도 많이……

□ 이범성 위원

이것은 좀 안 간 사람들로 해서 하고, 장
보고연구회사람들은 여러 번 갔다 왔으면 다
른 과정을 가지고 가야지. 이것 예산을
50%, 50%로 해가지고 군비 50%하고 자담
50%라고 해가지고 연구회에서만 그렇게 가
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잘 챙
겨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체크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일반 군민들이 다녀올 수 있는 방향성이랄
까,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307쪽, 민간인 완도군 평생교육원 위탁교
육비(전남대, 목포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2개 학교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 지금 저희들이 쪽 수년전부터 국립
대…… 전대하고 목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평생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립대에
다가.

□ 김양훈 위원

그래서 국립대에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매년 위탁교육비를 주고 프로그램 강좌료
를…… 60개 강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데, 그 세부 강좌별로 정산서를 다 받습니
다.

□ 김양훈 위원

아니, 정산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
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해에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강좌는 그다음에 운
영할 때 폐강을 하고 또 새로운 부분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부분
“평생교육을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알차고
좋게 하느냐.” 라는 이런 얘기를…… “어떻
게 보면 쓸데없는 것도 많이 한다.” 라는 이
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진짜
주민들과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교
육으로 좀 바뀌셨으면 해서…… 예산은 많

은데 그냥 강사 분들만 왔다가 버리면, 강사 혼자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계획을 좀 잘 잡아서 해주시고요, 예산은 많은데 잘 잡아서 해주고.

다른 쪽을 좀 보려고 합니다. 310쪽이요, 신흥사에서 완도 연등축제,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매년 신흥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할 때 경비를 해마다 2,0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처님 오신 날, 신흥사에다가 연등 그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돈입니다.

□ 김양훈 위원

만약에 다른 절에서 이렇게 자금을 요청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그게 고민입니다. 한번 이 예산이 해마다 지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매년 지원되고 있고요. 한번 주다가 안 주면 좀 골치가 아픡니다.

□ 김양훈 위원

그렇게 되면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 아닙니까. 사찰이 완도에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절에서 모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전부다 이렇게…… “우리도 지원해 주시오.”, “누구는 해줬는데 해주시오.” 라고 그러면 그때는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등축제 관계는…… 뭘니까, 종교적인 문제이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 절은 지원해 주고 교회는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연등행사 관계는 우리가 문화행사로 봐야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신흥사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완도에 있는 절들, 그러니까…… 산학연합회라고 하죠. (청취불능) 이렇게 연합에서 행사를…… 각 절마다 신도들이 별도로 있는데, 그분들 연합회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작년 예산에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단체하고 비교…… 형평성을 비교해 보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에 지원해 드린 것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문화체육과의 업무 자체가 종교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명분이 있고, 또 군의회에서 동의를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특정하게 신흥사만의 행사가 아닌 문화행사로써 저기 중앙정부…… 중앙에 봐도 문체부의 지원을 받은 조계종인가요. 거기에서 문화행사로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흥사 주지스님께서 완도 절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찰에서도 연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뭐라고 하나면 “연등축제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도 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도 답을 못하거든요.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데 또 그쪽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1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완도 상장의 노래 창작 1억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를 들면 주변에서 많이 대중가요를 접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칠갑산 노래도 있고, 여수밤바다라는 노래도 있고.

□ 김양훈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런 부분은, 칠갑산이나 여수밤바다는 시에서 지원해서 해 준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들렀다가 작곡해서 이렇게 만든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노래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전에 완도창가 같은 것도 있었죠? (예)

왜 그런 것은 계속 안하고 새로 작곡을 하는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완도창가는 일반대중들이 흥미를 느끼고, 또 홍보가 되고 이게 또…… 음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부분이 안 된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그런 노래처럼 완도를 알릴 수 있게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해서, 이 부분에 지명도도 있는 가수를 통해서 대중가요를 확산시켜서…… 완도를 홍보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만약 그 노래도 홍보가 안 되고 안 불러지면요, 안 불러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이제……

□ 김양훈 위원

모든 노래가 다 성공할 수 있고, 또 모든 노래가 전부다 홍보용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어느 작가 분이 있으면…… 우리 완도에 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완도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봐라. 돈이 문제고 아니고, 돈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한번 그분들한테 그래도 완도사람이니까 완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너희가 짜봐라, 이런 식으로 가야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완도출신 가수인 바다나 거미나, 이런 지명도 있는 가수에게 접촉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고 더 인기를 끌 수 있도록 접촉을 하면서요. 작사, 작곡 비용이나, 지명도 있는 가수들의 급에 맞춰서 비용을 산정하다 보니까 1억 이상이 나옵니다. 1억도 부족한 돈인데.

우선은 그래도 완도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노래…… 대중가요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이지만 완도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면서 완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과장님, 노래…… 곡목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공모를 하십시오, 완도군에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공모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냥 노래 작곡 좋게 하나 만들면 상금 50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1등 당선자한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1억이나 들어가지고……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온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또 완도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노래 가사, 작곡을 해서 대중가요화해서 완도를 알릴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 김양훈 위원

과장님,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 생각에 이것은요,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최경주 재단 하계캠프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한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최경주 선수라고 하면 다 알아주는 선수인데 이렇게 실비…… 오신 분들에게 실비보상까지 해주면서 하계캠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청취불능) 이런 돈 2,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완도지역 관광도 하고 완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부분 최경주재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자기들이 자비를 들어서 하는데. 그런데 일부 이것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한번 봐주십시오. 완도 야구장 외야 LED스포츠 조명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금년에 야구장 내야. 내야 쪽에는 금년에 3억을 들여 가지고 조명시설 4개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외야 쪽에, 바깥쪽 외야 쪽에 조명시설이 없어서 외야 쪽에 2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2억 2,400만원.

□ 김양훈 위원

조명시설을 한다는 소리는 야간경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간경기 얼마나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어차피 전지훈련 유치를 하고 그리고 또 일정규모의 시설은…… 기본 틀은 좀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잔디도 외야 쪽에 안 깔려져 있고, 또 이런 조명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각종 프로그램…… 경기 시합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최소한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외야 잔디하고 또 조명시설……

□ 김양훈 위원

외야 잔디 조성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가 전부 다 풀밭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안 하는지 풀이 많이 길어서 전부다 풀밭이 되었던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인정하겠는 데.

지금 야구장 하나 가지고 야간경기가 들어간다, 이게 제가 봐서는 역지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야구장 하나입니까? (예)

지금 몇 개 팀이나 들어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전지훈련 관계를……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구장 하나 가지고는 여러 팀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야간경기라도 하겠다는 얘기는 낮에 연습을 좀 하고 저녁에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야구장 하나로 여러 개의 팀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시합을 못합니다. 야간에 거의.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것은 겨울철에 동계전지훈련을 오기 때문에, 올해 3팀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게임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완도군의 야구동호인들이 여름철에는 더워서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을 하고자 이런 건의를 해온 사항들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저도 야구동호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경기는 거의 힘들니다. 동호인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조잔디 조성 같은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LED조명, 이것 야간경기를 하겠다고 해서 외야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그리고 왜 그러냐면 주위 인근 사람들이요. 야간에 야구장은 조명이 높습니다. 주위 인근사람들의 민원 바로 1번입니다, 1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09페이지요, 아까 우리 이범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해양치유 홍보요. 이것은 과장님 오전부터, 오전 다 잡아먹으면서 이

설명 하나만 하려고 해도 이 많은 업무에…… 해양치유는 사실 한 2~3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은 진짜 거기에 넘겨야지, 어떻게 보면 반복예산을 잡아놓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에 같이 연관해서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필요하다면……

□ 최정욱 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연계해서 잡으면 되지, 이것을 이쪽 잡고 이쪽 부서로 잡고 이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이지. 이렇게 업무가 많아가지고 오전 내내 설명해도 다 못하면서 저기는 업무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보내십시오, 이것은.

311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해가지고 대강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감액사유하고 지역 문화예술사업 진흥에 대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있는 문화예술단체 활동, 또……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전승사업 한 7,000만 원 감액되

었는데 그 이유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7,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요?

□ 최정욱 위원

그 전통 진흥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안 맞는 예산과목이 있어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그 성격이 안 맞는다면 어떤 내용이나고요.

(“전통문화는 어느 정도 등록된 단체 위주로 지원을 하고, 그전에는 일반행사도 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된 단체한테 지원하려고 감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전통 지정된……

(“예, (청취불능) 이런 분야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눠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른 분야로는 늘어났고 지역 문화예술로는 전통문화를 좀……” 하는 주무관 있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항목을, 안 맞는 항목을 조정해서……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안 짜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눴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은 감된 것은 아닙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그 2억 8,000 중에는 이번에 새로

운 단체도 다 받을 수 있네요, 신청을 하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공모사업을…… 공모로 해가지고 하니까 사업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정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짜진 것은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1월에 할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전지훈련에 대해서요, 324페이지요. 전지훈련 계속 이렇게 같이 그쪽하고 섭외를 하고 그러죠. 어떤 식으로 보통 섭외를……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매년 온 팀들 위주로 선별을 합니다. 물론 새롭게 오신 팀들도 있지만 지금 전지훈련 관계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다른 시군, 다른 타 지자체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매년 왔던 팀들, 테니스나 축구, 농구로 해서 단체들을 전부 접촉하고요. 저하고 실무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많은 팀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팀을…… 금년에는 27팀에 451명 5개 정도로 축구, 야구, 역도, 테니스, 농구로 해가지고 5개 종목에 27개 팀에 451명을 유치했는데요. 내년에 확정된 유치팀은 45팀에 775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이렇게 오신 팀들을 관리를 저희들이 꾸준히 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그 다음 년도에도 계속 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 최정욱 위원

뭐 섭외할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분들이 오면 환영행사까지. 예산서에 쫓나와 있었습니다마는 환영행사가 있고, 또 각 팀들간 리그전, 축구경기나 테니스경기라든지 경기를 해가지고 상금을 이렇게 정해서 각 팀별로 한 팀도 안 받게끔 상금을 주게끔 이렇게 예산을 조정……

□ 허궁희 위원

주로 시상금, 그런 것으로 해서 감독이나 코치들에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어때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전지훈련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팀이 46팀 정도 왔어요, 그래서 600명 정도 왔는데, 금년에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한 450명 정도, 5개 종목에 45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엄청 큼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엔 오기로 한 45팀에 775명은 실제 선수하고 임원들입니다. 그러면 선수하고 임원들이 775명이면 거기에 곱하기 2는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 2주, 3주 동안 뭐 많게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먹고 자고 하니까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그 전지훈련하러 왔을 때 경기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많이 떨어진다 는 그런 말도 있어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떨어져서 내년도 10월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순회를 하면서 팀들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한 72% 정도 늘어난 그런 팀을 확정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경기에, 완도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319페이지에 보면 법화사지 정밀발굴 용역 3차라고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법화사지 발굴을…… 저희들이 작년에 1차 발굴을 하고 금년에 2차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차 발굴을 할 때는 유물이 조금 영향력 있는, 말 그대로 중요한 유물들이 덜 나왔어요. 그래서 군비로 추진을 했고 금년에 하는 과정에 통일신라 관련 유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 예산에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2차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차 발굴을 하는데 전체 면적에…… 그 전체 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싹 후딱 해서 1년에 다 발굴해 버리면 좋을 텐데, 문화재 관련…… 일정 부분 정해 줍니다. 면적한도를. 그래서 그 면적한도를 초과해서 그 해에 발굴하고 시굴하는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합니다. 정밀발굴해서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딱 정해줍니다. 그 부분만큼만 발굴해라, 그러면서 그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면적을 나누다 보니까 3회에 걸쳐서 추진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년엔 조금 남아있는…… 2,000제곱미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만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게 해서 3차라는 표기를 한 것인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양훈 씨가 말한 완도의 상징노래,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 이범성 위원 의석에서 - 311쪽입니다.)

이게 지금 완도의 상징노래라고 해서 가수를 이용해서 완도의 관광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죠. 그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1억 가지고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부족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 부족하면 왜 세워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도 우선은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 최정욱 위원

아니, 시도가 방금 말한 그 취지에 맞게 한다면 가수가, 적어도 이름이 있는 가수가 히트곡을 내려면 완도의 상징된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하면 그 가수 1억 가지고 섭외 어렵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세우냐는 얘기에요. 이것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김양훈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렇게 가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금방 말한 홍보 취지는 참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짜서 제대로 해야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유명한 작사나 유명한 작곡가에게 작사, 작곡을 해주라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음반 취입을 해서 유명한, 지명도 있는 가수에게 부르게 하게끔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정도만 세워서 작사, 작곡을 하고, 가수도 우리 완도 출

신…… 지명도 있는 거미나 이런 유명한 가수가 완도 출신이기 때문에 가서 부탁을 하고, 완도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려고 한다고……

□ 최정욱 위원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1억을 세운 것입니다. 적은 비용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도…… 지명이 있는 완도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이 상징노래로 히트를 칠 수가 없어요. 아주 이름 있는 가수들을 불러도 과연 히트가 될까 말까 하는 것이 거든요. 우리가 취지라고 하는 말은…… 과장님이 취지라고 한 말은 히트를 했을 때 관광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짜서 정당하게 해야지. 1억, 이것을 짜봤자 어설픈데 그렇게 하면 돈만 날리는…… 오히려 노래를 불러도 효과도 없고 실패만 되는 것이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을 세우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한번 히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은 진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만 던져버리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제대로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시도는 좋은데 시도를 어설픈데 하면 돈만 던져버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가수가 노래를 해서 히트를 쳤을 때

우리 완도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안동역 같이, 그렇게 되니까 안동역 이름이 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완도의 일반가수들이 불려가지고 TV나 어디에 히트를 안 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돈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우선 세워주시면 그 돈하고 추경하고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다음에……

□ 최정욱 위원

해보세요. 진짜 가수들한테 해보라고 하면 자기들도 쉽게 안 해요, 돈을 줘도.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버릴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양훈이 위원 말대로 그냥 간단히 그렇게 해야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식사는 잘 하셨죠? (예)

323쪽을 보면 보길 체육공원 부지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 4,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네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러겠습니다.

보길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금년에 4억을 편성해서 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을 하다 보니까 부지 조성을…… 이 돈을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이. 그래서 내년에 2억 5,000을 합쳐서 6억 5,000을 가지고 부지 조성…… 아니, 기반 조성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 생활SOC 확충사업 그 국비 공모사업에다가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요, 체육시설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 필요한데 그 사업비는 국비를 따다가 조성할 계획이고요. 거기 조성을 축구장하고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이나 이런 시설에 10억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 10억을 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기반조성 부분이 마무리가 좀 덜 되어서 2억 5,000을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타 읍면도 이런 운동시설들을 다 요구할 것이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지역에다가 큰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라고 해야 될까, 선심성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읍면마다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독 보길도가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고.

그런데 그 경로복지시설은 다 마을마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체육을 한다거나 여가를 활용해서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요. 3년 전인가 보길번영회에서 군수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어디에다가 운동장을…… 노화에는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보길면민들이 노화에 가서 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길도 내에 있어야 되는데, 번영회 차원에서 부지 두 군데인가 이렇게 물색해서 여기다가 만들라고 해가지고요. 검토한 결과, 여기는 아니라고 문화체육과장 시절에 현장 확인을 거쳐서요. 보길도 중간에 있어야지, 중앙에 있어야지. 동부, 서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넘어가면 (청취불능) 부항리 그 들녘, 거기를 지금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길면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당신들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는 데에 협조해서 번영회 차원에서 매입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해야겠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324쪽을 보면요, 역도실업선수 영입비가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지역…… 지금 군대에 가서 군대에 가기 위해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역도선수가 4명 있고 감독까지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역도선수 네 분 중에 한 사람이 금년 12월 말까지만 완도군 소속

팀으로 활동을 하고 운동선수를 하지 않고 별도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겠다고 해서, 그 선수가 빠져나갑니다. 그 대신에 한 사람을 저희들이 영입합니다. 그런데 여자선수가 영입되기로 결정되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영입비용인데 그 선수에게 다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5,000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 선수가 중간 중간에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영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세워놓은 돈이고요. 이 비용은 나중에 그 선수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데려오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310쪽하고 311쪽을 보면 문화원시설 유지비하고 운영비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문화원은 시설물이 완도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손되고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는 상위법령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운영비를 지급하는……

□ 허궁희 위원

아니, 큰돈은 아닌데 왜 별도로 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31쪽을 보면요, 읍면 운동기구 시설비가 있어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감사 때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읍면은 한 20개가 넘는 지역이 있고 아주 적은 마을은…… 아니, 읍면은 5개인가 뭐 이렇게 편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구비례도 제가 나름대로 해봐도 안 맞고,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시설이더라는 애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배정해서 그런 현상이 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

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금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어떻게 예산이 해당 읍면에 배정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아마 이럴 것입니다. 여건 변화…… 인구수도 비례, 감안해서 큰 읍면은 좀 더 하고 작은 읍면은 적게 하고 그랬을 것 같고, 또 인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돌아오는…… 해당 마을에 애들이 있는데 놀이시설이 없고 그래서 특정지역에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차등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롭게 문화체육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읍면의 체육시설 관계를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리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수리하고, 또 새롭게 수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취불능) 또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를 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제가 이 부분은…… 새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 이것을 조금만, 시설비에서 10분의 1만 투자해도 굉장히 깨끗한 시설기구가 되겠더라고요. 이게 큰돈 안 들입니다.

현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쪽 둘러보니까…… 몇 개 읍면을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정말 손도 대기 싫을 정도로 부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시설은 해봤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곳에도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할 때 여러 마을을 이렇게 아울러서 쓸 수 있는 곳에 우선권을 주고, 제 생각에는, 마을이 적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 순위로 그

런 곳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읍면에다가 수리비를 조금씩 내려 주면요, (청취불능) 문질러 가지고 하얀색이면 하얀색, 페인트만 칠하면 정말 보기도 좋고, 미관상도 좋고 돈은 절감되고, 이런 구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2페이지, 시설비에 읍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정비 사업비로 1억 4,000을 세워둔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331페이지. 공연뮤지컬이 3,500으로 잡혀있는데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어디 말씀이십니까?

□ 우성자 위원

313페이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313페이지요?

□ 우성자 위원

예, 공연 및 뮤지컬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공연 해가지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예술공연 일반운영비

□ 우성자 위원

예, 공연, 뮤지컬, 연극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공연, 뮤지컬, 연극, 음악행사 3,500.

□ 우성자 위원

여기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은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모든 공연은,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입장권이 우리 군민들에게 돈을 받을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저렴하게 5,000원에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완도 군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러니까 입장권으로 판매해도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죠. 이 공연을 하기 위한 기획사 하고 연계해서 가수…… 그래서 공연하는 그 비용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군민들에게 공짜로 무료로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한 사람당 5,000원 입장권으로 발행해서 5,000원씩 받아서 사전에 표를 판매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입장권은 읍면으로 어떤 홍보를 하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주간신문에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티켓을 2주 전에 현장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요. 전화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이 입장권을 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노사연 씨 공

연 왔을 때도……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군민들은 공연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5,000원짜리 티켓을 판매하는데 전화 다섯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기 접속이 되면 판매가 되는 것이고, 또 시도를 해도 계속 통화 중이고 접속이 안 되면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인터넷 판매도 장단점이 있고 전화 판매도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제일 나은 것이 현재 우리가 시행, 추진하고 있는 전화 판매가 그나마 제일 나은 방법이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즉석에서 판매하지 않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현장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현장 판매를 하면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을 안다고 해가지고 표를 20~30매씩 이렇게 막 가져가버리고 엄청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공연을 할 때마다 머리 아파죽겠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완도읍민들이 제일 먼저 사가지 않겠습니까, 현장 판매를 하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장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런 점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도 노사연 씨 공연도 한 번 보

려고 했는데 표를 못 구해가지고 못 봤거든요. 그런 경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판매도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그러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무튼 그런 공연을 하실 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적극 반영, 홍보를……

□ 우성자 위원

예, 홍보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름이 있는 분이 완도에 와 가지고 문화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 텐트 임대료…… 한다고 했는데 전지훈련을 해마다 안 가나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해마다 갑니다.

□ 우성자 위원

그렇게 해마다 가는데 텐트 임대료를……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외지에서 온 팀들, 완도로 온 팀들. 선수 들하고 또 학부모들이 따라오거든요. 학부모 들이 지켜보는데 바람막이 이렇게 겹해서 텐트……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른 것이 아니고 완도로 오는 팀들을 위해서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완도로 온 팀들.

□ 우성자 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우성자 위원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 전지훈련을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텐트를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사가지고…… 물론 우리 군 세무회계과에서 자산취득비로 공용으로 갖고 있는 텐트들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그때그때 텐트가 필요해서 여분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저희가 임대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전지훈련을 여러 사람이 왔을 때는…… 그럴 때는 임대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쓴다는 이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여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요.

□ 우성자 위원

나는 항상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수영장 회원관리비로 2,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 회원관리를 하는데 2,000만 원, 무슨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나 궁금해서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여기는 회원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전산으로. 옛날에는 수기로 명부를 관리해 가지고 회원인지 아닌지 관리하고 회원이면 입장료 할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게 2,000만 원짜리…… 기계를 구입한다는 이 말이죠, 시스템 기계를?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요즘 다 전산으로 연동되어서 전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가격을 다 미리 알아보고 여기다 예산을 세우시는 것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수영장이 전남도 내에 10개 시군에 수영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짓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지금 우리와 엇비슷한 규모로 지어져 있는 시군 2~3개 시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이라든지 또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소독제라든지 청소관리비품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벤치마킹했고.

그리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청취불능)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 70~80% 정도 밖에 예산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4억 5,334만 2,000원입니다. 2017년 대비 3억 9,08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직불금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축산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이요, 인건비 부분예요. 보니까 8,9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대체 무슨 관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414페이지 말입니까?

□ 김재홍 위원

414페이지, 청산면 경관작물 관리 인건비.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작년보다도, 지금 작년에는…… 올해는 봄, 가을만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꽃피는 청산, 보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약간 상향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인데 1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는 얘데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작년…… 올해 같으면 유채하고 코스모스만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색채경관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름 꽃하고 겨울 꽃까지 심다보니까 인건비가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뭐 한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된 것 같아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설명을 잘하십시오. 올해 보길도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올해 보길도 것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작년에 빠졌다가……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 작년에는 보길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길도가 들어와서…… 내년에 보길도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 김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이요, 지금 완도산 농산물 활용 가공용품 개발용역인데, 이 용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400……

□ 김재홍 위원

421쪽이요, 연구용역비.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한 32농가 정도 되거든요. 아로니아가 위에서 과다생산을 하다 보니까 아로니아가 지금 청산에서 판로가 없어가지고 가공품으로 해가지고 젤리라든가 즙 등을 가공상품을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으로 해가지고.

□ 김재홍 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지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농산물 소형 저온창고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네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전년도에…… 추경에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에 안 했고 추경에 한 172대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그런데 60대 하고 그다음 77동 정도를 올해 사업비로 했고,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172대……

□ 김재홍 위원

아, 추경에 했었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올해…… 작년은 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그 수산과에서도 많이 나

가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수산과는 지금…… 우리는 3평짜리거든요, 3평짜리를 하고, 수산은 10평짜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300만 원…… 보조 300만 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414쪽 그리고 415쪽에 경관작물 직불금을 주는데요, 퇴비도 주고 꽃 종묘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직불금은, 청산 같은 경우는 밭을 빌려가지고 직불금만 농가들한테 주고 밭을 빌려가지고 하는 형태로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직불금을 주고, 직불금을 주는 대신에 농가들한테 우리가 인건비로 해서…… 관리하면서 심고 있는 사항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때 고금에서는 저도 경관…… 유채를 심어봤거든요. 그럴 때 직불금만 받았지, 이런 대금을 받아본 사실이 없어 가지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청산은 관광지로 해가지고 특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아는 사람은 그런 것

도 다 대여해 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직불금만 받고 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경관작물 직불금을 받으려면 12헥타르 정도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집단적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12헥타르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 우성자 위원

저는 몇 헥타르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 다마는 시내 쪽에 노는 땅을 보기 싫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장, 단장할 때 유채를 받았는데요, 너무 풀이 많이 있는 밭을 하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오히려 적자가 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뭐 인체에 (청취불능) 막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많이는 안했지만 계속 각 읍면에서도 이런 것 을…… 그런 경우에는 같이 이런 퇴비라든가 어느 정도……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저희들이 많이 하려면…… 이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누구를 줬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소외되지 않게…… 누구든지 경관작물을 하려면 노는 땅이 많이 있으니까 종묘도 해주고, 해드린다고 하면 직불금을 받고 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비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 추정 때? (예)

그랬는데 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과연 그 집이 몇 집이나 사용을 했는지, 혹시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 우성자 위원

그런데 그 거대한 한옥 집을 지어가지고 청학리에다가 그것을 놔두고, 1년에 몇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그런데 허술해 가지고…… 군에서, 군 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다고 그 집을 지어놓고 가보니까 겉은 멀쩡하게 한옥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구멍이 있어 가지고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집을 갔을 때,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양쪽으로 두 집이 살림을 할 수 있게끔 냉장고를 설치해 놓고 에어컨도 설치해 놓고, 그것을 저도 확인했는데요. 과연 이 집을 1년 동안에 몇 집이나 여기 와서 살고 있고, 과연 이 집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장님한테 그 집을 이용하는 활용도를 알아봐주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받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 1년에 몇 사람이 사용하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확인해 가지고, 그 건물이 군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돈을 들이고, 누가 거기에 와서 살면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면 형편상 한두 달 살다가…… 그 집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신 것 같더라

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청학리에다가 집을 지어주고 “너 세 받아먹어라.” 라고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잘 검토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과장님, 검토하셔서 가지고 다음에 물어볼 때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419쪽 재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친환경…… 유기농 농어민 농자재 구입비 말씀이십니까?

□ 김양훈 위원

예.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3,000만 원인데, 친환경 유자농가에 올해 유자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친환경재배 유자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라든가 필요한 재재를 공급하려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농자재가 아니고 비료 쪽이 예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유기질비료라든가 친환경 재재…… 농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농자재로……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자재, 농약이라든가 비료가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밑에 종이멀칭 지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 친환경농가인데 종이멀칭…… 논둑에 풀이 많이 나니까 잡초를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농가들이 하소연을 해서요. 이번에는 논둑길에 잡초가 안 나게 하기 위한 잡초방제용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종이멀칭은 1년용입니까, 아니면……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일회용인데 1년만 이렇게 해놓으면…… 오래 놔두면 허니까 일회용으로 하고 몇 년 전에 장기적으로 해봤더니 완전히 다 부식되어가지고 다 꺼지니까 일회용으로 지금……

□ 김양훈 위원

지금 헥타르 수가 10헥타르밖에 아닌데.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해봤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먼저 우선순위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42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쪽에요. 자연그

대로 감귤 명품화사업하고 그 밑에 파풍망,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파풍망은 유자가 지대성이 아니라 (청취불능) 바람이 불면 많이 자빠집니다, 감귤은 많이 자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풍 때 감귤이 안 자빠지게, 나무가 안 자빠지게…… 바람막이입니다, 바람막이.

□ 김양훈 위원

그 외에 묘목이 소안 쪽이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소안하고 지금 받아가지고…… 보길, 노화, 청산까지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청취불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게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감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감귤을 저희들이 지원한지는 거의 한 2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원한 적이 없고요, 한 2년……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뭐 이런 것이 좀 나왔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소안감귤은 수확하면 판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당도라든가 아니면 저장성이나 품질이 입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 입증자료는 있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직 자료는 우리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주감귤과 비교했을 때 당도라든가 저장성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 김양훈 위원

자료는 없고 그냥 먹어봐서 안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 200M밖에 아닌데……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마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415페이지요, 농촌 아이돌봄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했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일부러 교육시설을 넣었는데요. 녀도 어린이집하고 금당 옥토어린이집 2개소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디 센터가 있는가요, 거기에?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녀도 어린이집하고 금당 어린이집만 섬으로 되어가지고 거기 두 군데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네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거기는 운영비라든가 교육사 활동비라

든가 그런 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혹시 군에서 또 다른 데에서 복지……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것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순국비라…… 낙도 섬, 거기 두 군데만 지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전부터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그렇습니다. 순국비로 해가지고 지정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 체도권이 나 육지부는 아니고요.

□ 최정욱 위원

녀도하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녀도하고 금당 옥토어린이집하고요. 노화 녀도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요, 완도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아로니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32농가가 되는데 올해 수확해 가지고 판로가…… 위에서 아로니아가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완도 것이 좀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고충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공상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판매하려고 농가가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좀 재고가 큰 공판장이나 그런 것이 있어가

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젤리라든가 즙 등을 가공해서 시범적으로 하계끔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니, 신제품이 나오게 돼서…… 그것 한번만 해주면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내년에 한 번 해주면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만 지원해주면 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뭐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자면 가공기계를 한다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니, 가공기계는 아니고……

□ 최정욱 위원

용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용역인데,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있는 해양바이오센터에다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 일부하고, 거기에 대한 제품, 우리가 생산품을 줘가지고 제품을 뽑아오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용역이 아니구면요, 실제 어떻게 보면 아로니아를 해양생물단지에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상품화를……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상품을 좀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장지나 이런……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제품을 연구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를 저희들이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왜 이것을 용역이라고 해놨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일부용역 형태로 계약하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해놨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432페이지요, 바이오기능수 설치 농가 필터교체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저희들이 이것이 당초에는 700만 원, 500만 원 선에서 저희들이 5년 동안 필터를 교체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말썽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3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3년까지만 하고 그 후로는 그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내년까지만 공급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농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올해는 얼마 했던가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올해는 72대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 그러면 농민들이 알고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저희들은 축산농가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 솔직히 실패한 것이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축산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저희들이 시험 실증까지 아직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장에다가 시험실증을 했는데 그런 대로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이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농업기술센터는 작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축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 여기는 축산 농가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축산 농가만 해주고 농업기술센터는 작물재배 농가에 해주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433페이지요, 강진완도축협 TMR 사료포장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온 것이요, 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지원근거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올해……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몇 년 전까지 하다가 올해, 작년에…… 그 작년까지 하다가 작년에 이것을 (청취불능) 매년 사료포장재, 거기에 대한 포장재 값을 제외하고 사료를 공급하거든요, 다른 데에 지원해 주면, 그런데 농가들이 왜 안 해주냐고 해도 축산 농가들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빠져 버렸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강진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강진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414쪽을 봐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선정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농어업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만큼 그 여건으로만 주는? (예, 그렇습

니다)

그러면 일단 뭐 설명은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신청을 하면 제외된 학교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학생이 있다면 완도군 전체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그것이 조금 의문스러워가지고.

그다음에는 416쪽이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그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작년에 녹색농촌…… 3개인데, 지금 청학동이 빠져 있거든요. 작년에 4개를 지원했는데, 올해 청학동……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는 청학동이 빠져 있는데 내년에는 청학동까지 들어가서, 청학동 전산입력이 잘못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못주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산……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사후가 되려면 그것한 군데라서…… 추가될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방금 우성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 이범성 위원

이 과정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실적도 좀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전산입력이 다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저희

들이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로 해가지고 도에서 확인해 가지고……

□ 이범성 위원

관리를 도에서 한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인건비를 주고 이런 것은 도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 도비가 들어가서 도에서 한다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국도비가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농식품이라든가 도에서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산입력이 들어갔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부분들 시간이 나시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그 실적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16쪽이요, 자치단체출연금. 이것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받았습니까?

(집행부 좌석을 보며)

이것 예산계에 올라왔습니까, 이번예? 출자출연, 이것 안 올라온 것 같은데……

(□ 주무관 이인석 집행부 좌석에서 -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라……)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자치단체 간 그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출연금은 잘못된 것이고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자체…… 22개 시군 전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부담금인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 예산제,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부담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2019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국비 36억 5,639만 3,000원, 군특 21억 2,100만 원, 기금 1,851만 1,000원, 도비 9억 7,854만 1,000원, 군비 120억 3,767만 8,000원 중 총 188억 1,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

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442쪽, 신지 명사갯길 연장 개설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442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동고리에서 석화포까지 구간입니다. 이 사업은 동고리에서 석화포 평지, 그 구간으로서 국립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화포에서 동고리까지 14km 구간에 대해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올해 하는 사업에 이어서 내년 사업으로 국비, 군비를 합해서 총 사업비 8,000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리고요, 443쪽에 전기차 구매지원, 그 부분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고, 지금 완도군에 구입된 전기차가 몇 대가 있으며,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구입비는 많은데 그런 활용도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이것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민간에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2017년도에는 관용차로 1대, 2018년도에는 관용차로 10대, 그리고 2019년 계획에 10대인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권장사항으로

“이 정도는 구입해라.” 라고 하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방문보건팀들, 환경지도, 그리고 각 읍면에 관용차량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 올해 10대, 내년 10대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기충전소가 문제되어 가지고 고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지금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법성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군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충전소가 없어서 그러는지 보건소에 가면…… 내가 봤을 때는 한 달 내내 안 타는 차도 있는 것 같은데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법성 위원

그 부분들 명확하게…… 군비가 들어가고 국가에서 국비만 줘가지고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군비도 그만큼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떤 부분들은 디젤차를 안타게끔 한다든가. 우선 충전하기 힘들다고 그러다고 디젤차가 눈에 보이니까 디젤차만 타고 다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내가 사진을 계속 찍으려다가 안 찍었어요, 그 차가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돈이 들어간 만큼 활용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뭐 국가에서 시킨다고 국가에 예산은 없는데 막 보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런 차를 이용함으로써 얼마나…… 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예)

442쪽입니다. 442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가 있죠? (예)

그 탄소포인트제가 442쪽이……

(“ 433쪽.” 하는 주무관 있음)

433쪽입니다. 그 탄소포인트제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국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모집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는지 국비 나오는 것을…… 감이 되어 있어서 하는 소리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작년 사업량에……

□ 이법성 위원

탄소포인트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줄여가지고요. 올해 500만 원인데 국비를 타게끔 만들어야지. 전혀 홍보도 안하고 탄소포인트제도 제대로 안 한다는, 반으로 줄여버린다는 소리…… 여건이네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이게 정부에서 계속해서 확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나 일정한 요건이 도달 되면 차차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외적인 홍보차원에서 많은 물량을 줬지만 점점 줄여나가서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탄소포인트제의 운영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줄여나가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마을의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각 읍면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 직원을 통해서 대신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법성 위원

예,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시오.

452쪽에 완도항…… 제일 위쪽입니다. 완도항 물양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여자들을 이용하는지, 남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루에 6만 7,000원인데 3인 해가지고 25일, 25일 동안 근무를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는지 그

런 부분들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시시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이 부분은 완도호텔에서 1부두까지 구간 하고, 다음 반대편에는……

□ **이범성 위원**

이 3인이 완도읍, 거기에서부터……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1부두까지 하고요.

□ **이범성 위원**

1부두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잠깐만요. 1부두까지 하고, 또 반대편 구간이 완도호텔에서 해경부두 (청취불능) 있지 않습니까. 해경부두에서 방파제까지, 그쪽 구간을…… 그러니까 이 전체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3명에서 한 달에 25일 정도 그렇게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3인이 25일 동안 계속 출근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 집행부 좌석에서 - 예, 한 달에 25일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은 차량을 보유하신 분으로 해가지고 수거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3명 중에 1명은 차량을 보유한 (청취불능)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같이 수거하는 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라고 해놓으니까 쓰레기만 주으러 다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화장실까지 같이 청소를 하는지……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 집행부 좌석에서 - 화장실은 별도입니다.)

별도죠?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 부분이 낚시어선이랄까, 아니면 다른 어선에서 내려놓은 그런 쓰레기까지 같이 치웁니까?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 집행부 좌석에서 - 생활쓰레기는 다 수거하고 있는데요. 바다…… 어선들이 가져오는 어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양…… 집하장이, 별도로 물양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재를 해놓고요, 생활폐기물만 이분들이 수거해서 따로 모아놓는……)

이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6,000만 원씩 써가면서 하는…… 제대로 되는지, 그런 쓰레기 처리 부분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해보세요.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이 분들이 생활쓰레기 위주로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인데, 그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441페이지요. 유해조수 대리포획 지원이라고 있어요. 1,000만 원이요, 기타보상금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441페이지, 첫 페이지.

□ **우성자 위원**

첫 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유해조수 대리포획 지원이라고.

(□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 야생동물 관리.)

거기는 일정기간 동안 포획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동절기하고 수확기에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오십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죠?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오십 분인데, 신청해 가지고 실적은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651회 출동해 가지고 멧돼지가 190마리, 고라니가 87마리. 그래서 총 277마리를 포획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포획한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그것 자가소비는 가능합니다, 멧돼지.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판매는 되지 않고 잡은 사람이나 그쪽에 서……

□ 우성자 위원

그분들이 다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주민들이 거기에서 소비를 하든가. 그분들이, 잡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든가. 판매는 되지 않습니다.

□ 우성자 위원

판매는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판매하신지 아닌지 일일이 그것 구분을 못하시잖아

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분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분들이 절대로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각 읍면에 있는가요, 아니면 완도읍에만 있는가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완도읍…… 아니, 각 읍면에 전부 다 있다고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있는 것으로……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행동을 해라.” 라는 지침도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밤을……

(“ 저희들이 총기 허가를 내줄 때 완도경찰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총기 허가를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완도 같은 경우는 섬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파출소에서 승인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사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총을 반납하지 않아도 봐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그것이 아니고요. 총은 하루에 한번 입고, 출고를 해야 됩니다.

□ 우성자 위원

아, 입고, 출고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봐준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저녁에…… 원래 야간사적이 안 되는데 주로 저녁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파출소에서 저녁에 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야간에 많이 나오지, 낮에는 뭐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적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해서 그 처리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마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자가소비가 불가능할 시에는 땅에 파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썩 고기 자체가…… 고기가 질기고 맛도 없고 그래서 입맛에 안 맞는 부분도……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총소리가 나도 놀라지 말라고 방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김재홍 위원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5쪽에요, 포상금 부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우수하면 포상금이 있는데, 그

것이 징수가 안 돼서 포상금을 걸어놓은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징수를 많이 하는 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의무가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의무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방문해서…… 지금 모든 세금이 다 그렇습니다.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진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고 전화로 독촉해 가지고요. 사실은 작은 액수다 보니까 딱 봐도 화낼 수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을 좀 더 각인시키고요. 전화나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실제로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납부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여놓으면 아무래도 실적이 놓고 조금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 다 갖지만 좀 덜한 부분을……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낮고 그런 상태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를 자연스럽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포상금까지 걸어서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쭙본 것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그러니까 아직도 세금이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자진납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찾아가서 돈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금을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납부를 독려하는 대신 그것을 갖다가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진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45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450쪽, 시설비에 보면 읍면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 내화물 공사는 매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이 내용은 우리가 소각을 하다보면 분리수거를 아무리 잘해도 폭발물이 많이 들어 갑니다. 파스통이라든가 파리랑 모기약, 라이터 등, 하여튼 폭발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폭발합니다. 그러면 벽돌이 아무리 단단하게…… 한두 번은 견딜 수 있어도 자꾸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벽돌이 깨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도 소각처리하기 전에 그 앞에서 분리수거를 안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다 하고 있지만 거의 완벽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것을 좀 잘해야 되겠는데, 작년에 보니까 소안은 또 내화 교체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여쭙본 것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이것이 오기 때문에, 소안이 아니라 보길도인데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밑에, 바로 밑 쪽 여과집진기 교체공사. 여과기를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십니까? 바로 밑에 쪽입니다, 읍면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여과……” 하는 주무관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팀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할 때 소속하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그래야……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제 하십시오.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 집행부 좌석에서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입니다. 소각시설 여과집진기는 보통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먼지 같은 것을 걸러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소각장이 10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고요. 노화 쪽은 폐기물소각량이 많기 때문에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에 3번씩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휴대용 가스통 같은 것이 들어가서 터져 버리거나 그러면 불씨가 날아가서 불이 나버리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여과집진기가 6개월에 한 번씩 이면 노화, 청산, 금당인데 4개소, 이 돈 가지고 안 부족해요?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 집행부 좌석에서 - 그래서 위원님, 우리 시설비에도 넣었고요. 이것이 재료비로도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구입 교체가. 그래서 재료비에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찢어놨구면요. 예산을 한

군데에다가 넣어야지, 찢으면 돼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노화, 청산을 했더라도요, 여과집진기 교체공사를.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 집행부 좌석에서 - 전체 읍면이 수시로 이런 집진…… 여과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과기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재료비로 쓸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몰아요, 예산을. 찢어놓으면 (청취불능) 안 되죠. 한 군데로 합쳐서 하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3쪽이요, 제일 위에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 1,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업자나 공장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 가격 제시가 된 것 같은데, 꼭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확실한 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청취불능) 시켜야 되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모든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에서 독단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기는 그래서 타당성조사 완료 후에 올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올려야 되면 얼마 정도 올려야 되는가. 그쪽 자료에 의해서 산출되면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것 서류상 하는 것이죠, 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아닙니다. 그쪽에서 모든…… 우리가 못 다한 사항을…… 판매실적이나 현재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이것이 타당한가. 모든 부

분에 다, 인상요인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46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량 밑에 보면 등짐펌프 구입이 있어요. 15개를 13개소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을 진화하러 가면 실상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등짐펌프를 지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보면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가 참 초기에 잡을 것도…… 없어 가지고 물 바가지나 박스를 가지고 가는데, 이 등짐펌프가 참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등짐펌프를 한 번 사용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확보를 못해서요. 다음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많은 양을 확보해 가지고 산불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462쪽이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은 대행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모든 서류를 갖춘 다음에 조림, 가로수, 공원 등 수목 식재계획에 의해서 탄소저감 대책을 발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주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팀장 박은재 - 산림녹지팀장 박은재입니다. 산림 탄소 상쇄제도는 기업이라든지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유지를 위해서 조림이라든지 가로수 조성, 공원, 이런 부분 (청취불능) 평가해서 나중에 기업하고…… 기업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있죠. 그런 부분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도군 산림조합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상쇄 신청을 하는 그런 대행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탄소를 배출한 업체하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산림녹지팀장 박은재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관리감독은 제대로 합니까?

(□ 산림녹지팀장 박은재 집행부 좌석에서 -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것인데요.)

아, 신규사업이네요. 관리감독을 잘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 산림녹지팀장 박은재 집행부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461페이지요. 아까 설명했는데 황칠, 동백, 약리활성 및 안전성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세워놓은 것이요. 황칠에 대한 성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제일 밑에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황칠이란 성분은 목포대학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성분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황칠이 황칠, 옷으로 추출했을 때는 사람이 먹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복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효능은 좋지만 지금 확실한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실험을 통해서 과연 인체에 해가 되느냐. 이것을 식용유나 음료수, 약품으로 해서 복용해도 되느냐. 그러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물실험을 통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증명이 되어야 우리도 마음 놓고 “완도 황칠에서 나오는 추출액은 아주 좋습니다.” 라고 홍보를……

□ 최정욱 위원

성분 분석을 하면서 그것은 안 했었나요, 그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동물실험은 못 마쳤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목포대에서 한 근거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성분을 먼저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황칠이 지금 완도의 권장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권장사업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성분보다는 우리한테 유해한가, 아닌가를 먼저 했어야 맞죠. 성분보다. 그 다음에 성분을 찾아서 어떤 것이 좋다고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 동시에 이루어질 사항인데 조금 순서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게 괜찮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홍보를 할 것입니까. 어떤 대책,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가공기술을 높인다는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2020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완도 황칠……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가공 특화사업을 공모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응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도 황칠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시설의 구축으로 우리도 공모에 선정되면 6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 추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가요?

(□ 산림녹지팀장 박은재 집행부 좌석에서 - 산림녹지팀장 박은재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요. 농업축산과에서 향토산업을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요?

(□ 산림녹지팀장 박은재 집행부 좌석에서 -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467페이지요. 그 1부두 조형물을 왜 환경산림과에서 하는가요, 이것을?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당초에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민간사회단체에서. 그런데 해조류박람회 때 그 옆에다가 저희가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데크 시설로 해가지고. 그것을 환경산림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이 전복조형물인데요. 전복조형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자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고, 전복조형물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설치하는 포토존은 데크 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최정욱 위원

환경산림과에서 했나요, 그 조형물을?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과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옆에 데크 시설사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복조형물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했고요.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광과로 해서 하면 안돼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그 사업은 기획예산실에 공모팀이 있을 때 행복공동체사업으로 인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그 과가 없어졌습니다. 팀이 없어져 가지고 아마도 환경산림과에서 하트존을 만들다 보니 까요. 그 옆에 바로 같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자고 해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게 지금…… 이 1,000만 원이 보수비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오래되어 가지고 녹이 슬고 또 빛이 바라고 부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그때 수리하는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아니, 그런데 해풍이 치다 보니까 거기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조명시설이 전기나 비나 물…… 기상재해로 인해서 잘 나갑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에는 불빛이 안 들어오면 멋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고, 하여튼 잔고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이 계속 문제겠더군요, 바닷가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닌데, 꼼꼼하게 해볼 것을……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네요, 또 내년 예산을 이렇게 하면……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아니, 보수정비비는……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한 달에 1,0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아니요, 내년에는…… 올해 사용해보고 정확한 예산 소요액이 나오면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요, 덕우도 임도 포장공사라고 했는데 환경산림과에서 포장공사도 해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임도입니다.

□ 최정욱 위원

임도를 하나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잘 알았고.

이제 마지막,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것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망석리, 망남리 쓰레기장이 당초에 지을 때 소각로하고 주건물하고 백사장에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 최정욱 위원

그것을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 후로 음식물처리기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식물처리기기를 같은 회사에서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소각기 따로, 음식물처리기 따로로 해가지고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자기 측에서는 하지 않는 공사이기 때문에……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기니까요.

제가 질문할게요. 소각장, 지금 용역비 추경에 해줬던 것 있죠. 그것 관련해서, 어디다가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감사원인가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이 앞 주 토요일에 도 김태균 감사관이 현장을 다녀갔고, 서말순 팀장이 어제 다시 도청 감사관실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수의계약인데, 왜 수의계약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설치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나 몰라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너희가 시설하고, 너희가 관리하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부

분을 감사원 감사…… 아니, 감사원, 조달청 다 녹취를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좀 어렵지 않느냐.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났네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아니,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70~80%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도청 심의위원회에다가……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 최정욱 위원

위에서 안 된 것을 도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특정…… 나머지 부분은 우리 생활환경팀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나중에 최정욱 위원님한테 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보고를 하십시오.

□ 최정욱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가요, 기계를 설비하려면 올해 예산에 안 들어왔나요?

(□ 생활환경팀장 서말순 집행부 좌석에서 - 올해 `19년도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지금…… 실시설계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놔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요구를 내년 에…… 아니, 올해 `19년도에 추경이라도 요구해 보려고. 실시설계가 안 끝나서 본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이것. 올해 추경에 꼭 해야지, 이것 안 되면 큰일이 나요. 이것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옛 그제인가 주민들하고 앉아서요. 망석리 사람들하고 앉아서 그것 내가 설명을 했어요, 대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런데 올해 예산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 추경에 꼭 해야 돼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이것 해야지, 지금 길을 막는다고 난리예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더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년에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바로 공개입찰로 돌려서, 하여튼 내년 3월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내가 깜짝 놀라가고. 꼭 그래야 됩니다, 예산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4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이것 전기차 삭감입니까, 아니면 목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443페이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제일 아래쪽. 하단에 2억 1,000만 원, 민간 전기……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이게 작년…… 아니, 올해 예산을 편

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래서 이게 삭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삭감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이……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 취소한다고 그랬어,)

취소가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취소해도 무방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삭감이면, 국비가 보니까 1억이나 붙었는데, 이것 1억은 뭐 그러면 계속비로 놔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반납합니까, 국비는 다음에 사업자가 나오면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국비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뭐 이런 예산을 잡아.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당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분이 사정에 의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버스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겠는데, 국비를 1억이나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 매칭사업,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서에 올려놓아서 하는 말입니다.

전문위원실, 이것 체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조성 사업은 총 50억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완도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총 60억 원의 예산 중에서 2억 5,000이 내려와서 신규계속사업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계속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군외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과 고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도 계속해온 사업이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어항시설사업 중에 현재 생일 서성항 시설공사가 총 72억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생일면 덕우항 시설공사가 57억 3,000, 청산면 모서항 시설공사사업이 57억 9,600만 원인데 사업비 변경과 또 연차계획 변경에 따라서 각 연도별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금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35억 5,000, 망석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20억, 보길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약 10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또한 사업비 지출액 변경과 연차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약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약 74억의 규모로 진산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20억 규모로, 동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32억 규모로 현재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2019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총 344억 5,081만 5,000원의 예산 편성요구를 했고 총…… 작년에 비해서 약 5억 6,0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쪽에 보면 완도관광호텔 앞 회전교차로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완도읍 관광호텔 앞에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그동안에 화분형 조형물을 설치해서 계속 관리해 왔었는데, 조형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화분에 꽃을 식재하고, 또 해가 지고 나면…… 그 조형물에 대해서 교통사고 위험의 문제도 있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요. 거기를 차라리 일시적인 화분 설치보다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회전교차로 쪽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관광호텔

이 매각되고 주상복합, 이전에 위원들 전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회전교차로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완도호텔 그 매입자가 3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고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이. 그래서 이 계획을 주민 건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아파트가 허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결되면, 거기에 아파트가 안 들어선다는 조건이 된다면 거기 회전교차로를 한번 검토하고,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도심의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482페이지요. 진아리채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지금 위원님…… 특히 최정욱 위원님이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아리채 아파트하고 동아 쪽 교통난이 엄청나게 심하한데 군은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느냐?” 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고물상 철거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003~2004년 동안에 고물상 철거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가지고 그동안 못해오다가 최근 들어 저희들이 조건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그분이 수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에도 통보를 했고, 그 정도 감정평가액이면 자기도 수공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측량하는 부분까지 끝나면 내년에 이것을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00% 장담하기가 어렵고 그분이 하도 변동성이 심해서요, 약 90%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아마 그쪽 주차난은 그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은데, 진아리채를 올라가는 구간하고 동아아파트를 보시면 1차로가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을 보면 군유지가 길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군유지가. 그래서 채소밭으로 가꾸고 계시고,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1차로를 더 늘려서, 차라리 1차로를 늘려서 주차를…… 한 차로를 확보해주자. 그러면 그쪽 교통난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사업비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실질적으로는 도로입니다.

□ 최정욱 위원

도로인데…… 그러니까요, 인도 옆에 공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공터.

□ 최정욱 위원

그 다음에…… 하여튼 진아리채 잘됐네요, 어쨌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일단 90% 예산은……

□ 최정욱 위원

90%면 10%만 안 된 것이지.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10%는 저희들이 땅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땅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신데, 지금 고물상이 채 육시설하고 일반 주거시설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시설은 자기가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진아리채 앞쪽에 절반 정도는 자기가 그대로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체육부지, 공원 부지 땅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동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동망리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해아파트 위쪽에 도로가…… 과거에 2차선 콘크리트 도로로…… 아니, 아스팔트 도로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쓸모가 있는 도로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해아파트, 이 도로를 성내리마을 구간까지 연결시켜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남해아파트 뒤쪽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냅나요, 위에 무등하고 냅

는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닙니다. 그 도로 끝 선상에서 성내리마을 구간 입구까지 연결하는 소규모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도로가.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안 잡혀있고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일단은 마을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마을 이장님들도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쪽 도로를 연결해야 그 도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일단 예산만 짜놓고? (예,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생소한 문구도 있고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 데요, 어촌뉴딜 300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소 대상지라고 그랬는데요, 어디어디인지도 궁금하고, 502페이지입니다. 궁금하고, 좀 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이게 어촌 뉴딜300사업은 쉽게 말하면 마을 어촌…… 어항이 있는 마을, 소규모 어항이 됐든 지방어항이 됐든 어항이 있는 마을을 배후 어촌마을까지 연계해서 낙후된 시설들을 보강하고 그 마을들을 좀 활성화시키자. 요약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촌 뉴딜300사업이 도시뉴딜 같이 어촌마을이 낙후된 마을 300개 어항을, 300개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 정부가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해수부가 한 달 만에 공모기간을 선정해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짧아서 올해는 4개소만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아마 공모계획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커서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맞는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 것을 선정할 때는 지역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계속 들어가고, 소외되는 지역은 항상 보면 소외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님, 이 사업을 제가 올해 처음 꺾다보니까 과거 공모사업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의 공모사업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하면 안 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목적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이 어촌 뉴딜300사업은 너무 목적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1차 해양수산부가 1순위로 꼽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객선 기항지 노후화된 지역입니다, 여객선 기항지.

□ **허궁희 위원**

여객선 기항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낙후되면서…… 그 마을에서 자원과 연계해서 그 시설을 투자했을 때 그 마을에 살아날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눠 먹기식으로는 해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전략적으로 될 데를 선정해서 들어

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아무쪼록 어떻게 되든 간에 공모해야 된다고 하면 자원이 있는 마을, 해수부가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는 마을들을 저희들이 공정하게 선발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입김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딱 주관을 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자면,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어촌 뉴딜300,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시설비를 말씀하시나요?

□ 허궁희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 시설비는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게 국비 70%, 지방비 30%, 7 대 3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지침에 지자체에서 추진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평가를 군비를 얼마나 편성했느냐, 이것이 평가항목에 들어있다 보니까요. 내년엔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먼저 군비로 편성해 놔라. 그래야 우리 국비를 주겠다고 그래서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러면 뭐 대상지나 이런 데는 선정이 안 되고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우리 군 공모 4개소 중에 몇 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저는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군비를 이렇게 5억이나 넘게 투자해 놓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지역이 50억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거기 국비는 5, 7에 35, 35억이 국비고 15억이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그 지방비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 허궁희 위원

아, 이게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별도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 부담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하여튼 선정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고리, 아까 그…… 101쪽이요.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 이 부분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를 보면……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이것은 제가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32억인데 아마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바로 잡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예산을 항상 충족하게 짜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500페이지를 보면 군외 원동향 보행로 및 계선주 설치 공사, 이게 몇 M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게…… 그때 위원님, 그때 100 몇 M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재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200M 되는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그렇습니까?

□ 김재홍 위원

7,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태풍 때 (청취불능) 그래서 결박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 뭐라고 합니까, 테크? (예)

거기에다가 매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내가 봐서는 7,000만 원으로 가능할까 좀 의문스럽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제대로 들어갈 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좀 늘어나면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 김재홍 위원

제 말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닙니다. 거기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485페이지. 다도해일출공원 완도타워 부분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말에 부분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비엠코리이라는 회사에 위탁관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완도타워 위탁관리를 했는데, 9명이 위탁하면서 협약하기를 거기에 있는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사항이거든요. 표현이 ‘부분 민간위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민간위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거기에 경비를 하나도 안 주고 전부 이 돈에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닙니다. 부분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이 비엠코리아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우성자 위원

왜 일부분 민간위탁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게 완도타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한

테 맡겨버리면…… 군의 지배력 안에서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민간한테 다 맡겨버리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그 인력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게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저희들 인건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쪽으로 민간위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서는 그렇게……

□ 우성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군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아무런 혜택도 안보고 민간위탁을 했다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다가 정기적으로 9명을 투자한 인건비를 비교한 것하고, 위탁해서 그 친구들이 인건비로 쓴 내용하고 차이를 비교해보면 우리 군이 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쪽 친구들이 관리하는 것이 인건비를 아끼는 요인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군에서 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군에서 하는 것보다 돈을 적게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내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깊게 들어가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죠. 전체…… 우리 군 생각만 하지 않고 우리 군민만 생각하면 일반용역 업체에 있는 시간제 근로자 개념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용역 업체 기간제 근로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인부들을 쓸 때 효율적으로 쓴다는 이 말이구먼요. 시간제로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인건비를 조금……

□ 우성자 위원

낮춘다든가.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조금 낮춘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쓰면 아마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하는 보험, 그런 것도 가입도 안 해주고 인건비도 더 낮게 해주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종사원 급여, 퇴직금, 일반관리비, 보험료는 다 포함돼서 아마 위탁관리를 하고 있네요. 위탁관리 인건비는요.

□ 우성자 위원

과장님의 말은 민간위탁을 일부…… 부분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래서요. 관리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군에서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말하자면 위탁금을 싸게 받고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래서 실속으로는…… 그 친구들도 우리한테 토로하기에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토로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한 번 더 계산해보시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 우리 군에서 쓰는 직원하고 거기에서 쓰는 직원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보상을 못 받는 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보시고 자세하게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7쪽예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에 대해서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불법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금 불법광고물은 크게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현수막들하고요. 또 도로에도 이렇게 보면 광고물들, 우리 군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광고물들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개인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개인광고물이 얼마 정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은 안 해보시고 예산만 세워 놓으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례적으로 위원님도 인식을 다 하고 게시했지만 전체 읍면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지금…… 한번 파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마는……

□ 우성자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이 적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도 좀 잘 확인해보시고 예산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현수막을 하는데 2,200만 원이 세워졌죠. 그 아름다운 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게 우리가 해년마다 현수막 게시대를…… 한두 군데 정도 해년마다 게시대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년도에 읍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한두 군데 정도 현수막 게시대를 제작해서 설치하겠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디서 뭐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아직까지…… 세 군데 들어왔나요, 세 군데…… 읍면에서 지금 한 일곱 군데 들어와 가지고요. 저번에 기금 모금할 때 기금에서 다섯 군데, 우리 군비에서 두 군데, 그래서 총 7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각 읍면에서 “우리도 설치해 달라.” 라고 이렇게 하면 설치해줄니까, 읍면에서?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읍면에서 요구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할 때 한 읍면에 10개…… 예를 들어서 10개 있다고 하면 한 읍면에 2개…… 이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렇지 않고요. 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이

아무데나 설치하는 공간이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그 장소가 현수막 게시대로서 효율적이나, 효용성이 있느냐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 무작정 의미 없는 자리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고 게시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런데 여기가 좀 예산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483쪽 시설비, 도시미관을 위한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선전탑이 아마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고금, 청산, 노화, 소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선전탑하고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른 방지물하고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6개 곳에 대해서 (청취불능) 한다는 얘 기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6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추진해야 할 개소가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라서 그쪽에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쪽하고 몇 군데 좀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쪽 뭐 정비사업이 아니고 신규조, 정비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죠? (예)

그러면 그 계획은 다 잡힌 것인가요, 6개……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6개소 완도, 군 외, 고금, 청산, 노화는 기존에 설치가 이미 완료되어 있고요. 앞으로 예측 수요를…… 이 읍면 외에 추가 수요를 파악하고, 일단 첫 우선…… 고민하고 있는 데가 장보고대교 그쪽 입구 쪽이 아닐까, 그쪽 부근이 아닐까.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뭐 다른 데는 아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아직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일단 먼저 이렇게 해보겠다고 예산만 잡아 놓은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산과 동시에 추진을 바로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페이지 1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완도 도암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도암리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1.2km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소안 비서 자연재해 위험지구사업입니다. 2019년도 준공예정으로, 현재 남은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산의 불용방지 및 잔액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5억 1,600만 원을 전남도와 협의하여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군외 대문용계 신흥지구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해안선 정비 650M이며 해일 및 풍랑에 대비하여 주택 피해 및 침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3,000만 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계속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아까 철도 얘기가 나왔죠? (예)

참 좋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 뭘니까, 해저터널사업이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것이 되어야 이 사업하고 연계되지 않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목포 임성에서 우리 완도까지 철도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이 되기 전에는 저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 문제는 지금 현재 목포는 진도하고 연계해서 진도 쪽으로 해가지고 제주도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남은 땅끝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군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그래서 늦었지만 빠르다고 생각하고 추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허궁희 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손 쓸 수 있으면 써서요. 만약에 터널을 우리 완도로 해서 가게 된다면 그런 사업도 연계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욕심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52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시설비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예, 말씀하십시오.

□ 김양훈 위원

세 번째 보면 소하천 정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편입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장물…… 토지 보상금하고 지장물 보상 지급입니다.

□ 김양훈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땅이 걸리면 그때 보상하고 한다는 얘기죠?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지금 해놓고도 보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를테면 또 편입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개인 사유로 되어 있는 것, 그것 보상해주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돈을 안 줬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예, 공사하기 전에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많지요.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많은데 5,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일단 5,000만 원으로 세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서울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한 번에 올리시지. 계속 미뤄지면 민원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시설비인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거기에 지금 1억 2,000이 올라왔죠? (예)

이것이 지금…… 작년에도 영상저장장치 증설을 하셨죠. 이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까 우리 관제센터 구조상 저장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필요하다고, 이것 어떻게…… 좀 알아보고 올리신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간단히 한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양훈 위원

예.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과거에는 아날로그 테이프…… 현재는 스토리지 디스크 저장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CCTV 대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저장장치 추가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라이선스 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버 증설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인데, 지금 현재 완도군 집기 현황은 저장분배 서버 5식, 또 스토리지 5식해가지고 580…… 테라바이트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모니터가 12대가 있었고요, 현재 우리 군의 시스템 및 구축은 792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스트리지 용량을 30일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제센터 총 저장용량은 580테라바이트인데, 필요한 가용용량은 3,168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용량이 2,588테라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 중 CCTV 1대당 기본 4테라바이트 용량이 30일간 저장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792대 분으로 계산했을 때 3,168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관제센터에서 필요한 용량이 현재는 20%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화질을 좀 낮춰가지고 70% 정도 녹화영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나마 학교 쪽 것인데 녹화가 안 돼서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설을 하려고요, 총 소요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1억 2,000, 또

내년도에 1억, 쪽 이렇게 개설할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장용량 부족으로 전체 CCTV 관제운영에 어려움이 있고요, 수사기관의 범죄 예방 및 사건, 사고 관련자료 확보 등에 애로가 있습니다. 2019년 영상 압축서버를 통한 획기적인 저장 공간 문제의 보안 및 영상 저장기간을 3개월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이제 지금 관제센터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라이선스만 해도 1대당 40만 원 정도 들터구먼요, 그쪽도 한번 생각해볼 수는 없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김양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지금 그 서버에서, 교육청에서…… 총 296대가 있는데요, 296대에 대한 서버 라이선스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약 한 50% 정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을 우리 군에서 세워가지고 교육청하고 계속 연계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관제센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장을 못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 지금 현재 교육청 쪽은 실시간 관제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억장치를 늘리고, 내년에는 아마 해결을 위해서, 압축서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시 재설명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인 철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김 양 훈
최 정 욱
이 범 성

□ 출석 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09시58분

□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

□ 부의된 안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 경제교통과
- 관광정책과
- 해양정책과
- 수산경영과
- o 농업기술센터

(09시58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359쪽에요. 희망완도 행복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작년도에 1억이 들어갔는데, 그 1억 실적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중도리 전통메주공장을 하는 데에 투입이 됐고요. 석장리 행복마을 조성, 그다음에 신지에 다시마 포장재 지원, 신지에 낚시 신희 등 조성, 약산에 전복잡기 체험행사 등에 지원됐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일단 지금…… 그리고 36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연구용역, 작년도에도 2,200만 원이 들고 올해도……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게 작년도 2,000만 원은 5일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5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던 연구용역을 기초로 해서 상인화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상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

용역을 거쳐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추가 편성해 가지고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362쪽에 바다환경 가꾸기 현장 활동, 그것으로 12개 읍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것은……

□ 이범성 위원

해양정책과나 그런 부분들로…… 이중 편성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부분은 바다환경 가꾸기 현장활동을 위해서 소모품비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으로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바다환경이라는 것은 해양 쪽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369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369쪽에서 쪽 보다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랄까, 여러 가지로 복잡해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들도 자세히 설명 한번 더 해주시고요. 중복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밝혀주시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상당히 용어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고 농어촌버스 운행지원이 있고 상당히 이게……

□ 이범성 위원

뭐 비수익노선 또……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비수익노선 지원이 있고 상당히 혼선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놓여준 재정지원과 운행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운수업체가 버스를 운행하므로…… 운행하기는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임금인상도 노조에서는 해주라고 그러고 또 근로시간은 단축되어서 인부를 더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적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저히 운행이 어렵다. 주민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어려운 점을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재정지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놓여준버스 운행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버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버스업체에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버스가 다녀주라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운행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행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좀 해주는, 그런 것이 운행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비수익노선 손실재정지원은 기존에 “노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띄워라.” 라고 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지급하는 데에 중복이 되냐, 안 되냐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서. 369페이지, 제일 위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내년도에 세워둔 것이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기초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4,000만 원을 산정해 뒀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용역하기 전까지는 무작정 중복지원도 됐고 그런 부분들도 많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중복지원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 버스업체하고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근거를 정확하게 남겨놓고 이때 이런 일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게 됐다는 이런 자료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전부터 쪽 해오는 관행에 따라서 후임자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니까 정확한 사유를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 이범성 위원

예, 금액이 좀 만만치 않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보고,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잘 살펴가지고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362쪽, 민간이전을 한번 봐주시시오. 바다환경 가꾸기 정화활동 1,200만 원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게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정화활동 청소도구 구입, 소모품비하고, 그다음에 추석맞이 현수막이나 봉사활동 캠페인 현수막을 제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양훈 위원

현장 활동이 아니고 플래카드를 한다고

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플래카드하고 소모품비니까 호미, 삽, 마대, 장화, 빗자루, 집게.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식대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바다환경 가꾸기를 이렇게 뭐 바다쓰레기 청소,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하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제 새마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다환경 가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예요.

□ **김양훈 위원**

그래도 많은 액수다, 100만 원, 1,200만 원…… 한 동네에 1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좀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무튼 이런 부분은 바다쓰레기 환경 가꾸기하고 중복된다고 하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그리고 365쪽. 민간이전 사회적기업 자립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2,000만 원은 정기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3,000만 원은 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이엠하고 자

연으로 영농조합, 청해진미, 완도네시아, 네 군데인데. 금년도에 한 군데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지원을 못 받아서 이런 부분에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상을 했고요.

1개소, 이엠사업단은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개발비에 공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엠사업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확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김양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부분은 상품개발이나 온라인마케팅. 그다음에 홍보전단지 제작,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 **김양훈 위원**

홍보전단지, 이런 마케팅 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고요.

367쪽,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자체적으로 2억 3,000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비가 1억 5,000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국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이것을 좀 더 해서…… 나 중에 국비를 받아다가 하면 안 됩니까, 자체 사업으로 안 하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3억으로 한정 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3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담 5,000 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억 5,000인데.

이게 육지부에서는 이 3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산 모서리사업을 해보니까 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3억 지원해 가지고는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청산 모동리가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가 부담이 있더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2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당연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딱 군비가 한정되어 가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하면 안돼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고 전라남도에 배정된 것이 5~6개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아오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은 매년 꾸준히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 한 마을을 전체 다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3,000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69쪽하고, 이범성 위원님이 먼저 물어봤던 얘기인데요. 중간에 보면 취약지역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있고 5,000만 원, 기타보상금예요. 그것도 있고. 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370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7,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다른 데를 보면 계속 다 정해져 가지고 어디 완도교통이라든가 고금여객은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뭐 취약지역 운수업체…… 5,000만 원, 어디 다른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비수익 노선 손실해 가지고 7억, 7

억이 있는데 7,000만 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취약지역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완도교통, 신지여객, 고금여객, 생일마을버스 이렇게 4개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밑에 다 있지 않습니까. 신지여객도 다 있고 고금여객도 다 있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 이것은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밑에 운수업체보조금은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운행을 해라.”라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별도……

□ 김양훈 위원

아니, 다 있는데 거기 취약지역…… 뭐 특정한 업체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런 돈은, 이런 예산은 다른 데에 돌려서 써도 충분하겠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것이 기존부터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돌릴 수는 없고요. 취약지역으로 해서 신지여객은 900만 원, 그다음에……

□ 김양훈 위원

아니, 5,000만 원짜리요. 중간에……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러니까요. 5,000만 원 중에 완도교통이 1,900만 원, 신지여객이 900만 원, 고금여객이 1,900만 원, 생일마을버스가 3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양훈 위원

지역 내에 거기 따로…… 취약지역 들어 가서 또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7억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7억은 비수익으로 해서 운행을 하면서 이 업체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벽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도교통 같은 경우는 1억 8,700만 원 정도 되고 고금여객은 1억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일마을버스는 1,900만 원, 보길여객은 8,100만 원. 이렇게 해서 업체별로 지원금액이 다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이 뭐 손실됐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손실됐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어서…… 용역이나 어디에 맡겨서 그냥 찾아가지고 해주는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타 시군을 보면 우리 군은 상당히 재정지원을 적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 같은 경우는 24억 인데 우리 군은 1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무안은 16억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완도교통 같은 데에서는 강진에서 많이 받으면서도 왜 완도는 이렇게 재정지원이 적느냐고 오히려 우리한테 항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익을 보니까 적게 나가겠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 부분은 매년,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못 맞춰주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좀 잘 보셔가지고 집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다른 데는 다 어디어디 구간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집행해서 나중에 예산서를 올릴 때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요. 환경정비 가로등 녹지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3억 8,500, 여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농공단지에 가로등이 고장도 많이 나고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원래 농공단지에는…… 몇 % 이렇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만 확보해놓고 실질적으로 조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가로등하고 녹지조성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3억 8,500이예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가로등 한 15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20등은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도 가로등하고 불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불용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농공단지를 가서 보면 진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산만 올려놓고 일을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해서 하겠습니까.

□ 김양훈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없게끔 좀……

그리고 농공단지를 보면 할 일이 엄청납니다. 가서 보면, 보도블록이나 주위 경관이 나. 제가 외부인 같으면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너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항상 사람이……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좀 깨끗하고 환경적인 것이 있어야 업자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런 것을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이번에 예산 반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관심을 갖고 깨끗이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71쪽이요,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신설도 있고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는 곳이 버스승강장인데, 여기에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보니까 보수비도 있고, 이렇게 또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제일 밑을 보면 동장군대피소라고 이렇게 설치내용이 있네요? (예)

감사 때 제가 이것을 좀 봤었어요. 그런데 현재 동장군대피소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완도읍 4개소를 우

선 지금 설치하려고…… 추진하라고 했고요. 12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각 읍면별로 두 군데 정도 보고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제가 봐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예산액을 늘리더라도 설치를 좀…… 이것이 큰돈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도 시설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는 얘기는,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왜냐하면 제일 힘든 학생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을 해요.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큰돈도 안 들어가지 않고 비닐만 쳐놔도 여기는 바람만 막아놓으면 따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라. 왜 그런 얘기를 과감히 하냐면 젊은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로 다니니까 그런 고통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30분씩 서 있어 보세요, 실험 삼아서. 아마 그 고통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충분히 뭐 세우겠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세우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가운데를 보면 청산슬로건기축제 순환버스 증차라고 했는데,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청산 슬로건기를……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 축제기간 동안에……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 파악이 됐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부분, 증차 부분은 평상시에 순환버스 운행횟수가 10회라고 그랬을 때 한 달간 운행하는 청산슬로걷기축제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 증차해서 운행하려고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그동안에 쪽 축제기간에 운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증차하려고 한다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에 관광객 수가 늘어났냐는 얘기입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금년도에는 전년하고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더 오게 되면 증차하게 될 그런 예정……

□ 허궁희 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한계점을 찍고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슬로걷기 축제에 대해서. 그런데 거꾸로 예산은 증액되고 차량도 증차를 한다고 해서, 어느 기준에서 그런지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도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그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회로 운행하던 것을 한 달 동안에 15회나 20회나 이렇게 증액해서 운행…… 한 달 동안에 증차 운행한 것에 대한 지원분을 매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년에 쪽 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금년에 예산이 늘어난 줄 알고,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 횟수는 증차를 하고 예산은 늘어난다고 하니까 나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원했구요.

그 밑에 보면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농어촌버스업체 손실보전금이 있어요, 2억 8,000만 원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부분은 장보고대교를 개통하고 완도읍에서 약산 당목까지 단일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0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손실금액을 지원해 주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약산에서 이쪽 군청까지 들어오는 그 내용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359페이지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4개 업체…… 5개 업체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4개 업체입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을 연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왜냐하면 이 부분…… 미역을 하차하

는 곳이 완도읍 물양장에서 하차를 해가지고 농공단지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역하는 물류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여기 자숙공장을 말해요, 삶는 공장?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삶는 공장을 말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완도읍에서 신흥 농공단지로 오는 운송비? (예, 그렇습니다)

아, 농공단지 4개의 업체에다가…… 거기 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구먼요. 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데요, 동기가? 그 4개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동기가, 왜 했었냐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해경부두…… 농공단지 내에 접안시설이 있었는데, 거기 해경부두를 거기로 옮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미역들을 하역하지 못하고 완도읍 물양장으로 와서 하역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계속 했네요, 이것을?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해경부두가 접안…… 농공단지 쪽으로 옮긴 이후부터 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설명을…… 안 되면 계장님이 설명하고, 이것 생긴지 2년인가 됐는데, 지금 농공단지 자숙공장이 이제 없습니다. 나도 체크해 놓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기존 예산들을 그대로 올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2년 전부터, 첫 번째 예산은…… 우리가 하도 바닷물에 버려 버리니까, 뭐야, 이동차량들 바닷물에 못하게 해가지고 해줬다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자숙공장들이 다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완도에서, 농공단지에서 미역을 삶는 공장들, 모르겠습니다, 올해에 하나나 삶으려나. 그런 것도 좀 알고 하십시오.

설명을 못하면 계장님이, 팀장님이 팀명하고 성함을 이야기하고 팀장이 해도 됩니다.

□ 최정욱 위원

하어튼 그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창출 일자리사업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맞춤형 일자리?

□ 최정욱 위원

예, 364페이지 제일 위에.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부분은 해양생물……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바이오연구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 생물센터 거기 전체…… 거기에다가 금액을 지원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맞춤형 일자리라고 써놨어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역맞춤형……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그 해당 업체를 바이오산업연구센터로 지정한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센터라고 써놓으면 되잖아요.

이게 진즉부터 했던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수산물…… 황칠, 비파 용복합 가공기술이라든지, 해조류 전복양식 및 가공 기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 사업에 해당되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 여러 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까 김양훈도 했지만 꼭 더블 같이 보이지. 그 밑에 또 보면, 370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 그래 가지고 4억 5,000이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꼭 더블이잖아요, 쥐도 되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요, 융자금 지원내용의 회수실적과 미회수 내용에 앞으로 조치계획이 있다면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은 2005년도부터 농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2004년도까지는 군에서 융자금을 주고 회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농협으로 이관이 2005년부터 됐었고, 금년도 융자금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나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신협보증증권으로 해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미수금도 없게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2005년도부터 하는 것은 미수금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했던 그 체납은 지금 27명에 원금이 한 4억 1,900만 원 정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사망한 부분이 있고 또 파산, 개인회생, 행불, 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서 못 받은 돈을 우리 회계에?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결손처분을 하려고 해도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왜 결손이 안 되나요, 안 되면……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굳이 왜, 그것을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은 해당…… 담당계장이 답변을……

(□ 경제정책팀장 김용식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경제정책팀장 김용식입니다. 이것은 융자금이어 가지고 세금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고 그랬을 경우에 징수 예외로 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융자금은 말 그대로 국민기관에서……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사항이다 보니까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증인을 두 사람 세 우다 보니까 보증인들이 사망하기 전까지, 아니면 그 재산이 없어지기 전까지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본인 앞으로 가압을 해놨는데 보증을 선 사람들까지 가압류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결손처분을 못한다는 얘기죠?

(□ 경제정책팀장 김용식 집행부 좌석에

서 - 보증인들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관광정책과장 정인호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총괄예산은 지난해 보다 1억 196만 4,000원이 증액된 147억 8,125만 8,000원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시간이 애매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13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맞아 들어가겠네요. 관광정책과장님은 13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아이고, 과장님. 아까 설명하느라고 배도 고팔텐데 점심은 잘 잡수고 왔습니까, 어쨌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쪽을 보면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이렇게…… 금년이죠. 금년에도 이렇게 이 사업은 잘 됐습니까, 예산……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이것은 금년에 장보고대교가 개통되면서 여행사하고 직접 매칭해서 이 상품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예산을 다 못쓰고 약 3,500만 원 정도는 정기추경에 감액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내년에도 크게 그렇게…… 이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면 좋은 일이지만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처음으로 여행사들하고 새로운 관광…… 우리 완도를 방문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추진해 봤었는데. 아마 첫 해다 보니까 조금 여행사 쪽에서 확신이 덜 했기 때문에 일부 절감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될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인센티브를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올 때는 30인 이상…… 20인 이상일 경우에 1인당 체도권은 8,000원, 도서로 들어가면 1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상품을 기획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완도에 어떤 계절별로…… 또 어떤 선별해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의 인센티브하고 수준은 그렇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조금 차별화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아니, 내년에도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달라지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달라지는 방법은 저희들이 공고만 해서 여행사들하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완도 쪽으로 많이 여행객들을 모집해서 오는 대구라든지 경북, 부산 쪽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일반관광객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여행상품에 대한 부분도 적극

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서 좀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허궁희 위원

예, 하여튼 적극 홍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86쪽이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도 좀 궁금한 점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안내소가 세 군데 있다고 했죠? (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중에서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한 군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 진단을 마친 다음에…… 군외 달도는 거의 폐쇄를 하고 수목원으로…… 지금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최종 목적지를 찍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쳐서 오기 때문에 중간에 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도는 폐쇄를 하고 수목원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하고, 신지대교휴게소도 아마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지적하냐면요, 저도가끔 들려 봐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참 여기서 할 말을 구체적으로 못합니다마는 쓸데없는 짓을 해요. 몇 번을 저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금대교에도 뭐 신설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투입해 놓고 결과는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하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서운해도…… 그런 부분이 진즉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끌고 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을 꼭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방금…… 저도 동감하고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쪽에다가 하시든가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389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산에 느린섬 여행학교가 있죠. 이것 수리비가 있네요, 수리보수비? (예)

청산 느린섬 여행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느린섬 여행학교는…… 일단 등기상 소유자는 완도군수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해서, 현재는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라는 그 단체로, 단체한테 지금 대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서 느껴본 바로는 현지 청산면민들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다…… 그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우리 예산을 계속 이렇게 소비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부의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요. 슬로시티 청산도를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초기에 느린섬 여행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면서 숙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또 지금은 다른 숙박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실시설계해서

어차피 시설은 개보수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슬로시티 가꾸기사업을 시작했을 때 참여했던 명소화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이 나오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물론 초창기에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숙박비가 부족해서 시설했다고 치더라도, 이제 와서는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차라리 매각을 한다든지, 개인한테. 그래서 군의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 그런데 그 효과도 없는 데에다가 자립도도 이렇게 높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상당히 싫어할 부분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산할 부분은 청산하는 것이 옳다, 되지도 않을 것을 끌고 언제까지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점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9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해양치유산업 홍보방송 제작비라고 해가지고 2억이 있어요. 이 부분은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치유과로 넘겨줘야 옳은 일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이것은 뭐 치유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방송 영상을 제작하면 어차피 TV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사하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기까지는 우리 영상을 계속해서…… 그 업체들하고 방송사하고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뭇니까, 해양치유산업과가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과장이라는 분이 예전에 그런 홍보과에서 근무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하시면서 이런 일까지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벅차지 않냐. 차라리 전문, 그 과로 줘버리고, 그래야 우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한 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양치유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였던가, 경제교통과였던가. 하여튼 여러 갈래로 이렇게 쪼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만이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과에서는 정책과대로 하고, 또 관광정책과는 그렇게 하고, 또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그렇게 하고, 또 해양치유과는 치유과대로 하고, 이것이 나는 옳은 방법이라고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실과로 보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403쪽에 보니까 해수욕장, 뭐 해양치유 콘서트라고 뭐 또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내가 봐서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이리저리 쪼개놓는 상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치유과에서 확실히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부의장님, 먼저 해양치유 쿨 콘서트 부분은, 이것은 그전에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7월 말경에 관광객들을 위한 콘서트를 계속했는데 이 명칭만, 우리가 해양치유 산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다가 명칭을 같이…… 치유산업을 홍보할 겸해서 보강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우리들은 설명 그것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누가 봤을 때는 해양치유 콘서트라고 그러면 좀 달리 볼 것 아닙니까, 생각 자체도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차라리 명칭을 그냥 그대로 쓰든가, 앞전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는 좀 정확하게 분리하면 좋겠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홍보하면서 어쩔 때는 방송사도 따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치유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같이 써서 지금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허궁희 위원

물론 과장님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중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는 그런 뜻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아나, 일반주민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용어를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해서 오해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02쪽이요, 명사십리 데크 탐방로 정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4,000만 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물론 저도 거기를 가끔 가서 봅니다. 많이 부러져 있고 훼손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움푹 들어간 부분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자꾸 나오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1억 4,000을 가지고 한 번에 짹 해버렸다면 예산도 효율성 있게 쓸 것 같고, 잘라서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개인 살림을 하더라도.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계속 보수, 보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13~14년이 지났으니까 일괄해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까지는 새로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해 놔

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94 쪽이요,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394쪽.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명사십리…… 우리 군에 관광지로 정식 지정된 곳은 신지 명사십리지구하고 해신 장보고지구 2개가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되면 공공하고 민자 투자가 가능합니다. 공공은 균특 예산하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일반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지 명사십리는 2008년 7월에 제정되어서 `22년까지 민자하고 공공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사업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는 호텔이라든가 펜션이 좀 현재…… 민자 유치 부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해양치유산업이 거기에 확정되고 사업이 되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들은 대부분 우리 공공에서 투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우리 균유지가 이렇게 자그마하게 자투리땅 식으로 이렇게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펜스를 쳐놔더라고요. 명사장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로 요즘 가끔 와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음식을 가져오거나 음료수를 가져와도 먹을 장소가 없어요. 남의 식당 앞이나 이런 데는 그냥 못 앉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사장을 보면 그런 공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다가 펜스를 칠 돈이면…… 그것 크지도 않아요. 그런 데에다가

벤치나 해서 해가림이나 좀 해놓고, 그런 데에서 그런 음식도 먹고, 또 앉아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굳이 그렇게 펜스를 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느꼈는데. 그 생각은,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부위원장님, 지적이 옳은 지적인데. 그 부분은, 펜스를 쳐놓은 부분은 우리 맞구조 상가가 막 우후죽순으로 넘쳐서 침범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못 넘어오게 해놨습니다. 이번에 맞구조 상가를 철거하면서 우리 관광객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편의공간을 그 공간에 많이 도입하려고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구상을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389쪽 좀 봐보시겠습니까. 389쪽,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작년 실적하고 성과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지금 노화 북고리는 여름에 개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군외 달도는 추석 전에 거기에서 개매기 체험을 했습니다. 군외 달도는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약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별도로 고기를 잡아서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은 고기를 잡고 오시고 그랬었습니

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딱 맞는 체험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1년에 1번 하다 보니까요, 상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충분히 맞이할 정도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정비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체험은 청산도 슬로시티를 할 때, 행사할 때 소달구지 체험이라든지 푸른섬밴드 공연하는 비용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고급 청학리 유자 따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범성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면, 북고리 체험…… 아니, 개매기 체험을 갔는데 그쪽의 그런 열악한 사항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그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까, 개매기 축제를 하는데 전혀 홍보는 안 되고 그냥 판만 벌리는 식,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낭비성,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그 부분들을 2019년도에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0쪽에 보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을 우리가 연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그런 지원 실적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지난번에 기금 출연금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3년부터 우리 군에서 매년 1억 5,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총 계가 금년까지 9억 출연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데 우리 군의 용자는 5개 업체 15억 6,000만 원이 용자되어 있고, 이것은 1% 금리입니다. 이것은 신축이라든지 개보수에 따라서 거치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마는 현재까지 5개 업체가 15억 6,000만 원 용자 지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업체는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게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선정을 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열악한 업체들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 출연금을 내놓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그 다음에 391쪽 좀 봐보시겠습니까. 391쪽을 보면 TV드라마 제작 협찬, 거기에 2억이 잡혀져 있죠, 그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들이, 2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이 부분은, 영상 제작 지원부분이…… 예산은 전년도에 하고 실제 사업은 다음 연도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타깃으로 하지 않고, 일단 연초……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tvn 톱스타 유백이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촬영하고 싶은데, 최소한 오면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배편으로 이동하는 이런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TV드라마에 방송하는 소재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복이라든지 문어, 도미, 해산물들은 우리 군에서 제작 지원해주기를 바랍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TV드라마 제작 협찬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전복이면 전복, 김, 미역, 다시마, 톳, 해조류면 해조류. 어려울 때 드라마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 외주업체, 또는 방송사하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협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범성 위원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2억이나 잡아놓고 그때그때 사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뭐 전혀 계획도 없이 그때 뭐 미팅되고 또 섭외가 된다든가 그런…… 사용하고 그런 부분들로 계속 쓰여가고 있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이를 테면 방송사에서 우리 군에 제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도군에서 촬영하고 싶은데 이 정도는 제작 지원해줄 수 있느냐?” 라고 이러면 저희들이 “우리 특산품이 홍보되고, 관광지가 홍보되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그럴 때 방송 제작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 사전에 포괄적 의미로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여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뭐든지 예산을 잡아놓으면 전복, 전복하는데, 내년도 3월에 보면 홍수출하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그런 어민들의 고충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일치하고, 지금 해조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봤을 때는 완전히 뭐 가격 하락으로 해가지고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홍보들이 우리 수산업 경제에 정확히 미칠 수 있는, 그런 뜻깊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인데요.

하여튼 이런 예산이 굵직굵직하게 세워졌는데 어민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못한, 그런 데로 쓰인다. 협찬만 들어와서 잘 먹여서만

보내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다음은 392쪽입니다. 수산물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7,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 하나 제작해 가지고 7,000만 원의 값어치를 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우리 특징…… 수산물의 품목이라든지 종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산현황부터 소비, 판매, 이 모든 부분이 다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어떤 특집프로그램 다큐를 하면 소비촉진을 하는 데에…… 그 품목만 취급하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들이 많이 와 닿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봤을 때는 7,000만 원이라는 그 막대한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하게 “아, 이 돈만큼은 이랬구나.” 라고 할 정도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고금도, 고금대교 관문 상징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7억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상징물을 완도군에서 여러 곳에 설치해 놓고 있는데 개중에는 보기가 싫다, 뭐 어떤 부분들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준비사항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지금 우리 완도로 들어오는 관문을 크게 보면 군외 달도가 하나 있고, 하나는 고금교교리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달도

방향은 건강의 섬 아치가 있는데, 저쪽 고금도 방향은 들어올 때 강진 마량인지, 고금인지, 어디 지역인지 관광객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예다가 군을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자고 해서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금년 예산이 5,000만 원 세워져 있어서, 디자인과 실시설계를 현재 4,2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 1월까지 완료되면 내년……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3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지금 가교리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가교리 부분은 우리 군 것이 아니고요, 유자 모양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다리, 이쪽 고금면 쪽에 하나하고 또 등대모형으로 2개가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것은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우리 군에서…… 나는 그런 부분들에 이런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래서 지금 현재……

□ 이범성 위원

갖다가 세우기만 엄청 하고, 어떤 부분들은 유자, 고금도는 유자가 유명하고, 또 다

른 데보다는 특산물,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완도의 여건들, 가교리 쪽에서도 만약에 그 자리가 안 좋다면 다른 데로 좀 옮긴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냥 상징물만 갖다가 (청취불능)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성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이번에 디자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현재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되게끔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금대교 관문 상징물이라고 했는데, 그 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 아직 안 했죠, 안 하고 예산을 올려 났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아직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392페이지요. 황칠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해뒀는데, 올해 한 5,000 예산을 세웠었나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올해 5,000, 5,000해서 토털 1억 원 세웠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떻습니까, 그것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제작을 했었나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황칠다큐를 제작한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래서 KBS 서울 본사에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추진하다가 그쪽 외주 제작장이 바뀌지면서 황칠산업 자체가 현재까지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것은 일부 즈 먹는 것. 그다음에 비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큐를 제작하기는 좀 무리다. 또 하나는 완도지역만 방송을 제작하면 타 지자체에서 반발하면…… 그런 데에 문제점도 있다고 난색을 표시해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올해 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올해 1억 5,000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세웠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 황칠이라는 부분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고 그래서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드라마 다큐 제작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 금년에 무산된 이유 중에 하나도 금액이 좀 적지 않냐, 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는 주로 황칠에 대한 산업화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방송촬영을 많이 하려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증액된 금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 다큐멘터리를 할 때 우리 황칠에 대한 특수성이나 뭐 어떤…… 그래도 방향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정해지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데. 저희들은 대략적인 부분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협상단계에서 무산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는 단계입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황칠을 환경산림과에서는 황칠에 대한…… 우리 몸에 유해한가, 그것에 대해 용역을 넣어놨던 것을 엇그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용역비가 세워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이미 중국 같은 데는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 최정욱 위원

그렇다면 환경산림과에서 세운 것은 무의미하네요, 그 예산은?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환경산림과에서는…… 황칠이 우리나라 중국 황칠하고 성분이라든지 약초나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 최정욱 위원

아니, 성분은 기해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군에서. 그것 뭐냐, 우리 사람 몸에 유해하느냐, 무해하느냐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그 용역도,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무의미하다든가.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거기는 환경산림과 쪽 업무라서 제가 깊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몸에 유해하느냐, 무해하느냐를 환경산림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여기서는 그냥 좋은 쪽으로…… 이것도 어차피 홍보영상물이라고 한다면 인체에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넣은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지금…… 그것이 뭐해서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무시하고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중국은 후진국이다 보니까 우선 어떤 몸에…… 어느 정도 유해한 것도 그런 것은 일체 무시하고 해버려요. 우리나라도 보통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이게 식약청에 이렇게 해보면 이것은 독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식품화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신청을 아예 안 받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해보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영상물 제작을 무조건 하기 위해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런 것이 나온 다음에 그렇게 해야 돈을 안 버리죠.

그 다음에 해양치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해양치유보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다.” 라고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제가 그 분야를 설명 드리면 치유산업과가 9월에 직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청 입구라든지 상황실에서 외부손님들에게 치유산업 영상물을 틀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해라.” 라는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치유산업과에서는 자기

들은 방송소스라든지 방송영상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작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다시 제작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나 영상 제작이, 이 제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송에 노출되기 때문에 방송사라든가 외주제작사하고 저희들과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위원

해양치유도 다른 것 없어요, 다 홍보지. 홍보가 제일…… 우리 치유산업에서도 홍보를 제일 1번으로 삼고 그래서, 홍보비가 많다고도 했는데, 그게 전문화돼서 전문부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양치유산업과라고 해가지고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를 무시하고 “우리가 더 낫다.” 라고 이렇게 말해 버리면 이 과 존재가 필요 없는 것이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방송국을 상대로 노출……

□ 최정욱 위원

아니, 어차피 해양치유도 방송과 연결된 것이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방송이예요, 우리 해양치유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거기 쪽 예산은…… 일부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일반군민들 (청취불능) 홍보용……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문부서가 생겼는데, 전문부서를 이쪽 다른 데에서…… 이게 더 우리한테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이게 당초에 영상마케팅이라는 부서가 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부서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지고 우리 과로 이 영상마케팅이 흡수되면서…… 그러니까 영상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관광자원이라든지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있었던 부서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런 파트가 저희 과에 다 묶여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더 전문가입니다.” 라고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가 생겼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407페이지요, 음식 개발 및 생활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완도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봤죠. 완도에 왔을 때 관광객들이 완도에 특산품에 대한, 식탁에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뭔가 먹어 보지를 못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소리예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과장님도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많이 들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한번이나 합니까.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도 서로 농촌기술…… 거기에서도 음식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우리 인력이 없어서 그냥 그 선에서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어찌됐든 여기에서 취급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 부분은 최소한 세 가지 정도 이상은

완도특산품이 식당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에 대해서요. 용역비 네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용역이…… 대부분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나요,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될 일을 다 용역으로 올려놓은 것 같던데.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아마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 최정욱 위원

왜요?

예를 들어서 408페이지 같은 데를 보면, 397페이지요. 돌미역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서도 관광상품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용역도…… 이것도 5,000만 원이나 세웠는데 우리들이 주로 해보니까 돌각미역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이것은 저기 포장재……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것하고 돌미역이 현재 가닥으로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이 오시면 (칭취불능) 크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좀 떨어진단다. 내용물은 진짜 좋은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도 몇 십 년 해본 것인데, 가닥보다 돌각을 샀을 때 왜 소비자

가 선호하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죠.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우선 상품화를 개발해서 포장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5,000이나 세웠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거기하고 관광상품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 최정욱 위원

어떤 상품이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아까 침에 말씀드린 대로 여서도에서 옛날에 갈치 낚시, 외줄 낚시하는 (청취불능) 낚시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상품해서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관광상품이라는 부분이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 최정욱 위원

아니, 아까 돌각미역 개발이라고 해서……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두 가지가 같이 묶여있는 부분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용역을 보면…… 394페이지도 그렇고요. 공모사업 응모제안서 작성 용역, 이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아까 뒤에 보면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균특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예비계획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역을 해서 그런 용역결과,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직원들이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할 수는 있으나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업체들이 그 부분에 참여해 주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395페이지를 보면 주민소득 발굴운영 그래 가지고 이것도 용역인데,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더 잘 안 답니까. 이것 이렇게 보면 용역으로 인해서 뭐가 잘못되면 우리 직원들은 용역이 이랬으니까 이랬다고 하려고, 꼭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지금 용역에서 보면 토목공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대신해서 용역비를 절감하고 나머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방금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은 가고 싶은 섬 사업 예비계획,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용역비 항목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미 하자고 결정해 놓은 것이 이미…… 여서도 같은 경우는 그전에 결정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 최정욱 위원

왜 이러냐면 밖에서는 용역천국이라고 하거든요. 용역으로 인해서, 뭐 많이 따기 위해서는 밖에서는 물밑 접촉하네. 또 외관 자체가 모든 것이 용역이다, 조금만 못하면 용역을 세워서 용역을 주네. 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내가 봐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뭐한다, 조금만 뭐하더라도 용역을 먼저 줘요. 보니까, 처음 이런 것을 봅니다마는……

용역에 대한 것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제대로 이런 것도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하다 보니까 일을 해보면서 자기가 창의력을 개발하고 더 좋은 점을 찾게 되어 있지. 외부회사에서 우리 완도지역을 어떻게 알아서 용역을 한대요, 제대로 한다고 하면.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래서 용역을 무분별하게 못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 최정욱 위원

심의위원회도 솔직히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은 생각 좀 해봐야지, 이것을 이대로…… 우리 과에서 벌써 4개잖아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정말로, 아까 그 버스 같은 것. 정말 그런 것 같이 조사하기 힘들고 그럴 때 그런 것까지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밖에 어떤 것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용역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용역을 해버리니까. 이런 예산은 솔직히 불쌍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알겠습니다. 저희 과부터 앞으로는 용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서 세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해양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대비 32억 8,317만 7,000 원이 증액된 159억 3,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과장님. 541페이지요. 친환경미역줄기 수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게 그 약산면으로…… 해주는 사업인데. 미역귀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역줄기가 이렇게 4월 말, 미역 (청취불능) 되면 미역줄기

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수매해서 농토에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비료로,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게 그…… 한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보면 화가리 해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지역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센터 생산단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침에 이야기했던 미역줄기 수매를 kg에 한 40원 정도에 수매해서요, 이것을 가져다가 논에 뿌려서, 트랙터로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생산한 것은 이렇게 지안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약간 좀 더 가격 높히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미역줄기를 미역공장에서 하고 있겠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미역공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어디…… 바다에서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바다에서 직접, 화가리…… 투입하는 농가에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뿌려 가지고 논갈이를 하죠.

□ 우성자 위원

미역을 바다에서 해가지고 배에서 바로 공장으로 팔지 않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미역귀나 미역…… 판매를 하고요. 이런 미역귀를 생산할 때, 미역귀를 생산하려면 줄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귀만 이렇게 채취해 버리고 줄기는 전부 다 바다에다가 버려 버리고, 또 때로는 이것을 연안에 가져와서 인양기 있는 데로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5월 달쯤 되면 이것이 썩고 파리가 날리고 냄새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서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미역귀를 따로 파는 분들이 있나요, 누구나 다 파는 것이 아니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죠, 미역귀를 생산하는 어민들이 미역귀만 공장에다가 팔아버리거든요.

□ 우성자 위원

아…… 그리고 줄기를 따로 판다는 이 말이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줄기는 이제…… 줄기는 바다 연안에 버려 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말고……

□ 우성자 위원

팔아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우리가 40원씩 이렇게 살 테니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수매해서 비료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 우성자 위원

농사를…… 우리 동네도 친환경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다는 말은 안 들어봐 가지고 생소해서.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은 화가리 지역에다가 전체에 하기 어려우니까 그 지역만, 특정한 지역에 한정해

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 미역줄기를…… 있어도 몰라서 못 파는 분들도 있겠네요, 화가리만 하나까. 다른 쪽에는요.

□ 최정욱 위원

줄기는 거의 약산 쪽에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미역귀사업을. 그런데 문제가 됐던 데가 약산지역이라서 그때 당시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조건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이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 우성자 위원

533페이지 밑에 조건직불제, 수산직불제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 직불제. 이것은 올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 우성자 위원

아, 그러면 그 이전부터 하셨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은 201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을 바다를, 어떤 기준으로 직불제를 주는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바다 직불제는 우리가 연안으로부터 8km

떨어진 도서지역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은 제외합니다. 그 5개 읍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에만 조건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 군은, 면은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도서하고 연결되어 있고, 완도읍을 기준으로 해서 8km 이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5개 읍면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그 밭은 예를 들어서 1헥타르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는 도대체 어떻게…… 헥타르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몇 헥타르로 정한다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주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 말이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대상이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조건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종사 조건이 연간 60일 이상, 그리고 연소득이 11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업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듯이 이 어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사무소에서 등록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면, 우리가 연중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의해서 나는 12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산물을 판매하고 생산을 했다. 이 자료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그것을 점검해서 11월 말에 우리들이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경영체 등록이 되고 60일 이상 근무를 하면 60만 원씩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
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관계없습니다.

□ 여성자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보통 시골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뭐 60일 이상 바다에 살면
다…… 할 수 있고요.

또 120만 원어치 소득을 한다고 했죠. 그
것은 예를 들어서 어획이 많은 사람들
은…… 내가 고기를 못 잡아도 내 이름으로
판매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사
람이 많이 팔면 내 이름으로 갖다가 판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 생각을 안 해
보셨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 부분은 우리가 120만 원 이상이면
되니까, 어장하는 사람들 거의 뭐 1년에 몇
천만 원씩 소득을 올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실제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서류상으로만 일단
저희들이 확인하는……

□ 여성자 위원

그러면 뭐야, 어장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서 일반어가도 해당되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어가 수가 한 2,300에서 2,400 어가 정도
됩니다. 1년에 저희들이……

□ 여성자 위원

완도군이요? (예)

그 부분이 참 나는…… 그것이 아니고 바
다를 뭐…… 어디 헥타르를 얼마나 많이 하
면 많이 들어가는가, 그런 것인가 해가지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것에서 예를 들어서 60만 원 받은 금액
중에서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놓습니
다, 30%는. 그러니까 60만 원이면 6, 3,
18, 18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공동기금
별도 통장으로 그것은 입금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 여성자 위원

그 저기…… 농가직불제는 30%가 부당하
다고 해가지고 작년, 올해부터인가 안 받기
로 했거든요. 그런데 수산 쪽은 받는가요,
그것도 마을공동경비로 하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것은 저희들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해수
부애다가 제도개선을 농업파트를 이렇게 원
하는 농가…… 마을에서만 30%를 주니까
우리 수산파트도 원하는 어촌계에만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여성자 위원

원하는 농가가, 직불금을 받는 분들이 다
100% 찬성해야 만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
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다 됐거든요. 수산
쪽은 아직까지 받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것은 아직……

□ 여성자 위원

받고 있다는 그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552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어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류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적조피해 대비 어류양식 환경 개선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이 부분은……

□ 이범성 위원

552쪽, 두 번째 줄입니다. 재료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우리가 약품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스텍이랑 두오존이라는 두 가지 약품인데, 이 약품을 공급해 주면서 적조가 들어오면 물을 일단 차단하고, 이 약품을 사용해서 어류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물질로 서부어류양식수협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 이것 위탁처리된 것입니까? (예)

아니, 어스텍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효능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류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여기가 또 어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더 아파…… 아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저기, 그다음에 554쪽에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 1개 사업에 1억 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어업인들이 의식 없이 쓰레기를 안 보고 대놓고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환경정화를 위해서 그런 어떠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하는 이런 장소에 쓰레기도 일단 수거하고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자. 그래서 잔디도 심고 또 꽃밭도 조성하고 데크시설도 하고 그래서…… 또 파라솔도 만들고 그래

서 환경정화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범성 위원

이것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딱 짚어진 것은 없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금 저희…… 금년에는 보길도를 했고요, 내년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청취불능) 쓰레기가 많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든지……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장 얼굴을 찌푸리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꼭 사업비를 깎는 것보다도 사업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바로 보면요, 김 양식 무기산 폐기, 70드림이나 폐기했다는 뜻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이제 70드림 정도, 매년 보면 이런 것도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뭐죠, 폐기처분. 이런 정도를 예상하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 이범성 위원

아, 그러면 일반…… 이게 김 무기산 그 자체를 없앤다는 뜻……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무기산을 우리가 단속하거든요. 해경하고 우리하고 같이 단속하는데, 적발되면…… 주인이 없는 것으로 많이 적발돼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데 이것을 누가 처리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신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 이범성 위원

아, 이 부분은 지금 무기산을 안 써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잡히면 1년에 한 70드럼 정도는 거의 폐기해야 된다는 이것이지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귀중한 부분이네요.

지금 해양쓰레기, 제일 밑에 마지막 칸을 한 번 더 봐보십시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이 다 여기 자료를 가져와서…… 잘되고 있습니다. 선상집하장은 올해 몇 군데에…… 1식만, 1식이 지금 몇 군데 선정되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이 부분은……

□ 이범성 위원

2018년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1년에 한 9개소로 해서 개소당 한 2,500 정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진했거든요. 추진했는데 실제 보면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활용도가 좀 낮다고 그래서 올해는 금액을 한 4,000만 원 정도로 크게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소당 한 4,000 정도로 사업비 단가를…… 개소를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모 있게 만들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 6개소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추진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섬에 가보고 그러면, 순전히 그냥 집하장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쓰레기만 가득히 쌓아놓고.

그런 부분들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관리도 안 되는 집하장을 꼭 사업을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선상집하장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놓은 쓰레기는 육지로 올려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규모가

있게 해야 되겠다. 너무 작게 하나까 운영하는데도 어렵고 실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좀 깊이 만들고 더 많이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로 규모 있게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지 대충 돌아보면요. 적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쓰레기를 갖다가 한 몇 대씩 와서 채워버리면, 다 차버리면 그 뒤의 후속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에 따른 이런 사업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속…… 주면서 어떤 관리까지 부여해 준다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해가지고 사업을 줄 수 있게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운영이 556쪽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산경영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죠? (예)

지금 이 자체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뭐 사업비는 1억인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을 1년에 몇 번씩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선포할 적에 365기동대를, 수산업경영인으로 하여금 365기동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청정바다수도 완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군 경영인연합회에서 읍면별로 이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 실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 수산인경영인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범성 위원

관리감독은 하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서 읍면별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나가고, 군 경영인연합회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쪽 지역에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연락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군비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봤을 때…… 청정만 입에 물고 살지 말고 직접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부분들을 경영인들도 노화 쪽에서는 많이 참여해 가지고 넘도랄까, 아니면 무인도까지 가서도 하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제가 그 얘기만 한 번 물어볼게요. 다목적 인양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이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엄청. 사업비만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속조치로 관리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면 한 어촌계에 뭐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또 흉물스럽게 금방 자빠지려고, 태풍이 오면 바로 쓰러질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다목적 인양기를 한 군대를 못주더라도 1년 어디 그…… 수리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사전점검도 해가지고 계속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관리업체 지정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량이 많다 보니까 수리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리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입장은 가능한 한 아까 침에 수산직불제에, 그 30%에 나가는…… 수산직불제에서 30%로 나가는 공동기금에서 일부 수리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마는 그것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2000년도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요.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수리업체 지정부분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자체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는데, 동네 어촌계에서 수리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수리업체를 부르다 보니까 여비를 달라고 그러지, 차량을 타고 오면 차비를 달라고 그러지,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다는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우리가 6억 2,500만 원이거든요. 546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시설비……

□ 이범성 위원

예, 시설비예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후속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없으면 뭐 예산을 조금 만들더라도 그 부분들의 맥을 잡고 가자는 그 뜻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너무 계속하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있어서 이상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계속해도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542페이지요. EM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EM 성분이 뭔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성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파악을 못했나요? (예)

그러면 해조류 액비공급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액비공급은 그때 당시에 해조류가 과잉 생산돼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미생물하고 다시마 성분을 해조류하고 이렇게 같이 넣으면 더 효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분분석을 제가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성분분석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 김재홍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금 이 부분을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가에……

□ 김재홍 위원

내가 묻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식물에는 효과가 있는데 해양 쪽은 내가 봤을 때 소독제 형식,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참고로 우리 군에서 새우양식을 하다가…… 작년부터 새우양식을 하고 있거든요. 중도리에서 새우양식을 하는데, 그 분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이 분은 EM을 갖다가 개인이 사서 쓰고 있더라고요.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면 새우양식 쪽으로 가야지, 왜

해양…… 해조류 쪽으로 가냐는 얘기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해조류를 가지고 EM을 같이 만들고 있죠.

□ 김재홍 위원

제가 봐서는 소독제 형식이고, 지금 보면 아까 어스텍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라리 어스텍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EM이라는 이 자체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차라리 다른 대책으로 해가지고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금년부터는 20%를 이제껏 농가한테 줬는데 한 2년간 새우양식에서 써봤더니 주로 새우에서 된 것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의해서 많이 폐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EM을 갖다가 썼더니 폐사량을 한 20% 정도 감소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새우양식으로 지원을 한번 해볼까.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면 개정과목을 바꿔야죠, 이 문구 자체를,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봤을 때 이것을…… 이런 부분을 삭감하지 말고 기왕 올라왔으니까 양식장에 소독제로 대체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소독제로…… 어류양식에 액비를 공급하는 것은 지금 수산경영과에 그것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새우양식에 한번 내년도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

□ 김재홍 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EM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실제 써보신 어민이 20% 정도 폐사량을 감소시켰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 김재홍 위원

새우에서요? (예)

새우가 지금 한 군데 있는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새우에 한 군데 있고, 한두 군데 더 늘어나는 것으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542쪽이요,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이라고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시마꼬리나 미역줄기나 이런 것 말고도 이렇게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금 해조류부산물, 이 부분은 주로 추진했던 것이 미역줄기하고 다시마가 있는데, 이 해조류부산물은 미역 뿌리가 났든 다시마 뿌리가 났든 이것을 세척해서, 수거해서 부산물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전복먹이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금년에 태풍이 두 차례 지나가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 그러면 금년에 그런 사업보고를 해봤는가요? (예)

어디어디에서 그런 사업을 했는지 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주로 했던 것이 금일수협에서 했고요, 또

여기 완도전복산업연합회에서 추진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금일수협하고 전복산업이요, 다시마꼬리하고 뭐하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미역줄기하고 뿌리, 이런 부분까지 전부 수거해서……

□ 허궁희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조금 생소해서.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도 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얼마 실적, 그런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리고 같은 쪽 제일 밑에요, 해삼 씨뿌림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정방법이나 아니면 금년에 했던 그 지역들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삼 씨뿌림 사업은 저희들이 수산자원공단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종전에는 우리 군에서 종자만 사다가 이렇게 뿌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안 돼서 이것을 공단에다가 위탁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첫째는 서식기반을 하기 위해서 투석하거든요, 투석을 하고 나서 해삼 씨뿌림을 하거든요. 그런데 씨뿌림 사업은 균특으로 하는 것이요. 전년도에……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에 청산 모동리에다가 해서 해삼을 저희들이 한 67만 마리 정도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류하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뭐 관여를 안 하고요, 관여를 안 하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사업자 모집은 우리 군에서 하죠.

□ 허궁희 위원

아니, 왜 제가 묻느냐면요. 방금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마는 해삼서식지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곳에서 투석을 할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그쪽에다가 이렇게 의뢰했으면 관리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냥 손을 떼는 것인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렇게 해서 주면 공단에서 사후관리 결과 보고를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이제 그래서 그런 확인을 하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 허궁희 위원

옛날부터 씨뿌림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장난이 좀 심했지 않았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종묘 검출로 어촌계하고 우리 군이 같이 가서 검수하고요, 살포할 때 우리가 같이 가거든요.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예)

공급이나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기술적인 부분만 저희가 위탁합니다.

□ 허궁희 위원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좀 그러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보고해서 현지조사를 갈 때도…… 관리인이 나가고 할 때도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하고요. 기술적인 것이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전문가들한테 기술만 위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두 쪽으로 이렇게 합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투석이 되는 쪽에다가 씨뿌림도 같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서는 특혜성이 많은 사업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반조성을 하는데도 상당히 큰돈이 들어가는데 씨뿌림까지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가 주게 되면, EIM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요. 투석을 하게 되면 없는 해삼이나 전복이 많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왜 그 경험을 했느냐, 전복이나 해삼이 화약 냄새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또 이중으로 종자까지 보급한다는 것은 나는 특혜다.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느냐면 그런 입지가 좋은 곳에다가 투석을 할 것 아니에요. 나쁜 쪽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전복이나 해삼이 몰린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씨까지 뿌린다는 얘기는 조금……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제 말 뜻은 위치는 그런 대로 이렇게 육지부근이라도 괜찮은데, 해삼이나 이런 것이 점점…… 수산물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공급해 주는 것이 나는 옳고.

나는 투석과 씨뿌림을 별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의 생각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고루 이렇게 나눠서 이제껏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 사업들은…… 해삼은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거의 실패해서. 이것을 기술은 전문 기관에다가 좀 하고, 적지조사를 사전에…… 이것은 왜…… 특혜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수산사업자 공개모집을 하면 이것을 적지조사를 합니다. 적지조사를.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적지조사를 하면……

□ 허궁희 위원

당연히 하겠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여기도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청산 모동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10% 자부담이니까 2억 7,000을 지원해 주는데 2,700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이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지까지 해왔던 부분이 한 10여년 가까이 그 방식으로 해 왔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기고.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운영하고, 이런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동리, 모서리 다 합쳐서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닙니까? (예)

그런 곳은 투석만 해봐도 굉장히 많이 모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해삼 씨뿌림을 기다리는 어촌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문의한 것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 다음에 546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연화장 설치사업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화에만 2개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우리 군비가 도비 사업이라서……

□ 허궁희 위원

아,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 허궁희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보길도도 (청취 불능) 많고 소안도 많은데 그렇게 찢어서 좋을 텐데 왜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이렇게…… 어민들이 봐서는 특혜성이 아니냐고 오해도 하겠네요. 그것 설명을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54쪽이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죠. 이것이 뭘니까, 이렇게 현재…… 이렇게 많은 양이 되어 있는데. 계산상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하면 몇 톤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83톤입니다.

□ 허궁희 위원

83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궁금해서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처분은…… 거의 우리가 정산 받을 때 받는데, 농가퇴비로 거의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제가요, 엇그저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제설제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제설제로요?

□ 허궁희 위원

예, 굉장히 신산업으로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비로 쓰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투자한 만큼 소득도 될 수 있다면 그런 길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봤어요, 한번. 그런데 상당히 유망이 있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더라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어디 방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허궁희 위원

그것은…… 제가 돌리다가 봐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신규사업자들이 나와서 자기 사업장을 소개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쭉 앉아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선정을 쭉쭉 해요. 1차 합격자, 2차 합격자. 그런데 1차든 2차든 무조건 거기가 1순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

이 부분들이 참 나는…… 이것이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없애는 방법도 되지만 소득원도 큰…… 뭐 가격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아주 이렇게 유망한 사업으로 그렇게 각광 받으니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퇴비보다는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한번 방송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한번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54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마꼬리 수거사업이 있죠, 2억.

541쪽이요, 거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다시마꼬리 수거사업은 보통 다시마가 한 2M 정도 되는데, 끝부분을 잘라서 이 부분이 유통되면 유통질서도 문란하게 되고 그래서 별도로 수거해서 수거해 왔다가 이 부분을 전복먹이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고 이것 자료를…… 전년도에 했더니 67톤을 수매해 가지고, kg에 한 3,000원 정도 수매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민들한테 다시 (청취불능) 620 정도 되는데 620원씩 받은 이 돈은 우리 군에다가 다시 세입 조치를 합니다. 세입 조치를 해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다시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이것 수협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죠? (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아우트라인, 대체적인 업무시책을 내려 보내거든요, 내려 보내고. 그것을 수매했다가 수매하고 다시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여름철에 먹이가 없을 때, 전복먹이가 없을 때 판매하겠다. 그래서 군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복먹이로 거의 안 쓰고

그냥 대충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2억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협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금만 받고 관리 안 하고…… 거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좀 잘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543쪽이요, 바다식목일 기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바다식목일은 매년 세계 유일하게 바다식목일을 우리나라에서 지정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념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도에서 그래도 규모가 제일 큰 완도에서 한번 추진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양훈 위원

어떻게…… 뭐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도 이제…… 어차피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해서 할 사업인데요. 이날 간단히 뭐 행사를 하고, 또 방문하고, 또 일부 잡지라든지, 이런 부분…… 행사, 뭐 이런 부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전문가 들하고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 김양훈 위원

어느 회사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됐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회사에 주지 않고, 이 부분을 주로 관리하는 자원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위탁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것 뭐 하루하는 행사죠? (예)

하루하는 행사에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행사가 주로 그냥…… 일단 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침에 이야기했듯이 방문행사도 있고 (칭취불능)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체험프로그램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쪽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프로그램……

□ 김양훈 위원

그러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구먼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리고 이게 바다식목일이라고 하면…… 기념탐도 세우는 행사, 이 부분까지 포함되거든요.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쪽에 보면 시설비요, 도교정비(수리, 교체)사업이 있는데 10개소, 어느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시설비에서 도교정비…… 도교정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도교, 부잔교, 도교를…… 거의 교체해줬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 1억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수리사업을 했어요.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것이죠. 선정된 것은 아

니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닙니다.

□ 김양훈 위원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체하겠다고 지금 1억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모집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 김양훈 위원

그것도 아직 안 됐는데 예산서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예산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정해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업도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금 우리 군 읍면에서 도교가 파손되었다고 건의 들어온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정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다음부터는 사업을 딱 정해놓고, 목을 정해놓고 그것이 선정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거의 선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김양훈 위원

금방 설명할 때는 안 됐다고 해놓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 왜 그러냐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됐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 김양훈 위원

다음부터는 미리 하는 동네들을 먼저 선정해놓은 다음에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2쪽예요, 재료비에 전복 양식어장 차광막 설치 지원이 있죠, 1억.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차광막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지원해 왔는데, 한 2년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민들이 반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희망하는 읍면만 저희들이 지원해서 노화, 보길 이쪽에서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보고를 안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뭐 은박지, 이런 부분도 거론되고 그래서 실제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게 보니까 한 2~3년 전부터 계속 말이나온 것인데요. 사업도 안 하는데 일단 무더기로 동네마다, 어가들마다 나눠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로 쓰고 있냐면 건조장에다가 깔고 쓰더라고요, 전복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뭐 다시마 건조나 미역 건조나, 뭐 다른 건조장에다가 쓰고 있고, 창고에 다 쌓여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만 많이 편성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전복이 뜨거운 태양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부분도 좀 예방하고, 먹이 공급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먹이 공급을 하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실제 어민들의 호응이 별로 안 좋아서 금년부터는 희망하는 읍면만 보급해 주고요. 내년에는 아까 침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원하는 이런 제품들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 김양훈 위원

이 차광막 재료를 사주는 것보다 어민들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먹이 절식이라든가 이쪽에 더 홍보하는 것이 낫지. 큰 액수만 들여 가지고 쓸데없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교육도 시키고 계속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는 좀 지침을 바뀌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것 관리를 좀 잘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투입해놓고 전혀 사용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547페이지요, 양식어장 정화사업이요. 이것에 대해서 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547페이지?

□ 최정욱 위원

547페이지 제일 밑에요. 정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읍면에서 수산사업자를 모집하거든요. 읍면에서 수산사업자들을 모집하면 모집한…… 그 희망한 어촌계에 대해서 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수중에 있는 쓰레기

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 바다 정화사업이 아니고, 지금 정화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바다 밑을 정화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에 밀리는 쓰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니까 면허지에…… 면허지가 있는 어구만 하지, 공유수면은 하지 않고요.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면허지 밑에, 바다 밑에 해양 정화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매년 해왔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어떻게요. 했어요, 타 읍면 어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올해는 2개소에 했는데, 석장리하고 월양리하고 김 양식장 421헥타르를 했거든요, 금년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 최정욱 위원

잘 되던가요. 그 시설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시설물 다 철거하죠.

□ 최정욱 위원

철거하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전복은 아니고 다른 것이죠, 철

거한 계절사업 상품을 말하는 것이고 계절양식……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북도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데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양식, 그 계절…… 철거했다가 시기 때, 마를 때 그럴 때는 비어 있으니까 거기가 가능하다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이제 거의 해조류 중에서도 김을 많이 하고요. 또 어촌계별로 미역양식어장이나 정리시기가 되면 이런 어촌계에서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그 정화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정화사업은…… 이 등록업체가 있거든요. 일정한 기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도에 등록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이 정화 등록업체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하면 그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입찰을 붙여서……

□ 최정욱 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정화를, 어떻게 하냐고. 예를 들어서 바다에 뭐가 뒤집는다든가,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것은 배에 GPS가 있잖아요. GPS에서 거기에 보면 배가 끌고 다니는…… 1일차에 얼마 해저를 긁었다고 이렇게 매일 일자별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공계 처리할 때 1일차에는 몇 헥타르, 2일차에는 몇 헥타르 그렇게 준공계에 첨부하고요. 거기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설계

를 뺄 때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대충 추적량의 쓰레기를…… 설계에 각각 반영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탁처리, 수거된 쓰레기를 전부 위탁처리……

□ 최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잘되고 있나는 그것……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잘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550페이지요, 청년고용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고 하는 것인지 설명 좀, 양식어장 청년고용지원.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하려고 해봤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주로 39세 이하의 도내 수산계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어업분야 전공 졸업예정자 들한테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 최정욱 위원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1명 있었는데 이 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3억 1,500이나 했네요, 왜 안 됐는지 이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계속 올려서 또 안 되면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금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이런 예산은 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이 지금 반영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 모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홍보 부족,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게 군비, 도비 다 맞춰서 1억 5,000씩, 50%씩 해야 되는가요. 규정으로, 도비에 맞춰서. 그래서 할 수 없이 1억 5,000을 맞췄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아까 542페이지요. 이것 제일 위에 김재홍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EM 활성화, 이것이요. 우리가 예산으로 올릴 때는 정말 필요로 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짜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데, 안 되면 뭐 새우관리한테 주겠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새우…… 안 되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공급을 해줬는데. 그 기술센터에 문의했더니 주로 특용작물이나 벼에 주는 데, 뭐죠. 병충해에 좀 더 강하고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농사용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농사보다 우리는 새우양식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새우양식에 공급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 최정욱 위원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판단은…… 정확하게 안 세워져 있구면요, 말을 들어보면.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해보겠다는 것이지,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짜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20%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새우양식에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로 놓고 예산을 짜는 거예요, 새우에다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새우양식 효과……

□ 최정욱 위원

아까는 새우를 안 했다가 뒤로 새우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새우양식에 보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 최정욱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 최정욱 위원

처음에는 “공사 쪽 하는 것인데.” 하면서 이게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새우 쪽으로 해서 새우 쪽 거기에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잘못 전달된……

□ 최정욱 위원

이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짜면 안 되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죄송합니다.

□ 최정욱 위원

예산이 좀 문제가 있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는데.

□ 최정욱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 동감하고 필요로 하고…… 우리 과장님이 좋은 것이면 자신 있게 “이것은 해야 됩니다.” 라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생각해 봅시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좀 도와주십시오.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없습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2019년도 수산경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예산안 총액은 254억 5,300만 원이며 전년대비 53억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572페이지요, 수산물시설 저온저장시설이라고 어떤 사람한테……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수산물 보조사업 말씀하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30개 정도 책정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연초에 각 읍면으로 이렇게 공문을 시달하고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수산…… 전체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신청자가 신청하게 되면 2월에 수산조정 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 이것이 70개 소형냉장고를 말하는 것 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소

규모로 이렇게 1,200만 원짜리를 자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소요가 많더라고요.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대수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대수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소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571페이지, 이것은 뭐예요. 저온창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은 1억짜리 4개소거든요. 그래서 자담이 30% 들어가요. 그래서 4대로 7,000만 원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아니, 올해 사업도…… 됐고요. 2017년도에 2개소, 그 전년 2016년도에는 3개소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냉동…… 저온저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 신청하게 되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해조류 건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연산 해조류?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 27개소를 했는데요. 예산서에는 3억 60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7개소를 했고, 아마 내년에도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사업자들이 자기 규모에 맞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담……

□ 최정욱 위원

자연산해조류 어떤 뭐…… 자연산만 가지고 해주라고 하는 것인가요, 뭔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명칭부기는 자연산으로 되어 있는데 완도 군에서 생산되는 보통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톳이라든지 다 해당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형냉장고네요, 저장시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이것도 소형건조기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건조기…… 소형 건조기.?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건조기입니다, 건조기.

□ 최정욱 위원

577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이라는 부분, 설명 좀……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해조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20대 분량을 저희가 배정해서 대당 1,000만 원 정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력 절감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습니다.

□ 최정욱 위원

자동화라면 무엇을 말하나요, 지금?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원래 옛날 수작업으로 해서 송곳 같은 것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종자실을 (칭취불능)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동화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포자 자동삽입기로 보시면 됩니다.

□ 최정욱 위원

포자?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그 미역 종자실.

□ 최정욱 위원

아니, 우리 어민들한테 설명 좀 할 수 있게. 포자가 어떤 양식……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미역이라든가, 보통 포자형 종자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막, 도막 내어 가지고……

□ 최정욱 위원

이것 다음에 자료 좀 한번……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사진도 제가 찍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590페이지요. 엑스포 같은 데에 가면 각종 박람회에 참석하잖아요. 그것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죠? (예)

그것 600만 원, 2회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고, 어떻게 추천해서 하는 건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완도군 수출협회라든지 또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문을 이러이러한 취지로 뭐 행사가 있다. 그러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 최정욱 위원

이것 연중하는 것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행사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 최정욱 위원

예.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

□ 최정욱 위원

아니, 박람회에 가면 600만 원씩 2회 지원해 준다고. 이게 지원비 아니에요. 1,200만 원 있는데, 600씩 해서 2회로 정해져 있는데.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그러니까 행사…… 우리가 박람회를 하게 되면 부스를 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스 설치비입니다.

□ 최정욱 위원

부스 설치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엑스포에 부스를 하는데 얼마씩 내고 부스비를 주잖아요. 그 비용이라는 이 말이죠? (예)

그래 가지고 그 신청자들은 완도에서 하는 거요, 예전에 보면 대부분 객지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객지에서 하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정욱 위원

내가 그것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면, 부스에서 완도에서 어떤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체 누군가가 가서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 완도에서 할 때요?

□ 최정욱 위원

아니, 완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판매장에 가면…… 완도지역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제품은 완도라고 써져 있는데, 보면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식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또 완도의 수산물 품질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다가 판매하는 데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완도 업체에도 권장합니다마는 완도 업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가면 완도 물건을 이렇게 구매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 최정욱 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것인데, 우리 완도에서 직접가면 제품 홍보화에…… 거기 이익보다도 그 초점에 맞춰서, 홍보 초점에 맞춰서 여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완도에서 갈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객지에서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주면 뭐가 있냐면요, 거기는 이익목적으로만, 장사해요, 장사목적으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하고 전혀 취지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번에는 잘 생각해서 (청취불능) 하시고요.

591페이지를 보면 LA한인축제 완도특산물 판촉 및 홍보행사, 이것도 지금…… 예전에 뭐예요, 거기서 계속 했었는데, 지금도 이것을 하나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작년에도 갔던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식

작년에도 갔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 어땠어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식

지금 LA가 아시다시피 교민이 한 8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어차피 수산물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 최정욱 위원

많이 있어요? (예)

이것이요, 제가 사업을 했던 데예요. 그러다가 안 되서 내가 안 가고 어디다가, 광주 무슨……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주관해서 계속 했었는데, 이런 데에 추천업체로 해서 내가 거의 보내고 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내가 직접 했더니깐요, 몇 년간.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해놓고 쓸데없는 사람만 재미를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완도 업체가 가서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 수산경영과장 이기식

아니요, 저희가 일단 군 예산은…… 완도에서 하는 업체는…… 주문을 대량으로 주문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 내가 다시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몇 번 해봤던 것이라서 잘 아는 것이거든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입니다. LA한인축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업체가 LA한인축제 특산물 판매장에 많이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군에서 미국 해외시장 개척차원에서 그쪽 수출·수입업체와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LA한인축제부스비 지원을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LA한인축제에 참

여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바이어도 같이…… 행사비나 같이 포함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상정됐고, 지금 관내업체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은 향아식품이 상당히 활발하게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요. 바다가득히, 청산바다, 그런 제품들이 그쪽 LA축제 때 홍보활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직접 가던가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직접 갔습니다.)

자기들 사비 들여서 다 갔어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미국은 향아식품 (청취불능) 그분이 서울 판매팀장을 하고 있으면서 직접 가고, 작년에는 향아식품 부사장이랑 저랑 직접 한 번 참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현지에서 직접 판매했다고요, 끝까지?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제품을 가져가서 본인들이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575쪽을 좀 봐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장보고대교 주변 가두리양식장 환경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장보고대교 인근에 (청취불능) 지선에 우럭 해상 가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저기가 좀 미흡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리사…… 컨테이너박스를 저희가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도색해 가지고 환경정비,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지금 가두리양식장 환경정비라는 것이, 거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개인한테 군비를 마음대로 그렇게 보기가 싫다고…… 자기들한테 개선 조치시키는 것이 낫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가 일렬로 놔둔다는 것이 말이 맞아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니, 개별적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시행해서…… 그런데 거기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지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미관상 안 좋다. 그런 민원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색만…… 칠할 생각입니다, 도색만 저희 시설비로 해가지고.

□ 이범성 위원

시설비로 그 도색 부분만 한다고 하면요.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57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입니다. 용존산소 공급을 위한 전복치패 전용 액화산소 용해기 지원, 80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저도 이제……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기존에 있는 용해 산소비보다 이렇게…… 산소 소비량도 적고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80대 계상해서 2억 예산

을 세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어떻게 봤을 때는 완도군의 양식어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런 데에 사업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79쪽, 유용미생물 육상양식장 공급사업 10회 해가지고 이것이 3,000만 원인데, 지금 이 미생물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효능은 확인해 보셨어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도 지금 서부어류양식수협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광어축양장에서…… 그 EM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양식업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활용도가 있는가, 제대로 검증된 물건들을 쓰고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체크해 볼 테니까요, 실효성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도 되겠죠?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일부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 실효성을 찾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사업추진 전에 양식어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부분 체크해 주십시오.

585쪽입니다. 폐통발 반납, 가운데 민간 자본사업보조, 585쪽, 지금 폐통발 반납 통발구입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완도 어항 내에 제일 귀중한 것이 (청취불능) 이런 폐통발이예요, 폐통발, 지금 죽청리 일원이나 완도읍까지 통발이 밀려다니고 그러는 데.

이 구입비를 5,500으로 많이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얼마, 어떻게 해가지고 집행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폐통발이 이렇게 무단 방치되어 가지고 어족자원이 고갈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일단 폐통발을 가져오면 개당 1만 원씩 구입합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폐통발 수급목적으로 해서 가져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1년에 지금…… 그것을 제대로 가지고 와서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읍사무소랄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죠? (예)

그 부분들 담당자가 얘기해 주십시오,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돈 5,500을 1년 예산에 정확하게 세워 주는데 소비가 되는지.

(“지금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알고만 있죠, 그것 확인 좀 제대로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587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운데 어선어업미끼 지원사업, 제가 알기로는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해가지고 완도 쪽에서 위판을 할 수 있는…… 통발미끼 지원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 계속 지원해줄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도 고금, 약산, 금일 쪽에서 강진수

협, 마랑 쪽에 위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관할 완도금일수협어판장으로 위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어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일부 어민들은 강진수협에 위판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아마 지역 하나 되기 운동 차원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은가.

□ 이범성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강진 마랑으로 전부 다 위판을 하러 가 버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완도까지 왔을 때 미끼라도 지원해줌으로써 어가의 소득이랄까, 어가의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한다면 이게 체계적으로 딱 정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홍보랄까, 뭐 한번 타보신 분들은 계속 타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탄 사람들은 타고, 또 타먹고 가버리는 사람들은 가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따져보고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89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산물소비촉진 홍보지원, 지금 1억 2,000짜리 하나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홍보하면 머리가 막 와사삭하는데. 실은 홍보해야 되는데 적기에 홍보를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미역이나 해조류 값도 떨어지면 홍보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비 1억 2,000짜리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해도 됩니다. 589쪽입니다.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수산유통팀장 조승호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비는 지금까지 많은 홍보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일례로 서울에 가면 완도에

서 해조류나 전복이 많이 생산되어도 서울에 가면 수서역이나 용산역이나 홍보물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내용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항상 홍보하면 우리가 대도시 소비촉진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는 방송 홍보가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금년에는 전복이라든가 광어라든가 해조류를 종합적으로 광고 TV에……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우리 군 자체로 예산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홍보팀, 관광정책팀에 옛날 미디어팀에서 또 홍보팀, 지금 수산경영과에 있는 시장개척팀. 거의 홍보……

위원들이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 홍보를 어떻게 봤을 때 한 곳에 묶여가지고 좀 집약적으로, 시기에 맞춰가지고 딱 처리할 수 있게끔 홍보를 갖춰가야 되는데. 여기 과에서는 이렇게 올리고 저기 과에서는 또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부 좌석을 보며)

그 부분들의 가닥이 예산실에서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조목 조목 잘 따져보겠습니다. 앞지 마시고, 팀장님.

수산물 글로벌시장, 591쪽. 수산물 글로벌시장 개척 언론사 홍보가 또 있습니다. 그것 금액이 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2014년도부터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해외시장을 많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주로 금년에는 홍콩과 베트남, 미국, 또 일본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면 상당히 완도 해산물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하면서 홍보는 많이 뒀습니다마는 실제 소비자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홍보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도수산물이 알려진 만큼 또 현지 언론사라든가 신문에 홍보해 가지고 우리 수출업체라든가, 수입업체가 소

비촉진에 도움이 되어서 수출도 많이 증대되고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홍보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예,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많이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LA가…… 최정욱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데리고 다니는 사람만 데리고 다니고 계시죠, 업체?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상당히 여러 업체를 참여시키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앉으십시오. 데이마케팅 언론사 홍보 1억, 591쪽.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고 그래야지, 계장님을 세워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담당팀이라 얘기했습니다.

누가 해도……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언론사 홍보 1,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1,000만 원이네요, 저 밑에.

이게 그 전복데이 행사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전복데이행사할 때 우리가 방송……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맞습니다.)

그것이죠?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9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MOU 및 수출상담 참가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1식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이것도 해외경비 체제, 항공…… 해외에서 바이어가 완도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항공료 체재비를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92쪽에 대형유통업체 및 직거래장터 운영이라고 이것 부기는 참 제대로 명확하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완도 수산물 소비지직거래유통센터 운영 임대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 부분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복 조건…… 직거래 형식으로 한번 직접 산지에서, 소비지에서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남, 경기도 하남시가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다가 저희가…… 유통협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해볼까, 그런 계획으로 예산 1억을 계상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런데 저희들…… 제가 그쪽에서 계속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런데 쉬운 것이 아니면 도전을 안 해야 되고, 또 도전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협회랄까, 거기에 줘가지고 운영이 안 되어 버리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 임대료인데 임대료로 해가지고 지금 1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쉬운 돈이 아니잖아

요.

이런 것을 좀 깊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에서 일찍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저희 계획은 일단 임대료 부분은 일단 우리 군에서 임대해 가지고 추후에도 임대료를 다시 회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운영 방식도 위탁을 하면 군에서 일체…… 처음에 사업자 공모할 때 일체 비용 지급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이 사업이 도저히 뭐 여건이라든지 사항에 안 맞다, 그러면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 부분은 또 혹시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혹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증금이랄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회수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게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임대, 이것은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계약해서 임대료 부분은 다시…… 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군비로 환수되는,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7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 김재홍 위원

573페이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 가공공장이 물을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물이 부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김 공장에 저희가 이 사업을……

□ 김재홍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보통 개소당 3억…… 지금 3개소 분량이거든요.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에 지원…… 지역은 어디예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 지역은 따로 안 정해져 있고, 일단……

□ 김재홍 위원

예산만 짜놔다, 이 말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여기가 3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읍면에서 15개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3개소 부분만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5억 4,000 계상했는데, 이번에 해결돼서 추가적으로 12대…… 추가 확보되어 가지고 나머지 추가분은 저희가 다음 추

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 이것이 지역인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요, 580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전복 대체품종 종자 공급사업이 있죠. 이것이 5,000만 원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전복 대체품종으로 가리비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가리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종자사업인데, 완도에서 종자생산이 되나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그 부분은 어패류계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입니다. 종자는 완도에서 나오지 않고요, 주로 외부지역에서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두리 협회에다가 해도 잘 크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것을.)

□ 김재홍 위원

완도에서 생산하고 있는가요, 기르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기르고 있나요?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소안하고 노화하고…… 올해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 종자공급은 어디에서 받는가요?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종자공급은 흑산도,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서는 작년에 수온이 굉장히 높았죠, 완전 고수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도가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작년에 완도에서 조금씩 가리비를 길렀어

요, 참가리비를. 그런데 전폐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장항리 쪽에 전폐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비단가리비가 아니고 해망가리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가리비인데 청산 쪽에다가 했는데도 전폐사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외부에서…… 뭐 지금 생각했을 때 전복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복대체품목으로, 전복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종자……)

수온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보고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탐사해 보시고, 그래야 만이 뭔가 답이 나오지.

아까 그 얘기처럼 어느 읍면…… 지금 완도군에서는 어느 면, 어느 면 시설이 되어 있나요?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소안하고 노화 삼마리 쪽하고, 미라리 쪽하고, 지금 그것이 다……)

그러면 청산 쪽은 보고가 안 됐었나요?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자체적으로 어민들이 사다가……)

그러면 종자공급을 받은 데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러니까 완도 특성상 제가 보서는…… 청산 쪽이 수온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리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완도에서 종자가 공급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러면 종자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아까 말씀드린 신안 쪽.)

신안이요? 가리비 생산이 제가 봐서는 저 쪽 동해안 쪽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590페이지, 쇼핑백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특산품 홍보용으로 제작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뭐야, 수산경영과만 쓰십니까, 다른 과도 쓰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니, 필요하면 전체 다 써야죠.

□ 우성자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것 만드는 것 있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도특산품 홍보용으로……

□ 우성자 위원

아까 관광정책과에서…… 386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관광홍보용 쇼핑백을 만들어 가지고 전실과에서 나눠준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전실과에 나눠서 쓰겠다고 그렇게 관광정책과에서 아까 말했는데, 여기 쇼핑백 1,0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관광정책과장님이 이 쇼핑백을 제작해 가지고 전실과에서 나눠서 쓰겠다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 쇼핑백 1,0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쇼핑백이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는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산물 쪽……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특산품 홍보용이라고 하고, 여기는 관광홍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한 쪽은 관광용, 한 쪽은 특산품용으로 이렇게…… 하찮은 것이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 하나 분명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전실과에서 나눠 쓰겠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어서. 그러면 한 실과에…… 아니, 청 안에서 어느 과에서 만들었는지도 안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판촉행사를 하거나 하면 현장에서 홍보행사를 하면 소비자들한테 답아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우성자 위원

도저히 저는…… 이것이 돈 1,000만 원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한 실과에서, 아니면 어느 과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 갖다가 다 나눠서 써라.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그 과장님이 분명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실과에서 나눠서 쓰겠다고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 그래서 금방 얼른 또 찾아보느라고, 찾아보니까 확실히 막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572쪽이요, HACCP 기준시설업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HACCP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

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예)

어느 부분인지 좀 궁금해서, 이 사업비가.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1개소 분량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식품기업에서 자기 업체가 HACCP…… 수출이라든지 영업활동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도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업체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 허궁희 위원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되고? (예)

선정은 안 되고 1건이예요, 이 부분이?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1개소 분량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1개소라고요? (예)

그러면 식품업체 쪽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HACCP 시설의 식품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 다음에 57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어패류양식장 환경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수온, DO측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 DO기가 어디 상품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 제품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허궁희 위원

예.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게 저희들이 많이 쓰는 기종이예요, DO기라는 것이. 그런데 너무 가격이 높아요, 100만 원 차이가 나버려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사 때도 지적해서 기종하고, 여태까지 보급한 기종하고 그런 부분. 즉 어촌계에 나가있는, 공급된 그 기계들을 고장이 나있으면 다시 수거해라. 이것 얼마 안 주면 수리가 가능한 것인데, 이 비싼 기계들을 왜 이렇게 관리하느냐. 내가 지적했던 내용이라 이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데. 이 작은 기계 하나가 100만 원 차이이라면 큰돈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올려놔서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종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감사 때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이 덴마크 것이 제일 작동하기도 좋고 편리하더라고요, 몇 군데 것을 써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것을 신규로 구입해도 175만 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입해서 같은 기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 보급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주게 되면 140만 원대면 구입해요, 보상판매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저희가 예산에는 26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똑같은…… 단일 성능인데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당연하죠? (예)

그리고 아까 이범성 위원님이 지적…… 이렇게 문의를 했어요. 바로 밑에 용존산소 공급을 위한 전복치패 전용 액화산소 용해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기종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즉, 액화산소가 들어가서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희석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용지를 뜻하는 것인지.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산소탱크로 해서관이 연결되어 가지고, 수조에다가 부수관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용해를 시키는……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말하자면 산소통에서 조그마한 모터로 나와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중간으로 공급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전복치패 전용이 아니에요. 소위 수산경영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해야죠. 양식은 어류양식이든 치패양식이든, 어느 양식이든 간에 거의 동등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용, 저기다가 해놓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좀 용어선택을 잘못된 것 같고.

이 기종이 이범성 위원 집에도 시설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하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런 기종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그 기종이 좋다고 해서 사실 몇 번 가서 보고.

어느 업체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광어양식장들에서도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내가 다시 한 번 꼬집느냐면 광어양식장이 됐든 치패장이 됐든 전복양식장 이렇게 성패장이 됐든 간에 활용

이 좋으면 다 같이 써야죠, 득이 되는 것이면. 그런데 이런 용어를 써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가격대나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가격이 모터 세트로 해서 500 정도 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 허궁희 위원

그것은 그랬다면 제가 믿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꼭 특정 수산업계만 거론하지 마시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이요. 양식장 태양광발전사업 설비, 이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생소한 것 같아서.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9억 6,000만 원이 계상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 뭐 어느 업체라고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태양광을 좀 효율성 있게 하려면 규모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2개 정도 나눠 가지고 그렇게…… 광어양식장, 이런 쪽에 지금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게 첫 사업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 허궁희 위원

내년에요? (예)

하도 생소한 사업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9쪽이요, 불법양식어업 불법시설물 철거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588페이지입니까?

□ 허궁희 위원

589쪽, 제일 위에.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 예.

(「100만 원인데」 하는 위원 있음)

□ 허궁희 위원

100만 원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100만 원입니다.

□ 허궁희 위원

나는 왜 이 대목을…… 이 금액이 이렇게 중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이렇게 (청취불능) 많이 필요한지, 그게 궁금해서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불법시설물이 뭐 전복 가두리라든지 기타 김이라든지 하게 되면 펜치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 났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철거에 따른 기타 장비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제가 왜 묻는 것이냐면요. 완도에도 해조류 건에 대해서 그때 제가 물은 적이 있죠. 고흥 쪽의 불법시설물이 정리되면 완도에는 이렇게 피해가 안 날 것이다. 그것을 저도 듣는 정보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전복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해서. 어디에다가 이것을, 어느 부분을

철거를…… 불법시설을 단속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뭐 앞으로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어디 특정한 지역을 단속한 내용은 없다는 이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581쪽에 보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가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게 저희가 특히 광어양식장에서…… 일종에 (청취불능)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마는 이것도 농어촌유통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 김재홍 위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 보면 국비나 군비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 이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몇 %를 주시나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 김재홍 위원

농어촌공사에 설계비로 해서 몇 %나 주나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설계비로 7%, 7%……

□ 김재홍 위원

7%만 하던가요? (예)

(□ 허궁희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설계비가 아닌데.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설계비 겸 수수료라고 그러는데, 굳이 농어촌공사를 통할 필요가 있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 국비보조금이 내시될 때 아마 그쪽 위탁조건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가들이 일반적으로 봐서 굳이 농어촌공사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자부담하고, 뭐 설계비는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를 안 통하고 한다면 그 경비가, 자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이럴 것인데, 굳이 농어촌공사를 통할 필요가 있냐는 얘גיע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 김재홍 위원

자세한 것을 해가지고 서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김양훈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581쪽을 봐주십시오. 어린전복먹이용 미세조류 공급,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복치패에 바이러스, 이런 질병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조류를 공급해서 시범적으로 전복치패 하는 분들에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다가 위탁해서 한 번 사업을 추진해볼까.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미세조류,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에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그 부분은 어패류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초기먹이인 구조류입니다. 구조류. 구조류를 먹여야,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구조류를 한번 먹여서 해봐야겠다는 그 취지에서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종전에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러면 구조류는 어디에서 만드나요?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해양수산과학원 그 종자과에서……) 과학원이요.

이게 지금 시행이 잘되는가요?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2년 전만 해도 잘되고 보급도 많이 했습니다.)

2년 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잘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구조류로 해서 키우니까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공급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재설명해 주십시오.

시오.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양수산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5억 7,80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5억 6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597쪽예요, 농산물 가공교육실 운영 기자재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작년도에 교육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교육하셨나요, 금년도에도? 올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금년도에도 생활개선.....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한 내용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생활개선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 우성자 위원

올해하신 내용, 올해 기자재 구입 해가지고 하신 내용. 몰라가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현재 별도로 기자재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기자재가. 그래서 저희들이 1층..... 생활문화실 1층을 농기계 격납고로 썼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생기면서 농기계를 싣 빼고 나서 거기를..... 생활개선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노인 중식봉사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기자재도 필요하고 그래서 생활개선에 이용하는데, 여성농업인들을 교육하는데 그런 기본..... 뭐야, 자재가 필요해서. 올해 리모델링해 가지고 내년에 기자재를 넣고 본격적으로 교육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하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일반적인 교육만 했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기자재 교육을 못했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생활개선회원들이 각 읍면에서 나오니까? (예)

그래 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자리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1층을 금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싹 해놨습니다.

□ 우성자 위원

생활개선회원들이, 그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실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주로 학습단체회로 육성되고 있는 생활개선회하고 한국여성농어민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성농어민들 모임체를 중심으로 하고, 또 일반 여성농어민들, 각 읍면에서 희망자들 교육 모집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 생활개선회에서 보면 도자기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런 것은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원 외에 확대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교육을 국비나 도비를 보조…… 그런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따른 인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방비에서는 일반 여성들을 또 군청이라든가 다른 읍면에서 교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습단체 위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해도 그렇게 생활개선처럼 뭐 가방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케이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다른 데에는 없

거든요. 그게 뭐 생활개선회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 부분에 대해 밖에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군…… 어떤 특정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라든지 조직을 먼저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 확장해 놓고 그러면 한계점이 없어집니다.

□ 우성자 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항상 생활개선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그래 가지고 밖에서는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자들이 조그마한 것에도 시샘이랄까, 아니면 자기도 그것을 하고 싶고 갖고 싶은데 생활개선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 있어서…… “왜 생활개선회원만 맨날 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에 농어민대학 수료생 후속교육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후속교육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말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어민대학을…… 금년까지 7기가 배출되었고, 각 기수마다 한 30에서 40명 정도 배출해 가지고 졸업생들에 대한 영농기술교육이라든가 또 현장벤치마킹, 또 어떤 동문 화합에 따른 교육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농어민대학은 얼마 정도, 몇 개월 과정으로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10개월 정도 하는데 뭐냐, 매주 하루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뭐냐, 휴한기라든가 농번기는 빼고 해서요. 저희들이 100시간 목표로 해서 80시간 이상 이수하면 수료증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때 그러면 그 농어민대학에 다니신 분들은 자비 출연은 없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자비 출연은, 현장실습을 가고 그럴 때는 자비 출연하죠.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서 꼭 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어민대학에 있어서, 어떤 영농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농현장에 있으면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시기별로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일반 인근에 도내라든가 타 도에서 자라고 있는 농장도 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또 교육을 받을 때는 못 가봤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농사를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전문가들하고 그런 농장도 좀 보고 뭔가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올해 또 농어민 대학생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후속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실은 농어민대학은 전부 다 국비로 운영합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후속교육은 저희들이 지방비로 확보해서 하고.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로 확보하시면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농어민 대학생을 모집할 때 농사를 하나도 안 짓는 분도 괜찮은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저희들이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농지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학생을 선발합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러면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땅이 있어서 농지업무가 나오는 분들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언젠가는…… 농사에 관심을 갖고, 또 땅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일단 농지업무가 있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601쪽이요, 601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이 601쪽, 604쪽, 606쪽, 608쪽, 610쪽 이렇게 행사실비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견학시키고 벤치마킹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실질적으로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농업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어디 가서 그런 재배기술이라도 하나 더 배우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또 현장학습을 해야 만이 그래도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 김양훈 위원

그것까지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비까지 주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런 데를 갈 때도 저희들이 100% 보조는 아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또 거기에서 얼마씩, 또 몇 % 씩 걷고 그러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여기 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 김양훈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8만원씩 계속 들어가는구먼요, 전체적으로.

알겠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3 쪽에요, 재료비에 보면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국비를…… 3년 전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어떤 이엠시설 공장을…… 지금 현재

이엠사랑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남이 22개 시군입니다마는 목포시를 제외하고 21개 시군에서 이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한 20개 시군은 각 센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엠사업단에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이엠을 우리 재배작물, 재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여기 이엠…… 보니까 다른 데도 계속 이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산 쪽도 그렇고 축산 쪽도 그렇고 이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완도 업체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완도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엠 효과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군에서도……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개 시군에서 그렇게 각 이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만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14쪽을 봐주십시오. 재료비에 보면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바이오기 능수 필터 교체, 이것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 차원에서 마지막 6대에 대해서 금년 마지막, 내년 도에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이상은 보류하는 그런 쪽으로……

□ 김양훈 위원

내년까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죠? (예)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빅데이터 활용 한우관리시스템 시범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것은 현재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부 다…… 특히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일정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소 개체를 관리해서요. 가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소가 발정이 난 것을 농가들이 많이 놓칩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 적기를 놓쳐서 스태미나가 떨어져서 1년 동안 농사를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이 CCTV를 통해서 관찰된 그런 개체들에 대해서 승가 행위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인의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을 농가가 보고 ‘아, 이때가 수정 적기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서, 수정했을 때 스태미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 축산농가들에서 CCTV를 자체적으로 많이 안 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것은 축사, 어떤 개체관리보다는 환경…… 어떤 외부출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고, 저희들은 CCTV를 여러 대 설치합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게 그러면 소 암컷을 키울 때 한두 마리도 아닌데, 엄청 많은 칸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설치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그런 상태 시기를 놓쳐가지고 수정 적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 만에 발정이 이렇게 오는데, 그때 1번 놓치면 한 달이 늦어지고 그러면 그때마다……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 김양훈 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전체 축산 농가에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 확보가 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런 부분들에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두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농가의 반응을 보고 나서 차후에…… 저희들이 한 2~3년 해가지고 농가의 반응이 좋으면 농업축산과로 통보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의에 이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인 철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안환욱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교훈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7일(월) 09시58분

□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

□ 부의된 안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 보건의료원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의회사무과
- 맑은물관리사업소

(09시58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 총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101억 2,014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4억 2,4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25억 4,457만 3,000원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9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보건의료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8페이지요, 보건의료원 환자진료 의약품 구입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매년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연마다 잔액이 남나요, 아니면 다 없어지나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부족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러니까 추가, 추경…… 추경.

□ 우성자 위원

추경예요? (예)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요. 약이 부족하면 불편하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그렇기는 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약을 구입하시면 또 그것을

판매한다고 하면 그렇고…… 환자 분들한테 뭐 수입은 어떻게 되시나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러니까 진료 수입금을 얘기하시나요?

□ 우성자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약이 그만큼 나가면, 구입을 하시면……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금년을 예를 들면 10월 말까지 약 6억 8,000만 원 정도 수입되었습니다.

□ 우성자 위원

6억 8,000만 원이요? (예)

참 수입이 많네요.

그러면 그렇게 수입을 하시면 약을 충분하…… 부족하지 않을 만큼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렇기는 한데 혹시라도 약이 남으면요, 이게 참 처치가 어렵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러면 처분하기가…… 그 해에 남은 약은 그 다음에 못 쓰나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으셨나 보네요.

그다음 보건소 629페이지, 보건지소 업무 시스템이라고 있죠, 업그레이드, 보건지소, 629페이지. 제일 밑에요,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 하는 위원 있음)

전산개발비, 거기는…… 보건지소를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하시나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하시는 것인가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이것을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가 AS 및 그런 것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냥 그 업체가 알아서 한다, 이 말이지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와서 관리를 해줍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나 의료원에서 확인을 못할 경우 그 업체하고 보건지소하고…… 별로 낯지 않았는데, 기구가 낯지 않았는데 교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종종 생깁니다.

□ 우성자 위원

그렇죠?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것은 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 필요하고 뭐 이러면 보완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하는…… 따로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서 보면 보건지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보건지소라고 딱히 안 써놓으신 곳은…… 보건지소가 많잖아요, 완도군

에. 그러면 어디 보건소에서 돈을 쓰는 내용인지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어디 보건소에 얼마 필요하고, 어디 보건소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통합적으로 그냥 보건지소 뭐 관리비, 보건지소 전기세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감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675페이지에 대상포진이라고 하셨죠, 대상포진에…… 675페이지, 대상포진. 보셨습니까. 거기는 2,400만 원으로 구입해 가지고 200인한테 주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는 것이 맞습니까. 675페이지, 맞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분으로 200인을 한정해 가지고 대상포진을 하는 건가요? 의료 및……

(「민간이전비」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아, 이것은요. 취약계층에,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무료접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 이것을 무료로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2,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00인에게 줄 양인가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200명 약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완도군에 200분밖에 안 되나요, 대상포진을 접종해 줄 분이?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지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 1,10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막연하게 2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렇게 돈이 내려와서 지금……

□ 우성자 위원

아, 돈이 내려왔다고요. 이것은 어디……

(□ 주무관 김정연 집행부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계 김정연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취약계층 200명 정도 분량의 무료접종이고, 그 외에는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여기에는 도비라고 안 적혀 있는데요?

(□ 주무관 김정연 집행부 좌석에서 - 뒤쪽에 보시면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서 자비부담으로 해주고, 이번에 `19년도 시설사업으로 65세 이상 도 50, 군 50%로 해서 취약계층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새로, 지금 현재는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65세 이상한테 접종이 가능하고 내년부터…… 내년에 새워진 사업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취약계층으로 해서 시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점차 지원되는 것은 논의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취약계층을 먼저 하고 차근 차근 취약계층 중에서도…… 차근차근 이렇게 등수를 정해가지고 한다는 그 말이죠?

(□ 주무관 김정연 집행부 좌석에서 - 예, 현재는 들어오는 가격으로 자비 부담으로 해서 적용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 취약계층 50%…… 도비 50%, 군비 50% 해서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취약계층이라고 쓰셨으면 제가 안 물어볼 것이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지 몰라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만 설명하시면 돼요, 내가 물어본 것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675쪽, 우성자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했던 것인데.

□ 우성자 위원

여기는 도비가 안 적혀 있어서 내가 물어본 것인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675쪽을 보세요, 왜 이것을 했는가. 이것은 차상위 계층도 아닌데.

□ 우성자 위원

차상위라고 안 써져 있으니까 내가 물어본 것이잖아요.

(“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대상포진 접종은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부담해서 접종하는 접종약품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자부담으로 하시는 것을 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우리가 약품을 사야 되니까.

□ 우성자 위원

아, 사야 되니까. 그러면 수입도 같이 들어왔다는 이 말이죠?

(“ 세외수입도 들어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 것을 설명해놓으셔야 우리가 안 물어보죠. 그냥 막 여기에 지출만 해놓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내용을 옆에다가 잘해놓으면 우리가 안 물어볼 텐데 모르니까 물어봤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알아듣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원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632쪽, 중간 부분에 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작년에 비해서 2,795만 원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그동안…… 이번에 10만 원씩 넣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90만 원씩 줬는데 100만 원으로, 46명이니까……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 그 부분을 올리고 내리고는 원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서류를 준비한다든가 해가지고 하시는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리는 부분은 다른 시군, 다른 시군에서 더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고 있고요. 저희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야 좋은 의사들이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런 보장이 필요합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632쪽, 노화보건지소 절개지 위험시설 낙석방지망 설치가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의료 여건들에서 지금 활동하기도 엄청 힘들 텐데,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에다가 넘겨가지고 공사를…… 공사까지 보건소원장님이 다 챙겨서 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이게 최근에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었는데요. 그 주차장을 바위를 깎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노출되어 있어서 그 주차장 공사 자체를 의료원에서 주관해서 했거든요. 그 바위 위에 안전철망을 치는 것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공사할 때 같이 한다든가. 아니, 다른 일도 하시기 바쁘실 텐데 철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건설과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요. 우리 군민들을 돌보는 데에만 신경을 쓰시고 공사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서로 넘겨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55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완도출산장려 양육비 일시금. 지금 작년 예산액보다도 4,200…… 4억 2,72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액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하는 주무관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잠깐만요, 팀장들이 답변할 때는 팀장 성함하고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집행부 좌석에서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입니다. 출산장려금 양육 그 일시금은 작년 11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297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4억 6,2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나머지 12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를 했을 때 4억 8,000 정도가 필요해서 4억 8,000을 요구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 지원실적이 있죠. 그 지원실적이 뭐 지금 준비된 것은 없잖아요.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집행부 좌석에서 - 297명한테 4억 6,200만 원이……)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9쪽, 국내여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202 국내여비요. 국내여비 60만 원씩 90명인데 그 부분 좀 설명 해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 김양훈 위원

629쪽, 국내여비.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김지태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보건행정계장 김지태입니다. 저희들 보건지소 12개소,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18개소. 총 30개소에 있는 의료진들이 각 마을에 이렇게 진료하기 위한 출장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보면 60만 원, 90명이라고 그러면 1명한테 60만 원이 간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팀장 김지태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3쪽이요, 재료비. 친환경 분사제 글리세인 구입이 있죠. 13개 읍면인데, 13개 읍면은…… 우리 완도는 12개 읍면 아닙니까?

(“넙도까지 포함해서……” 하는 주무관 있음)

저기가 면은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넙도보건지소가 올해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13개소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13개 읍면이라고 하면 안 맞죠.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리고 넙도는 어떻게 보면 노화읍인데.

(“보건지소가…… 보건지소 기준으로 해놨고요. 넙도에 보건지소가 올해 새로 생겨 가지고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도 이것은 우리 지역이 있으니까 12개 읍면으로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합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 읍이나 면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금면 같은 경우도 덕동이나 석치에 2개나 있는데, 보건소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다 면이 하나 더 생기는 것하고 똑같죠.

(“예, 알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표기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위원장님, 이범성 위원이 질문했던 655페이지요. 완도출산장려 양육비 분할금, 일시금인데 이것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돌맞이축하금, 출산전준비금. 이런 것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인가요?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집행부 좌석에서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는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실시간으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아,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을 수도 있구먼요?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집행부 좌석에서 - 그리고 비너스카페라고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홍보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은 누락되는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출생 신고를 한다거나 출산장려양육비 일시금을 지급할 때 모자보건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누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출산전준비금은요?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집행부 좌석에서 - 출산전준비금도 어차피 저희가 계속해서 홈페이지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가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너스카페 역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출산전준비금이라는 것은 임신한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에 예산이 4억 2,700…… 예산이 증액된, 그 내용이 어디에 주로 증액된 것인가요?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집행부 좌석에서 - 아,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요」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인 예산이요.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집행부 좌석에서 - 아, 증액된 것이요?)

예.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집행부 좌석에서 - 저희가 그…… 작년도에 본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우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다시 더 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춰서 요구한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것 잘 홍보해서 가지고, 빠짐없이 해야 되겠네요.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요. 재료비에 대해서 하

나 물어볼게요. 기후변화 대비 진드기매개질환 예방물품 구입, 제일 위예요. 668페이지, 거기를 보면 대부분 약품이 발토시, 손토시, 기피제. 이게 약품인가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기피제는 약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약인가요? (예)

다른 것 발토시, 손토시 이런 것은 원래 남아도 내년에도 쓰는 것 아닌가요, 계속 버리지 않고?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진드기 질환자가 많이 있나요, 한 해에 우리가 이렇게 쓸 만큼? 진드기에 노출된 환자요, 환자.

(□ 감염병관리팀장 지경란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지경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쫓가무시만 해가지고 45명이 발생했고 올해는 5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내에서 사망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나 기피제 같은 것을 많이 사가지고 다 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발토시, 손토시 이런 것도 미리 예방차원에서 주는 것인가요?

(□ 감염병관리팀장 지경란 집행부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발토시, 손토시 같은 것도 그렇고, 기피제 같은 것은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사가지고 배부해 주는……)

그러면 이것을 사는 것은 거의 배부해 주는 거네요, 예방차원에서?

(□ 감염병관리팀장 지경란 집행부 좌석에서 - 12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남거나 그렇지 않겠네요?
 (□ 감염병관리팀장 지경란 집행부 좌석에서 - 그것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보고유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안녕하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본예산은 2018년도 예산 대비 6억 7,629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8,296만 4,000원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장보고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725페이지예요, 매년 보면 장보고리터십 아카데미가 있죠. 계속 지금 작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 실적은 어떻습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실적은 참 좋습니다.

내일인가요, 청산초등학교에서 36명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하고.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도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작년까지 보니까요, 2,0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 박재선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했다고요? (예)

효과도 엄청나게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27페이지에 보면요, 사적 308호 청해진 유적이 있죠, 종합정비계획이라고요. 이것 작년에는 없는데 이번에 계획이 잡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말씀이십니까?

□ 박재선 위원

예.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2,000만 원, 그것은 장보고유적지에 지

금…… 올해 문화재청으로부터 한 6억 원을 받았어요. 사당이라든가 모든 (청취불능) 정비했다는 말입니다. 올 말까지 계획인데, 준공예정인데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내년에 종합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요. 이 쪽으로 관리해 보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쭙볼게요. 729페이지에 보면요,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이 있죠. 친환경공원 조성을 실시하는 것이요. 그것은 어떻게 설계한다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올해 선진지를 가봤습니다. 놀이공원. 그런데 무인전기를 이렇게…… 그네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쥐가지고 놀이공원을 올해 추경에나 세운다든가 해서, 용역을 받아봐 가지고요. 놀이공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완도군 어린이들이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혹시 전에 탐방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어디 근교에 있는 곳을 탐방했습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저기 나주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나주 공원에.

□ 박재선 위원

나주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놀러오더라고요.

□ 박재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주에 했던 프로필이라든가 사진이 있겠네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이요. 어떻습니까,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했던 내용이고요. 군수님한테도 “단돈 10원도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깐 군수님도 “그렇다.” 라고 했거든요, “단돈 10원 예산도 아깝다.” 라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모두가…… 직원들, 전직원들, 현직원들 모두가 앉아서 다 대화해 보면 접근성이 문제다. 거기에다가 투자는 사실 무의미하다,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접근성이 좋지 못해 가지고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을 보면요, 완도에서 관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코스가 그쪽입니다. 사실 전시된 물품도 많고요. 또 상당히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잘되어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해가지고 늘 그쪽이 말썽이 됩니다. 한 마디로 좀 애물단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식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한 대책방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대처를 못하고, 장

보고공원 일대에 어촌민속전시관을 다시 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나중에 해양박물관이 열게 되면 그 뒤로 그쪽에다가 박물관 자료를 다시 하면서…… 같이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지금으로써는 참여할 수 없는 진짜 애물단지로 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애물단지예다가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겠어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쪽에서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존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요. 전부 다 수익성에서는 그렇게 타당성이 있지 않고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참에도 소안에서 개복치를 큰 것 하나 전시관예다가 기증했어요. 가서 한 번씩 가보시면 정말 좋은 자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보고기념관이라든가 해양생태체험관, 이런 데보다는 어촌민속전시관이 볼거리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물단지로 남게 된 것은 그야말로 접근성, 이것 때문에……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좋은 제품이, 결론적으로 보자면 접근성이 안 좋아서 썩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어쨌든 빨리 옮겨야 된다고 보죠, 소장님도?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제 입장에서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만 직원들도 어디…… 사실 가야될 데가 많을 것이고 필요한 데도 많은데 거기에 예산은 투입되지. 불필요하잖아요, 저게 예산…… 1년 예산 그

것을 가지고 땅 구입도 할 수 있는데, 준비를 한다고 하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또 이대로 가면 언제 이것을 할지 계획이 없잖아요, 특별하게…… 무슨 그래도 대안이 있어야지, 뭔가 계획성이 있게끔 언제 어떻게 한다든가, 무언가 계획이 있어야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군정질문 때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예산에 들어와서 또 하는데도 그런데도 무언가 대안이 없다면 이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것 뭐 대안을 가져오셔야 예산이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언제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든가 뭔가 대안이 와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의 힘으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봐서는. 위에 적어도 군수님이나 뭐 결정이 나야 되겠죠, 무슨 대안이. 그것을 가져오셔야지, 이것 예산을……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당장 어떤 대안 제시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 최정욱 위원

한번 의논해 보셨어요, 군수님하고?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아니요, 군수님하고 그때 대화했을 때 저희들이 전부 다 전시관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선결재를 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에서 “홍보도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든지 전시관의 좋은 자료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그런 당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니까요, 저 자료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단돈 10원이 아까운 것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또 이대로

가면 또 똑같지.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에요. 다시 한 번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최정옥 위원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732쪽이요. 어촌민속전시관 기획특별전 개최,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732페이지, 행사운영비 03에 어촌민속전시관 기획특별전 개최라고 했는데,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이것 기획특별전이요. 한 차례의 행사에 불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예를 전시한다든가 또 아니면 동양화라든가 서양화,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겠냐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 관람객 때문에 그런가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관람객 때문에……

□ 김재홍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관람객도 없고,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것은 좋지 만……

또 밑에 재료비에 봐보면 물품구입비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있죠. 이런 데에 굳이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사실 시골이에요, 어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전시관에서 구입을 못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사용했던, 과거에 지게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구들, 이런 것을 좀 모집해서 볼거리를 더 제공하자는 뜻에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용하지 않는, 굉장히 힘든 곳에다가 다시 예산을 짤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별로 가서 보면 어류나 패류,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을 못해서 볼거리……

□ 김재홍 위원

시간이 난다고 해서 뭐 박제라든가 이런…… 구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박제라든가 기증이 들어왔을 때라도 박제 같은 것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제로 만들 수 있는 자료라든가……

□ 김재홍 위원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좀 도와주시면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읍면 장들한테라든가 이장단들한테 이렇게 해서 어구들도 구입하게 하면 좋겠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옮길 수도 있는 부분에 계속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아니, 그것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전시하고 있는데도 관람객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관람객이 없다, 없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많습시다.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학교에서라든가. 그렇게 보시면 주말이라든가,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온 관광객들이요.

□ **김재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봤다니까요. 직원들이 시인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제가 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갑자기 6억 7,600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이것은 장도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도. 장도에서 올해 6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을 가지고…… 장도유적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요. 사당 같은 데에서 비도 새버리고 그래 가지고 전부 교체작업으로 해서 6억……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6억이 빠져서 그런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장보고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예산액은 8억 7,39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0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7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61억 2,04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4억 7,444만 5,000원 대비 76억 4,6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민선7기 들어서면서 분뇨처리장 관계 업무가 환경산림과에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이 증가하여서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다.

(참조)

· 2019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므로…… 위원님들 어땡습니까. 13시30분부터 하는 것으로 하죠,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맑은물사업소장이 다른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와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여쭙볼게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쭙볼게요. 679페이지에 보면 해수담수화시설이 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잠깐만요, 697페이지.

(「재료비」 하는 위원 있음)

□ 박재선 위원

687페이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말씀하십시오.

□ 박재선 위원

거기에 해수담수화시설 관리용역이 있죠. 그 부분에 뭘니까, 도서지방에 보면 해수담수화시설을 해놓죠, 설치. 그것을 해놓고 필터는 마을에서 다 교환하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요, 필터를 저희가 하고. 소규모, 소규모 수리시설비는 마을에서 담당하는데, 단가가 있는, 금액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수 담수화시설에 대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필터 교체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다가 가격도 있는데 그것이 빨리 빨리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빨리 빨리 해주면 좋은데 여건상…… 섬이고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 박재선 위원

섬이다 보니까 담수화시설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담수화시설인데.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약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교체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 마을에서 다 필터 가격은…… 구입하죠, 거기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필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마을에서는 돈이 전혀 안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필터를 교환하는 것은 마을에서 돈이 안 들어가죠.

□ 박재선 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아닌가, 잠시만…… 잠깐만요, 상수도 팀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신다고.

(□ 주무관 임세훈 집행부 좌석에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임세훈입니다. 대규모에 통계 150만 원씩 하는 필터로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고요. 2~3주에 한 달마다 교체…… 1개에 (청취불능) 마을에서 소모품으로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담수화시설을 왜 여쭙보냐면 낙도지역…… 거기에는 담수화 시설된 데가 많죠, 노화에도?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넙도.

□ 박재선 위원

넙도도 있고 어룡리도 있고요, 다 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섬들은……

□ 박재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하고

틀려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관리는, 원초적인 관리는 주민들이 합니다. 원초적인 관리는 주민들이 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소규모, 그런 것들은 원래 마을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을 자기들이 받지 않습니까. 받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소규모 수리수선비는 본인 마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 박재선 위원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것은 다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상하수도 내에서 한다는 것이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몇 백만 원짜리 단위가 되는 그런 큰 건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합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91쪽이요, 시설비에서 청산면 공공하수처리장.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지금 2017년부터 시작했는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청산면 하수처리장은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과정에서 원래 원동부서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 김재홍 위원

민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자질구레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 김재홍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자질구레하다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겠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마을과…… 집과 집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연결하지 말고 바꿔주라, 어떻게 해주라, 이런 민원들.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서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주민들이 시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 사업체가 부도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지금은 공사가 재기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2020년…… 2019년에 완료인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2019년. 목표는 2019년인데 큰 민원이 없으면 2019년에 준공될 수 있지만 또 이제 각……

□ 김재홍 위원

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전체적으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민원인들하고 대화는 좀 많이 나눴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해결을 하죠.

□ 김재홍 위원

그때그때 해결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그런데 하수처리장 자체가 다 이왕이면 자기 마을로……

□ 김재홍 위원

물론 알아요. 과거에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은 외진 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김재홍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봐서는 굉장히 자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지연되는 것 같아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연은…… 막상 처음에, 사업 시작 전에는 엄청 해주라고 하는데. 막상 사업을 하면 자기 집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 김재홍 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 설득을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설득을 잘못……

□ 김재홍 위원

내가 봐서는 몇 년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자꾸 반대, 반대했는데 결국은 시설했어요. 그런데 기간을 당기는 부분,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 심의하는데 꼭 군정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저희가 민원은 원활하게 잘 처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 김재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되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큰 무리가 없으면……

□ 김재홍 위원

내년 연말에 이런 얘기가 없도록 하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큰 무리가 없으면 준공을……

□ 김재홍 위원

아니, 확실한 답을 해야지. 여기서 내년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민원이 또 발생해버리면 그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업을 재기해야 될 사항이라…… 제가 민원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또 사업을 하면서……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해놓고 다 못하면…… 내년 예산심의 때 또 똑같은 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해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하십시오.

□ 김재홍 위원

방금 체크를 해봤는데, 770쪽이요. 상수

도 부분에서 토도 도서지역식수원이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해저관로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재홍 위원

몇 km나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이런 부분은 해저관로……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고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 단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작업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김재홍 위원

따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692쪽이요, 이것을 달리 묻잖아요. 신지 대평 샘골 하수도 정비공사, 이 부분을…… 며칠 전에 갔더니 지금 거기가 맞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 차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 하수도 공사한지 오래 됐죠. 거기를 합니까, 새로 신설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여기는 하수처리장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 보면 하수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 건의로 인해서 들어오는……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이 그 위에, 샘

위에 샘플 위에…… 혹시 현지에 가보셨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현장은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가 주민 건의가 계속 들어오면 그것을 순위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줌……

□ 허궁희 위원

현장에 안 가보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아직 현장은 못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민 건의 사업만 지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소장님. 잠깐만요. 현장도 안 가보고 예산을 잡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주민 건의라고……

담당팀장님이, 소장님은 못 갔더라도 담당팀장이 갔으면 팀장이 대답을 하세요. 아니, 현장도 안 가보고 예산을 잡는 데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팀에서는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사업현장을……

□ 허궁희 위원

아니, 갔다 오신 분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어느 분이 갔다 오셨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하수도팀장님이 청산에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14시30분……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축조심사 때 체크해 놓으십시오.

□ 허궁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693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금 사업 추진사항 좀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재원협의까지는 끝나고 조달청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거든요. 200억 이상 공사를 그전에는 저희가 계약했는데 200억 이상 공사는 조달청 입찰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12월 18일에 공사입찰을 합니다. 입찰이 끝나고 나면 계약상대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조달청에서 계약하게끔 경리계로 통보하거든요. 그때 계약을 하고 나서 막바로 저희가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주도 앞예요, 그 사업이 왜 그렇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지금 주도 앞에는 노후관로사업인데 그 부근은 바닷물이…… 바닷물 수위가 자주 수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우선…… 그전에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땅을 파보고 나니까 공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업비가 더 증액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일단 덮고 나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파가지고 공사하지는 않고 다시 메꾸기만 했구먼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일단은 그랬습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차후 진행사항을 좀 보고 저희가 공사를 계획이어서……

□ 최정욱 위원

파보니까 뭐가 안 될 것 같았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수위하고 바닷물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서 바닷물이 없는 그런 간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물때 작업이구면, 어떻게 보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예, 물때 작업을 해야 되고……

□ 최정욱 위원

그 생각도 없이 하려고 해버렸구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당초에는 쉽게 될 줄 알았더니 지금 막상 해보니까, 땅을 파서 막상해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스탠바이를 마땅히 준비해 가지고 하계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구간을.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고 그런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일단 정산을 해야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소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속 기록에 되고 있는데, 우리가 도 감사에서 공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걸린 것 아닙니까. 그 쪽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아니, 아니요. 공법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다해 가지고, 그 자체 계약이 잘못되어 가지고 뭐한 것 아닙니까. 징계까지 먹은 것을,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뭐한 것인데 답변을…… 아무리 질문답변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지만 잘 해줘야지, 답변을.

이것도 소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네요. 최정욱 위원님이 축조심사 때 담당계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물어보게요.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최정욱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 최정욱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따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최정욱 위원님,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따 축조심사 때 하계.

김양훈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양훈 위원

없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휴식을 취한 후 14시부터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 소모성, 그리고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기록중지)

(16시40분 기록계속)

지금까지 1차 축조심사를 한 결과에 따라 전문위원이 정리를 하고 1차 축조심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삭감대상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내일 18일 오전 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인 철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8일(화) 08시59분

□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

□ 부의된 안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08시59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봐보십시오.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

라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고 비효율적인 예산이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 또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차 축조심사에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삭감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입니다. 이 사업은 군정 발전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입니다. 금년 2월에 경남 통영에서 전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행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소요했고요. 이 워크숍 결과, 65세 이상 관내 어르

신 의료비 경감 귀책 신지상산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관광유람선 도입 운영 등 여러 가지 시책이 제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세 가지는 군정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에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1쪽……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저기 담당관님. 한 건, 한 건씩 해 나갑시다.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요라고 했으니까.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관님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그러면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181쪽, 지역이미지 마케팅 전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사 협력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지방언론사, 작년에 특집 기사를 싣는다든지. 이 기사를 싣고, 그 다음에 완도군 특산품 광고라든지 관광지 광고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라도 1000년 인물열전에 광주일보에 광고를…… 아니, 기사를 썼고요. 역시 무등일보도 전라도 1000년 인물열전 기사를 수록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매일 6.13 지방선거 당선자 책자 광고 형식으로 해서 자치총람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언론사에 각종 특집기사라든지 마라톤 대회, 바둑 대회 등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할까요?

(「사무관리비는 다 설명하고」 하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 밑에 뭘니까, 협력사업뿐만 아니고 전 체를……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 설명하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콘텐츠 제작비입니다. 여기는 카드뉴스하고 웹툰이 되겠습니다. 카드뉴스는 SNS라든지 방송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신개념 15줄 이내에 영상이라든지 기사를 작성해서 탑재하는 그런 형식의 광고 화법이 되겠습니다. 웹툰은 만화 형태로 제작을 해서 역시 방송사의 SNS 및 인스타그램에 탑재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지라든지 특산품 홍보를 위한 시책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비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온라인콘텐츠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카드뉴스하고 웹툰을 제작하는데 1,920만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인터넷 배너광고입니다. 3,300만 원인데요. 인터넷 신문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군 관광지라든지 축제, 특산품을 홍보하는 이런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걷기축제 광고 5,500, 장보고수산물축제 광고 5,500,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5,500, 해님이해맞이축제 광고 5,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이 중복된 슬로걷기축제나 장보고수산물축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번…… 올해에 광고를 한번 한 그런 언론사는 다음 광고 때 제외하는 등 순환방식으로 운영해서 광고비를 더 효과가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군정 및 특산품 광고입니다. 이것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용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잡지라든지 인터넷

넷,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비인데요. 이것은 (청취불능) 영어권, 일본어권, 이런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도자연그대로 농산물, 수산물, 전복 등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잡지에다가 싣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치유산업 홍보 광고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문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신문에 못한 광고, 또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해양치유사업이란 무엇인가, 해양치유산업의 성과, 또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라는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역점사업 홍보 광고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김, 미역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ASC 인증,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선정, 그다음에 군민안전보험 안내 등 이러한 군정 역점사업 등을 신문에 실어 광고하는 그런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 지역특산품 방송 광고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합뉴스 신문방송사라든지, KTX 영상광고를 통해서 관내 특산품을 홍보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성수기 해수욕장 홍보 광고입니다. 이것은 완도가 해수욕장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장을 홍보해서 더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문사 지면광고입니다. 다음은 온라인매체 활용 지역특산품 홍보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신문사 배너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문사에 대해서 배너광고를 실시해서 우리 군 해조류라든지 농수축산물을 홍보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신문스크랩 서비스 사용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거기는 안 해도……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김양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광고비에 보면 여기에 청정바다 가을여행축제 광고 같은 경우도 축제행사비, 또 홍보비, 광고비 하면 거의 5억 정도 됩니다. 다른 과하고 많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장보고수산물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행사가 좀 컸는데,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광고랑 홍보가 똑같이 나가니까 이것은 좀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비슷한 것은 묶어서 해도…… 작년 예산서를 보면 묶어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분리를 해놓고, 또 옆에 보면, 25개 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한테 나눠주기 형식이다, 이게. 눈에 이렇게 비칩니다. 그래서 여기 광고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남이해맞이축제 광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했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작년에 했었죠.

□ 김양훈 위원

작년에도…… 행사비가 얼마였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때도, 그때 축제행사비는 5,000인가 아마 됐을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축제행사비가 3,000. 올해도 3,000이 올라왔으니까.

□ 김양훈 위원

3,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광고는 5,500이고.

□ 김양훈 위원

축제행사비보다 광고비가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본행사 비용보다 광고비가 더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표시는 못하고 한번에 축제 광고라든지 묶어서, 지금 그런 예산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복된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다른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해맞이축제 본예산이 3,000만 원인데 5,500 홍보비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잔액예산들은 다른 홍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작년에 묶었던 예산을 올해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역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표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명목상, 부가상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다른 홍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보서는 해양치유산업 홍보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제일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거기는 15개사고, 여기는 큰 의미가 없는데 25개사. 이것도 이치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서에 올릴 때는 25개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광고 나눠먹기 형식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예산편성 방식을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수준 높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청산하고 장보고는 작년에 합해 가지고 5,500인데 나눠 가지고 5,500씩 해놔고. 금방 해외군정 홍보 특산물 광고 2,000만 원이라고 해놔는데 수산경영과에 가면 이 해외특산물 홍보 광고로 1억 8,500이나 있습니다, 수산경영과에. 똑 같은 목입니다, 이런 목들이.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해넘이해맞이 해가지고 행사료는 3,000만 원인데 광고료가 5,500만 원.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것 다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여분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홍보비는 저희들이 여기에 다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면 식으로 잡으세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홍보라고 말할, 광고라고…… 신문사 배부르게 해주는 광고지, 이것, 주재기자들…… 우리 군이, 우리 군청직

원들이 완도 주재기자들한테 뭐 책잡힌 것 있습니까. 이것 전부 25개사, 25개사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신문사 광고라고 해 버리면 광고하고 홍보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기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그런 홍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방식으로 편성하지 않고요, 부기를 다시 정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장보고나 청산슬로축제 같은 시기에 하는데, 이것 하나 뭐하고, 해외군정 홍보 특산물 광고도 수산경영과에 해외 해가지고 1억 6,000, 2,000, 2,000, 2,000 해가지고 1억 8,500이 잡혀져 있어요, 광고가. 해외 신문사 광고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중복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 하나를 잘라야 되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홍보부서에서 편성된 홍보하고 또 주무부서에 편성된 홍보비는 따로 따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완도수산물 글로벌시장 개척 언론사 홍보 1억, LA한인축제 완도특산물 판촉 홍보행사 2,000, 해외시장 프로모션 2,000 이렇게 되어 있다가요. 글로벌시장 개척 다국…… 금방 담당관님이 얘기했던 다국으로 한 것도 2,500만 원인가 또 잡혀 있다가요, 이렇게 다 그렇게 잡혀져 있다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예산이 홍보비가…… 저는 더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리고 또 수산경영과에 소비자 촉진 홍보 해가지고 1억 2,000이 잡혀져 있다가요. 그 밑에 광고해 가지고 또 2,000만 원 잡혀져 있고, 지금 수산경영과에, 아예 홍보계에서 가져가 버릴 것이면 전체를 다 가져가 버리든가 하지. 그냥 아무리 이렇게 뭐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다가요, 홍보예산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무부서는 현지에 가서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를 섭외하고 또 기사를 홍보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홍보 총괄부서로서 해외동포 대상으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 매체나 그 매체나…… 여기는 홍보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거기는 다 합치면 3억 정도 돼요, 수산경영과는. 홍보만 3억 정도 된다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해외로 미주라든지 중국, 일본 그런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렇게 하고, 지금 해양치유산업 홍보 광고라고 했는데, 3,300인데, 해양치유 무엇을 가지고 홍보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해양치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해양치유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우리가 시설이 되어 있어야 그 시설을 가지고 효과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근거

가 있으면 홍보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해양치산업에 대해서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진행 중인 그것을 홍보한다는 그 말입니까. 뭐가 있어야 홍보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들이 광고시안을 마련하면 거기에 멋진 그림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해양치산업의 최적지 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하려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해양치산업의 최적지 완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물이 갖춰져야 만이 그것을 이용하게끔 홍보할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해양…… 저기 뭐야, 신지 가는 데에 해났듯이 그런 식으로만 그냥…… 해양치유중심지, 우리 완도가 뭐가 해양치유중심지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포스터 하나로만 해도 홍보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하는데, 담당관님,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완도에서 돈벌이가…… 아니면 체험할 것이 있냐는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시설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그런 부분들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무엇을 가지고 홍보할 거예요. 그냥 해양치유중심지라고 해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많은…… 힐링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하신 그런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또 지역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뭐가 갖춰졌어야 그것을 가지고 체험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없잖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홍보만 한다고 해서…… 홍보를 했으면 홍보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뭐 전혀 얻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다음으로 하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185쪽입니다. 완도군 신규현안사업 공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공모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비성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전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할 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응모하고자 할 때, 공모하고자 할 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2018년 향동지구 활성화계획 용역 3억…… 용역을 해서 3억 4,000만 원의 예산 확보…… 따왔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300 공모용역을 실시해서 중앙부처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고요. 식량산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해서 `19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계속해서 하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완도상표 출원 및 특허출원 등록비입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할 때 120만 원을 납부하고요. 재등록할 때는 60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상표가 139종 출원됐는데요. 2015년도에 1,361만 원이 집행됐고, 2016년에는 1,67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00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평균 한 1,300~1,40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방금 작년에 1,000 얼마……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003만 원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0만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산은…… 집행은 1,00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300 얼마하고…… 1,200만 원이 미집행 안 됐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7년도에 1,00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 정책기획팀장 고철휴 집행부 좌석에서 - 올해는 80만 원만……)

아, 올해 것. 올해 것이 많이 미집행이 됐는데, 미집행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거기 139종 상표 그 만료기간에 따라서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기간이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 도래한 상표가 있고 내년에 만료된 그런 상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이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19년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역시……

□ 김양훈 위원

대충 어느 정도 139종의 만료시간이 있을 텐데. 그 만료시간을 보고 대충 예산을 잡아 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래서……

□ 김양훈 위원

해년마다 이 정도 수준이더라. 이 정도 수준만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최근 3년간 평균예산을 뽑아서 산출해서 계상해 났습니다.

□ 김양훈 위원

내년이 바로 `19년도인데. `19년도 것도 만료가 언제까지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 김양훈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계속 그 전에 것만 비교해서, 몇 년…… 3년치 비교해서 이 정도 하겠다 그래서 이 정도 선만 올려놓은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15년도에 1,360만 원, 그 다음에 `16년도에 1,600, 그 다음에 `17년에 1,003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금년에 좀 저조합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수준 말고, 139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만료를 보면 다 나올 것인데,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구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명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본예산 191쪽, 인건비 공무

직 해외직무연수 5,000만 원과 192쪽,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3억 6,900만 원은 해외직무연수는 해외선진도시의 우수정책과 발전사례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매년 11월부터 다음 년도 1월까지 6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직무연수는 2016년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반직과 공무원 공동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연수 현황으로는 공무원은…… 현재 현원은 359명이며, 2017년도 1억 500만 원으로 35명, 2018년도 7,500만 원으로 26명에 대하여 해외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20여명의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직은 2017년도 3억 800만 원으로 50명, 2018년도 3억 원으로 52명, 2019년에는 3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중앙과도 계획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중앙과도 계획예산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국외연수 후 연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 군정에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여비,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워크숍 참가 1,680만 원은 공무원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노사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군정 발전과 노사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노사 관계 워크숍은 2016년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노사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하여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부부 연구용역비, 완도군 농수축산업 총 조사 결과분석 1,800만 원은 기후변화,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농수축산업 세부사항 분석을 위해 완도군 농수축산업 통계조사가 필요한 실정으로 2019년 2월까지 통계청과 협

의하여 조사항목을 확정하고,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통계청과 공동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본통계조사를 통한 농수축산업 가구 현황, 연소득 현황, 현재 재배 품종 등 조사항목 등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군정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농수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 부분, 공무원교육지원 사무관리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보육교육훈련에 대한 계획 수립, 교육과정 선정, 위탁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본예산에 편성된 9가지 교육과정을 2019년도 주요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먼저 공직자사이버 및 학습센터 위탁교육 2,000만 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직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교육 분야는 외국어, 직무전문, 일반상식, 교양 등 996개의 강좌가 있으며 올해 94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외국어 능력강화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2,800만 원은 국제행사 추진, 해외시장 개척, 해외도시(청취불능) 국제적인 업무를 증가로 우리 군 공직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일대일 맞춤형 대화식 전화외국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분야이며 올해 86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직원 법정교육 이수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강사로 500만 원은, 전직원은 매년 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500만 원을, 다음은 네 번째, 각급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5,000만 원은 신규자 교육,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 미래전문가 양성 교육 등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직무교육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하는 비용으로, 매년 190여명이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 상시학습 운영에 따른 위탁교육비 2,400만 원은 직원들의 독서문화 정착과 이를 통한 상상, 창의, 공감 등 종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업무의 이해와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매월 책을 신청한 후 독후감을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87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완도 3040 공무원대학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은 미래완도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공직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을 실시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행정서비스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 화합하는 공직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과정은 매년 직원 수요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올해는 중국어 말하기 자격증, 요가, 바리스타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5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EAP 교육 2,000만 원은 EAP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약자로 악성민원, 상사와의 불화, 가정 불화, 업무 스트레스 등 직장이나 가정에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심리요인들을 전문상담가와 대면, 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상담을 함으로써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자존감 회복 및 업무실적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금년에 78명의 직원이 심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6,000만 원. 힐링캠프는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격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조직원과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과 더 나은 군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으며 많은 직원들이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직장 내 활력을 재충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500만 원은 우리 군 조직개편과 함께 직무분야가 다양해지고 행정이 전문

화됨에 따라 국장,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하여 공모와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는 변영회 등 총 5개 단체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지원 대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변영회에서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해진(청취불능) 2,500만 원, 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에서 군민 건강걷기대회 2,100만 원, 완도군청년회에서 어린이야외물놀이 개장 2,000만 원, JC청년회에서 완도군민과 함께 하는 슈퍼스타 JC 1,000만 원, 빙그레완도청소년체육대회 900만 원, 나는 완도인이다 1,300만 원, 총 3개 사업에 3,200만 원, 사랑의 김, 미역 북녘 보내기운동본부 김, 미역 북녘 보내기사업 3,000만 원입니다.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5쪽, 소송업무 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소송업무 관련 사무관리비는…… 소송 선임료는 7건입니다. 먼저 2018년 기준 우리 군의 변호사 선임료는 1건당 최소 금액인 330만 원이나 일반 및 전문변호사 선임료는 1건당 550만 원에서 1,100만 원, 1심, 2심, 3심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금액도 증가되므로 1건당 평균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승소사례금은 변호사수임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료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1건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확정 소송비용 부담금은 소송 패소 시 상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1건당 330만 원의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고문변호사 수당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료로 전남도내 시군 평균 금액인 월 55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

며, 현장검증 감정료는 소송발생 시 현장 확인을 위한 감정료로 1회 기준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송달료 및 인지대는 소송 접수비용으로 소송과액에 따라 다르나 고액소송에 대비하여 1건당 500만 원의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취불능) 우리 군도 해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소송업무를 법률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7쪽,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출연금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 여건 해소 및 변화된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교육 운영에 관한 법률과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장학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해 기존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초·중학교 과정보터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22개 사업, 17억 4,2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금에서 2019년도에는 28개 사업 23억 8,5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에는 농협군지부 협력사업비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보고장학회 출연금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본사업이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7쪽, 완도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진로교육법 제5조 및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과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완도수목원 업무협약 체결의 근거로 완도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완도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운영 및 2016년도부터 전면 시행될 자유학기제는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내 학생에 대한 진로체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 30실에 초·중학생 2,595명이며, 2018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 35회, 초·중학생 2,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관내의 초·중학생이 진로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본예산 삭감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페이지랑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 우성자 위원

191페이지, 공무원 해외직무연수에 대해서요. 왜, 연말에 가시는 이유라도 따로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연초가 이렇게 되면 많이 바쁘거든요. 중간에 직원들의 의향을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12월이 가장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보통 12월, 1월 그 무렵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 우성자 위원

그 업무분장을 1월에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보통 1월에 하죠.

□ 우성자 위원

그러면 1월에 업무분장이 되면 그때 바쁘시겠지만…… 그 시기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전문을 넓히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꼭 연말에, 끝날 무렵에 다른 과로 전과를 할 때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그런 부분이 사무…… 인사가 있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조사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봤는데 “12월에서 1월이 가장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일부 지역으로 가는 쪽, 그쪽 기후하고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12월에서 1월 시기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혹시…… 여러 사람이 모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그러면 가는 곳을 정하는데도 어떤 것을…… 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그 의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청기간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결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라든지 그 지역의 농업이면 농업, 수산이면 수산. 이런 쪽으로 각자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한 직원들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조사해 가지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의사에 따라서,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뜻은 잘 알겠는데요, 아까 말하다시피 내가 올해는 농산과에 근무를 했는데 내년에 유럽에 갔다 와서 수산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갔을 경우에 별로 효율적이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직원들한테 의사를 더 확인해 보시고, 몇 년 지났으면 확인해 보시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 국내여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워크숍 참가라고 그래 가지고 1,68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과소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까, 이 관계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이 금액은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에다가 넣었어요, 사무관리비에다가 작년까지 넣었는데, 금년에는 여비로 옮겨졌는데요, 직원들이 노사관계 워크숍을 참가한다고 실과에서 출장을 내주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여비를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바뀌서 이쪽으로, 국내여비로 넣었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사무관리비에 넣어서 집행했었는데 규정에 그게 안 맞다고 해가지고 여비로 변경……

□ 김양훈 위원

뭐 감사에 걸려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에 자체적으로 안 맞아서……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여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여

비로 편성했고, 그전 사무관리비에는 그 관계를 삭제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이것은 알겠고요.

193쪽, 연구용역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완도군 농축산업 총 조사 결과분석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아, 그것이 왜 작년에……

□ 김양훈 위원

`18년도에.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18년도에, 금년에 왜 집행을 했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농축산업 통계조사를 하려고 (청취불능) 했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 이 통계자료로 활용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통계청하고 협의하니까 “통계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하지 않은 통계는 통계청에서 통계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라고, 그래서 금년에 통계청과 같이 하다 보니까…… 기 통계청에서 일정이 다 잡혀져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통계청과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불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물론 공무원들도 조사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통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통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계로 인정해 주는…… 통계청에서 인정을 반드시 해줘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금년에 추진을 못하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얻어서 쓰면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통계청에서는 농수축산업 조사를 안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안 하거든요.

□ 김양훈 위원

구체적으로는 안 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활용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농업이라든지 축산, 그다음에 수산 쪽, 이쪽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방향도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수산업 쪽은 통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통계를 하는 데가. 그래서 농업 쪽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 쪽은 제가 봐서는 통계자료, 통계책자 지금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한번 조사해 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쓰려고 통계조사를 한 것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농업이나 축산이나, 물론 수산 쪽은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통계조사로 활용을…… 물론, 이제 조사해 가지고 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할 것인지, 또 농업 쪽이라든지 축산, 이쪽에 어떤 방향으로 군

에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수협 쪽에만 많이 지원됐는데 농축을 이렇게 통계분석해서 그쪽도 많이……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저희들이 조사결과…… 읍면 조사가 되면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한번 조사를 나중이라도…… 뭐 조사한 결과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게 되면 꼭 같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입니다. 귀농의 집 도색공사입니다. 귀농의 집은 목재 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목재가 좀 부패되어 있는 사항이라 목재오일 스테인을 (청취불능) 계획으로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삭감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지원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페이지를 이야기하십시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417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가 귀농인의 집이었고, 418페이지가 귀농인 지원사항입니다. 귀농인의 집 도색사항은요, 귀농인의 집이 지금 목재 건물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목재가 부패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재오일 스테인을 도색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삭감대상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1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109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비인데요, 토양이라든가 수질, 잔류농약 검사, 인증수수료 등 소요되는 예산으로 친환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19페이지, 자연그대로 유기농유자 농업인연교회 농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유기농유자농가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 지금 동해로 한 152M 유자묘목에 피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세 회복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라든가 친환경재제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친환경농작물 재배농가 멸칭 지원입니다. 그 과수원에 친환경 멸칭 지원…… 잡초 방제 등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위원님들, 그때 읍면 순회방문 때 정책토크 군민 생활현장 방문 시 농가들의 건의사항으로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

(□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 1,800만 원이죠?)

예,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완도자연그대로 유용미생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 175 농가에 200헥타르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채농가에 공급해서 했으면 좋지만…… 완도 쌀, 명품 쌀 계약재배농가에 이엠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이것이…… 재배농가들한테 선호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자연그대로 양념채소미생물 지원공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그 양파라든가 마늘 재배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해서 주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은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유용미생물 유기질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도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용역입니다. 모든 소규모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규모로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있고 다른 타 시군에서는 대규모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농가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어물 판매, 그 잔량을 이용해서 가공상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규모 아로니아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21페이지, 농산물 유통물류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16농가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유통물류센터가 없습니다, 완도군에. 공판장으로 이것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공판장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농가들이 유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유통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네이밍을…… 완도자연그대로 네이밍을 사용하는 농가들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네이밍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농가들한테 이것 포장지를 지원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전통주 및 전통식품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통주 및 전통식품포장재 지원사업인데 된장이라든가 간장, 막걸리라든가 우리 전통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주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포장재를 지원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424페이지 밑에 농산물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소형저장고는 지금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소형저장고는 3평인데 300만 원 보조, 300만 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소형저장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량은 많은데, 올해 저희들이 수요량이 많아 가지고 늦게 조금 이렇게…… 한 서너 동 정도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산정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바이오기능수 생성장치 필터교체입니다. 가축 건강증진 및 설사 예방효과가 저희들 시험성적상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농가의 형평문제로 해가지고 올해…… `19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19년도 사업까지 마무리하고 `20년부터는 사업을…… 농가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밑에 2건은 기재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은 놔놓으십시오. 밑에 2건, 축산단체 완도자연그대로 이것은 통과가 됐는데 기재가 잘못된……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러면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완도군 유gien, 400…… 위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군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완도군유gien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gien의 상시관리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인건비 예산을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려고 했으나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편성이 불가하다고 해서요. 인건비 계상 시 상시인력 충원에 따른 4대보험료, 퇴직급여라든가 예산과다 소요가 예상되고 총액인건비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사전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유gien동물 관리 및 포획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농업축산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432페이지요, 바이오기능수 그것 어차피 내년에 끊을 것 올해 끊으면 안 돼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런데 당초 농가들하고 5년을 해주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내년이 3년째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하고,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설득해서 내년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당초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5년까지 필터를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약속을 어긴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내년까지만 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정욱 위원

어차피 약속을 어긴 것 아니에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하면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올해까지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예산을 다 끊어버리는 것하고는 다를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 농가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가요, 필터교환에 대해서?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1년에…… 필터가 안 되면 다 지하수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끼어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올해 설득할 거예요, 별일 없게요? (예)

그리고 421페이지요, 용역비가 아니죠. 이것 상품개발하는 것이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그렇습니다. 상품개발.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비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아서.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이전 설명 때 다시 정정하기로, 부기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421쪽,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에서요. 자연

그대로 네이밍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원, 그 밑에 보면 완도자연그대로 유통분야 포장지 지원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그대로 네이밍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표를 달아준다는 얘기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완도자연그대로 이름표를 달고 나간 그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소규모로, 소규모로 지금 자연그대로 네이밍을……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브랜드를 달아야만 네이밍을 달아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단 농가들이, 그냥 친환경 인증을 못 받은 농가들이 있어 가지고 그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못 받은…… 왜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못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으니까 못 받았지 않았나.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어떻게 보면 소규모 농가들이라든가 노령화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령화된 농가들은 친환경하기가 좀 어려운……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제외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고비라도 보태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네이밍 활성화 지원인데, 간판을 달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네이밍 활성화를 하는데 한 70%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안 되면 50%로 일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그 네이밍…… 자연 그대로 네이밍 그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장재 이름을 달고 있는데 활성화 지원……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포장재 지원입니다, 그것은. 네이밍은 그냥 쓰고요. 포장재만,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포장지 지원이요. 아니, 네이밍이 붙어 있는데……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 네이밍을 붙이고 나간 포장지를 제작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 김양훈 위원

아니, 이 예산서를 보면 자연 그대로 네이밍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러면 이미 자연 그대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활성화 하계끔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포장재 지원이요? (예)

그러면 밑에 유통분야 포장재를 소농가들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소규모농가들.

□ 김양훈 위원

그렇게 양이 많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가들이 물류센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소규모 위탁해 가지고 공판장이나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농가들 수가 많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5 대 5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저기 과장님, 유통 활성화 그것 해가지고 완도자연 그대로 네이밍. 전년도에 2,100만 원이 남아 버렸구먼요. 그 밑에 포장재 2,600만 원이 남아 버렸고, 전통주는 1,800만 원 미집행이 되고, 다 2,000만 원씩 넘게 남아버렸구먼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연말에 뭐 완도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농수산물이?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니, 그 이전에 다 했는데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정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미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정산이 안 됐습니다. 정산이 안 됐지. 집행한 것은…… 이게 다 집행서류가 들어와야 정산할 것인데 정산이 안 된……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 좀 문제가 있고.

또 저온저장고도 그렇게 돈을 주라고 추정까지 잡았는데, 지금도 1억 8,300인가 남아 있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지금 포기한 농가들이 세 농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세 농가가 포기해 봤자 900만 원이 아니
예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그 외에 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
능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419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연
그대로미 유용미생물 구입이라고 5,000만
원 있습니다, 그 이엠. 이게 어느 정도 효과
가 있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지금 실질적으로…… 당목에서도 농가들
이 계속 주라고는 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
희들이 못 미치고 버…… 지금 계약재배를
하는데 살포를 하면 잎이라든가 이런 데를
쫓쫓하게 하고, 생물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농촌기술센터에서도 1억이 올라왔어요. 그
러면 거기에서부터…… 식용작물입니다, 똑
같이. 겹치는 사업 아녘니까, 이것이?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이것은 쌀 계약농가…… RPC에서 완도
쌀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쌀 계약재배농가한
테 줄…… 완도쌀 계약된……

□ 김양훈 위원

얼마나 쓰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공동방제
할 때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살포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유실 없이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검사하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
서 보면 창고에 이엠이 쌓아져 가지고 있습
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 쌀 계약재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공동방제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이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보니까 미생물 이엠사업이 사방 군데
에서 나와요. 예산서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과에서. 실상적으로 이것이 농가들이나, 축
산농가나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큰 효과가
없다.” 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리고 지금 다른 데 식용작물 쪽에 이렇게 꽃
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활용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
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
니까 이 부분도 직접 확인을 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확인이 전혀 안됩니다, 이것은.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저희들이 공동방제하기 위해서 한 번씩 나
가고 제외되는 부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효과까지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업체에서 “좋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시지 마
시고, 그에 대한 효능도 다 검사를 해보십시
오.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을 꼭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아로니아는 군에서 권장하는 작목은 아니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로니아는 저희들이 권장은 안 해도 농가들이 스스로 많이 심었는데 심다 보니까 (청취불능) 아로니아가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나무를 팔아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아예 노령화되어서 다른 작물로 또 교체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 품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잘되면 자기들이 그것을 재배해 가지고, 잘되면 누구 한 사람도 잘됐다고 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안 되면 전부 행정에다가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다음에도 “뭐 한 군데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 라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런 것을 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설명하실 때도 예산을 세우면 이런,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이야기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농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해주라, 해주라 할 때 그때도 생각하시고 예산을 세우시고요. 아로니아는 그렇게 별로 농가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포장지 지원해 주지, 택배 해주지, 뭐 필터 교환 해주지. 안 해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소득은 별로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464페이지, 소형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고 싶어 하니까 연초에 될 수 있으면 홍보해서 가지고, 연초에 해서 이렇게 결산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왜 안

쫓냐는 말을 듣지 않도록, 다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417페이지, 귀농의 집. 이 집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삭감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목재니까 올해는 어떻게 살려서 도색을 잘하시고, 도색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이 귀농의 집을 몇 월 며칠에 누가 사용하고, 이런 일지를 받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지를 받아서 과연 이 집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한 만큼 활용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또 어떻게 앞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만 해주고 그다음 사후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면 마루도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에 투자한 만큼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삭감대상 2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소안향일운동기념관 영상물 제작사업비는 현영상물은 2006년에 제작하였으며, 청산도, 당사도 등대 동학혁명 등 신규사업 발굴내용 등이 반영이 안 된 영상물을 현재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기념관을 찾고 있는 분들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현재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추모탑 보수 비용 3,000만 원, 소안 향일운동기념관 공원조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내용입니다. 완도군 충원탑은 탑 석재 탈락 등으로 전체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향일운동기념관 및 공원, 전시실 누수, 화장실 수리 등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실 증축에 따른 설계비……. 실시설계비 사업입니다.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실 5실도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이 협소해 1층 휴게공간을 물리치료실 및 재활치료실로 증축해서 사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정옥 위원님이 군정질의 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완도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현부지는 현재 매매되어 있어서 장소 이전을 모색 중입니다. 현재 (구)청해어린이집 2층 사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완도지역자활센터는 2004년 12월 1일 개원하여 1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로템의 집 건물방수에 2,000만 원, 금일 소망의 집 다목적실 증축에 2,000만 원, 성광 노인요양원 도배장판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해요양원 및 고금요양원 비품 지원사업은 청해요양원 전동침대, 에어컨, TV

등 구입에 4,000만 원, 고금요양원 전동침대 LED 교체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244쪽, 아래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증축, 경로당 의료기기 지원,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매년 각 읍면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사항을 신청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입니다. 신축은 개소당 5억 원 이내, 증축은 개소당 3억 5,000만 원 이내, 개보수는 개소당 1,000만 원 이내, 의료기기 지원은 개소당 500만 원 이내, 편의시설은 개소당 27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303개소입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 완도군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전통(청취불능)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에 시행하고 있으며 회당 4 내지 50명이 참여하는 인기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강사 세 분, 네 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도 추진실적은 37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주민복지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우성자 위원

과장님, 몇 페이지더라. 자활센터……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231페이지.

□ 우성자 위원

231페이지. 예, 과장님. 자활센터 그 임대보증금을 내고 또 월세를 내고 그러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조건이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다…… 완도에서 세입자든 아니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요.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놔줍니다마는 (구)청해어린이집을 지금 산학회로 쓰고 있는데, 산학회로 쓰고 있는데 현재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청취 불능)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돈을 안내고 군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편성을 시중가로 이렇게 편성해 놔줍니다. 월세를 받는 것을 전제조건을 하시거든요, 표기하시는 분들이.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결정이 납니까, 그것을 임대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가?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산학회하고 계속 절충하고, 그쪽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하고 읍장님하고 산학회하고 저희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쯤에 될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예산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잠정가격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었죠? (예)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 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가 진행사항을 봐서 만약에 돈이 필요 없다고 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몇 페이지더라. 혹시 그런 것을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또 이렇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땅이 팔려 있습니다, 팔려 있기 때문에……

□ 우성자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1월에 바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조기에 협상해서 결정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1쪽에 청해요양원, 고금요양원 비품지원인데. 지금 고금요양원은 LED 교체 여건인데 4,000만 원이면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총괄로 해서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인데 2개를 따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과목으로…… 아니, 세목으로 정해놓지는 않았거든요, 부기상으로. 그래서 8,000만 원인데 2개 합쳐서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군에서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8,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쓸 계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한 군데는 많이 주고 한 군데는 적게 주면 잡음이

있기 때문에……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LED만 교체한다는데 4,000만 원까지 들까, 그래 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저희들이……

□ 이범성 위원

그 부분들을 지원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241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에서 노인의료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기능보강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로템의 집이 건물의 방수로 한 2,0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신청했고요. 다목적…… 금일소망의 집입니다. 거기 다목적실 증축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광노인요양원은 도배하고 장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요, 한 2,000만 원이 견적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전체적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 우성자 위원

3개 건물에 그런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같은 쪽 241쪽이요, 청해요양원하고 고금요양원 비품 지원으로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방금 이범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 허궁희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취소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과장님. 213쪽, 항일운동기념관 영상물 제작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있는 영상물예다가 보강한다는 얘기죠, 새로 이렇게 영상을 짜는 것은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006년에 했는데 1만 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다녀가셨는데요. 지금 여기 당사도 두 군데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빠져있고 동학혁명도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면지를 발간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을…… 국회의사당에서 자료들을 많이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고, 면지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보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 신설로요? (예)

신설로 하면 이 비용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전에 했던 업체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견적비를 한 2,000만 원으로 받아와서 저희들이 편성했던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충원탑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애당초 충원탑은 우리가 접근성을 따져 가지고 옮기자는 말도 있었는데, 그 관계하고 이 보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충원탑을 옮기자는 안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보훈단체하고 저희들하고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그때 2년 전에 완도군청 주민복지과하고 의회에다가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보훈단체에서, 그 충원탑을 옮기는 것하고 마을회관…… 아니, 보훈회관을 지어주라는 것하고 2건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옮기자는 안이 나와서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훈단체에서 옮기면 다른 읍면에서 현충일 행사 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참석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 다시 보훈단체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원탑을 보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서요. 옆에 돌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 견적서를 한번 빼봤는데 안 옮긴다고 하면 그것을 고쳐야 될 것 같고

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그 들어가는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2차에 걸쳐서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를 중학교 있는 쪽에서…… 가는 도로를 도저히 웅벽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렵고, 지금 이쪽 옛날 도로를 내야 되는데 집을 많이 헐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볼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선 충원탑을 고쳐주라는 쪽으로 보훈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충원탑을 존치하고 보수하는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년, 예산 그 밑에 소안항일운동 기념관.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산이 뭐 부족합니까. 여기는 내가 보니까 예산할 때마다 해년마다 2,000만 원, 4,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던데. 어떻습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보수하는 것이 딱 지어져 가지고 깨끗하게 보수하는 것이 더 나은데.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할 때마다 2,000만 원씩, 4,000만 원씩 올라오던데 소안항일운동.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소안 그 한 2,000만 원 정도 보수를 했는데, 보훈청에서 한 5,6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기념관을. 그런데 소안사립학교가 오래된 건물이라 한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체가 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막 무너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작년에 2,000만 원 해가지고 반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들이면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보훈청에다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주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비를 안 들이고 보훈청 예산으로 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렇게 해주고요.

217쪽, 완도군 장애인 증축. 이것 애당초 주차시설이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주차장시설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건물 위아래가 지었기 때문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이것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앞에다가 또 한 것이요. 앞에다가 또 만 들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 건물 앞에 하나가 있고요. 건물 위에 하나 있고 건물 밑은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따로 뺐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애당초 여기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처음에는 주차공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랬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밑에다가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주차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증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여기 관계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것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이 이번 당초에 1억 원을 확보해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이 예산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 한번 합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운영비를 주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감사를 한 번씩 합니까, 여기?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후원금…… 올해 후원금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후원금도 수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여기 관리 좀 잘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렇게 하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저쪽…… 어떻습니까, 제일조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자활센터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역자활센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렇긴 한데. 제일교회에서 뭐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위탁만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지역자활센터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역자활센터는 제일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군수님 면담하면서도 부지를 좀 마련해 주고 건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제일교회가 그런 여력이 없고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은 제가 보서는 지역자활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전부 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제일교회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어디 다른 장소로 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꼭 자기들이 한 것처럼, 종교단체에서 한 것처럼 해가지고 지원은 뭐 국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데…… 그것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여성아동과 2019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정보조사사업 청소년 건전정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도군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매년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청소년 관련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7,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6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청소년 락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보고아카데미 토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미래청소년들의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장보고 청소년여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장보고대사와 관련된 해외유적답사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과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한꺼번에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예산과 같은 이 예산을 가지고 완도군 관내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미래완도 인구정책 100인 토론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인구정책팀이…… 여성아동과가 생기면서 저희 여성아동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어서 뚜렷한 인구정책 관련 부분이 좀 미진했었는데, 여성아동과가 생기면서 아동과로 옮겨지면서 내년부터는 완도군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층별로 토론회를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20대, 30대, 40대 그다음에 기업인, 또 농업, 수산인…… 우리 완도의 앞으로 미래 인구정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계층별로 심층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청년정책 방향 행정통계 분석, 이 부분은 21개 시군 중에 완도군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청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라든가 인구…… 최근 10년 간의 청년인구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청년…… 최근에 저희들이 청년 기본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자 호남통계청하고 기관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청년정책에 대한 인구분석부터 해서 미래향후…… 청년인구까지, 추계까지 정확하게 호남통계청을 통해서 한번…… 그것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청년정책에 반영하고자 호남통계청과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1년간 한번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업무추진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대상조서에 있는 두 가지 분야 중에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은 당초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도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거기에서 하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도비를 거기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구시책 우수읍면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에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하면서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인구정책 방향 분위기

를 잡아가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여성이동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이요, 인구시책 상사업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저희들은 읍면에 군에서 인구정책을 수립해서 읍면에 이것을 전파하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일단 상사업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시책 상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1,500, 1,000……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 김양훈 위원

이렇게 안 하고도 충분히 인구시책은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288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층별로 다양하게 인구정책 방향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라는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제대로 된 인구정책 방향을 추진해 보려고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김양훈 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전에 없었던 포상금, 상사업비, 읍면에 내리는…… 어떻게 보면 독려도 되겠지만 그게 엄청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 업던 예산이었던 시상금이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상사업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징수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의무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포상을 올려놓고, 이런 예산들이 올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정책 실현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삭감대상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사업입니다. 1억 2,75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 타 시군구에서 완도군으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전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현황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완도군 인구 늘리기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내년도 전입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 금액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에 있어서 전산개발비입니다. 기준점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점관리 담당자 단독 PC 사용자 운영환경으로 관리상 불편함과 보관 중인 기준점 정보의 손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서버를 구입하여 기준점 관리를 네트워크화하고 고해상도(청취불능) 영상을 연계하여 데이터의 최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조사 위탁사업으로 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외지역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훼손, 의무 등을 조사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보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9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9,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실제 토지 소유면적과 지적공고상의 면적이 다른 부분을 실제 소유사항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 90%, 군비 10%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에 고금 덕동을 시작으로 고금 3동, 올해는 완도 대야2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내년 1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부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민원봉사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더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이 이전에도 잠깐 설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공무원하고 학교 선생님들, 이밖에 공직자들 빼고 일반인들은 얼마나 들어오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그래도 일반인들이…… 공직자는 불과 한 20% 정도고요, 80% 정도는 일반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80% 일반세대가 들어온다면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죠, 줄어드는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에 2,000명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들도 2,000명이 안 되는 것이죠, 2,000명이 안 되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의외로 감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아무래도 인구감소는 고령화사회고 또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계속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으로……

□ 김양훈 위원

지금 계속 우리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전입세대가 한 2,000명씩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2012년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귀농, 귀어세대 부분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요즘에는 귀농, 귀어가 많이 줄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입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여기 예산 2,500명 것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앞으로 예측…… 내년엔 우리 군에 인구

늘리기팀까지 이렇게 조직개편에 반영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 중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도 보면 주소지만 형식적으로 완도에 다다 놓고 살기는 여기에서 안 살고 읍에서 살거든요. 그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이 축하금을 주는 것입니까, 일단 전입만 하면 축하금을 다 주는 것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살든 안 살든?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일단 전입하면 읍면장이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확인 후에 군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읍면장 확인이요? (예)

왜 그러냐면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소지만 늘어나는 것 같고, 다른 사업을 신청하려고, 괜히 귀농, 귀어 이런 사업을 신청하려고 주소지만 완도에 놓고 거기에서 안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다 축하금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잘해서…… 아까 3년 동안 해서 2,000명이 다 안 넘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세히 앞으로는 잘해 가지고 예산서에 넣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세대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297쪽이요, 기준점 관리시스템 고도화 3,5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이 부분이 측량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 설명보다도 지적팀장의 설명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입니다. 기준점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기준점 관리시스템은 기준점 관리 담당자 PC에서만 설치되어 있어서 단일 사용자로 운영하는데, 환경이 관리상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구입해 가지고 통신계 서버에 그 시스템을 설치해서 다수의 인원이 열람하거나 사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다수 인원이 열람한다고 했는데요. 그것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아닙니다. 라이선스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꼭 여러 사람이…… 담당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기준점이 우리 현황에 보면 삼각점이 23점, 지적삼각보조점이 108점, 도근점이 2,797점. 우리 군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이 기준점에 의해서…… 기존에는 지적도를 근거로 해서 측량했는데 지금은 인공위성과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 자체가 이 서버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

서 -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 전체 것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매년 조사를 하더라고요, 삼각보조점. 이것은…… 이것하고 뭐 연관이 되는 것인가요?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조사해서 그 시스템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추계상으로 그냥 있는 PC에다가만 했다는 얘기죠?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못 박아서 기준점을 잡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매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무예요?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이것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저희들만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예요. 이것 매년이요?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해서요. 일반인 말고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완도의 공무원. 그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완도에서 근무하면 완도로 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무원들이 보면…… 완도에서 살면서, 완도에서 월급을 받고 살면서 퇴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주민등록법상 장기간 체류하면 위반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기는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장기간은…… 얼마 정도 기간을 장기간으로 보십니까. 뭐 6개월 이상이나 아니면 1년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이 한 3개월 살다가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1년, 6개월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반드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도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윗선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방법을…… 완도에서 근무할 때는 반드시 완도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예, 그런데 대부분 쪽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는 가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말

이면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방법은 권장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 허궁희 위원

과장님, 297쪽이요.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본사업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저희들 지역공고상 측량해 보면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편차를 실제적으로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그 편차 부분에서 줄어든 사람한테는 지가, 공시지가 금액에 의해서…… 줄어든 사람은 다시 돈을 돌려받고요. 늘어난 사람은 돈을 더 내놓고 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면 혹시 국유지 같은 경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요, 국유지 같은 경우가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국유지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일반…… 임야가 국유지로 변하고, 임야인데 산속…… 아니, 물 속에 임야가 있고, 제가 이전에도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바로 못 잡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그것도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공공용지 현실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대개…… 제가 이전에 지적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계속 동쪽으로 이렇게 밀려간다고 그러거든요, 위성사진을 봐도 그

러더라고요. 우리가 위성사진을 몇 년 전 것을 놓고 금년에 빼보면 계속 위성사진 자체가 이렇게 동쪽으로 밀려가요. 즉, 무슨 말이나면 현재 지적도하고 틀려. 위치가 점점 동쪽으로 이렇게 밀려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안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지적팀장이 답변을……

□ 허궁희 위원

예.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입니다. 지적도가 밀려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위성사진.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위성사진은, 위성사진을 찍어서 지적도에다가 오버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위성사진하고 지적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우리 지역을 보면 산이 이렇게 높게 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쪽도 바다고 동쪽도 바다예요, 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서쪽은 임야가 국유지로 변했어. 즉, 땅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가 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동쪽은 임야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바다, 뭐 물깊이 한 30M까지도 임야예요.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임야는 일제시대 때 6,000분의 1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초 등록 당시에 아마 측량상 착오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는 이렇게 조정을 언제나 할 계획이 있느냐.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집행부 좌석에서 - 그러니까 일제 조사를 하면 조정이 되는데요.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부의장님, 그 사항이 뭐냐면 지금까지 육상 측량의 좌표를 동경 측지계를 사용하다가 지금 2001년부터 세계 측지계가 변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저 위성 쪽에서 보면 동쪽으로 약간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 내년도에 금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측지 변화, 아까 침에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측지계로 변환됐는데 그 작업이 아직 육상 쪽에서는 안 되어서 그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가 많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 요하신 23건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완도군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여기는 상반기 3월에 3개월, 또 하반기 5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12개 읍면에 주민들 요가나 풍물, 난타, 노래교실 등 약 55개에서 60개

정도 강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4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2019년도 상반기에 50%만 신속집행실적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부분에 반절만 2,000을 세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해양치유평생교육프로그램 이것은 해양치유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운전면허 현지 취득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운전면허 현지 취득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금일 권역, 노화 권역, 노화, 소안, 보길, 그다음에 청산 권역. 이 분들이 시골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러 광주나, 이런 데에…… 목포나 직접 가고, 운전면허시험을 보러 직접 가고 해야 되는데 생업에 바쁘니까, 저희들이 운전면허시험장하고 연계해서 현지, 우리 읍면 현지에서 권역별로 그 자격증시험 면허증을 딸 수 있게끔 강좌도 하면서 필기시험도 현지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런 비용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310페이지, 하단에 연등축제. 이것은 부처님오신날 산학연합회라고 그리고 사찰하고 그리고 암좌, 산학연합회 주관으로 연등행사를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4월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를……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의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완도역사문화관 조성 기본계획용역비 1,800만 원, 이것은 수석공원 관광정보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가 역사문화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층에는 완도역사관, 원교이광사관 등을 조성하고, 2층에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홍보관을 만들 계획인데, 이 부분에 한 1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저희들이 군비로 하기에는 좀 돈이, 재원이 아깝고 그래서 문체부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돈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광사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2,200만 원도 신지 대곡리에다가 예술거리

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도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도 군비로 안 하고 문체부의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아래 완도 상징의 노래 창작 1억인데, 완도를 홍보해 볼까 해서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 돈인데, 이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는데, 어느 작가, 어느 가수,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가수가…… 이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음반을 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모해서 할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중간 지점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완도문화원 운영비,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이것이 총괄적으로 5억 3,200이 예산이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7건의 사업에 약 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각 단체별로 공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단체별로 예산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인협회나 난문화협회, 뭐 향교, 국악협회…… 하여튼 예술단체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1월에 공모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3페이지, 문화예술공연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기획초청 행사, 이런 대중가요콘서트, 공연, 연극, 뮤지컬, 음악행사, 그리고 정부산하단체 초청공연, 소규모 작은 문화예술 공연, 이것도 1년 중에 공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회 정도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1회 정도 공연을 해볼까하고 금액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한 7,000~8,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공연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대단합니다. 많은 부분에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공연 횟수를 좀 늘려서 금액을 약간 늘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금년에도 성과

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문화예술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와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서 이것을 늘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민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장보고 창작판소리 공연 2,000만 원,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라면 해상왕 장보고 창작판소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용역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해상왕 장보고 관련해서 창작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판소리가 내년 2월에 만들어져서 나오면 이것을 각종 행사에서 공연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워서 판소리 명창인 임진택 명창으로 하여금 각종 지역 내 행사에 공연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공연비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상단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투자심사용역비 1,000만 원. 이것은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이라고 우리 완도의 옛 이름이 가리포진입니다. 그래서 가리포진의 성곽도 복원하고, 전체 사업비가 90억입니다, 90억인데, 이 90억 국비사업을 따오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맡겨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그 심사서류도 만들도록 기본계획도 만들어서,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아래 명승지정 신청 연구용역 5,000만 원은 작년에 2017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명승자원을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7,4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완도군 지역 내에 있는 명승자원 발굴을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2017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용역을 했는데 6개소가 발굴했습니다. 완도 상왕봉 (청취불능)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청산 보적산 범바위 장기미해변, 소안 당사도 등대, 북생도 일원, 금당 명풍바위, 부채바위 해변, 보길 공룡알해변하고 보죽산 일원. 그래서 6개소가 발굴되었는데, 지금 해년마다 2개소씩 묶어서 명승으로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명승으로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용역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그 지정규정에 맞게 서류도 만들고 그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정밀학술 용역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가리포진 2차 발굴, 제가 아까 방금 설명 드린 가리포진을 자원화 하는 사업비가 90억인데 이 90억을 따오려면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발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1차 발굴은 내년 3월까지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478평 정도를 발굴하고 있고, 내년 7월까지 나머지 잔여부지인 1,400평 정도를 발굴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소요되는 비용이 2억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 연구용역비. 원교 이광사 적거지 복원사업 기본계획용역, 이것도 원교 이광사가 신지 대곡리 그쪽에서 15년 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원교 이광사가 살았던 적거지가 있습니다. 그 적거지 부지를 매입하고 복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복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이것도 나중에 복원이 되고 사후관리하고 하려면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 지정을 하고 문화재청의 돈을 지원받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한 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다음은 320쪽, 하단 부분은…… 시설비, 금일전천후게이트볼장 토지매입입니다, 2억 5,000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금일 소재지 권 화목리 금일공공도서관 뒤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기로 하고 6억의 사업비를 세웠는데, 거기 공공도서관 뒤쪽이 다시마축제 행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조성하면 다시마축제를 할 때 행사장이 (청취불능) 축소되니까 다른 부지로 옮겨서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건의한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위치를 물색해 보라고 해서 화목리 쪽에, 바닷가 물양장 쪽에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국유지……

자산관리공사 땅이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다가 해볼까 하고 금일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6억 원을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앞서서 소안 부분은 6억이, 제가 오기 전에 7월 21일 2회 추경 때 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소안 부분을 임의로 감한 것은 아니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신청하면 해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 부분이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부분 소안초등학교 인공잔디 운동장 조성. 이것은 과목이 잘못돼서 통계목을 조정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322쪽, 중간 부분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 7억 7,000. 이것은 무슨 내용이나면 공설운동장에 의자가 없습니다. 일반콘크리트에 맨바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 2018년도에 2회 추경 때 6억 4,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7억 7,000을 확보해서 그 돈을 합치면 14억 1,000만 원이 됩니다. 14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스탠드 의자를 전부 세팅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석 맞은편에 사무실 6개를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사무실이 없고 그래서, 각종 자재를 보관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무실 6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아래쪽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공사, 이것은 체육시설 생활 SOC 확충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9월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8월에 읍면주민과의 대화할 때, 8월에 금당하고 생일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십사 건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공모사업이 있기에 이것을 응모했습니다. 금당하고 생일 건물.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이것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금당을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그리고 생일을 일반게이트볼장으로 해서 6억, 3억 해서 9억을 확보한 돈입니다. 하단 부분, 공설운동장 외벽 디자인시설 1억

5,000만 원. 이것은 공설운동장의 스탠드 보수와 더불어서 외벽을 뱅 둘러서 540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 지금 외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퇴색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스탠드 보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탠드 외벽을 새로운 벽화로 조성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323쪽, 완도야구장 외야 LED 스포츠 조명시설 2억 2,400만 원.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3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야구장 내야 쪽에 조명시설 4개소를 7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외야 쪽에 이 조명등 시설이 없어서요. 금년에 확보된 이 3억을 가지고는 외야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외야 쪽 2개소에 조명을 시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2,400만 원. 중간 부분 시설비 보길체육공원 부지조성사업 2억 4,900…… 2억 5,000인데 이 부분은 2017년에 부황리…… 현재 예송리 윤선도원림 가는 길 쪽에 보길 윤선도문화관이 있습니다. 문화관 건너편에 농경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2017년에 거기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해 보자하고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비 2억을 합쳐 가지고 7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부지가 약 5,100평이 됩니다.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5,100평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4억을 편성해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2억 5,000을 들여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5,100여 평의 기반조성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 중반이나 하반기에 생활SOC사업으로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공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모에 응모해서 거기에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10억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부지조성 마무리를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아래쪽에 군 취업 우수선수 지원, 이 부분 4,600여 만 원은 우리 이윤리 선수라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있습니다. 그 완도군 출신 이윤리 선수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완도군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선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윤리 선수에게 훈련하고 우리 군 홍보에 대해 선양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4,600여 만 원.

다음 장, 326페이지. 마지막으로 완도체육공원 및 해신구장, 궁도장 관리인부임 7,500만 원인데. 이 부기를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여기에 간단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나면 체육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쪽 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어요. 12개소 주변을 정비하는, 또 시설물이 고장 나면 약간의 수리와 보수를 하고, 또 여타 주변 정비, 풀을 베고 나뭇가지를 정비하고 체육생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문화체육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보충질의가 많아서 부담이 되셨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때 전혀…… 잘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07페이지, 평생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평생학습이 4억 4,000, 1년이면 예산이 참 많은데요, 내년에 또 신규로 원하는

과가 있으면 증설할 계획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관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60개 강좌, 상반기 60개, 하반기 60개, 평균 55개에서 60개 정도를 운영하는 데, 그 강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을 하다가 실적이 없거나 활성화가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은 폐지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강좌별로 그 수강생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그 강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필요한 그런 강좌는 해당 읍면에서 신청하면 그 강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20명 이상 회원명단이 올라오면 증설해 주신다는 것인데.

혹시 과장님, 중간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번 점검을 가신다거나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제가 여기 9월에 와서…… 하반기에 평생교육을 개강했습니다. 9월 중순에. 그래서 12개 읍면을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가까운 체도권 읍면에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운영하고요. 읍면실정에 맞게 평일시간대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녁 7시부터…… 저녁 8시, 9시 야간에 하는 그런 타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를 둘러 봤습니다.

□ 우성자 위원

처음에는 다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20명, 30명이 교육을 신청하는데 중간에 가다보면 한 번, 두 번 안 가고 그러면 가기 싫고, 또 하다 보면 회원이 4명도 있고 5명도 있고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10억을 들여서라도 많이 활성화

시키면 문화혜택을 못 받는 시골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많이. 노래교실도 늘려주라, 뭐 다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중간에 한번쯤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확인을 해보시고, 너무 회원이 없는 그런 곳은 빼고 잘할 수 있는 데는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을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다음에 311페이지, 원교 이광사거리 조성이 있고, 또 316페이지, 적거지 부분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용역인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따로따로 용역을 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고, 하나는 문화재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재하고 관련 있는…… 그런 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이고, 적거지는 나중에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등록하고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문화예술계업무고 하나는 문화재계업무고, 분야가…… 중앙부처업무가 다릅니다.

□ 우성자 위원

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적거지 집 주변이 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주변이. 그래서 적거지 용역하면서 거리 부분 용역도 같이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부처가 다릅니다.

□ 우성자 위원

아, 다르다고요. 예,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민간단체보조에서 완도에 계
시는 예술인들한테 주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완도지역 내에.

□ 우성자 위원

완도지역 내에 있는 분들한테요? (예, 그
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예
술인이 많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제…… 인원이 부족하다고 예술단체에
서는 난리입니다, 늘려달라고 난리고, 사실
단체별로 저희들이 200씩, 400씩 이렇게 쪼
개서 보조금을 심사해 가지고 연초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1개의
프로그램만 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2~3개씩 프로그램을 소화하다 보면 이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는 이 돈이 부
족하니까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단체하고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말인
데 문화원하고 예술단체하고 서로 사업을 많
이 따가기 위해서 자기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혹
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문예총이라고, 그 단
체하고 문화원하고 서로 행사를…… 좋습니
다, 지역문화예술행사를 많이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
데, 단체들 간에 압력이 생기고 서로 잡음이
생기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단
체들 간에 소리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단체들 간에 서로 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
육과로 와서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부
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 머리로 아프고,
그런데 단체들이 1월에 정당하게 경쟁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계획서를 내고 심사를 맡
아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이 돈을 토대
로 해서 저희들이 1월에, 1월 말경에 공모
계획을 내립니다, 각 단체별로. 그리고 단체
에서 신설하고 꼭 매년 했던 그런 프로그램
도 있지만 새롭게 신설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해서 예산을 쪼개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프로
그램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돈이 많지는 않
습니다.

□ 우성자 위원

같은 지역에 살면서 또 같은 문화예술로
활동하시면서 돈을 가지고 서로 더 많이 타
가려고 압력을 갖고 이런 것은 안 좋은 것이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항상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는 뭐 우리 생각이지
만 통합시킬 수 있으면 통합시켜 가지고 일
원화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단체 간에 중간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3페이지, 기획 초청 공연행사에서
는…… 우리가 보통 완도에서는 큰 행사 때
가 아니면 언제 이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전당, 완도는
거기에서 공연을 하려고 세워놓은 돈들입니
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이전에 제가 설명

을 할 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군민들은 대도시에서는 가수나 이런 공연을 볼 때 VIP석은, 로얄석은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전당을 짓고 거기에서 저렴하게…… 무료로는 하기 는 좀 그래서 조금이라도 받아주고 그래서 한 공연을 할 때마다 5,000원씩 조금이라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고, 이런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공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17회 정도 했어요. 욕구가 더 많은 공연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주 이런 것을 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횡수를 약간 3~4회 정도 늘렸어요. 그래서 3~4회 정도 늘린 총 22개 공연을 가지고 꼭 예산 부기는 이렇게 2억 1,000, 1억 5,000 쪽쪽 내부적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런 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넣고, 빼고 이렇게 총괄하고 해야 되는 5억 500만 원을 가지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을 위해 공연 횡수를 많이 늘려볼까 하는 생각에 예산편성을 했고.

하여튼 한번 공연할 때마다 5,000원씩 받아가지고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부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을…… 조금 더 나중에 추경이라도 요구하면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십시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횡수를 많이 늘린다기보다는 완도에 살다보면 문화혜택을 많이 못 받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요즘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완도에서 정말 우리가 생전 못 볼 사람을 봤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한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그 310페이지요. 사무관리비를 봐주십시오, 운전면허 취득. 여기 필기만 도서지역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실기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필기만이죠? 그러면 실기는 따로 본인들이 올라가서 하는 것이고요. 도서지역으로 해서 이 정도는 전부다 필기 쪽만 이렇게 해서 강사로 해서 하고, 실기는 시험장으로 가서 보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전문시험장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실기는 못합니다.

□ 김양훈 위원

필기…… 그런데 실기를 보러 가는 데에 보조되는 것은 없죠, 그런 것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강사로 해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요, 행사운영비. 연등축제는 매년……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실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올해도 우리 신도들…… 물론 종교별로 다 해드리면 좋지만 그래도 연등축제가 부처님오신날…… 전국적으로 이 행사가 벌어지고 있고, 원래는 보조금으로 신청이 되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한도액을 정해 놓고 한도를 넘으면 패널티를 주고, 교통교부세를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약간의 묘미를 부려서 보조금이 아닌 우리 행사운영비에다가 넣은 부분인데.

금년, 작년 이렇게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정하게 깎을 수도…… 그렇다고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오신날 산학연합회에서 연동행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특혜성,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311페이지, 노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3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야구 외야 LED 스포츠 조명시설이요. 이것 혹시 주위 인가들하고 이야기는 한번 해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물론 조명을 켜면 주변에서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명 각도가 운동장 내에만 하도록 각도를 다 조정하고 기술적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밤에 조명을 켜고 그러면 주변이 환해서 일부 제기하실 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각도를 조정……

□ 김양훈 위원

지금 저희들이…… 동네 가로등을 봐도 밑에 농작물이 있으면 가로등을 꺼버립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주변에서 “잠을 자네, 못자네.” 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꺼버리는데, 주위에 농작물도 이렇게 저녁시간대다 보니까…… 이것 다 저녁시간대 아닙니까, 그리

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인데, 잠 못 잔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봐서는 과장님, 잠 못 잡니다. 맨날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야구장…… 광주 무등경기장 있는 곳을 가도 주위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 그쪽에서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양훈 위원

하는지 모르겠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리고 주변에…… 금년에 돈을 들여 가지고 내야에 3억을 들여서 4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외야 쪽에 할 수 있도록……

□ 김양훈 위원

과장님은 민원을 안 들었어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저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야구협회장하고 얘기해 봤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염두는 해두고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래서 이제 개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개소수를…… 내야 쪽은 4개소를 했는데 외야 쪽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2개소만 하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을 최소화하면 외야 쪽 (청취불능) 많이 죽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최소화하고 주민들 민원은…… 물론 100%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화하고,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들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컨트롤을 잘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무조건 올해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도와주십시오. 동호인들이…… 10개 팀이 완도군 관내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35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도 민원이 발생하면서까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최소화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12개 팀 정도 되거든요, 도서지역에 있는 팀들이 좀 있고, 거의 다 사용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완도에 있는 동호인들밖에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도서지역에서 저기에 나와서 운동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완도에 팀들이 많습니다, 완도에 6개 팀이 있는데.

□ 김양훈 위원

완도팀들만 와서 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산이 잡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도읍 이쪽에 읍내에 있는 동호인들만을 위해서 조명시설을 해서 야간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비취집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하여튼 민원이 없게 중간에 저희 과에서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여론수렴도 한번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김양훈 위원님께서 노래 부분, 311…… 완도 상징노래. 이것 꿈 같은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완도군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부분이 세워주라는 것이요. 1억이라고 해서 큰돈이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너무 접근하기 힘든 부분으로 사업…… 다른 사업들도 하기가 힘들텐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 전체 위원들도 생각하는 것이요, 약간 잡힐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 이 노력을 하시려고…… 다른 부분에다가 힘을 더 쏟아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안 하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완도군의 미래를 위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 이범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14페이지. 해상왕 장보고 판 소리공연 2회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용역 추진사항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2018년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재 장보고와 관련된 그런 내용 건의로 해가지고요. 창작판소리, 판소리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소리가 내년 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가 나오면 각종 행사에 장보고 선양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각종 행사에 이런 판소리공연을…… 임진택 명창이 있습니다, 판소리계의 명창이 있는데, 이 분으로 하여금 각종 행사에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판소리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횟수를 넣으면 좋겠지만 2회 정도로 해서 장보고수산물축제를 할 때 그때 공연하고, 또 하반기에 가을빛, 청정완도가을빛축제를 할 때 그때 공연을 한다든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런 예산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예산이 아니라 진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어떤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저런 판소리가 홍보…… 완도를 위해서 홍보될 수 있는 부분으로 깊이 있게 다뤄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320페이지를 보면요, 금일전천후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2억 5,001만 4,000원인데, 이 부분이 다 느끼기에 어떤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어차피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고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지금 축제행사장 때문에 그것을 하면 협소하고 그래서 위치가 불가피하게 옮겨지는 부분이고, 소안도 그 관계로 같이 편성되어서 이 부분이 금년 2회 추경 때 감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별

도로 위치를 잡아서 하면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 아마 해당 읍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전천후장이랄까, 여러 가지에 가보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주면 뭐 바쁘다고 안 나오고, 몇 명 안 하고 있어요, 운동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청취불능) 좋잖아요. 올해 못하면 몇 년 있다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시고, 또 어느 면은 안 해주고, 이게 전부 다 참 어떻게 봤을 때는 꼬리를 물고 가는 식이에요. 왜 그때 너희는 그렇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너희는 또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계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아마 우리 위원들이 다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모든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담당과장으로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311페이지요, 아까 다 물어본 얘기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에 문화예술단체 활동이요, 지금 거기가 문예창하고

문화원하고 예산이 어떻게…… 예충에도 이번엔 배정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문화원은 법정단체입니다. 상위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이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서 문화원은 1년 운영비가 8,000이 지금 나가고, 별도로 지역문화원……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을 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제외한 한 4억 정도를 가지고 문예충 산하에 있는 각 단체, 문화예술 단체를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그 단체한테 행사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금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들어갔느냐, 뭐 일반문화예충 단체 그런 단체에 더 갔느냐, 뭐 사업비가 더 가고 덜 가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최정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설명은 들었는데, 예충하고 단체들이 거의 비슷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 이쪽에 지원, 이쪽에 지원해 주니까 더블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더블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으로 심사해 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물론 더블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별로 몇 월에 무슨 프로그램, 무슨 행사를 하는지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단체에는 하나만 주고 이 단체에는 2개를 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심사해 지원을 하고, 매년 연례 반복으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금액을 인상하지 않고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 최정욱 위원

그래서 왜 단체에서…… 문화예술원과 예충, 똑같은 단체가 들어온 것 심사과정이 나오죠, 그게. 그러면 그 두 단체에 더블이 되지 않게 정리할 방법은 없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심사할 때……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거의 더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더블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사프로그램 내용이……

□ 최정욱 위원

아니, 지금부터 말이 나와요. “나도 예충으로 갈까.”, “예술원에 있을까.” 라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신경을 써서……

□ 최정욱 위원

그래야지, 기왕 보조를 하면서 이쪽 주고 저쪽 주고…… 똑같은 단체를 이리 주고 저리 주고 이러면 안 되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도 상징의 노래라고…… 이범성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그래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 우리가 1차에서 삭감했던 것은 말하지 마십시오. 삭감은 삭감이니까 자꾸 이야

기하실 것은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도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 최정욱 위원

됐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안초등학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서 안 되죠, 시설비로? (예)

그리고 예산제한에도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잡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시설비로 잡아서 안 되는데.

그리 하고 체육진흥시설에서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하고 공설운동장 외벽, 이것 왜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됩니까? 그리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청취불능) 했는데, 금년에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들이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6월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각종 단체…… 산하체육 프로그램 37개 종목이 행사를 못하고 하반기로 전부 미뤄졌습니다. 미루다 보니까, 하반기에 행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11월 중순까지 일정이 뒤로 늦춰져 가지고 공사 발주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계속 `18년도도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계속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금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그 이윤리 선수를 지원한다, 이것 이전에도 올라와 있던데. 뭐

법적근거 있습니까. 그리고 군소속입니까, 아니면 군의 명예를 뭐 하니까 이렇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우리 군 전라남도…… 총괄적인 것은 전라남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완도군 출신이고 완도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수가 운동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 법적근거는 없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법에는 상위법령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잠깐만요, 관련법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된 선수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것은 뭐야. 어떤 경기가 있을 때 그러면 모르는데, 여기는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해년마다. 그래서 하는 말이예요. 이것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산을 볼 때마다…… 지금 제가 5년 째입니다마는 5년 동안 해년마다 이것이 올라와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법적근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상위법인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우리 군의 명예를 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선수가 완도군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훈련경비를 지원하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근거를 만들자는 이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하지는 말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조례에 한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리고 보길도에 체육공원 부지조성은,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2년 전에, 3년 전에 이낙연 전국무총리께서 도지사하실 때 특별교부금 5억을 내려줘 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전년도도 예산을 잡아 놓고 올해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이면 부지조성은 내년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제 2억 5,000만 확보해 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부지조성은 다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못 샀던 땅들은 지주들하고 정리가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지주들…… 전체 5,100평을 매입했는데요. 안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빼고요. 나머지 부지 확보된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 마무리한 다음에, 금년 중반기나 하반기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잘 알았고, 이것 바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바로 될 것…… 보길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자꾸 시간을 끌지 마시고요. (예, 알겠

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갑자기 1억 1,000만 원이 올해 더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이 본예산 대비해서 1억 1,000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5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5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까지 합치면 지금 5억 3,000여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금년…… 내년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추경에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맞춰간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59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 요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본용역비는 해수수질 검사료 2,300만 원으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매립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0조 폐기물관리시설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의거 사용종료 후 30년간 시설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은 완도, 노화, 신지 3개소에 주변 오염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법정검사 수수료입니다. 1분기 25개 항목 검사수수료 614만 원이고 연간 2,456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새마을폐기물관리 연구용역비 1,900만 원입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봉투 가격은 동결하여 사용료 수입 대비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수수료가…… 수수료가 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치에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 주민부담률 80%를 목표로 종량제 목표 가격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통하여 단기적인 현실화 추진과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재활용 분리배출생활에도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완도 황칠 동백 약리 활성 및 안전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의 황칠농가는 375 농가에 조림 400헥타르, 천연림 700헥타르, 총 1,100헥타르의 면적에 160만 분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황칠나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황칠산업을 위해서는 건강식품 도료,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수요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성식품에 황칠나무를 원료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안전성 연구 결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식

품의약처의 식품원료 목록에 의하면 동백나무의 경우 잎과 꽃잎, 열매가 사용이 가능하나 황칠나무의 경우 뿌리, 줄기, 잎을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옷나무의 경우, 사용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 등에 의한 인체 안전성 연구용역을 토대로 식품안전처의 개선방안 대응자료 및 도료, 의약품, 염료 분야에 제품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제한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성식품 외에도 다용도로 활용가치가 높은 염료 등 산업분야에도 인체에 유해 성분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완도 황칠 동백 약리 활성 및 안전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을 우선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중앙부처에 본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결과물에 따라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완도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는 1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세계유산은 그 지역의 유구한 유산의 보존과…… 생물권보전지역은 그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경관에 대한 등재입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윤선도 원림, 청산 구들장논, 청산도 및 여서도 돌담길, 각 마을 상록수 등을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본용역의 모든 과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단계이며, 2022년까지 계속하여 현지 실사를 통한 조사 및 각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자료작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승인되면 우리 지역에 위상이 격상되고 전세계 속의 완도로 우뚝 설 수 있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네스코 인증마크가 붙은 지역특산물은 가격 경쟁에 있어 우위를 잡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입니다. 본사업은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핵심구역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활동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핵심구역은 소안, 보길, 완도수목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이며, 2018년은 기초조사 및 용역구획 초안 작성과 예비신청서 작성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본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 주민아카데미,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어 신청서가 작성되면 2020년 1월 본신청서 초안을 제출하고, MAB의 수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2022년 6월 영문 작성으로 유네스코 본부에 최종보고서 제출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환경산림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461페이지, 거기 지금 황칠과 동백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식약청을 확인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용역을…… 사람 인체에 유해하느냐, 무해하느냐. 이것을 용역으로 해서 식약청에 계속 풀어야 된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안 풀리면 큰일이 나겠죠, 어떻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꾸준히 건의하고 지지해서요. 지금 이런 내용이…… 전에 뭘니까, (청취불능)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지상부에 있는 모든…… 원목에 대한 풀잎은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 꾸준히 질의하고 건의해서 침출차 및 주주의 원료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군에도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식품안전처에 꾸준히 효능을 설명해서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왜 우리 황칠은 지원사업으로 계속 농민들한테 다 해놓고, 이런 준비 하나 안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래서 음료로는 불가능하나 옷…… 재료로는 약품성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그것은 쓰는 것이 한계가 있지. 개발이 안 되면 황칠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들이. 이것을 해서, 식약청에 제일 먼저 해서 꼭 풀어야 돼요, 제일 먼저.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잘 빼가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관광정책과장 정인호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자원관리, 사무관리비 대중교통 완도관광지 홍보 1,64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도시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옆면을 활용해서 거기에 우리 관광홍보 부분을 래핑해서, 부착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에 시설비 4,000만 원입니다. 안내소 및 관광지 주변 소규모 정비사업 1,000만 원, 고금대교 관광안내소 신설 3,000만 원인데, 소규모 정비 1,000만 원은 군외 달도 안내소를 철거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 고금대교는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고요.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사업단은 도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해설가는 8명, 군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해설가는 42명, 합하여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할 때 4시간 이하일 경우에 5만 원, 4시간 이상일 경우에 6만 원, 그리고 여타 홍보비라든지 강사료 등을 완도군 문화관광해설가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로 7,000만 원, 문화관광해설가 근무복 구입비 750만 원, 내고장자랑 콘테스트 대회참석 보상비 200만 원, 문화관광해설가 신규자교육 강사료 250만 원, 문화관광해설가 정기 보수교육비 650만 원, 문화관광해설가 도 위탁교육비, 이것은 해설가만 해당되겠습니다.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비에 관광상품 홍보광고비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의 버스터미널 내에 또는 KTX 역사 내, 또는 지하철 내에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관광……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벽면이라든지 스크린에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다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집행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완도에 찾아오는 외국인 중에서 전복체험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5,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안, 생일, 보길 등 섬둘레길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개매기체험이라든지 읍면축제와 연계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여행사와 함께 우리 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우리 관광…… 완도로 관광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입니다. 어촌체험프로그램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주로 바다와 관련된 개매기체험을 하고 있는 노화 북고리, 군외 달도, 청산 도락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청산 소달구지, 푸른섬밴드, 고금 청하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개발 및 홍보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인데요. 슬로길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나 탈색된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범바위 주차장 비가림 시설사업은 범바위 쪽에는 투어버스가…… 관광객을 내려주고 간 다음에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광객들을 실으러 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릴 때는 피할 공간이 없다고 관광객하고 관광해설사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느린섬 여행학교 및 작가의집 보수 실시설계비인데 느린섬 여행학교 안전진단 결과를 금년에 했는데 D등급으로,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느린섬여행학교는 청산도가 슬로시티 발상지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아마 많은 주민들에게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또는 소

규모 슬로시티박물관을 조성해서 박물관에…… 슬로시티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개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슬로걷기축제는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봄 걷기 대표 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12월에 내년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걷기, 그러면 대표적인 축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완도토요싱싱콘서트 행사운영비에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요싱싱콘서트가 일부 미흡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단체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하려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오면 최소한 밤에 즐기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하고, 또 싱싱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특히 내년에는 완도에도 싱싱포차를 다시 상품화시켜서 이 싱싱콘서트와 연계된 주말에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영상 홍보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보통 영상마케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지원한다든지 TV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또는 그 다큐멘터리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군의 특산품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 홍보방송 제작, 이것은 KBS와 할 계획이고요, 2억 원입니다. TV 드라마 제작협찬은 전북이라든지 광어, 해조류 등 각종 TV 드라마에 우리 특산품을 노출시켜서 판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황칠다큐멘터리 제작,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

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냐?” 라는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 목포 MBC 가고 싶은 섬 특집방송은 우리 군을 대상으로 특집방송하기로 대략적으로 목포 MBC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KBS 남도스페셜 공동제작도 금년도에 전복을 했는데 내년도는 광어라든지 우리 군에…… 다음 점 유율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 프로그램(어영차 바다야) 제작은 완도를 포함한 남해안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제작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년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북이라든지 광어, 해조류를 우리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그 효능이라든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여러 가지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로걷기축제 모델로 걷기축제 CF 제작 홍보비, 가을빛여행 CF 제작 홍보비, 장보고수산물축제 CF 제작 홍보비 등 CF 제작 홍보비고요. 그다음에 팸투어 및 드라마 유치 제작, 책자 제작, 또 군정 홍보 방송촬영 선박임차비. 이것은 우리가 바다 쪽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영상물을 제작하다 보니 여러 가지 선박들에 필요한 임차비 비용을 지불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V방송 기록보존은 DVD 구입이라든지, 각종 방송 프로그램 촬영소모품인데 이것은 비품이라든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촬영장비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도 함께 계상해 놓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제일 하단 시설비에 고급대교 관문 상징물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문이 군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고급으로 들어오는 두 개 방향이 있습니다. 군외 달도에는 건강의 섬 완도 아치가 세워져서 누구든지 완도를 인식할 수 있는데, 고급 쪽은 관광객이 들어올 때 완도인지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징물 설치공사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5,000만 원 디자

인 실시설계비가 확보되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서 원활하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3월에는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보길상징 조형물 설치입니다. 1억 원인데요. 지금 읍면 향포구마다 표지선 또는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읍면을 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길대교가 개통되었지만 노화를 통해서 보길을 들어가는데 보길면에는 특별한 이정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대표적인 관광지에 맞춰서 설치해줄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화 북고리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진입호안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현재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군유지에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진입도로가 약 300M가 있는데 해안으로 폭이 2.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에 최소한의 관광객들이 드나들기 용이하기 위해서는 한 100M 정도 확장이 필요합니다. 거기 사업을 하는데 우선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전복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복거리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성을 했는데 대부분 도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해서 외관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우선 현재까지는 모범음식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제가 등급제로 전환됩니다.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그러면 최소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범음식점이 등급제로 변환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컨설팅 비용하고 전복음식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전복거리가 외관뿐만 아니라 음식 맛까지도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거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연구용역비고, 연구용역이 끝나면, 일단 이것은 추가적인 별도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으로 일단락되는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지원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온가족이 즐기는 바다의 향, 싱싱완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에 4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문화음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사업의 마지막 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완도 바다의 향 추억의 사진첩 제작 2,000만 원, 전복음식 무료체험은 토요싱싱콘서트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전복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싱 sing 운영은 해수욕장 내에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함께 하는 생일도 밥상은 현재 생일도 밥상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내년 생일 축제…… 읍면 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 생생원정대 뽀투어는 가족단위 동호회나 대도시 주민을 초청해서 뽀투어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완도에 관광을…… 재방문을 유도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숲속치유음악회 운영입니다. 금년에 이것은 야외음악당에서 완도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이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 공연하고 수목원 공연하고 병행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문화관광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시군 역량강화에서요. 우리 싱싱…… 뭐 콘서트를 한다고 했죠? (예)

기존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콘서트 있죠, 5,000만 원.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쿨콘서트가 하나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군특이 들어와 있는데?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요. 같이 묶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횡수를 한 번 더 하든지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거기에다가…… 물론 균특이 들어와 있지만 1억이 넘으니까 거기에다가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명사장에다가 하고, 아니면 금일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분산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아니, 쿨콘서트는 신지명사십리고요. 여기 있는 싱싱 sing 운영, 이 부분은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을 선택해서 한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전복 무료, 이것도 있고 그러는데…… 2017년에도 9,400만 원인가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18년에도 1억 8,800만 원인가 미집행된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균특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잡아야 돼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아닙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640만 원이구먼.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이 부분은 이월됐기 때문에 금년에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17년에는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지만 `18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된 것

은, 이월된 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이게 지금 전복 시식이라든지 생일도 밥상운을 못했는데, 생일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읍면축제를 할 때 여러 가지 관광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때 기회를 못 잡고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이월시켜 버렸는데, 이렇게 물론 균특하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또 다시 여기다가 새로 잡아놓는다는 것이……

그것은 그렇고요. 완도전복거리, 이것 쓴 것…… 우리가 전복거리를 하면서 뭐야, 도비 5억, 군비 5억 해가지고, 10억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다시 용역을 다 마쳐가지고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넣는 것은 안 맞는 말 같고요.

그리 하고…… 잠깐만요, 394페이지요, 고급도 조형물은 관문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보길도, 뭐 1억을 가지고 뭐한다는 말입니까, 조형물 이것. 그러면 각 읍면마다 다 해줘야 된다는 말인데.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지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각 읍면에 가면 입간판이 크게 있어요, 5,000만 원짜리가 들어가 가지고 관광안내도 입간판은.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1억을 가지고 무슨 한 쪽도 커버가 안 되겠구먼, 무슨 조형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이왕 할 것이면 차라리 고급대교처럼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전혀 아닌 사업 같은데.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최소한의 그 여건이 비슷한 데가 고금하고 약산입니다. 약산을 통해서…… 고금을 통해서 약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약산은 우리가 저기…… 누구입니까, 안테호 과장이 면장하고 그전에 면장이 할 때 3,000만 원인가 들어 가지고 흑염소 그것을 했는데, 그 정도로 약산을 대표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보길도에 가서, 읍사무소 앞인가 가서 본다며 크게 있잖아요. 관광안내도인가, 그것 5,000만 원짜리가. 그런데 여기 다리에 1억 원을 들어 가지고 조형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은 한다면 노화, 어디입니까. 산양진입니까. 그것도 우리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도대교, 고금대교, 노화 산양진이라고 하면…… 완도는 다 커버됩니다. 그러면 거기 노화 산양진에 크게…… 거기도 등대 하나, 옛날에 고금도 유자등대가 되어 있듯이 등대 하나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노화 북고리 갈꽃섬 전복 오감학교, 이것은 진입도로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하는 사업인데, 진입도로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오정임 실장이 있을 때 15억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온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진입도로도 없이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현재 진입도로는 있는데요.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지어지면 진입도로……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교행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런 것도 없이 여기다가 했다는 그 말이에요, 미리 그런 것도 안 보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장소를 당초 공모사업에서 변경, 아시다시피 변경된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이것 말썽이 많았어요, 차라리 반납하자. 지금 어디입니까, 노화 해국레미콘, 그쪽 가는데 무슨 (청취불능) 거기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D등급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예측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위원장님, 보길상징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보길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을 가지고는 횡간하기에는 불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반 횡간도 안 될 것 같아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길에 맞는 최소한 현재…… 면사무소 쪽에만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보길면민들은 보길대교 그쪽 당사도에서 넘어오는 그 지점에다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식이 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1억 가지고 광고, 이것 비싼데. 1억을 가지고 과연 뭐를 만들어 낼 것인가,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그 말이에

요. 차라리 최소한 한 3억에서 5억을 잡아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조형물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과장님, 이것 저번에도 말했지만 고급 대교나 조례에 다…… 조형물에 대한 조례는 다 확인했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다 확인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렇게 하고 309페이지, 싱싱콘서트는 해야 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완도에 정식적으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놀이라든지 여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싱싱포차를 내년 우리 관광의 저녁 대표상품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연계시키려면 토요일싱싱콘서트도 같이 개최해서 우리 군 관광객들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하나 만들어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이 위생계에서 여기로 넘어온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잡으려면 식당에서 안 할 때 잡아들여야 하는데. 보통 6시30분, 7시, 여름에 시작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면 끝나버려요. 파장해버려요, 이것이. 이것은 기획사의 놀음이지, 관광객 유치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상품이. 그리고 그 시간에, 야간대 시간에 좀 관광객을 잡아놓고 소비를 시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간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그런 부분은…… 시간, 이런 부분도 제일 원하는 시간대로 조정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리고 우리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예요. 방송영상, 이전에 본예산에도, `18년 본예산에도 해양치유가 들어왔고 드라마 제작도 들어왔고 황칠도 들어왔고, 어영차는, 이것은 뭐 공동이라니까 놔놓고, 수산물도 들어왔고 다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재탕이예요. 그리고 그동안 부기대로 나간 것도 없고, 또 12월까지 KBS하고 MBC하고 해가지고 2부작으로 방영됐다는 것은 다 속된 말로 눈 빠져라 쳐다봐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전임과장 때부터 했던 사업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황칠은, 뭐 해양치유산업 좋습니다. 2억을 가지고는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계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해양치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해양치유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 홍보를 가지고 우리 완도에서 할 것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해양치유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화는 우리 군에 맞는 어떤 산업화를 해나갈 것인가. 외국인의 사례하고 우리 군이 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려야 일반군민들한테도 군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즐길 수 있는 것, 알릴 수 있는 것, 무엇을 지금 우리가 알릴 것이 있고 즐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사장에서 해양치유과에서 하는 것 걷기운동, 지금 그것 하나하고 있는데, 다른 뭐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황칠은 이전에 분명히 작년도 예산에 했던 것을…… 이것은 안 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뭘니까, 수산물특집 다큐멘터리도 앞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이것 생각합시다, 연구합시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영상제작업무 자체가 우리 군이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예산부기를 요청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방송사 입장에 우리가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부기 자체가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중복되거나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과장님처럼 그렇게 다 까놓으면 좋 다니까요. 전임과장님은 KBS하고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1부, 2부로 해가지고 시간이 걸려 가지고 한다고 했 다니까요. 제작, 외주 제작하고 다 맞아가지고 MBC에, KBS에 내가 지방방송에서……

(웃음)

아니다, 중앙방송에서 한다고 했 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

이상 하려고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 허궁희 위원

386쪽이요, 고금대교 관광안내소 신설이라고 해봤는데, 그 부분 꼭 신설해야 될 그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찾습니까, 다른 데에도?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고금대교는 우리 관문이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고 거기 대교휴게소 리모델링사업을 사업을 올해 발주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내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 허궁희 위원

제가 봐서는 관광안내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신설하는데 3,000만 원. 관리하는데 또 얼마 들 것입니까.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가 서너 군데에 가서 봐도…… 요즘은 내비를 찍어서 목적지에 가버리지. 어디 들어서 안 물어보고 가요, 내가 봐서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래서 달도라든지 신지대교휴게소에 있는 부분은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데 또 신설한다는 것이 말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거기는 수요가 있고 그래서, 또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있는 곳이나 관리를 잘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봐서는 지금 있는 곳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신설한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먼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뭐 판을 벌이는 것도 좋습니다 마는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있는 곳도 다 말들이 많고, 뭐 아마도 여기저기 항의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389쪽이요, 느린섬여행학교 이것은 계속 이렇게 보수해야 됩니까, 아까운 돈을 들여서?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느린섬여행학교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슬로시티 청산도라고 그러면 상징적인 시설물 중에 하나가 느린섬여행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을 앞으로 보강해서 더 육성시켜 나갈 것이냐, 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것을 매각하기에도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덩어리가 커서. 매각을, 매입하고

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최소한 운영하는데 지금과 같이 단순히 숙박하고 단체…… 식당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슬로시티 기능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 이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용을 바꿔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준비만 들어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388쪽이요,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 이 부분은 방금 설명하실 때도 뵈니까, 개매기체험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인센티브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까, 이 개매기체험이나 어촌체험프로그램 이런 데를 운영해 보면 ?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군외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게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때는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큰돈이 소비될까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해서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이런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허궁희 위원

예, 하여튼 뭐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해서, 하여튼 이렇게 여러 군데에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서는 꼭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어촌체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또 여기에 서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5,000만

원이나 세워져 있고, 이런 것이 중복성 아닐까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관광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낭비성, 소비성 예산으로 많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이미 추세라든지 타지역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군도 가장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궁희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촌체험프로그램, 방금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지원하는데 1,000만 원씩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이…… 우리 집 바로 옆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데를 보면 갈수록 그물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져요. 이런 부분은 용역을 맡길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지역방송에도 안 나와요, 홍보가.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박인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KBS…… 392쪽이요, KBS 남도스페셜 공동 제작 해가지고 전복, 광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300……

□ 김재홍 위원

392쪽이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이것은 KBS에 남도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군하고 공동 제작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복이라는 단일 품목에 대해서 공동제작해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완도수산물을 알리는…… 전략적으로 한 품목만 정해서, 방송을 제작해서 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인데요. 내년에는 광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품목을 바꿔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이제 품목도 중요하지만, 남도 그러면 전라남도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방송에다가 차라리 이 비용을 쓴다고 하면 중앙방송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홍보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3시52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

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입니다. 다시마꼬리 수거 지원사업은 건다시마의 규격 위판과정에서 잉여물로 발생하는 꼬리를 수매해서 전복먹이로 재활용함으로써 유통질서 확립 및 해양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조류…… 541페이지,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은 해조류 양식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양식사료 등으로 활용하여 해양오염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42페이지입니다. 지역 EM활성액 사용 해조류 액비 공급사업은 해조류부산물을 활용, 관내에 (주)이엠사랑과 민간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친환경액비를 공급, 지역농가에 공급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실적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은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에는 어획물인양기를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 개선여건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지원실적은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은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관 등의 기능을 갖춘 다목적용도의 안전쉼터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지원실적은 2개 소로 완도 망남리와 금일 일정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자체사업은 노화된 부잔교 도교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0개소에 1억 원, 금일 화전리 부잔교 시설공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실적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50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청년고용 지원사업은 39세 이하 도내 수산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어업분야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고수온기 전복양식어장 차광막 설치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고수온기 전복양식어장 차광막 설치 지원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지원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적조피해 대비 어류양식 환경 개선물질 공급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적조 대발생 장기화 및 광역화, 유독화로 인한 적조생물 발생 시 긴급어류양식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18년도 지원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54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은 바닷가 환경정화 및 소공원, 소공원을 저희들이 잔디라든지 꽃밭 조성, 파고라 벤치시설 등입니다. 소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지원실적은 보길 백도어촌계 데크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19년도 추진계획은 소안 가흥리 해역에 데크 설치 및 화단조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바다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사업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실현을 위한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진실적은 보길 백도어촌계 데크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19년도 추진계획은 소안 가흥리 해역에 데크 설치 및 화단 조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바닷가지킴이 365기동대 운영사업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실현을 위한 운영비로 1억 원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 바닷가지킴이 운영은 주요 해변관광지, 해양쓰레기상습 투기지역 등에 정화감시인력 배치로 해안가 상시 청소체계 구축 및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추진실적은 6개월간 읍면…… 2명씩 해서 24명을 고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연안항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읍면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 위탁사업비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년도 처리실적은 1,000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양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1쪽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500……

□ 김양훈 위원

541쪽이요, 다시마꼬리 수거 지원사업.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 제일 밑에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거기에 해조류부산물 지원, 이것 5,000만 원. 이 명단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다시마꼬리 수거사업은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의 대략 2M 정도 되는데, 규격으로 해서 한 2M 60 정도로 하면 꼬리가 한 40cm 정도 남거든요. 이것을 수거하는 사업이 다시마꼬리 수거 지원사업이고, 방금 나머지 2개는 같은 맥락입니다.

□ 김양훈 위원

같은 해조류라고 그러면 다시마도 해조류로 들어가죠? (예)

제가 봐서는 다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합치니까 5억이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5억은 아니고 이게 2억 5,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인데.

□ 김양훈 위원

다시마하고 해조류하고 밑에 다음부터가…… 균특이 있어서 그렇구나. 다 같은 맥락인데 분리된 이유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마꼬리 수거사업은 다시마 규격제품 생산에서 발생되는 꼬리 수거사업이고요. 다음에 해조류부산물물은 주로 미역귀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미역줄기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매를 하니까 꼬리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 수매해서 보관을 해놨다가 여름에 전복먹이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다시마꼬리 사업도 밑에 전부 다 수협으로 들어가죠? (예)

위탁기관이 다 수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균특이나 군비나 지금 한다고 그러면 5억이 가는 예산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전부 다 해조류 쪽…… 뭐 다시마나 해조류니까. 이것 관리 철저히 됩니

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수매하고 할 적에 현장에 나가서 관리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해조류부산물, 이런 것…… 다시마, 이것은 그때 전복먹이로 준다고 했으니까. 해조류부산물물은 어디에다가 재활용하는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조류부산물도 전부 줄기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유인물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그것을 사와서, 염장해서, 삶아서, 염장해서 냉동보관을 했다가 여름철에 먹이가 없을 때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먹이로만 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분리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해조류부산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친환경본드식 풀, 풀을 만들어서 벽지를 바르는데. 장성 같은 데를 가니까 가공식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직접적으로 그런 데에까지 연관시켜서 예산을 더 편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수협에만 위탁해서 줘버리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보면 그것도 분리되고 그래서…… 이게 낭비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내년도에 한번 자체점검을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 위에 있는

재료비는 삭감조서에 나왔으니까 거기는 애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요,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것이 이전에 계속 이월되는데 집행이 잘되어 갑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집행이 어렵습니다.

□ 김양훈 위원

어렵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만 올려 놓고, 집행이 어려운데, 계속 이월만 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보면 도내 수산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을 위주로 해서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이렇게, 월…… 집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대상지를 발굴할 있는,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봐서는 대상자가 고등학생, 수산고…… 수산고등학교…… 그 수산계 나온 대학생들인데 부모집이 아니고 일반학생들이 졸업해 가지고 양식장에 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봤자 뭐 1~2명. 그러니까 6억 3,000이 어떻게 보면 도비, 군비 다 해서 6억 3,000만 원이니까 3억 1,500…… 이게 계속 제가 봐서는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은 내년까지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도와고 조율해서 사업비를 줄이든지, 그런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대책을 잘 구해서 다음에 잘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558쪽?

□ 김양훈 위원

554쪽, 아까 시설비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 1억이 있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보면…… 저기가 다 데크시설 쪽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데크시설도 있고 꽃밭 조성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해안가나 이런 데를 보면 어민들이 가면서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리는 이런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버리도록, 그런 데에다가 꽃밭도 조성하고 잔디도 심고 또 쉼터도 만들고 이런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게 어느 쪽 지역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올해 지은?

□ 김양훈 위원

예.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올해는 보길도 백도 쪽에 지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보길 백도 쪽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내년에는 소안도 가는 (청취불능) 쪽에…… 거기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주 버리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 김양훈 위원

지금 보니까 바닷가 만들지면 바닷가 쪽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데에서 잔디나 흙시…… 그 쪽은 특히나 바람도 많이 불고 연기가 많이 올라오는 데인데 그런 것이 형성이 될까요, 조성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잔디 같은 데는 바닷가 쪽에 연기가 있어서 다 이렇게 고사되어 버리고, 꽃들도 고사되어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거의 바닷가 쪽에 저희가 하는 것은 잔디는 거의 심지 않고요, 데크하고 파고라 공원, 쉼터,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지역에.

□ 김양훈 위원

그 데크 설치도 연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아니면 또 보수해야 될 것입니다. 바닷가 쪽은 전부 다 데크라면 밑이 철재고 위가 나무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데크 설치가 아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주로 그쪽에 있는 지역 어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로 신청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써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5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이것은 어떻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선포할 적에 365기동대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완도수산업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주로 관광지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데에 젊은 경영인들로 하여금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바닷가지킴이 365하고 밑에 바닷가지킴이 운영하고는 명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이것도 다릅니다.

□ 김양훈 위원

어떤 식으로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바닷가지킴이 운영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읍면에 1명 이렇게 배정해서 1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12개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운영을…… 6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2명 정도 이렇게 배정해서 상시가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모니터링도 하고, (청취불능) 수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밑에 바닷가지킴이요? (예)

그러면 거기에 했던 일보나 일지나 다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 김양훈 위원

일보, 일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365기동대 이전에 다 미집행됐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다 집행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다 집행했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 이제 수거해서…… 위탁처리가 좀 부족해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위탁처리를 해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 집행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전액 집행 다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김양훈 위원님이 세심하게 짚었는데요. 차광막, 552페이지. 차광막, 올해 예산이 남았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차광막 설치 지원사업은…… 6,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 우성자 위원

6,000만 원이 남았는데 똑같이 예산을 세웁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에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차광막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읍면에 대해서 은박지나 이런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지침을…… 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차광막만, 돈이 남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차광막을 사서 줬어도 창고에 많이 쌓여있다는 말씀도 들으셨죠? (예)

그분들이 그것을 하면 좋은지는 알면서도 귀찮아하고 그래서 안 쓰고 창고에다가 방치해 놓고, 또 돈도 더 못쓰고 남아 버렸는데, 똑같은 예산을 세우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차광막 지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노화, 고금, 금당, 보길, 생일은 지원을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차광막을 설치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제외해서 좀 일부 사업이 남았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침에 얘기했듯이 차광막만이 아니고 필요로, 어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은박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경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그러시면 처음에 올릴 때부터 은박지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차광막을 그대로 올려놓고, 만약에 또 그 사람들이 은박지로 안 써져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예산을 남길 것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차광막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명칭은 우선 차광막으로 해놓고요. 우리가 지침을 만들 때 차광막이나 은박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한다. 부기를 할 때 은박지로 써놓을 것인데 저희들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한번 올리면…… 그

예산을 즐기게 마냥 똑같이, 똑같이 올리는 것. 저희들이 그것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 우성자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어가들이 갓다가 잘 썰으면 몇 억을 세웠든지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돈도 안 쓰고, 또 차광막도 효율적으로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 예산을 쓰시고, 또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내년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잘하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죄송합니다.

□ 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아까 김양훈 위원님께서 했었는데 내가 설명이 부족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이요. 아까 이것을 바다에 버릴 것을 가져와서, 삶아서 공공…… 우리 수협에 위탁을 준다고 했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다시마꼬리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 최정욱 위원

그것은 다시마꼬리고, 부산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 부산물?

□ 최정욱 위원

예, 해조류부산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미역귀를 생산할 적에 줄기가 이렇게…… 미역귀를 생산하면서 잎채를 자르면 미역줄기가 많이 남거든요. 미역줄기를 바다에 전부다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연안에 꼭 가지고 와가지고 미역귀만 하고…… 줄기만 이렇게 바다에 버려 버리면…… 주로 4월이나 5월에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연안에 버려 버리면 썩기도 하고 막 벌레도 쫓고 그래서 이것을 수매해서 보관해 놔다가 여름철 전복먹이로 활용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까 뭐 삶아서 염장해 놓는다면서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삶아서…… 줄기를, 미역줄기를 바로 이렇게 저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염장해 가지고 보관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 올해도 했었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실제 삶는 것을 봤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거기에 별도 자료…… 저희가 배부해 드린……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삶는 것을 봤냐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미역공장에서 이것을 삶을 수가 없는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미역줄기만 별도로 삶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 공장에서. 지금 미역귀에서 떼어 내면서 줄기가 이렇게 달린 것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미역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를 자르고 살려놔요, 미역귀를 썰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떼어낸 줄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로 미역귀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해서 어느 미역공장에서 삶더라는 얘기인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이제 수협에서 수매를 하죠. 그 부분을 버리니까. 그것은 가져오면……

□ 최정욱 위원

수협에는 삶는 시설이 없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러니까 미역공장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 미역공장에 위탁하는 것 알아요? 나는 미역을 해봤지만 그것을 따로 삶는 공장은 처음 들어봤는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제가 현장은 안 봤는데 얘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 최정욱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삶아놓은 염장줄기를 아마 보관할 것이예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별도가 아니고 100% 그럴 거라고. 미역공장에서 떨어져 나온 것…… 요즘은 미역을 그냥 쳐버려요, 다. 그러면 줄기고 뭐고 이만큼씩 날려있는 것을 아마 그 공장에서 그 것을 사서 넣든가 그럴 거예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 최정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안 맞다고. 왜냐하면 공장에 들어가서 삶아서 나온 것은, 어차피 그것은 전복먹이로 쓰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다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은 거의 그럴 것이고, 이것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100% 그럴 거예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50쪽,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인데 도비가 포함되니까 예산을 올린 것이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게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정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고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관내 수산고등학교, 수산대학교에 나온 사람한테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 또 관내에 일반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인해 가지고…… 완도군에서 다 수산고등학교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도하고 얘기해 봐가지고 일반…… 수산고등학교만 나온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보다 또 일반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는 더 좋은 인력들과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건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모든 자녀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군특하고 군비하고 좋은데, 또 다시 여기에다가 군비 5,000만 원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또 금년 같은 경우도 태풍이 2번 와서 먹이가 부족해서 오후…… 여름철 하반기 때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양환경도 보존하고 그런 것을 수거해서 가을철에 전복양식어가에 먹이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신청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업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우리가 다시마 수거해 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복을 키우는 사람들이 먹이가 없으면 말밥이라고 해가지고 미역공장에서 사다가 먹여요. 수협에서 사다가 먹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리가 2억 5,000 그러면 3억을 주는데 들어오는 돈은 5,7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나머지는 차액으로…… 그러니까 가공료라든지, 뭐 위탁료나 이런 부분, 운영료라든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다시마꼬리 수거사업은 금년에 우리가 1억 1,800이 들어왔는데 2억 들여 가지고…… 이것은 왜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관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그러면 판매단가가 120원이니깐 다 나오는데 뭘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단가가 130원이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가공을 해요, 이것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가공, 아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미역공장에서 싹 들어가는 것이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러니까 미역공장에 위탁…… 어차피 수협에서는 미역공장이 없으니까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저기 과장님, 군비 5,000만 원은 빠져도 되죠? 뭐 들어간 것은 놔놓더라도, 군특하고 뭐 매칭사업비는 놔놓더라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추가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왜 그러냐면 좋은데…… 완도금일수협에다가 주는 것도 좋은데. 아니, 완도금일수협에다가 언제 다시마를 다 줄 것입니까. 그 사람들 작년도에 수산경영과에서 한…… 어민들 미끼사업을 할 때 자부담 좀 넣으라고 하니까 그것 돈이 안 된다고 올려놓으니까 자부담도 빼버렸더구먼, 그 양반들. 철저히 차고 들어가야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어차피 수협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수협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아는데요. 언제까지 수협을 위한 사업…… 그 사람들, 자기들한테 조금 이익이 되는 것은 다 가져가고 조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물어볼게요. 다 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빨리빨리 안 되는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민자본으로 해가지고 실제 어업인들이 직접 계약하도록 하고…… 늦게 발주가 되는데 2019년 예산을 시설비로 다시 변경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올해 미집행이 얼마입니까, 지금?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계속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내가 서류를 받을 때는 7억 8,600만 원인가 미집행이 됐었는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요. 지금 11월 중에는 거의 준공 처리……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낙도어린이집 안전쉼터 조성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낙도 쉼터는, 망남리 것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됐고요. 일정리 부분은 좀 (청취불능) 발생되어서 그 부분은 교체하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이것도 그렇게 가고.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는 당초 해수부 시책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놨는데, 해수부에서 이것 편성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수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해놓은 것인데 언제까지 그…… 바닷가에 데크를 깔면, 데크를 깔면 또 나중에 복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

을 잘해 가지고 친환경부자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수거할 때도 정확하게 안 되면 벌금이라도 물려가지고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이것은 애당초 해수부하고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해수부에서 없어서 버렸으면 우리도 이것을 안 해야죠, 이 사업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한번…… 해수부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수부에서 작년도에도 있어 가지고 없어서 버렸는데 이제…… 이것 뭐 환경산림과하고 산업이 중복이 돼요. 환경산림과하고 이 산업이, 이 사업이…… 과장님, 환경산림과하고 사업이 중복됩니다.

그리고 바다지킴이 1억 2,000 중에서 저기…… 한 1억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바다지킴이 1억 2,000이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바다지킴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 그것 다 집행 됐습니다. 집행하게끔 지금 집행이…… 왜 그러냐면 이게 도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지금 12월 18일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도에서 추경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집행……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이것 이월한다, 이 말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아니요. 바로 집행합니다. 이월하지 않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언제 그러면 사업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말입니까?

(「방금 전에……」 하는 위원 있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사업비가 도에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늦게 발주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지금 이월한다는 이 말이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 방금 제가 할 때…… 전부 집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전부 집행한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늦게 발주해 가지고 늦어졌다는…… 죄송합니다.

(□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집행을 다 했다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남아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금일 동송항하고 충도 어민 소득복지센터. 이것 2019년도에 부지를 우리 순군비로 할 것입니까, 두 군데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몇 페이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금일 동송항 대합실하고 충도 어민소득복지센터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이것 순군비사업 아닙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부지를 우리 순군비로 할 거냐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 부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왜 부지를 우리 순군비로 다 합니까, 그것 없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게 기재부 땅인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쪽에서, 금일 동송리하고 충도에 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까지 우리가 사가지고 해 줘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금일 동송항, 558페이지. 국유지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어차피 우리가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고향하고 같이, 지역연계 협력사업이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게 하고 충도 같은 경우는 일부 땅은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도 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 그러면 해가지고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계속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관리비를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건물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 군 건물이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저쪽 고향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지역연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 때도 그 지역에, 그 마을 어촌계에서 부지가 있다든가. 그랬으면 그쪽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무슨 부지까지 우리가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냐는 이 말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지면 이것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위탁계약을 하니까 일부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런 수수료, 그런 것은 뇌놓고요. 우리가 애당초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정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우리 의회에서 무슨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기타, 이것은…… 부지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뭐 해나갔는데. 자꾸 이런 사업들로 나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바다지킴이 그러면 추경에 내려와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좀 늦게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이것 한 읍면에 2명씩 해가지고

한다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 이 석상에서 진짜 말을 안 하려고 합니까는 그냥 껌 값이 아닙니다, 1억 2,000이. (예, 알겠습니다)

읍면, 이것 잘 확인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 김영오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김영오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해외연수출장 관계로 각 팀장별로 보고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 1,000만 원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부터 11월 말일까지 12개 읍면 지방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시군 내용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축소에 관한 건, 지방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위반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평가하여 최우수시상금 1개 읍면에 300만 원, 우수시상금 2개 읍면에 200만 원씩 400만 원, 장려시상금 3개 읍면에 100만 원씩 300만 원을 12월 종무식행사 시 시상하여 읍면 간 섬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세정 발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김영오 팀장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서무계장님이죠, 서무계장님이 다 하십시오. 그것 준비 안 됐습니까?

□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 김영오

예, 팀장별, 팀별로 되어 가지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하는 위원 있음)

2건입니다. 지방세 세수 목표달성 포상금, 세입 증대 포상금 2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전문위원 추관호

342쪽에 포상금이 있고요, 344쪽에 또……

(「포상금이 또 있어서……」 하는 위원 있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 같이 설명해 드려야……

(「344쪽 제일 위에 보면 포상금이 하나 있구면,」 하는 위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 김영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증대 우수읍면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완징읍면에 대한 포상금 3,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도에서 내려온 교부세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내년 익년도 2월 말에 읍면에 대해서 시상금을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군에서는 터치를 안 하고 전액읍면에 시상금으로 배부하는 그런 포상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질의하십시오.

□ 김양훈 위원

342쪽 포상금하고, 344쪽 밑에 포상금 맨 위에 말고요. 세입증대 우수읍면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이것 중복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 김영오

예, 중복이 아닙니다. 1,000만 원, 342쪽 1,000만 원은 지방세정팀으로 해가지고요. 종무식 때 지방세정에 대한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고, 344쪽 그 상단에 3,000만 원, 그것은 도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우수읍면 6개 읍면에 대한 시상금을 읍면에 청구하는…… 포상금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포상을 앞에서는…… 최우수, 어떻게 보면 1, 2, 3등을 가르는 것이고요. 뒤에는, 안 가는 이유는 뒤에요. 이것도 뭐 도에서…… 도비가 아니고 군비가 아닙니까?

(□ 징수팀장 이영수 집행부 좌석에서 - 징수계장 이영수입니다. 세입증대 우수읍면 포상금은 군에서 읍면을 평가하듯이 도에서도 우리 시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도 상을 받게 되면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 올해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빨리 오면 추경 때 세워가지고 쓸 수 있는데 도에서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 31일에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본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그것을 내년에 군비랑 포함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세금이…… 굉장히 걷기가 어렵습니다. 완도 같은 경우는 성격이 12개 읍면 중에서도 섬지역이 있다 보니까, 세금 같은 경우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읍면 통합적으로…… 받아지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추진을 못하고, 또 이것을 전에는 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 옷도 사주고 이런 것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12개 읍면에 어떻게 보면 차등을 주지만 균등하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 실과에서 포상금을 세워가지고 12개 읍면한테 거의 균일하게…… 1, 2, 3등은 좀 더 주고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저희들이 좀 못해서 자체적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올해는 3,000만 원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42쪽도 보면 6개 읍면이구면, 뒤에 보니까 6개 읍면이거든요. 그러면 12개 읍면 다……

(□ 징수팀장 이영수 집행부 좌석에서 -

아닙니다. 앞에 342쪽 우수읍면 시상금은 종무식 때 1등부터 6등 읍면만 주고, 뒤에는 12개 읍면 전체에……)

그러면 2,000만 원은 도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가져온 돈이고요. 1,000만 원은 군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비로 3,000만 원이 나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000만 원만 더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징수팀장 이영수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 읍면으로 주지만 예산 자체를 1,000만 원 줄였기 때문에 잘한 데하고 못한 데하고 좀 차등을 줘가지고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추관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 전문위원 추관호

이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똑같은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인데, 이 평가항목이 똑같은 분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팀장도 말씀했는데 지금까지는 4,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로 6개 읍면에 줬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정업무에 다들 고생하시니까 나머지 6개 읍면도 좀 주기 위해서 이 분야를 쪼개서 편성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 징수팀장 이영수 집행부 좌석에서 - 그전에도 우수읍면은 표창을 해가지고 시상한 것이고요. 밑에 읍면포상금은 12개 읍면 전체로 줬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위원장님, 제가 나머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충설명하고 같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복지행정국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출장관계로 제가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포상금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앞에 지방세정 우수읍면시상금 1,000만 원은 말 그대로 일선에서 읍면직원이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심도 유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것, 세입증대 우수읍면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완징읍면 포상금 관계는 팀장 설명대로 도에서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시군에 우수시군을 골라서 이렇게 도비로 내려 보내줍니다.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00만 원 군비를플러스해서요, 일선 시군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직원들, 세금 징수에, 또 체납세 징수에 고생하시는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12개 읍면 골고루 포상금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물론 시상금, 포상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무…… 세정파트를 보면 실제로 우리 예산서가 나오기까지는, 이 예산이 성립되기까지는 세금이 걷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에서 세무, 또 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참작하셔서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다음 34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인데요, 본청 앞 광장 조성 설계용역

비 2,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군청 앞에 일부 국유재산을 우리 국유재산으로 매입하고 그 공간 전체를 우리 군유지와 합쳐 가지고 지금 본청 앞 광장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가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그 앞에 차를 많이 세웁니다마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하고…… 주차타워가 12월 말, 1월 말…… 12월 말, 이 달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군청 앞 광장을 보다 더 아름답고 산뜻하게 가꿔서 군민들의 어떤…… 조그마한 쉼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환경정비를 해보자, 이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가 완료되면 공원화사업으로 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광장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비로 2,000만 원을 집어넣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일읍사무소 홍보전광판 설치공사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도 보시면 벽면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군정시책이라든가 국도정시책, 또 군민들에게 홍보할 사항들은 전광판으로 자막을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전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군청 벽면 에다가 플래카드를 막 5장, 6장, 10장까지도 걸쳐놓고 바람에 팔랑거리고, 주민들한테 바람이 불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광판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금일읍장…… 금일읍에서 금일읍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금일읍사무소가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고 그래서 매일 플래카드를 걸고, 현수막을 걸고 홍보하는 것보다 이런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금일읍에 우선 전광판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347쪽, 중간 하단부에 보길면 방송시설 교체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보길면복지회관 방송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

서…… 거기 행사를 저도 지난번에 다녀왔 습니다마는 앰프시설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개최해 줘야겠구 나. 모든 행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앰프 시설이 안 좋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 길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사무소도 그렇고 이런 음향이나 다른 시설물이 노후되고 불량 인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세무회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일읍사무소 전광판 설치공사를 하게 되 면 나중에 12개 읍면도 점차적으로 다 건의 가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 이 과연 금일읍…… 그래서 읍면사무소 위 치를 제가 가만히…… 12개 읍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읍면사무소들이 (청취불능) 거리에 있고 중앙에 있기는 한데, 소재지 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 면 소안면사무소나, 저쪽에 어디입니까. 신 지면사무소나 이런 데를 보면 큰 도로변이 아니고 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 에 전광판을 설치하면 큰 효과가 있겠냐 싶 어서요. 이것도 읍면별로 선별해서 효과가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고금면사무소 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아닙 니다.

□ 김양훈 위원

예,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쭙본 것입니다. 전체 다 해준다고 하면 의미 없는 사업이 아

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봤고요.

347쪽예요, 방송장비 교체라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 용역을 넣었어요, 용역을 넣어놨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복지회관 쪽 이야기 를 안하고 본관 쪽을 이야기했다는 말입니 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이것은 복지회관입니다.

□ 김양훈 위원

본관 쪽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1~2년이나 3~4년에 완공되면 의미가 있겠냐. 이중 돈이 아니냐. 이 예산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했 던 것인데. 그 복지회관은 이렇게 신축공사 하게 되면 복지회관은 놔두고 신축은 안 하 는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복지회관은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면사무 소는 건물 자체가 오래 돼서 거기를 신축하 지는 이야기입니다.

□ 김양훈 위원

거기 금액은 놔두고, 복지회관은 놔두고 그냥 본관만 신축한다는 얘기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건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복 지회관은 별도로 있고 면사무소 바로 옆에 복지회관이 있죠.

□ 김양훈 위원

이전에 설명하실 때 이렇게 잘해 주시면 될 말이 없을 텐데. 이것 다 본청에서 내준 돈이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면사무소 건물이 하루아침에, 한두 달만에

지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보길면사무소의 음향장치가 불량하다고 그러면 일시적이라도 수리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복지회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14시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2,0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미역원초를 직접 자숙하는 제일산업, 건강한 바다, 세영산업, (청취불능)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물류비를 업체별로 5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물류비 지원배정은 미역원초를 농공단지 부두에서 하역하여 운반하여야 하나, 현재 수협 물양장에서 미역을 하역한 후,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농공단지 공장까지 운반하고 있어서 장비 임차비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

업 연구용역 2,200만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시장 현황 분석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자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완도 5일시장에 대하여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분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특성화 첫걸음 육성분야 공모사업비는 1년간 3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바다환경 가꾸기 현장 활동 1,200만 원입니다. 완도군 새마을회에서 12개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바다정화활동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은 마대, 장화, 국자, 빗자리, 집기 등 청소물품 구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과 별개로 단체에서 활동하는 데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오히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 활동사업입니다.

다음은 365쪽, 사회적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6,000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되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국도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마을기업은 인건비지원은 없고 사업개발비만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에서 선정 제외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 사업개발비를 군비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사업개발비는 홈페이지 제작, 영양성분 분석, 쇼핑백 및 포장박스 제작, 상표 출원 등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4,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10개 버스업체가 57개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유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수업체 경영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운수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용역을 통해 정확한 손실보상금을 촬영하기 위해 벽지 비수익 노선과 나머지 노선에 대한 용역을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버

스은행 재정지원 1,000만 원입니다. 당초 여객선터미널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청산 및 제주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군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으로 군에서 운행명령을 통하여 손실보상금 1,000만 원을 2015년도부터 완도교통에 지급하여 운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청산슬로걷기축제 순환버스 증차 운행 3,500만 원입니다. 청산은 평소 2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나 슬로걷기축제 기간에는 많은 관광객이 청산을 찾고 있어 2대로는 감당할 수 없어 6대를 증차하여 총 8대 운행을 통해 관광객들의 수요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차량임차 등에 대한 보상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외부 완도관광 홍보광고료 지급 4,140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133대의 외부에 완도군 관광홍보물을 부착하여 관광지 및 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대당 월 3만 원씩 총 4,140만 원을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택시에 한해서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웃음택시 지원 1,200만 원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택시종사자들이 각종 행사 시 교통정리와 관광안내를 실시하도록 웃음택시를 조직해서 매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축제, 가을빛여행 등 각종 축제에 종사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물품 구입과 종사자 식대 등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한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택시 외부 완도관광 홍보스티커 제작 828만 원입니다. 택시 외부광고 홍보를 위한 스티커는 한 대당 60만 원이 소요되어 군에서 30만 원, 자부담 30만 원으로 택시차량 신차구입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경제교통과장의 보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361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5일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예)

5일시장 활성화에…… 우리 시장할 때 용역, 그런 것 다 안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이 상인대학 운영에 관한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했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상인대학……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상인대학…… 입점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인대학 운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연구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했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활성화 공모사업, 이것을 용역으로 해서 어디 사업을 신청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일시장, 왜 이런 데에…… 여기 중앙시장 같은 데에는 관심을 전혀 안 가지나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중앙시장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요. 상인들이 상인회 구성 자체도…… 구성은 되어 있지만 상인회가 결속력이 없습니다. 서로 편이 갈라져 가지고 그 구역별로 대표가 따로 따로 정해져 있어서 도저히 하나의 단체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시장은.

□ 최정욱 위원

여기 5일시장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전액 국비입니까, 우리 국비도 들어갑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국비 50%, 군비 50%.

□ 최정욱 위원

이게 지금 계속…… 그러니까 계속 5일시장이 제대로 안 되면 되게 하려고 아주 군에서 엄청 노력할 것 아닙니까. 벌써부터 주민들의 생각은 말하는 것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일단은 현장을 사고 해놔기 때문에 활성화를 좀 해서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인데, 했는데, 지금도 벌써 자신이 없다는 얘기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최정욱 위원

주민들이 아주 이것 난리야. 괜히 그런 것을 해서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별 뭐하지, 군에서 하지 않겠냐고…… 벌써 나도 이게 보이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공모사업은 추진한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국비를 받아서 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당겨서 받아야 되겠다.

□ 최정욱 위원

어차피 군비가 또 계속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362쪽이요. 바다환경 가꾸기 현장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전화를 2통 받았는데 나하고 뭐…… 반대를 하는 등, 그런 전화를 받고 내가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돈 1,000만 원, 이것을 우리가 뭐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얘기도 별로 안 해봤는데 벌써 그런 정보가 새어 나가지고 전화가 2통이나 왔어요, 사회단체에서. 정말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름까지 거명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정보를 금방 쥐가지고 저녁에 전화가 왔어. 또 아까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까지 전화가 왔어요. 무서워서 질의라도 하겠어요, 못하지.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369페이지, 여객터미널 버스 운행, 이것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나 못 봐서 그러는데 하루에 몇 번씩이나 여객터미널을 다닙니까, 버스가? 액수는 얼마 안 돼, 1,000만 원인데, 제가 여객터미널 쪽에 바람을 쐬러 자주 가고 그러는데, 버스가 거기를 순회하는 것을 극히 못 봤는데, 여기 들립니까, 거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들립니다. 장보고회센터 그 사장님이 여객선터미널까지는 버스가 오는데 좀 더 증액해서요, 장보고회센터까지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 담당팀장님도 모르니까, 운행횟수?

그것은 됐고요. 택시 외부 관광홍보요. 이것도 좋지만, 버스라든가…… 옛날에 용달차들이 전국을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던데. 어떻습니까, 확대도…… 꼭 버스…… 택시만 아니고 용달차들로 하고 금호고속이나 활어차, 이런 데에……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또 밑에 웃음택시 지원이 있는데. 완도에 모범택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혀 뭐가 안 들어왔네요. 그쪽도 장날마다 보면 모범택시 쪽에서 시가지 교통정리를 하고, 행사 때나 어떨 때나 보면 모범택시 쪽에서 하던데. 그런 데는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없으나 경제교통과에서 완도 소상공인이나 그런 것 전부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이나 경제교통과에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뭐 지원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나는 참 아쉽다. 좀 선도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군비라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자립기반을 만들어주고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소상공인 부분은 연초에 조례를, 지원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모범운전자 관련은 저희가 하반기 때 지원조례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지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365쪽에 사회적기업, 이것은 어디 기업이 선정이 안 되고…… 선정을 해서 기업당 1,500만 원씩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의 지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게 이제…… 사회적기업은 현재 3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 마을기업은 8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발비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그 기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쇼핑백이나 포장박스나 이런 것을 제작하고, 상표 출연,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를 시켜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우리가 수산경영과에서 어업인들 이자감면 있는 것 알죠? (예)

가까운 인근의 해남은 소상공인들에게 3.5% 이자지원을 해주던데. 우리 군 같은 데에서는 전혀 그냥…… 경제교통과에서, 도에서 하는…… 거기다가 출연금입니까, 그것만 내고 나서는 전혀 뭐가 없거든요. 예산계 하고도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보충설명이 필요한 4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농어촌 가로등 신설공사 추진입니다. 가로등 현황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비교했을 때, 2018년 현재 1만 838동의 가로등이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 대비 866동이 증설된 상태이고요, 이중에서 6,842개가 LED등으로 교체되어

있고, 3,996대는 일반나트륨등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17년도부터 신설 및 고장신고 접수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농어촌 및 도시지역 가로등 예산편성 주체를 안전건설과와 지역개발과에서 읍면으로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가로등 신설 시 한국전력공사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 가로등 표착 설치 누락 우려 및 무분별한 가로등 신설로 공공요금 증가가 배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가로등 보수는 현행대로 읍면에서 추진하고 신설은 안전건설과에서 직접 시행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보수 및 신설에 대해서는 흐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농업 전 지역과 도시지역, 안전건설과와 지역개발과 소관을 합쳐서 2억 4,000만 원이…… 2017년도부터 도시 농어촌 가로등 예산편성의 주체변경으로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읍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을당 100만 원, 도시지역 해당마을은 400만 원씩 해서 2017년도에는 3억 3,500, 2018년도에는 4억 3,100만 원입니다. 2019년 신설은 안전건설과, 보수는 해당 읍면으로 해서 전체 가로등 1만 838등에 대한 2만 5,000원씩 계상해서 2억 7,090만 원을 보수비로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신설로 2억을 해서 4억 7,090만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계속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두 번째, 완도군 보안등 개선사업 민간투자 상환금 지급관련입니다. 상환금액은 7억 4,656만 1,000원입니다. 사업량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안등 6,832개, 기존 나트륨등에서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7억 3,000만 원이었고 시공방식은 BTL 방식으로 했습니다. 시공사는 엘지유플러스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한국광

산업진흥회에 업무 위·수탁을 체결해서 했고요.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7년도 3월 30일에 투자협약을 했고, '17년 3월 3일에 완도군 LED 교체 민간투자 자본사업에 착수해서 2017년 10월 25일에 LED등 교체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실시협약 내용입니다. 계약금액은 37억 3,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19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61개월인데, 이것은 등기부에 한하고 있습니다. 월 상환금액은 6,221만 3,350원인데, 이것은 부과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열두달을 곱하게 되면 7억 3,651만 6,000원이 산출됩니다. 상환기간은 60개월로 통합관리시스템 등번호 부착, 단방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금 지급내역입니다. 지급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0개월로, 2017년 11월부터 매월 6,221만 3,35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60회 중 14회를 지급하고 잔여 46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221만 3,350원 곱하기 60개월을 하게 되면 3억 7,328만 1,000원의 예산이 산출되고요. 현재까지 상환액은 8억 7,098만 6,900원, 향후 상환액은 28억 6,181만 4,100원입니다. 기타 의회의 승인은 지역개발과에서 2015년 11월 18일에 받았고, 또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가로등 업무가 지역개발과와 안전건설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2019년 1월부터 안전건설과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완도대교 경관등 보수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요구 현황은 2019년도 본예산에 1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완도대교 조명시설 현황입니다. 조명시설은 등이 360개인데 가로등이 32개, 경관조명등이 328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명시설 평면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입니다. 경관조명 부점등 파손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측면 투광등이 파손되어 있고 또 와이어경관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명시설 노후로 전면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데 2012년 11월,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으로부터 시설비 인계 후 6년 경과로 조명시설이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2018년 12월 현재 완도대교 경관조명에 일부 불이 들어오지 않고 파손되어 일제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설물 점검 및 실시설계를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시설 및 보수를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완도의 관문인 경관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입니다. 완도군 CCTV 영상처리장치, 일명 스토리즘은 기억장치의 하나로 CCTV 관제에 있어 필수장치이며, 각종 사건, 사고의 재해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영상을 저장하는 필수장치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CCTV 카메라는 눈에 해당되고 영상저장장치는 뇌에 해당되며 휴대폰으로 비유하자면 연락처, 사진첩, 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는 상태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792대의 CCTV 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의 기억용량은 최대 30일간 저장할 수 있는데, 총 기억용량이 580테라바이트이며 전체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약 2,600테라바이트의 공간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됩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도부터 읍면경찰서, 교육청, 해경 등 해마다 증가되는 CCTV 수요 외에도 마을방송단지 39개소, 상수도 CCTV 8개소, 교육청 CCTV 58대 등을 통합 운영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스토리지 용량이 더욱 증가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CCTV 현황입니다. 저장분배 5식, 스토리지 20, 모니터 12대가 있으며 현재 CCTV 관제 792대입니다. 필요한 스토리지 용량산정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저장용량은 580테라바이트이며, 필요용량은 3,168테라바이트입니다. 부족용량이 2,588테라바이트로 반드시 저장장치 증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스템 처리용량입니다. 총 스토리지 저장용량은 580테라바이트이고 1일 처리용량은 15테라바이트, 30일 처리용량은 450테라바이트로 CCTV 관제에 필요한 스토리

지 용량 3,168테라바이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스토리지 4TB당 200만 원씩 소요되는데, 전체를 증설할 경우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 2019년도에 1억 2,000, 2020년도에 1억, '21년도에 1억해서..... 향후 203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장용량 부족으로 전체 CCTV 관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관련 자료 확보 등 애로가 많습니다. 2019년 영상압축서버를 통한 획기적인 저장공간의 문제 보완 및 영상 저장기간 3개월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안전건설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528쪽예요, 이게 한 달 정도..... 한 30일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이것을 한 석 달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투자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30년까지 계속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예산을 조금씩 더 늘려서 빨리 끝내는 것이 어때요, 이왕에 할 것 이면 그래도..... 저장능력이 빨리 되어야 경찰서나 범죄,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사고가 터졌을 때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당초 본예산에다가 계획대로 요구를 했었는데, 군 재정형편상 이렇게 나눠서 편성해 뒀는데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통합관제센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어렵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전부 다 이렇게 알아보고…… 전부 다 확인했던 것이죠. 나중에 괜히 예산만 많이 들어서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참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그러네요.

522쪽이요, 완도대교 경관등. 보니까 6년이 되어서 건설과로 넘어왔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6년 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청취불능) 완료하고 후속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그 길을 요즘 날마다 왕복합니다, 제가. 잘 알고 계시죠? (예)

꼭 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리도 중요하지만, 요 근래 보면 시간…… 에너지 절약해 가지고 수리를 하되 시간을 조금…… 야간에 좀 보기 좋게, 첫 관문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10시까지 이렇게 맞추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늘려준단가. 지금 어떨 때 보면 반쪽만 켜지고 반쪽은 안 켜져요. 이런 부분 안전수리를 잘해 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끔 대비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4페이지요, 가로등 신설. 이 설을 하게 되면 신설 가로등도 나트륨으로 합니까, LED등으로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LED로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LED로 하죠.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안전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LED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LED를 유플러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 그렇죠)

몇 년까지……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5년이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잘 알고…… 김진원 팀장님이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관리해 가지고 잘 알 것인데. 정말 조도가, 애당초 조도가…… 자기들이 말하는 조도가 안 나오거든요, 이 조도가.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40와트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조도가 안 나와서 좀 조정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뇌놓고요. 민원에 의해서 가로등을 한다는 이 말이죠?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계속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가로등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활밀착형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할 수는 없고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렇게 하고 LED…… 5년 동안은 이것이 아주 돈 먹는 하마인데, 등이 하나 나가면, 나트륨이야 등만 바뀌버리면 되지만 이것은 한 7~8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하나 수리하려면…… 그러면 5년간, 향후 5년간은 자그마치 이 관리를 하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태풍으로 인한 재해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결들여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에 완도읍 관광호텔 앞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건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관광호텔 앞에 도로가…… (청취불능) 들어서다 보니까 그쪽에 사고도 좀 많고, 또 보기도 안 좋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회전교차로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로 예산을 올렸습시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봐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우선 예산을 조금 있다…… 여건을 봐가지고 시설을 재

검토해 볼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483쪽에 도시 미관을 위한 가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일회성 목조선전탑 같은 경우에 단발성 홍보효과라든지 철거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군만의 디자인이 가미된 (청취불능) 선전탑을 설치하자는 건의가 좀 있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장보고 대교하고 신지 해양치유센터 입구 초입을 생각하고 있고, 또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세라는 것은 전봇대라든지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무분별하게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디자인이 가미된 홍보물을 설치해서 미관을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에 완도읍 군내리 타일 벽화 조성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마을은 동망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도읍에서 동망리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도로면 건물벽면이라든지 담장에 벽화를 조성해서 마을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우선 낙후된 지역에 벽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3쪽, 공원시설관리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민간부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았냐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7년 10월 31일에 의회에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려가지고 동의안이 채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도해일출공원 관련 민간위탁금은 비엠코리아라는 회사와 총 3억 원의…… 8명의 인원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총괄 관리하고 있는 소장이 한 분이고 완도타워 입장객 안내 및 대표하는 분들이 주간에 1명, 야간에 1명, 완도타워 그 실내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두 분, 그리고 공원 청소 한 분, 해변공원 청소

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왜 편성했느냐,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총괄적인 개념이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일출공원 잡초 제거라든지 풀베기, 뭍 전정, 이런 작업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이라 중복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있는 군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고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2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군외면 원동리는 51억 3,000만 원, 고금 농상리는 50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군외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어서, 세부설계에 착수해서 올 12월에 완료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고, 고금면도 11월에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어서 내년 1월부터 세부설계에 착수하면 내년 6월에 본격적인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서 농어촌공사가 불신을 갖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일반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해 뒀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 약산 당목항 대합실 신축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아마 상반기 때 위원님들이 읍면순회방문을 하실 때 금일 이장님 한 분이 “약산 당목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 수가 엄청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당목 대합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시설들이 협소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순회방문 때 건의한 내용을, 그러면 1차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사업비를 바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94쪽,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매입예산이 총 17억 5,000만 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요청했구요, 저도 이 용어에 대한, 신축과 재건축 그 부분에 대한 용어 해석을 보니까 신축은 건물이 없는 대신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그야말로 건축물 노후가 심화되어서 보수·보강하기 어려운 건물을 철거한 후에 신축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신축이 총 여덟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네 군데만 저희들이 신축예산을 편성…… 신축 지정을 했었고요, 나머지 4개 마을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신축을 못해주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에 있는 완도항 임항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임항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도에 대해서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이런 줄기찬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제 4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건의한 타당성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어촌뉴딜 300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부분인데, 이것은 올해……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올해는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용역한테 맡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용역은 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PT자료라든지 또 시뮬레이션 작업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 전문가의 손길을 필

요로 해서 1개소에 약 2,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내년도는 5개소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비에 5억 4,625만 원이 편성된 내용은 저희들 올해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개소가 선정되고 2개소가 탈락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전체 100% 선정이 됐으면 위원님들에게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2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70%, 군비가 3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억 4,000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우리 군비 부담금 30%를 반영시켜서 중복해서 반영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촌뉴딜 300, 가학하고 어디입니까? 아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미처……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노화 내리하고 금당 가학하고 두 군데만 됐는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역개발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고 있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완도타워 1층 리모델링공사 설계 용역비가 들어왔는데 3,000, 이것은 시설비인데 목이 잘못되어 있구면.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저희들이 목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통계목도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기 다가?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완도타워…… 제가 와서 완도타워를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께 여쭙봤더니 그 안에 공간들이 너무 시설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기념사진 촬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시설이 낙후되었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기존에 식당으로 이용하는 공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 공간을 재구성해 보자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선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애당초 전임과장님은 모노레일을 할 때 모노레일회사와 연계…… 모노레일회사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 우리가 해조류박람회 때 썼던…… 그런 것을 시설해 가지고 관람료를 받게끔 모노레일로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그러면 물거품이 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 관계는 아마 모노레일회사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협정하다가 서로 수익타산이 안 맞아서 협약내용에서 빠지고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렇게 하면 1층 전체공간을 보면 비어있는데,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일단은 전문가의 손길로 그려보고자 하는데, 일부 의견에서는 거기에다가 뭐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공간을 넓혀서 휴식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VR 체험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다양한 의견

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자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직 어떠한 것으로 바꾸겠다는 확실한 그런 것 없이 그냥 시설비만, 설계비만 3,000……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편성하게 된 동기가 아이템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시설의 그림을 그려놓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도 연구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지원해 가지고 완도 읍내를 뺀 데는 매입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축, 재건축 소요도 없고…… 저번에 하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 조례를 정했어요. 25년 이상, 이하…… 지원을 못하게끔 조례를 정한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도 과장님이 17억 5,000인가라고 했는데, 조금은 감해도 되겠죠? 아니, 수요가 없단니까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침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저기에서 3개는 더 빼졌습니다. 3개는 더 빼가지고 2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눕시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 부족하면 추정에 더 잡더라도, 왜냐하면 17억 500인가, 17억 5,000인가 해놔는데 수요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밑에 뭐야, 시설비가 있고 리모델링비가 있고, 많은 적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왕 물어본 김에 물어볼게요. 완도항 임항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이것 민선6기 신우철 군수…… 뭘니까,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완도호텔에서 신지대 교에다가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그때 해수부하고 국토부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번에 마침 또 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리 하고, 489페이지요. 법적근거를 댔는데, 지역개발과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한 사업은 전부부실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다녀보면 전부 부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국가사업을 따올 때 꼭 그런 데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해야 만이 우리가 점수를 더 받고, 또 만약 여기서 공사를 하다가 추가로 더 받을 때 그런 인센티브 때문에 제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배수관문…… 지역개발과는 아닙니다마는 안전건설과에서 배수관문사업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위탁 자체는……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면 하자가 없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해놓은 사업들을 쪽 보면 거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맡기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농어촌공사…… 어떻게 보면 윈윈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했다고 다 놔두지 말고 스스로

나가서 직접 좀 챙겨보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리고 483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 타일벽화를 2,000만 원 더 한다고 했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타일벽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 하려고 생각하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우선은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보다 자기 마을 공간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벽화 좀 그려달라는 이런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와서 보니까 완도읍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읍면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확산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림도 아직…… 지역개발과장님이 태어난 곳.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비석저리.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비석저리 같은 데는 우리가 통영이나 부산 감만동하고 약소하지만, 적지만 충분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곳이 되거든요. 그런 데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번에 의회에서 연수를 갔을 때 여수…… 순천을 가봤는데 잘 가꿔놓으면 괜찮거든요.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로경관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도시미관을 위한 가로경관 2억이 어디에 투입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완도군 디자인이 가미된 행정…… 선전탑을 장보고대교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쪽 1개소하고 해양 신지 명사십리는 해양치유단지 그쪽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전신주나 그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한 400개 정도를 완도, 군외, 신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착해서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그런 작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관이 아니구먼요. 탑을 세우고 이런 것이구먼요. 신지 톨게이트에 있던 그런 것으로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까, 광고판.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원동대교에다가 관광정책과에서 안내소도 하고, 또 관광정책과에서 거기 대교휴게실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다가 굳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뭐하는데, 해양치유 그러는데, 신지에 과장님, 해양치유가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설이 안 된다.” 라고 자꾸 이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광고판을 세워야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해양치유의 중심지, 우리 관문에도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를 가지고 광고판을 세울 것입니까, 과장님. 우리 명사장에다가?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 완도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선전탑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시적인 눈에 들어오는 것을 왜 거기에다가 설치하느냐, 이런 것인 것 같은데. 해양치유…… 제가 표현하기를 해양치유센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홍보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은 뭐 경관정비라고 하나까 우리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양치유산업 버스맵핑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수단과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마는 특히 종이신문이라든가 지상파방송이라든가 종편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지방지를 비교했을 때 한 회당 광고를 내게 되면 거의 한 200~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수가 많은 신문은 한 회당 500만 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광고예산의 낭비를 막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내 군내버스라든가, 또한 다른 지역에 없는 차별화된 그런 광고수단이 있습니다. 활어차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주~완도간 여객선 내에다가 광고를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맵핑 광고료 3,000만 원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설치…… 버스라든가 활어차에 설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563페이지, 해양치유산업 홍보안내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안내판은 현재 신지 (청취불능) 터널 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광고판은 현재 ‘웰빙수산물의 창고 완도’ 라는 문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심어져서, 가로수가 많이 가리고 있어서 광고효과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웰빙수산물의 창고 완도’ 라는 문구가 식상하고, 또 시대의 버전에 뒤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서 해양치유산업 홍보안내판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64페이지. 시설비, 해조류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4,000만 원입니다. 본용역비는 명성이…… 우리 군이 국내 최고의 수산군이면서도 외부인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또 정체성을 알릴만한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완도의 주력산업으로 소개할 만한 수준 높은 전시라든가, 체험, 교육, 비즈니스 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완도의 랜드마크인 상징적 공간 확보를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촌민속전시관이라든가 해양생태전시관의 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되고, 향후 박물관이라든가 각종 행사에서 활용하는 콘텐츠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해양치유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별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합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금액이 총 100억 원인데 이것 전액 군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배후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를 유치해서 해양치유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별지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마지막, 뒷장에 보시면 지금 매년 전국에 2~3개소를 선정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약 100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내년에 꼭 도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양기후치유 비치바스켓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치바스켓은 현재 유럽에서 해양기후치유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도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개당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번에 시범 도입해서 설치하고 반응이 좋다면 국내 가구회사에 제작의뢰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비치바스켓을 설치해서 명사십리에 특색 있는 볼거리를 조성하고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이미지 효과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명사십리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게 되면 이미지 효과가 워낙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양치유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564페이지요, 해조류박물관 건립을 위해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거기애다가 어촌민속박물관을 같이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 위원님. 이 해조류박물관이라는 명칭은 가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큰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어촌민속 전시관이라든가 현재 생태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한곳에 집약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한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정욱 위원

용역이 뭐 목적 없는 용역이 있나요, 뭔가 정해지지 않는 용역을 할 수 있나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지금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네이밍 작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용역을 하려면 뭔가 필요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해조류박물관, 이것도 가칭 이름이고, 어촌민속전시관, 아까 말한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엇을 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에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저희들이 앞으로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우선 용역비만 받아놓자는 얘기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니요, 내년에 바로 발주를 하게 되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선 뭐 정해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발주한다는 얘기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가칭 해조류박물관 건립인데, 이것은 뭐 저희들이 완도 수산업의 역사라든가 또 완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전시, 교육, 체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용역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뭐 어촌민속전시관은 해당이 안 되구먼.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 콘텐츠도 가능하다면 한곳에 집중화시킬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안 되어 있네요. 이 용역에 들어갈 해조류박물관이다, 아니면 뭐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565페이지요,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국내에 어디 다시 제작을 한다고 했던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이번에 현재 그 사진에서 본…… 그림은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치바스켓인데요, 이것은 시범도입을 한번 하고, 들어와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확대시설이 필요하다면 국내에 있는 그런 가구회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제작할 수 있으면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왜 이 바스켓을, 왜 가져오느냐고요, 어떤 장점이 있고, 예를 들자면 해양치유산업을 위해서 왜 꼭 필요한지 설명해 볼래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치바스켓을 설치해서 유럽에서는 일광욕도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앉아서 상당히 구조상…… 스트레스라든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로 들어오면…… 명사십리에 체험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치바스켓에서, 쉽게 말해서 (청취불능) 멍 때리기라든가. 이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꼭 시범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뭐 해양치유프로그램에 맞춰서 사람들이 앉았을 때 뭔가가 느낌이 달라야 되는데, 내가 보서는 이것 뭐 전혀 특별한 것도 없고, 사실 앉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을 못 느끼면, 오히려 이미지 자체가…… 치유프로그램 자체가 오히려 망가지지.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시도를 합니다마는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 최정욱 위원

독일하고 우리하고 사람의 생각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가 있어 가지고, 똑같이 보면 안돼요, 절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쪽에서는 되니까 우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우리 문화에 맞게끔……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으니까…… 내가 봐서는 꼭 그럴 것 같은데, 뒤로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쓰레기가 돼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마는 하여튼 관리를 잘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하여튼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차라리 뭔가 기능이 있는 의자가 있다고 하면, 기능성 있는 의자가 있다고 하면, 해양치유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전혀 뭐 똑같은…… 생김새만 이런 의자인데, 과연 앉아서 무엇을 느끼겠냐는 얘기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앉아보기도 하고 한 분은 상당히 일반의자하고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체험거리도 되고……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는 얘기에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우리도 이것을 알았으면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혹시 물어보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뭐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고요.

□ 최정욱 위원

일광욕은 의자잖아요, 의자. 앉으면 일광

욕할 수 있잖아요, 서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광욕은……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마는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한 자료를 통해서 공모한 결과를 보면 나눠드린, 배부해 드린 자료에 효과가 나타난…… 그 효과를 적시해 뒀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기왕 이런 것을 승인해줄 때는 뭔가 알고 해줘야죠. 뭔가 필요하면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어떠냐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줘야지. “이런, 이런 것이 좋습니다.” 라고. 독일에서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이런 것이 맞아서 해준다고, 뭔가 해주면서, 우리도 해주고 나서 주민들이 말할 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위원이 되어 가지고 해주고 나서, 그냥 해줬다고 그렇게 설명……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더 좋은, 또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3쪽에요, 해양치유산업 버스맵핑 광고료 3,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것 광고입니까, 아니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설치광고 사용료로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광고시안 제작비도 포함되고요, 또한 활어차, 또 군내버스, 광고시설 사용료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게 지금 해양치유산업, 다 그런 광고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 좀 시기상조 아닙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해양치유산업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하나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양훈 위원

이게 전부 완도관내 차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지금 현재 버스는 관내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국내버스가 33대고요, 활어차가 전국을 누비기 때문에 상당히 광고효과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활어차에도 대대적으로 해서요,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광고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보면 버스나 택시광고가 엄청 많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다른 과에서 이런 비슷한 업무가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 김양훈 위원

지금 보니까 관광 자체가 아까도 전체가 다 이렇게…… 버스광고, 뭐 택시광고,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광고가. 그래서 ‘그쪽하고 이왕 할 것이면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관광정책과에서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해서 광고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광고해야 될 것은 해양치유산업이기 때문에 광고목적은 좀 다를……

□ 김양훈 위원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축제 이렇게 보면 광고 같은 것 버스, 택시 엄청 많거든요, 그런 쪽에 같이 해양치유산업 같이 넣어도, 문구를 같이 넣어가지고 연계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쪽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버스맵핑입니까? (예)

경제교통과에도 있고 관광정책과에도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의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해양치유 홍보, 이것도 방금 전에 과장님, 그 지역개발과장님, 거기 경관관리로 해가지고 2억 잡아가지고 해양치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과장님의 업무만 보지만 우리 위원들은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다 보고 받다 보니까 이래서 행정의 난맥상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방금 경관관리라고 해가지고 2억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디에다가 쓸 것

이냐고 그러니까 해양치유 뭐 홍보판을 세운다고 했는데. 또 과장님은 주무과라고 해서 또 이렇게 거기에다가 2,000만 원을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 말고 예산계팀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실장님도…… 자꾸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또 삭감한다고 난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설명을 듣다보면 꼭 불요불급해 가지고 다 되어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집행부 좌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 그것하고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해양치유산업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의 말씀이…… 지역개발과에서는 2억을 잡아 가지고 뭐 해양치유 홍보를 한다고 해 버리고. 도 해양치유과는 해양치유과 담당부서니까 당연히 뭐하는데.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같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을 보는 데 갑갑합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위원장님, 지역개발과에서 올린 사업비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것은 돈이 따로 있고. 방금 전에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신지하고 장보고…… 고금대교하고 해가지고 2억으로 광고판을 세운다고 그렇게 하고 갔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고맙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12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삭감 및 설명 요 18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연산해조류 등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해조류 현재…… 길거리에서 건조를 한다든지, 비위생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사업으로 한 27개소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 부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자담부분이 또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급을 해보니까 읍면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고 어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건조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HACCP 기준시설업체 지원 2억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비하고 도비 부담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올해 2018년도에 3억 3,300을 계상해 가지고 2개소를 지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올해에는 2개소가 됐고 내년 2019년도에는 1개소가 시설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제주도에서 내년에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국제해조

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21년도 해조류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홍보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포지엄을 할 때, 국제해조류 심포지엄을 할 때 보면 홍보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홍보부스 임차료 2,200, 그리고 제주에서 국제전문가…… 해조류전문가가 완도에 현장방문을 합니다. 팸투어 경비로 600 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장보고대교 주변 가두리양식장 환경정비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보고대교가 개통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순천, 여수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다리에서 이렇게 정차된 차량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청취불능) 쪽으로 가두리가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폐컨테이너라든지 해서 이렇게 미관상 안 좋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 관리사하고 줌……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해서 정비를 해볼까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미역, 다시마 우량종묘 공급사업입니다. 저희가 2억을 계상했고요, 또 올해 104개 어촌계에 사업추진을 했고, 2017년도에는 104개 어촌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2억을 계상했고요,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하는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민간이전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산 착오로 인해서 14억 7,7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15%, 군비 65%, 자담 20%가 들어갑니다. 도비보조 사업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 활성처리제는 김 어가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1억 7,700을 저희가 계상해서 30개 어촌계에 1,160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18개 어촌계에 2,100……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어패류양식장 환경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온하고 DO 측정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0대, 2,684만 원을 계상했고요, 저희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2,684만 원을 계상해서 10대 구축한 실정이고, 2017년도에도 2,600 10개소, 2016년도에도 그때 6,500 해가지고 20개소를 각 어촌계에 보급한 실적이……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민간이전 유용미생물 육상양식장 공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이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이엠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비 50%, 또 자담 부분이 5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치패양식장이라든지 광어양식장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올해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청취불능) 4만 리터짜리를 공급했고요, 2017년도에 5,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0개소에 3만 리터를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전북대체품종 종자 공급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 부분도 군비 5,000, 군비 50%, 자담 50% 해서 필요한 이렇게…… 전북대체양식을 원하는 어가에 시범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4개소에, 4개 어촌계에 공급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없고, 2016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4개 어촌계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어린전복 먹이용 미세조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이 부분도 군비 50%, 자담비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표는 200어가에 약 6,000리터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81개소에 2억…… 추진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1억, 2016년도에는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첨단친환경양식장…… 맨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것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6,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가 들어갑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복 치패장이나 광어양식장에 1개소 내지 2개소를 저희가 신청 받아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어업미끼 지원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저희가 군비부담이 30%, 그리고 수협이 10%, 자부담이 6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저희가 (청취불능) 2018년도에도 6억 3,000만 원…… 2018년도에 1억 1,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어선낚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총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소비촉진 홍보지원 1억 2,000만 원, 완도특산물 대도시 광고물 설치 KTX, 버스광고 설치에 2,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지원은 저희가 전복, 광어에 대해서 전복, 광어가 작년…… 예전에 비해서 작황이 하락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TV, 영상 스틸광고로 해서 6,000만 원…… 각 6,000만 원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에 KTX, 버스는 저희가 홍보물을 부착하려고 합니다. KTX 열차에다가, 버스에다가 완도 광어, 전복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0페이지 건강의 섬 완도 특산물 홍보용 서한문 제작에 100만 원, 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1,000만 원, 그리고 완도특산물 판촉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20만 원, 그리고 홍보용 앞치마 제작 300만 원, 그리고 홍보용 보자기 제작에 4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MOU 체결기관 교류행사 참여에 1,200만 원, 식품대전, 무역엑스포 등 각종 박람회 참여에 1,200만 원,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참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91페이지 완도수산물 글로벌시장 개척 언론사 홍보에 1억 원, 글로벌시장 개척과 다국어 카탈로그 제작에 2,5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LA 한인 축제 완도특산물 판촉 및 홍보행사에 2,000만 원, 해외시장 프로모션에 2,000만 원, 해외시장 수출상담에 2,000만 원, 지금 카탈로그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해서 방문대상국에 갈 때 바이어들에게 배부하는 카탈로그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서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수출상품 및 박람회 참가 지원 3,000만 원, 완도수산물 글로벌 판로개척 물류지원 6,000만 원, 그리고 자담 및 군비부담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산품포장재 지원사업 8,000만 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완도수산물 소비지 직거래 유통센터 운영에 1억 원, 그리고 아래 완도수산물 시설비 분야에 완도 수산물 소비지 직거래 유통센터 장비 설치에 1억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별지로 보충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완도…… 여기 표에 보시면 전복광어유통업체가 관내에 한 130여대가 있습니다. 전복이 한 80개 업체, 광어가 한 50개 업체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당구장 표시에 써져 있습니다마는 전복광어유통업체가 수도권에 있는…… 영세업체들이 유통하기 위해서 수도관을 임대하고 그림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업체별로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매시설이 아니고 중소……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유통업체에, 유통수도권 지역에 유통물류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총 3억 6,000만 원을 사업비로 받고 저희가 임대료에 1억 원, 그리고 기타 시설…… 뭐 수족관이라든지 기타 시설장비에 1억 6,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자담 부분 1억 원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3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수산경영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했습니다.

582쪽이요, 양식장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 여기에도 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개입이 됩니까?

(“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인버터사업과 같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아마……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수료 7%를 줘야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마 이것도 관리위탁…… 수수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게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 손해를 보는 대목이 아닐까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도 하고, 한 번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요, 군정질의 때도 나왔던 대목인데,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어필해 보시죠. 밀쳐봐야 본전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

다)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길게 하려면 좀 조정하자고 해가지고 조정을 한 번 더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방금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 김재홍 위원

내가 듣기로는 올해……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시설하는 데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군비보조가 내시됐고요.

□ 김재홍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 신청서가…… 제가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양식장이라고 그러면 (청취 불능) 일반건축물이 있어요. 어디에 시설하는 것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것도 세부적으로 사업지침을 검토해 봐

야 될 사항이고요.

□ 김재홍 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검토할 것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 김재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지 쪽에, 일반건축물에 시설한 것으로 알아요. 담당자……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작년에 수요조사, 조사가……)

아, 조사만 하고 시공은 안 했다는 얘기죠?

(□ 어패류양식팀장 이규열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리고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는 이 사업들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은 일반업자들이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도 아까 부의장이 얘기했지만 농어촌공사를 통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자부담이 20%.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하고 똑같은데요? (예)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부의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한테도 통보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전에 설명 드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578쪽예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2,600 보다는 가령 올라와 있는데…… 허궁희 부의장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용해본 DO, 수온 DO측정기가 가격이…… 수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격하고 확연하게 차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떻게 봤을 때 가격 대비가 안 맞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10대 공급한다고 그 부분이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일단 예산서에는 그렇게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제 가격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일 기종에 성능이 똑같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기종이 있다고 하면…… 그 규정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동일제품들을 완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81쪽에 어린전복먹이 미세조류 공급, 지금 우리가 보통 전복치패장이라고 하는데, 치패장에서 나오는 전복들이 미세조류를 공급 받아가지고 키우는 시기는 이미 다 넘어가 버렸어요, 거의 한 500마리가 5kg 정도. 우리가 옛날 얘기로 봤을 때 중간패 같이 키워버리는 시기에 5~6년 전에 했던 그런 사업들은…… 미세조류가 신지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저도 받아보고 다 해봤던 부분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닌 사업들은 다른 것으로 변경시켜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해왔던 부분…… 지금 어가들이 실력은 엄청 향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행정에서 그것을 못 맞춰준다면 그냥 필요 없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거예요. 지금 개인사업자들이 연구기관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 어가에서는 너무 대형으로 치패를 키우면 과다한 경영이 되어 가지고, 막상 현장에 치패를 했을 때 이렇게 폐사도…… 그렇게 키운 전복이 많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구조류 공급사업으로 치패를 양성해서……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지금 완도에 치패를 못 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세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사람들은 이 미세조류로 키워서 해준다고 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데에다가 이것을 공급해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들 계속…… 어떻게 보면 치패를 못 파는 사람들은 계속 못 팔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와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은 꼭 사업비가 중요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맥을 같이 가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또 어린전복먹이용 미세조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있는가, 파악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올해 이것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복을 잘 팔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592쪽, 592쪽에 대형 유통업체 및 직거래장터 운영, 이것 군수 공약사업이죠? (예)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저희 유통업체가 완도전복유통업체가 있고, 이번에 최근에 남도전복유통전문업체가 생겼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유통업체에서는 수도권에 물류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거기에 있는 그 수조라든가 그 임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아마 군 차원에서 하나 해가지고 그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 이범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준다고 해도 공동수산물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성공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싸움을 붙이는 식이에요. 그 업체들, 19개 업체인가 남도전복연합회에서 이것을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취봐요, 그 사람들 서로 싸우만 붙이는 격박에 안돼요. 가서 그 건물보고 자기들한테 운영하라고 하면 다 망합니다. 개인이 사업을…… 개인하고 공동하고 수산물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전복대체 품목 종자공급 가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전

복대체품으로 되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가리비가 또 먹이공급 시 양식이 많은…… 아마 근 몇 년 동안 시범양식 차원에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예산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리비…… 거의 전 복대체품종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어렵습니다. 다른 종목을 찾아봐야지, 지금 가리비를 해가지고…… 물론 소규모로 해가지고 몇 어가들이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품목이라고 그러면 대량으로 해야 될 텐데,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이렇게 폐사가 나오고 전부 다 손을 떼는 시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해만 가리비를 한다고 했었습니까?

(“ 종류는 해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참가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단가리비도 할 수 있고, 가리비마다 수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단 가리비 같은 경우는 노화, 소안, 보길 쪽에 잘살고요. 그다음에 해만 같은 곳은 군외면 같은 곳에도 있는데, 군외면이 지금 수온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서 그런……”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장좌리가 1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100원이 맞습니까?

(“ 예, 100원에서 120원까지……” 하는 주무관 있음)

몇 cm짜리가요?

(“ 그것이 3 내지 4cm 정도……” 하는 주무관 있음)

3~4cm이요.

여기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아침에 만든 예산입니까?

(“ 도에도 그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도. 그런데 저희들은 한 줄 비우기 운동을 하면서 가두리 한 줄을 비우면 거기에다가…… 비우는 대신 가리비를 키워보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지금 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리비 틀에다가 한다는 얘기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리비 틀에다가 넣어가지고는 물, 조류를 다 막기 때문에 폐사율이 똑같습니다. 차라리 미역장에다가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두리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581쪽, 아까 이범성 위원님이 질문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전복먹이 구조류요, 제일 상단에, 지금 제가 아침에도 치패 어가들…… 출근하면서 한 10 어가 정도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막 처음에 형성될 때 이것 기조를 빼가지고 얼마 안 가면 이것이 싹 없어져버린다고 합니다.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뿌리까지. 그래서 사용을 처음에는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전혀 기조를 못 쓰고, 단순히 쓰는 데가 어디냐고 하니까 군외 몇 어가만 쓴다고 합니다. 군외 몇 어가 쓰는데 6,000만 원 들여서 200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 제가 봐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군외 쪽, 그쪽 어가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더라도 나머지는 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데가 고금도 아닙니까, 치패가. 그런데 고금도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어선어업 미끼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 사업은 저희가 완도금일수협 관할 고금, 약산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연안복합이라든지 연안통발, 낙지주낙 또 근해연승…… 그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강진 쪽, 마량 쪽에다가 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차원에서 이것이 그 인센티브로 미끼를

주는…… 자부담 60%을 부담하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부분을…… 꼭 미끼가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마랑 쪽 위판소로 많이 간다고 그래서 어선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완도로 데려오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다른 방법은 연구를 안 해보셨어요, 꼭 미끼가 아니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다른 뭐 더 좋은 유인책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제일 좋은 유인책인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어선들이 보통 보면…… 물론 미끼도 있어서 완도로 오겠지만 어가에 따라, 어가들 단가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꼭 미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랑 어판장이 고기가 안 나와서 단가가 좋다고 그쪽으로 서로 요즈음에는…… 연결망이 좋아가지고 서로 연락해서 바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또 완도 쪽도 올 때는 완도 쪽에 단가가 좋았을 때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꼭 미끼사업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끼, 거의 새우…… 새우를 지원하는 것이죠, 새우가 좀 많죠? (예)

지금 새우도 안 나올 때는 전부 다 수입산 새우가 아닙니까. 완도로 한다고 해가지고 수입산 새우를 미끼로 지원해 주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 쪽에서 그쪽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59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 김양훈 위원

예, 1억 7,000.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 부분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글로벌시장판로 개척으로 해서 박람회 참가 지원에 3,000만 원했고요. 물류비 지원은 저희가 물류비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어떤 그…… 완도 수산물 글로벌 판매개척, 물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품종들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주로 전복가공품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류비에 대해서 항공로 50%를 지원합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수출에 관한 것만 맞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수출물량만 해당됩니다.

□ 김양훈 위원

수출물량만요. 그 수출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저희가 2017년도에 3,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그게 다 소진되어 가지고 올해 6,0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6,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작년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6,000만 원인데 생각보다 많이 인상이 났더라고요. 1억 1,000이면……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2017년도에 3,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6,000만 원이 있고, 내년도도 2019년도 예산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수출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

수출 증가한 그런 품목들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인데, 592쪽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요. 예전에 완도에서도 서울에다가 식당, 횃집 같은 것 차려서 한번 싹 했었죠? (예)

그런데 그때 왜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아까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공약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것…… 지금 아픔이 참 많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전부, 뭐 하나도 못 건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아픔이 있던 것인데, 뭐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참 어려운 사업들은 미리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했던 사항으로는 완도수산물유통공사라고 해서 이것을…… 대도시나 소비자 직거래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 사업은……

□ 김양훈 위원

그전에 했을 때요. 유통이 아니고 횃집식당을 한 번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식당 겸해서 했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식당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전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다 망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거래라고 하는데. 똑같은…… 뭐 글씨 몇 자만 틀린 것이지, 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말만 이렇게 글씨로 직거래지. 제가 본 직거래 성격은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분명히 바뀌어 집니다. 변경됩니다, 이것.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예산교부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아까 식당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품목은 어떤 품목이 들어갑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품목이 들어갑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전복하고 광어, 그 유통업체가 수도권 물류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게 쉽게 해서 유통업…… 전복유통이나 광어유통회사에서 혹시 업자들이 이야기해서 들어오는 예산이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유통을 이렇게 직거래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통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이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영세유통업

체가 수조 사용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너무 커서…… 아까 운영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 운영업체를 지정해서 누구나, 관내 완도수산물 유통하는 업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한 업체가 독점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운영하는 사람이 완도수산물에 계속 가기 전에…… 일정부분 사용료를 받고 계속 다른 여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잘못하면 예산만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571페이지요, 유통가공…… 자연산 해조류 등 건조하고 HACCP이나 이런 것 지금 정해진 것 아니에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정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수산공모사업을……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 최정욱 위원

어떻게 저운창고 이런 생각을 해냈어요, HACCP이나 이런 것을?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런 수산보조사업으로는 수요량 조사를 합니다. 이런 사업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

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진짜 정한 것은 아니죠, 정하고 한 것은?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 최정욱 위원

제가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91페이지요, LA 한인축제 완도 특산물 판촉 및 홍보행사. 이것 LA에 가서 특판행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글로벌시장 판로 개척 수출상담 및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니, 위에 과목이…… 해당 과목이 좀 다르거든요. 위에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나중에 정산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LA도 지역특산품을 가져와서 행사를 해서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행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죠. 이게 오래 전부터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없고. 차라리 밑에 이렇게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수출상담 쪽에 이런 돈을 투자하면 더 효과가 있지. 이것은 전시행정이에요, 전 시. 그리고 기존에, 옛날에 했던 것을 지금도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것 물건을 가지고 가도…… 이것 물건도 우리 것만 가지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 예산은 완도군에서 생산되는……

□ 최정욱 위원

아니, 우리 것만 갖고…… 우리 것만 LA에,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다른 자치단체도……

□ 최정욱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부터 내가 잘 아는 것인데, 이것 전혀 효과도 없어. 가서 해서 외봤지만, 나도 4년 정도 계속 했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전 시, 이런 것을 해서 얼마 실적을 올렸다고 이런 것이나 보여주기라고 이게…… 이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깎아가지고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 없는 것을…… 차라리 이런 예산을 밑에 수출상담하는, 이런 데에다가 우리 지원업체들 수출하는데 도와주고 그런 데에 지원을 해주면 차라리…… 이런 돈을 여기다가 써야지. 그렇게 안 하면 바이어를 놓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다가 차라리 효과가 있지, 1건이라도 건지는 것이 효과가 있지.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잘 모르니까 그래요,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572페이지, 수산물 지리적표시품 관리 지원사업. 이것 2018년도 전액 미집행을 했는데 또 올려놨네요. 수산물 지리적표시품 관리 지원사업 5,000만 원.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5,000만 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2018년도…… 내가 서류 받을 때까지 전액 미집행이었습니다,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삭감해도 되죠, 과장님?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얼른 담당계장님이 이것……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도 지금 예산이 소요가 안 됐어요, `18년도 예산이.

(□ 수산정책팀장 채종대 집행부 좌석에서 - 수산정책팀장 채종대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좀 늦게 집행되어 가지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나 받을 때는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미집행으로 되어 있던데 언제 집행이 됐어요?

(□ 수산정책팀장 채종대 집행부 좌석에서 - 최근에 집행됐습니다.)

그것 내역서를 주고.

HACCP,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HACCP 이것도 미집행이죠. `18년도 것?

(□ 수산정책팀장 채종대 집행부 좌석에서 - 사업비가 지금……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 업체에 들어와 있어요?

(□ 수산정책팀장 채종대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2개소에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어디 어디 했냐고.

(□ 수산정책팀장 채종대 집행부 좌석에서 - 다시마, 전복하고 2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집행……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서류를 받을 때는 다 미집행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 수산정책팀장 채종대 집행부 좌석에서 - 관련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이것도 집행이 됐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미역, 다시마 우량종묘 공급사업?

(“ 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

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왜 이렇게 집행이 느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 다시마 공급은 솔직히 미역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늦게 공급을 하고요. 미역은 빨리 끝납니다, 미역은 빨리 끝나는데 미역 하고 다시마 같은 쪽 품종을 하다 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집행하고 있다고요?

(“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과장님, 589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사무관리비에 수산물 소비촉진으로 해가지고 홍보 1억 2,000.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애당초 전복협회에서 요구했다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요구했다가 한 것이죠.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것이죠, 이 사업도. 전복협회에서 주라고 해가지고 안 되니까 편성을…… 자체사업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버린 것이죠. 이런 것 이렇게 해가지고 짹박아봐도 돼요? 예산을…… 수산경영과에서 너무 예산들이 너무 짹박아져 가지고 있어요, 일반예산들이. 전복협회에서 주라고 한다고 이렇게 1억 2,000씩 해줘도 되는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니요, 어차피 이것은 사무관리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보조사업으로 요청해 가지고 안 되니까 사무관리비로 돌려버린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됐고요, 나중에 또 할 일이고.

과장님, 그 미끼사업이요. 왜 수협 자부담은 빠져 있어요, 올해?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수협에서 저희가 당초에 부담을 요구했습

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부담할 수 없다고 그렇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자부담…… 수협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몇 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자부담을 해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군에다가 공문으로라도 보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됐습니까? 계장님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 어업지도팀장 김수호 집행부 좌석에서 - 어업지도팀장 김수호입니다. 이 관련으로 해서 제가 수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업종 간에 다툼이 있었고, 어느 업종은 지원을 해주고 어느 업종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업종 간에 다툼이 있고, 수협 입장에서는 위판수수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있을 때 이것은 수협에서 어민들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계속 했으면 어떠냐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업종 간에 다툼이 있고 또 많이 잡아와서 많이 판 사람들은 지원한도에서 지원이 되지만, 어획량이 적은 어선들은 지원한도금액 내에서 (청취불능) 그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유는 이전에, `18년도에 수협이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한 2,000~3,000만원 했습니까?

(□ 어업지도팀장 김수호 집행부 좌석에서 - 10% 부담했습니다.)

뭐 1억 1,800만 원 했다는 말입니까?

(□ 어업지도팀장 김수호 집행부 좌석에서 - 작년에는 총 사업비가 6억 5,000이었는데 6,500만 원……)

6,500만 원……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6억 5,000이었으니까요.

(□ 어업지도팀장 김수호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작년 사업비가요.)

그것도 못한다는 이 말이죠, 수협에서 그러면.

수산경영과에서는 수협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러면?

(□ 어업지도팀장 김수호 집행부 좌석에서 -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올해 지원해줬다가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면…… 어업인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현재 30%만, 총 6억 3,000에서 30%를 상계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은 신청…… 연안복합, 연안통발, (청취불능) 연승 해가지고, 11월 현재 집행된 금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협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수협 자부담으로 안 내놔도 그쪽으로 해가지고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누가 될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 부분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만약에 10%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사업 총 금액을 줄여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늘리든지 자부담으로 좀 늘려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김수호 팀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데에서 계속 수협에다가 위탁할 것인가. 그 관계를 한번……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수협에…… 만약에 60%가 빠진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아마 사업주체가 돼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여기 공공기관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본 말입니다. 아직 그런 것 결정 안 됐습니까, 그런 관계까지는?

(□ 어업지도팀장 김수호 집행부 좌석에서 - 만약 이게 된다면 저희들이 수협으로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판실적이라든가 그런 자세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알기 힘들니까 수협에서 위판하면 그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협에다가 해가지고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협에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자부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5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사업을 전년도부터 예산이 7,0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냥 바가지로 퍼쥬시다, 이런 것은, 내 표현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좀 죄송합니다마는 내 표현이…… 이것 경제산업과에서부터 해가지고 수산경영과로 이것이 조직개편해서 넘어왔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뭐 말은 좋습니다, 글로벌, 갑자기 포장재 지원까지 들어가고, 또 홍보제도 있고 관광정책과도 있는데 여기에도 완도 수산물 글로벌시장 개척, 언론사 홍보라고 해가지고 1억씩 이렇게 넣어놓고, 이것은 좀 과장님이 연구를 하십시오.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해야지.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기반조성을 해줬으면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순수군비를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그 업체를 끌고 가야 됩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것은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합시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13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업기술소장 김준열입니다.

저희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삭감대상조서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5페이지, 농어민대학 수료생 후속 교육 참가보상입니다. 1,280만 원에 대하여, 농어민대학은 금년도 실기생까지 수료생 총 262명을 배출했습니다. 농어민대학수료생을 대상으로 후속교육을 추진……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유통의 (청취불능) 과정으로 숙박비, 식비 등으로 상·하반기 2회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 부담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꽃차산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 편성입니다. 본사업은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장점인 깨끗한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전국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꽃차음료를 개발하기 위한 식용장미와 약용작물 중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도라지, 작약, 코끼리마늘을 선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꽃차산업은 완도 농업의 유망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경쟁력 있고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재료비에 대한 보완설명입니다. 본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기반의 환경조성과 유기물 퇴비발효로 작물생물계에 효과가 있고 축산냄새 저감효과가 있어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유용미생물을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도군도 매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30톤을 수요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농가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50톤을 공급하

게 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바이오기능수 생성장치 필터 교체에 따른 편성입니다. 본사업은 바이오기능수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바이오기능수 생성장치 (청취불능) 2년간 필터교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보급된 6농가에 대하여 2019년까지 6대를 지원하고 본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꽃가루은행 운영 편성…… 인건비 편성입니다. 본사업은 5월경 참다래 꽃가루 (청취불능) 추진 중에 있으며 참다래는 자웅이주로 암컷과 수컷의 개화 시기가 달라 자연수분이 어려워 인공수분이 필요합니다. 완도 참다래 재배농가는 약 30여 명으로 고령화 및 소면적으로 인공수분을 어려워하고 있어 인공수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완도대표 소득작목 6차 산업화에 따른 보완설명입니다. 본사업은 완도 대표작목인 유자를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유자 재배면적 확대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2019년 복합체험시설 건립, 운영으로 6차 산업화 선도추진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한우관리시스템 시범입니다. 본사업은 영상형 개체관리로 프로그램을…… 영상형 개체관리프로그램 도입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상형 한우개체관리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해서 소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고 축산농장에서 효율적으로 적기 수정을 통해 인공수정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618페이지, 농식품 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입니다. 본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부산물 활용 TMR 사료 제조이용 기술 보급을 통한 사료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흑염소의 소비 형태가 약용에서 고기생산용으로 변화됨에 따라 고품질 흑염소고기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605페이지요, 농업인대학 수료생 후속 참가에 대해서. 해마다 농어민 대학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할 때마다 후속을 이렇게 할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졸업 후, 수료 후 한 5년 동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하시는데 올해 또……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농어민대학을 또 수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수가 배로 늘어나고 또 5년간 계속하면 100명이 600명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그러니까……

□ 우성자 위원

또 졸업한 사람하고 또 같이, 같이 하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렇죠, 대신에 일찍 졸업하신 분들은 5년 동안…… 5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 졸업하신 분을 5년간 관리하고, 또 내년에 졸업하시는 분 또 5년간 관리하고 계속 가다보면 엄청 수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5년…… 7기 이렇게 했는데 1년에 한 35명 정도, 5, 7에 35, 한 150~160명 정도 됩니다.

□ 우성자 위원

5년이요? (예)

아니, 그렇지 않지. 그 해에 졸업한 사람이 있지, 또 졸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올해 졸업한 사람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니요, 그러니까 5년 정도 하면 연 35명 정도 배출되니까요.

□ 우성자 위원

연 35명인데 또 모집하고, 또 모집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리고 저희들이 5년 이상은 관리를 자체적으로 맡기고 그러니까요.

□ 우성자 위원

한 번 이렇게 하시면 계속 힘들어지실 것인데.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꽃차산업이 꽃차가 지금 뜨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대부분 이런 것을 할 때 본인이…… 본인이 시설비하고, 뭐 사업을 할 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서 꽃차는 처음부터 행정에다가 이렇게 요구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꽃차산업은 처음 시도하는 산업이기 때문

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종구나 종묘만 지원해 주고 기타 관수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은 농가 자부담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지금은 이제 일부만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작물이 크면 꽃차를 만들 때 가공해 주라고 한다든지 또 포장해 주라고 한다든지 또 홍보해 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처음에는 한 가지를 해줬다가 나중에 그것이 안 되면 여러 가지를 원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각 팀에서 홍보로 나오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꽃차도 처음에 일부분만 시설해 주고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현재 꽃차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1차 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공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일단은 1차 산업화를 해가지고 꽃만 따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꽃만 따서 판매해 가지고는 그 수지가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분명히 뭔가를 앞으로 요구할 것 같은데, 그 꽃차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완도 분들이 맞나요? (예)
어디 분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장미, 식용장미는 고금 쪽에다가…… 아니, 약산 쪽에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도라지라든가 작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끼리마늘 같은 경우는 청산 쪽에 할 계획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완도 어디 분이 시작하시는데요, 어디 면에 계신 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러니까 약산하고 청산 쪽에다가……

□ 우성자 위원

자기가 사는 지역에다가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자기가 사는 지역에다가? (예)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은 이런 시설자금을 일부 할 때,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 없이 막연하게 그냥…… 그 사람들이 해주라는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1차적으로 저희들도 자격증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꽃차 생산한 것을 가공해 가지고 상품화까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장님이 원하시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여기 시험 재배하는 농가들은 순수한 꽃만 생산하기 위한 농가들이고 그 농가들이 직접 어떤 가공이나 그런 것은 안 합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이외에는 추가로 해달라는 것은 없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어느 정도 이 재배에 따른, 시범재배에 따른 농가가 정착이 된다면 저희들이 농가의 소득분석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그러면 농업축산과에 통보를 합니

다. 2~3년 정도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뭐 가공을 했다, 판매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면 “예, 도와줄게. 해 보시오.” 이렇게로 밖에 저희들은 안 들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어느 정도 그 판매망까지 전부 다 루트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판매까지 다 하게 되어 있으니 수입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3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엠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이것 많이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제가 지난번 예산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자료 혹시…… 우리 전남에서도 지금 각 시군에서 전부 다 이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어떤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무상공급을 하는 사업으

로 어떤 영농 환경개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미생물 이엠이 가는 데마다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가져가 가지고 안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창고에 넣어놓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도소에서는 이엠을 만들 수 없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처음에 그 사업을 국비로 받아왔는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직영해야 되는데 직영을 못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처음에 국비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또 그 전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사회적기업에서 먼저 이엠을 생산해서 유료화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무료무상으로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직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위탁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양훈 위원

여기에 자부담을 좀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그리냐면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일반 상식적으로 신청했다가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가면, 진짜 내 돈이 들어가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금년도…… 전년도 권고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부농가에서 진짜 필요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지금 한 달에 농가들한테 20L 기준

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진짜로 필요한 농가들은 한 달에 500…… 뭐냐, 100L가 이렇게 필요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농가들의 기준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을 못하는 상태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농가도 공급처에서 마을에 공급하면서 같이 공급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남아돌아가는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급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되도록 필요한…… 진짜로 필요한 농가들한테 공급되도록 그렇게…… 지금 완도가 경지면적이 한 5,000여 헥타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뿌린다면 우리가 30톤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이 자체에서 그 양으로는 10분의 1밖에, 실질적으로 뿌린다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필요량에.

□ 김양훈 위원

그렇게 농가들한테 이게 진짜 효과가 있고 좋다고 그러면 왜 안 하겠습니까. 자부담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다 구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방 주신 것을 보면 축사냄새 저감효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무상이다 보니까, 귀찮다 보니까 안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축산 쪽에서도 퇴비 쪽에…… 그것 작년에 3월쯤, 모레나 올라가지고 50톤 정도 증액해서 1억을 이렇게 넣은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더군요. 이것은 그렇게 증액할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좀 시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세 과에서 축산과, 어업, 수산 쪽에 계속 올라왔는데, 솔직히 수산 쪽은 거의 다 큰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이것을 진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그래야 낭비성 없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바이오 기능수,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한다

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예산이 양쪽 다 올라오는 것인데, 축산과는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만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저희들이 공급하고 2차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여섯 농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6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빅데이터 한우관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마침 한우농가들 그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제가 그랬어요, 2개 소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미 다 정해져 버렸겠구먼요.” 라고 딱 첫마디입니다, 첫마디. 첫마디가 “이미 사업자가 다 정해졌네요.” 라고 이게 첫마디더라고, 엄청 불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이 전체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소가 큰 현장들은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좀 불신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누구는…… 결국은 다 못해준다는 얘기죠.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니까, 이게 한번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러니까 지도사업이, 시범사업이…… 국비, 도비. 처음에 국비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도비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방비로 해서 3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레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농업축산과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때는 보조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 그 시범 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선정을 정말 공정하게, 어디다가 내놔도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선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항상 수산농가들이나…… 보통 사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청취불능) 하고 나온 사람이 받아가지, 우리 같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받아갑니까.”, 이게 첫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정된 2개소나,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 사업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산을 집행해 준 쪽에서, 행정에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이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왜 그러냐면 서로 축산농가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까지는 ‘본인들이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도 그 사업들을 선정할 때 충분히 농가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물량도…… 솔직히 다섯 농가나, 열 농가나 이렇게 처음에 하고 싶었지만 막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말은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신청하십시오.” 라고 하면 신청하는 농가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애를 먹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축산업무를 작년부터 우리 센터에서 축산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도 금년 처음 축산 시험…… 뭐냐, 시범사업을 처음……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시행했고 내년에도 이렇게 국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방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농가들한테 연성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양훈 위원

만에 하나 하시게 되면 축산농가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엠 공급을 하는데 50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요? (예)

그러면 톤당 얼마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톤당……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 허궁희 위원

아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 생산이요?

□ 허궁희 위원

예, 50톤을 공급한다면서, 1억을 가지고 50톤 공급한다면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집행부 좌석을 보며)

예, 얘기하십시오.

(□ 식량작물팀장 배천호 집행부 좌석에서 - 식량작물팀장 배천호입니다. 지금 생산비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판매액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비 10L는 1만 9,000원, 그다음에 활성액은 5L에 3만 5,000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30톤을 무상공급 5,000만 원을…… 현재 우리가 지원했는데요. 판매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1억 700만 원입니다. 반절가격에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절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요?

(□ 식량작물팀장 배천호 집행부 좌석에서 - 우리가 투자해준 5,000만 원하고 실제

판매했을 때의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2배 이득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제조해서 보급하는 것입니까, 그냥……

(□ 식량작물팀장 배천호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재료로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엠사업단에서…… 저희들이 이엠사업단에다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완제품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구입한다면 그 배의 금액이 들어간다. 그 30톤을 사기 위해서는 1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로.

□ 허궁희 위원

그 가격을 한번 제대로 빼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여기 자료 요청한 것에는 없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1쪽에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 단지 육성해 가지고 5,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농약을 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2개소에 드론을 사줄 돈이 이 돈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드론하고 경작비까지, 영농비까지 해서.

□ 이범성 위원

아니, 그러면 드론을 다른 데에서…… 지금 드론 한 대에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매년 이렇게 들어온 가격이…… 신제품이 나오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한 4,000~5,000만 원 값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가면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범성 위원

2개소를 선정하는데 어떤 그런 룰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논을 얼마 정도 재배하는 사람에 한한다든가 그런 예가 있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저희들이 추진계획에다가 단지로 해서 몇 헥타르 이상 그렇게 규모를 만들었을 때…… 그런 단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단지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개인보다는……

□ 이범성 위원

군민한테 지원을 하는데? (예)

예, 그런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614쪽, 과수 경쟁력 강화가 민간자본이전에 있거든요. 6차 산업화 소득작물 유자, 이 사업추진 과정을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유자가 완도대표 과수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쪽 발전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복합체험시설을 건립해서 거기에서 유자를 체험하면서. 또 할머니장터까지도 개설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에 공업해서 만들어진 제품들도 직접 체험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사업물량이 1개소인데, 1개소 이미 정해져 버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들은 인터넷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나 또 언론에다가 이렇게 공개해 가지고 신청자를 모집해서 그 신청된 농가들을 중심으로 현장 실사까지 다해서 그 점수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 이범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밖에서 듣다보면 “유자하면 누가 받을 것 뻔히 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데에 한 치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끄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우성자 위원

혹시 완도에서 이엠을 공급하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이엠…… 이엠을 생산업체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엠사업은.

□ 우성자 위원

여기 밑에 있는 이엠사업이요? (예)

또 다른 데는 없고요? (예)

그러면 계속 거기만 이용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614페이지, 유자 소득작물 6차 산업, 1억을 가지고 6차 산업이 됩니까. 이것 뭐 아이들 장난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비파 6차 산업하는 데에 돈을 얼마나 넣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 용역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 가지고 자금을 받아와서 진정으로 하계끔 6차 산업으로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6차 산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비파, 유자 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다가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을 가지고 무슨 6차 산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군 전체적으로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여기 고금도 청학리인가, 청학동에서 아까도……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했고. 그러면 6차 산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6차 산업을 해야지. 1억을 가지고 어떤 6차 산업을 하겠습니까, 소장님. 금방 소장님의 설명대로 체험하고 6차 산업하고는 틀리죠. 소장님, 제대로 6차 산업을 해야지. 우리 비파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말썽도 많았지만, 그 자금들이…… 그래도 잘 안 되는 판인데, 1억을 가지고 6차 산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체험장이면 체험장이고 어떤 것이 되어야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6차 산업을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하려다 보면 수십억 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조그맣게 소규모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가내공업으로 해도 안 맞아요. 어차피 뭐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도 지어야 되고 6차 산업으로 하려고 하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1억을 가지고 6차 산업을 하겠습니까?

(□ 주무관 김관옥 집행부 좌석에서 - 과수담당자 김관옥입니다. 지금 유자 대표…… 6차 산업화하는 그 사업이요. 당초에 저희들이 '16년, '17년에 해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7억이 이미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나 가공, 그런 것은 이미 다 들어가고 작년엔 처음으로 가공상품 6종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 어디 고급도 청학리입니까?

(□ 주무관 김관옥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것 새로운 사업처럼 해버리면 안 맞잖아요.

(□ 주무관 김관옥 집행부 좌석에서 - 4톤을 판매하고.)

거기애다가 돈을 지원해 주자는 말인데, 이것은 전혀 센터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질문답변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이것 한 번 더 짚어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삭감대상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3페이지, 보건의료원 주차장시설

확장공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주차장은 현재 약 65대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가 약 70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을 드나드는 민원인 환자들이 하루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드나듭니다. 그런데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만 주차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민원인까지 하면 주차장이 절대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의료원 바로 곁에 인도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협의를 끝냈고, 주차장으로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게 더군다나 치매안심센터건물이 주차장 부지 위에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차량이 약 30대 정도…… 주차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차를…… 거기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확장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업무보고 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위원장님, 간단명료하게만 해주세요. 물어볼 때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리고 다음은 632페이지, 보건의료원 오수관 보수정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오수관이 종종 잘 막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약간 오수관로에 대해서 (청취불능)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보건의료원 관사(우석베스트빌) 오수관 정비는…… 우석베스트빌이라는, 제가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보의들로 해서 관사가 1층에 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종 막힙니다. 그래 가지고 화장실이 오수로 넘치고 그래 가지고, 밤에 그냥 잠을 못자고 모텔에 가서 자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고 여러 번 있는데, 이것을 맑은물 쪽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손을 봐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집 내부라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또

거기 같은 우석베스트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관계가 없는 식으로, 1층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어서 그런지 전혀 무관심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원장님, 답변 끝났죠? (예)

의료원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할게요. 보건의료원 오수관 정비, 당초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전체 한번…… 올 봄인가 전체 다 보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왔네요. 그때 5,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때 4,500만 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대략 한 5,000만 원이 들어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짓기 위해서 전체 한 번…… 오수관로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는 한번 공사를 해놓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민원인들이 오시는데 그런 화장실에, 그런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관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그러니까 정비라고 해놨으니까 식으로 해서…… 저도 이쪽에 아는데 오수관로라는 것은 한번……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끝났는데, 실내도 아니고 관로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석, 거기도 집 한 채하는데 뭘 2,000만 원인가 했는데 3동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고.

그리면 주차장 밑에, 공동장 외벽 밑에다가 한다는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삭감대상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불명수 저감을 위한 CCTV 및 연막시험 4,000만 원짜리는 저희 마을하수처리장 내에 보면 원래 오수만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우수가 좀 들어오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지처리장 기술진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기술진단을 했는데, 기술진단 결과 지금 우천 시 맨홀 주변에서 원류현상이 일어나서 그 원인분석을 하기 위한…… 원인분석을 해야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장 위탁관리 7억 5,000은 저희가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장이 지금 읍면에 42개소가 있거든요. 4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3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3년 위탁을 했는데, 매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위탁처리비입니다. 7억 5,000은.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8,118만 원짜리는, 이것은 슬러지가 대부분 망석리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해 왔거든요. 망석리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해 왔는데, 거기 민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민원사항이냐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당초…… 그 전에는 망석리 자원관리센터에서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까지 받아줬는데 지금은 민원이 너무 많아져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당초 계약된 완도읍 하수처리장이 죽청리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슬러지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외부위탁을 해서 처리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처리비입니다. 또 신지 하수처리장 원격감시체계 유지 위탁관리, 이 부분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질원격감시체계에 대해서 설치를 하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불명수 저감을 위한 CCTV 및 연막시험. 여기 6,000만 원은 어떤…… 여기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수관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완도, 금일, 노화 시가지에 대한 하수관거에서 불명수, 이런 부분이 발견되어서 거기 원인분석을 위한 CCTV하고 연막을 하는 그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도 성내리 일대 오수관로, 이 사업은 완도읍 외곽지역 부분들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저기 소장님, 그 신지 대평 샘골 이것만 하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신지 대평, 거기를 보면 저희가 유인물 위치하고……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치를 보시면, 우리가 위치도 하고……

다음은 693페이지, 마을하수도 중점관리 정비공사도 저희가 유인물을 나눠드렸거든요, 사업위치도, 사업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그것도 그렇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그리고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인데 도서식수원 개발, 그 사업 부분도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시게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맑은물사업소장님의 보충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안녕하십니까? 장보고사업소장 임경진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사적 308호 청해진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 대표적인 인물인 장보고와 관련 있는 사적 308호 청해진유적의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은 문화재청 승인 사항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국고보조사업 신청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적 308호 청해진 유적 시굴 조사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적 308호 청해진 유적지 중 장도를 제외하고 조사가 전무한 상태이며, 이에 군유지 중 생태전시관 옆 300평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통해 장보고대사 관련 유적을 파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 친환경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공원 조성 실시설계비로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가발전 놀이기구 시설 사업으로는 모노레일 150M, 4명이 탑승하는 회전시소, 2명이 탑승하는 수직시소, 2명이 탑승하는 에너지트리시소, 그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1월 20일 장보고동상 부지 내에 조성한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은 관내 유일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군민안전처에서 우수어린이놀이공원 시설로 지정되었으며 놀이와 체험, 체육공간으로써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32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기획특별전 개최 행사운영비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는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완도군 출신 작가를 초빙하여 서예전시실, 동양화전시실, 박공예전시실 등을 상·하반기에 걸쳐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관 물품구입 재료비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는 수립 및 기증을 통해 3,400여종의 어구 등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완도군에서 활용하였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어구를 수집하여 완도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각 마을 어촌계와 협의하여 구입 또는 기증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관 판넬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재난 제19호 태풍 솔릭에 의해 판넬지붕에 균열이 생겨 전시관 실내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판넬지붕 보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2,000만 원의 시설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시관 야외경관 조성 및 환경정비공사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야외에는 (청취불능) 체험을 할 수 있는 선박, 전통민속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놀이기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관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야외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야외쉼터공원을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소장님, 전시관…… 군수님이 이것을 했는데 어떤…… 군수님의 계획이 어때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지금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당장 어촌민속전시관을 폐쇄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2명만 상주하게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어촌민속전시관을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옮긴 다음에…… 그 인력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군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마는 당장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관광객들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음에 박물관을 세운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로 옮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 뭐 막연한 것은 아니죠?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그렇죠, 막연한 것은 아니고, 저쪽 장보고공원으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공사기간도 꽤 많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을 폐쇄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생각에 ‘아직은 빠르다.’ 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는 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인가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지금 준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박물관을 짓게 되면 거기다가 같이 전시관 물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여기에 보면, 732쪽에 보면 박제나 민속품을 계속 구하네요. 돈을 우리가 주고, 3,000만 원. 비싸네요, 보니까 재료비. 이런 것도 계속해야 됩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아무래도 지금 3,400여종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전시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청취불능)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살 수 있는 어구가 있거나 어촌계를 통하거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구입하면 좋을 것 같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 **최정욱 위원**

특별전시회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가요, 그것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제가 그전에도 사업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특별전시회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떻게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주민들이 많이 보러 옵니다. 그 관계자들이 또 오고요. 서예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서예작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마찬가지로 박공예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결론은 관광객들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이 오는 것이죠.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지역민입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저요, 올해는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 또 다시 올라온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무슨 계획이 내년에 정확하게 안 서고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727쪽에 시설비에서 유적 시굴비라고 했는데, 이 2,200만 원을 가지고 시굴이 됩니까? 시굴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이게 용역비입니다. 시굴된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줘가지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꽤 많은 평수가 있죠? (예)

그것을 갑자기 시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 아무 계획이 없죠, 거기에?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계획은 앞으로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을 것 아닙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시굴조사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 용역에 따라서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인 철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9일(수) 08시59분

□ 의사일정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

□ 부의된 안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08시59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대상조서를 보시면서 제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02분 기록중지)

(10시07분 기록계속)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산의 사업설명과 금액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2차 삭감조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해야 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청렴정책방향 행정통계분석 예산편성 1,000만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언론보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난 12월 18일 동아일보에 나온 자료입니다. 곡성군하고 호남통계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곡성군에 귀촌, 귀농인구에 대한 정밀분석을……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인데요. 최근 3년간 약 800가구 1,200명이 곡성군에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나면 단순한 귀촌, 귀농이 50대, 60대 귀촌, 귀농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완도군에 청년인구를 늘려서 중·장기적인 완도군의 인구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통계…… 빅데이터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대해서 핵심계층인 청년인구정책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정책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통계청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완도군 청년인구정책을 수립하고자 지금 대행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동아일보에 나온…… 호남통계청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곡성군과 함께 중앙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이 호남통계청하고 완도군의 청년인구정책을 수립해서 중앙뿐만 아니고 도,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 보고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관광정책과장 정인호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386페이지, 제일 하단 고급대교 관광안내소 신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안내소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 사업을 같이 포함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신설을 왜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층 홀이 약 17평, 중앙이 7평해서 24평이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홀이 17평이다 보니, 버스 한 대…… 44명 정도까지 테이블을 놓고 손님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안내소를 불가피하게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느린섬여행학교 및 작가의집 보수 실시설계비는 지금 현재 민박이라든지 식당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산에. 그런데 문제는 40명 이상의 대규모 관광객이 들어올 때 이것을 일시에 수용하고 잠을 자거나 밥을 먹고 거기에서 세미나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이 느린섬여행학교 말고는 다른 시설을 활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교육의 장소, 세미나 장소 또는 청산슬로박물관 같은 부분으로 해서요, 느린섬여행학교의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재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시설이 개보수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재진단을 통해서 활용방안까지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토요싱싱콘서트입니다. 싱싱콘서트가 내년이 4년째입니다마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싱싱포차와 연계하고 우리 단체관광객들을…… 현재는 오신분들한테 공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단체관광객들이 오면, 최소한 토요일에 오면 같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싱싱콘서트가 우리 완도의

주말 대표상품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황칠특집다큐멘터리 제작,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식품원료 사용 불가 부분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감을…… 저희도 하겠습니다. 수산물다큐멘터리 제작, 이 부분은 부기상은 다큐멘터리지만 다큐멘터리보다는 우리 시기에 맞춰서,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필요할 경우에 특산품방송 제작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만 다큐멘터리이고 실제로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영상이라든지 방송 제작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전복거리 명소화 및 우수외식업 선도지구 컨설팅 용역입니다. 지금 전복거리 명소화사업으로서 시설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 외관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위생하고 서비스 등 운영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설팅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면 그 업체에서 위생등급이 도달할 때까지 컨설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컨설팅 용역이 끝나면 위생이라든지 서비스 분야에서 그쪽 전복거리가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이 용역 이후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없고 이 용역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복거리가 우리가 어렵게 사업을 통해서 지정해 났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위생서비스까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변화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관광정책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금대교 관광안내소 신설은…… 과장님, 신지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 부분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폐지할 것을 이설하면 되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채용하신 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거기는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요. 그 인력들이 고금에 근무할 수 있도록……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이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신설보다는. 신설하면 여러 가지…… 뭐 어디입니까, 신지대교 휴게소에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자료나 건물을 거기로 옮겨갈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조립식이기 때문에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밖에서 관광객들이 내부를 쉽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밖과 소통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관광안내소로서 기능을 갖추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 것을 관광과에서 구상하고 해서 했지, 뭐 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과에서 했던 일들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지적하신 이유 중 한 가지가 과가

많이 소통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물을 고금에다가 새롭게 시설하면서 옮겨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 부분은 필요한 행정재산으로서 필요한 지역, 우리 부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잘 처리해서 뒤탈 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느린섬여행학교 청산, 이 부분이 이전에 뭘니까.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D등급이라고 안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D등급이면, 바로 또 활용하려면 내년이나 그것을 보수한다고 큰돈이 아마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큰돈을 들어서 유지해 가면서까지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런 것을 투자할 때는 소득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 건물을 보니까 상당히 큰 건물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재보수를 한다고 봤을 때 내가 봐서는 작은 돈을 가지고는 손을 못대요.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서.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예, 부의장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폐교들을 많이 사서, 매입을 해서 주민소득이라든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그 부분을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기에는…… 어지간하면 군유재산

은 매각보다는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군에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는 또 느린섬여행학교가 슬로시티 청산도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 상징성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는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저도 내일 모레 청산에 들어가서 주위 여론도 들어보고,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해 보시게요.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관리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내년부터는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싱싱콘서트요, 이게 마량은 잘된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죠. 그러면 완도읍이 더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량에 비하면 인구나 관광지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입지조건이 훨씬 좋고, 유동인구도 좋고 그러는데 거기보다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도 싱싱콘서트 토요…… 하는 것은 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군민들 전체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한다면 빨리 뭔가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은 어때요, 이번에는 잘할 수 있었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자체도 수정을 해야 되고요. 일반관광객들과 군민이 어울릴 수 있도록 상시 운영도…… 어느 정도 관람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

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관광객 부분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유치활동을 해서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완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싱싱콘서트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 음악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야외음악을 말씀하십니까?

□ 최정욱 위원

아니, 싱싱콘서트에 음악 가수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서…… 과장님, 자신하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하여튼 개선을……

□ 최정욱 위원

괜히 써가지고 “아, 이것 잘못됐다.” 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 잘해야 돼요, 이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했는데 전복거리. 아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설명한 것……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추가적인 예산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위생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주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 시설 쪽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춰 졌습니다마는 내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컨설팅 부분은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은 배려했던 것이 아니라 삭감했던 것인데, 이게 그 정도로…… 과장님이 자신 있게 해야죠.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말씀드린 대로 시설은 되어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개선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복거리 내용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하여튼 잘하십시오, 해야 된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과장님, 방금 최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싱싱포차요. 그것 한다고 하셨죠, 토요일 싱싱콘서트.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봐서는 그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보면, 조금 건너가다 보면 물 놀이를 하는 데가 있죠. 물이 나오고 하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바닥 분수를 말씀하시죠?

□ 박재선 위원

예, 저도 몇 번을 가보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공간까지 넓혀서 광장을 만들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거기는 물양장 공간이다 보니…… 어차피 완도항 담당에서는 물양장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 박재선 위원

아니, 그쪽 말고요. 현재 싱싱콘서트를 하고 있는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분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놀이하는 곳. 그 공간에 화단이 있어 가지고 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 광장으로 해서 넓게…… 싱싱포차까지 하신다면요. 그런 계획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요. 공간이 항상 좁아요. 그리고 보면요, 너무 좁은데. 음악이 나오고 놀고 잠깐 그러고 끝나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달리 방법을 해보면 안 될까요?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거기는 공원관리부서하고 말씀하신 의견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것 한번 저는 꼭…… 콘서트를 하는데 공간이 좁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386쪽에 신지에 있는 휴게소는 이동을 못한다는 이 말이죠, 고금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389쪽, 느린섬 작가의집 보수 실시설계라고 했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것을 담당팀장님한테 들었는데요. D등급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수설계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말썽인 것을 안전성을 올려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 계속 느린섬학교에다가 해년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방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도를 높여

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시설이 오래되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이번에 할 때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할 때 어느 정도 그 기능이라든지 보강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추정이라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올 수리가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렇게 되면 청산 사단법인 청산슬로시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운영주체는 사단법인체에 준다는 것이 확정이 아니고요. 그것은 진단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을 것인가 판단해서, 지역…… 청산도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잘해주십시오.

그리 하고, 토요일싱싱콘서트. 우리가 타깃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노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토요일싱싱콘서트는 타깃이 없습니다. 주타깃이. 젊은 층으로 할 것인가, 40~50대로 할 것인가. 타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리고 가면 트로트 가수들도 어쩔 때는 유명 가수가 오고 어쩔 때는 조금 못하는 가수들이 와서 그냥 잠깐 1~2시간 정도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 7대 의회에서 마량, 마량이라고 했는데 마량은 협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협소한데도 마량은 기반시설

이 되어 가지고 식당들이 있습니다. 식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장마차식이 아니고 그냥 하는데…… 먹거리가 마량은 같이 따라 갑니다. 그래서 주관객은 반절이 고급, 약산 사람입니다. 나도 자주 가봤는데, 주관객은 볼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도 이 상싱콘서트를 잘하면 고급, 약산도 연륙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우리 완도읍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강진, 장흥, 순천, 광양, 그 동부권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했던 이 2억 6,000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뭐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보완대로 먹거리하고 같이 연결을 해주십시오. 기존 상인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처음에는 반발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겨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금요일이나…… 보통 보면 우리가 토요일에 하는데 실은 주말이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없고. 그래서 그것도 다시 변경해 보고. 금요일부터 주 타깃을 삼아 가지고, 그 타깃층을 잡아서 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오늘 도 경관심의회 참석차 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관심의회는 관광호텔 자리에 39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건축계장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출장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민원봉사과 소관 294쪽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다고 완도

군 전입 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과 더불어서 축하상품권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연간 2,500명 이래 가지고 5만 원짜리 1억 2,500을 편성했는데. 예년보다 약간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2,500명은 그렇고 예년수준인 2,000명으로 해가지고 1억 정도만 편성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상품권도 물론 우리 지역 농산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완도군에 전입온 세대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2,500 정도만, 예년 수준으로 삭감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297쪽에 전산개발비, 기준점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3,500만 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팀장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현재 기준점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지적 측량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그런 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797개가 됩니다. 기준점이. 그래서 2,80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준점관리담당자 PC에만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기준정보가 소실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런 많은 기술점을 관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울 때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와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요. 3,500만 원을 들이면 주요 사업으로서 라이선스를 추가하고 최신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서버를 구입해서 라이선스를…… 지금 1명, 기준점관리담당자 1명한테 있는 것을 4명한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버를 이용해서 4명이 그 PC를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다. 그래서 최신지적도 기준점정보와 더불어서 지적도 공간정보가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런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강둑이라든가 담장,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지적측량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시대 방식이고 현재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측량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버, 정산장비를 사들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국장님, 전입세대 이것 2,750만 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

2,500만 원. 그것 1억 2,700으로 올라왔는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밑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국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차 삭감조서 9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입니다. 장보고대교 주변 가두리양식장……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삭감한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은 삭감되어 버렸으니까 설명 요만 하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576페이지,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산입력 착오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산물이 전복, 광어, 해조류, 톳, 뭐 미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또 소비촉진행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소비촉진행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글로벌시장 개척 그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먼저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특산품입니다마는 수산물하고 농산물도 포함됩니다마는 특산품에 대한 관련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부분에도 교류행사 1,200, 박람회 참여 1,200, 특산품 페스티벌 참여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 어떤 청년단체라든지 생산자단체에서 각종 자매결연단체…… 지자체라든지 방문해서 판촉행사를 많이 합니다. 완도읍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해오고 있고, 작년 보길면에서도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을 읍면에 그때그때 보조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장 개척 일반운영비, 전반에 대한 설명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선 6기, 7기 들어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전복도 마찬가지고 해조류도 마찬가지고 국내시장이 어떻게 보면 포화…… 과잉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일부 성과는 있습니다마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외국 해외언론사 홍

보 부분도 해외시장 프로모션 수출상담회 관련 예산을 대상으로 했고요. 민간경상보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전복이나 해조류나 수산물가공식품이 굉장히 요 근래 2~3년 사이에 전복장조림이라든지 김부각, 여러 가지 상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고품질의 완도 수산물 생산…… 수산물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도수산물 소비지 직거리 유통센터 임대료 운영하고 직거래 유통센터 장비 설치,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요. 수도권보다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대구, 경북 지역이 저희 유통업체의 시설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저희가 광어,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전복 유통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1차적으로 해서 그 자료가 나오면 지역이라든지 직거래유통센터를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좀 구체화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한 후에 별도로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수산경영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1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요. 거기에 서 전체 다…… 글로벌시장 개척 다 필요하

죠. 더불어 되어 있고…… 그런데 LA 이것만 삭감하죠. 이것만, 2,000만 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LA 부분도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또 LA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민 위주 지역의 (청취불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게 다른 용도로 해야지, 하려면, 특판, 이것은 효과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지금 589쪽에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 1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광어값 내려간 것 알고 계시죠, 단가가. 전복도 3월이면 좀 어려움이 닥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은 홍보지원인데 좀 체계적으로 잘 짜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 허궁희 위원

과장님, 해조류값이 지금…… 광어, 전복이야 그렇습니다마는 해조류값 동향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투스 동향을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투이 작년 예산의 절반가격으로……

□ 허궁희 위원

절반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하실 것이면 빨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지금 작년…… 예년 같으면 한참 나가야 될 때거든요. 지금 뭐 한 차씩 올리던 사람들이 다섯포대,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은 빨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 허궁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동향 파악 해가지고 해조류 이 부분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광어, 전복가격이 좋다. 이 말은 안 해도 뻔히 아니까, 진짜 어가들 원성이 클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좀 심각하게 판단하시고 하려면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589쪽,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 1억 2,000. 여기 1억 2,000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홍보지원이라고 했는데. 홍보는 홍보계하고 관광정책과에서 얼마든지 하고 그러는데,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애당초…… 전복협회에다가 쥐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경영과에서 무엇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경영과에서 독자적으로 광어라든지 전복, 해조류 전반적으로…… 품목별로 소비 촉진을 위한 어떤 서울 KTX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런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없던 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도 없던 것이 갑자기 톡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만 끝나는 것입니까. 뭐 구체적인 것 없이 이렇게 잡어져 있습니까, 예산이?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은 홍보비이기 때문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홍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설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것이 있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1억 2,000이.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전복에 6,000만 원, 광어에 6,000만 원 해가지고…… 지역방송이 됐든 예산이 많이 되면 중앙방송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지역 부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막광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금……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내 정보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어떤 뭐 단체에서 전복 소비촉진…… 완도가 전복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한다고 하니까 편성해 준다고 하니까 편성해 주고. 내 정보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귀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을 좀…… 예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따려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좀 단체들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예산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예산에 편입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이 안 돼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해 가지고 세운다면 모르겠는데, 전 북협회사나 광어협회나 또 다른 협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이 말입니다. 저도 신빙성 있는 곳에서 들었습니다. 속기록에다 적히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글로벌, 글로벌 좋습니다. 그러면 해조류 수출협회라고 해가지고 일곱 업체인가, 여덟 업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산업과에서부터 이 관되어 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수산경영과로 왔는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성과 분석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와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신설, 어떠한 기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생전 없던 물류비 지원, 포장재 지원까지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7,100만 원이 증액되고, 또 자기 물건을 팔러 가는데 항공료까지 군에서 대줍니다.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청취불능) 해야지, 안 됩니까?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몇몇……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업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마는 자그마한 그 몇 개 되지도 않는 콘테이너 몇 개 싣고, 두 개인가 싣고 가서 돈을 이만큼씩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지, 이런 예산들은 해조류나 진짜 1차에서 힘든 어민들한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민들한테…… 이런 예산들을 보면 그런 고민이 없어요, 1차 산업에 대한 고민. 완도 주업이 무엇입니까, 1차 산업이지.

이것 과장님, 다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8,500. 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이런 돈들이 다 들어갑니까. 또 민간이 전 해가지고 1억 7,000 이렇게?

그러면 이 돈도 3, 4억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올리냐는 이 말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그냥 돈을 준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해도 그런 업체들에서는 자기들 사업이니까 합니다. 하는 데에다가 우리가 얹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실적을 업무보고 때나, 질문답변 때나 이것을 가지고 얼마 수출했다고 각 도와 언론사에다가 광고비를 줘가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예산 다 필요합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아까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중합평가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업체선정 부분은 저희가 꼭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업체에도 수출량이 있으니까 전부 참가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수출했던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시장 개척 부분은 시작은 미비할 수도 있으나 자꾸 두드리다 보면 해외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물건이, 좋은 물건이 수출되다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저는 해외시장도 좋지만 내수 진작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5,000만입니다, 우리가 5,000만 인구인데, 내수 진작도 안 되는데 해외수출 해가지고 해조류나 이런 데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것 좀 깊게 생각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삭감대상조서 2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삭감대상입니다마는 잠깐 보

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542…… 액비 공급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지금까지 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마는 올해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새우양식장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살림과하고 중복여부를 확인했는데, 확인했더니 작년도에 간담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석축사업 일부 정비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번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이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업은 저희들이 `17년도부터 1개소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적에 매칭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안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수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양정책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새우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금 두 어가가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두 어가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어차피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의 사업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틈새전략을 위해서 다각도의 어떠한 양식품종을 장려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시오.

□ 우성자 위원

새우농가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폐사와 관련해서 바 이러스나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분들이 어떻게 이음을 일부 썼는데 효과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어가에 농가에 공급해서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어가에서 자기들이 써보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지원요청이 왔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원요청이 온 것이 아니고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장려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양식품종이 이렇게 집중되어 버리면 안 되고 틈새전략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장려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 우성자 위원

과장님께서서는 그분들이 요청도 안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셨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지금 어가들한테 공급하는 것 중에 무료로 이렇게 공급하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자담이 들어가지. 이것은 특혜성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일부 자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자담을 어떻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할 때 최소한 5 대 5 정도는 할 수 있도록……

□ 허궁희 위원
5 대 5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면 10톤이죠? (예)
10톤인데 두 어가에 5톤씩 공급을 해준 예가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사업비가 좀 삭감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사……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효과를 봤다면 반드시 자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완도군이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작은 금액이 아니면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될 수 있으면 삭감은 답변도 설명도 하지 마시고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삭감은 우리가 1, 2차 삭감도 아니고 지금 3차입니다. 다시하기 뭐하니까……

과장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 이것 애당초 전년도 사업할 때 해수부 매칭사업인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수부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 해수부에서 전혀 없고, `19년도도 매칭사업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첫 목적대로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해수부한테 올라가서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강력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해수부가 해준다고 하면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깨끗하고, 이것을 보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바닷가에 테크를 깔고…… 테크 그것 한 1~2년이 지나면 참 흉물스럽습니다, 테크 이것이. 다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어업인들이…… 어업인들만 아니고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지역민들이 관례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거든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과장님, 차라리 이런 부분은 환경산림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고소, 고발 조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과 쓰레기 수거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언제까지…… 가정집 쓰레기, 지금 읍사무소 환경

미화원들이 규격봉투에 안 내놓으면 안 가져 갑니다. 우리도 원인자 부담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안가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일부 수거하고 거기가 흉물스러우니까 이것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로는 쓰레기를 못 버리리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느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여기에서는 어디 이 사업을 했던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1년 예산 그 사전 몇 백억을 다 쏟아붓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류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또 우리가 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산 쪽에서는 어민들한테…… 내 집 앞 내 쓰레기는 내가 치우지 않습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이전 7대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했던 문제입니다. 원인자 부담을 시키자. 우리 정책과에서도 쓰레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쓰레기 예산만. 뭐 365기동대나 바다지킴이나 이런 것 다 수거하면, 이런 것을 합쳐버리면 얼추 5억, 6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불 때 오면 다 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면 애당초 취지와 벗어나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차 삭감조서 내용에 들어있는 설명 요사업 1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해양치유프로그램 관련은 해양치유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사항이고요.

311페이지, 완도 상징노래 이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하고 문화원 지역문화사업, 문화원 운영비,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총괄 5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매년 5억 정도 확보되어서 문화예술 관련 공연비용을 세워서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청취불능) 공연이고, 이것은 문화예술단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크게는 13개 단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47건에 소규모 단체까지 관리하면서 이 5억 7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5억 3,000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월에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그 사업 프로그램별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보조금 5억 관련 내용을 분배해서 결정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문화예술공연과 관련

해 가지고 편성 요구된 5억 500만 원은 기획, 초청, 공연, 대중가요, 콘서트, 뮤지컬, 연극, 문화행사,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관련 5억 500만 원인데요. 이 돈은 저희들이 매년 문화예술전당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추진해야 될 공연들을 연 초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종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관련, 복지 관련해서 수요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횡수를 내년에 조금 더 늘려서 공연을 해보고자 금년에 16회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21회 정도 공연할 계획으로, 금액이 7,000~8,000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민들은 공연 횡수를 많이 늘려달라고 하고 또 수준 높은, 질 높은 공연을 하려면 공연 1건당 프로그램별로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A급 가수, 예를 들면 뭐 B급 가수, C급 가수. 누가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수준 높고 질 높은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장보고창작판소리 공연 2,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돈 1억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하고 있는, 용역이 하나 있는데요. 해상왕 장보고 관련해서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이것이 납품되는데, 이 창작 판소리가 만들어지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시 우리 군민들에게 이것을 공연하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장보고수산물축제나 그리고 가을에 하는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를 할 때, 그런 대표적인 행사할 때 공연도 하고, 일례를 들어서 방금 2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는 여타 다른 행사 때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어차피 돈 1억을 들여서 이 창작 판소리를 만든 것이니까 공연을 하고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연행사로 2,000만 원을 세워놓은 돈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금일 전철후게이트볼장 시설 관련해서 토지매입인데요. 이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당초 군유지에다가 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인데 매년 2년 주기로 읍면에서 축제를 합니다. 금일 다시마축제를 금일에서 하게 되는데, 다시마축제 행사 공간 일부분에다가 당초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기로 했다가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좀 행사장이 협소해 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별도로 부지를……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국가 땅, 국유지를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옮겨보라고 해서요. 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6억을 이월해 났고요. 그와 관련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해야 될 돈 2억 5,0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비 2억 5,000이고요.

321페이지, 그것 과목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기로 한 것이고요.

322페이지,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탠드 관계자료, 사진자료를 보시면 노란색…… 있습니다. 금이 가있고요. 외벽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죠. 공설운동장 전체가 뱅 둘러서 540M 정도 되는데, 그 둘레만. 그 안 내부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고 의자가 없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의자는 다른 사진을 빌려와서 거기에다가 해놓은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의자를 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스탠드를 보수하고 거기에다가 의자를 세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설운동장 외벽 디자인시설, 그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사진자료가 있는데요. 방금 설명 드린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스탠드 보수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여기 스탠드 보수사업은 국민지역진흥공단에 국비사업을 끌어와서 국비를 받은 사업이고요. 외벽 부분, 정비해야 되는 이 부분은 순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어차피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같이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벽이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그림을, 벽화를 이렇게 그림 계획입니다. 스포츠 관련 그런 벽화를 그리

고 해서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그런 체육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외부 디자인시설을 하는데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야구장 외야 LED 스포츠 조명시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에 내야 쪽에, 잔디가 깔려 있는 내야 쪽에 4개소를 설치해서 3억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외야 쪽에 2개를 설치해서 주변 민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산, 임야 쪽 방향으로 조명을 할 것입니다. 물론 불이 켜지면 환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방향, 각도나 이런 것을 잘 조절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으로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2억 2,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중간 지점에 군취업 우수선수 지원, 이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윤리 선수라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완도출신인데요, 이 선수가 각종 대회에 나가고, 전국대회나 각종 대회에 나가서 완도를 많이 홍보도 하고, 실적으로 금메달도 많이 따면서 선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리 선수에게 매년 선수훈련비나 이런 비용들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설명 요 삭감조서 상에 들어있는 비고란에 뭐 법적 근거자료를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국민체육진흥관련법 제14조에 포괄적인 지원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전에,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라도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를…… 구체적인 근거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이 서있는 이 부분 4,600만 원은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문화체육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 야구장 LED 조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지훈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호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동호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10개 팀에 한 350여명이 있는데, 각 읍면에 완도가 6팀, 노화, 군외, 고금 1팀 사업자가 있는데.

□ 김양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동호인들이 활동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전지훈련을 동계에도 오지만 하계에도 옵니다. 그래서 하계 때는 밤에 활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충적인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생활체육동호인, 37개의 동호인들을 위한, 야구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 김양훈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런 부분이 조금 시설이 더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일로 걱정스러웠던 것이 이런 것도 있지만 시설해 놓고 사용을 안 하다 보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시설투자비가 적은 액수가 아니고 2억 2,000 그전에 해놓은 사업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야구장에 거의 10억, 11억이 넘게 들어가죠, 11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설치만 해놓고 활용도가 낮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마…… 동호회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야구장이라고 하지만 그라운드 내에는 나중에 야구를 안 할 때도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종합적으로 체육시설물이 들어섭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다각도로 잘…… 이렇게 활용도 있는 것은 찾아보시고요.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최소 인원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왕 설치했으면,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전지훈련 이렇게…… 유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액수만…… 이렇게 시설만 해놓고 나중에 무의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 이것도 예산 집행과다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창작판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 창작판소리.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창작판소리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까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 2월이면 어떻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2월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완료가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2월에 납품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시연하고, 이런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000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렇게 하고, 시설비에서 이것이 계속 이월되는데 스탠드하고 외벽하고 빨리 빨리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보상금에서 이윤리 선수,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월급…… 기본급까지 나오는 월급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올해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국장님이 와계시는데 국장님들이 문화체육과장을 할 때부터 이것이 계속 나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선수도 아니고, 우리 군 소속도 아닌데. 뭘니까, 전지훈련비 지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기본급에다가 훈련수당에다가 경비라고 체력단련, 명절휴가비. 꼭 우리 군에 취업되어 있는 역도선수들한테 하듯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군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경기에 나가면서 완도군을 달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법적근거를 빨리 만드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 그때 문화체육 그쪽에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그분들이지,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혜성입니다. 이것도, 뭐 한두 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근거는 마련해 놓고 보내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바로 이것 만드십시오, 근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우홍창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장 우홍창입니다.

정명성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치료차 광주병원에 가시게 되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

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및 완도군 민간단체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고 전라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중 공익활동을 못하는 단체에 대하여 매년 초 공모와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비영리단체는 변영희 등 총 5개 단체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군변영희회에서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해지 발간사업과 지역리더 희망완도 워크숍사업비 2,500만 원, 건강한 지역사회 운영협의회에서 군민건강걷기대회 2,100만 원, 완도군청년회에서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개장 2,000만 원, JC완도청년회에서 완도군민과 함께 하는 슈퍼스타JC 1,000만 원, 빙그레완도청소년 체육대회 900만 원, 나는 완도인이다 1,300만 원, 완도인과 함께하는 빙그레어울림축제 7,000만 원, 사랑의 김, 미역 보내기 운동본부 김, 미역 북녘 보내기사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의 단체는 전라남도에 다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과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이쪽 다른 단체도 다른 데에서도 보조가 들어가죠?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우흥창

지금 개별법에서, 법령에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뭐 (청취불능) 새마을, 대한노인회, 여성단체. 각 개별법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을 한 쪽으로 이렇게 합치면 안 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우흥창

개별법상 주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은 그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7번 어울림 축제, 빙그레어울림 축제에金を 그어놔는데 이것은……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우흥창

이것은 일회성 행사로서 그 전이라든가…… 앞으로 이 행사는 추진하지 않을 행사입니다. 올해만 추진되는 행사였습니다.

□ 김양훈 위원

여기 7번은 빼고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7번 빼고. 지금 합계가 1억 2,800인데 여기는 1억 9,800으로……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우흥창

아니, 여기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여기 합계요.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우흥창

그것은 2008년 기준 집행현황.

□ 김양훈 위원

올해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저희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에 유용미생물 보급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까지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이엠사랑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30톤을 납품받아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가 수요가 늘어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과수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완도 대표소득작목 6차 산업화에 따른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차 산업화에 따른 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어 가지고 6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16년, `17년 2년간 이렇게 사업비를 가져다가 고금면 청학동에다가 지원해 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2차 기본사업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6차 산업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충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소장님, 이엠 보급이요. 전액보조로 지급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위탁생산을 해가지고 생산물 완

제품을 저희들이 농가에……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보급.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완제품으로 농가에다가……

□ 허궁희 위원

무상으로요? (예)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자부담을 조금씩 해도 되잖아요. 수산 쪽에는 전부 다 자부담이 20%씩 들어가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아직은 농가에 대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유상으로 공급한 시군이 없어서요. 저희들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만약에 유상…… 유료화를 한다면 저희들도 바로 유료화를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본인들이 사다가도 쓸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농업 형편이 고령화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봄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사다가 쓰라고 그러면 일부 몇 몇 농가는 사다가 쓰시겠지만 대부분 농가는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방금 질문 드렸던 부분에서 한 가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엠, 혹시 성분표 라든가 전부 다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성분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원래 미생물이라는 것이 수십, 수백만 종입니다. 그중에서 농업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발굴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성분표는……

□ 김양훈 위원

미생물도 어떻게 보면 생균제가 아닙니까. 생균제면 생균이 살아 있어야 되고 성분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분표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만들어서 무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성분표 검사를 해보십시오. (예)

해봐 가지고 이엠이 진짜 우리 식물에 얼마만큼 좋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이런 성분표가 있어야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엠 자체가 생균제이기 때문에 다른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세균 감염, 다른 잡균 감염 같은 것을 점검하고……

□ 김양훈 위원

저희들이 생균을 보면, 생균이 어떤 것이냐면 생균이 막 나왔을 때는 생균이 다 살아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고, 데이터로 보면 생균들이 살아있는데, 이 생균이 어느 땅, 어느 물질에 닿았을 때, 풀었을 때 이 생균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생균이 죽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다른 생균을 가지고는 많이 해 보는데 이엠은 못해봤습니다. 나중에 성분표, 이것 결과 분까지 해 가지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완도대표 소득작목 6차 산업화, 1억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돈 줘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있어서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설명이 잘못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유자가 거의 대부분 고흥 쪽에 의존하고 있는, 판매를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도 유자의 명품을 찾기 위해서 친환경 유자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가공품을 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기초적으로 1차, 2차 산업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제때 6차 산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후로 거기 관리감독이랄까,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을 잘 돌아보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좋은 발상인데, 이 500을 들여 가지고, 이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무슨 산업화가 되겠느냐. 차라리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면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 가지고 우리 유자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공모사업을 해놓고 지원받았던 데다가 그냥 돈을 갖다 주는 식, 그렇게 느껴져서 저희들이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유자농기들을 위한다면 사업적으로 크게 해가지고 고흥보다는 나은 그런 정책을 펼 수 있게끔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책임감을 갖고 현장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거기 친환경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 우성자 위원

청학리에서 (청취불능) 하는 사업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거기가 대표로 있는 상태죠.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몇 농가나, 뭐 법인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지금 그쪽에 다섯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여러 명이 계셨는데 요, 그 뒤로 청학리에서 회원 분들이 탈퇴해서 가지고 지금은 다섯 농가 정도 하고 계십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다섯 농가를 갖고 또 다시 이렇게 유자를 다시 재가공한다는 이 말이죠. 청룡

리는 청룡리대로 한다고 그러고, 농협은 농협대로 한다고 그러고, 또 청학리는 그러면 이게…… 지원이, 뭐 돈이 아깝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농협하고 청룡리 같은 경우는 일반 재배 유자를 가공하는 사업이고, 지금 청학리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 가지고 유기농하고 채소, 무농약까지 재배하는 그런 유자에 대해서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생산을 해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일반 재배하는 것하고 같이 고흥 쪽으로 대부분 팔려 나갔던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2016년도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무농약 친환경인증 받은 제품들은 최소한 kg당 2,000~3,000원씩을 더 받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생과로 판매하다가 보조를 해줘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이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현재 이 취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렇죠, 생과를 가공…… 지금 가공제품도 한 다섯 종류가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 유자제품으로 해서 대기업에 어떤 선물세트로도 출하를 하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친환경인증 받았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생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 유자, 친환경하기가 힘든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왜 몇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조해 주고 해야 되는지, 친환경해서 완도 특산품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

도 하는 사업이 없고 행정에다가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세밀하게 물어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잘할지…… 아니면 다섯 농가밖에 안 되니까. 필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다섯 농가도. 사실은 다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 여러 차례 설명을 들어봤을 때 유자 6차 산업화라고 했죠? (예)

구체적으로 뭘 6차, 어떤 것을 가지고 6차를 한다는 말인가요. 유자를, 유기농유자를 가공해서 판매하니까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아까 그랬었죠? (예)

그랬는데, 6차 산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제조해서 뭔가 색 다르게……

유자청은 몇 차 산업으로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것은 어떻게 보면 2차 산업으로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것 자체가 1차 산업이고, 일단 어느 정도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2차 산업으로……

□ 최정욱 위원

그런데 6차 산업이면 뭐를 6차 산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6차 산업은 관광 플러스 체험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관광, 체험 이런 정도면 거의 기계 설비하는 이런 것이 아니구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방금 설명했었습니다마는 1, 2차의 어떤 산업들은 기본적인 그런 사업이 갖춰진 데에다가, 갖춰진 데에다가 그런 6차 산업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유기농 제품을 우리가 알려져 홍보해서 현지에 와서 보고 느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가게 유도도 하고, 이런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하셔야죠. 아까 무슨 제품을 설명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 유용미생물. 갑자기 100%라고 해가지고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올해 본예산에 100%로 인상을…… 꼭 인상이 이렇게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것이었으면 이 유용미생물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전부터 내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4년 전부터 예산서에 유용미생물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 증은 다 끝난…… 농가에서는 끝난 것인데. 그전에는 5,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5,000만 원인데 갑자기 올해 1억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2015년부터 국비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직영을 해야 되지만…… 기존 우리 관내 이엠업체에서 이엠을 유료화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해가지고 무상공급을 할 경우에 그분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그러면 사

회적기업에다가 이것 지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더 보완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농가에다가 완제품을 받아다가 주면 더 낫지 않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소장님, 국비라고 하셨는데요. 소장님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수산경영과, 해양정책과. 이 유용미생물은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는 소장님의 말씀처럼 200%, 100% 나올지 몰라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는 전부 그냥 퍼다 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 두말할 것이 없어요, 이 예산은. 현장에서 농가들이나 소장님하고 관계없는 어가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효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용미생물, 이것은 한 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은…… 우리가 농업축산과에서 많이 잡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증시험이 나오면 농업축산과로 그것을 보내가지고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죠. 소장님, 이전에 소장님도 다 그래 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 위주로 가가지고, 그 시험을 해봐 가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농업축산과로 보내 가지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년도 예산보다, 전년도 본예산에는 있지도 않은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5,000만 원이나 더 올라와서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6차 산업이라고 했는데 소장님의 답변하고…… 갑자기 소장님 답변 중에 팀장님인가 아니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팀장님의 답변하고 전혀 일치가 안 돼요. 제가 1억을 가지고 무슨 6차 산업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소장님이 한다고 했는데. 벌써 1, 2차 투자가, 공모사업으로 댔던 데를 다시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어저께 팀장님인가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대답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과 다르게.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다섯 농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농가는 다섯 농가가 댔든 한 농가가 댔든 그런 것을 떠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10억이 들어가는 100억이 들어가는 진짜 자립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1억 투자해 가지고 고급 유자농가들이 올해는 흥작이라 없어서 못 팔았는데. 그 전년도 풍작 같으면 저도 아는데 고품으로 가가지고 고품 농협에서 천덕꾸러기 당한 것을……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국도비를 받아온다든가 이래야지. 가공공장 6차 산업,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농협에다가 위탁을 준다는가. 아니면 다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가공품으로 해가지고 판매가 되게끔.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금방 소장님의 말씀처럼 7억인가 8억인가 공모사업으로 투자되어 가지고, 이 1억이 들어가서 소장님의 말씀처럼 거기에서 무슨 체험을 하고 어떤 것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다 저온시설이랑 가공시설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거기다가 체험장이…… 실은 6차 산업의 기본적인 것이 체험인데. 체험장이 없어서 조립식으로…… 너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그만큼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소장님, 저도 김영록 의원이 도지사할 때 의원님을 모시고도 가봤고, 또 의정활동하면서 청학리에 가봤어요. 그 유자 법인으로 하는 데, 마을에서 하는 데. 지금 기존의 설계를 가지고도,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체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소가 되더구먼.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것이 가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HACCP 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안에 들어가서 체험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위생상.....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농업기술소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적 부담을 끼쳐드린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2,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시장현황 분석과 육성방안 연구용역 자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완도 5일시장과 중앙시장이 있는데 지금 완도 5일시장은 이번에 개장 초기인데 상점입점자들을..... 상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상인회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중앙시장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5일시장을 공모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연구용역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만약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 공모사업 내용은 특성화 첫걸음시장이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는데, 특성화 첫걸음시장은 서비스 개선과 상인 역량강화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시장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위생 및 청결, 편리한 시골 결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바다환경가꾸기 현장 활동 1,2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군 보조 1,200만 원, 자담 300만 원 해서 총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5쪽, 사회적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6,000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현재 우리 군은 3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대부분이 초기 자본 없이 대출로 시작해서 현재 인건비 지급, 재료비, 대출이자 확보 등 (청취불능)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조한 사업의 상품 홍보라든지 마케팅할 수 있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고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 이득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69쪽과 371쪽, 택시 외부 완도 관광홍보관광료 지급과 택시 외부 완도 관광 홍보스티커 제작 관리입니다. 배부해 드린 그림 별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스티커는 택시차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도안을 스티커를 제작해서 차에다가 부착시켜 주는, 그 스티커 제작이 되는 것인데요. 이 스티커는 한 대당 16만 원이고 군에서 13만 원을 보태주고 자담이 3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차에다가 부착해서 차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광고료는 택시차량에다가 별도로 주게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경제교통과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362페이지요, 바다환경가꾸기 현장활동에 어떤 사람한테 300만 원…… 어떤 사람이 자부담을 하는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새마을협의회에서 300만 원을 총괄부담하고요, 이 1,200만 원을 읍면별로 100만 원씩 해서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아까…… 어제 말했던 그 부분은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어떻게 관련되나요? 아까 그것 있었잖아요. 이것이 뭐였나. 아,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그 300만 원 하는데 자부담한다는 그 말 이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보조금을 신청할 때 1,200만 원 중에 본인자담이 3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것을 읍면으로 나눠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협의회로? (예)

그러면 협의회로 그냥 둥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바다쓰레기라도……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물품을 구입하고 또 회원들이 모이면 식사도 거기서 하고 홍보 플래카드도 제작하고, 그래서 홍보활동도 하면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꼭 돈을 받아간 만큼은 아닐지라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 사회적기업 자립화 지원사업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4개 기업이라고 했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세 군데입니다. 완도네시아하고 자연으로하고 청해진미. 그다음에 이엠사랑으로는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관리감독이 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우리 군에서는 노동부하고 해서 점검을 실제 나가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노동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군에서는 한번 나가보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서류장으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무튼 그 속 내막까지 자세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여기에서 깊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니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참 많습니 다. 이 부분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류만 겉으로 보지 않고 깊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3분의 1을, 이 엠으로 3분의 1을 어디…… 사회 목적으로 기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얼마나 들어왔어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이윤은 적더라도 그 이윤에서 일부를 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품기부를 하는 데도 있고 재능기부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 습니다. 재능기부를 하는 데는 그것을 금액 으로 환산해 가지고 얼마 정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재능기부는 내가 그냥 내 몸으로 기부하는 것이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인건비, 강사료, 이런 것으로 환산하는 것이죠.

□ 김양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윤 이라 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생각할 것 아닙 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윤도 많지는 않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윤은 본다고 하지만 많은 이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까 그 이윤…… 뭐 재능기부 말고, 이 윤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목록 한번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 다)

진짜 이것 재차 말씀드립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적기업에서 전복주식회사도 사회적기업으로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닙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청해진미는 어디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고금 것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고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닌데 경제교통과장님하고 탐장님

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우리 의원들 본연의 임무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자기 관련된 예산을 갖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전화를 다섯 통 받았습시다. 그렇지만 전화하는 것은 좋은데, 모 의원들이 삭감한다더라. 이런 것은 참 안 해야 되는 전화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한테 꼭 필요합시다.” 라고 “통과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라는 전화는 100번, 1,000번도 좋은데. 어느 특정인들을, 의원을 들먹여가면서 삭감조서도 안 꾸며져 가지고 있는데, 삭감하니, 안 하니 이런 것은 아니 됩니다. 과장님이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것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알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홍보물을 보니까 예산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2만 5,000원 광고로 해가지고 지불을 했는데, 여기는 매달 3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산서 상에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재홍 위원

예, 그것 안 나와요? 138대?

(「택시 외부 완도관광 홍보 광고료 지급, 행사실비보상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들며)

그런데 홍보물에 보면 여기는 3만 원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 않잖아요?

(「중간 부분, 포상금 바로 위에」 하는 위원 있음)

(「369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 광고비하고 스티커하고 합쳐져 있는 것, 2만 5,000……” 하는 주무관 있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놓고 와서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 김재홍 위원

4,140만 원에서 거기에는 2만 5,000원 홍보비로 나와 있는데. 여기 홍보물에는 매달 3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 스티커 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것 스티커는 밑에 800만 원인가 잡혀 있어요. 이것은 기재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착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착오인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이것 담당 팀에서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의회에 올 때는 오타 하나라도 세밀하게…… 이것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는데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완도자연그대로 미생물 공급입니다. 완도 명품쌀 계약재배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도 175 농가에 200헥타르를 (청취불능)했으며 올해 공동방제 때 살포한 것하고 농가 반응이 좋아서 작물 생산량이라든가 병충해, 그다음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완도쌀 미질 개선을 위해서 고품질 쌀 계약재배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작년에 공동방제로 3회 정도 했고요. 올해는…… 아, 3회했고 올해는 공동방제로 2회 정도 하면 헥타르당 9만 원씩 공동방제비가 들어가서, 그 약품비가 2,000만 원 정도를 약품비로 하고 나머지는 공동방제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고품질 양념채소 생산 유용미생물 공급입니다. 양파, 마늘, 배추 재배농가에 친환경 유기미생물 및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이엠이 아니고 친환경 재배하면 유기질비료라든가 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배추나 양파, 마늘 같은 연작장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연작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완도산 농산물 가공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아로니아 재배농가 32농가에서 8헥타르 정도 연간 생산량이 한 1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로니아를 원물로 판매하다 보니까 가공품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공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농가가 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명이 사업체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노령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육지부에서는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농가를…… 대가족농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농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하

고 있다 보니까 아로니아 농가 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완도자연그대로 전통주 및 전통식품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4,900만 원 예산을 여덟 농가에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은…… 올해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확보했고, `19년도에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올해 기반대 조성을 해서 내년에 2,000만 원이 지원된다면 완도산 콩을 활용해서…… 지금 소규모로 된장하고 고추장을 전통방식으로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서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농업축산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그대로미 유용미생물 보급에 대해서, 방금 미생물은 2,000만 원 정도 보급한다고 했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공동방제비가 헥타르당 9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공동방제비로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왜 자연그대로미 유용미생물 구입비로 해 버리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미생물 구입하고 공동방제비를 다 포함해서, 작년에도 구입비로 해서 포함해서 했습

니다.

□ 허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아니, 과장님. 쌀 재배 농가 유용미생물이 라고 했는데, 제가 야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유용미생물이 좋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하는 곳이고 농업축산과는 지급하는 곳이지. 농업축산과에서 예산을 더 갖다가 유용미생물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유용미생물도 그냥 방제까지 여기 예산 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면 방제는 방제 예산 목을 따로 잡아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방제할 때 거기 농협하고 협의가…… 농협에서 농협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방제하고 하는 그 부분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것은 잘 알았고요.

전통식품, 그러면 고추장이랑 된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을단위로 하는 곳이 있죠. 신지도 있고 몇 군데가 있죠, 중도리도 있고.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줄니까, 아니면……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런 데하고 일부 소규모 하는 데하고 그런 데에 해주고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이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작년에는 사천 몇 백만 원 했다가 고금도 유자막걸리 시설해 주느라 돈이 얼마 들어갔죠, 전통주 뭐하는데.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작년에 전통공장 했잖아요, 거기를.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작년에 유자막걸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깎여져 가지고 못하고 올해 해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작년 예산에…… 얼른 예산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이번에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 2,000만 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닙니다, 거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전통주 뭐 안 올라와 있는데, 올해. 다른 쪽에 없는 것 같은데.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1,500만 원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전통주가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예, 그 뭐시기로 해가지고. 유자판매장 개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판매장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전통주가 2,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전통주…… 작년에 전통주 부분은 그것은 아닙니다. 5,000 얼마인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된장, 고추장 거기에 대해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과장님이 실토했는데, 나도 몰랐던 것을 실토했는데. 그러면 유자판매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자막걸리를 그쪽에다…… 뭐 1,500만 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나도 보지 못한 것인데. 그러면 목이, 부기가 다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도 그랬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업무들이 이렇게 되는데. 내 업무는 챙겨서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내 업무는 챙겨가야지. 농업기술센터…… 진짜 시험포하고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185농가에다가 공동방제를 3회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유용미생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설명하실 때는 양파, 마늘, 배추 연작장해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죠?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니, 또 다음에 420페이지하고 419페이지하고 별도로……

□ 우성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처음에 설명을 하셨더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랬을 텐데, 과장님이 설명을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보기 좋게 설명하시면 과장님이 고생을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는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23건에 통계목 조정 4건, 삭감액은 42억 1,297만 1,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심의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 인 철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김 양 훈
이 범 성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제26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완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26일(월) 11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및 심사

□ 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출연계획안
2.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1시00분 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383호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출연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384호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출연계획안 심사를 한 다음,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출연계획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383호 2018년도 제3

회 추경예산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3쪽, 저희 과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별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8년도 본예산에 1억을 군 자체로 출연하였지만, 도에서 보증규모 확대를 위해 시군분담금 지원 협조요청이 있어 7,7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신용보

증재단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였고 세부내역은 붙임1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방법은 현금출연이고 출연기관 현황은 별식1, 출연사업계획서는 별지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경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과장님, 1억씩 간 것으로 근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7,700만 원이 올라간 이유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1억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것이고요. 지금 7,700만 원은 도에서……

□ 박인철 위원

그 일방적으로 타 시군에다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22개 시군에다가 출연금을…… 협조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검토배경은 소상공인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2007년도까지 시군에서 출연해 놓은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증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추가 출연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 그러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22개 시군에서 일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예, 김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과장님, 거기 업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보증해 주고, 그 보증해 주는 대신에 상환은 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것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고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상황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부분도 출연을 신용보증재단에다가 해 주고 보증재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먼저 그쪽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심사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상환기간 말씀하십니까?

□ 김양훈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어떤…… 1년의 결과보고를 받고 그렇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사업 저기…… 신청자가 몇 명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문턱이 높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을 한번 봐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이 뭔가 해보고 싶은 데 가서 보면 이렇게…… 다른 어떤…… 생각보다 가서 보면 너무 아니더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제약조건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최정욱 위원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한번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7,700만 원은 이번에만 하면 됩니다. 아니, 5년만 하면 됩니다. 5년간 7,700을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별도로 군에서 자체 출연하는 것은 매년 1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매년요. 저도 사실은 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워서 도움을 받았었는데 상당히 참 긴요하게 썼어요. 저한테는 군지부에서 활용을 하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이것을 출연하게 된다면 5년 동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이 넘었겠는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러니까 도에서는 5년 동안 해가지고 60억, 6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년 동안.

□ 허궁희 위원

제가 쓴 것만 해도 벌써 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해마다 이렇게 5년 동안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입니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입니다. 해조류, 전복 등 해양생물 자원을 활용한 기술 및 제품 연구 개발 추진과 국내 영세가공기업에 대한 창업 제품 개발 및 신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 (청취불능) 금액입니다. 이것 오타가 났습니다마는 우리 군비 부분만 기정 4억 1,800만 원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7억해서 1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억과 군비 7억 원,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가공 대용량 동결건조시스템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입니다.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방법은 현금출연입니다. 출연기관 현황은 별지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사업계획서는 별지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총 10억의 사업비로 동결건조시스템 구축사업하고 기타 분말제조기, 포장지 사업, 추가사업비는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자체사항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공단지에서 이렇게 식품가공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다가 급속동결장치를 구축해서 그 필요한 업체들이 (청취불능)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수산경영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동결건조기가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우리 지역에는 동결건조기가 없어가지고 매생이라든지 전부 강원도에서 제조를

한다든지. 전부 외부에서 무안하고 해가지고 강원도에다가 해서 이렇게.....

□ 박인철 위원

아니, 해조류..... 여기 뭐야, 센터에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전복주식회사는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전복주식회사에도 동결건조시스템은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도 기관인데 도에는 3억, 우리는 7억이나 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해양 여기가 기능이 원래 연구기능인데. 해양바이오센터장을 보면 연구는 개뿔이고 거의 판매 쪽으로 돌아다니던데, 이 양반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전 센터원장이 있을 때는 거의 연구 쪽으로 갔는데 이번 원장이 와가지고는 연구는 뒷전이고, 원래 이것 해양바이오 연구목적인데 요즘 거의 보면 판매 쪽으로 다니던데, 연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 인원도 1명 거기다가 지원해주고 해년마다 우리가 출연을, 출자를 해주는 데. 또 이런 시설까지 도비를 받아서 하지. 도비 3억에다가 도 군비를 7억이나 넣는다, 이 말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농공단지.....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역 농공단지..... 한화식품 뭐 완도 매생이, 완도 매생이, 완도 매생이가 얼마나 급속 냉동됩니까. 지금 완도 매생이

같은 것은 급속 냉동해 가지고는 다음 연도의 작품을 다 버려버려요. 이런 것들이 출하 시기에 맞춰서……

이번에도 지금 12월 달에 매생이가 나오는데 매생이가 출하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출하할 시기에 같이 풀어 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생이값만 더 떨어트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거기에 설명을 드리면 동결하고 건조까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동결만 하는 그 시스템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년마다 군비를 집어넣어야 되냐고. 그러면 뭐 자기를 시설할 때마다…… 그 전에 창고를 지을 때도 해줬잖아요, 이전에 자기를 창고 지을 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저희도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비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군 기업을 생각하면 위탁가공비나 물류비라든지, 또 원가 상승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군에도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제품을 소량 생산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급속 동결…… 그러면 완도전복주식회사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알기로는 전복주식회사에서 여기로 했다가 전복주식회사에 기계가 놔져가지고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복주식회사에서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주식회사는……

□ 박인철 위원

애당초 여기에서 사용을 하다가, 전복주식회사는 자체 기계를 놔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우리 주무관에게 설명을 들어서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식회사에 있는 것하고 신규로 짓고 있는 수산물류센터는 동결건조가 빠지고 급속 동결장치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차이가 있는 것이 건조까지 들어간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해주라고 그러면 없는 군비를 이렇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원래 도 산하니까 도비를 좀 갖다가 5 대 5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몰라도, 거의 여기 준 테를 보면 3대 7로 해가지고 도비 3억 받아가지고 왔다고 군비 7억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군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이 말이에요.

(집행부 좌석을 보며)

아니, 우리 담당주무관이 수산정책과에 있을 때 이것을 해봤으니까…… 내 이 말이 잘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수산정책과에 있다가 수산경영과로 와버렸네요, 이 업무가.

(“ 사업은 작년에 2017년 5월 달에 전남도지사권한대행이 방문했을 때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건의한 내용으로, 그 당시에 도비와 군비로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추진하자고 했는데, 도에서 도 예산범위에 따라서 도 지자체의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대로 안 세우면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한다고……” 하는 주무관 있음)

순수한 우리 군의 사업이 아니고, 이 해양…… 뭇니까, 이것. 연구센터가 도 산하가 아님니까, 우리 군 산하가 아니고, 이것 도 자체예산으로 가지고 들어가야지. 뭇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 군 소속이 아니에요, 여기가.

(“ 군비가 더 확대된 것은 거기에 우리가

기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공장하고 거기 부대시설은 농공단지 그 안에서 별도로 자부담을 해가지고 추가하기 때문에 5억 정도 (청취불능) 3~4억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그러니까 나도 여기 회의를 2년 동안 참석해 봤는데, 도 해양수산유통과장인가 안 옵니까, 회의할 때마다. 내가 그분들한테 항상 왜 당신들 예산을 안 내어주고 꼭 우리 군비를 가져가느냐고 그랬는데.

이 해양연구센터가 우리 군 것이라고 하면, 군 자산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리고 이 해양연구센터에서 완도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 전체를 커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완도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내가 심사위원으로 가봐서 이것을 잘 아니까 하는 말이에요. 최소한 5대 5는 되어야지, 3 대 7로 해가지고 도에서 주라는 대로 다 주니까. 자기들은 무슨 2%나, 20%나 내놓고 나머지 다 군에서 주라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한 가지 설명 드리면 그제 도 출연기관이 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시군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 박인철 위원

알아요, 몇 군데 있는데. 내가 심사위원으로 2년 동안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동결건조시스템도 그때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최대한 예산을 주려고 하면 5 대 5는 되어야지, 3 대 7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업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22개 시군 업체에서 다 들어와……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여기 심사만 통과하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주면?

(“ 용량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하는 주무관 있음)

용량이 처음 애당초 내가 할 때 500kg짜리 2대로 하든가, 1,000kg짜리 하나를 할 것인가. 그것까지 내가 아는데.

(“ 1일에 5kg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율을 했지만 한 대짜리, 1,000kg짜리 한 대로 할 것이냐, 2대로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 어업인 가공업체들이 아예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2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2대로 한 것이고. 군비가 더 늘어난 부분은 거기다가 가공공장 그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농공단지…… 그 안에서 자부담으로 부대시설하고 건물하고 금액이 한 3억 정도 추가된 부분은 해양바이오센터에서 대비를 해서 이렇게 군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국·도비를……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받아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해 봤습니까, 국비 받아오려고. 그것도 우리가 안하고 도에서 해야죠. 도 유통과에서.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그러니까 도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전부 시군에다가 밀어붙여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양훈 위원

이 동결건조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13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인 면적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1일 1,000kg, 1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결건조하고 부대시설, 그리고 저장시설, 제조분말시설……

□ 김양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동결건조기라는 것이 최하 60도, 마이너스 60도예요. 60도가 되려면 평수에 비해서, 이 상가가 산출되어야 되는데. 여기 급속냉동창고는 건조기를 빼고 급속냉동창고만 해도 단가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내가 봐서는 몇 평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되겠어요?

(“ 200평 규모로 해가지고……” 하는 주무관 있음)

200평이요?

(“ 예, 200평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시스템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급속냉동실하고 같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자체 동결건조기는 몇 평인지 모르겠네요?

(“ 그렇습니다, 실은……”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몇 평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산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그 건조기가 딱 1,000kg라고 해가지고 규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문제작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주무관 있음)

지금 일반 매생이 어가들도 급속동결기만 설치를 해요. 기본적으로 20평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매생이 그것 때문에. 어가 자체적으로도 지금 제가 알기로 두세 군데가 이번에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바이오연구센터가 연구기관 아니에요. 연구기관인데, 연구하려고 했으면 몇 평짜리를 짓는지 아니면 좀 크게 지어서 어가들도 와서 동결건조를 할 수 있는지. 그것 지금 전혀 파악 안 된 것이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니, 거기에 어차피 냉동동결시스템이 들어가면 수수료를…… 아무나 이용 가능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이 평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어

가들이 와서 어느 정도 물량을 동결건조에서 빼나갈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면적 내에다가 아마 건조기를 해서……

□ 김양훈 위원

아니, 면적이 금방 200평이라고 했는데 200평 가지고는 택도 없는 예산이고. 동결건조기 자체만 가지고, 어가들 것도 받아주고 이렇게 해주려면 최하 50평인데, 그 물량을 빼줄 수 있는 것이. 내가 보니까 뭐 금액만 달랑 써놓고 산출근거는 거의 없어요. 10억을 가지고 몇 평을 짓는지도 모르겠고, 뭐 200평…… 부대시설을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바이오연구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만 주시오.”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돈만 주세요.”, 이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약간 좀…… 사업계획서가 세세하게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이오연구센터는 연구목적이고, 자체 뭐 이렇게 수익만…… 장사하는 이런 형태더라고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산출내역도 다시 한 번 뽑아보세요, 이것.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선 위원, 최정욱 위원 동시에 손을 들)

최정욱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최정욱 위원

여기 해양바이오센터,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타군도 이용하죠. 우리 완도만 이용합니까, 타군도 이용합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아까 박인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입 주신청서라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연구센터가 벤처, 그러니까 사업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신제품 생산까지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도, 전라남도 지역은 아마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 내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 바이오센터를 이렇게 보면, 연구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체를 위해서 시설하는 이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농공단지 내에 업자들이 주로 건의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업체들이 건의를 했어요. 어떤 형태로 건의했으며, 어떤 회의 때 가서 그런 내용을 받았는지 설명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제가 알기로는 고금, 약산 쪽의 매생이라든지, 기타 전복. 구체적인 업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 최정욱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업체들이 주로 건의를 해서 그랬다는 그 내용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농공단지, 어떤 그런 구조적인 회의라든지 토론을 한 것을 전혀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서 그런 업체의 요구를 받았는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아까 그렇게 말을 했으면 언제 어느 때, 어느 회의 때라든가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맞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특정인에 의해서 이것을 시설한다는 느낌이 보이지, 지금. 안 그래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언제 어느 때, 어느 자리였다가 아니면 어느 업체, 어느 단체들이 뭔가 내용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어느 특정업체에 그냥 설비해 주기 위한 어떤 느낌적인 것이 보이는데, 제

가 거기에 있어봐서 아는 거예요.

“농공단지 내에 사무실도 두라, 직원 하나를 두고 토의도 해라.” 라고 이런 것을 저번 군정질의 때도 했지만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어. 농공단지 내의 업체들과 어떤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데에서 어떤 요구가 와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는 해요, 지금. 그런데 어디서, 아까 말할 때 업체들이 했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들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매생이가…… 고금에 매생이주식협동조합이 있고요. 약산에 주식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일 큰 요구는 거기 매생이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가 이렇게 소포장, 매생이 건조로 해서 상품화해 가지고 유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두 회사가 이렇게,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한 군데는 강원도 속초, 한 군데는 무안 쪽에서 전부…… 이렇게 외부에서 해오더라고요. 그런 업체가 관내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타 농공단지 업체도 제가 구두로 들었습니다. 일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완도군 전체적으로 수산업, 어떤 가공상품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업체에 맞춰서…… 이 해양바이오센터가 연구기관인데 연구할 만한 기계를 설비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업체에 보급하고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산설비를 갖춰서 제품생산을 만들어 주는 느낌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당초 설립할 때 연구실 목적도 있지만 기업 (청취불능) 해 가지고 대량생산은 아니어도 각종 멸균기라든가 포장,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규모 이렇게 급속 동결……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

면 신제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량,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고급 매생이협동조합, 거기에서 요청했다는 얘기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예, 거기서 매생이……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 그런 데에서, 한 군데에서 요청한 것 가지고 사업을 올리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지 않냐.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도 좀 듣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 좀 상세히 알아보고, 아니면 그런 돈을 투자하더라도 농공단지 내에 사업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설계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복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복을 급속 동결냉동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그런 것을…… 신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소량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군에 있는 것하고 다른 곳에서 외주해서 하는 것하고 원가라든지, 신선도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도 수산업 가공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급속냉동건조기가 완도에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깊이 있게 논의하고 듣고 해야지. 그냥 간단히 몇 개 업체가, 한두 개 업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그런 식으로 보고하는 그것은 안 맞죠. 뭐하면,

그래도 예산을 짜서 하면 적어도 이리이러한 토의를 했는데 이런 정도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여러 업체가 해당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이런 보고가 되어야지. “뭐 이리더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개 업체에서 말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그런 절차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심도 있게 그만큼 생각을 깊이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쪽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할 때 정말 깊이 있게 토의도 하고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또 이것을 놓은 지도 몇 개 업체만 알지, 몰라. 그만큼 홍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대화와,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좀 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서 어떤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야 맞죠.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

(김재홍 위원, 박재선 위원 동시에 손을 들)

잠깐만요. 김재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재홍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그쪽에서 원해서 한 것입니까, 군에서 원해서 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원해서 한 것이죠?

하마터면…… 보면 여기에 나름대로 계획서라고 들어와 있는데 견적서라도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일단 회사에서……

□ 김재홍 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전혀 없고 뭐 동결건조 해가지고 5억 1,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견적서라도 첨부해야지.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회사에서는 아마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마 그 부분별로 건축 부분, 동결건조 부분 전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는 안 됐습니까마는……

□ 김재홍 위원

(자료를 들며)

이게 뭐예요, 추정예산안 심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 견적서라도 첨부해 줘야 하고.

그리고 지금 세 분의 위원들 말씀을 들어 보면 연구센터인데 사업적인, 이런 부분이라는 얘데요.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시마가공공장을 봤는데 250가지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연구는 연구의 목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본다고 해도 추정예산안을 보면서 견적서 하나 없이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세부견적서를 넣었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아니, 자꾸 그런데…… 산출기준은 나와 있는데, 세세하게는 안 나와 있고. 이 기준은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못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좀 우리 완도업체에, 여기에 나열된 이 업체뿐만 아니고, 전남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최소한 매칭비용을 봤을 때는 우리

를 3에 넣고 도를 7에 넣고, 아니면 5 대 5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도에서 군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재정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 됐든 간에. 그리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거의 뭐 2 대 8이나 해가지고 다 군비로 해놓고 자기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직원 한 명까지 해주고. 해년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년마다 예산지원도 해주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관리체계가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마는 제가 2년 정도 전에 이전 의회에서…… 업체들이 오면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대학교수들하고도 도에서 내려온…… 어찌됐든 해수부에서도 주무관이, 사무관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해수부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본연의 업무대로 가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에서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분, 그 이사장이…… 뭘니까, 원장이 하는 SNS를 봐도 보면 거의 연구 쪽으로 가고 업체들한테 연구지원을 해주고. 좋고자 하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전복도 해가지고 베트남 수출하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거의 물건 판매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과장님도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오면 도에다가 좀 미십시오, 밀어. 군에다가만 하지 말고. 필요한 사업인지는 아는데 너무 군비 지출이 심하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한화식품하고 몇 군데 이렇게 넣어놔는데. 그리고 하지도 않은 것을 농공단지 업체에서 필요하다면 여러 업체들을 나열해 놓든가 하지. 하지도 않은 업체들이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의회에서 누가 이런 돈들을 승인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올릴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예.

□ 전문위원 추관호

위원님들, 그 전남생물진흥산업원이 개설된 이후에 전남도에서 한방 쪽하고 해양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식품연구센터. 이 부분을 추가로 설립할 때 해양바이오연구센터를 완도하고 고흥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도군에서 적극적으로, 완도에 해조류라든가 수산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완도에서 부지도 제공하고 해가지고 저것을 완도에다가 유치하면서 저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가고 설립했었고.

저것을 완도에 유치하면서 하나의 조건이 반드시 우리 군에서 직원을 1명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요. 두 번째, 이번에 동결건조시스템은 동결급랭하고 동결건조시스템은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완도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해조류라든가 각종 수산물들을 동결건조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두 번째는 얼음이 없습니다. 얼음, 최근에 (청취불능) 에서 조금 생산하지만 우리 수산유통이라든가 가공차원에서 동결건조시스템하고 얼음저장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동결건조시스템은 평당, 지금 보니까 1톤짜리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500kg짜리 2개를 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500kg 2개 정도 놓는다고 하면 1개당 10에서 15평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현재 인근 대구면에 보면 매생이공장, 한 80여짜리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현재 1톤짜리가 2개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 동결건조시스템을 개인들이 설치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은 매생이뿐만 아니라 저온동결건조시스템이 갖

춰지면 각종 해조류, 심지어는 어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결건조시스템의 핵심은 마이너스 18도하고…… 이동식 그 안에서 급랭을 시켜가지고 건조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특히 해조류 가공 또 유통, 이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고.

단지 아쉬움이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5 대 5로 한다면 7 대 3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또 도에서 생각할 때는 매칭펀드 비율이 좀 있고…… 예산이 작은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완도에서는 동결시스템이 필요하다. 단지 최정옥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앞으로 동결건조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바이어…… 우리 관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검토와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전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다음 본안전에 대해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3호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4호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보조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예산만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인철 위원

국도비 변경사업이라고 했소, 뭐라고 했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국도비보조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예산만.

□ 박인철 위원

그전에요, 그전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국도비변경사업.

□ 박인철 위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예산계장님, 국도비 변경이라는 것은 예산 삭감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 이인석 주무관 집행부 좌석에서 - 증액이나 신규로 반영한 사업만……)

국도비가…… 신규가 어디에 있어. 증액이면 증액이고 그렇지.

(□ 이인석 주무관 집행부 좌석에서 -

신규로, 추가로…… 2회 추경 이후에 신규로 반영된 국도비들이 몇 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사항입니다. 편성방향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 조정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국도비 반납금을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화와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비는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은 세외수입이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본청 내진보강사업비 등 6건에 11억 8,3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교부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된 99억 6,200만 원을 반영하여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반영액은 115억 6,300만 원입니다. 또한 내부거래로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완도 해양생물특화단지 부지매각대금 3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일반회계 세입증감액은 총 14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 30억 1,90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분 1,500만 원 등 총 30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입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677억 원 대비 117억 원이 증가한 4,854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6.1%, 재정자주도는 56.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4,85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636억 2,700만 원…… 100…… 700만 원으로 147억 2,800만 원이, 특별회계는 218억 3,700만 원으로 30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은 1,601억 9,400만 원으로 99억 6,200만 원이, 국도비보조 군비부담금은 676억 7,500만 원으로 35억 7,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은 65억 4,000만 원으로 1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관련 사업예산은 총 149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군비 자체사업은 예산의 효율화와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총 2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연말까지 소요될 인건비를 추계하여 초과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보수 20억 2,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책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1억 7,100만 원과 성과상여금 5억 7,400만 원, 연금부담금 10억 원은 부서요청에 따라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추가출연금 7,700만 원은 증액 조치하는 등 총 28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와 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예산은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8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이월사업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9월

에서 10월 태풍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자력 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을 별도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풍피해 응급 복구 26억 5,700만 원, 섬 주민 운임 지원 추가 지원사업 1억 4,300만 원, 특별교부세 11억 8,300만 원 등 총 1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세무회계과장 최창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4,854억 6,399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77억 6,25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4,636억 2,736만 원이며 2회 추경예산 대비 3.28%인 147억 2,8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18억 3,663만 원이며 2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3,3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

다음 157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특별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는 163억 1,800만 원으로 자동차세 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수입이 각 1억 원씩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20억 2,984만 5,000원이며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6,22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인 농기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가 330만 원, 사업수입인 보건의료원 의료사업 수입이 7,46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5,500만 원, 이자수입은 이율이 0.17% 증가하여 5억 1,1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1억 2,818만 9,000원이 증가한 48억 1,61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254억 5,65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본청 내진보강사업비 3억 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2,500만 원, 폭염관리대책비 2,800만 원, 안전취약지 범죄예방 CCTV 설치 1억 4,000만 원, 완도 장도목교 보수 및 보강사업 4억 원,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3억 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 재정보전금 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64억 3,93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99억 6,246만 4,000원이 증가한 1,601억 9,442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3억 7,559만 8,000원이 증가한 1,362억 8,73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390만 원이 증가한 364억 7,040만 원입니다. 기금은 5억 4,871만 5,000원이 증가한 36억 6,2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5억 8,686만 6,000원이 증가한 239억

70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78페이지부터 1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해양생물특화단지 부지매각대금 35억 원이 증가한 431억 8,9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257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은 470억 2,423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9,84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 원인은 급여가 좀 삭감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2018년 지방재정 세정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저희들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통신, 상하수도요금 1억 9,2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청사 냉난방보일러 버너 교체 1,500만 원,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에 3,000만 원입니다. 본청 내진보강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편성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복사기 교체 2대해서 800만 원입니다.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하는데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신규복지직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475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삭감 18억 7,800만 원입니

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3,478만 2,000원이 증액된 123억 6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홍보팀업무 예산입니다. 지역이미지 마케팅 전개를 위해서 2019년 해맞이축제광고료로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각 부서에서 감액된 예산 28억 2,676만 8,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 축제광고요, 이거 뭐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해맞이축제광고를 하는데 그 지역중앙지신문광고료가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행사료는 있습니까, 어디에.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연말……

□ 박인철 위원

아니, 행사비가 문화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 보면 행사료도 없는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영상홍보는 관광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해맞이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행사가 어디 잡혔냐는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 말고 다른 실과에.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해맞이 축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얼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것 무슨 신문사 나눠주기도 아니고, 돈 6,600만 원을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말도 안 맞는 것인데, 이것 그냥 22개 신문사에 300만 원씩 돈을 쥐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해맞이 한다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홍보를 좀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누가 보나 이것 신문사에다가, 신문사에다가 그냥 300만 원씩 나눠주기식…… 이런 예산은 안 맞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우흥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우흥래입니다. 정명성 자치행정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제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계속비 신규사업입니다.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018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사업을 3년에 걸쳐 2020년에 완료하기 위하여 1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은 287억 3,662만 2,000원이며 19억 5,278만 원을 감하여 예산액은 총 267억 8,45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95페이지, 군민참여 행사 지원 및 사무관리비로 2019년 연하장 제작에 600만 원, 19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지원강화 공공운영비로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남북교류사업 분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우리 군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086만 4,000원이 감액된 (청취불능)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9억 2,284만 9,000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1억 6,9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맨 윗쪽, 저소득층 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 지원대상자가 약 300명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 1억 1,040만 원에서 1,104만 원이 증액된 1억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부양곡할인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정부양곡할인사업 신청률이 높아 국도비예산 부족으로 연말까지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어려운 상태로 부족분인 정부양곡할인사업비 1,023만 원,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사업비 2,274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위쪽, 노인복지사업 운영 재료비입니다. 독거노인 120세대에 대한 김장 담가주기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맨 아래, 공설묘지 추모공원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추모공원관리사무소 CCTV 고장에 따른 설치료 360만 원,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옥상 물탱크 모터 및 압력탱크 교체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입니다. 맨 위쪽 기타보상금입니다. 화장률 구축으로 화장장려금 대상자가 금년 지원예상 인원인 200명을 초과하여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률은 지금 68%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3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정거장 증축해 가지고 신규가 2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뭘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청산면 신축사업비로, 원래 신축한다고 4억했다가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금 올해 사업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청산면에서 신축한다고 원래는 4억을 편성해 줬는데 부지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못했었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끝나버린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금액이 계수조정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추가로 세운 것은 아니고, 감액했다가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목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불용해 가지고 새로 목을 잡은 것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끝나버렸으니까.

□ 박인철 위원

아니, 예산담당. 어때요?

(□ 예산팀장 최영미 집행부 좌석에서 -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수조정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계수조정만 한 것입니다. 금액을 따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청산, 당초에 전체 예산이…… 3억이 개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신축사업이 8억인데 한 동을 청산면에서 올해 신축한다고 부지를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신축한다고 확정을 했는데, 공모사업으로요. 그랬는데 청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에서 당초 금액을 올린 것은 아니고.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당초 4억이면 4억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죠.

□ 박인철 위원

장소가, 거기 부지가 안 되니까 어디 다른 경로당을 증축했다는 말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거기서 포기해 버리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를 다시 공모사업 받아서 선정해가지고……

□ 박인철 위원

이것 그러면 1식으로 잡아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까, 식으로 잡아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을 딱 정해가지고 했던 사업을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돌렸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안 맞는 것인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에 4억…… 당초에 있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지선정도 어렵고 그래서 4억을 포기해야 되니까 내년에 하든…… 청산은 부지가 결정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 그 4억에 대해서 다른 읍면에 경로당 신축 또는 개보수할 곳이 많아서 공모사업을 다시 거쳐가지고 그 사업범위 내에

서……

□ 박인철 위원

청산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 금액 자체가 신축비로, 개보수비로 나와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기를 세분화시키지 않고요, 신축하고 개보수비는 따로 이렇게 덩어리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다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정기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전체 예산이 156억 5,524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은 158억 5,262만 7,000원으로 1억 9,742만 3,000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운영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848만 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도비 신규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12월분

이 1,848만 원이고 내년 1월부터 본예산에 별도로 교부해서 편성을 합시다라는 도비 30%, 군비 70%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각 반별로 월 6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최근 하반기에 어린이들이 차에서 사망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총 62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310만 원이고 도비하고 국비가 각각 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여성아동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광입니다.

민원봉사와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및 1, 2회 추경예산 25억 8,669만 원에서 3,096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5,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억 2,737만 원으로 국비가 5억 7,827만 3,000원, 특교세가 1,000만 원, 도비가 1,635만 6,000원, 국비가 19억 1,274만 1,000원이며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는 군비 2,835만 9,000원입니다. 243쪽입니다. 민원행정업무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발급대상수가 증가함에 따라 450만 원이 증액된 2,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증가로 인해 축하상품권 지원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여권업무 장비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괄 기정예산액이 215억 1,500여만 원인데, 1억 738만 5,000만 원을 감액한 214억 8,785만 9,000원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완도 문화원 보수정비 2,0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서있었는데요. 이것 부기를 구체적으로 2개로 나눴습니다. 문화원포지판 시설 1,000만 원, 문화원 CCTV 시설 1,000만 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공연전시 관련 홍보 인쇄입니다. 이 500만 원은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평균 한 달에 1회 내지 2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 관련 포스터나 신문광고, 플래카드, 그런 홍보 인쇄입니다. 부족

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 시설비 감은 생략하고요. 문화예술의 전당 비상대피안내 영상시스템 구축 2,2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사전에 영화나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대표로 안내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이 공연법이 작년 11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2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 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다음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역사문화관 실시설계비 1,000만 원 감하면서 역사문화관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수석공원 옆에 보면 관광정보센터가 있는데요. 그 건물에 역사문화관을 나중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건물에 누수가 생겨서 방수 공사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보길 윤선도원림 태풍피해 긴급보수. 이것 6,000만 원은 이전에 19호 태풍 솔릭 피해로 지금 우리 군비 자체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요. 나중에 지방행정공제회예다가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그 돈이 우리 군 세입으로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그 아래 보길 예송리 상록수림 울타리 재해복구도 솔릭 태풍피해 때 피해를 입었던 울타리 보수 관련 490만 원, 이 돈도 군비로 어떻게 하고…… 지방재정공제회예다가 청구를 해서 나중에 들어올 돈입니다. 아래쪽은 전부 감이어서 생략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2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형 족구지주대 세트 구입, 우리 체육시설 운영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족구지주대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 테니스 스코어 보드 구입하는데 400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2017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이 관계는 생활체육종목이 37개 종목이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네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분이 활동을 잘하셨다고 인센티브로 680만 원의 이 돈이 성과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지급해 드릴 그런 돈입니다.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 시설비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

학교 보급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완도초등학교에 VR체험 스포츠게임, VR체험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0만 원. 그리고 중간 지점에 시설비, 완도 군내리 운동기구 설치,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도비, 군비해서 1,000만 원입니다. 완도항 여객터미널, 전라남도 해양…… 완도항 담당이 거기에 상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항 여객터미널에 이것을 시설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기로 세워서 우리 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500, 500 매칭해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드론교육장 지붕 유지보수, 이 관계인데 지금 불목리 해신축구장에 교육장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누수가 좀 심해서 거기 누수공사를 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은 전부 감한 사항이니까 생략하고, 그다음 페이지도 전부 감한 사항이고. 반환금에서 금액이 좀 큰 것이 539만 8,000원짜리. 국고보조금반환금 2017년 국가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보길 윤선도원림하고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1,5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려와서 재난방지시설을 하고, 거기에 남은 잔액이 530여만 원 남았습니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250쪽에 시설비. 역사문화관이 지금 장보고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시설물은……

□ 박인철 위원

지금 관리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장보고유적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여기에 올라왔어요, 역사문화관이라고. 이 목도 안 맞는데 지금…… 목인데. 역사문화관이 뭐가 해가지고 지금 혼자 한참 고민해 봤는데, 없는데…… 이것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보고수석공원 내에 관광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정보센터 건물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관광정보센터 그 건물에다가 역사문화관을 조성하려고 제2회 추정예산에다가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관이 뭐냐면 2층 건물인데 완도역사관, 원교이광사관, 위배문화관으로 1층은 이렇게 조성을 하고, 2층에 장보고한상어워드 홍보관을 만들려고 문화체육과에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설계비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 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1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 돈이 아깝잖아요, 군비로 투자하면. 그래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이 사업을 따오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다가 역사문화관을 조성하는데 기본계획하고 아우트라인 설계비를 하는데 그 비용을 한 2,000여만 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하고 하는 그 비용으로 먼저 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내년도 초에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응모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돈 1,000만 원을 감하고.

대신에 그 건물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가 새고 하니까 이 돈

2,000만 원을 들여서 우선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오면 장보고사업소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왜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와 있냐는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장보고사업소가 관리주체가 되고 있는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박인철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시설계비를 감하다 보니까 다시 문화체육과에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밑에 부기에 역사문화관 방수공사라고 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정보센터이기 때문에 관광정보센터 방수공사 형식으로 이렇게 부기를 정정해서, 일단 장보고기념, 유적기념사업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에 넣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아직 관리주체가 변해도 안 되고, 역사문화관도 저번에 잠깐 의회에 와서 보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있으니까 전혀…… 돈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19분부터 14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완도 5일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2017년도에 14억, 금년도에 12억이 확보되었고 사업기간이 변경되어서 계속비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저희 과 일반세출 예산 관련입니다. 기정 131억 2,826만 7,000원에서 126억 9,778만 8,000원으로 4억 3,047만 9,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입니다. 출연금으로 오전에 설명 드렸던 전남신용보증재단 도 출연금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로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배상 차량 파손이 한 대 되어서 그 보상금 3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물품구입비 4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물품 제작에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5쪽, 중앙시장 전기안전대행점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에너지자원 개발로 도서낙도 자가발전시설 노후측정기 경비로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호 태풍 솔릭 피해복구로 유인도서 자가발전시설 재해복구사업비 2억 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신청이 없어서 7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600만 원을 삭감해서 일반예비비로 8억 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완도해양생물특화단지 부지매각대금 30억 1,881만 8,000원. 그다음에 전기예금 이자수입 1,507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34억 8,290만 9,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완도해양생물특화단지 부지매각수입으로 30억, 일반예비비로 3,4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경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태풍 솔릭 이것은 뭐예요, 차량파손 이것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은 근로자복지센터에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그 차가 파손됐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돼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제 차량……

□ 박인철 위원

그 위탁 받은 업체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위탁은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주변에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주차장 안에서 파손됐는데도 그런다는 말입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지붕 천장에 있는……”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니까요.

(“펜스인가요,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그 펜스가 날아다니면서, 태풍 때문에. 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그 시설물로 인해서 파손됐기 때문에 건물시설물 관리자에게 청구가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하는 주무관 있음)

우리가 그 보험을 넣어놨을 것 아닙니까, 재산 보험. 그 건물에 대한 보험, 태풍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은 보험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하는 주무관 있음)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준공하면 보험을 바로 넣게 되어 있는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보험이 누락되어 있어서…… 착오로 보험이 안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공공건물에는 보험이 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재해, 이런 모든 보험에.

그리고 밑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위탁받은 데에서 뭐를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최초에 개관을 금년 4월에 했습니다. 개관할 때 구입해서 제대로 운영하라고 해준 사항인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못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이것 소모품인데, 자산이라고 해놔는데 전부다 소모품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러면 위탁관리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 다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다가 1년이면 1년. 아니면 단위별로 얼마 냅니까, 돈을 우리 군에다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우리 군에다가 건축지원, 이런 것까지 사소한 이런 것씩 해주고 자기들은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다 자기들 뭐한다는 이 말입니까. 원체 안 맞는데. 그것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 건물 보험 넣었습니까, 이제?

(“ 예,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이기웅

관광정책과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마케팅담당 이기웅입니다.

관광정책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은 당초 예산 175억 8,2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은 전부 감액예산이므로 설명

을 생략하고, 285페이지 부기변경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관광지 기반시설정비 도비사업인데요. 시설비가 보길중리 해수욕장 화장실…… 보길망끝전망대 화장실,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부기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관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 기후변화대응팀장 김경남입니다. 과장님께서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계약심사로 인하여 도청 출장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 예산은 제2회 추경까지 276억 6,830만 4,000원이며 이번 3회 추경시 2억 9,038만 2,000원을 감액하여 274억 792만 2,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 기타보험 포상금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지원사업비 277만 2,000원을. 30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시설비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시설공사비 4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비, 시설비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110만 원을.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시설비에 완도읍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다음은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재료비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비에 264만 원.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 제작 구입비에 66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비에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106쪽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성장축진지역 개발사업은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으로 총 50억의 사업비를 올해 2억 5,000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신청하고자 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군내2지구 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 2019년 6월에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 금액과 실제 지출액 금액과 달라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생일면 서성향 시설공사와 바로 밑에 있는 생일면 덕우향 시설공사, 청산면 모서향 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변경과 지출액 변경에 따라서 상이한 사항을 조정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금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과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중 망석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도 지출액 변경과 연차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8페이지입니다. 보길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과 약산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연차별 사업비 변경과,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정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15페이지, 도시계획정비 시설비사업은 항동리 공영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 사업비로 도비 2억 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주민건의민원해결 시설비는 25호 콩레이 태풍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황제도 선착장 응급복구 1억, 금일 동백 외 소규모어항 응급복구 2,000, 금일 일정 외 소규모어항 2,000, 금일 신평 외 소규모어항 2,000, 신지 모항 선착장 1억, 신지 가인 소규모어항 2,000, 신지 임촌 외 선착장 2,000, 신지 울물 선착장 2,000, 약산 가사 방파제 5,000, 약산 사동 호안대로 2,000, 청산 권덕 외 소규모어항 2,000, 청산 지리 물양장 2,000, 청산 지리 소규모시설 2,000만 원, 청산 모서 호안도로 2,000만 원, 소안 북암 호안도로 3,000, 소안 비동 외 호안도로 2,000, 보길 여항 외 소규모어항 2,000, 생일 용출 호안도로 3,000, 생일 유서 물양장 응급복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완도 장좌 마을회관 앞 광장 포장사업 2,000, 금일 충도 정자 설치 2,000만 원, 청산 도락리 석축 설치사업 2,000만 원, 금일 도장 마을복지회관 진입로 확포장 2,000만 원, 노화 신리 마을회관 주변 테크시설 2,000만 원, 신지 내동~양지 마을안길 확포장 2,000만 원, 신지 신기 마을안길 확포장 2,000만 원, 소안 당사도 물탱크 설치 2,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일 동백 마을복지회관 태양광 설치에 2,000만 원, 금일 사동 마을공동창고 개보수사업 2,000만 원, 소안 노인분회 회관 바닥 보수사업에 2,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일 궁항 마을안길 옹벽 정비사업 2,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금일 구동 호안도로 확포장 3,000만 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작은섬큰기쁨사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서 및 연안낙후 시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산 장용

리 선착장 보강 2,000만 원, 노화 충도 선착장 진입로 확포장 2,000만 원, 금일 소랑 선착장 점안시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사항은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복구에 따른 시설 응급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길 통리 방파제 재해복구사업은 국비 10억을 반영해서 총 21억 6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길 예작도 선착장 2억, 신지 내동리 선착장 재해복구사업 1억 5,000, 보길 선창리 호안도로 3억, 금일 우도 방파제 재해복구 1억.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안 북암리 방파제 재해복구사업 2억, 보길 예작도 호안도로 1,000만 원, 노화 충도 호안도로 2,000, 노화 서리 호안도로 2,000, 약산 가사리 물양장 2,000, 보길 백도 호안도로 2,000, 노화 대정원도 선착장 2,000, 노화 내리 선착장 2,000, 신지 양지 호안도로 2,000만 원, 신지 양지 선착장 1억, 금일 황제도 선착장 2,000만 원, 금일 소랑도 방파제 2,000만 원, 생일 굴전리 방파제 2,000, 노화 내리 호안도로 2,000, 금일 사동리 방파제 2,000, 보길 여항리 호안도로 2,000만 원, 청산 권덕리 방파제 소규모시설 3,000만 원, 청산 읍리 소규모시설 2,000, 노화 노록도 호안도로 3,000, 신지 동촌 호안도로 2,000, 군외 서화도 물양장 3,000, 군외 흑일도 호안도로 3,000만 원, 군외 동화도 호안도로 2,000만 원, 청산 모서 소규모시설 2,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외 동화도 방파제 3,000만 원, 약산 득암 정자 2,000만 원, 금일 구동 정자각 2,000만 원, 신지 대곡 정자 2,000만 원, 보길 부항 정자 재해복구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어항시설 관련해서 태풍 솔릭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도 중도 선착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1,500, 완도 망남 선착장 2,000, 완도 석장 물양장 1,000, 완도 죽청 선착장 2,000만 원, 군외 당인 호안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업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에 시도비보

조금 반환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도비 지원사업 중에 반납분이 안된 것에 대해 도에서 반납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14년 주민숙원처리사업비 반납액 1,800, `15년 도비 집행잔액 3,600, 16년 도비 집행잔액 3,900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성

예,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김준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 안전재난팀장 김준혁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신병치료차 연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9,839만 4,000원이 증액된 322억 3,822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구입비 300만 원. 이어서 326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구입비 5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4,800만 원. 다음은 327쪽입니다. 고금면 장풍 배수로 정비공사 부기정정 1,000만 원, 노화읍 신리 마을주변 배수로정비 성립전 2,000만 원, 소안면 황간도 마을안길 배

수로정비 성립전 2,000만 원, 금일읍 신구리 배수로정비 성립전 2,000만 원, 약산면 우두리 배수로정비 성립전 2,000만 원, 군외면 원동리 용배수로정비 성립전 2,000만 원, 고금면 도남마을 농로확포장 성립전 2,000만 원, 다음 노화 충도방조제 재해복구사업 4,708만 4,000원, 농어촌가로등 재해복구사업 1,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성립전 1억 1,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성립전 2,890만 원, 농어촌 가로등 신설 및 보수 5,000만 원, 군도 16호선 가로등 피해 재해복구사업 1,040만 3,000원, 완도군 도로시설 가로등 재해복구사업 3,049만 7,000원, 신지 군도5호선 재해복구사업 2억 7,900만 6,000원, 다음은 329쪽입니다. 군외 신학천 정비사업 3,000만 원, 완도읍 대신리 소하천 정비 성립전 2,000만 원, 완도 화흥리 소하천 정비 성립전 2,000만 원, 보길면 월송리 하천 정비 성립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안전취약 범죄예방 CCTV설치 성립전 1억 4,000만 원, 무더위쉼터 홍보비 및 폭염대책비 성립전 2차분 1,500만 원, 무더위쉼터 홍보비 및 폭염대책비 성립전 2차분 800만 원, 폭염대책 도로 물뿌리기 장비 임차 성립전 500만 원, 금당 차우리 도로 긴급 복구공사 장비대 성립전 700만 원, 보길 태풍피해 응급복구공사 장비대 성립전 800만 원, 완도군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 성립전 1억 9,000만 원, 332쪽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도로 복구사업 성립전 2,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산책로 법면 유실 성립전 2,500만 원, 해신장보고지구 관광지 도로 및 청해포구 선착장 복구 성립전 800만 원, 버스승강장 및 정류장 파손 복구 성립전 7,000만 원, 신지 동고리 군도 17호선 응급복구사업 성립전 1,400만 원,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금속 천장제 복구사업 성립전 800만 원, 각종 사회재난 응급 복구 동원장비 임차 1,500만 원, 6월 26일부터 7월 4일 발생한 호우 및 태풍 피해 재

난지원금 성립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성립전 23억 550만 원,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성립전 12억 2,430만 원, 약산 당목 창조적마을 만들기 토지매입 주민부담금 목변경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해양정책과 2018년도 3회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해양정책과 기정액은 179억 4,537만 9,000원으로 금번 3회 추경에 3억 1,947만 9,000원이 증액된 211억 3,9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민간이전 섬주민 차량 운임지원 사항 및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예산을 소진하여 군비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도교 정비사업은 읍면에 있는 부잔교시설 중에 읍면에서 긴급 복구를 요청한 노후시설물 2개소를 응급복구하기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복구 시설비 고금면에…… 4개 읍면에 대해서 부잔교시설과 완도읍 다목적 인양기시설 재해복구를 위해서 총 2억 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고수온피해 예방사업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정비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업비는 액화산소 공급에 사용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하단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도비 보조 사무관리비는 도비, 군비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태풍쓰레기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긴급요구해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청정해역 보존비 사무관리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비 지원은 제15호 태풍 뿌라빠룬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장비 구매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군비 각각 2억 원씩 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비 구입은 절단기 2대, 소각기 1대, 더블캡 차량 2대로 절단기는 감용기 차량에 장착해서 사용하고 소각기는 차량에 탑재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 및 시설비로 국비 18억 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 연구용역비,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보전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수립 및 자원특성 조사 1억 원은 기존시설비를 사업성격에 맞게 연구용역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이관에 따라 수산경영과에서 지정액 4억 4,046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동금액을 우리 과로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입니다.

우리 해양치유과 3회 추경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노르딕워킹이라든가 요가매트, 스틱 같은 것.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용역비를 감했습니다. 차액 남은 것을. 그다음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포상금, 투자실적이 없어서 포상금을 600만 원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해양치유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수산경영과 2018년도 제3회 추정세출예산 편성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수산경영과는 제2회 추경보다 21억 2,246만 6,000원이 증액된 323억 5,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새싹 수산가공기업 지원 사업은 수산물 가공식품 신규창업기업에 초기 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제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한 가공기업 역량강화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 군비 1,600만 원, 자산 800만 원 등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번 3회 추경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고수온 피해예방 지원 도비 5,400만 원을 유해생물구제사업…… 고수온 피해 예방사업 도비 5,400만 원을, 그리고 유해생물구제사업 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도비, 국비 100%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선박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태풍피해 현지조사로 인해 어업지도선 출항 증가로 인해 유류구입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인 전북 소비축진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0%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수온 피해예방 지원사업이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고수온 피해예방 지원사업 도비 5,000만 원은 액화산소 지원사업이고요. 그래서 kg당 275원 해가지고 490톤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액화산소통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전액 100% 사업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1억 4,000인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09분부터 15시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 총괄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회 추경예산은 115억 3,140만 3,000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2억 4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13억 2,7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으로 실종노인 배회감지기 구입비 112만 원. 다음에는 376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지원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8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보건의료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77억 7,996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278억 8,226만 4,000원 대비 1억 230만 원이 감

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민간 위탁사업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9,000원을 감액하여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청산과 소안 하수처리장이 당초 계획과 달리 공사 준공이 좀 늦어져서 위탁관리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소장님, 9,000원이 아니고 9,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9000만 원으로 바꾸십시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안녕하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3,699만 4,000원이 증가된 27억 5,776만 5,000원입니다. 기념관 주변시설 관리 및 정비사업비에 완도장도 목교 보수 및 보수공사 성립전 예산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담당관 김영균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김영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제안사업설명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존예산 23억 5,266만 원에서 1억 4,609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656만 2,000원입니다. 먼저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 임대구입과 임대농업기계 세차장비 구입 706만 원하고 해서 총 5,5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1,2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꽃묘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꽃묘 육성 온실 난방유류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시험포장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화 향연개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편성목 시설비에 국화 육성용 하우스 신축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사업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기관 토양검정실 운영은 383만 원은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83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7만 6,5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경종합검정실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8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 반운영비에 편성목 공공운영비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수리 및 부품교체 210만 원을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사업 토 양검정 재료비에 109만 8,000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 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에 안정생산 시범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 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은 생략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 나왔어요?

(“간담회가 방금 끝나가지고 달려오고 있거든요.”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잠깐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 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이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진다고 합니다.

(「여건에 맞춰서……」 하는 위원 있음)

여건에 맞춰갑시다.

(「10분 정회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 음)

10분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41분부터 15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 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 니다.

예산액은 18억 6,893만 2,000원이 되겠 습니다. 289페이지 감한 사항이니까 생략하 고요. 298페이지도 감한 사항이니까 생략을 하고…… 감한 사항이 아니고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도 목 변경하고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에서 2,22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1~2월 한파 농작물 피해 추가복구비 성립전으로 3,510만 원이 되겠 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경영안정대책비에 서 육묘용 상토 공급이 3억 되겠습니다. 민 간경상……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으로 7억 7,1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에서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에서 4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에 1 억 9,3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논 타 작물 차액지원해서 1,72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콩 재배단지 전용 수 확기 지원에서 4,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도 감된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서 414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감한 사항입니다. 298페이지,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서 6,188만 원이 되겠습니 다. 299페이지, 재료비에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성립전, 여름 그 피해 때 성립 전이고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지원 사업 성립 전으로 해서 1억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2,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예산입니다. 국고 반환금에서 2017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4,4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사업에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2014년 친환경기능성농산물 생산유통인프라 구축사업 회수금이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2억 4,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2016년 친환경 조성사업비에서 반환금이 2,16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298페이지요, 조사료 운송비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우리 군비 5,7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그것이 당초에 도비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기존에 논 타작물에 대해서 조사료를 심었습니다.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수확을 많이 했는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군비를 좀 추가해서…… 그 농가들이 수확을 다 해버린 상태인데 국도비가 당초에 적게 내려와 가지고 군비를 추가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해년마다 내려오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타작물로 해가지

고 한 조사료입니다.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조사료를…… 그것은 올해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 박인철 위원

타작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벼를 안 심고요, 논에 벼를 안 심고, 조사료를 심어가지고 하는데 기계장비로 해가지고……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기록중지)

(16시18분 기록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할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수산경영과장 이기석입니다.

전북 소비촉진 홍보마케팅 지원사업비 성립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고요. 지금 전북가격이 추석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최근에 전북가격이 20미 기준으로 해가지고 2만 6,000원, 7,000원 갔다가 또 2만 5,000원 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전북산업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마는 전북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12월 7일로 남악신도시 롯데아웃렛 광장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성립전 예산승인을…… 예산부서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수산경영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통계과목에 보시다시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1차적으로 노화읍 청년회에다가 교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노화 청년회에다가 이런 많은 돈의 예산을 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런 것을 하려면 서울에서나 그런 데에서 해야지 목포에서 2억을 가지고…… 아무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도비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 도비가 아

니라 국비, 뭘 비가 되더라도 군에 들어오는 예산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돈 2억을, 도비를 가져다가……

좋아요, 촉진하는 것은.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봐보십시오.

(자료를 들며)

이렇게 날아 왔어요. 오늘 날아 왔어요, 차라리 내일이나 오지.

그리고 노화에다가 하는 것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노화청년회에다가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조승호 팀장의 부연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 박인철 위원

예.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이것이 도 추경에 한 10월 중순경에…… 이 돈이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이 돈을 쓰게 된 횡수는 이번 12월 7일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목포에서 1차로하고, 다음에 소비촉진이 둔화된 지역, 대구라든가 충청도라든가. 그래서 내년 11월까지 한 4내지 5회를 나누어서 개최함과 동시에, 거기서 한 20% 정도, 4,000만 원 정도를 홍보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노화청년회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도에서 예산을 줄 때 노화청년회로 주라고 못을 박았는데,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지난번에 그 예산이 내려온 동기는 노화읍 청년회에서 도에다가 좀 건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아마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당초는

더 소액이었습니다마는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2억을 주면서 계속,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전복이 가격이 떨어질 때 한 3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소비촉진 홍보를 해가지고 금년까지 그렇게 어려움이 없게…… 해결할 목적으로 이번에 왔습니다.

□ 박인철 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오늘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료를 들며)

방금 각 의원들한테 도착했어요. 이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노화에서는…… 이것이 애당초 남악 아웃렛이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시구까지 하면서 한다고 노화에는 그렇게 소문이 다 나가지고, 노화사람들이 “이것 군비냐, 뭐냐?” 라고 하니까 나는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최소한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의회에 와가지고 과장님이 됐든 단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모른다니까.

도에서 왔어, 그런데 의회에서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불용 처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 다시 올려 보낼 것입니까.

의회에 자꾸 뭐 군수님이 간부회의를 하면서 의원들 뭐하라고 한다지만, 이런 것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귀가 커서 듣는지는 몰라도 내가 들어도 내가 대답도 못해주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성립전도 아니고, 지금 이 예산 안 썼을 것 아닙니까.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지금 집행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데 왜 성립전이라고 해놨어요, 쓴 것 처럼?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현재 행사가 조기집행…… 내일 모레까지는 성립전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이것을 못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이 됩니까. 우리도 알아야 면장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전혀…… 군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상생하는 의회에서는 전혀 이런 건을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은 알아가지고 군에 돈도 많다고 무슨 돈을 2억이나 줘가지고, 노화청년회עד가 줘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의회에 올라온 것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로만 도에서…… 도의원이 이야기해 가지고 받은 것은 알아요, 이 건을, 노화청년회 쪽으로 해가지고 한 것도 알고, 그렇게 듣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담당 과에서 와가지고 간담회 때나 아니면 그냥 수시로 와가지고 이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라고 그 정도로는 말을 할 것 아닙니까, 바보가 안 되고.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도도 급하게 추정예산에 확보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 설명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삭감해 버리면?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어차피 그대로 반납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 좀 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도 사업이고 국비사업이고, 뭐 군특사업이 됐든 간에.

이것도 그러거니와 아까 침에 땀니까. 해양바이오센터에, 그 7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도 설명 안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 안하고 넘어가 버리던데.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때 해양바이오센터, 거기에서 와가지고 음료수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 이야기고.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도 의회에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서로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며)

이것은 무지하게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이 주는 사업이라도 의회에 와서 통과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센스 있게 하려면 예산이 통과되고 보 내줬으면 달할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은 이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책을. 안 그러면 진짜 예산하기 전에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써 버렸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에서 때마침 온 것도 아니고 오늘 딱 하고 있는데 왔어요.

□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듣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과장님이 의회에서 근무했으니까 의회를 어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 많이 찾아오십시오, 바쁘더라도. 그러면 그냥 이런 것 쉽게 대화가 나뉘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미리 이야기를 해줘도 좋은 것이고. 우리도 알아야 어디 가서 면장을 할 것 아닙니까. 노화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의회 9명만 모르고 있으면 의회 9명은 바보가 되어 버리지. 너희는 뭐하냐고 하면서……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듣는 여건들이…… 당연히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국단장들의 미흡한 부분이 좀 보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내일 정확하게 삽입시켜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전혀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모든 여건들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최종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충질의를 들었습니다마는 삭감대상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4호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이 범 성
허 궁 희
우 성 자
박 재 선
김 재 홍
박 인 철
김 양 훈
최 정 욱

□ 출석 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최창주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기술담당관 김영준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전문위원 추관호
의사팀장 이양일
주무관 김상균
주무관 정현중
속기사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김 양 훈		
의 원	김 재 홍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2018年度 莞島郡議會 會議錄

2019. 08. . 인쇄

2019. 09. . 발행

발행 : 완도군의회

인쇄 : 완도신문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TEL. 061)550-5900 FAX. 061)550-8853

비매품

